

# 인제지역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자료집



인제지역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자료집



인제문화원

인제문화원

인제지역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자료집



# 인제지역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자료집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慶尚北道星州郡龍山面書院  
 慶尚北道奉化郡春陽面縣洞  
 慶尚北道同郡若木面若木  
 慶尚北道漆川郡巴彌面  
 京畿道振威郡丙坡面  
 平安南道江西郡江西  
 江西道麟蹄郡麟蹄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慶尚北道星州郡龍山面書院  
 慶尚北道奉化郡春陽面縣洞  
 慶尚北道同郡若木面若木  
 慶尚北道漆川郡巴彌面  
 京畿道振威郡丙坡面  
 平安南道江西郡江西  
 江西道麟蹄郡麟蹄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慶尚北道星州郡龍山面書院  
 慶尚北道奉化郡春陽面縣洞  
 慶尚北道同郡若木面若木  
 慶尚北道漆川郡巴彌面  
 京畿道振威郡丙坡面  
 平安南道江西郡江西  
 江西道麟蹄郡麟蹄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慶尚北道星州郡龍山面書院  
 慶尚北道奉化郡春陽面縣洞  
 慶尚北道同郡若木面若木  
 慶尚北道漆川郡巴彌面  
 京畿道振威郡丙坡面  
 平安南道江西郡江西  
 江西道麟蹄郡麟蹄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慶尚北道星州郡龍山面書院  
 慶尚北道奉化郡春陽面縣洞  
 慶尚北道同郡若木面若木  
 慶尚北道漆川郡巴彌面  
 京畿道振威郡丙坡面  
 平安南道江西郡江西  
 江西道麟蹄郡麟蹄

朝鮮總督 伯爵寺內正毅  
 慶尚北道星州郡龍山面書院  
 慶尚北道奉化郡春陽面縣洞  
 慶尚北道同郡若木面若木  
 慶尚北道漆川郡巴彌面  
 京畿道振威郡丙坡面  
 平安南道江西郡江西  
 江西道麟蹄郡麟蹄

光榮의徵兵檢査는 10  
 全鮮에徵募區設置  
 十月一日부터實施決定



## 발간사

---

시사적인 신문기사는 시대 분위기와 사회상,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어 특히 근대사 연구의 2차 자료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강점기 인제 지역 사람들의 생활사와 사회상을 시대순으로 하여 흐름과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대 발간된 신문기사를 통하여 짚어볼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오늘을 사는 현대와 멀지 않은 시기이기에 누구나 다 알고있는 역사로 간주하여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제지역에서 일제강점기에 전개되었던 실상이 빠르게 잊혀져 가고 있으며, 방증할 자료는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너무 쉽게 소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인제지역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자료집》은 양적인 면에서 예상한 것 이상으로 무척 풍부합니다. 자료집에 실린 신문기사 한건한건 마주하다보면 1920년대 마을마다 지역청년회가 결성되어 빈곤한 계층 자녀를 위해 사비를 털어 야학강좌를 열고, 일찌감치 우리 지역에 설립된 사립 정의여학교와 태원학당,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 등 어두운 식민 치하에서도 주권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장하였던 선각자들의 자취가 담겨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참혹한 수해의 광경은 현지 취재 기사로 실려있고 굶주림을 대책없이 견디며 질병에 시달리다가 살길을 찾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연, 갖가지 형태의 사건 사고를 담은 기사를 통하여 당시 삶의 환경과 생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제의 명소인 백담사와 목기 제조, 특산물 꿀 등에 얽힌 이야기와 학교와 도로 개설을 위한 희생, 일제말기에 이르러서는 착취에 동원하기 위한 신문기사 일색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볼 수 있는 등 인제지역에서 켜켜이 쌓인 일제강점기 생활사가 신문기사에 녹아 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오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제강점기 자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전기간에 걸쳐 실린 기사자료는 그동안 근대사 실상을 방증하는 자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인제지역 실상을 재조명하고, 근대사 연구와 관심을 촉진하는데도 요긴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풍부한 신문기사 자료 속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자산과 인물은 발굴하고 활용하여 자부심으로 키워하고, 식민잔재로 버려질 것은 과감하게 청산함으로써 역동적인 미래 인제를 열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제지역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인제군과 조사정리해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12

인제문화원장 남덕우

## 자료해제

이 자료집에 실린 옛 신문 기사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인제지역에서 전개된 주요 이슈 전개 과정, 사회상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다. 1,5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각기 다른 신문 기사에는 소재가 된 내용은 물론 기사별 비중과 속보 여부, 적지않은 인명과 장소 등을 통하여 감춰진 사실이나 상황을 추적하여 재조명하는 여지를 준다. 지역에 밀착된 사회사와 생활사를 규명하는 근거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록된 신문기사는 당대 지역사회상을 객관적이고 골고루 대변하고 있는 진실한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기사를 쓴 기자의 관점과 태도, 신문사 성격, 사주 영향, 편집 방향 등에 따라 허위 보도, 축소 보도, 과장 보도, 오보 등 얼마든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일제와 투쟁하였던 ‘의병’이 신문 기사에서는 ‘폭도’, ‘수괴’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특히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는 연도를 ‘일본 황기’로 표기하는 등 관제언론의 산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 자료를 비판 활용한다면 일제강점기 인제지역사에 깊이를 더하고 재해석을 가하면서 지평을 넓히기에 충분하다.

이 자료집에는 일제강점기에 한글로 발행된 신문 중 『독립신문』, 『신한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의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에서 인제지역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현대문으로 풀었는데 줄잡아 1,500건에 이른다. 주로 검색에 의해 발췌 정리하였기에 누락된 기사도 적지않을 것이다.

우선 당시 보도된 신문 기사를 통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분들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으며 폭도로 규정하여 처형하거나 투옥한 사실을 신문 기사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1907~1908년 강원도 내 및 경기 황해도 3도에 걸쳐 활동한 의병장 연기우와 그 부친 연성한이 무장한 채 활동하다 1914년 6월 14일 춘천헌병대 인제분대 창암점과 견소에서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1914년 6월 23일자 2면 매일신보) 매일신보 1916년 9월 29일자 3면에 ‘폭도괴수 사형’이라는 제목으로 인제군 기린면 사동 출생 김종철(당시 37세) 의병장에 관한 기사는 여러번 보도되었다. 김종철은 경북 봉화에서 거주하여 경북출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신문 기사를 통해 김종철이 인제 출생이며, 김종환 김광옥 등의 이명을 쓰며 한말 의병투쟁한 것은 물론 1910년 음력 3월 10일 의병활동을 밀고한 인제군 군내면 소한리 면장 김시원과 당시 친일파로 유명한 일진지회당 인제면 서리 엄윤문을 처단하는 등 20여회에 걸쳐 활동한 사실이 소개되었다. 김종철은 원주 출신 김종근과 함께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니 기각돼 순국하였으며 김종철과 함께 활동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출신 김원실(당시 43세)은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 (1916년 12월 2일 3면 매일신보 보도)

인제지역에서 전개된 3.1독립운동 관련 기사는 국내 신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 1919년 7월 3일자 2면 ‘내지 독립단 소식’에서 인제지역에서 5월 9일에 군중 수천명이 모여 대

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격렬한 독립연설이 있었는데 읍중으로 들어오다가 일본수비병과 충돌되어 다수의 인원이 살상하였는데 거의 천도교도라고 보도하였다.

1920년대 들어 마을마다 청년회가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인제청년회, 성신청년회, 삼화청년회 등. 일부는 민족적 의지가 강한 결사체였으며, 일부는 마을 유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일제통치에 조력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1924년 발족한 인제 광성청년회는 창립 5주년 기념사업으로 1929년 2월 25일 대강연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경찰당국에서 돌연 중지해 무산되기도 하였다. (1929년 3월 2일 4면 동아일보) 인제 합강리에 있는 삼화청년회는 정초를 이용하여 지방 발전을 목적으로 동리에서 소인극을 개최하였다. (1929년 3월 2일 4면 동아일보)

인제의 명소 백담사와 관련된 기사도 눈에 띈다. 1915년 12월 19일 밤11시 30분 백담사에서 불이 났으나 바람이 몹시 불고 또는 물이 얼어붙어 진화를 제때 못해 건축물 7칸 170평을 태워버리고 이튿날 오전6시에 진화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원인은 실화라 하며 손해액은 건축물 불상 기구 집물 등을 아울러 약 1,193만원에 달하였고 인축 사상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없었다고 한다. (1915년 12월 26일 3면 매일신보) 백담사 승려인 독립운동가 한용운이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검거됐다는 기사(1926년 6월 9일 2면 동아일보)와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 인제꿀은 특히 백담사 꿀이 유명해 '설악산 백담사동양봉조합' 이 일제감치 조직돼 조합원이 30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1929년 1월 1일 동아일보 3면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인제 봉밀은 자고로 강원도에서 명성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백담동에서 산출되는 백담봉밀은 그 품질이 타에 비교할 수 없다'고 거듭 소개되고 있다. (1929년 3월 24일 4면 동아일보)

언론매체의 특성상 살인강도 등 갖가지 사건 사고 및 폭우 가뭄 서리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디프테리아와 독감 등 질병 관련 뉴스 등이 심심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1930년 수해와 1936년 수해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1930년 인제읍에 닥친 대홍수 여파로 인한 이재민의 극심한 생활고 관련 기사가 10여 차례 현장 보도와 비중있게 다뤄졌다 (1930년 10월 6일, 10월 8일, 11월 24일 등) 인제지역민을 아예 타시군으로 이주하는 문도 대수해가 발생한 1930년 7~10월에 걸쳐 10여 차례의 신문기사를 통해 논의되었다. 1930년의 대수해 이후 읍내를 평지에서 고지대로 옮기게 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인제읍내를 고지대로 옮기는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 발생에 대하여 1932년 2월 17일자에 보도되었다.

기근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 인제를 떠나 외지로 떠돌거나 이주한 광경이 여러차례 보도되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화전민 관련 뉴스. 화전민은 인제군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1929년 2월 당시 화전민은 3천호에 인구 15,000명으로 화전민 구제사업으로 (1929년 2월 7일 4면 동아일보) 구제사업으로 인제군 남면 갑둔리와 북면에서 참나무 목탄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 화전민 관련기사는 1929년 2월 7일, 11월 18일, 1930년 12월 21일, 1931년 11월 25일과 12월 4일, 12월 9일 등에 걸쳐 연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심각성을 보여준다. 동아일보 1932년 4월 15일 7면 '기근민은 어디로!'제하의 기사에 빈집만 350호이고 500여호 7,000명의 인구가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생 700명 중 600명이 교육

비를 체납 상태라고 시급한 구제금 지원을 호소하고있다. 1940년 7월 23일자에 의하면 아직도 화전민 1,000여명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1929년 4월 인제 북면 일대에 독감이 창궐해 이삼일 사이에 7, 8인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환자는 500여명에 달하여 인심이 극도로 흉흉하다고 전하고 있다.

목재와 임산물 수입이 풍부한 인제군에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이 유명하다고 한다. 울창한 숲을 보유한 인제에서는 1914년 3월 21일 4면 매일신보에 ‘용대리에서 2월 26일 큰곰 1마리를 포획하였는데 3월 1일 같은 동리에서 40관여 크기의 곰 1마리를 포획한 일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인제는 목재가 좋아 국유림 나무를 몰래 베어 나무그릇을 만들다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1915년 7월 16일 3면 매일신보)

인제 식민지 치하를 극복하기 위해 문맹 퇴치와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 조직, 무산 아동을 위한 야학의 설치가 활발했다. 1929년 1월 17일과 19일, 22일 연속 보도되고 있다. 경제력이 없어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자녀를 우리 손으로 경영하는 유일한 교육기관 태원학교 살리기 운동이 있었다. 입학아동이 줄어든 것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못보내는 것으로 이 같은 사정이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대폭 눈에 띈다. (1929년 4월 4일자, 5일자 1930년 3월 28일자 1931년 2월 22일자와 12월 2일자 1932년 1월 20일자) 인제 태원학당에서 입학아동 감소로 수업료를 폐지했다는 기사가 동아일보 1929년 4월 4일자 4면, 4월 5일자 3면 중외일보에 나란히 보도되었다. ‘인제군 북면에 있는 우리 손으로 경영하는 유일한 교육기관 태원학당은 1925년 4월에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개 정상동안 유지 곤란에 갖은 파란곡절을 거듭하면서 지방자녀교육에 대대한 공헌이 있었다며 입학이 정원에 미달하자 수업료를 전폐하고 면에서 부담기로 했다는 것이다. 곧 원지리 소재 논 3,800여평을 공동경작하여 벼 70석 산액 350원과 각리 소재 전답 소작료 200원, 본면내 거주자 1,000호에 채종대 350원, 주재소 숙사 및 사무실 임차료 200원, 서호 도선세 90원 합 1,190원을 구하여 충당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다는 내용이다.

특히 인제지역에는 1910년대 초 일찌감치 설립된 여학교가 있었다. 바로 미남감리회에서 경영한 정의여학당으로 이후 정의여학교로 개칭했는데, 인제지역 문화공연교육의 공간으로 사랑받았다. 인제 출신 재경유학생학생회에서 1924년 여름방학을 맞아 정의여학당 내에서 소인극을 개최하여 서부지역 수해 구제금을 마련하였다. (1924년 10월 5일 3면 동아일보) 음악모임인 연악회가 있어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정의여학교에서 열었던 것이다. 공적인 자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 관련 기사로 눈길을 끄는 것은 이혼소송기사이다. 인제군 군내면 상동리 사는 이근 이란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 입적시키고 술 판매와 성매매를 강제로 시키자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1916년 12월 13일 3면 매일신보)

자동차 개통과 폭넓은 도로 개설은 인제지역 현안으로 주로 인제~춘천, 인제~양양, 인제~거진, 인제~고성 간 도로 개설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민 부담으로 필요비용을 먼저 모으고, 공사 부역에 참가하는

고된 노동을 통하여 조금씩 완성해갈 수 있었다. 그 결과 인제~춘천간 자동차 개통 예정이라는 기사가 1926년 9월 19일자 4면 동아일보에 실렸다.

신문의 특성상 강력 사건, 사고 기사가 실려 당시 사회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대수해를 겪은 이듬해인 31년엔 가뭄으로 21,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대기근에 처하자 강도가 급증하였다. 조흔이 낳은 범 죄는 1930년대에도 이어졌다. 범인이 옥중에서 출산한 사연도 실렸다. 일본이 금융조합은 부채를 늘리는데 일조하였다. 농민들이 금융조합 부채로 1가구당 120원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1931년12월 1일 보도) 일제는 '갱생부락운동'을 벌여 일본어 교육을 통한 문맹 퇴치, 축우의 사육, 모내기 방법 개선, 저축 장려, 누에치기, 면직 생산 등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했으나 결국은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자원 생산에 이용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려움을 겪자 농민들의 어려움은 소장쟁의로 표출됐다. (1937년 11월 9일, 12월 3일)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신문기사도 간간이 등장하였던 일상생활 관련 뉴스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각종 전쟁 동원과 착취를 독려하는 내용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일선 면장회의에서의 시달사항, 농사작황 통계, 군인 지원과 위문대, 전쟁비용 현금품 기사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일제 착취 정책에 옹호하며 노골적으로 앞장선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화천 양구 인제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3개 지역의 연합 스포츠행사가 개최하는 등 지역적 친연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27년 9월 17일 4면과 10월 1일자 4면 기사에 '3군 연합 정구' 제하 기사에서 9월 24일 양구청년회 주최 양구 인제 화천 3군 연합 정구대회를 사전 예고와 개최 직후 기사로 관심 있게 다뤘다. 24일 오전10시 양구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열린 경기에서 양구 대 인제 경기에서 양구가 승리했으며 양구 대 화천 경기에서는 1대 2로 화천군이 석패했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군 명칭 개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1930년 12월 21일자 기사에 인제군 내면을 흥천에 편입하고 1931년 5월 21일엔 인제군을 중흥군으로 개칭하자는 청원이 있기도 하였다. 주로 인제지역 공직자를 중심으로 연서하여 조선총독부에 진정했는데 그 이유는 '인제는 어떤 전설상의 인연으로 명명한 것이나 아주 산간벽지와 같은 언어적 감각을 주기 때문에 지방 발전상 비상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중흥군'으로 개칭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없다. (1931년 5월 21일 3면 매일신보 인제군을 중흥군으로 개칭하라 청원)

'수양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 악풍을 개선자는 글이 1932년 12월 26일자에 실리고 읍시가지 이전 및 화전민 문제 등 현안과 쟁점, 모순 해결을 위한 의견이 신문에 개진되었다. 당시 활동한 지국장, 기자 등은 대체로 짧은 기간 활동하고있어 여러 인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동아일보 인제지국장으로 활동한 남천우는 흥천 모곡학교 십자가당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검거되기 직전 인제지역 변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과 제언을 펴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 일러두기

---

자료시기 | 1910~1945년

자료신문 | 『독립신문』, 『신한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

표기법 | 수록연도-월-일-면-단 신문명 제목순으로 하였다.

가능한 원문을 살리되 어려운 한자어 현대문으로 풀었다.

이름은 한글로 고쳤다.

오류가 확인된 부분은 수정하고 표기하였다.

## Contents

---

발간사

자료해제

### I

1910-1919 ..... 13

### II

1920-1929 ..... 35

### III

1930-1939 ..... 101

### IV

1940-1945 ..... 473



# I

1910 - 1919년 인제신문

○教堂新築協議 麟蹄郡에在  
호耶蘇自由教徒는京城本教會  
와合同하기爲호야同敎牧師崔  
鳳煥氏를紹介호야更히組織中  
이며平壤郡同敎牧師姜根明金  
永祚氏等은該郡에教堂을新建  
築호次로目下協議中이라더라



1910-09-20-02-07

### 매일신보

#### 교당 신축 협의

인제군에 있는 기독교자유교도는 서울본교회와 합동하기 위하여 같은 교 목사 최봉환씨를 소개하여 다시 조직 중이며 평양군 같은 교 목사 강근명, 김영조씨 등은 인제군에 교당을 새로 건축할 차로 바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한다.

○教堂新築協議 麟蹄郡에 在 哈 耶蘇自由教徒 京城本教會 外合同 寺기爲 寺야 同 敎牧師 崔 鳳煥氏를 紹介 寺야 更히 組織 中 이며 平壤郡 同 敎牧師 姜根明 金 永祚氏等은 該郡에 敎堂을 新 築 爲 次 目下 協議 中 이라 더라

1910-10-04-02-04

### 매일신보

#### 권고 귀향

강원도 인제군 전 주사 박연식씨의 아들 내원씨는 지방위원으로 어떤 이유로 서울로 갔는지 주색에 방탕하여 거주가 분명치 않으며 필경 타인에 오랫동안 쌓인 빚에 곤욕이 막심하므로 박씨의 전일 동문 이던 주원옥씨가 두루마기와 시계와 현금 몇원을 빌려주고 귀향하기를 힘써 권유하였으나 끝내 듣지않고 언제나 여전하므로 장차 소관 경찰서에 청원하여 기어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고 한다.

○勸告歸鄉 江原道麟蹄郡前 主事 朴演植氏의 令馬來遠氏는 該地方委員으로 因何 上京이든 지 酒色에 宕逸 寺야 居住가 未詳 矣며 畢竟 他人 積債에 困辱이 甚 甚 矣 朱元玉氏가 周衣 時計와 及 幾 圖 金을 借給 寺고 歸鄉 寺기 爲 力 勸 寺되 終乃 不聽 寺고 一向 如前 寺으로 將次 所管 警察署에 請願 寺야 期於 還鄉케 寺려 爲 事 矣 더라

1911-10-06-02-06

### 매일신보

#### 인제의 농형 풍양

강원도 인제군 지방은 초여름 이래로 기후가 순조하여 일반농작물의 발육이 양호하므로 평년작에 비하면 약 30%를 더 거두어들임에 이르렀으므로 농민은 환희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麟蹄의 農形 豐穰 江原道麟蹄 郡地方은 初夏以來 氣候가 順調 寺야 一般 農作物의 發育이 良好 寺으로 平年 作에 比 寺면 約 三割을 增 收 寺에 至 寺았 습으로 農民은 歡喜 寺는 貌樣 이라 더라

1911-12-14-01-03

### 매일신보

#### 한씨 부자의 자선

양양군 강선리 사는 한진동씨는 원래 지덕이 겸비한 신사인데 작년 영동 굶주리는 시기에 같은 마을 동포의 곤궁이 심하므로 한씨가 매 호에 백미 소미 각 1되씩과 기타 소고기 등을 나눠 대접하여 구조하였으므로 총독부에서 목배를 하사하여 포상하였고 한씨의 둘째아들 태우씨는 현재 인제군 기린면 면장인데 역시 수백원을 염출하여 기린면 궁민을 구조하였다고 한다.

▲韓氏父子의 慈善 襄陽郡降仙里居韓震 東氏는 元來 智德이 兼有 寺紳士인 디 昨年 嶺 東 歉荒之 時에 該洞 同胞의 困窮이 甚矣 故 該氏가 每戶에 白米 小米 各一斗 式과 其他 牛 肉等을 頒饋 救助 寺았 습으로 總督府에서 木 杯를 下賜 寺야 褒賞 寺았 습고 韓氏의 第二子 泰 恩氏는 現今 麟蹄郡 麒麟面 面長인 디 亦是 數 百圓을 捐出 寺야 該面 窮民을 救助 寺았 습 矣 더라

1912-01-01-10-01

### 매일신보

#### 조선총독부고시 제385호

좌기 우편국에서 1912년 1월 1일부터 전신사무 및 전화통화 사무를 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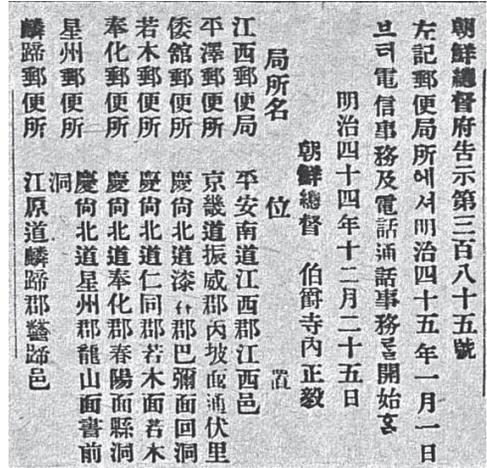
1911년 12월 25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

소속명 위치

(중략)

인제우편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1912-01-01-10-04

### 매일신보

#### 조선총독부고시 제3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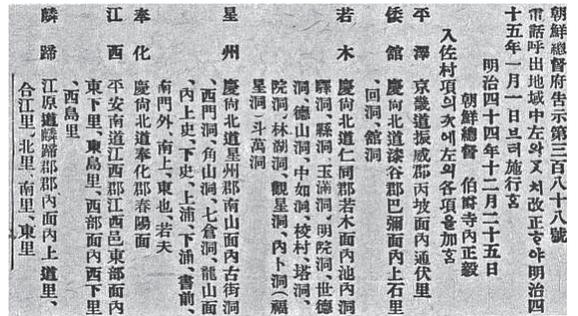
전화호출지역 중 좌와 같이 개정하여 19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1911년 12월 25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

(중략)

인제 강원도 인제군 군내면내 상도리, 합강리, 북리, 남리, 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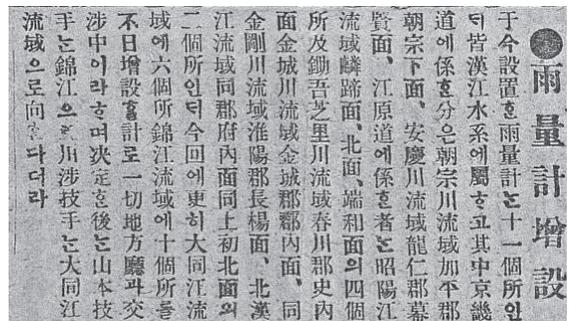


1912-01-27-02-06

### 매일신보

#### 우량계 증설

이번에 설치한 우량계는 11개소인데 모두 한강 수계에 속하고 그 중 경기도에 분담한 분은 조종천 유역 가평군 조종하면, 안경천 유역 용인군 모현면, 강원도에 분담한 것은 소양강 유역 인제면, 북면, 서화면의 4개소 및 서오지리천 유역 춘천군 사내면, 금성천 유역 회양군 장사면, 북한강 유역 회양군 부내면, 회양군 초북면의 2개소인데 이번에 다시 대동강 유역에 6개소 금강 유역에 10개소를 머지않아 증설할 계획으로 일체 지방청과 교섭중이라 하며 결정한 후는 산본 기수는 금강으로, 천보 기수는 대동강 유역으로 향한다고 한다.



1912-02-16-03-01

### 매일신보

#### 조선총독부고시 제35호

1911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289호 제1항 중 좌와 같이 추가하여 2월 16일부터 시행함

1912년 2월 14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

구역 1통화시의 통화료 1회의 전화호출료

(중략)

인제 원주간의 다음에

횡성원주간	금15전	금10전
횡성홍천간	금15전	금10전
횡성춘천간	금30원	금15전
횡성양구간	금30원	금15전
횡성인제간	금30원	금15전

1912-03-02-04-01

### 매일신보

#### 13도 군명가(3등) ▲강원도(26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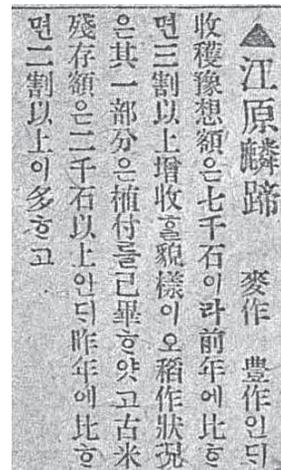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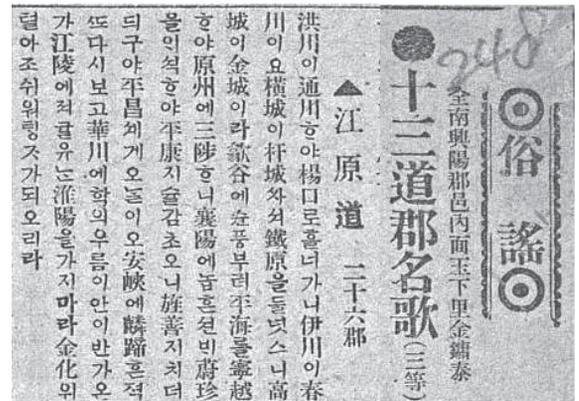
홍천이 통천하여 양구로 흘러가니 이천이 춘천이요 횡성이 간성에서 철원을 들렀으니 고성이 금성이라. 흡곡에 순풍불어 평해를 영월하여 원주에 삼척하니 양양에 높은 선배 울진을 애석하여 평강지술 감추오니 정선지치 더디구야 평창세계 오늘이오 안협에 인제 흔적 또다시 보고 화천에 학의 울음이 아니 반가운가. 강릉에 저 굴유는 회양을 가지마라 김화위철 아주 쉬워 탕자가 되오리라.

1912-07-06-02-02

### 매일신보

#### 강원 인제

보리농사 풍작인데 수확예상액은 7천석이다. 전년에 비하면 30% 이상 더 거둬들일 모양이요, 벼농사 상황은 그 일부분은 심기를 이미 완료하였고 묵은쌀 잔존액은 2천석 이상인데 작년에 비하면 20% 이상이 많고.



1912-07-18-03-02

### 매일신보

#### 인제군의 풍조 ◀인제군의 풍년 조짐▶

강원도 인제군은 금년에 보리가 풍년이 들어서 작년에 비교하면 대략 3배 이상을 더 수확하였고 또 벼씨의 발육이 양호하므로 일반 인민이 기뻐하는 빛이 있으며 지난번부터 그 고을 서화면 서화리에는 흰 산의 새 한 마리가 발현되었으므로 이것은 풍년될 조짐이라 하며 지금 30년 전 가을에 그곳에서 은빛 같은 새가 발현하여 그 해에도 오곡이 풍년 든 전례가 있으므로 금년에 또한 길조가 있다 하여 농민들이 이야기가 낭자한다고 한다.

1912-07-28-02-07

### 매일신보

#### 강원도의 농황

강원도 인제 평강 지방의 벼농사는 대개 심기를 완료하였는데 작년 보다 심은 면적은 20, 30% 증가하고 일반 발육이 양호하며, 화전 농사는 금회의 강우로 성육이 양호하고 보리와 같은 것은 평년작에 비하면 40% 증수에 이르고 단 감자는 연일 강우로 인하여 거의 반 불량하다고 한다.

1912-07-28-03-01

### 매일신보

#### 인제와 평강 ◀인제 평강의 풍년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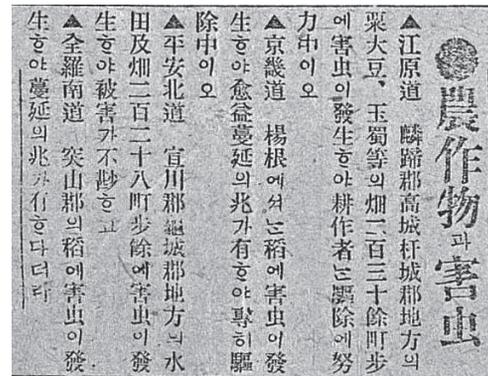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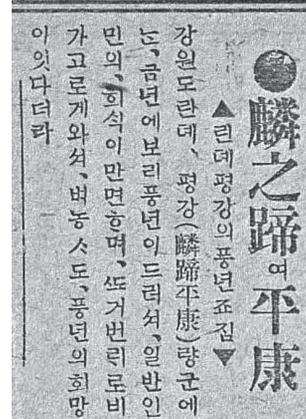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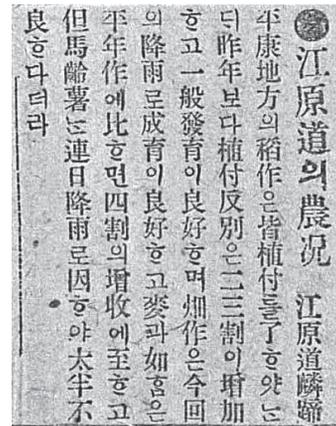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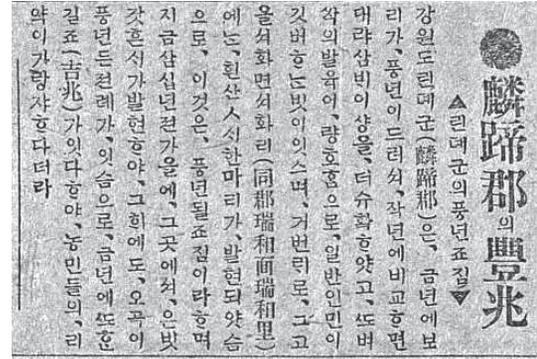
강원도 인제 평강 두 군에는 금년에 보리풍년이 들어서 일반인민의 희색이 만면하며 또 지난번 이래로 비가 고르게 와서 벼농사도 풍년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

1912-08-07-02-05

### 매일신보

#### 농작물과 해충

▲강원도 인제군 고성 간성군 지방의 조, 콩, 옥수수 등의 화전 230여 정보에 해충이 발생하여 경작자는 구제에 노력 중이다. (중략)



1912-09-01-01-02

###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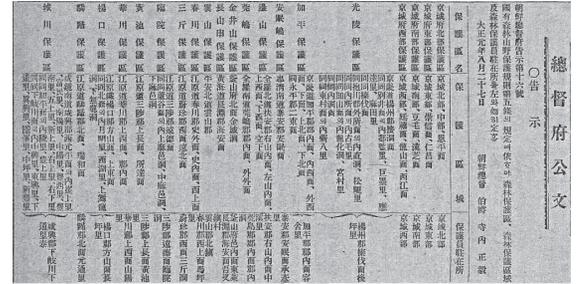
#### 조선총독부고시 제16호

국유삼림산야보호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림보호구, 삼림보호구역, 삼림보호원주재소를 좌와 같이 정함

1912년 8월 27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

보호구명                      보호구역                      보호원주재소  
(중략)

인제보호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서화면   인제군 북면 원통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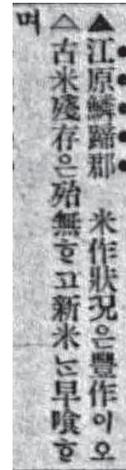


1912-10-23-01-02

### 매일신보

#### 강원도 인제

쌀농사 상황은 풍작이다. 묵은 쌀 잔존은 거의 없고 햅쌀은 먹기에 이르다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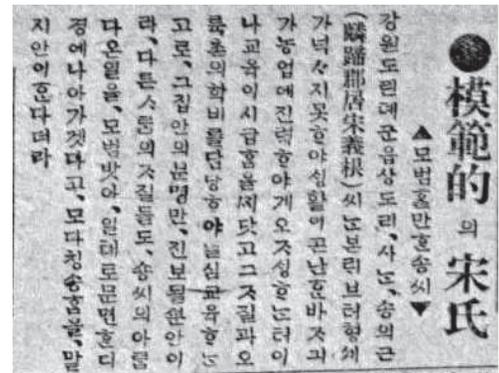


1912-11-29-03-01

### 매일신보

#### 모범적의 송씨 ◀모범할만한 송씨▶

강원도 인제군을 상도리 사는 송의근씨는 본래부터 형세가 넉넉지 못하여 생활이 곤란한데 자기가 농업에 진력하여 겨우 자성하는 정도이나 교육이 시급함을 깨닫고 그 아들 조카와 5, 6촌의 학비를 담당하여 열심히 교육하는 고로 그 집안의 문명만 진보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 조카들도 송씨의 아름다운 일을 모범받아 일체로 문명한 지경에 나아가겠다고 모두 칭송함을 말한다 고 한다.



1912-12-20-02-06

### 매일신보

#### 조선인물관(무순) 목덕으로 왕한 한용식씨

씨는 원래 상(우대)인으로 적빈무의하여 10세 이후로 목공에 종사하여 가까스로 호구지책을 얻었으나 나이 20세가 넘도록 관례를 미성한 고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둥'이라 하였고 30여세에는 마침 북부 경우궁을 건축하는 때를 당하였다. 이 공사를 청부하여 폭리를 득한 후 가세가 점차 부유하므로 목공의 업을 정지하고 이에 목상을 시작하여 강원도 인제군 사는 이시영 등의 별목을 무래하니 적자 덕수궁 건축의 대공사를 또 당하였다. 일반 거제 소재를 모두 씨의 재목으로써 수용하였은 즉 이에서 큰 이익을 획득함은 불어가상이로다. 씨는 어릴 때부터 유주무량이러니 일차 술에 취해 실수한 후로 수십년간을 먹지 않았다가 50세 이후에 다시 먹으니 (중략)



1913-06-13-01-02

### 매일신보

#### 축우예탁 관행 장려

조선에서는 축우 예탁의 관행이 전도에 보급되어, 소를 낳아 파는 집에서 축우를 구입할 자금이 없는 소농에게 축우를 주는 동시에 자기도 그 이익을 얻는 관행은 조선의 지금상태를 보면 축우 증식에 극히 적절한 습관일 뿐 아니라 농업과 축우에 모두 이익이 또 많음으로 이런 이로운 방식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오늘이상의 양호한 효과를 얻을 것이므로, 모처에서는 각지역의 축우 예탁관행을 조사하여 그 장려를 꾀한다는데 조선의 축우 예탁관행은 예로부터 있던 것으로 그 연혁에 대해서는 어느 문헌에도 없는데 지주와 소작인 간에 축우의 대차를 했던 것이 점차 변화 발달하여 오늘의 관행을 만들었음이다. 지금 모처에서 지난 1911년부터 1912년까지 조사한 각도의 다 자란 소와 송아지의 총 마릿수와 예탁마릿수를 보면 왼쪽 표와 같고 예탁이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에서는 양주군 수원 등인데 모두 2천마리 이상에 달하고 양평 장단 개성이 그 다음이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도는 전도에 이어져있는데 그중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이 제일 성황이고 경상북도의 대구, 경주, 영천, 장●, 의성, 안동, 성주, 인동, 상주 등의 군과 경남의 마산부, 함안, 울산, 밀양, 진주군과 황해. 평안남북도 지방이 역시 성행하고, 강원도는 축우의 산지인고로 소를 맡기는 관행이 많은데 울진, 인제, 홍천, 삼척은 예탁우가 축우 총수의 반수 이상을 점하며 철원, 영월, 춘천, 원주 등의 군은 축우 총수의 약 40%를 점하고 함경남도는 장단, 함흥, 갑산, 정평 등 군이며, 함북에서는 무산, 서울, 성진 등 군인데 지금 각도의 축우 마릿수와 예탁 마릿수를 거론하면 좌와 같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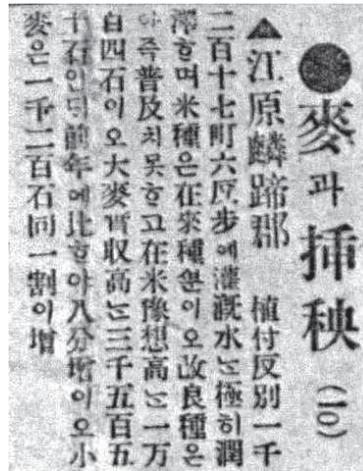


1913-07-15-01-02

### 매일신보

#### 보리와 모내기(10)

강원도 인제군 식부반별 1,217정보 6반보에 관개수는 극히 운택하며 벼 종자는 재래종뿐이요. 개량종은 아직 보급치 못하고 쌀 예상고는 1만104석이요 보리 실수고는 3,550석인데 전년에 비하여 8% 늘었으며 밀은 1,200석 10%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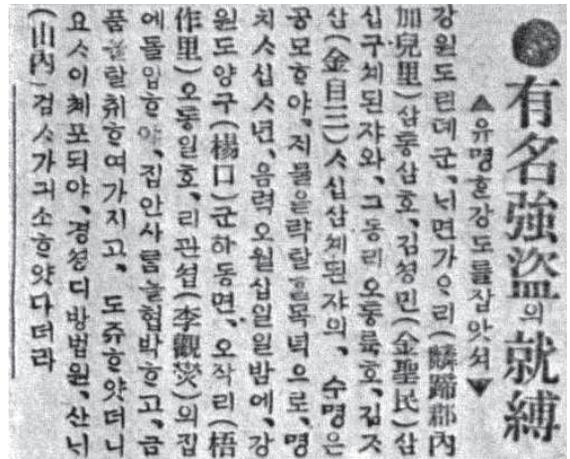


1913-08-01-03-02

### 매일신보

#### 유명 강도의 취박 ◀유명한 강도를 잡아서▶

강원도 인제군 내면 가아리 3통 3호 김성민 39세 된 자와 그 동리 5통 6호 김자삼 43세된 자 의 수명은 공모하여 재물을 약탈할 목적으로 1911년 음력 5월 11일 밤에 강원도 양구군 하동면 오작리 5통 1호 이관섭의 집에 돌입하여 집안사람을 협박하고 금품을 탈취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더니 요사이 체포되어 서울지방법원 산내 검사가 기소하였다고 한다.



1913-11-18-02-06

### 매일신보

#### 북한강 상류 조사

제신국 임시발전수력조사계에서는 2, 3일 중에 안달 기수의 속한 조사반을 북한강의 상류 강원 철원 인제 부근의 수위관측 발전수력 조사로 위하여 파견케 되었는데 우 조사반은 조사지점에서 연말을 지내고 내년까지 조사를 계속한다고 한다.

1913-12-29-03-03

### 매일신보

#### 부군 폐합 발표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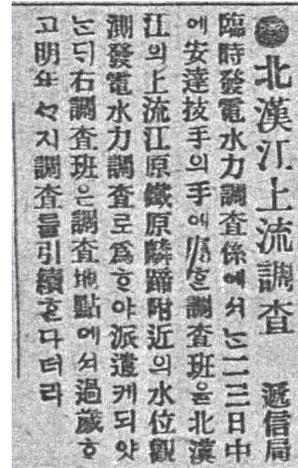
강원도	위치	춘천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이천군	이천	이천군 일원 안협군 일원
간성군	간성	간성군 일원 고성군 일원
김화군	김화	금성군 일원 김화군 일원
철원군	철원	철원군 일원 경기도 상녕군 내문면 인목면 마장면
울진군	울진	울진군 일원 평해군 일원
춘천군	춘천	춘천군 일원
홍천군	홍천	홍천군 일원
횡성군	횡성	횡성군 일원
원주군	원주	원주군 일원
평창군	평창	평창군 일원
영월군	영월	영월군 일원
정선군	정선	정선군 일원
삼척군	삼척	삼척군 일원
강릉군	강릉	강릉군 일원
양양군	양양	양양군 일원
통천군	통천	통천군 일원
회양군	회양	회양군 일원
평강군	평강	평강군 일원
화천군	화천	화천군 일원
양구군	양구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인제	인제군 일원

1914-03-15-03-03

### 매일신보

#### 살인강도의 사형 ◀사람을 둘로 짓바져 죽이고▶ ◀지화 27원을 강탈한 놈▶

강원도 인제군 서북면 서회리에 사는 주덕순 27세 된 자는 작년 음력 8월경에 장사한다 청하고 말 한필을 끌고 집을 떠나 회양군 초북면 한양리 사는 한영필에게 소 한필을 빌어가지고 즉시 다른사람에게 금화 40원에 팔아서 모두 노름에 소비한 후 같은해 음력 9월 29일 양구군 수입면 미이곡에 주막하는 황모 집에서 황해도 신● 사는 잡



殺人強盜死刑  
▲지화 27원을 강탈한 놈▶  
▲사람을 둘로 짓바져 죽이고▶  
강원도 인제군 서북면 서회리에 사는 주덕순 27세 된 자는 작년 음력 8월경에 장사한다 청하고 말 한필을 끌고 집을 떠나 회양군 초북면 한양리 사는 한영필에게 소 한필을 빌어가지고 즉시 다른사람에게 금화 40원에 팔아서 모두 노름에 소비한 후 같은해 음력 9월 29일 양구군 수입면 미이곡에 주막하는 황모 집에서 황해도 신● 사는 잡

화점 하는 박래병이라 하는 자를 만나 서로 인사한 후 꿀을 사기 위하여 두사람이 함께 각처로 돌아다니다가 음력 10월 2일 양구군 삼태동 송방면 등지에서 전기 박래병의 가진 돈을 빼앗을 작정으로 그 산중에서 박모를 죽이고 강탈한 악의로 틈을 보아 앞으로 먼저 가는 박모를 별안간 달려들어 면부를 훔쳐 때리고 또한 상투를 끌어잡고 큼직한 돌덩이를 들어 양미간과 코를 무수히 난타하는 즈음 박모는 마침내 인사불성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생명이 붙어있으므로 또한 인후부를 몹시 때려 흐르는 피는 자연 ●를 이루게 됨에 불쌍히 운 명이 박두한 박래병은 마침내 그 흉독한 놈의 독수에 그만 명이 끊어진지라 이 때 주가는 박모의 가진 돈 1원, 지폐 27매를 강탈한 일이 발각되어 즉시 잡혀 서울지방법원 총원 재판자의 계로 강판사, 삼전 판사가 배석하고 야전 검사의 심리로 원부 서기와 미전 통역생 제씨가 열석 공판한 결과 드디어 강도살인죄로 재직 13일 오전에 사형을 언도하였다고 한다.

1914-03-21-04-03

**매일신보**

**강원도(19일 착) 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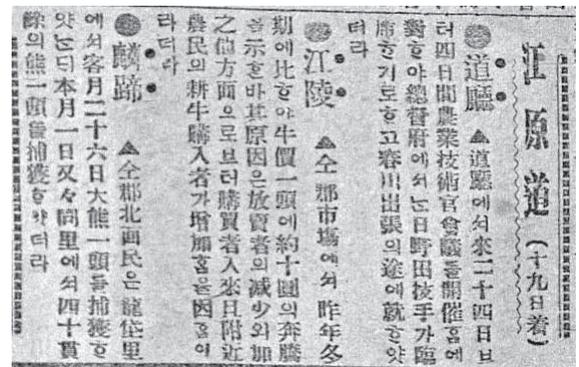
인제군 북면민은 용대리에서 지난달 26일 현재 큰곰 1마리를 포획하였는데 이달 1일 또 같은 동리에서 40관여의 곰 1마리를 포획하였다고 한다.

1914-05-15-03-03

**매일신보**

**강원도의 대산화 ◀강원도의 큰 산화가 일어나▶ ▶장마 지기 전에는 끝수 없어▶**

이달 4일 강원도 간성 북방 마차진으로 부터 불이 일어나 구전동과 가전리에 달한 산화재는 1천여명의 인부로 진화하기에 힘을 쓰니 13일까지 화재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 큰비가 오기 전에는 도저히 진화될 가망이 없다하며 그 소실한 면적과 손해의 가량도 아직 미상하며 13일 모처에 달한 인제헌병대장의 보고를 보건대 대학연습림 부근의 화재는 고성방면 외 민가와 사찰에는 위험이 없으나 불이 점점 북편으로 번져 금강산 유점사에서 대략 50리가량 되는데 까지 미쳤으며 인제방면은 가전리를 중심으로 삼고 세 군데로 연소하여 북편은 고성관내 이르고 서편은 9일 오전8시경에 진화하고 동남방은 상로봉에 연소하는 중이며 각방면에서 모두 불끄기에 진력하나 불이 꺼질 가망이 없고 인제헌병분대 보조원 일동과 및 소방에 진력하는 촌민 한명은 불에 상하였으며 또 13일 춘천서온 전화에는 동일 오전 10시부터 비가 왔으나 한시간만에 곧 그쳤으므로 그 비는 불을 끄지 못하였을 것이요 또 그 지방에는 산림이 많은 즉 그 손해가 다대할 것이라고 한다.



1914-05-16-03-06

매일신보

관동 산화의 후보 ◀강원도 산화는 거의 잡아▶ ◀80리 가량이나 탔다고▶

강원도 간성군 대학연습림 근처의 화재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거니와 그 후의 상황을 들은즉 인제군 서화면 이포리와 대곡리 방면은 전부가 진화되고 고성현병분견소 관내도 진화되었으나 다른 곳은 안개로 하여 자세히 화염을 볼 수 없으며 소실된 면적은 대략 20정보가 되고 길이는 80리에 달하였다고 한다.

1914-06-05-03-05

매일신보

사기꾼이 고아 재산 가로채 ◀남의 집 살림을 맡아가지고▶ ◀주인이 어리다고 막 먹었담▶

서울 서부 사직동 61동5호 전담영업하는 김석주 51살 된 자는 그 아들 김성중이가 용산면 새푸리(사촌리) 재목장사 서준명의 유언을 받아 그 아들 석상규의 후견인이 되어 10여만원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더니 그 후에 김성중이도 불행히 세상을 하직함에 나이가 성인이 안된 석상규는 김성중의 부친 즉 김석주를 태산같이 믿고 온갖 재물거래를 맡겼더니 김석주는 이것을 기회로 알고 불같은 욕심이 일어나 별별 간악한 수단으로 항상 거래가 많던 강원도 인제읍 내리 이치상의 두어명에게 금화 9천수백여원을 속여 먹은 일이 발각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예심 중이더니 요사이 예심을 마치고 공판에 부쳤다고 한다.

1914-06-23-02-04

매일신보

의병장[적괴] 연기우 취박에 이르러

춘천현병대로부터 사령부에 전보한 것을 의거한 즉 6월 14일 인제분대 참암점과견소에서 의병장 연기우 및 연기우의 아버지 연성한을 체포하여 방금 인제분대에서 취조 중인데 연성한은 연기우 됄을 자복하였으나 연기우는 침묵하고 답하지 않으며 17일 밤 이래로 인제읍 동방 약 60리 지방에서 총 2자루를 휴대한 의병도 4명이 배회한다는 풍설이 있으므로 인제분대에서 수색대를 급행케 하였다 하며 연기우는 1907년, 1908년 사이에 때때로 수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경기 강원 황해 3도에 걸쳐 횡폭을 분주하다가 그후 행동이 불명한 자라고 한다.

1914-08-02-02-05

매일신보

강원도

강원도 양양군은 29일 오전2시부터 폭풍우가 있어 농작물의 피해가 다대하며 또 인제군 부근도 다소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 (중략)

●關東山火の後報  
▲강원도 산화는 거의 잡아▼  
▲팔십리가량이나 탔다고▼  
강원도 간성군, 대학연습림 근처의, 화재, 임의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그 후의, 상황은 드른즉, 인제군 서화면 이포리(麟蹄郡瑞和面伊布里)와, 대곡리(大谷里)방면은, 전부가 진화되고, 고성현병분견소관내도, 진화되었으나 다른곳은, 안개로하여, 자세히 화염을 볼수없으며, 소실된면적은, 대략이십정보가되고길이는, 팔십리에달하였더라

●欺人孤兒而騙財  
▲남의 집 살림 맡아가지고▼  
▲주인이 어리다고 막 먹었담▼  
서울 서부 사직동 61동5호 전담영업하는 김석주 51살 된 자는 그 아들 김성중이가 용산면 새푸리(사촌리) 재목장사 서준명의 유언을 받아 그 아들 석상규의 후견인이 되어 10여만원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더니 그 후에 김성중이도 불행히 세상을 하직함에 나이가 성인이 안된 석상규는 김성중의 부친 즉 김석주를 태산같이 믿고 온갖 재물거래를 맡겼더니 김석주는 이것을 기회로 알고 불같은 욕심이 일어나 별별 간악한 수단으로 항상 거래가 많던 강원도 인제읍 내리 이치상의 두어명에게 금화 9천수백여원을 속여 먹은 일이 발각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예심 중이더니 요사이 예심을 마치고 공판에 부쳤다고 한다.

●賊延起羽遂就縛  
春川憲兵隊로브러司令部에來電호바를據호즉六月十四日麟蹄駐隊密岩店派遣所에勿賊延起羽及同人的父延成漢을逮捕호야目下麟蹄分隊에勿取調中인디延成漢은延起羽됨을自服호야스나延起羽은獸而不答호며十七日夜以來로麟蹄邑東方約六十里地方에勿統二柄을携帶호賊徒四名이徘徊호다느風說이잇는故로麟蹄分隊에勿搜索隊을急行케호야다호며延起羽는則治四十年四十一年間에時々로數名の部下를率호야京畿江原黃海三道에跨호야橫暴을逞호다가其後行動이不顯호者이더라

▲江原道 襄陽郡은二十九日午前二時부터暴風雨가有호야農作物의被害가多大호며又麟蹄郡附近도多少의被害가有호야더라  
通川郡々內面西里의道路에三十日落雷가有호야即死一負傷二全面中里에家屋半燒一戶와畜牛一頭가慘死호야더라

1915-04-20-02-02

### 매일신보

#### 토지조사 고시

지난 19일 관보로써 좌기 각군의 토지조사를 개시한다는데 해당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좌기 기간 내에 신고서를 조제하여 임시 토지조사국 또는 출장한 당해 관리에 제출할 뜻으로 고시하였다고 한다.

- ▲전남 장성군(1915년 4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 ▲강원 인제군(1915년 4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 ▲황해 서흥군(1915년 4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915-07-16-03-05

### 매일신보

#### 국유림을 도벌하고 검사의 공소

강원도 인제군 양북면 가전리 사는 최중심(52) 강원도 양양군 관북면 어성리 사는 홍내현(32) 2명은 동리 사는 김모라 하는 자에게 국유산림을 도벌하여써 나무 그릇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리 소송곡이라는 국유산림에 가서 그 중 큰 솔나무 20개를 몰래 베어 나무그릇을 제조한 일이 탄로되어 춘천지청에서 불기 30씩에 처하였더니 이자들은 불복치 않았으나 그 지청 천기검사는 그 판결이 가볍다 하여 증좌에 처하여 달라고 서울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고 한다.

1915-07-30-02-06

### 매일신보

#### 강원 인제군 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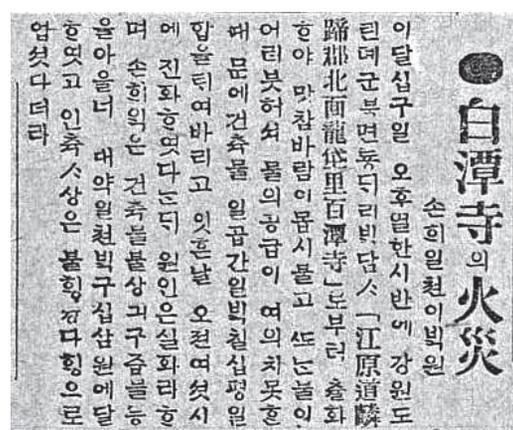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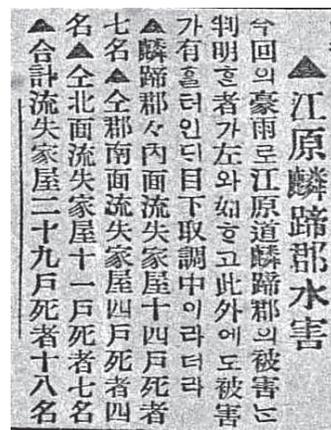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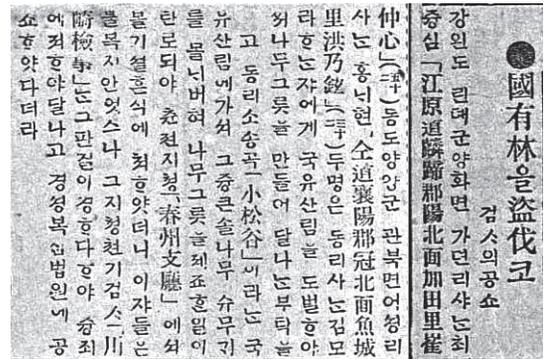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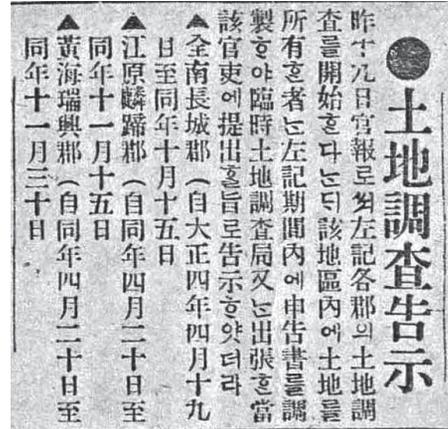
금회의 호우로 강원도 인제군의 피해는 판명한 자가 좌와 같고 이외에도 피해가 있을 것인데 지금 취조 중이라고 한다.  
▲인제군 군내면 유실가옥 14호 사망자 7명 ▲인제군 남면 유실가옥 4호 사망자 7명 ▲인제군 북면 유실가옥 11호 사망자 7명 ▲합계 유실가옥 29호 사망자 18명

1915-12-26-03-04

### 매일신보

#### 백담사의 화재 손해 1200원

이달 19일 오후 11시 반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로부터 출화하여 마침 바람이 몹시 불고 또는 물이 얼어붙어서 물의 공급이 여의치 못한 때문에 건축물 일곱칸 170평 일합을 태워버리고 이튿날 오전 6시에 진화하였는데 원인은 실화라 하며 손해액은 건축물 불상 기구 집물 등을 아울러 약 1,193원에 달하였고 인축 사상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없었다고 한다.



1916-04-25-02-04

### 매일신보

#### 금융조합 신설

조선내에 있는 지방금융조합 수는 이미 240을 헤아리는데 본년도에 대하여는 다시 10조합을 설치 지점을 전고 중이니 좌와 같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충남 부여군 규암리 ▲경북 영양군 영양 ▲경남 삼가군 삼가 ▲황해 해주군 취야 ▲평남도 성천군 성천 ▲평북 삭주군 삭주, 운산군 운산 ▲강원 횡성군 횡성, 인제군 인제 ▲함남 영흥군 진흥리 또 관계 각도에서는 이미 설립 준비위원의 임명 기타 설립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므로 6, 7일 간에는 조합의 성립을 보겠다고 한다.

**●金融組合新設**

鮮内に在る地方金融組合數は既に二百四十を算すや、本年度に對するは更に十組合を新設せり。左の總督府に於て設置支店を詮考中이니、左の如し確定せり。

▲忠南扶餘郡 嶺岩里 ▲慶北英陽郡 英陽 ▲慶南三嘉郡 三嘉 ▲黃海々州 郡翠野 ▲平南道成川郡 成川 ▲平北朔州郡 朔州、雲山郡 雲山 ▲江原橫城郡 橫城、麟蹄郡 麟蹄 ▲咸南永興郡 鎮興里

且關係各道に於ては既に設立準備委員の任命其他設立の準備に着手せり。或る六七日間には組合の成立を見せり。

1916-07-14-02-05

### 매일신보

#### 지방금융조합

본년도 설립의 지방금융조합 중 경북 영양, 평북 삭주, 운산, 강원 횡성의 4개소는 이미 설립을 고정하였고 최종 6개소 중 강원도 인제는 1일전 이사 임명의 지령이 있었는데 금명일 중에 설립 인가의 운에 이를 것이고, 또 충청남도 부여도 지금 상사에서 심사 중인 즉 재근에 이사의 임명을 볼 것이요, 그 나머지 경남 삼가, 황해도 수안, 평남 성천, 함남 진흥리 4개소도 이달 말일까지에는 전부 설립을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地方金融組合**

本年度設立の地方金融組合中慶北英陽、平北朔州、雲山、江原橫城の四個所は既に設立を告定せり。最終六個所中江原道麟蹄は一昨日前理事任命の指令に有せり。又忠清南道扶餘の認可の運に至る。又忠清南道扶餘の任命を見せり。又其餘慶南三嘉、黃海道遂安、平南成川、咸南鎮興里四個所は本月末日までに全部設立を終る豫定にたり。

1916-08-12-02-05

### 매일신보

#### 강원도의 수해

지난 9일 저녁시간으로부터 강원도 강릉, 인제, 춘천지방에 강우가 있어 북한강은 10일 오전에 약 8척의 증수를 보이고 강우가 더욱 더 맹렬하여 증수 중이고, 인제 방면은 하천의 범람으로 교통이 두절하고 강릉군읍은 침수 가옥이 100여호에 미치고 피난자가 다수한데 강릉은 침수가 5척에 미치고 집이 손깨 유실이 30호이고, 매물이 10호고, 익사가 4명이고, 행위불명자가 5명이다. 양양은 남대천이 범람하여 집 침수가 약 20호이고, 익사자 3명이 있고 이 지역에서 홍천 및 횡성 지방으로 통하는 교량(동서교)을 유실하여 교통이 두절되고 또 영월은 남한강에 출수 20척에 미쳐 인축집의 피해는 없으나 또한 더욱 더 증수중이고 춘천의 신연강은 출수가 1장2척에 미쳤으나 10일 저녁까지는 교통에 지장이 없으며 인축 집 등에는 피해가 없다고 한다.

**●江原道の水害**

去九日夕刻より江原道江陵麟蹄春川地方に降雨あり。北漢江は拾日正午に約八尺の増水を見せり。降雨が益々猛烈に益々増水中に麟蹄方面は河川の氾濫に交通に杜絶せり。江陵郡邑は浸水家屋が百餘戸に及ぶ。避難者が多数あり。江陵は浸水が五尺に及ぶ。家屋の指潰流失が三十戸あり。埋没が十戸あり。溺死者四名あり。行衛不明者が五名あり。襄陽は南大川の氾濫に家屋浸水が約二十戸あり。溺死者三名あり。同地に洪川及橫城地方より通る橋梁(東西橋)を流失せり。交通に杜絶せり。又寧越は南漢江の出水二十尺に及ぶ。八畜家屋の被害は無き。南江原は出水が一丈二尺に及ぶ。或る十日後夕刻に交通に支障の無き。畜家屋等には被害が無き。たり。

1916-08-13-03-02

### 매일신보

#### 한강이 또또 증수

한강이 또 또 증수 지나간 9일 저녁부터 한강의 상류되는 강원도내 강릉 인제 춘천지방에 큰 비가 왔으므로 한강이 또 증수가 되리라 하였더니 11일 오전1시경부터 용산 근변에는 돌연히 증수되어 오전7시 경에는 16자에 이르렀고 점점 더 늘어서 12일 오전6시에는 25척에 이르렀으나 8시에는 24척2촌으로 줄었으며 떠나가는 배가 많았으나 경비선이 출동하였으며 마포와 용산에 물 잠긴 집이 50호라고 한다.

1916-09-12-03-01

### 매일신보

#### 경춘교통 두절, 수십일 자동차 두절

9일부터 강우로 인하여 북한강 상류 소양강은 춘천 부근에서 10일 오전 7시 30분에 6자2치가 증수되고 신연강을 오전 10시 30분에 19척이 증수하여 서울 춘천간은 교통이 막혔고 또 북한강 상류 인제 양구 방면은 10일 아침 6자 내지 12척이 되고 화천 방면은 약 7자로 각 방면이 교통이 두절되고 강우도 오히려 개이지 않았다는데 더욱 증수되는 모양이라고 한다. 이에 인하여 서울 춘천간 도로 파손이 7, 교량 유실과 파손이 3곳에 달하고 10일 오전10시부터 교통이 두절하여 자동차는 수십일간 운전이 되기 어렵고 또 홍천군 양강은 10일 오후5시 반에 증수 16척에 달하여 교통이 두절하고 춘천 부근은 10일 오후4시30분경에 비가 개임으로써 이상의 증수될 염려는 없다고 한다.

1916-09-25-02-09

### 매일신보

#### 춘천에서 도장관 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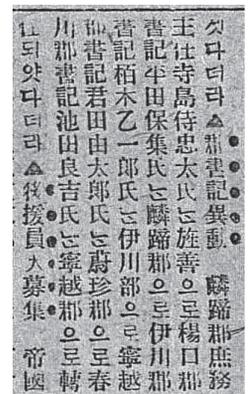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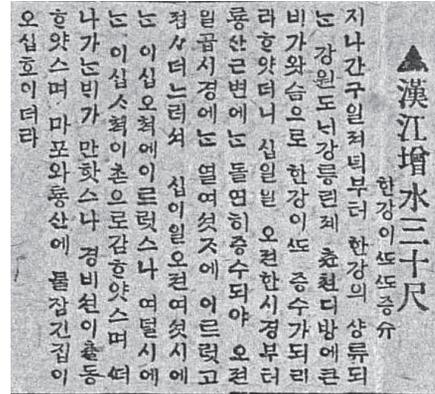
강원도 이 도장관은 삼봉 도 사무관과 가등 지방계주임, 대총 회계주임, 재무 양계 양이도서기관을 대동하고 오는 27일 춘천을 출발 인제, 간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평창, 횡성, 홍천 이상 각군을 순시하고 오는 10월 25, 26일경에 귀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1916-09-26-02-08

### 매일신보

#### 군서기 이동

인제군 서무주임 사도시충대씨는 정선으로, 양구군 서기 평진보집씨는 인제군으로, 이천군 서기 백목을일랑씨는 이천부으로, 영월군 서기 군견유태랑씨는 울진군으로, 춘천군 서기 지전량길씨는 영월군으로 전임되었다고 한다.



1916-09-29-03-02

### 매일신보

#### 의병장폭도괴수사형, 강원도로 횡행하던 의병장 2명 사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사동 출생으로 당시 경북 봉화군 양야면 가평리 거주의 김종철(37)은 김종환 김광옥 등의 이름을 바꾸고 1910년 전 의병장이 되었는데 강원도 원주군 귀래면 당우리 김종근(38)을 부장으로 삼아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모두 이름을 바꿔 가지고 각처를 횡행하던 중 부하의 도적은 점차 검거되어 처벌하였는데 양야면 왕운리 정태용(27), 황성군 갑천면 상금대리 최순실(36), 상금대리 장재선(39), 황성군 청일면 병삼상리 정옥영(48), 청일면 춘당리 장명수(35), 청일면 병삼상리 정대성(21), 황성군 갑천면 상금대리 김용원(41),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김원실(43) 등은

▲교묘히 중적을 감추었는데 강원도 경무부에서는 이 무리의 나머지 당을 한 번에 소탕하고자 하여 관내 각 헌병대 경찰서에 엄담케 하여 작년부터 본년 여름까지의 전기의 자들을 검거하였는데 의병장 김종철은 1910년 음력 3월 10일 밤 강원도 인제군 내면 소한리 거주의 김시원 이란 자가 당시 같은 면의 면장으로 저희 무리의 행동을 관현에 밀고하여 검거한다는 말을 듣고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김시원을 참살한 후 김시원의 집까지 태워버림을 위시하여 강원도 전군에 이르러

▲전후 20여 번이나 되도록 살인강도 방화 등 모든 악행을 하여 인민을 공포케 한 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예심 취조를 마치고 요사이 판결이 내렸다는 사형은 김종철 김종근 2명이요 무기 징역은 장명수, 기타 정대성 김원실은 징역 15년, 용해준은 12년, 이용여 최순실 장재선 김용원은 징역 10년 정태용 정옥영의 2명은 증빙이 충분치 못하여 무죄가 되었다고 한다.



1916-09-29-03-03

### 매일신보

#### 체포되기까지 대구 권총강도를 추어내던 이야기

누차 개재하였는데 대구 남정 서우순의 집에 들어갔던 단총강도들은 몰수히 체포한 말은 일반이 모두 아는 것이거니와 그 뒤 강도의 체포할 때 말을 들은즉 그 강도 중 대구 서천대 사는 정운명이 그날 밤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정목 가량되는 거리에

◇ 짙은 한 켄레를 유실하고 도주한 것을 증거품으로 삼아 시내 각 잡화상점을 일일 조사한 결과 대구 횡정 사는 최병규란 자가 남정 잡화상 김부장에게서 산 사실을 탐지한 후 인숙 최병규의 있는 곳을 엄밀히 수색을 하여도 그 거처를 알지 못하여 더욱 의아하던 중 마침내 최병규의 본가 하인 김분이(30)를 불러 심문한 즉 피고 병규가 남산정 그 처가에 갔다하므로 그 처가를 수탐하여 본즉 병규가 그 집에 가서 모자

◇ 두루마기 양화를 장속에 감추어두고 도주한 일을 알고 그 장모되는 자를 엄중 취조한 결과 그 외사촌 남산정 김홍진의 집에 도망한 사실까지 탐지한 즉시 그 집에 출장하여 탐문한 즉 김홍진의 말이 최병규가 자기의 장남으로 하여금 이웃 사는 홍주일을 불러놓고 범죄한 사실을 알은 후 숨겨달라고 애걸하는 고로 홍주일이 최병규와 한가지 동행한 일을 자백함에 의하여 즉시 홍주일의 집에 출장하



여 가택을 수색한 결과 최병규가 그집 나무괴 속에 은피한 것을 발견 체포하여 대구경찰서로 인치하여 엄중히 취조한 결과 그 공범자를 일일이 자백함을 따라 달성군 황청동 김중일 대구 서천대 정운일 까지 차례로 체포한 후 그 흉기의 있는 곳을 심문하고 육혈포 4자루와 및 탄환이 180여발을 덕산정 동화사 포교당 무인석되는 당하에 감추어둔 것을 찾아 왔는데 총기의 사들인 목적은 거금 1915년에 피고되는 고령군 수면 김재열과 및 경주군의 동면 백상진이 이같은  
 ◇못된 일을 하기 위하여 안동현으로부터 사들이고 기타 정치적 행동은 아주 없는데 이것을 피고 최한명 이시영 정운일 김중일에게 전차로 은치하고 피고 박상진 김중일 이시영 정운일 등이 9월 초순경에 동천대 전 객주하는 김사숙의 집에 모여 당지 재산가 정재학 석우순 이장우 석창규 서병문 윤상태 기타 모모 인을 위협하고 돈 뺏을 일을 공모한 후 흉기를 김중일에게 맡기었다가  
 ◇이번 사건이 발각되었고 강도 중 박병하 권국필의 2명은 도주하여 방금 엄탐중이라 하며 금번 사건 주모자 된 덕산정 석우순의 사위 김진만과 공범자 진만의 아우 중일과 기타의 자 9명은 대구경찰서의 활동으로 잡았다는데 지나간 20일부터는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취조를 개시하였다는데 이 범인 등은 이왕 친목회를 조직하여 상종하던 자로 상당한 학식이 있고 또는 명예도 있던 자로 어떻든지  
 ◇친목회에 모여 직업 없이 놀던 것이 악한 인연을 지었더라. 또 석우순의 아들 서상준은 일시 혐의자로 경찰서에 체포되었으나 취조한 결과 공범한 증거가 없으므로 마침내 방송하였더라.

1916-10-29-03-03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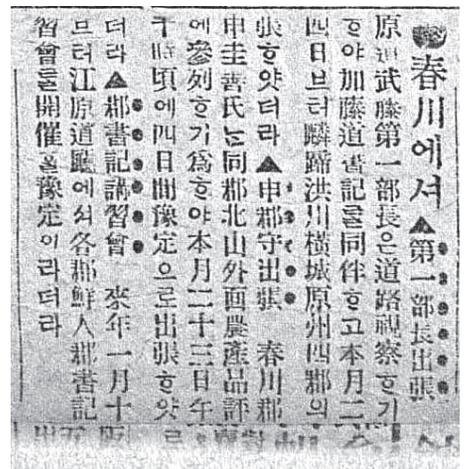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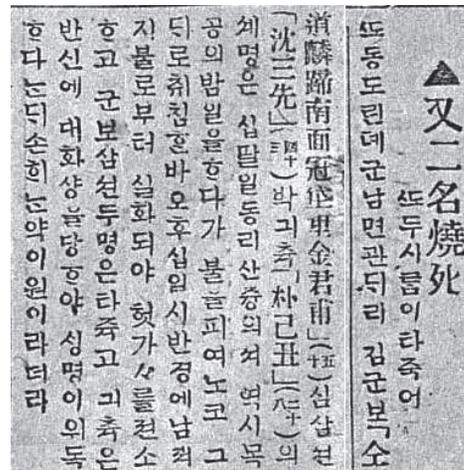
**또 2명 소사 또 두사람이 타 죽어**

또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김군보(50) 심삼선(43) 박기축(28)의 세명은 18일 동리 산중에서 역시 목공의 밤일을 하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대로 취침하여 오후 11시 반경에 나머지 불로부터 실화되어 헛가가를 전소하고 군보, 삼선 2명은 타죽고 기축은 반신에 대화상을 당하여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손해는 약 2원이라고 한다.

1916-11-26-02-09  
**매일신보**

**춘천에서 제1부장 출장**

강원도●무등 제1부장은 도로 시찰하기 위하여 가등 도서기를 동반하고 이달 24일부터 인제 흥천 횡성 원주 4군의 출장하였다고 한다.



1916-12-02-03-04

### 매일신보

#### 의병장[폭도수괴]의 공소는 기각, 참혹한 모든 행동

강원도 원주군 귀래면 당우리 김종근(39), 경북 봉화군 몰아면 가성리 김종철(37)의 2명은 1910년 중에 폭도수괴의병장으로 각군 지방을 줄줄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기를 무쌍히 하던 까닭에

▲ 그자의 폭위를 두려워하여 백성이 한시도 마음을 편안히 못하였는데 당시 인제군 내면 소한리 김시원이 면장으로 있어 경관에게 의병 정탐을 하여주며 폭도 혐의자를 밀고한다는 말을 듣고 김종근 등 2명은 분통히 여겨 같은해 음력 3월 10일경에 부하 김문도 김종삼과 한가지 총기타 흥기를 가지고 전기 김시원의 집에 가서 시원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마침 어디가고 없으므로 그날 밤에 불을 놓아

▲ 가옥 기타 세간 등을 500여원 어치를 소실케 하였고 또 인제군 서면 거주의 당시 일진회원 엄윤문의 아들이 의병 등에게 잡혀 죽을 뻔한 것을 구조하여 보내온 의를 생각지 않고 경관과 기맥을 상통하여 의병 등에게 해를 끼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음력 5월 30일 부하 4명을 데리고 엄윤문의 집에 가서 윤문의 가슴에 총을 놓아 죽였고 또 강릉 연곡면 장천리장으로 있는 박군팔의 집에 가서 밥을 지어 달라고 청하자 군팔은 사람을 놓아

▲ 쌀 팔러 보낸 것을 경관에게 고발하러 보냈다고 잘못알고 군팔을 총을 놓아 죽인 외에 각처에 횡행하며 재물을 강탈한 죄상이 있는데 그 2명은 그동안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에 처한 것을 불복하고 서울복심법원에 공소를 신청하여 심리 중 11월 29일 공소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

1916-12-13-03-06

### 매일신보

#### 부지 중에 입적 이혼을 청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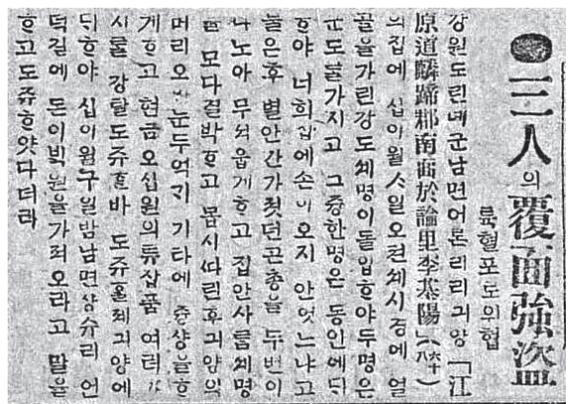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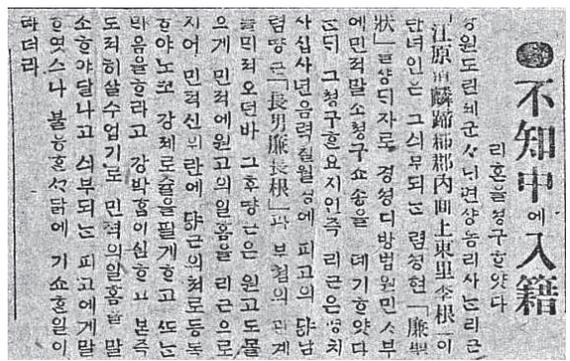
강원도 인제군 군내면 상동리 사는 이근 이란 여인은 그 시부되는 엄성현을 상대자로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 민적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한 요지인즉 이근은 1911년 음력 7월경에 피고의 장남 엄장근과 부첩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후 장근은 원고도 모르게 민적에 원고의 이름을 이근으로 지어 먼 친척란에 장근의 처로 등록하여 놓고 강제로 술을 팔게하고 또는 매음을 하라고 강박함이 심하고 본즉 도저히 살 수 없기로 민적의 이름을 말소하여 달라고 시부되는 피고에게 말하였으나 불응한 까닭에 기소한 일이라고 한다.

1916-12-21-03-05

### 매일신보

#### 3인의 복면강도 육혈포로 위협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이기양(68)의 집에 12월 4일 오전3시경에 얼굴을 가린 강도 3명이 돌입하여 2명은 군도를 가지고 그 중 1명은 이기양에 대하여 너희 집에 손님 오지 않았느냐고 물은 후 별안간 가졌던 권총을 두 번이나 놓아 무섭게 하고 집안사람 3명을 모두 결박하고 몹시 때린 후 이기양이 머리와 눈, 두 어깨 기타에 중상을 하게하고 현금 50원의 류잡품 여러가지를 강탈 도주하였는데 도주할 때 기양에 대하여 12월 9일 밤 남면 상수리 언덕길에 돈 200원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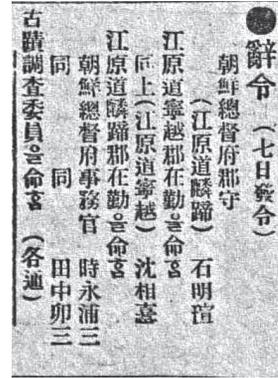


1917-02-09-02-08

### 매일신보

#### 사령(7일 발령)

조선총독부 군수(강원도 인제) 석명선 강원도 영월군 재근을 명함  
조선총독부 군수(강원도 영월) 심상일 강원도 인제군 재근을 명함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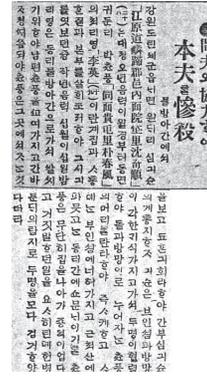


1917-02-28-03-04

### 매일신보

#### 간부와 협조하여 본부를 참살 물방앗간에서

강원도 인제군 읍내면 원대리 심기순(28)은 1916년 음력 2월경부터 같은면 귀둔리 박춘풍의 처 이영(19)이란 계집과 사통한 결과 본 남편을 살해코자 하여 그시기를 엿보던 중 작년 음력 10월 20일 밤 이영은 동리 물방앗간으로 가서 쌀 찧기 위하여 남편 춘풍을 꼬여가지고 갔는데 자정 때쯤 되어 춘풍은 그곳에서 자는 것을 보고 좋은 기회라 하여 간부 심기순에게 통지하자 기순은 부인섬과 방망이 각 한 개씩 가지고 가서 2명이 협력하여 돌과 방망이로 누워자는 춘풍의 머리를 난타하여 즉사케하고 사체는 부인섬에 넣어가지고 근처 산에 파묻고는 동리간에 소문내기를 춘풍은 무단히 집을 나가 종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던 일을 요사이 인제헌병분대의 탐지로 2명을 모두 검거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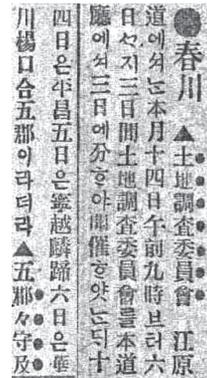


1917-03-18-04-03

### 매일신보

#### 춘천 토지조사위원회

강원도에서는 이달 14일 오전9시부터 6일까지 3일간 토지조사위원회를 본 도청에서 3일에 나누어 개최하였는데 14일은 평창, 5일은 영월 인제, 6일은 화천 양구 합 5군이라고 한다.



1917-03-18-04-04

### 매일신보

#### 5군 군수 및 군참사 춘천 와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토지조사위원회에 참석키 위하여 평창군수 황희민씨, 영월군수 석명선씨, 인제군수 심상일씨, 화천군수 김구연씨, 양구군수 김창현씨는 각기 군참사를 데리고 이달 13일부터 연속하여 도착하였는데 17일부터는 군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1917-05-08-03-03

### 매일신보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치전의 국유 산지로부터 25일 오후1시에 불이 나 국유지 15 정보와 민유지 65정보를 소실하고 27일 오후3시에 진화했는데 손해는 약 580원

▲**린예군 기린면** 진동리치전  
「麟蹄郡麟蹄而嶺東里推田」의 국유산  
지로부터 이십오일 오후한시에 불화  
되야 국유지십오정보와 민유지육십  
오정보를 소실하고 이십칠일 오후삼  
시에 진화할바 손해는약오백팔십원

1917-05-08-03-03

### 매일신보

####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장암곡의 국유림으로부터 24일 오후5시에 불이 나 49정보 손해 100원을 소실하고 25일 오후5시에 꺼버렸는데 마을주민 300 명이 소방하고

▲**린예군 서화면** 심적리장암  
곡「麟蹄郡瑞化而深積里嶺岩谷」의 국  
유림으로부터 이십사일 오후다섯시  
에 불화할바 사십구정보 손회백원  
을 소실하고 이십오일 오후다섯시에  
꺼버렸다는디 리민삼백명이 소방하고

1917-06-01-03-03

### 매일신보

#### 금융조합 소실 강원도 인제

29일 오전0시에 강원도 인제군 내면 상동리 인제지방금융조합 사무 소로부터 불이 나서 동 사무소를 전부 태우고 부근 민가 3호를 소실 하였는데 손해는 약 550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金融組合燒失**  
강원도인제  
이십구일 오전령시에 강원도인제군  
내면상동리 인제지방금융조합 사무  
原道麟蹄郡內面上東里麟蹄地方金  
融組合사무소로부터 불이 나서 동사무  
무소를 전소하고 부근 민가삼호를 소  
실하였다는디 손해약오백오십원에 달  
하였다는디

1918-03-02-03-03

### 매일신보

#### 흉적, 헌병과 격투 필경잡혔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사는 안창순이라는 자는 1911년경부 터 강도질을 하기 시작하여 살인방화 등 흉행을 여러 번하고 그 출 몰이 자못 교묘하여 항상 관헌의 눈을 기움으로 부근 각 경찰서에서 는 열심히 이 자의 종적을 수색하던 중이더니 이 자는 이달 15일에 대담히 자기집에 들어와 잠복하여 있음을 덕교리과건소에서 탐지하 고 천정 상등병과 보조원 이춘래 2명이 함께 출장하여 잡으려 한즉 이자는 완강히 저항하여 두어시간을 서로 격투하다가 필경은 잡혀 서 지금 엄밀 취조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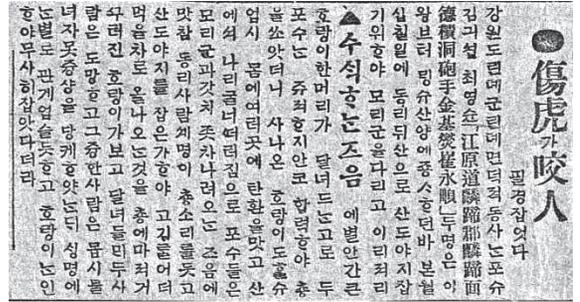
●**凶賊 憲兵과格闘**  
필경잡혔다  
강원도인제군기린면상남리사는안창  
순「江原道麟蹄郡麟蹄面上南里安昌  
淳」이라노자는 명치십사년경부터  
강도질을한기사와하여 살인방화등  
흉행을 여러번하고 그출몰이 자못교  
묘하여 항상관헌의 눈을 기움으로부  
근각경찰서에서는 열심히 이자의  
종적을 수색하던중이더니 이자는  
이달십오일에 대담히자기집에 드러와  
잠복하여 이순을덕교리과건소「德橋  
里派遣所」에 취탐지하고 필경은잡혀서  
두어시간을 격투하다가 필경은잡혀서  
지금엄밀취조중이라고한다

1918-03-02-03-05

### 매일신보

#### 상처입은 호랑이가 교인, 필경 잡았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덕적동 사는 포수 김기섭, 최영순 2명은 이왕부터 맹수 사냥에 종사하였는데 이달 17일에 동리 뒷산으로 산돼지 잡기 위하여 모리꾼을 데리고 이리 저리 수색하는 즈음에 별안간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드는 고로 두 포수는 주저하지 않고 협력하여 총을 쏘았더니 사나운 호랑이도 할 수 없이 몸에 여러 곳에 탄환을 맞고 산에서 내리굴러 떨어지므로 포수들은 모리꾼과 같이 쫓아 내려오는 즈음에 마침 동리사람 3명이 총소리를 듣고 산돼지를 잡은가 하여 고기를 얻어 먹을 차로 올라오는 것을 총에 맞아 거꾸러진 호랑이가 보고 달려들때 두 사람은 도망하고 그 중 한사람은 몹시 물려 자못 중상을 당하게 하였는데 생명에는 별로 관계 없을듯 하고 호랑이는 인하여 무사히 잡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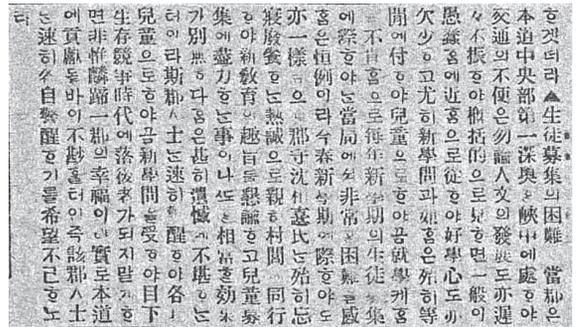


1918-03-21-04-05

### 매일신보

#### 생도 모집의 곤란

인제군은 강원도 중앙부 제일 심오한 협중에 처하여 교통의 불편은 물론 인문의 발전도 또한 늦어 부진하여 개괄적으로 보면 일반인 우매함에 가까우므로 따라서 호학심도 역시 적고 더욱이 신학문과 같은 것은 거의 등한에 부치고 아동으로 하여금 취학케 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매년 신한기의 생도 모집 때에는 당국에서 비상한 곤란을 느끼는 항례이다. 올 봄 신학기 때에도 역시 같은 모양이요 인제군수 심상일씨는 거의 자는것 먹는것 잊어버리는 열성으로 친히 마을을 동행하여 신교육의 취지를 설득하고 아동 모집에 진력하는 일이나 또는 상당한 효과가 별로 없다 함은 심히 유감에 불감하는 터이라. 인제군 인사는 속히 각성하여 각자아동으로 하여금 신학문을 받아 지금 생존경쟁시대에 낙후자가 되지 말게하면 유일한 인제 한군의 행복이다. 실로 강원도에 공헌될 것이 적지 않을 터인즉 인제군 인사들은 속히 각자 각성하기를 희망불기한다고 한다.



1918-03-21-04-05

### 매일신보

#### 인제 양잠열의 격증

근래 잠업계의 준비는 지금의 급무로 일반이 공히 인지하는 것이 거니와 인제군에서는 특히 이 점에 심히 유의하여 극력으로 지도장려한 결과 점차 순조로 진척되는 중 유럽 전란의 여파는 일반 생산계에 비황히 호경기를 주고 더욱이 잠견사 등의 가격과 같은 비상한 속도로 저저 등귀하여 거의 저지할 데를 알지 못하는 상태

므로 일반의 양잠열은 별연 팽창하여 지금에는 인제군에 극히 중요한 생산물로 해를 따라 발전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한편 양잠에 제일 요소되는 뽕나무와 같은 대개 천연 뽕나무에 의지하고 개량종으로 사육함과 같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당국에서는 근본적 개량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올 봄에는 군내 일반 잠업가에게 권유한 결과 개량 뽕나무 묘목의 공히 구입을 의뢰한 것이 이미 50만 그루의 다수에 달하였다함은 흥경함이 유여하겠고 또 잠종의 공동 구입의 원출함도 엇기 5천매 이상에 이르렀다 한즉 뽕나무 묘목의 다수 구입은 물론 초일이나 잠종은 작년분에 비하여 약 배수에 달하였고 한편 치잠공동사육소와 하는 것도 전군을 통하여 약 50여 개소의 설치를 봄에 이를 것이라 하여간 잠업의 장려는 인제군의 최적당한 사업으로 장래에는 실로 강원도에 유망한 산견지가 됨에 무●하겠다고 한다.

1918-04-28-03-01

매일신보

강원도의 산화재 지금까지 꺼지지 않아, 아이 3명이 타 죽고 손해가 비상히 났다

강원도는 도저히 산악이 중첩한 중 더욱이 인제군은 전부가 산악 중에 있어 교통이 심히 불편하고 또한 인가 극히 희소하여 산에 불이 한번 붙으면 도저히 잡지 못하고 비상한 손해를 당하므로 관헌은 항상 주의하는 중 더욱이 봄철을 당하면 도처에 산화가 더욱 심하므로 요즈음에는▲일층 경계해왔는데本月 10일 오전3시경에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 후봉에서 산화가 일어나서 산림 약100여정보가 소실되었는데 일반관청과 인민 수백명의 진력으로 같은달 20일 오후11시경에 겨우 진화하였고 같은날 오전 2시경에 인제군 북면 풍양리에서 불이 나서 다수한 산림을 태운 위에 민가 9호까지 소실되었고 같은달 18일 오전9시경에 양양군 서면에서 ▲산화가 시작되어 인제군 기린면 신전리까지 연소되어 금년 7세되는 아이 2명과 4세되는 아이 1명 합계 2명이 무참히 타죽고 집 24호가 소실된 위에 산림 약 4만정보 가량을 모두 탔는데 불이 4, 5일타서 그 중 참혹한 경상을 이루었고 그 외에도 산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도 각처에서 ▲자꾸 타는 중이오 그 발화된 원인과 소실된 손해 등은 방금 조사 중이므로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이번에 소실된 산림만으로도 무려 10여만 정보에 내리지 않을지라도 이와 같은 재앙이 자주 계속하는 지경이면 강원도의 산야는 아주 참혹한 피해를 당할 것이라서 일반 인민은 모두 경계하는 중 실화된 부근 인민들이 안정치 못한다 함은 가이없고 두려울 일이라고 한다.

●江原道の山火災  
 尙今不熄  
 山火가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 산야는 산악이 중첩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인가가 희소하여 산에 불이 붙으면 도저히 잡지 못하고 비상한 손해를 당하므로 관헌은 항상 주의하는 중 더욱이 봄철을 당하면 도처에 산화가 더욱 심하므로 요즈음에는▲일층 경계해왔는데本月 10일 오전3시경에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 후봉에서 산화가 일어나서 산림 약100여정보가 소실되었는데 일반관청과 인민 수백명의 진력으로 같은달 20일 오후11시경에 겨우 진화하였고 같은날 오전 2시경에 인제군 북면 풍양리에서 불이 나서 다수한 산림을 태운 위에 민가 9호까지 소실되었고 같은달 18일 오전9시경에 양양군 서면에서 ▲산화가 시작되어 인제군 기린면 신전리까지 연소되어 금년 7세되는 아이 2명과 4세되는 아이 1명 합계 2명이 무참히 타죽고 집 24호가 소실된 위에 산림 약 4만정보 가량을 모두 탔는데 불이 4, 5일타서 그 중 참혹한 경상을 이루었고 그 외에도 산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도 각처에서 ▲자꾸 타는 중이오 그 발화된 원인과 소실된 손해 등은 방금 조사 중이므로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이번에 소실된 산림만으로도 무려 10여만 정보에 내리지 않을지라도 이와 같은 재앙이 자주 계속하는 지경이면 강원도의 산야는 아주 참혹한 피해를 당할 것이라서 일반 인민은 모두 경계하는 중 실화된 부근 인민들이 안정치 못한다 함은 가이없고 두려울 일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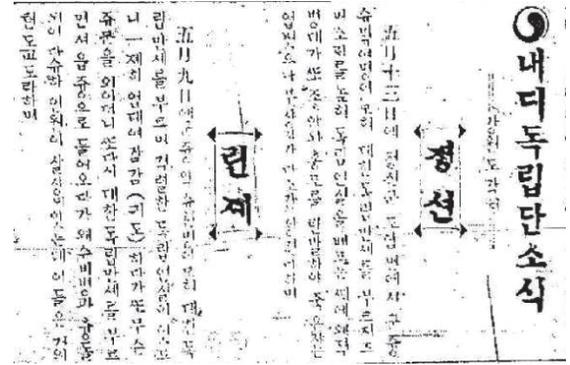
●江原道の山火災  
 尙今不熄  
 山火가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 산야는 산악이 중첩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인가가 희소하여 산에 불이 붙으면 도저히 잡지 못하고 비상한 손해를 당하므로 관헌은 항상 주의하는 중 더욱이 봄철을 당하면 도처에 산화가 더욱 심하므로 요즈음에는▲일층 경계해왔는데本月 10일 오전3시경에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 후봉에서 산화가 일어나서 산림 약100여정보가 소실되었는데 일반관청과 인민 수백명의 진력으로 같은달 20일 오후11시경에 겨우 진화하였고 같은날 오전 2시경에 인제군 북면 풍양리에서 불이 나서 다수한 산림을 태운 위에 민가 9호까지 소실되었고 같은달 18일 오전9시경에 양양군 서면에서 ▲산화가 시작되어 인제군 기린면 신전리까지 연소되어 금년 7세되는 아이 2명과 4세되는 아이 1명 합계 2명이 무참히 타죽고 집 24호가 소실된 위에 산림 약 4만정보 가량을 모두 탔는데 불이 4, 5일타서 그 중 참혹한 경상을 이루었고 그 외에도 산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도 각처에서 ▲자꾸 타는 중이오 그 발화된 원인과 소실된 손해 등은 방금 조사 중이므로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이번에 소실된 산림만으로도 무려 10여만 정보에 내리지 않을지라도 이와 같은 재앙이 자주 계속하는 지경이면 강원도의 산야는 아주 참혹한 피해를 당할 것이라서 일반 인민은 모두 경계하는 중 실화된 부근 인민들이 안정치 못한다 함은 가이없고 두려울 일이라고 한다.

1919-07-03-02-06

### 신한민보

#### 내지 독립단 소식 인제

5월 9일에 군중의 수천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격렬한 독립연설이 있으니 일제히 엮드려 감감(기도)하다가 또 무슨 주문을 외더니 또다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읊증으로 들어오다가 일본 수비병과 충돌되어 다수의 인원이 살상하였는데 이들은 거의 천도교도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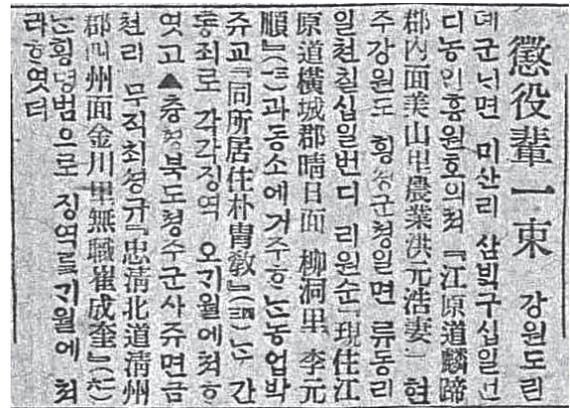


1919-11-22-03-08

### 매일신보

#### 징역배 일속

강원도 인제군 내면 미산리 391번지 농업 홍원호의 처 현주소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이원순(31)과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농업 박주교(43)는 간통죄로 각각 징역 5개월에 처하였고



合心家庭數  
 邪神拒絕家庭  
 禮拜堂新築捐補  
 禮拜堂建築基地  
 小學校設立  
 家庭祈禱決定  
 ▲團長劉漢英  
 ▲女宣教師車善  
 ▲女傳道人盧可  
 ▲寶書人李善容  
 (江陵)

# II

1920 - 1929년 인제신문



1921-05-13-04-05

### 동아일보

#### 강원도지방 전도성적

남감리교회 선교 100년 기념 강원지방 순행전도단 일행 5인은 5개월간을 가평, 춘천, 홍천, 양양, 양구, 인제, 화천 7개처에 좌기와 같은 성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 신조직교회수 11
- 신입입교자수 3,196인
- 임시인도자 200인
- 합심가정수 99호
- 사신거절가정 31호
- 예배당신축연보 95원
- 예배당건축기지 150평
- 소학교설립 2처
- 가정기도결정 69호

▲단장 유한익 ▲악사 정사인 ▲여선교사 차선 ▲여전도인 노마르다 ▲매서인 이선용(강릉)

1921-06-07-03-07

### 동아일보

#### 700원의 공금을 소비한 면서기가 징역 한달을 불복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293번지 김용규(31)는 작년 1월 10일부터 인제면 서기가 되어 같은해 7월에 인제면 징세주임이 되어 금년 3월 상순경까지 면사무소에 들어온 공금 696원70전을 횡령소비한 것을 이달 중에 군서기와 문부를 검열할 때에 발각되어 즉시 모두 청산을 하였으나 공금횡령죄로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청에서 징역 1개월에 처한 것을 불복하고 서울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고 한다.

1921-06-07-03-08

### 매일신보

#### 잠종저금 횡령 600여원을 소비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293번지 김용선(31)은 인제면 면서기로 작년 1월 10일부터 봉직하기 위시하여 같은해 7월 4일부터 동면 징세주임이 되었으며 또 같은해에 관장하는 부내리민의 각종 저금을 취급하여 왔었는데 금년 3월 상순까지의 사이에 범의를 계속하여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금액 중에서 이따금 금전을 소비하기 시작되었는데 먼저 1917년 잠종저금 6원 22전을 횡령하기 위시하여 1918년도 잠종저금 37원40전을 횡령하여 합계 616원71전을 횡령하여 면에서 주취하는 연회비 또는 이민들이 군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자기소용에 소비하였다가 군서기의 조사로 인하여 발각되었는데 금년 3월 중에 전부 변제한 것인데 이것이 업무횡령죄로 걸려서 춘천지청에서 지난 5월 26일에 징역 1개월의 연도를 받았는데 검사는 판결이 정당치 아니하다 하여 곧 공소하여 피고사건은 서울복심법원으로 넘어왔다고 한다.

### 江原地方傳道成績

南監理教會宣敎百年紀念江原地方巡行傳道團一行五人은五個月間을加平、春川、洪川、襄陽、楊口驛等、華川七個處에左記와如한成績을나타내었다더라

新組織教會數 十一  
 新入敎者數 三千百九十六人  
 臨時引導者 二百人  
 合家家庭數 九十九戶  
 邪神拒絶家庭 三十一戶  
 禮拜堂新築捐地 九十五圓  
 禮拜堂建築基地 一五〇坪  
 小學校設立 二處  
 家庭新築決定 六十九戶  
 ▲團長劉漢烈 ▲樂師鄭士仁  
 ▲女宣敎師車善 ▲女傳道人盧瑪  
 ▲다 ▲宣敎人李善容 (江陵)

### 七百圓의公金을 소비한면서기가

강원도 인제면 합강리 293번지 김용규(31)는 작년 1월 10일부터 인제면 서기가 되어 같은해 7월에 인제면 징세주임이 되어 금년 3월 상순경까지 면사무소에 들어온 공금 696원70전을 횡령소비한 것을 이달 중에 군서기와 문부를 검열할 때에 발각되어 즉시 모두 청산을 하였으나 공금횡령죄로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청에서 징역 1개월에 처한 것을 불복하고 서울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고 한다.

### 蠶種貯金橫領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293번지 김용선(31)은 인제면 면서기로 작년 1월 10일부터 봉직하기 위시하여 같은해 7월 4일부터 동면 징세주임이 되었으며 또 같은해에 관장하는 부내리민의 각종 저금을 취급하여 왔었는데 금년 3월 상순까지의 사이에 범의를 계속하여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금액 중에서 이따금 금전을 소비하기 시작되었는데 먼저 1917년 잠종저금 6원 22전을 횡령하기 위시하여 1918년도 잠종저금 37원40전을 횡령하여 합계 616원71전을 횡령하여 면에서 주취하는 연회비 또는 이민들이 군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자기소용에 소비하였다가 군서기의 조사로 인하여 발각되었는데 금년 3월 중에 전부 변제한 것인데 이것이 업무횡령죄로 걸려서 춘천지청에서 지난 5월 26일에 징역 1개월의 연도를 받았는데 검사는 판결이 정당치 아니하다 하여 곧 공소하여 피고사건은 서울복심법원으로 넘어왔다고 한다.

1921-07-19-03-05

### 동아일보

## 10년 전의 살인사건 일진지회당을 죽인 2명 중형을 불복하고 공소해

충청북도 충주군 금가면 가흥리 김영석 외 4명은 모두 살인강도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10년 징역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무기 징역선고를 받은 김영석과 12년 징역 선고를 받은 강원도 사람 남학봉 2명은 서울복심법원에 공소하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건대 전기 김영석은 1910년에 일본과 한국이 강제병합(병합)될 때 당시 의병장(폭도수괴)로 유명한 김중철 외 수다한 의병과 함께 작당하여 춘락을 횡행하던 중 당시 친일파로 유명하고 일진지회당인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서리 엄윤문이 의병의 소굴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엄윤문을 죽여 원한을 씻으리라고 그해 음력 5월 30일 오후 11시경에 각각 총기를 휴대하고 엄윤문의 집에 돌입하여 사랑에서 자는 엄윤문을 잡아 일으켜 단도로 죽이고자 할 때 김영석이는 군총으로 엄윤문의 어깨를 맞추매 엄윤문은 슬피 부르짖고 마당에 뛰어나가서 엎드리지는 것을 김중철이 화승총으로 뒤를 이어 놓아 절명시켰고 1911년 4월 30일 경에는 강원도 강릉군 연곡면 노루목리 박선달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단도로 위협하고 돈 28원을 강탈한 것을 위시하여 재작년 7월까지 13곳으로 돌아다니면서 200여원을 강탈한 것이라고 한다.

1921-07-20-04-07

### 동아일보

## 관동학우회 순강단

제정관동학우회에서는 금기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강연단을 조직하고 강원도 각지를 순강한다는데 연사 및 일정은 좌와 같다.

1. 중양대 춘천 7월 25일 홍천 27일 횡성 29일 원주 31일 평창 8월 2일 정선 3일 영월 4일  
연사 염태진 윤선렴 노재명 조진구 고원섭 여자
2. 영서대 철원 8월 15일 이천 17일 평강 19일 김화 21일 금성 21일 회양 23일 화천 25일 양구 26일 인제 27일  
연사 조진구 김동면 염태진 여자 1인
3. 영동대 통천 7월 22일 구항 24일 고저 25일 장천 27일 온정리 28일 31일 간성 8월 3일 양양 5일 주문진 8일 강릉 9일 송정리 13일 삼척 14일 울진 16일 평해 19일  
연사 홍순혁 이봉수 김낙선 김일호양 송애경 여자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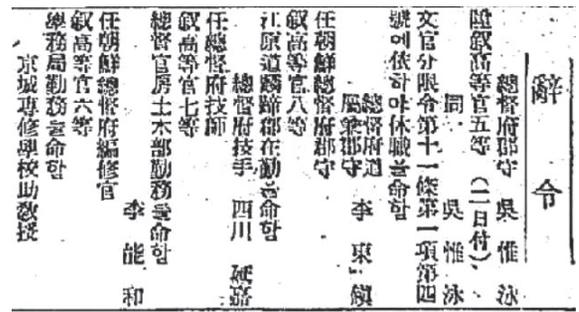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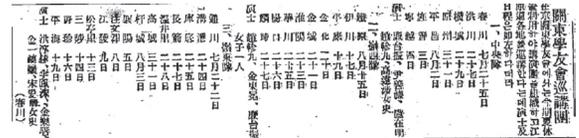
1921-11-04-02-08

### 동아일보

## 사령

(중략)

이동진 임조선총독부 군수 서 고등관8등 강원도 인제군 재근을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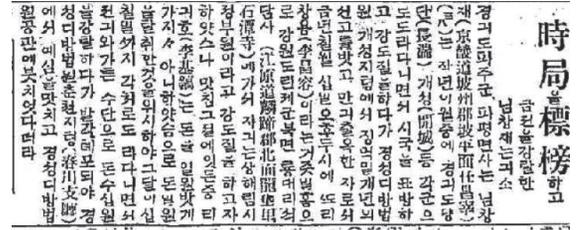


1921-11-13-03-08

### 동아일보

#### 시국을 표방하고 금전을 강탈한 임창재는 기소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사는 임창재(38)는 작년 2월중에 경기도 장단 개성 등 각군으로 돌아다니면서 시국을 표방하고 강도질을 하다가 서울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징역 1개년의 선고를 받고 만기 출옥한 자로서 금년 7월 10일 오후 2시에 또 이창용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석담사)에 가서 자기는 상해임시정부원이라고 강도질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그 절에 있던 중 이기호는 돈을 1원밖에 가지지 않았으므로 돈 1원을 탈취한 것을 위시하여 그달 27일까지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전기와 같은 수단으로 돈 수십원을 강탈하다가 발각 체포되어 서울지방법원 춘천지청에서 예심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공판에 부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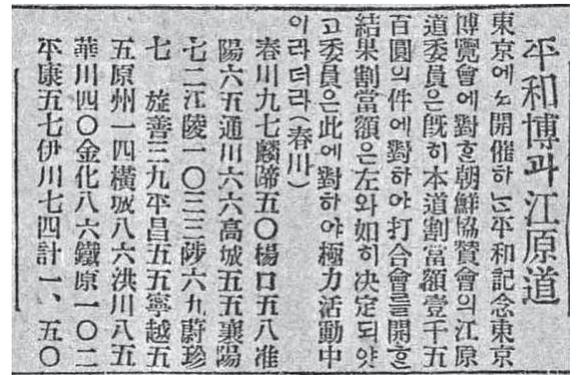
1922-01-27-04-07

### 매일신보

#### 평화박람회와 강원도

동경에서 개최하는 평화기념 동경박람회에 대한 조선협찬회의 강원도위원은 이미 강원도 할당액 1,500원의 건에 대하여 타합회를 열은 뒤 할당액을 좌와 같이 결정되었고, 위원은 이에 대하여 극력 활동중이라더라.(춘천)

춘천 96, 인제 50, 양구 58, 회양 65, 통천 66, 고성 55, 양양 72, 강릉 103, 삼척 69, 울진 73, 정선 39, 평창 55, 영월 55, 원주 74, 횡성 86, 홍천 85, 화천 40, 김화 86, 철원 102, 평강 97, 이천 74 계 1,500



1922-02-10-03-05

### 동아일보

#### 강도는 백방되고 고발한 자가 도리어 심판을 받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고구리 847번지 강기환(29)은 작년 10월 23일에 그 근처 인제군 내면 창리 장터로 소를 사러 갔다가 장터에서 강원도 정선군 도암면 호명리 2055번지 사는 이태의(49)와 서로 인사를 하고 피차간에 소를 사러온 이야기를 하다가 장터에서는 소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으니 마을로 들어가서 사가지고 가자고 상의한 후 두 사람은 즉시 마을로 가는데 그 근처인가 어떤 운정봉이란 산 꼭대기에서 별안간 강기환은 이태의의 소 살 돈을 강탈할 악의를 품고 몽둥이로 이태의의 머리를 몹시 내갈기고 가슴과 배를 차며 돈을 강탈하고자 하였으나 이태의가 급히 도망하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후 강기환은 제 죄를 숨기기 위하여 진부면 경찰관 주재소에 이태의가 강도라는 무고를 하여 오랫동안 심리하다가 서울지방법원에서 검사의 취조를 마치고 그 법원 예심에 부쳤더니 심리한 결과 이태의의 강도죄는 사실 아닌 것이 판명되어 방면되고 강기환은 강도죄로 어제 공판에 부쳤다고 한다.



1922-03-03-04-03

### 매일신보

#### 씨반이는 품평과 농사강화회

강원도에서는 관내 각면 씨반이는 품평회 포상 수여식을 거행할 것 이므로 그 동시에 농사강화회를 개최하리라는 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 씨 관계원을 4대로 나뉘보내어 이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데 그 일정 및 분담구역과 수여할 상품의 종류는 좌와 같다고 한다. (춘천)

▲제1대 춘천 3월10일 인제 3월 13일 양구 3월 15일 화천 3월 17일 (중략)

1922-03-15-04-02

### 매일신보

#### 강원 농작상황

강원도 1921년 중의 농작 상황은 전년에 비하여 감수되었는데 그 농 사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쌀농사가 1,179정보4반의 감소로 수확고 는 68,792석이 줄었으며 콩류 심은 면적은 681정5반이 늘었으나 수 확은 14,301석이 줄었는데 그 수확의 감수는 심은 것의 불량과 발육 시기에 가뭃피해가 있으므로 인하여 감수되었는데 각군을 별기하면 좌와 같다. (춘천)

쌀농사면적 및 수확고  
 군명 반별 수확고  
 춘천 4,712.0 43,341  
 인제 2,278.5 18,461

1922-04-16-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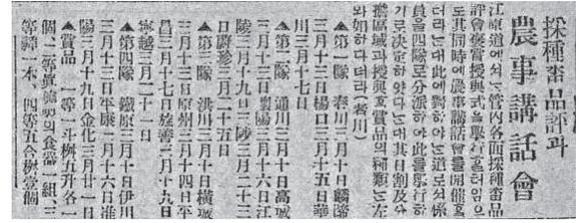
### 매일신보

#### 경관 서적 열독 강원경찰관내에

대개 세상사람들이 경찰관은 세상일에 둔하다는 비평이 있다. 이 말 이 정확한 것은 아니나 강원도와 같이 한적한 곳에 있으면 자연 세 상일에 소원한 점이 없지 않음을 염려하여 또는 위안하기 위하여 취 미와 실익을 겸하는 서적을 구입하여 좌기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 에게 열독하게 하는데 관내를 4구로 나누어 작년 11월부터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 『춘천』

제1방면 경찰부, 춘천, 홍천, 양구, 인제, 화천  
 제2방면 횡성, 원주, 정선, 영월, 평창  
 제3방면 통천, 고성, 강릉, 양양, 삼척, 울진  
 제4방면 김화, 금성, 회양, 평강, 철원, 이천  
 서적과 방면의 별

제1방면 독일 소학독본 상, 프랑스 소학독본 상, 일연대사 언행록, 행복론  
 제2방면 원록쾌거록, 세계대전사 전편과 후편, 세계 소학교육 상, 영 국 소학독본상  
 제3방면 구미경찰건문록, 동궁전하 서구 여행기 건권과 곤권, 전염 병 대응예방, 소독법 심득, 미국 소학독본 상  
 제4방면 미국 소학독본 하, 범죄와 과학, 교육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범죄소년의 고백과 개성 조사, 수양론, 작문강독과 문법 『춘천』



1922-05-02-04-05

매일신보

강원도 군속 이동

강원도에 4월 중으로 도군속 이동된 것은 좌와 같다

(중략)

인제군 송삼여태랑 정선군

회양군 북가운 인제군

도세무과 신현호 도농무과

금회 승격된 이로는 황재욱씨가 권농과장으로, 인제군 함중무씨가 권업과장으로 증촌방차씨가 권업과장으로, 등천승삼방씨가 도 이재과장으로 영전되었다 한다.(춘천)

1922-07-22-03-09

매일신보

고학생 순회극 23일 김천에

조그마한 주먹과 험뻐진 몸으로 추운바람과 서늘한 습기를 무릅쓰고 주린 배를 움켜쥐며 힘에 넘치는 쓰라린 노동을 하여가며 배우고 자 함에 있는 고학생이 서울시내에 1천명 가까이 있으며 아직까지 안정생활을 보장할 만한 설비가 없으므로 고학갈동회에서 고학생들의 합숙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5만원의 기부허가를 내었는데 각지의 유지에게 동정을 얻기 위하여 이번에 순회극단을 조직하여 각처에서 공연을 할 것인데 일자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더라.

(중략)

◇관동단원과 일정◇

- ▲관동대장 박순병 ▲단원 이병립, 이중혁, 장은용, 유광일, 윤기현
- ▲7월 23일 출발 ▲24일 철원 ▲25일 평강 ▲26일 금화 ▲27일 창도
- ▲8월 1일 통천 ▲2일 고저 ▲4일 장전 ▲7일 고성 ▲9일 양양 ▲11일 인제 ▲12일 양구 ▲14일 화천 ▲15일 춘천 ▲16일 홍천 ▲17일 횡성 ▲18일 원주 ▲22일 강릉 ▲23일 삼척 ▲25일 울진

1922-08-03-02-07

동아일보

신설공립보통학교

좌기 공립보통학교는 그간 동 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신청중이었는데 이번 인가되었다고 한다.

- ▲두촌공립보통학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 ▲서화공립보통학교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江原道

**苦學生巡回劇**  
이십삼일출연에  
조그마한 주먹과 험뻐진 몸으로 추운바람과 서늘한 습기를 무릅쓰고 주린 배를 움켜쥐며 힘에 넘치는 쓰라린 노동을 하여가며 배우고 자 함에 있는 고학생이 서울시내에 1천명 가까이 있으며 아직까지 안정생활을 보장할 만한 설비가 없으므로 고학갈동회에서 고학생들의 합숙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5만원의 기부허가를 내었는데 각지의 유지에게 동정을 얻기 위하여 이번에 순회극단을 조직하여 각처에서 공연을 할 것인데 일자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더라.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日高州▲二十七日

**新設公立普通學校**  
左記公立普通學校는其間同郡守로우려設立認可를申請中이든바今般認可되엇더라

▲斗村公立普通學校  
▲江原道洪川郡斗村面自隱里  
▲瑞和公立普通學校  
同道麟蹄郡瑞和面瑞和里

1922-09-05-02-07

### 동아일보

#### 지방개량강습회 5일부터 2주간

총독부 주최 제2회 지방개량강습회 군수 강습은 오늘 5일부터 2주간 대화정 1정목 앞 동양협회 내에서 개최할 것인데 제1일은 오전9시부터 총독부 제2회실에서 개회식을 행한 후 총독총감으로부터 일장의 훈시가 있을 것이요 출석인원은 군수 49명, 도 이사관 1명 합계 50명인데 그 씨명은 좌와 같다고 한다. (중략)

▲강원 철원 윤희성, 삼척 이범기, 정선 오찬갑, 원주 신규선, 인제 이동진 (중략)

1922-09-10-02-08

### 동아일보

#### 사령

9월 5일자로 좌의 사령이 있었다.

(중략)

임 총독부 군수(8등) 강원도 인제군 재군을 명함. 총독부 군수 신규선 (중략)

1922-10-07-03-09

### 동아일보

#### 3인단 강도 검사는 7년 구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672번지 정문학 외 2명이 공모하고 금년 8월 어떤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조진도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 조진도를 협박하고 돈 140원을 편취한 강도사건은 일전에 야춘 재판장의 손으로 심리를 마치고 입회한 검사로부터 정문학을 징역 7년, 김대봉은 징역 3년, 우도원은 징역 6년의 구형이 있었는데 불일간 연도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1923-02-05-04-04

### 매일신보

#### 오색령 도로에 관한 진정

서울에서 춘천, 인제를 경유하여 영동 해안에 중심지인 양양군에 직선으로 놓아지는 오색령 개착문제에 대하여 양양군기성회의 진정위원이 도에 온 것은 이미 보도했는데 양양군 인민의 한마음으로 관철할 희망열은 더욱 격심하여 지금 또 진정하러 1월 30일에 기성회 부회장 김익제 외 4명이 폭우 속을 뚫고 강원도에 왔는데 이에 대하여 양양 출신의 춘천군 유지들이 찬성한 진정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인

제, 양구, 홍천 등 3군 유지도 각기 군물산 유통의 공공이익과 경춘 연합의 교통편의를 상세하게 설명한 진정서를 강원도청에 계속해서 제출하였는데 추가전문에 의하면 강릉, 삼척, 울진 등 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로 협찬하는 글을 올린다고 하니 이에 대하여 양양 주민들의 일치된 열성갈망은 고사하고 4군의 진술과 3군의 협찬을 듣고 추측해보면 이 오색령 도로 개통은 동서 각군의 통상과 교통발전상의 최대 사업으로 확인할뿐 양양군민에 대해서는 사할문제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라고 추측하겠더라. 『춘천』

1923-04-23-04-03

매일신보

강원도의 임업현상과 부산물 연산액이 11만7,144원

강원도는 원래 침엽산중의 지세로 전면적 1,700여만리의 광활한 면적을 점유하였으나 실은 임야 면적이 1,224만리 즉 191만정보로 전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 면적이 최광활한 군별은 단연 인제군이 제1위로 약 15만7천정보이고, 다음으로 회양과 삼척군으로 약 13만정보와 김화군이 약 11만5천정보이고, 최소의 군은 양양군의 1만1천정보인데 지금 임상은 성립지 면적이 66만7천정보 즉 35%이고, 추수지 면적이 96만정보 즉 50%이요, 무입목지 면적이 27만8천정보 즉 15%이다. 강원도의 들은 주로 온대림에 속하고 단 금강산의 3천척 이상에는 한대림에 속하는 구역일 뿐이다 강원도의 땅이 되는 임상을 거론하면 낙엽활엽수 침엽수와 죽림으로 단순히 임상을 정할 수 있고, 혹은 혼효림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수림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임상을 보전하는 요소는 통천, 고성, 회양, 양구의 각군에 뻗어있는 북부 금강산과 인제, 양양, 강릉, 평창, 정선 각군에 넘어가는 설악산, 오색령, 오대산의 연결된 맥과 삼척, 울진, 영월, 원주군 지방에 솟아있는 태백산과 사자산악, 치악산 등의 고봉 부근의 수림이 되고 기타 이천, 평강, 화천, 춘천군 등에서는 점점 대단위의 산림지를 볼 수 있으며 죽림은 동해안 울진, 삼척, 강릉과 양양의 각군에 분포되어있다.

수목의 생육은 일반이 양호하나 특히 동해안 지방은 생장이 극히 왕성하여 1정보당 평균재적은 활엽수림에 있어서는 70, 80척체 침엽수림으로 100척체 내지 260, 270척체가 보통이며 죽림은 반당 생립 그루수 200그루 내지 700그루로 흉고둘레 1촌4분내지 2촌이 통례인데 전술한 것과 같이 침활 양 수림의 우수산림이 도처에 있어 남선 지방에 비하면 멀리 양재의 부의 원천으로 특히 동해안 통천, 고성, 양양, 삼척 여러 군에서는 적송의 노림이 있어 이용할 것이 많고 인제, 양구, 화천군 등의 각군에서도 침엽수와 활엽수의 노림이 있어 한강 지류의 유역부근에 전개되어 있는 수운의 편익이 자유로우므로 고래로 건축 기타 뿔감으로 이용됨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까지 한강 강상류 벌채가 용산●도 부근에 폭주하는 것은 전혀 강원도산에 이은 것이라고 한다. 강원도의 주산물의 중요한 자를 거하면 각재, 환태재, 판재, 목기, 신탄재, 목리재, 철도침목, 토공용 갱목 또는 일반 건축용재로 1개년에 용재로 약 35만척체, 신탄재로 약 280만척체의 이용을 보는데 장래 임업정책의 발달에 비취 강원도의 중요 재원이 될 것은 하언할 것이 없으며 기타 주요 부산물의 종류 및 산액은 좌와 같다.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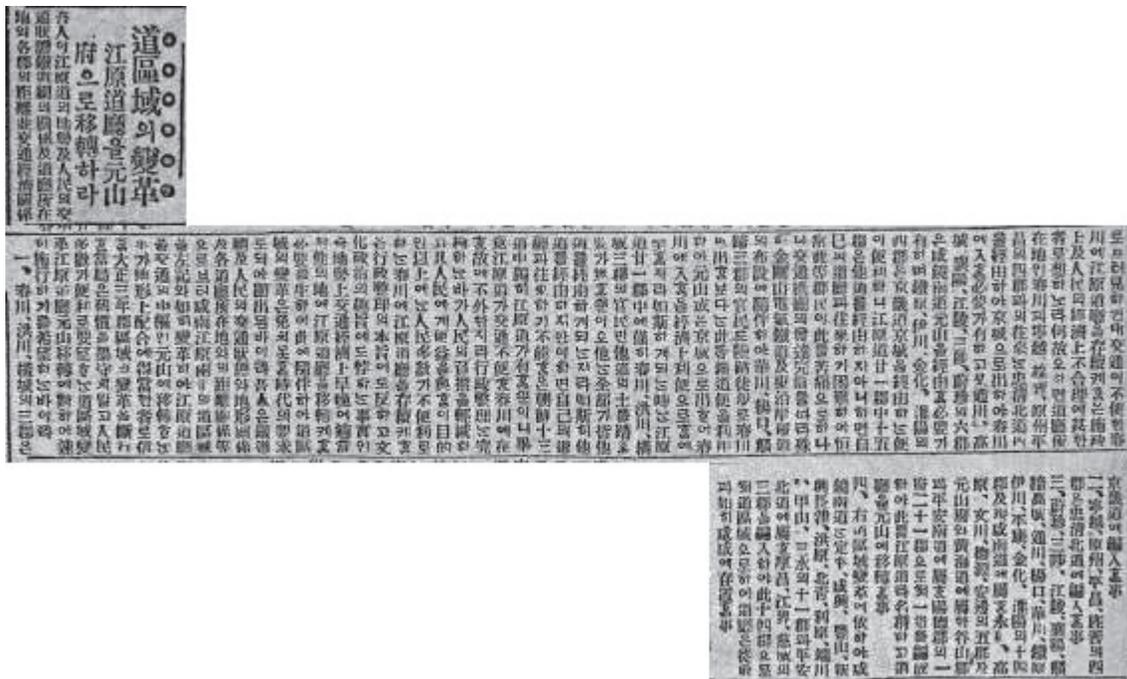
종별	수량(석)	가격(원)	종업호수(호)
식물류	124,115	2,106	4,198
수관	-	1,392	2,698
갈만	-	10,318	6,376
갈분	16,667근	5,000	500
목탄	931,449관	62,598	1,547
죽세공	-	12,620	289
야생류세공	-	11,844	209
약초	-	2,352	9,212
수피	-	5,641	5,115
오배자	-	1,010	263
표고버섯	310관	1,040	170
수액	15승	22	5
수지	500관	1,200	50

이상 계가 종업호수 30,632호요 산액이 117,144원이 라고 한다.

### 도구역의 변혁 강원도의 변혁, 강원도청을 원산부로 이전하라

사람들이 강원도의 지세와 인민의 교통상태 철도망의 관계와 도청 소재지 외 각군의 거리 아울러 교통 경제 관계로부터 보 건데 교통이 불편한 춘천에 강원도청을 존속케하는 것은 시정상과 인민의 경제상 불합리가 심한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청소재지인 춘천과 영월, 정선, 원주, 평창의 4군과의 왕래는 충청북도내를 경유하여 서울으로 나가서 춘천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의 6군은 함경남도 원산을 경유할 필요가 있으며, 철원, 이천, 김화, 회양의 4군은 경기도 서울을 경유하는 편이 편리하니 강원도 21개 군 중 15군은 타도를 경유하지 않으면 자기의 도청과 왕래하기가 곤란하여 항상 이곳 군민이 이를 고통으로 아나니 교통기관의 발달 완비를 따라 빨리 금강산 전기철도와 동해 연안철도의 시설에 수반하여 화천, 양구, 인제 3군의 관민도 육로 도보로 춘천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 철도편을 이용하여 원산 혹은 서울으로 나가서 춘천에 들어감이 경제상 편리함에 이를 지어다 라고 여기게 될 시에는 강원도 21개군 중에 심히 춘천, 홍천, 횡성 3군의 관민만 타도의 땅을 밟을 필요가 없을 뿐이요 나머지는 전부가 이미 타도를 경유하게 되는지라 이와 같이 타도를 경유하지 않으며 자기의 도청과 왕래가 불가능함은 조선 13도중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니 반드시 강원도가 교통불편한 춘천에 있게 한 것에 외면하지 않은지라. 행정정비는 궁극하는 점이 인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인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함이 목적인 이상에는 인민다수가 불편한 춘천에 강원도청을 존속케 함은 행정 정리의 본지에도 반하고 문화정치의 취지에도 거역하는 사실인 즉 지세상 교통 경제상 조만간에 적당한곳의 땅에 강원도청을 이전케 할 필요를 일으키며 이에 수반하여 도구역의 변혁은 면치 못할 시대의 요구가 되어 나타나 바라 우리는 철도망과 인민의 교통상태와 지형관계와 각 도청소재지와 의 거리관계 등으로부터 함남, 강원 양도의 도구를 좌기와 같이 변혁하여 강원도청을 교통의 중심인 원산에 이전하는 것이 지형상 배합에 합당한 것으로 믿으니 1914년 군구역의 변혁을 단행한 당국은 구관을 답습하지 말고 인민의 다수가 편리로 요망하는 도구역 변혁, 강원도청의 원산 이전에 대해 속히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1. 춘천, 홍천, 횡성의 3군은 경기도에 편입할 것
2. 영월, 원주, 평창, 정선의 4군은 충청북도에 편입할 것
3. 울진, 삼척, 강릉, 양양, 인제, 고성, 통천, 양구, 화천, 철원, 이천, 평강, 김화, 회양의 14군과 현 함남도에 속한 영흥, 고원, 문천, 덕원, 안변의 5개군과 원산부와 황해도에 속한 곡산군과 평안남도에 속한 양덕군의 1부 21군으로서 하나의 도를 편성하여 이를 강원도라 명칭하고 도청을 원산에 이전 할 것
4. 우 도구역 변혁에 의해서 함경남도에는 정평, 함흥, 풍산, 신흥, 장진, 홍원, 북청, 리원, 단천, 갑산, 삼수의 11군과 평안북도에 속한 후창, 강계, 자성의 3군을 편입하여 이 14군으로써 도구역으로 하여 도청은 종전과 같이 함흥에 존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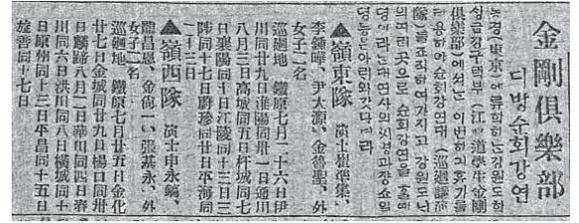
1923-07-13-03-08

### 매일신보

#### 금강구락부 지방 순회강연

동경에 유학하는 강원도 학생 금강구락부에서는 이번 하기휴가를 이용하여 순회 강연대를 조직하고 강원도 내의 여러 곳에 순회강연을 할 예정이라 한다. 연사의 씨명과 시간 장소는 아래와 같다.

- ▲영동대 연사 최준집, 이종엽, 윤대원, 김노성 외 여자 2명  
순회지 철원 7월 26일, 이천 29일, 회양 31일, 통천 8월 3일, 고성 5일, 간성 7일, 양양 10일, 강릉 13일, 삼척 17일, 울진 20일, 평해 23일
- ▲영서대 연사 신영호, 용창은, 김상일, 장기영 외 여자 2명  
순회지 청원 10월 25일, 김화 27일, 금성 29일, 양구 30일, 인제 8월 2일, 화천 4일, 춘천 6일, 홍천 8일, 횡성 10일, 원주 13일, 평창 15일, 정선 17일



1923-08-13-04-06

### 동아일보

#### 강원수재상황

금반 강원도내의 수재상황은 8월 6일까지 조사판명된 것이 좌와 같다고 한다. (중략) 전담의 피해와 도로 교량 (중략) ▲인제군은 도로 파손 15간, 유실이 20간이요 교량 파손이 2개소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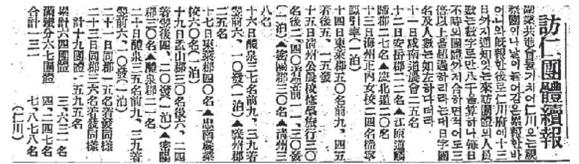


1923-10-16-04-03

### 동아일보

#### 방인단체 속보

부업공진회를 거쳐 인천 오는 시찰단이 나날이 늘어감은 누차 보도한 것이거니와 이미 보도한 후로 인천부에 13일까지 통지있는 내방 단체의 인원수는 숫자로 8천을 세나 매일 불시의 단체까지 합하면 적어도 3배 이상을 초과하리라는 데 일자 단명 및 인수는 좌와 같다고 한다. ▲11일 함남도농회 25명 12일 안악군 22명 ▲강원도 인제군 27명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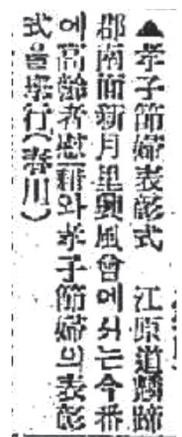


1923-12-28-03-05

### 동아일보

#### 효자절부 표창식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흥풍회에서서는 금번에 고령자 위자와 효자절부의 표창식을 거행 (춘천)



1923-12-29-03-06

### 동아일보

#### 소작인 생육작물 품평회

이달 8일, 9일 양일간에 강원도 인제군 읍내 이시영씨는 자기집에서 소작인 생육작물품평회를 열고 소작인 약 100여인을 초대하여 각각 상품을 주었다고 한다. (춘천)

1924-01-01-12-05

### 매일신보

#### 군명가, 김화 이하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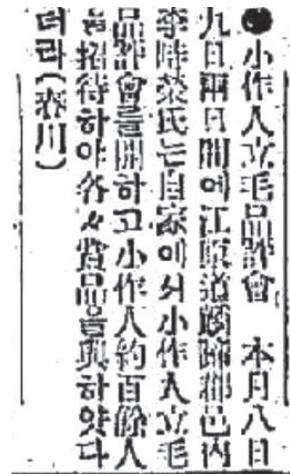
강원도로 내려가니, 도지대원 원주로다. 이천선생 찾아가서 성학을 강론하고 운염풍경근오천에 방화수류 춘천이라, 효열특행 정선이오, 불이생초 인제로다. 회양리민 상득하니, 삼고출척 삼척이라. 도로 중흥 횡성이며, 인물번화 화천인가. 김화 철원 금철보배 많고말야 울진일세. 천리 강릉 일일원하니 양자강구 양구로다, 현산정 바라보니 양양이 덕이로다. 구년지수 아니였던 흥천이 웬일인고. 백천이 조종하니, 동해상에 통천이라. 남평백월하였던가 영월 이름 이상하다. 가용평강하였으니 평창이 아니될까, 산뽕나무 입이 피니, 간성 부녀 양잠하네.

1924-05-09-04-01

### 매일신보

#### 우량종 보급 갱신 우량면 11개소 표창

강원도의 쌀생산 증식계획에 기반한 면 씨받이는 설치에 관하여 각 군에서는 금번 종전과 같은 모양으로 면 씨받이는 경작상황과 종자 교환상황 등에 대해 각각 주도한 성적심사를 보냄으로써 지난달 중 제3회 면 씨받이는 품평회 포상수여식을 거행하여 도에서는 포상대금으로 약 1천원을 각군에 보조하고 3개군으로 나누어 유복, 무전대 천 도기수를 파견하여 우량종 보급 갱신 선전의 목적으로 산미 개량 강좌를 행하여 우량종 보급과 갱신 실시상 면 씨받이는 위탁자와 당국의 분기와 일반 농민의 자각을 촉진하여 다대한 효과를 얻었는데 다시 도에서는 면 씨받이는 지휘 감독상 좋은 평판을 얻은 결과 우량종의 보급갱신 성적이 가장 우수한 면에게 표창을 행하기로 하여 주도 조사한 결과 도내 178면 중 11면을 선정하고 표창장에 미려한 금액을 첨가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앞으로 면 상호의 경쟁심을 환기하고 우량종 보급 갱신계획 수행상 많은 효과가 있을 줄로 인식하는데 표창된 면은 좌와 같다하더라. 『춘천』  
인제군 기린면, 양구군 북면, 통천군 답천면, 양양군 토성면, 울진군 울진면, 근남면, 평창군 봉평면, 원주군 건동면, 횡성군 갑천면, 홍천군 남면, 화천군 상서면



1924-09-19-01-10

### 시대일보

#### 엽총협박 시국을 표방하고 금품을 강탈 도주

지난 30일 오후 10시 경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김성룡의 집에 어떤 자가 사냥총을 가지고 들어와 주인을 협박하고 자기는 신정부 사람인데 군자금을 모집하는 중이니 돈 1,000원을 내 놓으라 하다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다고 하니가 그러면 있는대로 내놓으라고 하여 현금 360원을 빼앗아서 흥천방면으로 도망한 사실을 경향각지로 그 범인을 대 수색중이라고 한다.

1924-10-01-02-03

### 동아일보

#### 지폐 위조범 공판 5인이 공모하고 5만원을 위조함

강원도 인제군에 원적을 두고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에 사는 김명선(41)과 이주용(23) 서수산(35) 등 3인은 이규섭 허민 등과 공모하고 제작된 9월경부터 작년 2월까지에 덕거리 호룡산 산속에 초가집 속과 또는 이주용의 집 등에서 조선은행권 10원짜리 약 5천장 액면가격 5만원어치를 위조하여 그 중에 수십장을 사용하고 또는 그 돈으로 엇방맹이라는 노름까지 한 일로 지난 30일 오후 1시경부터 서울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고 한다.

1924-10-05-03-05

### 동아일보

#### 본사에 의뢰한 서조선 수해구금 인제학생친목회의 열정

강원도 인제군 재경유학생친목회에서는 서조선 수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제군청년회 후원으로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인제 정의여학당내에서 소인금을 개최하고 동정금 42원85전을 모집하여 비침한 동포에게 송부하여 달라고 본사에 위탁하였는데 동정한 인사와 금액은 좌와 같다.  
일금 3원 이성흠 정대일, 일금 2원 임정규 이종형, 일금 1원50전 엄정환, 일금 1원 신복정의 도부문삼 원용진 엄규창 강용수 이종륜 이종례 이종대 이종설 이종고 박용은 김종배 이영배 박광선 김영제 이응규 최원백 박상병 강봉빈 조동수 박종화 김기주 방범주 김준홍 이병규 최규태 엄규택 서병한, 일금 50전 임용준 고선봉 이종현 김영복 이승익 이봉대 함성희 이주석 이종기 박재선 이범준 씨로 합계금 42원85전

1924-10-10-03-03

### 동아일보

#### 좁도적 한명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 191번지에 본적을 두고 초음정 22번지 이찬규(24)는 토단용의 철선 전문 절도로 제작일 오후 9시경에도 명치정 1정목 고물상점에서 절취한 토단선 1관 500m 가량을 팔려다가 현장에서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獵銃脅迫**  
시국을 표방하고 금품을 강탈 도주

지난 삼십일 오후 열시경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김성룡(江原道麟蹄郡南面於論里金性龍)의 집에 어떤 자가 사냥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인을 협박하고 자기는 신정부(新政府) 사람인데 군자금을 모집하는 중이니 돈 1,000원을 내 놓으라 하다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다고 하니가 그러면 있는대로 내놓으라고 하여 현금 360원을 빼앗아서 흥천방면으로 도망한 사실을 경향각지로 그 범인을 대 수색중이라고 한다.

**紙幣偽造犯公判**  
우인 이규섭 등 5인이 공모하고 5만 원의 위조한

강원도 인제군에 원적을 두고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에 사는 김명선(41)과 이주용(23) 서수산(35) 등 3인은 이규섭 허민 등과 공모하고 제작된 9월경부터 작년 2월까지에 덕거리 호룡산 산속에 초가집 속과 또는 이주용의 집 등에서 조선은행권 10원짜리 약 5천장 액면가격 5만원어치를 위조하여 그 중에 수십장을 사용하고 또는 그 돈으로 엇방맹이라는 노름까지 한 일로 지난 30일 오후 1시경부터 서울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고 한다.

**西鮮水害救金**  
本社에依頼한 江原道留學生親睦會의 열정

본사에 의뢰한 서조선 수해구금 인제학생친목회의 열정

일금 3원 이성흠 정대일, 일금 2원 임정규 이종형, 일금 1원50전 엄정환, 일금 1원 신복정의 도부문삼 원용진 엄규창 강용수 이종륜 이종례 이종대 이종설 이종고 박용은 김종배 이영배 박광선 김영제 이응규 최원백 박상병 강봉빈 조동수 박종화 김기주 방범주 김준홍 이병규 최규태 엄규택 서병한, 일금 50전 임용준 고선봉 이종현 김영복 이승익 이봉대 함성희 이주석 이종기 박재선 이범준 씨로 합계금 42원85전

**좁도적 한명**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江原道麟蹄郡南面)의 철선 전문 절도로 제작일 오후 9시경에도 명치정 1정목 고물상점에서 절취한 토단선 1관 500m 가량을 팔려다가 현장에서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1924-10-28-01-05

### 시대일보

## 강원도 산화 후보, 반은 진화되고 또 새로 발화

강원도 각지 산림에 화재가 빈번하다 함은 이미 보도와 같거니와 그 후 혹은 진화되고 혹은 또다시 새로이 발화되어 여전히 노력중인데 강원도 경찰부장으로부터 엿그제 오후2시에 경무국장에게 온 전보에 의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1. 평강 철원군 24일 오후7시 진화
2. 김화군 24일 오후6시 진화
3. 춘천군 서상면 25일 오후6시 진화
4. 인제군 북면 ●●리 국유림 화재는 24일경 양양군 서리 오색령에 연소한 고로 방금 군민 500명과 협력하여 진화에 노력 중 (중략)

## 江原道山火後報

반은 진화되고 또 새로 발화

강원도 각지 산림에 화재가 빈번하다 함은 이미 보도와 같거니와 그 후 혹은 진화되고 혹은 또다시 새로이 발화되어 여전히 노력중인데 강원도 경찰부장으로부터 엿그제 오후2시에 경무국장에게 온 전보에 의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一、平康鐵嶺郡二十四日午後七時發火

二、金化郡二十四日午後六時發火

三、溇川郡二十四日午後六時發火

四、麟蹄郡北面龍鳳嶺有林火

五、楊口郡西面雲水嶺有林火

六、楊口郡西面雲水嶺有林火

七、楊口郡西面雲水嶺有林火

八、楊口郡西面雲水嶺有林火

九、楊口郡西面雲水嶺有林火

十、楊口郡西面雲水嶺有林火

1925-01-13-02-02

### 시대일보

## 관동청년대회 준비위원회

【고성】 관동청년대회 발기인회를 지난 5일에 고성군 간성면 수성청년회에서 개최하였다 함은 기보한 것과 같거니와 선정된 준비위원들은 그날 저녁에 제1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한다.

- ▲사무분담
  - 서무부 박태선 함연호 김병희
  - 선전부 권선홍 한명찬 최우집 심상준 이선기 이동수 어종면 김춘배 이학수 송인혁 함명근
- ▲선전대원
  - 1대 최선명 한명찬 양양, 강릉, 삼척, 울진
  - 2대 김병희 함연호 인제, 양구,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선
  - 3대 최우집 박태선 고성, 통천, 회양, 김화, 평강, 철원, 이천
- ▲출발일정 2일부터
  1. 준비위원회 수성청년회에 두기로
  1. 주취문 기초 서무부에 일임.
  1. 예산안 편성
  1. 대회장소로 정한 신계사 교섭위원 박태선, 함연호, 한명찬

## 關東青年大會 準備委員會

▲事務分擔

一、事務部 朴泰善 韓明燾 金

二、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三、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四、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五、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六、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七、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八、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九、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十、宣傳部 曹錕 李錫 李東

1925-01-14-02-03

### 동아일보

#### 관동청년준비위원회 ◇경과와 결의사항

관동청년대회 발기인회를 지난 5일에 고성군 간성면 수성청년회에서 개최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거니와 선정된 준비위원들은 그날 저녁에 제1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 1. 사무분담

서무부 박태선 함연호 김병희, 선진부 최선명 한명찬 최우집 심상준 이선기 이동수 어종면 김춘배 이학수 송인혁 함명근

##### 1. 선전대조직

- 1대 최선오 한명찬 양양 강릉 삼척
- 2대 김병희 함연호 인제 양구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선
- 3대 최우집 박태선 고성 통천 회양 김화 평강 철원 이천

##### 1. 출발 일정 2월부터

1. 준비위원회 수성청년회에 두기로

1. 주최문 기초 서무부에 일임

1. 예산안 편성

1. 대회 장소인 신계사 교섭위원 박태선 함연호 한명찬

1925-04-13-03-08

### 매일신보

#### 사령

(중략)

(이천) 산원가일 보 인제공립심상소학교장

(인제) 도부문삼 보 이천심상소학교장

1925-05-31-03-03

### 시대일보

#### 토지개량조사

【삼척】 강원도 삼척 강릉 양양 인제 4군을 기초로 하고 그 이웃군에 기본조사를 약 3개월 예정으로 토지개량 즉 수리관개를 장려하고 또 직영으로 쌀 생산증가를 꾀할 목적으로 지난 18일에 착수하였다 한다.

### 關東青年 準備委員會

○경과와 결의사항  
○정규회원 41명

오일에 고성군 간성면 수성청년회(관동청년준비위원회)에서 개최하였던 제1회 정기총회와 그 결과로서 관동청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임무와 직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一 事務分擔

庶務部 朴泰善 咸演準 金炳善  
宣傳部 崔善鳴 韓明燦 崔萬集 沈祖聲 李官憲 李東濤 魚安海 金春培 李榮洙 宋寅錫 咸明根

二 幹 崔善鳴 韓明燦  
三 幹 金炳善 咸演準  
四 幹 江陵 三陟 蔚珍 襄陽 通川 海州 金化 平康 鐵原 伊川  
五 幹 崔東果 朴泰善 高顯 通川 海州 金化 平康 鐵原 伊川

○出役日程 二月부터

○準備委員會 總幹事年會에 두기로

○主權 朴泰善 庶務部에 일임

○大會議所인 新縣寺交沙委員 朴泰善 咸演準 韓明根

任 江陵 縣署主任 趙谷孝之助	任 蔚珍 縣署主任 中村 芳次	任 襄陽 縣署主任 鵞崎 剛雄	任 三陟 縣署主任 森山 謙	任 海州 縣署主任 田九 弘	任 通川 縣署主任 吉田 誠一	任 泰川 縣署主任 吉田 誠一	任 江陵 縣署主任 趙谷孝之助	任 蔚珍 縣署主任 中村 芳次	任 襄陽 縣署主任 鵞崎 剛雄	任 三陟 縣署主任 森山 謙	任 海州 縣署主任 田九 弘	任 通川 縣署主任 吉田 誠一	任 泰川 縣署主任 吉田 誠一
-----------------	-----------------	-----------------	----------------	----------------	-----------------	-----------------	-----------------	-----------------	-----------------	----------------	----------------	-----------------	-----------------

### 土地改良調査

【三陟】江原道三陟、江陵、襄陽 隣四郡을 基礎로 하고 그 隣郡에 基本調査를 約三個月豫定으로 土地改良即水灌漑를 奨勵하고 且 直營으로 產米增加를 圖할 目的으로 昨 十八日에 着手 하얏다 한다

1925-08-01-03-02

매일신보

사망이 35인 22일까지에 도달된 보고는 아직도 교통두절로 미상인 곳이 많은 강원도 수해 보고서

7월 16일 이후의 호우는 강원도 영서 각군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강 상류 연안 각지에 피해가 심대하여 그 중 춘천이 피해가 격심하고 다음에 김화, 화천, 회양, 양구, 인제 각군이 피해가 심대하고 정선, 평창, 영월, 이천, 양구는 전신이 불통되어 이곳 각지의 피해 상황은 상세치 않은 중에 있으며 전지와 농작물 가축류 기타 상세한 피해는 조사중에 있고 도내 수리조합지구에서 피해 최다는 원주문막, 고성 2 조합이나 그 상세 아직 알수 없으며 도로 피해만 350여만 원에 달할 모양인데 7월 23일 정오까지에 판명된 생명과 가옥피해 등의 도청에 도달된 보고에 의하면 사망자가 35인이요 행위불명 3명이며 가옥 유실이 436호, 전피 204호, 반피 215호, 침수 1천757호인데 이외에도 한층 피해가 있을 줄 예상되는 곳이 보고를 아직 접하지 못한 군도 있는 즉 이를 정확하다고 인정기 어려운데 피해상황을 열거하면 좌와 같다 하더라. (춘천)

군명	사망자수	행위불명	유실	전피	반피	침수
인제	9	1	16	2	5	

1925-08-07-03-02

매일신보

양구 16인을 필두로 익사가 65인 인축 사상과 가옥 전지의 파괴 손해 총액이 무려 500여만원 강원도 수해속보

지난번 홍수 후의 강원도 피해 상황은 대략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그 이후 교통의 지장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일에 이르러 신중히 각군의 피해조사를 종합하건대 현재까지 조사된 수재 피해는 전도에 걸쳐 그 손해액은 가공할만큼 500여만 원에 달하는 바 그중 인명 사망으로는 양구 16명이 최다수로 총 익사자 65인을 산출하고 유실가옥으로 춘천군의 320여호가 최다수로 총유실 690호를 헤아리게 되며 아울러 전피 반피 가옥도 춘천을 최다수로 하여 총호수가 784호에 달하고 있다. 침수가옥도 또 춘천이 최다수로 총호수가 6,252호에 달했으며 도로 피해는 경춘간 도로와 춘천 김화간과 춘천 인제간 2등도로를 최대피해로 하여 전도 각선의 총피해고는 254만6,700여원에 달하며 농작물 피해고는 354만 6,000여원에 달해 전도 총피해고 53만9,400여원에 달하고 있다. (중략)

농작물 피해 면적 및 금액	각군	면적(반)	금액(원)
인제	810.0	19,847	

### 死亡이二十五人

#### 江原道水害後報

七月十六日以後의 暴雨江原道 鐵原各郡一帶中心으로 하여 北 漢江上流沿岸各地에被害甚大 其 中 春川이被害가 甚大 激甚 各郡에被害가甚多고 更히 善平昌寧越伊川楊口三邑에 不通過는此等各地에被害狀 況은未詳中에在하며 田及農作物 家畜類其他詳細被害는調査 中에在計道內水利組合地區에 被害甚多江原道鐵原兩郡 合하여其詳細는尙未知이며 道路 被害는三萬五千餘萬圓의被害額 判明이며七月二十三日正午까지의 判明된生命及家畜被害等의頭數 三十五人이오 行德不名이三有이며 家畜流失이四百三十六頭 全潰 十五戶浸水一千七百

郡名	死亡	行德不名	流失	浸水
春川	九	二	三	三
善平	一		一	一
昌寧	一		一	一
越前	一		一	一
伊川	一		一	一
楊口	一		一	一
三邑	六		七	七
其他	零		零	零
合計	二十五	二	七	七

### 楊口十六人을筆頭로 溺死가六十五人

#### 江原道水害續報

洪水一過後

郡名	間	間
春川	1,757	3,000
善平	1,000	1,500
昌寧	1,000	1,500
越前	1,000	1,500
伊川	1,000	1,500
楊口	1,000	1,500
三邑	1,000	1,500
其他	1,000	1,500
合計	17,570	25,467

1925-10-12-04-01

### 동아일보

#### 강원도 농작 상황 콩은 작년 비해 증수 쌀 조는 감소

강원도의 예년 총생산고는 5,500여만원으로 과반수를 점령한 중요 곡물은 쌀, 콩, 조 3종인데 평년작 상황은 쌀이 2,100만원, 콩이 380만원, 조가 250만원이라는데 올해 이양 때에는 강우의 순조로 인하여 작년에 비하여 2,000정도의 증가를 얻었으나 불행히 7월 중순의 대수해와 9월 초순의 영동지방 폭풍우로 피해가 적지않았다 하며 작년 실수고에 비하여 감수를 예상하는 지방이 양구 회양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평창 홍천 화천 등 10군이며 수해 영향이 크게 심하지 않은 지방은 김화 철원 평강 이천 횡성 고성 인제 춘천 등 8군인데 이 지방은 3% 내지 20%의 증수 예상이라 하며 총합 올해 수확예상고는 69만1,990석인데 작년에 비하면 1.6% 감수예상이요. 지난해의 실수고와 본년 수확예상을 대조하면 좌와 같다하고. (중략)

1925-11-18-04-07

### 동아일보

#### 도민저축상황 강원도내의 최근조사

강원 전도의 금융기관과 저금상황을 당국의 조사한 것에 의하면 도내에 금융조합이 31개소요 식산은행이 3개소요 우편국소가 38개소인데 저금한 인원수는 조선인 433,730인이고 일본인이 39,260인이며 금액으로는 조선인편이 644,665원이고 일본인편으로 570,325원이라는데 이를 각군 성적으로 보면 조선인측으로는 인제군과 김화군이 제1위요 일본인측으로는 춘천군과 원주군이 1위라 하며 제일불량한 곳은 조선인측으로는 평강군이요, 일본인 측으로는 울진군이라고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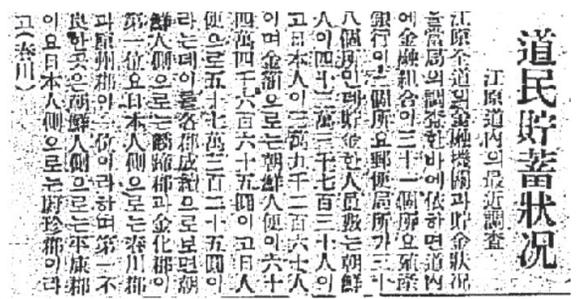
1925-12-26-04-01

### 동아일보

#### 강원도평의회 제7일

강원도평의회 제7일은 지난 23일 오전11시 45분에 계속 개최되다. (중략)

◇대중 지방과장으로 자문 제6호 강원도 지방비 부역 부과안을 낭독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부역을 부과할 때 군별과 인원수는 좌와 같다라. 울진 삼척 춘천 양구 인제 화천 6군에 대하여 1926, 1927 2개년도 출역할 원수가 총계 12만 7,104인이다. (중략)









1926-11-13-02-07

### 동아일보

## 모자 총살범 혐의 1명 체포, 인제근처에서 1명을 잡아 홍천엽총단사건 후문

기보=지난 9월 12일 밤중에 3명의 엽총단이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유익렬의 집에 나타나서 금품을 강탈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익렬의 처 정씨와 그 아들 류재형을 즉석에서 총살한 모자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로 인근 각경찰서에서는 이래 범인 수색에 무한한 고초를 겪으며 다수한 경관이 출동하여 의연히 경계망을 치고 활동하여오던 중 지난 7일경에 춘천경찰서 형사대의 수사구역에 속하여있던 인제군 남면 갑둔이란 곳에서 어떤 수상한 사람 한명을 붙들어 방금 춘천서로 압송하여 혐의자로 엄중한 취조를 한다는데 그는 일정한 주소와 직업이 없는 전이쇠(39)라 자칭하고 이름을 세가지씩 가지고있는 매우 유력한 혐의자로 지목되는 모양인데 아직 그 연루자 수색에 경찰이 골몰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한다.

1926-11-17-02-05

### 동아일보

## 총기가진 청년 강원도에 재현 이틀동안에 세곳에 나타 나 공포 중의 인제 홍천 등지

지난 12일 오후에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에 무기를 가진 청년이 나타나 모부호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하여가지고 간 일이 돌발하자 뒤를 이어 다음날 13일 새벽에는 전기 광암리에서 멀지않은 인제군 남면 어룬리에 역시 무기를 휴대한 청년이 나타났었으며 동일 새벽에는 다시 홍천군 두촌면 패석리에 역시 무기 가진 청년이 돌현하였다는데 그들의 종적은 모두 오리무중에 싸인 모양인데 그 자세한 피해 상황은 방금 조사중이고 요전 홍천에 엽총단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경계가 엄중한 이때에 계속하여 소란하므로 관계 각 경찰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더욱 긴장하여 범인을 체포코자 활동하는 중이고 인근 일반 인심은 더욱 불안하다는데 홍천을 중심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사건은 모두 동일한 4인대의 청년단의 소위로 추측하고 경찰은 오래전부터 경계망을 치고 내려오던 중이나 신출귀몰한 그들은 오히려 거리낌이 없이 빈번히 나타나 경찰이 고통으로 지내오던 중 그들은 양복과 안경을 쓴 신사 비슷한 외형으로 그들이 가진 총기는 요전 춘천군 동면 모씨의 엽총을 탈취해간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일시는 인근 각경찰이 총동원이 되어 인제(가리산)이라는 큰 솔밭을 포위하여 물샷틈도 없이 수사한 적이 있었으나 필경은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춘천)

### 母子銃殺犯 嫌疑一名逮捕

#### 洪川獵銃團事件後聞

인제군에서 한 며느리가  
洪川獵銃團事件後聞

가보=지난 9월 12일 밤중에 3명의 엽총단이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유익렬의 집에 나타나서 금품을 강탈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익렬의 처 정씨와 그 아들 류재형을 즉석에서 총살한 모자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로 인근 각경찰서에서는 이래 범인 수색에 무한한 고초를 겪으며 다수한 경관이 출동하여 의연히 경계망을 치고 활동하여오던 중 지난 7일경에 춘천경찰서 형사대의 수사구역에 속하여있던 인제군 남면 갑둔이란 곳에서 어떤 수상한 사람 한명을 붙들어 방금 춘천서로 압송하여 혐의자로 엄중한 취조를 한다는데 그는 일정한 주소와 직업이 없는 전이쇠(39)라 자칭하고 이름을 세가지씩 가지고있는 매우 유력한 혐의자로 지목되는 모양인데 아직 그 연루자 수색에 경찰이 골몰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한다.

### 銃器 가진 靑年 江原道에 再現

#### 恐怖中の 麟蹄 洪川等地

이들 동안에 세곳에 나타나

지난 12일 오후에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에 무기를 가진 청년이 나타나 모부호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하여가지고 간 일이 돌발하자 뒤를 이어 다음날 13일 새벽에는 전기 광암리에서 멀지않은 인제군 남면 어룬리에 역시 무기를 휴대한 청년이 나타났었으며 동일 새벽에는 다시 홍천군 두촌면 패석리에 역시 무기 가진 청년이 돌현하였다는데 그들의 종적은 모두 오리무중에 싸인 모양인데 그 자세한 피해 상황은 방금 조사중이고 요전 홍천에 엽총단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경계가 엄중한 이때에 계속하여 소란하므로 관계 각 경찰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더욱 긴장하여 범인을 체포코자 활동하는 중이고 인근 일반 인심은 더욱 불안하다는데 홍천을 중심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사건은 모두 동일한 4인대의 청년단의 소위로 추측하고 경찰은 오래전부터 경계망을 치고 내려오던 중이나 신출귀몰한 그들은 오히려 거리낌이 없이 빈번히 나타나 경찰이 고통으로 지내오던 중 그들은 양복과 안경을 쓴 신사 비슷한 외형으로 그들이 가진 총기는 요전 춘천군 동면 모씨의 엽총을 탈취해간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일시는 인근 각경찰이 총동원이 되어 인제(가리산)이라는 큰 솔밭을 포위하여 물샷틈도 없이 수사한 적이 있었으나 필경은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춘천)

1926-11-19-02-01

### 동아일보

## 강원장총단은 엄태섭 일대 이곳저곳에서 총칼이 들현 돈을 빼앗고 구문을 도로주어 출몰 이면에 호어편편

지난 10일과 23일 양일간 사이에 강원도 홍천과 인제 양군 등지에 연 3차나 총기 가진 4인대가 나타나 금품을 위협 강탈하여다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3처에서 발생한 사건이 모두 동일한 계통으로 먼저 12일 초저녁에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장경환의 집에 회색과 검은 양복 입은 4명이 나타나서 장총과 기타 무기를 휴대하고 자기들은 상해임시정부원으로 ○○금을 모집코자 왔으니 금품을 있는대로 내놓으라 하였으나 마침 집에는 돈이 없고 자기 아들되는 장치선이 소장사를 나갔는데 들어오면 돈이 있겠다고 말하였는데 그들은 그 아들의 간곳까지 묻고 곧 어디로 종적을 감추어버린지 몇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11시경에 다시 전기 광암리에서 가까운 인제군 남면 금부리(이미 보도된 어른이라 함은 오기) 채봉규의 집에 전기 4명과 흡사한 무기단이 나타나서 역시 ○○금을 강탈하므로 주인은 가졌던 돈 19원을 내놓아는데 그들은 받아가지고 차취를 감춘 후 다시 그날 새벽에는 홍천군 두촌면 쾌석리 객주집을 습격하여 안방에서 자는 주인 박원약을 깨워 협박하며 군금 모집원이라 하고 금품을 내놓지 않으면 곧 죽인다고 위협하였으나 마침 돈이 없다고 애걸하므로 그들은 또다시 객실에 달려들어 마침 전기 내촌면 광암리 장치선이 소 팔아가지고 오던 길에 가졌던 돈 93원을 강탈하여 3원은 도로 내주며 네 애비 장경환의 국거리나 하라고 하면서 곧 종적을 감추어버린 하룻밤 사이에 3처를 횡행한 사건이라는데 경찰당국의 추측은 이 사건 역시 몇해전부터 강원도 일대를 소란케하던 엄태섭의 소위인 듯하다 하여 부근 각경찰은 수색대를 늘여 범인 수색에 활동하는 중이라고 한다. (춘천)

1926-12-11-05-06

### 동아일보

## 강원도에 또 강도 세명이 나타나 곤봉으로 위협하고 돈 빼고 구문주고 밀고하지 말라고 50원 빼고 구문으로 2원

지난 2일 오전 2시경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335번지 박원근(47)의 집에 세명의 강도단이 들어가 곤봉으로 주인을 난타하며 꿀 10관을 매관 15원50전씩에 판돈이 있을 것이니 있는대로 내놓으라고 하므로 마침 닷새 전에 매관에 16원40전씩에 꿀을 판 돈이 53원이 있었으므로 그 돈을 내주었는데 그 자들은 그 돈 50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인정있는 듯이 2원을 도로 내주며 경찰에 고발치 말라고 위협하며 51원을 강탈하여가지고 곧 어디로 종적을 감춰버렸다는데 피해자 박원근은 후환이 두려워서 즉시 경찰에 고발치 않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후인 지난 4일에야 사실이 경찰에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춘천)

**江原長統團**  
**嚴泰燮一隊**

이곳저곳에서 총칼이 들현 돈을 빼앗고 구문을 도로주어 출沒裏面의豪匪片

강원도 일대 엄태섭 일대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세력은 강원도 일대를 무대로 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구문을 도로주어 출몰하고 있다. 이 세력은 강원도 일대를 무대로 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구문을 도로주어 출몰하고 있다.

강원도 일대 엄태섭 일대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세력은 강원도 일대를 무대로 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구문을 도로주어 출몰하고 있다. 이 세력은 강원도 일대를 무대로 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구문을 도로주어 출몰하고 있다.

**江原道에 强盜**  
**五十圓 文 口 文 一圓**

강원도 일대 강도 세명의 나타나 곤봉으로 위협하고 돈 빼고 구문주고 밀고하지 말라고 50원 빼고 구문으로 2원

강원도 일대 강도 세명의 나타나 곤봉으로 위협하고 돈 빼고 구문주고 밀고하지 말라고 50원 빼고 구문으로 2원

1926-12-11-05-08

### 동아일보

#### 전후 10차 강원도가 횡행해 강원도는 인심 흉흉

별항 강도사건에 대하여 이것이 역시 최근 수년동안 인제, 양구, 홍천, 춘천 등 인접 각군을 횡행자재하며 혹은 총기로 살해를 가하며 혹은 곤봉으로 난타 위협하며 혹은 시국을 표방하며 금품을 강탈해 가는 속칭 4인대 강도단과 동일한 계통의 범행으로 추측된다는데 홍천 모자 살해사건을 위시하여 지난 11월 중에 하룻밤 사이에 인제와 홍천에 전후 3차 출몰횡행한 강도사건으로 인하여 각경찰이 간담을 더욱 태우며 비상선을 높이고 수색에 분망한 때에 또다시 그같은 사건이 발생하므로 이에 더욱 경찰은 낙담 긴장한 상태라는데 동일한 계통의 4인조 사건으로 지목되는 강도발생건수가 금번까지 실로 10차례라는데 그자들의 전후 범행을 보면 무엇보다도 지방사정에 정통하여 교묘하기 짝이 없어 그 단서를 잡기에 더욱 경찰은 고통을 느껴왔으나 번번이 실패에 돌아가고 만 것이라고 한다.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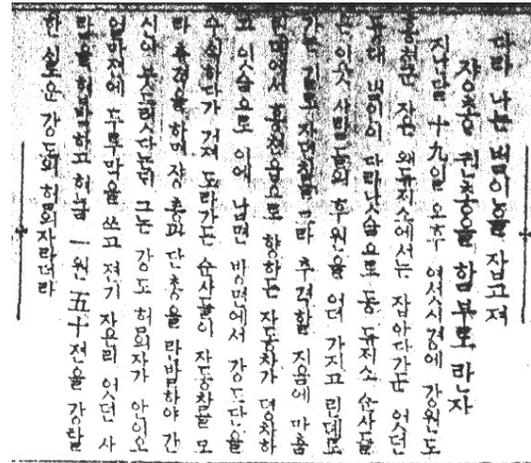


1927-01-20-02-01

### 신한민보

#### 달아나는 범인을 잡고자 장총 권총을 함부로 난사

지난달 16일 오후 6시 경에 강원도 홍천군 자은리 두 지서에서는 잡아 가두었던 중대 범인이 달아났으므로 동 주재소 순사들은 이웃 사람들의 후원을 얻어 가지고 인제로 가는 길로 자전거를 몰아 추격할 즈음에 홍천읍으로 향하던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에 남면 방면에서 강도단을 수색하다가 거쳐 돌아가던 순사들이 자동차를 몰아 추격을 하며 장총과 단총을 난발하여 간신히 붙들었다는데 그는 강도 혐의자가 아니요 얼마 전에 두루막을 쓰고 전기 자은리 어떤 사람을 협박하고 현금 1원50전을 강탈한 새로운 강도의 혐의자라더라.



1927-04-06-02-03

### 동아일보

#### 270명 출발 강원도민과 황해도 사람들 3일 경원선 북계역에서

북간도로 가는 사람이 매일 느는 중 지난 3일 경원선 북계역에서 차를 타고 북간도로 향한 사람만이 270여명에 달하였다 하며 그들은 대개 강원도에 있어서는 춘천, 원주, 인제, 양구 등지와 황해도로 송화, 금천, 평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평강)



1927-04-15-02-09

### 중외일보

## 80원 강탈코자 자기 매부를 타살, 고기 잡으러 가는 중도에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가는

강원도 인제군 가무재라는 곳에서는 3월 16일 오전 10시경 살인사건이 발생되어 범인은 인제군 경찰서에 잡혀 지금 춘천형무소에 유치중인데 그 내용을 들은 즉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서리 박승옥(28)은 자기의 매부되는 전균형이가 현금 80원을 가지고 양양 지방으로 고기를 사러가는 것을 쫓아가서 가무재라는 곳으로 가서 이곳으로 가면 가깝다고 유인하여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목을 매어 살해한 후 맹수 잡는 함정에다 시체를 쓸어넣은 것이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 한다. 【춘천】



1927-04-15-05-01

### 동아일보

## 인척을 교살 절애밑에 투척, 게다 돌로 때리기까지 몇번, 희유의 인제살인 강도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반경에 인제군 인제면 북리 쟁재(고곡치)에서 듣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살인강도사건이 있었는데 동리 지역동 전균형(47)은 영동방면에 가서 해물을 사다 팔려고 가는 것을 어떤 자가 알고 뒤를 따라 양양방면으로 재를 넘다가 마치 맹수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장7척 폭2척)을 보고 그 자리에서 쉬이며 담배를 피웠는데 그 지는 길이 석자나 되는 수건으로 전균형의 목을 매어놓고 서로 격투하기를 한시간이나 하다가 절명시킨 놀라운 사실이라는데 이제 그 범행의 경로를 들으면 전기 장소에서 격투를 하다가 24척 가량되는 화전비탈로 내려굴러 혼도가 되어있는 것을 악착스러운 강도는 곧 달려가서 돌로 두부와 흉부를 무수히 난타하여 끔찍스러운 상처를 내이고 돈 80원을 빼앗은 후에 높이 57간이나 되는 절벽에다 또다시 내려굴러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목숨이 붙어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것을 본 악한은 그제는 큰돌로 내리쳐서 무참히 죽이고 또 차내려가서 발목을 끌고 17간 가량되는 지점에다가 버린 것을 그 이튿날 27일에 발견하고 지난달 24일에 범인을 체포하여 방금 인제서에서 취조중이었는데 그자는 동면 서리 박승옥(28)이라는데 인척(매부의 형) 관계있는 전기 전균형을 살해한 것이라고 한다. (춘천)



1927-06-05-04-05

### 중외일보

## 전강원도 사회운동자대회 오는 7월 10일 춘천에서

금번 중앙협의회에 출석하였던 강원도지방대의원 10여명은 지난 5월 19일에 서울 인사동 모 여관에서 회합하여 미미부진하는 전강원도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협의를 하지고 7개 단체가 연합 발기를 하여 준비



1927-07-01-02-09

### 중외일보

#### 인제군에 가짜 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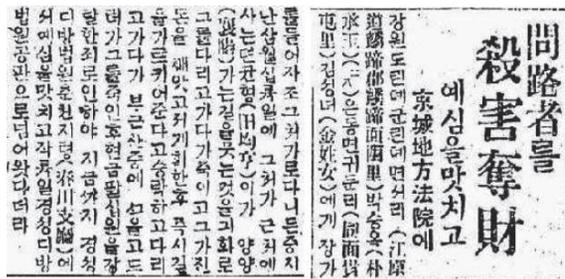
강원도 인제군 내면 광원리 박연대의 집에 지난 21일 나이 24, 25세 가량이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는 인제경찰서의 이형사인데 범인을 수색코자 왔으니 그리 알라하고 권총과 같은 것을 보인후 경찰관은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다하고 밥까지 차려먹은 다음 돌아갔었는데 이후 24일에 다시 찾아와서 수색이 곤란하여 변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고 박연대의 집에 묵고있는 채목상 손운도의 두루마기와 맥고모자를 가지고 간 외에 평창군내 각지에서 그와 같은 수단으로 여러 사람을 속인 사건이 최근 경찰의 탐지되어 강원도경찰부에서는 범인 수색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1927-07-07-02-09

### 동아일보

길 묻는자를 살해 탈재 예심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에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서리 박승옥(28)은 인제면 귀둔리 김성녀에게 장가를 들어 자주 그 처가로 다니던 중 지난 3월 16일에 그 처가 근처에 사는 전균형이가 양양 가는 길을 묻는 것을 기회로 그를 데리고 가다가 죽이고 그가진 돈을 빼앗고자 계획한 후 즉시 길을 가르쳐 준다고 승낙하고 데리고 가다가 부근 산중에 끌고 들어가 그를 죽인 후 현금 80원을 강탈한 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서울지방법원 춘천지청에서 예심을 마치고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 공판으로 넘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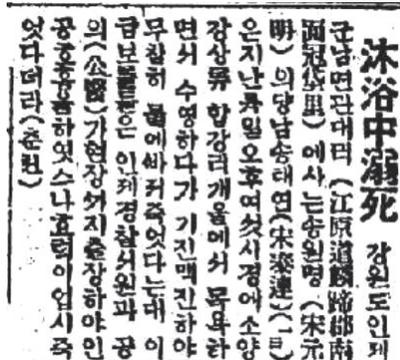


1927-07-12-05-01

### 동아일보

#### 목욕 중 익사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에 사는 송원명의 장남 송태연(13)은 지난 6일 오후6시경에 소양강 상류 합강리 개울에서 목욕하면서 수영하다가 기진맥진하여 무참히 물에 빠져죽었다는데 이 급보를 들은 인제경찰서원과 공의가 현장까지 출동하여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효력이 없이 죽었다고 한다.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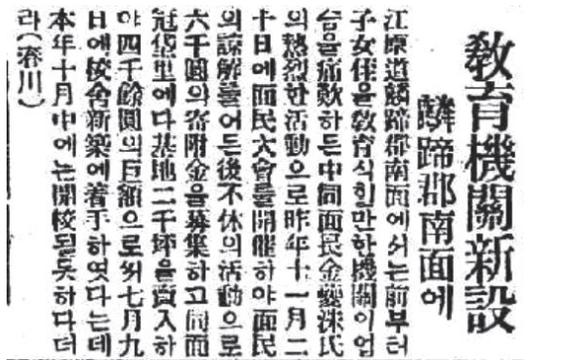


1927-07-19-04-06

### 동아일보

#### 교육기관 신설 인제군 남면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서는 전부터 자녀 조카를 교육시킬만한 기관이 없음을 통탄하던 중 남면장 김기수씨의 열렬한 활동으로 작년 11월 20일에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면민의 양해를 얻은 후 불휴의 활동으로 6,0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남면 관대리에다 그 땅 2천평을 매입하여 4,000여원의 거액으로써 7월 9일에 교사 신축에 착수하였는데 올해 10월 중에는 개교될듯하다고 한다. (춘천)



1927-07-28-02-09

### 중외일보

#### 호송중의 범인이 탈주하여 대소동, 뒤를 좀 잠깐 보겠다고 하고 그대로 강물에 뛰어들어, 아침에 탈주 저녁에 피착

작년 10월 5일 밤에 춘천군 사내면 광덕리 정명귀여인숙에서 김화 사람 김모가 현금 174원45전을 절도에게 빼앗긴 일이 있어 그 범인이 요즘까지 체포되지 않았는데 금월 하순에 인제경찰서원의 손에 잡혀 순사 조남재가 데리고 춘천읍으로 오다가 청평리 부근에 왔을 때에 범인이 대변을 보겠다고 하므로 조 순사는 의심치 않고 포박하였던 것을 풀어 주고 볼 것을 보라하고 물러앉았다니 범인은 별안간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건너가므로 헤엄칠 줄 모르는 순사는 닭 쫓던 개가 울 쳐다보기로 물끄러미 보기만 하고 서서 방관만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힘을 빌어 각처 경관주재소의 응원을 청하여 9명의 경관과 10여인의 보안조합원이 강 건너 산을 에워싸고 추격하여 24일 오전10시경에 놓친 범인을 동일 오후 7시반경에 다시 체포하여 춘천서에 구류되었다는 데 범인은 춘천군 사북면 고단리 동득준(45)이라고 한다.



1927-08-23-03-01

### 중외일보

#### 3인 강도단 수범 체포 검사국으로

다년간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횡행하던 강도단 3인 일부 중 수범 김기화(27)는本月 11일 춘천경찰서원의 손에서 현주소인 회양군 장양면 김도원방에서 체포되어 취조를 마치고本月 27일에 일진 서류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인치하였는데 범인은 원적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두고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4, 5차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는데 그 내용인즉 1926년 1월 9일 오전2시경에 통천군 통천면 상박리 류재곤 방에서 현금 120원을 강탈하였고 같은 해 1월 12일 오전2시경에 통천군 학이면 동흥리 한영복 방에서 현금 20원80전과 같은해 1월 25일 오전2시경에 회양군 난곡면 용정리 김형룡 방에서 현금 30원과 은지환 3개 10원어치와 명주 2자 1원어치를 강탈하고 같은해 2월 23일 오전0시경에 회양군 상북면 오랑리 신대정 방에서 마포 2필 20원어치와 동월 동일 오전1시경에 김성로 방에서 현금 11원과 마포 4필 값 18원어치를 강탈하고 무수히 사람을 구타한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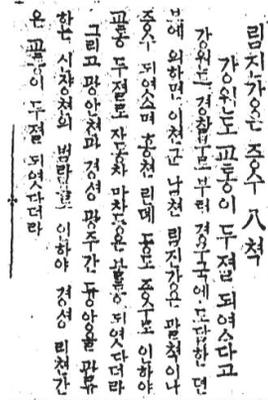


1927-09-01-02-03

### 신한민보

#### 임진강은 증수 8척 강원도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강원도 경찰부로부터 경무국에 도달한 전보에 의하면 이천군 남면 임진강은 8척이나 증수되었으며 흥천 인제 등도 증수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로 자동차 마차 등은 불통이 되었다더라. 그리고 광안천과 서울 광주간 증상을 관통하는 신장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서울 이천간의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1927-09-16-04-02

### 동아일보

#### 홍천 인제도로 개수코자 노력

강원도 홍천 인제간 도로는 3등도로이므로 교통이 불편하여 산물의 수입수출이 감소하여가므로 일반주민은 장래를 위하여 크게 근심하던 중 현재 홍천군수 장영한씨는 이에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4차나 군수 회의시에 도로 승격 문제를 제출하였으며 문제를 관철코자 한다고 한다.(홍천)



1927-09-17-04-08

### 동아일보

#### 3군 연합 정구

강원도 양구청년회에서는 오는 24일에 인제 화천 3군 연합으로 정구 경기를 개최하리라는데 근래 연합경기가 초유인만큼 대성황을 예상케된다 하며 책임간부들은 준비에 활동중이며 동시에 출전할 선수들은 기일을 앞두고 맹렬히 연습중이며 따라서 일반은 많은 흥미를 가지고 기대중이라고 한다.(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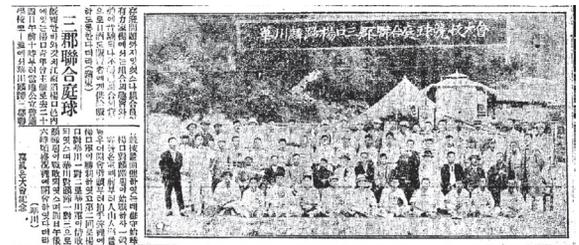


1927-10-01-04-07

### 동아일보

#### 3군 연합정구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강원도 양구읍내에 있는 양구청년회 주최로 지난 24일 오전10시부터 당지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경기를 개최하였는데 군수 시구, 양구 대 인제팀이 시전하자 일반객들은 정각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어 개회사 순부터 박수성리에 양구군이 승리하였고 제2회로 양구 대 화천 1대 2로 화천군이 석패되었으며 화천 대 인제 1대 3으로 인제팀이 전패되었으며 동일 오후6시경 성황리에 폐회하였다고 한다.(화천) 사진은 대회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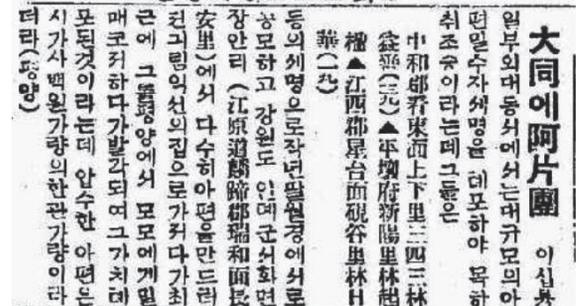


1927-10-02-05-09

### 동아일보

#### 대동에 아편단

26일 부의 대동서에서는 대규모의 아편 밀수자 3명을 체포하여 방금 취조중이리라는데 그들은 ▲중화군 간동면 상하리 343 임익선(39) ▲평양부 소양리 임기영 ▲강서군 성태면 연곡리 임일화 (19) 등의 3명으로 작년 8월경에 서로 공모하고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장안리에서 다수히 아편을 만들어 전기 임익선의 집으로 가져다가 최근에 그를 평양에서 모모에게 밀매코자 하다가 발각되어 그같이 체포된 것이라는 압수한 아편은 시가 400원가량의 1관가량이라고 한다.(평양)



1927-10-07-04-01

###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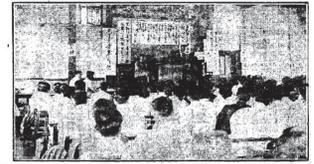
## 금지, 중지예 중 각대의원의 열화 3일에 걸쳐 권위있는 결의 청년대회 무사 종막

기보=강원청년연맹혁신대회 제2일은 예정과 같이 오전9시부터 강릉 읍 금정 중앙예배당에서 의장 함연호씨 사회로 개최하였는데 전일보다 한층 엄한 경계리에 90여명의 회원과 400, 500의 방청인이 입주의 여지가 없는 대성황 중에 한명찬씨의 세계 일반 정세보고의 중지를 비롯하여 임석 경관 주의 중지 연호의 가혹한 간섭 밑에 좌와 같이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는데 그간 이류단체 및 반동단체 박멸에 관한 건과 대중신문 지지에 관한 건은 경찰에게 금지를 당하였다고 한다.

### ◇결의사항

(중략)

- 1. 순회강연대를 조직하여 전도를 3분 순회케 할 일
- 1. 영동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제1대 이상각 조근환 정건화 김필선 조원숙
- 영북 이천 철원 평강 화천 김화 회양 제2대 한명찬 정의식 박용준 강정희
- 영서 춘천 원주 횡성 홍천 인제 양구 영월 평창 정선 제3대 이동수 함연고 최용대 김병환 심은숙
- 1. 춘천농업학교동맹휴학 사건에 대하여 춘천청년회에 지정을 발하여 조사할 것
- 이상을 결의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전11시이다.



禁止, 中止可  
各代議員熱火  
三日前後在會場發生  
青島大會結果綜覽

○大會結果  
青島大會於十月四日開幕, 至十月九日閉幕, 會期僅六日, 然其內容之豐富, 實非他項大會所能及也. 大會之重要事項, 均經各代表熱烈討論, 並達成重要決議. 茲將大會之重要事項, 分述於後:

一, 關於青年運動之方針, 大會認為應以救國為第一, 並應注重青年之教育與訓練. 二, 關於青年團體之組織, 大會認為應加強青年團體之組織, 並應注意青年團體之團結. 三, 關於青年運動之宣傳, 大會認為應加強青年運動之宣傳, 並應注意青年運動之普及. 四, 關於青年運動之實踐, 大會認為應加強青年運動之實踐, 並應注意青年運動之實際效果. 五, 關於青年運動之國際聯繫, 大會認為應加強青年運動之國際聯繫, 並應注意青年運動之國際合作.

1927-10-22-04-09

### 동아일보

## 금강산전기가 대발전소 증설 총공비 420만원으로 1만 400kW를 발전

금강산전기회사에서는 향일 경전과 증전계약을 결하는 동시에 한편 전철의 연장계획, 농촌전화계획 등의 체계화 실현에 비취 현재의 발전량으로서는 도저히 전력수용에 공급이 어려우므로 금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새로이 1만400kW를의 일대 발전소를 증설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다. 총공비 420만원으로 인가만 되면 1929년부터 착공하여 1931년도에 완성케하고 현재 발전소와 합하여 서울방면에 대량의 송전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金剛山電氣社에서는向日京電  
大發電所增設  
總工費四百二十萬圓으로  
一萬四百키로 발전

金剛山電氣會社에서는向日京電  
大發電所增設  
總工費四百二十萬圓으로  
一萬四百키로 발전

金剛山電氣會社에서는向日京電  
大發電所增設  
總工費四百二十萬圓으로  
一萬四百키로 발전

1927-11-18-04-04

### 중외일보

#### 전강원도 논벼 수확 예상 84만석

강원도 금년도 논벼 수확예상고는 당국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제 2회 예상고가 838,849석으로 작년 분 실수고 726,196석에 비하여 112,653석의 증가이며 금년도 예상고를 각 군별로 하면 좌와 같다고 한다. 【춘천】

춘천	6만 566석	인제	2만 390석	양구	2만 4000석
회양	1만 4673석	통천	5만 870석	고성	4만 1258석
양양	5만 7338석	강릉	8만 4199석	삼척	2만 7669석
울진	5만 1262석	정선	1만석	평창	2만 1392석
영월	2만 2638석	원주	6만 4587석	횡성	4만 1990석
홍천	6만 8125석	화천	1만 8065석	김화	2만 5500석
철원	10만 3500석	평강	1만 5457석	이천	1만 5270석

1927-11-19-04-08

### 중외일보

#### 강원도 본년 축산상황

전강원도 본년 도 축산상황은 당국으로부터 발표한 것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고 한다. 【강릉】

군명	소	돼지	닭
춘천	7291	5877	24788
인제	10592	3011	18132
양구	5871	4044	14487
회양	8949	6441	18016
통천	5451	2866	9445
고성	5739	1247	6968
양양	8571	935	9720
강릉	8916	621	13288
삼척	15504	621	17755
울진	9789	172	15629
정선	9250	1198	17458
평창	10275	2891	19655
영월	7758	2487	19279
원주	7607	5712	17601
횡성	8484	4351	21360
홍천	10702	6046	33147
화천	2281	3579	11123
금화	8058	9325	22962
철원	5914	7670	26621
평강	5696	6212	19477
이천	8470	8166	27006
합계	172661	84600	384029



1927-12-03-02-10

### 중외일보

#### 신출귀몰하던 6인장총단 필경은 취박

1922년 10월부터 강원도 일대를 요란케하던 6인조 장총강도단은 5, 6년의 장구한 세월을 불구하고 계속 수색한 결과 금년 11월 28일부터 체포하기를 시작하여 11월 30일에 전부 체포하고 방금 양구경찰서에서 심문 중이란다. 그들에 대하여 간단한 경로를 소개하면 1922년 10월부터 여섯사람이 단을 조직하여가지고 제일선 착수로 춘천시 동면 품걸리 수렵가 김영주의 집을 습격하여 사냥총 한자루와 탄환 수십발 기타 물품을 강탈하여가지고 종적을 감춘 후 교통과 통신이 극도로 불편한 태산준령일뿐 아니라 인적이 희박한 가리산을 근거로 하고 춘천, 홍천, 인제, 양구 각군으로 돌아다니며 혹은 살인 혹은 상인 등 막대한 피해를 민간에 끼친 까닭에 강원도경찰부에서 관하 각경찰서와 제1 제2 수색반을 조직하여가지고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그들의 행동이 신출귀몰하여 잡지 못하던 중 수색반은 최후의 결심으로 그들이 범행한 20방리나 되는 주위를 둘러 경계망을 치고 좁혀 들어간 결과 결국은 가리산속에서 수색반 양구경찰서 원 등 서장의 손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1927-12-07-02-07

### 동아일보

#### 활동 제일착 주재소 습격 5, 6년동안이나 대담한 소행 수령 마영준은 어떠한 인물? 강원도장총단 범행 대개

기보=강원도 홍천 인제 양구 등지로 4, 5년 동안이나 전강원도쪽으로 철통같은 경계망을 교묘히 돌파 횡행하던 장총단이 전부 검거되어다 함은 이미 보도와 같거니와 이 사건은 아직 취조 중에 속하여 상세는 알수 없으니 특히 그 단의 수령을 중심으로 한 범행의 대개를 들은 것에 의하면 수령은 본적 춘천군 북산면 물로리에 둔 마영준(32)으로 세상에 어떤 불평을 품고 5, 6년전에 춘천 김모의 협종을 강탈하므로부터 그는 극단의 길을 밟게되어 제일 처음으로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주재소를 두번이나 습격한 후 뒤를 이어 근처에서 4, 5인의 동지를 얻어가지고 조선 화승총 등을 무기로 하여 홍천 인제 양구방면으로 다니면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모조리 습격하고 작년 12월경에는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유관기의 모자를 총살하였으며 그후에도 여러곳으로 다니면서 군자금이라 칭하고 금원을 받아갔은즉 4, 5년이나 이곳에서 횡행한 것과 범행의 건수로 보아 그들이 얼마나 대담하고 교묘한 것을 잘알 수 있으며 그들은 동지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뿐 아니라 모처에 연락을 얻기 위하여 마영준이란 사람이 간도방면까지 갔다 온 일이 있었다는데 그후 금년 여름에는 아무일도 없는 듯이 농사를 짓다가 가을이 되자 인제군 남면 금부리 구장 채중원의 집을 습격할 때에는 마영준은 양평군 모처에 집을 사려고 자기집을 떠나 사돈이 되는 홍천군 남면 유목정 김승일의 집에서 자다가 지난 11월 30일 새벽에 붙잡혔는데 체포 당할 때부터 태도가 변함이 없이 자기의 운명을 한할 뿐이었고 당시 남면주재소에 와서 자기의 불평을 말하는 동시에 대강 취조를 마치고 곧 홍천경찰서에 도착하여 경관의 엄중한 경계리에 강원도경찰부로 압송되었다고 한다. (홍천)

神出鬼沒  
六人長統團

필경은 취박

1927-12-03-02-10

강원도 일대를 요란케하던 6인조 장총강도단은 5, 6년의 장구한 세월을 불구하고 계속 수색한 결과 금년 11월 28일부터 체포하기를 시작하여 11월 30일에 전부 체포하고 방금 양구경찰서에서 심문 중이란다. 그들에 대하여 간단한 경로를 소개하면 1922년 10월부터 여섯사람이 단을 조직하여가지고 제일선 착수로 춘천시 동면 품걸리 수렵가 김영주의 집을 습격하여 사냥총 한자루와 탄환 수십발 기타 물품을 강탈하여가지고 종적을 감춘 후 교통과 통신이 극도로 불편한 태산준령일뿐 아니라 인적이 희박한 가리산을 근거로 하고 춘천, 홍천, 인제, 양구 각군으로 돌아다니며 혹은 살인 혹은 상인 등 막대한 피해를 민간에 끼친 까닭에 강원도경찰부에서 관하 각경찰서와 제1 제2 수색반을 조직하여가지고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그들의 행동이 신출귀몰하여 잡지 못하던 중 수색반은 최후의 결심으로 그들이 범행한 20방리나 되는 주위를 둘러 경계망을 치고 좁혀 들어간 결과 결국은 가리산속에서 수색반 양구경찰서 원 등 서장의 손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 活動第一着 駐在所襲擊

### 수령 마영준은 어떠한 인물? 강원도장총단 범행 대개

(江原道長統團)의 범행

강원도 홍천군 북산면 물로리에 둔 마영준(32)으로 세상에 어떤 불평을 품고 5, 6년전에 춘천 김모의 협종을 강탈하므로부터 그는 극단의 길을 밟게되어 제일 처음으로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주재소를 두번이나 습격한 후 뒤를 이어 근처에서 4, 5인의 동지를 얻어가지고 조선 화승총 등을 무기로 하여 홍천 인제 양구방면으로 다니면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모조리 습격하고 작년 12월경에는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유관기의 모자를 총살하였으며 그후에도 여러곳으로 다니면서 군자금이라 칭하고 금원을 받아갔은즉 4, 5년이나 이곳에서 횡행한 것과 범행의 건수로 보아 그들이 얼마나 대담하고 교묘한 것을 잘알 수 있으며 그들은 동지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뿐 아니라 모처에 연락을 얻기 위하여 마영준이란 사람이 간도방면까지 갔다 온 일이 있었다는데 그후 금년 여름에는 아무일도 없는 듯이 농사를 짓다가 가을이 되자 인제군 남면 금부리 구장 채중원의 집을 습격할 때에는 마영준은 양평군 모처에 집을 사려고 자기집을 떠나 사돈이 되는 홍천군 남면 유목정 김승일의 집에서 자다가 지난 11월 30일 새벽에 붙잡혔는데 체포 당할 때부터 태도가 변함이 없이 자기의 운명을 한할 뿐이었고 당시 남면주재소에 와서 자기의 불평을 말하는 동시에 대강 취조를 마치고 곧 홍천경찰서에 도착하여 경관의 엄중한 경계리에 강원도경찰부로 압송되었다고 한다. (홍천)

1928-01-05-02-03

### 신한민보

## 공하신년, 출몰전후 6개년 간 강원도 6인 장총대 체포되어

지금부터 6년 전 1922년 임술년 10월부터 6명으로 조직된 장총대가 강원도 춘천 흥천 인제 양구 등 각지를 횡행하며 19번이나 인명을 살해하며 금품을 강탈한 일이 있어 강원도 왜 경찰부에서는 전 도에 비상선을 늘리고 총동원되어 수색대를 수십여 대로 나누어 가지고 11월 28일부터 6인 장총단을 근거를 둔 가리산을 포위 습격한 결과 셋째 날에 이르러 드디어 6명을 체포하였다는데 전기 권총단의 최근 행동을 듣건대 6년 전 춘천군 동면 물로리 김영두의 사냥총 한 자루와 탄약 수십 발을 비롯하여 11월 24일 오후 6시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채봉묵의 집에 가서 현금 300원을 뺏어 갔으며 동리 주윤환의 집을 다니며 그날 밤으로 흥천군 내촌면 광암리에 침입하여 위협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28-01-15-04-09

### 중외일보

## 흥천형평사원 모욕사건 해결 허면장 사과로

흥천군 동면 면장 허경선씨는 동 면내에 거주하는 형평사원 길사집군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먹는 것을 불법이라 하여 길에게 모욕적 행동인 평립(버렁이)를 강제로 씌우려한 사건으로 인하여 흥천형평사와 그 부근 각 지방에 있는 형평사에서 결속적 봉기케 한다 함은 본보에 이미 보도된 것이거니와 인제형평사원들은 소위 시대적 민중을 제창하는 단장으로서 그와 같은 난폭한 언사를 도●함을 도저히 묵과치 못하겠다 하여 전기 제씨에 대한 인치 방침을 적극적으로 강구중이었는데 제씨는 마침내 지난달 27일에 형평사원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과오를 자인하고 동 흥천형평사에 사과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전기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다더라.

1928-01-19-02-03

### 동아일보

## 조선총독에 차금 주선 진정 본인은 잔국으로 간청 ◇강원도 출생 목재상

시내 종로 3정목 13번지 원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원적 인제군 인제면 원대리 51번지 조동욱으로부터 조선총독에게 다음과 같은 돈 꾸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총독부에서는 곧 서울부에 회부하였는데 서울부에서는 지난 16일 전기 조씨를 호출하여 여러 가지로 설득하였는데 본인은 정신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줄자는 10년전으로부터 재목상을 경영하던 중 올가을도 예년과 같이 각방면의 국유림과 사유림을 다수 매수하고 채벌 비용을 차용코자하여 수일 전에 상경하였으나 제계의 불황으로 실패에 돌아갔은즉 황송하나 국고금이나 혹은 회사는행으로부터 현금 15,000원을 대부해주시면 오는 5월 안에 벌목 판매금으로 원금 이자 전부를 반환할 예정이오니 어떻게하든지 잘주소해주소서 조동욱 조선총독 전

출몰전후 六六이년간  
가원도 六인 장총대 체포되어  
지금으로부터 육육년전 임술년 시월...  
흥천군 동면 물로리 김영두의 사냥총 한 자루와 탄약 수십 발을 비롯하여 11월 24일 오후 6시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채봉묵의 집에 가서 현금 300원을 뺏아 갔으며 동리 주윤환의 집을 다니며 그날 밤으로 흥천군 내촌면 광암리에 침입하여 위협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洪川衡平社員  
侮辱事件解決  
許面長謝過로  
洪川郡東面而長許面長洪氏는...  
이 사건은 흥천군 동면 면장 허경선씨가 동 면내에 거주하는 형평사원 길사집군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먹는 것을 불법이라 하여 길에게 모욕적 행동인 평립(버렁이)를 강제로 씌우려한 사건으로 인하여 흥천형평사와 그 부근 각 지방에 있는 형평사에서 결속적 봉기케 한다 함은 본보에 이미 보도된 것이거니와 인제형평사원들은 소위 시대적 민중을 제창하는 단장으로서 그와 같은 난폭한 언사를 도●함을 도저히 묵과치 못하겠다 하여 전기 제씨에 대한 인치 방침을 적극적으로 강구중이었는데 제씨는 마침내 지난달 27일에 형평사원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과오를 자인하고 동 흥천형평사에 사과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전기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다더라.

朝鮮總督에게  
借金周旋陳情  
본인은 잔국으로 간청  
江原道出生木材商  
시내 종로 3정목 13번지 원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원적 인제군 인제면 원대리 51번지 조동욱으로부터 조선총독에게 다음과 같은 돈 꾸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총독부에서는 곧 서울부에 회부하였는데 서울부에서는 지난 16일 전기 조씨를 호출하여 여러 가지로 설득하였는데 본인은 정신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줄자는 10년전으로부터 재목상을 경영하던 중 올가을도 예년과 같이 각방면의 국유림과 사유림을 다수 매수하고 채벌 비용을 차용코자하여 수일 전에 상경하였으나 제계의 불황으로 실패에 돌아갔은즉 황송하나 국고금이나 혹은 회사는행으로부터 현금 15,000원을 대부해주시면 오는 5월 안에 벌목 판매금으로 원금 이자 전부를 반환할 예정이오니 어떻게하든지 잘주소해주소서 조동욱 조선총독 전

1928-04-07-04-10

동아일보

지방인사 소식

◇이제교씨(이천군속) 인제군 재근 인사차 지난 4일 본보 이천지국 내방

1928-04-23-01-09

동아일보

사령

(중략)

군수 임시재 명 강원도 인제군 재근

1928-05-06-04-12

중외일보

신임 인제군수 부임

현임 강원도 인제군수 임시재씨는 본월 4일 오전9시경에 인제로 부임차 출발하였는데 관민 수백명의 환영이 있었다고 한다. 【춘천】

1928-05-20-04-02

중외일보

금년도 신설한 건건장 전도에 6개소

본년도에 신설할 건건장은 총독부 식산국에서 심의 중인데 이 중 좌의 6개소로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고 보조 총액은 3만원으로 1개소 5천원의 할당이라고 한다.

▲강원 춘천, 인제 ▲평북 태천 ▲경북 진양 ▲전남 구례 ▲함남 영흥

### 地方人事消息

朴章煥氏(水原署司法主任)新任人  
 事次再昨日本報水原支局來訪

高潮異氏(水原署高等係主任)同上

李濟教氏(伊川郡屬)驛蹄郡屬  
 勤人事次去四日本報伊川支局來訪

張東翰氏(伊川郡屬)新任人事  
 次去四日本報伊川支局來訪

任道廳事宜(六等)	任府理事官(八等)	任道屬(八等)	任是宰
命東大門署勸務	命長湍署署長	命東大門署勸務	命東大門署勸務
任道廳部長	任道廳部長	任道廳部長	任道廳部長
命李基榜	命李基榜	命李基榜	命李基榜

●新任驛蹄郡守赴任 昨任王院  
 命李濟教氏是幸氏是本月四日  
 午前九時由春到任任職之驛蹄郡  
 任次出發時有官民數百餘人  
 迎接歡迎之熱誠云云(在川)

### 今年度 新設한 乾欄場

全道에 六個所

本年度에 新設한 乾欄場은 總督府  
 所屬에 의해서 審議中인데 이 중 左의  
 六個所는 新設한 것이 決定하였는  
 데 이에 對한 國庫補助總額은 三萬  
 원으로 一個所는 五千圓의 補助이다

▲江原 春川、驛蹄 ▲平北  
 天川 ▲廣北 眞臨 ▲全南 求  
 禮 ▲咸南 水西

1928-06-05-02-09

### 중외일보

## 생사의 기로에 선 한 사형수의 운명 교수대에 오를 터인가 自放되는 몸이 될것인가

사건 발생이후 1년 3개월간을 두고 경찰과 검사 양 예심에서 자백한 범죄를 공판정에서 전면 부인하여 이제는 과연 살인범으로 교수대 위에 설 것이냐, 백열항단에 무죄방면될 자이나 하는 예단키 어려운 운명에 있는 사건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금 말광 재판장 원고 검사의 담임으로 심리 중에 있는데 원래 사건의 증거가 그처럼 몽롱한 것이 있으므로 일전에는 재판소에서는 검증까지 하고 수일내에 유죄 무죄를 결정케 될 모양인데 사건의 내용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박승옥(28)이가 작년 3월 12일 아침에 기린면 복리 고석곡 고개를 넘어 가다가 다른 동리에 사는 사람으로 장사 물건을 사러 양양 방면에 가던 전균형(37)을 만나 산곡으로 꼬여 끌고 들어가 목을 매이고 돌로 머리를 때려 죽인후 현금 80원을 강탈하였다는 것이 춘천지청의 예심 소견이었으나 작년 말광이 심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정에선 피고 박승옥은 자기가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돈을 얼마간 취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듣지않아 싸우다가 산언덕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죽은 것이고 그 전에 자백한 것은 경찰의 고문에 못 견디어 거짓자백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며 또한 피고의 소행은 선량하다는 평판도 있어 사건은 의문으로 들어가 법관들도 죽인듯은 하나 적합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머리를 썩고 있는 중이리는데 사건의 결과는 과연 여하히 결정될는지 주목되는 것이라 한다.

1928-06-11-04-02

### 동아일보

## 시일 변경 진정 춘천면유지회서

춘천군 춘천면유지회는 지난 7일 오전10시부터 춘천면협의실에서 이동근, 최양호, 손상씨 등 외 10여명과 장 군수, 고충 면장 출석하여 개최되어 오후2시경에 폐회하였는데 당일 협의한 중에서 중대한 문제는 인접 각지의 시일 변경인데

시장명	재래	개정	시장명	재래	개정
춘천시	2,7	2,7	천천시	3,8	1,6
가평시	3,8	3,8	양구시	2,7	4,9
인제시	4,7	2,7			

1. 건건장 이전문제
1. 면무조사회 등 이라고 한다. (춘천)

1928-07-01-02-06

### 중외일보

## 살인강도에게 사형언도, 친구를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

근처에 사는 전균형이란 사람이 물건을 사러가는 길에 잡혀있다가 산 가운데에서 타살하고 현금 80원을 강탈하였다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박승옥(28)에 관한 살인강도사건은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말광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을 언도하였다 한다.

### 生死의岐點에선 一死刑囚의運命

교수대에 오를터인가  
自放되는 몸이 될터인가

사건 발생이후 1년 3개월간을 두고 경찰과 검사 양 예심에서 자백한 범죄를 공판정에서 전면 부인하여 이제는 과연 살인범으로 교수대 위에 설 것이냐, 백열항단에 무죄방면될 자이나 하는 예단키 어려운 운명에 있는 사건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금 말광 재판장 원고 검사의 담임으로 심리 중에 있는데 원래 사건의 증거가 그처럼 몽롱한 것이 있으므로 일전에는 재판소에서는 검증까지 하고 수일내에 유죄 무죄를 결정케 될 모양인데 사건의 내용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박승옥(28)이가 작년 3월 12일 아침에 기린면 복리 고석곡 고개를 넘어 가다가 다른 동리에 사는 사람으로 장사 물건을 사러 양양 방면에 가던 전균형(37)을 만나 산곡으로 꼬여 끌고 들어가 목을 매이고 돌로 머리를 때려 죽인후 현금 80원을 강탈하였다는 것이 춘천지청의 예심 소견이었으나 작년 말광이 심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정에선 피고 박승옥은 자기가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돈을 얼마간 취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듣지않아 싸우다가 산언덕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죽은 것이고 그 전에 자백한 것은 경찰의 고문에 못 견디어 거짓자백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며 또한 피고의 소행은 선량하다는 평판도 있어 사건은 의문으로 들어가 법관들도 죽인듯은 하나 적합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머리를 썩고 있는 중이리는데 사건의 결과는 과연 여하히 결정될는지 주목되는 것이라 한다.

### 市日變更陳情

春川面有志會서

春川郡春川面有志會는去七日午前十時早於春川面協議室에外李東根崔漢浩朴村上氏等外十餘名과張郡守高塚面長出席下에開會되어午後二時頃에閉會하였는데當日協議한中에外飛大한問題는隣接各地의市日變更인대

市日名	在來	改正
春川市	二二七	二二七
加平市	三三六	三三六
楊口市	四三七	四三七
麟蹄市	四七九	四七九

而務調查會等이라더라 (春川)

### 殺人強盜에게 死刑言渡

친구를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

근처에서 사는 전균형(田均亨)이란 사람이 물건을 사러가는 길에 잡혀있다가 산 가운데에서 타살하고 현금 80원을 강탈하였다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박승옥(朴承沃)에 관한 살인강도사건은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말광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을 언도하였다 한다.

1928-07-02-02-05

### 동아일보

## 매부 타살범에 사형을 언도 매부를 타살한 강도에 사형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강원도 인제군 읍내 서리 19번지 박승옥(29)은 3월 16일 동면 복리 역동 고석곡 산등에서 매형되는 전군형(37)을 만나 80원의 소지금을 강탈할 양으로 살해할 뜻을 품고 산중으로 끌고 들어가서 백목허리 띠로 교수 살해하려다가 목적을 달치 못하고 산위에서 경사진 곳으로 차서 떨고 돌로 두부를 난타하여 즉사시키고 현금 80원을 강탈한 강도살인사건으로 30일 오전10시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검사 간여 하에 말광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을 언도하였다고 한다.

1928-07-02-02-09

### 중외일보

## 80원 뺏고자 매부를 죽인자 사형을 언도하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419번지 박승옥(29)은 3월 16일 인제군 거면 복리 고석골 재에서 그의 매부되는 이가 사는 전군형(40)을 만나서 그를 죽이고 돈을 뺏고자 산으로 유인하여 가서 쇠로서 목을 잘라죽이고자 하였으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산골로 차내려서 인사를 성하게 한 후에 머리와 여러곳을 난투하여서 즉사시킨후 현금 80원을 강탈하였는데 그는 30일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말광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을 언도하였다고 한다.

1928-07-18-05-04

### 동아일보

## 곤봉 강도 피착

지난 12일 오후3시경에 본적을 강원도 인제군 신월리에 두고 파주군 광탄면 발랑리 사는 이상운 집에서 고용하고 있는 김종국(24)이란 자가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에 사는 최만룡(26)이가 양주군 광석면 비암리 부근을 지낼 때에 전기 김종국이 휴대하였던 곤봉으로 난타하고 현금 11원 80전을 강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지난 14일에 봉일현주재소에서 체포하여 취조를 마치고 파주경찰서로 압송하였다고 한다.(금촌)

1928-08-10-06-01

### 동아일보

## 강원도 건건장 보조금 1개소 5천원

1928년도 건건장 설치의 국고 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전조선 6개소에 대하여 1개소 5천원씩 총독부에서 교부한다는 지령이 있었다고 한다. ▲전남 구례 ▲경북 영양 ▲강원 춘천 ▲강원 인제 ▲함남 영흥 ▲평북 태천

**妹夫打殺犯의 死刑을言渡**  
매부타살사상강도사형  
【廿九日 濟州地方法院에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419번지 박승옥(29)은 3월 16일 인제군 거면 복리 고석골 재에서 그의 매부되는 이가 사는 전군형(40)을 만나서 그를 죽이고 돈을 뺏고자 산으로 유인하여 가서 쇠로서 목을 잘라죽이고자 하였으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산골로 차내려서 인사를 성하게 한 후에 머리와 여러곳을 난투하여서 즉사시킨후 현금 80원을 강탈하였는데 그는 30일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말광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을 언도하였다고 한다.

**八十圓뺏고자 妹夫를 죽인자 死刑을言渡하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419번지 박승옥(29)은 3월 16일 인제군 거면 복리 고석골 재에서 그의 매부되는 이가 사는 전군형(40)을 만나서 그를 죽이고 돈을 뺏고자 산으로 유인하여 가서 쇠로서 목을 잘라죽이고자 하였으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산골로 차내려서 인사를 성하게 한 후에 머리와 여러곳을 난투하여서 즉사시킨후 현금 80원을 강탈하였는데 그는 30일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말광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을 언도하였다고 한다.

**棍棒強盜被捉**  
 지난십일이 일오후 세시경에 본적을 강원도 인제군 신월리(江原道 麟蹄郡 新月里)에 두고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坡州郡 廣灘面 창萬里)에 사는 이상운(史相云)집에서 고용하고 있는 김종국(金鍾國)의 란자가 양주군 광석면 비암리(倉蘭里)에 사는 최만룡(崔萬龍)이에게 양주군 광석면 비암리 부근을 지낼 때에 전기 김종국이 휴대하였던 곤봉(棍棒)으로 난타하고 현금 십원팔십전을 강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지난십사일에 봉일현주재소에서 체포하여 취조를 마치고 파주경찰서로 압송하였다고 한다.(금촌)

**乾兩場補助金 一個所五千圓**  
 昭和三年度 乾兩場設置の 國庫補助金은 一個所 五千圓 總督府에 對하여 交付한다는 指令이 있었다.  
 ▲全南 求禮 ▲慶北 英陽 ▲江原 春川 ▲江原 道 麟蹄 ▲咸南 永興 ▲平北 泰川

1928-08-16-02-08

### 중외일보

#### 작도로 목잘라 흉악한 살인강도 현금 25원도 강탈 15일에 사형 판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이재홍(46)은 지난 2월 10일 같은 동리에 사는 노재명이 새로 이사한 곳인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곡물을 팔아가고 가는 도중 기린면 서흥리고개에 그가 돌아가는 것을 지키다가 오전 10시경에 그를 만나 돈 5원만 취해달라고 하며 듣지 않는다고 격투를 하던 끝에 살의를 품고 이재홍이 베고 가던 작두로 노재명의 목을 잘라죽이고 현금 20원을 강탈하여갔던 살인강도사건으로 15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형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1928-09-25-02-03

### 동아일보

#### 강원 일대를 횡행한 장총단 금일 공판 ◇ 일세를 늘린 희유의 사건 ◇ 출몰 전후 8개성상

20여년 전 의병란에 일본 군대에게 살해를 당한 선친의 원수를 갚고자 1921년 9월이래 십수명의 대를 지어 강원도 춘천 흥천 인제 등지를 중심으로 5, 6년 동안이나 무인지경과 같이 휩쓸어 강원도경찰서의 부를 비롯하여 소속 각경찰서원 연인원 4천, 5천명의 활동으로 마침내 일단의 총검거를 보게 된

- 춘천군 북산면 물노리 137 영준사 마만봉(35)
- 춘천군 북산면 물노리 158 응준사 마퇴병(41)
- 춘천군 북산면 물노리 138 농 마도현(47)
- 흥천군 흥천면 결운리 113 농 박순구(42)

등 이하 12명에 대한 살인미수 강도 강도살인 및 강도미수 사건에 대한 공판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15일 서울지방법원 말광재판장의 주심, 도부 검사 입회로 개정하게 되었다. 사건이 6, 7년 동안을 두고 계속한 범행인만치 사건의 관계한 기록은 수만장에 달하여 조선 공산단사건의 버금.

1928-09-26-02-01

### 동아일보

#### 범행의 동기는 부수의 보복, 한말 의병이던 부친이 총 맞아서 원통히 죽은 원수 갚으려고 범행, 피고 마만봉 등 공술 (사진)

범행의 근본 동기는 어제 보도한 것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 한말 의병난리에 피고 마만봉의 아버지 마정삼이와 피고 박순구의 아버지 박영관이 당시 토벌대인 일본군대에게 참살당한 것이 피고 2명에게는 천추의 유한이 되어 그 원수를 갚음에는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여 마침내 1921년 9월 6일에 미리부터 감추어두었던 화승장총 두자루를 가지고 흥천군 두촌면 자은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한 것을 발단으로 그후는 목적



을 변하여 전후 7, 8년 동안 강탈 살상을 자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중 가장 잔인한 것은 공범 마남룡 김석규 전봉학 등의 3명이 재작년 9월 13일 밤9시경에 흥천군 내촌면 광암리 유익렬의 집에 침입하여 300원 청구에 24원만 준다고 그의 아들 유재형과 그의 어머니 정씨를 모두 총살한 것과 피고 마만봉의 지휘로 마도현 안이순이가 공모하고 1924년 9월 14일 새벽에 인제군 남면 어른리 김수룡의 집에 침입하여 상해임시정부 위원이라고 군자금 1천원을 청구하여 30원을 받아가지고 군량미로 100석을 준비하여두라는 등 전후 24처에서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진은 범정 광경

1928-10-05-02-08

**동아일보**

**살인강도에 사형을 언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피고 이재홍(36)의 강도살인에 대한 사건공판은 3일 오후0시반부터 서울복심법원 고목 재판장으로부터 하춘 검사 간여 아래 사형의 판결을 언도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수십원의 부채를 갚고자 일찍부터 친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노재명(41)이가 금년 3월 31일에 만대리에서 곡식을 팔아가지고 돌아오는 도중 인제군 서화면 양각리 옥수대 장정재에서 그를 만나 칼로 목을 찢러 즉사케하고 현금 25원을 강탈하였다는 것이라고 한다.

1928-10-07-02-08

**중외일보**

**인제살인범 사형을 언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이재홍(36)에 관한 살인강도 피고 사건의 공소공판은 3일 오후 경성복심법원에서 고목 재판장, 하춘 검사 입회로 개정하여 재판장은 사형을 언도하였는데 이유는 피고가 수십원의 부채를 지불할 돈을 만들려고 그의 친구인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노재명(41)이가 지난 3월 30일 만대리에서 곡물을 팔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인제군 서화면 옥수대 정상 고개에서 만나 한자가량이나 되는 식도로 목을 베어 즉사시키고 25원을 강탈한 사실이라고 한다.

1928-11-14-06-10

**동아일보**

**사고**

명칭 인제분국, 위치 인제군 읍내, 구역 인제군 일원  
직씨명 분국장 이종만, 총무 이성석, 기자 김몽필  
북면주재기자 임준설, 고문 이성흙, 고문 박충모, 우와 같이 설치함.  
동아일보 흥천지국

**殺人強盜에 死刑을言渡**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楊口郡海安面萬袋里) 피고 이재홍(36) 살인강도(殺人強盜)에 대한 재판(裁判)이 서울복심법원(서울中央裁判所)에서 3일 오후 0시반부터 고목(高木) 재판장(判官)의 주재(主裁)로 하춘(哈春) 검사의 간여(干預) 아래(檢事干預) 열린(行)다. 피고(被告) 이재홍(36)은(은) 3월 31일(日) 인제군(仁濟郡) 기린면(基麟面) 진동리(鎭洞里) 노재명(41)을(을) 만대리(萬袋里)에서(에서) 곡물(穀物)을 팔아(賣)가(가)고 돌아오는(來) 도중(途中) 인제군(仁濟郡) 서화면(西花面) 양각리(楊角里) 옥수대(玉水臺) 장정재(張正在)에서(에서) 그를(를) 만나( 만나) 칼(刀)로 목(首)을 찢어(切) 죽이(殺)고(고) 현금(現金) 25원을(元) 강탈(強奪)하였(有)다는(는) 사실(事實)이(이) 인정(認定)된(된)다(다).

**麟蹄殺人犯 死刑을言渡**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楊口郡海安面萬袋里) 피고 이재홍(36) 살인강도(殺人強盜)에 대한 재판(裁判)이 서울복심법원(서울中央裁判所)에서 3일 오후 0시반부터 고목(高木) 재판장(判官)의 주재(主裁)로 하춘(哈春) 검사의 간여(干預) 아래(檢事干預) 열린(行)다. 피고(被告) 이재홍(36)은(은) 3월 31일(日) 인제군(仁濟郡) 기린면(基麟面) 진동리(鎭洞里) 노재명(41)을(을) 만대리(萬袋里)에서(에서) 곡물(穀物)을 팔아(賣)가(가)고 돌아오는(來) 도중(途中) 인제군(仁濟郡) 서화면(西花面) 양각리(楊角里) 옥수대(玉水臺) 장정재(張正在)에서(에서) 그를(를) 만나( 만나) 칼(刀)로 목(首)을 찢어(切) 죽이(殺)고(고) 현금(現金) 25원을(元) 강탈(強奪)하였(有)다는(는) 사실(事實)이(이) 인정(認定)된(된)다(다).

**社告**

右就任  
新安駐在記者 金澤國  
東亞日報 朔州支局

一、名稱 麟蹄分局  
一、位置 麟蹄郡邑內  
一、區域 麟蹄郡一圓  
一、職名 分局長 李鍾淵  
總務 李聖錫  
記者 金夢淵  
北面駐在記者 林準高  
顧問 李性欽  
顧問 朴忠模  
右外知事設置  
東亞日報 洪川支局

1928-12-01-02-09

### 동아일보

## 장총단 피고 사형에 구형 공소한 2명에 또 사형 구형 작일 서울복심에서

20여년전 선친이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폭도로 몰려 일본관헌에게 총살을 당한 이래로 그를 복수하기 위하여 5, 6년 전부터 장총을 가지고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횡행하여 살상을 임의로 하여 얼마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받고 공소 중의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귀둔리 응섭이라는 남남룡(55)과 춘천군 북산면 회교리 김석기 등의 2명에 대한 공소공판은 30일 서울복심법원 고목 재판장 주심 하춘 검사 입회로 개정되어 피고 2명은 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입회 하춘 검사로부터 1심대로 사형의 구형 논고가 있었다는데 판결 언도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1928-12-01-03-09

### 동아일보

## 강원도 인제여자야학회

동회에서 금번 겨울철을 맞이하자 경영곤란이 태심하여 엄동설한을 당하여도 땀나뭇물 준비도 없어 큰 문제가 되는 중 지난 20일부터 지방유지 여러명에게 동정금 모집에 착수하였는데 일반 여러명의 뜨거운 동정을 바란다

1928-12-10-03-05

### 동아일보

## 인제 양양간 도로 내년봄 공사 착수 도에서 실지답사

강원도 인제 양양간 3등도로는 오래전부터 숙제로 오더니 금월 1일부터 약 4일간 강원도 토목과장 오전수갈씨의 실지답사한 결과 내년 봄부터 공사에 착수할 모양이라는데 그 선로경과는 인제면 합강리로부터 기점하여 인제면을 통과하여 조침령을 넘어 양양군 서면에 이르리라는데 그 중 난공사는 조침령이라고 한다. 【인제】

1928-12-10-03-07

### 동아일보

## 현상웅변회 인제분국 주최

본보 인제분국 주최로 분국 창립을 기념키 위하여 오는 15일에 현상웅변대회를 인제읍내 공회당에서 개최하리라는데 일반은 다수히 참가하기를 바란다. 【인제】

## 長銃團被告 死刑에 求刑

공소한 두명에 또 사형 구형  
昨日京城覆審에서

이삼요년전 선친의 의병(義兵)으로 활동하다가 폭도로 몰려 일본관헌에게 총살을 당한 이래로 그를 복수하기 위하여 5, 6년 전부터 장총을 가지고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횡행하여 살상을 임의로 하여 얼마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받고 공소 중의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귀둔리 응섭이라는 남남룡(55)과 춘천군 북산면 회교리 김석기 등의 2명에 대한 공소공판은 30일 서울복심법원 고목 재판장 주심 하춘 검사 입회로 개정되어 피고 2명은 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입회 하춘 검사로부터 1심대로 사형의 구형 논고가 있었다는데 판결 언도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 江原道麟蹄女子夜學會

회에서는 금번 겨울철을 맞이하자 경영곤란이 태심하여 엄동설한을 당하여도 땀나뭇물 준비도 없어 큰 문제가 되는 중 지난 20일부터 지방유지 여러명에게 동정금 모집에 착수하였는데 일반 여러명의 뜨거운 동정을 바란다

## 麟蹄襄陽間道路 來春工事着手

道에서實地踏査

강원도 인제 양양간 3등도로는 오래전부터 숙제로 오더니 금월 1일부터 약 4일간 강원도 토목과장 오전수갈씨의 실지답사한 결과 내년 봄부터 공사에 착수할 모양이라는데 그 선로경과는 인제면 합강리로부터 기점하여 인제면을 통과하여 조침령을 넘어 양양군 서면에 이르리라는데 그 중 난공사는 조침령이라고 한다. 【인제】

## 懸賞雄辯會 麟蹄分局主催

本報麟蹄分局主催로分局創立을 紀念키爲하야오는十五日에懸賞 雄辯大會를麟蹄邑內公會堂에서 開催하리라는데一般은多數히 參加하기를바란다 【麟蹄】

1928-12-16-04-09

### 동아일보

#### 인제금융조합 총회

강원도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지난 12일 오후1시에 동 회의실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좌기와 같이 결의한 후 오후5시 반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고 한다. 【인제】

1929-01-01-03-04

### 동아일보

#### 독자할인 이발

강원도 인제군 읍내 상동리 연미이발관 주 최문홍군은 이발개업 기념으로 특히 본보 애독자에 한하여 좌기와 같이 우대하게 되었다는데 일반 독자는 이 기회를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인제】

- 1. 이발요금은 20전 균일 할인
  - 1. 기한은 2월 15일까지
- (단 우대권은 본분국에서 배부함)

1929-01-01-03-04

### 동아일보

#### 인제봉밀 연산 2만원

강원도 인제군의 명산물인 봉밀과 봉랍은 그 생산액이 매년 17,000여원에 달하여 인제군 국세 중 지세 11,800여원을 충당하는데 금년에는 예년보다 산액이 증가되어 2만여원에 달한다는데 저간 인제시장은 봉밀 매매로 대혼잡을 이루는 중 인제군축산조합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설악산 백담사동양봉조합을 조직하여 현금 조합원이 30명에 달한다는데 장려사업으로 엄동설한에도 능히 내한할만한 내한개량봉상자를 사용하게 되어 현금 50상자를 배포하였는데 그 개량봉종은 이다리안 종이라 하며 금후로 동조합의 장래가 매우 유망하겠으며 작년도 강원도산업품평회에 출품하여 특등을 얻은 인제봉밀이다. 【인제】

1929-01-06-06-03

### 동아일보

#### 인제 신춘강연

강원도 인제야소교회 내에 엮윳청년회 주최 동아일보인제분국 후원으로 신년 대강연회를 지난 31일부터 3일간 매 하오7시부터 인제에 배당내에서 개최하였는데 연사는 춘천지방장로서 정춘수씨로 이성석씨 사회하에 개최하게 되었는데 매일밤 대만원으로 인제 미증유의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인제】

○ 嶺南金組總會 江原道嶺南縣  
 融組舍에서는去十二月午後一時  
 에同會議室에서評議員會를開催  
 하고左記와如히決議한後同五時  
 半頃에無事히閉會하였다더라  
 【嶺南】

讀者割引理髮 江原道  
 嶺南郡邑內上東里研美理髮館主  
 崔文弘君은理髮開業紀念으로特  
 히本報愛讀者에限하여左記와如  
 히優待하게되었다는데一般讀者  
 는此機會만히利用하기를바란다  
 더라 【嶺南】  
 一、理髮料金은三十錢均一割引  
 一、期限은二月十五日外지  
 (但優待券은本分局에서配付함)

江原道嶺南의名産物인蜂蜜과蜂  
 蠟은그生産額이每年一萬七千餘  
 圓에達하여嶺南郡國稅中地稅一  
 萬一千八百餘圓을充當하는바今  
 年에는例年보다産額이增加되어  
 二萬餘圓에達한다는데這開嶺南  
 市場에는蜂蜜賣買は大複雜을일  
 우는데嶺南郡畜産組合에서는此  
 量積的의獎勵하기爲하여雪岳山  
 百潭寺洞養蜂組合을組織하여現  
 今組合員이二十名에達한다는데  
 獎勵事業으로嚴冬寒寒에도能히  
 耐寒할만한耐寒改良蜂箱을使用  
 하게되어現今五十箱을配布하였  
 는데그改良種蜂은「이다리안」種  
 이라하며今後同組合의將來가  
 매우有望하겟으며昨年度江原道  
 産業品評會에出品하여特等은이  
 嶺南蜂蜜이라더라 【嶺南】

嶺南 新春講演 江原道  
 嶺南郡縣會內엮윳青年會主催  
 本報嶺南分國後援으로新年大講  
 演會를去州一月부터三日間每下  
 午七時부터嶺南講拜堂內에서開  
 催하였는데演士는春川地方長老  
 司鄭若洙氏로李聖錫氏司會下에  
 開行하게되었는데每夜大滿員으  
 로嶺南未付有의大盛況을일우었  
 다더라 【嶺南】

1929-01-12-07-03

### 동아일보

#### 남면보교 설립 금춘 4월 개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유지 여러명은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키 위하여 1925년부터 기성회를 조직하고 각 방면으로 맹렬한 운동을 하다가 허다한 난관에 봉착되어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작년 이래 남면 유지 여러분의 필사적 노력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교사를 건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개교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인제】

1929-01-12-07-06

### 동아일보

#### 인제 시구 개정 금년 춘기에 실현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에서는 작년 추기에 인제군읍내 시구 개정을 시행하려고 계획한 것이 군도로 품평으로 인하여 실현치 못하고 정지하였는데 금년 춘기에는 실현할 모양이라는데 인제면에서는 방금 여러 가지로 개정 설계에 분망중이라고 한다. 【인제】

1929-01-15-04-06

### 동아일보

#### 원통 서화도로 금춘에는 완성

강원도 인제군은 원래 산간벽지가 되기 때문에 면과 면은 물론 동리와 동리간에도 산이 막히고 동서남북 어디로 눈을 돌려도 산과 산이 꼬리를 물고있다. 이러니만큼 교통이 불편하다. 항상 이를 유감으로 여겼는데 인제군 북면 서화면 양면의 유지 여러분의 발기하에 교통의 지편이 아니면 경제의 원활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유지의 각득한 것에 있어 1927년 11월경에 전기 양면의 부역으로 원통 서화간의 등외도로가 너무 협애하여 우마의 통행은 물론 보행조차 곤란한 것을 확장개수하게 되었는데 겨울철로 인하여 휴공하였으나 금춘에는 완성되리라는 데 북면 원통서 서화면까지 약 40리 가량되는 곳을 2등도로 표준으로 수선하여 우차의 통행이 지편케 되면 물화운반에도 막대한 편의를 얻으리라고 한다. 【인제】

1929-01-17-04-05

### 동아일보

#### 각지야학소식

◇합강리 인제군읍 합강리에서는 생계곤란으로 배우지 못하고 오직 전도가 암담한 무산아동들에게 ㄱㄴ 자라도 교수하는 것이 선각자의 의무라 하여 이러한 각성을 가진 유지 김상현씨 외 여러명이 농민야학회를 설립하고 문맹퇴치운동에 가장 치중하여 작년 12월 27일부터 40여명을 갑을 2조에 나누어 수학케하였는데 교원 김상현 최사갑 여러명의 의무적 열심교수로 성적이 양호하여 모범촌이라 칭한다고 한다. 【인제】

南面普校設立  
今春四月開校  
江原道麟蹄郡南面有志諸氏は公  
普普通通學校設立키爲하야大正  
十四年三月期成行會組織하고各  
方面으로猛烈한運動을하다가許  
多한難關에逢着되어實現되지 못  
하였으나昨來以來南面有志諸氏  
의果死的努力으로巨額의寄附金  
을募集하야校舍를建築하고來四  
月一일부터開校하기로定었다  
【麟蹄】

麟蹄市區改正  
◇今年春期에實現  
江原道麟蹄郡麟蹄面에서는明年  
秋期에當佛邑內市區改正를施行  
하리라고計劃한것但道路品價의  
高因하야實行되지 못하고停止한  
도但今年春期에는實現할계획이  
라니南面에 있는方々의 유지가  
是改正設計에對한中의 여러  
【麟蹄】

元通瑞和道路  
今春에完成  
江原道麟蹄郡은原來山間僻地가  
되기에面에面과面을勿論湖里湖  
湖里間에도山이 막히고東西南北  
步行조차困難한것을擴張改修計  
이때로는元通瑞和山과山과山과山  
을通고의다의면니交通의不便스나今春에는完成되리라  
便하다恒常此種道路를修めれば北  
面元通瑞和南面까지約四十里  
ハ麟蹄郡北南兩面の有志諸氏は  
麟蹄の發達下で交通の便を以て  
南經濟の圓滑發展を望むたに  
此有志の覺得한바와一致照  
【麟蹄】

各地夜學消息  
◇合江里 麟蹄郡邑內合江里  
에서는生計困難으로明우치 못하  
고오음前道가暗澹한無産兒童들  
에게「L」字라도教授하는것이先  
覺者의義務라하야이런學權을  
가진有志金庠鉉氏外數氏가農民  
夜學會를設立하고文盲退治運動  
에가장活躍하야去年十二月廿七  
일부터四十餘名을甲乙二組に分  
計야授學케하였다는데敎員金庠  
鉉四甲諸氏의義務的熱心敎授  
로成績이良好하야模範村이라稱  
한다【麟蹄】

1929-01-17-05-01

### 동아일보

#### 생활난 절도 경관 앞 읍소

지난 12일 통천경찰서 사법실에는 18, 19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 한 사람이 절도범으로 취조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은즉 그 청년은 본적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에 두고 조소는 함남도 정평군 춘류면 여응리에 거주하던 안성후(18)이라는 청년으로 그 범행의 동기를 들으면 7세 때에 모친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같이 너적지 못한 생활을 하여오다가 10살 되던 해에 가산은 탕진되고 어찌할 수 없으므로 가슴 쓰린 고향을 등지고 함남지방으로 옮겨 6, 7년을 살아오며 장가까지 들게되어 근근이 삼부자끼리 살아왔는데 불행히 금춘에 아버지조차 사망하므로 어린부부 둘이 살아갈 도리가 없으므로 당년 17세된 꽃다운 아내와 같이 또다시 그곳을 버리고 강원도로 오게되어 통천읍 동리에 와서 한칸 사랑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생불여사로 지내왔는데 그 이웃 일본인 삼정영차의 집에 가서 1개월 12월씩을 받고 소사로 있게되어 약 1개월간 있었으나 그것으로는 둘이 생활할 수 없으므로 동 상점에서 잡화품 몇 가지를 훔쳐두었던 것이 발각된 까닭이러는데 취조를 받으면서도 죽지못해 도적질을 하였으나 죽여주기만 바란다고 하며 자기는 이후로 감옥밥이라도 먹을 터이니 굶을 아내와 같이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구슬픈 울음소리에 취조하던 경관으로도 눈물겨운 사실이라 하여 정상을 생각하고 돌려보내리라고 한다. 【통천】

1929-01-19-03-06

### 동아일보

#### 강원도지방주일학교대회

금년 하기에 수양회로 개최될 강원도지방 주일학교대회는 인제에 개최되리라는데 동회 기한은 10일간이고 회원은 약 200명이라 하며 대회가 폐회한 후에는 인제 설악 명승을 탐승하리라고 한다.

1929-01-22-04-03

### 동아일보

#### 무산아동야학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농민의 문맹을 퇴치키 위하여 이달 20일부터 3월 19일까지의 농한기를 이용하여 그 나 자도 알지못하는 무산아동들에게 연필 잡기장을 무료 배급하고 야학을 개최한다는데 과목은 조선어 산술 양장 양봉 삼업 기타 등의 기술을 교양하며 교수는 군수 임시제씨 외 군속 여러명이라 하며 교장은 당지 인제공립보통학교라는데 무산으로 취학치 못하고 문맹으로 하소연하는 여러 아동의 신청을 인제면사무소 야학신청부에서는 속히 입학함을 기다린다고 한다. 【인제】

**生活難 窃盜**  
**警官前泣訴**

구체정경관 앞의 18, 19세 청년 한 사람의 울음소리에 취조하던 경관도 눈물겨운 사실이라 하여 정상을 생각하고 돌려보내리라고 한다. 【통천】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江原道 正平郡 春流면 女應里)에 거주하던 안성후(18)라는 청년으로 그 범행의 동기를 들으면 7세 때에 모친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같이 너적지 못한 생활을 하여오다가 10살 되던 해에 가산은 탕진되고 어찌할 수 없으므로 가슴 쓰린 고향을 등지고 함남지방으로 옮겨 6, 7년을 살아오며 장가까지 들게되어 근근이 삼부자끼리 살아왔는데 불행히 금춘에 아버지조차 사망하므로 어린부부 둘이 살아갈 도리가 없으므로 당년 17세된 꽃다운 아내와 같이 또다시 그곳을 버리고 강원도로 오게되어 통천읍 동리에 와서 한칸 사랑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생불여사로 지내왔는데 그 이웃 일본인 삼정영차의 집에 가서 1개월 12월씩을 받고 소사로 있게되어 약 1개월간 있었으나 그것으로는 둘이 생활할 수 없으므로 동 상점에서 잡화품 몇 가지를 훔쳐두었던 것이 발각된 까닭이러는데 취조를 받으면서도 죽지못해 도적질을 하였으나 죽여주기만 바란다고 하며 자기는 이후로 감옥밥이라도 먹을 터이니 굶을 아내와 같이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구슬픈 울음소리에 취조하던 경관으로도 눈물겨운 사실이라 하여 정상을 생각하고 돌려보내리라고 한다. 【통천】

江原道地方主日學校大會  
 今年 하기에 수양회로 개최될 강원도지방 주일학교대회는 인제에 개최되리라는데 동회 기한은 10일간이고 회원은 약 200명이라 하며 대회가 폐회한 후에는 인제 설악 명승을 탐승하리라고 한다.

**無産小童夜學** 江原道 關陽郡에 사는 農民의 文盲을 退治키 爲하야 今月 二十日 부터 三月 十九日 까지의 農閑期를 利用하야 九日 外 의 餘暇를 無料配給하야 各 筆 雜記帳等을 無料配給하야 夜學을 開辦한다는 데 課目은 朝鮮語, 算術, 養蠶, 養蜂, 森蜂 其他等의 技術을 教授하며 教授는 郡守任 官宰 外 郡屬 諸氏라 하며 敎場은 當地 關陽 公立 普通學校라 는 바 無産으로 就學치 못하고 文盲으로 하 소연하는 여러 兒童의 申請을 關陽 面事務所 夜學 申請部에서 迅速히 入學함을 기다린다고 한다. 【關陽】

1929-01-24-04-05

### 동아일보

#### 합강청년회 창립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훈련기관이 없음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지난 16일에 해 동리에서 농촌운동에 열중하던 최규선씨와 유지 여러명이 집회하여 청년회를 조직하여 토산장려 농촌 무산아동의 문맹퇴치 봉건적 악습 폐지 기타 미신타파의 건을 결의하는 동시에 동리 노동야학도 청년회에서 경영하게 되었으며 또 논 400평 전 200평의 소작지를 빌려언어 청년회 경영으로 하여 재정을 보충하리라는데 일반은 장래 농촌운동에 공헌이 많이 있으리라 하며 피선된 임원은 회장 최규선 부회장 최태운 서기 최중호 회계 최성용 여러명이라고 한다. 【인제】

1929-01-26-04-06

### 동아일보

#### 인제정의여교 바자회

인제정의여학교에서는 오는 2월 15, 16일 이틀동안 동교내에서 바자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일반 각학교의 어린학생의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한다. 【인제】

1929-01-26-04-06

### 동아일보

#### 인제삼림조합서 개량온돌 선전 사용 결과 성적 양호

강원도 인제군삼림조합에서는 재래의 온돌을 개량함은 식림보호사업은 물론이오 연료와 절약과 화재예방에 필요하므로 4개년 계속사업으로 금월부터 실행하기로 하여 벌써 착수하였는데 성적이 양호하며 인제군 6면 각리의 온돌 분구를 개조 실행키로 하여 분화개는 목제 철제 또는 연통 등으로 일반 희망에 따라 공동구입하여 철저적으로 장려계획중이라고 한다. 【인제】

1929-01-26-04-07

### 동아일보

#### 인제우편에 불평

인제우편소에서 외부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하루건너 배달하는 것도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인데 어떤 때는 수신인에게 직전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통신 태배의 관계로 군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한다. 【인제】

合江青年會創立 江原道麟蹄郡麟蹄面合江里에서는 아즉외지社會의訓練機關이없음을恒常遺憾으로생각하는데 지난十六日에該洞里에서農村運動에熱中한崔奎善氏와有志數人이會集하여青年會를組織하여土產獎勵農村無產兒童의文盲退治封建的惡習廢止其他迷信打破의件을決議한同時에同里勞働夜學도同會에서經營하게되엇으며또者四百坪田二百坪의小作地를借得하여同會의經營으로하여財政을補充하리라는데一般農來農村運動에貢獻이만히잇스리라하며被選된任員은會長崔奎善副會長崔泰雲書記崔鍾範會計崔成龍諸氏라더라 【麟蹄】

麟蹄貞宜女校바자회 麟蹄의녀학교(貞宜女學校)에서는래이월삼육일(三六)에동교내에서바사대회(大會)를개최하리라는데일반각학교의어린학생의작품이만히나오기를바란다더라 【麟蹄】

麟蹄森林組合서 改良溫突宣傳 使用結果成績良好 江原道麟蹄郡森林組合에서는在彼處及는麟蹄等으로火源의來由를究明改良溫突을施行하며火災の預防に力を盡すこととして今月より實行する所なり其の成績は良好なり麟蹄郡六面各里に温突改良口を改造を行きおすは火災を防止す木製

麟蹄郵便에不平 麟蹄郵便所에서는外村에配達하는郵便物は하루건너配達하는것드만은不便을주는것이데어떤때는受信人에게直達하지인코他人에게傳達하는일이非非再再할뿐아니라通信怠配의關係로郡民의怨聲이藉藉하더라 【麟蹄】

1929-01-29-04-04

### 동아일보

#### 퇴비의 장려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농가마다 퇴비사와 함께 돈사 양잠 양계 등으로 가급적 농가생활에 유력한 보람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특히 본년도에 있어서는 농사개량에 철저한 사업으로 추기 수확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년에 의하면 논 1반에 쌀이 최고로 8두2합을 획득하였는데 금년에는 현상으로 1반보에 1석 이상을 추수하는 자에게 그 수확율에 따라 1등에 100원, 2등에 50원, 3등에 30원, 4등에 15원, 5등 5원의 상으로 수여한다는데 일반 농민에게 근로의 사상을 배양시키며 농토의 영양소인 퇴비증제의 장려를 금년도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제】

1929-01-31-07-08

### 동아일보

#### 종적없던 소부 시체되어 출현

지난 27일에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162번지 황춘보(40)의 처 박씨(27)는 이달 초순경 어는 눈오는 밤에 남모르게 종적을 감춘이 후 동리 사람들이 수상히 여기던차 어떤 나무꾼의 입으로부터 살인하였다는 말이 나자 이 소문을 들은 소관 인제경찰서에서는 전기 황춘보를 살인 혐의범으로 인치하고 비밀리에 활동하여 그 죽은 시체를 자기집 뒤 밖 돌무더기 속에 들로 파묻은 것을 발견하고 엄중히 취조한 결과 타살된 혐의가 농후하여 그 시체를 해부에 부치기로 하였으나 썩어 얼었으므로 아직 해부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죽은 지는 20여일이 되다하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 여론은 분운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인제】

1929-02-05-04-10

### 동아일보

#### 부인근로조합 정총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 있는 조선부인근로조합에서는 지난달 28일 오후2시에 조합장 심씨 사회하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각부 보고가 있는 후 동4시반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는데 결의사항은 좌와같다

【인제】

- 1. 농촌사업에 관한 건
- 1. 가정부녀의 근로의 정신과 독서에 관한 건
- 1. 부인 야학경비의 건
- 1. 구년말 망년의 건

**堆肥 獎勵** 江原道廳 爲當局에서 農家마다 堆肥舍의 例를 設치 養蠶 養雞 等으로 可及의 農家生活에 有力한 보람이 있도록 努力하는 바이다 特히 本年度에

是는 農事改良에 應한 事業으로 秋期收穫을 獎勵하기 爲하여 例年에 依하여 畝一反에 粟이 最高로 八斗二合을 獲得하면 今年에는 額賞으로 一反步에 一石以上을 收穫하는 者에게 그 收穫率에 依하여 十圓四等에 十五圓五等에 五圓의 費으로 授與한다 是는 一般農民의 勤勞의 恩惠를 培養시키며 農土의 營養素인 堆肥 增製의 獎勵를 今年度는 積極的으로 施行할 計劃이 라 特히 【附錄】

**踪跡 小婦 屍體 出現** 지난 27일의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162번지 황춘보(40)의 처 박씨(27)는 이달 초순경 어는 눈오는 밤에 남모르게 종적을 감춘이 후 동리 사람들이 수상히 여기던차 어떤 나무꾼의 입으로부터 살인하였다는 말이 나자 이 소문을 들은 소관 인제경찰서에서는 전기 황춘보를 살인 혐의범으로 인치하고 비밀리에 활동하여 그 죽은 시체를 자기집 뒤 밖 돌무더기 속에 들로 파묻은 것을 발견하고 엄중히 취조한 결과 타살된 혐의가 농후하여 그 시체를 해부에 부치기로 하였으나 썩어 얼었으므로 아직 해부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죽은 지는 20여일이 되다하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 여론은 분운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인제】

◆ 婦人 勤勞 組合 定總 購 贈 而 藍川里에 이는 朝鮮 婦人 勤勞 組合에 是는 去月 廿八日 午後 二時에 開會 하고 順序에 依하여 各 部 報告 가 잇는 後 同 四時 半 頃에 無事히 閉會 하였는데 決議 事項은 如 左 하더라 【附錄】

一, 農村 事業에 關한 件 一, 家庭 婦女의 勤勞의 精神과 讀書에 關한 件 一, 婦人 夜學 經費의 件 一, 舊年 末 忘年의 件



1929-02-14-03-07

### 중외일보

#### 빙설로 우마차로 불통, 인제 간성간

강원도 인제 간성간은 근일 설빙으로 인하여 도로가 처저 파손되어 근6, 7일간을 자동차 및 우마차가 불통되어 교통상 장애가 적지 않으므로 일반은 속히 수선됨을 기대한다고 한다. 【춘천】

1929-02-14-04-04

### 동아일보

#### 금추 박람회엔 인제군 출품수

올가을 9월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조선박람회에 강원도 인제군내에서 출품할 종목과 점수는 좌와 같다고 한다. 【인제】  
목탄 1점 과 조선송 1점 콩 4점 옥수수 4점 메밀 2점 조 2점 견직물 2점 마포 1점 면포 1점 임유 1점 완초연 2점 밀봉 2점 봉밀 2점 밀랍 2점 견 11점 잠구 1점 표고버섯 1점 작약 1점 약재 4점 제재 9점 반가공재 6점

1929-02-15-03-03

### 중외일보

#### 정명학교와 차, 광 양씨 열성

강원도 인제군 북면 면장 광영환씨는 면내 무산남녀아동 교육 기관이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과거 8, 9성상여에 원동 정화여학교이라 칭하여 기독교 책임으로 창립한 후 경비기타를 자담하고 극히 곤란되는 차에는 춘천정명여학교 교장 차선씨의 동정을 받아 내용을 충실하여온 결과 현재에도 학생이 남녀 합 60, 70명에 달하며 선생은 4인 중 1인은 춘천 차선씨가 파송하여 매일 월급료를 자담하고 기타 3인은 면학부형이 부담인데 대부분은 학교장 광씨가 자담하게 되므로 타공비에 별로진 것이 없으며 학년제도는 4학년까지 라는데 광씨는 말하되 2, 3월내로 공보로 승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므로 일반은 위 양씨의 특지를 칭송한다고 한다. 【춘천】

1929-02-22-04-11

### 동아일보

#### 정의여교 전람회

강원도 인제군 정의여학교에서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지난 15, 16 양일간 당교내에서 교육실습품 학예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출품총 점수는 695점이고 타고 출품이 61점으로 군내 교육사상 일대 색채를 내었으며 일반으로 하여금 대성황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인제】

**氷雪로 牛馬車路不通 麟蹄杆城間**

江原道麟蹄杆城間은近日雪水으로因計야道路가處處破損되어近六七日間을自動車及牛馬車가不通되어交通上障礙가不少함으로一般은速히修繕됨을企待한다더라 【春川】

**今秋博覽會에 麟蹄郡出品數**

今秋九月부터京城에서開催될朝鮮博覽會에江原道麟蹄郡內에서出品할種目과點數는左와如하다

木炭	一點	莫胡(鮮松)	一點
大豆	四點	玉蜀黍	四點
蕎麥	二點	粟	二點
絹織物	二點	麻布	二點
綿布	一點	苧油	一點
荳草	二點	蜜蜂	二點
蜂蜜	二點	蜜蠟	二點
蘭	一點	蠶具	一點
推耳	一點	芍藥	一點
藥材	四點	製材	九點
半加工材	六點		

**貞明學校와 車郭兩氏熱誠**

江原道麟蹄郡北면面長光氏가本郡內에無善男女兒童教育機關이 없음을 유감으로 8, 9성상여에 元동正화여학교를 창립한 후 경비기타를 자담하고 극히 곤란되는 차에는 춘천정명여학교 교장 차선씨의 동정을 받아 내용을 충실하여온 결과 현재에도 학생이 남녀 합 60, 70명에 달하며 선생은 4인 중 1인은 춘천 차선씨가 파송하여 매일 월급료를 자담하고 기타 3인은 면학부형이 부담인데 대부분은 학교장 광씨가 자담하게 되므로 타공비에 별로진 것이 없으며 학년제도는 4학년까지 라는데 광씨는 말하되 2, 3월내로 공보로 승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므로 일반은 위 양씨의 특지를 칭송한다고 한다. 【春川】

**東北地方 貞宜女校展覽會**

江原道麟蹄郡貞宜女學校에서는既報와如히 지난十五十六兩日間當校內에서教育實習品學藝展覽會를開催하였는데出品總點數는六百九十五點이오他校出品이六十一點으로郡內教育史上一大色彩을 나타냈는데一般으로하여금大盜況을 나타냈다더라 【麟蹄】

1929-02-26-04-04

### 동아일보

#### 퇴비 증제 농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는 농토의 영양소인 퇴비증제촌락으로 인제군내에서 월등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원통리 농가에는 퇴비장이 없는 곳이 없으니 그 질로나 양으로 보아 실로 강원도에 우수하다는 명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그 숫자를 보면

농가호수 40호, 경지면적 409만, 간이퇴비장 38, 모범퇴비사 2, 소요퇴비수량1호당 2139관, 1반당 150관

이리하여 동리에서 필요로 할만한 퇴비량은 1928년까지 완성된 셈이라고 한다 【인제】

1929-02-27-03-04

### 동아일보

#### 이평 풍속 개량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이평리에 있는 성신청년회는 동리 유지 이세규씨의 발기로 작년 10월경에 창립하여 문화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는데 특히 금년도에 있어서는 민풍개량과 풍기숙청에 이어서 도박니취를 엄금하고 범칙자는 엄준히 처분을 행하게되었고 미신타파에도 노력하여 복술자의 족적이 일소되었으며 아직까지 이 점에 있어서 징벌을 받은 자가 1인도 없으며 금후로는 항상 독행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리라고 한다. 【인제】

1929-03-02-04-02

### 동아일보

#### 인제유치원 동정

강원도 인제유치원은 설립 2개년 이래 유지상 곤란을 느끼는 가운데 지방유지 여러명의 따뜻한 동정으로 경비에 충당하여왔는데 당지 육영계에서 인제유치원 기본자산으로 800원을 기부하였는데 일로부터 동원의 기초는 장차 견고하게 될 터이며 이에 대하여 원장 조경훈 노인의 노력이 적지않다한다. 【인제】

1929-03-02-04-07

### 동아일보

3년간 계속으로 관내 도로 완성 인제군서 금춘부터 기공 강원도 인제군은 원래 고산준령이 가로막아 교통 불편에 대하여는 실로 일반이 공히 느끼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제군 당국에서는 3년간 계속사업으로 군관내 도로 완성을 기하고 금춘부터 착수하리라는 데 인제읍을 중심으로 한 춘천 흥천 고성 각군에 통하는 도로는 완성되었으나 지금까지 양양 회양 평창 각군에 통할 중형 각선에 주력하여 1931년도까지 이를 전동시키겠으며 우선 인제군 기린면을 중심으로 한 양양선과 내면을 중심으로 춘천 강릉선의 인제군 관내도로는 1930년도까지에 완성을 기하리라고 한다. 【인제】

其他	二八〇、三三九	其他	二八〇、三三九
合計	四一〇、〇九七	合計	四一〇、〇九七
堆肥增製肥料	江原道	堆肥增製肥料	江原道
其他	二八〇、三三九	其他	二八〇、三三九
合計	四一〇、〇九七	合計	四一〇、〇九七

### 泥坪風俗改良 江原道

麟蹄郡麟蹄面泥坪里에 있는 誠信靑年會는 向里有志李世奎氏의 發起로 去年十月頃에 創立하여 文化向上에 積極努力하든바 特히今年度에 잇서서 民風改良과 風紀肅清에 잇서서 賭博泥醉를 嚴禁하고 犯則者는 嚴峻히 處分을 行하계되 었고 迷信打破에도 努力하야 卜術者의 足跡이 一掃되엇스며 아속외 지이點에 잇서서 懲罰을 受한者 一人도 없스며 今後로는 恒常篤行者를 選拔하여 表彰하리라더라 【麟蹄】

### 麟蹄幼稚園同情 江原

道麟蹄幼稚園은 設立二個年以來 維持上 困難을 느끼는 가운데 地方有志諸氏의 同情로 同情으로 經費에 充當하야 오든바 當地方 英模에 該幼稚園 基本資産으로 八百圓을 寄附하얏다는 데 일로 同園의 基礎는 將次 鞏固하게 될터이며 이에 對하야는 團長趙慶助 老人의 努力이 적지 안리라더라 【麟蹄】

### 三年間繼續으로 管内道路完成 麟蹄郡分今春起工

江原道麟蹄郡은 元來高山峻嶺이 가로막아 交通不便에 對하여는 實로 一般이 痛切히 느끼는 바이다. 이리하여 麟蹄郡當局에서는 三年間 繼續事業으로 管内道路 完成을 期하고 今春부터 着手하리라든바 麟蹄邑를 中心으로 津川 洪川 城谷郡에 通하는 道路는 完成되엿스나 今 麟蹄郡內 各郡에 通할 道路는 未だ 完成되지 아니한 바이다. 麟蹄郡當局은 先當郡 麟蹄郡을 中心으로 麟蹄郡內과 管内을 中心으로 津川 江陵線의 本郡管内 道路는 昭和五年 度까지에 完成을 期하리라더라 【麟蹄】

1929-03-02-04-08

### 동아일보

#### 기념강연회 연기

강원도 인제 광성청년회 창립 5주년 기념사업으로 2월 25일에 대강 연회를 연다는 것은 이미 보도하였는데 당국이 승낙을 받고 만반 준비를 완료하고 개회 시간이 박두하였을 때에 경찰당국에서 돌연이 당분간 중지하라는 명령으로 부득이 연기하고 말았더라. 【인제】

1929-03-02-04-08

### 동아일보

#### 합강리 소인극

강원도 인제 합강리에 있는 삼화청년회 주최로 정초를 이용하여 지난 음14일 밤에 지방발전을 목적으로 동리에서 소인극을 열었는데 다수의 입장으로 대성황을 나타냈다. 【인제】

1929-03-03-04-10

### 동아일보

#### 인제유치원 이사회

강원도 인제유치원의 이사회에서는 2월 25일 오전10시에 유치원 내에서 원장 조경훈씨 사회하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계의 현재 경과 보고를 비롯하여 제반의안을 토의하고 동 12시 반경에 무사폐회하였는데 결의사항은 좌와 같다 【인제】

- 1. 금년도 본원 유지비의 건
- 1. 본원 기본자산 수립의 건
- 1. 졸업식과 개원 일자에 대하여
- 1. 원아 모집에 대한 건

1929-03-07-04-04

### 동아일보

#### 인제 개시 변경

강원도 인제군 시장개시일은 이달 1일부터 좌기와 같이 변경하고 이 시장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인제】

시장리명	변경일	시장리명	변경일
인제읍내	3,8 2,7	관대리	4,9 3,8
원통리	2,7 1,6	기린	4,9 1,6
서화	4,9 5,10		

紀念講演會延期 江原道麟蹄光成青年會創立五週年紀念事業으로二月廿五日에大講演會를 연다는것은既報하였거니와當局의承諾을맞고萬般準備을完了하고開會時間이迫近하였을때에警察當局에서突然이當分間中止하라는命令으로不得已延期하고말았더라 【麟蹄】

合江里素人劇 江原道麟蹄合江리에있는三和青年會主催로正初을利用하여지난陰十四日夜에地方發展을目的하고同里에서素人劇을열었는데多數의入場으로大盛況을보았다 【麟蹄】

麟蹄幼稚園理事會 江原道麟蹄幼稚園理事會에서二月廿五日午前十時에同園內에서園長趙慶勳氏司會下에理事會를開會하고會計의現在經過報告를비롯하여諸般議案을討論하고同十二時半頃에無事閉會하였는데決議事項은如左하다 【麟蹄】

- 一、今年度本園維持費의件
- 一、本園基本資産樹立의件
- 一、卒業式과開園日字에對하여
- 一、園兒募集에對한件

麟蹄開市變更 江原道麟蹄郡市場開市日은今月一日부터左記와如히變更하고次市日부터施行한다 【麟蹄】

市場里名	變更日
麟蹄邑內	三,八 二,七
冠岳里	四,九 三,八
元通里	二,七 一,六
麟蹄	四,九 一,六
瑞和	四,九 五,十

1929-03-07-04-06

### 동아일보

#### 한발 중 적설

겨울철 가뭄으로 근심 중에 싸여있는 강원도 영서일대에는 지난달 매일경부터 저기압이 돌아지더니 본월 초1일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비롯하여 다음날 전후까지 퍼붓는 듯이 내려 적설이 4촌2분에 달하였는데 이로써 작년 겨울 이래의 가뭄으로 우려중에 있던 영서일대의 주민들은 겨우 근심을 걷게 되었으나 아직도 전국에 미흡을 자못 느낀다 한다. 【인제】

1929-03-07-04-08

### 동아일보

#### 축우 증식계획 인제군농회서

강원도 인제군은 사료가 풍부한 군인만큼 목축의 적지를 점하고 있다. 오늘날 인제군을 연하여 축우가 10,800마리인데 농가 1호당 1두2보의 상당한 숫자로 강원도에서 제3위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군축산조합에서는 금년부터 보다 더 농가에 유력한 보람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우계, 종모우 종부, 송아지 예탁 등 장려에 힘쓰며 우량한 암소는 군외 이출을 방지하고 도살 제한 등의 방침을 강하여 1935년도까지 농가 1만호에 1호당 2마리 즉 총수 2만마리의 증식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인제】

1929-03-08-04-01

### 동아일보

#### 양교 설립준비 인제군 1면1교

강원도 인제군에는 6개면 중에 완성된 학교수로 현재 공립보통학교가 4교, 그 중 1면내에 사립학교가 1교인데 생도수는 620여명인데 이를 취하기에는 아동수 16,600명에 비하면 겨우 30분의 1에 불과하므로 현재 학교에 학급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통학교 설치되지 못한 2개면에 보통학교를 신설하여 1면 1교를 실현하고자 인제군 당국에서는 예산하는데 금후 2개년이면 완전 시설을 보리라 하며 설치 및 위치는 이와 같다고 한다. 【인제】

1929년 내면 창촌리 공립보통학교

1930년 북면 원통리 공립보통학교

1929-03-10-03-03

### 동아일보

#### 인제산림보호 채벌 엄중 단속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산림양호와 산림부산물의 증식사업으로 보호 단속을 엄중히 하는 동시에 송지권의 폐지, 분구의 개량, 축두 생식장려, 벌채 엄중제한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임상을 구대로 회복중이며 또 종래 산림부산물인 약초, 버섯류, 동백 등 산액이 과다함을 불구하고 이 채취는 태반이나 타지방자의 손에 뺏기고 인제군민의 이익이 될만한 곳이 적으므로 금후로는 군민의 다량 채취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동판매로써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리라고 한다. 【인제】

**旱魃中積雪**  
冬期旱魃은 근심 중에 싸여있는 강원도 영서일대에는 지난달 매일경부터 저기압이 돌아지더니 본월 초1일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비롯하여 다음날 전후까지 퍼붓는 듯이 내려 적설이 4촌2분에 달하였는데 이로써 작년 겨울 이래의 가뭄으로 우려중에 있던 영서일대의 주민들은 겨우 근심을 걷게 되었으나 아직도 전국에 미흡을 자못 느낀다 한다. 【인제】

**畜牛增殖計劃**  
麟蹄郡農會서  
江原道麟蹄郡은飼料가豐富한郡인만큼牧畜의適地를占하고있다.現今同郡을連하여畜牛가一萬八百頭의農家一戶當一頭二步의相當數字로同道에서第三位를占하고있다.그리하여郡畜産組合에서는今年부터보단農家에有力한보람이있도록積極努力하여牛契,種牡牛種付,贈禮豫托等獎勵에힘쓰며優良한牛는郡外移出을防止하고屠殺制限等の方針을講하여昭和十年度까지農家一萬戶에一戶當二頭總數二萬頭의増殖을計劃中이라더라. 【麟蹄】

**兩校設立準備**  
麟蹄郡一兩校  
江原道麟蹄郡은六個面中에完設된學校數로現在公學校가四校其中一兩面에私立學校가一校인데生徒數는六百二十餘名이며此數就熱期에있는兒童數一萬六千六百名에比하면三十分の一에不過함으로現在學校에學級을延長하는同時에普通學校를新設하지 못한二個面에普通學校를新設하여一兩一校를實現하고同郡當局에서는豫算하는바今後二個年이면完全施設을보리라하며設置及位置는如左하다더라. 【麟蹄】  
昭和四年 內面箕村里公學校  
昭和五年 北面元迎里公學校

**麟蹄森林保護**  
採伐嚴重取締  
江原道麟蹄郡當局에서는森林保護及其他副産物の増殖事業으로保護取締嚴重計하는同時에松枝輪刈防止及び改良畜牛生食獎勵採伐制限等の方法に依하여林相을振興回復中이며又從來森林副産物인藥草茸類冬栢等産額이夥多함을不拘하고此採取는殆半이나他地方者の手に墜り同郡民の利益될만한處が少함으로今後로는郡民の多量採取を獎勵하는同時に共同販賣로利益の増進を圖謀하리라더라. 【麟蹄】

1929-03-10-03-03

### 동아일보

#### 인제군 당국서 인삼 재배장려 연산 20만원 계획

인제인삼은 자고로 강원도에서 명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장래가 매우 유망한데 인제군의 인삼재배 적지는 10만평이란 숫자를 가졌는데 여기에 인삼을 재배하고 1평1근에 최저가격 10원을 잡는데도 100만원이란 거액의 수익을 득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적에 걸쳐 1년간 재배는 곤란할 뿐 아니라 5년간에 채취하는 것으로서 연년이 수용이 공할 필요도 있다 하여 이를 인제군에서는 5년간에 분할 재배하여 연산 20만원을 득할 계획인데 본년도에는 면모법전 및 희망에 따라 재배시키고 1935년까지 일반 장려에 보급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인제】

1929-03-11-04-08

### 동아일보

#### 우시 번영책 매매에 추첨제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군내 시장 번영을 꾀하고 축우 출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인제군 관내 시장읍내 시장에서 매 시장 일마다 축두를 출장 매각하는 자에게 대하여 번호 입 추첨권을 교부 하리라는 데 추첨은 11월 1일에 개표하여 당선자에게 좌기와 같은 상품을 수여하리라고 한다. 【인제】

- 1등 축우 1마리 1인
- 2등 광목 1필 1인
- 3등 동반목 1필씩 2인
- 4등 삽 1그루씩 4인
- 5등 농구 1정씩 8인

1929-03-15-02-05

### 중외일보

#### 情男과 공모하여 단도로 남편죽여 오랫동안 숨었는데 최근에 발견 피착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에서는 작년 12월 22일 오전 7시경에 말만 들어도 진저리나는 간부 간부 공모의 본 남편 타살사건이 있었으나 거의 2~3개월을 감쪽같이 비밀이 되어오던 중 금년 3월 8일에 발각되어 가해자 간부부 두사람은 방금 인제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는 중인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탐문한 즉 피해자 박종석(25)은 본적을 경북 영덕군에 두고 현주소 강원도 인제군에 와서 자기 처 남간난(30)과 내외가 가해자 남옥출(40)에게 생활에 무수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 할 수없이 피해자 박종석은 자기 처를 남의 집에도 혼자두고 춘천으로 품팔이를 하기위해 온사이에 이것을 기회로 남옥출은 간난이가 혼자있는 것을 교묘한 수단으로 유인하여 비밀히 관계를 맺고 수월간을 지내오다가 쌍방이 서로 정이 깊어 박종석이 돌아오게 되자 하루는 밤을 새워가며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하여 공모하고 본 남편 박종석을 단도로 목을 찢러 죽여가지고 즉시 매장을 하고 동리사람들에게는 감쪽같이 속여오던 중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간부 간부 두 사람은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경찰의 손에 잡히었다더라. (춘천)

麟蹄郡當局서  
人蔘栽培獎勵  
年產二十萬圓計劃

麟蹄人蔘自古是江原道에서名聲이 높을뿐 아니라 將來가 매우有望한바 郡의 人蔘栽培地는 十萬坪이던 숫자를 가졌는바 그중 人蔘을 재배하고 1坪 1斤의 最低價額十圓을 잡는 데도 百萬圓이란 巨額의 收益을 得할 수 있는데 此種全面積에 於하여 一年間栽培는 困難한바 이를 五年間에 採收하는 것으로 五年間의 需用에 供할 必要도 있다 하여 此種 計劃에 於하여 五年間에 分期栽培하여 年產二十萬圓을 得할 計劃인데 本年度에 是面 獎勵田及 播種者에 對하여 栽培 시키고 昭和十年까지 一般獎勵에 普及 시킬 計劃이 現行이다. 【麟蹄】

牛市繁榮策  
賣買에 抽籤制

江原道麟蹄郡當局에서 牛市內市場繁榮을 圖하고 畜牛出場을 獎勵하기 爲하여 三月二十二日 부터 麟蹄郡內市場邑內市場에 對하여 每日 마다 畜牛을 出場賣却하는 者에게 對하여 抽籤을 行하여 抽籤券을 交付 하리라는 데 抽籤은 十一月一日에 開票 하야 當選者에게 左記와 如한 賞品을 授與 하리 云다. 【麟蹄】

一等	畜牛一頭	一人
二等	廣木一疋	一人
三等	東洋木一疋씩	二人
四等	鑄一木씩	四人
五等	農具一挺씩	八人

情男共謀 短刀로 殺夫  
오래 숨어 있던 단도로  
最近에 發覺被捉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에서는 작년 12월 22일 오전 7시경에 말만 들어도 진저리나는 간부 간부 공모의 본 남편 타살사건이 있었으나 거의 2~3개월을 감쪽같이 비밀이 되어오던 중 금년 3월 8일에 발각되어 가해자 간부부 두사람은 방금 인제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는 중인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탐문한 즉 피해자 박종석(25)은 본적을 경북 영덕군에 두고 현주소 강원도 인제군에 와서 자기 처 남간난(30)과 내외가 가해자 남옥출(40)에게 생활에 무수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 할 수없이 피해자 박종석은 자기 처를 남의 집에도 혼자두고 춘천으로 품팔이를 하기위해 온사이에 이것을 기회로 남옥출은 간난이가 혼자있는 것을 교묘한 수단으로 유인하여 비밀히 관계를 맺고 수월간을 지내오다가 쌍방이 서로 정이 깊어 박종석이 돌아오게 되자 하루는 밤을 새워가며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하여 공모하고 본 남편 박종석을 단도로 목을 찢러 죽여가지고 즉시 매장을 하고 동리사람들에게는 감쪽같이 속여오던 중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간부 간부 두 사람은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경찰의 손에 잡히었다더라. (춘천)

1929-03-14-03-04

**동아일보**

**금후 6년간 1만석 산출계획 인제군 잠업장려**

강원도 인제군은 기후 풍토가 양잠업에 적당하여 군당국에서는 군민의 부업으로 가급적 연년이 누에올리기 매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뽕밭면적도 점차 증식되어 현재 430여 정보의 뽕밭을 가졌으며 산견이 2천여석에 달한데 거개 공동관매로 한다. 더욱 금년에 있어서는 군내 건설사업으로 금후 7개년 계속 뽕나무 심기 장려사업에 주력하여 1935년도까지 누에올리기 매수 3만매 산견 1만석을 돌파케 하려고 계획하는 중이라고 한다. 【인제】

1929-03-15-04-02

**동아일보**

**조선 송이 최적 인제산림재배에**

강원도 인제군은 지세로 보아 영림상 조선송과 재배가 적당하여 총면적 20만 정보에 전부 이것으로 식재할 이상인데 인제군 당국에서는 우선 사유림 45,000정보 내 10,000정보에 1,000만 그루를 식재할 계획으로 제1기 계획에는 4,200정보에 420만그루의 실현을 기하는 중 본계획은 목욕수급의 형편상 1940년을 기하고 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제】

1929-03-24-04-02

**동아일보**

**양봉조합조직 인제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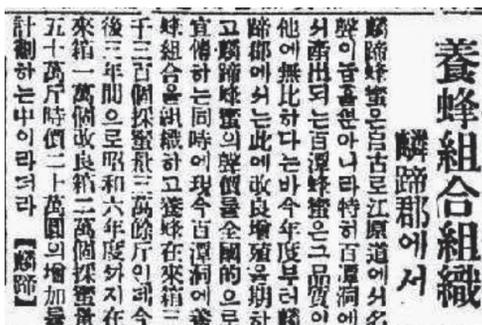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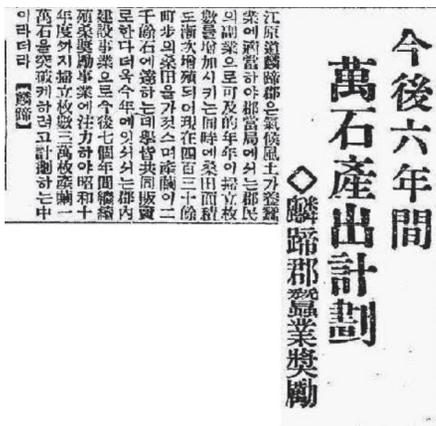
인제 봉밀은 자고로 강원도에서 명성이 높을 뿐아니라 특히 백담동에서 산출되는 백담봉밀은 그 품질이 타에 비교할수없다는 데 금년도부터 인제군에서는 이에 개량증식을 기하고 인제봉밀의 성가를 전국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현금 백담동에 양봉조합을 조직하고 양봉 재래상 3,300개 채밀량 3만여근인데 금후 3년간으로 1931년도까지 재래상 1만개 개량상 2만개 채밀량 50만근 시가 20만원의 증가를 계획하는 중이라고 한다. 【인제】

1929-03-27-04-01

**동아일보**

**산미 증식코자 다수확경작회**

강원도 인제군의 논밭반별을 보면 논 작부반별 2,336정보에 실연산액 2만석이요 조 작부반별 4,196정보에 이 연산액 26,300석인데 이들 생산고는 인제군내의 소비량에도 부족하다는데 더욱이 조 같은 것은 연년이 만주조 2,000석을 수입하여 겨우 식량을 보충하는 것은 실로 한심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 반당 수량은 군 평균 쌀 8두 조 6두에 불과하여 선진지에 비하면 윤니의 차를 볼 수 있는데 금후 이에 개량 증식의 여지가 심대하므로 인제군 당국에서는 일반농가의 경제적 자각과 노력을 환기하여 쌀 조 다수확경작회를 개최하리라는데 품종 선택 아울러 경종법의 개선을 하는 동시에 쌀 조의 다수확을 기하고 만주조 수입을 방지하여 식량의 충실을 도모하는 중인데 이것이 인제군 농촌진흥상 최긴요사업인 만큼 7개년 계속사업으로 1935년도까지 수확고 쌀 조를 각기 반당 수확 1석5두로 인상하여 농촌경제의 신장과 민력 충실을 도모하는 중이라고 한다. 【인제】



1929-03-27-05-05

### 매일신보

#### 강원도 경찰계 ◇...서장 이하 대이동

【춘천】 강원 경관계에서는 내무, 재무, 경찰 등을 통하여 대이동을 전하는데 위선 3월23일부터 다음과 같은 서장 급 이하 경관의 이동이 발표되었다.

- 도경부(정선서장) 청선덕치
- 경찰부 경무과 근무를 명함
- 동(홍천서장) 전갑의차 보 울진경찰서장
- 동(삼척서장) 대협죽웅 보 홍천경찰서장
- 동(김화서장) 원천직지 보 인제경찰서장
- 동(울진서장) 심정민차 경찰부 고등경찰과 근무를 명함
- 동(인제서장) 근등●등 보 삼척경찰서장
- 동(화천서장) 송곡변치 보 양구경찰서장
- 동 경무부(주문진) 상굴유송 임 도경부보 정선경찰서장
- 동(평강) 우도정대 임 도경부보 화천경찰서장
- 동(이천) 도양길 평강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강릉) 대량충부 원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원주) 대도진일 경찰부 고등경찰과 겸 보안과 근무를 명함
- 동(평창) 청유유성 강릉주문진주계소 근무를 명함
- 동(금성) 소곡강차량 춘천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회양) 정천정웅 이천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횡성) 이원두 양양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보안과) 압촌규이 강릉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양양) 최준성 횡성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춘천) 목내진 경찰부 고등과 근무
- 도순사(경무과) 압원정시 임 도경부보 금성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동(원주) 도변청 임 도경부보 평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 도경부(양구서장) 대야봉작 급 6급봉(사망)

### 동아일보

#### 금춘 졸업 재원들

정의여학교 강원도 인제정의여학교에서는 지난 19일 오후2시반에 학교 대강당에서 제15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졸업생 5명 중 우등생이 1명인데 그들의 희망별은 상급학교가 3명이요 기타 미정이라고 한다.

1929-03-28-04-04

### 동아일보

#### 인제학회의회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1929년도 제9회학교비 평의회를 지난 21일 오전10시에 군회의실에서 군수 임시재씨의 사회로 개최하고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군내 4개교의 1년간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후1시에 산회하였는데 세입세출의 예산은 좌와 같다고 한다. 【인제】

- ◇세입부 20,791원 경상부 12,236원 임시부 합계 33,027원
- ◇세출부 23,800원 경상부 9,227원 임시부 합계 33,027원

### 江原道警察界

#### ○署長以下大異動

【春川】江原道警察界에서 대이동이 발표되었다. 위선 3월 23일부터 다음과 같은 서장급 이하 경관의 이동이 발표되었다.

도경부(정선서장) 청선덕치  
경찰부 경무과 근무를 명함

동(홍천서장) 전갑의차 보 울진경찰서장  
동(삼척서장) 대협죽웅 보 홍천경찰서장  
동(김화서장) 원천직지 보 인제경찰서장  
동(울진서장) 심정민차 경찰부 고등경찰과 근무를 명함  
동(인제서장) 근등●등 보 삼척경찰서장  
동(화천서장) 송곡변치 보 양구경찰서장  
동 경무부(주문진) 상굴유송 임 도경부보 정선경찰서장  
동(평강) 우도정대 임 도경부보 화천경찰서장  
동(이천) 도양길 평강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강릉) 대량충부 원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원주) 대도진일 경찰부 고등경찰과 겸 보안과 근무를 명함  
동(평창) 청유유성 강릉주문진주계소 근무를 명함  
동(금성) 소곡강차량 춘천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회양) 정천정웅 이천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횡성) 이원두 양양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보안과) 압촌규이 강릉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양양) 최준성 횡성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춘천) 목내진 경찰부 고등과 근무  
도순사(경무과) 압원정시 임 도경부보 금성경찰서 근무를 명함  
동(원주) 도변청 임 도경부보 평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도경부(양구서장) 대야봉작 급 6급봉(사망)

### 大邱女高普

#### 今春卒業才媛들

대곡군 졸업생 5명 중 우등생이 1명인데 그들의 희망별은 상급학교가 3명이요 기타 미정이라고 한다.

### 眞貞女學校

강원도 인제정의여학교(願備眞貞女學校)에서 지난 19일 오후 2시반에 학교 대강당에서 제15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졸업생 5명 중 우등생이 1명인데 그들의 희망별은 상급학교가 3명이요 기타 미정이라고 한다.

### 藝術寫眞展覽

二十九日(木)부터 光化門前에서 미술사전에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 麟蹄學議會 江原道麟蹄郡

麟蹄學議會는昭和四年度第九回學校費評議會를 지난 21일 오후 10시에 군수 임시재씨의 사회로 개최하고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군내 4개교의 1년간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후 1시에 산회하였는데 세입세출의 예산은 좌와 같다고 한다. 【麟蹄】

◆議入部	二萬七千九十一圓	經常部
一萬二千二百三十六圓臨時部		
合計三萬三千二十七圓也		
◆議出部	二萬三千八百圓	經常部
九千二百二十七圓臨時部		
合計三萬三千二十七圓也		

1929-03-30-03-05

### 동아일보

#### 강원도 인제유치원

강원도 인제유치원에서는 지난 23일 오후1시반에 인제예배당 내에서 제1회 졸업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금년 졸업생은 4명이고 수업생은 28명이라고 한다.

1929-04-01-04-01

### 동아일보

#### 국유산야를 불하 이산민을 구제 ◇인제군 적극노력

일찍이 본보에 보도한 것이거니와 강원도 인제군민의 30%가 넘는 화전민의 호수 3,670호 인구 18,670인의 생계를 보면 1일에 초근목피도 여유가 없어 거개 사산에서 방황하는 그들의 생활상태야 말로 목불인견이며 더욱 저간에는 춘궁을 못이겨 남부여대하고 살길을 찾으려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인제군 당국에서는 이 화전민을 구제키 위하여 지주들과 협조하여 소작농을 얻어주며 군면직원 구장 기타 유력자의 알선으로 편의를 공여하는 동시에 1면에 20, 30호 이상을 수용할만한 국유산야 평탄을 면에서 불하하여 이에 이주 경작시킬 것으로 그들의 구제에 적극 노력하여 활로를 열어주리라고 한다. 【인제】

1929-04-01-04-09

### 동아일보

#### 1학급 증설

강원도 인제군 기린공립보통학교에서는 연년이 입학생의 초과함을 따라 교실이 협착하므로 금춘 신학기에는 1학급을 증설하고 방금 1교실을 증축하는 중인데 증축비 2,950원으로 오는 5월 중순에 낙성을 기한다고 한다. 【인제】

1929-04-03-04-08

### 동아일보

#### 우편 지만에 불평 인제 합강리서

강원도 인제군 읍내 합강리는 상업상 발달전의 일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목상의 중심지요 재목의 집산지이나 아직 통신기관이 민첩치 못하여 우편물을 3일만에 즉 1개월에 10회로 배달하는 것은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보이며 더욱 전보류도 역시 통상우편과 같이하므로 당시 상업계는 대타격을 받는데 동 주민들은 당시 합강정자 이하로만 당일 배달하라는 진정서를 군당국과 체신당국에 머지않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제】

江原道麟蹄郡積極努力  
國有山野를拂下  
離散民을救濟  
麟蹄郡積極努力

國有山野를拂下  
離散民을救濟  
麟蹄郡積極努力

一學級增設 江原道麟蹄郡  
公立普通學校에서는 年年  
入學生의超過함을달하教室이狹  
窄함으로 春新學期에는 一學級  
을增設하고 目下 一教室을增築하  
는中인바 增築費二千二百九十圓  
으로 亦五月中旬에落成을期한다

郵便遲晚의不平  
麟蹄合江里서  
江原道麟蹄郡邑內合江里는 商業  
上大發展의 一期待를 가지고 있  
는바 現今은 木商의 中心地요 材木  
의 集散地이나 亦 通信機關이 敏  
捷치 못하야 郵便物을 二日만에 卽  
一個月에 十回로 配達하는 것은 尙  
우 等困難計는 尙 尙이 보이며 더욱  
電報類도 亦 是 通常 郵便과 가 同  
으로 當地 商業界는 大打撃을 받  
는바 居民들은 當地 合江亭子 以下  
로만 當日 配達하라는 陳情書를 郡  
當局과 遞信當局에 不遠而 提出할  
計를 세우고 있다 【麟蹄】

1929-04-03-04-09

### 동아일보

#### 인제에 독감 창궐 현재 환자 500여명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일대에는 근년에 드문 독감이 창궐되어 2, 3일 간에 7, 8인의 사망자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가 다수 속출하여 현재 무려 500여명에 달하는데 인심이 극도로 흉흉하다고 한다. 【인제】

1929-04-04-04-02

### 동아일보

#### 입학아동 감소로 수업료를 전폐 인제 태원학당에서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있는 우리손으로 경영하는 유일한 교육기관 태원학당은 1925년 4월에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개 정상동안 유지곤란에 갖은 파란곡절을 거듭하면서 지방자녀교육에 다대한 공헌이 있었는데 학자 관계로 연년이 아동입학률이 감퇴되어 금년 4월에 입학할 아동들도 정원에 미달하므로 당국자는 물론 유지일반은 고심 중인데 지난달 22일에 면 유지 40여명이 회합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학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을 백출다가 결국 취학아동의 수업료를 전폐하고 면에서 부담하되 그 방침은 원지리 소재는 3,800여평을 공동경작하여 벼 70석 산액 350원과 각리 소재 전답 소작료 200원, 본면내 거주자 1천호에 채종대 350원, 주재소 숙사 및 사무실 차가로 200원, 서호 도선세 90원 합 1,190원을 구하여 충당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그 구제안은 학무위원에게 일임한 후 폐회하였다는데 실행기는 신학기 4월부터 하리라고 한다. 【인제】

1929-04-05-03-08

### 중외일보

#### 수업료 전폐로 입학률 감퇴 방지, 인제군의 태원학당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있는 우리 손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교육기관 태원학당은 1925년 4월에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개 정상동안 유지곤란에 갖은 파란곡절을 거듭하며 지방교육에 다대한 공헌이 있었는데 학비 관계로 연년이 아동입학난이 초과되어 금년 4월에 입학할 아동들도 정원에 미달하므로 당국자는 물론 유지일반은 고심 중이었는데 지난달 20일에 면유지 40여명이 집합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학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각 청구안을 백출다가 결국 취학아동의 수업료를 전폐하고 면에서 부담하되 그 방침은 소재 3,800여평을 공동경작하여 벼 70석 산액 350원과 각리 소재 전답 소작료 200원과 본면내 거주자 1천호에 채종대 350원, 주재소 숙사 공사사무소 차가로 200원, 서호 도선세 90원 합 1,190원을 구하여 충실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그 구제안은 학무위원에게 일임한 후 폐회하였다는데 실행기는 신학기 4월부터 하리라고 한다. 【인제】

**麟蹄에 毒感猖獗**  
現在患者五百餘名

江原道麟蹄郡北面一帶에는 近年의 드는 毒感이 猖獗되어 二三日間에 七八人의 死亡을 有한 外에 다 患者가 多數 續出하여 現在 麟蹄에 五百餘名에 達하는 바 人心이 惶惶 洵 洵하다. 【麟蹄】

南朝鮮蹴球 赫星團이 得勝

在京城安樂友會主催와 朝鮮中外大會에 參加한 南朝鮮蹴球 赫星團이 得勝

**入學兒童減少로 授業料를 全廢**  
麟蹄泰元學堂에서

江原道麟蹄郡北面에 있는 태원學堂은 1925년 4월에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개 정상동안 유지곤란에 갖은 파란곡절을 거듭하며 지방교육에 다대한 공헌이 있었는데 학비 관계로 연년이 아동입학난이 초과되어 금년 4월에 입학할 아동들도 정원에 미달하므로 당국자는 물론 유지일반은 고심 중이었는데 지난달 20일에 면유지 40여명이 집합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학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을 백출다가 결국 취학아동의 수업료를 전폐하고 면에서 부담하되 그 방침은 원지리 소재는 3,800여평을 공동경작하여 벼 70석 산액 350원과 각리 소재 전답 소작료 200원, 본면내 거주자 1천호에 채종대 350원, 주재소 숙사 및 사무실 차가로 200원, 서호 도선세 90원 합 1,190원을 구하여 충당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그 구제안은 학무위원에게 일임한 후 폐회하였다는데 실행기는 신학기 4월부터 하리라고 한다. 【인제】

**授業料全廢로 入學率減退防止**  
麟蹄郡의 泰元學堂

江原道麟蹄郡北面에 있는 태원學堂은 1925년 4월에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개 정상동안 유지곤란에 갖은 파란곡절을 거듭하며 지방교육에 다대한 공헌이 있었는데 학비 관계로 연년이 아동입학난이 초과되어 금년 4월에 입학할 아동들도 정원에 미달하므로 당국자는 물론 유지일반은 고심 중이었는데 지난달 20일에 면유지 40여명이 집합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학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을 백출다가 결국 취학아동의 수업료를 전폐하고 면에서 부담하되 그 방침은 원지리 소재는 3,800여평을 공동경작하여 벼 70석 산액 350원과 각리 소재 전답 소작료 200원, 본면내 거주자 1천호에 채종대 350원, 주재소 숙사 공사사무소 차가로 200원, 서호 도선세 90원 합 1,190원을 구하여 충당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그 구제안은 학무위원에게 일임한 후 폐회하였다는데 실행기는 신학기 4월부터 하리라고 한다. 【인제】

1929-04-05-04-01

### 동아일보

#### 보통학교 설립 운동 인제 북면에서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는 지금까지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나마 아직 설립되지 못하여 30여명 아동들이 20리나 넘는 읍내 기린공립보통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면민일동은 항상 이를 유감으로 여기던 차 지난달 24일에 면내 유지 50여인이 회집하여 광영환씨 사회로 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중역을 선정한 후 6월 이내로 매호 2원 이상의 부담금을 연출하여 2,300원을 조성하고 부역 3천명과 기타 기본 5,000여원으로 기초를 삼아 당국에 청원하기로 만장일치가결이 되어 면민은 1일 속히 실현되기를 갈망한다고 한다. 【인제】

1929-04-05-04-01

### 동아일보

공비 6,700원으로 인제 시구개정 내10일부터 공사 착수 기보=강원도 인제 시구개정은 인제면의 현안이었는데 오는 10일부터 총공비 6,772원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시구개정을 단행하기로 내정되었는데 통로시향 건립한 부근선 일대에 경지과중은 정지하고 주택지는 유의함을 요한다 한다. 【인제】

1929-04-09-04-12

### 동아일보

#### 사고

명칭 인제지국, 위치 인제군 읍내, 구역 인제군 일원  
직씨명 지국장 이성석, 총무 겸 기자 김영배, 남면주재기자 심영옥, 고문 박충모 이성흙 이중형.  
이와같이 변경함.  
동아일보사

1929-04-12-04-09

### 동아일보

#### 삼화청년회 임총

강원도 인제 합강리에 있는 삼화청년회에서는 지난 5일 오후7시 반에 임시회를 회장 최규선씨 사회 하에 개최하고 제반 의안을 토의한 후 오후9시에 무사 폐회하였는데 결의 사항은 좌와 같다고 한다. 【인제】  
1. 회의실 건설의 건 1. 본리 잡술자 엄금의 건 1. 각군 장부 정리의 건 1. 개량 동사 건설의 건 1. 모범밭 파종의 건 1. 조기회 운동을 조기노근으로 개정 1. 회원 중 부랑자 처분의 건 1. 기부금 징수의 건

### 普校設立運動

#### 麟蹄北面에서

江原道麟蹄郡北面에서至今까지 初等教育機關이普通學校나마아 未設立되지못하여三十餘名兒童 들이二十里나떨리는邑內麟蹄公立 普通學校에通學을하는바面民一 同은恒常此를遺憾으로너기나차 지난달二十四日에面內有志五十 餘人이會集하여郭永煥氏司會로 普通學校期成會를組織하고庚役 을選定한後六月以內至每月二圓 以上の預備金을捐出計야二千三 百圓을造成하고夫役二千名과其 他基本五千餘圓으로基礎를삼아 當局에請願하기로滿場一致可決 이된바面民은一日速히實現되기를 渴望한다더라 【麟蹄】

### 工費六千七百圓으로

#### 麟蹄市區改正

來十日부터工事着手

麟蹄市江原道麟蹄市區改正으로 麟蹄의 區案이 昨(오늘)은 十日부터 總工費六千七百七十二圓으로工 事に着手하여 市區改正을 斷行 하기로 內定되었는데 道路標識 建設 立附近線一帶에 排地 溝 築 等 小하고 住宅者 三 萬餘 名 要한다 더라 【麟蹄】

右와如計變更함	麟蹄支周
麟蹄支周	麟蹄郡邑內
麟蹄郡邑內	麟蹄郡一圓
麟蹄郡一圓	支局長 李聖錫
支局長 李聖錫	總務兼 金英培
總務兼 金英培	南面駐 沈永郁
南面駐 沈永郁	在記者 李性欽
在記者 李性欽	顧問 李鍾衡
顧問 李鍾衡	顧問 李鍾衡
顧問 李鍾衡	東亞日報社

### 東北地方

◆三和青年會 隔總江原道麟蹄 合江里에잇는三和青年會에서는 지난五日午後七時半에臨時會를 會長崔直氏司會下에開催하고 諸般議案을討議한後同九時에無 事閉會하였는데決議事項은左와 如하다더라 【麟蹄】

- 一、會議室建設의件 一、本里 雜術者嚴禁의件 一、各部帳簿 整理의件 一、改良隊舍建設의 件 一、模範田播種의件 一、早 起會運動을早起勞働으로改正 一、會員中浮浪者處分의件 一、 寄附金徵收의件

1929-04-27-04-04

### 동아일보

#### 인제음악대회 29일 개최

강원도 인제연악회 주최와 동아일보 기린지국 후원으로 오는 29일 하오8시에 인제공회당에서 춘기음악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출연할 악사 중에는 일본인, 중국인의 명사들도 있겠으며 인제찬양대의 출연도 있을 것인데 벌써부터 성황을 예기한다고 한다. 【인제】

1929-04-28-04-06

### 동아일보

#### 간성 양양간 우편신속 간망, 당지 주민들이

강원도 인제 간성 양양간의 우편물은 연전에 양양군 대포와 연락하던 것인데 서울 오리진선 2등도로가 통하고는 춘천 서울 원산을 경유하기에 인제 간성간의 거리 14리에 불과하는 여정을 5, 6일이 걸리는데 회답까지 2주일의 시일을 요하는 불편무극의 현상인데 인제 간성간 매일 통하는 자동차편에 우송을 이용한다면 2, 3시간 밖에 불과하는 편리를 두고 이같은 시일을 걸리게 한다는 것은 기민 신속을 주로 한다는 체신당국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하다 하여 일반은 1일 속히 인제 간성간 우편물 배송개시를 실시할 것과 군내 배달 횡수도 증가하기를 열망중이다.

1929-04-29-04-06

### 동아일보

#### 인제 양양선 21일부터 기공

인제 양양선 도로에 대하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는 지난 20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방금 진행중인데 기린면 관내 도로인 기린 흥천선도 기공하여 불일내로 착수하리라는데 이 선로 완통을 일반은 매우 열망한다고 한다. 【인제】

1929-04-30-04-06

### 동아일보

#### 인제읍 상권은 중국인이 점령 만회책 없음을 우려

강원도 인제군 읍내 시가지는 외관으로 관찰할 때에는 실로 수년전에 비하여 장족의 진전을 하였으며 장차 인제 양양선이 실현되는 때에는 현재 배 이상 발전을 예상하는 급일에 있어 발전되어가는 반면에 읍내상권은 전부가 중국인이 장악하여 그들의 기이한 상술은 갈수록 더욱 심하여 시일이면 촌에서 오는 농민들은 거개 같은 값이라도 중국 상에서 구매하는 고로 오히려 우리 상점에는 매매자가 전무하므로 대타격을 받을뿐 아니라 군내 주요지에는 중국상이 점차 증가되어 전상권이 중국인화하게 되어 우리의 상권을 만회할만한 무엇이 없으므로 일반은 이 중국상의 증가됨을 매우 주목한다고 한다. 【인제】

**麟蹄音樂大會**  
二十九日開催

江原道麟蹄縣樂會主催와本報麟蹄支局後援으로는廿九日下午八時에麟蹄公會堂에서分期音樂大會를開催하게되엇는때出演할樂士中에는日中國人の名士들도잇기스며麟蹄讚揚隊의出演도잇술러인바벌써부터盛況을豫期한다더라 【麟蹄】

**杆城襄陽間 郵便迅速懇望**  
當地住民들이

江原道麟蹄杆城襄陽間의郵便物은年前에襄陽郡大浦와連絡하거것인대京城五里津線二等道路가通하고는春川京城元山을經由하게麟蹄杆城間의距離十四里에不過하는途程을五六日이걸리는바同答外지二週日의時日을要하는不便無極의現狀인데麟蹄杆城間毎日通하는自動車편에郵送을利用한다면二三時間밖에不過하는便利를享하고如此한時日을걸리게한다는것은機敏迅速을主로任한다하야一般은一日速히麟蹄杆城間郵便物運送開始를實施할것과郡內配達回數도增加하기를熱望中이더라

**麟蹄襄陽線 廿日부터起工**

麟蹄襄陽線道路에對하야江原道麟蹄郡襄陽面에서는 지난二十日 부터工事에着手하야目下進行中인데同而管内道路인麟蹄洪川線도起工하야不日內로着手하리라는바此線路完通을一般은 매우熱望한다더라 【麟蹄】

**麟蹄邑商權은 中國인이占領 挽回策 없음을憂慮**

江原道麟蹄郡邑內市街地는外國으로開發할아는實로數年前에比하여長足の進展을하였스며將次麟蹄襄陽線이起工되는때에는現在倍以上發展을豫想하는今日에이서外發展되어가는反面에邑內商權은全部가中國인이掌握하야 그들의奇異한商術을用함으로邑內의發展을阻礙하는原因으로大打擊을蒙함은아니라郡內主要地에는中國商의漸次增加되어來商權의中國人化하게되어우리商權을挽回할만한무엇이없으므로一般은此中國商의增加됨을 매우注目한다더라 【麟蹄】

1929-05-01-02-07

### 동아일보

## 이천군청 의옥 범위 점차 확대, 면소사건은 중대치 않은 듯 토목과 학교비가 문제

강원도 이천경찰서에서 3월 14일부터 돌연한 긴장미를 띄워가지고 이천면사무소에서 100여권의 문서를 압수하여 조사한다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조사에 착수한 지 벌써 한달반에 아직도 사건의 결말이 나지않고 점점 사건은 확대되어 1924년도 이후의 이천군청의 취급한 토목비와 학교비가 문제가 되어 토목비의 관계책임자이던 전 이천군속 이창호씨를 3월 22일에 호출하여 엄밀한 취조를 하고 또한 이천공립보통학교 건축청부자인 미전광길이란 서울 있는 일본인을 호출하여 비밀리에 조사를 마치고 뒤를 이어 이천군청 학교비 고원 김적봉과 회계계 고원 김광호의 양씨를 증인으로 심문한 후 학교비의 책임자이던 이천군속으로 현재 강원도 인제군속으로 재근하는 이제교씨를 또한 호출하여 지난달 28일 이천경찰서로 와서 방금 취조 조사받는 중이러는데 이천면사무소 사건은 그리 중대치않으나 토목비와 학교비가 자못 의문중에 있다고 한다. 【이천】

1929-05-02-04-07

### 동아일보

## 각지금융조합총회 인제

지난달 26일 오후1시에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제13회 정기총회를 인제공회당에서 개최하고 동5시반경에 폐회하였다 한다. 【인제】

1929-05-03-04-01

### 동아일보

## 간식을 폐지 1일 3식만 인제군에서 여행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농가의 농기 간식 폐지에 가급적 주력하는데 이제 농가의 농기 중 간식을 보면 종래 1일에 5식을 하고도 인근 아동들이 주가에 집합하여 회식하는 폐습이 있는데 이것이 농촌 절약상 교정이 급선무라 하여 금년부터는 이 폐습 교정에 노력하는데 그 방법은 간부 등이 농가의 가정 또는 전답에 순회하여 그 간식 폐지를 여행케하는 동시에 간혹 범칙하는 자를 발견할 시는 엄책하며 또 농사노동에는 타농촌의 인부를 절대 고입치 말기로 실행하며 1일 3식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되었다 한다. 【인제】

1929-05-06-03-05

### 동아일보

## 인제 각종 품평회

강원도 인제군농회에서는 지난 29일에 인제공회당에서 논벼면채종 답품평회를 비롯하여 퇴비모범촌락, 속작모범작포, 논벼정조식의 각종 품평회를 개최하고 박승인 성백현 두 기수의 전자 각종의 심사 보고와 설명이 있는 후 동농회 주최의 퇴비 모범리 품평회 상품 전달식 및 조선총독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인제군 산업공로자의 표창이 있는 후 성대히 종료하였다고 한다. 【인제】

### 伊川郡廳疑獄 範圍漸次擴大

면소사건은 중대치 않은 듯  
土木及學校費가 문제

강원도 이천경찰서에서 3월 14일부터 돌연한 긴장미를 띄워가지고 이천면사무소에서 100여권의 문서를 압수하여 조사한다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조사에 착수한 지 벌써 한달반에 아직도 사건의 결말이 나지않고 점점 사건은 확대되어 1924년도 이후의 이천군청의 취급한 토목비와 학교비가 문제가 되어 토목비의 관계책임자이던 전 이천군속 이창호씨를 3월 22일에 호출하여 엄밀한 취조를 하고 또한 이천공립보통학교 건축청부자인 미전광길이란 서울 있는 일본인을 호출하여 비밀리에 조사를 마치고 뒤를 이어 이천군청 학교비 고원 김적봉과 회계계 고원 김광호의 양씨를 증인으로 심문한 후 학교비의 책임자이던 이천군속으로 현재 강원도 인제군속으로 재근하는 이제교씨를 또한 호출하여 지난달 28일 이천경찰서로 와서 방금 취조 조사받는 중이러는데 이천면사무소 사건은 그리 중대치않으나 토목비와 학교비가 자못 의문중에 있다고 한다. 【이천】

### 各地金融總會

○新興川新興金融組合에서 去月廿六日午後十二時부터新興邑公學校에서第十五回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더라 【新興】

○高敞川全北高敞金融組合에서 去月廿六日午後十一時에高敞公廳內前小學校에서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더라 【高敞】

○鳳山江鳳海鳳山金融組合에서 去月廿七日午後一時부터沙里院公學校內에서第十七回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더라 【沙里院】

○新義川新義新和義金融組合에서 去月廿六日午後二時에第六回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더라 【新義州】

○宣川川宣川金融組合에서 二十期定期總會는 五月廿六日午後四時에時間에 去月四時開會이라 是最高長安縣廳氏會社를 開催하였다더라 【宣川】

○麟蹄川去月二十六日午後一時에麟蹄金融組合에서 第十二回定期總會를 麟蹄公會會堂에서 開催하였다더라 【麟蹄】

### 間食을廢止 一日三食만

麟蹄郡에서 施行

江原道麟蹄郡當局에서 農家の農期間食廢止에 可及의 努力하는 바에 對해 農家の 農期間食을 廢止한 從來 一日에 五食을 하고 農期近兒 農家에 主家에 集合하여 會食하는 弊習이 有한바에 農村節約上 廢止의 急務라 하여 今年부터는 此弊習을 廢止에 努力하는 바에 二方法에 依하여 廢止에 努力한다 一 方法은 巡廻隊가 二 間食廢止에 勸告를 發하고 同時에 刑罰則에 對한 者는 嚴罰을 處分하며 農家의 家庭에 是 他 農村의 人夫를 總對 引入 制限하기로 實行하였다 二 方法은 農格의 施行하기로 되었다더라 【麟蹄】

### 麟蹄各種品評會

江原道麟蹄郡農會에서 去月二十九日 麟蹄公會會堂에서 水田面採種 各種品評會를 爲하야 堆肥模範村 落葉作模範作圃、水田正除植の 各種品評會를 開催하고 朴勝麟處 百高兩接手の 前者各種の 審査報告及 說明의 後 後選農會主催의 堆肥模範品評會를 開催式及 麟蹄總督과 江原道知事로부터 麟蹄產米功勞者의 表彰이 있는 後 盛天を終了하였다더라 【麟蹄】

1929-05-09-02-02

### 신한민보

#### 1명 채용에 40 응시 면서기에 취직난이 답지

지난달 4일에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에서 면서기 1명의 결원을 보충코자 면서기 채용시험을 인제면 사무실에서 시험하였는데 1명 모집에 지원자가 43명이요 응시자가 40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등 졸업정도자도 34명이었는데 조선청년의 취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다고 한다.

1929-05-17-03-04

### 동아일보

#### 인제 춘기 음악

강원도 인제연악회 주최와 동아일보 인제지국 후원으로 춘기 음악대회를 지난 4월 하순에 개최코자한 것은 사정상 연기하여 오는 18일 하오 8시에 인제공회당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일반이 다수 참석을 바란다 한다. 【인제】

1929-05-18-03-05

### 중외일보

#### 5군에 걸친 잠업 강습회

강원도 도농회 잠실에서는本月 15일 오전 9시부터 잠업 강습회를 개하고 도내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등 5군 잠업기술자와 농업기술자 54명을 집합하고 고교 내무부장의 훈시가 있고 강사 목야씨로부터 매년 성적 사정법과 자료 실지 사정을 하라는 제목으로 동 오후 3시까지 충분한 강습을 시켰다 한다. 【춘천】

1929-05-20-04-05

### 동아일보

#### 이재민을 위하여 柴蕨 적극장려 춘궁을 벗어나도록 ◇ 군에서 공동판매도 실시

【인제】 강원도 인제의 농촌생활 식량상태를 보면 전부가 조반의 상식으로 하며 더욱 참혹한 화전민 15,000여명은 그나마 초근목피도 오히려 여유가 없이 그날그날의 모진 목숨을 근근이 이어가는 오늘의 현상이므로 인제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파멸의 농촌을 부흥시키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구제책을 강구하며 방책을 수립하는데 인제군 무진장의 천산물의 하나인 고사리를 채취하여 아이들의 생활비를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각방면으로 판로를 주선하는 동시에 일반농가로 하여금 고사리 채취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데 이 고사리는 산채 중 제일 고가를 점하는 것이므로 매관 3, 4원에도 달하는데 이 채취물은 군에서 공동판매로 하여 사선에서 해매는 이들의 갈길을 개척하여줄 것이라고 한다.

면서기에 취직난이 답지  
지난달 4일에 강원도 인제면에서 면서기 1명의 결원을 보충코자 면서기 채용시험을 인제면 사무실에서 시험하였는데 1명 모집에 지원자가 43명이요 응시자가 40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등 졸업정도자도 34명이었는데 조선청년의 취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다고 한다.

靑蹄春期音樂 江原道靑蹄新樂會主催本報靑蹄支局後援으로春期音樂大會去四月下旬에開催코키한것을事情上延期하야來十八日午後八時에靑蹄公會堂에서開催하기로되었는바一般의多數參席을바란다더라

五郡에 亶한 蠶業講習會  
江原道農會廳에서本月十五日前九時부터靑蹄講習會를開計코되內春川洪川華川靑蹄靑口等五郡蠶業技術及展業技術各面技術者共四十名를會合計코古橋內務部長의深長한訓示가있고靑蹄郡野氏로부터每年成績査定不公에對하야今後로靑蹄郡蠶業法及資料實地査定을하리라는題로同午後三時까지充分한講習을시키었다더라 【春川】

罹災民을爲하야 柴蕨積極獎勵  
春窮을 벗어나도록 ◇ 郡에서 共同販賣도實施  
江原道靑蹄의農村生活食糧狀况을보면靑蹄의蠶業發達을爲코기위하여靑蹄郡水田比一萬五千餘畝는그나마草樹木皮도어려워靑蹄가정사그날그날의모진목숨을보충하야이러한農村的現狀을爲코기위하여靑蹄郡當局에서靑蹄郡蠶業法及資料實地査定을하리라는題로同午後三時까지充分한講習을시키었다더라 【春川】

1929-05-23-04-05

### 동아일보

#### 참꽃 먹고 소아가 즉사 아이 가진 사람은 모두 주의할 일

【인제】 지난 18일 오후6시 반경에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동리 184번지에 사는 김만진의 외아들 봉헌(12)이는 그날 학교에서 하학하고 와서 산에 놀러갔다가 철없이 철쭉꽃(적촉화)를 많이 먹고 반시간도 못되어 죽었다는데 요즈음 잡꽃 피는 때에 일반 부형은 각자녀에게 주의시킴을 바란다고 한다.

1929-05-23-04-10

### 동아일보

#### 강원도 인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연악회 주최와 본보 인제지국 후원인 신록음악 대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18일 하오8시 인제공회당에서 개최

1929-05-28-04-07

### 동아일보

#### 인제 설악산 탐승단 모집

출발 6월 5일 오전8시  
귀착 6월 11일  
회비 5원(식비 일체)  
주최 동아일보 인제지국

1929-06-12-04-03

### 동아일보

#### 인제에 이질 환자 100여명, 대개 어린아이가 많이 걸려 ◇사망자가 4, 5명

【인제】 강원도 인제 일대에는 요새 근년에 드문 이질이 창궐하여 환자가 100여명인데 대개가 어린아이들이라는데 벌써 죽은 아이가 3, 4일간에 4, 5명인데 이로 인하여 일반가정은 우려중에 싸여있으며 시절이 시절인 만치 특히 주의를 바란다고 한다.

**참꽃먹고  
小兒가即死**  
아이 가진 사람은  
모다 주의할 일

【인제】 지난 18일 오후 6시 반경에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동리 184번지에 사는 김만진(金萬珍)의 외아들 봉헌(12)이는 그날 학교에서 하학하고 와서 산에 놀러갔다가 철없이 철쭉꽃(鐵花)을 많이 먹고 반시간도 못되어 죽었다는 바 요즈음 잡꽃 피는 때에 일반 부형은 각자녀에게 주의시킴을 바란다고 한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연악회 주최와 본보 인제지국 후원인 신록음악 대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18일 하오8시 인제공회당에서 개최

○田 發 六月五日午前八時  
○歸 齋 六月十一日  
○主 會 山探勝團募集  
○備 費 五圓(食費一切)  
東亞日報麟蹄支局

**麟蹄에赤痢  
患者百餘名**  
대개 어린아이가만히 걸려  
◇死亡者가四五名

【인제】 강원도 인제(麟蹄) 일대에는 요새 근년에 드문 이질(赤痢)이 창궐하여 환자가 백여명인데 대개 어린아이들이라는데 벌써 죽은 아이가 3, 4일간에 4, 5명인데 이로 인하여 일반가정은 우려중에 싸여있으며 시절이 시절인 만치 특히 주의를 바란다고 한다.

1929-06-16-06-01

### 동아일보

#### 간부부 공판

간부 간부가 공모하고 본부를 죽인 인제군 남면 금부리 남간난(30)과 간부 남옥출(45)에 대한 살인 및 시체유기죄는 오는 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정되리라는데 사건 내용은 피고 남간난은 작년 8월부터 남의 눈을 속여 피고 남옥출과 불의의 관계를 맺고 간부간부가 공모하고 작년 12월 12일 남편이 자는 것을 칼로 목을 찢러 죽였다는 것이라 한다

1929-06-17-04-02

### 동아일보

#### 유부녀 유인 도망하다 피착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에 있는 오석범의 아들 오룡환은 몇 달전부터 인제읍 동리 김문오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동리 박문선의 아들 박기태(16)의 아내 정간난(17)과 서로 비밀한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그냥 있어서는 이것이 탄로될 것을 알고 멀리 달아나서 두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살자고 여러번 약속을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지난 9일에는 박문선의 집에서 식구들이 일하러 나가고 간난이 혼자있는 것을 오룡환이가 알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집에 들어가서 간난이를 끌어내어 두 남녀는 손에 손을 잡고 도주하였는데 이 단꿈이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마침내 지난 13일에 수색망에 걸려 대봉변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1929-06-17-04-07

### 동아일보

#### 인제구제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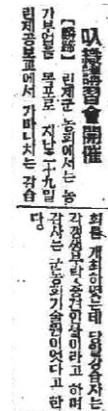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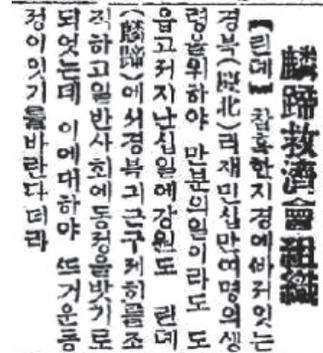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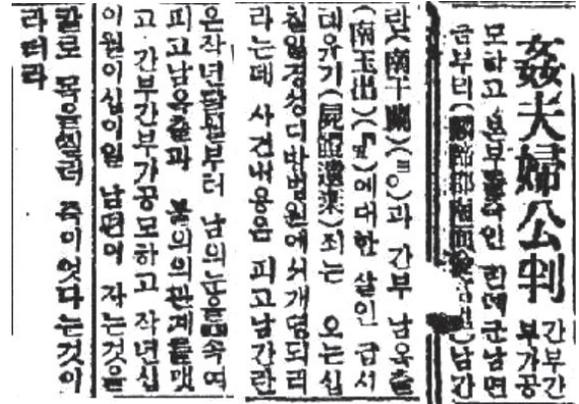
【인제】 참혹한 지경에 빠져있는 경북 이재민 10만여명의 생명을 위하여 만분의 1이라도 돕고자 지난 10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경북기근구제회를 조직하고 일반사회에 동정을 받기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뜨거운 동정이 있기를 바란다 한다

1929-06-17-04-07

### 동아일보

#### 가마니 강습회 개최

【인제】 인제군농회에서 농가부업을 목표로 지난 29일 인제공보교에서 가마니 치는 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일 강습자는 각 갱생부락 중견인물이라고 하며 강사는 군농회 기술원이었다고 한다.



1929-07-04-03-05

### 중외일보

**동화교를 팔아 지방 우민을 농락, 덕천서에 잡혀 취조 중**

본적은 강원도 인제군내 미산리 249번지 현주소는 강원도 평강군 고삼면 세포리에 둔 명재덕(39)이라는 자는 작년 12월 29일 함남 영흥군 요덕면 대숙리 이용빈 외 2인에 대하여 자기는 동화교의 목사인데 동화교는 동양제일의 종교로서 지금 입교만해두면 내명년 3월 15일까지는 포덕사가 되어가지고 매일 30, 40원의 봉급을 타먹을 수 있지만 만일 입교치 않으면 동화교 창립자 김 모 국민협회 영수는 현재 조선총독부의 대리로 있어서 각 관청에 통첩을 발하여 입교 권유를 시켜도 듣지않는지는 엄벌에 처하는 등 불온 황당무계한 언동을 취하여 우민을 속여 본의에 없는 입교 승낙을 받고 입교금 혹은 교당 건축비라는 구실로 한사람에 대하여 1원 내지 3, 4원의 출금을 시켜 사기횡령을 하고 그 외 영변 맹산 영흥 덕천 등 산군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각처의 우민을 농락한 것이 발각되어 현금 덕천경찰서에 구류취조를 받고있는 중이라고 한다. 【덕천】

1929-07-05-04-08

### 동아일보

#### 인제교회 굶주림 도와

【인제】 경북 이재동포를 돕겠다는 의미에서 강원도 인제야소교회에서는 교우들이 각 출연하여 금 29원25전을 만들었다는데 그중 정 의여학교 생도중에는 자기가 밥을 굶고 그 쌀로 동정한 사람도 있다 하며 지난달 28일에 동아일보 인제지국을 통하여 본부로 송금하였다 한다.

1929-07-05-05-06

### 동아일보

#### 인제에 호우, 교통이 두절

【인제】 지난 26일 오후부터 28일 밤까지 사흘동안이나 인제지방에는 호우가 계속하여 하천이 범람되고 도로가 파궤되어 인제에 오는 우편물이 사흘동안이나 막히고 흥천 인제, 간성 인제가는 자동차도 2, 3일식 불통되었을 뿐 아니라 5척 내지 7척반까지 증수되어 일시는 교통까지 두절되었다 한다.

1929-07-23-05-07

### 동아일보

#### 인제 춘건 호황 도내 제1위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양잠업은 해마다 진보하여 농가의 유일한 부업으로 농촌의 경제를 얼마쯤 완화하는 현상이다. 금년 춘건 성적은 인제군 공동판매설치 이후의 신기록을 냈다는데 군내 어른, 창

**東華教會의 地方愚民을 弄絡**

덕천서에서 잡혀 취조 중

본적은 강원도 인제군내 미산리 249번지 현주소는 강원도 평강군 고삼면 세포리에 둔 명재덕(39)이라는 자는 작년 12월 29일 함남 영흥군 요덕면 대숙리 이용빈 외 2인에 대하여 자기는 동화교의 목사인데 동화교는 동양제일의 종교로서 지금 입교만해두면 내명년 3월 15일까지는 포덕사가 되어가지고 매일 30, 40원의 봉급을 타먹을 수 있지만 만일 입교치 않으면 동화교 창립자 김 모 국민협회 영수는 현재 조선총독부의 대리로 있어서 각 관청에 통첩을 발하여 입교 권유를 시켜도 듣지않는지는 엄벌에 처하는 등 불온 황당무계한 언동을 취하여 우민을 속여 본의에 없는 입교 승낙을 받고 입교금 혹은 교당 건축비라는 구실로 한사람에 대하여 1원 내지 3, 4원의 출금을 시켜 사기횡령을 하고 그 외 영변 맹산 영흥 덕천 등 산군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각처의 우민을 농락한 것이 발각되어 현금 덕천경찰서에 구류취조를 받고있는 중이라고 한다. 【덕천】

**麟蹄教會救饑** 【麟蹄】

경북리재도포를 돕는다 는 의미에서 강원도 인제야소교회에서는 교우들이 각 출연하여 금 29원25전을 만들었다는데 그중 정 의여학교 생도중에는 자기가 밥을 굶고 그 쌀로 동정한 사람도 있다 하며 지난달 28일에 동아일보 인제지국을 통하여 본부로 송금하였다 한다.

**麟蹄에 豪雨**

交通이 杜絶

【인제】 지난 26일 오후부터 28일 밤까지 사흘동안이나 인제지방에는 호우가 계속하여 하천이 범람되고 도로가 파궤되어 인제에 오는 우편물이 사흘동안이나 막히고 흥천 인제, 간성 인제가는 자동차도 2, 3일식 불통되었을 뿐 아니라 5척 내지 7척반까지 증수되어 일시는 교통까지 두절되었다 한다.

**麟蹄春繭好況**

도내 제일위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양잠업은 해마다 진보하여 농가의 유일한 부업으로 농촌의 경제를 얼마쯤 완화하는 현상이다. 금년 춘건 성적은 인제군 공동판매설치 이후의 신기록을 냈다는데 군내 어른, 창

촌, 기린 서화, 읍내 5개소의 공동판매소에서만 출회된 총수가 3,790 석이오 대금이 13,3067원에 달하여 강원도에서 제1위를 점하였다는데 전년에 비하여 수량은 2,410석 가격은 78,386원이 증가되었다 하며 인제군당국에서는 금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장려하리라고 한다.

1929-07-25-02-02

**신한민보**

**막천석지의 유리 군중이 격중 인제지방의 150명**

오로지 우리 강산에만 가뭇재앙이 해를 거듭하여 이재민의 유리가 일구월심할수록 증가되어간다. 요즈음 강원도 인제일대에는 가뭇재앙에 쫓겨 행여나 살길이 있을까 하고 막천석지로 유리결식하는 동포가 150명이라는데 이들은 대개 경상남도에서 온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련한 동포들이라고 한다.

1929-09-01-04-03

**동아일보**

**유명한 인제꿀 연년이 증산 장려 ◇해마다 생산이 늘어 간다 20만원 산출계획**

【인제】 기보=강원도 인제군의 봉밀이 이 고을 자랑거리로 특히 백담동에서 산출되는 백청이라는 것은 그 품질이 다른데 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전국적으로 인제꿀의 성가 높아지는 동시 각지에서 주민이 쇠도되는데 현재 양봉으로는 재래통과 개량통을 아울러 3,500여개 채밀량이 35,000근이라는데 이제 인제군수 임시재씨의 계획을 보면 1933년도까지 재래통 1만개 개량통 2만개 합 3만개로 채밀량 50만근을 증가시킬 계획인데 1근데 최저가 40전을 잡더라도 20만원의 산출을 얻게되리라고 한다.

1929-09-15-03-05

**중외일보**

**간부부 사형 구형 본남편을 참혹히 죽인 범인**

본적 경북 영덕군 현주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남간난(30)과 본적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현주소 같은 곳인 남옥출(45) 두명에 관한 살인사체유기 피고 사건의 공판은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말광 재판장 담인 좌좌목 검사 입회하에 개정되었는데 입회 검사는 피고 2명이 사형을 구형하고 오후3시에 폐정하였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18일이라는데 이제 그사건의 내용을 들은즉 남간난은 작년 8월 경부터 남옥출과 남모르게 정을 통하여왔으나 본부 박중석으로 인하여 매사에 불편을 느껴오다가 전기 두명은 본부를 죽여버리기로 공모하고 같은해 12월 22일 밤에 전기 남옥출은 본부 박중석의 잠이 깊어 든 때를 기다려 주머니칼로써 박중석의 경동맥과 머리 여러곳을 찔러 절명시킨후 현장에서 서쪽으로 약 1정되는 개천가 바위 틈에 묻어버린 사실이라는데 전기 남옥출은 서대문형무소 수감중에 여아를 분만하였다고 한다.

막천석지의 유리 군중이 격중 인제지방의 150명  
오로지 우리 강산에만 가뭇재앙이 해를 거듭하여 이재민의 유리가 일구월심할수록 증가되어간다. 요즈음 강원도 인제일대에는 가뭇재앙에 쫓겨 행여나 살길이 있을까 하고 막천석지로 유리결식하는 동포가 150명이라는데 이들은 대개 경상남도에서 온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련한 동포들이라고 한다.

有名한麟蹄蜜  
年年의增産獎勵  
◇해마다생산이늘어간다  
【인제】 기보=강원도 인제군의 봉밀이 이 고을 자랑거리로 특히 백담동에서 산출되는 백청이라는 것은 그 품질이 다른데 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전국적으로 인제꿀의 성가 높아지는 동시 각지에서 주민이 쇠도되는데 현재 양봉으로는 재래통과 개량통을 아울러 3,500여개 채밀량이 35,000근이라는데 이제 인제군수 임시재씨의 계획을 보면 1933년도까지 재래통 1만개 개량통 2만개 합 3만개로 채밀량 50만근을 증가시킬 계획인데 1근데 최저가 40전을 잡더라도 20만원의 산출을 얻게되리라고 한다.

姦夫婦死刑求刑  
본부를 참혹히 죽인 범인  
본적 경북 영덕군 현주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남간난(30)과 본적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현주소 같은 곳인 남옥출(45) 두명에 관한 살인사체유기 피고 사건의 공판은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말광 재판장 담인 좌좌목 검사 입회하에 개정되었는데 입회 검사는 피고 2명이 사형을 구형하고 오후3시에 폐정하였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18일이라는데 이제 그사건의 내용을 들은즉 남간난은 작년 8월 경부터 남옥출과 남모르게 정을 통하여왔으나 본부 박중석으로 인하여 매사에 불편을 느껴오다가 전기 두명은 본부를 죽여버리기로 공모하고 같은해 12월 22일 밤에 전기 남옥출은 본부 박중석의 잠이 깊어 든 때를 기다려 주머니칼로써 박중석의 경동맥과 머리 여러곳을 찔러 절명시킨후 현장에서 서쪽으로 약 1정되는 개천가 바위 틈에 묻어버린 사실이라는데 전기 남옥출은 서대문형무소 수감중에 여아를 분만하였다고 한다.

1929-10-03-04-05

### 중외일보

#### 강원 8군의 1년간 연소액 23만8천원

인천전매지구 춘천출장소 관할구역인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횡성 원주 평창 등 8군에서만 소비된 연초는 금년 4월서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계가 238,826원인데 이를 매일 평균 계산하면 8군에서 매일 연기로 소비되는 금액이 1,595원10전으로 작년도에 비하여보면 32,393원이 증가되어 금년에는 전년에 매일 매상고가 높다는데 이 금액만 하여도 항상 강원도민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여자중등학교와 소양강 철교를 신축함에 상당하다고 일반 선각자는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춘천】

1929-10-22-03-03

### 동아일보

#### 인제시장 위치 어디로 갈는지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읍내 시장은 원래 그 기지가 협착할 뿐 아니라 시설이 불완전하여 2등도로를 사용하여 왔는데 장래 인제발전상으로 보아 시장을 이전치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으로 군, 면 당국으로부터 계획하여 신시장 현 동리 서편 소유기지를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알게된 현시장의 주민들은 시장이전이 우리의사활문제라 하여 긴급히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를 토의한 결과 조인식 신덕휴 양씨와 덕태동(중국상)에서 각 50원씩 그 외 다수인의 금력을 희생한 나머지 수백원을 조성하여 토지주택 등을 매수하여 현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전기 조인식씨는 우시장용 기지까지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면장이 군수와 타협한 결과 그러면 미국상, 행상만은 현시장에서 팔기로 하고 우시장만 신시장으로 이전하리라 하였는데 지난 17일에 시민대회를 열고 시민측에서는 지금 유명무실의 시장을 두군데로 나눈다면 장래 인제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 장이 되지 않으니 그럴 것 없이 신구 양시장의 어느쪽이든지 한편으로 모으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해산되었는데 이 시장이 어디로 갈는지 하회가 매우 주목된다는데 한편으로는 현시장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1929-10-31-03-02

### 동아일보

#### 시장 설치 준비 인제 용대리서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동해안 각방면에서 영서로 통행하는 각종 물화의 관문인데 아직 인류생활상 필수품을 교환할 만한 하등의 시설이 없으므로 소소한 물건을 매매하려고도 40, 50리를 떨어져있는 타시장을 가게되므로 일반의 불편분 리가 극심함을 유감으로 여겨왔는데 동리 최수민씨 외 수인이 북면 용대리2구에 시장을 설치하도록 운동중인데 북면당국에서도 이곳에 시장하나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여 머지않아 군당국을 거쳐 신청원을 제출하리라고 한다.

江原八郡의 一年間煙消額  
강원도 8군의 1년간 연소액  
인천전매지구 춘천출장소 관할구역인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횡성 원주 평창 등 8군에서만 소비된 연초는 금년 4월서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계가 238,826원인데 이를 매일 평균 계산하면 8군에서 매일 연기로 소비되는 금액이 1,595원10전으로 작년도에 비하여보면 32,393원이 증가되어 금년에는 전년에 매일 매상고가 높다는데 이 금액만 하여도 항상 강원도민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여자중등학교와 소양강 철교를 신축함에 상당하다고 일반 선각자는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춘천】

隣市市場位置  
우대리 시장 위치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읍내 시장은 원래 그 기지가 협착할 뿐 아니라 시설이 불완전하여 2등도로를 사용하여 왔는데 장래 인제발전상으로 보아 시장을 이전치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으로 군, 면 당국으로부터 계획하여 신시장 현 동리 서편 소유기지를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알게된 현시장의 주민들은 시장이전이 우리의사활문제라 하여 긴급히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를 토의한 결과 조인식 신덕휴 양씨와 덕태동(중국상)에서 각 50원씩 그 외 다수인의 금력을 희생한 나머지 수백원을 조성하여 토지주택 등을 매수하여 현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전기 조인식씨는 우시장용 기지까지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면장이 군수와 타협한 결과 그러면 미국상, 행상만은 현시장에서 팔기로 하고 우시장만 신시장으로 이전하리라 하였는데 지난 17일에 시민대회를 열고 시민측에서는 지금 유명무실의 시장을 두군데로 나눈다면 장래 인제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 장이 되지 않으니 그럴 것 없이 신구 양시장의 어느쪽이든지 한편으로 모으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해산되었는데 이 시장이 어디로 갈는지 하회가 매우 주목된다는데 한편으로는 현시장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市場設置準備  
인제 용대리서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동해안 각방면에서 영서로 통행하는 각종 물화의 관문인데 아직 인류생활상 필수품을 교환할 만한 하등의 시설이 없으므로 소소한 물건을 매매하려고도 40, 50리를 떨어져있는 타시장을 가게되므로 일반의 불편분 리가 극심함을 유감으로 여겨왔는데 동리 최수민씨 외 수인이 북면 용대리2구에 시장을 설치하도록 운동중인데 북면당국에서도 이곳에 시장하나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여 머지않아 군당국을 거쳐 신청원을 제출하리라고 한다.

1929-10-31-03-10

### 동아일보

#### 공회당을 이용 무산아동 교육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서는 일반동민의 상당한 공회 장소가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오더니 당지 유지 김익도 김수룡 장동순 등 여러분의 열렬한 운동으로 공사비 수백원을 조성하고 매호당부역 2인씩의 출역으로 지난 7월부터 공회당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머지않아 낙성을 기하리라는데 지난 25일에 동리 유력자 19여인이 모여 토의한 결과 우리가 공회당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2000호가 넘는 동리에 아동을 교육할만한 교사가 없으니 이것으로써 교육사업에 이용하지는 것이 만장일치되어 그러면 올겨울에는 무산아동들의 야학을 하고 내년 봄부터 아동을 모집하여 초등과 4학년까지의 무수업료로 교수하리라는데 배울 길 없어서 해매는 무산자제에게 일대 서광이 비치리라고 한다.

1929-11-02-02-06

### 중외일보

#### 법정에 선 간부부, 살인을 서로 미뤄 하는 수 없이 재판장이 관선 변호인 증원

감옥에서 낳은 죄의씨(자식)를 안고 법정에 선 살인여자수와 간부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옥간난(30)과 그 간부 동리 남옥출(37)은 한 집에 동거하는 동안에 정을 통하여가지고 공모하여 작년 12월 중에 남편 박중석을 살해한 것으로 1심에서 각히 사형판결을 받고 서울복심에 공소하였는데 31일 오후 복심공판에 피고들은 사형판결에 자못 놀래인 모양으로 『목숨만은 살려주소』하면서 죄를 피하려고 서로 살해한 책임을 전개시키면서 공술을 한결같지 않게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은 공판진행상 피고 2명에게 변호사 1명은 곤란하다 하여 관선 변호사를 다시 1명 더 정하기로 하고 속행키로 하였다 한다.

1929-11-11-03-06

### 동아일보

#### 북부조선 인제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농황은 평년 실수고 19,014석인데 금년은 각면이 풍작으로 금년 예상고 24,216석 즉 5,212석 증수로 21% 증이다. 인제군농황조사보고 평년실수고 19,014석 금년예상고 24,216석

**公會堂利用**  
**無産兒童教育**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서는 일반동민의 상당한 공회 장소가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오더니 당지 유지 김익도 김수룡 장동순 등 여러분의 열렬한 운동으로 공사비 수백원을 조성하고 매호당부역 2인씩의 출역으로 지난 7월부터 공회당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머지않아 낙성을 기하리라는데 지난 25일에 동리 유력자 19여인이 모여 토의한 결과 우리가 공회당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2000호가 넘는 동리에 아동을 교육할만한 교사가 없으니 이것으로써 교육사업에 이용하지는 것이 만장일치되어 그러면 올겨울에는 무산아동들의 야학을 하고 내년 봄부터 아동을 모집하여 초등과 4학년까지의 무수업료로 교수하리라는데 배울 길 없어서 해매는 무산자제에게 일대 서광이 비치리라고 한다.

**法廷에 선 姦夫婦**  
**殺人을 서로 미루어**

하느수업서재판장이  
官選辯護人增員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옥간난(30)과 그 간부 동리 남옥출(37)은 한 집에 동거하는 동안에 정을 통하여가지고 공모하여 작년 12월 중에 남편 박중석을 살해한 것으로 1심에서 각히 사형판결을 받고 서울복심에 공소하였는데 31일 오후 복심공판에 피고들은 사형판결에 자못 놀래인 모양으로 『목숨만은 살려주소』하면서 죄를 피하려고 서로 살해한 책임을 전개시키면서 공술을 한결같지 않게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은 공판진행상 피고 2명에게 변호사 1명은 곤란하다 하여 관선 변호사를 다시 1명 더 정하기로 하고 속행키로 하였다 한다.

**北部朝鮮**

**麟蹄【린계】 강원도 린계군**  
의 농황은 평년 실수고 19,014석인데 금년은 각면이 풍작으로 금년 예상고 24,216석 즉 5,212석 증수로 21% 증이다. 인제군농황조사보고 평년실수고 19,014석 금년예상고 24,216석

**麟蹄郡農況調查報告**  
平年實收高 一九〇九四石  
今年豫算高 二四二一六石

1929-11-18-03-01

### 동아일보

## 목탄과 역이로서 화전민 구제 ◇연산 50만원의 예산 인제군에서 착수

【인제】 어느때 어느곳을 물론하고 가난한 백성의 살림살이야 무엇이랴 말할 수 없겠지만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갈아 원시적 생활을 하여가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강원도 인제군에 18,670의 다수를 가졌는데 이것이 인제군의 큰 문제인 만큼 당국자의 두통거리다. 그래서 군당국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구제책을 강구 혹은 방책을 수립하는데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목탄 제조와 남면 남전리에 참나무버섯의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번식시켜 구제하고자 방침 착수하는데 전자는 연산 30만관 매관에 12전으로 36,000원 후자는 3만관 매관 15원으로 45만원의 산액을 낸다는데 화전민을 사용하여 사선에서 방황하는 그들의 살길을 개척한다고 한다.

1929-11-18-03-04

### 동아일보

## 적설 2척으로 자동차가 연착

【인제】 강원도 인제 간성간에 있는 진부령에는 지난 12일 밤 눈이 와서 1척7촌이나 쌓여 다음날 아침 간성을 떠난 인제행 제89호 자동차는 눈에 막혀 6시간이나 연착되었다 한다

1929-11-19-03-05

### 동아일보

## 인제금융조합지소

【인제】 강원도인제금융조합의 다년 현안으로 있던 인제금융조합 기린지소는 지난달 이래로 기린면 현리에 설치키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한다.

1929-11-19-03-12

### 동아일보

## 인제 양양로 명춘에는 완성

【인제】 강원도 인제 양양 두군의 다년 숙제이던 인제 양양선은 지난달 말일로서 강원도 토목과에서 측량을 마쳤는데 총거리 50km로 130리가량이라는데 인제군 관내는 인제면 기린면 두면 총호수 4천호 매호당 평균 15명 예산으로 출역 부역 6만명으로 올가을부터 착수하여 일부는 지난 13일부터 착수)내년 1930년도까지에 완성을 기하리라는 이것이 완성된다면 인제는 인제 양양선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겠다고 관측된다고 한다.

**木炭과 櫟耳 로서**  
**火田民救濟**  
◇...연산 오십만원의 예산  
麟蹄郡에서着手

【인제】 어느때 어느곳을 물론하고 가난한 백성의 살림살이야 무엇이랴 말할 수 없겠지만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갈아 원시적 생활을 하여가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강원도 인제군에 18,670의 다수를 가졌는데 이것이 인제군의 큰 문제인 만큼 당국자의 두통거리다. 그래서 군당국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구제책을 강구 혹은 방책을 수립하는데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목탄 제조와 남면 남전리에 참나무버섯의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번식시켜 구제하고자 방침 착수하는데 전자는 연산 30만관 매관에 12전으로 36,000원 후자는 3만관 매관 15원으로 45만원의 산액을 낸다는데 화전민을 사용하여 사선에서 방황하는 그들의 살길을 개척한다고 한다.

**積雪二尺으로**  
**자동차가 연착**

【인제】 강원도 인제 간성(麟蹄杆城)간의 이(인제)진부령(陳富嶺)에는 지난날 밤 눈이 와서 1척7촌이나 쌓여 다음날 아침 간성을 떠난 인제행 제89호 자동차는 눈에 막혀 6시간이나 연착되었다 한다

**麟蹄金組支所** 【인제】 강원도인제금융조합(麟蹄金融組合)의 다년 현안으로 있던 기린면(麟蹄)지소(麟蹄支所)는 거월로(麟蹄)면(麟蹄)에 설치키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한다

**麟蹄襄陽路**  
명춘에는 완성

【인제】 강원도 인제 양양(麟蹄襄陽) 두군의 다년 숙제이던 인제 양양(麟蹄襄陽)선은 지난달 말일로서 강원도 토목과에서 측량을 마쳤는데 총거리 50km로 130리가량이라는데 인제군 관내는 인제면 기린면 두면 총호수 4천호 매호당 평균 15명 예산으로 출역 부역 6만명으로 올가을부터 착수하여 일부는 지난 13일부터 착수)내년 1930년도까지에 완성을 기하리라는 이것이 완성된다면 인제는 인제 양양선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겠다고 관측된다고 한다.

1929-11-21-07-08

### 동아일보

#### 본남편 참해한 간부부 사형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남간난(30) 남옥출(45) 등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각각 사형 판결을 받고 서울복심법원에 공소중이었는데 지난 18일 동 사건의 공소공판을 개정하고 입회 검사로부터 역시 1심 판결대로 사형을 구형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 남간난은 자기의 남편 박종석과 같이 피고 남옥출의 집에 동거하는 중 전기 남옥출과 간통을 하여 정이 들어 눈에 티와 같이 걸리는 본남편을 죽이고자 공모하고 작년 12월 22일 밤에 전기 간부는 본남편 박종석이 가지는 것을 억누르고 미리 준비하여두었던 칼로 그의 목을 찔러 죽였다는 것이라고 한다.

1929-11-22-04-03

### 중외일보

#### 양양 인제간 도로 측량 착수

양양과 인제간 2등도로는 오색령도로와 대치되어 일사천리 상태에 있는데 작년부터 다시 그 도로 개통이 양양 발전상 필요하다 하여 그 노선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조침령으로 변경하고 제반수약에 분망 중이었는데 근일에 와서 강릉토목관구에서 50일간 예정으로 측량에 착수하였는데 이 도로가 속히 개통되면 양양방면상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다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양양】

1929-12-11-03-03

### 동아일보

#### 1년 술담배값이 20보통학교 경비 군민의 1년간 먹는 주초대 인제군에 1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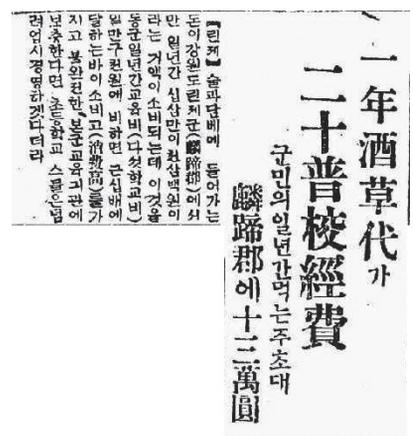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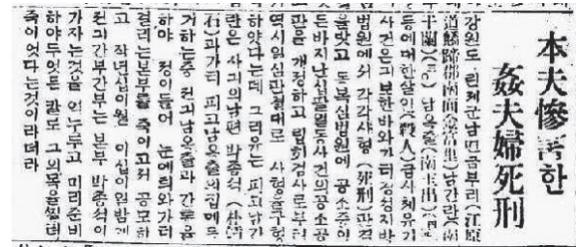
【인제】 술과 담배에 들어가는 돈이 강원도 인제군에서만 1년간 132,300원이라는 거액이 소비되는 이것을 인제군 1년간 교육비(5개 학교비) 19,000원에 비하면 근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 소비고를 가지고 불완전한 인제군 교육기관에 보충한다면 초등학교 20은 염려 없이 경영하겠다고 한다.

1929-12-11-03-08

### 동아일보

#### 46개리에 동리마다 야학, 성년의 70%는 신문을 본다 인제군의 문자 보급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매년 농한기를 당할 때마다 일반민중에게 가끔적 문맹퇴치를 노력하는 것인데 금년 겨울도 역시 예년에 의하여 군내 6면 46개리에 무산야동 및 농민야학을 일제히 설치하고 개학 중인데 대개 무보수로 교수하는데 이 혜택으로 인제군 성년 남자 약70%는 벌써 신문잡지를 읽을만한 정도에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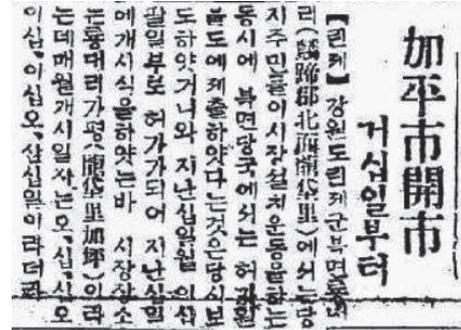


1929-12-15-02-06

### 동아일보

#### 가평시 개시 지난 10일부터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는 당지 주민들이 시장설치 운동을 하는 동시에 북면당국에서는 허가원을 도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당시 보도하였거니와 지난 11월 28일자로 허가가 되어 지난 10일에 개시식을 하였는데 시장장소는 용대리 가평이라는데 매월 개시 일자는 5, 10, 15, 20, 25, 30일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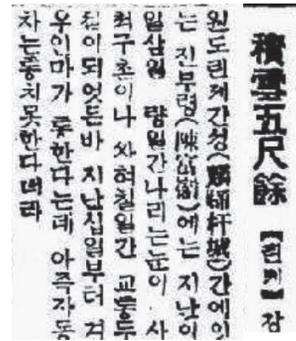


1929-12-15-03-01

### 동아일보

#### 적설 5척여

【인제】 강원도 인제 간성간에 있는 진부령에는 지난 2일, 3일 이틀간 내리는 눈이 4척9촌이나 쌓여 7일간 교통두절이 되었었는데 지난 10일부터 겨우 인마가 통한다는데 아직 자동차는 통하지 못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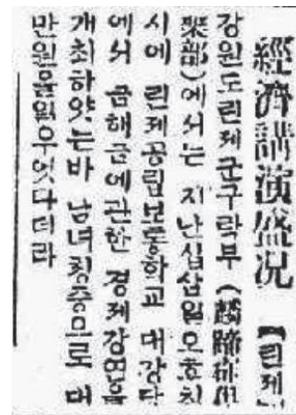


1929-12-18-03-04

### 동아일보

#### 경제강연 성황

【인제】 강원도 인제군구락부에서는 지난 13일 오후7시에 인제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금해 등에 관한 경제강연을 개최하였는데 남녀 청중으로 대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1929-12-18-03-08

### 동아일보

#### 건축절약여행

【인제】 건축절약은 경제생활에 있어 당연히 실행해야 할 조건이 강원도 인제군에서 공사경제건축절약회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사항을 여행하는 한편으로 절약방침을 일반에게 널리 선전하여 이를 모두 실행케 한다고 한다.

- 1. 봉직자는 급여의 4분의 1을 의무저금으로 하여 저축할 일
- 1. 일반민가에서도 전항에 준하여 반드시 전수입의 일부를 저축할 일
- 1. 구래의 폐습을 타파 특히 관혼상제 등의 용비, 미신에 기한 제비용을 폐지할 일
- 1. 의복은 질소의 것으로 조제하는데 조선복은 색물을 장려할 일
- 1. 연말연시의 중담, 회례 폐지를 엄중히 여행할 일
- 1. 형식적 연회 송연 등을 폐지하고 시간의 절약과 활동 능력의 증진을 계할 일
- 1. 금주금연을 여행할 일



# III

1930 - 1939년 인제신문

① 一년 주초대가 二十 보통 회  
국미의 임년가 먹는 주초대  
린데안에 十二만원에 달함  
술과 담비에 들어 가는 돈이 가워 리  
서만 一년간 十二만 二천 二백 원이  
익이 소비 되후 이거술 돈과 一년간  
비 (다섯 학교비) 一만 九천 원에 비하면  
비에 달하바 이 소비골을 가지고 불와  
단 광우 기관의 7천 원이면 호  
단 7천 원 업식 경영하게 사더라



1930-01-09-02-04

### 신한민보

## 1년 술담배값이 20 보통학교 경비, 국민의 1년간 먹는 술담배대금 인제군에 13만원에 달함

술과 담배에 들어가는 돈이 강원 인제군에서만 1년간 132,300원이 라는 거액이 소비되는데 이것을 인제군 1년간 교육비(다섯학교비) 19,000원에 비하면 근 10배에 달하는데 이 소비고를 가지고 불원전 한 인제군 교육기관에 보충한다면 초등학교 스물은 염려없이 경영 하겠다 한다.

1930-01-10-03-03

### 동아일보

## 정부와 줄행랑, 지난 3일에

【인제】 본적을 황해도 은율에 두고 작년 2월 13일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 들어와 장사하는 송룡삼(26)이는 지난 12월 20일경에 그 동리 김보현의 집에 하숙을 정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현의 처 김금옥(23)과 정이 들어 세상을 속여가며 불의의 관계까지 맺은 이래 남모르는 곳에 가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보지는 약속을 하고 신년 벽두 3일에 보현이가 잠든 틈을 타서 어디로인지 도망하였는데 이를 안 보현은 이런 불의의 남녀는 죽여도 가하다 하고 각오한 나머지 뒤를 추적하였는데 주인 잃은 빈 집만 쓸쓸히 남아있다 한다.

1930-01-11-03-08

### 동아일보

## 사냥 갔다 추락사, 새해 첫 아침에

【인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사는 김태유라는 노인은 당년 67세의 고령으로도 건강하기가 젊은이와 다름없는 힘센 늙은 인데 매양 겨울을 당할 때마다 총가지고 사냥하는 것이 그의 통쾌한 일이다. 새해 첫날 아침에도 당지 대암산이라는 산에 올라 곰 사냥을 하다가 실족하여 그만 수십 척 높고 험한 낭떠러지에서 내려굴러 눈으로 차마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을 이루었는데 더구나 말 못하는 병어리 두형제(노인의 아들)의 형용하며 울고 떠드는 것이야 보는 사람마다 슬픈 눈물을 뿌렸다 한다.

1930-01-11-03-09

### 동아일보

## 인제 신춘 강연

【인제】 인제엠투청년회 주최로 지난 4일 하오 7시 반에 신춘대강 연회를 인제예배당 안에 청년회 회장 박충모씨의 사회로 개최되어 연사 이종형씨를 비롯하여 대열변을 토하였는데 일반청중에게 적지 않은 인기를 끌게 되었으므로 2시간 반이나 강연을 계속하였어도 지루한 기색이 없이 대성황리 종료되었다 한다.

○ 1년 주초대가 20 보통학교 경비  
○ 인제의 인제군에서 1년간 132,300원이라는 거액이 소비되는데 이것을 인제군 1년간 교육비(다섯학교비) 19,000원에 비하면 근 10배에 달하는데 이 소비고를 가지고 불원전한 인제군 교육기관에 보충한다면 초등학교 스물은 염려없이 경영 하겠다 한다.

### 情夫와 줄행랑

【인제】 본적을 황해도 은율에 두고 작년 2월 13일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 들어와 장사하는 송룡삼(26)이는 지난 12월 20일경에 그 동리 김보현의 집에 하숙을 정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현의 처 김금옥(23)과 정이 들어 세상을 속여가며 불의의 관계까지 맺은 이래 남모르는 곳에 가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보지는 약속을 하고 신년 벽두 3일에 보현이가 잠든 틈을 타서 어디로인지 도망하였는데 이를 안 보현은 이런 불의의 남녀는 죽여도 가하다 하고 각오한 나머지 뒤를 추적하였는데 주인 잃은 빈 집만 쓸쓸히 남아있다 한다.

### 사냥 갔다 墜死

【인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사는 김태유라는 노인은 당년 67세의 고령으로도 건강하기가 젊은이와 다름없는 힘센 늙은 인데 매양 겨울을 당할 때마다 총가지고 사냥하는 것이 그의 통쾌한 일이다. 새해 첫날 아침에도 당지 대암산이라는 산에 올라 곰 사냥을 하다가 실족하여 그만 수십 척 높고 험한 낭떠러지에서 내려굴러 눈으로 차마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을 이루었는데 더구나 말 못하는 병어리 두형제(노인의 아들)의 형용하며 울고 떠드는 것이야 보는 사람마다 슬픈 눈물을 뿌렸다 한다.

### 麟蹄新春講演

【인제】 인제엠투청년회 주최로 지난 4일 하오 7시 반에 신춘대강 연회를 인제예배당 안에 청년회 회장 박충모씨의 사회로 개최되어 연사 이종형씨를 비롯하여 대열변을 토하였는데 일반청중에게 적지 않은 인기를 끌게 되었으므로 2시간 반이나 강연을 계속하였어도 지루한 기색이 없이 대성황리 종료되었다 한다.

1930-01-17-03-01

### 동아일보

#### 전가족 병에 걸려 10명 벌써 사망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가리산리 94번지 이경서의 온집안 식구가 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호구 조사하던 순사가 발견하고 즉시 본서에 무슨 전염병이나 아닌가 하고 보고하였는데 지난 12일에 동서 위생계에서는 공의를 대동하고 가서 진찰한 결과 장티푸스로 판명되었다는데 전식구 9명 중에 벌써 전기 이경서의 처 김경(54)은 사망하고 요행이 네 식구는 회춘되고 나머지 4명은 아직까지 신음중에 있다 한다.

### 全家族罹病

#### 인제면에서 사망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가리산리(麟蹄郡麟蹄面加里山里) 구십사번지 이경서(李敬善)의 온집안 식구가 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호구조사하던 순사가 발견하고 즉시 본서에 무슨 전염병이나 아닌가 하고 보고하였는데 지난 십이일에 동서 위생계에 의뢰한 공의 대동하고 가서 진찰한 결과 장티푸스로 판명되었다는데 전식구 9명 중에 벌써 전기 이경서의 처 김경(54)은 사망하고 요행이 네 식구는 회춘되고 나머지 4명은 아직까지 신음중에 있다 한다.

1930-01-28-03-08

### 중외일보

#### 애비, 어미는 사형인, 남는 것은 죄의 씨, 어린 것만 이승에 남기고 교수대 오를 간부부

남편이 출타한 동안에 정을 통하여 간부와 협력하여 본남편을 살해하고 간부의 자식을 안고 법정에서 살인수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남간난(30)과 그 간부 남옥출(49)은 서울지방과 복심 양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상고 중인데 27일 영중 재판장으로부터 상고 기각의 판결을 언도하였다. 사건 1928년 8월 중 남간난의 남편이 외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한집에 살던 남옥출과 정을 통하다가 그해 12월에 남편 박중석을 살해하였던 것인데 이제 사형판결이 내려 사형집행도 멀지 않아 할 것인데 남은 것은 옥중에서 낳아서 방금 옥중에서 어머니 품에 있는 죄의 씨가 더 가련하다.

### 애비, 어미는 死刑囚

#### 남는 것은 罪의 씨

##### 어린 것만 이승에 남기고 絞首臺를 姦夫婦

남편이 출타한 동안에 정을 통하여 간부와 협력하여 본남편을 살해하고 간부의 자식을 안고 법정에서 살인수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남간난(30)과 그 간부 남옥출(49)은 서울지방과 복심 양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상고 중인데 27일 영중 재판장으로부터 상고 기각의 판결을 언도하였다. 사건 1928년 8월 중 남간난의 남편이 외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한집에 살던 남옥출과 정을 통하다가 그해 12월에 남편 박중석을 살해하였던 것인데 이제 사형판결이 내려 사형집행도 멀지 않아 할 것인데 남은 것은 옥중에서 낳아서 방금 옥중에서 어머니 품에 있는 죄의 씨가 더 가련하다.

1930-02-05-02-07

### 동아일보

#### 모시고 거느리기 곤란 음독하고 자살

【인제】 지난 25일 하오 7시경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187번지에 사는 심수연의 자부 김복덕(32)은 양젖물에 중독이 되어 번사를 하였다는데 이제 자세한 것을 듣건대 그는 생활난이 큰 동기가 되어가지고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보양할 길이 막연하여 눈물로 세상을 지내다가 드디어 작년 10월 보름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다량의 양젖물을 먹은 이래 모진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이날 이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하다가 백일되던 전기 시일에 세상을 등진 것이라 한다.

### 侍率이 困難

#### 飲毒하고 自殺

【인제】 지난이심오일 하오 칠시경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187번지 심수연(沈守然)의 자부 김복덕(金福德)은 양젖물(羊乳)을 다량(多量)으로 음독(陰毒)하여 목숨( 목숨)을 끊어 버린( 끊어 버린) 것이다. 이 처녀( 이 처녀)는 생활(生活)이 막연( 막연)하여 눈물( 눈물)로 세상을 지내( 지내)다가 드디어( 드디어) 작년( 작년) 10월( 10월) 보름( 보름)날( 날) 집안( 집안)에 아무( 아무)도 없는( 없는) 틈( 틈)을 타( 타)서 다량( 다량)의 양젖물( 양젖물)을 먹( 먹)은 이래( 이래) 모진( 모진) 목숨( 목숨)은 끊어( 끊어)지지( 지지) 않고( 않고) 이날( 이날) 이때( 이때)까지( 까지) 말할( 말할) 수 없는( 없는) 고민( 고민)을 하( 하)다가( 다) 백일( 백일)되던( 되던) 전기( 전기) 시일( 시일)에( 에) 세상( 세상)을 등진( 등진) 것( 것)이라( 라) 한다( 한다).

1930-02-09-03-01

### 동아일보

## 미취학 아동 1만6천여명, 학교 수용력이 크게 부족해 인제 1군의 통계!

【인제】 이제 입학시험을 당하여 강원도 인제군에서만 학령아동들의 상황을 보면 군내의 아동수 17,300명 중에서 현재 공립보통학교 4학교, 사립학교 1교에 취학하는 아동이 680명인데 전기 아동 수에 대비하면 겨우 3%의 아동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나머지 16,620명은 해마다 취학을 못하는 형편이다. 빈곤으로 가정의 사정 혹은 부모가 몰지각하여 또는 취학할 길이 없어 금 같은 소년시대를 헛되어 보내게 되는 그들을 위하여 지방 유지들은 실로 기막히는 일이라고 탄식하는 중이라 한다.

1930-02-11-02-10

### 동아일보

## 인제 화재

【인제】 지난 5일 오후3시 반에 강원도 인제읍내 박홍준의 집 후원에 쌓아두었던 곡초더미에서 발화되어 일시 대소동을 이루었는데 소관 경찰서와 인제소방조의 출동으로 진화되었는데 원인은 어린이 이들 성냥장난이라 한다.

1930-03-04-03-08

### 동아일보

## 인제 양잠 호적 산견 1만석 계획, 예상 이상으로 성적이 좋아, 금년도 식상 100만그루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일반 농가의 생계상 유일의 부업인 양잠은 당국의 장려와 농민들로 사업에 유리함을 각오하고 식상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된 점과 산견은 가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는데 금년도 식상 100만 그루를 목표로 장려 중인데 인제군에서 산견 1만석 계획(1938년 까지)은 예정 이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다.

1930-03-05-03-08

### 동아일보

## 인제 정의여학교에 수업료금 전폐, 신학기부터 수업료를 전폐 무산자녀의 일대 복음

【인제】 남감리교 춘천여선교부의 경영인 인제 정의여학교에서는 월사금으로 인하여 해마다 입학률이 감할 뿐 아니라 계속하던 학업도 빈곤으로 인하여 중도에 퇴학하는 아동수가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것을 매우 유감으로 여겼는데 녀너지 못한 경비를 불구하고 오는 신학기부터는 수업료를 전폐하고 후원회를 조직하기로 되어 활동 중인데 일반인사의 많은 동정을 바란다 한다.

**未就學兒童 萬六千餘名**  
학교수용력이 크게 부족해 麟蹄一郡의 統計!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 학령아동들의 상황을 보면 군내의 아동수 17,300명 중에서 현재 공립보통학교 4학교, 사립학교 1교에 취학하는 아동이 680명인데 전기 아동 수에 대비하면 겨우 3%의 아동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나머지 16,620명은 해마다 취학을 못하는 형편이다. 빈곤으로 가정의 사정 혹은 부모가 몰지각하여 또는 취학할 길이 없어 금 같은 소년시대를 헛되어 보내게 되는 그들을 위하여 지방 유지들은 실로 기막히는 일이라고 탄식하는 중이라 한다.

**麟蹄火災** 【린계】 지난오 일오후세시반에 강원도 인제읍내 박홍준의 집 후원에 쌓아두었던 곡초더미에서 발화되어 일시 대소동을 이루었는데 소관 경찰서와 인제소방조의 출동으로 진화되었는데 원인은 어린이 이들 성냥장난이라 한다.

**麟蹄養蠶好績 產繭萬石計劃**  
예상 이상으로 성적이 좋아 今年度植桑百萬本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일반 농가의 생계상 유일의 부업인 양잠은 당국의 장려와 농민들로 사업에 유리함을 각오하고 식상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된 점과 산견은 가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는데 금년도 식상 100만 그루를 목표로 장려 중인데 인제군에서 산견 1만석 계획(1938년 까지)은 예정 이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다.

**授業料金全廢**  
신학기부터 수업료를 전폐 無產子女의 大福音

【인제】 남감리교 춘천여선교부의 경영인 인제 정의여학교에서는 월사금으로 인하여 해마다 입학률이 감할 뿐 아니라 계속하던 학업도 빈곤으로 인하여 중도에 퇴학하는 아동수가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것을 매우 유감으로 여겼는데 녀너지 못한 경비를 불구하고 오는 신학기부터는 수업료를 전폐하고 후원회를 조직하기로 되어 활동 중인데 일반인사의 많은 동정을 바란다 한다.

1930-03-05-03-10

### 동아일보

#### 인제 양구 인구 12월 말 현재

【인제】 강원도 인제 양구 두 군에 1929년 12월 말 현재 호수 및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다.

◇인제군			
호수총계(호)	20,181		
인구총계(인)	61,715		
조선인 남(인)	32,457	여(인)	29,103
일본인 남(인)	74	여(인)	62
중국인 남(인)	19		
◇양구군			
호수총계(호)	8,124호		
인구총계(인)	47,986인		
조선인 남(인)	23,985	여(인)	23,873
일본인 남(인)	54	여(인)	57
중국인 남(인)	16	여(인)	1
◇읍내 호수 인구별			
인제읍내 호수(호)	44호	인구(인)	2,242인
양구읍내 호수(호)	338호	인구(인)	1,589인

1930-03-07-03-06

### 동아일보

#### 두 군 술담배값 근 30만원

【인제】 우리의 경제는 보잘 것 없어도 말 못하는 술과 담배에 들어가는 돈이 강원도 양구 인제 두 군에서만 과거 1년간 소비고가 29만 9,100원이라는 거액인데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양구군 주류	76,500원	연초	38,400원	합계	114,900원
인제군 주류	138,900원	연초	45,300원	합계	184,200원

1930-03-10-03-05

### 동아일보

#### 시민위안회

【인제】 인제업및청년회 학예부 주최, 본보 인제지국 후원으로 지난 5일 오후8시에 인제읍예배당에서 시민위안 가극회를 학예부장 안병득씨의 사회로 개최하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순서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초로인생이라는 가극으로 일반청중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막이 끝나자 이욱고 이해원, 김명심, 안병득 3인의 석별회로 막을 닫히니 때는 11시 40분이었다.

【인제】 강원도 인제 양구 두 군에 1929년 12월 말 현재 호수 및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다.

戶數統計	人口統計	戶數統計	人口統計
朝鮮人	日本人	朝鮮人	日本人
男	女	男	女
二〇,一八一	六,一七一	一六,七〇三	一,五八九
三二,四五六	九,八八六	二五,八七三	一,五七四
一,五八九	一,五七四		

### 兩郡酒草代

【인제】 우리의 경제는 보잘 것 없어도 말 못하는 술과 담배에 들어가는 돈이 강원도 양구 인제 두 군에서만 과거 1년간 소비고가 29만 9,100원이라는 거액인데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酒類	草代	酒類	草代
三六,四五〇〇圓	一四,九〇〇〇圓	三六,四五〇〇圓	一四,九〇〇〇圓
三六,四五〇〇圓	一四,九〇〇〇圓	三六,四五〇〇圓	一四,九〇〇〇圓
三六,四五〇〇圓	一四,九〇〇〇圓	三六,四五〇〇圓	一四,九〇〇〇圓

### 市民慰安會

【인제】 인제업및청년회 학예부 주최, 본보 인제지국(麟蹄支局) 후원으로 지난 5일 오후 8시에 인제읍예배당에서 시민위안 가극회를 학예부장 안병득(安秉得)씨의 사회로 개최하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순서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초로인생이라는 가극으로 일반청중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막이 끝나자 이욱고(李惠媛) 김명심(金明心) 안병득(安秉得) 3인의 석별회(惜別會)로 막을 다치니 때는 11시 40분이었다.

1930-03-10-03-10

### 동아일보

#### 창춘공보교 오는 4월 개교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 창춘리에서는 벌써 5, 6년 전부터 내면장 신성섭씨와 김상국, 우하영 의 수십인의 발기로 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갖은 고초를 겪으며 백방으로 활동하여 기본금 1만원을 조성하고 운동하였는데 지방유지의 분투한 결과 오는 4월 1일에는 개교하게 되었다고 한다.

1930-03-14-07-09

### 매일신보

#### 강청 편지로 부호를 협박 마침내 잡혀

【춘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교리 부호 우병훈(52)에게 지난 3월 1일자 춘천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한 장이 배달되어 그의 심장을 서늘케 한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인즉 춘천읍 가연리 심의만 방 김성룡의 명의로 「음 2월 초 7일까지 일금 100원을 나에게 보내지 않을 시는 너의 일가족을 절멸한다」 들기만 해도 몸소름 끼치는 협박이었다. 이 사실을 접한 춘천서에서는 곧 범인을 수색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9시 춘천읍 가연리 김도 방에 잠복한 김흥연(원적 인제군 서화면 당 28년)이란 자를 인치하여 엄중히 취조한 결과 전기 사실을 자백하였다.

1930-03-15-06-03

### 매일신보

#### 금강산을 가진 강원도 인물도 제제, 도의 출마자를 점고하면서(2) 춘천일기

(중략)◇...인제군 다른데서 볼 수 없는 진기한 「나라」다. 인제면장이 홍형균(현의원), 향교직원인 엄정환군, 거기 인제면장의 너무 방정한 방법주군 3인만이 항상 정립하여 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1930-03-19-03-06

### 동아일보

#### 불의의 화재로 70노옹 소사, 산골에서 단 내외가 살아나기다 마누라가 외출한 뒤에 이런 참사, 생처의 애곡은 목불인견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서리골이라는 산골짜기에 움집을 짓고 두 내외가 살던 한성로 란 칠십이 넘는 늙은이는 지난 14일 밤에 부인은 어떤 제삿집에 일바주러 가버리고 잠이 깊이 들었던 사이에 그만 집에 불이 일어나서 무참히 남모르게 소사하였는데 이 참보를 들은 인제서에서는 15일 오전 10시경에 공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임검하였는데 전체가 다 타버리고 복부만 남았는데 그 참상이야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으며 즉시 남은 부분은 화장에 처하였는데 전기 한씨 부인 봉씨의 단장 애곡은 보는 사람마다 더 일층 애감을 자아냈다.

**蒼村公普校**  
오는 사월 개교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 창춘리(麟蹄内面蒼村里)에서는 벌써 오륙년 전부터 동면장신성섭(申聖燮)씨와 김상국, 우하영(金相國, 禹夏英)의 수십인의 발기로 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가진 고초를 겪으며 백방으로 활동하여 기본금 만원을 조성하고 온 동이든바 지방유지의 분투한 결과 오는 4월 1일에는 개교하게 되었다 한다.

**強請편지로 富豪를脅迫 마침내 잡혀**

【春川】江原道 麟蹄 瑞和 而 深 柳里 富豪 禹炳勳(52)에게 지난 3월 1일 춘천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한 장이 배달되어 그의 심장을 서늘케 한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인즉 춘천읍 가연리 심의만 방 김성룡의 명의로 「음 2월 초 7일까지 일금 100원을 나에게 보내지 않을 시는 너의 일가족을 절멸한다」 들기만 해도 몸소름 끼치는 협박이었다. 이 사실을 접한 춘천서에서는 곧 범인을 수색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9시 춘천읍 가연리 김도 방에 잠복한 김흥연(원적 인제군 서화면 당 28년)이란 자를 인치하여 엄중히 취조한 결과 전기 사실을 자백하였다.

**金剛山을 가진 江原道 人物도 齊々**

【春川一記者】

金剛山을 가진 강원도 인물도 제제, 도의 출마자를 점고하면서(2) 춘천일기

(중략)◇...인제군 다른데서 볼 수 없는 진기한 「나라」다. 인제면장이 홍형균(현의원), 향교직원인 엄정환군, 거기 인제면장의 너무 방정한 방법주군 3인만이 항상 정립하여 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不意의 火災로 七十老翁 燒死**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서리골이라는 산골짜기에 움집을 짓고 두 내외가 살던 한성로 란 칠십이 넘는 늙은이는 지난 14일 밤에 부인은 어떤 제삿집에 일바주러 가버리고 잠이 깊이 들었던 사이에 그만 집에 불이 일어나서 무참히 남모르게 소사하였는데 이 참보를 들은 인제서에서는 15일 오전 10시경에 공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임검하였는데 전체가 다 타버리고 복부만 남았는데 그 참상이야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으며 즉시 남은 부분은 화장에 처하였는데 전기 한씨 부인 봉씨의 단장 애곡은 보는 사람마다 더 일층 애감을 자아냈다.

1930-03-20-03-10

### 동아일보

#### 인제공보교 학예회

오는 21일 동 교내에서 개최

1930-03-20-03-10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 총회

지난 14일 인제군회의실에서 개최

1930-03-20-03-10

### 동아일보

#### 면장 회의

지난 16일 인제군청 회의실에서 개최

1930-03-20-03-10

### 동아일보

#### 한용청년회 발기총회

지난 14일 인제 내면 창촌리서 개최

1930-03-20-03-10

### 동아일보

#### 인제유치원 제2회 수료증서 수여식

지난 15일 인제예배당에서 거행

1930-03-23-03-01

### 동아일보

#### 인제읍에 화재

【인제】 지난 17일 오후1시 5분경에 인제읍 합강리 280번지 박경화의 집에서 불이 나서 일대 소동을 하였는데 전소를 당하고 동민의 합력으로 1시 40분경에 겨우 진화하였는데 손해는 약 100원 가량으로 그 원인은 방금 조사 중이라 한다.

◎漢勇青年會發記總會 去十四日 麟蹄內而峇村里外開催

▲한용청년회 발기총회

◎而長會議 去十六日 麟蹄郡總會議室內外開催

▲면장 회의

◎麟蹄公普校學藝會 來廿一日 同校內에서開催

▲인제공보교 학예회

◎麟蹄郡農會總會 去十四日 麟蹄郡會議室內外開催

▲인제군농회 총회

◎麟蹄幼稚園第二回修了證書授與式 去十五日 麟蹄禮拜堂에서舉行

▲인제유치원 제2회 수료증서 수여식

麟蹄邑에 火災 「린제」 지난 삼월칠일 오후한시 오분경에 린제읍합강리(麟蹄合江里)이백팔십번지 박경화(朴敬化)의 집에 불이 나서 일대 소동을 하였는 바 전소를 당하고 동민의 합력으로도 동한시사심분경에 겨우 진화하였는데 손해는 약 백원가량으로 그 원인은 방금 조사 중이라 한다

1930-03-23-03-08

### 동아일보

#### 문맹 퇴치 실효, 신문을 읽어

【인제】 강원도 인제읍 합강리 삼화청년회에서는 문맹퇴치운동을 부르짖고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표어 앞에서 작년 11월 20일 밤부터 동 회관에서 농민 야학을 설치하고 농민 및 무산아동 68명을 모집하여 가르쳐왔는데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이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성으로 불과 3, 4개월에 지나지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전에 그자도 모르는 그들의 학력이 불과 2, 3인을 제하고는 보통학교 3, 4학년 정도에 미치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동리 사람으로 신문 잡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 보조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상태에 문화촌을 건설하리라 한다.

1930-03-25-03-09

### 매일신보

#### 도의전 종막 13도선량 강원도

- ◇...인제 42표 방범주
- 30표 엄정환

1930-03-28-03-07

### 동아일보

#### 인제도 아동 부족

【인제】 입학지옥을 부르짖는 이 시절에 강원도 인제군의 각학교에서는 교원들이 각리에 출장하여 입학 권유를 다닌다는 기현상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공사립 다섯 학교 아동 모집이 아직 정원에 2분의 1도 되지 못하였다는데 기왕 모집된 아동도 자진하여 지원한 아동이 각 학교에 불과 몇 명에 지나지 못하고 모두 권유에 마지못하여 허락한 것이라 한다. 이것이 취학할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즉 자제를 학교에 보낼 경제력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까닭

1930-03-28-03-10

### 동아일보

#### 인제 정의여교 제10회 졸업식

지난 20일 동 교내에서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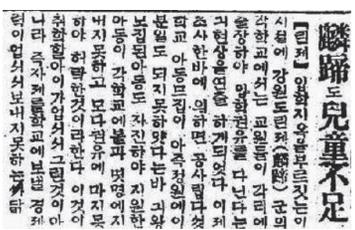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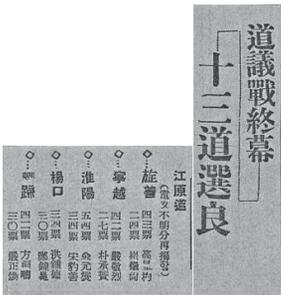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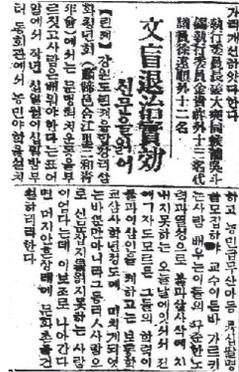
1930-04-01-03-06

### 매일신보

#### 1930년도의 강원도 11교 신설 예정 3교는 4월부터 개학

【춘천】 강원도에서는 1930년도에 다시 11교의 보통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착착 1면 1교제의 실현에 매진하는 터인데 4월부터 개교할 보통학교는 작기 3교이다

1. 춘천군 사북공보교 2. 양구군 방산공보교 3. 인제군 내면공보교



1930-04-04-03-01

### 매일신보

## 각도 평의원 관민 양의원 임명 (2) 강원도

【춘천】 강원도 평의원은 4월 1일부로 좌와 같이 결정 발표되었다.  
▲춘천군 남백학 이기중(관선) 산중우태랑(관선) ▲양구군 홍현덕  
▲인제군 방범주 (중략)

1930-04-05-03-01

### 매일신보

## 강원도농회의 제2회 조농사(속작) 경회 8, 9 양일간 개최

【춘천】 강원도농회에서는 오는 8, 9 양일 제2회 조농사 경작회를 작기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려고 바로 지금 도 산업과에서 준비에 분망 중이다. 규정 다음과 같다.

- 제1조 본회는 강원도 제2회 속작경회라 칭하고 속의 다수화 경작을 행하며 조농사 개량의 효과를 일반에게 주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 본회의 출품구역은 춘천 김화 평강 이천 회양 통천 인제 정선 평창 영월 화천 삼척의 12군으로 함
- 제3조 본회의 출품은 이를 구분하여 제1종을 도의 속작 개량 증식 계획에 의한 속 모범작전 및 군농회 설치 속모범작전으로 하고 제2종을 모범작전 이외의 일반속작전으로 함
- 제4조 제1종의 출품은 모범작전 전면적 5반보, 제2종의 출품은 집단 2반보 이상을 1점으로 하여 1인의 출품 점수는 1인 1점으로 함
- 제5조 본회에 좌의 역원을 둠 (생략)
- 제6조 출품전의 경중에 대하여는 다수의 목적으로서 특수방법에 강하는 것은 무관하나 별도 도에서 배부한 모범작전 경중표준 중 경중 경개의 대체를 실시할 일
- 제7조 1군의 출품 점수는 2종을 합하여 20점으로 할 일
- 제8조 군농회는 군내 출품의 예비심사를 행하여 우수한 것 각종 3점 이내 계 6점 이내를 선발하여 도농회의 심사를 받을 일
- 제9조 도농회에서 그 심사는 성숙기에 「평찰심사」를 행하고 품질의 양부를 심사하여 최다수를 우등으로 하고 우등자에게는 좌의 상품을 수여함. 1등 20원 2등 10원 3등 5원, 제10조(생략함)

1930-04-17-04-03

### 매일신보

## 인가 신청 중인 수력발전 계획 전도

▲인제수력발전계획  
금강산전기 외 2사에서 경쟁하며 원하고 있는데 금강산전신국에서는 경전과 금강산전기간에 수급계약을 성립케 한 후 동사에 인가할 듯하며 산내 전무, 인퇴안동 전무의 취임 등으로 교섭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나 혹은 체신국에서 양자간에 알선하여 결국 근간 인가되리라고 관측된다.

### 各道評議員 官民兩議員任命 (二)

#### 江原道

【春川】江原道評議員은 四月一日 府로 左와 如하 次 府發표 白 矣 夫

▲春川郡 曹圭胤 (官選)	▲橫城郡 李根宇 (官選)
▲原州郡 沈宜春 植村多助 (官選)	▲鐵原郡 李德一 高連河 (官選)
▲廣津郡 嚴敬烈	▲西谷國庫 (官選)
▲平昌郡 高炳杓	▲平康郡 李泰潤 李寅鎔 (官選)
▲慶尙郡 嚴敬烈	▲伊川郡 金永右 (以上民選二十一人 官選一)

### 江原道農會의 第二回粟作競會 八九兩日間開催

【春川】江原道農會에서 오는 八, 九兩日 第二回粟作競會를 左와 規程에 依하여 開催하려고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第一條 本會는 江原道 第二回 粟作 競會를 籌劃하고 粟의 多收 稼獲을 爲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第二條 本會의 田區 審査는 春川 郡 平康 伊川 准國 通川 寧越 洪川 東原 華川 三陟의 十二郡으로 함

第三條 本會의 田區 審査는 此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第四條 第一種의 田區 審査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第五條 田區 審査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且 田區 審査에 依하여 審査 行하

### 認可申請中인 水力發電 計劃前途

▲水力發電 計劃前途  
金剛山 水力發電 計劃은 現在 認可申請中인 狀態에 在 且 金剛山 水力發電 計劃은 現在 認可申請中인 狀態에 在 且 金剛山 水力發電 計劃은 現在 認可申請中인 狀態에 在

金剛山 水力發電 計劃은 現在 認可申請中인 狀態에 在 且 金剛山 水力發電 計劃은 現在 認可申請中인 狀態에 在 且 金剛山 水力發電 計劃은 現在 認可申請中인 狀態에 在

1930-04-25-04-11

중외일보

인제 진부간 등외도로 설계

강원도 인제 진부간은 아직까지 도로가 불완전한 관계로 제반 운송은 인마 등으로 하는 외에 별 방법이 없어 불편이 매우 심한데 이번 2개군 당국과 유지 등의 노력으로 등외도로를 설계코자 방금 운동 중인데 만약 실현되는 때는 매우 편익케 된다고 일반은 기대 중이라고 한다. 【진부】

1930-05-11-01-09

중외일보

사령(5월 9일부)

도경부 길전연 임 도경시(7등) 명 경기도 재근  
도속 김창섭 임 군수(7등) 명 강원도 화천군 재근  
도속 김봉림 임 군수(8등) 명 강원도 정선군 재근  
도속 이필성 임 군수(8등) 명 강원도 홍천군 재근  
군수(영월) 이계진 명 강원도 이천군 재근  
군수(양양) 김종일 명 인제군 재근 (중략)

1930-05-11-03-05

중외일보

홍수에 숙질 익사, 강원도 양양에 참혹한 일

강원도 양양지방에 홍수가 났다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여러 날 장마끝인 지난 6일 오후에 양양군 서면 상평리 앞 구비치는 물결 밑에 시체 하나가 누워 있는 것이 고기 낚는 어옹의 눈에 발견되었는데 조사한 것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양양군 손양면 우암리에 본적을 둔 김도필(37)로써 원래 없는 사람이라 먹지 못할 도토리나 가져다가 구구한 생활에 보낼까 하고 작년 가을에 인제군 신진리에 주워두었던 것을 가져올 목적으로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의 이사짐을 지고 오는 길에 그 조카되는 남병(17)과 각각 한 짐씩 지고 오다가 그후 예문리를 나들이에 함께 빠져죽은 것이 판명되었는데 그 조카의 시체는 하류 가평리에서 3일 후에 찾았다고 한다. 【양양】

1930-05-20-06-03

매일신보

강원도의 농업실습생 각군 1명 선발

【춘천】 저번 강원도 학무과에서는 농촌에서 건설하게 농사에 종사할만한 『농업실습생』의 진형을 마치고 이달 10일부터 춘천종묘장에서 교양을 시작하였는데 앞으로도 연년이 10명씩 양성을 할 것이며 급년은 각군에서 1명씩 좌기 10명이 선발되었다. 더욱이 이들 실습생 될 자격자는 18세 이상 25세까지의 보통학교 졸업생이라야 하며 실습생에게는 매월 10원씩과 지목 등을 지급하는데 교양기간은 5개월이다. 춘천군 이약한, 인제군 엄우중, 횡성군 진경두, 화천군 최필성, 양구군 최창선, 원주군 서형석, 홍천군 이기오, 김화군 노병학



Table with 4 columns and 10 rows listing names and locations. Column headers include '江原道' and '縣令'.



Table titled '江原道の 農業實習生 各郡一名選拔' (Agricultural Practice Students Selected One from Each County in Gangwon-do). It lists names and counties.

1930-06-20-03-07

### 매일신보

#### 인제군의 가뭄 이앙을 후회

【춘천】 인제군읍을 중심으로 부근 일대는 이래 3, 4년간 농번기를 당하여 비상히 가뭄이 태심하여 심기 불능 또는 심은 것도 말라죽어 일반 농민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금년도 지금부터 그 뒤로 약 10 일간만을 계속적으로 한 점 비가 없으면 이미 심은 전답이 전멸을 당하리라고 일반은 후회한다.

1930-06-29-07-01

### 매일신보

#### 마을민을 속여먹다 피소된 사기 구장, 양양군 서면 조개리 구장 마을민이 격분 고소

【강릉】 지난 20일 양양군 서면 조개리 심석하 김병록 두 사람은 동리 전 구장 이창석(40)을 걸어 강릉법원지청 검사분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듣건대 전기 이창석은 수삼년전부터 작년도까지 전기 주소지에서 구장직에 있으면서 자기는 자칭 인제군 내면 산림보호구축탁원이라 운운하며 마을내 화전민 수백호에 호별 배당으로 분배하여 화전을 마을대로 해먹도록 허가를 내어주마는 조건을 구실로 풀뽕밀 4주발, 현금 5원을 편취하여 먹은 후 그 해는 마침 당국의 화전민 보호책에 의하여 무화 입경작을 다소 용대하였음을 기화로 마을내에서 몽리한 화전민 다수에게 무리한 추가 보수를 강요하였으나 마을민들은 결국 이에 순응치않고 비난이 높아오던 중 금번에는 전기 두 사람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제기한 것이 라는데 주민 중 직접 관계자의 말을 듣건대 그는 이외에도 구장으로 서 마을민에게 대하여 부적절한 일도 많다하며 심지어 호세 체납 처분당한 마을민에게 과태금 또는 벌금이란 명칭으로 매1원에 대하여 얼마씩 가증수한 일도 있는 자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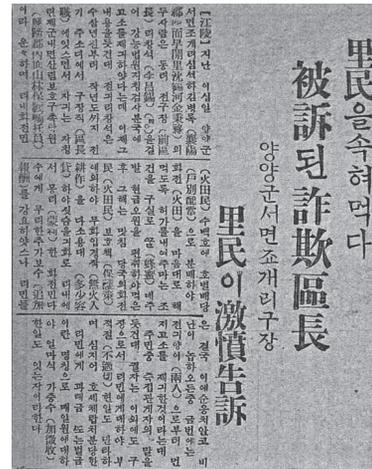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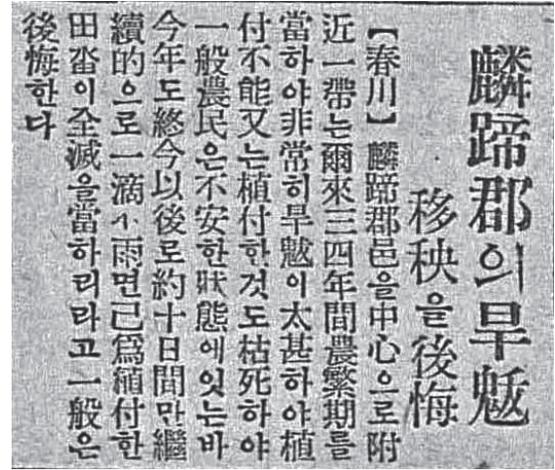
1930-07-11-03-06

### 매일신보

#### 학생기생충 조사

【춘천】 강원도 위생과에서는 작년에 춘천, 인제, 고성 3개지방의 각 소학 및 보통학교 아동에 대하여 그 기생충 유무의 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결과 기생충에게 건강을 약하게 하고 있는 자가 실로 100명에 대하여 8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고 다시 도내 각지의 학동의 사망률을 3년간을 두고 조사해보았는데 제일 많이 죽은 곳이 평강군 방면의 33%(100인에 대하여 3년간 평균하여) 그 다음이 양양군방면의 29%, 제일 적은 곳이 김화지방의 22%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사망 원인과 기생충과의 사이에 혹은 기미한 관계나 없을까 하여 금년에도 먼저 제일로 좌기 각지의 학동 5,673명에 취하여 기생충의 상황을 조사 중이며 더욱 학동의 기생충 구제에 대하여 당국으로서도 매우 골치를 썩고 있는데 무엇이고 경비가 많이 들므로 철저적 구제방법을 실시치 못하나 각자와 및 부형들이 솔선하여 날 채소와 생어 같은 것을 먹는데 주의하며 복약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구제하기를 바란다.

1. 조사학교명 = 김화보통학교 및 소학교(7월 5, 6일 전교생도)(중략)인제보교 및 소교(7월 20일, 전교생도)



1930-07-20-02-07

### 매일신보

## 중대리 침수로 발전도 불능 강원도 일대의 폭우는 의연 각 하천 각각 증수

【춘천전화】 19일 오전 6시까지 도지사에게 도착된 강원도내의 수해정보에 의하면 인제강 증수가 8m50으로 읍내의 침수가옥이 수십 호이며 인제 북면 원통시장은 전부 침수되어 주재소, 면소 등은 각각으로 위험한데 회양강도 증수 7m로 읍내 침수가 20여 호에 달하였고 화천부근은 전신불통으로 상세를 알 수가 없으나 상세한 피해가 있을 듯하다. 남부 강원도는 아직도 폭우가 계속 중인데 정선군은 정선강의 증수가 12m로 읍내는 반이 침수되고 각 관공서도 위험상에 빠져 경계중인데 영월지방도 19일 오전 3시경부터 남한강이 다시 증수하여 6m로 점점 불어가는 중이며 울진군 죽전항은 격랑과 태풍으로 가옥 도피 3호, 사망자 5명, 고성읍은 증수 4m로 읍내 침수 200여호이며 해안으로는 폭풍이 크게 일어 노도가 높는데 영동 일대는 아직도 비가 쏟아질 뿐 아니라 겸하여 폭풍으로 각지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중에 금강산전기회사 중대리발전소는 수해로 인해 고장이 생겨 전기는 전부 불통이 되었다.

**中垔里浸水로**  
**發電不能**

강원도 일대의 폭우는 의연 각 하천 각각 증수

【春川電報】 19일 오전 6시까지 도지사에게 도착된 강원도내의 수해정보에 의하면 인제강(仁濟江) 증수가 8m50으로 읍내의 침수가옥이 수십 호이며 인제 북면 원통시장은 전부 침수되어 주재소, 면소 등은 각각으로 위험한데 회양강도 증수 7m로 읍내 침수가 20여 호에 달하였고 화천부근은 전신불통으로 상세를 알 수가 없으나 상세한 피해가 있을 듯하다. 남부 강원도는 아직도 폭우가 계속 중인데 정선군은 정선강의 증수가 12m로 읍내는 반이 침수되고 각 관공서도 위험상에 빠져 경계중인데 영월지방도 19일 오전 3시경부터 남한강이 다시 증수하여 6m로 점점 불어가는 중이며 울진군 죽전항은 격랑과 태풍으로 가옥 도피 3호, 사망자 5명, 고성읍은 증수 4m로 읍내 침수 200여호이며 해안으로는 폭풍이 크게 일어 노도가 높는데 영동 일대는 아직도 비가 쏟아질 뿐 아니라 겸하여 폭풍으로 각지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중에 금강산전기회사 중대리발전소는 수해로 인해 고장이 생겨 전기는 전부 불통이 되었다.

1930-07-22-02-05

### 매일신보

## 인제군 피해

【춘천전화】 별항 강원도 인제군 읍내는 경찰서까지 전부 침수되어 주민 전부를 보통학교, 재판소출장소, 건건장 세 곳에 수용하고 군 청직원과 경찰서원이 협력 구조 중이다.

**麟蹄郡被害**

【春川電話】 별항 강원도 인제군(麟蹄郡) 읍내는 경찰서까지 전부 침수되어 주민 전부를 보통학교(普通學校) 재판소출장소(裁判所出張所) 건건장(乾健場) 세 곳에 수용하고 군 청직원과 경찰서원이 협력 구조 중이다.

1930-07-23-02-01

### 매일신보

## 강원도의 금일 착보 인명피해 또 600여, 선박의 침몰로 460여척 강원도 각군 피해상황

◇...인제군 인제군내의 피해상황은 18일 이래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혀 불명하였는데 21일 밤 인제서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인접군인 흥천에 나와 그 상황을 보고하여 이제야 겨우 인제군내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곧 그에 의하면 인제읍내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경찰서와 및 경찰서원 관사에게까지 탁류가 흘러들어와 관사 4동 10호는 반쯤 무너졌고 그밖에 읍내에 피해가 다수하여 지금방금 경계에 종사하는 중이며 소방수 백영조는 이재민 구조에 종사하다가 탁류에 쓸려 내려가 참혹히 순직을 하고 말았다. 그 외 현재 판명된 것은 죽은 사람 5명, 도피가옥 80호, 침수가옥 200호에 달하였는데 방금 인제군내에는 사방의 교통두절로 식량이 결핍되어 더욱 곤란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江原道の今日着報**  
**人命被害又六百餘**  
**同道各郡被害狀況**

선박의 침몰도 사백여척 여

【通川電報】 강원도 일대의 폭우는 의연 각 하천 각각 증수... 인제군(麟蹄郡) 읍내는 경찰서까지 전부 침수되어 주민 전부를 보통학교(普通學校) 재판소출장소(裁判所出張所) 건건장(乾健場) 세 곳에 수용하고 군 청직원과 경찰서원이 협력 구조 중이다.

1930-07-24-02-01

### 매일신보

## 장안사와 표훈사도 산붕으로 유실 매물 회양군내도 피해 심대

(중략)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내에 있어 22일 오후4시까지 판명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자 19명 ▲가옥유실 222호 ▲전괴 78호 ▲반괴 108 ▲침수 200호

1930-07-25-02-02

### 매일신보

## 습곡을 징발해 간신히 연명, 시가지는 전멸상태 인제군의 피해 참상

【춘천전화】 24일에 사흘 동안을 걸어서 도청에 보고하러온 인제군수 김극일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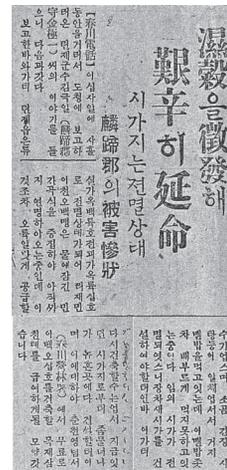
보고한 것과 같이 인제읍은 유실 가옥 106호, 전괴가옥 60호로 전멸상태가 되어 이재민 2,500명은 물에 잠긴 민간곡식을 증집하여 아직까지 연명하여 오는 중인데 이것조차 5, 6일밖에 공급할 수가 없으며 소금 간장 사탕 등이 일체 없어서 거지 맨발을 먹고 있는데 이 맨발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시가지가 전멸되었으니 장차 새 시가를 건설하여야할 것인데 이같이 재난을 당하여서 (판독불능) 다시 건축할 수는 없어 지금 있던 시가지로부터 좀 물러나가 높은 곳에도 건설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춘천영림서에서 무료로 250호를 건축할 목재 3,000대를 급여하게 될 모양 같습니다.

1930-07-28-03-01

### 매일신보

## 군경 직원을 위하여 특별 동정금 각출, 이재민을 위하여 세거는 유실 강원도청직원 발기

금번 홍수해에 의외로 인제읍의 피해가 심하였고 그 중 군청, 경찰서 직원이 전부가 이재민이 되기 때문에 누가 구조하여줄 사람이며 구조받을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만큼 순서가 없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아무리 관리 직분으로 백성은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난 후에 타인을 생각함은 인지상정일 것이니 이런 겨를에 이재민 구호에 생각이 미치랴. 방금 인제군청 직원 중에는 흥계 양복이나 혹은 조선의복이라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경찰서 직원도 역시 그렇다는데 관리된 책임과 의무로 자기 집에 침수 또는 유실, 도괴될 것은 상상할 여가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분주하다 의복 한가지 식료품 도구까지 홍수에 유실하였다. 전조선 각지를 통하여 이 같은 예외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강원도청내에서는 이지사를 비롯하여 직원 전부가 군경 양 직원의 이재자를 위하여 특별 동정금을 각출하여 210원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식료품 기타 필수품을 매입하여 며칠내에 송달할 것이라 한다.



### 인제군 일대의 참담한 수해의 적 수해에 썩어빠진 벼쪽을 찌서 먹으며 근근이 연명 강원도경무과장 시찰담

【춘천】 강원도 인제읍이 지난 18일부터 거의 전멸되었다는 급보를 접한 도당국으로부터는 목도 경무과장이 23일 현장에 출장하여 수해의 참상을 실지 조사하고 28일 돌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엔 인제천(북한강)이 30m나 증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는 헛소리로만 알았다가 23일 홍천을 돌아서 경관 7, 8명과 자동차 운전수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파괴한 곳을 고치고 겨우 차를 달려 인제읍 도선장까지 가서 본즉 주민으로부터 60척이나 높은 곳에 있는 인가가 넘어진 것을 보고 그제야 그것이 사실이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관대리에 있는 수백년래의 하늘을 찌를 듯이 큰 소나무들과 「느티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넘어져서 왕년의 울창한 삼림의 면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면사무소는 꽤 높는데 있는데도 처마까지 침수되고 지붕이 무너졌으며 경찰서는 침수로 인하여 중요서류를 3분의 1이나 못쓰게 만들었다. 일시 읍내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립정의여학교로 물피난을 한 군중은 마침내 그 학교에 까지 침수하는 바람에 울며불며 어떤 사람들은 부근의 나루 위로 올라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허리띠로 제 몸을 나뭇가지에 꿰뚫어 매어놓고 취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의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는 등 참으로 참담한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거리의 상점이나 주택을 물론하고 전과 반과 혹은 유실되었으며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들 이재민의 대부분은 침수로 썩어져 가는 벼를 씻어먹고 있는데 독지가 정태일씨가 벼 30석, 김기선씨가 벼 30석, 이종직씨가 백미 9섬 등의 기증을 받아 이력저력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홍천지방에서 식량을 운반하고 있는데 도로 파괴로 인하여 우차로 3일 혹은 4일씩이나 걸리며 현재 인제읍내에 남아있는 미곡기라고는 백미 14석, 벼 150석, 조 10석, 콩 10석 등이며 당분간을 지내기조차 곤란한 형편이다. 금번 수해에 비취 읍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로 하여 토목과에서 기수가 출장하여 시가지지를 계획 중이고 시민들은 부흥기성회를 조직하여가지고 일치단결하여 일에 당하기로 되었다. 인제군내의 서울 오리진선은 당분 복구할 여망이 없고 홍천군계까지 30리나 되므로 그것을 수리하여 홍천을 돌아 통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극빈의 이재민들에게는 국유림으로부터 무대로 3,000재를 집 재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군내 사망자는 24명으로 판명되었다 운운.

## 麟蹄郡一帶의 慘憺한水害의跡

수해에 썩어빠진 벼쪽을  
찌서 먹으며 근근이 연명  
江原道警務課長視察談

【春川】 강원도 인제읍(麟蹄)이 지난 18일부터 거의 전멸되었다는 급보를 접한 도당국으로부터는 목도 경무과장이 23일 현장에 출장하여 수해의 참상을 실지 조사하고 28일 돌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엔 인제천(北漢江)이 30m나 증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는 헛소리로만 알았다가 23일 홍천을 돌아서 경관 7, 8명과 자동차 운전수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파괴한 곳을 고치고 겨우 차를 달려 인제읍 도선장까지 가서 본즉 주민으로부터 60척이나 높은 곳에 있는 인가가 넘어진 것을 보고 그제야 그것이 사실이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관대리에 있는 수백년래의 하늘을 찌를 듯이 큰 소나무들과 「느티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넘어져서 왕년의 울창한 삼림의 면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면사무소는 꽤 높는데 있는데도 처마까지 침수되고 지붕이 무너졌으며 경찰서는 침수로 인하여 중요서류를 3분의 1이나 못쓰게 만들었다. 일시 읍내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립정의여학교로 물피난을 한 군중은 마침내 그 학교에 까지 침수하는 바람에 울며불며 어떤 사람들은 부근의 나루 위로 올라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허리띠로 제 몸을 나뭇가지에 꿰뚫어 매어놓고 취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의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는 등 참으로 참담한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거리의 상점이나 주택을 물론하고 전과 반과 혹은 유실되었으며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들 이재민의 대부분은 침수로 썩어져 가는 벼를 씻어먹고 있는데 독지가 정태일씨가 벼 30석, 김기선씨가 벼 30석, 이종직씨가 백미 9섬 등의 기증을 받아 이력저력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홍천지방에서 식량을 운반하고 있는데 도로 파괴로 인하여 우차로 3일 혹은 4일씩이나 걸리며 현재 인제읍내에 남아있는 미곡기라고는 백미 14석, 벼 150석, 조 10석, 콩 10석 등이며 당분간을 지내기조차 곤란한 형편이다. 금번 수해에 비취 읍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로 하여 토목과에서 기수가 출장하여 시가지지를 계획 중이고 시민들은 부흥기성회를 조직하여가지고 일치단결하여 일에 당하기로 되었다. 인제군내의 서울 오리진선은 당분 복구할 여망이 없고 홍천군계까지 30리나 되므로 그것을 수리하여 홍천을 돌아 통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극빈의 이재민들에게는 국유림으로부터 무대로 3,000재를 집 재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군내 사망자는 24명으로 판명되었다 운운.

## 노도탁랑의 위세 삼시간 창상 전환, 문화의 중심인 읍내는 사장화, 인제수해조사=일기자

【춘천】 강원도내의 폭풍우, 홍수해가 심한 것은 여러번 보도한 것이거니와 단절되었던 인제군의 피해는 아직껏 그 상세한 상황은 누구나 알기 어려웠었다. 서울 오리진선 2등도로는 여지없이 참혹히도 유실, 파괴 되어 날카로운 석골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우마도 통행치 못할뿐더러 이 노선은 대개 소양강 상류 연안을 관통한 관계로 강안연로에 개재하였던 음식점, 숙옥 등은 형체도 없이 백사지화 하였으므로 요기할 곳이나 유숙할 곳이 없어 통행인도 자연 회소하게 되고 홍천읍을 우회하여 자동차와 도보로 연락되어 겨우 소식을 전하게 되므로 이제야 그 피해가 의외로 심하고 큰 것을 알게 되었다. 영월군 수주면 같이 인명의 사상 그것만은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인제군의 문화중심도시인 읍 시가는 거의 전멸되고 말았었다. 지년간 7월 18일 오후9시경에 읍내를 관통한 소양강 상류인 인제강은 졸연히 증수 10m로 각각 증수되어 최고 수위 30m로 전 시가는 완전 수국화하여 탁류에 정복되고 말았다. 읍내 총호수 500여호 인구 3,000여명에서 유실 169호, 전폐 47호, 반폐 73호, 침수 100여호로 이재민 2,300명이나 되어 그 많은 이재자는 결국 수용할 곳도 없을만큼 경찰서, 면사무소, 공회당, 우편국, 정의여학교, 보통학교, 금융조합 등 전부가 침수되고 관공리 주택으로 는 군수관사가 침수반피를 비롯하여 경찰서원 관사까지 모두 침수되고 군청직원에는 공기 서무주임을 비롯하여 주택유실한 사람이 많으며 시가의 상점이나 여관 등은 모두 다 유실되어 시가의 형적도 볼 수가 없을만큼 참혹하게도 전멸되고 말았다. 그날 밤 많은 사람의 피난하던 그 정황이야 참으로 슬픈황극이 많았을 것이다. 순간 미래의 화재를 모르는 연자와 같이 안연하게 단꿈 꾸고 퍼붓는 비는 실재없이 내리는 밤중에 사정없이 달려드는 탁랑은 부엌으로 방으로 차차 침입하자 좌우로 사람 살려라 하는 함성에 비로소 깼 사람도 많았다. 그리하여 천방지축으로 이리 저리 물리는 피난민은 부모 형제 처자 돌볼 생각할 여가없이 나무로 올라가는 사람, 산으로 달는 사람,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람, 어린 아이나 늙은 부모 업고 안고 올지 갈지 우는 사람, 형제 처자 서로 붙들고 우는 사람, 서로 종적을 몰라 부르짖으며 우는 사람 그 시간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복잡이며 형용할 수 없는 인정극이 많았을 것이다. 그날 밤 어떤 사람은 소학교 앞에서 있는 큰 나무목으로 올라가보자 거기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물은 그 나무 중턱 이상을 올라오므로 살길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 몸을 사후에 찾거나 쉽게 하기 위하여 나뭇가지에 단단히 붙들여 매고 최후를 기다렸는데 그 나무도 그대로 있고 물은 감퇴된 후 내려와서 처자를 찾아 상봉하니 천진난만한 어린자녀는 그동안 그리던 그 부친을 반겨하되 그 부인은 노하여 그 무정함을 책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누구나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누구나 그 처자를 사랑치 않을 사람이 있으랴 만은 사지에 임하여서는 자아를 먼저 생각하여서 인함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인정애가 박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사지를 벗어난 수천수백명의 구호는 어떠한가. 소지의 가구나 의류, 식료품 등은 있는대로 다 유실 침수 파손되고 탁류에 헤매던 의복 한 벌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읍내에 남아있는 곡류라고는 콩, 벼, 조 등을 합하여 불과 200석으로 이재자나 아닌자를 막론하고 각각 절찬하여 26일까지는 어떻게 식음을 계속하였고 그 후는 홍천읍 유지의 주선으로 300여원의 동정금을 모집하여 식료품으로 대송하여 그로서 며칠간의 구급은 되었다. 당국의 구조 읍내자 유지의 구조(기부한 독지가는 정태일씨 벼 30표, 김기선씨 벼 30표, 이종직씨 백미 9석 그 외 생략) 인제읍 동정으로 금일까지는 왔으나 이제부터는 식료품이 결핍되어 침수로 부패하고 익지않은 곡류로 연명하는 참극한 현상이라 한다.

더구나 도로는 형체도 없이 유실 파손되었으므로 매입 운반조차 불능할뿐더러 일시에 적수공권이 된 빈부의 차별도 없이 된 그네들은 졸지에 분전도 없을 것이니 매입인들 여의치 못할 바에 금후 생계가 참으로 막연하다. 시가는 진흙바다화 하여 습기와 악취가 가득한데 내려 쪼이는 근일 혹서에 전염병이 더욱 우려된다. 당국으로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많은 이재민에 영양이 부족하고 가두에 침식하는 그네들에게 일일이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보다 직무상 책임으로라도 구호의 임무를 노력할 군청 경찰서 직

원 모두가 이재민이 되어 구호를 받게된 정경인 즉 모든 것이 불행에도 불행이다.

그 외에는 읍 시가 부흥이다. 읍내의 피해만 30만원 아래는 아니라고 한다. 이 부흥이야말로 현하 불황한 재계에 비취 민력으로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읍 시가는 현 군청 뒤 고원지로 이전키로 하여 방금 도 토목과로 시구 설계 차 출장중이며 유실 가옥자를 위하여 3,000척체의 국유 임재를 무료 불하키로 되었다 하나 건축비는 무엇으로 하나. 그 지방에서는 관민이 연락하여 인제읍부흥기성회를 조직하여 목적 달성기에 노력할 것인데 우선 당국의 양해 하에서 저리 자금 융통의 길을 제일 희망선을 진출할 모양이다. 물론 이재 복구에 대하여 정부로서 특별한 고려가 있을 것이나 따라서 이것 등 부흥에 정치적 후원이 아니고는 가망할 것이 아니다. 본군의 피해는 이외에도 북면 원통시장과 남면 관대리 부근 강주변 일대에 많은 참상이 있으며 사망자도 지금까지 관명된 것 24명에 달한다. 그리고 인제군의 주요도로인 서울오리진은 당분 개수할 여력도 없이 유실됨으로써 산업이나 문화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 것인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가엾은 것이다. 강원도 전도를 통하여 이번 풍수해로 금후 구조를 요할 인원이 7월 28일까지 당국이 조사에 의하면 약 8,000명이나 된다. 또다시 인생 생활에 3대 요소라 할 의식주에 하나도 없이 적신나체가 된 그 이재민이 생계야말로 현재도 우려되지만은 미래도 표연하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인정이 집중되지 않고는 와중에 든 그 생명을 구출키 어려운 줄 생각한다. 지금은 복중이나 되어 배만 움키고 있지만은 쌀쌀한 추풍이 서교에 일어나면 이 일을 어이할까 다만 눈물의 동정을 빌 뿐이다.

### 怒濤濁浪의威勢 雲時間滄桑轉換 文化的中心邑內는沙場化

歸跡水患調查 一記 卷

【壽川】江原道內의壽川郡 洪 水災가甚중하여 災情이甚重하여 나날이 惡化되고 있는 狀况에 對하여 本報가 災情을 調査하고 歸跡을 記述한 結果를 誌한 如하도다. 壽川은 江原道 寧越郡의 壽川읍에 屬하며 邑內에 人口가 約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방은 산악 지대이며 邑內에 田畠이 少한 故로 邑民의 主要한 生計는 農事에 在한다. 그러나 邑民의 生活는 極히 困窮한 狀况에 在하고 있다. 邑民의 生活를 支拂하는 唯一의 途徑은 邑內의 田畠에 在한다. 그러나 邑民의 生活를 支拂하는 唯一의 途徑은 邑內의 田畠에 在한다. 그러나 邑民의 生活를 支拂하는 唯一의 途徑은 邑內의 田畠에 在한다.

邑民의 生活를 支拂하는 唯一의 途徑은 邑內의 田畠에 在한다. 그러나 邑民의 生活를 支拂하는 唯一의 途徑은 邑內의 田畠에 在한다. 그러나 邑民의 生活를 支拂하는 唯一의 途徑은 邑內의 田畠에 在한다. 그러나 邑民의 生活를 支拂하는 唯一의 途徑은 邑內의 田畠에 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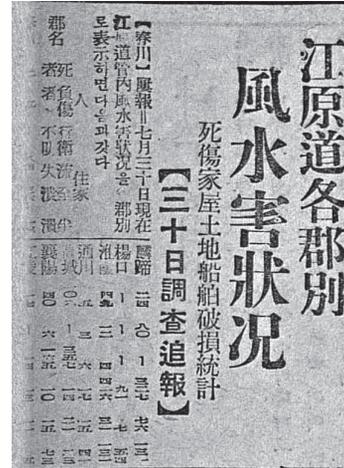
1930-08-05-03-01

매일신보

강원도 각군별 풍수해 상황, 사상 가옥 토지 선박 파손 통계 【30일조사 추보】

【춘천】 누보=7월 30일 현재 강원도 관내 풍수해상황을 군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군명	사람			집		
	사자	부상자	행위불명	유실	전괴	반괴
인제	24	80	-	327	76	131
양구	-	-	-	91	7	54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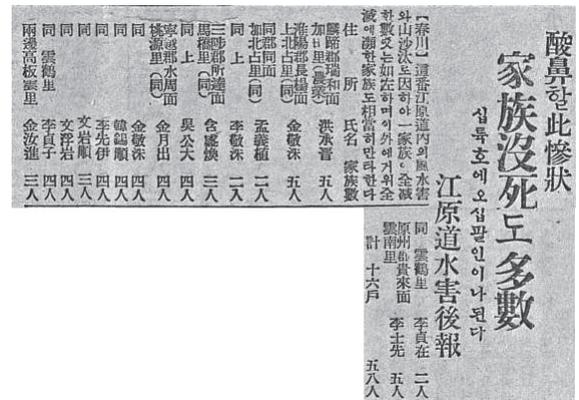
1930-08-05-03-03

매일신보

산비할 이 참상 가족 몰사도 다수, 16호에 58인이나 된 다 강원도 수해 후보

【춘천】 저번 강원도내의 풍수해와 산사태로 인하여 일가족이 전멸한 수효는 좌와 같으며 이 외에 거의 전멸에 가까운 가족도 상당히 많다 한다.

주소	씨명	가족수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농업)	홍승진	5인
회양군 장양면 상북점리(농업)	김경수	5인
중략		



1930-09-07-04-01

### 중외일보

## 시장 이전으로 천여군중 유리, 가옥 신축의 길이 없어서 심각한 인제읍의 수재

강원도 인제읍은 금년 수해를 당하여 읍안 500여호가 전부 침수 혹은 유실되어 거주지까지 백사장이 되었으므로 읍을 전부 현재 군청 뒤로 옮기는 중인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완성이 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전부 완공되어 신시가지로 변경되리라는데 한편에서는 빈한한 소치로 집도 신축치 못하고 의지가 없이 부모처자의 손목을 잡고 노상에 방황하며 냉정한 이 세상에 한술 밥을 구하는 동포가 인제군내에만 1천여호에 달하여 방금 대혼잡을 이룬다고 한다. 【춘천】

1930-09-10-03-01

### 동아일보

## 인명 사상 108명 피해총액 100만원 가옥전담 도로 가축 등 총피해액 인제 풍수해 총결산

【인제】 지난 풍수해로 (7월 18일 이래) 강원도 인제는 300여년 이래 처음 보는 대참사를 이루었는데 그 피해 정보는 날이 갈수록 참혹한 것이 더욱 많이 판명되었다는데 이 참담한 피해를 때를 따라 보도치 못하고 기아선상에서 호곡하는 수많은 이재민에 대하여 무엇보다 궁급한 가운데 있다. 당국의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인명=사망자 26 행방불명 2 부상자 8
  - ▲집=유실 387 전폐 105 반폐 145 침수 355
  - ▲논=유실 289정3반 매물 191정3반 침수 89정5반
  - ▲전=유실 627정9반 매물 214정4반 침수 72정4반
  - ▲도로=파손유실 106,524 교량유실파손 83개소
  - ▲제방=파손 5,255간 결괴 4,377간 산붕괴 175개소
- 풍수해 총결산

집 손해액 255,200원 전담피해액 314,400원 작물피해액 148,900원 도로교량액 189,700원 뽕나무묘포임야액 18,600원 가축피해액 3,500원 기타 피해액 25,114원 총계 955,414원

1930-09-15-03-01

### 동아일보

## 풍수재에 저주받은 2천여 인제주민 ◇...목전에 설한은 닥쳐오나 토굴리에도 식료절핍

【인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미증유의 풍수해로 여지없이 대참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는 드디어 2,300여명의 수많은 이재민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들은 의식주가 모두 궁핍하여 살아갈 길이 묘연하는데 아직은 일기가 더워서 그럭저럭 지나되 앞으로 닥쳐오는 설한의 위협이 박두하게 되니 집이라고는 움집(토굴)이요 먹는 것이라고는 아침에 죽 한끼면 그날의 생활이 족한 터이라 실로 원시적 느낌이 없지 않고 그래도 잘살던 듯 살던 전과 같은 살림살이를 이루자면 죽도록 벌어도 1, 2년 후가 아니면 복구하기가 곤란한 처지다.

### 市場移轉으로 千餘群衆流離

가옥신축의 길이 없어서 심각한 인제읍의 수재

강원도인제군 동원(江原道麟蹄郡)은 금년 수해를 당하여 읍안 500여호가 전부 침수 혹은 유실되어 거주지까지 백사장이 되었으므로 읍을 전부 현재 군청 뒤로 옮기는 중인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완성이 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전부 완공되어 신시가지로 변경되리라는데 한편에서는 빈한한 소치로 집도 신축치 못하고 의지가 없이 부모처자의 손목을 잡고 노상에 방황하며 냉정한 이 세상에 한술 밥을 구하는 동포가 인제군내에만 1천여호에 달하여 방금 대혼잡을 이룬다고 한다. 【춘천】

### 人命死傷百八名 被害總額百萬元 麟蹄風水害總決算

가옥전담도로가축 등 총피해액

【인제】 지난 풍수해로 (7월 18일 이래) 강원도 인제는 300여년 이래 처음 보는 대참사를 이루었는데 그 피해 정보는 날이 갈수록 참혹한 것이 더욱 많이 판명되었다는데 이 참담한 피해를 때를 따라 보도치 못하고 기아선상에서 호곡하는 수많은 이재민에 대하여 무엇보다 궁급한 가운데 있다. 당국의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명=사망자 26 행방불명 2 부상자 8

▲집=유실 387 전폐 105 반폐 145 침수 355

▲논=유실 289정3반 매물 191정3반 침수 89정5반

▲전=유실 627정9반 매물 214정4반 침수 72정4반

▲도로=파손유실 106,524 교량유실파손 83개소

▲제방=파손 5,255간 결괴 4,377간 산붕괴 175개소

풍수해 총결산

집 손해액 255,200원 전담피해액 314,400원 작물피해액 148,900원 도로교량액 189,700원 뽕나무묘포임야액 18,600원 가축피해액 3,500원 기타 피해액 25,114원 총계 955,414원

### 風水災에 咀呪받은 二千餘麟蹄住民

◇...목전에 설한은 닥쳐오나 土窟裏에도食料絶乏

【인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미증유의 풍수해로 여지없이 대참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는 드디어 2,300여명의 수많은 이재민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들은 의식주가 모두 궁핍하여 살아갈 길이 묘연하는데 아직은 일기가 더워서 그럭저럭 지나되 앞으로 닥쳐오는 설한의 위협이 박두하게 되니 집이라고는 움집(토굴)이요 먹는 것이라고는 아침에 죽 한끼면 그날의 생활이 족한 터이라 실로 원시적 느낌이 없지 않고 그래도 잘살던 듯 살던 전과 같은 살림살이를 이루자면 죽도록 벌어도 1, 2년 후가 아니면 복구하기가 곤란한 처지다.

1930-09-16-03-05

### 동아일보

#### 수해에 자식 잃고 자살을 도모, 면소에 인도

【인제】 원적을 경북 의성에 두고 생활난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이리저리 살길을 찾아다니다가 작년 봄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양춘식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홍경숙(45)은 지난 풍수해를 겪고 난 뒤에 오직 하나인 자식이 불의의 운명으로 진흙바다에 휩쓸려 처참한 죽임을 당해버리고 난 뒤에 정 붙일 곳이 없어 양젓물을 먹고 자살하려 하였으나 역시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신음하다가 생명의 위독으로 면당국에 인도되어 구호를 받는다.

水害에失子  
自殺을圖謀  
면소에인도

【인제】 원적은 경북 의성에 두고 생활난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이리저리 살길을 찾다가 작년 봄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양춘식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홍경숙(45)은 지난 풍수해를 겪고 난 뒤에 오직 하나인 자식이 불의의 운명으로 진흙바다에 휩쓸려 처참한 죽임을 당해버리고 난 뒤에 정 붙일 곳이 없어 양젓물을 먹고 자살하려 하였으나 역시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신음하다가 생명의 위독으로 면당국에 인도되어 구호를 받는다.

1930-09-16-03-06

### 동아일보

#### 인제 면세액 천여원 거액

【인제】 지난번 미증유의 풍수재를 치르고 난 강원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가옥 전답의 유실 매몰이 엄청난 숫자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한 본년 제2기분의 지세 및 호세에 감할 것과 또는 면제될 것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도당국에 신청하였는데 전 면세액이 1,131원87전이라 한다.

면별	지세면액(전)	호세면액(전)
인제	150.46	52.40
남	47.63	21.71
북	126.65	118.40
서화	281.80	214.58
기린	100.31	11.78
내	4.66	1.57
계	1,131.87	

麟蹄免稅額  
천여원 거액

【인제】 지난번 미증유의 풍수재를 치르고 난 강원도 인제군(麟蹄)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가옥 전답의 유실 매몰이 엄청난 숫자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한 본년 제2기분의 지세 및 호세에 감할 것과 또는 면제될 것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도당국에 신청하였는데 전 면세액이 1,131원87전이라 한다.

計	內	麟	蹄	免	稅	額
南	北	瑞	麟	和	麟	蹄
四	二	二	二	二	二	二
七	六	六	六	六	六	六
六	七	五	五	五	五	五
三	一	〇	〇	〇	〇	〇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三	一	一	一	一	一	一
八	七	八	八	八	八	八
七	六	六	六	六	六	六
七	六	六	六	六	六	六

1930-09-16-03-06

### 동아일보

#### 인제 특산 송이, 표고버섯, 배 등 연액산! 70만원 내외

【인제】 강원도 인제는 모든 산물이 풍부하네 그 중 인제배는 명산물의 하나로써 이미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두게 되었다. 또한 설악산에서 나는 송이, 표고버섯 같은 것은 멀리 일본에까지 수출되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천산물의 산출액이 매년 30만원에 달한다는데 당국에서도 이를 장려하는 가운데 각방면으로 판로를 주선 중이다. 요즘 본군 각시장에서는 배와 송이의 매개로 대혼잡을 이루는데 이로써 우리 농촌에 유일의 생계가 되어있다.

麟蹄特産  
年額産七十萬圓内外

【인제】 강원도 인제는 모든 산물이 풍부하네 그 중 인제배는 명산물의 하나로써 이미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두게 되었다. 또한 설악산에서 나는 송이, 표고버섯 같은 것은 멀리 일본에까지 수출되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천산물의 산출액이 매년 30만원에 달한다는데 당국에서도 이를 장려하는 가운데 각방면으로 판로를 주선 중이다. 요즘 본군 각시장에서는 배와 송이의 매개로 대혼잡을 이루는데 이로써 우리 농촌에 유일의 생계가 되어있다.

1930-09-16-03-06

### 동아일보

#### 파괴된 주요 선로 복구공사 착수, 현재는 교통이 극도로 불편

【인제】 지난 풍수해로 강원도 인제를 중심으로 한 각 주요선로는 거의 전부 파괴되고 겨우 인제 흥천간 도로만 다행히 존재되어 본군 유일의 교통기관을 삼고있다.(이것도 완전치 못해 10여리는 도보로) 이제 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2등도로 즉 인제 춘천간, 인제 간성간 이 선로는 하도 엄청나게 파괴되어 언제나 복구될는지 알수 없다 하며 그 중 인제 간성간의 도로는 인제 양양간의 통할 길과 비교 측량하여 경비를 적게 요하는 편을 착수하리라는데 이것도 금년 안으로는 될지가 의문이라는데 우선 인제 관대간 2등도로만은 2만원의 국고보조로 수일 전에 낙착되어 곧 공사에 착수를 보리라는데 가뜩이나 교통 불편한 인제에 있어 몇십년 전 옛날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1930-09-16-03-07

### 동아일보

#### 인제

【인제】 풍양의 가을은 가까워왔다. 강원도 인제군이 금년 농황을 들은 것에 의하면 지난번 수해로 전답 1,100여 정보의 피해지가 있어서 이만한 정보의 감수는 면치 못할 것이나 대체로 보아 벼농사는 평년작보다 약 10% 가량 증수되리라는데 금년 농사나 잘되어야 돈푼이나 만져보리라는 데 앞으로 10여일만 일기가 순조하면 염려없으리라는데 설상가상으로 줄연히 기후가 차서 일반은 매우 우려중이다.

1930-09-16-03-10

### 동아일보

#### 재민 구제 공사 인제군에서

【인제】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2,300여명의 이재민에 대한 구제 방침을 여러 가지로 수립하는 중에 있다는데 우선 제일착으로 인제 관대간 2등도도를 개수하는데 이로써 사선에서 방황하는 이재민을 사용하여 살길을 얻어주리라 한다.

1930-09-17-03-06

### 매일신보

#### 강원도 주세 각군별 통계

【춘천】 강원도민은 얼마나 술을 먹는가? 이것을 1930년도 7월말 현재 강원도 주세액으로써 짐작해보기로 하면 각군별로 좌와 같다. 춘천 30,040 인제 14,460 양구 16,244 회양 37,812 통천 37,814 (중략)

**破壞된主要線路 復舊工事着手**  
현재는 교통이 극도로 불편

【인제】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2,300여명의 이재민에 대한 구제 방침을 여러 가지로 수립하는 중에 있다는데 우선 제일착으로 인제 관대간 2등도도를 개수하는데 이로써 사선에서 방황하는 이재민을 사용하여 살길을 얻어주리라 한다.

**隣路** 【인제】 풍양(豊陽)의 가을은 가까워왔다. 강원도 인제군이 금년 농황을 들은 것에 의하면 지난번 수해로 전답 1,100여 정보의 피해지가 있어서 이만한 정보의 감수는 면치 못할 것이나 대체로 보아 벼농사는 평년작보다 약 10% 가량 증수되리라는데 금년 농사나 잘되어야 돈푼이나 만져보리라는 데 앞으로 10여일만 일기가 순조하면 염려없으리라는데 설상가상으로 줄연히 기후가 차서 일반은 매우 우려중이다.

**災民救濟工事**  
인제군에서

【인제】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2,300여명의 이재민에 대한 구제 방침을 여러 가지로 수립하는 중에 있다는데 우선 제일착으로 인제 관대간 2등도도를 개수하는데 이로써 사선에서 방황하는 이재민을 사용하여 살길을 얻어주리라 한다.

**江原道酒稅 各郡別統計**

【春川】江原道民은 얼마나 술을 먹는가? 이것을 1930년도 7월말 현재 강원도 주세액으로써 짐작해보기로 하면 각군별로 좌와 같다. 춘천 30,040 인제 14,460 양구 16,244 회양 37,812 통천 37,814 (중략)

春川	三〇、〇四〇	襄陽	三七、八二二
通川	三七、八二二	高城	二二、四四四
襄陽	三七、八二二	江陵	四一、〇〇〇
江陵	四一、〇〇〇	平康	二二、三三三
平康	二二、三三三	寧越	一四、六六六
寧越	一四、六六六	原州	九八、二二二
原州	九八、二二二	華川	一四、六六六
華川	一四、六六六	金化	三三、三三三
金化	三三、三三三	鐵原	三六、二二二
鐵原	三六、二二二	平康	二二、四四四
平康	二二、四四四	伊川	四二、九九九
伊川	四二、九九九	計	五七、七九九

1930-09-17-03-09

### 동아일보

#### 식염이 절핍

【인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강원도 인제는 풍수해로 도로가 전부 파괴되어 교통이 극히 불편한 반면에 생활상 없지 못할 소금(염)이 인제 각시장에 나지 않아 일반생활에 막대한 지장이라 한다.

1930-09-19-03-05

### 동아일보

#### 숙부모 공모 조카를 타살, 제 딸 부정행위 한 것을 알린다고 간통한 사나이와 공모하고 타살, 인제서에서 취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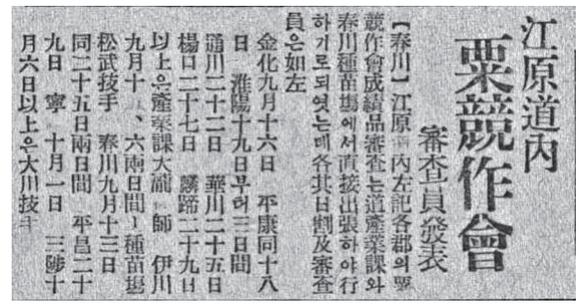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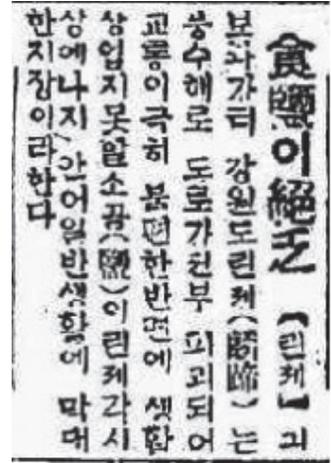
【인제】 지난 15일에 강원도 인제경찰서 이 사법주의의 손에 삼촌이 조카를 때려 죽였다는 상해치사의 죄명으로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는 사건이 있었다. 인제군 기린면 복리 김기봉의 만딸 윤옥(15)은 동리 송원철(20)과 남의 눈을 속여가며 사랑을 속삭여왔는데 이를 전기 김기봉의 조카 김준복(20)이 알고 자기 삼촌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시켰는데 사건의 관계자 송원철이가 김기봉의 처 김기준(36)을 찌어 김준복을 살해할 목적으로 지난 8월 12일 오전 2시경에 김기봉 김기준 손윤명 정영자 송원철 등 5인이 작당하여 전기 주소 앞 강변에 김준복을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길로 때리고 차며 돌려쳐서 죽여버린 나머지 이 사실이 발각될까 하여 목에 줄을 매어 김기봉의 집에 끌고 가서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해놓고 그 이튿날 사건의 관계자 송원철이는 멀리 종적을 감춰버렸다 한달여가 지난 오늘에 이르러 사실이 발각되어 인제서 사법계의 활동으로 전기 김기준을 혐의자로 엄중 취조중인데 직접 사건의 관계자 송원철이가 종적이 묘연하므로 사건의 진상을 취조하는데 곤란이 막대하다는데 방금 수배 중에 있다고 한다.

1930-09-19-06-03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곡물 경작회 심사원 발표

【춘천】 강원도내 좌기 각군의 곡물경작회 성적품 심사는 도 산업과와 춘천 종묘장에서 직접 출장하여 행하기로 되었는데 각기 일정 및 심사원은 좌와 같음  
김화 9월 16일 평강 18일 회양 19일부터 3일간 통천 22일 화천 25일 양구 27일 인제 29일 이상은 산업과 대농 기사  
이천 9월 15, 16 양일간 종묘장 송무 기사  
춘천 9월 13일, 25일 양일간 평창 29일 영월 10월 1일 삼척 10월 6일 이상은 대천 기사



1930-09-20-03-03

### 동아일보

#### 목재 무상 배급

【인제】 강원도 인제의 2,300여명의 이재민은 의식주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풍찬노숙으로 그날그날을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그 참경은 본보에 누차 보도한 것이거니와 이들의 장래가 극히 위경에 빠졌으므로 당국에서도 크게 우려 중에 있는데 우선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춘천영림서와 타협한 결과 인제면 합강리 물안골에 있는 국유림에서 목재 5천그루를 배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시켜 집을 짓게 하는 중이며 인제면당국에서는 먼 기본재산에서 300원을 지출하여 목재 40간을 지어 의지 없는 이재민을 수용하리라 한다.

1930-09-20-03-03

### 동아일보

#### 산돼지의 피해

【인제】 요즘은 강원도 인제지방에는 난데없는 산돼지가 밤낮없이 많이 나타나 이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적지 않다.

1930-09-20-04-01

### 중외일보

#### 춘천군내에 걸인이 격증! 거리 다니는 행상인도 붙어, 금년 수재로 인하여

강원도 춘천은 본시 빈군으로 대부분은 화전에 목을 매고 근근이 연명하여가는 사람이 적지않은 중 금년은 유독 전에 없던 수해로 인하여 평년보다 더욱 생활의 길이 막연하여 산목숨 죽지 못하고 한 때라도 주린 배를 채워보려고 쓰라린 가슴을 움켜지고 뿔뿔전전으로 각색 장시를 다하는 중 가장 떡장수, 채소장수가 심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시내 골목골목에 서로 먼저 팔아보겠다고 일대 혼잡을 이루는데 그중에 걸식군도 전에 배 이상이 증가되어 어떤 집 문전에는 3, 4인씩 모여 한줌 밥을 구하나 본 체도 앓고 도리어 뭐라 하며 ●●●●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걸인 중에도 이상한 걸인은 밥을 구하는데도 경험 없이 고개만 숙이고 앉아서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발등에 흘려가며 왼손 손에는 헤어진 신 한짝을 들고 오른편 손에는 밥바가지와 어린 아이를 안고 고개를 싸운다. 지나가던 기자는 하도 이상하여 대강 사정을 묻게 되었다. 이 사람은 본적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둔 김춘식 처 정씨 금년 27세의 아리따운 용모 가진 부인인데 금년 수해를 당하여 남편은 수중고혼이 되고 집까지 유실을 당하여 연만한 시부모와 세살된 남자와 1928년 출생인 어린이 하나와 도무지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친척의 동정을 받기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있으므로 생각다 못하여 연만한 시부모를 고별하고 천진스러운 어린이 이틀만 데리고 정깊은 고향을 떠나 한발두발 길에서 걸식을 하여 약 20일만에 춘천을 왔으나 고독단신으로서 사고무친한 곳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다시 떨어진 육신을 끌고 춘천시내로 거닐고 있으나 냉대하여 세상에 누가 한술 밥을 동정하리요. 먹다 남은 밥개는 줄지라도 (판독불능) 세상이라. 다만 실낱같은 목숨을 이어본다고 노상에서 방황하며 이와 같이 한술 밥을 빌려 다닌다고 한다. 【춘천】

**茶**  
사예 패쇄해  
가거정거라  
**教育機關**  
木材無償配給

【인제】 강원도 인제의 2,300여명의 이재민은 의식주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풍찬노숙으로 그날그날을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그 참경은 본보에 누차 보도한 것이거니와 이들의 장래가 극히 위경에 빠졌으므로 당국에서도 크게 우려 중에 있는데 우선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춘천영림서와 타협한 결과 인제면 합강리 물안골에 있는 국유림에서 목재 5천그루를 배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시켜 집을 짓게 하는 중이며 인제면당국에서는 먼 기본재산에서 300원을 지출하여 목재 40간을 지어 의지 없는 이재민을 수용하리라 한다.

**山猪의被害**  
지용 강원도 인제(麟蹄) 지방에  
는 난데없는 산돼지가 밤낮없이  
시내 골목골목에 서로 먼저 팔아보겠다고  
일대 혼잡을 이루는데 그중에 걸식군도  
전에 배 이상이 증가되어 어떤 집 문전에는  
3, 4인씩 모여 한줌 밥을 구하나 본 체도 앓고  
도리어 뭐라 하며 ●●●●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걸인 중에도 이상한 걸인은 밥을 구하는데도  
경험 없이 고개만 숙이고 앉아서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발등에 흘려가며 왼손 손에는 헤어진  
신 한짝을 들고 오른편 손에는 밥바가지와 어린  
아이를 안고 고개를 싸운다. 지나가던 기자는  
하도 이상하여 대강 사정을 묻게 되었다. 이  
사람은 본적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둔 김  
춘식 처 정씨 금년 27세의 아리따운 용모 가진  
부인인데 금년 수해를 당하여 남편은 수중고혼이  
되고 집까지 유실을 당하여 연만한 시부모와  
세살된 남자와 1928년 출생인 어린이 하나와  
도무지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친척의 동정을  
받기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있으므로 생각다 못하여 연만한 시부모를  
고별하고 천진스러운 어린이 이틀만 데리고  
정깊은 고향을 떠나 한발두발 길에서 걸식을  
하여 약 20일만에 춘천을 왔으나 고독단신  
으로서 사고무친한 곳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다시 떨어진 육신을 끌고 춘천시내로 거닐고  
있으나 냉대하여 세상에 누가 한술 밥을  
동정하리요. 먹다 남은 밥개는 줄지라도  
(판독불능) 세상이라. 다만 실낱같은 목숨을  
이어본다고 노상에서 방황하며 이와 같이  
한술 밥을 빌려 다닌다고 한다. 【춘천】

**春川郡內에  
乞入이激增!**  
거미다니는 행상인도 붙어  
今年水災로因하여

강원도 춘천은 본시 빈군으로 대부분은 화전에 목을 매고 근근이 연명하여가는 사람이 적지않은 중 금년은 유독 전에 없던 수해로 인하여 평년보다 더욱 생활의 길이 막연하여 산목숨 죽지 못하고 한 때라도 주린 배를 채워보려고 쓰라린 가슴을 움켜지고 뿔뿔전전으로 각색 장시를 다하는 중 가장 떡장수, 채소장수가 심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시내 골목골목에 서로 먼저 팔아보겠다고 일대 혼잡을 이루는데 그중에 걸식군도 전에 배 이상이 증가되어 어떤 집 문전에는 3, 4인씩 모여 한줌 밥을 구하나 본 체도 앓고 도리어 뭐라 하며 ●●●●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걸인 중에도 이상한 걸인은 밥을 구하는데도 경험 없이 고개만 숙이고 앉아서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발등에 흘려가며 왼손 손에는 헤어진 신 한짝을 들고 오른편 손에는 밥바가지와 어린 아이를 안고 고개를 싸운다. 지나가던 기자는 하도 이상하여 대강 사정을 묻게 되었다. 이 사람은 본적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둔 김춘식 처 정씨 금년 27세의 아리따운 용모 가진 부인인데 금년 수해를 당하여 남편은 수중고혼이 되고 집까지 유실을 당하여 연만한 시부모와 세살된 남자와 1928년 출생인 어린이 하나와 도무지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친척의 동정을 받기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있으므로 생각다 못하여 연만한 시부모를 고별하고 천진스러운 어린이 이틀만 데리고 정깊은 고향을 떠나 한발두발 길에서 걸식을 하여 약 20일만에 춘천을 왔으나 고독단신으로서 사고무친한 곳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다시 떨어진 육신을 끌고 춘천시내로 거닐고 있으나 냉대하여 세상에 누가 한술 밥을 동정하리요. 먹다 남은 밥개는 줄지라도 (판독불능) 세상이라. 다만 실낱같은 목숨을 이어본다고 노상에서 방황하며 이와 같이 한술 밥을 빌려 다닌다고 한다. 【춘천】

1930-09-21-06-04

### 동아일보

#### 하천 정리 착수 국고보조로서

【인제】 270년 이래 처음 보는 대수재를 치른 강원도 인제는 말할 수 없는 참경에 빠졌는데 군당국에서는 각 방면에 걸쳐 재해복구에 관한 구제책 계획을 세우는 터인데 특히 황폐한 전지와 사막을 이룬 하천에 대하여는 당지 주민의 제방과 호안 공사의 열망이 깊어가는 것인데 이제 본군 김군수의 말에 의하면 빈약한 지방비를 가지고는 업무조차 나지 않으므로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게까지 되어 그 실상을 도당국에 말하였는데 다행히 3천원이라는 국고 보조를 어느 정도까지의 비공식적 인가를 얻었으므로 제방은 문제밖이지만 하천 정리를 우선 본군 원통리 뒷강 한계천에 공사를 착수코자 지금 그 설계를 급속히 진행 중이라 한다.



1930-09-22-03-08

### 매일신보

#### 강원도 수해구제금 분배 방법을 결정 2만원은 도외에서 모집

【춘천】 저번 조성된 강원도수해구제회에서 구제금 20만원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각군별 할당방법을 도당국에 의뢰하였다 함은 그 때 보도하였는데 도당국에서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겨우 아래 금액의 할당을 좌와 같이 결정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건대 15만원만을 도내 민간층으로부터 모집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약1만원을 도내 각관공서로부터, 2만원은 도내 각종 소속 법정단 및 단체로부터, 최후의 2만원은 도외로부터의 동정금에 기대로 걸기로 하였는데 각군의 할당방법은 그군의 지세 및 호세액과 농작물 및 어업 손해액 등을 참작하여 가장 공평히 하였다 한다.

군명	금액	군명	금액
춘천	9,900원	삼척	4,600원
인제	2,700원	울진	4,700원
중략			
계 150,000원			



1930-09-23-04-07

### 중외일보

## 전강원도내 수해제제비 할당, 전액 20만원으로 15만원을 민간에서 모집

금번 비롯된 강원도수해구제회에서 구제금 20만원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각 군 할당방침을 도 당국에 의뢰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도당국에서 요즈음에 이르러서 겨우 각군의 활동을 좌같이 결정하였다함에 의하건대 15만원만을 도내 민간측으로부터 모집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약 1만원을 도내 각 관공서로부터, 2만원은 도내 각 단체로부터 최후의 2만원은 도외로부터의 동정금에 기대하기로 하였는데 각 군에서 할당방침을 그 군의 군세 및 호세수와 농작물 및 어획 피해액을 참작하여 가장 공평히 하였다고 한다. 【춘천】

군명	금액(원)
춘천	9,900
인제	2,700

1930-09-24-03-05

### 동아일보

## 국유림 불하하여 화전민 정리 한곳에 모아 살도록 하여 인제군의 적극 방침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산간벽지에는 1만2천여명의 다수 화전민들이 살고 있어서 무시로 산림에 불을 지르고 밭을 많이 갈아먹을뿐더러 그네들의 생활이 매우 처참하다 하여 항상 사회문제가 되어있다는 것은 거듭 보도한 것이거니와 당국에서는 이들을 구제코자 여러 가지 방침을 하여 보았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인제군수 김극일씨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정하고 화전민 근본 정리에 착수하리라는데 본군 남면과 북면의 국유림 500여 정보를 불하하여 그곳에 흩어져있는 화전민을 화전지경의 옛날 생업 방식을 버리고 한곳에 집단시켜 살게 한다는데 그리하여 산간에 불을 질러서 천연림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요 그 생활도 다소 향상될듯하다 한다.

1930-09-24-03-08

### 동아일보

## 생도 막연한 인제 이재민 닥쳐오는 엄동을 어찌해 의복과 가옥 없어 걱정

【인제】 어느 때 어느 곳을 물론하고 가난한 백성의 살림살이야 무어라 말할 수 없겠지만 미증유의 대수재로 살던 집 입을 옷을 모조리 떠나려 보내고 풍찬노숙의 눈물겨운 생활을 하는 강원도 인제의 수많은 이재민의 참담한 정경은 본보에 거듭 보도한 것과 같이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벌써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골수에 사무치는 이래 한 벌의 남루한 배옷도 변변히 걸치지 못하고 이 가을을 지내고 머지않아 쌓이게 될 눈 가운데 굴러야할 운명에 빠졌다. 이들은 지방유지의 뜨거운 동정과 당국의 구조를 받아 이때까지 잔명을 이어왔는데 이것조차 끊어지게 되어 2,300여명의 생도는 암담하게 되었다. 돈을 빌리려 하여도 논밭 없다고 주지 않아 유랑의 길도 떠날 수 없게 되었다는데 지금도 지금이러니와 장래가 극히 주목된다.

### 全江原道內 水害濟濟費割當

全額二十萬圓으로 十五萬圓을民間에서募集

郡名	割當額
春川	10,000
襄陽	8,000
原州	7,000
高城	6,000
江陵	5,000
南浦	4,000
洪川	3,000
新川	2,000
伊川	1,000

### 國有林拂下하여 火田民整理

한곳에 모아 살도록 하여 麟蹄郡의 積極方針

【麟蹄】 국유림 불하하여 화전민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침을 취하고 있다. 본군 산간벽지에 흩어져 있는 화전민을 한곳에 집단시켜 살게 하려는 방침이다. 국유림 500여 정보를 불하하여 화전민을 집단시키려는 것이다. 이 방침은 화전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산간벽지의 자연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 生途漠然한 麟蹄罹災民

닥쳐오는 엄동을 어찌해 衣服과 家屋 皆 걱정

【麟蹄】 인제도 인제군에 이어 강원도 인제군에 이어 생도 막연한 인제 이재민 닥쳐오는 엄동을 어찌해 의복과 가옥 없어 걱정. 생도 막연한 인제 이재민 닥쳐오는 엄동을 어찌해 의복과 가옥 없어 걱정. 생도 막연한 인제 이재민 닥쳐오는 엄동을 어찌해 의복과 가옥 없어 걱정.

1930-09-24-03-12

### 동아일보

#### 인제유치원 이사회

지난20일 이성흠 집에서 개최

1930-09-24-06-03

### 매일신보

#### 미증유의 풍수해로 강원도의 면세액 납세할 수 없는 사람이 9천여 명 금액은 2만2천여원

【춘천】 전고 미증유의 풍수해를 입은 강원도의 손해는 약2천만원을 헤아린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전답을 유실하고 납세에 곤란 막심한 도민들이 무려 9천300여명인데 이들에게 대하여는 도당국으로부터 응분의 지세 면제를 단행키로 하였다는데 각군의 지세 면제 상황은 좌와 같다.

군명	면적(정)	세액(원)	인원(인)
춘천	96	397	381
인제	699	3,717	972

(중략)

1930-09-26-04-01

### 중외일보

#### 생도 막연한 수해 이재민 인제군하에 2천300여명

어느 때 어느 곳을 물론하고 가난한 백성의 살림살이야 무어라 말할 수 없겠지만 미증유의 대수재로 살던 집 입던 옷을 모조리 떠내려 보내고 풍찬노숙의 눈물겨운 생활을 하는 강원도 인제의 수많은 이재민이 참담한 정경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벌써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골수에 사무치는 이 때 한 벌의 남루한 배옷도 변변히 걸치지 못하고 이 가을을 지내고 오래지않아 쌓이게 될 눈 가운데 굴러야 할 운명에 빠졌다. 이들은 지방유지의 뜨거운 동저오가 당국의 구조를 받아 이때까지 잔명을 이어왔는데 이것조차 끊어지게 되어 2천300여명의 생도는 암담하게 되었다. 돈을 빌려라 해도 논밭 없다고 주지않아 유랑의 길도 떠날 수 없게 되었다는데 지금도 지금이려니와 장래가 극히 주목된다. 【인제】

1930-09-28-04-02

### 중외일보

#### 강원 인제군 화전민 정리 계획 1만2천여명의 화전민을 한곳에 다 모은다고

강원도 인제군의 산간벽지에는 1만2,000여명의 다수 화전민들이 살고 있어서 무시로 산림에 불을 지르고 밭을 많이 갈아먹을뿐더러 그네들의 생활이 매우 처참하다하여 항상 사회문제가 되어있다는 것은 누차 보도한 것이거니와 당국에서는 이들을 구제코자 여러 가지 방침을 하여보았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인제군수 김극일씨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정하고 화전민 근본 정리에 착수하리라는데 인제군 남면과 북면의 국유림 500여 정보를 불하하여 그곳에 흩어져있는 화전민을 화전기경의 옛날 생업 방식을 버리고 한곳에서 집단시켜 살게 한단는데 그리하여 간간에 불을 질러서 천연림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요 그 생활도 다소 향상될 듯하다 한다. 【인제】



未曾有的風水害로  
江原道의免稅額  
납세할수없는사람이구천여명  
金額은二萬二千餘圓

郡名	面積	稅額	人員
襄陽	2,800	1,200	1,500
江陵	1,500	800	1,200
寧越	1,000	500	800
春川	1,200	600	1,000
南浦	800	400	600
高城	1,100	550	900
鐵原	1,300	650	1,100
橫濱	1,400	700	1,200
新州	1,600	750	1,300
茂山	1,700	800	1,400
南浦	1,800	850	1,500
春川	1,900	900	1,600
南浦	2,000	950	1,700
高城	2,100	1,000	1,800
鐵原	2,200	1,050	1,900
橫濱	2,300	1,100	2,000
新州	2,400	1,150	2,100
茂山	2,500	1,200	2,200
南浦	2,600	1,250	2,300
春川	2,700	1,300	2,400
南浦	2,800	1,350	2,500
高城	2,900	1,400	2,600
鐵原	3,000	1,450	2,700
橫濱	3,100	1,500	2,800
新州	3,200	1,550	2,900
茂山	3,300	1,600	3,000
南浦	3,400	1,650	3,100
春川	3,500	1,700	3,200
南浦	3,600	1,750	3,300
高城	3,700	1,800	3,400
鐵原	3,800	1,850	3,500
橫濱	3,900	1,900	3,600
新州	4,000	1,950	3,700
茂山	4,100	2,000	3,800
南浦	4,200	2,050	3,900
春川	4,300	2,100	4,000
南浦	4,400	2,150	4,100
高城	4,500	2,200	4,200
鐵原	4,600	2,250	4,300
橫濱	4,700	2,300	4,400
新州	4,800	2,350	4,500
茂山	4,900	2,400	4,600
南浦	5,000	2,450	4,700

(以上江原道稅務課圖表)

生途漠然한  
水害罹災民  
麟蹄郡下에二千三百餘名

이재민 2천300여명 물론하고 가난한 백성의 살림살이야 무어라 말할 수 없겠지만 미증유의 대수재로 살던 집 입던 옷을 모조리 떠내려 보내고 풍찬노숙의 눈물겨운 생활을 하는 강원도 인제의 수많은 이재민이 참담한 정경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벌써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골수에 사무치는 이 때 한 벌의 남루한 배옷도 변변히 걸치지 못하고 이 가을을 지내고 오래지않아 쌓이게 될 눈 가운데 굴러야 할 운명에 빠졌다. 이들은 지방유지의 뜨거운 동저오가 당국의 구조를 받아 이때까지 잔명을 이어왔는데 이것조차 끊어지게 되어 2천300여명의 생도는 암담하게 되었다. 돈을 빌려라 해도 논밭 없다고 주지않아 유랑의 길도 떠날 수 없게 되었다는데 지금도 지금이려니와 장래가 극히 주목된다. 【인제】

江原麟蹄郡  
火田民整理計劃

일만이천여명의화전민을  
한곳에다모으는다고

강원도 인제(麟蹄)군의 산간벽지에는 1만2천여명의 다수 화전민들이 살고 있어서 무시로 산림에 불을 지르고 밭을 많이 갈아먹을뿐더러 그네들의 생활이 매우 처참하다하여 항상 사회문제가 되어있다는 것은 누차 보도한 것이거니와 당국에서는 이들을 구제코자 여러 가지 방침을 하여보았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인제군수 김극일씨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정하고 화전민 근본 정리에 착수하리라는데 인제군 남면과 북면의 국유림 500여 정보를 불하하여 그곳에 흩어져있는 화전민을 화전기경의 옛날 생업 방식을 버리고 한곳에서 집단시켜 살게 한단데 그리하여 간간에 불을 질러서 천연림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요 그 생활도 다소 향상될 듯하다 한다. 【인제】

1930-09-29-03-12

### 동아일보

#### 사고

본지국사무소를 좌기처럼 이전하였사오니 애독자 제위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읍내 상동리 197  
 동아일보사 인제지국

1930-09-30-07-07

### 동아일보

#### 인제유치원에 금 100원을 기부

【인제】 강원도 인제읍에 있는 인제유치원은 1928년 4월에 창립한 이래 다수의 영재를 보육하여 실로 인제육영사업에 적지 않은 공헌이 있었다. 그러나 경비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졌음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금번 신학기에 이르러는 동 유치원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경각의 위태를 당하게 되었는데 지난 22일에 동 유치원 이사회를 이성흥씨의 맥에서 개최하고 여러 가지 유지 방침을 토의하자 원장 조경훈씨의 어떠한 사정으로 사임의 뜻을 말하자 동리 사회에서 권고하여 다시 일을 보게되는 동시에 써는 금 100원을 의연하기로 되었는데 이로써 인제유치원에서는 서광이 비쳤다 한다.

1930-10-02-07-07

### 동아일보

#### 수해에 전멸당코 인제읍은 이전 높은 곳으로 읍을 옮기기로 주택 건축에 분망 중

【인제】 기보=강원도 인제는 지난번 홍수로 여지없이 전멸을 당한 후 읍을 높은 곳으로 이전키로 결정된 이래 시가를 정돈하고 방금 가옥 건축에 분망 중이며 인제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총공비 700여 원으로 지난 27일에 낙찰되어 곧 공사에 착수를 보리라는데 임시면 사무소는 인제공립보통학교 잠업실이라 한다.

1930-10-02-07-07

### 동아일보

#### 원시촌락 물물 교환으로 생활비 4전, 세금도 안내는 화전민 ◇인제에 200호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에서는 몇십년이 되도록 지세, 호세를 바쳐 본적이 없는 집을 금번 제2기에 200호나 발견하였다는데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깊은 산중에서 화전을 갈아 먹으며 아직까지 돈구경을 못하고 물물교환을 하여 살아왔다. 생활 상태를 보면 가장 유역한 사람이라야 소나 있고 감자섬이나 있으며 하루 생활비가 넉넉한 가정치고 한 사람에게 실로 4전가량이라 하며 아직까지 호적이 없다. 본군을 통하여 철저한 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또 나타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本支局事務所在記處移轉時  
 請將左記處移轉時  
 麟蹄郡邑內上  
 東里一九七  
 東亞日報麟蹄支局

麟蹄幼稚園  
 金巨圖(金寄附)  
 麟蹄幼稚園(麟蹄)의  
 金巨圖(金寄附)의  
 麟蹄幼稚園(麟蹄)의  
 金巨圖(金寄附)의  
 麟蹄幼稚園(麟蹄)의  
 金巨圖(金寄附)의  
 麟蹄幼稚園(麟蹄)의  
 金巨圖(金寄附)의  
 麟蹄幼稚園(麟蹄)의  
 金巨圖(金寄附)의

水害에 全滅當코  
 麟蹄邑은 移轉  
 家屋建築에 奔忙中  
 麟蹄邑은 移轉  
 家屋建築에 奔忙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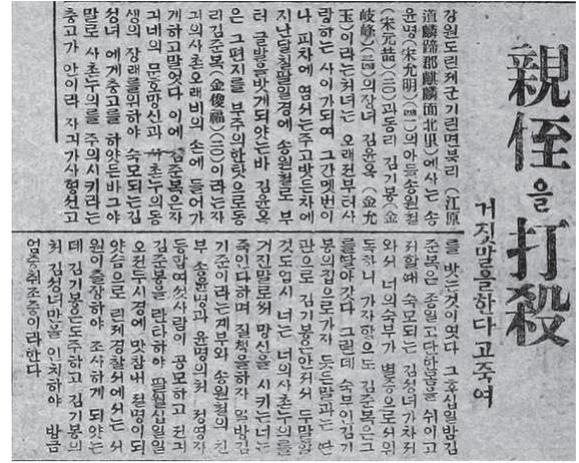
落村始原  
 生活費四錢  
 物物交換으로  
 生活費四錢  
 物物交換으로

1930-10-04-02-09

### 중외일보

#### 친조카를 타살 거짓말을 한다고 죽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에 사는 송윤명(41)의 아들 송원철(20)과 동리 김기봉(34)의 장녀 김윤옥 이라는 처녀는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그간 몇 번이나 피차에 얽서는 주고받던 차에 지난달 7, 8일경에 송원철로부터 글발을 받게되었는데 김윤옥은 그 편지를 부주의한 탓으로 동리 김준복(20)이라는 자기 사촌오빠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말았다. 이에 김준복은 자기네의 문호 망신과 사촌누이동생의 장래를 위하여 숙모되는 김성녀에게 충고를 하였는데 그야말로 사촌누이의 주의시키라는 충고가 아니라 자기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었다. 그후 10일 밤 김준복은 종일 고단한 몸을 쉬고자 할 때 숙모되는 김성녀가 찾아와서 너의 숙부가 별증으로서 위독하니 가지하므로 김준복은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숙부인 김기봉의 집으로 가자 들던 말과는 판관으로 김기봉은 앉아서 두말할 것도 없이 너는 너의 사촌누이를 거짓말로써 망신을 시키는 너는 죽인다 하며 질책을 하자 한편 김기준이라는 계부와 송원철의 친부 송윤명과 윤명의 처 정영자 등 합 여섯사람이 공모하고 전기 김준복을 난타하여 8월 11일 오전 2시경에 마침내 절명이 되었으므로 인제경찰서에서는 서원이 출장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 김기봉은 도주하고 김기봉의 처 김성녀만을 인치하여 방금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1930-10-04-03-01

### 매일신보

#### 기업가가 수연하는 강원도의 수전자원, 목하 출원중인 3개 회사와 투자만이 근1억원

【춘천】 강원도를 가리켜「내어버린 산투성이의 땅덩어리」라고 처치에 곤란한 듯이 백안시하던 것은 옛날이야기고 이제야 모든 산업의 자원이 풍부한 중에서도 더욱 수력전기의 자원이 풍부한 것과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현재 서울방면에 수만 「와트」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금강산수전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며 그 위에 새로이 남부지방인 정선군 임계면의 수전자원을 필두로 중부지방인 인제군하의 전원, 북부지방인 함남도경의 전원 등은 현재 일본 일류의 전기사업가들이 쟁선하여 그 이권을 획득하고자 경원중에 있는데 여기 대하여 강원도 길전 보안과장은 일체 함구하고 말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상기한 세 곳의 전원 개발에 투자될 자금은 실로 7, 8천만원 내지 근 1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전력은 통틀어 50만, 60만kw를 발전케 될 모양이라는데 이것들이 실현되는 날에는 조선의 전기계에 획시기적 신기록을 지을 것이라 한다.



1930-10-04-03-05

### 매일신보

## 전력 공급 범위는 전조선에 미칠터 남선 일대는 물론 북으로 평남까지

【춘천】 강원도의 풍부한 수전자원의 개발에 일류 전기사업가들이 앞을 다투어 출원 중이라 함은 상기한 것이거니와 부분적으로 약간 탐문한 것을 보도하건대 정선군 임계면의 고산지대의 하수를 이용하여 수만 마력의 수전을 발전코자 일본의 모찌 외 여러명이 그 이권 획득을 경쟁중인데 그 자본금은 약4,500만원을 산하며 이 전력은 전연 남선일대의 화학공업에 공급할 계획이라 하며 인제군 및 함남도계의 전원 개발을 출원한 이도 역시 일본 일류전기사업가 모모라는데 경기, 황해 및 평남의 3도에는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 하며 자본금 역시 4,5천만원 아래는 아닐 듯하다고 한다.

1930-10-04-07-07

### 동아일보

## 추건 1관 대금 증가에도 부족, 가을 미덥던 것도 헛되어 인제 잠업가 대타격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해마다 잠업이 성행하여 곡물을 경작 할만한 좋은 토지에도 뽕나무를 재배하여 유일한 생계를 삼았는데 불행히 올해는 건가가 너무도 저렴하여 추건 판매시에도 일반의 불평과 따라서 상수를 뽑아내느니 곡식을 가느니 하다가 행여나 하고 민기를 추건은 재미있으리라 생각하고 잠중 분배시에는 예년에 비하여 다수 분배를 받아 애를 쓰고 길렀는데 특등 1원38전이라는 험가로 할 수 없이 팔게 되었는데 잠중대에도 부족하므로 일반 양잠가에서는 대타격이라 한다.

1930-10-04-07-09

### 동아일보

## 실직 노동자 인제로 몰려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많아 군당국에서 두통 중

【인제】 요즘 강원도 인제를 중심으로 각지 노동자가 물 밀리듯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으나 1개월에 약 100명 이상에 달하여 겨우 2개월 동안에 벌써 200여명 이상을 헤이리라고 관측되는데 이들은 불경기 바람 때문에 그나마 노동할 일자리를 알게되어 지난번 흉수로 인제가 전멸되고 다시 읍 시가를 이전하여 가옥 건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행여나 벌이나 있을까 하고 이같이 들어온 것이라는데 그중에는 일본인 노동자도 있는데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인제군 이재민도 그 생도가 막연한데 타지방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걱정이라 하여 그 대책을 강구중이라 한다.

電力供給範圍는  
全朝鮮에 미칠터  
南鮮一帶는勿論  
北으로平南까지

【泰川】本道の豊富한水電資源 四五千萬圓을要하며 電力の開發에 一流電氣事業家들이 全朝鮮一帯の化學工業に供給할다루어出願中이라함은上記 電計劃이라하며 鐵路郡下及咸興巴內의 部分的으로若干深 南浦界의電源開發을出願한이도 間接的을南浦界에隣接郡咸興 亦日本一流電氣事業家其其는 而의 高山地帯の河水を 利用 東京、黃海及平南の三道에 하야 數萬馬力の水電を發電 電力を供給할計劃이라하며 日本の某氏外數氏가其利權 本金亦是四五千萬圓을不下할것을獲得中이라其資本金은恐 然나한다.

秋繭一貫代가  
種價에도不足  
가을미덥는것도헛되어  
麟蹄蠶業家大打擊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해마다 잠업이 성행하여 곡물을 경작 할만한 좋은 토지에도 뽕나무를 재배하여 유일한 생계를 삼았는데 불행히 올해는 건가가 너무도 저렴하여 추건 판매시에도 일반의 불평과 따라서 상수를 뽑아내느니 곡식을 가느니 하다가 행여나 하고 민기를 추건은 재미있으리라 생각하고 잠중 분배시에는 예년에 비하여 다수 분배를 받아 애를 쓰고 길렀는데 특등 1원38전이라는 험가로 할 수 없이 팔게 되었는데 잠중대에도 부족하므로 일반 양잠가에서는 대타격이라 한다.

失職勞働者  
麟蹄로몰려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많아  
郡當局에서頭痛中

【인제】 요즘 강원도 인제를 중심으로 각지 노동자가 물 밀리듯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으나 1개월에 약 100명 이상에 달하여 겨우 2개월 동안에 벌써 200여명 이상을 헤이리라고 관측되는데 이들은 불경기 바람 때문에 그나마 노동할 일자리를 알게되어 지난번 흉수로 인제가 전멸되고 다시 읍 시가를 이전하여 가옥 건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행여나 벌이나 있을까 하고 이같이 들어온 것이라는데 그중에는 일본인 노동자도 있는데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인제군 이재민도 그 생도가 막연한데 타지방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걱정이라 하여 그 대책을 강구중이라 한다.

1930-10-06-02-07

### 동아일보

#### 도토리로 연명 수백 부녀 입산

【인제】 몹쓸 풍수해로 살던 집 입던 옷을 모조리 떠나려 보낸 강원도 인제의 수많은 이재민의 참담한 정경은 본보에 누차 보도한 것이 거니와 그 생활을 차마 눈으로 볼수 없다.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 「도토리」를 주어다 연명하려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는 이가 매일 수백에 달하여 대개가 부녀자인데 지금은 이것저것으로 지나되 앞으로 닥쳐오는 설한의 위협이 박두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눈물로 그날그날을 보내는 중이다.

1930-10-08-07-03

### 동아일보

#### 이재민 위안 애린청년회에서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애린청년회에서는 지난 대수제로 가정 집물을 모조리 잃어버린 나머지 기아에 헤매고 있는 다수 이재민들을 하룻밤이라도 위안을 주기 위하여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소인극으로 낙화유수를 흥행하였는데 이날 밤 대성황리에 마쳤다 한다.

1930-10-08-07-07

### 동아일보

#### 판로 넓은 인제 꿀

【인제】 인제 꿀은 이 고을 특산의 하나로써 해마다 그 생산액이 5만원이란 거액에 달한다는데 그 중 설악산 백담동에서 산출되는 설악백청은 그 품질이 다른데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량한데 그 성가가 조선산은 물론 멀리 중국까지 이름을 날리게 되어 해마다 그 판로가 점차 전개되는데 당국에서도 재래종 개량에 힘쓰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 농촌의 유일한 부업을 삼는다.

1930-10-09-07-04

### 동아일보

#### 인제 중심의 각선로 1년 후이나 복구, 간신히 한 선만 남아 교통 피해 도로를 측량 중

【인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몹쓸 풍수해로 강원도 인제를 중심한 각 주요선로는 길 형체도 없이 전부 파괴되고 인제 흥천간 도로만은 다행히 존재되어 본군 유일의 교통기관을 삼고 있다.(인제 관대리간은 방금 복구공사 중=흥천선) 이와 같이 교통이 극도로 불편하여 당시 주민들은 속히 복구되기를 열망 중에 있는데 이제 본군 김군수의 말에 의하면 도당국에서도 무엇보다 인제에 한하여 도로 복구공사에 주력한다는데 서울 오리진 선인 춘천 인제간 2등도로는 (파괴된 부분) 현재 토목과의 측량 중에 있다 하며 인제 간성간은 금월 중순경에 측량하리라는데 인제 양양간과 비교 측량하여 경비를 적게 요하는 편을 착수하리라는데 적어도 1년 후야 복구 가능성을 보리라 한다.

**도토리로連命**  
**數百婦女人入山**  
【인제】 몹쓸 풍수해로 살던 집 입던 옷을 모조리 떠나려 보낸 강원도 인제의 수많은 이재민의 참담한 정경은 본보에 누차 보도한 바와 같다.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 「도토리」를 주어다 연명하려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는 이가 매일 수백에 달하여 대개가 부녀자인데 지금은 이것저것으로 지나되 앞으로 닥쳐오는 설한의 위협이 박두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눈물로 그날그날을 보내는 중이다.

**罹災民慰安**  
**愛隣青年會에서**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애린청년회에서는 지난 대수제로 가정 집물을 모조리 잃어버린 나머지 기아에 헤매고 있는 다수 이재민들을 하룻밤이라도 위안을 주기 위하여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소인극으로 낙화유수를 흥행하였는데 이날 밤 대성황리에 마쳤다 한다.

**販路日見廣闊**  
**麟蹄蜂蜜**  
【인제】麟蹄蜂蜜(麟蹄蜂蜜)의 이고을 특산의 하나로써 해마다 그 생산액이 오만원이란 거액에 달한다는데 그 중 설악산 백담동(雪岳山百潭洞)에서 산출되는 설악백청(雪岳白淸)의 품질이 다른데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량한데 그 성가가 조선산은 물론 멀리 중국까지 이름을 날리게 되어 해마다 그 판로가 점차 전개되는데 당국에서도 재래종 개량에 힘쓰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 농촌의 유일한 부업을 삼는다.

**麟蹄中心의各線路**  
**一年後에나復舊**  
간신히 한 선만 남아 교통 피해 도로를 측량 중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애린청년회에서는 지난 대수제로 가정 집물을 모조리 잃어버린 나머지 기아에 헤매고 있는 다수 이재민들을 하룻밤이라도 위안을 주기 위하여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소인극으로 낙화유수를 흥행하였는데 이날 밤 대성황리에 마쳤다 한다.

1930-10-09-07-05

### 동아일보

#### 인제에 초설 예년 보다는 일러

【인제】 영서 일대에는 지난 1일 이후로 갑자기 일기가 추워지더니 설악산상 청봉에는 백설이 은세계를 이루었다는대 내년 하기에나 해설을 보리라는대 예년에 비하여 약 10일 가량 빠르다 한다.

1930-10-09-07-07

### 동아일보

#### 1일 노동 임금 불과 30전 그래도 일자리가 없다고 인제 노동자의 참경

【인제】 불경기 바람 때문에 노동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지난 대 수재로 강원도 인제가 전멸된 이래 읍 시가를 이전하고 주택 건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인제를 중심으로 각지 노동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이로 인하여 인제군의 실직자가 많이 생긴다는데 들은 것에 의하면 일당 임금 30전이라도 서로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구한다는데 이 품삯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다 하여 일반 노동자 측에서는 타지방에서 들어온 실직군으로 인하여 일대 타격을 받는 중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많이 주목이 된다 한다.

1930-10-10-02-10

### 동아일보

#### 잠자던 중 현금 도실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 76번지 송영일 이는 지난달 27일 밤에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어떤 자가 들어가서 뒷방에 둔 석유상자로 만든 돈궤에 현금 161원50전을 가져갔다는대 남면주재소에서 범인을 업탐 중이라 한다.

1930-10-13-03-01

### 동아일보

#### 이전 인제읍 음료수 곤란

【인제】 몹쓸 풍수재로 강원도 인제가 전멸된 이래 드디어 읍을 높은 곳으로 이전하고 방금 주택 건축에 분망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당국에서는 시가변으로는 전부 아연이나 또는 기와 집을 건축키로 계획 중이며 중앙을 관통하는 이동도로공사는 각지 주위 간헐적으로 추수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는데 시가 지형이 워낙 높은 지대인 관계로 몇 개소의 공동 우물을 파는 중에 있으나 시원한 수원을 아직 보지 못하게 되어 일반은 음료수 문제로 자못 불안 심한 가운데 있다.

**麟蹄에 初雪**  
**예년보다 일러**  
【인제】 영서 일대에는 지난 일 이후로 갑자기 일기가 추워지더니 설악산상 청봉(靑岳山上靑峯)에는 백설이 은세계를 이루었다는대 내년 하기에나 해설을 보리라는대 예년에 비하여 약 10일 가량 빠르다 한다.

**一日勞働賃 不過三十錢**  
그래도 일자리가 없다고  
**麟蹄勞働者의 慘境**  
【인제】 불경기 바람 때문에 노동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지난 대 수재로 강원도 인제가 전멸된 이래 읍 시가를 이전하고 주택 건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인제를 중심으로 각지 노동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이로 인하여 인제군의 실직자가 많이 생긴다는데 들은 것에 의하면 일당 임금 30전이라도 서로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구한다는데 이 품삯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다 하여 일반 노동자 측에서는 타지방에서 들어온 실직군으로 인하여 일대 타격을 받는 중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많이 주목이 된다 한다.

**熟睡中現金盜失**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麟蹄郡南而新月里) 칠십육번지 송영일(宋榮一) 이는 지난달 이십칠일 밤에 잠이 깊히 들었을 때 뒷방에 둔 석유상자로 만든 돈궤에 현금 161원50전을 가져갔다는대 남면주재소에서 범인을 업탐 중이라 한다.

**移定麟蹄邑 飲料水困難**  
【인제】 몹쓸 풍수재로 강원도 인제가 전멸된 이래 드디어 읍을 높은 곳으로 이전하고 방금 주택 건축에 분망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당국에서는 시가변으로는 전부 아연이나 또는 기와 집을 건축키로 계획 중이며 중앙을 관통하는 이동도로공사는 각지 주위 간헐적으로 추수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는데 시가 지형이 워낙 높은 지대인 관계로 몇 개소의 공동 우물을 파는 중에 있으나 시원한 수원을 아직 보지 못하게 되어 일반은 음료수 문제로 자못 불안 심한 가운데 있다.

1930-10-16-03-05

### 매일신보

## 강원도 수해 이재민 이주계획의 내용 세포와 정선, 인제로 이주시킬터, 도당국에서 조사 중

【춘천】 대풍수해로 인하여 집과 전답의 유실을 당하고 입은 옷 한 벌대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강원도 각지의 수많은 이재민은 그동안 당국의 성의있는 구제와 일반의 두터운 동정으로서 이른바 풍찬노숙의 상태만을 면하였으나 각각으로 닥쳐오는 엄동설한을 앞둔 저들의 태반의 심각한 고뇌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명백히 숫자로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사방으로부터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인접도와 기타 먼 곳으로 소작지를 구하여 또는 친척지기를 의뢰하여 유랑하여간 이민들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다. 이들은 물론 당국과 혹 일반 동정을 기대려고 수수하고 앉았기에는 현실에 너무나 초조하여 떠나기 시작한다. 도당국에서는 이재민 중에서도 참말로 타처로 이주시키지 않으면 안될 비참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하여 저들의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에 대하여 주야검행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엇이고 그간은 국세 조사로 몹시 바쁘게되었고 또 추기 납세기에 닥쳐있어서 아직 확실한 구체안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그 이재민 중 이주시키지 않으면 안될 자를 보면

1. 영월군 148호 663인  
내역 서면 6호 20인, 양면면 57호 262인, 수주면 85호 381인
2. 강릉군하 4호 19인 등을 비롯하여 인제군, 회양군 등(두곳 다 미상)인데 후자의 양군도 그 피해 정도가 영월에 못지않다 하니 그 역시 큰 수에 오를 것이다. 이와 같이 두군의 상태는 방금 조사 중이므로 상세를 알 수 없으나 대략 두군을 합쳐서 400이라 하면 이주를 시켜야 할 이재민이 실로 1천으로 셀 것이다. 그런데 이주시는 세포 부근의 510정보, 정선군 도암리 150정보 외 1개소와 인제군하 등이라 한다.

1930-10-26-02-10

### 동아일보

## 아동 작품전 및 농산물 품평회

【인제】 강원도 인제공립보통학교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동안 동 교내에서 아동작품 전람회와 농산물 품평회를 동시에 개최한다는데 특히 이번 회에는 실용을 겸한 수공작품이 많으므로 일반에게 참고될 것이 많다하며 타교에서도 다수 출품이 있어 총 점수 무려 2,000여 점으로 벌써 대성황을 예기한다는데 동교에서는 방금 준비에 분망 중이라 한다.

1930-10-26-07-01

### 동아일보

## 공업생산액 9배의 증가, 20년 전과 비교하여 본 인제군의 통계 변천

【인제】 작년 1년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내에서 생산된 목재, 철기 등 30여종의 모든 공업생산액이 당국의 조사한 것에 의하건대 14만6천 원에 달하는 중 그 중에 일본인 것이 7천원이라는데 이 공산물 총액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6만원에 비하면 9.5배의 격중이라고 한다.

1930-10-29-07-08

동아일보

양구 인제간의 도로 부흥 갈망

【양구】강원도 양구와 인제간에는 자동차를 매일 1회씩 정기 운전을 하여 여객에게 적지않은 편리를 주어오는데 지난 7월 수해에 여지없이 파괴되어 차마의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인 막대한 불편을 느끼나 군정비가 부족하여 아직 도로 개수에 착수도 않았을 뿐더러 수년 내로는 개통이 불가능하리라 한다.

1930-11-01-03-07

매일신보

강원도 추건 공판 종료, 전년에 비하여 약 100만원 감소

【춘천】강원도의 추건공판매는 춘천군의 10월 10일로써 종료하였는데 그 성적은 군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군명	취인총수량	판매총금액
춘천	765석	7,501원
인제	303석	2,996원
양구	645석	6,502원

(중략)

춘추잡건을 합하여 40,762석(가격 89,582원)인데 결국 전년에 비하면 약 2,000석 즉 약 200여원이 감소하였다.

1930-11-01-03-10

동아일보

인제부인소비조합 총회

지난 28일 정의여학교내에서 개최

1930-11-03-03-08

매일신보

중견청년 농강 종료

【춘천】농촌이 진실한 중견인물이 될 과정으로서 춘천종묘장에서 지난 5월부터 5개월간의 농사강습을 수료한 좌기 10명에 대한 수료식은 10월 30일 오전11시 종묘장 부근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1. 수료생 씨명

이약한(춘천) 엄우중(인제), 최창선(양구), 서형식(원주), 진경두(횡성), 이기오(홍천), 최필성(화천), 노병학(김화), 김창선(평강), 이중락(이천)



江原道秋蒞 共販終了

前年에 비하여 약 100만원 감소

郡名	取入總額	取付總額
春川	七六五七五〇二圓	六五九六〇〇〇圓
楊口	六四九〇〇〇圓	六五〇二〇〇圓
高城	一六三二八七九圓	一六三二八七九圓
江陵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江津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平康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稷谷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襄陽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洪川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金化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德源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伊川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川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門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井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洞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谷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田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山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水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川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門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井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洞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谷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田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山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水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川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門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井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洞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谷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田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山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水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川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門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井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洞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谷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田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山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石水	三三三三三三圓	三三三三三三圓

麟蹄婦人消費組合總會 去二  
十八日眞宜女學校內에서開催

中堅青年農講終了

【春川】農村의眞實한中堅人物 이될기程으로서春川種苗場에서 지난五月부터五個月間의農事講習을修了한左記十名에對한修了式은十月三十日午前十一時種苗場附屬講堂에서舉行되었다

一、修了生氏名 李若翰(春川) 嚴宇鍾(麟蹄) 崔昌善(楊口) 徐澄錫(原州) 陳景斗(橫城) 李基五(洪川) 崔弼成(華川) 盧秉學(金化) 金昌善(平康) 李鍾洛(伊川)

1930-11-04-03-08

### 동아일보

#### 인제에 화재 1호가 전소

【인제】 지난 29일 오후 4시 40분경에 강원도 인제읍내 동리 이회규 씨 집에서 발화되어 맹렬히 일어나는 불길은 삼시간에 앞채만 약간 남기고 안채 1호는 전부 태워버린 후 한 시간 후에 겨우 진화되었는데 발화 원인은 그 집에서 방을 수선하고 온돌을 말리기 위해 겨를 피우다가 연통에서 그 같이 발화된 것이라 하며 손해는 방금 조사중인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대홍수에 가구를 유실시키고 그나마 집 하나 남아있던 것조차 이같이 태워버렸으니 그 집안사람의 참혹한 정경은 차마 볼수 없으며 겨을 넘기기 염려된다 한다.

1930-11-06-02-04

### 신한민보

#### 국유림 불하하여 화전민 정리 한곳에 모아 살도록 하는 인제군의 방침

강원도 인제군의 산간벽지에는 1만2천여명의 다수 화전민들이 살고 있어서 무시로 산림의 불을 지르고 밭을 많이 갈아먹을뿐더러 그네들의 생활이 매우 처참하다 하여 항상 사회문제가 되어있다는 것은 여러번 보도한 것이거니와 당국에서는 이들을 구제코자 여러 가지 방침을 하여보았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인제군수 김극일씨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정하고 화전민 근본정리에 착수하리라는데 인제군 남면과 북면의 국유림 500여 정보를 불하하여 그곳에 흩어져 있는 화전민을 화전기경의 옛날 생업 방식을 버리고 한곳에 집단시켜 살게 한다는데 그리하여 산간에 불을 질러서 천연림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요 그 생활도 다소 향상될듯하다고 한다.

1930-11-06-07-11

### 동아일보

#### 인제 흥천간 도로 2개월 후면 완성

【인제】 누보=강원도 인제를 중심한 각주요선로는 몸쓸 풍수재로 길 형체도 없이 전부 파괴되고 오직 인제 흥천간 3등도로만은 다행히 존재되어 인제군 유일의 교통기관을 삼고있다. 이것도 인제 관대리간 약 600여m는 전부 파손되어 10여리를 남천리로 돌아다니는데 이 선로에 한하여 방금 복구공사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 거니와 속히 된다하여도 2개월 후라야 완전히 복구를 보리라는대 이와 같이 인제군의 교통은 극도로 불편하다. 어떤 곳에는 행인은 물론 어린 학생이 통학하기에도 매우 위험한 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으로서 아직까지 임시도로 같은 것이라도 응급 수선이 없으므로 일반은 당국에 무성의를 비난한다.

**麟蹄에 火災**  
**일호가 전소**  
 【인제】 지난 29일 오후 4시 40분경에 강원도 인제읍내 동리 이회규 씨 집에서 발화되어 맹렬히 일어나는 불길은 삼시간에 앞채만 약간 남기고 안채 1호는 전부 태워버린 후 한 시간 후에 겨우 진화되었는데 발화 원인은 그 집에서 방을 수선하고 온돌을 말리기 위해 겨를 피우다가 연통에서 그 같이 발화된 것이라 하며 손해는 방금 조사중인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대홍수에 가구를 유실시키고 그나마 집 하나 남아있던 것조차 이같이 태워버렸으니 그 집안사람의 참혹한 정경은 차마 볼수 없으며 겨을 넘기기 염려된다 한다.

○ 국유림 불하하여 화전민 정리  
 한곳에 모아 살도록 하는 인제군의 방침  
 강원도 인제군의 산간벽지에는 1만2천여명의 다수 화전민들이 살고 있어서 무시로 산림의 불을 지르고 밭을 많이 갈아먹을뿐더러 그네들의 생활이 매우 처참하다 하여 항상 사회문제가 되어있다는 것은 여러번 보도한 것이거니와 당국에서는 이들을 구제코자 여러 가지 방침을 하여보았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인제군수 김극일씨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정하고 화전민 근본정리에 착수하리라는데 인제군 남면과 북면의 국유림 500여 정보를 불하하여 그곳에 흩어져 있는 화전민을 화전기경의 옛날 생업 방식을 버리고 한곳에 집단시켜 살게 한다는데 그리하여 산간에 불을 질러서 천연림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요 그 생활도 다소 향상될듯하다고 한다.

**麟蹄 洪川間 道路 二個月後면 完成**  
 【인제】 누보=강원도 인제를 중심한 각주요선로는 몸쓸 풍수재로 길 형체도 없이 전부 파괴되고 오직 인제 흥천간 3등도로만은 다행히 존재되어 인제군 유일의 교통기관을 삼고있다. 이것도 인제 관대리간 약 600여m는 전부 파손되어 10여리를 남천리로 돌아다니는데 이 선로에 한하여 방금 복구공사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 거니와 속히 된다하여도 2개월 후라야 완전히 복구를 보리라는대 이와 같이 인제군의 교통은 극도로 불편하다. 어떤 곳에는 행인은 물론 어린 학생이 통학하기에도 매우 위험한 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으로서 아직까지 임시도로 같은 것이라도 응급 수선이 없으므로 일반은 당국에 무성의를 비난한다.

1930-11-09-03-12

### 동아일보

#### 사고

김영배 임 인제지국장  
인제지국장 이성석 의원해직  
금반 위와 같이 폐사 지국을 변경하였기 이에 삼가 알립니다.  
1930년 11월 5일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1930-11-23-02-03

### 매일신보

#### 생활난과 불의에 의한 기아수 점차 격증 10개월간의 통계가 83명, 대개 삼칠일 내외

인생 최대의 비극! 먹고 살 길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을 거리에 버리는 사람의 수효가 늘어간다. 금년 정월부터 4월까지의 부내의 기아 총수는 사내아이가 26명 계집아이가 57명 합계 83명인데 이를 작년 1년 동안의 기아수 사내아이 29명 계집아이 49명 합계 68명에 비하여 보면 그 수에 있어서 15명의 증가이다. 더구나 작년은 1년 중의 통계이나 금년 숫자는 10개월 동안의 숫자에 지나지 않으니 기아가 많이 생기는 겨울철을 당하여 앞으로 얼마나 기아사건이 생길는지 내년에 비하여 금년은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아의 대개는 출생후 2, 3주일가량의 것이며 그 원인은 대개가 생활난으로 발생하고, 그 중에는 불의의 관계로 낳은 자식을 남이 부끄러워 기르지 못하고 버린 것도 있으나 그는 불과 4, 5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 어느 기아가 불쌍하지 않으랴 만은 그 중에도 더욱이 측은한 것은 김간난이라는 두살된 계집아이다. 그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에 사는 남간난이라는 여자가 자기의 친척되는 남옥출이라는 사람과 불의의 관계를 맺고 지내다가 본 남편을 죽여 내다버리고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발각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재감 중 작년 7월 20일에 감옥에서 낳은 아이로 세상에 나오며 부터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후 어머니 되는 남씨는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어 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이 세상에 남아 방금 자선회에서 기르는 아이이다.

1930-11-23-07-02

### 동아일보

#### 홍천도로 완성

【인제】 누보=풍수해로 인하여 강원도 인제를 중심한 각 주요 선로는 길의 형태도 없이 전부 파괴되고 이래 교통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 중 홍천선로만은 응급 복구공사 중인데 지난 20일로 공사는 준공되어 홍천간은 직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춘천, 양구, 고성, 양양 각방면을 통한 2등도로는 방금 측량 중에 있으므로 언제나 완성을 기할는지 알 수 없으나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명년에나 복구공사에 착수를 보리라는대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영서 일대의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참경에 빠졌다.

**社 告**

任 顯 蹄 支 局 長 金 英 培  
任 顯 蹄 支 局 長 李 鼎 錫  
依 願 解 職  
今 般 右 外 如 此 弊 社 支 局 員 變 更 特 告  
昭 和 五 年 十 一 月 五 日  
株 式 會 社 東 亞 日 報 社

**生活難과 不義에 依한 棄兒 數漸次激增**  
生 活 難 과 不 義 에 依 한 棄 兒 數 漸 次 激 增  
生 活 難 과 不 義 에 依 한 棄 兒 數 漸 次 激 增  
大 概 三 七 日 內 外 兒

인제와 대외의 각... (text continues in columns)

**洪川道路完成**

【인제】 누보=풍수해로 인하여 강원도 인제(麟蹄)를 중심한 각 주요 선로는 길의 형태도 없이 전부 파괴되고 이래 교통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 중 홍천선로(洪川線路)만은 응급 복구공사 중인데 지난 20일로 공사는 준공되어 홍천간은 직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춘천, 양구, 고성, 양양 각방면을 통한 2등도로는 방금 측량 중에 있으므로 언제나 완성을 기할는지 알 수 없으나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명년에나 복구공사에 착수를 보리라는대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영서 일대의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참경에 빠졌다.

1930-11-23-07-02

### 동아일보

## 삼림 단속으로 제탄도 엄금, 박달 채벌도 허락지 아니 해 인제주민의 큰 고통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천산물이 풍부하여 이로써 생계를 일삼는 이가 그 수를 헤이지 못할만큼 해마다 늘어가는 형편인데 금년부터는 삼림 단속령이 혹심하여져서 화전을 갈아먹는 백성은 물론 본군에 보고인 설악산에 무진장으로 있는 박달나무(단목)의 사용이 많다 하여 연래로 채벌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나 허가를 주지 않아서 실패에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화전민으로써 약간의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에 보태어 쓰던 제탄도 금번 돌연히 단속이 극심하여 생도가 하루아침에 끊어져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집이 대다수에 달하였다 한다.

1930-11-23-07-09

### 매일신보

## 인제 강도 취박

【춘천】 지난 14일 오전 10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돈리 산중에서 잡화행상하며 다니는 그 동리 김명석(59)이가 어떤 강도에게 구타를 당하고 소지금 7원50전을 강탈당하였다는 급보를 접한 인제서에서는 곧 활동을 개시하여 18일에 이르러 주소 부정 오만일(27)을 체포하여 취조한 결과 진범인 것이 판명되었다.

1930-11-24-02-09

### 동아일보

## 애처 유인에 함협, 금품을 강탈 도주

【인제】 지난 28일 오전 10시경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옥대동 노상에서 강도 한명이 나타나 전기 주소에 거주하는 김명려(59)를 구타하여 혼도케 한 후 현금 7월 10전과 석유 2통을 탈취하여 갔다는데 이 급보를 접한 인제서에서는 이 사법계주임이 현장에 급행하여 범인을 수색한 결과 그 동리에 사는 오만일(37)이가 피의자로 잡혔는데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기 피의자 오만일의 처 김봉길(21)이가 지난 음력 9월 22일에 저녁을 먹고 무단이 집을 나간 것을 피해자 김명려가 유혹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가 전기 범죄 장소에서 오만일이 김명려를 만나 구타한 후 그 같이 금품을 강탈한 것이라는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는 중이다.

**森林團束**  
으로  
**製炭도嚴禁**

박달채벌도 허락지 아니 해  
**麟蹄住民의 큰苦痛**

【인제】 강원도 인제군(麟蹄)의 산간(山間)에 산재한 산(山)은 그 수를 헤이지 못할만큼 해마다 늘어가는 형편인데 금년부터는 삼림 단속령이 혹심하여져서 화전을 갈아먹는 백성은 물론 본군에 보고인 설악산(雪岳山)에 무진장으로 있는 박달나무(단목)의 사용이 많다 하여 연래로 채벌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나 허가를 주지 않아서 실패에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화전민으로써 약간의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에 보태어 쓰던 제탄도 금번 돌연히 단속이 극심하여 생도가 하루아침에 끊어져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집이 대다수에 달하였다 한다.

**麟蹄强盜就縛**

【春川】 지난 십사일 오전 인제군 남면 돈리(麟蹄郡南面頓里) 산중에서 잡화행상하며 다니는 그 동리 김명석(金明石) (59) 이가 어떤 강도에게 곤봉으로 구타를 당하고 소지금 칠원 오십전을 강탈당하였다는 급보를 접한 인제서에서는 곧 활동을 개시하여 18일에 이르러 주소 부정 오만일(吳逸) (27) 을 체포하여 취조한 결과 진범인 것이 판명되었다.

**愛妻誘引에 含嫌 金品을 強奪 逃走**

【인제】 지난 18일 오전 10시경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옥대동 노상에서 강도 한명이 나타나 전기 주소에 거주하는 김명려(59)를 구타하여 혼도케 한 후 현금 7월 10전과 석유 2통을 탈취하여 갔다는데 이 급보를 접한 인제서에서는 이 사법계주임이 현장에 급행하여 범인을 수색한 결과 그 동리에 사는 오만일(37)이가 피의자로 잡혔는데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기 피의자 오만일의 처 김봉길(21)이가 지난 음력 9월 22일에 저녁을 먹고 무단이 집을 나간 것을 피해자 김명려가 유혹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가 전기 범죄 장소에서 오만일이 김명려를 만나 구타한 후 그 같이 금품을 강탈한 것이라는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는 중이다.

1930-11-24-02-09

### 동아일보

#### 토굴도 얻기 어려워 흠웃에 설한, 풍전등화 같은 생명이 염려 인제수해재민 참상

【인제】 풍수해에 저주받은 강원도 인제의 참담한 정경은 이미 세인이 주시하는 것이거니와 아직까지 생활안정이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나마 움집(토굴)이라도 하나 없이 살을 에일듯한 추위에도 혹 옷한벌을 입고 벌벌 떨며 먹지 못하여 창백한 얼굴로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집이 열다섯집인데 이들의 생명이 풍전등화같은 매우 위태한 가운데 있으며 이재민으로서 가옥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전부 빗을 내가지고 집을 짓는 형편인데 또한 이를 상환할 길이 막연하디는데 이 눈물겨운 정경을 무어라 말할 수 없다 한다.

1930-11-27-08-05

### 매일신보

#### 인제 수전 인가문제

금강산전기 출원의 강원도 인제수력발전 계획은 서울전기와 수급계약만 잘 진행되면 전기조사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인가하게 되었다. 즉 수전지점 및 송전선과 장래의 조선전력 통제상 합치하므로 금강산 안동 전무도 여러번 입성하여 인가를 요구하나 경전과의 수급문제 선결되기 전에는 인가되지 않을 모양이다.

1930-12-10-02-12

### 동아일보

#### 상권 만회책으로 각 동리에 분점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의 각 주요 촌락에는 대개 중국인의 상점이 배치되어서 이로 인하여 조선인의 상점은 일대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상권까지 빼앗겨 일시에는 파산자도 속출되었는데 조선인 상업측에서는 항상 이를 통분히 여기던 나머지 읍내 모 주요상점에서는 상권 만회책으로 각면에 대규모로 분점을 설치하는 동시에 현 시세의 10%를 감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리라 한다.

1930-12-10-07-05

### 동아일보

#### 인제군 내면의 분면 운동 유망, 군수가 실지 형편을 답사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139방리라는 본도 제1위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행정구역 6개면으로 나누어있는데 그 중 내면은 28방리의 면적으로 동면 미산리와 방내리에서는 면사무소를 70, 80리나 떨어져있는 관계상(그나마 고산준령이 가로막아 교통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면민의 다대한 불편과 또는 산업 교육 기타 면민의 복리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하여 전년부터 전기 두 동리에서 남면 금부리와 기린면 상남리를 편입하고 분면하는 것이 좋다 하여 작년 6월에 군도 당국이 진정한 일까지 있다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군당국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시인하고 있는 것인데 며칠 전에 군수가 실지를 답사하고 재원까지 조사하였다는데 전기 4개리의 호수는 1,524호라 한다.

【인제】 풍수해의 저주받은 강원도 인제의 참담한 정경은 이미 세인이 주시하는 것이거니와 아직까지 생활안정이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나마 움집(토굴)이라도 하나 없이 살을 에일듯한 추위에도 혹 옷한벌을 입고 벌벌 떨며 먹지 못하여 창백한 얼굴로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집이 열다섯집인데 이들의 생명이 풍전등화같은 매우 위태한 가운데 있으며 이재민으로서 가옥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전부 빗을 내가지고 집을 짓는 형편인데 또한 이를 상환할 길이 막연하디는데 이 눈물겨운 정경을 무어라 말할 수 없다 한다.

**土窟도難得 單衣에雪寒**

풍전등화 같은 생명이 염려  
麟蹄水害災民慘狀

金剛山電氣出願의 江原道麟蹄水力發電計劃은 京城電氣外需給契約만 進行되면 電氣調査會의 調査를 經치 아니 하야도 認可可하게 되 었다 卽發電地點及送電線과 將來의 朝鮮電力統制上 合致함으로 金剛山安檢專務處 屢次入城 하야 認可를 要求하나 京電과의 需給問題 鮮決되기 前에는 認可되지 아니 할 모양이다

**麟蹄水電 認可問題**

【인제】 강원도 인제(麟蹄)지방의 각 주요 촌락에는 대개 중국인의 상점이 배치되어서 이로 인하여 조선인의 상점은 일대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상권까지 빼앗겨 일시에는 파산자도 속출되었는데 조선인 상업측에서는 항상 이를 통분히 여기던 나머지 읍내 모 주요상점에서는 상권 만회책으로 각면에 대규모로 분점을 설치하는 동시에 현 시세의 10%를 감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리라 한다.

**商權挽回策으로 각동리에 분점**

【인제】 강원도 인제(麟蹄)군은 139방리라는 본도 제1위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행정구역 6개면으로 나누어있는데 그 중 내면은 28방리의 면적으로 동면 미산리와 방내리에서는 면사무소를 70, 80리나 떨어져있는 관계상(그나마 고산준령이 가로막아 교통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면민의 다대한 불편과 또는 산업 교육 기타 면민의 복리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하여 전년부터 전기 두 동리에서 남면 금부리와 기린면 상남리를 편입하고 분면하는 것이 좋다 하여 작년 6월에 군도 당국이 진정한 일까지 있다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군당국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시인하고 있는 것인데 며칠 전에 군수가 실지를 답사하고 재원까지 조사하였다는데 전기 4개리의 호수는 1,524호라 한다.

**麟蹄郡內面의 分面運動有望**

군수가 실지 형편을 답사

1930-12-19-07-07

### 동아일보

#### 극단의 전황, 물물로 교환 인제농민의 참담

【인제】 쌀값 저락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와 일반경제의 타격이 막심하여 어느 곳을 물론하고 민심의 불안이 현저한데 더구나 강원도 인제지방에는 날로 심각해가는 전황으로 돈이 유통되지 않아 직접 물물 교환으로 비참한 생활을 간신히 보지하여 오던 것인데 실로 원시시대의 생활을 연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1930-12-20-03-12

### 동아일보

#### 근고

김동환 임 기자, 박충모 이상흥 임 고문  
1930년 12월 17일, 동아일보사 인제지국

1930-12-21-03-09

### 매일신보

#### 재해 복구공사로 화전민 생활안정 1일 출역하면 80전 수입, 인제 농작은 비교적 풍작

【춘천】 강원도 인제군 일대는 산악이 중첩하고 거주민은 일부 자작농을 제외한 거의 화전 경작을 겸한 소작농뿐인데 그들의 생활은 차라리 비참할만큼 빈곤상태에 있는데 궁하여 만주로부터 초동에 이르기까지 일가족 총출로서 「도토리」를 채취하여다가 3석 내지 10석씩을 저축하고 식량의 부족을 보충하며 식염, 「고추가루」 등의 조미료는 이웃사람 기타 행상들과 물물교환으로 겨우 얻는 등 실로 원시적 생활을 생각해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금년은 화전, 숙전을 물론하고 대풍작을 보여 그들 산간궁민들은 일반적으로 식량이 부족치 않을 뿐 아니라 군내 재해 복구공사에 출역하여 하루에 80전 가량의 수입이 있으면 현미 작은되 1말을 얻는 셈이므로 중, 소농에 곡가 폭락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때 그들은 도리어 예년에 맞보지 못하던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기이한 현상을 현출하였다 한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인접군과 기타 각지로부터의 이주자가 많다 하는데 4월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로 407호 2,593인이나 흘러들어왔다 한다.

1930-12-21-07-01

### 동아일보

#### 공비 30만원으로 인제 고성간 도로 개수, 내년 봄부터 선 착수할 터

【인제】 금년 10월 경 몹쓸 풍수해에 전부 파괴된 인제 고성간 2등도로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지난달 말일 경에도 토목과에서 측량을 마쳤는데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 해빙기에는 곧 착수를 보리라는데 복구공사 총 견적액은 30만원가량이라 하며 동해안선에 횡단하는 주요 선로인만큼 도 당국에서도 신년도 제일작으로 선착수할 모양이라 한다.



1930-12-21-07-01

### 동아일보

## 인제 내면을 홍천에 편입? 주민은 대체 반대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은 면적 28방리 호수 3,670호이며 연생산악이 본군의 수위를 다투는 것인데 저간 홍천군에서는 내면을 홍천군으로 편입코자 여러 가지로 운동중이라는데 인제군 면당국은 물론 일반면민까지 이에 대하여 불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측량을 간간히 거행한다는데 홍천군으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내면 광원리 미산리 창촌리 가운데 일부는 지리상으로 보아 불편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20, 30리가 더 떨어져있는 형편상 홍천군으로 편입되는 것이 행정상에도 크게 관계가 있을 것은 물론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방문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당국자는 말하였다

내면 모 협의원 이야기=만약 홍천군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면민의 불편은 일반일 것이고 광원리 미산리 같은 데는 오히려 현재 이상의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내면장 이야기=우리 면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물론 어디까지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천군 당국에서는 내면 면민들이 다 찬성하는 바라 하여 떠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편입될 리가 있겠습니까.

김군수 이야기=그 지방발전과 면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면민이 찬성하지 않아도 본군에서 물론 분할하여 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산에 올라가 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麟蹄內面會**  
**洪川編入?**  
 주민은 대체 반대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麟蹄內面)은 면적 28방리 호수 3,670호이며 연생산악이 본군의 수위를 다투는 것인데 저간 홍천군에서는 내면을 홍천군으로 편입코자 여러 가지로 운동중이라는데 인제군 면당국은 물론 일반면민까지 이에 대하여 불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측량을 간간히 거행한다는데 홍천군으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내면 광원리 미산리 창촌리 가운데 일부는 지리상으로 보아 불편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20, 30리가 더 떨어져있는 형편상 홍천군으로 편입되는 것이 행정상에도 크게 관계가 있을 것은 물론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방문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당국자는 말하였다

내면 모 협의원 이야기=만약 홍천군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면민의 불편은 일반일 것이고 광원리 미산리 같은 데는 오히려 현재 이상의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내면장 이야기=우리 면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물론 어디까지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천군 당국에서는 내면 면민들이 다 찬성하는 바라 하여 떠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편입될 리가 있겠습니까.

김군수 이야기=그 지방발전과 면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면민이 찬성하지 않아도 본군에서 물론 분할하여 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산에 올라가 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1930-12-21-07-04

### 동아일보

## 인제군내 수업료 체납액이 1천여원

【인제】 강원도 인제군 각 공립보통학교 아동 수업료 체납액이 전년도 분이 250원이고 금년도분이 930원으로 합 1,180원이라는데 체납자의 가정을 보면 대개 생활난이라 한다. 가뜩이 전황으로 징수가 매우 곤란된다는데 금후 당국의 처치가 주목된다 한다.

**麟蹄郡內授業料**  
**滯納額이千餘圓**

【인제】 강원도 인제군(麟蹄郡) 각 공립보통학교 아동 수업료 체납액이 전년도분의 2백五十圓이오 금년도분의 九百三十圓이로 합 1千一百八十圓이라는데 체납자의 가정을 보면 대개 생활난이라 한다. 가뜩이 전황으로 징수가 매우 곤란된다는데 금후 당국의 처치가 주목된다 한다.

1930-12-23-07-06

### 동아일보

## 장티푸스 만연 인제 환자 15명이다 ◇일기 불조로 우려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에 장티푸스가 발생되어 점차 만연된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현재 환자가 남면 신월리에 5명, 부평리에 6명, 관대리에 1명 읍내 남북리에 3명 합 15명인데 벌써 전기 부평리와 신월리에서 2명이 사망되었다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방금 예방주사를 시행중이라 하며 더구나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일반은 매우 우려 중이다.

**腸窒扶斯蔓延**  
 日氣不調로憂慮

【인제】 강원도 인제(麟蹄)지방에 장티푸스가 발생되어 점차 만연된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현재 환자가 남면 신월리(南面新月里) 5명, 부평리(富平里) 6명, 관대리(官대里) 1명, 읍내 남북리(邑內南北里) 3명 합 15명인데 벌써 전기 부평리(富平里)와 신월리(新月里)에서 2명이 사망되었다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방금 예방주사를 시행중이라 하며 더구나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일반은 매우 우려 중이다.

1930-12-27-03-03

### 매일신보

#### 강원도의 납세 수납 상황 불황으로 영향 불감

【인제】 강원도의 1930년도 지세 수납 상황을 각군별로 표시하면 좌와 같은데 심각한 불황에 영향되어 일반적으로 성적이 불량하다.

군별	조정액(원)	수입제액(원)	같은기간 전년과의 비율
춘천	20,700원	10,500원	△027
인제	8,233원	4,461원	△138
양구	12,173원	8,733원	△111

(단 12월 20일 현재) (중략)

1931-01-05-03-06

### 매일신보

#### 강원은 무엇, 산삼 녹용도 자랑! 백병통치의 석청 만고 부월이 들어오지않은 인제목재 세계시장에 우세 독점

강원도는 산국이라 호표, 응담, 산삼, 녹용도 특산이지만은 목재, 봉밀도 특산이다. 그 중에 봉밀은 특산 중의 특산이 된다. 조선에 있어서 봉밀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벌써 고대에도 봉밀을 하여 봉밀을 채취한듯하며 황극천황의 2년에 백제의 태자 여풍장이란 이가 밀방사교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대화』삼륜산에 방양하여 일본에서의 양봉의 연원을 지었다는 것이 역사에서 산견되는데 즉 조선의 봉밀을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된 것은 말함이라 한다. 봉밀의 용도를 새삼스러이 설명할 것까지 없으니 봉밀은 조선 전도에 걸쳐 조사되고 있는 중 특히 강원도에는 밀원식물의 분포가 현저해 훌륭한 뿐 아니라 또 그것이 간 곳마다 풍부하여 양봉에 종사하는 자 많아서 전조선의 사양 약 18만 상자 중 3만8천600상지는 강원도에서 사양하는 것으로 즉 총수의 22%를 점하여 봉밀 밀랍의 생산도 역시 전조선 제1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양봉이 성황한 강원도에서도 특히 인제군은 그 지세 기후 등이 아울러 양봉에 최적하여 봉밀의 생산이 번다하며 강원도 생산량의 10%이상을 점한다. 더욱 인제군 양봉의 중심지인 설악산에는 밀원식물도 가장 우량한 보제수가 풍부하여 그 산 끝은 약효의 현저함이 전조선에 제일된다는 것은 일반이 ●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제군의 봉밀이 옛부터 「인제봉밀」이란 이름으로 널리 선전되면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한원궁 전하를 비롯하여 각궁 전하가 조선에 올때마다 진상의 광영을 입고있음은 물론 조선대박람회를 비롯하여 각공진회 등에 출품하여 상패를 받기를 몇 번이나 하였으며 도처에서의 수요가 실로 번다한 중에 있다. 그 인제봉밀의 봉종 조선 재래종으로 종래의 사육 및 채밀법은 원시적이어서 채밀할 대에 협잡물이 섞여 밀의 품질을 손상케할 뿐더러 벌폐를 많이 압살하므로 벌폐의 번식이 매우 곤란하였으나 강원도산업 봉밀업조합연합회에서는 이 사양법의 개량을 책하여 1927년도부터 인제군축산봉밀업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기하였는데 결점을 없이하고 품질의 향상, 채밀량의 증가를 기도하고자 재래종 밀군을 특히 고안한 입체식 개량소상에 수용 사육하는 법을 시험케하고 있는데 그 성적이 썩 양호하여 인제지방에서는 이 개량법에 의한 양봉을 하는 이가 점차로 증가하므로 금후 봉밀의 생산은 더욱더욱 많아 질뿐 아니라 협잡물이 조금도 없고 품질이 모두 훌륭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강원지국 조사)

### 江原道の地稅收納狀況

(奉川) 江原道の昭和五年年度地稅收納狀況各郡別に表示하면如左なり、深刻な不況の影響を一般に受けて納税不良が甚だしく、十二月二十日現在、

郡別	關定額	實收額	同前年
奉川	3,000,000圓	1,000,000圓	33.3%
麟蹄	1,000,000圓	300,000圓	30%
楊口	1,000,000圓	300,000圓	30%
通川	1,000,000圓	300,000圓	30%
計	6,000,000圓	2,000,000圓	33.3%

註：△標は比前年同期不良率

### 무엇은原江

#### 山蔘鹿茸도 자랑!

#### 百病通治의 石淸

#### 世界市場에 優勢獨占

萬古斧鉞이未入한麟蹄木材

江原道는 산삼, 녹용, 산국, 응담, 산삼, 녹용도 특산이지만은 목재, 봉밀도 특산이다. 그 중에 봉밀은 특산 중의 특산이 된다. 조선에 있어서 봉밀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벌써 고대에도 봉밀을 하여 봉밀을 채취한듯하며 황극천황의 2년에 백제의 태자 여풍장이란 이가 밀방사교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대화』삼륜산에 방양하여 일본에서의 양봉의 연원을 지었다는 것이 역사에서 산견되는데 즉 조선의 봉밀을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된 것은 말함이라 한다. 봉밀의 용도를 새삼스러이 설명할 것까지 없으니 봉밀은 조선 전도에 걸쳐 조사되고 있는 중 특히 강원도에는 밀원식물의 분포가 현저해 훌륭한 뿐 아니라 또 그것이 간 곳마다 풍부하여 양봉에 종사하는 자 많아서 전조선의 사양 약 18만 상자 중 3만8천600상지는 강원도에서 사양하는 것으로 즉 총수의 22%를 점하여 봉밀 밀랍의 생산도 역시 전조선 제1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양봉이 성황한 강원도에서도 특히 인제군은 그 지세 기후 등이 아울러 양봉에 최적하여 봉밀의 생산이 번다하며 강원도 생산량의 10%이상을 점한다. 더욱 인제군 양봉의 중심지인 설악산에는 밀원식물도 가장 우량한 보제수가 풍부하여 그 산 끝은 약효의 현저함이 전조선에 제일된다는 것은 일반이 ●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제군의 봉밀이 옛부터 「인제봉밀」이란 이름으로 널리 선전되면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한원궁 전하를 비롯하여 각궁 전하가 조선에 올때마다 진상의 광영을 입고있음은 물론 조선대박람회를 비롯하여 각공진회 등에 출품하여 상패를 받기를 몇 번이나 하였으며 도처에서의 수요가 실로 번다한 중에 있다. 그 인제봉밀의 봉종 조선 재래종으로 종래의 사육 및 채밀법은 원시적이어서 채밀할 대에 협잡물이 섞여 밀의 품질을 손상케할 뿐더러 벌폐를 많이 압살하므로 벌폐의 번식이 매우 곤란하였으나 강원도산업 봉밀업조합연합회에서는 이 사양법의 개량을 책하여 1927년도부터 인제군축산봉밀업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기하였는데 결점을 없이하고 품질의 향상, 채밀량의 증가를 기도하고자 재래종 밀군을 특히 고안한 입체식 개량소상에 수용 사육하는 법을 시험케하고 있는데 그 성적이 썩 양호하여 인제지방에서는 이 개량법에 의한 양봉을 하는 이가 점차로 증가하므로 금후 봉밀의 생산은 더욱더욱 많아 질뿐 아니라 협잡물이 조금도 없고 품질이 모두 훌륭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강원지국 조사)

1931-01-28-08-01

### 매일신보

#### 요금 개정 문제로 인제 수전도 해결호

금강산전기, 서울전기 요금개정 문제는 현재 양사에 열의가 없고 당국자의 보는 것에 의하여는 실현하면 값 내림의 대상으로 다시 전력의 증가 공급을 요구할 것은 명료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년 이래 금강산전기의 현안인 강원도 인제수력발전의 인가 신청문제에 관련되겠다. 서울전기는 인제수력발전은 1만kw 내외이고 5개년간 전력수요 배가는 현상으로 보아 그리 희망할 수 없고 예의 강릉, 삼척수력 발전 허가 촉진에 의하게 되겠다. 이러한 상태로 요금의 값내림을 요구하면 금강산전기는 인제수력의 공급에 대하여 경전과 절충하여 그 해결을 보게 되면 다시 체신국에 인가는 용이치 않을 것 같다. 즉 서울전기는 값내림에 의한 일시적 수입 감소와 당인리 수력발전소 조업 개시 등의 호재료를 가지고 금강산전기에 값내림을 절충하는데 1년 후는 수입 감소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한편 금강산전기는 매년 서울전기로부터 송전요금으로 지불하는 117만원이 수입의 대부분이니 만약 이 10%를 값내림에 충당한다면 11만7,000원의 수입 감소로 현재는 영구히 그 보충이 되지않는 결과이니 금강산전기는 적극적으로 서울전기가 정식 값내림 교섭을 개시를 원하겠다. 체신국도 낭자전력조사위원회에서 소화방도가 있으면 인제수력발전은 장래 통제계획상 인가하여도 무방하다 하니 인가될 것은 틀림없겠으니 금강산전기 수년래의 현안이 해결되리라 관측한다.

1931-02-07-07-01

### 동아일보

#### 생활 향상차 권농공제조합 평소에 저축코자 창립되어 인제군내에 10개소

【인제】 강원도 인제농민으로 조직되어있는 근농공제조합수가 10개소이다. 이외에 남면 남전리에는 부인 20여명으로 조직된 부인근로조합이 있다. 이 조합원들은 단결하는데 피폐한 농촌생활을 향상시켜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서 자작자급의 정신으로 매일 두 때에 반미저축이라는 것이 실행되어서 한 달만큼 한번씩 모아 팔아 이것을 조합에다 저금을 하여 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리로써 쓰게되었다. 전조합원 300여명의 저금총액이 2,3년 내외에 933원38전이라는데 그 조합은 다음과 같다.

면명	조합명	조합원
남	남전조합	33인
	부평	33
	신월	29
북	어른	30
	원동	30
	관평	30
기린	덕교	35
	서리	30
	매화	29
사평	31	
총계		309

### 料金改訂問題로 隣蹄水電도解決乎

金剛山電氣京城電氣料金改訂問題 被과唐人里火力發電所探案開始 題는現在兩社에熱意가 없고當局 等의好材料를가지고金電에値下 者의보는바에依하여는實現하면 是折衝하는데一兩年後는收入減 値下の代價으로更히電力의增加 을充分히回復할수있고一方金剛 供給을要求할것은明瞭한일이다 山電氣는每年京電으로부터送電 料金으로支拂하는百十七萬圓의 收入の大部分이니萬若此一割을 可申請問題에關聯되겠다京城電 氣는隣蹄水力發電一萬基塔內 外五個年間電力需要倍加는現 狀으로보와그리希望할수없고例 電氣는積積的으로京電이正式價 的江陵、三陟水力發電可促進 下交渉를開始를願하겠다電信局 外의供給을要求하면金電은隣蹄 方途가있으면隣蹄水力發電은將 來統制計劃上認可하야도無妨하 아야그解決을보게되면更히選信 局認可容易치아니할것이다 金剛山電氣數年來의懸案이解決 即京電은値下에依한一時的收入 되리라觀測한다

### 生活向上次 勸農共濟組合

평소에 저축코자 창립되어 隣蹄郡内に十個所

【인제】 장전리(慶源) 농민으로 조직된 부인근로조합의 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근농공제조합수가 10개소이다. 이외에 남면 남전리에는 부인 20여명으로 조직된 부인근로조합이 있다. 이 조합원들은 단결하는데 피폐한 농촌생활을 향상시켜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서 자작자급의 정신으로 매일 두 때에 반미저축이라는 것이 실행되어서 한 달만큼 한번씩 모아 팔아 이것을 조합에다 저금을 하여 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리로써 쓰게되었다. 전조합원 300여명의 저금총액이 2,3년 내외에 933원38전이라는데 그 조합은 다음과 같다.

면명	조합명	조합원
남	남전조합	33인
	부평	33
	신월	29
북	어른	30
	원동	30
	관평	30
기린	덕교	35
	서리	30
	매화	29
사평	31	
총계		309

1931-02-11-07-03

### 동아일보

#### 도로공사의 급속진행 열망 각지에 교통이 여의치 못해 ◇...인제주민의 불편

【인제】 강원도 인제 고성간, 인제 춘천간 2등도로는 작년 풍수로 인하여 길 형체도 없이 전부 파괴된 이래 영서일대의 교통은 말할 수 없이 극도로 불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번 보도한 것이거니와 이제 이지역 주민들은 이선로는 관동지방에서 근기지방을 통하는 중앙선이고 따라 영서 각군 발전상에 큰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궁민 구제 사업으로도 하루바삐 이선로의 복구공사를 진행하기를 열망중에 있다.

그리고 들은 것에 의하면 이 선로 문제에 대하여 금년 내에는 꼭 실현시켜 달라고 군도 당국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운동을 일으키기로 분주한 중이라 한다.

**道路工事의 急速進行熱望**  
각지에 교통이 여의치 못해  
○麟蹄住民의不便

【인제】 강원도 인제 고성간, 인제 춘천간 2등도로는 작년 풍수로 인하여 길 형체도 없이 전부 파괴된 이래 영서일대의 교통은 말할 수 없이 극도로 불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번 보도한 것이거니와 이제 이지역 주민들은 이선로는 관동지방에서 근기지방을 통하는 중앙선이고 따라 영서 각군 발전상에 큰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궁민 구제 사업으로도 하루바삐 이선로의 복구공사를 진행하기를 열망중에 있다.

그리고 들은 것에 의하면 이 선로 문제에 대하여 금년 내에는 꼭 실현시켜 달라고 군도 당국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운동을 일으키기로 분주한 중이라 한다.

1931-02-16-03-07

### 동아일보

#### 사랑에 가시라고 가봉녀 타살, 타살한 후 파묻은 것을 발각 인제면 상동리 참사

【춘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 사는 김상규(25)는 자기 처 황주남(23)이가 데리고 들어온 계집애 4살 먹은 것을 때려죽인 후 공동묘지에 파묻은 것이 당지 경찰에 탐문되어 취조한 결과 그 죄상을 자백한 것에 의하면 김상규는 아내를 사랑하나 항상 그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 때문에 불평이 있으므로 미련한 생각에 그 어린아이만 없애면 평화하게 살수있으리라 하여 금년 1월 26일에 어린아이가 요강에 앉아서 오줌 누는 것을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서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한 후 머리를 난타하여 죽인 후 공동묘지에 파묻었던 것을 그 시체를 해부한 것과 뇌진혈로 사망한 것이 판명되었다.

**사랑에 가시라고  
加棒女打殺**  
타살한후 파묻은것을발각  
○麟蹄面上東里慘事

【춘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 사는 김상규(25)는 자기 처 황주남(23)이가 데리고 들어온 계집애 4살 먹은 것을 때려죽인 후 공동묘지에 파묻은 것이 당지 경찰에 탐문되어 취조한 결과 그 죄상을 자백한 것에 의하면 김상규는 아내를 사랑하나 항상 그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 때문에 불평이 있으므로 미련한 생각에 그 어린아이만 없애면 평화하게 살수있으리라 하여 금년 1월 26일에 어린아이가 요강에 앉아서 오줌 누는 것을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서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한 후 머리를 난타하여 죽인 후 공동묘지에 파묻었던 것을 그 시체를 해부한 것과 뇌진혈로 사망한 것이 판명되었다.

1931-02-16-03-11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 총회

오는 25일 인제군청 내에서 개최

1931-02-16-03-11

### 동아일보

#### 인제군면장회의

오는 2월 중순경에 개최

○麟蹄郡面長會議 來二月中旬  
○麟蹄郡農會總會 來二十五日  
○國郡廳內에서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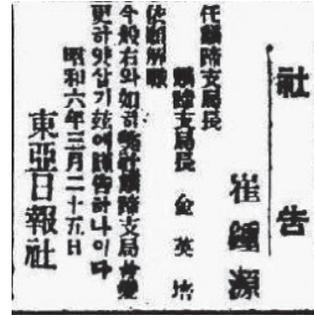


1931-03-28-03-12

### 동아일보

#### 사고

최종원 임 인제지국장  
인제지국장 김영배 의원해직  
금반 좌와 같이 폐사 인제지국을 변경하였기 이에 삼가 알립니다.  
1931년 3월 25일 동아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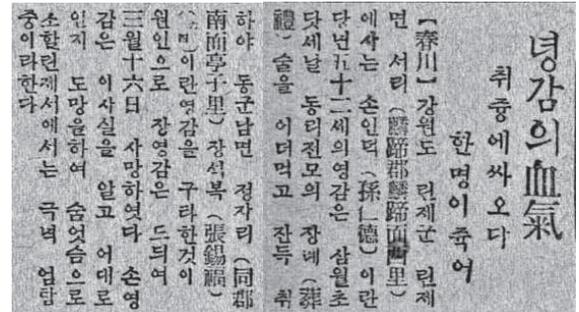


1931-03-29-07-05

### 매일신보

#### 영감의 혈기 취중에 싸우다 한명이 죽어

【춘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서리에 사는 손인덕이란 당년 52세의 영감은 3월 초닷새날 동리 전모의 장례술을 얻어먹고 잔뜩 취하여 인제군 남면 정자리 장석복(64)이란 영감을 구타한 것이 원인으로 장영감은 드디어 3월 16일 사망하였다. 손영감은 이 사실을 알고 어디로인지 도망을 하여 숨었으므로 관할 인제서에서는 극력 엄탐 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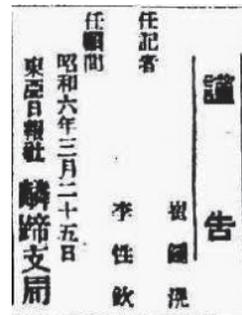


1931-03-30-03-12

### 동아일보

#### 근고

최종환 임 기자. 이성흠 임 고문. 1931년 3월 동아일보 인제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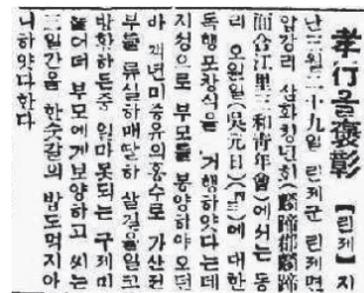


1931-04-05-07-02

### 동아일보

#### 효행을 포창

【인제】 지난 3월 29일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삼화청년회에서는 동리 오원일(43)에 대한 독행 포창식을 거행하였는데 지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여 왔는데 지난해 미증유의 흉수로 가산 전부를 유실함에 따라 살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 얼마 못되는 구제미를 얻어 부모에게 보양하고 씨는 3일간을 한 손갈의 밥도 먹지않았다 한다.



1931-04-06-03-01

### 매일신보

#### 강원도 각군 인구 수위는 삼척, 최소는 화천

【춘천】 4월 1일부로 도지사로부터 인정된 강원도 각군의 인구는 좌와 같다  
춘천 80,315인, 인제 70,090, 양구 43,840, 회양 73,856, 통천 47,122, 고성 50,768, 양양 62,265, 강릉 88,073, 삼척 88,546, 울진 66,626, 정선 46,012, 평창 80,037, 영월 65,388, 원주 69,492, 횡성 66,746, 홍천 76,972, 화천 36,544, 김화 87,341, 철원 76,921, 평강 60,852, 이천 73,298.

1931-04-16-07-01

### 동아일보

## 인제제민이 구조하라 진정, 궁춘을 당하여 살길 없다고 100여명 면사무소에 쇄도

【인제】 지난 10일 오전 11시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주민 40명과 인제면 상동리 주민 60여명이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니 구조해달라고 면장 이종형씨에게 진정하고 오후 4시경에 집으로 돌아갔다. 들은 데에 의하면 이곳주민은 작년 7월 수재로 집 기타 가구 농구 전부를 유실하고 각지방의 동정금과 강원도구제회의 보조를 받아 겨우 생명을 보존하여왔는데 금년 1월부터 하등 구호가 없어서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여 거의 사경에 빠졌고 농구도 살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있는데 도구제회에서 구제금을 배급하였다 하나 하등 통지가 없다 하여 이같이 진정한 것이라 한다.

1931-05-16-03-04

### 매일신보

## 강원도 7군 면서기 강습회 지방제 개정에 대하여

【춘천】 면서기들의 개정지방제도에 관한 강습회는 12일부터 4일간 춘천에서 개최하는데 회원은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인제, 양구, 화천 등 7군 면서기 57명이다. 동 석상에서 이 지사는 일장의 훈시가 있었다.

1931-05-21-03-10

### 매일신보

## 인제군을 【중흥군으로】 개칭하라 청원

【춘천】 강원도 인제군 각공직자들은 지난번 연서하여 인제군을 「중흥군」이라고 고쳐주기를 총독부에 진정하였다는데 개명하려는 이유는 『인제는 어떤 전설상의 인연으로 명명한 것이나 아주 산간벽지와 같은 언어적 감각을 주기 때문에 지방 발전상 비참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라 한다.

1931-05-22-07-03

### 매일신보

## 빛 안갠다고 부녀를 타살, 남편에게 빛주고 그 아내를 줄려, 빛지고 못살 세상

【춘천】 강원도 인제군 내면 장촌리 박순봉(42)가명은 지난 4월 18일 동면 상남리 안모의 아내 손이열(34)을 구타하여 가슴과 허리에 중상을 입힌 것이 원인이 되어 동 20일 췌녀는 드디어 사망하였다. 사건의 까닭인즉 손이열의 남편 안모는 얼마 전에 박순봉으로부터 돈 2원50전 가량을 취했다 썼는데 그날 그 돈을 독촉하려고 갔으나 안모는 없고 그 아내만 있던 중 췌녀는 돈 채근에 분개하여 박모와 언쟁을 하던 끝에 그 같이 완력으로 췌녀를 구타 치사케 한 것이라고 한다.

**麟蹄災民이 救助하라陳情**

궁춘을 당하여 살길 없다고 百餘名 而事務所에殺到

【인제】 지난 10일 오전 11시 인제면 합강리 주민 40명과 인제면 상동리 주민 60여명이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니 구조해달라고 면장 이종형씨에게 진정하고 오후 4시경에 집으로 돌아갔다. 들은 데에 의하면 이곳주민은 작년 7월 수재로 집 기타 가구 농구 전부를 유실하고 각지방의 동정금과 강원도구제회의 보조를 받아 겨우 생명을 보존하여왔는데 금년 1월부터 하등 구호가 없어서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여 거의 사경에 빠졌고 농구도 살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있는데 도구제회에서 구제금을 배급하였다 하나 하등 통지가 없다 하여 이같이 진정한 것이라 한다.

**江原道七郡 面書記講習會**

地方制改定에對하여

【春川】面書記들의改正地方制度에關한講習會는十二日(四日)間春川에서開催하는會員은春川、洪川、橫城、原州、麟蹄、楊口、華川等七郡面書記五十七名이다同席上에서李知事는一場의訓示가있다

**麟蹄郡 改稱中**

【春川】江原道麟蹄郡各公職者들은 過番進署하여同郡名을「中興郡」이라고改稱하라는理由는「麟蹄는옛傳說上の因緣으로命名한 것이나아주山間僻地와같은語的 感覺을주기때문에地方發展上非 常한惡影響을준다」는것이러한

**빛안갠다고 婦女를打殺**

남편에게 빛주고 그안해를줄려 빛지고 못살 세상

【春川】장원도 인제군내면 장촌리 박순봉(42)가명은 지난 4월 18일 동면 상남리 안모의 아내 손이열(34)을 구타하여 가슴과 허리에 중상을 입힌 것이 원인이 되어 동 20일 췌녀는 드디어 사망하였다. 사건의 까닭인즉 손이열의 남편 안모는 얼마 전에 박순봉으로부터 돈 2원50전 가량을 취했다 썼는데 그날 그 돈을 독촉하려고 갔으나 안모는 없고 그 아내만 있던 중 췌녀는 돈 채근에 분개하여 박모와 언쟁을 하던 끝에 그 같이 완력으로 췌녀를 구타 치사케 한 것이라고 한다.

1931-07-05-07-03

매일신보

실직 실처하고 자살을 기도, 악한의 꾀에 저 계집조차 잃고 압세의 극에 목 썰려

【원산】 지난 7월 1일 오전 9시경 원산역전 북청여관 객실 안에서는 젊은 남자 한사람이 단도로 자기 목을 찔러 자살을 하려고 하던 것을 발견하고 즉시 부내 구세병원에 입원시켜 응급 수당한 결과 요행이 생명은 구원받았으나 매우 중태에 떨어져있었다는대 이제 그의 자살하려는 경로를 듣건대 그는 원적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장성리에 둔 김영업(27)으로서 수개월 전 고향을 떠나 부부가 손잡고 원산을 왔었는데 사고무친한 타향이므로 의지할 곳이 없이 몇 푼 못가지고 온 돈을 다 소비하여 버리고 일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던 중 영업의 처 김연화(20)의 용모가 아름다움을 살핀 창부소개업자 정용구(가명) 외 최항노(가명) 용괴송(가명) 등이 공모하고 연화가 시내 모치과의원 기공수로 있는 이주식(가명)과 관계를 맺고 지내며 집세 등을 많이 빚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연화의 남편과 연화를 꼬여내어 영업은 목공소에, 연화는 음식점 식모로 소개하여 준다고 그들을 끌어냈다. 그들의 마수에 걸리는 줄 모르고 그들의 주선을 도리어 감사히 여긴 두 남녀는 피치 못할 손무자관에 그만 여지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북촌동 강남식당으로부터 원산관 뒤 정봉영의 주점으로 다시 교하동 김윤옥주점으로 팔리고 말았다.

연화는 불과 10일 만에 몸값으로 현재 71원이란 빚을 지고 매일 사람이 되고 말았다. 아내 판 돈은 거간과 투쟁이들 공갈과 위협에 못 견디어 혹은 술 먹이고 혹은 사례금으로 다 떨리고 겨우 20여원 밖에 못 얻었다. 직업 잃고 아내 잃고 돈 잃고 더욱이나 속임에 빠진 그로서야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는 여러 가지로 구원될 길을 찾다 못하여 그만 극도의 비관으로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는데 원산서에서는 방금 내사 중이라 한다.

失職失妻 自殺企圖 歷世의 極에 刺項

【元山 7월 1일 오전 9시경 북청여관 객실 안에서는 젊은 남자 한사람이 단도로 자기 목을 찔러 자살을 하려고 하던 것을 발견하고 즉시 부내 구세병원에 입원시켜 응급 수당한 결과 요행이 생명은 구원받았으나 매우 중태에 떨어져있었다는대 이제 그의 자살하려는 경로를 듣건대 그는 원적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장성리에 둔 김영업(27)으로서 수개월 전 고향을 떠나 부부가 손잡고 원산을 왔었는데 사고무친한 타향이므로 의지할 곳이 없이 몇 푼 못가지고 온 돈을 다 소비하여 버리고 일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던 중 영업의 처 김연화(20)의 용모가 아름다움을 살핀 창부소개업자 정용구(가명) 외 최항노(가명) 용괴송(가명) 등이 공모하고 연화가 시내 모치과의원 기공수로 있는 이주식(가명)과 관계를 맺고 지내며 집세 등을 많이 빚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연화의 남편과 연화를 꼬여내어 영업은 목공소에, 연화는 음식점 식모로 소개하여 준다고 그들을 끌어냈다. 그들의 마수에 걸리는 줄 모르고 그들의 주선을 도리어 감사히 여긴 두 남녀는 피치 못할 손무자관에 그만 여지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북촌동 강남식당으로부터 원산관 뒤 정봉영의 주점으로 다시 교하동 김윤옥주점으로 팔리고 말았다.

연화는 불과 10일 만에 몸값으로 현재 71원이란 빚을 지고 매일 사람이 되고 말았다. 아내 판 돈은 거간과 투쟁이들 공갈과 위협에 못 견디어 혹은 술 먹이고 혹은 사례금으로 다 떨리고 겨우 20여원 밖에 못 얻었다. 직업 잃고 아내 잃고 돈 잃고 더욱이나 속임에 빠진 그로서야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는 여러 가지로 구원될 길을 찾다 못하여 그만 극도의 비관으로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는데 원산서에서는 방금 내사 중이라 한다.

1931-07-08-07-06

매일신보

동료에게만 죄를 전가코 비용 부담을 거절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 준비

【양양】 양양군 서면 영덕리 청년들은 지난 음력 3월 12일 취한 흥을 못이겨 동리 여인숙하는 김금용 집에 회합하여 술타령을 하던 중 동리 구장 김진국씨와 인제군 사람 이창학과 변변치 못한 일로 시비하는 것을 전기 청년 9명이 가로 맞서서 시비 곡직을 불고하고 이창학을 구타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 이창학은 분개하여 당지 수사주재소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기 청년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청년 중에 김종국, 김명중, 윤천복은 농민조합원이고 그 외 이수봉 이라는 자가 농민조합원과 협력하여 나머지 5명 청년인 이성범, 장인달, 이영봉, 김귀봉에게 말하되 우리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농민조합원으로 동범자가 된다면 일반사회에 수치되는 관계도 있으니 그대들 5명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으면 그 뒤로 사회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비용 일체도 우리가 동일하게 부담하겠다는 등 감언이설을 하였는데 이성범 외 4명은 그 말을 곧이듣고 조사

同僚에게만 罪를 轉嫁코 詐欺罪로 告訴準備

【양양】 양양군 서면 영덕리 청년들은 지난 음력 3월 12일 취한 흥을 못이겨 동리 여인숙하는 김금용 집에 회합하여 술타령을 하던 중 동리 구장 김진국씨와 인제군 사람 이창학과 변변치 못한 일로 시비하는 것을 전기 청년 9명이 가로 맞서서 시비 곡직을 불고하고 이창학을 구타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 이창학은 분개하여 당지 수사주재소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기 청년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청년 중에 김종국, 김명중, 윤천복은 농민조합원이고 그 외 이수봉 이라는 자가 농민조합원과 협력하여 나머지 5명 청년인 이성범, 장인달, 이영봉, 김귀봉에게 말하되 우리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농민조합원으로 동범자가 된다면 일반사회에 수치되는 관계도 있으니 그대들 5명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으면 그 뒤로 사회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비용 일체도 우리가 동일하게 부담하겠다는 등 감언이설을 하였는데 이성범 외 4명은 그 말을 곧이듣고 조사

를 받을 때에 자기네 5명이 구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뒤로 동리 김규중 이금용 두사람을 소개하여 피해자 이창학과 사화를 하게하고 치료비 50원90전을 주게 하고 각각 집에 돌아와서 그 비용을 분배하는 마당에 농민조합원인 김종국 외 세 사람은 돌연히 마음이 변하여 우리는 이창학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불응하므로 그 당석에서 일장풍파를 연출하고 다시 농민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사기 행동을 이유로 민형사간 수속 중에 있다는데 일반은 최후 결과를 주목중이다.

1931-09-01-07-05

**매일신보**

**자는 남편의 입에 양재물을 흘려, 친정집과 떨어지기 싫어서 우매한 소부의 범죄**

조흔이 낳은 범죄-평창군 연평면 유포리 박숙자(17)는 28일 오전10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공판을 받고 징역 3년의 구형을 받았다. 박숙자는 작년 14세 때에 신경선 이와 결혼하였다. 금년 정월에 인제군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친가의 부모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4월 2일에 자는 남편의 입을 벌리고 양재물을 쏟아 넣었다. 박숙자는 양재물을 쏟아 넣으면 고약한 계집이라고 친가로 쫓을 줄 알고 그리하였다고 범행 동기를 솔직하게 대답하여 법관의 비웃음을 샀다. 박숙자는 경찰에 잡혔을 때에 동리에 있는 허인석 이라는 총각과 상관을 하고 교사로 그리하였다고 거짓 자백한 까닭에 범죄의 형을 얼마간 중하게 하였다.

1931-10-09-03-12

**동아일보**

**근고**

남천우 임 인제분국장  
금반 좌와 같이 폐지국 인제분국을 설치하였기에 이에 삼가알립니다.  
1931년 10월 3일 동아일보사 홍천지국

1931-10-15-03-06

**동아일보**

**인제공보교 운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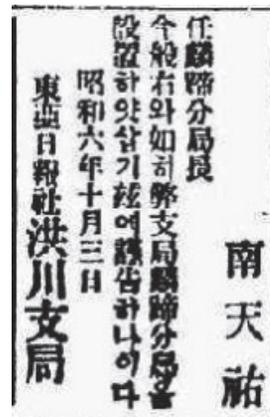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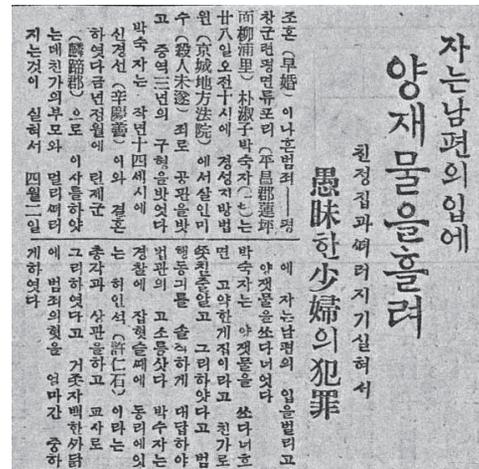
지난 11일 동교정에서 개최

1931-10-27-02-09

**동아일보**

**인제교통을 복구 공사비 15만원**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작년 7월 홍수에 도로 파손된 후로는 홍천군과의 교통만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강원도에서 공사비 약 15만원으로 좌등상삼랑의 3인에게 도로 복구공사를 청부시켜서 방금 진행 중인데 오는 12월 하순까지에는 대개 준공이 되리라 하며 인제 양구 사이는 지난 12일부터 자동차가 개통되었다 한다.



1931-10-27-03-08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

인제군농회 주최로 잠업진흥대회 오는 11월 3일 인제군에서 거행

1931-10-27-03-08

### 동아일보

#### 인제면사무소 이전 낙성식

오는 11월 3일 동면사무소에서 거행

1931-10-27-03-08

### 동아일보

#### 인제정의여학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수예품 전람회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간 동교에서 거행

1931-10-29-03-09

### 매일신보

#### 인제는 숙전화할 소지가 불충분, 삼척군 화전지대를 조사하여 이주 정경키로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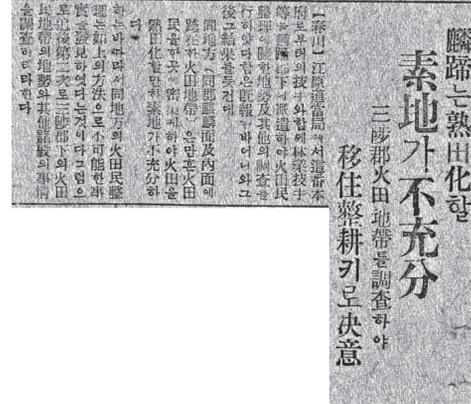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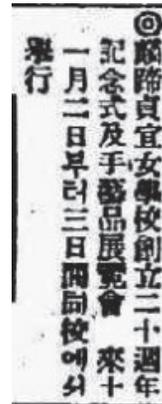
【춘천】 강원도당국에서 저번 총독부로부터의 기수와 함께 임업기수 등을 인제군하에 파견하여 화전민 정리에 관한 지세 및 기타의 조사를 행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그 후 그 결과를 듣건대 인제지방(인제군 기린면 및 내면에 과재한 화전지대)은 많은 화전민을 한 곳에 밀집케 하여 화전을 숙전화할 만한 소지가 불충분하다 하는데 따라서 동지방의 화전민 정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제2차로 삼척군하의 화전민 지대의 지세와 기타 제반의 사정을 조사하리라 한다.

1931-11-13-07-02

### 동아일보

#### 인제읍 시구는 불원간에 준공

【인제】 인제읍은 작년 수재 이후로 당지 북쪽 산 밑으로 이전하는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와 같거니와 지금까지 신축된 집이 100여 호에 달하며 관공서 등이 낙성되어 엄연히 시가지의 체면을 이루고 있는데 방금은 도의 보조금 1,200원으로 시구 개정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오는 12월 10일까지는 전부 완성되리라 한다.



1931-11-25-02-03

### 동아일보

#### 3인 강도 인제에 출현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 창촌리 대한동 김철원 집에 지난 13일 오후 10시경에 3인 강도가 들현하여 전기 김씨를 위협하고 현금 17원 10전을 강탈 후 유유히 종적을 감추었다는데 인제 경찰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 중에 있다 하며 현재 혐의자로 동리에 사는 조○정(46)과 정○순(37)과 장○호(37) 등 3인의 종적을 엄탐하는 중이라고 한다.

1931-11-25-02-06

### 동아일보

#### 설상가상의 1만여 화전민 삼림령 단속과 흉작으로 인제군에게 1만3천명

【인제】 강원도 인제군하 화전민이 1만3,000여 명이라는데 작년 이래로 도당국으로부터 화전경작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화전을 전업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전기 화전민은 살길이 막연하며 정경이 비참한데 근래 산화와 도벌이 심하므로 삼림령 단속이 극심하여 벌금 구류 등 위반자가 속출한다.

금년도 농작물은 예년에 비하여 60% 내지 80%가 감수되었다 하며 요즘 그네들의 생활 상태를 보면 겨우 근근 덕성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그나마도 떨어지게 되어 초근목피로 생명을 보존하는 정경인데 더욱이 금년은 큰 흉작으로 1만3,000여 화전민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금년 엄동 설한을 살아나갈 길이 막연하여 그네들의 앞길은 실로 암담하다 한다.

1931-11-27-03-03

### 동아일보

#### 분국 발전에 대하여 제반인사에게 고함, 인제 일기자

신문은 지식의 양식이다. 고로 차라리 하루 동안 밥을 먹지 않을지언정 신문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까지 있다. 인간과 식물은 일사라도 떠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신문이라는 것은 현대인 생활의 더욱이 특수환경에 성장하는 우리들에겐 참된 영의 양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혐로난관을 불고하고 2천300만 민중과 같이 울며 같이 앞날을 약언하고 나선 우리 동아일보는 협문인 이곳에서 까지 고함치고 있다. 목자를 잃고 허덕이던 우리 인제의 목자이다. 나날이 그 발전을 봄은 오로지 신문이 무엇임을 인식한 까닭이다.

그런데 왕왕이 일부 인사는 본지의 의의와 목표를 인식치 못하고 신문을 지지하는 성의가 적으며 혹은 이것을 지지할 줄 모르니 인제를 위하여 애석한 일이다.

신문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의 지지 없이는 하루도 지장할 수 없는 것이니 민중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 三人強盜

【백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 창촌리 대한동 김철원(麟蹄郡內面 蒼村里 大關洞 金天一) 집의 지난 13일 오후 10시경에 3인 강도가 들현하여 전기 김씨를 위협하고 현금 17원 10전을 강탈 후 유유히 종적을 감추었다는데 인제 경찰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 중에 있다 하며 현재 혐의자로 동리에 사는 조○정(46)과 정○순(37)과 장○호(37) 등 3인의 종적을 엄탐하는 중이라고 한다.

### 雪上加霜의 萬餘火田民

삼림령 취제와 흉작으로 麟蹄郡에 萬二千名

【인제】 강원도 인제군하 화전민이 1만3,000여 명이라는데 작년 이래로 도당국으로부터 화전경작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화전을 전업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전기 화전민은 살길이 막연하며 정경이 비참한데 근래 산화와 도벌이 심하므로 삼림령 단속이 극심하여 벌금 구류 등 위반자가 속출한다.

### 分局發展에對 하야

新聞은 知識의 양식이다. 고로 차라리 하루 동안 밥을 먹지 않을지언정 신문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까지 있다. 인간과 식물은 일사라도 떠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신문이라는 것은 현대인 생활의 더욱이 특수환경에 성장하는 우리들에겐 참된 영의 양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혐로난관을 불고하고 2천300만 민중과 같이 울며 같이 앞날을 약언하고 나선 우리 동아일보는 협문인 이곳에서 까지 고함치고 있다. 목자를 잃고 허덕이던 우리 인제의 목자이다. 나날이 그 발전을 봄은 오로지 신문이 무엇임을 인식한 까닭이다.

1931-12-01-07-05

### 동아일보

## 금융조합 부채만 매호 120원, 인제군농민의 부채 조사 보상할 방도는 막연

【인제】 강원도 인제금융조합에 조합원수는 1,500여명인데 현재 조합원에 대부금은 19만여 원이므로 1인당 120원의 부채가 되고 일반 조합원은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데 그 원인을 들으면 조합원은 대개 농민으로써 수확기를 태산같이 밟고 빚을 내어 썼으나 금년의 인제 지방엔 근래에 희소한 대흉년이므로 1년 농사 전부를 팔아도 조합 빚의 반분도 안되며 그 외에도 각세금 바칠 방도가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연말은 닥쳐왔으므로 인심이 불안하다 한다.

1931-12-02-07-04

### 동아일보

## 연초령 위반 210여건 벌금액이 2천여원에 달해 인제 1군의 이 통계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지난 27일 현재 처벌당한 주세령 위반 44건에 875원이다. 연초전매령이 150여건에 1천200여원이라는 거액에 달하였는데 작년도에 비교하면 주세령 위반자는 다소 감한 듯하나 연초전매령 위반자는 배 이상의 증가이러는데 군당국에서는 각자 주의하여 이후로 위반자가 하나도 없기를 요망한다고 한다.

1931-12-02-07-08

### 동아일보

## 미취학 아동 1만3천여, 취학한 아동 겨우 1천여명 물경 인제 1군 통계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산간벽지인 만큼 교통이 불편하며 따라서 모든 기관도 불완전한 가운데 더욱 참담한 것은 아동 교양문제인데 학령아동으로서 아직 취학치 못한 아동이 금년도 현재 1만3천여 명이라 하며 취학 아동은 인제공보교 서화공보교 기린공보교 대관공보교 창촌공보교 심상소학교 6교 합하여 530명 외에 사립학교 및 개량 서당 아동이 680명에 불과하다는데 근일에는 인제지방은 근래에 없는 대흉작으로 인하여 퇴학생이 속출하는 중에 있다 한다.

1931-12-03-02-07

### 동아일보

## 합강 농민야학

【인제】 강원도 인제면 합강리에 있는 삼화청년회에서 수년전부터 회장 최규선씨의 열렬한 활동으로 문맹을 위하여 농민야학을 성대히 하여왔는데 금년에도 지난 10월 15일부터 동 회관 내에서 농민야학과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야학을 개최하였다는데 학생은 60여 명에 달하였으며 강사는 최규선 김교면 양씨 외 1인이라 한다.

**金組負債單**  
**每戶百廿圓**  
인제군 농민의 부채 조사  
報價方途ニ漠然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금융조합(總額)은 현재 대부금 19萬餘元에 달하고 조합원 1,500여명인데 1인당 120圓의 부채가 되고 일반 조합원은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데 그 원인을 들으면 조합원은 대개 농민으로써 수확기를 태산같이 밟고 빚을 내어 썼으나 금년의 인제 지방엔 근래에 희소한 대흉년이므로 1년 농사 전부를 팔아도 조합 빚의 반분도 안되며 그 외에도 각세금 바칠 방도가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연말은 닥쳐왔으므로 인심이 불안하다 한다.

**煙草令違反**  
**二百十餘件**  
별곡의 인 1천여 원에 달해  
麟蹄一郡의 此統計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지난 27일 현재 처벌당한 주세령 위반 44건에 875원이다. 연초전매령이 150여건에 1천200여원이라는 거액에 달하였는데 작년도에 비교하면 주세령 위반자는 다소 감한 듯하나 연초전매령 위반자는 배 이상의 증가이러는데 군당국에서는 각자 주의하여 이후로 위반자가 하나도 없기를 요망한다고 한다.

**未就學兒童**  
**一萬三千餘**  
취학한 아동 겨우 1천여명  
勿驚麟蹄一郡統計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산간벽지인 만큼 교통이 불편하며 따라서 모든 기관도 불완전한 가운데 더욱 참담한 것은 아동 교양문제인데 학령아동으로서 아직 취학치 못한 아동이 금년도 현재 1만3천여 명이라 하며 취학 아동은 인제공보교 서화공보교 기린공보교 대관공보교 창촌공보교 심상소학교 6교 합하여 530명 외에 사립학교 및 개량 서당 아동이 680명에 불과하다는데 근일에는 인제지방은 근래에 없는 대흉작으로 인하여 퇴학생이 속출하는 중에 있다 한다.

**合江農民夜學**  
합강 농민야학

【인제】 강원도 인제면 합강리에 있는 삼화청년회에서 수년전부터 회장 최규선씨의 열렬한 활동으로 문맹을 위하여 농민야학을 성대히 하여왔는데 금년에도 지난 10월 15일부터 동 회관 내에서 농민야학과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야학을 개최하였다는데 학생은 60여 명에 달하였으며 강사는 최규선 김교면 양씨 외 1인이라 한다.

1931-12-03-07-05

### 동아일보

#### 인제 거진간 도로는 완성

【인제】 강원도 인제와 거진간은 작년의 대수란 이후로 도로가 파손되어 제반 차가 불통하여 인제 일반의 불편이 심한데 지난 28일에 총공사비 15만원을 들여 완공되어 불원간 개통되리라 한다.

1931-12-03-07-05

### 동아일보

#### 전신위체 횡령

【인제】 지난 25일에 춘천 청부업자 봉강장작 발신 인제우편소 유치로 김국일에게 전신위체 150원이 온 일이 있다는데 전기 김국일씨는 그런 돈은 절대로 받은 일이 없다하며 인제우편소에서는 영수증까지 받고 바로 지불하였다는 괴상한 일이 있다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양구군 양구면 대동리에 거주하는 차○명(24)이 춘천 전기 봉강의 돈 부치는 내용을 알고 미리 김국일의 인장을 위조하여 가지고 있다가 교묘히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방금 경찰에서는 엄중한 취조를 하고 있다 한다.

1931-12-04-02-09

### 동아일보

#### 인제 담배값 매호 6원여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금년 1년간 담배로 소비된 돈이 65,943원이다. 연초전매령 위반 벌금액이 750여원이란 엄청난 거액으로 그 돈을 인제 1만465호에 분배한다면 매호당 6원60전씩 돌아가는데 이를 또 교육비로 쓴다고 가정하면 보통학교를 10여개소나 능히 경영하여갈 수 있다 한다.

1931-12-04-03-01

### 동아일보

#### 지방논단 아사선상의 화전민 그를 구제하자. 인제 일기자

인제지방은 강원도의 중앙을 점하고 있으나 산림봉악이 중첩하고 평탄지가 희소하며 교통이 불편하여 대외적 감수력이 결여하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의 문화보급 사상이 지만되었으니 6만 인구를 포유하고 있는 이 지방에 사회운동단체의 1개조차 찾아볼 수 없음이 이것을 증명한다. 상업계도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빼앗기고 있고 더욱 농민의 반수 이상을 점한 화전민은 작년의 수해와 금년도 농작물의 60% 내지 80%까지의 감수로 대기근 중에 있다. 그 중에 더욱 심한 것은 심산공곡에서 조와 옥수수과 감자로 겨우 연명하여가는 화전민이며 그나마도 떨어지게 되어 초근목피로 근근이 생계하는 화전민이다. 그네들은 작년 이래로 삼림령 단속이 극심하여 위반자가 속



출하며 근래 불경기의 모진 바람이 돌자 산곡에서 약간의 화전이나  
 마 부쳐 다수한 식구의 호구에 급한데 흉작 감수의 영향으로 기근에  
 서 울고있다. 그래서 엄동설한을 지나갈 방도가 막연하며 내년 작농  
 은 염려하여 우려 중에 있다. 소행무처에 화전민이 인제 하에만 1만  
 2천여명! 풍전등화의 생령이 남면에만 500호인데 금일내로 정처없  
 는 방랑의 길로 떠난 예정이며 벌써 떠난 자가 30호에 달하였다. 이  
 것이 그네들의 사할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나.

인제 전군에 자세한 조사는 아직 없지만 기근민이 전 인구의 25%는  
 넘을 것이다. 인제 6개면 중 각면 당국자는 여차히 중차대한 문제와  
 비참한 현상을 대책화재로 생각하고 점시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마 군당국자로서는 행정상으로는 인도상으로는 중대  
 한 문제다 당국의 시급한 구제책을 촉한다.

1931-12-06-03-10

**동아일보**

근고

길효춘 임 기자

1931년 12월 2일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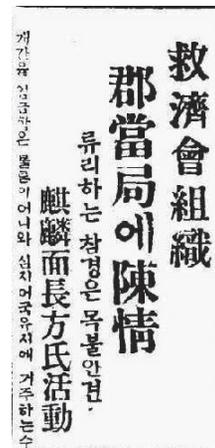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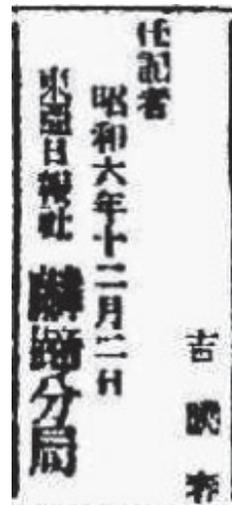
1931-12-09-07-01

**동아일보**

**구제회 조직 군당국에 진정, 유리하는 참경은 목불인견  
 인제면장 방씨 활동**

개간을 엄금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국유지에 거주하는 수천 화  
 전민에게 축출명령까지 내렸으므로 기린면 면장 방범주씨는 굶고  
 헐벗은 죽음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하여 구제회를 발기하  
 고 실지 조사한 결과 기린 1면에만 생령이 오늘내일하는 화전민이  
 739인인데 그네들에게 다만 쌀 한되씩이라도 분배하리라는데 면장  
 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서운 불경기 시대에 더욱이 대흉년을 만난 수천 화전민들은 난경  
 에서 헤매며 갈곳도 없는 길을 할 수없이 남부여대하고 떠나는 참상  
 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며 더욱이 산간에 있던 화전민들은 동리로 내  
 려와서 동민에게 눈물을 흘려가며 애걸하는 그들을 볼 때 직접 면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무엇이라고 형용해서 말할 수 없으며 구제  
 회라고 조직했으나 도무지 그로서는 불가능하므로 군에 진정하여  
 여의치못하면 도당국에까지라도 진정하겠습니다.



본 회는 인제면 화전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The association is organized to relieve the fire victims in Inje-myeon...)

인제면장 방범주씨는 굶고 헐벗은 죽음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하여 구제회를 발기하고 실지 조사한 결과 기린 1면에만 생령이 오늘내일하는 화전민이 739인인데 그네들에게 다만 쌀 한되씩이라도 분배하리라는데 면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서운 불경기 시대에 더욱이 대흉년을 만난 수천 화전민들은 난경에서 헤매며 갈곳도 없는 길을 할 수없이 남부여대하고 떠나는 참상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며 더욱이 산간에 있던 화전민들은 동리로 내려와서 동민에게 눈물을 흘려가며 애걸하는 그들을 볼 때 직접 면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무엇이라고 형용해서 말할 수 없으며 구제회라고 조직했으나 도무지 그로서는 불가능하므로 군에 진정하여 여의치못하면 도당국에까지라도 진정하겠습니다.

1931-12-09-07-01

### 동아일보

#### 풍전등화의 화전민 흑한에 식량 결핍, 유일한 양식이던 감자도 떨어져 인제 한군에 만여명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 사는 1만3천여의 화전민은 수년래로 삼림령으로 말미암아 개간의 엄금을 당하였으므로 1년간에 수확은 겨우 1, 2개월간에 호구에도 달하지 못한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는데 더욱이 급격하게 밀려드는 곡가 폭락으로 인하여 화전민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저하하여 귀리도 없어서 감자마령세를 먹으면서 겨우 겨우 그날그날의 목숨을 이어가는데 요사이 와서는 그 조차 없어졌으므로 곤란상태에 바진 화전민이 1만여 명이며 굶어 죽게 된 참경에 빠진 화전민이 실지 조사에 의하면 참혹한 인제 남면을 제외하고도 기린 1면에만 739인이며 더욱이 날마다 계속되는 흑한으로 외출도 잘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1931-12-12-02-09

### 동아일보

#### 인제에 천연두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는 수일 전에 천연두가 발생되어 동리에 사는 주동군의 둘째아들 응창(3)은 진짜환자로 판명되었으며 경찰당국에서는 예방에 노력 중이나 일반은 각자 주의함이 필요하겠다고 한다.

1931-12-15-07-06

### 동아일보

#### 인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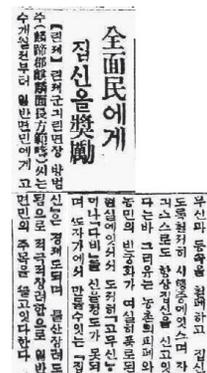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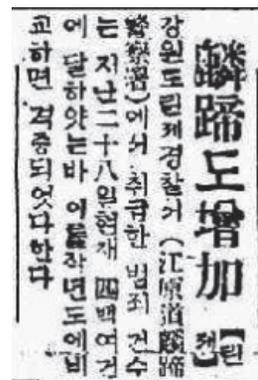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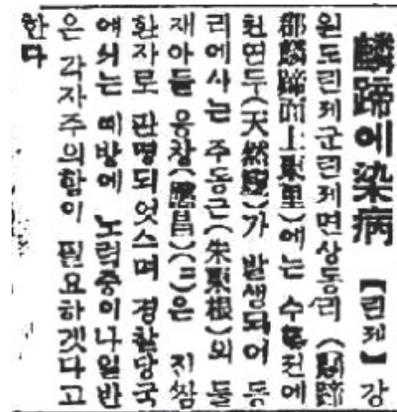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경찰서에서 취급한 범죄건수는 지난 28일 현재 400여건에 달하였는데 이를 작년도에 비교하면 격증되었다 한다.

1931-12-18-07-02

### 동아일보

#### 전면민에게 쫓신을 장려

【인제】 인제군 기린면장 방범주씨는 수개월 전부터 일반면민에게 고무신과 등숙을 철폐하고 쫓신 신도록 철저히 시행중에 있으며 자기 스스로도 항상 쫓신을 신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농촌의 피폐와 농민의 빈궁화가 여실히 폭로된 현실에 있어서 도저히 「고무신」이나 「다비」를 신을 정도가 못되며 또 자가에서 만들 수 있는 「쫓신」은 경제도 되며 물산 장려도 되므로 적극적 장려하므로 일반면민의 주목을 끌고있다 한다.



1931-12-18-07-03

### 동아일보

## 인제 양양선 공사 도당국에 청원, 설계해두고 착수는 않은 것 기근민 구제의 일책

【인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간 도로는 총경비 20만원 예산으로 벌써 설계해놓고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치 않았다는데 일반 인민이 교통에 불편을 느낀 것은 물론이거니와 금년도 인제지방 대홍작으로 말미암아 수천농민이 아사선상에서 헤매는 참혹한 현상이 있으므로 기린면장 방범주씨는 기근민구제회까지 조직하여 각방면으로 구제책을 강구하였으나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금번 최후의 구제책으로 인제 기린과 양양간 도로공사에 착수하도록 신청하였는데 만일 여의치 못하면 적극적으로 도당국에 진정하리라 하며 일반 농민도 하루바삐 착수하기를 고대하는 중에 있다 한다.

1931-12-22-07-01

### 동아일보

## 평균 60, 70% 감수로 일 동민 전부 이산, 벌써 떠난 호수도 상당히 다수, 인제 각면 농민 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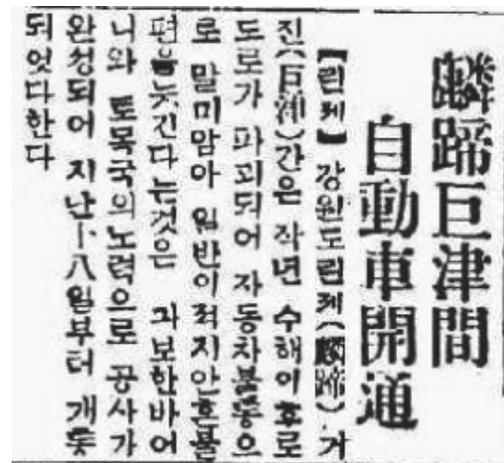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일대에서는 작년도 수해 이후로 눈물과 근심으로 지내오는데 금년에 이르러서는 예년에 비교하여 농작물은 평균 60, 70%가 감수되었으며 내년은 75%의 감수이므로 일반인심은 극도로 불안 중에 있으며 도무지 그네들은 풍전등화의 생령으로 엄동설한을 지나갈 방도가 막연하여 남부여대하고 눈물로 정처없는 길을 떠나는 자가 많다는데 기린면 한동리에서는 온동리가 전부 떠났으며 북면은 총호수 1천여호인데 그 중 500호는 떠날 예정이며 현재 떠난 자도 30여호에 달하였다 한다.

1931-12-22-07-02

### 동아일보

## 인제 거진간 자동차 개통

【인제】 강원도 인제 거진 간은 작년 수해 이후로 도로가 파괴되어 자동차 불통으로 말미암아 일반이 적지 않은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것인데 토목국의 노력으로 공사가 완성되어 지난 18일부터 개통되었다 한다.



1931-12-31-02-03

### 신한민보

## 설상가상의 1만여명 화전민, 삼림령의 단속으로 만 3천 명이 사경에

강원도 인제군하 화전민이 1만3,000여명이라는데 작년 이래로 도당 국으로부터 화전경작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화전을 전업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그네들의 살길이 막연하며 정경이 비참한데 근래 산화와 도벌이 심하므로 삼림령 단속이 극심하여 벌금 구류 등 위반자가 속출한다. 금년도 농작물은 예년에 비하여 60% 내지 80% 감수되었다 하며 요즘 그네들의 생활 생태를 보면 겨우 근근덕성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그나마도 떨어지게 되어 초근목피로 생명을 보존하는 정경인데 더욱이 금년은 큰 흉작이고로 1만3천여 화전민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금년 엄동설한을 살아나갈 길이 막연하여 그들의 전도는 실로 암담하다고 한다.

1932-01-03-02-06

### 동아일보

## 인제 설악산중에서 귀중한 유물 발굴, 어느 시대 것인지 자세 몰라 유기 5개와 도기 1개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설악산 중에서 여섯 개의 유기와 한 개의 사기그릇을 발굴하였다. 내막을 뜯건대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거주하는 권사련씨가 약풀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22일에 설악산에 들어가서 사태난 곳을 봤는데 전기와 같은 유기와 사기가 나왔다고 한다. 유기와 이름을 모를뿐더러 어느 시대에 것인지 줄도 모르므로 경찰에서는 조사에 착수하리라 한다.

1932-01-13-07-05

### 동아일보

## 인제서 음악강습

【인제】 강원도 인제읍내에 있는 인제 엽빛청년회에서는 인제연악회와 본보 인제분국 후원 하에 오는 11일부터 인제 사립정의여학교 안에서 개최한다는데 타군에서도 다수 참가하기를 바라며 교사는 염석정씨와 김한경씨라 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다.  
관악, 성악, 유희, 댄스 기타, 회비 50전

설상가상의 1만여명 화전민, 삼림령의 단속으로 만 3천 명이 사경에

강원도 인제군하 화전민의 1만 3천명중 삼림령의 단속으로 만 3천명만이 사경에

이러한 사실은 평양의 이시소영으로 화전민을 전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네들은 산화와 도벌이 심하므로 삼림령의 단속이 극심하여 벌금 구류 등 위반자가 속출한다. 금년도 농작물은 예년에 비하여 60% 내지 80% 감수되었다 하며 요즘 그네들의 생활 생태를 보면 겨우 근근덕성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그나마도 떨어지게 되어 초근목피로 생명을 보존하는 정경인데 더욱이 금년은 큰 흉작이고로 1만3천여 화전민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금년 엄동설한을 살아나갈 길이 막연하여 그들의 전도는 실로 암담하다고 한다.

歸蹄雪岳山中에서  
貴重한遺物發掘  
어느시대것인지 자세몰라  
鍮器五個와陶器一個

【인제】 강원도 인제군(江原道 麟蹄郡) 동면(東面) 설악산(雪岳山) 중(中)에서 모조(模造) 유물(遺物) 발굴(發掘)한 개(個)의 사기(磁器)와 도기(土器)를 발굴하였다. 내막(內幕)을 뜯( 뜯)건대( 건대) 인제(仁濟)군(郡) 북면(北面) 한계리(韓桂里)에 거주(居住)하는 권사련(權事連)씨가 약(藥)풀( 풀)을 구( 구)하기(기) 위하여(의) 지난(去) 22(二十)일(日)에 설악산(雪岳山)에 들어가(가)서 사태난(沙汰난) 곳을(處) 봤( 봤)는데 전기(電氣)와 같은(와) 유기(有機)와 사기(磁器)가 나왔( 나왔)다고(고) 한다(다). 유기(有機)와 이름을(을) 모( 모)를(를) 뿐( 뿐)더러(더) 어느(어) 시(時)대(代)에(에) 것(것)인지(지) 줄(줄)도(도) 모르( 모)므로(로) 경(警)찰(察)에서는(은) 조( 조)사(사)에(에) 착( 착)수(수)하(하)리라(라) 한다(다).

麟蹄서音樂講習 【인제】 강원도 인제읍내(江原道 麟蹄郡 邑內)에 있는 인제 엽빛청년회(仁濟 葉碧靑年會)에서 오는 11일부터 인제 사립정의여학교(仁濟 私立 正義女學校) 안에서 개최한다는데 타군에서도 다수 참가하기를 바라며 교사는 염석정(嚴石正)씨와 김한경(金韓敬)씨라 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다. 관악(管樂), 성악(聲樂), 유희(遊藝), 댄스(舞蹈), 기타( 기타), 회비( 회費) 50(五十)전(錢).

1932-01-16-03-01

### 매일신보

## 강원도의 요구제민 최소 1만여명 초과, 더욱 심한 인제는 보고조차 없어 국고보조 6만원

【춘천】 누보=지난가를 강원도 전반에 걸쳐 요구한 폭풍우 및 기후 조병 등의 천재는 특히 도내 산간부에 심각을 극하여 문자그대로의 「농민기근」을 현출하였으므로 도 및 당해 각군 당국에서는 곧 그들의 구제에 셀 틈 없기를 기하여 목하 적당히 식량을 배급하면서 있는데 이 구제비는 지방비 중으로부터 임시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의 피해 구역은 거의 전도에 걸쳐있고 요구제도 무려 1만여명 이상에 달하는 형편이므로 이들을 구제하려면 국고 보조에 기다리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터로 저번 이 지사는 서울로 가서 총독부와 협정한 결과 약 6만원 가량의 보조를 할 것으로 대략 내락을 얻었다 한다. 그런데 각군에 있어서의 요구제자 및 그 구제비 보조예정액과 지방비로부터의 일시 지출액을 각각 다음과 같은데 개중 인제군에서는 다수의 이재민이 기근에 울고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보고조차 하지않고 있으므로 타군에서는 이미 이재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제군의 이재민들은 타 지방으로 속속 유리해가면서 있는 형세라고 전해 듣게된다.

군별	이재민수(인)	보조예정액	내금지불제액
1. 울진군	563인	772	500
1. 원주군	457인	789	400
1. 흥천군	670인	1,157	600
1. 평강군	471인(평강군하에서 보조없이 구제해간다고 한다)		
1. 회양군	9,000원	보조예정 약 5,000인	
1. 인제군	미상	미상	
1. 강릉군	미상	미상	

더욱 종곡비는 별도 보조할 것이라 한다.

1932-01-20-03-07

### 동아일보

## 인제금융조합에서 지소 신설 청원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는 금융조합이 본, 지소 2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넓고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그 대책을 강구중이었는데 금번에 서화지소를 설치하기로 구체안이 작성되어 즉시 관계 당국에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한다.

### 江原道の要救濟民 最少萬餘名超過

尤甚飢饉踰之報告 초차 업서  
國庫補助六萬圓

「泰川」電報「昨秋江原道全境 飢饉甚烈...」  
 一、陽智郡 九七二 五〇〇  
 一、原州郡 七八九 四〇〇  
 一、洗川郡 一五七 六〇〇  
 一、淮陽郡 九〇〇圓補助  
 一、淮陽郡 九〇〇圓補助  
 一、江陵郡 未詳 未詳

### 麟蹄金組에서 支所新設請願

【麟蹄】 강원도 린계군(麟蹄郡)에는 금융조합(金融組合)이 본지소(本支所)밖에 없고 업무가 답습잡해서 그 대책을 강구중 이든바 금번에 서화지소를 설치하기로 구체안이 작성되어 즉시 관계 당국에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1932-01-20-07-02

### 등아일보

## 수업료 체납 퇴학생 속출, 인제공립보통학교에서만 400여 처에 독촉장

【인제】 강원도 인제군 5개 공립보통학교 월사금 체납이 지난 16일 현재로 990여원에 달하여 군당국에서는 징수 방법을 연구 중이나 이렇다 할 묘안이 서지 못하여 두통만 앓고 있었는데 최후 수단으로 각교 재학생 790명 중 400명 생도에게 일제히 독촉장을 배부하였는데 대개 학부모에 직업이 농민인 만큼 경제에 여유도 없는 것이 큰 원인이라니와 인제지방에 농작물은 이미 보도와 같이 70, 80%의 감수이므로 약간의 수확은 작료에도 부족하여 현재는 사선에서 방황하는 중이므로 도저히 납부 방도가 막연하다 하며 퇴학생이 날로 더할 뿐이라 한다.

1932-01-22-03-07

### 매일신보

## 인제읍은 양미 결핍, 흉작과 賀穀으로, 생활에 위협

【춘천】 강원도 인제읍에서는 작금 미곡류의 두루 밀바닥을 현출하여 수중에 돈을 쥐고도 양미를 살 수 없는 기현상을 나타내어 일반은 매우 생활상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저번의 금 수출 재금지로 인하여 미곡가가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상인들이 「매점」을 한 까닭과 또 인제군하 작년가을의 풍제로 인하여 양미가 결핍되었으며 타지로부터의 반입도 민할치 않은 까닭이라고 한다.

1932-01-23-02-06

### 등아일보

## 종곡이 없어 파종도 불능? 5만3천여정보에 달해 인제 주민 극도 우려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는 재작년의 대홍수의 수란이 있는 후 작년도의 말할 수 없는 흉작으로 인하여 2만1천여명의 이재민이 사선에서 방황한다함은 본보에 누차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제 군당국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네들의 정경은 목불인견이고 현재는 어떠한 방침으로든지 구제한다 할지라도 농민의 생명인 종곡을 다 먹었으므로 금년 농사에 파종 불능의 토지가 53,597정보에 달한다 하여 일반 유지와 군당국에서는 매우 우려 중에 있다 한다.

**授業料滯納 退學生續出**

四·百餘處에督促狀

【인제】 강원도 인제군(江原道 仁濟郡) 5개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의 월사금(月謝金) 체납(滯納)이 지난 16일 현재로 990여원에 달하여 군당국에서는 징수 방법을 연구 중이나 이렇다 할 묘안이 서지 못하여 두통만 앓고 있었는데 최후 수단으로 각교 재학생 790명 중 400명 생도에게 일제히 독촉장을 배부하였는데 대개 학부모에 직업이 농민인 만큼 경제에 여유도 없는 것이 큰 원인이라니와 인제지방에 농작물은 이미 보도와 같이 70, 80%의 감수이므로 약간의 수확은 작료에도 부족하여 현재는 사선에서 방황하는 중이므로 도저히 납부 방도가 막연하다 하며 퇴학생이 날로 더할 뿐이라 한다.

**麟蹄邑은 糧米缺乏**

凶作과賀穀으로 生活에 威脅

【春川】 江原道麟蹄邑에서는 昨今米穀類の大拂底を現出하여 手中に金を握り 糧米を 살 수 없는 奇現象을 呈示하여 一般에 對하여 生活上の 威脅을 覺고 있다 云한다 이 것은 這番의 金輸出再禁止로 因하여 米穀價가 暴騰할 것을 豫想하고 商人들이 「買占」을 行한 外 同郡下 昨秋의 風災로 因하여 糧米가 缺乏되 勢스되 他地로 運入의 搬入도 敏活치 않은 外 畝가 乏이라고 한다

**種穀이 없어서 播種도 不能?**

五만三千餘정보에 달해 麟蹄住民極度憂慮

【인제】 강원도 인제군(江原道 仁濟郡) 일대에는 재작년의 대홍수의 수란이 있는 후 작년도의 말할 수 없는 흉작으로 인하여 2만1천여명의 이재민이 사선에서 방황한다함은 본보에 누차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제 군당국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네들의 정경은 목불인견이고 현재는 어떠한 방침으로든지 구제한다 할지라도 농민의 생명인 종곡을 다 먹었으므로 금년 농사에 파종 불능의 토지가 53,597정보에 달한다 하여 일반 유지와 군당국에서는 매우 우려 중에 있다 한다.

1932-01-23-07-04

### 동아일보

#### 승객차 전복 2명이 경사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산간벽지이므로 교통이 불편하기 짝이 없으므로 특히 자동차에 사고가 많아서 일반 승객이 막대한 불편을 느끼는 동시에 운전수들도 매우 고통 중이었는데 지난14일에 내선자동차부 「123」호 운전수 김금동이 인제를 떠나 홍천을 향하다가 오전10시경에 어른고개(어른치)에서 전복되었다는데 고개의 눈이 녹아 결빙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된 것이라 한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관계없고 두 사람의 경사자만 났다하며 일반 운전수는 주의함이 좋겠다 한다.

1932-01-26-07-01

### 동아일보

#### 인제군하 요구조사 2만1천명 돌파, 군당국이 조사 후 도청에 진정 농민지옥의 비참상

【인제】 현하 농촌에는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고 다만 사망의 그림자가 어두울 뿐이라는 것으로 농촌 피폐와 파멸을 능히 알 수 있으며 조선사람의 생활수준이 놀랄만하게 저하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거니와 산간벽지인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농민은 70, 80%의 감수의 대홍작으로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들어 메밀겉가루(맥곡분)와 초근목피로 겨우 생계를 하는 중이다. 이제 군당국에서 구조를 요치 않으면 안 될 풍전등화의 생명을 실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2만1,130명이라는 엄청난 수효에 달하였는데 군당국에서는 도저히 구제할 방도가 막연하여 실지 조사서와 함께 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큰 문제이므로 하루바삐 보조를 바라며 각면의 요구조사는 좌와 같다 한다.

각면	요구제자
인제면	572호 3,031인
남면	582호 3,121인
북면	713호 3,378인
서화면	884호 4,447인
기린면	449호 3,183인
내면	920호 4,979인
계	4,120호 21,130인

1932-01-27-03-05

### 매일신보

#### 인제 1군에만 요구제자 1만여명 작년 풍수해의 참상

【춘천】 지난 가을 강원도 일대에 내습한 폭풍우 기후, 조냉 등으로 인한 농촌의 재해 및 그후 각군의 이재민 구제 상황은 누차 보도하였거니와 개중 인제군하의 재해 상황이 미상이었는데 저간 인제군 당국의 조사 진원에 비취 겨우 그 진상이 판명되었는데 재해 정도는 그의 심각치는 않으니 횡으로 범위는 전군하에 미쳐 요구제자가 실로 1만여명의 다수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당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제 방침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나 원체 다수에 달하므로 그 구제비의 연출에 상당히 부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 乗客車顛覆

#### 二名이輕傷

【인제】 강원도 인제군(江原道 仁濟郡) 산간벽지이므로 교통이 불편하기 짝이 없으므로 특히 자동차에 사고가 많아서 일반 승객이 막대한 불편을 느끼는 동시에 운전수들도 매우 고통 중이었는데 지난14일에 내선자동차부 「123」호 운전수 김금동이 인제를 떠나 홍천을 향하다가 오전10시경에 어른고개(어른치)에서 전복되었다는데 고개의 눈이 녹아 결빙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된 것이라 한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관계없고 두 사람의 경사자만 났다하며 일반 운전수는 주의함이 좋겠다 한다.

### 麟蹄郡下要救助者 二萬一千名突破

#### 農民地獄의此慘狀

【인제】 현하 농촌에는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고 다만 사망의 그림자가 어두울 뿐이라는 것으로 농촌 피폐와 파멸을 능히 알 수 있으며 조선사람의 생활수준이 놀랄만하게 저하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거니와 산간벽지인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농민은 70, 80%의 감수의 대홍작으로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들어 메밀겉가루(맥곡분)와 초근목피로 겨우 생계를 하는 중이다. 이제 군당국에서 구조를 요치 않으면 안 될 풍전등화의 생명을 실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2만1,130명이라는 엄청난 수효에 달하였는데 군당국에서는 도저히 구제할 방도가 막연하여 실지 조사서와 함께 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큰 문제이므로 하루바삐 보조를 바라며 각면의 요구조사는 좌와 같다 한다.

면	호수	인구
인제면	572	3,031
남면	582	3,121
북면	713	3,378
서화면	884	4,447
기린면	449	3,183
내면	920	4,979
계	4,120	21,130

### 麟蹄一郡에만 要救濟者萬餘名

#### 昨年風水害의慘狀

【春川】 昨秋江原道一帶에來襲으로그救濟費의檢出에相當困難한暴風雨氣候早冷等으로因한農心하고잇는모양이다

【인제】 현하 농촌에는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고 다만 사망의 그림자가 어두울 뿐이라는 것으로 농촌 피폐와 파멸을 능히 알 수 있으며 조선사람의 생활수준이 놀랄만하게 저하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거니와 산간벽지인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농민은 70, 80%의 감수의 대홍작으로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들어 메밀겉가루(맥곡분)와 초근목피로 겨우 생계를 하는 중이다. 이제 군당국에서 구조를 요치 않으면 안 될 풍전등화의 생명을 실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2만1,130명이라는 엄청난 수효에 달하였는데 군당국에서는 도저히 구제할 방도가 막연하여 실지 조사서와 함께 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큰 문제이므로 하루바삐 보조를 바라며 각면의 요구조사는 좌와 같다 한다.

1932-01-28-07-06

### 동아일보

#### 인제의 염병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는 김모 외 두 사람의 장티푸스 환자가 지난 21일에 발생되었으므로 소관 경찰은 방금 소독중이라 하나 일반은 주의함이 필요하다 한다.

1932-01-30-07-04

### 동아일보

#### 극빈자 위해 동정소인극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읍내에 있는 인제애향청년회에서는 본보 인제분국과 인제연합회 후원 하에 이달 30일에 인제군에 흠어져 아사선상에서 해매는 이재민을 위하여 동정 음악회와 소인극을 개최한다는데 일반 유지 여러분은 다수 참가하기를 바란다 한다.

1932-01-30-07-06

### 동아일보

#### 흔비 얻고자 농우를 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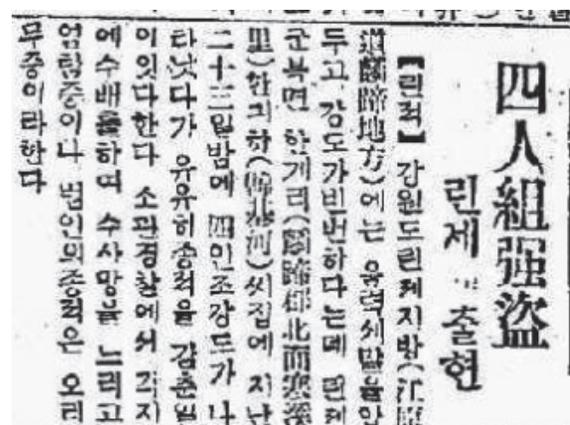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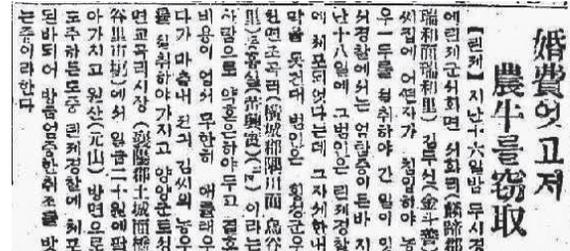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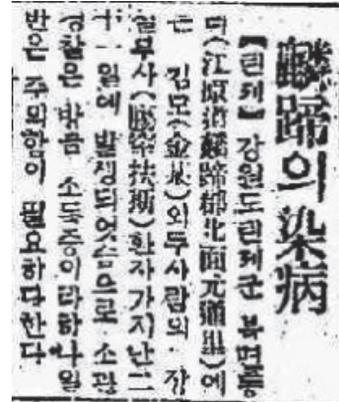
【인제】 지난 16일 밤 2시경에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김두선씨 집에 어떤 자가 침입하여 농우 1마리를 절취하여 간 일이 있어 경찰에서는 엄탐중이었는데 지난 18일에 그 범인은 인제경찰에 체포되었다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듣건대 범인은 황성군 우천면 조곡리 황홍실(24)이라는 사람으로 약혼은 하여두고 결혼 비용이 없어 무한히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전기 김씨의 농우를 절취하여 가지고 양양군 토성면 교곡리 시장에서 일금 20원에 팔아가고 원산방면으로 도주하던 도중 인제경찰에 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는 중이라 한다.

1932-02-01-03-08

### 동아일보

#### 4인조 강도 인제에 출현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에는 음력 세밑을 앞두고 강도가 빈번하다는데 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기하씨 집에 지난 23일 밤에 4인조 강도가 나타났다가 유유히 종적을 감춘 일이 있다 한다. 소관 경찰에서 각지에 수배를 하여 수사망을 늘이고 엄탐 중이나 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이라 한다.



1932-02-02-02-04

### 매일신보

#### 문서 위조 공금횡령 사법주임 판결, 형사를 기고서 못 된 짓 감행 관대 처분에 감격

강원도 인제군 경찰서 전 사법주임 이후녕에 관한 문서 위조 공금횡령 죄의 판결은 1일 오후2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소림 재판장으로부터 언도되었다. 피고는 인제서 사법주임으로 있을 때에 형사 김백록을 끼고 인제군 중화면 배곡찬 외 85명의 증결처분으로 받은 공금 1,850원을 횡령하였다. 재판장은 전기와 같은 판결이유를 설명한 후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미결구류 120일을 통산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언도하였다. 피고는 관대한 처분에 감격하여 머리를 굽혀 절을 거듭하였다.

1932-02-02-02-10

### 동아일보

#### 窮巷의 인제에 범죄가 격증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은 2년간 재화로 말미암아 경제에 파멸을 당하고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는 그네들에게 최후로 남은 것은 아사를 기다릴 밖에 없는데 각종 세금과 채권자들은 벌의 때같이 가혹한 처분이 끊이지 않는 정상이므로 여러 해 동안 빈궁에 쪼들려온 그들은 인생을 저주하고 강도질로 변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 사건이 연발하는 중이었는데 인제경찰에서는 경관 총출동으로 특별 경계를 하며 범죄자가 어찌 많은지 경찰에서는 수용소가 부족되어 두통 중이라 한다.

1932-02-04-02-04

### 신한민보

#### 인제 설악산중에서 귀중한 유물 발굴한 유기 5개와 도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설악산중에서 옛석기와 유기와 한 개의 사기 그릇을 발굴하였다. 내막을 뜯건대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거주하는 권사련씨가 약풀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22일에 설악산에 들어가서 사태난 곳을 파는데 전기와 같은 유기와 같은 유기를 모를뿐더러 어느 시대에 것인 줄도 모르므로 경찰에서는 조사에 착수하리라 한다.

1932-02-06-07-06

### 동아일보

#### 가로상에서 걸인 아사, 성명도 몰라

【인제】 지난 28일 오후6시 경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가로상에서 한 40세 되어 보이는 남자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이제 소관 경찰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사자로 판명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주소 성명도 모른다 한다.

文書偽造公金橫領  
司法主任判決

형사들끼고서 못된 짓 감행  
寬大處分에感激

강원도인제군 경찰서 (江原道 麟蹄郡警察署) 전사법주임 (前 司法主任) 이후녕 (李厚寧) 에 관한 문서 위조 공금횡령죄의 판결은 1일 오후두시에 경성지방법원 (京城地方法院) 에서 소림 (少林) 재판장으로부터 언도되었다. 피고는 인제서 사법주임으로 있을 때에 형사 김백록(金百錄)을 끼고 중화면 배곡찬 외 85명의 증결처분으로 받은 공금 1,850원을 횡령하였다. 재판장은 전기와 같은 판결이유를 설명한 후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미결구류 120일을 통산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언도하였다. 피고는 관대한 처분에 감격하여 머리를 굽혀 절을 거듭하였다.

窮巷의 隣蹄에  
犯罪가 激增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江原道麟蹄地方)은 2년간 재화로 말미암아 경제에 파멸을 당하고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는 그네들에게 최후로 남은 것은 아사를 기다릴 밖에 없는데 각종 세금과 채권자들은 벌의 때같이 가혹한 처분이 끊이지 않는 정상이므로 여러 해 동안 빈궁에 쪼들려온 그들은 인생을 저주하고 강도질로 변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 사건이 연발하는 중이었는데 인제경찰에서는 경관 총출동으로 특별 경계를 하며 범죄자가 어찌 많은지 경찰에서는 수용소가 부족되어 두통 중이라 한다.

인제 설악산에서  
귀중한 유물 발굴한 유기 5개와 도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설악산중에서 옛석기와 유기와 한 개의 사기 그릇을 발굴하였다. 내막을 뜯건대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거주하는 권사련씨가 약풀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22일에 설악산에 들어가서 사태난 곳을 파는데 전기와 같은 유기와 같은 유기를 모를뿐더러 어느 시대에 것인 줄도 모르므로 경찰에서는 조사에 착수하리라 한다.

街路上에서  
乞人餓死

성명도 몰라

【인제】 지난 28일 오후 6시 경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가로상에서 한 40세 되어 보이는 남자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이제 소관 경찰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사자로 판명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주소 성명도 모른다 한다.

1932-02-08-03-08

### 매일신보

## 강원도내 요구제자 인제군이 최다수 1만600인에 1만2천원 배당, 군경연합조사결과

【인제】속보=홍작으로 인한 강원도내 각군의 요구제자 및 도로부터의 구제비 보조금 지출상황은 2월 4일 현재와 같은데 요구제자 및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인제군의 1만603인의 1만2,400원이다.

군별	요구조자	보조에정액	동지출제액 (중략)
인제	10,603	12,414	10,000
정선	1,700	1,836	1,500
계	26,635	38,656	15,757

더욱 구조기간은 대개 오는 3월말일까지 라는데 도경찰부측의 조사에 의하면 이밖에 좌기 각군에도 홍작으로 인한 요구구조자가 꽤 많을을 발견할 수 있다. (중략)

이와 같이 내무부측 조사와 경찰부측 조사와의 서로 다름을 발견하는데 실로 경찰부측 36,111인과의 사이에 9,476인의 차가 있어서 이로써 보더라도 아직도 도내에 구조에 착수치 않은 요구구조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1932-02-10-07-01

### 동아일보

## 촌리마다 간사 배치 기근민 조사 급량, 작년 풍재로 굶어 죽게 된 3300명 군내 유지들이 좁쌀과 콩으로 살려, 인제군민의 구제회

【인제】강원도 인제군의 작년도 풍재 상황은 여러번 보도한 것과 같거니와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나마도 얼마씩 가지고 연명하던 식량은 아주 떨어지고 더 할 도리가 없는 지경인데 인제면만 방금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이 572호에 2,300명이라고 한다.

면장 이종형씨는 이와 같은 위급한 형편을 보고 각리를 순회하며 실지를 조사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구제회를 조직하고 각 촌락마다 간사를 두어서 매일 동리 백성의 식량을 조사케 하며 식량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하루 한사람에게 콩 한홉에 겉조 한홉씩을 주어서 겨우 연명케 하는 중인데 구제회원수가 800명이고 간사가 144명이고 구제 곡물은 콩과 조 합하여 300석인데 이것으로 벌써 지나간 11월 15일부터 실행하는 중 이제 이것이 지방민의 힘으로 최후의 힘을 다하여 한 것이라 한다. 이같이 구제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참상은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는 생활이라 한다.

### 江原道內要救濟者 麟蹄郡이 最多數

一萬六百人에 一萬二千圓配當

#### 郡縣聯合調査結果

郡別	要救補助額	補助者數
麟蹄	12,414	10,603
正善	1,836	1,700
計	38,656	26,635

郡別	要救補助額	補助者數
麟蹄	12,414	10,603
正善	1,836	1,700
計	38,656	26,635

### 村里마다 幹事配置 饑饉民調査給糧

작년 풍재로 굶어 죽게 된 3300명 군내 유지들이 좁쌀과 콩으로 살려

#### 麟蹄郡民의 救濟會

면장 이종형씨는 이와 같은 위급한 형편을 보고 각리를 순회하며 실지를 조사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구제회를 조직하고 각 촌락마다 간사를 두어서 매일 동리 백성의 식량을 조사케 하며 식량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하루 한사람에게 콩 한홉에 겉조 한홉씩을 주어서 겨우 연명케 하는 중인데 구제회원수가 800명이고 간사가 144명이고 구제 곡물은 콩과 조 합하여 300석인데 이것으로 벌써 지나간 11월 15일부터 실행하는 중 이제 이것이 지방민의 힘으로 최후의 힘을 다하여 한 것이라 한다. 이같이 구제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참상은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는 생활이라 한다.

郡別	要救補助額	補助者數
麟蹄	12,414	10,603
正善	1,836	1,700
計	38,656	26,635

1932-02-11-08-01

### 매일신보

## 춘공에 당면하여 만주 조 수입 격증, 작년 12월 이래로 점등 보조, 금후 이익 수요환기

쌀의 수급부족 예상으로 쌀값은 강조를 지속하여 조선내 각 창고는 투기쌀의 입고로 만고상태인데 조선내는 아연 만주 조에 대하여 수요를 환기하여 작년 말 이래 만주 조의 수입이 격증하였는데 즉 서울 통관에 대하여 보면

	1932년	1931년
11월	1,481석	1,484석
12월	5,923석	1,481석

12월에 들어 현저히 증가하고 따라서 7월 내외의 만주 조 시세는 점등보조로 작금 해성물 1포대 9원 50전(창도 4평가 물은 2.20전 지)인데 강원 충남·북 3도는 비상한 곤궁상태로 빈농계급은 식량이 없는 상태로 쌀은 도저히 매입할 수 없으니 자연 만주 조에 매기가 쇠도 하며 상인의 투기도 있어 만주 조는 근년 회유의 약진이니 금후 더욱더 수요가 환기하는 추세이다. 전기 3도 공박의 일례를 주한 강원도 영월, 인제 두 군청은 관내 국민 생활응급책으로 전보로써 서울 상의에 만주 조 각 100석의 매부와 서울에 있는 만주 조의 재고 수량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외 9일 공익사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충남 북 양도에서도 비상히 곤궁하여 만주 조에 대한 수요가 환기하였으니 수요기에 들어온 만주 조 취인은 만주 침략전쟁의 일단락과 상사하여 비상한 활기를 나타내겠다.

1932-02-13-02-09

### 동아일보

## 동정의 밤을 개최 극빈자에게 배미

【인제】 강원도 인제읍내에 있는 엽뽕청년회에서는 구정월을 쇠지 못하는 극빈자 47호에 지난 4일에 쌀을 배풀었다 한다. 그런데 전기 백미는 엽뽕청년회원들의 고심 노력의 소인극의 소득이라 하여 극빈자는 더욱 기뻐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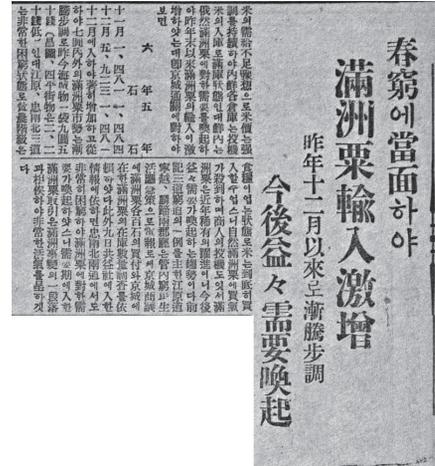
1932-02-13-07-01

### 동아일보

## 강원도의 유리농가 4천300여호! 인구로는 1만8천명을 돌파, 작년 대흉작 관계로

【춘천】 산국 강원도는 또한 빈민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농작 상황은 대개 그 해의 청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작년도의 수재로 인하여 나타난 농작물의 흉작은 떼거지의 강원도로 화하고 말았다. 이제 강원도 보안과가 조사한 아주 거지가 되어 유리 또는 유리할 수지는 아래와 같다.(단 조사 미비한 곳을 제한)

유리해간 자	호수	인구
춘천	105	368
인제	141	564 (중략)



江原道の流離農家 四千二百餘戶!

去年大凶作關係로

江原道	4,200
春川	1,200
襄陽	1,000
元山	1,000

이외에 춘천, 인제, 홍천, 평창, 영월, 정선, 철원, 개령, 양구, 양양, 고성, 태백, 원주, 횡성,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유리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 유리해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의 수효는 도 아래와 같다.  
유리하려는 자

	호수	인구
춘천	107	448
인제	567	2,268 (중략)

1932-02-13-07-06

**동아일보**

**4인단 강도**

【인제】 기보=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기하 집에 지난 23일 밤에 4인 조 강도가 출현되어 인제경찰서에서는 이웃 군과 연락하여 혈안 수사 중이었는데 지난 27일에 일망타진하였다는데 범인은 주소 불명의 유진○(42) 외 3인이라 한다.

1932-02-14-02-10

**동아일보**

**인제 양구 자동차 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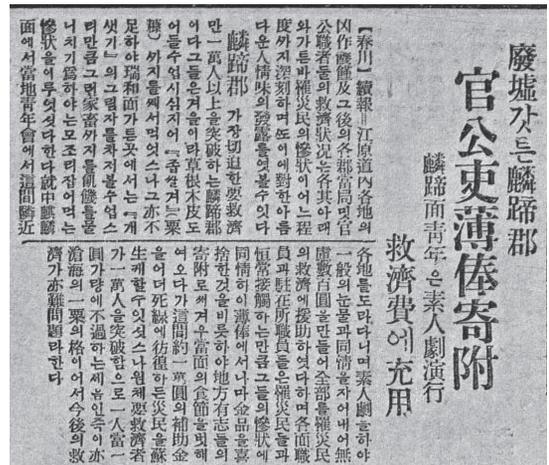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 양구간은 지난번 큰 눈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일반인민이 막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불통의 원인을 듣건대 단순히 적설로 인함이 아니고 양구 구역은 전부 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제구역만은 조금도 제설치 않았으므로 그와 같이 수십 일 동안 교통이 두절되었다 한다.

1932-02-15-03-01

**매일신보**

**폐허같은 인제군 관공리 박봉 기부, 인제면 청년은 소인극 연행 구제비에 충용**

【춘천】 속보=강원도내 각지의 흉작 기근 및 그 후의 각군 당국 및 관공직자들의 구제상황은 각기 아래와 같은데 이재민의 참상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며 또 이에 대한 아름다운 인정미의 발로를 엿볼 수 있다. 인제군-가장 절박한 요구제만 1만 이상을 돌파하는 인제군이다. 그들은 겨울이라 초근목피도 얻을수 없어서 심지어 『좁쌀겨』(속강)까지를 찌서 먹었으나 그 역 부족하여 서화면 같은 곳에서는 『개새끼』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그런 가축까지를 기아를 물리치기 위하여는 모조리 잡아먹는 참상을 이루었다 한다. 나아가 인제면에서 당지 청년회에서 저간 인근 각지를 돌아다니며 소인극을 하여 일반의 눈물과 동정을 자아내어 무려 수백원을 만들어 전부를 이재민의 구제에 원조하였다 하며 각면 직원과 주재소 직원들은 이재민들과 항상 접촉하는 만큼 그들의 참상에 동정하여 박봉에서나마 금품을 희사한 것을 비롯하여 지방유지들이 기부로서 겨우 면의 식절을 버티어오다가 저간 약1만원의 보조금을 얻어 사선에 방황하던 재민을 소생케할 수 있었으나 원체 요구제자가 1만인을 돌파하므로 1인당 1원가량에 불과하는셈인즉 이 역시 창해의 일속의 격이어서 금후의 구제가 역시 난문제라 한다.



1932-02-16-07-02

### 동아일보

## 군면직원에 제복 착용령, 인제군 당국의 기발한 명령 월급에서 강제 공제

【인제】 강원도 인제군 당국에서는 군청원 및 6개면 직원에게 일제히 「즈메에리」를 입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듣건대 소비절약을 목적하고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제하므로 모직원은 지난 2월 분 월급을 3원각수밖에 못받다 한다. 일반 직원은 물론 할 수 없이 이 명령을 복종할 수밖에 없으나 일반 유지층에서는 이와 같이 기근민이 속출하는 시기에 입을 의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무리한 명령을 함에 대하여 비난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2-02-16-07-03

### 동아일보

## 기아에 직면한 영서 화전민 양구, 인제, 춘천 등지가 흑심 유리 구걸자가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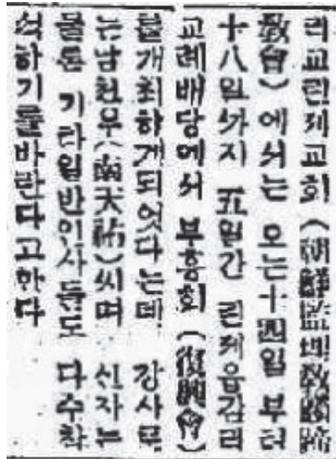
【인제】 영서지방은 산간벽지이며 화전민이 대다수이다. 작년 1년 중 에만도 삼림령 위반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터인데 그나마 갖은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한 줄기의 희망을 바라 것은 갈아놓은 화전의 수확이다. 많으면 어린 처자와 늙은 부모를 먹여살릴까 하였으나 그도 수포가 되어 수확기를 앞두고 심한 폭풍으로 수확의 70, 80% 감수를 보게되어 영서일대에 산재한 수만 화전민은 벌써부터 식량이 두절되어 말할 수 없는 참경에 빠지게 되어 유리걸식하는 사람이 많다. 그중에 적설 10여척에 달하는 심산궁곡에 있는 화전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특히 잔혹한 지경에 빠진 곳은 영서 일대에도 더욱이 인제 내면 기린면 일대와 양구 북면 방산면 수입면, 화천군 수동 일대, 춘천군 북산면 일대에 산재한 화전민이라 한다.

1932-02-16-07-06

### 동아일보

## 인제부흥회

조선감리교 인제교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인제읍 감리교예배당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데 강사로는 남천우씨며 신자는 물론 기타 일반인사들도 다수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1932-02-17-07-04

### 동아일보

#### 인제에 牛病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일대에는 지난 12일 중순경에 소병이 창궐하여 인제경찰에서는 총독부 소지 기수를 초빙하여 예방주사를 시행하였는데 건강하던 소가 4마리나 죽게되고 발병된 소가 6, 7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 혹은 예방주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 중이라 한다.

麟蹄에牛病 (린치) 강원도 인제군북면 (江原道麟蹄郡北面) 일대에는 지난 12일 중순경에 소병(牛病)이 창궐하여 린치경찰에서는 총독부 소지(小池) 기수를 초빙하여 예방주사를 시행하였는데 건강하던 소가 4두나 죽게되고 발병된 소가 六七두에 달한다고 하는데 혹은 예방주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 중이라 한다.

1932-02-20-06-09

### 동아일보

#### 인제 김씨 미거

【인제】 강원도 인제 김기선씨는 금년 음력설을 당하여 백미 40두를 내어 설을 쇠지 못하고 아사선상에서 방황하는 빈민에게 지난 4일에 배급하여 일반인사는 김기선씨의 미거에 극히 칭송하는 중에 있다 한다.

麟蹄金氏美舉 (린치) 강원도린치(江原道麟蹄) 김기선(金基善)씨는 금년 음력설을 당하여 백미(白米) 40두를 내어 설을 쇠지 못하고 아사선상에서 방황하는 빈민에게 지난 4일에 배급하여 일반인사는 김기선씨의 미거에 극히 칭송하는 중에 있다 한다.

1932-02-20-07-04

### 동아일보

#### 각단체 참가 금주금연 행렬 밤에는 성대한 강연회 개최 ◇인제 가두의 장관

【인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인제엠티청년회에서는 음력 정초를 맞이하면서 금주금연단행을 목적하고 금년에는 더욱 대대적으로 그 선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지난 13일에 준비가 완성되어 오후 2시에 시내 정의여학교 교정에 집합하여 식을 거행한 후 인제연악회 악대를 선두로 금주가 고창하며 선전 전단을 뿌리며 시내를 순회 행렬하고 동 오후 4시 반에 원만 산회하였다 한다. 참가단체는 인제경찰서, 인제연악회, 인제사립정의여학교, 인제유치원, 인제 각교회, 인제유년주일학교, 인제엠티청년회 등이라 한다. 기행렬을 마친 후 오후 7시반부터 인제읍 예배당내에서 엠티청년회 김준영씨 사회 하에 금주 금연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연사는 이숙종씨와 염석정씨였다 하며 동 9시 반에 폐회하였다고 한다.

各團體參加 禁酒禁煙行列  
밤에는 성대한 강연회 개최  
◇麟蹄街頭의壯觀  
【인제】인제엠티청년회에서는 음력 정초를 맞이하여 금주금연단행을 목적으로 금년에는 더욱 대대적으로 그 선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지난 13일에 준비가 완성되어 오후 2시에 시내 정의여학교 교정에 집합하여 식을 거행한 후 인제연악회 악대를 선두로 금주가 고창하며 선전 전단을 뿌리며 시내를 순회 행렬하고 동 오후 4시 반에 원만 산회하였다 한다. 참가단체는 인제경찰서, 인제연악회, 인제사립정의여학교, 인제유치원, 인제 각교회, 인제유년주일학교, 인제엠티청년회 등이라 한다. 기행렬을 마친 후 오후 7시반부터 인제읍 예배당내에서 엠티청년회 김준영씨 사회 하에 금주 금연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연사는 이숙종씨와 염석정씨였다 하며 동 9시 반에 폐회하였다고 한다.

1932-02-23-03-05

### 매일신보

## 춘공과 호구무책 정처없이 출발하는 유리동포의 참상, 흉작 후의 물가 폭등은 대타격 강원도 각군의 현상

◇...인제군 당지 특유의 악폐로 지주 부호들은 물가의 폭등을 예상하고 재고미를 매출치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출회미가 극도로 밀바닥나 붕괴자들은 돈을 가지고도 안심하여 살을 사먹을 수 없는 형편이며 빈곤자들은 극도의 불안 싸여 인심 악화할 징조가 있으므로 경찰서에서는 전기와 같은 자들을 일일이 초치하여다가 쌀을 매출하도록 설득한다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932-03-01-07-02

### 동아일보

## 궁민 구제비에서 공과금 공제, 9전 밖에 못받던 사람도 있어 인제군 북면의 처사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 풍전등화의 2만여 생명을 위하여 군 당국의 열렬한 활동으로 도에 진정한 것이 되어 2만2천여원의 구제비가 인가되어서 각면에 분배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각 면에서도 좁쌀과 콩을 사서 일반 궁민에게 적당히 분배하였다. 그런데 인제군 북면 당국에서는 각각 배당되는 구제비 중에서 공과를 공제하고 배당하였다 한다. 이제 그 자세한 예를 들면 동면 일화리 고각현은 구제비 2원92전이 배당되었는데 공립보통학교기성회비 40전을 공제하고 2원52전밖에 안주었으며 동리 심준실은 2원40전이 배당되었는데 가세금을 공제하고 9전 밖에 받지못하였다 한다.

1932-03-01-07-02

### 동아일보

## 성경학교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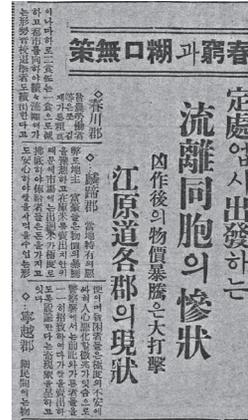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읍에 있는 엽윗청년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농촌 무산아동 교양을 목적으로 성경학교를 개교하였는데 아동은 벌써 40여명에 달하였으며 교사는 남천우 이외만 양씨로 과목은 한글 산술 성경 농예라고 한다.

1932-03-01-07-04

### 동아일보

## 인제 강도

【인제】 강원도 인제서에 지난 17일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되어 엄중한 취조를 받은 일본인 공기무갈은 절도 전문 전과 3범으로 취조하던 경관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 한다고 자세한 내막을 듣건대 전기 중기는 대부분 현 하모군 화전촌 자전시에 원적을 두고 수년전에 조선에 나와서 일정한 주소를 정하지 않고 전조선을 횡행하며 절도를 하였는데 금번에도 조선 전문으로 함경남북도를 거쳐 강원도로 돌아서 무전취식으로 철원 김화 화천 양구 등 7개 고을을 거쳐서 조선인에게만 전문으로 갖은 손해를 끼치다가 인제서에 체포된 것으로 불원간 송국되리라 한다.



### 동아일보

## 인제의 이상촌 합강동의 방문기, 인제 일기

강원도 인제군은 태백산맥이 낳아준 산악강만이 증첩하여 심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그러나 기암괴석의 천연적 절경을 자랑하는 전조선에서 굴지되는 설악산도 여기 있고 유쾌 정정한 고적을 기념하는 백담사와 합강정도 이 인제에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겠지만은 현대적 산물인 이상의 모범농촌이 인제군 인제면 일우되는 합강리에 있는 줄은 아마도 이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상업도 공업도 남만 못하고 빈약하나마 생활에 근거가 오직 일선 명맥을 부지하는 농촌경제에 있을 뿐인즉 이 농촌의 진흥은 즉 우리의 생로를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이라 한다. 그러므로 위안 재료를 이상농촌의 모든 시설을 채사하여다가 독자앞에 소개하는 것도 그다지 무용이 행사는 아니겠기로 필자는 잠시의 여가나마 이용하여가지고 일부러 이 이상의 농촌 합강리를 탐방하기로 하였다.

◇실지의 답사와 탐문한 것에 의하면 이 합강리가 이상의 모범촌으로 실현되기는 1928년도에 농민자각회 설립과 삼화청년회가 조직된 이후 동민이 전부 회원이 되어가지고 최규선씨의 열렬한 지도로 동심협력하여 농촌진흥사업에 착착 진행하여은 효과라는데 작년도 수해로 인하여 회원 등이 막대한 손해를 당하여 일시는 산회 문제까지 제창되었으나 완전히 회복되어 더욱이 재미있게되어 간다는데 이 합강리에 실시된 사업을 약기하면 좌와 같음

1. 농사개량에 대한 설시는 청년회원의 공동단결하에 최신의 개량방법으로 작농하는 제반 시설이 완비되고 부업 장려기관까지 설비된 일
2. 풍속개량에 대한 사항
  - (1. 동등야학을 실행하여 문맹퇴치를 여행하는 일)
  - (2. 관혼상제에 절약하고 구속을 타파하는 일)
  - (3. 타종을 비하여 동민으로 하여금 시간 여행을 실시하는 일)
  - (4. 근검저축의 정신으로 각 회원의 통장을 설치하여 가지고 매일 땀나무를 저장하였다가 출매저금하는 일)
  - (5. 회원 전부 야경이 되어 당번 순으로 도난 소방에 노력하는 일)
  - (6. 비상 재변 또 소화방지 및 도로개수 구역 내에 소설은 회원 총출동을 비상소집하는 일)
  - (7. 만사를 공론에 순응하여 해결하는 미풍이 있는 일)
  - (8. 일반회원의 분쟁문제는 청년회원의 회의로 대책을 강구하여 귀정하는 일)
3. 기타에 여러 가지 방면에 동민의 경제발전을 기도하며 제 세금은 종류 여하를 불포하고 회에서 책임지고 필히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침을 준수하기로 합니다.

◇전기와 같은 탐사를 필한 필자의 소감은 실로 많았다. 겸하여 이 합강리에는 1인의 부랑청년이 없이 근검을 위주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경야독이 미풍양속을 이행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방금 우리의 농촌경제가 일반적으로 잔감·파멸로 들어가는 차체에 있어서 이 합강리는 실로 낙천지에 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같이 훌륭한 모범의 이상촌을 형성한 것은 민간사업에 진취하기로 결심하고 일찍이 관계를 용퇴한 후 농촌계발에 고심하던 최규선씨의 지도에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할 것이다. 씨여! 더욱더욱 우리 무산농민과 아동을 위하여 건투하여 주기를 바란다.(K.H.S생)

### 麟蹄의理想村

#### 合江洞의訪問記

○麟蹄 一 記

江原道麟蹄郡合江洞(麟蹄)은 태백산맥의 산악강만이 증첩하여 심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그러나 기암괴석의 천연적 절경을 자랑하는 전조선에서 굴지되는 설악산도 여기 있고 유쾌 정정한 고적을 기념하는 백담사와 합강정도 이 인제에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겠지만은 현대적 산물인 이상의 모범농촌이 인제군 인제면 일우되는 합강리에 있는 줄은 아마도 이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상업도 공업도 남만 못하고 빈약하나마 생활에 근거가 오직 일선 명맥을 부지하는 농촌경제에 있을 뿐인즉 이 농촌의 진흥은 즉 우리의 생로를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이라 한다. 그러므로 위안 재료를 이상농촌의 모든 시설을 채사하여다가 독자앞에 소개하는 것도 그다지 무용이 행사는 아니겠기로 필자는 잠시의 여가나마 이용하여가지고 일부러 이 이상의 농촌 합강리를 탐방하기로 하였다.

◇실지의 답사와 탐문한 것에 의하면 이 합강리가 이상의 모범촌으로 실현되기는 1928년도에 농민자각회 설립과 삼화청년회가 조직된 이후 동민이 전부 회원이 되어가지고 최규선씨의 열렬한 지도로 동심협력하여 농촌진흥사업에 착착 진행하여은 효과라는데 작년도 수해로 인하여 회원 등이 막대한 손해를 당하여 일시는 산회 문제까지 제창되었으나 완전히 회복되어 더욱이 재미있게되어 간다는데 이 합강리에 실시된 사업을 약기하면 좌와 같음

1. 농사개량에 대한 설시는 청년회원의 공동단결하에 최신의 개량방법으로 작농하는 제반 시설이 완비되고 부업 장려기관까지 설비된 일
2. 풍속개량에 대한 사항
  - (1. 동등야학을 실행하여 문맹퇴치를 여행하는 일)
  - (2. 관혼상제에 절약하고 구속을 타파하는 일)
  - (3. 타종을 비하여 동민으로 하여금 시간 여행을 실시하는 일)
  - (4. 근검저축의 정신으로 각 회원의 통장을 설치하여 가지고 매일 땀나무를 저장하였다가 출매저금하는 일)
  - (5. 회원 전부 야경이 되어 당번 순으로 도난 소방에 노력하는 일)
  - (6. 비상 재변 또 소화방지 및 도로개수 구역 내에 소설은 회원 총출동을 비상소집하는 일)
  - (7. 만사를 공론에 순응하여 해결하는 미풍이 있는 일)
  - (8. 일반회원의 분쟁문제는 청년회원의 회의로 대책을 강구하여 귀정하는 일)
3. 기타에 여러 가지 방면에 동민의 경제발전을 기도하며 제 세금은 종류 여하를 불포하고 회에서 책임지고 필히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침을 준수하기로 합니다.

◇전기와 같은 탐사를 필한 필자의 소감은 실로 많았다. 겸하여 이 합강리에는 1인의 부랑청년이 없이 근검을 위주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경야독이 미풍양속을 이행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방금 우리의 농촌경제가 일반적으로 잔감·파멸로 들어가는 차체에 있어서 이 합강리는 실로 낙천지에 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같이 훌륭한 모범의 이상촌을 형성한 것은 민간사업에 진취하기로 결심하고 일찍이 관계를 용퇴한 후 농촌계발에 고심하던 최규선씨의 지도에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시인할 것이다. 씨여! 더욱더욱 우리 무산농민과 아동을 위하여 건투하여 주기를 바란다.(K.H.S생)



1932-03-15-07-02

### 동아일보

#### 인제 양양선 도로 문제로 동민 당국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 달라고 800명 동민 연서로

【인제】 강원도 인제 양양간 도로는 총경비 20만원 예산으로 벌써 설계해 놓고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치 않았는데 금년도 인제 지방은 대흉작으로 말미암아 수만 이재민이 아사선상에서 헤매는 현상이므로 군 당국에서는 각면에 구제회를 조직하고 각 방면으로 맹렬히 활동함은 물론이거니와 궁민 구제책으로 인제 양양간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를 도에 신청하여 불원간 착수하게 되었다는데 현재 설계한 것은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한다. 이에 인제 북면민 800여명은 연서 날인하여 전기 예산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당국과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

1932-03-17-02-02

### 신한민보

본국시사 강원도의 유리군 증가 4천300여호 인구는 1만8천여명! 강원도는 빈민이 많기로 유명하니 농작상황은 대개 그 해의 강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작년도의 수해로 인하여 나타난 농작은 폐거지의 강원도로 화하고 말았다. 이제 강원도 보안과가 조사한 결과 아주 거지가 되어 유리 또는 유리할 통계 숫자는 아래와 같다.(단 조사한 곳만 게재하고 조사 미필한 곳을 생략

유리한 자	호수	인구	유리한 자	호수	인구
춘천	105	368	인제	141	564
회양	102	480	강릉	6	28
삼척	23	104	울진	28	35
정선	29	145	평창	527	1,792
영월	165	685	원주	53	176
횡성	437	1,951	홍천	38	154
화천	58	409	김화	38	150
평강	65	293	이천	76	392
총계	호수	2,135			
	인구	8,557			

이밖에 유리하게 된 호수는 2,177호에 인구는 9,584명이라고 하였더라

1932-03-18-07-01

### 동아일보

#### 구제회 조직

생활상 일대 위협이 닥쳐와 극도의 불안에 싸여있는 참혹한 면내 기근민들을 위하여 더욱이 도에 보고한 이후에 추가된 기근민을 위하여 서화면장 이열우씨는 궁민구제회를 조직하고 구제를 요치 않은 면민에 호세별로 2원부터 7천까지의 기부금을 모집케 하고 각 부호는 그 외에 의연곡을 지출케 하여 면내 수천 이재민을 구제하고 있다 한다.

**麟襄線道路問題**  
**洞民當局에陳情**  
 오색령으로 고쳐 달라고  
 八百名洞民連署서

【인제】 강원도 인제 양양간 도로문제에 관하여 각 방면에서 맹렬히 활동함은 물론이거니와 궁민 구제책으로 인제 양양간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를 도에 신청하여 불원간 착수하게 되었다는데 현재 설계한 것은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한다. 이에 인제 북면민 800여명은 연서 날인하여 전기 예산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당국과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

**本國時事**  
**강원도에 유리한 증가**

강원도에 유리한 증가 호수 2,135호 인구는 8,557명이다. (단 조사한 곳만 게재하고 조사 미필한 곳을 생략)

유리한 자	호수	인구
춘천	105	368
회양	102	480
삼척	23	104
정선	29	145
영월	165	685
횡성	437	1,951
화천	58	409
평강	65	293
인제	141	564
강릉	6	28
울진	28	35
평창	527	1,792
원주	53	176
홍천	38	154
김화	38	150
이천	76	392
총계	2,135	8,557

**救濟會組織**

대의원이 다쳐와 극도의 불안에 싸여있는 참혹한 면내 기근민들을 위하여 더욱이 도에 보고한 이후에 추가된 기근민을 위하여 서화면장 이열우씨는 궁민구제회를 조직하고 구제를 요치 않은 면민에 호세별로 2원부터 7천까지의 기부금을 모집케 하고 각 부호는 그 외에 의연곡을 지출케 하여 면내 수천 이재민을 구제하고 있다 한다.

1932-03-18-07-01

### 동아일보

## 위기에 직면한 6천여궁민 빨리 구제를 해야겠다고 ◇ 인제군내의 참상

【인제】 불안과 공포에 싸여 위기일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인제군 서화면 2면에 1,273호에 6,000여명을 돌파하고 있다는데 작년 11월 현재 도에 보고한 것이 884호에 2,200원의 구제비를 받았는데 3개월간에 갑자기 화급 구조를 요하는 호수가 289호가 증가되어 먼당국에서는 구제방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그네들의 기아사선상에서 통곡하는 참상은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 하며 먼당국에서는 그네들의 구제책에 부심 중이라 한다.

1932-03-20-07-06

### 동아일보

## 인제에 화재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북리 이성권 방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경에 발화되자 때마침 맹렬한 남풍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인제읍 소방대에서 총출동하여 진화하였다. 손해는 근소하나 원래 전기 이성권은 극빈자로 푼푼이 모아서 건축한 오막살이까지 태워버리게 되었으므로 그들 가족의 참경은 목불인견이라 한다.

1932-03-24-02-08

### 동아일보

## 인제 각교도 학생 모집난

【인제】 강원도 인제 일원에 걸쳐 작년의 대홍작으로 인하여 2만1,000여 궁민이 사선에서 방황한다함은 누차 보도하였거니와 이 반면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통교육이나마도 절망하게 되는 일방 퇴학생만 속출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생활의 곤궁과 연령의 초과로 인하여 미취학 아동이 인제 인구에 1만 3,000여명에 달한다는데 인제 5개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생도 모집난에 부심하고 있으며 기린공보교에서는 생도총수 140명 중 벌써 40명은 퇴학하고 20명은 반개월 이상의 결석을 하고 있으며 생도 모집 인원이 50명인데 현재 불과 5인의 신청이 있을 뿐이라 한다.

각학교에서 생도 모집난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므로 기린공보교에서는 지난 10월경에 전동민회를 개최하고 생도 모집 방침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아동연령은 무제한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활동방침은 교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함은 물론이거니와 각 구장에게 전책임을 지원서 모집케 하리라 한다.

## 危機에直面한 六千餘窮民

▷ 隣郡內의 慘狀

【인제】 불안과 공포에 싸여 위기일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인제군 서화면 2면에 1,273호에 6,000여명을 돌파하고 있다는데 작년 11월 현재 도에 보고한 것이 884호에 2,200원의 구제비를 받았는데 3개월간에 갑자기 화급 구조를 요하는 호수가 289호가 증가되어 먼당국에서는 구제방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그네들의 기아사선상에서 통곡하는 참상은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 하며 먼당국에서는 그네들의 구제책에 부심 중이라 한다.

## 隣蹄에 火災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북리 이성권 방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경에 발화되자 때마침 맹렬한 남풍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인제읍 소방대에서 총출동하여 진화하였다. 손해는 근소하나 원래 전기 이성권은 극빈자로 푼푼이 모아서 건축한 오막살이까지 태워버리게 되었으므로 그들 가족의 참경은 목불인견이라 한다.

## 隣蹄各校도 學生募集難

【인제】 강원도 인제 일원에 걸쳐 작년의 대홍작으로 인하여 2만1,000여 궁민이 사선에서 방황한다함은 누차 보도하였거니와 이 반면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통교육이나마도 절망하게 되는 일방 퇴학생만 속출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생활의 곤궁과 연령의 초과로 인하여 미취학 아동이 인제 인구에 1만 3,000여명에 달한다는데 인제 5개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생도 모집난에 부심하고 있으며 기린공보교에서는 생도총수 140명 중 벌써 40명은 퇴학하고 20명은 반개월 이상의 결석을 하고 있으며 생도 모집 인원이 50명인데 현재 불과 5인의 신청이 있을 뿐이라 한다.

각학교에서 생도 모집난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므로 기린공보교에서는 지난 10월경에 전동민회를 개최하고 생도 모집 방침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아동연령은 무제한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활동방침은 교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함은 물론이거니와 각 구장에게 전책임을 지원서 모집케 하리라 한다.

1932-03-24-03-01

### 동아일보

#### 지방논단 도로계획선에 대하여, 인제 일기자

원래 도로는 물화교환상 산업발달상 직접 간접으로 민간경제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도로 개통은 시점에서 중점에 이르기까지 물화의 산출량 및 장래의 발전여하를 신중히 고찰하여 중간 관통지대를 정할 것은 물론이다. 금반 인제 양양간 선 3등도로 계획선에 대하여는 동으로 인제군의 중앙인 기린면을 관통하여 종래 교통이 불편하던 산읍 지대의 물화 운반을 편리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일까 한다. 그러므로 금반 이 도로개통은 일반주민의 요망하는 것인 동시에 강원도 당국에서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당국에서도 다년간 현안 중에 있었는데 금반 도평의회회에서 인제 양양 쌍방의 의견이 일치 가결되어 금춘에는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도로실측선을 보면 출발점인 인제면에서 기린면을 경유하여 양양으로 직통하게 되어 인제군에 있어서는 장래산업상 중요선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역시 지세상으로 보더라도 이 선만 완공된다면 사방으로 통하게 되므로 일반주민과 기근민은 공사 착수만 고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북면 면민 일동의 최양의 응원을 청하여 오색령으로 관통케 해달라는 그 이유가 어디있는가? 진정서 내용을 보건대 서울 거진선이 관통하게 되었으나 적설로 인하여 동계간은 불통이라는 이유이다. 노변에 부락이 없어 제설치 못한다는 것도 일리 있으나 문전도 제설치 못하여 행인으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함은 무슨 까닭인가? 「설악산 약수대를 위하여」는 것이 일조건이다. 물론 현하 조선 농촌의 경제가 해결된다면 유람선도 필요할 것이나 일익 농촌의 피폐와 농민의 반공화는 여지없이 과멸을 당하고 기아선상에서 절규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풍치약수 대운운할 시대인가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대중 본의의 사업을 해야할 것이다. 제군이여! 형식적 가면적 생활을 벗어나서 귀면 궁민 구제 사업에 노력하라.

1932-03-31-03-11

### 동아일보

#### 근고

기자 김효춘 의원면직, 1932년 3월 19일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1932-04-08-03-06

### 매일신보

#### 강원도 궁민에 종곡비 배급 각군별로 총계 3만5천여원 세포이민촌에도

【춘천】 강원도내에 있는 약 8만인의 흉작 궁민의 구제상황은 누차 보도한 것과 같거니와 이밖에 아래와 같이 종곡비 35,000여원을 각 군에 배급하기로 되었다. 더욱 평강군의 3,500원은 주로 세포 이민촌에 배급할 것이라 한다.

군명	배급액	군명	배급액	군명	배급액
인제	5,243원	양구	900	회양	5,000
고성	3,500	강릉	2,000	삼척	2,400
정선	2,500	평창	2,000	영월	2,500
원주	1,100	횡성	1,300	홍천	2,200
화천	350	평강	3,500	이천	750

### 地方論壇

#### 道路計劃線에 對하여

記者 吉 曉 春

元來 道路는 物産交換上 産業發達上 直接 間接으로 民間經濟에 地대한 關係를 가진 것이므로 道路 開通은 時點에서 中點에 이르기까지 物化의 山出量 및 長래의 發達여하를 新중히 高察하여 中間 關通지대를 正할 것은 물론이다. 金반 人제 陽陽間 線 3等도로 計劃線에 對하여는 東으로 人제군의 中央인 麒麟面을 關通하여 종래 交通이 不便하던 山邑 地帶의 物化 運搬을 便利케 하는 것이 主要의 目的일까 한다. 그러므로 金반 이 道路開通은 一般住民의 要求하는 것인 동시에 강원도 當國에서도 重要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道當國에서도 多年間 現안 중에 있었는데 金반 道評의회에서 人제 陽陽 雙방의 意見이 一致 가결되어 金春에는 公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道路實測線을 보면 출발點인 人제面에서 麒麟面을 經유하여 陽陽으로 直通하게 되어 人제군에 있어서는 長來産業上 重要線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역시 地勢上으로도 이 線만 完功된다면 四方面으로 通하게 되므로 一般住民과 飢民은 公事 착수만 高代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北面 面民 一동의 最陽의 應援을 淸하여 五色嶺으로 關通케 해달라는 其 理由가 어디있는가? 眞正書 內容을 보건대 서울 巨震線이 關通하게 되었으나 積雪로 因하여 冬季間은 不通이라는 理由이다. 路邊에 村落이 없어 除雪 不能한다는 것도 一理이 있으나 文前도 除雪 不能하여 行人으로 하여금 不便을 느끼게 함은 무슨 까닭인가? 「설악山 藥水臺를 爲하여」는 것이 一條件이다. 물론 現하 朝鮮 農村의 經濟가 解決된다면 遊覽船도 必要할 것이 나 일익 農村의 疲敝와 農民의 反共化는 餘地없이 果滅을 當하고 飢餓 線上에서 絶叫하는 現狀임에도 不구하고 風馳雲卷 大運運할 時代인가 冷정한 立場에서 생각해보라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大衆 本意의 事業을 해야할 것이다. 諸君이여! 形式的 假面的 生活를 벗어나서 歸面 窮民 救濟 事業에 노력하라.

依願解職  
昭和七年二月十九日  
記者 吉 曉 春  
東亞日報社 麟蹄分局

### 江原道窮民에 種穀費配給

各郡別로 總計 三萬五千餘圓

洗浦移民村에도

三陟	二、四〇〇	三陟	二、四〇〇
高城	三、〇〇〇	高城	三、〇〇〇
淮陽	五、〇〇〇	淮陽	五、〇〇〇
楊口	九〇〇	楊口	九〇〇
麟蹄	五、二四三	麟蹄	五、二四三
伊川	三、五〇〇	伊川	三、五〇〇
平康	三、五〇〇	平康	三、五〇〇
洪川	二、〇〇〇	洪川	二、〇〇〇
橫州	一、一〇〇	橫州	一、一〇〇
寧邊	二、五〇〇	寧邊	二、五〇〇
平昌	二、〇〇〇	平昌	二、〇〇〇
旌善	二、五〇〇	旌善	二、五〇〇
計	三、五、二四三	計	三、五、二四三

【泰川】江原道內에 있는 約八萬人의 凶作窮民의 救濟狀況은 果報한 報와 같거니와 伊川 外의 邑에 對하여 谷價가 騰貴하여 飢民의 苦狀을 淸하여 三萬五千餘圓을 各郡에 配給하기로 決定하였다.

洗浦移民村에도 是의 主로 洗浦移民村에 配給할 것이 一條件이다.

1932-04-10-02-08

### 동아일보

#### 인제에 강도

【인제】 강원도 인제, 홍천, 화천, 양구 등 4군에는 음력 세말 이래로 강절도가 빈번하다는데 경찰에서는 각방으로 수사망을 넓여 엄탐 중이나 진범은 하나도 체포치 못하였다 한다.

지난7일 오후6시경에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에 또다시 3인조 강도가 출현하여 행인을 추격하고 무수 난타하여 졸도시키고 금품을 강탈 후 유유히 종적을 감추었다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듣건대 양구군 양구읍내에 주소를 둔 정동욱이라는 사람이 고성 등지로 소장사를 하러 가는 길에 그와 같이 되어 피해액은 186원에 달하며 인제경찰서에서는 홍천 화촌, 양구 임당, 팔랑리, 인제 남면 어른, 북면 한계리, 화천 4군을 횡행하던 강도인 듯 하다 하여 인접 군에 응원을 청하여 혈안 수사중이나 범인의 종적은 묘연하다 한다.

**麟蹄에 強盜**

강원도 인제, 홍천, 화천, 양구 등 4군에는 음력 세말 이래로 강절도가 빈번하다는데 경찰에서는 각방으로 수사망을 넓여 엄탐 중이나 진범은 하나도 체포치 못하였다 한다.

【인제】 강원도 인제, 홍천, 화천, 양구 등 4군에는 음력 세말 이래로 강절도가 빈번하다는데 경찰에서는 각방으로 수사망을 넓여 엄탐 중이나 진범은 하나도 체포치 못하였다 한다.

지난7일 오후6시경에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에 또다시 3인조 강도가 출현하여 행인을 추격하고 무수 난타하여 졸도시키고 금품을 강탈 후 유유히 종적을 감추었다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듣건대 양구군 양구읍내에 주소를 둔 정동욱이라는 사람이 고성 등지로 소장사를 하러 가는 길에 그와 같이 되어 피해액은 186원에 달하며 인제경찰서에서는 홍천 화촌, 양구 임당, 팔랑리, 인제 남면 어른, 북면 한계리, 화천 4군을 횡행하던 강도인 듯 하다 하여 인접 군에 응원을 청하여 혈안 수사중이나 범인의 종적은 묘연하다 한다.

1932-04-11-02-09

### 동아일보

#### 인제 거진간 자동차 개통

【인제】 강원도 인제 거진간 2등도로는 적설로 인하여 겨울기간을 제반 차가 통행치 못하여 일반행객과 상업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느껴왔는데 지난 3일부터 해빙되어 개통하게 되었다 한다.

**麟蹄巨津間自動車開通**

【인제】 강원도린척거진간 2등도로는 적설로 인하여 겨울기간을 제반 차가 통행치 못하여 일반행객과 상업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느껴왔는데 지난 3일부터 해빙되어 개통하게 되었다 한다.

1932-04-12-07-01

### 동아일보

#### 기근 지옥 양춘도 등지고 유리지 3천여, 닥쳐온 춘궁에 살길이 망연 인제 1군의 통계

【인제】 강원도의 북간도라는 인제 지방은 닥쳐오는 춘궁에 기근의 지옥에 빠져 궁민들의 정상이 날로 심각해가고 있어 완전히 눈물의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수만리 재민 중 70% 이상이 재해를 당하고 작년 가을에 이미 식량이 두절된 이재민이 31,307명이었던 것이 삼동을 치르고 춘궁에 와서는 당장 때를 놓고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자가 적어도 2만명의 배수 4만명을 돌파하여 전군 인구의 3분의 2를 돌파하고 있으며 춘경 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유리군이 속출하는 현상이라 한다.

이재민은 당장 첫가을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과 목실로 연명하여 오다 못해 그것조차 없어서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들을 이끌고 현재 까지 유리결식의 길을 떠난 사람이 3,000여명에 달하였다 하며 남아 있는 궁민 중에도 구제를 요치 않으면 당장에 떠날 호수가 수백 여호에 달한다 하여 군당국과 먼 당국에서는 일반 유지와 협력하여 궁민 구제에 진력하고 있다 한다.

**飢饉地獄 陽春도 등지고 流離者二千餘**

닥쳐온 춘궁에 살길이 망연 麟蹄一郡의 統計

【인제】 강원도의 북간도라는 인제 지방은 닥쳐오는 춘궁에 기근의 지옥에 빠져 궁민들의 정상이 날로 심각해가고 있어 완전히 눈물의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수만리 재민 중 70% 이상이 재해를 당하고 작년 가을에 이미 식량이 두절된 이재민이 31,307명이었던 것이 삼동을 치르고 춘궁에 와서는 당장 때를 놓고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자가 적어도 2만명의 배수 4만명을 돌파하여 전군 인구의 3분의 2를 돌파하고 있으며 춘경 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유리군이 속출하는 현상이라 한다.

이재민은 당장 첫가을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과 목실로 연명하여 오다 못해 그것조차 없어서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들을 이끌고 현재 까지 유리결식의 길을 떠난 사람이 3,000여명에 달하였다 하며 남아 있는 궁민 중에도 구제를 요치 않으면 당장에 떠날 호수가 수백 여호에 달한다 하여 군당국과 먼 당국에서는 일반 유지와 협력하여 궁민 구제에 진력하고 있다 한다.

1932-04-12-07-01

### 동아일보

## 700학동 중 600명 체납, 100여처 서당은 폐쇄의 운명 교원 봉급도 지불난

【인제】 인제군에는 기근의 영향이 각 방면에 파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교육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참혹하여 군내 109개소 서당은 거의 폐쇄 운명에서 허덕이는 모양이며 보통학교는 5개소인데 매월 퇴학생이 속출함은 물론이고 월사금은 다달이 적체되어 갈뿐으로 9개월간 적체된 사람만도 근 100여명에 달하며 총 재적생 668명 중 한달이상 9개월까지 적체된 자가 638명으로 교원 봉급의 지불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응모자가 격감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적생 중에도 1개월 이상 결석한 자가 많다 한다.

1932-04-12-07-03

### 동아일보

## 각학교 입학 지원자는 반수, 교원과 구장이 총출 권유 중 인제군내 각교 현황

인제지방에 희유의 기근이 왔다 함은 세인이 공지하는 것이거니와 이곳의 모든 형편은 원시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도 현저한 것은 각 보통학교의 생도 모집이라 한다.

한동안은 각지 보교에서 시험제도가 있어 어린이들이 입학시험 지옥에서 허덕이더니 요즘에 와서는 각학교 교사는 물론이요 각국장 면사무원까지 총출을 하여 생도 모집에 몰두하고있는 형편이니 이것으로써 농촌의 기근 상태를 능히 추측할 수 있으며 더욱이 농촌에 참담한 교육계를 알수있다.

어제 인제 각 학교의 생도모집 상황을 보면 보교 모집정원이 270명에 지원자가 겨우 175인 밖에 안된다 한다.

◇면별로 보면

인제공보 60명 모집정원 48명 응모, 서화공보 40명 모집정원 20명 응모, 남면공보 40명 모집정원 45명 응모, 기린공보 50명 모집정원 20명 응모, 내면 공보 40명 모집정원 15명 응모, 정의여교 40명 정원 27명 응모

1932-04-15-07-01

### 동아일보

## 기근민은 어디로! 빈집만 350호, 앞으로 유리할 자가 500여호 인제군내 7천인 격감

【인제】 미증유한 기근으로 입하여 동서남북으로 떠도는 군중이 날이 심해간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중에도 인제지방이 더욱 격심하다고 한다. 그들은 작년 가을부터 식량이 결핍되어 초근목피로 삼동 설한을 겪고나니 그나마도 다 먹고 3, 4월 긴 해는 그네들에게 더욱 굶주림을 주게되었다. 그래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화전을 다룰 가망이 없는 때문에 농사짓기를 단념하고 인제를 저주코 정처없는 길을 남부여대하여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과 골목에는

### 七百學童中 六百名滯納

백여처 서당은 폐쇄의 운명  
 敎員俸給도支拂難

【인제】 인제군에는 기근의 영향이 각 방면에 파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교육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참혹하여 군내 109개소 서당은 거의 폐쇄 운명에서 허덕이는 모양이며 보통학교는 5개소인데 매월 퇴학생이 속출함은 물론이고 월사금은 다달이 적체되어 갈뿐으로 9개월간 적체된 사람만도 근 100여명에 달하며 총 재적생 668명 중 한달이상 9개월까지 적체된 자가 638명으로 교원 봉급의 지불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응모자가 격감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적생 중에도 1개월 이상 결석한 자가 많다 한다.

### 各學校入學 志願者는半數

교원과 구장이 총출 권유 중  
 麟蹄郡內各校現況

【인제】 인제군에는 기근의 영향이 각 방면에 파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교육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참혹하여 군내 109개소 서당은 거의 폐쇄 운명에서 허덕이는 모양이며 보통학교는 5개소인데 매월 퇴학생이 속출함은 물론이고 월사금은 다달이 적체되어 갈뿐으로 9개월간 적체된 사람만도 근 100여명에 달하며 총 재적생 668명 중 한달이상 9개월까지 적체된 자가 638명으로 교원 봉급의 지불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응모자가 격감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적생 중에도 1개월 이상 결석한 자가 많다 한다.

### 飢饉民은어대로!

空家만二百五十戶  
 아프로유리할자가五백여호  
 麟蹄郡內七千人激減

【인제】 인제군에는 기근의 영향이 각 방면에 파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교육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참혹하여 군내 109개소 서당은 거의 폐쇄 운명에서 허덕이는 모양이며 보통학교는 5개소인데 매월 퇴학생이 속출함은 물론이고 월사금은 다달이 적체되어 갈뿐으로 9개월간 적체된 사람만도 근 100여명에 달하며 총 재적생 668명 중 한달이상 9개월까지 적체된 자가 638명으로 교원 봉급의 지불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응모자가 격감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적생 중에도 1개월 이상 결석한 자가 많다 한다.

기아군 행진을 이루고 바가지 떼가 내몰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군당국에서 3월 현재 조사한 것에 의해도 이미 떠난 자 350호에 1,850명이요 또 곧 떠나지 않으면 안될 수 567호에 2,268명의 다수에 이르러 양춘을 등지고 떠나는 자가 더욱 격증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군의 인구는 대격감을 예상케 하는 것으로 작년 말 현재 인제군 당국의 조사를 볼진대 사망보다는 출산이 1,200여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한 인구는 7,224명이나 대격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화전경지가 매우 격증될 듯하여 삼림조합과 보호구에서는 특별감시를 할 모양이라 한다.

1932-04-15-07-03

**동아일보**

**인제 강도 후보**

【인제】 기보=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 3인조 강도가 출현하여 행인을 줄도시키고 현찰을 강탈 도주하였다 한다. 이 급보를 접한 인제경찰에서는 서원이 총출동하여 필사적 탐사를 하였으나 범인의 종적을 알지 못하고 지난 8일에 아무 단서를 얻지 못하고 6일만에 본서로 귀환하였다는데 인제경찰에서는 두통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이 허위고발이나 아닌가 하여 전기 피해자 정씨를 호출하여 취조를 하리라 한다.

1932-04-16-03-08

**동아일보**

**인제금융조합 총회**

지난 10일 오전10시부터 공보교실 내에서 개최

1932-04-16-07-02

**동아일보**

**채용을 지원 수백명 쇄도 인제 시구개정에 나타난 기근 농민의 일면상**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신시가지에는 수백 공민이 쇄도하여 일대 혼잡을 이루었다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일부터 인제면에서 시구 개정을 실시하게 되어 인부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굶주림에 쪼들리어 몰려드는 공민들은 무려 수백명에 달하였다 한다. 그나마도 모집에 제한이 있어 출역하였다가도 눈물로 돌아가는 인부가 매일같이 계속되는 터인데 출역하여 다행히 일을 하게 되는 인부들도 점심조차 못싸가지고 와서 긴긴해를 보내며 그들의 하루 품값은 최고 45전부터 30전까지라는데 점심도 못먹고 고역에 팔려 그로써 5, 6명 내지 7, 8명 식구의 잔명을 보존하여가고 있다. 그래서 비참한 공민의 생활을 능히 엿볼 수 있다 한다.

【인제】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 3인조 강도가 출현하여 행인을 줄도시키고 현찰을 강탈 도주하였다 한다. 이 급보를 접한 인제경찰에서는 서원이 총출동하여 필사적 탐사를 하였으나 범인의 종적을 알지 못하고 지난 8일에 아무 단서를 얻지 못하고 6일만에 본서로 귀환하였다는데 인제경찰에서는 두통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이 허위고발이나 아닌가 하여 전기 피해자 정씨를 호출하여 취조를 하리라 한다.

○ 鷲蹄金組總會 去十日午前十一時부터 公學校室內에서 開催

**採用을 志願 數百名 殺到**  
 飢饉農民의 一面相  
 人제 시구개정에 나타난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신시가지에는 수백 공민이 쇄도하여 일대 혼잡을 이루었다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일부터 인제면에서 시구 개정을 실시하게 되어 인부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굶주림에 쪼들리어 몰려드는 공민들은 무려 수백명에 달하였다 한다. 그나마도 모집에 제한이 있어 출역하였다가도 눈물로 돌아가는 인부가 매일같이 계속되는 터인데 출역하여 다행히 일을 하게 되는 인부들도 점심조차 못싸가지고 와서 긴긴해를 보내며 그들의 하루 품값은 최고 45전부터 30전까지라는데 점심도 못먹고 고역에 팔려 그로써 5, 6명 내지 7, 8명 식구의 잔명을 보존하여가고 있다. 그래서 비참한 공민의 생활을 능히 엿볼 수 있다 한다.

1932-04-17-07-05

### 동아일보

#### 차량 부가세는 인민에게 반환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작년도 차량세를 증수하는 동시에 부가세까지 증수하였는데 금번 총독부의 인가가 없어서 각 납세자에게 반환케 한다는데 인제면에만 77원이고 타면에도 상당한 거액이라는데 벌써 소비된 면도 있는듯하다 하여 반환할 가망이 없는 면도 있다 한다.

**車輛附加稅는 人民에게返還**

【린커】 강원도린제군 (麟蹄郡) 에서는 작년도 차량세를 증수하는 동시에 부가세까지 증수하였다는데 금번 총독부의 인가가 없어서 각 납세자에게 반환케 한다는데 인제면(麟蹄面)에만 77원이고 타면에도 상당한 거액이라는데 벌써 소비된 면도 있는듯하다 하여 반환할 가망이 없는 면도 있다 한다.

1932-04-19-02-10

### 동아일보

#### 인제에 염병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이보규는 지난 14일에 장티푸스 진성환자로 판명되어 소관 경찰에서는 예방에 노력중이나 일반은 각자 주의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麟蹄에染病**

【린커】 강원도린제군 린제면 상동리 이보규(麟蹄郡麟蹄面上 東里李甫奎)는 지난 14일에 장티푸스(腸痧扶斯) 진성환자로 판명되어 소관 경찰에서는 예방에 노력중이나 일반은 각자 주의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1932-04-19-04-04

### 동아일보

#### 인제기근구제회 동정금품 답지 동정의 결정 2천5백원 6개면 구제회에서

【인제】 궁민을 위한 인제 6개 궁민구제회는 창립한지도 벌써 어느덧 3개월이라는 날짜를 꼽게 된 그간 당국자와 역원 여러명의 대활동과 따라 궁민 제위의 열성으로 아사선상에 기근궁민을 위한 피눈물의 동정금품은 매일 끊이지 않고 답지되는데 1월 말 현재까지의 기탁한 금품은 좌기와 같다는데 앞으로 일층 열성을 거듭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다.

◇각구제회별로 보면

- ▲인제면구제회 조 100석 콩 100석 ▲남면구제회 벼 50석 ▲북면구제회 벼 10석, 조 1석, 보리정조 1석, 콩 3석 ▲서화구제회 현금 415원 ▲기린면구제회 현금 500원 ▲내면구제회 현금 500원 ▲인제의법청년회 동정의 밤 수입 57원36전 ▲서화동정소인극회 23원 ▲김기선 백미 1석5두, 콩 1석 ▲이창규 정조 2석, 콩 7두 ▲채봉점 벼 14석 ▲김병도 조 1두 ▲김재은 정조 2석 ▲안중협 조 6두 ▲인제군청원 일동 벼 12석 ▲채복록 벼 20석 ▲의법청년회 동정소인극회 97원

**麟蹄麟蹄救濟會 同情金品逕至**

동정의 결정 2천5백원 六個面救濟會에서

【린커】 궁민을 위한 인제 6개 궁민구제회는 창립한지도 벌써 어느덧 삼개월이라는 날짜를 꼽게 된 그간 궁민 제위의 열성으로 아사선상에 기근궁민을 위한 피눈물의 동정금품은 매일 끊이지 않고 답지되는데 1월 말 현재까지의 기탁한 금품은 좌기와 같다는데 앞으로 일층 열성을 거듭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다.

◇各款會別로 보면 ◇

- ▲麟蹄面救濟會 粟百石 大豆百石 ▲南面救濟會 正租五十五石 ▲北面救濟會 正租十五石 粟一石 正租一石 大豆三石 ▲瑞和救濟會 粟金四百十五圓 ▲麟蹄面救濟會 現金五百圓 ▲內面救濟會 現金五百圓 ▲麟蹄麟蹄救濟會 現金五百圓 ▲麟蹄麟蹄救濟會 現金五百圓 ▲麟蹄麟蹄救濟會 現金五百圓



1932-04-23-03-03

### 동아일보

## 남편 독살하려다 미수하고 도주, 남편이 외입한다고 함원 인제군 희세의 독부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원대리에 거주하는 안봉근의 처 임모는 지난 9일에 자기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는 데 이 내막을 듣건대 전기 안씨가 이웃 색주가 주모 모와 사랑에 단꿈을 속삭이게 되자 가해자 임모는 평상시에도 사이가 좋지 못하여 전기와 같이 살해를 목적으로 장에 양젓물을 풀어먹이려다가 피해자 스스로 발각하여 생명에는 관계가 없었다 하나 조금만 부주의하였다면 영원히 독살을 당하고 말뻔하였었다는데 방금 경찰에서는 가해자 행방을 엄탐 중이라 한다.

1932-04-23-07-02

### 동아일보

## 인제 양양선 착공에 수만 궁민 실망

【인제】 강원도 인제 양양간 도로는 수년전부터 계획하여놓고 공사에 착수치 못하여 일반인민이 매우 고대하고 있었는데 금춘에야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거니와 이 공사는 특히 인제지방에 산재된 수만 궁민을 구제하기 위한 공사라는데 지난 4일에 토목과에서 금년도 공사 착수 예정지 측량함을 보고 인제 수만 이재민은 희망을 잃고 사선에서 방황하고 있다 한다.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듣건대 인제 수만 궁민을 위한 사업이니만치 군당국과 일반 인민층에서는 기근의 중심지인 인제 기린간을 먼저 착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에도 양양구역을 먼저 착수케 되어 태산같이 믿고 고대하던 공사 착수도 인제궁민에게는 하등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 그와 같이 계획하였던 생계를 잃고 사선에서 방황하고 있다 한다.

1932-04-23-07-05

### 동아일보

## 인제 기근민의 참상 부황병자가 속출, 도청 사회과에서 실지로 답사 구제비 1만여원 인가

【인제】 인제지방의 참담한 대흉작은 미증유의 대재난인 동시에 수만의 인민이 활로를 잃고 어찌할지를 알지 못한다 함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거니와 그 세궁민들은 누구에게 의뢰할 곳도 없고 누구에게 구제해달라고 애소할 곳도 없다 한다.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을 하여 오던 그들은 영양 부족으로 부황병에 걸려 얼굴이 뚱뚱 붓고 와서 신음하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인제궁민의 3분의 2를 점령하고 있는 참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군당국의 필사적 활동으로 도당국에 수차 진정하였는데 지난달에 도 사회과에서 실지 답사한 후 참담한 그네들의 참상을 실지로 보고 제2차로 1만600원의 구제비가 인가되어 군당국에서는 일반 궁민에게 재분배하리라는데 이것도 영구적 구제책은 되지 못한다 하여 일반 유지들은 매우 우려중에 있다 한다.

### 男便毒殺하려다 未遂코逃走

남편이 외입한다고 함원 麟蹄郡稀世의毒婦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원대리에 거주하는 안봉근의 처 임모는 지난 9일에 자기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는 데 이 내막을 듣건대 전기 안씨가 이웃 색주가 주모 모와 사랑에 단꿈을 속삭이게 되자 가해자 임모는 평상시에도 사이가 좋지 못하여 전기와 같이 살해를 목적으로 장에 양젓물을 풀어먹이려다가 피해자 스스로 발각하여 생명에는 관계가 없었다 하나 조금만 부주의하였다면 영원히 독살을 당하고 말뻔하였었다는데 방금 경찰에서는 가해자 행방을 엄탐 중이라 한다.

### 麟蹄線着工에 數萬窮民失望

【인제】 강원도 인제 양양간 도로는 수년전부터 계획하여놓고 공사에 착수치 못하여 일반인민이 매우 고대하고 있었는데 금춘에야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거니와 이 공사는 특히 인제지방에 산재된 수만 궁민을 구제하기 위한 공사라는데 지난 4일에 토목과에서 금년도 공사 착수 예정지 측량함을 보고 인제 수만 이재민은 희망을 잃고 사선에서 방황하고 있다 한다.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듣건대 인제 수만 궁민을 위한 사업이니만치 군당국과 일반 인민층에서는 기근의 중심지인 인제 기린간을 먼저 착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에도 양양구역을 먼저 착수케 되어 태산같이 믿고 고대하던 공사 착수도 인제궁민에게는 하등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 그와 같이 계획하였던 생계를 잃고 사선에서 방황하고 있다 한다.

### 麟蹄饑饉民의慘狀 浮黃病者가續出

도청사회과에서실지로답사 救濟費萬餘圓認可

【인제】 인제지방의 참담한 대흉작은 미증유의 대재난인 동시에 수만의 인민이 활로를 잃고 어찌할지를 알지 못한다 함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거니와 그 세궁민들은 누구에게 의뢰할 곳도 없고 누구에게 구제해달라고 애소할 곳도 없다 한다.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을 하여 오던 그들은 영양 부족으로 부황병에 걸려 얼굴이 뚱뚱 붓고 와서 신음하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인제궁민의 3분의 2를 점령하고 있는 참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군당국의 필사적 활동으로 도당국에 수차 진정하였는데 지난달에 도 사회과에서 실지 답사한 후 참담한 그네들의 참상을 실지로 보고 제2차로 1만600원의 구제비가 인가되어 군당국에서는 일반 궁민에게 재분배하리라는데 이것도 영구적 구제책은 되지 못한다 하여 일반 유지들은 매우 우려중에 있다 한다.

1932-04-29-03-01

### 동아일보

#### 조선감리회 인제교회 구역회

지난 19일 오후9시 동 예배당 내에서 개최

1932-04-29-03-10

### 동아일보

#### 인제유치원 이사회

지난 21일 오후9시 동 원내에서 개최

1932-04-29-03-10

### 동아일보

#### 인제재향군인회 분회 사격대회

지난 21일 북리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

1932-04-30-03-02

### 동아일보

#### 기생 요리점 위치 문제, 인제 일기자

인제에는 사립 정의여학교 정문 앞에 예기 및 음부의 소굴인 요리옥을 설치하여 일반 여학생에게 적지않은 악영향을 준다. 그들은 천진난만한 만치 즉시 모방한다. 그러므로 기생이 있으면 이것을 모방하기도 쉬우니 이 장래의 건전한 소녀들로 하여금 그 악풍에 전염케 함은 중대한 문제다. 학교는 이미 있던 것이오, 요리점은 새로 생긴 것이니 새로 인가한 요리점을 타로 이전케 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든지 하라.

1932-05-03-07-05

### 동아일보

#### 기근의 인제군에 나체 절도 출현 주인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8원여를 절취 도주

【인제】 지난30일 오전5시 경에 인제군 인제읍내 선익상점 뒤 벽 중 방미를 뚫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도주한 대담한 도적이 있었다. 이에 그 내막을 듣건대 주인이 곤히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오므로 소리를 지르자 금고의 돈을 집히는 대로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데 피해액은 8원36전이라 하며 범인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벗어놓은 의복을 그대로 두고 벌거벗은 채 도주하였다 한다. 이 급보를 접한 당지 경찰에서는 총출동하여 삼지사방으로 수사망을 늘이고 엄탐 중이라 한다.

◎朝鮮監理會 願蹄教會 區域會  
去十九日午後九時同禮拜堂內  
에 分 開 催

◎願蹄幼稚園理事會 去二十一  
日午後九時同園內에 分 開 催

◎願蹄在鄉軍人會分會射擊大會  
去二十一日北里廣場에 分 開 催  
行

妓生料理店位  
置問題

願蹄에 設 立 宜 安 學 校 正 門  
前 에 藝 妓 及 淫 婦 的 集 會 的 料 理  
取 消 하 든 지 하 라

一 記 者

무엇을 說 하 려 一 般 女 學 生 的 到 來 的 影 響 을 受 入 不 得 不 是 然 也 天 道 無 常 變 化 無 常 即 時 變 化 故 然 也 故 於 此 妓 生 之 到 來 亦 將 來 的 變 化 亦 未 可 知 也 故 於 此 妓 生 之 到 來 亦 將 來 的 變 化 亦 未 可 知 也 故 於 此 妓 生 之 到 來 亦 將 來 的 變 化 亦 未 可 知 也

饑饉의 隣 蹄 郡 에  
裸 體 盜 出 現

主 人 이 소 리 를 地 는 巴 拉 吧 에  
八 圓 餘 를 盜 取 逃 走

【인제】 지난 30일 오전 5시 경에 인제군 인제읍내 선익상점 뒤 벽 중 방미를 뚫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도주한 대담한 도적이 있었다. 이에 그 내막을 듣건대 주인이 곤히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오므로 소리를 지르자 금고의 돈을 집히는 대로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데 피해액은 8원36전이라 하며 범인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벗어놓은 의복을 그대로 두고 벌거벗은 채 도주하였다 한다. 이 급보를 접한 당지 경찰에서는 총출동하여 삼지사방으로 수사망을 늘이고 엄탐 중이라 한다.

1932-05-04-07-03

## 동아일보

### 재민 구제비 2만원 인가, 도청 직원들도 동정금 내어 인제군의 제3회분

【인제】 전고 미증유의 기근 지옥에서 수만 궁민이 기아선상에서 부항병까지 덮쳐 애타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있다 함은 수차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도 사회과에서도 도내 궁민 사항을 조사키 위하여 각지를 순회하고 더욱이 기근의 중심지인 인제일대를 탐사한 후 참혹한 그 정경에 1만600원이 인가되어 일반 궁민에게 배급한 후 또 제2차로 2만6,666원이 인가되었다는데 그 중에는 강원도청 직원 일동의 동정금이 71원70전이 있다고 한다.

1932-05-05-07-01

## 동아일보

### 4개월 횡행하던 강도 일망타진

【인제】 강원도 인제군경찰서에서는 지난 27일 남면 정자리에서 3인조 강도의 혐의자를 인치 취조한 결과 의외에도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인이 작당하여 위협 등 별별수단을 다 써가며 4개월간을 전 문으로 강도범행을 하던 자로 판명되었는데 판명된 피해자는 인제 면 원대리 김준서씨 집에 3회나 침입하고 하남리 신대혁 방에 2회를 침입하였는데 피해액은 30원 외에 사소한 금품이 있을 뿐이나 그 외에도 상당히 피해자가 많을 듯하다 하여 경찰에서는 방금 엄밀히 취 조 중이며 범인의 주소 성명은 다음과 같다 한다.  
인제군 남면 정자리 이경하(37) 박성도(22) 김우중(24)

1932-05-06-07-09

## 동아일보

### 종곡을 배급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수만 궁민이 사 선에서 방황하며 종곡까지도 다 먹었으므로 급년 농사에 파종 불능 의 토지가 5만2,597정보에 달한다 하여 군당국의 활동으로 도에 진 정한 바도 종곡비로 5,241원이 인가되어 좌기와 같이 분배하여 파종 은 하였으나 보리때까지가 문제라 한다.

◇면별로 보면

인제면	286호	667,63원
남면	291호	479,28원
북면	357호	833,06원
서화면	442호	1,031,11원
기린면	411호	958,88원
내면	460호	1,071,04원
합계	2,247호	52,420,00원

**災民救濟費**  
**一 二萬圓認可**  
도청직원들도 동정금 내며  
麟蹄郡의 第二回分

【麟蹄】 麟蹄의 災民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청 직원들도 동정금을 내어 12,000원을 인가하여 일반 민에게 배급한다. 이번 배급은 2차로 26,666원이 인가되었는데 그 중에는 강원도청 직원 일동의 동정금이 71원 70전이 있다고 한다.

**四個月橫行巨盜 強盜一掃打盡**  
【인제】 강원도 인제군경찰서에서는 지난 27일 남면 정자리에서 3인조 강도의 혐의자를 인치 취조한 결과 의외에도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인이 작당하여 위협 등 별별수단을 다 써가며 4개월간을 전 문으로 강도범행을 하던 자로 판명되었는데 판명된 피해자는 인제 면 원대리 김준서씨 집에 3회나 침입하고 하남리 신대혁 방에 2회를 침입하였는데 피해액은 30원 외에 사소한 금품이 있을 뿐이나 그 외에도 상당히 피해자가 많을 듯하다 하여 경찰에서는 방금 엄밀히 취 조 중이며 범인의 주소 성명은 다음과 같다 한다.

인제군 남면 정자리 이경하(37) 박성도(22) 김우중(24)

**種穀을配給**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수만 궁민이 사 선에서 방황하며 종곡까지도 다 먹었으므로 급년 농사에 파종 불능 의 토지가 5만2,597정보에 달한다 하여 군당국의 활동으로 도에 진 정한 바도 종곡비로 5,241원이 인가되어 좌기와 같이 분배하여 파종 은 하였으나 보리때까지가 문제라 한다.

◇면별로 보면

麟蹄面	286戶	667,63元
南面	291戶	479,28元
北面	357戶	833,06元
瑞和面	442戶	1,031,11元
麟蹄面	411戶	958,88元
內面	460戶	1,071,04元
合計	2,247戶	52,420,00元

1932-05-13-03-03

### 매일신보

#### 강원도 공민의 출역과 저금

【춘천】 금년 1월 이래 3월 말일에 이르는 동안 강원도내에서 국민 구제사업에 출역한 공민의 수효와 그들의 저금상황은 다음과 같다. 출역수 3,867인이 저금고 1,965원이며 가장 많이 출역하기는 인제군은 719인이다. 그 다음 양양군의 508인 등이다.

1932-05-14-03-10

### 매일신보

#### 인제와 양양간 유등로 수축 계획, 9일 조사반 출발

【강릉】 양양군에서는 양양군에서 인제군에 이르는 마을에 유등도로 수축을 계획코자 먼저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지난 9일 아침에는 박 군수, 가동 서장, 추 번영회장, 양양군내 각 면장을 망라한 일단 20여명은 이 노선 실지 답사를 목적으로 식물과 기타 간단한 여구를 갖추고 1주일간 예정으로 인제군 내면 등지를 향하고 출발하였는데 일반은 금반 시찰은 다대한 소득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1932-05-17-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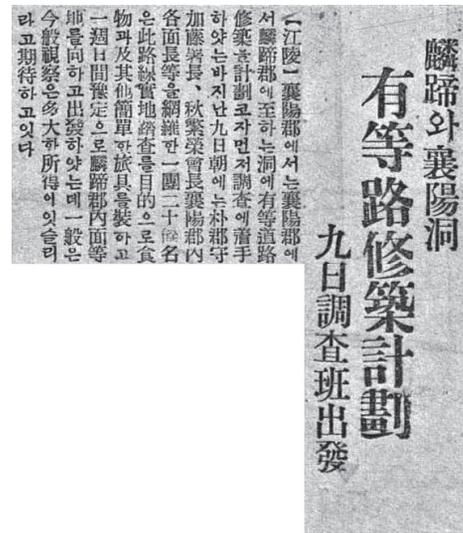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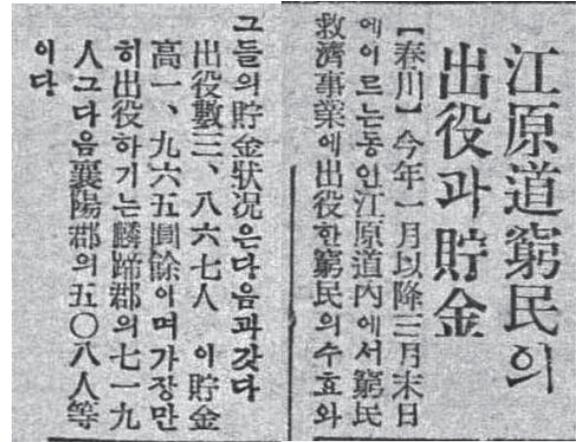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지방제도 개정 1주년의 기념 인제군 시설은 종곡과 기념식수, 인제면은 30호 단위로 지도, 강원도의 독특한 시정(속)

【춘천】 강원도에서 지방제도 개정 실시 1주년 기념사업을 여러 가지로 시행한다함은 누차 보도하였는데 그간 보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 소개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계속하여 소개한다.

##### ◇인제군

인제면, 남면, 북면, 내면 등에서 각 3개년 계획으로 기념조림을 시작하였는데 서화면에서는 연연히 수재와 흉작 등으로 면내에 천재가 끊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영구적 방책으로 「기념구제준비회」란 것을 조직하여 금년부터 면민은 거개 1호에 5되씩의 조 또는 버를 연연히 저축해가지고 그것을 매각하여 현금을 저금한 후 대재가 발생한 때에 타의 원조없이 그로써 구제하자는 것이라 한다. 인제면에서는 각리마다 우선 지도키 용이한 30호 이상의 집단 부락 1개소씩을 선정하고 이를 모범촌락화하리라는데 우선 화이협동주의에 기하여 양풍미숙을 작흥케 하며 근검생산의 민풍을 함양하여 지방 개량의 실적을 내이며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좌기 제 사항을 금년부터 실행한다고 한다



1932-06-03-07-09

### 매일신보

#### 여자 괴시체

【춘천】 지난3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산중에 어떤 중년배의 여자의 괴시체가 있는 것을 나물하러갔던 그 동리 여자들이 발견하였다. 는 정보가 도 보안과에 달하였으므로 방금 소관 인제경찰서에 지휘하여 조사 중이라 한다.

1932-06-16-07-06

### 동아일보

#### 인제 재민에 식량을 배급, 지방비와 위문금 등으로 도에서 2만6천원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 작년 흉작의 영향으로 금춘에 이르러 세민들은 굶주리다 못하여 산과 들에 흩어져 오직 먹을 것을 얻기에 급급하며 금년 농사는 안전한 계획조차 없어 당황하는 참상이므로 강원도와 인제군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강구한 결과 5월 27일에 재민 4,616호에 대하여 3개월(4,516)분 식량으로 지방비에서 2만6,000여원이 인제군에 도착되었으며 더욱 강원도 직원 일동으로 보내는 위문금까지 왔으므로 군민은 감격함을 마지않으며 방금 각 면에서는 좁쌀과 수수쌀을 사서 나눠주는데 면별로 분배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한다.

◇면별로 보면

인제면	3,850.75
남면	3,714.47
북면	3,888.24
서화면	5,150.53
기린면	5,201.15
내면	1,071.04
계	26,137.70

(내에서 위문금으로 71.70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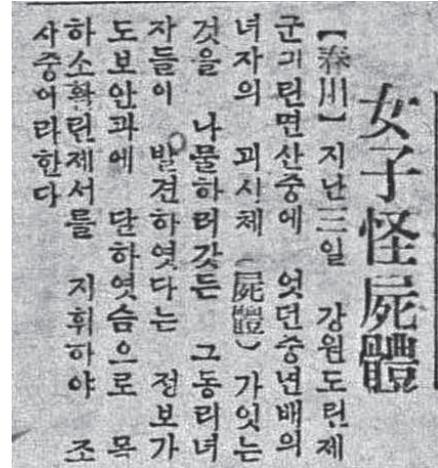
1932-06-17-03-09

### 매일신보

#### 선정의 쾌사! 인제군 궁민 호세를 면제, 1천794호 상세히 조사한 결과로

【춘천】 강원도 인제군하의 흉작궁민의 참상은 누차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금번 인제군에서는 이들 궁민 1,794호에 대한 호세를 면제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내용 인제면 185호, 남면 415호, 내면 78호, 서화면 426호, 북면 202호, 기린면 488호, 계 1,794호



### 麟蹄災民에 食糧을 配給

지방비와 위문금으로 道에서 二萬六千圓

【춘천】 강원도 인제군의 작지 앞산으로 주민의 감격함을 나타내며, 또한 이 마지막 한사람도 배급을 받게 하는 등, 선정의 쾌사! 인제군에서는 이들 궁민 1,794호에 대한 호세를 면제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南面	三、七〇四、四七
北面	三、八八八、二四
麟蹄面	五、一五〇、五三
西面	四、三三三、五六
内面	五、三〇一、一五
計	二六、一三七、七〇

(內에서 위문금으로 七一、七〇 포함)

### 善政의 快事!

## 麟蹄郡窮民 戶稅를 免除

一千七百九十四戶에 詳細히 調査한 結果로

【春川】江原道 麟蹄郡 窮民 戶稅를 免除한 快事이다. 麟蹄郡에서 窮民 戶稅를 免除한 結果로 麟蹄郡의 窮民 戶稅를 免除한 結果로 麟蹄郡의 窮民 戶稅를 免除한 結果로

麟蹄郡에서 窮民 戶稅를 免除한 結果로 麟蹄郡의 窮民 戶稅를 免除한 結果로 麟蹄郡의 窮民 戶稅를 免除한 結果로

1932-06-25-03-10

### 동아일보

#### 인제분국

지창욱 임 총무, 심중은 임 인제주재기자  
1932년 6월 15일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1932-07-15-03-08

### 매일신보

#### 재후의 인제군 군청단위 이전, 신시가로 이전하여 11월 말경에는 준경

【춘천】 강원도 인제군청 사옥은 금번 신시가지로 이전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공조가 1만2,200원에 청부하여 금번 11월 말경에는 준공할 예정이라 한다.

더욱 인제면은 작년 여름의 대홍수로 인하여 폐허로 귀하였으므로 인제면은 일시 비운에 빠졌으나 인제면 관민일동은 일치협력하여 부흥을 기하고 「신시가지」로 이전키로 한후 이래 착착 진척한 결과 금일에는 「개생한 인제면」으로 신흥의 자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인제면 유력자 이모 일파의 면 이전 반대로 적지아니 봉착하였으나 금번 인제군청의 이전신축은 결정적 대세를 지은 것으로 인제면민 대다수는 면발전상 겨우 안심하게 되었다.

1932-08-20-07-04

### 동아일보

#### 인부 1명 생매

【인제】 강원도 인제읍내 군청사 공사장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12시 경에 터를 닦느라고 파던 흙더미가 떨어지며 인부 한명을 묻었는데 즉시 파내서 인제읍 전일의원에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곧 절명하였는데 그 사람은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 박승린(●9)이라 한다.

1932-08-21-03-12

### 동아일보

#### 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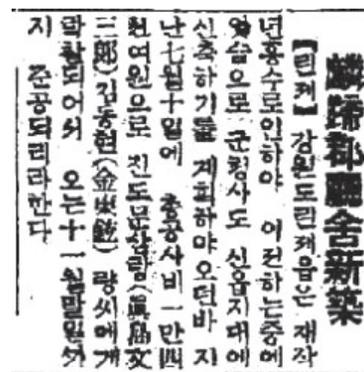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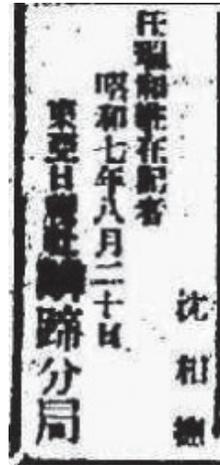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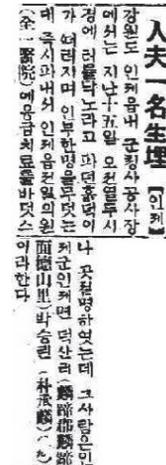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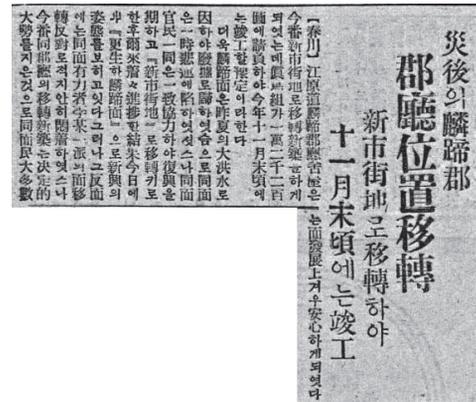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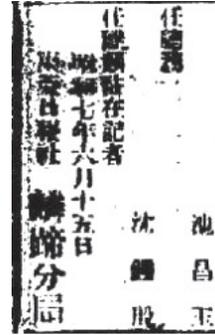
심상덕 임 인제주재기자, 1932년 8월 20일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1932-08-21-07-07

### 동아일보

#### 인제군 청사

【인제】 강원도 인제읍은 재작년 홍수로 인하여 이전하는 중에 있으므로 군청사도 신읍 지대에 신축하기를 계획하여 왔는데 지난 7월 10일에 총공사비 1만4,000여원으로 진도문삼량, 김동현 양씨에게 낙찰되어서 오는 11월 말일까지 준공되리라 한다.



1932-08-25-02-09

### 동아일보

#### 일확천금몽 영서의 광업 열

【양구】 전고 미증유의 대공황이 나날이 심각하여 감을 따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가 각처에 배회하는 이때에 영서일대에도 금광맥을 찾아오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이미 인제 춘천 화천 등지에서는 채굴 허가를 얻어 채굴 중에 있는 것이 수십여 처에 달한다 하며 양구에서도 지난 7월 초순 수입면 일대에서 광맥을 발견하고 허가를 수속하는 중이며 또 방산면에서도 장평리 송현리 고방산리 일원의 면적 84만여 평의 사금광을 발견하고 방금 원적을 강원도 통천에 둔 유기업씨가 허가 신청을 수속중이며 북면 상부룡리에서는 당지 김운여씨가 자기 소유 산 가운데서 우연히 길이가 10여리가 되는 광맥을 발견하고 서울에 있는 방한규씨를 통하여 허가원을 제출하였다 하며 또 원적을 서울에 둔 천재운씨는 작년 이래 춘천 추전리 양구 수인리 하수내리 상수내리 명곶리 인제 관대리까지의 북한강 연안을 따라 일대 사굴광을 발견하고 일부는 방금 채굴중이며 일부는 허가 수속 중이라 하는데 이상 하치의 금광은 모두 시험한 결과 함금량이 의외로 많다하여 광주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과 더구나 노동자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32-09-06-07-03

### 동아일보

#### 인제읍 일대도 홍수로 대소동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는 지난 8월 19일 밤부터 동 31일 새벽까지 폭우가 습래하여 우량이 175mm(평당 22두)에 이르러 구릉지대 100여 호는 재작년 수재를 생각하고 비상히 초조하다가 30일 밤에는 인제 6m7이 증수되므로 읍민은 크게 놀라 밤새도록 이삿짐을 옮기며 경찰과 소방수가 총출동하여 밤을 새워 경계하는 등 일대 소동을 하였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 큰 피해는 없으나 도로가 파손되어서 교통이 두절되었으므로 4, 5일 후에야 복구되리라 한다.

1932-09-14-02-10

### 동아일보

#### 무료 순회진료 인제 전공의 특지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산간이니만치 교통도 불편하고 수년래로 재해로 인하여 다대의 빈민층은 빈한과 절고에 놀리어서 불쌍한 운명을 계속한 현상이었다. 본군 공의 전병훈씨는 부임 이래 많은 실적이 있어 일반의 호평을 받던 중 금주 강원도에서 실행하는 벽취지 인민 무료진료 사업에 대하여 약가와 여비를 자담하여 가지고 군내 6개소에서 약 400명 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행한다는 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다. 9월 16일 인제면 가이리, 9월 17일 서화면 서흥리, 9월 18일 북면 용대리, 10월 3일 인제면 원대리, 10월 4일 기린면 상남리, 10월 6일 기린면 북리

**一攫千金夢**  
**燕西의 鑛業熱**

【양구】 전고 미증유의 대공황이 나날이 심각하여 감을 따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가 각처에 배회하는 이때에 영서일대에도 금광맥을 찾아오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이미 인제 춘천 화천 등지에서는 채굴 허가를 얻어 채굴 중에 있는 것이 수십여 처에 달한다 하며 양구에서도 지난 7월 초순 수입면 일대에서 광맥을 발견하고 허가를 수속하는 중이며 또 방산면에서도 장평리 송현리 고방산리 일원의 면적 84만여 평의 사금광을 발견하고 방금 원적을 강원도 통천에 둔 유기업씨가 허가 신청을 수속중이며 북면 상부룡리에서는 당지 김운여씨가 자기 소유 산 가운데서 우연히 길이가 10여리가 되는 광맥을 발견하고 서울에 있는 방한규씨를 통하여 허가원을 제출하였다 하며 또 원적을 서울에 둔 천재운씨는 작년 이래 춘천 추전리 양구 수인리 하수내리 상수내리 명곶리 인제 관대리까지의 북한강 연안을 따라 일대 사굴광을 발견하고 일부는 방금 채굴중이며 일부는 허가 수속 중이라 하는데 이상 하치의 금광은 모두 시험한 결과 함금량이 의외로 많다하여 광주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과 더구나 노동자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麟蹄邑 一帯도 洪水로 大騷動**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 8월 19일 밤부터 동 31일 새벽까지 폭우가 습래하여 우량이 175mm(평당 22두)에 이르러 구릉지대 100여 호는 재작년 수재를 생각하고 비상히 초조하다가 30일 밤에는 인제 6m7이 증수되므로 읍민은 크게 놀라 밤새도록 이삿짐을 옮기며 경찰과 소방수가 총출동하여 밤을 새워 경계하는 등 일대 소동을 하였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 큰 피해는 없으나 도로가 파손되어서 교통이 두절되었으므로 4, 5일 후에야 복구되리라 한다.

**無料巡迴診療**  
**麟蹄金公醫特志**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산간이니만치 교통도 불편하고 수년래로 재해로 인하여 다대의 빈민층은 빈한과 절고에 놀리어서 불쌍한 운명을 계속한 현상이었다. 본군 공의 전병훈씨는 부임 이래 많은 실적이 있어 일반의 호평을 받던 중 금주 강원도에서 실행하는 벽취지 인민 무료진료 사업에 대하여 약가와 여비를 자담하여 가지고 군내 6개소에서 약 400명 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행한다는 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다.

九月十六日	麟蹄而加兒里
同 十七日	瑞和而瑞洞里
同 十八日	北而而院里
十月三日	麟蹄而院里
同 四日	麟蹄而土南里
同 六日	麟蹄而北里

1932-09-17-07-03

### 동아일보

#### 인제에 보건 운동

【인제】 강원도 인제읍에서는 지나간 8월 중순부터 인제 엽윗청년회 주최로 일반 청년의 보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매일 아침 기회를 계속하여 일정한 곳에 단원이 모이면 정말 체조를 강습하여서 보건 운동을 보급시키는 중인데 지금 단원이 약 30명이나 되며 앞으로 많이 참가하기를 바란다 한다.

1932-09-17-07-04

### 동아일보

#### 인제의 농작예상 평년보다 20% 증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작년도 대흉작으로 인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근근이 지은 농사가 어찌될까 하여 신곡 나기를 기다리는 이 즈음에 다행히 우순풍조 하여 큰 풍년을 이루리라는데 앞으로 일기 순조하여 결실만 잘되면 평년보다 20%가 늘겠으며 작년보다는 40%나 늘겠으므로 일반 농가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중이라 한다.

1932-09-22-03-03

### 동아일보

#### 인제 양양 도로 촉진 인제 일기자

인제 양양간 도로 문제는 실로 두군의 문화 향상과 물화교통상 중대 시되어 다년 숙망되었었다. 지난번에도 일언으로써 군민의 각성을 촉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논의케 됨은 시기와 경우에 있어서 더욱 필요를 초래한 까닭이다. 지난 6월에 도에 진정을 하며 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 운동을 일으켰으나 지금까지 하등의 실현이 없음은 그 원인이 변방에 있는가? 혹은 인물 운하고 혹은 부력 운하나 그보다도 본 문제가 금일까지 지완한 상태로 계속함은 군민의 주의불통일이라 할 것이니 당초에 노선 문제로 일부는 오색령 설을 주장하고 일부는 조침령 설을 주장하여 수년을 끌다가 겨우 조침령 설이 확정되어 기린면 경내에서 부분적이나마 공사를 시작하다가 홍수에 파손을 당하고 뒤미처 대흉작으로 인하여 민력이 감퇴되므로 실현치 못하였었다. 이와같이 운동이 침체함을 간파한 양양군에서는 금춘부터 다시 구룡령 설을 주장하여 흥천 양양선을 신계획하고 있다는 설이 사실인 듯하다. 만일 흥천 양양선에 먼저 개통될 시는 인제양양선 도로도 어느 때에 개통될는지 더욱 실현성을 지원케 함이 자연자세일 것이다. 그런즉 도에서는 인제 양양선에 대하여 3만원으로 5만원까지의 공사비를 보조 하겠다 한 즉 이와 같은 시기와 경우에 처한 우리 군민은 일거하여 이 도로를 완성토록 노력할 것이다. 대공사를 착수하기에 절호한 시기라 할지니 금년은 인제군 일대에 대풍작을 심산하고 있다. 바라건대 6만의 생명선되는 조침령 도로를 급속히 기공할 것이다.

【인제】 강원도 인제읍 엽윗청년회 주최로 일반 청년의 보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매일 아침 기회를 계속하여 일정한 곳에 단원이 모이면 정말 체조를 강습하여서 보건 운동을 보급시키는 중인데 지금 단원이 약 30명이나 되며 앞으로 많이 참가하기를 바란다 한다.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작년도 대흉작으로 인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근근이 지은 농사가 어찌될까 하여 신곡 나기를 기다리는 이 즈음에 다행히 우순풍조 하여 큰 풍년을 이루리라는데 앞으로 일기 순조하여 결실만 잘되면 평년보다 20%가 늘겠으며 작년보다는 40%나 늘겠으므로 일반 농가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중이라 한다.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작년도 대흉작으로 인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근근이 지은 농사가 어찌될까 하여 신곡 나기를 기다리는 이 즈음에 다행히 우순풍조 하여 큰 풍년을 이루리라는데 앞으로 일기 순조하여 결실만 잘되면 평년보다 20%가 늘겠으며 작년보다는 40%나 늘겠으므로 일반 농가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중이라 한다.

1932-10-05-03-09

### 동아일보

#### 인제공립보통운동회

오는 9일 동 교정에서 개최

1932-10-08-07-04

### 매일신보

#### 칼로 협박하고 40원 강탈, 4일 밤 인제군하의 강도사건 경찰은 범인 탐사 중

【춘천】 지난 4일 밤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농업 박기봉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고 현금 40원을 강탈 도주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 중이다.

1932-11-17-06-02

### 동아일보

#### 인제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지나간 10일부터 1주일 동안에 전군이 일치하여 자력갱생운동을 하는 중인데 10일 12시부터 악대를 선두로 시내를 일주하며 선전하였다 한다.

1932-11-20-03-04

### 중앙일보

#### 우편차 우송 개시

강원도의 양구군과 인제간의 우편물은 종래 춘천과 홍천 등지를 돌아 송달되었는데 금번 체신국에서는 춘천으로부터 양구를 지나 인제에 이르는 도로 수선 공사 준공과 한가지로 그 구간의 우편물 자동차 체송선로를 개설하여 16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양구 지방의 우편물은 현저히 속달되게 되었다 한다.

1932-12-05-03-12

### 동아일보

#### 근고

인제주재기자 심종은 의원면직, 백남준 임 기자  
1932년 11월 28일,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 麟蹄公立普通學校運動會、來  
九日同校庭에서開催

「奈川」 지난 4일 밤, 별한시경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농업 박기봉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고 현금 40원을 강탈 도주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 중이다.

## 칼로脅迫하고 四十圓強奪

四日 밤 린계 군하의 강도사건  
警察은犯人探査中

### ▲麟蹄【인제】장원포인

제군에서는 지나간 10일부터 1주일 동안에 전군이 일치하여 자력갱생운동을 하는 중인데 10일 12시부터 악대를 선두로 시내를 일주하며 선전하였다 한다.

郵便車運送開始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간의 우편물은 종래 춘천과 홍천 등지를 돌아 송달되었는데 금번 체신국에서는 춘천으로부터 양구를 지나 인제에 이르는 도로 수선 공사 준공과 한가지로 그 구간의 우편물 자동차 체송선로를 개설하여 16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양구 지방의 우편물은 현저히 속달되게 되었다 한다.

任記者 沈錫股  
依駐在所記者 白南樓  
昭和七年十一月廿八日  
東亞日報社 麟蹄分局

1932-12-17-03-02

### 동아일보

#### 인제 음악 성황 동정금도 답지

【인제】 인제유치원에서는 지난 8일 밤에 인제공회당에서 창립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감 전병훈씨의 개최사를 비롯하여 30여 종목의 순서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으며 부형과 유지 중에서 많은 동정으로 의연하신 이도 있어서 성황을 이루었다 한다.

1932-12-17-05-01

### 동아일보

#### 지방세 부가되면 삼림 소유권 포기, 1정보 11전씩 부가될 듯 인제 남면의 기현상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삼림조합이 폐지되고 일반 삼림에는 지방세를 부가하게 되어 방금 지방세를 부과시킬 삼림을 조사 중인데 삼림조합이 폐지되므로 조합비를 물지 않게되고 지방세를 물게 되면 부담이 다소간 줄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지방세 부가로 인하여 소유 삼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진기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인제군은 산속이니만치 삼림이 많은데 개인의 소유보다도 국유삼림과 단체 소유 삼림이 많아서 면 소유 삼림이 1만여 정보나 되는데 그중에 남면에서 소유한 삼림이 4,300정보나 된다고 한다. 국유삼림에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으므로 금번 삼림행정에 대하여 아무 지촉이 없으나 단체 소유 삼림 즉 면의 소유삼림에는 전에는 조합비를 물지 않던 것인데 금번 행정방침에 의하면 매 1정보에 대하여 11전씩 부가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제 남면에서는 매년 4,300정보에 대하여 440여원의 지방세를 물게 되므로 면당국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소유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황무지인데 아무것도 산출이 없고 또 이제부터 조림을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성공되어서 삼림으로부터 소산물이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겠으므로 불가불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 곤란한 것은 면 소유 재산을 무조건으로 포기하는 법규상 조문이 없어서 군당국에 사실을 보고하고 선후책을 강구중이라 한다.

1932-12-20-03-07

### 동아일보

#### 인제문묘 장의 선거

지난 9일에 동 명륜당에서 거행

1932-12-20-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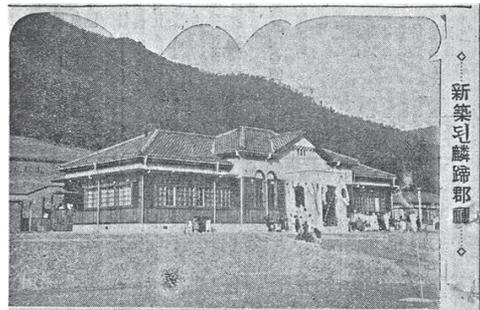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사진 신축된 인제군청

(○) 朱子明(龍潭) (△) 蔡昌鎭  
(○) 麟蹄音樂盛況  
麟蹄音樂盛況  
同情金도運至  
麟蹄音樂盛況  
同情金도運至  
麟蹄音樂盛況  
同情金도運至

地方稅附加되면  
森林所有權拋棄  
一정보 11전씩 부가 될 듯  
麟蹄南面の奇現狀  
麟蹄南面의 奇現狀  
麟蹄南面의 奇現狀

麟蹄文剛堂請選舉  
去九日



1932-12-26-04-02

### 동아일보

#### 명색 수양녀, 인제 일기자

인제는 강원도 중앙에 의하여 순후한 강원도 삼림을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반이 증오하는 악풍이 성속되고 있다. 그것은 강원도 중에도 인제와 양구 등지에 독특한 풍속으로 소위 「수양딸」이라는 미명으로 인녀를 입가시켜서 무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양 딸로 가는 여아는 대개 부모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빈민의 딸이다. 수양 딸을 두는 사람을 부유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고 고용을 시킬만한 유산계급이다. 그리하여 수양 딸들은 10세 전후에 남의 집에 가면 20세까지 이름없는 종노릇을 하다가 혼기에 이르면 주인은 수양 사위감으로 남자를 입가시켜서 부부를 만들어 5, 6년을 두고 부러먹다가 나중에는 남의 헛간에 세간을 내어주면 평생을 가난에 놀려 사는 것이다. 보수도 주지 않고 수양 딸이라는 미명 하에 인녀를 노예취급하는 것은 인권에 부당한 행위다. 악덕이다. 더욱 죄악시되는 것은 보수없이 사용하는 영리 외 목적으로 여아를 매수하여 수양 딸을 삼는 것이다. 수양 딸을 둔 인사여. 군 등은 지방의 미풍양속을 함양함에 솔선할 인격으로 자처하지 않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차한 악풍을 감행하는가. 인의 곤궁한 처지와 악점을 이용하여 중복코자 함이 악풍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만근 악풍이라 하며 외래의 풍조로 풍속을 분란케 함이 많으나 인제의 수양 딸 제도는 지방적 악풍물이다. 끝으로 일언을 충고하노니 수양 딸을 두거든 대우를 개선하여라. 그렇지 않거든 파악하여 주어라. 그리해서 악풍을 개선하자

**名色收養女**  
 一 記者  
 江原道中央에 위치한 인제는 강원도 삼림을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반이 증오하는 악풍이 성속되고 있다. 그것은 강원도 중에도 인제와 양구 등지에 독특한 풍속으로 소위 「수양딸」이라는 미명으로 인녀를 입가시켜서 무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양 딸로 가는 여아는 대개 부모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빈민의 딸이다. 수양 딸을 두는 사람을 부유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고 고용을 시킬만한 유산계급이다. 그리하여 수양 딸들은 10세 전후에 남의 집에 가면 20세까지 이름없는 종노릇을 하다가 혼기에 이르면 주인은 수양 사위감으로 남자를 입가시켜서 부부를 만들어 5, 6년을 두고 부러먹다가 나중에는 남의 헛간에 세간을 내어주면 평생을 가난에 놀려 사는 것이다. 보수도 주지 않고 수양 딸이라는 미명 하에 인녀를 노예취급하는 것은 인권에 부당한 행위다. 악덕이다. 더욱 죄악시되는 것은 보수없이 사용하는 영리 외 목적으로 여아를 매수하여 수양 딸을 삼는 것이다. 수양 딸을 둔 인사여. 군 등은 지방의 미풍양속을 함양함에 솔선할 인격으로 자처하지 않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차한 악풍을 감행하는가. 인의 곤궁한 처지와 악점을 이용하여 중복코자 함이 악풍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만근 악풍이라 하며 외래의 풍조로 풍속을 분란케 함이 많으나 인제의 수양 딸 제도는 지방적 악풍물이다. 끝으로 일언을 충고하노니 수양 딸을 두거든 대우를 개선하여라. 그렇지 않거든 파악하여 주어라. 그리해서 악풍을 개선하자

1933-01-29-03-02

### 동아일보

#### 인제 서울 직통

【인제】 강원도 인제는 종래로 서울과의 교통이 불편하여 서울 교통은 춘천을 연락하여서 겨우 직통하여왔었는데 지난 20일 부터는 흥천을 경과하여서 매일 자동차가 직통하게 되었으므로 일반 여객에게는 큰 편리가 있다고 한다.

**歸京直通**  
 江原道인제는 종래로 서울과의 교통이 불편하여 서울 교통은 춘천을 연락하여서 겨우 직통하여왔었는데 지난 20일 부터는 흥천을 경과하여서 매일 자동차가 직통하게 되었으므로 일반 여객에게는 큰 편리가 있다고 한다.

1933-01-30-04-06

### 중앙일보

#### 강원의 보고 정선 금강산 전도 파히 유망하다고

강원도에는 세계 명산 금강산을 비롯하여 전도에 뻗쳐 준엄한 산이 일첩하여 있는데 여기에는 적지않은 자연의 보고가 있어 방금 그 채굴에 착수한 명산이 수다한 평강 인제 김화 삼척 등지의 광산 등도 우수하거나 특히 정선의 최응채, 오창은 등이 경영하는 광산의 6 개소에서는 지난 1932년도의 산금만 하여도 실로 56만4600메인데 이를 화폐로 환산하면 26만6,530원이나 된다하며 이외에도 아직 처 너저로 유망한 곳이 적지 않다 한다.

**江原의寶庫**  
 旌善金鑛前途  
 江原道에는 세계 명산 금강산을 비롯하여 전도에 뻗쳐 준엄한 산이 일첩하여 있는데 여기에는 적지않은 자연의 보고가 있어 방금 그 채굴에 착수한 명산이 수다한 평강 인제 김화 삼척 등지의 광산 등도 우수하거나 특히 정선의 최응채, 오창은 등이 경영하는 광산의 6 개소에서는 지난 1932년도의 산금만 하여도 실로 56만4600메인데 이를 화폐로 환산하면 26만6,530원이나 된다하며 이외에도 아직 처 너저로 유망한 곳이 적지 않다 한다.

1933-02-01-03-08

### 동아일보

#### 인제의 밀주

【인제】 1932년도에 인제군에서 주류 밀조자를 검거한 건수는 54건 이고 벌금액이 1,027원에 달하였는데 그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며 그 외에도 간접 국세 위반사건으로 연초전매령 인지세령 골패 세령 등 위반자가 있다고 한다.  
탁주 27건, 약주 1건, 누룩 17건, 기타 9건

1933-02-07-07-04

### 매일신보

#### 인제 백담사의 도난 불상 발견

【춘천】 유명한 인제 백담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어떤 자에게 불상 1좌를 도난맞아 이래 각방면으로 탐사 중이었는데 수일전 경춘선 금곡주재소에서 찾아가라는 통지가 있었다.

1933-02-13-04-06

### 동아일보

#### 인제 술담배값 10만7천여원, 작년 1년 동안 소비한 것 매호당 9원50전

【인제】 강원도 인제군내에서 작년 1년간 주초 소비액이 107,330 여원으로 그중 연초가 44,642원 탁주 2,481석2두8승에 49,624원 약 주 73석2두에 4,392원 세액 86,072원 총수량 2,554석4두8승에 총액 54,016원 이라는데 이것을 나누어 인구 매 평균 분배한다면 매호당 9원 50전 매인당 1원67전이라 한다.

1933-03-17-03-03

### 동아일보

#### 인제

【인제】 인제진흥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부업을 단행키로 결 의하고 실행하여왔는데 지난10일에 그 성적을 고찰키 위하여 매회 원에게 배정한 제품을 진열하여 실행부장이 감찰한바 의외의 성적 이 양호하였다 하며 위반자는 1인도 없었다 한다. 이제 그 배정한 종 류는 좌와 같다.

- 1. 소구리 1매
- 1. 짚신 3죽
- 1. 삼태기 1개
- 1. 우장 1개
- 1. 새끼 300 등

**麟蹄의密酒** 【린케】소  
화七년도에 린케군에서 주류밀  
조자를 검거한건수는 五十四건  
이고 벌금액이 一萬二千七圓에  
달하였다는데 그 상세사항은 다  
음과갓다하며 그외에도 간접국  
세외반사건으로 연초전매령 인  
지세령 골패세 등령의 위반자가 있  
다고한다

濁酒 二十七件  
燒酎 一件  
網子 十七件  
其他 九件

**麟蹄百潭寺의  
盜難佛像發見**

(泰川) 유명한 인제 백담사(麟蹄百潭寺)에서는 지난 5월 19일 어떤 자에게 불상 1좌를 도난맞아 이래 각방면으로 탐사 중이었는데 수일전 경춘선 금곡주재소에서 찾아가라는 통지가 있었다.

**麟蹄酒草代  
十萬七千餘圓**

작년 1년 동안 소비한 것  
每戶當九圓五十錢

강원도 인제군내에서 작년 1년간 주초 소비액이 107,330 여원으로 그중 연초가 44,642원 탁주 2,481석2두8승에 49,624원 약 주 73석2두에 4,392원 세액 86,072원 총수량 2,554석4두8승에 총액 54,016원 이라는데 이것을 나누어 인구 매 평균 분배한다면 매호당 9원 50전 매인당 1원67전이라 한다.

**麟蹄** 【린케】 소  
화七년도에 린케군에서 주류밀  
조자를 검거한건수는 五十四건  
이고 벌금액이 一萬二千七圓에  
달하였다는데 그 상세사항은 다  
음과갓다하며 그외에도 간접국  
세외반사건으로 연초전매령 인  
지세령 골패세 등령의 위반자가 있  
다고한다

濁酒 二十七件  
燒酎 一件  
網子 十七件  
其他 九件

1933-03-18-03-07

### 동아일보

인제공립보통학교 제19회 졸업식

오는 23일 동교에서 거행

1933-03-18-03-08

### 동아일보

인제유치원 제6회 졸업식

오는 17일 동 원내에서 거행

1933-03-18-03-08

### 동아일보

인제 사립정의여학교 제20회 졸업식

오는 17일 동교에서 거행

1933-03-18-03-08

### 동아일보

서화공립보통학교 졸업식

오는 24일 동교에서 거행

1933-03-28-03-01

### 동아일보

졸업 사진 화보

위로부터 인제유치원 장단유치원 정읍유치원

1933-04-09-03-02

### 동아일보

음주와 교육, 인제일기자

인제는 호수 11,800여호에 인구 64,000여인이 거주하는 소군이다. 교육기관으로는 22개나 있어 적어도 2,000, 3,0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은 불과 1,000여명이며 그나마도 다수의 월사 성적을 관찰한다면 공립보통학교의 체납만도 근 4,000여원의 체납이라 하니 그것도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1930년 경오년 수재로 인하여 비할 수 없는 고통의 무비의 참경을 맞본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에는 술담배 소비로만 물경 108,000천여원이란 거액이었다.

술담배값을 매호당 평균하면 9원50전이나 되니 매호에 1인 이상의 보통교육은 무난히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매년 17,000여명이 유아때부터 생활선상에 가장 꺾긴한 지식을 함양하기에 경주할 것이다.



### 飲酒와 教育

一記者

願蹄每日數一萬一千八百餘戶 人口六萬四千餘人 居民皆 小部이다 教育機關으로는 二十二箇나 있어 지어도 二三千名까지 收容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學生의 不遂于 餘名이 이 그나마도 多數의 月給成績 願蹄의 公辦校의 統計로는 近四千圓의 體納이라 하 니 그것도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1930년 경오년 수재로 인하여 비할 수 없는 고통의 무비의 참경을 맞본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에는 술담배 소비로만 물경 108,000천여원이란 거액이었다.

술담배값을 매호당 평균하면 9원50전이나 되니 매호에 1인 이상의 보통교육은 무난히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매년 17,000여명이 유아때부터 생활선상에 가장 꺾긴한 지식을 함양하기에 경주할 것이다.

1933-04-10-03-05

### 동아일보

## 6만 주민에 의사는 10명, 손쉬운 병에도 할 수 없어 죽어 인제의료기관 현상

【인제】 강원도 인제는 전 인구 64,041인에 의사는 겨우 1인이라는 데 설상가상으로 인제는 각면을 통하여 교통이 대단 불편한 관계상 군민은 손쉬운 적은 병에도 생명을 빼기는 수가 심히 많다 하며 9인의 의생으로 다소 보충은 된다 하며 실로 그 비례를 볼진대 의사 1인당 64,000여 인이며 의생 1인당 7,000여인이라 한다.

1933-04-10-03-10

### 동아일보

## 강원 실업자 5천200명 3월말 농상공 기타를 통해 울진과 통천 그 수위

【춘천】 3월말 현재 전강원도 실업자수는 농, 상, 공 기타를 통하여 5,200명이나 된다하며 그 군별 현상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춘천 370인 △인제 363인 (중략)

1933-04-11-03-04

### 동아일보

## 인제 양도로의 공사를 착수 금강산 도로공사는 착수코 흥천간 도로도 머지않음

【인제】 현안 중이던 인제 금강산 도로공사는 1차 2차로 착수구역을 나누어 수선하기로 되었다 하며 북면 서화간은 제1차 착수 구역으로 되어 지난 1일부터 공사 착수하여 방금 진행중이다. 그런데 공사비는 순전히 면민에게 부담시켰다는데 일반 면민들은 지금 춘궁을 당하여 먹을 것도 없어 굶은 날이 많은 가운데 이것까지 부담이 되므로 지금 큰 곤란 중에 있다 한다.

1933-04-11-03-05

### 동아일보

## 인제

【인제】 다년간 현안 중이던 양양 흥천선 기린 내면간 도로는 지난 3월 24일 기린면 협의회 기타 유지회에서 금주부터 개수하기로 결의가 있어 불윈 공사 착수하리라는데 저번 도의회 시 도당국에서 답사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면민일동은 속히 답사가 응하기를 갈망한다 하며 응하는 대로 도로공사는 급속히 착수하리라 한다.

## 六萬住民에 醫師는十名

손쉬운 병에도 할 수 없어 죽어 麟蹄醫療機關現狀

【인제】 강원도 인제는 전 인구 64,041인에 의사는 겨우 1인이라는 데 설상가상으로 인제는 각면을 통하여 교통이 대단 불편한 관계상 군민은 손쉬운 적은 병에도 생명을 빼기는 수가 심히 많다 하며 9인의 의생으로 다소 보충은 된다 하며 실로 그 비례를 볼진대 의사 1인당 64,000여 인이며 의생 1인당 7,000여인이라 한다.

## 江原失業者 五千二百名

三월말 농상공 기타를 통해 蔚珍과通川 그 수위

【춘천】 3월말 현재 전강원도 실업자수는 농, 상, 공 기타를 통하여 5,200명이나 된다하며 그 군별 현상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춘천 370인 △인제 363인 (중략)

## 麟蹄兩道路의 工事를着手

금강산 도로공사는 착수코 洪川間道路도未久 始

【인제】 인제에서 인제와 금강산 사이를 잇는 도로공사는 1차 2차로 착수구역을 나누어 수선하기로 되었다 하며 북면 서화간은 제1차 착수 구역으로 되어 지난 1일부터 공사 착수하여 방금 진행중이다. 그런데 공사비는 순전히 면민에게 부담시켰다는데 일반 면민들은 지금 춘궁을 당하여 먹을 것도 없어 굶은 날이 많은 가운데 이것까지 부담이 되므로 지금 큰 곤란 중에 있다 한다.

## 【인제】 다년간 현안 중이던 양양 흥천선 기린 내면간 도로

【인제】 다년간 현안 중이던 양양 흥천선 기린 내면간 도로는 지난 3월 24일 기린면 협의회 기타 유지회에서 금주부터 개수하기로 결의가 있어 불윈 공사 착수하리라는데 저번 도의회 시 도당국에서 답사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면민일동은 속히 답사가 응하기를 갈망한다 하며 응하는 대로 도로공사는 급속히 착수하리라 한다.

1933-04-14-03-06

**동아일보**

**강원도 순화전민만 5만3,400인 총면적 48만9천정보 군별로 인제가 수위**

【춘천】 금년 3월말 현재 전강원도 화전 면적과 화전민 조사를 보면 총면적 48만9,203단보에 순화전민 호수가 1만5,520호 인구 5만3,443인의 다수이다. 이를 다시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호수(호)	인구(인)	면적(단)
춘천	692	2,883	13,847
인제	2,438	12,537	117,152

(중략)

1933-05-07-05-06

**매일신보**

**강원도 출마자 정원의 4배 흥천, 양구, 정선은 무경쟁 격전지는 삼척의 9명**

【춘천】 오는 10일 집행할 강원도회의원 선거전은 기일이 절박됨을 따라 수처에 백병전 돌격전 육박전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3일으로써 입후보 신청기일이 만료되었는데 본도의 정원을 관선 10명 민선 21명으로서 관선의원의 인선으로는 절대 발표치 않는다 하여 입후보자 총수 84명 중 일본인이 3명, 조선인이 81명이니 정원수의 꼭 4배이다. 그런데 본도 21군 중 무경쟁 선거구는 흥천, 양구, 정선의 3군이고 이 외의 18군은 정원 1인에 대하여 평균 4, 5인의 입후보자가 있는데 그 중 삼척군은 정원 1인에 대하여 9인의 출마자가 있어 혼전 상태에 빠져 육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일까지 확정된 입후보자 씨름을 각군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춘천군 ▲전상우 원면장 무직 64 ▲신태현 읍의사법대서 53 ▲안동완 농업 ▲지규 ● 원면장 농업
- ◇인제군(3인) ▲이종고 금융조합장 41 ▲김영제 여관업 42 ▲엄정환 농업 62 (중략)

1933-05-09-03-08

**동아일보**

**사금 도굴자 철저히 단속 인제서서 금후 방침**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는 근래에 이르러 허가 없이 사금을 도굴하는 자가 격증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작년 풍수해로 인하여 세민의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여 차차 시작되었으나 경찰당국에서는 세민의 생활 상태를 참작한 바가 있어 단속을 완화하여 왔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일반 세민의 생활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계속하여 사금 도굴자가 격증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민들은 안정한 직업에 종사치 않고 도로 산업에 태만하여져서 일반 민중에게 영향이 불리하게 되겠으므로 이를 탐지한 인제경찰서에서는 지난 27일부터 관내를 통하여 일제히 사금도굴자 단속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검거한 수효는 34명에 이르렀으나 처음인 만큼 대개는 훈계방면하여 보냈다 한다.

**江原道純火田民만 五萬三千四百人**  
**總面積四十八萬九千町步**  
**郡別로麟蹄가首位**

郡名	戶數	人口	面積
春川	692	2,883	13,847
麟蹄	2,438	12,537	117,152
...	...	...	...

**江原道出馬者 定員의 四倍**  
 激甚地七二陽의 九名

郡名	出馬者	定員
春川	64	10
麟蹄	81	21
...	...	...

**砂金盜掘者 徹底히取締**  
**麟蹄署서今後方針**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는 근래에 이르러 허가 없이 사금을 도굴하는 자가 격증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작년 풍수해로 인하여 세민의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여 차차 시작되었으나 경찰당국에서는 세민의 생활 상태를 참작한 바가 있어 단속을 완화하여 왔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일반 세민의 생활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계속하여 사금 도굴자가 격증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민들은 안정한 직업에 종사치 않고 도로 산업에 태만하여져서 일반 민중에게 영향이 불리하게 되겠으므로 이를 탐지한 인제경찰서에서는 지난 27일부터 관내를 통하여 일제히 사금도굴자 단속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검거한 수효는 34명에 이르렀으나 처음인 만큼 대개는 훈계방면하여 보냈다 한다.

1933-05-12-03-11

동아일보

근고

기자 백남준 서화주재기자

심상덕 의원면직

1932년 5월 1일.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1933-05-12-05-01

매일신보

읍선거구 강원도

◇인제군(정원 1 후보3)

27표 김영제

1933-05-16-03-10

동아일보

인제시민 운동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읍내 시민들은 수년 이래의 풍수해로 인하여 생활상 막대한 타격을 거듭하여왔는데 금년부터는 생활도 다소 안정되고 시항도 활기를 띠게 되므로 일반은 춘기 대운동회를 개최하자는 여론이 돌게되자 유지 20여명이 지난 8일 오후8시부터 상동리 공동씨 대에서 준비회로 모여 원만 협의한 결과 오는 5월 28일(단오)에 인제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즉석에서 좌기 임원을 선정하여 진행케하였다 한다.

1933-05-17-03-04

동아일보

인제잠업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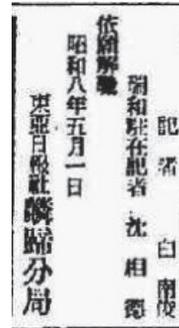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농회에서는 금년에 고치 값이 매우 좋겠다고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잠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수년 이래로 고치 값이 헐하여서 일반 양잠가들은 매우 주저하는 태도로 있다고 한다. 이에 군농회에서는 고치 값에 대하여 자신있게 선전하는 중인데 금년에 뽕나무묘목 14,000여그루와 잠종 6,000여매를 일반 농가에 배부하고 농촌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다.

1933-05-17-03-09

동아일보

인제면장 회의

지난 12일 인제군청 군수실에서 개최



邑選學區

江原道

- A list of names and constituencies for the Jeonju Branch election district in Gangwon-do, including names like Kim Gyeong-je, Kim Gyeong-don, etc.

麟蹄市民運動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읍내 시민들은 수년 이래의 풍수해로 인하여 생활상 막대한 타격을 거듭하여왔는데 금년부터는 생활도 다소 안정되고 시항도 활기를 띠게 되므로 일반은 춘기 대운동회를 개최하자는 여론이 돌게되자 유지 20여명이 지난 8일 오후8시부터 상동리 공동씨 대에서 준비회로 모여 원만 협의한 결과 오는 5월 28일(단오)에 인제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즉석에서 좌기 임원을 선정하여 진행케하였다 한다.

麟蹄養蠶獎勵
【인제】 인제군 농회에서는 금년에 고치 값이 매우 좋겠다고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잠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수년 이래로 고치 값이 헐하여서 일반 양잠가들은 매우 주저하는 태도로 있다고 한다. 이에 군농회에서는 고치 값에 대하여 자신있게 선전하는 중인데 금년에 뽕나무묘목 14,000여그루와 잠종 6,000여매를 일반 농가에 배부하고 농촌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다.

會 舍
密陽公學校學友會第十一回定期總會 去十二日同校演說에서 閉會
麟蹄市長會議 去十二日麟蹄郡廳에서閉會

1933-05-18-03-04

동아일보

모녀의 출가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덕적리 김부경의 처 이성녀(30)는 지난 5월 4일 밤에 남편되는 부경이 출타한 틈을 타서 2살 된 딸을 데리고 어디로인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동리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가정불화로 인하여 가끔 부부간 싸움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아무 싸운 일도 없이 출가한 것이므로 혹 자살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하며 남편 부경은 세식구가 일시에 처자를 잃었으나 찾을 길도 없어 사정이 매우 딱하다 한다.

1933-05-20-02-04

매일신보

집안 식구간에도 매질은 안할 것, 하마터면 법에 크게 걸릴 걸 벌금 30원으로 되어

손자를 죽이고 아내를 때린 모자가 1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죄의 재판을 받은 이야기-징역 1년과 2년의 구형이 벌금 30원의 판결이 되어 무서운 죄인으로부터 모자는 환술기의 광명에 감사를 하였으나 무지한 폭력을 가정에서 행사하는 일에 한 경고가 되었다. 강원도 인제군 남편 어론리 원수원(63)과 그 넷째 아들 박수옥(37)은 지난 1월 2일에 피고 박수옥의 아내(원수원의 며느리)가 두살된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갔는데 뜻밖에 뇌막염을 일으켜 중태에 빠졌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가로 데리고 와 있는 병이라고 분개하여 원수원은 며느리의 품에서 손자를 때어서 방에 내어던지고 박수옥은 아내를 구타하여 부상케 하였다. 이리하여 두 모자는 법정에 죄인으로 서게 되었다. 심리한 결과 어린이 이가 죽은 것은 뇌막염이고 내던진 것으로 원인이 되어 죽지 않았다고 며느리를 구타한 사실만 인정하고 벌금30원에 처하였다. 이것은 무지가 가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범행으로 일반가정에 한 경고가 되는 것이다.

1933-05-20-03-01

동아일보

사활기로에 빈농 총인구의 30% 38만4,200여의 다수 강원도내 세궁민 통계

【춘천】 강원도 지방과의 3월말 현재 전도 세궁민 조사 상황을 보면 세민급의 인구가 384,267인이요 궁민급의 인구가 11만9,592인데 전도 총인구 141만9,044인의 30%를 점령하고 있는 놀랄만한 숫자를 볼 수 있다. 다시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세민(인)	궁민(인)
춘천	20,227	4,894
인제	25,051	19,048
(중략)		

**母女の出家**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덕적리 김부경의 처 이성녀(30)는 지난 5월 4일 밤에 남편되는 부경이 출타한 틈을 타서 2살 된 딸을 데리고 어디로인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동리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가정불화로 인하여 가끔 부부간 싸움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아무 싸운 일도 없이 출가한 것이므로 혹 자살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하며 남편 부경은 세식구가 일시에 처자를 잃었으나 찾을 길도 없어 사정이 매우 딱하다 한다.

**집안 식구간에도 매질은 안할 것**  
罰金卅圓으로 되어

손자를 죽이고 아내를 때린 모자가 1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죄의 재판을 받은 이야기-징역 1년과 2년의 구형이 벌금 30원의 판결이 되어 무서운 죄인으로부터 모자는 환술기의 광명에 감사를 하였으나 무지한 폭력을 가정에서 행사하는 일에 한 경고가 되었다. 강원도 인제군 남편 어론리 원수원(63)과 그 넷째 아들 박수옥(37)은 지난 1월 2일에 피고 박수옥의 아내(원수원의 며느리)가 두살된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갔는데 뜻밖에 뇌막염을 일으켜 중태에 빠졌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가로 데리고 와 있는 병이라고 분개하여 원수원은 며느리의 품에서 손자를 때어서 방에 내어던지고 박수옥은 아내를 구타하여 부상케 하였다. 이리하여 두 모자는 법정에 죄인으로 서게 되었다. 심리한 결과 어린이 이가 죽은 것은 뇌막염이고 내던진 것으로 원인이 되어 죽지 않았다고 며느리를 구타한 사실만 인정하고 벌금30원에 처하였다. 이것은 무지가 가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범행으로 일반가정에 한 경고가 되는 것이다.

**死活歧路에선貧農**  
總人口의三十%

三十八萬四千二百餘의多數

**江原道內細窮民統計**

全道	384,267	119,592
春川	20,227	4,894
人津	25,051	19,048
...	...	...

1933-05-21-05-01

### 매일신보

## 총인구 140만 중 조석난계가 30% 재계 불황의 심각으로 매년 증가 강원도내 세국민 조사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의 거주하는 세국민 및 결인을 조사하였는데 일반 재계 불황과 사회 지식의 태무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 이를 숫자적으로 보면

총호수 260,064 총인구 1,419,044 세민호수 79,355 세민인구 384,267 궁민호수 25,383 호수계 104,736 인구계 489,171 결인 3,202인데 이로써 보면 총인구의 33%정도가 조석이 간데없는 세국민이다.

이중 일본인의 세국민이 표 중에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숫자로 보면

총호수 3,195 총인구 11,150 세민호수 172 세민인구 619 궁민호수 8 궁민인구 19 호수계 175 인구계 637

이며 조선인의 세국민을 각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세민수 궁민비교 결인

춘천 20,227 4,894 167

인제 25,051 19,084 155

(중략) (이상은 전부 1933년 3월 말 현재)

### 總人口百四十萬中 朝夕難繼者三割

財界不況의 深刻으로 逐年增加 江原道內 細弱民 調査

【春川】江原道에서 道內의 居住하는 世國民 및 結인을 調査하였는데 一般 財界 不況과 社會 知識의 태무로 인하여 每年 增加하는 狀態에 있다. 이를 數字적으로 보면

總戶數 260,064 總人口 1,419,044 世民戶數 79,355 世民人口 384,267 宮民戶數 25,383 戶數計 104,736 人口計 489,171 結人 3,202

이로써 보면 總人口의 33% 정도가 朝석이 間데없는 世國民이다. 이中 日本인의 世國民이 表 中에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숫자로 보면

總戶數 3,195 總人口 11,150 世民戶數 172 世民人口 619 宮民戶數 8 宮民人口 19 戶數計 175 人口計 637

이며 朝鮮인의 世國民을 各郡別로 보면 아래와 같다.

郡名 世民數 宮民比較 結人

春川 20,227 4,894 167

人濟 25,051 19,084 155

(중략) (이상은 전부 1933년 3월 말 현재)

1933-05-21-05-06

### 매일신보

## 강원도내의 비황저곡계 설치수 1천126 계원 5만30여호

【춘천】 강원도내에 설치된 비황저곡계는 당국의 진력도 있었으나 농민 자신의 자각이 도움이 되어 작년 12월 말 현재 조사에 의하여 계수 2,136개소에 계원 5만3,810호이다. 이를 다시 저곡 수량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데 저곡수량이 비교적 적은 것은 작년도의 흉작 지대에서 저곡을 지출한 까닭이라고 한다.

벼 1,325석62, 백미 414석58, 조 944석77, 콩 1,266석51, 메밀 53석26, 보리 562석3, 옥수수 2석97, 귀리 4석85, 좁쌀 9석97, 팥 2석51 또 각군별로 계수와 가입호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계수계 가입호수

춘천 72 1,607

인제 87 1,445

(중략)

### 江原道內의 備荒貯穀契

設置數一千百廿六 契員五萬三千餘戶

【春川】江原道內의 備荒貯穀契 設置數는 當局의 盡力로 인하여 去年 十二月末 現在 調査에 依하여 契數 二千一百三十六個所에 契員 五萬三千八百十八戶이다. 이 契員 數는 去年의 凶作 地帶에서 貯穀을 支出한 契員數에 比較하여 比較적 減少한 契員數로 各郡別로 契數와 加入戶數를 以下에 示한다.

計	春川	人濟	金剛	洪川	原州	平康	隆善	三陟	江界	寧越	南陽	淮陽	楊口
契數	1,12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136
加入戶數	53,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933-05-23-05-01

### 매일신보

## 자력갱생도 가정으로부터 강원도내의 부인회 362개소 생활개선저축 옥외노동 실행 이상은 곧 실현

【춘천】 강원도의 부인회는 1933년 3월 말까지에 362개소 회원 1만 1,460인에 달하였다. 자력갱생도 가정으로부터 『모토』하에 설립한 것인 것만큼 또 여자의 치밀한 사고를 가진 것인 것만큼 그들의 이상은 곧 실현으로 반영되어 이 부인회의 활동은 자못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은

1. 여자교육의 목적으로 저금
  1. 생활개선, 풍속개량, 근검저축, 옥외노동장려, 섹복장려, 반미저축, 공동경작, 야학회 준비 등의 것이다
- 이러하여 당국은 일층 부인회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제 각 부인회를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회수 회원수

춘천 23 637

인제 16 625

(중략)

1933-05-23-05-03

### 매일신보

## 관동명덕청년 단원수

【춘천】 교화사업의 전초를 맡은 강원도의 관동명덕청년단은 지금은 도내 대중의 물심양면으로 다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1933년 3월 말 현재로 그 수효는 120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하여 각 군에는 청년 매일신보 연합부 1개소씩을 두고 있는데 그 연합부 임원만 하여도 233인에 달한다. 이제 각군별로 청년단수와 단원수를 들면 아래와 같다

군명 청년단수 단원수 임원수

춘천 6 210 54

인제 5 151 45

(중략)

1933-05-27-03-03

### 동아일보

## 3만8천원 공비로 인제 서호교 가설, 지난 16일에 공사 착수 명년 3월 준공 예정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서호강은 서울 오리진선이 통과하는 도중의 제3위에 있는 큰 강으로 강원도에서는 여러 해전부터 다리를 놓을 필요를 느껴왔는데 지난 5월 11일에 입찰에 부쳐서 총공사비 38,000여 원(연 일꾼수 6,315인)으로 춘천 본강장작씨에게 낙찰되어서 지난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명년 3월 말일에 준공하기로 되었다 한다.

自力更生도 家庭 江原道内の婦人會  
三百六十二個所  
生活改善貯蓄屋外労働實行  
理想은 大實現

三月末까지에 362개소 회원 1만 1,460인

計	伊川	鐵原	金華	洪川	橫城	原州	花川	北川	川康
會數	三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會員數	三〇〇	一〇〇							

關東明德青年團員數

春平 旌蔚 三江 襄陽 高陽 淮陽 楊口 鐵原 春川 奉天 郡名 團數 員數 團員數 員數

春平	旌蔚	三江	襄陽	高陽	淮陽	楊口	鐵原	春川	奉天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計	伊川	鐵原	金華	洪川	橫城	原州	花川	北川	川康
團數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員數	二〇〇								

二萬八千圓工費로 麟蹄西湖橋架設

明年三月竣工豫定

【本報】麟蹄西湖橋架設 麟蹄西湖橋架設 麟蹄西湖橋架設

1933-05-30-05-03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금광 총101개소 매월 평균 채굴고 12만8천원

【춘천】 금광! 금광! 금광! 인간의 경제적 타류를 해는 자 중 한번은 이 미감에 찬 황금열의 병증에 걸리지 않은 자가 없다. 국부 증진을 목적하는 애국적 사업가 현상의 향락을 목표로 하는 수전노적 광업가 수만장자를 꿈꾸는 허영에 찬 룬팬……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황금광시대다.

교통의 혜택이 없어 채굴의 범위와 규모가 비록 적다고는 하지만 강원도의 금광은 유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최근의 조사를 보면 전도내 광구수 101개소에서 채굴하는 황금의 1개월 평균 환산 가격은 약 12만8,000원 이것이 지하에 묻혀 인간의 유혹을 끄는 재물이니 수자로 본 산곡 강원도의 산금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구수	월평균산출량(문)	월평균가격(원)
춘천	2	1,900	8,930
인제	2	700	2,150

(중략)

1933-05-31-03-04

### 동아일보

## 고성에 살인, 가해자는 도망

【고성】 지난 24일 오후 2시경에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맹상집의 집에서 피해자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김응섭(49)과 가해자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임귀엽(33) 김응필(26) 3인이 술을 먹고 취하여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때려 25일 오전 4시경에 전기 김응섭은 죽었으므로 27일에 고성경찰서 사법주임은 원산부립병원 고옥 의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 검시한 결과 상해치사로 판명되었는데 가해자는 행방 불명이므로 방금 고성경찰은 엄탐 중이다라 한다.

1933-06-02-05-01

### 매일신보

## 도도한 토지 겸병 대지주는 증가되고 소지주는 격감, 순소작도 1만8천호가 격증 1932년도 중 강원도 농촌 동태

【춘천】 현하 심각한 농촌의 공상은 연년이 심하는 소작농의 증가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침입이 지지하여 빈부의 현격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강원도에 있어서도 자작농으로서 소작농에 전락하는 농민이 연년 격증하는 현상에 있다. 강원도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932년도의 상태는 일층 심각하였던 것을 상징하고 있으니 즉 지주계급에 있어서 1931년도의 수는 지주갑 대지주가 789호이던 것이 1932년도에는 1,023호로 증가하였고, 또 소지주 즉 지주에 있어서 1931년도 6,010호에서 1932년도 5,368호로 줄어 소지주 계급의 몰락 현상을 보이고있다. 그리고 소작 겸 자작과 순전한 자작에서 소작으로 떨어진 수를 보면

### 江原道内金鑛 總百一個所

每月平均採掘高 約十二萬八千圓

縣別	金鑛數	每月平均採掘高
春川	2	8,930
人津	2	2,150
...	...	...
總計	101	128,000

### 高城에殺人

가해자 도망

【고성】 지난 24일 오후 2시경에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맹상집의 집에서 피해자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김응섭(49)과 가해자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임귀엽(33) 김응필(26) 3인이 술을 먹고 취하여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때려 25일 오전 4시경에 전기 김응섭은 죽었으므로 27일에 고성경찰서 사법주임은 원산부립병원 고옥 의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 검시한 결과 상해치사로 판명되었는데 가해자는 행방 불명이므로 방금 고성경찰은 엄탐 중이다라 한다.

### 大地主는增加되고 小地主는激減

純小作도一萬八千戶가激增

一七年一江原道農村動態

縣別	地主數	小作數
春川	789	1023
人津	6010	5368
...	...	...
總計	...	...

1931년도에 소작은 70,106호이던 것이 일약 89,028호로 격증하여 농민의 참상을 여실하게 말하고 있다는데 이리하여 전몰락과정의 숫자는 1931년도 농가호수 211,469호가 1932년도는 224,289호로 증가하여 요즘의 소식을 전한다.

또 화전민에 있어서도 화전민 정리를 부르짖는 이때이지만은 순화전민은 도리어 증가하는 『아이러니』를 현출하였으되 1931년도의 9,536호에서 1932년도에 이르러 15,605호로 증가하였다. 이를 각군별로 자작 겸 소작 이하의 농가호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군별	자작겸소작	소작	소작겸화전	순화전
춘천	2,956	6,742	563	643
인제	4,399	2,688	1,909	110 (중략)

1933-06-03-03-06

**동아일보**

**인제시민운동 성황리에 종료**

【인제】 인제시민 운동회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지난 5월 28일에 일기 청쾌하고 녹음이 무르녹은 인제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장 김영제씨의 개회와 총무 김시련씨의 운동회 임시강령 낭독과 선수대표 이종욱씨의 선서로 개회식을 마치고 계속하여 각종 경기를 진행하는 중 30여과를 마쳤으며 2,000여명의 관중은 중일토록 구경에 도취하였다 한다.

1933-06-03-04-06

**매일신보**

**1932년 말 조사 강원도내 인구 143만3,998명**

【춘천】 강원도 관내의 1932년 12월 말 현재의 호구수를 최근에 발표하였는데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남	여	계
춘천	42,752	40,372	83,130
인제	35,906	31,882	68,788 (중략)
계	740,160	693,838	1,433,998

이고 중국인 남 395 여 68 계 463명이다. 또 일본인이 제일 많은 곳은 역시 춘천의 1,932인이고 그 다음이 철원의 1,514인 강릉의 1,306인 고성 1,296의 순서이다

1933-06-16-03-03

**동아일보**

**각지 춘전공판 인제**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금년 춘전은 전부가 순조로워서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농동회에서 오는 18일부터 공동판매를 개시한다는데 작년보다 증수될 예상으로 총판매고는 3천석, 견가도 작년보다 약 배이상이나 오를 형편이므로 일반 농잡가에서는 크게 기뻐한다는데 공동판매하는 장소와 기간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인제면 6월 18일~7월 12일, 남면 6월 20일~7월 4일, 서화면 6월 23일~7월 7일, 기린면 6월 13일~7월 7일, 내면 6월 24일~7월 8일

**麟蹄市民運動 盛況裡에終了**

【인제】 인제시민 운동회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지난 5월 28일에 일기 청쾌하고 녹음이 무르녹은 인제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장 김영제씨의 개회와 총무 김시련씨의 운동회 임시강령 낭독과 선수대표 이종욱씨의 선서로 개회식을 마치고 계속하여 각종 경기를 진행하는 중 30여과를 마쳤으며 2,000여명의 관중은 중일토록 구경에 도취하였다 한다.

**昭和七年末調査 江原道内人口**

一、四三三、九九八名

【春川】 江原道内人口調査の結果、昭和七年末の調査結果は、前年比で増加した。春川市は、人口が急激に増加した。春川市の人口は、前年比で約20%増加した。春川市の人口は、前年比で約20%増加した。春川市の人口は、前年比で約20%増加した。

**各地春蘭共販**

【인제】 강원도 인제군의 금년 춘전은 전부가 순조로워서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농동회에서 오는 18일부터 공동판매를 개시한다는데 작년보다 증수될 예상으로 총판매고는 3천석, 견가도 작년보다 약 배이상이나 오를 형편이므로 일반 농잡가에서는 크게 기뻐한다는데 공동판매하는 장소와 기간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인제면 6월 18일~7월 12일, 남면 6월 20일~7월 4일, 서화면 6월 23일~7월 7일, 기린면 6월 13일~7월 7일, 내면 6월 24일~7월 8일

1933-06-16-03-03

### 동아일보

#### 인제부인회 미거

【인제】 강원도 인제읍에 있는 다섯 개의 부인회는 모두 작년 11월에 조직된 것으로 각 간부들의 지도가 충실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착착 진행하는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동자금과 공동경작인데 저축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까지 5개월에 250원에 달하였으며 금춘부터는 밭 2,400평을 준비하여서 공동경작을 시작하였는데 회원들이 직접으로 경작에 종사하는 만큼 일반은 흥미있게 보거나와 이것이 과연 농촌진흥에 한 빛이 되어 큰 서광이라고 한다. 다섯개의 부인회를 총괄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다.

회명	회원수(인)	저금액(원)	경작지(평)
상도리	89	109.34	400
동리	85	74.62	400
남리	61	46.07	400
북리	67	49.00	400
합강리	57	35.91	800

1933-06-16-03-07

### 동아일보

#### 회합

◎인제군내 소방조 간부회의 지난 6월 12일 인제공회당에서 개최

1933-07-15-05-08

### 동아일보

#### 자동차 추락

【인제】 지난 11일 오후5시경에 흥천 거진선 정기차 경제4025호를 운전수 홍성천이 운전하여 인제 진부령을 넘어서 고성군 오대면 경내를 진행하다가 수백척되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승객은 없고 조수 김익순만 경상을 입어 인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으나 자동차는 산이 험하고 삼림이 울창한 지점에 굴러가서 아직 찾지못하였다 한다.

1933-07-25-04-01

### 동아일보

#### 강원도의 실업자 총수가 4천여명 군별로 삼척이 수위

【춘천】 최근 강원도 보안과 조사에 의하면 전도내 실업자 총수가 4,156명의 다수인데 이를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과 실업자수 춘천 218 인제 241 양구 78 회양 48 통천 207 고성 300 양양 66 강릉 202 삼척 425 울진 109 정선 74 평창 82 영월 41 원주 245 횡성 179 홍천 32 화천 94 김화 74 철원 132 평강 175 이천 134 합계 4,156명

강원도 인제읍에 있는 다섯개의 부인회는 모두 작년 11월에 조직된 것으로 각 간부들의 지도가 충실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착착 진행하는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동자금과 공동경작인데 저축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까지 5개월에 250원에 달하였으며 금춘부터는 밭 2,400평을 준비하여서 공동경작을 시작하였는데 회원들이 직접으로 경작에 종사하는 만큼 일반은 흥미있게 보거나와 이것이 과연 농촌진흥에 한 빛이 되어 큰 서광이라고 한다. 다섯개의 부인회를 총괄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다.

會名 會員數 貯蓄額 耕作地  
 上道里 89 109.34 400  
 東里 85 74.62 400  
 南里 61 46.07 400  
 北里 67 49.00 400  
 合江里 57 35.91 800

會 合  
 縣內消防組部會議  
 月十二日 縣公會堂에서 開催  
 去六

自動車落墜  
 【인제】 지난 11일 오후 5시 경에 흥천 거진선(洪川 巨漣) 정기차 경제4025호를 운전수 홍성천(洪成天)이 운전하여 인제진 부령(釜嶺)을 넘어서 고성군 오대면(尙城郡 梧塔面) 경내를 진행하다가 수백척되는 단애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승객은 없고 조수 김익순(金益順)만 경상을 입어 인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으나 자동차는 산이 험하고 삼림이 울창한 지점에 굴러가서 아직 찾지못하였다 한다.

江原道の失業者  
 總數가 四千餘名  
 郡別로 三陟가 首位

三陟 425명, 춘천 218명, 인제 241명, 양양 66명, 강릉 202명, 양구 78명, 회양 48명, 통천 207명, 고성 300명, 영월 41명, 원주 245명, 횡성 179명, 홍천 32명, 김화 74명, 철원 132명, 평강 175명, 이천 134명, 합계 4,156명

1933-08-02-03-03

## 동아일보

### 인제군 야간부로서 남목사의 노력

장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일자 7월 26일 오후9시부터 8월 14일 오후9시까지  
 생도수 갑 24명 을 28명 합계 52명  
 대원수 남선생 4명 여선생 2명 합계 6명  
 우리 계몽운동은 될 가망이 없었는데 남천우목사와 같이 하기 아동  
 성경학교 야간부에서 참가케 되었다. 선생님의 많은 도움으로 7월  
 26일 성대히 인제예배당에서 개교식이 열렸다. 학과는 성경 한글,  
 계수, 창가다. 그리하여 모두 농군들만 52명이었고 열렬히 배우겠다는  
 그 태도에는 우리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날 학과를 시작하는 날  
 남목사가 금강산으로 가자 중지가 아니라 좀 참아달라는 형사의 말  
 에까지 놀랐다. 28일 저녁도 배우러온 그네들을 억지로 보냈으나 글  
 좀 가르쳐 달라는 그 소리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이다. 어떻게 될른지  
 는 모른다. (책임대원 김상철 이태호)

1933-08-19-05-05

## 매일신보

### 행방불명이 8명 실명자 31인, 가옥의 전반괴가 181개 (강원도 수해 진상 관명)

【춘천】 이번 수해로 인한 강원도관내의 피해는 16일까지 조사 관  
 명된 것에 의하면 인명을 상실한자 31명, 행방불명 8인, 중상자 7인,  
 가옥전채 50, 반채 131, 상상침수 681로 대략 조사는 완료된 셈이다.  
 그리고 수해구제회에서 구제비를 지출한 곳은 인제 양구 회양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원주 이천 등 12군인데 조위금으로  
 764원 건축비로 1,747원 식량비로 14원을 지출하였는데 식량비는  
 비상시에 밥을 지어 사용한 일부분의 비용으로 금후 조사가 끝나야  
 확실히 관명될 것으로 현재 총액 2,521원을 사용하였다.

1933-08-20-04-08

## 매일신보

### 2개군 세무 검열

【춘천】 도세무과에서는 인제, 화천 2군의 세무 재무에 관한 사무  
 검열을 오는 30, 31일 양일간 행할 터인데 도에서는 유원 재무부장,  
 세무과장 등 4명이 출장하리라 한다.

江原道 麟蹄郡 夜間部로서 南牧師의 노력

調所 江原道麟蹄郡麟蹄面上東里  
 口字 自七月二十六日午後九時  
 至八月十四日午後九時

生徒數 男先先四名 女先先二名 合計五二名  
 除員數 男先先四名 女先先二名 合計五二名

우리 계몽운동은 될 가망이 없었는데 남목사 (南天)의  
 노력으로 학과가 개설되니 학생은 많이 오고 있다.  
 특히 인제예배당(麟蹄)에서 개교식이 열렸  
 으다. 학과는 성경 한글 계수 창가다. 그리하여 모  
 든 농민들만 52명이었고 열렬히 배우겠다는 태  
 도에는 우리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날 학과를 시작하  
 는 날 남목사가 금강산으로 가자 중지가 아니라 좀  
 참아달라는 형사의 말에까지 놀랐다. 28일 저녁도  
 배우러온 그네들을 억지로 보냈으나 글 좀 가르쳐  
 달라는 그 소리는 참을 수 없는 광경이다. 어떻게  
 될른지는 모른다. (責任職員 南天 南天)

行方不明이八名 失命者二十一人

家屋의 全半壞가 一八八一個

【江原道水害真相判明】

「春川」의 수해로 인하여 江原道管内의 피해는 16일까지 조사 관명된 것에 의하면 인명을 상실한자 31명, 행방불명 8인, 중상자 7인, 가옥전채 50, 반채 131, 상상침수 681로 대략 조사는 완료된 셈이다. 그리고 수해구제회에서 구제비를 지출한 곳은 인제 양구 회양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원주 이천 등 12군인데 조위금으로 764원 건축비로 1,747원 식량비로 14원을 지출하였는데 식량비는 비상시에 밥을 지어 사용한 일부분의 비용으로 금후 조사가 끝나야 확실히 관명될 것으로 현재 총액 2,521원을 사용하였다.

兩郡稅務檢閱

「春川」道稅務課에서는 麟蹄, 華川二郡의 稅務財務, 關한事務 檢閱을 오는 三十, 三十一兩日間 行할 터인데 道에서는 櫛原財務部 長, 稅務課長等四名이 出張하리 다 한다

1933-08-22-02-01

### 매일신보

## 양평 양수강의 가교 또 진정, 홍천군에서 대표 여러명 서울로 가, 관계 각군 연내 숙안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 평창 횡성 홍천 양양 인제 여러군으로 통한 가로에는 북한강인 양평의 양수강이 가로 막혀있어 이강을 건너기에만 발동선으로 15분이나 걸려 교통상 막대한 불편을 느껴왔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인접한 각군이 산업 발전에 큰 지장을 주어왔으므로 관계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강에 다리를 가설하여 달라고 수차 진정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홍천군에서는 양수강 교량 가설 기성회를 조직할 그 대표로 박한표 산내화시 이종춘 이공표 등 여러명이 오늘 21일 오전10시 총독부에 출두하여 각 관계 당국자에 금년내로 가설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여 달라고 진정함이 있었다.

1933-08-22-02-04

### 조선중앙일보

**양강 철교가설=홍천기성회의 활동, 위원 상경 당국에 진정**  
경기 서울을 기점으로 강원도 양양, 강릉, 인제, 정선, 횡성, 평창 등 각군 읍간의 교통의 요지에 있는 홍천은 (관독불능) 없을 뿐 아니라 전기 각군간에 물자는 격증되어 폭주하는데 그 길은 의연 3등도로가 되어있어 (관독불능) 이종춘, 박한표, 남궁작, 산내화시 등 4씨가 21일 총독부를 방문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933-08-31-02-13

### 동아일보

## 인제 비료 강좌

【인제】 강원도 인제읍에서는 지난 8월 23일 인제공립보통학교에서 인제군 주최로 비료 강습회를 개최하였었는데 강사는 도에서 패취 기사가 출장하였으며 청강자가 200여명에 달하였는데 대개는 각면 농촌지도자들이라고 하며 금년에는 특별히 「헤아리벤티지」 재배에 대하여서 주로하였다 한다.

1933-08-31-05-05

### 매일신보

## 서울 인제간 직통전화 지급가설 진정

【춘천】 인제지방은 목재, 약초 등의 명산지로서 동 지방에서 산출하는 중요한 물산은 대개 판로가 서울으로 취인이 자못 빈번한 터이나 아직까지 서울 인제간 직통 전화의 가설이 없어 중계통신을 이용하여 오는 터로 여러 가지 지장과 막대한 불편이 있는 중 더욱 최근에는 산금장려에 따라 금광업이 발흥하여 상취인 등의 내왕 출입이 빈번하여져서 더욱 불편이 심하므로 이 현황에 비취 당지 도회의원 김영제 외 9인은 대표자가 되어 서울 인제간 직통전화를 지급 가설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체신국장에게 제출하였다.

1933-08-23-05-10

### 동아일보

#### 강원도내의 근농공제조합

【화천】 강원도의 근농공제조합은 소농 30인을 1조합으로 하여 1인당 20원 정도를 대부하여 농촌생계에 노력하고 있다는데 본년도 설치를 합하여 춘천 42 인제 27 양구 28 회양 25 통천 23 고성 29 양양 27 강릉 41 삼척 31 울진 28 정선 23 평창 24 영월 29 원주 35 횡성 27 홍천 27 화천 16 김화 27 철원 28 평강 20 이천 25 합계 582 조합이라 한다.

1933-09-03-04-05

### 조선중앙일보

#### 양수강 철교가설 기성회 맹렬 활동, 인제군과 연락 취하여

【홍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수강을 서울서 홍천을 경유하여 인제, 원주, 춘천, 양양, 간성 각 곳을 지나다니는 북한강 지류에 있는 큰 강으로 지금 나룻배가 있기는 하나 열악한 것이어서 여름철 조금만 비가 와도 배를 부릴 수가 없고, 겨울에는 (중략) 자동차는 물론 인마가 그 위를 지나다니지를 못하여 불편이 막심함으로 그곳에 철교를 놓기로 하여 홍천 유지들은 철교 기성회를 조직하여 다방면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일전에는 위원 5인이 상경하여 총독부에 진정하고 돌아왔고, 또 지난 30일에는 인제군과 연결을 하기 위해 출장하였다고 한다.

1933-09-03-04-12

### 동아일보

#### 장어에 중독 생명이 위독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동리 이명하씨는 지난 27일 원통리 시장에서 생선문어발을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 먹은 일이 있는데 동일 밤부터 가족 7인이 전부 중독되어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급히 의사의 치료를 받는 등 대단히 고생을 당하였으며 이씨의 부인 최씨는 아직도 전일외원에 입원 중인데 생명에는 관계없다고 한다. 일반은 시절이 시절이니만치 생선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다.

1933-09-05-04-03

### 선봉

#### 4천여 명의 실업자

될 수만 있다면 엄폐하여 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실지의 숫자보에 적은 숫자들을 발표하려는 보안과의 조사에 의할지라도 강원도의 한 도만의 실업자수는 4,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들 군 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한다

춘천군에 218명, 인제군 241명, 양구군 78명, 회양군 48명, 홍천군 7명, 고성군 300명, 양양군-66명, 강릉군 201명, 삼척군 476명, 울진군 100명, 정선군-74명, 평창군 81명, 영월군 44명, 원주군 248명, 횡성군 172명, 홍천군 82명, 화천군 ●●명, 김화군 74명, 철원군 82명, 평강군 175명, 이천군 134명 합계 1천356명

### 江原道內의 勸農共濟組

【화천】 강원도의 근농공제조합  
 함(勸農共濟組)은 소농(小農) 30인당 1조합으로 하여 1인당 20원 정도를 대부하여 농촌생계에 노력하고 있다. 본년도 설치를 합하여 춘천 42 인제 27 양구 28 회양 25 통천 23 고성 29 양양 27 강릉 41 삼척 31 울진 28 정선 23 평창 24 영월 29 원주 35 횡성 27 홍천 27 화천 16 김화 27 철원 28 평강 20 이천 25 합계 582 조합이라 한다.

春川二、麟蹄二、襄陽二、淮陽二、通川二、高城二、平康二、江陵二、三陟二、蔚珍二、清津二、平昌二、寧越二、原州二、橫城二、洪川二、華川二、金化二、鐵原二、平康二、伊川二、合計五八二 조합이라 한다.

### 兩水江鐵橋架設 期成會猛烈活動

【화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수강을 서울서 홍천을 경유하여 인제, 원주, 춘천, 양양, 간성 각 곳을 지나다니는 북한강 지류에 있는 큰 강으로 지금 나룻배가 있기는 하나 열악한 것이어서 여름철 조금만 비가 와도 배를 부릴 수가 없고, 겨울에는 (중략) 자동차는 물론 인마가 그 위를 지나다니지를 못하여 불편이 막심함으로 그곳에 철교를 놓기로 하여 홍천 유지들은 철교 기성회를 조직하여 다방면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일전에는 위원 5인이 상경하여 총독부에 진정하고 돌아왔고, 또 지난 30일에는 인제군과 연결을 하기 위해 출장하였다고 한다.

### 章魚에 中毒 生命이 危篤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동리(麟蹄郡上洞里) 이명하(李明下)씨는 지난 27일 원통리(元通里) 시장에서 생선문어발을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 먹은 일이 있는데 동일 밤부터 가족 7인이 전부 중독되어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급히 의사의 치료를 받는 등 대단히 고생을 당하였으며 이씨의 부인 최씨는 아직도 전일외원에 입원 중인데 생명에는 관계없다고 한다. 일반은 시절이 시절이니만치 생선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다.

### 사천여명의 실업자

원주군 1명	영월군 44명	정선군 74명	평창군 81명	영월군 44명	원주군 248명	횡성군 172명	홍천군 82명	화천군 ●●명	김화군 74명	철원군 82명	평강군 175명	이천군 134명	합계 1천356명
--------	---------	---------	---------	---------	----------	----------	---------	---------	---------	---------	----------	----------	-----------

1933-09-07-03-07

### 동아일보

#### 인제 감수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일원은 금년에 비가 너무 와서 조는 평년에 비하여 40% 감수되리라 하며 벼는 별 영향이 없이 성초되어 지금 발수 중인데 뜻밖에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가 오며 폭풍이 불어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많으리라고 일반은 우려 중에 있다고 한다.

1933-09-07-03-08

### 동아일보

#### 인제 소부 자살

【인제】 강원도 인제읍 상동리 채웃덕이란 동리의 김봉화의 처 이용여(19)는 지난 8월 31일 오전10시경에 자기 집 부근 산중에서 목을 매고 죽은 것을 가족이 발견하였는데 그의 자살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듣는 것에 의하면 전기 이용여는 평소에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진 여자로서 혹 어떤 추행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면목이 없게 되어 죽지나 아니한 것인가 한다.

1933-09-28-05-08

### 동아일보

#### 인제경찰이 면장을 검속, 배임사건 혐의

【인제】 인제경찰에서는 지난 18일 홀연 인제군 인제면 면장을 검거하는 동시에 일방 읍내 남북리 동씨 맥을 수사하였고 다시 가동서장은 박 형사를 대동하고 모방면으로 출장하여 수사를 거듭하고 있는데 사건 내용은 극비밀에 부치므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듣는 것에 의하면 모 배임사건의 혐의인 듯하다고 한다.

1933-10-01-03-10

### 동아일보

#### 인제공보 추기 운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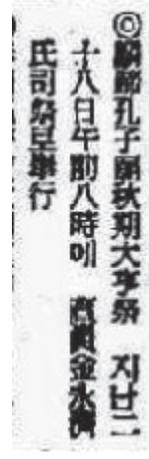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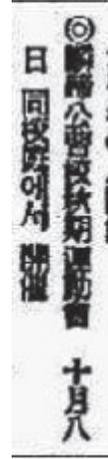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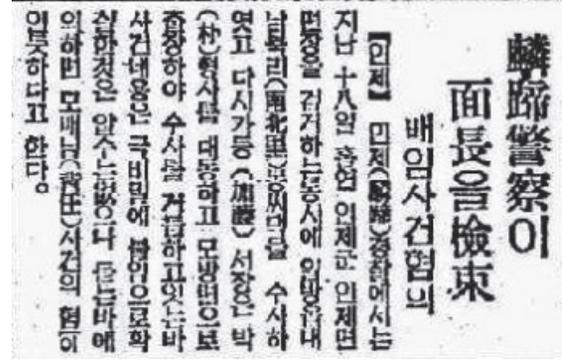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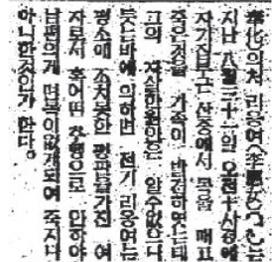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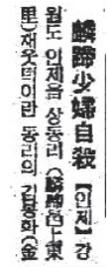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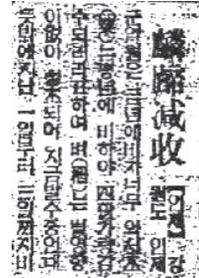
10월 8일 동 교정에서 개최

1933-10-01-03-10

### 동아일보

#### 인제공자묘 추기대향제

지난 28일 오전8시에 직원 김영제씨 사회로 거행



1933-10-01-03-10

**동아일보**

**인제소방조 발회식**

28일 인제보교에서 개최

1933-10-03-05-06

**매일신보**

**강원도 교통의 요충 소양강 가교공사 11월 말에는 준공**

【춘천】 화천, 김화, 양구. 인제의 통로로 인마의 통행이 끊일 새 없 이 빈번한 소양강의 가교는 연래의 급무로 그 실현을 일반이 열망하 고 있었는데 드디어 3년의 계속사업으로 공민구제사업의 일부로 18 만원의 공비를 들여 작년 7월부터 착공하여 그동안 공사가 착착 진 행 중이다. 준공은 본년 11월 말의 예정인데 철교는 「겔바」식 철행 교로 도내 제일의 긴다리로서 대춘천의 발전상으로든지 도민의 교 통상으로든지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1933-10-06-05-01

**매일신보**

**도내 각 군에서 강원염색 강습 10월 중에 순차 개최**

【춘천】 농촌진흥, 자력갱생이 고조됨에 따라 경제상으로든지 어쩔 점으로든지 폐해가 많은 흰옷을 금지하고 색복 착용을 일반 대중도 절실히 느껴 착착 실현하여 가는 터인데 금번 도에서는 더욱 색복 실시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 한 방법으로 일반에 염색의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좌기 일정으로 염색강습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15일 제1구 춘천 제2구 횡성 제3구 김화 제4구 고성 ▲18, 19일 제1구 춘천 제2구 원주 제3구 철원 제4구 양양 ▲21일, 22일 제1구 양 구 제2구 영월 제3구 회양 제4구 강릉 ▲24, 25일 제1구 철원 제2구 평창 제3구 평강 ▲27, 28일 제1구 홍천, 제2구 정선, 제3구 통천, 제4구 삼척 ▲30, 31일 제3구 이천 제4구 울진▲강사 제1구 박헌세 제2 구 이동현 제3구 안경일 제4구 이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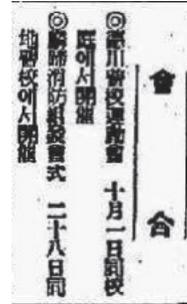
1933-10-15-04-13

**조선중앙일보**

**강원도 병의타합회**

【춘천】 강원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위생주임과 공의 타합 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 ◇강릉, 개최시일 10월 20, 21 양일간 오전9시  
회 장 강릉경찰서 연무장  
타합구역 통천, 고성, 장전, 간성, 양양, 대화, 주문진, 삼척, 원덕, 울진, 평해, ●●, 대화, 진부, 영월, 평창, 주천
- ◇철원, 개최시일 10월 24일, 25 양일간 오전9시  
회 장 철원경찰서 연무장  
타합구역 춘천, 인제, 양구, 회양, 동●리, 난곡, 원주, 문막, 횡성, 둔내, 홍천, 통천, 김화, 금성, 창도, 철원, 평강, 이천, 안협, 지하



**道内各郡에서 江原染色講習 十月中旬에順次開催**

【春川】農村振興、自力更生に 高調に對して、經濟上より、染色に 關する、講習會が、十月、順次、開 校、停止、可、色、服、實、行、一、般、大、衆、に 切實、可、及、著、々、實、現、可、及、が、な、る、こ、 り、に、對、し、今、般、道、中、に、色、服、實、施 の、徹、底、進、行、中、に、一、方、法、の、 一、般、に、對、し、左、記、日、程、に、講、習、會 を、開、校、す、と、決、定、す、る、に、對、し、

第一區 春川	第二區 橫城	第三區 金化	第四區 高城
第一區 蔚州	第二區 華川	第三區 寧越	第四區 楊口
第一區 襄陽	第二區 江陵	第三區 平昌	第四區 襄陽
第一區 洪川	第二區 旌善	第三區 通川	第四區 三陟
第一區 蔚珍	第二區 伊川	第三區 寧南	第四區 蔚山
第一區 林邊	第二區 安東	第三區 安東	第四區 李承

**各地方集會**

江原道(江原道)에서 순차에 의거 染色講習會를 개최한다고 한다

○江陵 十月二十、二十一 開校日時 十月二十四、二十五 開校日時

○春川 十月二十四、二十五 開校日時

○襄陽 十月二十四、二十五 開校日時

○江陵 十月二十四、二十五 開校日時

○江陵 十月二十四、二十五 開校日時

○江陵 十月二十四、二十五 開校日時

1933-10-15-07-01

### 매일신보

## 풍우의 재화를 입은 화전민의 농작물, 인제군 일대는 50%이상 감수 그들의 생도가 막연

【춘천】인제군 일원에는 지난번 폭풍우로 인하여 농산물의 피해가 막대한데 피해자는 대부분이 산간지대에 있는 화전민으로서 약 50% 이상의 감수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10월 5일 현재로 당국에서 조사한 데에 의하면 피해면적 8,651단보 피해액은 20,687원이란 거액으로 피해작물은 대개 화전부락에서 산출하는 조, 옥수수, 콩, 팥 등으로 설상가상으로 재해를 입은 화전민의 행도가 막연하다고 한다.

1933-10-21-04-04

### 동아일보

## 조선명산 인제 백청 연수확 3천관, 옛날 왕가에 진상하던 것 개량종보다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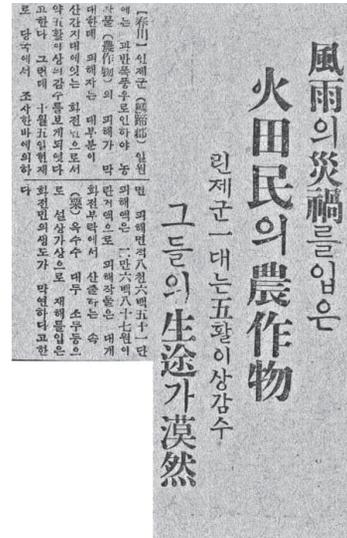
【인제】강원도 인제군에는 산곡이니만치 특산물이 많은 중에 특별히 꿀은 전조선을 통하여 유명하여 예전부터 왕가에 진상하던 물건이 되었는데 근년에도 산간 동민들이 많이 사육하여 순전히 재래종으로써 특색을 그대로 보전하기에 힘쓰므로 현하 외국종의 붕종이 매우 우세하여도 인제봉종은 조금도 그러한 외국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매년 산액은 수령으로 약3천통(석유관)이요. 가액으로는 약 4만원의 거액이 순전히 옛방식대로 산간농민의 소득이 되는데 인제꿀의 특색으로 다른 꿀과 비교하면 첫째 중량이 무거운 것인데 보통 꿀은 석유통 한 개에 약 45근에 지나지 못하며 인제꿀은 50근이나 되고 둘째는 빛이 순백색이어서 일견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셋째는 맛이 잡미가 없어서 약용과 토지에 풍미를 더하는 것이고 넷째는 일기가 좀 차기 시작하면 거의 고체로 변하여서 사탕이 되므로 도저히 다른 꿀이 따르지 못할 특색을 가졌는데 이러한 특색이 구비한 원인은 밀원에 있다 하며 인제군에서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육을 장려한다고 하며 금년은 기후가 양봉업에 적당치 못하여 흉작이라 한다. 그래서 한통에 17, 18원에 매매가 되는데 서울과 삼남지방에 주문이 답지한다고.

1933-10-28-03-09

### 동아일보

## 애처를 찔러죽여 범인은 서울에서 체포 호송 ◇인제군 하의 참사

【인제】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고사리 음식점 영업하는 김기영(39)은 지난 21일 오전2시경 제집 부엌에서 조선 식칼로 자기 아내되는 최희재(34)를 무수 난자하여 두개골을 깨서 약 2시간 후에 죽게하고 교묘하게 서울방면으로 도망한 것을 인제경찰서에서는 즉시 각처에 수배 체포에 노력하던 중 지난 23일에 서울 본정 경찰서원이 김기영을 체포하여 방금 인제서로 호송 중에 있다고 한다.



전기 김기영의 범행한 동기는 범행하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대하여 자기는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을 것이니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의 처는 이것을 거절하여 이에 말썽이 되어서 필경 김기영은 미움이 북바쳐 그와 같이 칼로 찌른 것이라고 하며 이웃사람의 말을 들으면 김기영은 자기 아내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지만 항상 아내를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조금만 이상한 수작을 하는 것을 보면 늘 싸우던 터로 이번일도 그러한 무슨 내막이 있어서 결국 이러한 무서운 범행을 한 듯하다고 한다.

1933-10-28-04-07

### 동아일보

#### 적임 면장을 면민이 진정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에는 수일 전에 전면장이 퇴직하게 되자 면내 각 구장과 유지 50여명이 연명하여 신임 면장의 적임자로 현재 금융조합장으로 있는 이종고씨를 추천하여 인제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인제군에서는 아직 면장 인선에 대하여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일반은 이종고씨의 출마를 매우 기대한다고 한다.

**適任面長을**  
**面民이陳情**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面民들은 수일전에 전면장이 퇴직하게 되자 면내 각 구장과 유지 50여명이 연명하여 신임面長의 적임자로 현재 금융조합장으로 있는 이종고(李鍾高)씨를 추천하여 인제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인제군에서는 아직 面長 인선에 대하여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일반은 이종고씨의 출마를 매우 기대한다고 한다.

1933-10-29-05-05

### 매일신보

#### 소양강 가교 11월말경 준공 대축하회를 열고자 준비간담회 개최

【춘천】 양구 김화 화천 인제 등지의 통로로 인마의 내왕이 그칠 때 없이 빈번한 대춘천의 관문인 소양강의 가교공사는 그동안 수십만의 거대한 공비와 수천인부의 주야 작업으로 오는 11월 말경에는 완성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도교식을 성대히 거행할 예정으로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군청 군수실에서 최군수를 위시하여 읍장, 산중 기성회장, 도 토목과로부터 소서씨, 최양호, 신태흥 양 도의원 등 여러명이 집합하여 서로 격의없이 축하 준비에 대한 의견과 간담이 있었는데 도교식은 오는 12월 16일에 거행하기로 하고 축하 비용은 대략 2천원 한도를 염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석상에서 준비에 관한 임원 등을 결정한 후에 다시 기성위원회를 후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昭陽江架橋**  
**十一月末頃竣功**  
**大祝賀會를 열고자**  
**準備懇談會開催**

【春川】揚口 金化 華川 鎮 으로부터 小西氏 崔泰浩 申台鉉 薛等 地의 甬路로 人馬의 來往이 矣 兩道 議員等 諸氏가 集合하여서 昭陽江의 架橋工事는 그 동안 數千萬의 巨大한 工費와 數千人 夫의 晝夜 作業으로 오는 十一月末頃에 完成될 見으로 이에 對한 渡橋式을 盛大히 舉行할 豫定으로 茲 二月十六日 午後三時부터 郡廳 郡守室에서 崔郡守를 爲始하여 各 邑長 山中期 辰會長 道土木課 等 諸氏가 集會하여서 大祝賀會를 열고자 準備懇談會를 開催한 結果로 一致되어 席上에서 大祝賀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한 後에 大祝賀會의 日期와 地點을 決定하고 各 邑長 山中期 辰會長 道土木課 等 諸氏가 各 邑로 歸去하여 各 邑民에게 大祝賀會를 開催할 豫定을 告하게 하였다.

1933-11-01-03-09

### 동아일보

## 인제살인사건 진범인 체포 전일 체포한 것은 성명만 같아 산중을 재수색 결과

【인제】 기보=인제 고사리 살인사건의 진범인은 지난 27일야 동리 산중에서 인제서원이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 본정서에서 체포 호송 중이라고 하였던 용의자는 실상은 성명이 같은 사람으로 개성 사는 김기영으로 이 때문에 인제경찰서에서는 맘 놓고 수사망을 걷은 후 범인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결국 지난 25일에 서울으로부터 호송하여 온 김기영이가 인제서에 도착되자 인제서에서는 이름만 같고 전연 다른사람임을 깨닫고서 백배 사례말하고 노수까지 주어서 보내는 동시 다시 범인 수사에 서원이 총출동하여서 인제 일대를 방방곡곡에 뒤지매 각 요로에서 경계하던 중 진범인 김기영은 범행한 장소에서 10리 쯤 되는 산중에 숨어서 미리 준비하였던 생쌀로 연명하며 수사망이 풀리기를 기다려 도망하려던 자를 체포하였다고 한다.

1933-11-01-03-10

### 동아일보

## 인제보교 농산업품평회

지난 29일 동 교정에서 개최

1933-11-02-07-04

### 매일신보

## 남자의 격노 그 처를 찢어죽여, 치정 삼각관계로 이런 결과 내었다

【춘천】 인제군 인제면 고사리에 거주하는 김기영(39)은 7년 전부터 최희재(34)와 서로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아 내려오는 중 전기 김기영이라는 사나이는 본시 불량방탕한 외에도 정부가 있어 항상 부부간에 말다툼이 끊일 새 없어 원만히 지내 내려오지 못하였는데 지난 20일 오후8시경 자택 객실에서 그전부터 정교관계가 있는 오영자라는 정부가 찾아와서 같이 김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전기 김의 처는 남편과 싸움을 몹시 하였다. 돌연 이에 격분한 남편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안면 등 6개소를 함부로 찢어서 드디어 다음날 오전6시경에 사망케하였다. 남자는 그길로 도망을 하여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소관 인제서에서는 각처에다가 수배를 하고 엄중 수사 중이더니 지난 27일 인제서원이 범인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 麟蹄殺人事件

# 眞犯人逮捕

전일 체포한 것은 성명만 같아  
山中을 재搜索結果

【인제】 기보=인제고사리 살인사건의 진범인 김기영(39)은 7년 전부터 최희재(34)와 서로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아 내려오는 중 전기 김기영이라는 사나이는 본시 불량방탕한 외에도 정부가 있어 항상 부부간에 말다툼이 끊일 새 없어 원만히 지내 내려오지 못하였는데 지난 20일 오후8시경 자택 객실에서 그전부터 정교관계가 있는 오영자라는 정부가 찾아와서 같이 김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전기 김의 처는 남편과 싸움을 몹시 하였다. 돌연 이에 격분한 남편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안면 등 6개소를 함부로 찢어서 드디어 다음날 오전6시경에 사망케하였다. 남자는 그길로 도망을 하여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소관 인제서에서는 각처에다가 수배를 하고 엄중 수사 중이더니 지난 27일 인제서원이 범인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 會 合

◎茂朱會組臨時代表大會 去二十  
九日 同組合에서 開催

◎高興郡區市市民運動會 來十一  
月三日 同地運動會에서 開催

◎麟蹄發賣農産品委員會 去二十  
九日 同發賣會에서 開催

## 男子의 激怒

# 已妻를 刺殺

痴情三角關係로  
이런 結果내었다

【春川】인제군 인제면고사리(麟蹄郡區面古沙里)에 거주하는 김기영(金其英)은 7년전부터 최희재(崔熙在)와 서로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아 내려오는 중 전기 김기영이라는 사나이는 본시 불량방탕한 외에도 정부가 있어 항상 부부간에 말다툼이 끊일 새 없어 원만히 지내 내려오지 못하였는데 지난 20일 오후8시경 자택 객실에서 그전부터 정교관계가 있는 오영자라는 정부가 찾아와서 같이 김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전기 김의 처는 남편과 싸움을 몹시 하였다. 돌연 이에 격분한 남편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안면 등 6개소를 함부로 찢어서 드디어 다음날 오전6시경에 사망케하였다. 남자는 그길로 도망을 하여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소관 인제서에서는 각처에다가 수배를 하고 엄중 수사 중이더니 지난 27일 인제서원이 범인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1933-12-03-02-05

### 동아일보

## 남궁역사건 확대 춘천 인제에서 계속 검거 중 사건의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부쳐 교원 목사 등 15명

【홍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학교장이요 전 황성신문 사장이던 남궁역(71) 이하 남녀교원이 지난 11월 4일에 홍천경찰서에 검거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검속된 이래 1개월이 되도록 사건에 내용은 극비밀에 부치고 계속활동 중이더니 검거풍은 확대되어 형사 대가 춘천 인제 등지로 출장하여 혐의자인 듯한 청년 4명을 검거 압송 하여다가 일층 취조를 진행 중이러는데 내용은 비밀에 부치므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탐문한 것에 의하면 씨가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이만치 누구에게나 조선 역사를 말할 때에는 철저히 가르치므로 이에 따라 불온한 사상 선전의 혐의가 농후하다 하며 전에도 모곡학교에 유일한 기본재산인 무궁화묘목에 판로를 찾아 선전하였던 광고문이 불온하다 하여 말이 있었고, 동교 교가 등이 불온하다고 수차 주의를 받던차라 하며 사건 발생 이래 검거된 사람은 15명으로 다음과 같다 한다.

홍천군 서면 모곡학교장 남궁역, 모곡학교 교원 남궁현, 여교원 남궁경숙, 홍천군 서면 모곡리 이기섭, 김춘강, 남궁은, 서면 동모리 이봉균, 조경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개량서당 선생 유진복, 홍천서면교회 목사 유자훈, 홍천읍내 교회 목사 이윤석, 춘천군 남산면 창촌리 어인선, 춘천군 남면 후동리 송완식, 남궁식, 인제읍 주재 홍천지방감리사 동아일보 인제분국장 남천우 (사진은 피검 중 남궁역)

1933-12-10-02-11

### 조선중앙일보

## 홍천사건 드디어 확대 모종 비밀결사가 탄로, 중심인물은 전 황성신문 사장, 교원·면서기 등 피검

【홍천】 지난 11월 4일 홍천서원이 극비밀리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출장하여 전 한국시대 황성신문 사장으로 현재 전기 모곡 벽지에 은둔하면서 모곡학교를 설립하고 후진을 위하여 직접 교편을 잡고 육영에 종사하는 남궁역(71) 외 같은학교 교원 3명을 인치하고 비밀 취조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후 사건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춘천, 화천, 양평 등으로 서원이 출장하여 전기 모곡학교 졸업생과 다수 청년들의 가택을 수색하고 검색하여다가 취조중이다. 다시 검거의 선봉이 기독교 교역자들에게 파급되어 조선감리회 홍천지방감리사 남천우를 비롯하여 각지 목사, 개인서당, 교원 등의 가족을 수색하고 검거하여 엄중취조 중이러는데 사건 내용은 일체 극비에 부치고 있으나 각 방면으로 사람을 만나 종합해 보면 전기 모곡학교를 배경으로 남궁역을 중심으로 ○○사상 선전과 기독교 중심의 ○○○○단 조직이 발각된 듯 하며 근간 그 취조가 끝났음으로 3~4일내로 일건서류와 함께 송국 될 듯하다는데 연루자로 인치된 여교원 남궁경숙(22)은 집에 생후 10개월의 유아가 있어서 월여가 넘도록 어머니를 맡겨 갖은고생을 한다는데 금번 검거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한다.

읍내 모곡리 남궁역(설립자 겸 교장)	읍내 모곡리 남궁경숙(여교원)
읍내 모곡리 남궁현(교원)	읍내 모곡리 이기섭(교원)
읍내 모곡리 김춘원(교원)	읍내 모곡리 이병구(교원)
읍내 모곡리 남궁은(교원)	
서면 동모리 이봉균(교원)	서면 동모리 조경제(교원)

양평군 단월동 석산리 유진복(개량심상교사)  
 춘천군 남면 후동리 송완식(농)  
 춘천군 남면 후동리 남궁식(농업) 춘천군 남산면 창촌리 어인선(농)  
 화천군 읍 김재인(농) 춘천군 남산면 유연태(면서기)  
 홍천군 남면 김경환(개량심상교사) 인제읍 상동리 남천우(감리사)  
 홍천읍 신장대리 이윤석(목사) 홍천군 서면 모곡리 유자훈(목사)  
 (사진은 남궁익 노인과 여교원 남궁경숙)

1934-01-12-03-11

**동아일보**

**근고**

방희열 임 인제분국장  
 인제분국장 남천우 의원해직  
 1934년 1월 1일 동아일보사 홍천지국

1934-01-12-03-11

**동아일보**

**근고**

이선규 임 기자  
 1934년 1월 1일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1934-01-26-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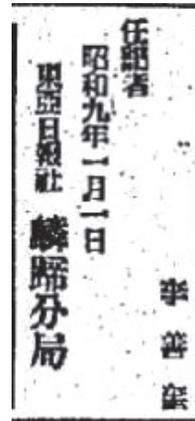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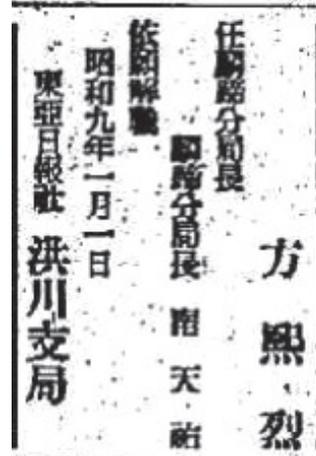
**동아일보**

평북에서 강원예 급격 발전, 강원금광 연산 270만원 2개월간에 13만원이 증가 월평균도 16만여원

【춘천】 요사이 광업열이 왕성한 것은 전조선적 경향이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처녀지상태로 있던 강원도에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광업이 성행하는데 지나간 연말 현재의 광업상황에 대한 본도 보안과 발표를 보면 광구수 116, 매월 평균 산출가격 22만7,759원으로 이것을 두달 전인 10월말 현재와 비교하면 13만3천130원이나 격증하였다. 이것을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별	종별	구광	매월평균생산량(문)	매월평균가격(원)
춘천	금	6	32	191
인제	금	2	538	268

(중략)



**急激發展의 江原金鑛**  
**年產二百七十萬圓**  
 二個月間에 十三萬圓이增加  
**月平均도 十六萬餘圓**

北平 江原 金鑛 產出 統計表

縣別	金鑛	產出(圓)	單位(圓)
春川	金	191	32
麟蹄	金	268	538
...	...	...	...

1934-01-27-05-06

### 동아일보

## 강원도 세궁민 48만명 최근 강원도 지방과의 발표 요구 급 10여만명

【춘천】 최근 강원도 세궁민에 대해 본도 지방과 발표를 보면 세민수가 38만4천267명, 궁민수가 11만9,592명 합계 48만9,171명으로 전도인구 142만1,860명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자세한 것을 군별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세민(인)	궁민(인)	합계(인)
춘천	20,227	4,894	25,121
인제	25,051	19,084	44,135 (중략)

1934-01-31-04-06

### 매일신보

## 1933년 중 강원도 돼지 도살수 6,600여마리, 최고는 이천 960마리 춘천 원주가 그다음

【춘천】 강원도의 작년도 중 돼지의 도살수는 다음과 같은데 이것을 다시 군별로 세별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마리)

춘천	44	인제	94	양구	201	회양	368	통천	313	양양	44	강릉	336	삼척	39	울진	84	정선	51	평창	96	영월	147	원주	441	횡성	412	홍천	375	화천	180	김화	319	금성	348	철원	1,092	평양	360	이천	965	계	6,6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4-02-09-05-05

### 동아일보

## 인제공보교 여자부 증설운동 정의여학교가 없어서 도당국에 진정 준비

【인제】 강원도 인제공립보통학교는 남녀공학을 하여왔는데 금년도에 이르러 인제사립정의여학교의 폐지로 인하여 여자의 교육기관이 없어짐을 따라 장차 여아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키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회의원 김영제씨는 보통학교에 여자부 증설을 도모코자 읍내 각유지와 협력하여 도당국에 진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934-02-09-05-10

### 동아일보

## 강원도 인제에 1면1교 완성, 북면공보 2월에 개교

【인제】 1면 1교제를 실현하고자 도당국에서 노력하여왔는데 금년 인제군은 6개면 중 5개면은 기성되었으나 다만 북면에 학교가 건설되지 못하여 유감이었던 중 전년도 지방민의 기부금과 도당국의 보조로 북면 학교 건설이 실시되었는데 금년 1월 25일에 도로부터 인가되어 2월18일에는 개교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 江原道細窮民 四十八萬名

최근 강원도 지방과의 발표 要救急十餘萬名

【춘천】 최근 강원도 세궁민에 대한 발표를 보면 세민수가 38만4천267명, 궁민수가 11만9,592명 합계 48만9,171명으로 전도인구 142만1,860명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자세한 것을 군별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세민(인)	궁민(인)	합계(인)
춘천	20,227	4,894	25,121
인제	25,051	19,084	44,135

### 六千六百餘頭 春川原州가그다음

【春川】 江原道의 昨年度中豚의 屠殺數는 다음과 같은데 이천이 최고로 960마리 춘천 원주가 그다음

春川	484	麟蹄	94
楊口	201	高城	205
通川	331	高城	205
金城	348	鐵原	192

### 麟蹄公普校 女子部 增設

정의여학교가 없어서 道當局에陳情準備

【麟蹄】 麟蹄公普校의 女子部를 增設하기 위하여 道當局에 陳情을 準備하고 있다. 이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폐지된 인제사립정의여학교의 폐지로 인하여 여아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키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회의원 김영제씨는 보통학교에 여자부 증설을 도모코자 읍내 각유지와 협력하여 도당국에 진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 江原道麟蹄에 一面一校完成

北面公普 二月에開校

【麟蹄】 一面一校제를 실현하고자 도당국에서 노력하여왔는데 금년 인제군은 6개면 중 5개면은 기성되었으나 다만 북면에 학교가 건설되지 못하여 유감이었던 중 전년도 지방민의 기부금과 도당국의 보조로 북면 학교 건설이 실시되었는데 금년 1월 25일에 도로부터 인가되어 2월18일에는 개교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1934-02-10-05-06

### 동아일보

#### 본보 독자 할인

【인제】 강원도 인제 전일의원장 전병훈씨는 본사 인제분국 고문으로 되는 동시에 본보 독자에 한하여 음력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동안 약값은 반액, 진찰은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다.

1934-02-12-03-08

### 동아일보

#### 매일 1시미로 300원 저축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동리 상동면부인회는 1932년도에 조직되어 회원 78명이 일치단결하여 공동경작전 400평의 소출과 매일 식량에서 한술씩을 절약하여 저금한 것이 지난해 12월 말일에 현재 통계가 300여원에 달하며 더욱이 부인회원은 일심으로 진행하며 인제면 6개부인회 중 모범부인회로 인정되며 지난해 12월에 도당국에서는 28원을 보조하여 양돈을 증려중이라 한다.

1934-02-14-04-07

### 동아일보

#### 교원 부족 진정

【인제】 강원도 인제군 서화공립보통학교는 6학년제도였는데 교원 2명이 3개학년씩을 담임 교수함은 교사에게와 아동에게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여 신학기부터는 교사 1명을 증원하여 달라고 서화부민 일동은 진정중이라고 한다.

1934-02-16-03-01

### 동아일보

교육계에 대이상 27개 성상의 역사 가진 4개여교 폐문에 직면, 4학교의 수명은 금년 말까지 여선교부의 보조 정지로

【인제】 미국남감리여선교부의 경영으로 유지해나가는 춘천정명여학교 흥천정숙여학교 가평정희여교 인제정의여학교의 4개 여자초등학교가 금년 12월을 최한도로 하여 부득이 폐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리라 한다.

전기 네학교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을 전후하여 미국남감리여선교부에서 파송한 여선교사들의 설립한 것으로 각지방 여자교육에 큰 공헌이 있어왔으며 더욱이 근자에 와서는 무산자녀를 위하여서는 없지못할 중대한 기관이 되어있었는데 미국에 선교본부의경비보조가 금년 12월까지 정지되므로 내년부터는 폐교의 위기를 면할 수가 없으리라고 한다.

本報讀者割引 【인제】 강원도 인제 전일의원장 전병훈씨는 본사 인제분국 고문으로 되는 동시에 본보 독자에 한하여 음력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동안 약값은 반액, 진찰은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다.

每日一點米로 三百圓貯蓄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동리 상동면부인회는 1932년도에 조직되어 회원 78명이 일치단결하여 공동경작전 400평의 소출과 매일 식량에서 한술씩을 절약하여 저금한 것이 지난해 12월 말일에 현재 통계가 300여원에 달하며 더욱이 부인회원은 일심으로 진행하며 인제면 6개부인회 중 모범부인회로 인정되며 지난해 12월에 도당국에서는 28원을 보조하여 양돈을 증려중이라 한다.

教員不足陳情 【인제】 강원도 인제군 서화공립보통학교는 6학년제도였는데 교원 2명이 3개학년씩을 담임 교수함은 교사에게와 아동에게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여 신학기부터는 교사 1명을 증원하여 달라고 서화부민 일동은 진정중이라고 한다.

教育界大異狀 二十七個星霜의 歷史 가진 四個女校閉門에 直面 女宣敎部の補助停止로

教育界大異狀 二十七個星霜의 歷史 가진 四個女校閉門에 直面 女宣敎部の補助停止로

1934-02-18-03-07

### 동아일보

#### 백미 80두 60호에 배급

【인제】 강원도 인제 상동리 장정옥 여사는 구 세모를 당하여 동네 빈민에게 매년과 같이 백미를 배급하여왔는데 금년에도 역시 백미 80두를 지난 2월 8일에 빈민 60여호에 배급하였다고 한다.

1934-02-21-03-06

### 동아일보

#### 김구장의 미거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가리산리 김남혁(35)씨는 1928년 12월 가리산리 구장으로 피임되어 구장사무를 철저히 보는 동시에 동리에 구장 사무실을 건설하고 제반사무를 모범적으로 실행하므로 도에서 그를 표창코자 상금 15원을 수여하였는데 그 상금을 동리진흥회에 기부하였다 한다.

1934-02-28-06-08

### 매일신보

#### 강원도 퇴비 장려 보조비 예정액

【춘천】 강원도에서는 1934년도에 설치할 퇴비 모범리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군명 리동수 보조액(원)

춘천 10 400

인제 5 200

(중략)

1934-03-11-06-08

### 동아일보

#### 가교비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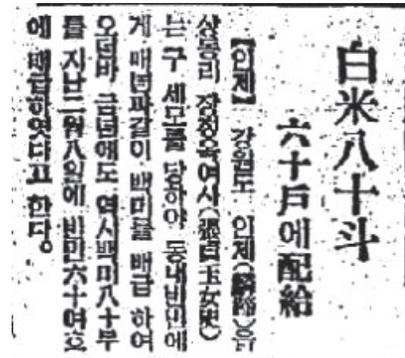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곽해규(60)씨는 당지에 가교가 불충분하여 교통상 불편이 큼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씨의 사육한 축우 1마리를 70원에 팔아가지고 교량 가설에 기부하였다 한다.

1934-03-21-03-06

### 동아일보

#### 인제 흡연소비고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6면인데 그중 내면 외 5면에 전년 4월로 금년 2월말일 현재 담배 소비액이 58,384원35전이니 인제는 과거 2, 3년간은 풍수해로 생활은 곤궁하면서도 담배값은 전기와 같다 한다.



縣名	補助額(圓)
伊豆	一六八六七
鐵山	一〇〇〇〇
華川	二〇〇〇〇
洪川	一〇〇〇〇
橫濱	一〇〇〇〇
寧南	一〇〇〇〇
廣津	一〇〇〇〇
三陟	一〇〇〇〇
江陵	一〇〇〇〇
高城	一〇〇〇〇
通川	一〇〇〇〇
淮陽	一〇〇〇〇
楊口	一〇〇〇〇
郡	一〇〇〇〇
慈仁	一〇〇〇〇
泰川	一〇〇〇〇
江原	一〇〇〇〇
道	一〇〇〇〇



1934-03-27-05-07

동아일보

인제 화전민 결식자 다수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 일대는 작년 7월에 풍수재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는데 화전민 800여호에 대한 인구 1만여명은 작년 7월 이후부터 식량이 없어 유리결식하는 사람이 많다 한다.

1934-04-03-02-10

동아일보

단군릉 수축성금 【2일 본사 위원회 접수분】

일금 50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신덕휴 (중략)

1934-04-04-02-04

동아일보

울릉도민 구호금 2일 본사 접수분

(중략) 일금 1원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신덕휴 (중략)

1934-04-13-03-05

동아일보

인제에 수역 발생

【인제】 지난 3월 중순부터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에는 기증저로 축우 8마리가 폐수되어 당지 경찰은 인접 동리 수역 예방주사를 실시 중이라고 한다.

1934-04-15-03-06

동아일보

강원도의 면작장려 640만근 목표 금년부터 9개년동안 실시 경작면적은 6천정보

【춘천】 면작 장려계획을 세워 금년부터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일반이 주지하는 바이거나와 강원도에서는 전도 21군 중 10개 군을 장려구역으로 기타를 보통구역으로 정하여 금년부터 9개년 동안 면작 장려를 실시하려는데 경작면적은 6천800정보 생산액은 640만근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현재 강원도에서 1년간 소비되는 면화는 300만근에 달하는데 실생산액은 150만근에 불과하므로 150만근은 도외 반입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이상 계획을 완성하는 날에는 340만근은 도내 소비로 되고 300만근은 도외 수출이 되리라한다 이제 그 지도군 설치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한다. (가) 제1기 1934년에서 1936년까지 울진, 원주, 횡성 (중략)

麟蹄火田民 乞食者多數 【인제】 강원도 인제군 내면의 풍수재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는데 화전민 800여호에 대한 인구 1만여명은 이후부터 식량이 없어 유리결식하는 사람이 많다 한다

檀君陵修築誠金 義陵島民救護金 本社接收分 lists of donors and amounts for various relief and construction funds.

麟蹄에 獸疫發生 【인제】 지난 3월 중순부터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麟蹄面德山里)에는 기증저(獨種痘)으로 축우 8두가 폐수되어 방지 경찰은 인접동리 수역 예방주사를 실시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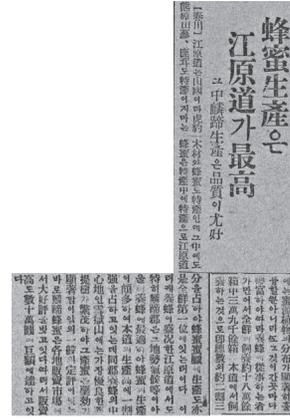
江原道の棉作獎勵 六百四十萬斤目標 三일부터 九개월동안에 실시 耕作面積은六千町步

1934-04-15-04-08

### 매일신보

#### 봉밀 생산은 강원도가 최고, 그 중 인제 생산은 품질이 더욱 좋아

【춘천】 강원도는 산국이라 호표, 웅담, 산삼, 녹용이지만은 목재와 봉밀도 특산인데 그 중에 0도 봉밀은 특산 중에 특산으로 강원도에는 밀원 식물의 분포가 현저히 훌륭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간곳마다 풍부하여 따라 양봉에 종사하는 자가 많아서 전조선의 사양 약 180,000 여상자 중 39,000여 상자가 강원도에서 사양하는 것으로 즉 총수의 약 23%를 점하여 봉밀 밀랍에 생산도 역시 전조선 제1위에 있는 터이다. 이렇게 양봉이 성황한 강원도에서도 특히 인제군은 그 지세 기 후 등이 아울러 양봉에 최적하여 봉밀의 생산이 번다하여 강원도의 생산고에 10%강을 점하고 있는데 인제군 양봉의 중심지인 설악산에는 가장 우량한 봉제수가 번무하여 그 산밀은 약효가 현저함이 이미 일반의 정평이 있는 것으로 인제봉밀은 각지 판매시장에서 대호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판매고도 수십만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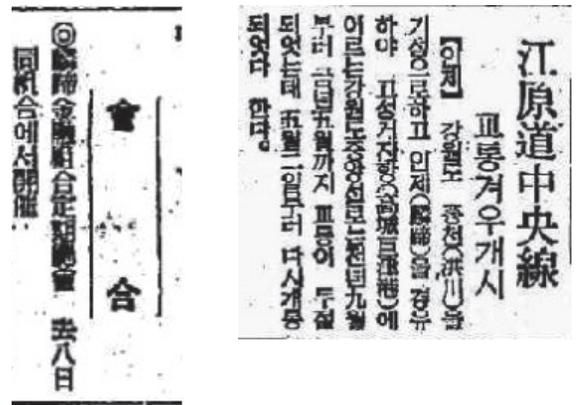


1934-04-21-03-07

### 동아일보

#### 인제금융조합정기총회

지난 8일 동조합에서 개최



1934-05-05-03-07

### 동아일보

#### 강원도 중앙선 겨우 교통 개시

【인제】 강원도 흥천을 기점으로 하고 인제를 경유하여 고성 거진 항에 이르는 강원도 중앙선로는 전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교통이 두절되었는데 5월 2일부터 다시 개통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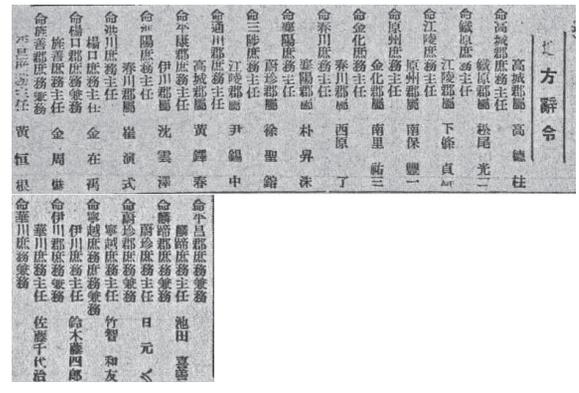


1934-05-10-05-05

### 동아일보

#### 인제군 남면 관대공립보통학교 낙성식

지난 6일 학교에서 거행함



1934-05-11-05-11

### 매일신보

#### 지방사령

(중략)

명 평창군 서무주임 지전희선 인제서무주임

명 인제군 서무주임 일원구 울진서무주임

1934-05-13-04-01

### 동아일보

#### 세계의 신령초 조선인삼고(4)

인삼의 산지 1. 인삼의 천연분포

(중략) 고래 조선은 인삼의 풍부한 산지로 제주도와 전라의 남면을 제한 외에 전도에 생산되지 않는 곳이 없고, 울릉도에까지 산출되었으나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임원십육지』 정종조 서유거조에는 산지를 좌와 같이 기재하였다.

(중략) 강원 강릉, 삼척, 양양, 평해, 간성, 고성, 통천, 울진, 흡곡, 원주, 영월, 정선, 평창, 인제, 횡성, 홍천, 철원, 춘천, 회양, 양구, 금성, 김화, 이천, 안협, 평강 (중략)

1934-05-19-03-10

### 동아일보

#### 인제시민 대운동

일시 1934년 5월 20일

장소 인제공보교 운동장

주최 인제시(市)일동

후원 명덕청년단 조선, 동아 양지국

1934-05-21-03-10

### 동아일보

#### 근고

기자 이선규 의원해직

1934년 5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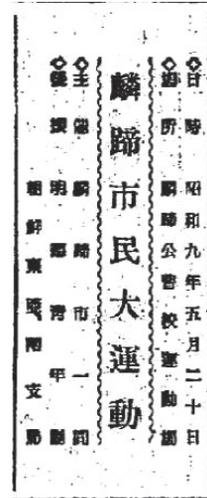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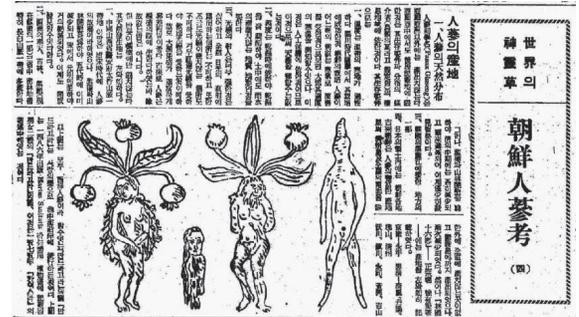
동아일보사 인제분국

1934-06-05-04-05

### 조선중앙일보

#### 16년 만에 모자상봉

【금성】 지난 5월 17일 원동면 세현리에서 16년 전에 잃었던 어머니를 만나서 눈물과 웃음에 긴 어조로 (어머니)하고 자기의 친모를 찾게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 그 자세한 말을 들은 데 의하면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조종하(28)라는 사람이 16년 전에 자기 모친 유씨(64)와 헤어졌는데 그렇게 된 내용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유씨는 갈리어서 어디로인지 정치없이 떠나가고 말았다. 그렇게 일을 당한 조종하의 부친 조정문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까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왔다 한다. 그 후에 종하는 갈수록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머무르자 사망으로 찾아다니다가 원동면 세현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되어서 친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기 고향인 인제로 돌아갔는데 그 반면에 지금까지 16년을 세현리에서 살아오던 박종악(69)은 갑자기 믿고있던 아내를 잃고 지금은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중이라 한다.



1934-06-09-03-05

### 동아일보

## 강원도 신명물 서호교 준공, 서울 동해안 간의 도로 완성 총공비 3만6천원

【춘천】 서울으로부터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오리진까지 이르는 2등도로는 작년에 춘천 소양교가 준공되어 교통상 매우 편리해진 것은 이미 주지하는 것이거니와 다시 인제군내의 인제면과 북면 사이에 흐르는 인제강 위에 서호교가 새로이 가설되어 더욱 편하게 되었다. 이 서호교는 작년 9월 16일을 기공하여 금년 6월 4일에 완전히 준공되었는데 총공비는 3만6,165원이라 한다. 그리고 이 서호교이 내역을 보면 전체로서 철근콘크리트로 된 광구교인데 총연장 1,200m 폭이 5.5m 교각이 9개요 난간을 부쳤으며 이에 딸리는 부대도로 6,000m도 개수하였다 한다. 서울으로부터 오리진까지의 강원도 유일의 2등도로는 신연교 소양교가 순차로 가설되고 이제 또한 서호교가 준공되었으므로 동서관통선은 유감없이 완성되어 강원도의 교통 내지 문화는 괄목할만큼 발전되리라고 한다.

1934-06-16-03-09

### 동아일보

## 서호교 준공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서호교는 작년 9월 16일에 기공하여 금년 6월 9일에 준공되어 성대히 낙성식을 거행하였다한다. 준공비는 36,165원 총연장이 1,200m 폭이 5.5m 교각이 9개에 난간을 부친 철근콘크리트 광구교이다. 이에 속한 부대도로 6,000m도 개수하였다 한다.

1934-06-17-04-01

### 매일신보

## 10일 현재의 강원도 이양상황 이양제가 58.3% 예년보다 매우 순조

【춘천】 강원도내 6월 10일 현재의 이양상황은 약 50,390정보로 심은 비율은 58.3%가량으로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군명	% (割)	정(町)	군명	% (割)	정(町)	군명	% (割)	정(町)
춘천	6.80	3,308.2	인제	3.00	757.8	홍천	5.20	2,850.0
양구	6.00	1,505.0	회양	4.80	1,157.8	횡성	6.40	3,483.9
통천	3.60	2,200.0	고성	4.20	1,963.6	화천	8.00	1,316.0
양양	9.00	5,209.8	강릉	8.70	6,312.5	김화	9.20	392.5
삼척	4.20	1,110.0	울진	4.00	1,823.0	철원	6.70	8,458.2
정선	4.00	360.0	평창	7.00	1,713.0	평강	6.30	2,116.2
영월	6.90	1,375.5	원주	3.50	2,350.0	이천	5.00	972.0

### 江原道新名物 西湖橋竣工

총공비 三萬六千圓

【춘천】 강원도내 6월 10일 현재의 이양상황은 약 50,390정보로 심은 비율은 58.3%가량으로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 西湖橋竣工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서호교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서호교는 작년 9월 16일에 기공하여 금년 6월 9일에 준공되어 성대히 낙성식을 거행하였다한다. 준공비는 36,165원 총연장이 1,200m 폭이 5.5m 교각이 9개에 난간을 부친 철근콘크리트 광구교이다. 이에 속한 부대도로 6,000m도 개수하였다 한다.

### 十日現在の 江原道移秧狀況

移秧濟가五割八分三厘 例年보다 매우 順調

郡名	植行割合	植行面積
春川	六八〇	三、三〇八・二
襄陽	三〇〇	七、五七八
楊口	六〇〇	一、五〇五・〇
淮陽	四八〇	一、一五七八
通川	三六〇	二、二〇〇・〇
高城	四二〇	一、九六三・六
襄陽	九〇〇	五、二〇九・八
伊川	五〇〇	一、七二二・〇

1934-06-18-03-03

### 동아일보

1면 1교는 요원, 38교를 아직 미설, 완성돼도 취학은 겨우 16% ◇강원도의 교육상태

【춘천】 전조선 어느 곳이나 초등교육기관이 부족되며 또 수용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선 농촌의 형편으로는 학령아동 전부가 초등교육이나 다 받을수 없는 처지이지만 강원도의 초등교육기관의 부족도 조선 어느 도에나 지지 아니한만치 한심한 상태라고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건대 1면1교가 1936년도에는 완성될 예정이었는데 금년에 설치될 12교까지 합하면 아직 38교가 남았고 금년 9월까지도 전도에 42교가 설치된다는 간이학교가 6월 10일까지에 설치된 것이 12군 24교로 나머지도 9월까지는 틀림없이 설치되라 한다. 그런데 이 간이학교와 1936년도에 완성될 1면 1교가 전부 설치되면 그 수용력이 간이학교의 3,360명까지 합하여 약 42,600여명으로 전도 현재 학령아동 26만여명에 비하면 실로 16%밖에 안되는 한심한 상태이라고 한다. 다시 6월 10일까지 설치된 간이학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중략) ▲인제군 어른, 상남 (중략)

1934-06-19-02-09

### 동아일보

4년 판결 받은 강도 복심에서 무죄, 피고는 눈물 흘리며 퇴정 인제에서 발생한 사건

1심에서 강도상해로 4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복심에서 무죄 언도를 받고 석방된 일이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군내면 울전리 차찬두(28)에게서 작년 11월 10일 이형규(36)가 버섯과 동백열매 구입자금으로 30원을 빌려가지고 전수옥의 집에서 변길선과 노름을 하여 다 잃어버리고 이 사실을 차찬두에게 말하며 매우 분개한 차찬두는 이형규와 같이 변에게 달려가서 상투를 쥐고 뺨을 치고 칼을 들어 찌르겠다 위협하는 등으로 치료 1주일을 요할 부상을 입히고 30원을 찾아갔다는 기소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각각 4년의 언도가 있었던 것인데 서울복심법원에서는 소야 재판장의 심리와 김용부 심상봉 두 변호인의 무죄 주장으로 공소가 이유가 있다 하여 이형규에게는 무죄, 차찬두에게는 8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언도하여서 눈물을흘리면서 돌아간 일이 15일 오전에 복심법원에 있었다 한다.

1934-06-19-04-09

### 매일신보

강원도 춘 잠견 표준가격협정 사가 514원을 표준으로 15과 6분로 결정

【춘천】 강원도내의 춘견가는 지난 9, 10일 양일 동안 도 당국에서는 철원에 있는 종방, 서울 양 공장대 대구 생사의 각제사 관계자와 긴급 토의한 결과 좌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철원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과목을 유가 498원 이상 514원 미만으로 15과 6분으로 하여 사가 16원의 고저가 있는 때마다 1과씩 증감을 시키며 또 건건은 2과씩 증감한다 하며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춘천 15.3과 인제 14.9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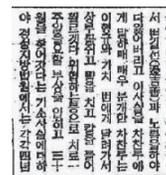
강원도내의 초등교육기관이 부족되며 또 수용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선 농촌의 형편으로는 학령아동 전부가 초등교육이나 다 받을수 없는 처지이지만 강원도의 초등교육기관의 부족도 조선 어느 도에나 지지 아니한만치 한심한 상태라고 한다.

## 一面一校三遠遼 三十八校尙未設

안성평남도 취학은 겨우 1할 6분

### ◇江原道の教育狀態

【춘천】 전조선 어느 곳이나 초등교육기관이 부족되며 또 수용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선 농촌의 형편으로는 학령아동 전부가 초등교육이나 다 받을수 없는 처지이지만 강원도의 초등교육기관의 부족도 조선 어느 도에나 지지 아니한만치 한심한 상태라고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건대 1면1교가 1936년도에는 완성될 예정이었는데 금년에 설치될 12교까지 합하면 아직 38교가 남았고 금년 9월까지도 전도에 42교가 설치된다는 간이학교가 6월 10일까지에 설치된 것이 12군 24교로 나머지도 9월까지는 틀림없이 설치되라 한다. 그런데 이 간이학교와 1936년도에 완성될 1면 1교가 전부 설치되면 그 수용력이 간이학교의 3,360명까지 합하여 약 42,600여명으로 전도 현재 학령아동 26만여명에 비하면 실로 16%밖에 안되는 한심한 상태이라고 한다. 다시 6월 10일까지 설치된 간이학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중략) ▲인제군 어른, 상남 (중략)



인제에서 발생한 사건. 피고는 눈물을 흘리며 퇴정. 4년 판결 받은 강도 복심에서 무죄 언도를 받고 석방된 일이 있었다.

## 四年判決 強盜 覆審에서 無罪

피고는 눈물을 흘리며 퇴정 隣隣에서發生한事件

1심에서 강도상해로 4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복심에서 무죄 언도를 받고 석방된 일이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군내면 울전리 차찬두(28)에게서 작년 11월 10일 이형규(36)가 버섯과 동백열매 구입자금으로 30원을 빌려가지고 전수옥의 집에서 변길선과 노름을 하여 다 잃어버리고 이 사실을 차찬두에게 말하며 매우 분개한 차찬두는 이형규와 같이 변에게 달려가서 상투를 쥐고 뺨을 치고 칼을 들어 찌르겠다 위협하는 등으로 치료 1주일을 요할 부상을 입히고 30원을 찾아갔다는 기소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각각 4년의 언도가 있었던 것인데 서울복심법원에서는 소야 재판장의 심리와 김용부 심상봉 두 변호인의 무죄 주장으로 공소가 이유가 있다 하여 이형규에게는 무죄, 차찬두에게는 8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언도하여서 눈물을흘리면서 돌아간 일이 15일 오전에 복심법원에 있었다 한다.

## 江原道春蠶繭 標準價格協定

春價五百十四圓을標準으로 十五掛六分으로決定

【春川】江原道内の春蠶價는 저의高低가 있는 때마다 一掛式增減을 시키며 春蠶繭은 二掛式增減을 하며 各郡別로 보면 如左이다. 春川 一五、三掛 隣隣 一四、九 楊口 一五、二 淮陽 一五、二 通川 一五、三 高城 一五、二 襄陽 一五、〇 江陵 一五、〇 三陟 一五、一 蔚珍 一五、三 旌善 一四、四 平昌 一四、九 襄越 一四、八 洪川 一五、三 洪川 一五、三 金化 一五、四 鐵原 一五、六 平康 一五、五 伊川 一五、二

1934-07-12-05-13

### 매일신보

#### 지방인사

▲정하형씨(인제군수) 군수회의 참석차 춘천가는 중 8일 퇴춘귀임 (중략)

1934-07-29-05-07

### 매일신보

#### 강원도 피해 그리 크지 않다

【춘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강원도내에 지난 24일 오후부터 내리는 폭우로 인하여 울진 이외에 금일까지 판명된 피해는 대개 아래와 같은데 비는 그쳤으나 앞으로 더 오지 않았으면 막대한 피해는 없을 모양이라고 한다.

삼척군 도로 결체 6개소 72m

▲산 붕괴 5개소 2m ▲교량 유실 1개소 ▲전담 유실 및 매몰 5만 2,700평 ▲선박유실 1척 호우로 자동차 불통선

▲평창=강릉, 평창=영월 평창=정선, 평창=원주

▲영월=원주, 영월=재천

▲울진=삼척 등 각 선로 증수로 자동차 교통 불능

▲인제=거진간 고성 관내 산붕으로 본월 말일까지 교통 불능

▲이천 구당 간은 도로 파손으로 두절

▲원주 각선 하천 증수로 역시 두절

1934-09-15-04-01

### 매일신보

#### 도비를 보조하여 각군에 염색소 설치 색복 보급의 철저를 기코자

【춘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강원도에서는 각 읍면사무소에 염색소를 설치하게 하고 도비에서 보조하여 일반의 색복착용을 장려하기로 되어 9월 13일에 각군에서 염색소 설치에 대한 보조금 1천 750원을 발송키 되었는데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춘천 20원 ▲인제 60원 ▲양구 70원 ▲회양 70원 ▲통천 70원 ▲

고성 70원 ▲양양 90원 ▲강릉 120원 ▲삼척 90원 ▲울진 80원 ▲정

선 60원 ▲평창 ▲영월 80원 ▲원주 100원 ▲횡성 80원 ▲홍천 90원

▲화천 40원 ▲김화 120원 ▲철원 100원 ▲평강 70원 ▲이천 110원

▲계 1,750원

1934-09-29-03-11

### 동아일보

#### 사고

인제분국장 방희열 의원해직

1934년 9월 17일, 동아일보사 홍천지국

**地方人事**

▲歸河亭氏 (襄陽郡守) 郡守會  
議參席次來春中八日退春歸任

▲李璵洙氏 (楊口郡守) 同上  
▲趙豐鎬氏 (淮陽郡守) 同上  
▲康璵義氏 (通川郡守) 同上  
▲鄭然義氏 (高城郡守) 同上  
▲張永翰氏 (襄陽郡守) 同上  
▲權澤誠氏 (江陵郡守) 同上  
▲尹昇老氏 (三陟郡守) 同上  
▲崔燭稷氏 (蔚珍郡守) 同上

**江原道被害**

그리 크지 않다

「春川」 코보한바와 같이 강원도내에 지난 23일 오후부터 내리는 폭우로 인하여 울진(蔚珍) 이외에 금일까지 판명된 피해는 대개 아래와 같은데 비는 그쳤으나 앞으로 더 오지 않았으면 막대한 피해는 없을 모양이라고 한다.

▲三陟郡道路決潰六個所七十二米  
▲山崩五個所二米 ▲橋樑流失一個所  
▲田畠流失及埋沒五二、七〇〇坪 ▲船舶流失一隻  
▲臺雨及自動車不通  
▲平昌 江陵、平昌 寧越 平昌 旌善、平昌 原州  
▲寧越 原州、寧越 堤川  
▲蔚珍 三陟 各縣 韓州 水自 動車交通不能  
▲蔚珍 巨津 間 高城 管 內 山崩 之 至 本 月 末 日 仍 未 交 通 不 能  
▲伊川 龍 橋 間 之 路 亦 毀 壞 之 是 社 總

▲原州 各縣 河川 增水 亦 是 社 總

**道費를補助하여 各郡에 染色所 設置**

色普及의 徹底을 期코자

【春川】 靑靑 報와 如히 江原道 各 邑 各 區 各 面 事務 所 에 染 色 所 를 設 置 하 게 하 고 道 費 에 서 補 助 하 야 一 般 의 色 服 着 用 을 獎 勵 하 기로 決 定 하 였 으 록 九 月 十 三 日 에 各 郡 에 서 染 色 所 設 置 에 對 한 補 助 金 을 一 七 五 〇 圓 發 送 하 기로 決 定 하 였 으 록 各 郡 別 로 보 면 左 右 如 하

▲春川 一〇圓 ▲襄陽 〇圓 ▲楊口 一〇圓 ▲淮陽 七〇圓 ▲通川 七〇圓 ▲高城 七〇圓 ▲襄陽 九〇圓 ▲三陟 九〇圓 ▲蔚珍 八〇圓 ▲旌善 六〇圓 ▲平昌 七〇圓 ▲寧越 八〇圓 ▲原州 一〇〇圓 ▲橫城 八〇圓 ▲洪城 九〇圓 ▲華川 四〇圓 ▲金化 二〇圓 ▲鐵原 一〇〇圓 ▲平康 七〇圓 ▲伊川 一〇圓 ▲計 一、七五〇圓

依 願 辭 職

顯 赫 分 局 長 方 顯 烈

昭 和 九 年 九 月 十 七 日

東 亞 日 報 社 洪 川 支 局

1934-10-11-03-01

### 조선중앙일보

인제도 식량부족, 벌써 1천800여호

【춘천】 강원도에서는 (관독 불능)

1934-10-22-04-01

### 조선중앙일보

식량결핍의 세궁민 75면에 8000호 강원도내 16군 촌락의 참상 수확의 가을도 우울

【춘천】 기보=관동지방의 흉작상황에 대하여 그동안 도 농무과에서 상세히 조사한 결과 산간 부락의 전곡은 흉작으로 인한 감수가 상당히 많아 이미 수확의 가을인데도 식량부족 생계가 곤란한 농가가 벌써 7천수백여호에 달하여 도 당국에서도 그 구제책에 대하여 부심하고 있다 하거니와 이제 빈궁농 7천980호가 산재한 소재 각면 별을 보면 전부 16군에 75개면이었는데 도 당국의 구제 대책을 듣건대 이들 세궁민에 대하여 그중 가장 급박한 궁민 5천여호는 1월부터 3월까지 극한기에 대인은 1일 좁쌀 3합, 소인은 1합1씩 그다음 4월부터 7월까지의 대인 1합 5작, 소인은 그 반액씩을 급여하여 연명시키리라 하나 과연 이로써 그들은 이 엄동설한을 살아나게 될지가는 큰 의문이며 지금은 평원지대에서는 수확의 가을을 노래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울의 가을 기근의 가을을 맞이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이가 실로 무수한 것이라 한다.

▲인제군 1,781호 ▲양구 160 ▲회양 215 ▲삼척 150 ▲울진 50 ▲정선 1,417 ▲평창 825 ▲영월 302 ▲원주 233 ▲횡성 408 ▲홍천 542 ▲김화 581 ▲철원 419 ▲평강 469 ▲이천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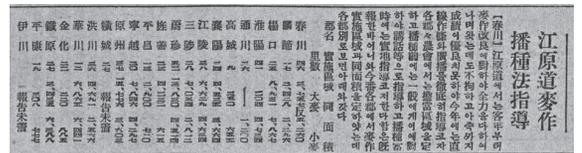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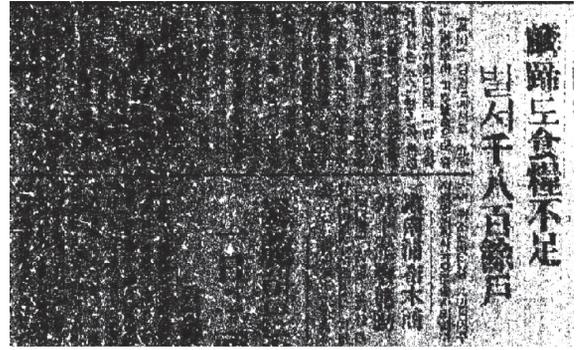
1934-11-30-04-03

### 매일신보

강원도 맥작 파종법 지도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맥작 개량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적이 우량치 못하여 금년에는 직선 작조와 광파를 철저히 지도코자 각군 농회에서는 담당구역을 정하고 파종 전에는 일반에게 이에 대하여 강화 등으로 지도하고 심을 때에는 실지 지도코자한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금번 각 군에서 맥작 실시구역과 실시면적을 정하였는데 각 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실시구역리수	실시면적보리(반)	실시면적밀
춘천	46	3,757	5,260
인제	17	21,429	2,296
양구	25	9,931	7,867
회양	41	204	4,734
통천	26	-	1,200
고성	9	450	642
양양	24	4,422	4,664



군명	실시구역리수	실시면적보리(반)	실시면적밀
강릉	58	6,629	4,624
삼척	28	7,054	2,812
울진	52	13,830	4,514
정선	23	4,232	615
평창	13	2,900	710
영월	20	7,846	4,297
원주	37	15,776	3,603
횡성	27	보고미착	
홍천	36	4,691	2,566
화천	12	6,865	5,441
김화	22	220	885
철원	27	3,435	6,388
평강	19	308	777
이천		보고 미착	

1934-12-13-05-06

### 동아일보

#### 인제 부인야학

【인제】 이는 것이 힘이니 배워야산다 하는 슬로건으로 강원도 인제읍내에 산재한 각부인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각기 부인야학회를 개최하였는데 10일 현재의 개최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 동리야학회 교사 이봉아 외 1인 교수인원 30명 과목 한글 기타 취미 상식 등
- ◇ 북리야학회 위와 같음
- ◇ 합강리야학회 위와 같음

1934-12-13-05-08

### 동아일보

#### 콩 공동판매 인제군농회서

【인제】 중간상인과 간상배를 제재하는 의미하에서 강원도 인제군 농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콩 공동판매를 실시한다고 한다.

- ◇ 인제읍시장 12월 8일로 매 장날
- ◇ 원통리시장 12월 7일로 매 장날
- ◇ 어론리시장 12월 10일로 매 장날
- ◇ 관대리시장 12월 9일로 매 장날

1934-12-14-05-06

### 동아일보

#### 소식

- ◇ 이유권씨 (인제군 삼림감수) 지난 10일 신임 인사차 본보 인제지국 내방

**麟蹄婦人夜學開催**  
 【인제】 이는 것이 힘이니 배워야산다 하는 슬로건으로 강원도 인제(麟蹄)읍내에 산재한 각부인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각기 부인야학회(婦人夜學會)를 개최하였는데 10일 현재의 개최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東里夜學會 敎師 李鳳兒 外一人 敎授人員三十名 科目 韓語 其他 趣味常識等  
 ◇ 北里夜學會 同上  
 ◇ 合江里夜學會 同上

**大豆共同販賣**  
**麟蹄郡農會서**  
 【인제】 중간상인과 간상배를 제재하는 의미하에서 강원도 인제군농회(麟蹄郡農會)에서는 다음 파같이 대부콩을 판매를 실시한다고 한다.  
 ◇ 麟蹄邑市場 十二月八日 星期日  
 ◇ 元通里市場 同 七日 星期日  
 ◇ 於論里市場 同 十日 星期日  
 ◇ 冠嶺里市場 同 九日 星期日

轉人 奉次 本報 釜山支局 來訪  
 ◆ 申相麟氏(阿峴里 和尙 助長) 十日 自毛 에서 濟州 支局  
 ◆ 李有德氏(麟蹄郡 深林監守) 去十日 新任 人 奉次 本報 麟蹄支局 來訪  
 ◆ 八木光武氏(新任 在州 警察署 警長) 人 奉次 去 八日 本報 全州支局 來訪  
 ◆ 朴重龍氏(榮州 公署 檢校) 新任 人 奉次 本報 榮州支局 來訪  
 ◆ 趙重慶氏(晉州 地務署 主任) 新任 人 奉次 本報 晉州支局 來訪  
 ◆ 志田芳松氏(晉州 署 保安係 主任) 新任 人 奉次 本報 晉州支局 來訪  
 ◆ 吳受德氏(金海 監署) 轉人 奉次 本報 晉州支局 來訪

1934-12-15-05-05

### 동아일보

#### 우편소 설치 요망 인제 서화에서

【인제】 산국인 강원도! 그중에도 제일 벽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인제군에 우편통신이야말로 전조선을 통하여 그 실례를 들 수 없을 만큼 유명한 불편지대이다. 적은 우편국을 압도할 인제우편소는 배달부 10여명으로서 도속이 부족 인제읍으로부터 200리나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신문과 서신이 5, 6일 혹은 10여일이 경과 하여서 비로소 배달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서화면일대에서는 항상 주민들이 우편소의 설치를 갈망하던 중 근일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당국에 청원하려 한다고 한다.

1934-12-15-05-08

### 동아일보

#### 인제 시장에 백미가 끊긴 형편

【인제】 원시시대 그대로의 물물교환을 연상하리만큼 강원도 인제읍 시장에는 금년 흉작으로 곡가가 폭등을 예상함인지 도내에서도 유수한 미곡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부호들이 모두 저미를 하고 판매치 않으므로 시장에는 백미의 그림자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일용노동자나 관공리들은 거의 식량이 부절될 형편이라고 인심이 흉흉한 가운데에 있다.

1934-12-17-04-10

### 동아일보

#### 사고

이운용 임 인제지국장  
금반 이와 같이 폐사지국을 설치하였기에 이에 삼가알립니다  
1934년 12월 12일 동아일보사

1934-12-19-04-04

### 동아일보

#### 인제야학회 50여개소

【인제】 산간벽지로 외래의 자극을 받지 못하는 강원도 인제군하에서는 각면을 통하여 농촌진흥회와 부인회 주최로 무려 50개소에서 무산아동, 부인, 농민들의 야학회를 개최하고 그 수를 외친다는데 학생수도 거의 300명이상에 달하는 대성황이라 한다.

**郵所設置要望**  
인제서화에서  
【인제】 산국인 강원도! 그중에도 제일 벽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인제군에 우편통신이야말로 전조선을 통하여 그 실례를 들 수 없을 만큼 유명한 불편지대이다. 적은 우편국을 압도할 인제우편소는 배달부 10여명으로서 도속이 부족 인제읍으로부터 200리나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신문과 서신이 5, 6일 혹은 10여일이 경과 하여서 비로소 배달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서화면일대에서는 항상 주민들이 우편소의 설치를 갈망하던 중 근일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당국에 청원하려 한다고 한다.

**麟蹄市場엔 白米가絶影**  
【인제】 원시시대 그대로의 물물교환을 연상하리만큼 강원도 인제읍(麟蹄邑) 시장에는 금년 흉작으로 곡가가 폭등을 예상함인지 도내에서도 유수한 미곡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부호들이 모두 저미를 하고 판매치 않으므로 시장에는 백미의 그림자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일용노동자나 관공리들은 거의 식량이 부절될 형편이라고 인심이 흉흉한 가운데에 있다.

**社告**  
李雲龍  
任麟蹄支局長  
今敝右支局의 界社支局으로 設置 하엿스나기에 謹告 하나이다  
民國九年十二月十二日  
東亞日報社

**麟蹄夜學會 五十餘個所**  
【인제】 산간벽지로 외래의 자극을 받지 못하는 강원도 인제군(麟蹄郡)에서는 각면을 통하여 농촌진흥회와 부인회의 주최로 무려 50개소에서 무산아동, 부인, 농민들의 야학회를 개최하고 그 수를 외친다는데 학생수도 거의 300명이상에 달하는 대성황이라 한다.

1934-12-19-05-01

### 동아일보

#### 원통공립보통학교 후원회 조직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공립보통학교에서 는 지난15일 오후4시부터 학교 강당내에서 학부형후원회를 개최하 고 예산을 편성한 후 오후6시경 폐회하였다는데 동후원회는 현재 4 학년제의 원통보교를 6년제까지 승격시키려는 것이 취지라 한다.

1934-12-20-02-01

### 동아일보

#### 인제 산간벽지에 산재한 생로 잃은 수천 화전민 흉작으 로 식량절핍도 이미 오래, 유일의 희망은 구공공사

【인제】 수십년 이래로 처음보는 대기근시대를 이루었다. 서북5도 의 참상은 연일 보도되나 이제 그중에도 강원도 일대의 기근참상을 보면 수만 화전민의 총본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서일대 그중에도 인 제군 남면반의 그 참상도 실로 참담 그것이다. 산간벽지에서 화전을 경작하여 호구를 하는 처지로서 금년에는 하절 춘경 이후로 하루도 쉬지않고 날이 흐리지 않으면 비가 내려 전곡은 거의 전멸상태로 인 제군 남면에만도 수확 전무자가 467호에 2,071인이라 하며 50% 감 수 이상이 538호에 2,441인으로 춘경에 종곡까지 없을 것은 말할 것 도 없으려니와 피해 호수 총계는 1,500호에 6,743인 이라는 다수에 달하는데 군과 면에서 수차의 조사로 당국에 구제를 요청하였는데 도 지방과와 총독부에서 모두 실지 조사차로 왔다가 돌아갔으나 아 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데 방문한 남면장 김기수씨는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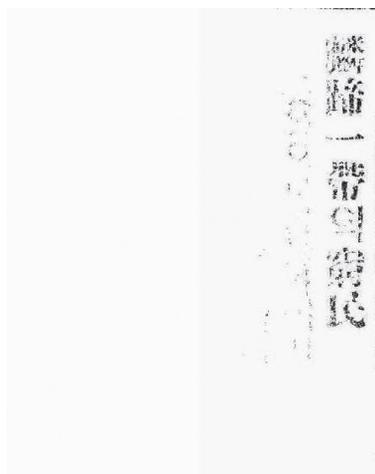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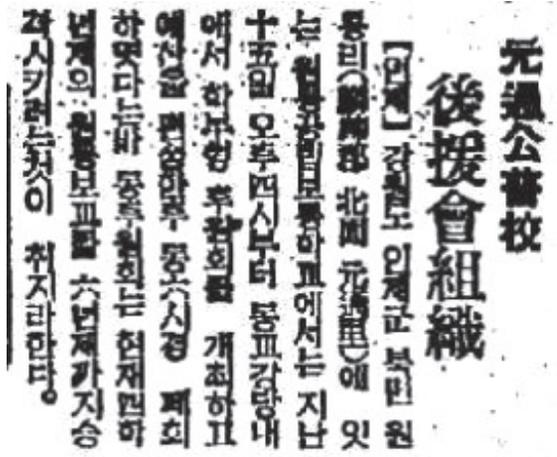
찾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참상은 말못되는 형편이고 수천 생 명이 풍전등화같은 운명에 있을 뿐입니다. 당국에 보고한 것뿐으로 도 마음이 놓이지 못하여 본인과 기린면장 외 1인의 3면 면장들이 저번에 도당국에까지 가서 진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제금이 오 기는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구제금보다도 흥천 인제간 교통로의 완 전을 기할 겸 이재자 구조 겸 관대리 가교공사를 실행하면 이재자 구제사업으로 더 없는 행복일가 합니다. 운운

1934-12-20-03-01

### 조선중앙일보

#### 인제 일대의 궁민 홀웃으로 몸을 가리고 조사대 보자 구원 애호.

내용 판독 불능



1934-12-21-03-05

### 동아일보

## 인제 합강정 퇴폐의 비운 ◇누가 하나 돌보지도 않고 인제 유일의 명승지

【인제】강원도 인제에 오직 1개 밖에 없는 역사 깊은 합강정은 지난 갑자년에 본도 윤갑병 지사 재임시에 인제군수 이은즙씨가 개축 공사를 시행하여 수축하였는데 춘풍추우 10여성상에 주인 없는 빈 정자라 허물어 질대로 허물어지고 부패하여져서 지금은 주초가 부패하므로 불원하여 파괴의 비운에 도달하였다는데 인제 유일의 명승지가 그 보존의 길을 찾지 못하여 이같은 운명에 있음을 일반은 유감으로 여겨 마지않는다 한다.

1934-12-30-03-01

### 동아일보

## 강원도에 희유의 흉작 요구제 43만인, 최근 도지방과의 조사한 것 산간벽지는 기근지옥

【춘천】강원도에 있어서는 기후 불순과 조냉으로 근래에 드문 흉작이거니와 최근 도지방과의 조사에 의하면 흉작이재자 총호수 87,147호며 인구는 435,735명에 달한다는데 그 범위는 춘천 강릉 고성 화천 등 4개군을 제하고는 전도에 걸쳤다 하며 인제군 내면 같은 데는 완연이 생지옥을 이루고 있다 한다.

1935-01-01-04-05

### 동아일보

## 문맹타파를 부인으로부터 인제에서 성향

【인제】문맹타파는 부인으로부터! 라는 굳센 표어를 걸고 인제부인회에서는 당지 보통학교 강당에서 야학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강생은 가정부인과 무산 소녀들 60명에 달하며 교사는 이봉아 이계옥 이보옥 여러명 이라는데 보수없이 추운 때에 빠짐없이 열성을 다한다고 한다.

1935-01-03-03-02

### 동아일보

## 우편소 설치 인제 기린면서

【인제】교통이 불편하니만큼 외래의 자극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통신기관이 없어 일반주민의 불편함을 형언키 어려운 사실이 있으니 이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이라 읍내에 있는 우편소로부터 거리 100여리 되는 지대에 산재한 1,000여호와 인근한 내면 1,000여호를 합하여 우편소를 설치하라고 당시 주민은 연래의 희망이었는데 지난 27일 김모의 명의로 우편소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데 장차 체신당국의 처사 여하를 주목중이라 한다.

麟蹄合江亭  
頽廢의悲運

◇누가 하나 돌보지도 않고  
인제 유일의 명승지

【인제】강원도 인제에 오직 1개 밖에 없는 역사 깊은 합강정은 지난 갑자년에 본도 윤갑병 지사 재임시에 인제군수 이은즙씨가 개축 공사를 시행하여 수축하였는데 춘풍추우 10여성상에 주인 없는 빈 정자라 허물어 질대로 허물어지고 부패하여져서 지금은 주초가 부패하므로 불원하여 파괴의 비운에 도달하였다는데 인제 유일의 명승지가 그 보존의 길을 찾지 못하여 이같은 운명에 있음을 일반은 유감으로 여겨 마지않는다 한다.

江原道에稀有의凶作  
要救濟四十三萬人

최근도지방과의조사한것  
山間僻地飢饉地獄

【춘천】강원도에 있어서는 기후 불순과 조냉으로 근래에 드문 흉작이거니와 최근 도지방과의 조사에 의하면 흉작이재자 총호수 87,147호며 인구는 435,735명에 달한다는데 그 범위는 춘천 강릉 고성 화천 등 4개군을 제하고는 전도에 걸쳤다 하며 인제군 내면 같은 데는 완연이 생지옥을 이루고 있다 한다.

文盲打破를  
婦人으로부터

인제에서성향

【인제】문맹타파는 부인으로부터! 라는 굳센 표어를 걸고 인제부인회에서는 당지 보통학교 강당에서 야학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강생은 가정부인과 무산 소녀들 60명에 달하며 교사는 이봉아 이계옥 이보옥 여러명 이라는데 보수없이 추운 때에 빠짐없이 열성을 다한다고 한다.

郵所設置運動

麟蹄驛面서

【인제】강원도 인제에 오직 1개 밖에 없는 역사 깊은 합강정은 지난 갑자년에 본도 윤갑병 지사 재임시에 인제군수 이은즙씨가 개축 공사를 시행하여 수축하였는데 춘풍추우 10여성상에 주인 없는 빈 정자라 허물어 질대로 허물어지고 부패하여져서 지금은 주초가 부패하므로 불원하여 파괴의 비운에 도달하였다는데 인제 유일의 명승지가 그 보존의 길을 찾지 못하여 이같은 운명에 있음을 일반은 유감으로 여겨 마지않는다 한다.

1935-01-04 -03-01

### 동아일보

## 인제군의 5만 화전민 식량절핍 기아 상태, 적설로 도토리도 얻지 못해 당국의 선처를 고대 중

【인제】 조선의 북간도라고 말하는 강원도 고원지대에는 백설이 2척여나 쌓여 작년의 대흉작으로 주민의 50% 이상인 화전민은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유일한 식량인 도토리까지 줍기를 잃어버렸는데 그중에도 인제군의 1만100호 5만여인과 영서 일대에 산재한 수만에 달하는 이재민은 실로 풍전등화같은 운명에서 오직당국의 선처를 고대한다고 하며 일방으로 본동 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는 연일 퇴학자가 속출하고 사숙같은데는 휴교상태에 빠져있는데 그 원인은 역시 출장으로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있다고 한다.

1935-01-08-02-05

### 동아일보

## 박빙에 청년 익사

【인제】 얇게 얼음이 얼었기로 강을 건너가다 이팔의 젊은 청년이 비명에 횡사를 한 가엾은 사실이 있다. 이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에서 중담으로 건너는 내린천에서 지난 4일 오후1시경에 주소 씨명 미상의 25, 26세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 1명이 강을 건너다가 그와 같이 익사한 것이라는데 지금까지 2일이 되어도 시체조차 발견치 못하였다 한다.

1935-01-19-02-01

### 조선중앙일보

## 홍천 십자가당 사건 남궁역 등의 공판,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방청 금지리에 심리

십자가당 사건의 관계자 남궁역 등 4명에 대한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의 제1회 공판은 검거된 이래 3년만인 18일 오전11시30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산하 재판장 주심, 춘천 검사 임회로 개정되었는데 당일 방청석에는 피고인 남궁역의 유소시 친구와 멀리 충청도에서 온 친지 등으로 만원을 이루었으며 남궁역과 김복동은 보석된 관계로 구속 피고가 입장하기 전까지는 방청석에 앉았었는데 무엇보다도 남궁역은 73세의 고령인지라 백발의 광채가 법정에서 이채를 내었다. 동 25분 구속 피고 유복석과 남천우가 입장하자 동 30분 재판장이 임석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피고를 앞으로 불러놓고 주소 성명과 신분을 간단히 물은 후 검사의 기소의견을 묻고 끝내 남궁역부터 사실 심리를 개시하였는데 오후 1시5분에 이르러 사건내용을 심문을 하려 할때에 일반의 방청을 금지하고 비밀리에 사실 심리를 하였다. 그런데 남궁역은 재판장이 사실을 묻는대로 대답할 뿐 이따금 잘 알아듣지 못하여 고개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력이 없어 대답할 수가 없으니 기록대로만 물어주세요」 하였다. 출정피고



보안법위반  
 본적 홍천군 서면 모곡 448  
 주소 위와 같음  
 사립모곡학교장 남궁역(74)  
 본적 홍천군 서면 모곡리  
 주소 위와 같음  
 동척회사 홍천지점 소사 김복동(31)  
 치안유지법 위반  
 본적 함남 이원군 남면 하차호리 121  
 주소 함남 이원군 남면 군업리 718 목사 유복석(56)  
 본적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107  
 주소 위와 같음  
 목사 모일보 지국장 남천우(47)

1935-01-24-02-04

**신한민보**

**인제 산간에 산재한 화전민**

수십년이래로 처음 보는 대기근 시대임을 이루었다. 서북5도의 참상은 막심한중 강원도 일대의 기근 참상을 보면 수만 화전민의 총본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서일대 그중에서도 인제군 남면반의 그 참상도 실로 참담 그것이다. 산간벽지에서 화전을 경작하여 호구하는 수천화전민의 참상은 금년에 더욱 심하다고 한다.

1935-01-24-03-08

**동아일보**

**근고**

김형기 임 기자. 1935년 1월 15일 동아일보사 인제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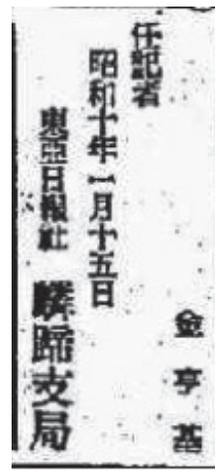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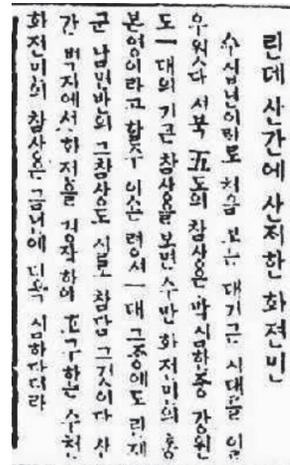
1935-02-05-04-08

**매일신보**

**재민 구제방법과 진흥보강 공작 인제군내 면장회의**

인제군에서는 흉작 이재민의 현상이 구제방책과 농촌진흥의 강화에 비취 지도대책에 대하여 군내 면장회의를 군청회의실에서 1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하였는데 그 경과와 같다.

1. 흉작현상은 매일신보에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산간촌락에서는 70% 이상의 감수된 참상이므로 인보상조도 할 수 없고 산초와 목근목피로 겨우 노명을 이어나가는 공상은 목불인견이요 기아지경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민 구제에 대하여 도로개수공사 등으로 간접구제, 식량의 직접구제 등으로 상당한 의논이 있었으며 면기본재산(현금)으로 곡물을 구입하여 이재민에게 대부하고 수확기에 회수하지는 안을 제출한 면도 있었으나 결국은 직접 구제는 면에서 적당히 선처하는 동시에 면호별 할 20등급까지의 유산자에 대하여 구력정원의 떡 쌀을 절약케하여 1두 이상을 현물 출자케하고 이것을 이재민에게 배급하기로 되어 방금 시행중인데 그 성격이 예상 이상의 호성적을 거하고 있음은 농촌진흥상 경하일이다.



2. 농촌진흥은 합리적 지도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면사무의 증대에 따라서 수족의 관계상 이 대책에 대하여서도 협의가 있었는데 이 구동음으로 1명씩 직원을 증원하여 전속담임자 배치를 필요라고 하지만은 면경비상 불가능한 면도 있어 불가능한 면에서는 중심인물에게 지도를 위탁하고 최소의 수당을 지불하지는 면도 있었으나 중심인물은 정신적으로 촌락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므로 무급으로 결정하였다. 요컨대 각관공서가 연락협조하여 면장을 중심으로 비상시국을 자각하고 농촌진흥사무의 수행을 애심노력하여 1935년부터 농가갱생촌락 확충에 따라 물심 양방면으로 지도의 충실을 꾀하여 농촌진흥의 강화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1935-02-09-02-04

매일신보

식량구결의 재해군 구제방책 재음미 당국도 적극적 방책 강구기로 동포애의 발로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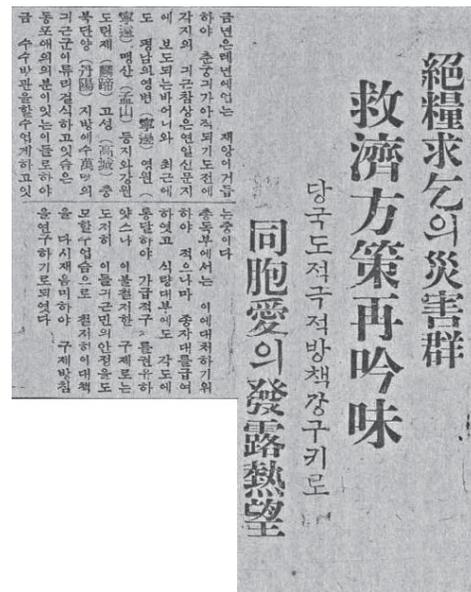
금년은 예년에 없는 재앙이 거듭하여 춘궁기가 아직 되기도 전에 각지의 기근 참상은 연일 신문지에 보도되는 것이거나 최근에도 평남이 영변 영원 맹산 등지와 강원도 인제 고성 충북 단양지방에 수만의 기근군이 유리결식하고 있음은 동포애의 의분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수수방관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중이다. 총독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으나마 종자대를 급여하였고 식량대부에도 각도에 통달하여 가급적 구제를 권유하였으나 이 불철저한 구제로는 도저히 이들 기근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대책을 다시 재음미하여 구제방침을 연구하기로 되었다.

1935-02-12-04

매일신보

인제군 내면에 간이학교 설립 진정

【춘천】인제군 내면협의원 전상국씨가 내면민을 대표하여서 간이학교 설립에 대한 진정을 지사에게 하고자 7일에 내춘하였는데 전상국씨를 방문하고 진정의 내용을 물으니 아래와 같이 말한다. 1931년부터 금년까지 내면 일원의 흉작으로 연연이 도비로 구제하여주시고 금년도 1,600원을 주시어 지사의 은혜가 백골난망이라면 민 전부 상도할 수는 없고 내가 동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앙고차 내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7일에 경찰부장이 흉작 이재민의 상황을 조사차 내면하셨을 때 사재를 아끼지 않으시고 궁민에게 구력 세말에 쌀 몇홉씩이라도 분배하라고 하여서 주재소 주임이 개개 이재민가를 방문하고 분배하여 부장에게도 인사를 앙고하려고 하는데 더욱이 진정코자 하는 내용은 내면에 보통학교가 1개소가 있으나 4학년제이었는데 금후부터 6년제로 하여달라는 것과 도는 내면에 있는 보통학교에서 70리나 50리에 있는 아동 등은 공부를 하고자 하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못하는 형태이므로 광원리민이 4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고 광원리의 재산이 약 400원 가량 있으니 금액에 합하여 간이학교를 건설하여 달라는 것과내면에는 금융기관이 없으니 1935년도에는 금융조합을 설치하여 달라는 진정이라고 한다.



1935-02-16-04-06

매일신보

진전 희망 있는 촌락에 조성금 교부결정 강원도 금년도의 신계획 보조받을 각촌락

【춘천】 강원도에서 촌락 조성에 관하여는 1931년도이래 도지정 촌락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성하여온 결과 점차 태용을 고침에 이르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일반촌락으로서 종래촌락민이 일치협력하여 촌락의 진흥에 노력하여왔지만 촌락민의 경제사정 등에 의하여 하고자하는 것을 시설치 못하고 혹은 신규시설에 의하여 다시 일층 진전을 보일것이라고 인정하는 촌락에 대하여 조성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이미 각군에서 신청이 있어 강원도 동계 직원이 검토한 결과 적당타고 인정하고 각읍면에 보조지령을 발송하였는데 신청액은 3,200원이나 도비 관계로 군에 100원씩 2,100원을 보조키로 결정하였으며 각촌락에서 조성금에 의하여 경영할 사업은 아래와 같다.

▲인제군 인제면 가산리농촌진흥회 는 500평을 구입하여 공동경작지로 설정하고 생산물의 비황저곡으로 축적 (중략)

進展希望 있는 村落에 助成金交付決定 江原道今年度の新計劃과 補助마을各村落

▲인제군 인제면 가산리농촌진흥회 는 500평을 구입하여 공동경작지로 설정하고 생산물의 비황저곡으로 축적 (중략)

▲인제군 인제면 가산리농촌진흥회 는 500평을 구입하여 공동경작지로 설정하고 생산물의 비황저곡으로 축적 (중략)

▲인제군 인제면 가산리농촌진흥회 는 500평을 구입하여 공동경작지로 설정하고 생산물의 비황저곡으로 축적 (중략)

1935-03-02-02-01

동아일보

우심한 지방에는 평년의 80% 감 영변, 인제, 장진 등지 그리고 흥작 이재자 군하의 농작물 피해상황 중 가장 심한 지역을 총독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풍년작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다.

- (중략)
- ◇강원도▲인제 69%▲정선 78%▲이천 73%
- ◇함남▲장진 63%

尤甚한 地方에는 平年の 八割減 寧邊,麟蹄,長津等地

▲인제 69% ▲정선 78% ▲이천 73%

▲함남 장진 63%

1935-03-02-02-01

매일신보

봄에 고향 떠나는 무리 강원도만 근1만명 예상 이상 참담한 흥작지 농민 총독부 조사로 판명

서북조선의 냉해 흥작지에 대하여 총독부에서는 급속한 구제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참상은 예상 외에 심각하여 강원도 인제, 회양, 정선, 이천 등 각군에 있는 이재민들의 참상은 눈물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인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무단히 집을 나간 사람이 2,332인, 벌이하러 나간 것이 2,969인, 이혼이 46건 이주 626호로 모두가 생활방도가 없어 정든 고향을 눈물로 이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과 가정을 지탱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이 이혼하는 등 여러 가지 비극이 연출된 것이므로 당국의 철저한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봄에故郷떠나는 무리 江原道만 近萬名 예상이상참담한 흥작지 농민 總督府調査로 判明

서북조선의 냉해 흥작지에 대하여 총독부에서는 급속한 구제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참상은 예상 외에 심각하여 강원도 인제, 회양, 정선, 이천 등 각군에 있는 이재민들의 참상은 눈물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인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무단히 집을 나간 사람이 2,332인, 벌이하러 나간 것이 2,969인, 이혼이 46건 이주 626호로 모두가 생활방도가 없어 정든 고향을 눈물로 이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과 가정을 지탱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이 이혼하는 등 여러 가지 비극이 연출된 것이므로 당국의 철저한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935-05-03-04-07

### 매일신보

#### 5군 20개소 삼림조합표창 국유림보호연합회에서

【춘천】 강원도 산업장려과 춘천출장소 관내 춘천국유림보호조합 연합회에서는 그 관할인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5군에 있는 20개소 보호조합에 대하여 제2회 표창식은 지난 30일에 거행하였는데 표창은 조합 및 조합 임원과 조합원 중에서 산화, 도별, 침간 등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삼림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자로 표창자의 서명은 아래와 같다

1. 조합표창 인제군 서석면국유삼림보호조합
2. 조합 임원 표창 서석면조합장 이설우, 인제군 기린면조합장 방범주, 인제군 내면조합평의원 탁창조 박낙현 박창구 김성재 김칠봉, 인제군 서석면 신두군 우종설, 인제군 북면 하광원 (중략)
4. 일반표창 (중략) 인제군 서화면 김원팔 외 4명, 인제군 내면 임춘성 외 6명

1935-05-06-04-09

### 매일신보

#### 화천등기소 주임 인제로 전근

【화천】 서울지방법원 화천출장소 근무 목목진 서기는 금번 인제군으로 전근되고 후임으로 회양등기소장이 취임하리라 한다.

1935-05-18-06-02

### 매일신보

#### 강원도의 수견고 11만4천석 이것을 목표로 도당국 열중

강원도에서는 수견 11만4,000석을 목표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방금도 참여관 내무부장 이하 각 관련간부가 열심히 독려중인데 금년도의 각군 배정 매수는 다음과 같다.

춘천 6,440 인제 6,300 양구 5,780 회양 2,200 통천 800 고성 1,900 양양 4,190 강릉 3,250 삼척 4,360 울진 4,360 정선 3,700 평창 5,100 영월 4,500 원주 5,160 횡성 6,060 홍천 6,140 화천 4,020 김화 970 철원 2,100 평강 2,400 이천 3,550

1935-05-22-04-08

### 매일신보

#### 인제군 못자리 대개 성적 양호

【춘천】 17일 인제군내 묘대 성적을 심사차로 인제로 와 북면 등지를 순회한 도 농무과 울말 기수는 좌와 같이 인제군내 묘대 성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금번 화천 양구 인제의 묘대 성적에 대하여 보려고 나왔는데 인제군내에 있는 방방곡곡이 성적이 대단 양호하여 군당국자의 지도와 농민 일반의 노력에 감사아니치 못하겠으며 도 금년 맥작에 있어서는 전부가 풍년이다. 내일 양구로 향하려고 하는데 인제군수가 서울가고 없어서 상봉치 못한 것이 섭섭하다.

**五郡廿個所 森林組合表彰**  
國有林保護聯合會에서

【春川】 江原道産業場려과 春川출장소 官內 春川國有林保護組合 聯合會에서는 그 官轄인 春川, 洪川, 華川, 襄陽, 麟蹄 5郡에 있는 20개소 保護組合에 대하여 第2回 表彰식은 지난 30일에 거행하였는데 表彰은 組合 및 組合 임원과 組合원 중에서 산화, 道別, 浸干 등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三 林 害 가 없도록 노력한 자로 表彰 者의 서명 是 下와 같다

1. 組合 表彰 人 濟 郡 서석면 國有 三 林 保 護 組 合

2. 組合 任 員 表 彰 서석면 組 合 長 이설우, 人 濟 郡 기린면 組 合 長 방범주, 人 濟 郡 내면 組 合 平 議 員 탁창조 박낙현 박창구 김성재 김칠봉, 人 濟 郡 서석면 신두군 우종설, 人 濟 郡 북면 하광원 (중략)

4. 一 般 表 彰 (중략) 人 濟 郡 서화면 김원팔 외 4 名, 人 濟 郡 내면 임춘성 외 6 名

**華川登記所主任 麟蹄로轉勤**  
【華川】 京城地方法院華川出張所 勤務 未 之 津 書記는 今 番 麟蹄 郡으로 轉勤 되고 後 任 仕 由 是 淮陽 登記所 長 이 就任 하리 라 한다

**江原道の收籾高 十一萬四千石**  
이것을 目標로 消當 局 熱中  
伊州三、五五〇

江原道에서는 收籾 十一萬四千石 을 目標로 五個年 計劃을 세우고 目下 進捗 風氣 內務部長 以下 各 關 係 官 吏 均 意 奮 勵 中 인 等 今 年度의 各郡 配定 枚數는 다음과 같다

春川 六、四四〇 麟蹄 六、三〇〇 楊口 五、七八〇 淮陽 二、〇〇〇 通川 八、〇〇〇 高城 一、九〇〇 襄陽 四、一九〇 江陵 三、二五〇 三陟 四、三六〇 蔚珍 四、三六〇 襄陽 三、七〇〇 平昌 五、一〇〇 寧越 四、五〇〇 原州 五、一六〇 橫城 六、〇六〇 洪川 六、一四〇 華川 四、〇二〇 金化 三、九七〇 鐵原 二、一〇〇 元康 二、四〇〇

**麟蹄郡도 外리 大概 成績 良好**  
【春川】 十七日 麟蹄郡 內 苗代 成 績을 乘 坐 次로 來 麟蹄 北 面 地 區 巡 視 官 地 務 課 長 栗 末 道 手 是 左와 가 리 麟蹄 郡 內 苗 代 成 績을 視 察 하 야 鴻 禧 矣

今番 華川 楊口 麟蹄의 苗代 成 績에 對하 야 보 려 고 나 왔 는 데 麟蹄 郡 內 是 處 均 々 々 々 成 績이 大 體 良 好 하 야 郡 官 吏 均 意 奮 勵 中 也

一 院의 努 力에 麟蹄 郡 內 收 籾 成 績은 今 年 收 作에 對하 야 是 處 均 々 々 々 成 績이 大 體 良 好 하 야 麟蹄 郡 官 吏 均 意 奮 勵 中 也 是 處 均 々 々 々 成 績이 大 體 良 好 하 야 麟蹄 郡 官 吏 均 意 奮 勵 中 也

1935-05-27-04-01

### 동아일보

#### 당선된 면협의원

- ◇인제군
- ◇인제면 ▲차상규 ▲임기조 ▲이균섭 ▲박여국 ▲박용수 ▲차형도 ▲원재유 ▲이한규 ▲삼호조차랑 ▲김관오 ▲약본진차 ▲박인균
- ◇남면 ▲김기수 ▲김수룡 ▲민경호 ▲김정호 ▲전재형 ▲김구영 ▲심주흡 ▲송영춘 ▲이중혁 ▲정대원 ▲채규범 ▲조대홍
- ◇북면 ▲김영준 ▲권오륜 ▲이종태 ▲김재승 ▲최남규 ▲김재은 ▲김홍대 ▲심상하 ▲김재목 ▲김택용
- ◇서화면 ▲정해팔 ▲주오봉 ▲김동원 ▲안병련 ▲심한구 ▲김보연 ▲차두균 ▲김윤도 ▲서병주 ▲박관웅 ▲김일용 ▲변응삼
- ◇기린면 ▲이성오 ▲한창렬 ▲김영배 ▲박태균 ▲최삼봉 ▲박주문 ▲이한영 ▲배원철 ▲백성철
- ◇내면 ▲김경원 ▲김한규 ▲김성모 ▲탁창조 ▲박인갑 ▲장범용 ▲박병찬 ▲임광호 ▲김성도 ▲신성섭 ▲전상국 ▲황하도

1935-05-30-04-11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각군에 보리 적기 베기 독려 손실 방지와 품질 향상을 꾀하고자

【춘천】보리 적기 베기에 대하여는 베는 기간이 지연이 되면 수량이 줄어들고 품질도 열변되며 또 간작물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강원도에서는 일반에게 이 취지의 주지를 도모키 위하여 좌와 같이 각군에 통첩을 발송하고 보리 베기의 독려를 하도록 하였는데 보리베기주간 중에는 도에서 간부가 출장하여 다음 수확 조사 및 독려를 행할 예정일고 한다.

1. 풀베기 주간을 설정  
좌기 표준에 의하여 지방의 실정에 응한 풀베기주간을 정하고 기간 내에 각 부락민 총동원으로 일제히 예취할 일  
(중략) ▲춘천 인제 양구 정선 평창 홍천 화천 보리 6월 16일 밀 6월 25일 (중략)
2. 독려방법
  1. 각기관의 연결  
군면농회는 물론 경찰, 학교, 금융조합 등 각기관의 연락을 충분히 할 일
  2. 독려구역의 결정  
군, 경찰, 군농회, 면직원 각기 분담구역을 정하고 지도독려를 할 일
  3. 학교에 아동 생도의 작업 풀베기 주간 중의 1일은 초등학교의 상급생 및 중등학교의 생도에 의하여 학업을 쉬고 보리 베기를 행할 일
  4. 농촌진흥위원회의 활동을 촉하여 적기 베기의 철저를 기할 일
  5. 달밤을 이용하여 야간의 보리베기 행하고 단기간에 작업을 종료케할 일

**麟蹄郡**

麟蹄面 車相圭 ▲林龍詒 ▲李尙榮 ▲朴致顯 ▲朴龍秀 ▲車亨道 ▲元在裕 ▲李海錫 ▲三月熙次郎 ▲金官五 ▲李本底次 ▲朴麟均 ▲南面 金憲法 ▲金洪福 ▲閔慶源 ▲金善浩 ▲李在衡 ▲金錫冰 ▲沈周欽 ▲李春泰 ▲李錫基 ▲鄭泰源 ▲金聖烈 ▲李在衡 ▲金錫冰 ▲北面 金泰院 ▲鄭立命 ▲李鍾泰 ▲金在承 ▲崔德泰 ▲金在振 ▲金烈大 ▲朴日根 ▲金在超 ▲金澤龍

瑞和面 鄭傳八 ▲宋五顯 ▲金東賢 ▲安秀現 ▲沈漢德 ▲金復強 ▲申斗均 ▲李允基 ▲徐東周 ▲朴龍應 ▲金日裕 ▲邊國三

麟蹄面 李明五 ▲麟錫烈 ▲金泰培 ▲朴希均 ▲邊三宰 ▲朴在文 ▲李漢榮 ▲魏元赫 ▲白聖賢 ▲全國賢 ▲李道榮 ▲崔賢國

內面 金敬元 ▲金漢彬 ▲金聖碩 ▲李鳳祥 ▲朴仁甲 ▲邊龍鳳 ▲李鳳祥 ▲林光亞 ▲金顯瑞 ▲申聖賢 ▲李福國 ▲曹河國

**江原道內各郡에 麥適期刈取督勵**

江原道內各郡에 麥適期刈取督勵 損大防止及品質向上을圖코저

【春川】麥의適期刈取에關하여는刈取期가 延어 收穫量이 減하야지 品質도 劣變되며 佐間作物에 惡影響을 與히 致치안을 爲코 爲期에서는 一般에 對하 各邑의 通達을 爲코 刈取期의 行을 爲하야 하는 爲 刈取期中에 調査及 督勵를 行할 爲 刈取期中 一、刈取期間을 設定 二、督勵區域의 決定 三、警察 郡農會 面職員 各分區區域을 定하고 指導督勵를 行할 일 四、學校에 兒童生徒의 作業刈取期中의 一日은 初等學校의 上級生及 中等學校의 生徒에 行할 일 五、夜間을 利用하여 夜間의 刈取를 行하여 短期間에 作業을 終了케 할 일

▲春川 麟蹄 楊口 旌善 平康 洪川 帶川 小麥 六月二十五日 大麥 六月十六日 小麥 六月二十日 大麥 六月二十日 小麥 七月一日

▲襄陽 原州 橫峯 大麥 六月十二日 小麥 六月二十三日

▲高城 襄陽 江陵 大麥 六月十七日 小麥 七月一日

▲三陟 蔚珍 大麥 六月二十日 小麥 七月五日

1935-06-01-06-03

### 매일신보

## 천연산지 이용하여 표고버섯의 대량생산, 강원도에서 5년계획 세우고 보조주어 재배 장려

【춘천】 강원도 관내에는 천연 표고버섯의 생산량이 연에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더욱 증산케 함은 산촌경제진흥 및 활엽수 이용상 유리하며 또는 호적하다고 도당국에서 인정하고 1931년 가을에 각군 임업사무담당자 및 도유림사업소 직원을 초집하고 이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여 1932, 1933 양년에 시배를 하계한 결과 재배의 확실 유리한 것을 보고 1934년도부터 도비 보조하에 일반적 장려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 효과를 기하게 함에는 주밀한 지도를 요하므로 도내 전반에 걸쳐 재배장려는 사실 곤란하여 제1기를 5개년으로 하고 연 2만그루 계 10만 그루를 표준으로 실시하는 일방 천연버섯의 생산량이 많은 지방에 대하여는 품질의 개선을 도케 함을 목적으로 역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도비 보조하에 농촌진흥회에게 주요생산지방부터 점차 건조기구를 설비케하여 개량 통제를 기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 계획으로는 1935년도부터 4개년 간 연년이 2만그루를 표준으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화천 이천군내에서 재배케하며 이에 대한 도비 보조에 대하여는 방금 도당국에서 계상 중이며 1934년도에 인제군내 면관내 농촌진흥회에 간이 건조상을 10개를 설비케하고 도비로 보조하였었는데 금년에도 평창과 인제군내에 설비케 하고 도비로 보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1935-06-03-03-11

### 동아일보

####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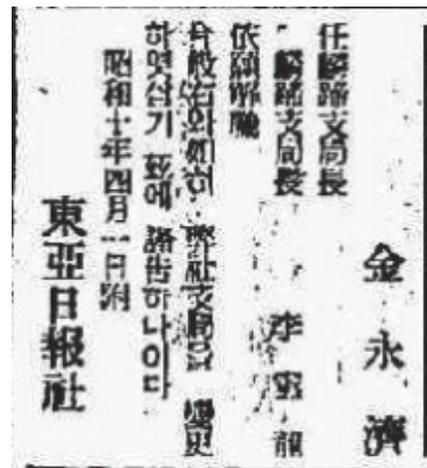
김영제 임 인제지국장, 인제지국장 이운용 의원해직  
금반 우와 같이 폐사 지국을 변경하였기에 이에 삼가알립니다.  
1935년 4월 1일 동아일보사

1935-06-05-04-01

### 매일신보

## 당선된 각지 신면의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정원 12명)\_ 차상규, 이균섭, 박용수, 원재우, 임기조, 박여국, 차형도, 삼호조차랑, 이한규, 김관오, 기본진차, 박인균  
남면(정원 12명)\_ 김석수, 민경호, 전재형, 김정수, 김수용, 심주흠, 김귀영, 이종혁, 송영춘, 정대일, 조대홍, 채규범  
북면(정원 10명)\_ 김영준, 이종태, 최남규, 김홍대, 권오륜, 김재승, 김재은, 김재목, 김택용, 심상하  
서화면(정원 11명)\_ 정해팔, 김동원, 심한귀, 신두균, 주오봉, 안병연, 김보린, 김윤훈, 서병주, 박관웅, 변응삼, 김일용  
기린면(정원 12명)\_ 이성오, 김영배, 최삼봉, 이한영, 한창열, 박봉균, 박주문, 배원혁, 전봉린, 백성철, 이누성, 최익하  
내면(정원 12명)\_ 김경원, 김성모, 박인갑, 탁창조, 임광호, 김성도, 박병찬, 전상국, 김한국, 장범용, 신성섭, 황하도



1935-06-06-02-03

### 신한민보

#### 강원도 화전민의 수효 전도 인구의 60% 이상

강원도에서 화전민 문제가 가장 고통거리인 것은 일반이 아는 것이거니와 작년 말 현재로 통계를 보면 화전민 총수가 56,593호로 그 인구는 297,091인에 달하는데 그들이 경작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화전의 총면적은 87,000여 정보라고 하며 군별로는 회양 삼척 인제 등에 가장 많은데 회양 한골에만 49,700여명에 달하며 인제에도 43,200여명이나 되는데 이를 전인구에 비하면 각각 60%이상을 점령한 현상이라 한다.

1935-06-06-03-02

### 동아일보

#### 당선된 면협의원

- ◇인제군
- ◇인제면 ▲차상규 ▲임기조 ▲이균섭 ▲박용수 ▲원재유 ▲임기조 ▲박여국 ▲차형도 ▲삼호조차량 ▲이한규 ▲김관오 ▲기본진차 ▲박인균
- ◇남면 ▲김기수 ▲민경호 ▲전재형 ▲김정수 ▲김수룡 ▲심주흠 ▲김구영 ▲이종혁 ▲송영춘 ▲정태일 ▲조대홍 ▲채규범
- ◇북면 ▲김영준 ▲이종대 ▲최남규 ▲김홍대 ▲권오륜 ▲김재승 ▲김재은 ▲김재목 ▲김택용 ▲심상하
- ◇서화면 ▲정해팔 ▲김동원 ▲심한구 ▲신두구 ▲주오봉 ▲안병련 ▲김보련 ▲김윤후 ▲서병주 ▲박관웅 ▲변응삼 ▲김일용
- ◇기린면 ▲이성오 ▲김영배 ▲최삼봉 ▲이한영 ▲한창렬 ▲박태균 ▲박주문 ▲배원혁 ▲전봉린 ▲백성철 ▲이누성 ▲최익하
- ◇내면 ▲김경원 ▲김성모 ▲박인갑 ▲탁창조 ▲임광호 ▲김성도 ▲박병찬 ▲전상국 ▲김한국 ▲장범용 ▲신성섭 ▲황하도 ▲한관홍 ▲김명규 ▲최응삼 ▲김병윤 ▲박원식 ▲전응서 ▲전영소 ▲김준호

1935-06-10-02-01

### 조선중앙일보

#### 아내를 찾아서 도보로 100여리길 어린 것을 두고 꼬임에 빠져서 달아난 부정녀 수색

애뜻한 부부애로 자식 낳고 정답게 지내오던 가정에 「가난」의 폭풍이 불어오자 사랑하던 어린아이까지 내버리고 허영의 손목에 유인되어 집간 아내를 찾아 두고간 어린아이 하나를 업고 멀리 강원도로 부내서울까지 도보 100리길을 온 가여운 장면 하나가 9일 아침 동대문서에 와서 간곡한 애원으로 아내라기보다도 어린 것의 어미를 찾아달라고 한 눈물겨운 장면이 있었다.

이 장면은 강원도 인제 사는 박순택(37)으로 둘째아들 박이남(8)이를 업고 멀리 서울까지 그의 아내 허입분(28)을 찾아온 것이다. 이들은 12년 전에 결혼하여 이리 저리로 다니며 자유노동을 하여 근근이 생활을 해오면서 큰애 일남(11) 외에 세 아이를 낳았는데 근일에

● 강원도 화전민의 수효  
전도 인구의 60% 이상  
강원도에서 화전민 문제가 가장 고통거리인 것은 일반이 아는 것이거니와 작년 말 현재로 통계를 보면 화전민 총수가 56,593호로 그 인구는 297,091인에 달하는데 그들이 경작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화전의 총면적은 87,000여 정보라고 하며 군별로는 회양 삼척 인제 등에 가장 많은데 회양 한골에만 49,700여명에 달하며 인제에도 43,200여명이나 되는데 이를 전인구에 비하면 각각 60%이상을 점령한 현상이라 한다.

襄陽郡 ▲김기수 ▲민경호 ▲전재형 ▲김정수 ▲김수룡 ▲심주흠 ▲김구영 ▲이종혁 ▲송영춘 ▲정태일 ▲조대홍 ▲채규범 ▲김영준 ▲이종대 ▲최남규 ▲김홍대 ▲권오륜 ▲김재승 ▲김재은 ▲김재목 ▲김택용 ▲심상하	文川郡 ▲김기수 ▲민경호 ▲전재형 ▲김정수 ▲김수룡 ▲심주흠 ▲김구영 ▲이종혁 ▲송영춘 ▲정태일 ▲조대홍 ▲채규범 ▲김영준 ▲이종대 ▲최남규 ▲김홍대 ▲권오륜 ▲김재승 ▲김재은 ▲김재목 ▲김택용 ▲심상하	寧越郡 ▲김기수 ▲민경호 ▲전재형 ▲김정수 ▲김수룡 ▲심주흠 ▲김구영 ▲이종혁 ▲송영춘 ▲정태일 ▲조대홍 ▲채규범 ▲김영준 ▲이종대 ▲최남규 ▲김홍대 ▲권오륜 ▲김재승 ▲김재은 ▲김재목 ▲김택용 ▲심상하	麟蹄郡 ▲김기수 ▲민경호 ▲전재형 ▲김정수 ▲김수룡 ▲심주흠 ▲김구영 ▲이종혁 ▲송영춘 ▲정태일 ▲조대홍 ▲채규범 ▲김영준 ▲이종대 ▲최남규 ▲김홍대 ▲권오륜 ▲김재승 ▲김재은 ▲김재목 ▲김택용 ▲심상하	甲山郡 ▲김기수 ▲민경호 ▲전재형 ▲김정수 ▲김수룡 ▲심주흠 ▲김구영 ▲이종혁 ▲송영춘 ▲정태일 ▲조대홍 ▲채규범 ▲김영준 ▲이종대 ▲최남규 ▲김홍대 ▲권오륜 ▲김재승 ▲김재은 ▲김재목 ▲김택용 ▲심상하
--	--	--	--	--

#### 안해를차져서 徒步로百餘里길

어린것을 두고 보임에 빠져서 달려남 부녀搜索

안해(安海) 박순택(37)은 둘째아들 박이남(8)을 업고 멀리 서울까지 그의 아내 허입분(28)을 찾아온 것이다. 이들은 12년 전에 결혼하여 이리 저리로 다니며 자유노동을 하여 근근이 생활을 해오면서 큰애 일남(11) 외에 세 아이를 낳았는데 근일에

는 춘천과 양평에까지 와서 노동을 해왔었다 한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양평서 이범주란 자에 꼬임에 빠져 그 아내는 가난을 버리고자 허영에 뜬 마음에 정든 남편과 둘째아들을 버리고 세아이와 함께 그 자의 뒤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연애도피를 하였으므로 그 같이 어린 것을 업고 혹시 인제로나 다시 갔나하여 인제를 들러 서울까지 찾아 온 것이라 한다.

1935-06-13-04-04

**매일신보**

**강원도 맥작은 예년보다 증수 쌀보리만이 약간 감소**

【춘천】 강원도에서는 전의 면적이 252,000정보나 되는데 그중에 맥작은 불과 67,000정보의 소수로 도에서는 맥작에 대하여 개량 등 장려 하는 동시에 3개년 계획으로 전 면적에 전부 맥작을 장려할 계획이며 금년 중으로는 갱생지도부락과 기타 주요지대에 맥작을 실시케 할 계획인데 금년 맥작 상황은 보리이며 쌀보리, 밀등이 전부 생육의 양호로 예년에 드문 풍작이라는데 보리 작부반별은 389,495반으로 전년보다는 1.11%가 증가 했는데 수확고 예상은 337,606석으로 전년 실수확에 비해 22.9%의 증수를 보이고, 밀 작부반별은 306,022반으로 전년에 비하여 1.38%의 증가인데 수확예상고는 154,448석으로 전년 수확보단 역시 15.33%의 증수를 보이나 쌀보리는 작부반별이 6,161반으로 전년보다 37.3%의 감소로 수확예상고도 3,407석으로 전년보다 36.3%의 감수를 보이고 있는데 각 군별로 수확고를 보면 좌와 같다.

군명	보리(석)	밀(석)	쌀보리(석)
춘천	34,878	2,802	37
인제	9,860	5,726	62
양구	16,550	9,726	41
회양	2,791	4,116	658
고성	6,399	4,181	33
양양	14,143	8,349	-
강릉	24,576	8,349	-
삼척	33,292	10,237	61
울진	27,034	5,472	7
정선	10,988	4,301	-
평창	19,354	4,946	-
영월	14,710	7,209	1,081
원주	37,076	7,854	95
횡성	33,338	7,128	378
홍천	20,769	6,751	346
화천	5,771	41,089	24
김화	3,876	13,325	130
철원	7,118	10,018	-
평강	2,624	4,529	-
이천	2,597	13,092	274
계	327,606	154,448	3,407

**江原道麥作은**  
**例年보다增收**  
**裸麥만이若干減少**

【春川】江原道는田의面積이 陸拾萬計인데今年麥作狀況은 二十五萬二千反나되는데其中 大麥이裸麥小麥이全形生育에麥作은不過六萬七千反의小의良田に例年에드른麥作이反는數を道에서는麥作에對하여改良 大麥作反反例年二八九、四九五反例年同時에三個計劃을 五反으로前年보다一分一厘一毛 多面積에全形麥作을獎勵할計 가增인收獲高例年二二七、二七〇反이今年中으로는各區生育高六〇六石으로前年高收獲例年比高 二五石其他重要地帶에作은數이二萬七厘九毛의地畝를보고反

小麥作反反例年二〇六、〇二二反으로前年에比하여一分三厘八毛의地畝に收獲高例年二五四四四八石으로前年收獲高例年亦是一〇四五分三厘三毛の地畝を보고反으로前年보다二割七分二厘의減少로收獲高例年三、四〇七石으로前年보다二割六分三毛의減少를 보이고 있는데各郡別로收

稷谷郡	二、八七〇
春川郡	九、八七〇
襄陽郡	九、七二六
通川郡	二、七九一
高城郡	六、三九九
襄陽郡	四、一八一
三陟郡	一〇、九八八
蔚珍郡	九、八七〇
旌善郡	〇、九八六
平康郡	一〇、九八六
寧越郡	七、一〇九
原州郡	七、一〇九
橫濱郡	七、一〇九
洪川郡	六、七二六
華川郡	四、一八一
金化郡	三、八七〇
鐵原郡	七、一〇九
平康郡	四、一八一
伊川郡	二、五九七
計	三、四〇七

稷谷郡 大麥 裸麥  
春川 大麥 小麥 裸麥  
襄陽 大麥 小麥 裸麥  
楊口 大麥 小麥 裸麥  
通川 大麥 小麥 裸麥  
高城 大麥 小麥 裸麥  
襄陽 大麥 小麥 裸麥  
三陟 大麥 小麥 裸麥  
蔚珍 大麥 小麥 裸麥  
旌善 大麥 小麥 裸麥  
平康 大麥 小麥 裸麥  
寧越 大麥 小麥 裸麥  
原州 大麥 小麥 裸麥  
橫濱 大麥 小麥 裸麥  
洪川 大麥 小麥 裸麥  
華川 大麥 小麥 裸麥  
金化 大麥 小麥 裸麥  
鐵原 大麥 小麥 裸麥  
平康 大麥 小麥 裸麥  
伊川 大麥 小麥 裸麥  
計 大麥 小麥 裸麥

1935-06-13-06-06

### 매일신보

#### 강원도의 보리 적기 베기 독려

강원도에서는 보리베기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의 감소, 품질의 열등 또는 간작물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표준으로 지방의 실정에 응하여 보리베기주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일제히 예취수확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독려방법으로는 군, 면, 군농회, 학교, 금융조합 및 농촌진흥회 등 각기관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북부=회양 통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 각군은 보리 6월6일 밀 7월2일
- ▲중부=춘천 인제 양구 정선 평창 홍천 화천의 각군은 보리 6월15일 밀 6월25일
- ▲남부=영월 원주 횡성의 각군은 보리 6월12일 밀 6월23일
- ▲영동중부=고성 양양 강릉의 각군은 보리 6월17일 밀 7월1일
- ▲영동남부=삼척 울진의 2군은 보리 6월20일 밀 7월5일

1935-06-14-05-06

### 매일신보

#### 원조 방면에 감사의 인사 경춘철도 기성회원

【춘천】경춘철도 기성회에서는 금반 철도 실현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다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은 중부 각 군의 관계 당국과 동지방 인사에게 사의를 표하며 인사차로 7일 오전에 역원 5씨가 좌기 지방을 분담하여 역방하고 당일 오후 귀임하였다. 최양호 화천, 정은섭 홍천, 황도근 인제, 구무상차 양구, 이한복 가평

1935-06-21-04-06

### 매일신보

#### 24부락에 966호 인제군의 지도부락 설정 호수 성적은 대해 양호

【인제】강원도 인제군당국에서는 1933년 농산어촌진흥운동에 따라서 관내 각면을 통하여 농가갱생지도부락을 설치하고 이래 농사 개량 및 근검저축, 고리채 정리. 경제갱생생활개선, 농가부업, 기타 사업을 철저히 지도독려케 한 결과 그 업적이 대해 점점 양호하다는 데 부락 설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 1933년 설치부락수 6, 총호수 260호 중 지도호수 108호
- 1934년 설치부락수 6, 총호수 226호 중 지도호수 173호
- 1935년 설치부락수 12, 총호수 480호 중 지도호수 331호
- 이상 설치부락총수 24, 총호수 966호 중 지도호수 684호

### 江原道の麥 適刈督勵

江原道에서는麥의刈取を失機하면收穫量の減少、品質の劣等、間作物に悪影響を及ぼす。...

▲北部 淮陽 通川 金化 鐵原 元山 伊川各郡은 入麥六月六日 小麥七月二日

▲中部 奉天 慶蹄 楊口 莊南 平康 洪川 華川의各郡은 入麥六月十五日 小麥六月二十五日

▲南部 寧越 原州 橫濱의各郡은 入麥六月十二日 小麥六月二十三日

▲嶺北 高城 襄陽 江陵의各郡은 入麥六月十七日 小麥七月一日

▲同南部 三陟 蔚珍의二郡은 入麥六月二十日 小麥七月五日

### 援助方面에 感謝의 人事

京春鐵道期成委員 今般鐵道實現에 있어 直接間接으로多大援助를 惜하지 中部各郡의關係當局과 同地方人士의 謝意를 表하며 人事次로 七日午前에 役員五氏가 左記地方을 分擔하여 歴訪하고 當日午後歸任하였다.

崔養浩 華川 丁殷燮 洪川 黃道根 麟蹄 久武常次 楊口 李漢復 加平

### 二十四部落에 九百六十六戶

麟蹄郡의 指導部落設定戶數 成績은 逐年良好

【麟蹄】江原道麟蹄郡當局에서 昭和八年 麟蹄山嶺村 振興運動에 伴하여 管内 各面을 通하여 農家更生 指導部落을 設置하여 爾來 農事 改良及 勤儉貯蓄、高利債整理、經濟更生 生活改善、農家副業、其他事業을 徹底히 指導勸助한 結果 事業이 逐年 漸々 良好하다는 데 部落設定狀況은 다음과 같다.

昭和八年 設置部落數六、

總戶數二六〇戶 中 指導戶數一〇八戶

昭和九年 設置部落數六、

總戶數三二六戶 中 指導戶數一七三戶

昭和十年 設置部落數一二、

總戶數四八〇戶 中 指導戶數三三一戶

以上 設置部落總數二十四、

總戶數九六六戶 中 指導戶數六八四戶

1935-06-22-03-07

### 동아일보

## 탁아소 수용 8만7천여 농번기에 여자노동이 현저 강원도에 96개소

【춘천】 요즈음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눈코 뜰 사이없이 바빠 여자들의 노동도 요구되거나 이 농번기에 꼭 있어야 될 탁아소가 최근에는 점점 많이 설치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지방과 조사를 보건대 전도내에 96개의 탁아소가 설치되어있고 아동 수용실인수가 1,920인이고, 수용연인원수는 실로 8만7,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탁아소수 수용실인수(인) 수용연인수(인)

춘천	6	71	1,262
인제	2	29	813

(중략)

1935-06-28-04-07

### 매일신보

## 춘천 외 4군이 합동 대양조회사 계획, 제주와 맥자가 일체가 되어

【춘천】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화천 5개군내에 있는 양조회사와 각 맥자조합이 합동하여서 일대 맥자조합을 건설코자 작년부터 계획 중 근근 그 계획의 구체화되어 홍천맥자조합이며 각조회사와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대개는 성사케 되었으므로 머지않아 장래에 5개군의 조주에 자할 만한 대회사의 출현을 볼 수 있으리라고 한다.

1935-07-10-03-07

### 동아일보

## 근고

박원득 임 인제면 현리 주재기자

1935년 7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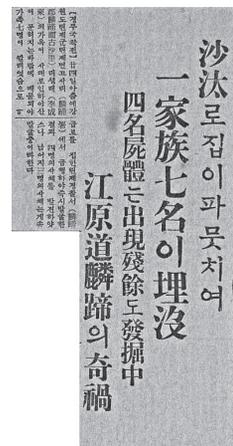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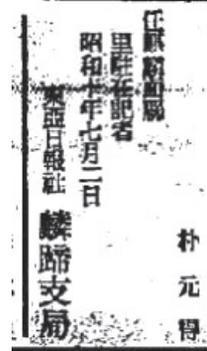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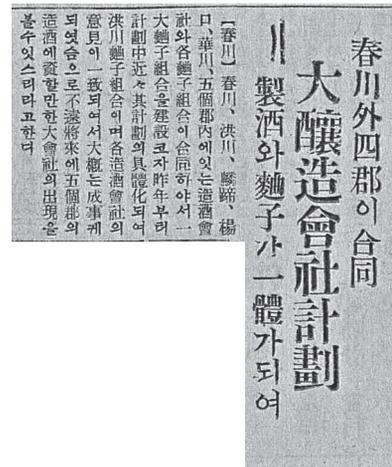
동아일보사 인제지국

1935-07-26-02-01

### 매일신보

## 사태로 집이 파묻혀 일가족 7명이 매몰, 4명 시체는 출현, 잔여도 발굴중 강원도 인제의 기화

【경무국 착전】 24일 아침에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고사리 이성대의 가옥이 사태로 인하여 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매몰되어 가족 7명이 깔렸으므로 이 급보를 접한 인제경찰서에서 급행하여 즉시 발굴한 결과 4명의 사체를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3명의 사체는 계속 발굴중이라고 한다.



1935-07-26-04-06

### 조선중앙일보

#### 산이 붕괴되어 일가 7명이 압사 인제군하의 호우 참사

20일래 폭주하는 호우로 말미암아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고사리 이성래의 집은 24일에 갑자기 뒷산이 무너져 일가 7명은 흙더미 속에 파묻혀 압사되고 말았다. 이 급보를 접한 소관 인제서에서는 즉시 서원이 현장으로 급행하여 시체의 발굴에 노력한 결과 4명은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아직 계속하여 발굴 중이다.

1935-07-26-02-02

### 동아일보

#### 유실가옥 17 사상 30여명 홍천, 인제면 군의 수해

이번 장마로 인하여 한강상류인 강원도 홍천과 인제에서 강물의 범람으로 받게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인제군 ▲사자 9 ▲부상 9 ▲행방불명 ●5 ▲유실가옥 10호 ▲전피가옥 26호 ▲반피가옥 56호 ▲침수가옥 121호 ▲농작물피해 80정보(1만원)

1935-07-26-02-06

### 동아일보

#### 인제군하에도 산붕 전가족 7명 참사, 경찰서에서 출동 발굴의 결과 사체는 4개만 발견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고사리 이성래의 집은 24일 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대로 파묻혀 가족 7명이 그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 이 급보를 접한 인제서에서는 서원이 현장에 급행하여 발굴에 노력한 결과 4명의 시체는 발굴해내었으나 남은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계속 발굴 중이다.

1935-07-28-02-02

### 조선중앙일보

#### 강원 각지 수해 인제 피해 적지않아

26일 오전6시까지 판명된 강원도 일대의 수해상보는 다음과 같다  
인제\_사자 3명, 부상자 1명, 행방불명 1명, 가옥전피 1동, 전담유실 붕괴 38정보, 도로유실붕괴(620원)

山이崩壞되어  
一家七名이壓死  
麟蹄郡下의豪雨慘事

麟蹄郡下의豪雨(24日)로 인제면 고사리 이성래의 집이 무너져 일가 7명이 압사되고 말았다. 이 급보를 접한 인제서에서는 즉시 서원이 현장으로 급행하여 시체의 발굴에 노력한 결과 4명은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아직 계속하여 발굴 중이다.

流失家屋十七  
死傷卅餘名  
洪川 麟蹄兩郡의水害

△사자 9 ▲부상 9 ▲행방불명 5 ▲유실가옥 10호 ▲전피가옥 26호 ▲반피가옥 56호 ▲침수가옥 121호 ▲농작물피해 80정보(1만원)

麟蹄郡下에도山崩  
全家族七名慘死  
警察署에서 出動發掘의結果  
屍體三四個만發見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고사리 이성래의 집은 24일 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대로 파묻혀 가족 7명이 그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 이 급보를 접한 인제서에서는 서원이 현장에 급행하여 발굴에 노력한 결과 4명의 시체는 발굴해내었으나 남은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계속 발굴 중이다.

江原各地水害  
麟蹄被害不少

麟蹄 死者三名 負傷者一名 行方不明一名 家屋全數一

其他地方 庄十餘家 戶 被水 淹水 二十餘戶 房屋倒塌 亦多 行方不明 亦多 行方不明 亦多 行方不明 亦多

華川 家屋全數一 被水 淹水 二十餘戶 房屋倒塌 亦多 行方不明 亦多 行方不明 亦多 行方不明 亦多

原州 民去發水 一戶 庄下 被水 淹水 二十餘戶 房屋倒塌 亦多 行方不明 亦多 行方不明 亦多 行方不明 亦多

1935-07-31-06-01

### 매일신보

## 강원도 메밀 전조선 제1위 작년산액 8만여석

【춘천】 강원도는 전작물의 특산지로 유명하며 그중에도 메밀은 고래부터 유명하였었는데 작년 1934년 중의 심은 면적 22,854정보로 그 수확고가 87,291석에 달하여 전조선의 약 20%를 점령하여 제1위에 있으며 주요한 산지는 산간 혹은 고원지대인 회양 평강 인제 정선 등의 여러군데인데 특히 회양 평강에서는 매년 상당한 다량이라도 외로 반출되고 있는데 금후에 더욱 개량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한다.

1935-08-05-04-01

### 매일신보

## 강원도 자급주의 누룩조합을 조직 5개군 주조합자 노력

【춘천】 춘천 화천 양구 흥천 인제 5개군에 있는 각조합에서 산출되는 조주석수가 탁주3만석, 약주1,800석의 다량이나만큼 누룩의 소비도 상당하여 종래에는 타도 혹은 타군에서 반입하였는데 품질에 있어서도 우량치 못하고 겸하여 고가이므로 이에 대하여 전기 각조합주업자간에 불평이 있던 중 저간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이 5개군내 있는 각조합주업자만으로서 누룩조합을 조직하여 가격 저렴하고 품질 우량한 누룩을 공동생산하기로 되어 7월 30일 춘천공회관에서 강원도중부곡자제조조합 창립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149명 중 36명과 위임출석자 28명 합 64명이 출석하여 동조합의 정관 결의와 조합장 및 감사의 선거 등이 있는 후 폐회하고 오후7시부터는 춘천읍내 염로가에서 성대한 피로연이 있었는데 동조합의 기업 개요와 선거된 조합장 등의 씨명은 좌와 같다.

강원도중부곡자제조조합기업 개요

#### 1. 목적

가격 저렴하고 품질 우량한 누룩의 공동생산

#### 1. 생산능력

1개년 5,500석(분쇄 밀 석수)

#### 1. 조직

주조합자만으로서 조직하는 조합

#### 1. 자산 및 구수

출자총액 8만원 출자 1구의 금액은 50원으로 하고 총구수는 1,600구 반액 불입으로 함

#### 1. 소재지

조합사무소를 춘천읍 화양동 1정목에, 공장은 춘천읍 소양동 1정목과 흥천면 진리에 치함

#### 1. 누룩 배급구역

춘천 화천 양구 흥천 인제

#### 1. 조합원수 160명

1. 조합원의 조주석수 탁주 3만석 약주 1,800석

▲조합장(춘천) 좌좌목희시 ▲감사(춘천)추병옥(흥천)이두한 ▲평의원 한성교, 장진국, 최방혁, 강현영, 신진휴, 박중우

# 江原道蕎麥 全鮮第一位

## 昨年産額八萬餘石

【春川】江原道는田作物의特産地로有名하며그中에도蕎麥은古來부터有名하였는데昨九年中의作付面積은二二、八五四町歩로收穫高가八萬七千二百九十一石에達하여全鮮의約二割을占領하여第一位에이르며主要産地는山間或은高原地帶인淮陽平康麟蹄旌善等の諸郡인데特に淮陽平康에서는毎年相當한多量이道外로搬出되고 있는데今後에 더욱改良을獎勵할決定의라고한다

# 江原道 給主義 麴子組合을組織 五個郡酒造業者努力

【春川】春川 華川 楊口 洪 組合의定款決議外組合長及監事 麟蹄五個郡에잇는各造酒場 七縣界內는春川邑內渡路家에서 萬石 粟二千八百石의多量이나 盛大奇披露要의有하였는데同組合의企業體要와選舉된組合長等 에는他道或은他郡에서搬入하였 의氏名은左와 같다

江原道中部麴子製造組合企業 權要

一、目的 價格低廉하고品質優良한麴子 的共同生産

一、生産能力 一個年五千五百石(粉砕小麥)

一、組織 酒造業者만으로서組織하는組合

一、資産及口數 出資總額八萬圓出資一口의金額은五十圓으로서口數는千六百口半額拂込으로함

一、所在地 組合事務所春川邑和陽邊一丁目이工場은春川邑昭陽邊一丁目이洪川面津里에置設

一、麴子配給區域 春川 華川 楊口 洪川 麟蹄

一、組合員數一六〇名

一、組合員の酒造石數 濁酒三萬石 粟酒千八百石

▲組合長(春川)佐々木盛市 ▲監事(春川)秋葉玉(洪川)李斗漢 ▲評議員 麟蹄 姜憲水 申眞 鐵園 崔防燦 姜憲水 申眞 休 朴鎮友

1935-08-07-02-07

### 매일신보

## 평북과 강원 양도 수해 인명사상만 1,400여, 5일 현재 경무국 착보

【경무국착전】 지난 수해로 인하여 강원도 지방의 수해상황은 인제와 정신 지방에는 일시 교통이 두절되었으므로 다시 판명된 것은 다음과 같다. 인명피해 사자 3 부상 1 행위불명 2 누계 사자 33 부상 31 행위불명 8

1935-08-16-04-01

### 매일신보

## 강원도 수해 복구비 115만원 요구, 총독부에서는 산본 기사를 파견 실지 상황을 조사

【홍천】 금번 강원도 수해에 대하여 도에서는 복구비로 총독부에 1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총독부에서는 수해 상황 실지 조사차로 산본 계속 기사를 파견하여 수해가 우심한 10개군을 실지 답사하고 13일 춘천으로 왔는데 씨와 삼포 토목과장의 말에 의하면 순회 조사한 결과 인제 양구 홍천 3개군의 수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대하였으며 현금도 교통에 두절된 곳이 많아서 속히 복구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며 산본씨 귀임 후 요구액 전부를 용인할는지 산본씨에 대하여 기대가 크다고 한다.

1935-08-17-03-03

### 조선중앙일보

## 강원도 수해 복구비 150만원 요구, 총독부에서는 기사를 파견 실지 상황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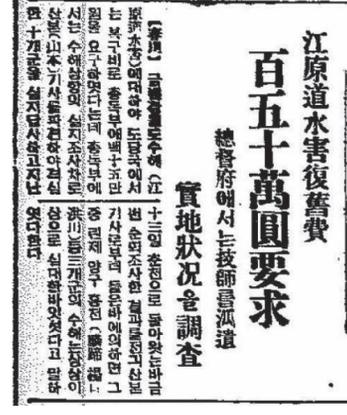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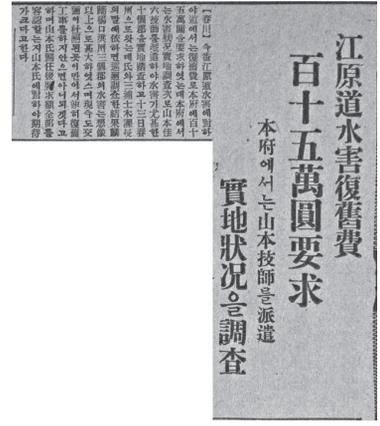
【춘천】 금번 강원도 수해에 대하여 도 당국에서는 복구비로 총독부에 1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총독부에서는 수해 상황의 실지 조사차로 산본 기사를 파견하여 격심한 10개 군을 실지 답사하고 지난 13일 춘천으로 돌아왔는데 금번 순회 조사한 결과를 전기 산본 기사로부터 들은 것에 의하면 그중 인제, 양구, 홍천, 등 3개 군의 수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대한 바 있었다고 말하였다 한다.

1935-08-24-03-06

### 매일신보

## 강원도 간부급 출장 예정지 갱생부락 독려로

【춘천】 금번 갱생부락 일제 독려주간에 도지사 이하 각간부가 총출동한다 함은 기보하였거니와 손 지사는 8월 22일에 춘천을 출발하여 수행은 고교 산업과장 및 원 관방주사와 같이 부임 후 초순시로 양양 강릉 삼척 울진을 시찰하며 독려 후에 포항을 경유하여 28일에 귀임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 외에 각간부의 출장 예정지는 좌와 같다. ▲신곡 내무부장 춘천 화천 김화 ▲홍 참여관은 인제 양구 ▲경찰부장은 고성 ▲삼 경무과장은 고성 ▲연건 농무과장 정선 ▲중가 학무과장은 평창 그 외 각 군은 각 기사가 출장 독려기로 되었다.



1935-09-10-04-03

### 동아일보

## 휴식 중의 머슴을 난축하여 즉사, 시체 감춰놓고 달아났다 발설 ◇인제군하의 참사

【춘천】 아침 밥도 먹기 전 힘든 일을 하다가 잠깐 앉아 쉬는 머슴을 깨운 자라고 그 주인이 차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다. 그 사실을 적으면 강원도 인제군 내면 미산리 707에 거주하는 김재규(34)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박광호(56)는 지난 8월 16일 오전 7시경 그 주인집의 김장밭을 갈다가 아침밥도 먹지 않은 빈 속이므로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잠시 ●위에 걸터앉아 쉬던 차 그의 주인 김재규가 보고 깨운 자라고 분노하여 달려들어 박광호의 왼쪽 가슴을 몹시 차서 갈비대가 부러지는 동시에 내출혈이 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는데 김재규는 그 시체를 근처 강냉이 밭에 감추어 두고 자기집 머슴은 어디론지 달아나 버렸다고 허설을 하였었는데 지난 24일 그 동리 노파가 그 밭을 지나다가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탐문한 인제에서는 곧 범인을 체포하여 엄밀히 취조하는 중인데 취조가 끝나는 대로 일건 서류와 함께 검사국으로 넘기리라 한다.

1935-09-24-04-06

### 매일신보

## 강원도 봉밀생산 연 8만원의 거액, 장려에 따라 연년 증가

【춘천】 강원도의 봉밀이라면 전선에 이름이 있으니만큼 유명한 중인제의 백청이라면 더욱 환영을 받게 되어 연년이 강원도에서 산출되는 봉밀고가 6만여원이며 제봉고가 2만여원 합 8만여원인데 이를 도에서 더욱 장려키 위하여 약간의 보조금을 1930년도부터 지불하여왔으며 생산자가 종래에는 자유로 판매하여왔으나 1931년 이래 군농회에서 판매를 알선하여 온 결과 그 성적 대단 양호하여 앞으로는 더욱 증산 장려에 노력하리라 하는데 1934년 각군에서 산출된 것과 개별 호수는 좌와 같다.

군명	사양호수	탐밀고	제랍고	군명	사양호수	탐밀고	제랍고
춘천	1,334	2,913	1,448	인제	9,332	4,336	1,625
양구	767	3,992	717	회양	965	4,830	1,205
통천	75	526	104	고성	145	958	35
양양	266	707	440	강릉	644	3,268	434
삼척	1,069	2,510	659	울진	379	826	399
정선	947	1,544	234	평창	951	2,966	1,275
영월	1,056	1,204	592	원주	722	2,260	745
횡성	842	2,083	853	홍천	1,466	6,125	1,236
화천	536	1,384	785	김화	1,020	3,179	1,325
철원	355	470	262	평강	757	3,022	2,843
이천	1,024	2,485	2,023				
합계	16,641	58,211	19,239				



1935-09-30-04-01

매일신보

강원도 유림대회 심전개발을 간담 27일 춘천향교에서

【춘천】 이미 보도와 같이 관동명덕회 주최로 강원도를 4구로 분하여 유림간담회를 개최키로 되어 춘천향교내에서 예정과 같이 9월 27일 오전8시 반부터 동 간담회를 거행하였는데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각군에서 민중 교화운동에 입할 학식덕망가가 66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사의 훈시와 회장의 인사기 있는 후 간담사항으로 들어가 심전개발 및 청년지도에 대하여 간담이 있은후 유의의하게 폐회하였다고 한다.

1935-10-01-08-01

매일신보

경춘철도 부설 후 집산될 물화조사 약 100만원의 가능

【춘천】 경춘철도 부설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반 도민이 열망함을 따라 향자에 춘천변영회 임원회를 개최하고 기성회를 조직코자 준비위원 10명을 선거하여 각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함은 기보와 같거니와 차 위원회에서 경춘간의 운반되는 물자를 조사한 결과 춘천 내 각 승합차며 각 화물자동차의 총수입이 1년에 30여만 원이며 양구 인제 홍천 등지의 물자도 경춘철도가 부설된다면 물론 차를 이용할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을 합한다면 100만원 이상은 염려 없겠다 하여 저반 동 위원이 경춘철도 부설 기성회칙 등을 작성하여 심사 중인데 불일간 타고되는대로 변영회 임시총회를 개최코 기성회를 조직하여 본격적 운동을 입하려고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라고 하며 일반군민은 속히 실현되기를 갈망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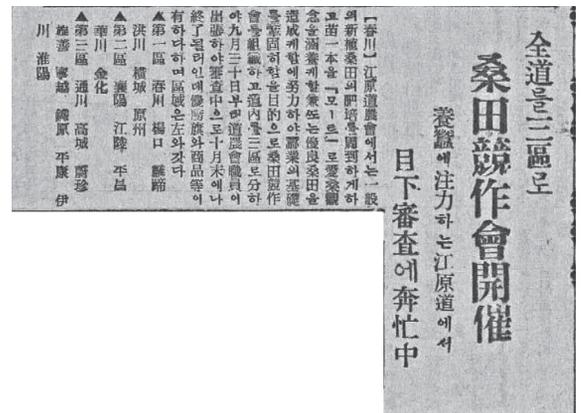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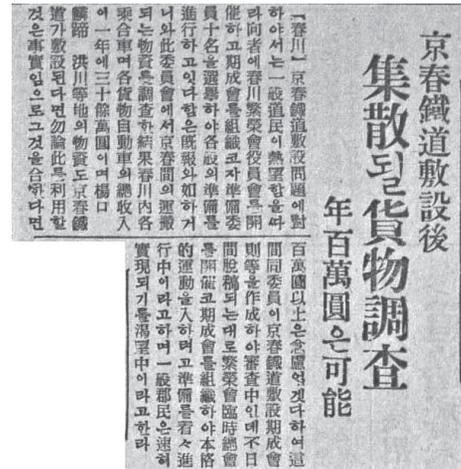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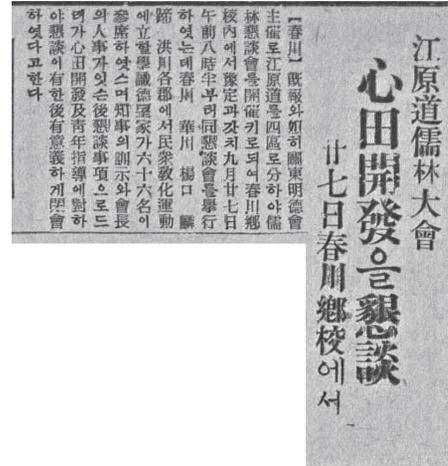
1935-10-05-04-06

매일신보

전도를 3구로 땡밭 경작회 개최. 양잠에 주력하는 강원도에서 방금 심사에 분망 중

【춘천】 강원도농회에서 일반의 신식 땡밭의 거름 주고 가꾸는 것을 주도하고 묘 1그루를 모토로 애상관념을 함양케 할 겸 또 우량상전을 조성케 함에 노력하여 잠업의 기초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상전경작회를 조직하고 도내를 3구로 나누어 9월 30일부터 도농회 직원이 출장하여 심사 중으로 10월 말에나 종료될 터인데 우승기와 상품 등이 유하다 하며 구역은 좌와 같다.

- ▲제1구 춘천 양구 인제 홍천 횡성 원주
- ▲제2구 양양 강릉 평창 화천 김화
- ▲제3구 통천 고성 울진 정선 영월 철원 평강 이천 회양



1935-10-25-05-01

매일신보

경춘가도에 관철 부설을 요망, 불허가이면 사철을 놓겠다 진정원이 상성 운동

서울 춘천간에 경춘철도를 부설하고자 연선 관계 각군의 주민유지들은 계획을 세워 맹렬히 운동하여왔는데 24일에는 진정원 지구문 최양호 이한복 춘상 산증 등 제씨 외 4씨가 상경하여 총독부를 방문하고 관계 방면에 진정한 후 오후에는 철도국으로 길전국장을 방문하였는데 근년에 이르러 농촌진흥으로 말미암아 흥천 인제 양구 화천 등 연선 각군의 물화 산물이 격증한 관계로 철도를 부설하여 물산의 집산과 승객의 왕래가 격증 폭주함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겠다는 것인데 만일 당국에서 예산관계로 곧 관영철도를 부설할 수 없다면 자기네들이 회사를 조직하여 사철로 경영하겠다는 것인데 사철 회사를 세우는 경우면 그 허가를 얻으려는 것이라 한다.

京春街道에 官鐵敷設을 要望 不許可이면 私鐵을 놓겠다 陳情員이 上城運動

1935-10-31-04-03

동아일보

도로 완성, 학급 증설 도당국에 진정

10년 동안의 숙제가 미해결 인제유지들이 맹활동

【춘천】 양구와 양양선내 인제군 인제면 기린면간 3등도로 완성 축진을 하기 위하여 인제 지방유지 김영제 이종고 방범주 여러명의 7명이 지난 28일 손지사 이하 도간부에게 진정한 적 있었다는데 이 도로는 강원도 영동, 영서를 관통하는 횡단선으로 교통과 경제 발전상 영향이 크다 하며 1929년으로부터 3등도로 예정선으로 측량되어 이래 평탄한 곳은 대개 되었으나 난공사인 곳이 아직 남아 있다 하며 그 지방유지들이 전후 수습차 도에 진정하였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급변에는 기어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진정하는 것이라는데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수십만 일꾼의 부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근 인제는 학령이동이 자꾸 늘며 또 정의여학교가 폐교됨을 따라 그 학교에 수용되던 아이들이 머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공보교의 여학급을 증설하여 달라는 진정도 있었다고 한다.

道路完成 學級增設 道當局에 陳情 十餘萬人의 숙제가 미해결 麟蹄有志者 猛活動

1935-10-31-04-03

매일신보

인제, 기린간 3등도 개통 실현을 진정, 양구 양양 접속선 중 중요부분 산업개발상 지보

【춘천】 인제군 인제면 및 인제군 기린면민의 대표 이진고 김기선 김동우 김영제 방범주 이성오 최삼봉 여러명이 28일에 춘천으로 와 지사 이하 각간부에게 양구 양양선 중 인제면 및 기린면간 3등 도로에 대하여 진정이 있었는데 인제군으로 말하면 강원도 중부 각군 중 물자가 제일 풍부하여 우선 중요한 것으로는 목재 약초 봉밀 건 콩 신탄 버섯류 등을 약초는 연산액이 15만여원에 달하나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각처로 산내되어 읍으로 집중치 못하여 도 농산촌 진흥으로 보더라도 인제군이 타군에 비하여 성격이 좋지못함도 역시 교통불편 관계만 흠으로 이

麟蹄、麒麟間三等道 開通實現을 陳情 楊口襄陽接綫中重要部分 産業開發上至寶

노선이 얼마나 긴요할 지 가히 알 것인데 공사비로는 토목과장이 조사한 결과 25만원이 요한다 하여 예산관계로 지금껏 실현치 못한 것이라 하나 대표단에서는 도에서 10만원만 주면 넉넉히 완성하게다 하며 지사도 이 노선만은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느니만큼 장차 여하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진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35-11-01-04-03

매일신보

올가을 강원도 맥작 예정 면적 보리 1만8,900여정보 밀 2만4,000정보

【춘천】작년부터 강원도에서는 보리농사를 개량하여 직선광과를 장려하는 동시에 면적을 확장하여 종래 휴경지가 많은 밭을 이용해서 면적을 증가케 하기위해 노력해 왔는데 갱생부락과 주요 전작지대에 1934년도 면적에 대한 1935년 예정 작부 면적 증가 정도를 보면 보리는 1934년에 총작부 면적이 25,005정5반이고 1935년도 예정 작부면적은 28,933정4반으로 3,927정9반이 증가되었으며 밀은 1934년도 1만9,885정8반 1935년도 24,002정7반으로 4,116정9반이 증가되어 보합으로 보면 보리 16% 증 밀 21% 증을 보겠으나 실에 들어가서는 비 예정 작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모양으로 아직 보고가 없어 통계는 알수 없는데 각군별로 보리 작부 예정 상황을 보면 좌와 같다 하다.

군명	1934년도(정)	1935년도(정)	증잔고(정)
춘천	2,676.0	2,756.9	80.9
인제	661.8	669.1	7.3
양구	1,497.7	1,656.5	161.8
회양	159.2	241.9	82.7
통천	68.7	326.4	157.7
고성	356.5	429.3	71.8
양양	570.7	586.2	15.5
강릉	949.6	949.6	-
삼척	2,453.9	2,556.1	102.2
울진	1,725.7	1,740.9	15.2
정선	998.2	1,216.5	218.3
평창	1,170.4	1,185.8	15.4
영월	1,189.4	1,941.0	751.6
원주	3,296.1	3,448.1	153.0
횡성	1,967.6	2,805.6	118.0
홍천	1,463.7	1,686.6	222.9
화천	915.1	949.7	34.6
김화	372.9	723.9	350.1
철원	1,775.4	2,361.7	586.3
평강	385.2	464.5	79.3
이천	351.7	1,015.0	663.3
합계	35,005.5	28,933.4	3,927.9



1935-11-02-04-11

### 매일신보

## 인제군 중심의 목재 500만척체 예상 경춘철도가 부설되는 날에는 벌채사업도 유망

【춘천】 인제군 기린면에는 저간 총독부에서 기사가 출장하여 약 8개월간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기린면에만 재목이 300만척체이나 있으나 이를 제재한다면 30년간을 요하는데 기린면뿐 아니라 인근 각면에 있는 것도 200여만척체는 될 것으로 인정되나 현재는 교통이 불편하여 도저히 운반에 곤란한 상태에 있으므로 경춘철도가 실현성이 농후한 차제에 인제군민도 경춘철도의 속히 실현됨을 갈망 중 만일 철도가 부설되는 때는 재래식의 운반인 강을 이용치 않고 이를 이용할 것이므로 장차의 춘천은 대약진을 할 것은 물론이요 읍내에는 제재회사의 실현도 볼수있을 것이라고 일반은 기대중이라고 한다.

1935-11-03-04-10

### 매일신보

## 춘천 간성간 자동차 직통운전 왕래 승환하던 것

【춘천】 춘천에서 동해안까지의 유일한 선로인 내선자동차의 춘천 간성간은 그간 인제까지 가서 인제에서 승환을 하게되어 승객의 불편이 심하던 중 동 자동차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춘천 간성간 직통운전을 하게되었는데 춘천 발 오전8시 반으로 양구 인제를 경유하게 되었으며 오후에는 2시 반 인제까지의 차가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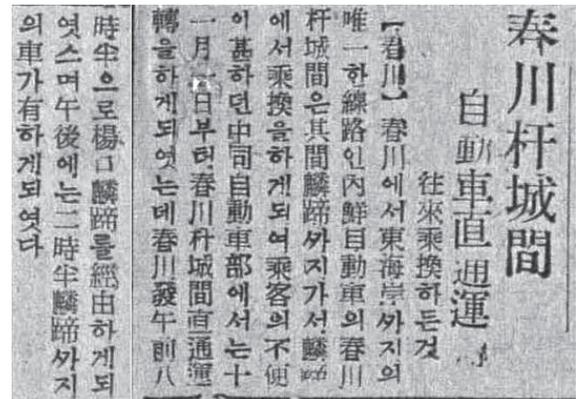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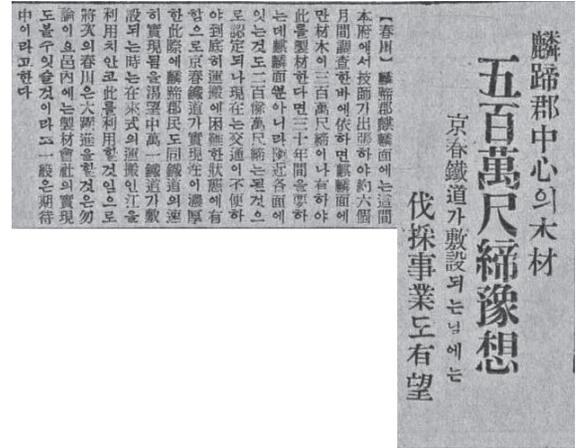
1935-11-08-04-06

### 매일신보

## 관동명덕청년 제5회 강습회 4일부터 춘천문묘 내에서

【춘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관동명덕회 주최로 제5회 관동명덕청년 강습회를 춘천 문묘 내에서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원은 40명으로 춘천 인제 양구 정선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 화천의 10개 군에서 1군에 4명씩 명덕청년단원 중에서 중견인물을 선발한 것이라 하며 4일 오전 9시에 개최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국기게양 향거요배 성전배례 국민정신작흥 등에 관한 조서 봉독, 지사 훈시, 내빈 축사 등이 있었으며 동 강습 중 상애호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규율적 생활을 습득할 목적으로 문묘내에서 공동숙박과 공동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강습회의 강습제목과 강사의 씨명은 좌와 같다.

- |                |         |
|----------------|---------|
| 청년의 사명         | 홍 참여관   |
| 미정             | 신곡 내무부장 |
| 평범한 위인이 되여라    | 산하 경찰부장 |
| 미정             | 중가 학무과장 |
| 본도 농업 경영에 대해서  | 남건 농무과장 |
| 양잠             | 북택 기사   |
| 임업             | 관 기사    |
| 갱생계획수립 영농개신    | 대천소작 관보 |
| 농가갱생계획과 청년의 사명 | 관근 도속   |
| 청년단 경영방법       | 정시학     |
| 청년단 유래와 청년의 수양 | 김축타     |



1935-11-19-04-01

### 매일신보

## 강원도 구공비 11만7천원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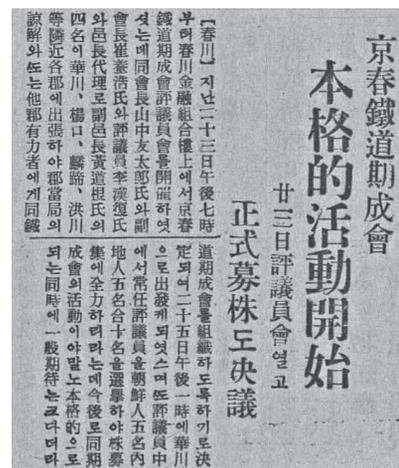
【춘천】 강원도에는 1934년 7월이래 결실기에 걸쳐 천후 불순으로 화곡의 결실을 불량케하며 혹은 도열병을 유지하고 특히 도내에서도 인제 정선 평창 회양 평강 이천 각군 산간부락에 있어서는 냉해의 영향까지 입어 각종 작물은 거의 전멸상태로 조 감자 콩 메밀 등을 주요식량으로 하는 농경자는 수확기 직후 식량이 부족하게되어서 목실 초근목피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궁상에 이르렀으므로 이의 구제는 화곡의 요무라 하여 당면의 급을 구하려고 전후 3회에 걸쳐 식량을 급여하였으며 일면 피해 격심한 지방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제토목 공사를 실행하여서 만전을 기한 외에 올봄 파종용의 종곡을 공급하여 1일 이라도 속히 재흥복기하기를 기하였지만은 이재민은 5만여호(감수 70, 80% 정도)로 도저히 관의 구제만으로는 완벽을 기하기 어려워 각 이재민에 대하여 자력부흥의 정신에 의하여 이 궁상을 극복함에 긴요함을 상세 주지케 하여서 차등 이재자의 복기 갱생을 꾀하였는데 즉 국고보조 9,876원 도비 흥림구제비 및 은사이재자 구조기금 보조 등 11,309원 임시은사조업조누금 10,000원 계 31,185원 외에 도내 유지 및 관공리 및 도외 각관계자에 대하여 널리 의연금을 모집하여 부족액 36,113원을 보충하여 계 67,298원으로써 종곡 및 식량의 급여를 실시하였으며 또 이외에 인제 외 8개군에 시행한 구제토목공사비 총액 50,000원을 합하면 총계 17,298원으로 대체 예정이 계획과 같이 금년 수확기까지 이 이재민을 구제한 것이라고 한다.

1935-11-28-04-07

### 매일신보

## 경춘철도 기성회 본격적 활동개시 23일 평의원회 열고 정식 모주도 결의

【춘천】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춘천금융조합 누상에서 경춘철도 기성회 평의원회를 개최하였었는데 동 회장 산중우태랑씨와 부회장 최양호씨와 평의원 이한복씨와 읍장 대리 부읍장 황도근씨의 4명이 화천, 양구, 인제, 홍천 등 인근 각군에 출장하여 군 당국의 양해와 또는 타군 유력자에게 동철도 기성회를 조직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어 25일 오후 1시에 화천으로 출발케 되었으며 또 의원 중에서 상임평의원을 조선인 5명 내지인 5명 합 10명을 선거하여 주 모집에 전력하리라는데 금후로 동 기성회의 활동이야말로 본격적으로 되는 동시에 일반 기대는 크다더라.



1935-12-01-04-09

### 매일신보

## 연년이 늘어가는 강원도 인삼재배 총면적 119,100여평에 재배자가 308명

【춘천】 강원도에는 재래부터 인삼을 재배하여 왔는데 그 성적이 대단 우량하여 강삼으로 성가가 있던 중 도위생과에서 더욱 이를 장려키 위하여 재배법을 개선케 하는 동시에 철저히 지도 장려를 1933년부터 실시하여 온 결과 그 성적도 양호하다 하며 인삼 종별은 춘천 및 강릉 이남은 경북 영주군 풍기삼을 재배하고 그 이북은 개성삼을 재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양군에서는 인삼재배 시작한지가 약 30여 년 전이라 하며 각 군마다 평균 1평에 대하여 70전 수입은 되어 금후로도 많은 재배를 보일 모양이며 현재 도내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11만9,135평이요 재배인원은 308명으로 이는 위생과에서 처음으로 통계조사를 한 것이라는데 이를 각 군별로 면적과 재배인원수를 보면 좌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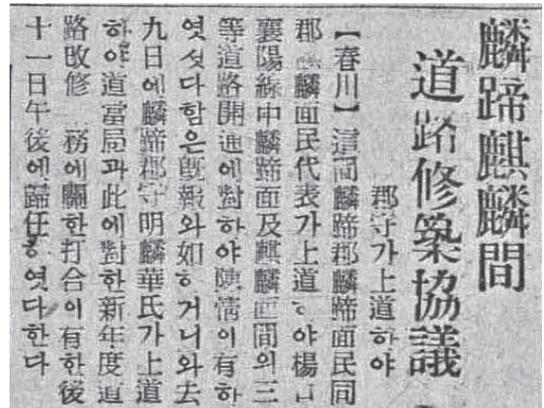
군명	재배면적(평)	재배 인원수(명)	군명	재배면적(평)	재배 인원수(명)
춘천	300	4	인제	3,683	28
양구	13,417	69	회양	2,760	14
고성	5,000	1	양양	750	14
강릉	1,012	70	울진	185	17
평창	900	1	영월	1,173	4
원주	4,610	1	횡성	100	1
홍천	2,100	1	화천	12,290	23
김화	11,993	12	금성	2,555	8
철원	930	1	평강	11,349	7
이천	4,508	11			
계	119,135	308			

1935-12-14-04-07

### 매일신보

## 인제 기린간 도로 수축 협의 군수가 상도하여

【춘천】 저간 인제군 인제면민, 인제군 기린면민 대표가 도로 올라가 양구 양양선 중 인제면 및 기린면 간의 3등도로 개통에 대하여 진정이 있었다 함은 이미 보도와 같거니와 지난 9일에 인제군수 명인 화씨가 도로 올라가 도당국과 이에 대한 신년도 도로 개수업무에 관한 타협이 있는 후 11일 오후에 귀임하였다 한다.



1935-12-18-04-08

### 매일신보

#### 사고

금반 본사의 업무를 일층 확장하기 위하여 종래의 강원도지국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지국을 신설하였으니 배구애호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1935년 12월 1일 매일신보사

1. 명칭 춘천지국

1. 위치 춘천군 춘천읍 본정

1. 구역 춘천군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1. 지국장 이한복

1935-12-24-04-10

### 매일신보

#### 과멸에서 갱생으로 20여 마약중독자, 원주치료소 성적 매우 양호 20일 퇴소식 거행

【원주】 원주마약류중독자 치료소에서는 1개월 전부터 이웃군 횡성 홍천 인제 영월 평창 등지 산재한 모르히네 중독자 20여명을 모아 원주경찰서장 이하 계원의 친절 ●●한 지도 보호와 담임의사 박공의 열성 치료로 전부 완치되어 본월 20일 오후1시에 동 소내에서도 위생과장 경찰서장 각 관공서장 협회 임원 지방유지 다수 출석 하에 치료 환자 퇴소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환자들은 중독시정의 은택으로 광명한 세상을 다시 보게 됨에 감읍 불가한다고 한다.

1935-12-24-05-01

### 동아일보

#### 수해, 이른서리, 우박피해 등 농작 피해 40만원, 금년 1년동안 강원도 관내에 그 중 조와 메밀이 수위

【춘천】 금년 강원도의 농작물에 있어서 수해, 서리피해, 우박피해, 야도충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피해된 상황에 대하여 지난 11월 말 현재로 조사된 숫자를 보면 피해총면적이 19,498정이고 피해총액이 398,308원에 달한다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히 적으면 수해만은 면적 2,648정에 피해액이 151,516원이고, 서리의 피해는 면적 13,213정에 피해액이 19,312원으로서 인제 양구 회양 강릉 삼척 평창 평강 이천 등지가 가장 심하였다고 하며, 조야도충 피해는 면적이 2,600정에 피해액이 38,418원이라는데 피해지는 춘천 양양 삼척 울진 원주 철원 평강 등지라고 하며 우박의 피해는 면적이 1,037정에 피해액이 15,332원

**社 告**

今設本社の業務를 一層擴張하기 爲하야 從來의 江原道支局을 廢止 하고 다음과 가리 支局을 新設하얏 스니 倍舊愛護하여 주심을 敬要

昭和十年十二月一日

**每日申報社**

一、名稱 **春川支局**

一、位置 春川郡春川邑本町

一、區域 春川郡 華川郡 洪川郡 楊口郡 麟蹄郡

一、支局長 李漢復

**破滅에서 史生으로**

**廿餘麻藥中毒者**

原州治療所成績 予良好

廿日退所式舉行

【原州】原州麻藥中毒者治療所에서는 一月前부터 麟蹄 洪川 麟蹄 康津 平昌等地에 散在한 麻藥中毒者 二十餘名을 모아 原州警察署以下 派員의 行하얏는데 患者들은 麻藥中毒의 熱毒治療로 全部完治되 醫에 感淸不已한다고 한다.

**水害早霜雹災等**

**農作被害四十萬圓**

그중 粟과 蕎麥이 首位

【춘천】 강원도 관내에 1년 동안 수해, 서리, 우박, 야도충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피해된 농작물의 피해액이 398,308원에 달한다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히 적으면 수해만은 면적 2,648정에 피해액이 151,516원이고, 서리의 피해는 면적 13,213정에 피해액이 19,312원으로서 인제 양구 회양 강릉 삼척 평창 평강 이천 등지가 가장 심하였다고 하며, 조야도충 피해는 면적이 2,600정에 피해액이 38,418원이라는데 피해지는 춘천 양양 삼척 울진 원주 철원 평강 등지라고 하며 우박의 피해는 면적이 1,037정에 피해액이 15,332원

이러는데 피해지는 영월 이천 등지라고 한다. 이를 다시 종합해보면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데는 세공민이 대부분 살고있는 산협지대이며 피해 농작을 중별로 보더라도 세공민 계급의 식량으로 쓰이는 조와 메밀 등이 제일 피해가 많다고 한다.

1935-12-27-06-07

**매일신보**

**광업권설정이전**

광업권 이전(12월 23일부 총독부 광보 발표)

\*인제군 발취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등록월일	광업자주소시명
1191	인제군 인제면	12월 2일	서울(대표) 최응주 홍천 오경식

1935-12-30-04-02

**매일신보**

**간이학교 설치에 두 여사의 미거, 과부의 몸으로써 거대한 기부**

【춘천】 인제군 기린공립보통학교 부설 상남간이학교는 인제면 상남리 뿐 아니라 내면과도 접경이라 내면 아동도 공히 다니는 관계로 저간 신학교를 건축하는데 내면 미산리 안운정여사가 동교에 대지 500평과 기린면 상남리 최수기여사가 는 500평, 동리 박순길씨가 는 300평 합 1,300평을 기부하였는데 안운정, 최수기 두 여사는 일찍이 흘려되어 근근히 모은 재산 중에서 동교에 기부케 되어 일반은 두 여사의 특지에 감격하는 중이라고 한다.

1935-12-30-04-02

**매일신보**

**인제군 의례준칙 실행 상황 양호 색복착용도 80%**

【춘천】 인제군에서는 저간 의례준칙 및 색복착용의 보급에 대하여 군면 및 관계기관의 철저 지도장려와 군민의 자각으로 선전기간 중의 성적을 보면 선전기간 중에 군내 관혼상제수는 관례 8, 혼례 34, 상 14, 제례 90 합146건인데 기간 중 실행한 수는 합계 121건으로 의례준칙에 의치 않은 것은 불과 25건의 소수인데 이것도 준칙에 의하여 실행케하도록 군당국에서는 금후 노력하리라 하며 또 색복착용자는 군민 전체에 81%가량이라는 호성적을 보이고 있다.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二四七三	求禮郡光義面	十二月二日	東京全羅鑛業株式會社
八八五六	井邑郡古阜面	同日	京城 梶原 瑞夫
九七二六	光陽郡玉龍面	同日	京城 阿部 孟左衛門
五九五五	永川郡古鏗面	同日	京城 丁 奎泰
一三〇九五	高靈郡德谷面	同日	京城 東光路事務所株式會社
八九二〇	蔚山郡新陽面	同四日	京城(代表)李 善植 同(代表)全 福孫 同(代表)吳 敬應
一一九一	麟蹄郡麟蹄面	同日	京城(代表)吳 敬應 同(代表)崔 植植

**簡易學校設置에 兩女史의美舉**

募 의 몸으로써 거대한 기부

【春川】麟蹄郡麟蹄公立普通學 五百坪同里朴淳吉氏捐資三百坪 校址設上南簡易學校는麟蹄面上 合千三百坪을寄附하였는데安雲 南里史아나라內面과도接境이라 井,崔壽基兩女史는일찍이홀로 內面同童도 하던나 麟蹄로這 되어僕々히호은財產中에서同校 開辦을 爲 樂하는데內面美山 에寄附케하여一設은兩女史의特 甲安云井女史가同校에委五百坪 志에感激하는中이라고한다 麟蹄面上南里崔壽基女史가舊

**麟蹄郡儀禮準則 實行狀況良好 色服着用도八割**

【春川】麟蹄郡에서 色服着用의 準則을 徹底하게 實行한 結果로 色服着用의 率이 八割에 達한 事實을 報하는 中이다. 色服着用의 準則은 色服着用의 準則을 徹底하게 實行한 結果로 色服着用의 率이 八割에 達한 事實을 報하는 中이다.

1935-12-30-04-02

### 매일신보

#### 自手로 양잠 직조까지 실행, 명 군수 부인의 근로

【춘천】 인제군수 명인화씨 부인은 저간 추잠 1매반을 자기 손으로 관사에서 소립하여 얻은 견으로 여가있는 때마다 명주를 짜기 시작한 것이 300여자의 직조케되어 주야를 불구하고 이와같이 노력함에 대하여는 일반촌 부녀자의 모범이 되리라고 일반읍민은 칭송이 자자하다.

1936-01-23-04-07

### 매일신보

#### 관동명덕회서 고령자에 세찬

【춘천】 관동명덕회에서는 강원도내에 있는 고령자 즉 90세 이상된 노인에게 경로의 의를 표하기 위하여 음력 연말을 기하여 세찬으로 금일봉씩(1원50전) 증여키로 되었는데 도내에 90세 이상의 고령자가 113명으로 각 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 ▲춘천 5 ▲인제 7 ▲회양 11 ▲통천 1 ▲고성 2 ▲양양 2 ▲강릉 5
- ▲삼척 9 ▲울진 13 ▲정선 3 ▲평창 14 ▲영월 5 ▲원주 7 ▲횡성 1
- ▲홍천 2 ▲화천 6 ▲김화 1 ▲철원 4 ▲평강 5 ▲이천 7 합계 113명

1936-01-24-04-04

### 매일신보

#### 인제군시찰단 춘천지방 시찰

【춘천】 인제군내 각면 기술원으로서 조직된 시찰단은 인제군산업기수 박영규씨 인솔하에 춘천으로 와서 춘천군 동산면에 산식 뽕나무밭 즉 산과 화전 등에 뽕나무 심은 성적을 시찰하기로 위하여 18일에 현지로 향하여 출장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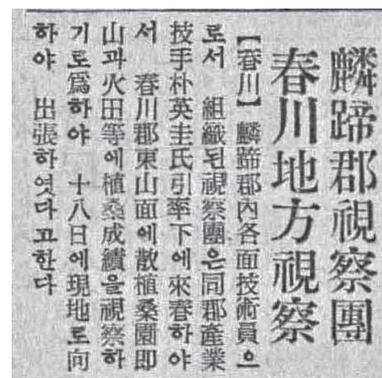
1936-02-06-04-02

### 매일신보

#### 기원가절에 표창될 공로자 강원도 관하

【춘천】 2월 11일 기원가절의 가일에 강원도내의 각 공로자를 도에서 표창할 계획으로 그간 각군의 내신을 검토하여 좌와 같이 표창키로 결정되었다 한다. \*인제군 발취

- 4. 우량면장 및 리원 또는 독행자
  - 인제군 남면 서기 남경우
  - 5. 납세 우량단체 및 납세독행자
  - 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의식동납세계
- 이외에도 청년단의 표창이 있는데 미결정이라고 한다.



1936-02-19-04-03

### 매일신보

#### 1940년 중 강원도 수확고 100만석 돌파

【춘천】 1935년도 강원도 쌀 작부반별 및 수확고를 보면 총작부반별 92,138정이며 총수확은 1,002,832석인데 이를 각 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군명	작부반별	수확고
춘천	4,926정4	55,658석
인제	2,568정7	27,735석

(중략)

### 昭和十年中 江原道収穫高

〔春川〕昭和十年度江原道不作為反別及取穫高を以て總作付反別九二、一三八〇三、四〇〇石に對し、總收穫高を各郡別を以て左如す。

郡名	作付反別	收穫高
春川	四九、六四〇石	二、七七〇石
原州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寧越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平康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高城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通川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高陽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江陵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三陟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商山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廣善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平昌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寧邊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南浦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洪川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橫城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洪川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華川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金化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鐵原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平康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伊川	二、八八八石	二、八八八石
計	九二、一三八〇三、四〇〇石	一、〇〇二、八三二、八三二石

1936-03-04-03-11

### 동아일보

#### 1년 주류 밀조 168건, 벌금액만 1,800원 흥천 인제 두군에만

【흥천】 강원도 흥천세무서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세무서 관내에 작년 1년동안 주류 밀조건수가 168건에 달하며 벌금액이 1,822원이라 하며 인지세 위반이 416건에 벌금액이 240원이라 한다.

### 一年酒類密造 百六十八件

벌금액만 1,800원  
洪川, 麟蹄兩郡에만

【흥천】 강원도 흥천세무서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관내에 작년 1년동안 주류 밀조건수가 168건에 달하며 벌금액이 1,822원이라 하며 인지세 위반이 416건에 벌금액이 240원이라 한다.

1936-03-08-02-08

### 매일신보

#### 기특한 학동, 돈을 주워 주인에게

【인천】 기특한 학생! 지난 6일 밤 부내 우각리과출소에 제일공보학생이 10원 지폐 6매를 습득하였다고 가져왔는데 그는 제2학년 2조생도인 부내 읍목리 42번지 임명근씨 장남 영택(11)으로 이 돈의 분실주는 강원도 인제군 내면 창촌리 이찬(56)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풀을 판 돈 60원을 금곡리 가두에서 송두리째 잃어버렸는데 그는 습득 아동의 기특한데 감사한 정을 표시하고자 8원을 주었다 한다.

### 奇特한學童

돈을 주워 주인에게

【仁川】 인천물목리 (栗木里) 미곡중개업 임명근 (林明根) 씨의 장남 인천제 (一童) 이는 6학년연령의 (英澤) 이는 지난 5일 저녁 하교도중 부내 금곡리 (金谷里) 노상에서 현금 60원을 습득하였다. 즉시 부근과 출소에 제출하였다. 유실한 사람 은 7일 아침 인근 내면 창촌리 (麟蹄郡內面倉村里) 읍장사리 찬 (李濤) (56)으로 판명되었는데 유실한 돈을 다시 차근차근 노는 한 고장까지 가져다 보고 영

1936-03-08-04-13

### 매일신보

#### 지방인사

▲명인화씨(인제군수) 도속 통상총회 참석차 지난 14일 도로 감.

### 地方人 室

▲康瓊載氏 (高城郡守) 道農通
▲管總會參席次子 4日 上遊
▲桂珉潭氏 (平康郡守) 同上
▲金旻明氏 (洪川郡守) 同上
▲李煥燮氏 (橫城郡守) 同上
▲鄭然基氏 (江陵郡守) 同上
▲明麟瑞氏 (麟蹄郡守) 同上
▲李瑛洋氏 (楊口郡守) 同上
▲李起明氏 (華川郡守) 同上
▲崔防連氏 (原州郡守) 同上
▲金昌斗氏 (平昌郡守) 同上
▲朴在淳氏 (伊川郡守) 同上
▲鄭池亨氏 (襄陽郡守) 同上
▲阿那達一氏 (鐵原郡守) 同上
▲尹熙再氏 (通川郡守) 同上
▲成基發氏 (寧越郡守) 同上
▲尹昇老氏 (三陟郡守) 同上
▲崔炳發氏 (蔚山郡守) 同上
▲趙應錫氏 (淮陽郡守) 同上
▲黃恒根氏 (淮陽郡守) 同上
▲李弼國氏 (金化郡守) 同上



1936-04-06-02-13

### 동아일보

#### 인부 2명 중상

【웅기】 지난1일 오후2시경에 웅기읍 송평동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 원적을 둔 김홍석(42)과 함안군 하동면 하동리 장석근(39)은 공사장에서 땅을 파다가 그만 산이 무너져서 각2주일 치료를 받을 중상을 당하여 방금 입원치료 중이란다. 이들은 경남도에서 이민한 이재민들이라는데 하루에 60, 70전에 불과한 노임으로 전가족들이 연명해왔는데 이와같이 뜻밖에 참변당한 노동 가족들의 처참한 정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짜내게 한다고 한다.

1936-05-06-05-07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결핵환자 880여명 춘천 270명이 최다수

【춘천】 강원도내의 현재 결핵환자수는 도 위생과에서 조사한 것의 의하면(1936년 4월말 현재) 일본인이 168명 조선인이 720명 계 888명의 다수에 달하고 있으나 이것을 타도에 비하면 비교적 근소한 셈인데 이것을 각 군별로 보면 춘천의 272명이 최고이고 횡성의 6명이 최소한 바 군별로 세별하면 좌와 같다.

	남자	여자
인제	일본인 2	-
	조선인 30	21 (중략)

1936-05-09-05-04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각 군에 농진강화 좌담회, 지사 이하 도 간부도 출장 임석

【춘천】 강원도의 농산촌은 진흥운동 실시이래 도당국에서 본부의 대방침에 순응하여 시의에 적한 적절계획을 수립하고 관민일치 노력하여 갱생의 기분이 비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 지방관계 직원의 농가 및 농촌 지도의 실제적 성적을 검토하여 보건대 직접지도의 중임을 가진 관계직원이 농가갱생계획에 관한 지도 정신의 진의에 철저히 못한바 있으며 우는 농가 지도에 열심히 연구 공부를 아니하며 혹은 신념적 봉사의 정신을 망각하여 활동을 게을리하는 등의 결함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일 도에서는 이의 강화 철저에 관한 타합회를 개최하고 각 관계자의 보급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금후 다시 관하 지방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농가지도상 농가 지도상 솔직하게 지도신념을 발휘시켜 일층 농가의 갱생, 농촌진흥에 매진시키고자 금번 각군에서 일제히 농가갱생 지도의 신념 확립 및 계획 실행의 강화 철저를 기코져 강원도지사 이하 도 간부 총동원 하에 좌기 일정에 의하여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江原道内結核患者 八百八十餘名

春川二百七十名이最多數

郡	男	女	計
春川	162	110	272
襄陽	104	79	183
平康	3	2	5
鐵原	1	1	2
金化	2	1	3
華川	4	3	7
洪川	1	1	2
計	272	168	440

國內 朝鮮人 八八

1.좌담회 출석자

(1) 군농촌진흥회위원 (2) 읍면장 및 사무관계 면서기 (3) 보통학교장 (4) 경찰관 주재소 수석 (5) 금융조합 이사 또는 부이사

2. 연구협의사항 (1) 갱생농가로 하여금 갱생계획을 가장 용이하게 정확히 실행하는데 적절한 지도상 급 실행의 구체적 방법 (2) 현황조사서 및 갱생계획표를 급 일층 평이하게 할 구체적 방법 및 그 양식 등

3. 좌담회에 도직원 출석 좌담회에는 지사 이하 도 간부 출석

4. 좌담회에 관한 시설 독려

(1) 농가갱생계획 실행에 관한 상황 (2) 자급비료 신증제 설비 실행에 관한 상황

5. 좌담회 및 독려 일정표

제1반 춘천군 5월 21일부터 3일간 홍천군 동 24, 25 양일간

제2반 횡성군 동 26일부터 3일간

제3반 평창군 24, 25일 양일간 정선군 5월 25일부터 3일간 영월군 동 28, 29 양일간

제4반 화천군 24일부터 3일간 양구군 동 27일부터 3일간 인제군 동 30, 31 양일간

제5반 고성군 동 28, 29 양일간 통천군 동 23일부터 3일간

제6반 양양군 동 23일부터 3일간 울진군 동 26, 27 양일간 강릉군 동 26, 27 양일간

제7반 삼척군 동 23일부터 3일간 울진군 동 26, 27 양일간

제8반 철원군 22일부터 3일간 평강군 동 25일부터 3일간 이천군 동 28일, 29 양일간

제9반 김화군 동 22일부터 3일간 회양군 동 25, 26 양일간

(도직원 출정 일정은 추후 발표)

1936-05-18-04-09

매일신보

강원도 묘대 품평 심사일정 발표

【춘천】 강원도농회 주최의 올해 묘대 품평회를 제1차로부터 제4차까지의 (판독불능)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구 심사원 목촌 도기수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춘천 양구 인제 홍천

제2구 심사원 속말 도기수 양양 고성 통천 평강

제3구 심사원 고목수산업 기사 강릉 삼척 울진

제4구 심사원 중천 산업기수 횡성 평창 영월 원주

제5구 심사원 최 산업기수 철원 이천 김화 화천

**江原道丙各郡에 農振強化座談會**  
 知事以下道幹部도出張臨席  
 【春川】江原道の農山漁業振興課長...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symposium)

第一班 春川郡 五月二十一日 午前九時	第二班 洪川郡 五月二十二日 午前九時	第三班 橫城郡 五月二十四日 午前九時	第四班 寧越郡 五月二十五日 午前九時
第五班 蔚珍郡 五月二十六日 午前九時	第六班 平康郡 五月二十七日 午前九時	第七班 寧越郡 五月二十八日 午前九時	第八班 金化郡 五月二十九日 午前九時
第九班 華川郡 五月三十日 午前九時	第十班 鐵原郡 五月三十一日 午前九時	第十一班 平康郡 六月一日 午前九時	第十二班 蔚珍郡 六月二日 午前九時

**江原道苗木品評 審査日程發表表**  
 【春川】江原道農會主催の本年苗木代品評會...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seed review)

第一區審査員 木村道技手	第二區審査員 栗末道技手	第三區審査員 高木産業技手	第四區審査員 中川産業技手
第一區 春川 楊口 麟蹄 洪川	第二區 高城 通川 平康	第三區 蔚珍 蔚珍	第四區 平昌 寧越 原州
第五區 鐵原 鐵原	第六區 金化 金化	第七區 華川 華川	第八區 華川 華川

1936-05-21-02-04

### 동아일보

#### 직업을 미끼로 혈금을 사취

실업흥수를 헤엄칠치면서 사기 행각을 하던 일당 4명이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었다. 범인은 인제군 출생으로 일정한 주소가 없이 돌아다니는 박수룡(21) 등 4명으로 19일 오후 1시 파고다 공원안에서 무류하게 배회하고 있는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김은동(19)을 붙들고 직업을 구해주마고 물어본 후 자기네는 동대문밖 건직회사의 공장장과 직공감독들이라 한 후 마침 어제 직공 1명을 내쫓았으니 그대신 그대를 취직시킬 터이니 피복비로 3원을 내라고 한 것이라 한다. 김은동이 반색을 하여 시제는 1원밖에 없다고 내어준즉 그들은 돈 2원을 더 내지않는다고 함부로 구타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실을 피해자가 종로서에 고발하였으므로 자전거로 추격하여 조선극장 부근에서 전부 체포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행동을 빈번히 하고 돌아다니 모양이므로 여죄를 추궁하는 중이라 한다.

1936-05-22-01-10

### 동아일보

#### 지방사령

임 군수(7등) 명 경기도 파주군 재군 (강원 인제군수) 명인화

1936-06-07-05-10

### 매일신보

#### 인제군농진 좌담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5월 30일 군청회의실에서 군내 각관공서 대표자 및 지방유지 80여명을 초집하여 농촌진흥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도로부터는 무전 이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각기 충분한 의견교환과 희망사항 제출로 상당히 참고될 점이 많았으며 다음 31일에는 3반으로 나뉘어 각 갱생부락의 실지 지도가 있었다 한다.

1936-06-07-05-11

### 매일신보

#### 인제군 면장회의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일 군청회의실에서 남리 내무주임의 통재하에 면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지시 주의 및 타합 희망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시주의사항 (중략)

**職業을미끼로 血金을詐取**

실업흥수(失業興水)를 헤엄칠치면서 사기 행각을 하던 일당 4명이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었다. 범인은 인제군 출생으로 일정한 주소가 없이 돌아다니는 박수룡(21) 등 4명으로 19일 오후 1시 파고다 공원안에서 무류하게 배회하고 있는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김은동(19)을 붙들고 직업을 구해주마고 물어본 후 마침 어제 직공 1명을 내쫓았으니 그대신 그대를 취직시킬 터이니 피복비로 3원을 내라고 한 것이라 한다.

任(任) 命(命) 江(江) 原(原) 縣(縣) 署(署) 守(守)

明(明) 諭(諭) 錄(錄)

任(任) 命(命) 江(江) 原(原) 縣(縣) 署(署) 守(守)

明(明) 諭(諭) 錄(錄)

**麟蹄郡農振座談**

【麟蹄】麟蹄郡에서는 지난五月三十日 郡農會議室에서 內各官公署 代表者及地方有志八十餘名을招集하여 農村振興에對한 座談會를開催하였는데 道로부터는 武田理財課長이 參席하였스며 各其充分한意見交換과希望事項提出로 相當히 考察點이 많았스며 翌三十一日에는 三班으로分하여各更生部落의 實地指導가 있었다 한다.

麟蹄郡農振座談會 一、麟蹄郡農振會는 昨(20)일 郡農會議室에서 內務主任 武田理財課長 及 地方有志 八十餘名을 招集하여 農村振興에對한 座談會를 開催하였는데 道로부터는 武田理財課長이 參席하였스며 各其充分한意見交換과 希望事項提出로 相當히 考察點이 많았스며 翌三十一日에는 三班으로 分하여 各更生部落의 實地指導가 있었다 한다.	麟蹄郡農振會 座談會 一、麟蹄郡農振會는 昨(20)일 郡農會議室에서 內務主任 武田理財課長 及 地方有志 八十餘名을 招集하여 農村振興에對한 座談會를 開催하였는데 道로부터는 武田理財課長이 參席하였스며 各其充分한意見交換과 希望事項提出로 相當히 考察點이 많았스며 翌三十一日에는 三班으로 分하여 各更生部落의 實地指導가 있었다 한다.
麟蹄郡農振會 座談會 一、麟蹄郡農振會는 昨(20)일 郡農會議室에서 內務主任 武田理財課長 及 地方有志 八十餘名을 招集하여 農村振興에對한 座談會를 開催하였는데 道로부터는 武田理財課長이 參席하였스며 各其充分한意見交換과 希望事項提出로 相當히 考察點이 많았스며 翌三十一日에는 三班으로 分하여 各更生部落의 實地指導가 있었다 한다.	麟蹄郡農振會 座談會 一、麟蹄郡農振會는 昨(20)일 郡農會議室에서 內務主任 武田理財課長 及 地方有志 八十餘名을 招集하여 農村振興에對한 座談會를 開催하였는데 道로부터는 武田理財課長이 參席하였스며 各其充分한意見交換과 希望事項提出로 相當히 考察點이 많았스며 翌三十一日에는 三班으로 分하여 各更生部落의 實地指導가 있었다 한다.

1936-06-09-04-04

### 매일신보

#### 인제춘잠 누에올리기 증가

【인제】 누에올리기 매수는 6,186매인데 안정 주임기수 이하 각 계원이 철저히 장려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186매가 증가하였다 하며 각면별 소립매수는 다음과 같다.

▲인제면 1,109매 ▲남면 1,259매 ▲북면 670매 ▲서화면 780매 ▲기린면 1,400매 ▲내면 968매 ▲합계 6,186매

1936-06-09-05-10

### 매일신보

#### 신임 인제군수 전재우씨 약력

【인제】 황성군 내무주임으로 발탁되어 금반 인제군수로 영진된 전재우씨는 1890년 강릉군 출생으로 1911년 6월 경찰계로부터 출신하여 1919년 경부에 승진 강릉 통천 삼척 춘천 각경찰서에 재임다가 1924년 강원도 군속에 임명된 이래 춘천 인제 강릉 원주 철원 등 각군을 거쳐 1933년 양구군 서무주임으로 승진 1935년 7월에 황성군 내무주임에 전근되었다가 금반 인제군수로 승진된 것인데 씨는 관계에 들어온 이래 근 30년간을 근면과 열성으로 종시일관한 격근 정력가로 명성이 높은만큼 금후 씨의 활약은 기대할 것이 많다고 한다. (사진은 전군수)

1936-06-14-05-06

### 매일신보

#### 원조방면에 감사의 인사, 경춘철도기성위원

【인제】 경춘철도기성회에서는 금반 철도실현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다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은 중부 각군의 관계당국과 동지방 인사에게 사의를 표하며 인사차로 7일 오전에 임원 5씨가 좌기 지방을 분담하여 역방하고 당일 오후 귀임하였다.

최양호 화천, 정은섭 흥천, 황도근 인제, 무구상차 양구, 이한복 가평

1936-06-17-04-07

### 매일신보

#### 광업권설정 및 이전 (6월 15일부 총독부 관보 발표)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등록월일 광업권자주소씨명  
12317 인제군 북면 5월16일 서울 길전희대장 (중략)

### 麟蹄春蠶掃立增加

【麟蹄】掃立枚數는六千一百八十六枚인데安井主任技手以下各係員이徹底的으로獎勵한結果昨年에比하여一百八十六枚가增加하였다하며各面別掃立枚數는다음과 같다

▲麟蹄面一、一〇九枚▲南面一、二五九枚▲北面六七〇枚▲瑞和面七八〇枚▲麟面一四〇〇枚▲丙面九六八枚▲合計六、一八六枚

### 新任麟蹄郡守 全在禹氏略歴



【春川】麟蹄郡守로任命된全在禹氏는明治二十三年江陵郡出生으로同十四年六月警察界로出身하여大正八年警察部에昇進 江陵 通川 三陟 春川各署에在任하다가大正十二年江原道江陵郡에任命된以來春川 麟蹄江陵原州 鐵原等郡守를 거쳐大正八年七月에麟蹄郡內務主任에轉任되었다. 今麟蹄郡守로昇進된것인데(는官界에드러온來近三十年間運動勳功勳으로終始一貫한運動勳功勳으로名譽이 높후만全在禹氏의活躍을期待할바라된다(實蹟은全部略)

### 援助方面에 感謝의 人事

#### 京春鐵道期成委員

【春川】京春鐵道期成會에서는今般鐵道實現에있어서直接間接으로多大한援助를不憚한中部各郡의關係當局과同地方人士의感謝意를表하며人事次로七日午前에役員五氏가左記地方을分擔하여歴訪하고當日午後歸任하였다

崔養浩 華川 丁殷燮 洪川 黃道根 麟蹄 久武常次 楊口 李漢復 加平

### 鑛權移轉 (六月十五日付總督府官廳發表)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二七	麟蹄郡北面	五月十六日	京城 吉田嘉代藏
一一五二九	順天郡順天	同八日	同代表 朝鮮 業附株式會社
九三三七七	天安郡北面	同十九日	順天 業附株式會社 孫晉 啟
一一八七二	平康郡樺津	同	京城 孫晉 啟
二〇二二三	平康郡樺津	同二十日	朝鮮砂鑛 業株式會社 金相彥
六五五六	金化郡遠花	同	東京 日本鑛業株式會社
一〇一〇六	奉化郡春陽	同二十一	釜山代表 岡崎英三郎
八五七六	豐山郡安水	同	同 渡邊千代三
一一九八三	洪原郡龍泉	同	新興代表 陳立 元 郭 錫
一〇一六五	保寧郡北川	同二十二	長津 白 榮 杰 洪城 中 原 八 郎 田 村 英 彦

1936-06-18-04-05

### 매일신보

## 수건 예상고도 전에 비해 10% 증가, 공판 출회는 오는 20일경

【춘천】 강원도의 금년 춘잠은 소립매수 8만5천매 산견예상고 3만 633석으로 전년에 비하여 약 10%의 증수를 예상하게 되었는데 그간 경과를 보면 지난 겨울 희유의 흑한으로 빵의 발육이 불량하여 일시는 염려되었으나 그 후 발아 때에 적당한 강우와 순조한 기후로 인하여 발육상황이 극히 양호하여 예상외의 호성적을 얻게 된 것이라는데 공판출회기는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각 군별로 본 공판출회예상고는 좌와 같다.

	4등건 이상	등외건 이하
춘천	1,800석	200석
인제	2,300석	200석
(중략)		
총계	30,633	

1936-06-18-05-04

### 매일신보

## 인제군에도 정조식 장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방금 이양기를 당하여 계원 이하 청원이 총 출동하여 극력 정조식 실시를 독려 중인데 금년으로 군내 논 면적에 대하여 전부 실시케할 방침이라 한다.

1936-06-23-04-09

### 매일신보

## 광업권 설정(6월 20일자 총독부 관보 발표)

등록번호 광종 광구소재지 등록월일 광업권자주소씨명 (중략)

13106 금은광 인제군 인제면 5월29일 서울 중산주

### 收籾豫想高도 比前一割增加

共販出廻ニ來廿日頃

【春川】江原道の今年春郷を播立收取八萬五千枚 産籾豫想高三萬六百三十三石으로 前년에 비하여約一割의増收を豫想하게 되었는데 以前豫想過高로因하여一時之空籾の發育不良を因하여發育狀況の豫想良好が豫想外の好成績を發見する事は 共販出廻期に來二十日頃より七月十五日까지各郡別로는共販出廻豫想高は如左하다

原州	一、三〇〇	寧越	一、三〇〇
寧越	一、三〇〇	原州	一、三〇〇
洪川	一、五〇〇	洪川	一、五〇〇
金化	一、五〇〇	金化	一、五〇〇
平康	一、五〇〇	平康	一、五〇〇
伊周	一、五〇〇	伊周	一、五〇〇
計	一、三〇〇	計	一、三〇〇

### 麟蹄郡에도 正條植獎勵

【麟蹄】麟蹄郡에서는方今移秧期를富히야係員以下懸員이總出動하여極力正條植實施を督勵中인데今年之郡内畜總面積에對하여全部實施케할方針이라한다

### 鑛業權設定及移轉

鑛業權設定(六月二十日付總督府官報發令)

13101	鑛種	鑛區所在地	發令日	鑛業權者住新氏名
13101	鑛種	關天郡豐寧面	五月二日	鐵安
13101	鑛種	谷城郡石室面	同	鐵安
13103	鑛種	論山郡論山面	同	鐵安
13103	鑛種	天東郡道山面	同	鐵安
13104	同	新義郡美水面	同	鐵安
13105	鑛種	金化郡近東面	同	鐵安
13106	鑛種	麟蹄郡麟蹄面	同	鐵安
13107	同	光若郡光若面	同	鐵安
13108	同	洪原郡寶寶面	同	鐵安
13109	同	楚山郡江面	同	鐵安

1936-06-25-05-08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가로수 43만3,000그루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로 보호수의 대응으로 도내 각 군에다가 적극적으로 수목 식재를 장려하여 경제적으로나 혹은 이용가치 등 여러가지로 효과가 많다는데 6월 20일 현재 조사에 의한 재수목은 29만4,634m에 43만4,613그루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각 군별로 세 별하면 다음과 같다.

군명	거리(m)	수량(그루)	군명	거리(m)	수량(그루)
춘천	7,893	15,831	인제	5,560	8,750
양구	7,179	14,473	회양	80,453	83,470
통천	9,282	18,564	고성	19,784	38,404
양양	15,410	30,820	강릉	13,586	30,897
삼척	14,264	29,110	울진	796	4,888
정선	5,097	10,244	평창	6,875	13,366
영월	2,164	4,359	횡성	6,524	12,940
홍천	5,166	10,297	화천	1,721	3,598
김화	36,196	22,820	철원	30,171	33,144
평강	9,790	14,970	이천	8,554	17,120
계	294,634	434,613			



1936-06-28-05-08

### 매일신보

#### 강원도 모내기는 54% 정도

【춘천】 강원도의 이앙상황을 도 농림과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20일 현재) 이앙 예정면적 9만1,681정보 중 이앙된 것이 5만1,300정보로 54.7%리에 해당한데 이것을 전년의 93.5% 약 5개년 평균 비율인 92.1%에 비하면 극히 불량한 터로 전일 19, 20 양일에 걸친 강우는 통천지방의 62mm가 최고이고 영월의 8mm가 최소인데 도내 전체로 보면 평균 30mm가량 밖에 안되어 이 근소한 비로는 지금까지 이앙치 못한 것을 전혀 이앙할 수 없다고 한다. 강원도는 기후가 남선 지방과 판이하여 이앙기가 이르므로 만일 금월 28, 29일경 이내까지 풍족한 강우가 없으면 시기가 지나쳐 버려 그 후에는 비가 아무리 온됐자 별반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일반 농촌에서는 극도의 불안에 싸여 있는데 실로 전도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앙(50% 이하)이 불량한 군은 인제 회양 삼척 울진 정선 원주 횡성 홍천 등 9군인데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한 군은 원주의 20%, 횡성의 27%, 회양의 30%, 울진의 32% 등이 가장 흑심한 것으로 강원도의 농촌은 의견 불안에 싸여있다.



1936-07-02-04-06

### 매일신보

#### 인제군 보리류 수확 격감

인제군에서는 지난 겨울과 올봄의 냉해를 받아 보리류 농사 피해가 적지않은데 여기다가 풀베기 시기까지 늦어서는 일층 감수를 보게 될 것이라 하여 29일부터 군계원 총동원으로 군내 일제히 보리류의 풀베기를 독려하고 있는데 금년의 보리류 농사는 예년 작에 비하여 60% 내지 70%의 대감수를 예상하고 있다.

1936-07-08-02-05

### 매일신보

#### 남편 모르게 뱀 아기 낳아 압살, 병 고치러 가고 남편 없는데 잡화행상과 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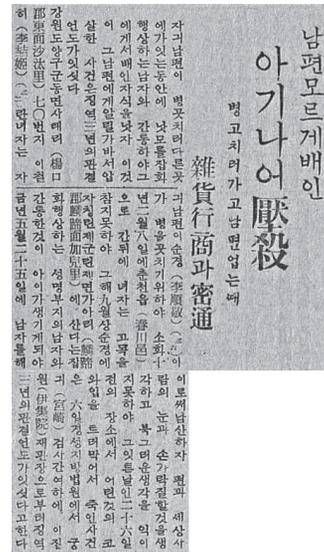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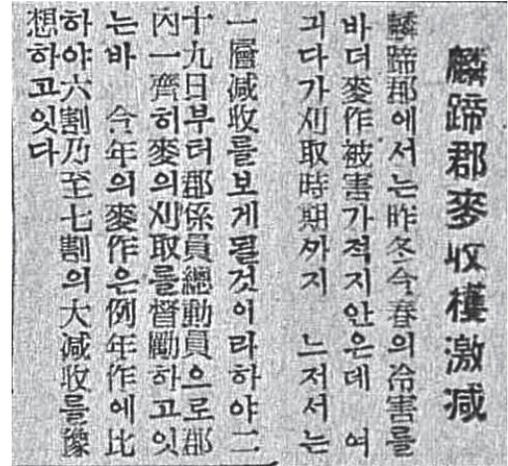
자기 남편이 병 고치러 다른 곳에 가있는 동안에 낫모를 잡화행상하는 남자와 간통하여 그에게서 배인 자식을 낳자 이것이 그 남편에게 알릴까봐서 압살한 사건은 징역 3년의 판결연도가 있었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사대리 70번지 이철희(32)란 여자는 자기 남편 이순경(35)이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1935년 2월 8일에 춘천읍으로 간 뒤에 여자는 고독을 참지못하여 그해 9월 상순경에 자칭 인제군 인제면 가아리에 산다는 잡화행상하는 성명 부지의 남자와 간통한 것이 아이가 생기게되어 금년 5월 20일에 남자를 해산하자 남편과 세상사람의 눈과 손가락질할 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그 이튿날인 26일 전의 장소에서 어린것의 코와 입을 틀어막아서 죽인 사건은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공기검사 간여하에 이진원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3년의 판결연도가 있었다고 한다.

1936-07-10-05-09

### 매일신보

#### 북부강원지방 중견청년강습 1일부터 5일 내금강에서

【철원】 농촌교화 농촌지도 농촌개발 등 농촌 광구사업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농촌진흥의 중추이며 원동력을 가진 지방 중견청년들로 하여금 심신을 수양케하여서 갱생운동에 본격적 활약을 나타내고자 강원 북부(철원 평강 김화 회양 이천 통천 고성 양양 인제 양구 화천) 중견청년강습회를 개최한다고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예정과 같이 전기 각군으로부터 자력갱생과 농촌진흥을 그들의 두어깨에 걸머지고 돌진할만한 청년 70명을 선별회합케 하여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을 내금강의 금강각에서 개최되어 매일 규율적 공동생활리에 강사로 흥 참여관을 위시하여 신곡 내무부장, 이길 사회주사, 관근 도숙, 불전 강사, 김태치, 팔심본 총독부 촉탁 등의 열심 강연과 창가, 체조에 규율있는 지도훈련으로 종시 공기 긴장리에 심신을 단련하여 발자한 자력갱생의 기력과 울발한 농촌 개발의 의기를 크게 진작케하였다.(사진은 중견강습회 기념촬영)



1936-07-16-05-06

### 매일신보

#### 강원 전도에 밀 공판 실시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산물의 판매개선에 대하여서는 기왕부터 부단히 진력하여오는 터인데 특히 본년은 수확이 감소되겠으므로 이에 비취 농가의 현금 수입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의 대책으로 밀을 고가로 매매하도록 하여 현금 수입을 풍부케 하는 것이 본년 한해에 인한 수입감을 보충하는 동시에 일반 농가 교육이 일조가 될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강원도 농회에서 조선곡자회사와 교섭한 결과 고가매입을 응락하였는데 공판 기간은 7월 중순부터 2개월간이며 각군별로 본 출하 할당은 좌와 같다.

춘천 1,300석 인제 250석 양구 350 회양 100 통천 250 고성 300 양양 450 강릉 1,400 정선 150 평창 150 영월 1,000 원주 2,000 횡성 1,000 홍천 1,000 화천 300 김화 1,500 철원 800 평강 350 이천 800 총계 14,500석

1936-07-22-05-13

### 매일신보

#### 강원삼림주사보 시험합격자 발표

【춘천】 저번 춘천 강릉 두 개소에서 시행한 강원도삼림주사보 채용시험에 합격자를 18일부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로하 순) (지명은 원적지) 이강세(춘천), 이기수(강릉), 이두순(화천), 이한창(이천), 이종섭(인제), 염양환(평창), 송영철(원주), 우동계(홍천), 구홍수(춘천), 권오륜(강릉), 황규찬(철원), 홍준식(삼척), 전병왕(이천), 최환연(평강), 최병만(강릉), 김계성(회양), 김영철(춘천), 김영영(삼척), 김정원(이천), 김양기(양양), 김양진(강릉), 김태순(양구), 김인택(인제), 김황룡(양구), 주철록(양구)

1936-07-26-02-09

### 동아일보

#### 여생의 안식처 찾아 서울까지 무전여행 간곳마다 쫓김을 받고나서 서대문경찰서에 호소한 노파

강원도 인제군 창마리에 거주하는 장오봉의 어머니 김성녀(60)는 원수놈의 가난으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혹 서울에 나가면 그래도 나을까 하고 역시 극빈에 울고있던 한동리 노파 이씨 박씨와 작반하여 맨주먹에 단돈 20전을 쥐고서 15일 동안 문전걸식을 하며 서울로 찾아왔다 한다.

서울에 왔으나 예상과는 반대로 먹기는 그만두고 잠잘 곳 마저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함께온 두 노파까지 잃고 김성녀는 영천 어느 집 어린이를 업어주기로 하고 들어갔었다. 그러나 이것도 분의 넘친 복이었는지 애를 업어준 지 단 3일도 못되어 어린이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의 부모들은 이 노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이 들어 귀동자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만 쫓아내어 어디 갈곳없이 밤낮 2일 동안 거리로 헤매다가 마침내 25일 밤 발길이 서대문경찰서 앞에 이르지 "내 갈곳을 알려주오"하고 애소하여 방금 경찰서에서는 가없는 노파를 보호중이라 한다.

### 江原全道에 小麥共販實施

【春川】江原道에서는農産物의販賣改善에對하여는既往부터不斷히努力하여오는に似ないが本年은收穫이減少되겠으므로此に伴하여農家の現金收入도減少を高價로賣買하도록하여現金收入을豊富케하는것이本年夏曆에因り收入減を補充するに對して一方農家教育の一助が第一石二鳥の効果があることとして江原道農會에서는朝鮮總子會社と交渉한結果高價買入金協約を七月二個月間販賣開始は七月中旬より二個月間이며各郡別로는用額富を如左하다

春川一、三〇〇石 麟蹄二五〇〇石

楊口	三五〇	淮陽	一〇〇	通川	二五〇
高城	三〇〇	襄陽	四〇〇	三陟	七〇〇
蔚珍	三五〇	旌善	一五〇	平昌	一五〇
寧越	一〇〇	原州	二〇〇	橫城	一〇〇
洪川	一〇〇	華川	三〇〇	金化	一〇〇
鐵原	八〇〇	平康	三五〇	伊川	八〇〇
龜計	一五〇〇	石			

### 江原森林主事補 試驗合格者發表

【春川】道設春川江陵兩個所に施行한江原道森林主事補採用試驗에合格者를十八日付로 다음과如히發表하였다

(이로하順) (地名은原籍地)

李康世(春川) 李起壽(江陵) 李斗章(華川) 李漢昌(伊川) 李鍾燾(旌善) 廉良燾(襄陽) 曹榮燾(江陵) 曹敬季(平昌) 宋榮燾(原州) 曹東季(洪川) 具興壽(春川) 權五倫(江陵) 黃圭瑛(鐵原) 洪敬權(三陟) 田炳王(伊川) 崔敬延(平康) 崔秉萬(江陵) 金季成(淮陽) 金永哲(春川) 金聖榮(三陟) 金央燾(伊川) 金增起(襄陽) 金仁澤(麟蹄) 金黃龍(楊口) 朱鐵鹿(楊口)

### 餘生の安息處 찾아 京城까지 無錢旅行 西署에 呼訴한 老婆

간곳마다 쫓김을 받고나서

강원도 인제군 창마리(春川)에 거주하는 장오봉의 어머니 김성녀(60)는 원수놈의 가난으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혹 서울에 나가면 그래도 나을까 하고 역시 극빈에 울고있던 한동리 노파 이씨 박씨와 작반하여 맨주먹에 단돈 20전을 쥐고서 15일 동안 문전걸식을 하며 서울로 찾아왔다 한다. 서울에 왔으나 예상과는 반대로 먹기는 그만두고 잠잘 곳 마저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함께온 두 노파까지 잃고 김성녀는 영천 어느 집 어린이를 업어주기로 하고 들어갔었다. 그러나 이것도 분의 넘친 복이었는지 애를 업어준 지 단 3일도 못되어 어린이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의 부모들은 이 노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이 들어 귀동자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만 쫓아내어 어디 갈곳없이 밤낮 2일 동안 거리로 헤매다가 마침내 25일 밤 발길이 서대문경찰서 앞에 이르지 "내 갈곳을 알려주오"하고 애소하여 방금 경찰서에서는 가없는 노파를 보호중이라 한다.

1936-08-01-04-04

### 매일신보

## 강원도 인삼재배 11만9천여평, 당국의 지도 착착 주효

【춘천】 강원도는 기후 풍도가 인삼재배에 적당하여 자생한 본도에서 산출하는 인삼은 속칭 강삼으로 각지에서 성가가 높았는데 근년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장려가 없기 때문에 널리 선전이 되지 못하였으며 겸하여 국부적으로 식재함에 불과하여 그 생산고가 근소함을 유감으로 생각한 도위생과에서는 더욱 이를 대대적으로 장려키 위하여 재배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가하여온 까닭에 최근에 와서는 성적이 점차로 양호하여져서 작년도에는 현재 도내의 재배면적 119,135평 재배인원 308명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 1평에 대하여 70전의 생산고가 있어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입이 많은 편이므로 금후 더욱 유망하다고 한다. 인삼 종별을 보면 춘천 및 강릉 이남은 경북 영주풍기삼을 재배하고 기타 북은 개성삼을 재배하고 있다. 금후 당국에서는 더일층 이에 대하여 적극적 장려를 가할 터이러는데 각군별로 본 재배면적 및 인원(1936년 6월말)을 조사한 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명 재배면적(평) 재배인원수(명)

춘천	300	4
인제	3,683	28

(중략)

1936-08-09-05-03

### 매일신보

## 강원도 제5차 갱생부락 설치 공작, 특히 지도주간을 설정하고 지사이하 출동 독려

【춘천】 강원도의 농산어촌 진흥운동은 실시이래 어언간 4년이 지난 금일에 모든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와서 제1차 갱생지도부락은 명년으로서 계획 완성을 보게 되며 일단락을 고하게 되었으나 또다시 금후 10년 확충계획에 의한 제5차 지도부락의 설정으로 인한 준비공작시대에 봉착되어 있음으로 이번 기회에 기초공작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강원도에서는 갱생부락 지도 주간을 일제히 실시하고 도지사이하 각간부가 총동원으로 실시독려를 하여 중요시설의 강화 철저를 도모할 터라고 한다.

갱생지도부락 일제 실시 요항

1. 독려사항
  - (1) 자급비료 증제 상황
    - (가) 퇴비 증제 상황
      - (나) 퇴비장의 설비개량(소정의 준비에 달하지 못할시에는 주간중에 필히 개량시킬일)
      - (다) 우축사의 개조(소정의 준비에 달하지 못할시에는 주간중에 필히 개량시킬일)
      - (라) 초에 기타재료 모집성적 제비 방법의 양부 증제 목표 달성의 유무 등
    - (1) 액비
      - (가) 변소의 개량 (나) 액체비료함의 설치 (다) 액체비료 채취성적
  3. 면작상황(장려10개군)

### 江原道人蔘栽培 十一萬九千餘坪

#### 當局의指導, 著々奏効

【春川】江原道는氣候風土가人蔘一層此에對하여適宜한地帶에對하여自來本道에서産出する人蔘は俗稱江原蔘として各地で盛産するが近年は積極的に奨励がなされておらず、生産高が僅少なるを遺憾として、最近は積極的に指導を加へ、同時に生産高を改良するに努め、結果として、去年度は現在道内の栽培面積十一萬九千三百三十五坪、栽培人員三百八十八名に達して、平均一坪に對して七十錢の生産高が得られたと報告された。今後ますます有望であると見られ、人蔘種別を 보면、春川及江陵以南は慶北榮州蔘を栽培し、其以北は開城蔘を栽培していると、後當局에서는、

計	春川	洪川	鐵原	金化	原州	平康	襄陽	高城
一、九一、〇二〇	四、五〇〇	一、二五〇	一、九一〇	一、九一〇	四、六〇〇	九〇〇	七五〇	一、〇〇〇
二、一五〇	一、一〇〇							
三〇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 江原道第五次 更生部落設置工

#### 特히指導週間을設定하고 知事以下出動督勵

【春川】江原道は農山漁村振興運動が、実施以來、言はずに4年を経過し、今に至りては、第一回更生指導部락の完成を見るに至り、また、今後10年間の充實計画による、第五回指導部락の設置に際しては、準備作業の時期に當り、この機会に基礎作業を更に堅固にし、道内各官公署長官が、一丸となって、指導週間を設定し、知事以下、各官公署長官が、総動員して、指導週間を実施し、重要施設の強化、徹底を期すものと、後當局에서は、

- (一) 指導週間
- (二) 指導週間の設定
- (三) 指導週間の実施
- (四) 指導週間の督勵
- (五) 指導週間の報告

計	春川	洪川	鐵原	金化	原州	平康	襄陽	高城
一、九一、〇二〇	四、五〇〇	一、二五〇	一、九一〇	一、九一〇	四、六〇〇	九〇〇	七五〇	一、〇〇〇
二、一五〇	一、一〇〇							
三〇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가) 경중범 개선의 좋고 나쁨 (나) 가지치기로 싹이 잘 나게함 (다) 부인의 작업참가 (라) 기타

4. 뽕나무 거름 주고 가꾸는 관리상황

(가) 신식 뽕나무 거름주고 가꾸(신장 성적) (나)지주의 유무 (다) 기타

5. 제5차 갱생지도부락 설정상황

(가) 부락선정의 직부 (나) 고리구채 정리상황 (다) 기타 사무상 준비의 상황

6. 수답 식촌 불능지대작 상황

수답식촌 불능지대에 대한 대작 장려와 기타 시차 상황 도간부 출장 장려 실시일은 좌와 같다

추천 8월 19, 20 2일간 경찰부장, 인제 18, 19, 20 이재과장 (중략)

1936-08-11-05-05

**동아일보**

**광인이 익사**

【양구】 양구군 북면 상무룡리서는 지난 4일 정신이상의 여자가 북면사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미친짓을 하고 그 동리로 돌아다니며 역시 그런 행동을 하고 눈에 들어가 미친짓을 하다가 오후4시경에 요즘 장마물에 뛰어들어가 떠내려갔는데 시체는 미상하다 하며 탐문한 것에 의하면 지난 3일 밤 하무룡리 장채봉의 집에서 자다가 의복을 훔쳐가지고 도망한 것을 방산골 가서 의복을 뺏어왔다 하며 미친말로 인제군 서화면 서모라고 하였다고 한다.

1936-08-28-04-04

**매일신보**

**강원도 금광 현세 작업광구 162개소 월산액 35만6천원**

【춘천】 강원도의 금광 건은 연년이 증속을 가하고 있어서 1933년 연말에는 월산액이 13만원대에 불과하던 것이 1936년 8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1개월 산출액이 35만6,112원에 달하고 있어 3개 성상을 경과한 금일에는 배 이상의 호액을 보게 되어 나날이 융성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광점 162개소에서 1개월간에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5,861인에 달하고 있는데 도내 21군중에 아직 등록이 없는 곳은 양양군뿐이며 그 외에는 도처마다 광구가 없는 곳이 없다. 그 중에도 더욱 유망한 산금지구는 흥천 정선 회양 횡성 삼척군 등인데 1936년 8월 말 조사에 의한 각군의 산출액을 세별하면 다음과 같다.

군명	광구수	월산액(원)	군명	광구수	월산액(원)
춘천	8	1,221	인제	9	1,050
양구	3	-	회양	8	22,832
통천	6	20,240	강릉	9	6,880
삼척	8	24,036	울진	6	2,250
정선	14	24,270	평창	5	2,780
영월	2	550	원주	22	551
횡성	11	6,773	흥천	18	207,198
화천	2	280	금성	4	20,000
철원	12	31,850	이천	8	720
고성	6	-			
합계	162	356,112			

【양구】 양구군 북면 상무룡리서는 지난 4일 정신이상의 여자가 북면사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미친짓을 하고 그 동리로 돌아다니며 역시 그런 행동을 하고 눈에 들어가 미친짓을 하다가 오후4시경에 요즘 장마물에 뛰어들어가 떠내려갔는데 시체는 미상하다 하며 탐문한 것에 의하면 지난 3일 밤 하무룡리 장채봉의 집에서 자다가 의복을 훔쳐가지고 도망한 것을 방산골 가서 의복을 뺏아왔다 하며 미친말로 인제군 서화면 서모라고 하였다고 한다.

**江原道金鑛現勢**

作業鑛區百六十一個所  
月産額二十五萬六千圓

郡名	鑛區數	月産額
春川	9	1,050
江陵	8	22,832
南浦	9	6,880
襄陽	6	2,250
平康	5	2,780
元山	22	551
興天	18	207,198
金剛	4	20,000
利川	8	720
合計	162	356,112

1936-08-29-02-01

### 매일신보

## 인제읍 전부 침수 소양강에 표류인 호곡성 불절 구시가 대부분 유실

【춘천지국 전화】북한강 일대를 음습한 홍수가 지난 27일에 중일 토록 온 비는 인제를 중심으로 폭주한 모양인데 현재 교통 전신 전화의 불통으로 상세한 것은 알수 없으나 오늘 아침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금일 오전4시부터 5시까지에 인제 구시가는 전부 침수된 모양인데 금일 아침부터 줄지에 증수되는 춘천 소양강은 2시간 전부터 불기시작한 수위는 오전11시까지 5m만으로 떠내려오는 집도 상당히 많고 그 위에서 구조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는 차마 들을수가 없으며 이외에 가축 가구의 떠내려가는 것도 많이 이것으로 보면 인제읍의 구시가는 참해를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1936-08-31-01-04

### 매일신보

## 소양강 탁류에 부침 흘러내리는 수다 가옥,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는 것 정시치 못할 그 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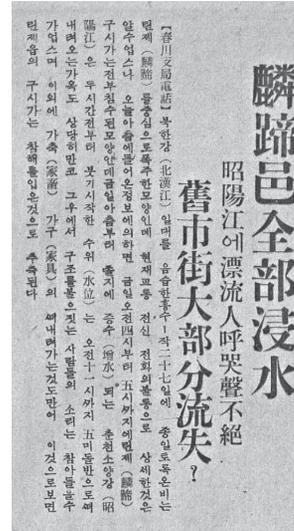
【춘천】그칠 사이없이 퍼붓는 호우와 인제지방에서 하류하는 물이 증수되어 춘천의 소양강은 28일 오전11시 현재 수위는 6m90이며 신 연강은 11m30이나 증수되고 있는데 상류 인제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각각으로 증수되고 있어 소양강의 연안은 각일각으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춘천경찰서에서는 서장 이하 직원 소방조원 수방단원 청년단원 등이 총출동하여 비상경계를 하고있는데 소양강 제방 밑에 있는 집은 전부 침수되어 주민은 속속 피난을 하고 있으나 제방이 위낙 견고하여 읍내는 아무 피해도 없다. 탁류 중에는 집 세간 목재 가축 등이 썰매없이 떠내려가고 있어 그 참경은 차마 볼수 없는 처참한 정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신 전화의 불통과 교통두절로 자세한 소식은 알 수없으나 이 참경으로 미루어보아 상류인 인제지방의 피해는 실로 상상 이상으로 막대할 것 같다 한다.

1936-08-31-01-08

### 매일신보

## 인제 재민 1천여명

【춘천】강원도 인제지방은 27일부터 호우가 폭주하여 막대한 피해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인데 교통의 두절과 전신 전화의 불통으로 인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위선 28일 정오까지 관명된 것에 의하면 집의 유실이 23호로 구 읍내 일대는 전부 침수되어 주민은 피난을 하고있는데 방금 이재민 1천여명은 각처에 수용하고 응급구호 중이라고 한다.



1936-08-31-01-12

### 매일신보

#### 춘천 소양강 점차로 감수

【춘천】북한강 일대를 음습한 대홍수는 강원도 인제지방을 중심으로 폭주하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춘천의 소양강은 28일 오전6시경부터 갑자기 증수되기 시작해서 28일 오전11시까지 최후수위 6m40에 달하여 일시는 위협상태에 빠졌으나 비도 오전8시경에는 완전히 개이고 물이 감수되기 시작하여 불안과 공포에 싸여있던 연안주민은 오후부터야 겨우 근심을 펴게 되었다.

1936-09-02-07-01

### 매일신보

#### 인제 기린면 하에서 시체 40여개 발견, 현리와 방동리 재적정리 중 전부 이곳의 주민들

【춘천 이한복특파원 전화】1일 오후2시 강원도 경찰부에 도착한 정보에 의하면 오전11시경 인제군 기린면 현리와 방동리 두 구장이 물이 줄어들어 따라 인부들을 데리고 피해 조사 중 전기 두 동리에서 새로이 40여개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이 시체는 전부 전기 두 동리의 주민들이 그저께 참변을 당한 것이다.

1936-09-02-02-09

### 매일신보

#### 강원도 수해 8월 1일 현재 누계

【춘천 이한복 특파원 전화】9월 1일 현재 강원도 각국의 수해통계는 다음과 같은데 사망이 664인 부상자가 313인 행방불명이 587인 가옥 유실이 2,156호에 달하였다

군명	사망	부상	행방불명
(중략) 인제	20	8	-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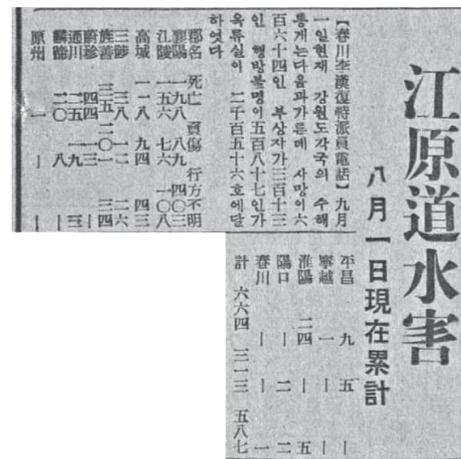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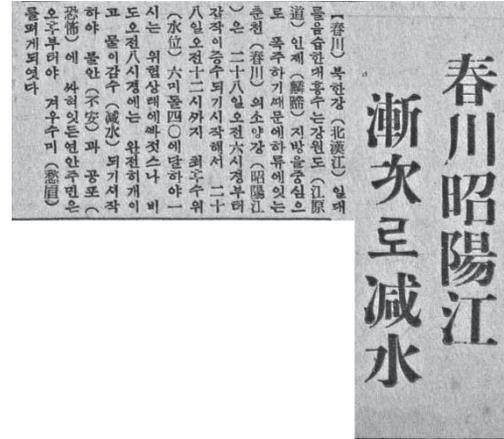
1936-09-05-05-01

### 매일신보

####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강원도 피해숫자(2일 현재) 사자 716, 중경상 행방불명 933 가옥피해 1만6천호

【춘천】유사이래 대참화를 당한 강원도내의 피해는 피해의 전모가 판명되지 못했는데 금후 숫자가 다소간에 더 증가될지 모르지만 금일(9월 2일 오후현재)까지 판명된 것에 의하면 사망자 716명, 부상자 345명, 행방불명 588명, 가옥유실 2,275호, 전과 1,082호, 반과 2,164호, 상상침수 7,579, 상하침수 3,760호, 선박의 유실 116척, 전과 121척, 반과 94척인데 이것을 각 군별로 다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중략) 인제군, 사망자 24명 부상자 3명 가옥유실 90호 가옥전과 59호 가옥반과 278호 가옥상상침수 160호 선박유실 14척 (중략)



1936-09-05-02-03

### 매일신보

## 부상, 발병자 속출로 구제에 전력 경주, 공의와 개업의 등 현지로 급행 참극의 강원풍수해

【경무국착전】 강원도 지방의 풍수해 피해 상황은 조사하여감에 따라 참혹한 바가 있는데 3일 오후 3시 현재 새로 판명된 피해와 구료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수동면은 가장 심한데 수동면의 부상자 50여명은 모두 빈사의 중태이므로 고성읍에서 합석구 의사를 현장에 급행시키고 철원 이익수 공의도 현장에 급행하였다.
2.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는 사태로 인하여 42명의 부상자 중 25명은 빈사의 중태이므로 원인서 문광모 양공의가 급행하였다.
3. 삼척군의 피해가 심하여 강릉도립의원에서는 구료반이 급행하였다.
4. 회양군 장양면에도 중상자가 많아 회양 공의와 춘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최규옥 의사는 자진하여 현지로 출동하였다.
5. 홍천지방에는 이재민 중에 장티푸스가 만연하여 총독부 위생 시험실로부터 예방약을 다량으로 급송하였다.

**負傷、發病者續出로 救療에全力傾注**  
공의와개업의등현지로급행  
**慘極의江原風水害**

【警防部消息】 강원도(江原道) 지방의 풍수해 피해 상황은 조사하여감에 따라 참혹한 바가 있는데 3일 오후 3시 현재 새로 판명된 피해와 구료 상황은 다음과 같다.

一, 고성군 수동면(高城郡水洞面)은 가장 심한데 수동면의 부상자 50여명은 모두 빈사의 중태이므로 고성읍에서 합석구 의사를 현장에 급행시키고 철원 이익수 공의도 현장에 급행하였다.

二,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麟蹄郡基麟面震洞里)에는 사태로 인하여 42명의 부상자 중 25명은 빈사의 중태이므로 원인서 문광모 양공의가 급행하였다.

三, 삼척군의 피해가 심하여 강릉도립의원에서는 구료반이 급행하였다.

四, 회양군 장양면에도 중상자가 많아 회양 공의와 춘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최규옥 의사는 자진하여 현지로 출동하였다.

五, 홍천(洪川) 지방에는 이재민 중에 장티푸스가 만연하여 총독부 위생 시험실로부터 예방약을 다량으로 급송하였다.

**第一、二次 四日現在**

1936-09-06-05-12

### 매일신보

## 강원도 교통 상황(지난 3일 현재)

【춘천】 제2차로 내습한 대폭풍우로 인하여 도로 교량의 유실,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대부분 자동차 교통이 두절되었는데 언제나 복구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3일 현재 강원도내의 교통상황은 다음과 같다

춘천-화천	중계통행	홍천-인제	불통
횡성-평창	불통	원주-영월	불통
양양-간성	불통	원주-춘주	불통
홍천-서울	중계	강릉-정선	불통
원주-제천	불통	창동-회양	불통
회양-고상	불통	춘천-양구	불통
횡성-원주	중계	평창-정선	불통
평창-영월	불통	양양-강릉	불통
원주-서울	중계	횡성-서울	중계
강릉-삼척	불통	삼척-울진	중계
양구-말회리	불통		

**江原道交通狀況**  
(지난 3일 현재)

【春川】 今晨第二次大暴風來한天 暴風雨로 인하여 道路橋梁의 流失 河川의 氾濫으로 大部分 自動車交通이 杜絶되었는데 언제나 復舊된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三日現在 江原道內의 交通狀況은 다음과 같다.

春川	中繼運行
寧越	不通過
原州	不通過
襄陽	不通過
平昌	不通過
江陵	不通過
高城	不通過
洪川	不通過
橫城	不通過
三陟	不通過
楊口	不通過
高山	不通過

1936-09-13-02-05

### 매일신보

## 한강 상류의 탁류가 황해도까지 파급, 재목과 가축이 자꾸 떠내려와서 연백서도 재목 습득

【해주】 한동안 한강과 강원도에 증수가 되어 다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더니 지금은 한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강원도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개성군 흥교면 월편에서 마주쳐 황해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합류되어 가지고 감돌아 나가게되는 연백군 해월면, 온정면 주민들은 증수되어 내려오는 물이 집에나 침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한강과 강원도 인제부근서 흘러 내려오는 탁류에는 집 파괴와 커다란 재목 등이 많이 떠내려오므로 해월면, 온정면 주민들은 날마다 나가서 재목을 건지는 중인데 6일에만도 70호에 매호 최고 14그루, 최저 4그루이라는 기동재목감을 건졌는데 연백경찰서에서는 습득물로 인정하고 일일이 경찰에 보고키로 하였으며 합류되어 내려오는 물이 6척이나 증수되어 가축과 여러 가지 세간 등이 떠내려오므로 연백군수 김기준씨와 연백 고옥 서장은 인명이나 떠내려오지 않는가 하고 매일살피고 있으며 유곡 해월 온정 각면 해안편으로는 침수될 염려있어 당지 주재소에서 총출동하여 경계중이다.

1936-09-25-05-05

### 매일신보

## 19일 현재 강원도 자동차 교통 상황 아직도 불통이 14개 선로

【춘천】 이번 대수해로 강원도의 도로는 거의 유실되어 자동차로의 교통은 거의 두절되었으나 그간 응급복구에 전력을 경주한 결과 19일 현재로 도내선 38선 중 직통되는 곳이 20선, 겨우 중계로 인하여 통하는 곳이 4개선, 전혀 불통되는 곳이 14선인데 이 불통선 중에는 군청소재지가 있는 곳도 많아 그 불편은 일로 말할 수 없는데 언제나 완전히 복구가 될는지 막연하다고 한다.

이렇게 교통 두절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전조선 중에 강원도뿐으로 이번 재화가 얼마나 혹독한 것임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방금 도 당국에서는 하루라도 속히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복구에 전력을 경주할 터이었는데 19일 현재로 불통된 곳은 다음과 같다. 춘천-양구간, 평창-정선, 강릉-정선, 온정리-신계사, 통천-창도, 횡성-평창, 평창-강릉, 인제-간성, 고성-백천교, 삼척-울진, 말회리-온정령, 강릉-삼척, 삼척-정선

1936-09-27-05-06

### 매일신보

## 이재민에 시미 인제 김기선씨

【인제】 강원도 인제읍 상동리 김기선씨는 저번 참석한 풍수해에 자기도 집에 침수와가타 막대한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리 이재민 80호의 굶주리는 참경을 목견하고 백미 150두를 배급하였다 하며 그 외에도 구연말이면 연년이 동리 세국민에게 백미 100여두씩을 배급하여오는 독지가라 한다.(사진은 김기선씨)

漢江上流의濁流가 黃海道까지 파급 延白서도 材木拾得

【海州】 한강 상류의 탁류가 황해도까지 파급되어 연백서도 재목 습득

한강 상류의 탁류가 황해도까지 파급되어 연백서도 재목 습득

十九日現在江原道 自動車交通狀況

【春川】 江原道大水害로 江原道의 道路가 殆ど 全廢된 結果로 交通은 殆ど 全廢되었으나 그간 應急복구에 全力을 傾注한 結果로 19日 現在로 道內線 38線中 直통되는 處가 20線, 겨우 中繼로 因하여 通하는 處가 4線, 全然 不通되는 處가 14線인데 이 不通線 中에는 郡청소재지가 있는 處도 많아 그 不便은 일로 말할 수 없는데 언제나 완전히 復구가 될는지 막연하다고 한다.

罹災民에 施米

【麟蹄】 江原道麟蹄邑 上洞里 金基善氏는 這處에 甚한 風水害에 自 己 家 屋에 浸水 外 其他 甚大 火災 害를 當하얏는데 不拘 何 同里 罹災民 八十戶의 飢餓을 極景을 目見하고 白米 一百五十斗 電配 給하얏다 하며 其外에 道廳 年末이 면 年年 同里 飢餓民에 白米 百餘斗 配給을 命命하얏다 한다.



1936-09-29-02-07

### 매일신보

## 강원도 호우 피해 중첩 재화로 극도 참상이뤄 각군하의 상황 판명

26일부터 내리던 호우로 인하여 전번 풍수해가 복구도 되기 전에 강원도지방에 수해를 당하고있다 함은 지난 보도와 같거니와 이제 경무국에 도착된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우로 인하여 각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각지방 소관 경찰서에서는 서원 수방단 소방조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경계하는 동시에 위험지대의 주민을 전부 피난시켰는데 고성 세포 관내의 일부는 통신 두절로 소식이 판명치 아니하나 27일 정오까지 판명된 피해는 다음과 같다. (중략)

▲인제지방 대폭풍우가 되어 득 강을 경계 중이다. ▲기타 인제 양양 등은 경비전화 불통으로 상세 불명하다

1936-10-02-02-05

### 매일신보

## 27, 28 양일 호우로 사상자 40여명 기타 가옥, 도로, 교량, 선박에도 강원도 세 번째 수화

1. 2차의 풍수해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어서 28일 임시 도회까지 개최하고 그 구제비 1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상정 결의한 강원도에 또다시 27, 28 양일간에 비가 내려서 수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30일 오후8시 강원도 경찰부장으로부터 본부 경무국에 보고하여온데 의하면 피해구역이 8개 군에 사자와 부상자가 40여명에 달하는 참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피해구역

인제 회양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8개군내

### 2. 피해상황(오후3시 현재)

사자 7 사체표착 1 부상자 31 행위불명 1 가옥유출 57 선박유실 8 선박전괴 19 선박반괴 7

철도교통은 동해북부선은 29일중에 외금강 철도 개통, 간성 고성간만 의연 불통

금강산 전철은 말회리 내 금강 간 불통 중이었는데 금일부터 개통 통신상황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양양 인제간, 고성 회양간의 선은 불통 중이었는데 29일 오후 6시부터 고성 회양간만은 개통.

# 江原道豪雨被害

## 重疊災禍로極度慘狀으로

### 各郡下의狀況判明

廿六일부터 내리던 호우로 인하여 전번 풍수해가 복구도 되기 전에 강원도지방에 수해를 당하고있다 함은 지난 보도와 같거니와 이제 경무국에 도착된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우로 인하여 각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각지방 소관 경찰서에서는 서원 수방단 소방조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경계하는 동시에 위험지대의 주민을 전부 피난시켰는데 고성 세포 관내의 일부는 통신 두절로 소식이 판명치 아니하나 27일 정오까지 판명된 피해는 다음과 같다.

▲인제지방 대폭풍우가 되어 득 강을 경계 중이다. ▲기타 인제 양양 등은 경비전화 불통으로 상세 불명하다

▲通川地方 通川(通川)지방의 호우로 인하여 피해는 신도의 일부가 불타고 있다. ▲高城地方 高城(高城)지방의 호우로 인하여 피해는 신도의 일부가 불타고 있다. ▲江陵地方 江陵(江陵)지방의 호우로 인하여 피해는 신도의 일부가 불타고 있다.

# 一、二、三、八兩日豪雨로

## 死傷者四十餘名

### 기타 가옥, 도로, 교량, 선박에도

#### 江原道세 번째 수화

一、二차의 풍수해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어서 28일 임시 도회까지 개최하고 그 구제비 1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상정 결의한 강원도에 또다시 27, 28 양일간에 비가 내려서 수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30일 오후8시 강원도 경찰부장으로부터 본부 경무국에 보고하여온데 의하면 피해구역이 8개 군에 사자와 부상자가 40여명에 달하는 참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二차의 풍수해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어서 28일 임시 도회까지 개최하고 그 구제비 1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상정 결의한 강원도에 또다시 27, 28 양일간에 비가 내려서 수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30일 오후8시 강원도 경찰부장으로부터 본부 경무국에 보고하여온데 의하면 피해구역이 8개 군에 사자와 부상자가 40여명에 달하는 참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二차의 풍수해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어서 28일 임시 도회까지 개최하고 그 구제비 1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상정 결의한 강원도에 또다시 27, 28 양일간에 비가 내려서 수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30일 오후8시 강원도 경찰부장으로부터 본부 경무국에 보고하여온데 의하면 피해구역이 8개 군에 사자와 부상자가 40여명에 달하는 참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무단 출가하였다는 것과 시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는다는 이유로 작대기 등 집히는 대로 들고 전신을 무수히 난타하여 두개골에 창상을 입어 뇌진탕을 일으켜 일시 아사 인사불성이 되자 그만 죽은줄만 알고 범행을 은닉코자 서화천에 던져 익사한 것처럼 하여 드디어 죽게한 언어도단의 사건이다. 전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된 인재경찰서에서는 전기 가해자 부부를 즉시 체포 유치시킨 후 상해치사 사체유기 등 죄명으로 엄중한 취조를 한후 춘천검사국으로 두명을 모두 송치하였다고 한다.

1936-11-10-03-04

**매일신보**

**강원도의 결핵환자 남자가 여자의 근배, 작년 중 총수 2천114명 위생과 박멸에 주력**

【춘천】근대의 난치병으로 현대인의 가장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소위 문명병이란 결핵환자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숫자를 가지고 있는가 강원도 위생과 조사에 의하면 작년 1년 중 도내 결핵환자 총수는 2,114명으로 일본인 293명, 한국인 1,820명 외국인 1명 그 중에 폐결핵만 1,448명이라는데 이를 다시 성별로 본다면 남자 1,340명, 여자는 774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약 배나 되는 특이 되는데 이를 각 군별로 보면

군명	일본인	한국인	외국인	계
춘천	209	200	1	310
인제	2	9	-	2
양구	-	27	-	27
회양	-	37	-	37
고성	15	147	-	162
양양	9	109	-	118
강릉	93	461	-	554
삼척	3	13	-	16
울진	2	2	-	13
정선	4	20	-	24
평창	-	6	-	6
영월	2	33	-	35
원주	5	112	-	117
횡성	-	21	-	21
홍천	1	48	-	49
화천	-	12	-	12
김화	5	101	-	106
철원	32	301	-	333
평강	2	14	-	16
이천	-	65	-	65
합계	293	1,820	1	2,114

**江原道の結核患者**  
**男子가女子의近倍**

**昨年中總數二千百十四名**

**衛生課、撲滅에注力**

郡名	内郷	外郷	計
春川	1	1	2
原州	1	1	2
洪川	1	1	2
平康	1	1	2
金化	1	1	2
通川	1	1	2
高城	1	1	2
江陵	1	1	2
襄陽	1	1	2
三陟	1	1	2
龍津	1	1	2
襄陽	1	1	2
計	13	13	26

【春川】근대의 난치병으로 현대인의 가장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소위 문명병이란 결핵환자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숫자를 가지고 있는가 강원도 위생과 조사에 의하면 작년 1년 중 도내 결핵환자 총수는 2,114명으로 일본인 293명, 한국인 1,820명 외국인 1명 그 중에 폐결핵만 1,448명이라는데 이를 다시 성별로 본다면 남자 1,340명, 여자는 774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약 배나 되는 특이 되는데 이를 각 군별로 보면

1936-11-13-02-04

### 매일신보

## 철창생활 모친 따라서 영아의 몸된 "영아" 벌금 30원을 못내어 이 비극 원수의 가난이 원인

【춘천】 세상에 나온지 돌도 못되는 산후 10개월 되는 강보인 짜인 어린 것이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비극의 한토막! 그 피덩어리로 하여금 철창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사정은 무엇이었던가?

지난 8일 오후에 춘천형무소에는 30이 조금 넘어보이는 협수룩한 농촌부인 하나가 여자로서는 전무후무한 삼립령 위반이란 죄목으로 어린 것을 등에 업은 채 끌려와 그대로 구치감에 수용되고 말았다. 눈물없이는 듣지못할 이 사실! 단장의 애화는 이리하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 거주하는 모씨의 부인 김순이(가명 35)는 빈한한 생활에 견디다 못하여 지난 5월에 동리 국유림에 불을 지르고 화전을 일구어 먹으려다가 관헌의 눈에 발각되어 벌금 30원어치 형을 받았었다 한다. 돈만 있으면 벌금으로 때웠을 것이나 원수의 돈(30원)이 없어 미뤄나가는 도중 검사의 영장으로 춘천형무소까지 끌려 나온 것인데 세상에 나온지 몇날도 못되는 어린것을 그대로 두고 올 형편도 못되어 업고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 한다. 남편도 있으나 법은 죄지는 자를 벌하게 되어있으니 모면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불행에 짜인 그 두모녀는 날은 점점 추워오는데 음울한 철창 속에서 12월 7일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한다. 철모르는 어린 것 배부르면 웃고, 슬프면 짹짹 할 때마다 죄지는 그 어머니를 몇 번이나 울릴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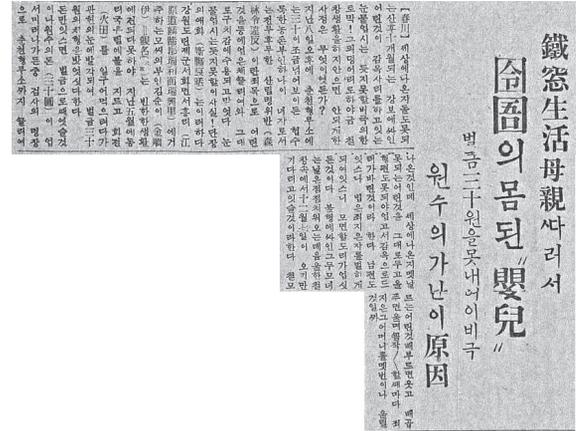
1936-11-15-05-01

### 매일신보

## 풍수재 선후책 중심 관계지 금융조합 이사회 13일 금조 연합 강원지부에서 25조합 참가로

【춘천】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강원도지부에서는 지난번 미증유의 대풍수해를 당한 관하 각금융조합의 이재조합원의 구제책과 금후 지도시설에 대한 구제안을 수렴코자 풍수해 관계 소속 조합 이사 25명을 소집 지난13일부터 2일간 풍수해대책이사회회의를 동 지부 누상에서 개최하였다. 출석조합은 강릉 원주 통천 울진 영월 삼척 간성 대화 양구 횡성 인제 정선 고성 문막 주천 주문진 평창 천전 금강 대포 둔내 옥계 원덕 원주제2 명주 등 25조합으로 협의한 사항은 좌와 같다.

1. 이재조합에 대한 기왕 대부금의 처리와 채권보전상 특히 고려를 요하는 사항 및 대책
2. 조합원 소유 부동산(산업용 건물을 포함함) 이와 함께 동산에 대한 복구 자금 융통에 관하여 조합이 취할 방책
3. 자작농 창정지의 피해에 대한 선후방책
4. 고리채정리조합원으로서 이재한 조합원에 대한 선후방책
5. 이재조합원에 대한 영농과 양식자금의 융통방법
6. 이재조합원에 대한 예금 불능 상황과 금후의 방침
7. 재해에 인한 조합령 후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처리



1936-11-15-05-09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금융조합원수 11만300여명 총농가호수의 50% 수용안 착착 이상대로 진행

【춘천】 강원도내 각금융조합에서는 금융조합 본래의 정신을 발휘하여 서민금융의 사명을 완전 수행코자 부단히 노력하여오는 터인데 강화운동이 일로 도내 전농가호수의 50%포용을 목표로 조합원 증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성적이 예기이상으로 양호하여 지난 9월말일 현재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도내 전농민가 호수 226,403명에 대하여 도내 46개조합의 조합원 총수 110,311명으로 48%의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올여름 풍수해만 아니었다면 50%증용 목표를 초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조합 성적을 개별하여보면 춘내 대화문막 원주 안협 옥계 평해 내금강 통구 양양 등 외 수개조합은 50% 이상 증모의 호성적인 반면 인제 화천 정신 청진 횡성 주천 등 조합은 가장 불량하여 40% 증모에도 미치지 못한 현상이라 한다.

1936-11-24-04-01

### 매일신보

## 콩도 대감수 작년 비해 8만석 감

【춘천】 강원도내에는과거대풍수해와 천후 불순으로 농형이 말이 못되는데 연년이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콩농사 역시 최대 감수량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농무과로부터 조사한 것에 의하면 9월 말인 현재 각군 예상 매수고를 보면 28만7,216석으로 작년 실수고 36만6,709석의 대감수이다. 쌀, 보리, 조 각 농작물이 대감수를 보게 된 강원도에 대두까지 대감수를 보게 되어 농가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군명 대두예상고(석) 대두작년실수(석) 군명 대두예상고(석) 대두작년실수(석)

춘천	17,990	19,967	인제	19,603	23,171
양구	13,115	13,853	회양	28,356	30,295
통천	11,700	15,705	고성	3,829	6,593
양양	2,585	8,116	강릉	8,012	11,646
삼척	10,997	17,606	울진	6,167	8,201
정선	7,113	3,144	평창	12,154	17,207
영월	10,086	16,483	원주	12,768	20,731
횡성	11,909	17,696	홍천	26,147	28,298
화천	26,147	28,298	김화	9,233	10,396
철원	18,008	19,323	평강	22,201	24,053
이천	21,155	28,853			
합계	287,216	366,709			

### 江原道内金組員數 十一萬三千二百餘名

總農家戶數의 五割收容案 着々理想대로進行

【春川】江原道内各金融組合은 본래의 精神을發揮하여 庶民金融의 使命을 完全履行코자 不斷히 努力하여 오는데 因에 強化 運動의 一으로 道内 全農家戶數의 五割 收容을 目標로 組合員 增募에 박차를 加하고 있는바 成績이 豫期以上으로 良好하여 去九月末日 現在로 調査한바에 依하면 道内 全農家戶數 二十二萬六千四百三十二名에 對하여 道内 四十六個組合의 組合員 總數 十一萬三千一百一十一名으로 四割 八分의 良好한 成績을 示하고 있다. 今夏 風水害만 아니었다면 五割 收容 目標을 超過할 것으로 보인다. 各組合 成績을 擧別하여

安峽 玉梁 平海 內金剛 通 口 襄陽等 外 數個組合은 五割以上 增募의 好成績인 反面 鐵蹄 華 川 旌善 景田 禮城 酒泉等組 合은 가장 不良하여 四割 增募에 未及한 現狀이 現한다.

### 大豆도 대減收 比去年八萬石減

【春川】江原道内에는 過酷大風 水害와 天候不順으로 農形이 말아 못되는 今年는 大豆 產出을 자랑하고 있는 大豆 作도 亦是大減收을 示하고 있다.

江原道 農務課로부터 調査한바에 依하면 九月末日 現在 各郡 豫想 收 獲高을 보면 二十八萬七千二百六十六石으로 昨年 實收高 三十六萬九千七百九十九石에 比하여 減收 七萬九千四百九十石의 大減收이다. 米 麥 粟 各農作物이 大減收을 보게 된 江原道에 大豆 外 亦大減收을 보게 되어 農家에서는 크게 憂慮하고 있다. 各郡別 豫想高는 다음과 같다.

楊口	三,二五〇	三,八五〇
淮陽	二,三〇〇	三,一五〇
通川	三,〇〇〇	三,七五〇
襄陽	二,八五〇	三,五五〇
高城	三,〇〇〇	三,七五〇
江陵	二,八五〇	三,五五〇
三陟	二,八五〇	三,五五〇
寧越	二,八五〇	三,五五〇
旌善	二,八五〇	三,五五〇
平昌	二,八五〇	三,五五〇
原州	二,八五〇	三,五五〇
橫城	二,八五〇	三,五五〇
洪川	二,八五〇	三,五五〇
金華	二,八五〇	三,五五〇
鐵原	二,八五〇	三,五五〇
平康	二,八五〇	三,五五〇
伊川	二,八五〇	三,五五〇
計	二,八五〇	三,五五〇

매일신보

흉작은 전곡에도, 강원 조 농사 대감수, 지난해에 비하여 8만4천석 감 대중 식량에 대위협

【춘천】미작 맥작 등 모든 농작물이 불능에 빠진 강원도에는 조 농사만은 흉작이 없었더라고 믿어왔는데 기실은 각군의 수확 예상고를 조사하여 보면 30만3,651석으로 작년실수고 39만7,631석에 비하여 보면 실로 8만3,980석의 대감수에다 대중의 필수 식량인 조 농사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세민들의 탄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지민들의 전도가 한층 우려되는 터인데 금년 흉작을 보게 된 것은 결실기의 천후가 불순하였던 것이 큰 원인도 되겠지만 고성, 회양, 강릉, 삼척, 양양, 통천 등 동해안 일대 수재로 전담 유실에 인한 것도 심히 크다고 하는데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예상고(석)	작년실수고(석)	군명	예상고(석)	작년실수고(석)
춘천	22,373	25,395	인제	22,575	26,402
양구	8,201	19,935	회양	37,533	43,847
통천	10,287	13,189	고성	3,800	8,351
양양	1,912	5,651	강릉	8,251	3,210
삼척	10,561	17,996	울진	13,434	17,424
정선	6,350	11,450	평창	7,289	12,069
영월	12,493	17,574	원주	4,173	7,313
횡성	6,836	10,097	홍천	20,192	21,322
화천	7,766	8,825	김화	33,822	36,407
철원	18,867	20,665	평강	19,763	25,546
이천	27,172	35,989			

매일신보

수해 시 공로 현저한 소조와 조원 표창 소방협회 강원도지부에서 15조 169명

【춘천】지난번 수차에 걸쳐 강원일대를 강습한 미증유의 대풍수해 시에 경찰관, 소방조원 등이 많은 수해 미담을 남겨 고금 수해사상에 명 감격의 일혈을 삼입하여 세인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자아 내게 한 찬연한 사실은 기억이 상실했는지와 강원도에서는 비등 공적이 현저한 소방조, 조원을 표창하여 그 공로를 찬하는 일방 장래에 있어 소방정신의 사기 양양에 자코자 소방협회 도연합지부로부터 공로사실의 심사를 급히하고 있던 중 최근 좌와 같이 표창하기로 결정되어 일부 표창 및 상급품을 수여하였는데 특히 공로 발군한 소방조와 소방조원 20명을 선발하여 대일본소방협회본부 또는 조선소방협회본부로부터 표창에 육케하고자 방급 착착 준비 중이다.

1. 소방조(단체)로서 출동 성적이 양호하여 조원 협력 일치중시 예방에 당하여 공로 발군한 자 \*인제군 발취 (중략) ◇인제군 인제소방조 인제군 원통소방조
2. 공로 발군한 소방조원 (중략) ◇인제 인제조 김상현 조운동 ▲원통조 박경재 (중략)

**凶作은田穀에도  
江原粟作大減收  
去年에比하여八萬四千石減  
大衆食糧에大威脅**

【강원】去年의 흉작은 강원도에는 조 농사만은 흉작이 없었더라고 믿어왔는데 기실은 각군의 수확 예상고를 조사하여 보면 30만3,651석으로 작년실수고 39만7,631석에 비하여 보면 실로 8만3,980석의 대감수에다 대중의 필수 식량인 조 농사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세민들의 탄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지민들의 전도가 한층 우려되는 터인데 금년 흉작을 보게 된 것은 결실기의 천후가 불순하였던 것이 큰 원인도 되겠지만 고성, 회양, 강릉, 삼척, 양양, 통천 등 동해안 일대 수재로 전담 유실에 인한 것도 심히 크다고 하는데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예상고(석)	작년실수고(석)	군명	예상고(석)	작년실수고(석)
춘천	22,373	25,395	인제	22,575	26,402
양구	8,201	19,935	회양	37,533	43,847
통천	10,287	13,189	고성	3,800	8,351
양양	1,912	5,651	강릉	8,251	3,210
삼척	10,561	17,996	울진	13,434	17,424
정선	6,350	11,450	평창	7,289	12,069
영월	12,493	17,574	원주	4,173	7,313
횡성	6,836	10,097	홍천	20,192	21,322
화천	7,766	8,825	김화	33,822	36,407
철원	18,867	20,665	평강	19,763	25,546
이천	27,172	35,989			

**水害時功勞顯著한  
消防員組員表彰  
十五組百六十九名**

【강원】去冬의 대풍수해 시에 강원도 일대를 강습한 미증유의 대풍수해 시에 경찰관, 소방조원 등이 많은 수해 미담을 남겨 고금 수해사상에 명 감격의 일혈을 삼입하여 세인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자아 내게 한 찬연한 사실은 기억이 상실했는지와 강원도에서는 비등 공적이 현저한 소방조, 조원을 표창하여 그 공로를 찬하는 일방 장래에 있어 소방정신의 사기 양양에 자코자 소방협회 도연합지부로부터 공로사실의 심사를 급히하고 있던 중 최근 좌와 같이 표창하기로 결정되어 일부 표창 및 상급품을 수여하였는데 특히 공로 발군한 소방조와 소방조원 20명을 선발하여 대일본소방협회본부 또는 조선소방협회본부로부터 표창에 육케하고자 방급 착착 준비 중이다.

1. 소방조(단체)로서 출동 성적이 양호하여 조원 협력 일치중시 예방에 당하여 공로 발군한 자 \*인제군 발취 (중략) ◇인제군 인제소방조 인제군 원통소방조

2. 공로 발군한 소방조원 (중략) ◇인제 인제조 김상현 조운동 ▲원통조 박경재 (중략)

1936-11-29-04-09

### 매일신보

## 이재지 조합원에 대금 회수 완화책, 장단기 물론하고 기간 연장 강원도 25금융조합에서

【춘천】 과거 강원도내 대풍수해는 전고 미증유의 대참사로 아직도 우리의 기억이 생생한 것으로 인명의 사상과 가옥 토지 등의 피해는 참담하여 숫자로 기록함에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게 하는 바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이재민들의 가련한 참상은 실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바인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들이 재민을 구제코자 강원도 당국에서는 1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도비 들여 노임 살포 등 갖은 방법으로 구제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이때 재지의 백성을 위하여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으니 그는 도내 이재지 각 금융조합의 특단의 방침이 수립된 그것이다. 즉 도내 강릉 원주 통천 울진 영월 삼척 대화 양구 횡성 인제 정선 고성 문막 주천 주문진 평창 천진 내금강 대포 둔내 옥계 원덕 원주 제2명주 제2문막 25개조합은 전부 과반 대풍수해를 겪은 곳에 있는 조합으로 관내 이재조합원의 비참한 정경을 통념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흥 갱생케 하고자 대부금 회수에 있어

1. 단기 대부금에 대하여는 연체(기한경과)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만 징수한 후 원금은 명년 수확기까지 기한 갱신(연기)을 허함
2. 장기 대부금은 이자만 징수하고 반환 기한을 지연 또는 절체(돌려 매는 법) 등 실정에 의하여 처리함
3. 전항의 이자 납입도 지난한 시는 조합의 수지를 감안하여 별도 계약에 의한 적의 지불 연기를 인정함

등의 대부금 회수정책을 완화하여 재지 조합원 구제에 노력하고 있어 이들 이재조합원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자아낼 뿐 아니라 일 반민중의 격찬을 받고있다.

1936-12-02-05-01

### 매일신보

## 행방불명, 부상 30명 선박 가옥 파괴 다수 29일 오후4시까지 현재 강원도내 폭풍해 통계

【춘천】 지난 26일 오후12시부터 27일 오후5시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엄습한 대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한 숫자에 달하는 모양으로 29일 오후4시까지 도경찰부에 들어온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 ▲인제군

인명의 피해는 없고 초가지붕이 강한 바람에 날아간 곳이 22호이며 관장과 담이 쓰러지고 무너진 곳이 52호 간판 연들의 피해가 4개처가 있을 뿐이라 한다. 삼척 울진 두군은 아직 보고가 없어 피해정도를 알길이 없으나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1936-12-03-04-04

### 매일신보

#### 내촌 기린면간 등의 도로 완성

【홍천】 홍천군 내촌면과 인제군 기린면간 32km 등의도로가 근일 완성되리라는데 도비 보조 3,000원과 내촌면 대총동에 500원 기부와 양 면민의 열렬한 부역으로 완성을 보게되었다는데 기린면은 인제군 중에서도 제일 벽지로 교통이 불편하여 물화를 마태로 수송하는 관세상 운임이 다액을 요하므로 물가가 타지보다 40, 50% 고등하여 면민은 크게 손을 입고 있었으나 금후 등의 도로 완성으로 우마차가 개통될 터이므로 실로 면민의 복음이라는데 허충환씨와 방범주씨 양 면장의 노력한 결과이라 한다.

1936-12-04-04-09

### 매일신보

#### 인제 백담사 밀봉 과반 수해로 전멸

【춘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에서는 밀봉 300상자를 사양하여 왔었는데 지난번 수해로 인하여 300상자 전부가 전멸하였다고 한다. 전기 봉밀은 품질이 양호하여 전조선적으로 그 성가가 높을 뿐 아니라 매년 30관씩 이왕직에 봉납하던 것으로 금번 전멸을 보게 되었으므로 인제군 당국에서는 복구에 노력하는 중이며 강원도 당국에서도 대책을 강구중이다.

1936-12-06-05-07

### 매일신보

#### 홍천세서 관내 재해지 면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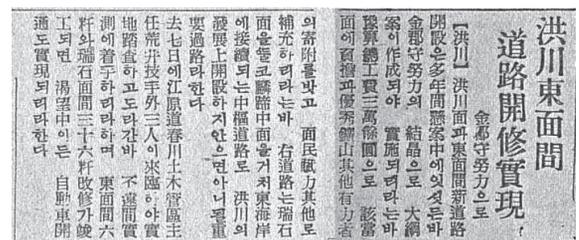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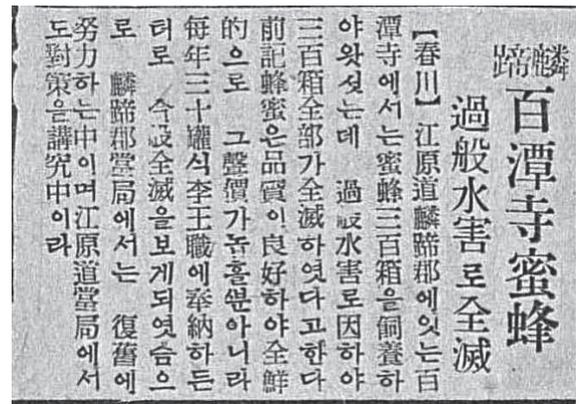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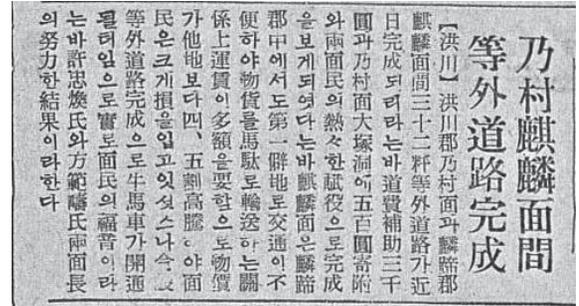
【홍천】 금년 여름 수재로 인하여 홍천세무서 관내에 재해지 세금을 면제하였는데 홍천에는 약소하나 인제는 참상을 이루어 총지적이 51만5,942평이요 651원으로 면제액은 152원이라 한다.

1936-12-12-05-06

### 매일신보

#### 홍천 동면간 도로 개수 실현

【홍천】 홍천면과 동면간 신도로 개설은 다년 현안 중에 있었는데 김군수 노력이 결정으로 대강 안이 작성되어 실시되리라는데 예산 총공비 3만여원으로 해당면에 부담과 우수 광산 기타 유력자의 기부를 받고 면민 부력 기타로 보충하리라는데 우 도로는 서석면을 뚫고 인제 중 면을 거쳐 동해안에 접속되는 중추 도로로 홍천의 발전상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 도로라 한다. 지난 7일에 강원도 춘천토목관구 주임 황정 기수와 3인이 내입하여 실지 답사하고 돌아간 바 불원간 실측에 착수하리라 하며 동면간 6km와 서석면 간 36km 개수가 준공되면 갈망 중이던 자동차 개통도 실현되리라 한다.



1936-12-15-05-04

### 매일신보

## 인제 창춘보교 학급 증가운동 기성회 조직코 기금을 모집 벌써 1500원 수합

【춘천】 인제군 내면 창춘리에 있는 창춘공립보통학교는 설립 이래 문맹에 우는 다수한 농촌자녀를 교양하여 내려오는 터인데 학급의 부족과 학년의 단기로 그들 문맹아동의 수용이 불여의할 뿐 아니라 교수의 원할을 기키 어려운 처지에 있어왔다. 이를 유감으로 여긴 면내 유지들은 열성으로써 기성회를 조직하고 학년 연장과 학급 증가를 목적으로 특지가에 기부를 모집한 결과 좌기와 같이 먼저 다투어 자기기부한 것이 1,500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에 달하게 되어 지난 10일 당해면장으로부터 인제군수에게 기필 실현하여 달라고 간원서를 제출했다. 가특한 특지가들의 씨명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부자 씨명 및 금액 ▲탁창조 130원 ▲이진국 120원 ▲권기순 110원 ▲김성도 100원 ▲안중익 100원 ▲최영근 80원 ▲박통갑 70원 ▲최경술 ▲김홍모 ▲김월봉 ▲김수명 ▲김철봉 ▲박인갑 ▲서경여 ▲이성집 ▲박병찬 ▲차희남 이상 각50원씩 ▲탁공신 45원 ▲방호연 30원 ▲박준식 30원 ▲김홍서 30원 ▲이창선 25원 ▲임철호 ▲탁경팔 ▲박봉갑 ▲김경원 ▲김도경 ▲박응태 이상 각20원 합계 금1,500원

1936-12-16-05-01

### 매일신보

## 군수관사 주위 뽕나무심기 혈굴 실시, 인제 전군수의 열성

【춘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농가의 부업인 양잠을 적극 보급하고자 뽕나무심기를 철저적으로 장려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벌써 내년도에 심을 혈굴 시비 등을 군내 각면에 걸쳐 실시케한 적있었다. 그런데 군수 전재우씨는 솔선 관사 주위에 뽕나무를 심어 군민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11월 25일경에 자신이 팽이를 들고 내년봄에 심을 혈굴 시비를 종료하였을 뿐 아니라 군청 면사무소 부근에도 자기 실시하여 자극된 농민들은 군면의 지도에 순응하여 예기 이상의 양호한 성적을 얻게 되었다 한다.  
◇뽕나무심은 그루수 군수관사 주위 40그루, 군청 주위 50그루, 면사무소 주위 25그루

1936-12-17-04-07

### 매일신보

## 인제군 뽕나무심기 장려

【춘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농가의 유일한 부업인 양잠을 철저히 장려하고자 뽕나무심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좌기에 의하여 10만9,380그루를 군내 각면에 식재케 하고자 벌써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청원 총동원으로 혈굴과 비배를 완료시켰다 한다 ▲인제면 6,700그루 ▲남면 21,080 ▲북면 20,400 ▲서화면 24,000 ▲기린면 17,200 ▲내면 20,000 ▲합계 109,380그루

**麟蹄着村普校  
學級增加運動  
即成會組織募基金會募集  
別서千五百圓收合**

【春川】麟蹄郡內着村普校에 있는 普校公立普通學校一設立以來 文盲에 우는 다수한 農村子女에 敎育을 授여 하려는 터인데 學級의 不足과 學年의 短縮으로 敎育의 原將을 支拂하기가 困難한 處에 있어 面內의 有志者는 熱誠으로 即成會를 組織하고 學年延長과 學級增加를 目的으로 別서千五百圓을 募集하여 去十月 當該面長에게 願書를 提出하여 去十月 當該面長은 各特地家에 기부를 募集한 結果 좌기와 같이 먼저 다투어 자기기부한 것이 1,500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에 달하게 되어 지난 10일 당해면장으로부터 인제군수에게 기필 실현하여 달라고 간원서를 제출했다. 가특한 특지가들의 씨명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부자 씨명 및 금액 ▲탁창조 130원 ▲이진국 120원 ▲권기순 110원 ▲김성도 100원 ▲안중익 100원 ▲최영근 80원 ▲박통갑 70원 ▲최경술 ▲김홍모 ▲김월봉 ▲김수명 ▲김철봉 ▲박인갑 ▲서경여 ▲이성집 ▲박병찬 ▲차희남 이상 각50원씩 ▲탁공신 45원 ▲방호연 30원 ▲박준식 30원 ▲김홍서 30원 ▲이창선 25원 ▲임철호 ▲탁경팔 ▲박봉갑 ▲김경원 ▲김도경 ▲박응태 이상 각20원 합계 금1,500원

**郡守官舍周圍  
植桑穴掘貫施**  
麟蹄全郡守의 熱誠

【春川】江原道麟蹄郡에서 農家の 副業인 養蠶을 積極普及시키고자 植桑을 徹底적으로 獎勵하고 있는 데 今年度에도 벌써 明年에 依하여 十萬九千三百八十本을 郡內 各面에 植栽케 하고자 벌써부터 計劃을 樹立하고 應員總動員으로 穴掘과 肥培를 完了시켰다 한다

▲麟蹄面 六、七〇〇株 ▲南面 二一、〇八〇 ▲北面 二〇、四〇〇 ▲瑞和面 二四、〇〇〇 ▲本麒麟面 一七、二〇〇 ▲丙面 二〇、〇〇〇 ▲合計 一〇九、三八〇本

**麟蹄郡植桑獎勵**  
【春川】江原道麟蹄郡에서 農家の 唯一한 副業인 養蠶을 徹底적으로 獎勵하고자 植桑을 積極勸奨하고 있는 데 明年度에도 左記에 依하여 十萬九千三百八十本을 郡內 各面에 植栽케 하고자 벌써부터 計劃을 樹立하고 應員總動員으로 穴掘과 肥培를 完了시켰다 한다

▲麟蹄面 六、七〇〇株 ▲南面 二一、〇八〇 ▲北面 二〇、四〇〇 ▲本麒麟面 一七、二〇〇 ▲丙面 二〇、〇〇〇 ▲合計 一〇九、三八〇本

1936-12-18-05-04

### 매일신보

#### 인제 연초판매소 신축 낙성식

【인제】 인제읍내 연초판매소는 1930년 대수해로 인하여 다대한 손해를 보고 신읍내 구가옥을 차수하여 사무를 집행하여왔으나 사무실 기타 창고의 협착으로 곤란 중이었는데 정하영 소장의 노력으로 연초소매인협회로서 5,300원을 차입하여 부지 312평 건평 50평5합에 반양식의 건물을 신축중이었는데 지난 7월 15일에 준공되어 17일 오전11시에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1936-12-24-05-08

### 매일신보

#### 인제군 문묘 장의선거 시행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9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문묘 장의를 선거하였는데 전군수는 선거 전 일반 유림에게 대하여 선거유자격자 명부 작성한 근원과 유림법에 대한 규설명 선거상 주의에 대하여 엄격한 훈시가 있는 후 공정히 선거를 종료한 결과 좌와 같이 당선되었다 한다. 한국림, 이근섭, 최영식, 김재협, 정해팔, 최삼봉, 김철배, 김정희

1936-12-29-05-05

### 매일신보

#### 홍천 서석면간 자동차 개통 불원

【홍천】 홍천군 서석면은 읍내와 서로 거리 36km로 군내에서 우수한 면으로 3등 도로 인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 개통을 실현치 못하여 승객과 화물수송 상 절대로 필요하여 수년전부터 운동을 맹렬히 하던 중 금월 중순에 군수 서장과 내선 자동차 영업소 주임이 동승하여 실지 운수를 시험한 결과 북촌면 관내를 송치령까지 미만된 곳이 있다 하여 북촌간 응원 하에 개수에 착수하리라는데 서석면에만 호수 2,200호와 인구 1만2,000여가 되며 인제군과 횡성군과도 접근되어 통행인이 연락부절하며 더욱이 홍천 양양간 통과 지점으로 극히 중요한 위치가 되어 홍천 발전상 절대한 효과를 나타내리라 하여 전군민이 갈망하는 것이라 한다.

1937-01-08-04-02

### 매일신보

#### 풍수해 이재민에 백미 5석을 회사 인제 김기선씨 특지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읍내 김기선씨는 세말을 당하여 풍수해로 생로가 막연하여 기한의 고통을 부르짖고 거리에 방황하는 세궁민들에게 백미 100두를 자진 회사하여 구조하였으므로 일반 궁민들은 씨를 천사같이 여긴다 하며 이번 씨의 특지는 인제사회에 대하여 장래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한다.

如間日下の水電試驗是新義州... 麟蹄糖草販賣所 築落成式... 麟蹄區內糖草販賣所는 四和五年大水害로 인하여 多大 難損害를 보고 新邑內糖草販賣所를 舉行하였다.

麟蹄郡文廟 掌議選舉施行... 麟蹄郡에서는 지난 9일 午前十一時부터 午後二時까지 兩掌議를 選舉하였는데 全郡守는 選舉前一般儒林에게 對하여 選舉有資格者名簿를 作成한 根源과 儒林法에 對한 規說을 明選上 注意에 對하여 嚴格한 訓示가 있은 後 公正히 選舉를 終了한 結果 左와 如히 當選되었다 한다.

洪川瑞石面間 自動車開通不遂... 洪川郡瑞石面은 邑內와 相距三十六軒로 郡內에서 優秀한 面으로 三等道路認可를 受하였으나 于今 自動車定期開通을 實現치 못하여 乘客과 貨物輸送上 絶大로 必要한 數年前부터 運動을 猛烈히 하던 중 邑中 旬에 郡守 署長과 內實地 運轉을 試驗한 結果 北村面과 內春松村間에서 未備된 곳이 있다 하여 北村面 廣樓下에 改修에 着手하였는데 北口 1萬에 近戶數二千二百餘人인 外人口 一萬二千餘가 되며 麟蹄郡과 橫城郡과 接近되어 通行人의 連絡不絶하며 더욱이 洪川 驛間 通過地點으로 極히 重要한 位置가 되어 洪川 驛上 極大한 効果를 나타내리라 하여 全郡民이 謁望하는 바 이라 한다.

風水害罹災民에 白米五石을 喜捨... 麟蹄金基賸氏特志... 麟蹄 江原道麟蹄郡邑內金基 賸氏는 歲末을 當하여 風水害로 生便치 難히 飢寒의 苦痛을 受한 故로 白米百斗를 自進 喜捨하여 救助



1937-01-19-03-09

### 매일신보

#### 홍천세무서 관하 주류 밀조 감소

【홍천】 홍천세무서 관내 1년간 주류 밀조자는 홍천 인제 양 군을 합하여 137건이며 벌금 액이 1,130원인데 전년에 비하면 103건이 감소하였는데 세무서의 철저한 단속과 군민의 각성 결과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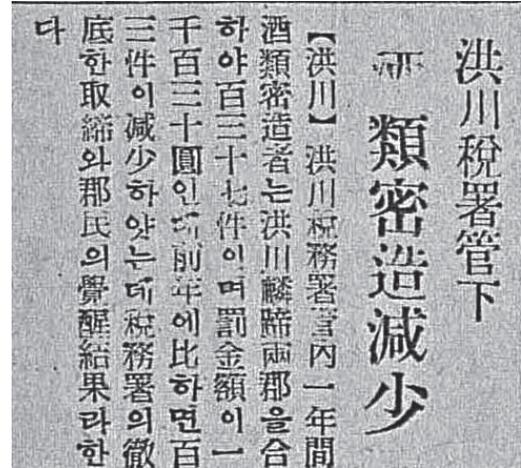
1937-01-20-03-01

### 매일신보

#### 지주 계급의 협력으로 소작인의 생활안정 인제군지주 회서 고구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17일 관내 지주 30여명을 군회의실로 소집하고 전군수 통제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협의와 타협이 있었다고 한다.

- (1) 조법은 수리 불완전 논을 제외한 외 논밭 공히 정조로 하고 서면 계약으로 할 일
- (2) 소작료율은 논은 2작의 50% 이내 밭은 2모작을 할 경우라도 1모작의 면적에 대한 주작물의 50% 이내로 할 일
- (3) 논외 2작 및 밭의 맥작 면적 등의 경작 면적 확장 및 반당 수량 증가에 비추 수익의 증가를 볼지라도 지주는 계약기간 내에 절대로 이의 증액을 요구치 못할 일
- (4) 보 수리 사음 수수료 소작운반비 2리까지는 소작인 부담 (2리 이하 초과와 분)소작지의 지세 및 기타 제공과금은 전부 지주의 부담으로 할 일
- (5)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의하여 수확고가 감소될 때는 소작료를 경감 또는 면제를 행할 일
- (6) 지주가 소작기간 만료 전 3월 내지 1년 내에 소작인에 대하여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으로 변경치 않으면 소작 계약을 해제치 못할 일
- (7)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라도 소작인의 배신행위가 없는데 한하여는 지주는 소작 계약갱신을 거절치 못할 일
- (8) 소작지를 반환할 경우에 소작지에 작부한 작물이 있을 때는 지주는 상당한 가격으로써 매수할 일
- (9) 지주로서 사음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를 두고 또는 이를 변경할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신고할 일
- (10) 소작지의 대부기간은 3년 내지 7년까지로 할 일
- (11) 임차인이 소작료의 일부를 지불할 경우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영수를 거절치 못할 일
- (12) 농지령에 위배되는 소작 계약을 체결한 까닭으로 소작인에게 불리한 점이 생길 때는 이 계약은 무효로
- (13) 콩 작부 면적 확장 및 품종개량에 노력하고 공동판매를 장려하여 소작인의 경제 상태를 원활케 할 일
- (14) 침수된 벼이삭의 타작을 장려할 일
- (15) 농업창고 설치를 시급히 설치하여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일



1937-01-20-03-07

### 매일신보

#### 인제농진 야학지도생 강습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본년부터 농가쟁쟁지도부락의 확장과 문맹 퇴치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신년 벽두부터 준비공작을 진행하는 중 지난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야학회 지도생강습회를 인제면 북면에 개최하였는데 지도생은 양면을 합하여 1,000여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강사는 군청 각계 기술원들이었으며 강습 과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1) 본보 영농상의 5대 결함의 해설과 해결방법
- (2) 자력쟁쟁의 요체와 공상의 타개방법
- (3) 잠사업의 현상 및 장래에 대하여
- (4) 본군양잠업 작년도 성적에 대하여
- (5) 농가 1호당 양잠경영방침
- (6) 종자선택 장려에 대하여
- (7) 묘대 개량에 대하여
- (8) 산미 개량에 주가되는 묘 건조조제법에 대하여
- (9) 본군 축산의 상황 및 장려 방침에 대하여
- (10) 사우농가 구제 축우 및 경우 십인계우 대부방법

1937-01-21-03-03

### 매일신보

#### 인제군 콩 공판 200여석 출회 전년 비해 연 배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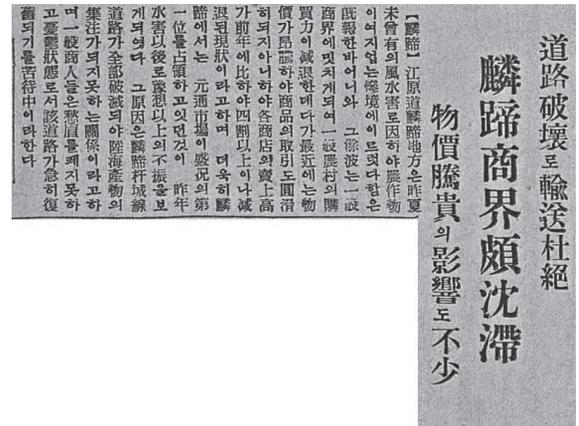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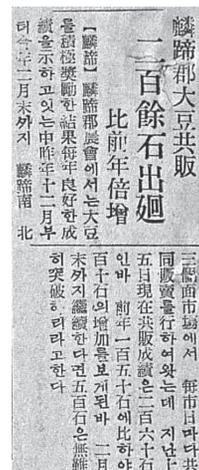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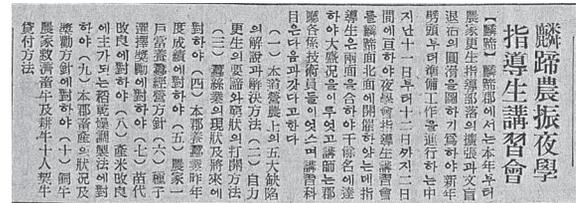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농회에서 콩을 적극 장려한 결과 매년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중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인제, 남, 북 3개면 시장에서 매 장날마다 공동 관매를 행하여왔는데 지난 15일 현재 공판성적은 260석인데 전년 150석에 비하여 110석의 증가를 보게되어 2월 말까지 계속한다면 500석은 무난히 돌파하리라고 한다.

1937-01-21-03-05

### 매일신보

#### 도로 파괴로 수송두절 인제 상계 파침체 물가등귀의 영향도 적지않아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은 작년 여름 미증유의 풍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여지없는 참경에 이르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여파는 일반 상계에 미치게 되어 일반농촌의 구매력이 감퇴한데다가 최근에는 물가가 앙등하여 상품의 취인도 원활히 되지않아 각 상점의 매상고가 전년에 비하여 40% 이상이나 감퇴된 현상이라고 하며 더욱이 인제에서는 원통시장이 성황의 제1위를 점령하고 있던 것이 작년 수해이후로 예상 이상의 부진을 보게 되었다. 그 원인은 인제 간성선 도로가 전부 파멸되어 육해산물의 집주가 되지 못하는 관계이라고 하며 일반상인들은 근심을 펴지 못하고 우울상태로써 이 도로가 급히 복구되기를 고대중이라 한다.



1937-01-21-03-09

### 매일신보

#### 원통리 소방에 300원을 회사 최용순씨 특지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사는 최용순 여사는 가세가 그리 넉넉지도 못한 처지에 있으면서 소방조원들의 불면불휴로 방화 방법에 주력함에 감격하여 경종탑을 개축비로 현금 300원을 회사하여 인제 사회에서는 씨의 특지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7-01-22-03-01

### 매일신보

#### 한 장의 열성

【인제】 인제군문묘에서는 매월 1일이면 각 장의들이 윤번으로 분향을 실시해오더니 지난번 이의 개선에 따라 당선된 장의들은 전부가 촌면 산간지에 거주하는 인사들이므로 교통 불편과 기타 사고로 인하여 출석치 못하는 관계상 분향에 곤란을 느껴왔는데 한국림씨가 매월 1일이면 한결같이 풍우와 원격을 불구하고 출석하여 분향을 한다하며 더욱이 문묘를 위하여는 무엇이든지 주저함이 없이 헌신적 태도로써 협력해온다는데 인제사회에서는 일반 유림층에 중요한 물로 생각하며 장래 문묘를 위하여만은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1937-01-22-03-04

### 매일신보

#### 인제면 작년 중의 소 돼지 도살수 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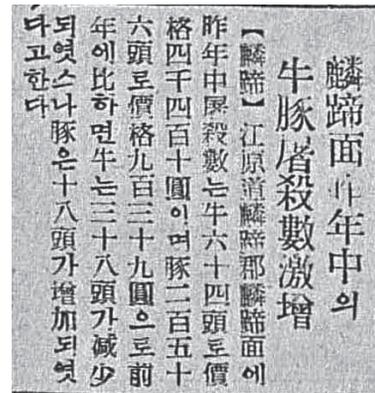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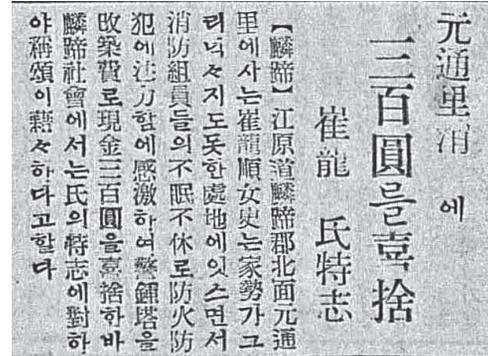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에 작년 중 도살수는 소 64마리로 가격 4,410원이며 돼지 256마리로 가격 939원으로 전년에 비하면 소는 38마리가 감소되었으나 돼지는 18마리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1937-01-22-03-04

### 매일신보

#### 인제군갱생부락에 농용임지를 설치 군농회서 기채준비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조선간이보험금 8,000원을 연부상환으로 차수하여 1937년부터 1943년까지 7개년차 계획으로 매년 1면당 1부락씩 합 6부락을 선정하여 1부락에 대하여 36정보씩을 매입 설치하여 7년 후에는 갱생부락 전부가 다 농용림지의 혜택을 받게한다는데 군농회에서는 방금 기채 수속을 하는 동시에 각면에 의뢰하여 적립지에 선정과 매수 교섭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1937-01-22-03-07

### 매일신보

#### 색의 착용 장려 인제군에서

【인제】 인제군에서는 생활개선의 제일책으로 작년 이래 색복을 장려하여 적지않은 실적을 획득하여왔으므로 금년도 역시 겨울옷 착용기를 이용하여 철저히 장려코자 각관공서 정문에는 입간판을 세우고 장날에는 관공서원이 연락 협조하여 선진전단을 배포하는 동시에 색복의 유리함을 강화한다는데 지금은 백의를 착용자는 극히 희소하다고 한다.

1937-01-24-03-02

### 매일신보

#### 인제우편소 간이보험 성적 양호

【인제】 인제군우편소장 석전춘철씨의 열성과 소원들의 부단의 노력으로 관내 주민들의 간보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두터워짐에 따라서 계약의 신입도 작년은 미증유의 수해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으며 중도 해약자도 거의없다는데 작년 중 계약건수는 124건 이고 계약고는 23,314원90전의 호성적을 발휘하였다 한다.

1937-01-24-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각갱생부락에 자작농 창정 기획

【인제】 인제군에서는 농촌진흥운동을 철저히시키기 위하여 각면 갱생부락 1개소씩을 선정하여 총경비 6,600원으로 자작농을 창정하기로 하고 방금 도지사에게 인가 신청을 하였다는데 일반 농촌생활자들은 사업의 혜택을 입고자 열망 중이라고 하며 선정된 자는 농민훈련소 출신으로 씨명은 좌와 같다고 한다.

인제면 상동리 김준수 최병태, 인제면 덕산리 최방춘, 인제면 남북리 박상섭, 남면 신월리 전재기, 남면 어론리 박성진, 북면 월학리 김재초, 북면 원통리 신찬영, 정동진, 기린면 북리 전기범, 내면 창촌리 우호성

1937-01-24-03-08

### 매일신보

#### 인제군 애국부인회 분회 각면에 분구 설치 1월말경 발회식 거행

【인제】 인제군애국부인회 분회에서는 본회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사업의 확장을 꾀하기 위하여 각면마다 분구를 설치하고 회원 모집에 대대적 활동을 하는 중 작년 여름 미증유의 수해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궁핍을 당하고 있는 만큼 모집에 다소 곤란하므로 위선 관하 각관공리의 부인을 입회시키며 일반에게 모범을 보인다고 하며 분구 발회식은 1월말까지 각면 전부가 순차로 거행케되리라 한다.

色衣着用獎勵  
麟蹄郡에서  
麟蹄郡에서는生活改善의第一着으로昨年以來色服을獎勵하여不尠實績을獲得하여왔습으로今年도亦是冬服着用期를利用하여徹底히獎勵코자各官公署正門에는立看板을세우고市日에는官公署員이連絡協助하여宜傳해라를配布하는同時에色服의有利함을講話한다는바지금은白衣を着る者는極히稀少하다고한다

麟蹄郵便所  
簡保成績良好  
麟蹄郵便所長石田君의熱誠과所員들의不斷의努力으로管内住民들의簡保에對한理解와觀念이두터워짐에따라서契約의申込도 昨年은未曾有의水害의凶年임에도不拘하고增加하였으며 中途解約者도殆無하다는바昨年中契約件數는一三二四件이고 契約高는二萬三千三百十四圓九十錢의好成績을發揮하였다고한다

麟蹄郡各更生部落에  
自作農創定企劃  
總經費六千六百圓  
麟蹄郡에서는農村振興運功을徹底시키기爲하여各面更生部落一個別式을選定하여總經費六千六百圓을自作農創定하기로하고 目下道知事에게認可申請을하였는데 一畝畝別に生活者들은新築의要請을입고자 麟蹄中이라고하며 選定된者는農民訓練所出身으로氏名은左와같다고한다  
麟蹄面上集里 全俊休 崔炳台 同面德山里 崔秀春 同面南北里 朴南燾 南面新月里 全在燾 同面於羅里 朴聖翼 北面月鶴里 金在草 同面元元里 申煥英 鄭景珍 麟蹄回北里 全基範 內面葛村里 禹浩成

麟蹄郡愛婦會分會  
各面에分區設置  
一月末發會式舉行  
麟蹄郡愛國婦人會分會에서는本會의精神을鼓吹시키는同時에新妻의擴張을圖하기爲하여各面에分區를設置하고會員募集에大なる活動을하는中昨夏未曾有의水害로因하여農家에서是弱之患當하고있는만큼募集에多少困難을受爲光宣下各官公署의婦人友人會시키어一般에規模を示함과고하며分區發會式은一月末까지各面全部가順次로舉行케되리라한다

1937-01-26-03-02

### 매일신보

#### 인제소학교 신축공사 준비

【인제】 인제군심상소학교는 작년 여름 대홍수의 유린을 받아 파괴되어 아동교육에 대곤란을 나타내고 있는 중 지난 18일 인제 유지들은 이를 신축코자 기성회를 조직하고 도 학무과에 보조 신청을 제출하여 2,392원을 1936년도 예산으로 보조하고 1937년도에 다시 1000원 이상의 보조를 하리라는 내침이 있어서 기성회 역원들은 부지 선정에 고심 중이라 한다.

**麟蹄小學校 新築工事準備**

【麟蹄】麟蹄郡尋常小學校는 昨夏大洪水의 蹂躪을 蒙り 破壤되어 兒童教育에 大困難을 呈하고 있는 中 지난 十八日 麟蹄有志者는 此를 新築코 定期會를 組織하고 道學務課에 補助申請을 提出한 바 二百九十二圓을 昭和十一年度豫算으로 補助하고 昭和十二年度에 更히 千圓以上의 補助를 하리라는 內牒이 있어서 定期會役員들은 數地選定에 苦心中이라 한다

1937-01-26-03-03

### 매일신보

#### 원통주재소 낙성

【인제】 인제경찰서 원통주재소는 작년 여름 미증유의 대홍수로 인하여 전멸을 당하고 동 시장 이진태씨의 초가 2칸을 빌려 임시로 집무하던 중 면민의 열성과 경찰협회 후원으로 작년 11월 25일에 부지 600평에 개축비 700원으로 기공, 지난 20일에 미려한 건물이 준공되어 동일 이전되었는데 낙성식은 오는 3월경이라고 한다.

**元通駐在所落成**

【麟蹄】麟蹄警察署元通駐在所는 昨夏未曾有의 大洪水로 因하여 全滅을 蒙고 同市場李門泰氏의 草家二間을 借家하여 臨時로 執務하는 中 面民의 熱誠과 警察協會後援으로 昨年十一月廿五일에 敷地六百坪에 改築費七百圓으로 竣工된 二十日 美麗한 建築物이 竣工되어 同日 移轉되었는데 落成式은 來三月頃이라고 한다

1937-01-26-03-03

### 매일신보

#### 인제갱생부락 부업경진회 개최

【인제】 인제군농회에서 농한기에 잉여노력을 이용하여 관하 각면 갱생부락민에 대하여 부업열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자작자급을 목표로 농가의 필수품인 가마니 외 48종의 농구를 제작토록 지도 장려하고 심사규칙에 의하여 심사를 종료한 후 오는 2월 말에는 입상자에 대하여 포상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麟蹄更生部落 副 競進會開催**

【麟蹄】麟蹄郡農會에서는 農閑期。餘剩勞力을 利用하여 畜下各面更生部落民에 對하여 副業熱을 鼓吹시키는 同時에 自作自給을 目標로 農家의 必需品인 以外四十八種의 農具를 製作토록 指導獎勵하고 審査規則에 依하여 審査를 終了한 後 來二月末에 入賞者에 對하여 褒賞式을 舉行한다고 한다

1937-01-26-03-03

### 매일신보

#### 사무쇄신 도모 인제군에서

【인제】 인제군에서는 신년 벽두의 사업으로 사무의 간첩쇄신과 범규의 연구를 행하기 위해 친목회를 조직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동 5시까지 직원 전부를 회합하고 사무간척의 연구를 상호 교환하는 동시에 매월 봉급 중 100분의 2를 공제 적립케 하여 직원 중 관혼상제가 있을 때면 15원 내지 20원까지 지급하여 화합을 도모하여 오는 바 직원의 상호단합은 물론이고 사무쇄신상 특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事務 新圖謀**

麟蹄郡에서 麟蹄郡에서는 新年 跨頭의 事業으로 事務의 刷新 新圖謀의 研究를 行하기 爲하여 親和會를 組織하고 每週 土曜日 午後一時부터 同五時까지 職員全部를 會合하고 있다

合하고 事務刷新의 研究를 相互 交換하는 同時에 每月 俸給中 百分之二를 扣除 積立하여 職員中 冠婚喪祭가 있을 때 十五圓乃至二十圓을 支給하여 親和會를 組織하고 是의 研究를 行하기 爲하여 親和會 職員의 相愛 團結을 勿論이고 事務刷新上 特別한 效果를 내고 있다

1937-01-26-03-04

매일신보

인제경찰서 모한 연습납회

【인제】인제경찰서에서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내한 무도연습을 행하여왔는데 지난 22일에 납회하였는데 수상자는 좌와 같다 한다.
◇검도 1등 중도춘지 2등 복영말작 3등 남부가장 ◇유도 1등 최규완 2등 전덕삼랑 3등 엄각중

1937-01-26-03-08

매일신보

인제군 삼림령 위반자 감소

【인제】인제군에서는 일반민중에게 삼림령을 철저히 선전한 결과 위반자가 1935년에는 103건에 피해액 420원이던 것이 1936년은 65건에 피해액 297원으로 연전에 비하면 38건에 123원이나 감소되었다 한다.

1937-01-27-03-06

매일신보

인제군 원통시장 이전계획 실현호 3월 중순경 기금 완납

【인제】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작년 여름 미증유의 수해로 전멸상태에 빠져 일반 시민들은 주택과 생계난으로 비명에 울고 있었는데 북면장 이회규씨는 이의 대책을 강구코자 면내 유지와 시민들 중 유산계급을 초대하여 협의한 결과 완전지대를 선택하여 부지 8,000평을 3,600원에 매입키로 지주에게 교섭한 후 대금은 매시일 상인 60호에 대해 1호당 2원씩을 3개월 한으로 거출하여 지불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목하 실행해 오는데 지난 20일까지 수급된 금액이 943원이라고 하며 3월중순까지 전부 완납되리라 하는데 벌써 부지정리는 부역으로 완료되고 신축가옥이 11호에 달했는데 오는 5월경이면 완전한 시장의 실현을 보리라고 추측되는데 면민들과 일반 이주민들은 이면장의 계획과 열정에 감사함을 마지않는다고 한다.

1937-01-27-03-07

매일신보

인제소방조원 총동 방화방법에 전력, 윤번으로 야경 실시

【인제】인제경찰서에서는 작년여름 미증유의 수재로 인하여 일반 민중의 경제력이 감퇴할 뿐아니라 방금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서 혹은 범죄사건이 속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서원과 소조원을 총출동시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윤번으로 야경을 실시케하여 철저히 방화에 주력한다고 한다.

麟蹄郡元市練習納會
【麟蹄】麟蹄郡에서는 既報한 바와 같이 耐寒 武道練習을 行하여 오는데 지난 22일에 納會하였는데 受賞者는 左와 같다.
◇劍道 一等 中島 裕至 二等 福永 未作 三等 南郡 嘉藏
◇柔道 一等 崔 圭完 二等 田德 三郎 三等 嚴 覺鉞

麟蹄郡 林令 違反者 減少
【麟蹄】麟蹄郡에서는 一般民衆에게 森林令을 徹底히 宣傳한 結果 違反者가 昭和十年에는 百三件에 被害額 四百二十圓이던 것이 昭和十一年은 六十五件에 被害額 二百九十七圓으로 年前에 比하면 三十八件에 一百二十三圓이나 減少되었다 한다.

麟蹄郡元市場 移轉計劃實現乎
【麟蹄】麟蹄郡元市場은 去年의 水災로 全滅된 바에 對하여 北면장 이회규씨에 由하여 移轉計劃을 立案한 結果 近日에 移轉地를 選定하고 地主를 交際하여 移轉金을 每日 數人 三個月 內에 完納한 바에 對하여 三月中旬에 移轉을 行할 計劃에 對하여 市會에서 議決한 바에 對하여 近日에 移轉을 行할 計劃에 對하여 市會에서 議決한 바에 對하여...

歸消防組員總動 防火防犯에 專力
【麟蹄】麟蹄郡에서는 昨夏 員과 消防組員을 總動시켜 每日 未嘗有의 水災로 困하여 一般民衆 午後一時부터 翌日午前五時까지 經濟力이 減退한 憂안이 甚目下 輪番으로 夜警을 實施케 하여 徹底히 防犯에 力을 注力한다고 한다.

1937-01-27-03-07

### 매일신보

#### 인제에 대설

【인제】 인제군 내면에는 지난 19일에 눈이 오기 시작하여 약 6시간 만에 1척 이상의 대설을 보게 되어 인근의 교통까지 두절되었으므로 일반민중은 대 곤란을 겪는다 하였으며 지금은 겨우 길이 통하여 통행하는데 내면과 인제면간에 소재한 응봉령에는 아직도 적설이 그대로 있어서 전연 통행이 두절되어 두면 간 교통이 대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1937-01-27-03-08

### 매일신보

#### 인제 야학강사에 은배 1조 사례 관대리 주민들이

【인제】 인제군 남면 관대리 갱생부락원 30명은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관대리 공립보통학교내에서 동교 교사 강용수씨 열성으로 야학을 개시하여 문맹퇴치에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부가 농가 갱생계획에 대한 가계부를 타인의 의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충분히 수기할 수 있으며 언문의 편지는 누구나 다 해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갱생에 대한 정신을 함양시켜 생활에 점차 여유를 보게 된다하며 지난 3일에는 강선생에게 감사의 정을 표하기 위해 은배 1조를 기념으로 기증하였다고 한다.

1937-01-28-03-01

### 매일신보

#### 인제군 소작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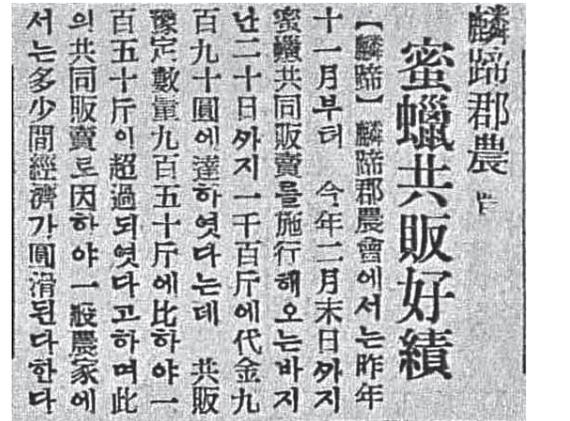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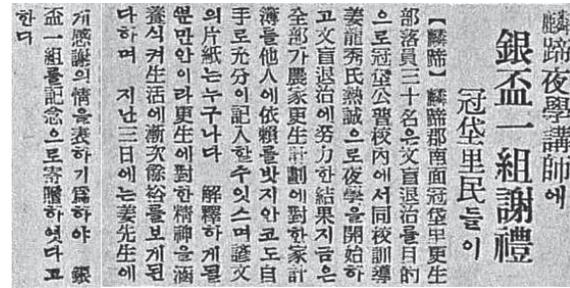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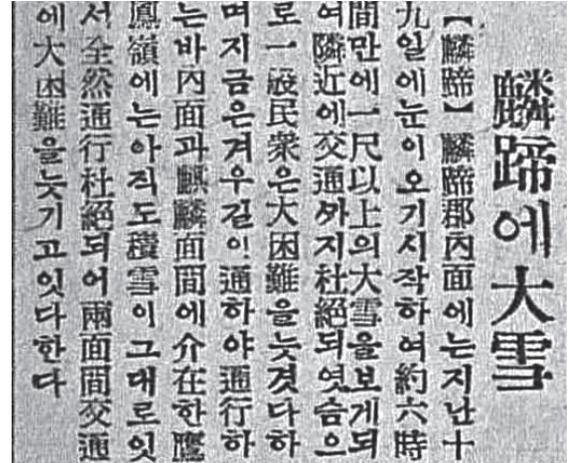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남면 관대리 조화옥은 경부 부수은정 이명구씨의 토지를 소작해 오더니 하등의 이유도 없이 남면 동리 심갑수에게로 작권을 이동하였으므로 조화옥은 이 토지를 군소작위원회에 신입하여 인제군에서는 지난 22일 소작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후사실을 조사한 결과 전기지주 이명구는 이작을 시킨 사실이 없고 단지 관리인 길중순의 단독적 행위로 판명되어 소작권은 도로 전 소작인 조화옥에게로 복귀되었다는데 인제군에서는 소작쟁의 사건이 금년에 처음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금후 기타지주에게도 상당한 경계가 되었다 한다.

1937-01-28-03-01

### 매일신보

#### 인제군 농회 밀랍 공판 호적

【인제】 인제군 농회에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밀랍 공동판매를 시행해오더니 지난 20일까지 1,100근에 달하였다 하는데 공판 예정수량 950근에 비하여 150근이 초과 되었다고 하며 이의 공동판매로 인하여 일반농가에서는 다소간 경제가 원활된다 한다.



1937-01-28-03-01

### 매일신보

#### 북면 사무소 신축을 요망

【인제】 인제군 북면사무소는 1918년 11월 30일에 총공비 2,300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게 되어 집무하여 오던 중 1930년 8월 미증유의 수재로 반폐가 되었으나 빈면인 관계로 경비의 반출이 막연함으로 500원을 투입하여 수리를 가해 근근이 집무하여 오던 중 또다시 작년 여름 대홍수의 유린을 받아 현재는 수리할 여지도 없이 비참한 경우에 이르렀음으로 면내유지들은 면사무소가 비경에 이르러도 신축치 못함을 결국 면민의 수치라 하고 이에 대책을 강구한 결과 총공비 4,000원으로 인부는 면민이 부담하고 공비만은 도 당국의 보조를 받기로 보조 신청서를 군당국에 의뢰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조의 혜택이 있기를 기대중이라고 한다.

**北面事務所 新築을 요망**

【麟蹄】麟蹄郡北面事務所는 大正七年十一月三十日總工費二千三百圓을投하여新築하게되어集務하여오던中昭和五年八月末曾有의水災로半廢가되엇으나貧面인關係로經費의割出이渾然然事에依賴하여江原道知事에게提出中이라고한다

아值々執務해오던中 또다시昨夏大洪水의蹂躪을바다現在는修築한餘地도없시悲慘한境遇에이르렀음으로面內有志는面事務所가悲境에이르러도新築치못할는結局面民의怨恥하고此에對策을講究한結果總工費四千圓으로人夫는面民의負擔하고工費만은道當局의補助를받기로補助申請書를郡當局에依賴하여江原道知事에게提出中이라고한다

1937-01-28-03-02

### 매일신보

#### 이 인제면장 용퇴

【인제】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장 이종호씨는 가사형편으로 금번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후임 운동자가 5, 6인이나 된다 하며 인제는 작년 수해로 인해 읍내를 이전 도중에 있을 뿐만아니라 신규읍 양파가 대립하여 있는 관계로 발전상 큰 영향이 있으므로 이제 상당한 인격과 수완가를 선임하여 인제부흥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한다.

**李麟蹄面長勇退**

【麟蹄】江原道麟蹄郡麟蹄面長李鍾吳氏는家事形便으로 今番辭表를提出하였는데後任運動者가五六名이나된다하며 麟蹄는昨年水害로因하여 邑內를移轉途中에이슬뿐만안이라 新舊邑兩派가對立하여야잇는關係로 發展上큰影響이잇음으로此際相當한人格과手腕家를選任하여麟蹄復興에支障이없기를바란다한다

1937-01-28-03-08

### 매일신보

#### 인제군 남면 화전민 70여호 생활난 수해 냉해로 호구 막연

【인제】 인제군 남면 각 산간에 거주하는 화전민의 상황을 보면 72호에 인구 279명으로 화전면적 505정 4반을 경작하여 오던 중 작년 미증유의 수해와 냉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여지없이 참경에 이르렀음으로 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한에 운다하며 더더욱 어려운 문제는 종자용 씨앗이 없음으로 닥쳐오는 농사기에 경영에 막연하다 하며 지금은 작년 가을에 주어두었던 굴밤을 가지고 그날그날 생활을 계속해 온다고 한다.

**麟蹄郡南面火田民 七十餘戶生活難**

水害、冷害로糊口漠然

【麟蹄】麟蹄郡南面各山間에居住하는火田民의狀況을보면七十二戶에人口二百七十九名으로火田面積五百五町四反畠耕作하여오던中昨年未曾有의水害와冷害로因하여農作物이여지없이稼穡에이르렀음으로그네들은먹을것이없시飢寒에운다고하며더욱이難問題는種穀이없음으로닥쳐오는農事期에經營이渾然하다고하며 지금은昨年秋季에 주어두었던 굴밤(栗實)을가지고그날그날生活를繼續해온다고한다

1937-01-29-03-02

### 매일신보

## 서울, 영천간 중앙선 광탄역 유치 기성 양평, 홍천, 인제 각 군민 천여명 본부에 진정코 촉진

【홍천】 양평군 용문 단월 청운 3개면민 대표 양호석씨와 이기덕 양씨가 지난 23일 내흥하여 홍천으로부터 서울에 지하는 중앙선 중요역을 용문역으로 유치운동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홍천지방의 발전과 여객화물 운수상 크게 기대되는 점이 있다 하여 응원을 얻고 인제군과 호응하여 양군에만 1,000여명이 진정서에 서명 날인하고 인접지 횡성군 서원면과도 합치하여 대표들이 상경 본부 당국에 진정하리라는데 당국이 예정으로는 용문면 광탄과 1리 떨어진 지평에 중요역 설치 준비를 한다는데 위치상 여객화물운수에 불편된 점이 많아 부적당하다는데 광탄리는 영동 영서의 관문으로 매일 여객이 500, 600명에 달하며 화물 운수도 수백톤에 달하므로 광탄 부근으로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여 진정서에 8개조 이득점을 역설하여 맹렬 활동 중이라 한다.

1937-01-29-03-06

### 매일신보

## 통화 위조 행사 사건 안관모 등 공판, 28일 오전에 개정심의 18명중 1명 사망

강원도 철원읍을 중심으로 1933년 3월부터 동 9월말까지 조선은행 지폐 10원짜리와 50원짜리, 은화 10전짜리 백통화 등 수만원을 위조사용하여 전 조선적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항해도 연백군 화성면 호곡리 184번지 안관모 등 18명(황원휴는 사망)에 대한 통화위조, 위조통화 수득행사, 사기, 사기교부 등의 피고사건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증춘 재판장 주심 주건 검사 입회하여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벽두에 피고 이대훈으로부터 심문이 개시되어 17명중 5명을 심문하고 일단 후계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부터 계속 개정하였다. 그러나 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오후 5시경 폐정하고 29일 속행하기로 되었는데 당일 출정한 피고는 아래와 같다.

(중략) ▲강원도 인제군 남면 금부리 249 이치범(67) (중략)

1937-01-30-03-03

### 매일신보

## 영업세 사정 홍천세서에서

【홍천】 홍천세무서에서는 관하 명년도 영업세 사정을 직세과장 이희구씨가 계원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읍내부터 착수하였는데 군민이 아직까지 납세 관념이 유치하여 정확한 신고를 기대기 난하므로 각종 영업소를 호별 방문코 장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사정에 노력중 이라는데 차제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세무에 대한이해를 깊게 하고자 노력 중이라 하며 인제군까지는 2월 하순 경 완료하리라 한다.

京城、永川間中央線  
廣灘驛誘致期成  
楊平、洪川、麟蹄各郡民千餘名  
本府에陳情코促進

【洪川】楊平郡屬門 丹月 韓 兩氏去二月三日洪川 廣灘驛誘致期成 爲期三個月 各郡民千餘名 到本府陳情 促其促進 廣灘驛誘致期成 爲期三個月 各郡民千餘名 到本府陳情 促其促進 廣灘驛誘致期成 爲期三個月 各郡民千餘名 到本府陳情 促其促進

通貨偽造行使事件  
安寬模等公判  
二十八日午前 개정심, 十八名中 一名死亡

二十八日午前 개정심, 十八名中 一名死亡 二十八日午前 개정심, 十八名中 一名死亡 二十八日午前 개정심, 十八名中 一名死亡

營業稅査定  
洪川稅署에서

【洪川】洪川稅務署에서는 雪下 明年度營業稅査定 直稅課長 李 秉求氏가 係員을 引率하고 先頭에 서 邑內부터 着手하였다 邑民이 아직까지 納稅觀念이 幼稚하여 申告를 怠忽하고 申告를 怠忽하고 申告를 怠忽하고

1937-01-30-03-07

### 매일신보

## 강원도 지난해 수해지 공의에 동정 대단, 도내 공의들이 위문금

【춘천】 지난해 미증유의 대풍수해로 인한 강원도내의 참담한 피해 상황은 세인의 기억상신한 것이거니와 수해당시 삼척 양양 강릉 인제 고성 원주 6군에 배치된 공의 등은 가옥의 유실과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수해를 불원하고 이재민구호에 필사의 노력을 하는 등 무수히 많은 미담이 있었는데 도내 각군의 공의는 다투어 의연금을 회사하게 되어 도위생과에 적당배급하여 달라고 위탁하여 왔으므로 피해정도에 의하여 좌와 같이 지난 24일에 각기 송금하였 다는데 의연금액이 650원에 달하였다한다.

기피해공의 근무지	피해액(원)	의연배당액(원)
인제	400	50
고성	500	50
양양	3,377	150
강릉	5,500	150
삼척	6,500	200
문막	560	50

1937-01-30-03-10

### 매일신보

## 서석면공보교 학급 증설 기성

【홍천】 홍천군에서는 1면 2교제를 10개년 계획사업으로 1937년도 부터 실시하리라 함은 기보한 것과 같거니와 따라서 학급 증설도 시행하므로 관내 보고 당국자와 면민들은 다루어 가며 맹렬한 운동을 하는데 서석면에서도 김동원 전대선 양씨가 대표로 지난27일 진정 차로 상도하였다는데 서석면은 생산력이 풍부하고 각관공서가 비치 되었으며 위치상 횡성 인제 양군과 접경되어 발전 여지가 타면보다 우수한데다가 인구가 조밀하여 학령 아동이 연년이 증가하나 서석 면 보교는 4학년제 복식 2학급으로 도저히 수용치 못하여 문맹퇴치 상 한심한 일이라 하여 교실 증축 기타 비용 2,000원을 조성하고 맹 운동중이라 한다.

1937-01-30-03-10

### 매일신보

## 인제 연초판매소 소매인 저금호적

【인제】 인제군 연초판매소에서는 각 소매인의 재산을 조성시키기 위해 소매인의 정도로 매인에게 50원내지 100원을 목표로 정하고 연초판매에 대한 이익 중에서 40% 내지 50%를 공제하여 저금하게 하고 정한금액에 달할 때는 가차 없이 가축 또는 땅을 구입하게 했 다는데 현재 소매인 150명에 대한 금액이 4,823원이라 하는데 1인당 32원 16전에 해당한다고 한다.

### 江原道去年水害地 公醫에同情翁然 道内公醫들이慰問金

【春川】客年未曾有の大風水害 江原道内の慘害極重被害 公醫等は家屋の流失或機械藥品 狀況은世人の記憶尙新한바이 一筆流失로相室한被害가잇을뿐 아니라水害當時三陟、襄陽、江陵 안이타自己들의災害를不顧하고

罹災民救護에必死의努力을하는 賑濟多의美談이잇는바道内各 郡의公醫는爭先義捐金을募集하 게되어道衛生課에適宜配給하여 달라고委託하여왔습니도被書程 度에依하여左와如히去二十四日 各其送金하였다는바 義捐總 額이六百五十圓에達하였다한다

被書公醫	被書額	義捐總額
三陟	六五〇〇	二〇〇
襄陽	五〇〇〇	一五〇
江陵	五〇〇〇	五〇〇
高城	四〇〇〇	五〇〇
襄陽	三三七七	一五〇
文幕	五〇〇	五〇〇

### 瑞石川公普校 學級增設期成

【洪川】洪川郡에서는一面二校 制을十個年計劃事業으로十二年 度부터實施하려함은既報한바 와가거니와여러서學級增設도施 行할으로管内普校當局者와面民 들은다루어가며猛烈한運動을하 는바秋石面에서金東遠 全泰 濟兩氏가代表로去廿七日陳情하 르나道하었다는바該面은生産力 이豊富하고各官公署가備置되었 슌이位置上橫城麟蹄兩郡과接境 되어發展餘地가他面보다優秀한 데다가人口가稠密하여學齡兒童 이年々가增加하나瑞石面普校는 四學年制複式二學級으로到底히 收容치못하여文盲退治上寒心한 일이라하여教室增築其他費用二 千圓을造成하고猛運動中이라한 다

### 麟蹄煙草販賣所 小賣人貯金好績

【麟蹄】麟蹄郡煙草販賣所에서 는各小賣人의財産을造成시키기 爲하여小賣人의程度를每人에五 十圓乃至百圓을目標로定하고煙 草販賣에對한利益中으로四割乃 至五割을控除하여貯金을하게하 고定限金額에 達할時는拂戻하 야家者又是土地等を購入하게했 다는바現在小賣人百五十名에對 한金額이四千八百二十三圓이라 하는데一人당三十二圓十六錢에 該當하다고한다

1937-01-30-03-10

### 매일신보

#### 인제군 작년중의 연초소액 막대

【인제】 인제군에서는 작년 중 연초의 소비액이 70,640원에 달하였 다는데 각면을 나누면 인제면 19,362원 남면 15,018원 북면 11,248원 서화면 11,732원 기린면 15,315원이라고 하는데 전년 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었다고 한다.

1937-01-31-03-03

### 매일신보

#### 영업세 사정 흥천세무서에서

【흥천】 흥천세무서에서는 관하 명년도 영업세 사정을 직세과장 이 희구씨가 계원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읍내부터 착수하였다는데 군민 이 아직까지 납세관념이 유치하여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움으 로 각종 영업소를 호별방문하고 장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사정에 노력 중이라는데 이시기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세무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 고자 노력중이라 하며 인제군까지는 2월하순경 완료하리라 한다.

1937-01-31-03-06

### 매일신보

#### 인제군 갱생부락 영농 계획수립

【인제】 인제군에서는 금번 제5차 갱생부락의 기본조사를 시행하 는 동시에 금후 갱생지도를 철저화 시키기위해 발 1정보경작자를 표 준으로 하여 좌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보리5반(라이맥을 포함함) 밀 3반(라이맥을 포함) 콩 3.5반(팔을 포 함함) (소맥간작) 을 3.5반(대맥간작) 잡곡 7이랑 소채 4이랑 대마 (또는 고추) 4이랑 마령서 1반 0담 2반보 경작자를 표준으로 80% 이 상 우량품종을 재배하여 반당 쌀 5석이상을 생산하는 동시에 답리작 으로 『헤아라뻬지』를 5이랑 이상 재배케함.

1937-01-31-03-06

### 매일신보

#### 인제 관대공보 면화 시작 호적

【인제】 인제군 남면 관대리 공립보통학교장 공본지덕씨는 학생에 게 농업열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도군 지도 장려방침인 육지면을 동 교 구내에다 약 5평가량을 재배하여 예상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9근 이상을 수확하였다는데 일반 농가에 면작의 시범이 되었다하며 금 년은 면적을 약 3배에 확장하리라 한다.

**麟蹄郡昨年中의 煙草消費額莫大**  
【麟蹄】麟蹄郡에서는昨年中煙草의消費額이七萬六百四十一圓에達하였다. 各面을分하면麟蹄面一九、三六二圓 南面一五、〇一八圓 北面一一、二四八圓 瑞和面一一、七三三圓 麟蹄一五、三二五圓이라고하는데前年에比하여多少增加되었다고한다

**營業稅査定**  
【洪川】洪川稅務署에서 正額申出을명辨키難함으로各稅務事務所를月別訪問코稅額를詳細調査하야査定에努力中이라는데此際有利하다. 一誠에계稅務에對한理解는計稅하고努力中이라하며麟蹄外지는二月下旬完了하리라한다

**麟蹄更生部落 營農計劃樹立**  
【麟蹄】麟蹄郡에서는今番第五次更生部落의基本調査를施行하 는同時에今後更生指導를徹底化시키기爲하야田一町步耕作者를標準으로하여左와如히計劃을樹立하였다고한다  
大麥五反(라이麥을含한) 小麥三反(라이麥을含한) 大豆三反(라이麥을含한) (小麥間作) 粟三、五反(大麥間作) 雜穀七畝(雜穀四畝大畝) (又는藥草) 四畝 瓜鈴薯 一反(小麥二反) 步耕作者를 標準으로 八畝以上優良品種을栽培하야反當別五石以上은生産하리라는同時에畜

標準으로『헤아라뻬지』를五畝以上栽培케함

**麟蹄冠依公普 棉花試作好績**  
【麟蹄】麟蹄郡南面冠依公立普通學校長宮本志德氏는學生에게農業熱을鼓吹시키는同時에道郡指導獎勵方針인陸地綿을同班內에다約五坪假置를栽培하야期以上の好成绩으로九斤以上收穫하였다는데一般農家에게示範이되었다하며今年은而畝約三倍에擴張하리라한다

1937-01-31-03-08

### 매일신보

#### 인제 갱생부락 식잠계획 수립 1호 평균 200그루

【인제】 인제군에서는 관내 제4갱생부락 각 1호당 200그루씩의 식잠을 실시하여 4년 후에는 매년 춘잠 2매 추잠 1매의 소립을 목표로 총그루수 109,380그루를 식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부터 구덩이 파는 것을 지도하여 오더니 현재 71,780본의 구덩이 파는 것이 실행되어 식잠 그루수에 비하면 약 80%의 성적을 얻고 있는데 군당국의 말에 의하면 오는 2월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전부 구덩이 파는 것을 완료한 후에 완전히 식잠을 한다 하며 목하 구덩이 파는 지도에 노력중이라 한다.

麟蹄更生部落  
植桑計劃樹立  
一戶平均二百本  
【麟蹄】麟蹄郡에서는管内第四次更生部落一戶當二百本식의植桑을實施하여四年後에는每年春蠶二枚、秋蠶一枚의植立을目標로總本數十萬九千三百八十本을植栽計劃을樹立하고昨冬부터穴掘을指導하여오든바現在七萬一千七百八十의穴掘이實行되어植桑本數에比較的約八割의好成績을得하고 있는데、郡當局의 말에依하면來二月外に積極的으로指導하여全部穴掘을完了한後에

完全히植桑을한다하며目下穴掘指導에努力中이라고한다

1937-01-31-03-08

### 매일신보

#### 인제군 갱생부락 성적 우량자 표창

【인제】 인제군에서는 관하 각 갱생부락을 통하여 지도자 중에서 농사개량 장려 계획과 갱생지도를 철저히 한 자를 조사하여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 제1차부락 원용국과 동리 제4차부락 김창경 양씨가 최우량자로 발탁되었는데 양씨는 군의 지도장려계획에 순응하여 갱생능력을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동시에 실천공행의 규범을 제시하여 온 결과 갱생계획수립 제1년에 면목을 활약한 점 있어서 이번에 그 사실을 강원도지사에게 납신하여 표창을 받게하였다고 한다.

麟蹄郡更生部落  
成績優良者表彰  
【麟蹄】麟蹄郡에서는言下各更生部落을通하여指導者中에서農事改良獎勵計劃과更生指導을徹底한者를調査한바麟蹄郡麟蹄面德山里第一次部落元容國과同里第四次部落金昌顯兩氏가最優良者ト拔擢되었는데兩氏는那의指導獎勵計劃에順應하여更生農家を獻身的으로指導하는同時에實踐躬行의範을示하여온結果更生計劃樹立第一년에面目을躍如한바이어서今番其事實을江原道知事에게內申하여表彰을받게하였다고한다

1937-02-02-03-08

### 매일신보

#### 인제면장 경질 신임엔 이종익씨

【인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인제군 인제면장 이종호씨는 면장으로 취임이래 4개성상을 시종일관 면의 업무에 정진해 오더니 이번에 실업계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인제면 회계원으로 10여년을 근무 하였던 이종익씨가 승진하였다 씨는 금년 41세의 장년으로 성격이 온후독실하고 모든 일에 용단력이 있음으로 금후 인제읍 발전에 많은 활약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다.

麟蹄面長更迭  
新任인李鍾益氏  
【麟蹄】既報한바麟蹄郡麟蹄面長李鍾采氏는面長으로就任以來四個星霜을終始一貫面務에精勤하여오든바今番實業界에進出할에따라同面會計員으로十餘年을勤務하던李鍾益氏가昇進하였다氏は今年四十一歳の壯年으로性格이溫厚篤實하고凡事에重斷力이잇슴으로今後麟蹄邑發展에 많은活躍이잇기를期待하고있다한다

1937-02-03-04-06

### 매일신보

## 처녀방에 침입한 남자, 필경 탄로되어 싸움이 벌어져 인제서에 4인 인치

【인제】 인제군 인제면 덕적리 최인근(26)은 동리 유택용의 딸 부흥(15)의 아리따운 자태에 혹하여 작년 12월 31일 오후 9시경에 동녀의 방에 들어갔다가 유택용의 아내되는 홍맹호에게 발각되어 수욕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오는데 홍맹호는 누구냐고 붙들므로 발길로 2, 3차 걷어차고 겨우 도망하다가 고무신이 벗겼으므로 이를 우려한 최인근은 증거를 인멸하기위해 이웃집 박봉운 집에 가서 동리 이장복과 장기를 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고무신이 없어졌다고 소동을 하다가 주인의 신을 얻어 신고 갔는데 3일후에 전기 홍맹호는 그 고무신을 가지고 최인근에게 와서 네게 채여서 운신할 수 없으니 치료비를 많이 내라고 하므로 최인근은 사실을 자백하고 돈 3원과 백미 6승을 갖다주었으나 듣지 않고 많은 돈을 청구하였는데 이사실을 들은 박봉운(29) 이장복(23)은 최인근의 행동을 타매하고 구타하였으므로 최인근은 박봉운과 이장복을 걸어 인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했는데 동서에서는 최인근은 가택침입죄, 홍맹호는 공갈죄, 박봉운 이장복은 상해죄로 취조중이다.

1937-02-04-03-03

### 매일신보

## 인제서 매월 1일 신사에 참배, 관민 일치로

【인제】 인제군에서는 연중 행사로 국민의 정신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매월 1일이면 면내 관공서 직원과 지방유지가 오전 9시에 경찰서 싸이렌 신호에 의해 인제 신사에 모여 참배한 후 다시 동향 최경례를 행하고 해산하기로 되어 매월 실시중이라고 한다.

1937-02-04-03-04

### 매일신보

## 서화면 소방조 출초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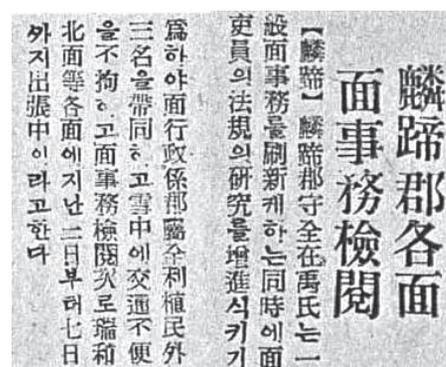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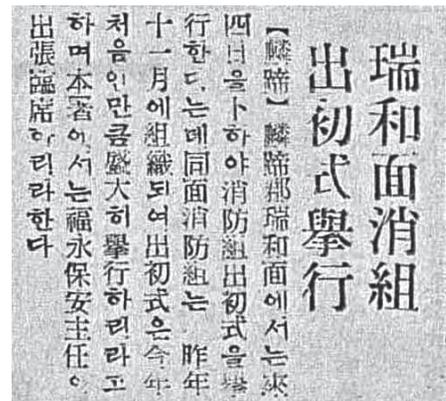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서화면에서는 오는 4일을 복하여 소방조 출초식을 거행한다는데 동면 소방조는 작년 11월에 조직되어 출초식은 금년 처음인 만큼 성대히 거행하리라고 하며 본서에서는 복영 보안주임이 출장하여 임석하리라 한다.

1937-02-06-03-03

### 매일신보

## 인제군 각면 면사무 검열

【인제】 인제군수 전재우씨는 일반 면사무를 쇄신케 하는 동시에 면리원의 법규의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면행정계 군속 전리식민 외 3명을 대동하고 설중에 교통불편에도 불구하고 면사무 검열차로 서화 북면 등 각면에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출장 중이라고 한다.



1937-02-07-03-01

### 매일신보

## 서화면 대곡천 제방 개수요망 작열화 인제군 당국에 진정

【인제】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면청 소재지 부락) 동편으로 약 10정 거리에 있는 대곡천은 매년 하계 홍수 때면 수해에 위험성이 있음으로 서화면장 이설우씨는 매년 봄이 되면 서화부락민을 총동원시켜 간이제방을 축조하여 오더니 작년 수해에는 그나마 제방이 파괴되어 전답이 다수 매몰되고 인가까지 피해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면 금년은 도저히 그 부락에 거주할 수 없다고 부락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자력으로는 비용을 변통할 여유가 없으므로 도군에서 다소의 보조를 주면 부락민과 지주들이 협력하여 개수공사를 행하고자 군당국에 보조에 대한 의견을 신출하였다 한다.

1937-02-09-04-08

### 매일신보

## 인제에 화재

【인제】 인제군 남면 남전리 허찬씨집에서는 지난 4일 오후 12시경에 불이 나서 일동 20여간을 전소하고 행랑채로 연소될 즈음에 관대리 소방조의 활동으로 익일 오전 3시경에 진화되었다는데 발화의 원인은 연돌에서 났다고 하며 손해는 약 1,000원가량 된다고 한다.

1937-02-11-03-09

### 매일신보

## 인제군 기린면서 공의 배치 요망

【인제】 인제군 기린면은 의료기관이 없는 관계로 아까운 생명을 버리는 자와 현재 환자들로서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명을 올리는 자가 다수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 면내 유지들은 지난 7일 동면사무소에 집합하여 공의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행한 바 진찰소를 1,000원 한도로 건축하고 매월 30원씩을 수합하여 공의의 급료를 보조하기로 하고 번영회를 조직하여 번영회원들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진정하기로 하였다 하며 목하 진찰소 건축과 월급 보조액에 대한 염출방법을 강구중이라 한다.

1937-02-13-03-03

### 매일신보

## 인제 각 면직원 일제 증봉 요망

【인제】 전 조선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진흥을 고창함에 따라 지도 책임의 제일선에 선 면직원의 사무는 날마다 증가되어야 하고 일신양역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담당치 못할 정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급은 의연히 박봉 그대로 있으므로 목하 물가폭등으로 인하여 수지가 맞지 않는 관계로 생활상 큰 위협을 받아 도저히 생활을 유지키 어렵다고 하여 신년도부터는 일제 봉급을 올리는 것을 단행하길 요망중이라 한다.

瑞和面大谷川堤防  
改修要望熾烈化  
麟蹄郡當局에陳情

【麟蹄】麟蹄郡瑞和面大谷川(를放置하면 今年는 到底河그 面附近在河部邊) 東堤으로 約十 部落에 居住할수없다고 部落 町距離에 있는 大谷川은 每年夏季 民은 不安을 느끼고 잇스나 洪水 때면 水害에 危險性이 있음으로 力으로는 費用을 辨出할餘裕 가 되면 同部落民을 總動員시 力으로 도 道郡에서 多少의 補助 補給을 求할수 없으므로 改修工 事를 行하고 該郡當局에 補助에 對한 意見을 申出하였다 한다

瑞和面大谷川 堤防 改修 要望 熾烈 化 麟蹄 郡 當局 에 陳 情

麟蹄에 火災

【麟蹄】麟蹄郡南面南전리 허찬씨집 (麟蹄 南面南面南面南面) 火災 發生 是는 지난 四日 오후 十二시경 에 불이 나서 일동 (一棟) 二十여 간을 전소 (全燒) 하고 행랑채 로 연소될 즈음에 관대리 소방조 (冠袋里消防組) 의 활동으로 익일 (翌日) 오전 三시경에 진화 (鎮火) 되었다는 데 발화 원인 (原因) 은 연돌 (煙突) 에서 났다고 하며 손해 (損害) 는 약 천 원 가량이 라고 한다.

麟蹄郡麟蹄面서 公醫配望 要望

【麟蹄】麟蹄郡麟蹄面은 醫療機關이 없는 關係로 醫官을 配望 要望 是는 着와 現在 患者들로서 醫療의 莫澤을 受하지 못하고 悲鳴을 올리는 者가 多數인 爲을 遺憾으로 生費한 面內有志들은 지난 七日 同面事務 所에 集合하여 公醫配望에 對한 具體的 協議를 行한 바 診察所를 千圓 限度로 建築하고 每月 三十圓 式을 收合하여 公醫의 給料을 補助하기 로 하고 繁榮會를 組織하여 繁榮會 員들의 連署로 道知事에게 陳情하 기로 되었다 하며 日下 診察所 建築 費用에 對한 補助 額에 對한 檢出 方法을 講究中이라고 한다.

麟蹄各面職員 一齊增俸要望

【麟蹄】全縣를 通하여 麟蹄 郡 村의 振興을 爲함에 爲하여 指導 責任의 第一線에 在面職員의 事務는 日益增加되야 一身兩役의 行動을 取지 않으면 到底 擔當치 못할 情勢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俸給 은 依然로 薄俸 그대로 잇스므로 目下 物價騰貴으로 因하여 收支 가 맞지 않는 關係로 生活上 큰 威脅을 受하고 잇는 關係로 新年度부터 一齊增俸 進行을 要望中이라고 한다.

1937-02-14-03-01

### 매일신보

#### 기원의 가진에 각지 제전 성대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동11시까지 관민일치로 인제신사에 모여 건국제를 성대히 거행 하였다.

1937-02-14-03-02

### 매일신보

#### 인제면 공보교 증설 요망 백열

【인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간이학교는 1935년에 신설된 이래 신입학생수가 매년 증가되어 간이학교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보통학교로 승격시키고자 지방민들은 운동을 개시코자 하였던 바 마침 도로부터 인제군에 보교를 1교 증설하겠다는 통보도 있었음으로 동지방민은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운동을 개시함이 가하다 믿고 군당국에 보교 설치를 신출하여 내락이 있었다고 하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비밀에 부치고 발표하지 않으므로 4월 1일 개교 관계와 교과사 준비에 대한 차이가 있게되므로 동지방민들은 장소발표를 하루라도 급속히 해달라고 열렬히 운동중이라 한다.

1937-02-14-03-08

### 매일신보

#### 덕산리 갱생부락 위친계 조직

【인제】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차평동) 갱생부락에서는 인보상조의 목적으로 김일용외 14인이 1934년부터 위친계를 조직하고 매년 농한기가 되면 1인당 쌀감 2부씩을 모아 이의 매각대금을 저축한 것이 현재 70여원에 달하는데 지난 1월 20일에 위친계 계원 김갑순이가 친상을 당하였으므로 동계에서는 장비로 약 30원을 (제물품으로 대응)지출한바 동리 구장 김창경씨는 방금 농촌진흥운동에 소비절약을 고창하는 이제 전부 장비로만 충당함은 불가하다고 역설한 후 30원 중 반액 15원만 장비로 사용케 하고 15원은 송아지 1마리를 구입시켜 종래 무축농가를 유축농가가 되도록 지도를 하였는데 일반계원들은 구장의 안에 감복하여 계무에 열심이고 계원 이외의 농가들도 동계와 유사한 계를 방금 조직중이라 한다.



1937-02-18-03-08

### 매일신보

## 강원도 각군 순회로 사회교화 강연회, 3구로 분하고 강사 촉탁

【춘천】 강원도에서는 사회교화 목적으로 다음에 의하여 순회강연을 실천하려하는데 촉탁된 강사는 이근수, 박보양 김영근 3씨라 하며 강연의 제목은 주로 심전개발, 청소년지도, 부인의 교양, 생활개신, 지방개량 등에 관하여 행하려 하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박보양씨 3월 11일 김화 14일 평강 18일 이천 22일 회양 24일 철원  
▲이근수씨 2월 25일 양구 3월 3일 인제 6일 통천 9일 고성 13일 양양 16일 강릉 23일 삼척 26일 울진 ▲김영근씨 3월 11일 흥천 14일 횡성 17일 원주 20일 영월 23일 평창 26일 정선

1937-02-19-03-03

### 매일신보

## 인제 기린간 도로 수선요망

【인제】 인제읍과 기린면간에 등외도로는 연내 유등도로로 승격운동을 해왔으나 도예산 관계로 실현을 하지 못하고 지난봄까지 민간 부담으로 왔는데 그나마도 작년 여름 수해로 인하여 전부 파괴되어 도로의 형태도 찾지 못하게 되어 교통상 큰 불편을 느끼어 오던 바 인제면 관계담당구역은 전부 복구되어 현재는 우마차가 하등의 구애도 없이 통행하게 되었으나 인제면은 면장 경질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약 2리가량이 아직도 원형대로 복구되지 못해 일반 통행인들의 비난이 적지 않다고 하며 우선 인마의 교통이라든 충분히 시급히 복구 수선을 요망한다고 한다.

1937-02-20-03-05

### 매일신보

## 인제공립보통학교 우등생 표창

【인제】 인제공립보통학교에서는 학교 생도 중 최우등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게 되어 수상자는 좌와 같다고 한다.  
동교 6학년생 한용담

1937-02-20-03-06

### 매일신보

## 인제경찰서 순열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오는 23일부터 26일 까지 4일간 경찰부에서 경무과장 외 6명의 순열관이 도착하여 순열을 행한다는데 순열 준비에 분망중이라 한다.

江原道各郡巡廻로  
社會敎化講演會  
三區로分하 講師囑託

【春川】江原道에서는社會敎化  
爲目的으로 左列如依하야 巡廻  
講演會實施하되 奉託된  
講師는李蓬沃 朴善福 金永五  
三氏라하야 講演의題目은主로心  
田開發 青少年指導 婦人의敎  
養 生活改善 地方改良等에關  
하여行하되 日程은如  
하야하리라

▲朴善福氏 三月十一日 化川  
十四日 奉陽 同十八日 伊川 同廿  
二日 淮陽 同廿四日 醴泉  
▲李蓬沃氏 二月廿五日 楊口  
三月三日 麟蹄 同六日 進川  
同九日 高城 同十三日 襄陽  
同十六日 江陵 同廿三日 三陟  
同廿六日 蔚珍  
▲金永五氏 三月十一日 洪川  
十四日 橫城 十七日 原州 廿  
一日 寧越 廿三日 平昌 廿六日  
旌善

麟蹄 麟蹄間  
道路修繕要望

【麟蹄】麟蹄邑과 麟蹄面間의等  
外道路는 年來有等道路로 採擇運  
動을 해왔으나 道路算關係로 實現  
을 得지 못하거고 昨春까지 民間負擔  
으로 해오든바 그나마도 昨夏水  
害로 因하여 全部破壞되야 路形을  
찾지도 못하거고 交通上大不便  
을 느끼어 오든바 麟蹄面關係 諸公  
廳等은 全部復舊하여 現在는 牛馬  
車外 何等의 物器가 用시通行할  
可없스나 麟蹄間의 面長 更迭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約二里가량인 一  
段도 原形대로 復되지 못하야 一  
般通行人馬의 交通이 라도 充分  
하며 爲先人馬의 交通이 라도 充分  
하고 한다

【麟蹄】麟蹄間의 復舊修繕을 要望한  
다고 한다

麟蹄公普校  
優等生表彰

【麟蹄】麟蹄公立普通學校에서  
는 同校生徒中 最優等生을 選拔하  
야 表彰케 된바 受賞者는 左와 如하  
다고 한다

同校六學年 生 韓 龍 潭

麟蹄署巡閱

【麟蹄】麟  
蹄警察署에는 來고十三日 부터二  
十六日 까지 四日間 警察部에서 警  
務課長外 六名의 巡閱官이 來到하  
야 巡閱을 行한다 는바 署員들은 巡  
閱 適宜에 奔忙中이라 고 한다

1937-02-23-03-09

### 매일신보

#### 인제 갱생부락조사

【인제】 인제군에서는 금년부터 실시할 제5차 갱생부락 기본조사를 종료하고 목하 담임군속 이기백씨와 각계 기술원의 손으로 준비를 진행중이었는데 이번 설치부락은 1개면 2부락씩 12부락이며 호수는 325호라 한다.

1937-02-23-04-03

### 매일신보

#### 인제군하에 광견병 발병

【인제】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서는 지난 1월에 광견병이 발생하여 동리 씨밭을 황소 비롯하여 축견 70여마리를 교상하여 한때는 대소동을 일으켜오더니 또다시 지난 18일에 동면 관대리 심주흥의 씨밭이 사슴 두 마리를 물고 뒷산으로 도망하였다는데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가축의 피해는 고사하고 사람에게도 화가 미칠까 우려가 있음으로 일반은 공포에 싸여 있다고 하며 더욱이 이번에 교상을 당한 암사슴은 1934에 강원도로부터 사슴 장려계획에 의해 무상대부를 받았는데 더욱 방금 번식에 노력하고 있던 중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는데 만일 불행히 폐사된다면 당국의 장래방침에도 다소 영향이 있으리라고 하며 급후 광견 예방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1937-02-23-04-06

### 매일신보

#### 인제 지방에 백일해 창궐 사망아도 5,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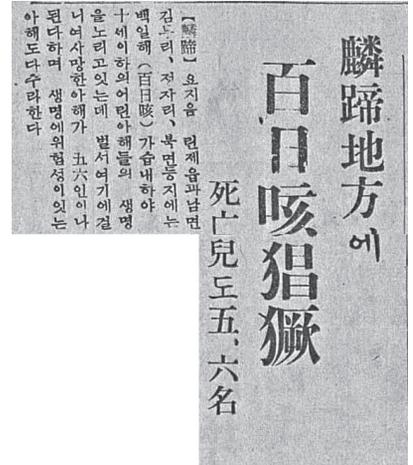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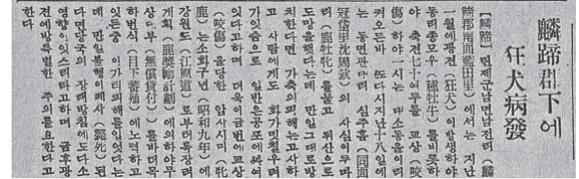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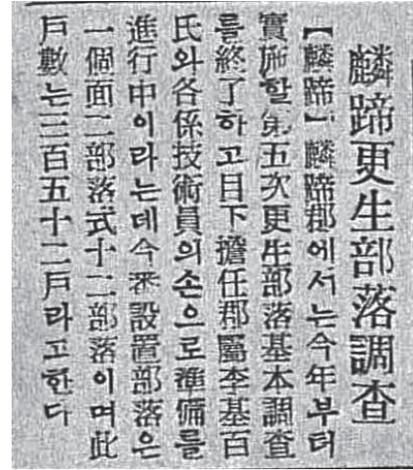
【인제】 요즘 인제읍과 남면 금부리, 정자리, 북면 등지에서는 백일해가 기습하여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벌써 여기에 걸려 사망한 아이가 5, 6인이나 된다고 하며 생명에 위협이 있는 아이도 다수라 한다.

1937-02-24-03-08

### 매일신보

#### 인제군 내면의 현안 우편소 설치 기성

【인제】 인제군 내면 거촌리는 평창 흥천 강릉 양양군의 근접지로 교통이 편리하여 목재와 약초 기타 산물이 연간 5만, 6만원에 달해 농촌 금융도 상당히 호전되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우편기관이 없어 주민 등의 불편이 적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면 유지들은 우편소를 설립하고자 1934년에 지방유지 대표 전상국씨가 상경하여 본부에 진정하였던데 총독부 체신국에서도 속히 실현해줄 의향을 보였다 하나 아직도 실현의 서광이 비치지 않음으로 지방유지는 또다시 운동을 개시하여 내달 3,4일경에 전상국씨가 다시 상경하여 본부에 진정올해에는 기어이 실현을 도모하리라 한다.



1937-02-24-03-09

### 매일신보

#### 인제군 소작쟁의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7일 소작쟁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제면 남북리 박인균씨가 4명의 소작권 이동에 대한 관정이 있었는데 전부 소작권은 구소작인에게로 권원 복귀되었다 한다.

1937-02-24-04-08

### 매일신보

#### 자동차 대금 인상을 기대

【인제】 인제군은 아직 문화혜택을 입어오지 못한 산간벽지의 군으로서 자동차 임금까지도 타 군에 비하여 매우 비싼 현상이므로 일반 주민은 매년 봄가을로 도로개수를 열심히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너무도 턱없이 비싼 관계로 자동차를 탈 수 없다고 여론이 비등하며 거의 태반이 경춘철도로 매도됨을 기해 현재 인제 흥천간 2원 80전을 2원으로 춘천 인제간 4원을 3원으로 인하하길 바란다 한다

1937-02-27-03-08

### 매일신보

#### 인제 내면에 금융조합 설립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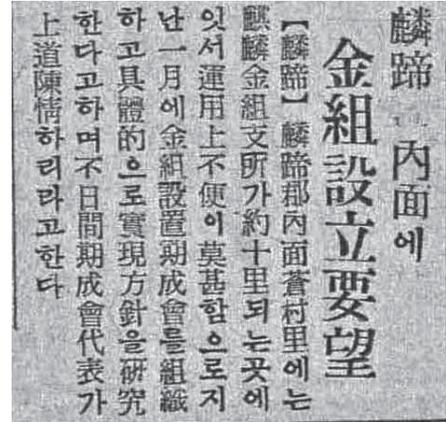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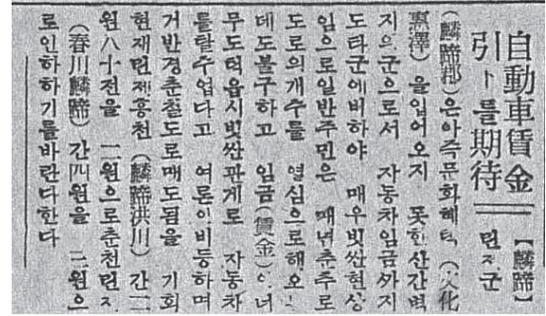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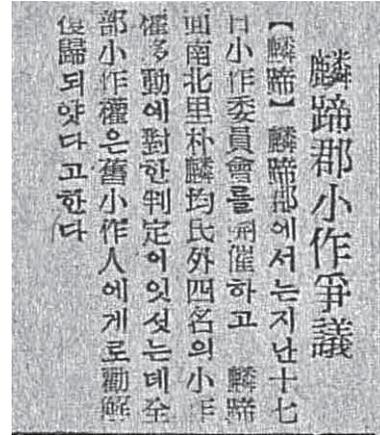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내면 창촌리에는 인제금융조합지소가 약 10리되는 곳에 있어 운용상 불편이 막심하므로 지난 1월에 금조설치기성회를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며 가까운 시간에 기성회대표가 도로 가서 진정하리라고 한다.

1937-02-28-03-03

### 매일신보

#### 면화 증산장려 인제군에서

【인제】 인제군에서는 매년 육지면의 시작을 행하여 오더니 기후 토질 기타에 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으므로 금년부터는 연차 계획을 세우고 인제 남 북 3개면에 적극적으로 장려 실시하여 면화 공동 판매도 실행 농가 갱생상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면화 경작의 유익함을 자각케 할 계획으로 산업기술 1명과 농업기술 1명을 증원하기로 되었으며 목하 경작지 선정에 분망 중이라한다.



1937-02-28-03-05

### 매일신보

#### 내면 창촌공보 학년 증설 기성

【인제】 인제군 내면 창촌보교는 이제까지 4학년제로 수업하여 오는 관계상 공지에 빠진 농촌아동으로 5, 6학년의 졸업을 하고자 하나 재정상 도저히 할 수 없게되어 일반아동의 우울상은 물론이요 학부모들 간에는 이른바 보교가 있다는데 소학도 완전히 수업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고 귀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유감천만이라 하며 기성회를 조직하고 목하 현금 1,500원을 기린면 금조지소에 예치하고 미수금 1,300원은 학년 증설 인가가 되는 즉시 일제히 납입하리라는데 기성회장 전상주씨는 오는 5, 6일경에 도에 가서 도지사에게 진정코자 이달 21일 인제군을 경유 출발하였다고 한다.

1937-02-28-03-08

### 매일신보

#### 인제 원통보교 학급 증설 철저 기성, 지방유지 등 상도 진정

【인제】 인제군 북면 원통공립보교는 1934년 2월 18일 설립 개교 이래 입학지원 아동수가 모집인원의 배 이상에 달해 미취학 아동과 학부모들의 비탄은 말할 수 없는데 지난 1936년 3월 11일에 지방민들은 학교 증설운동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내무부장 각 부장에게 진정하였으나 그 이후 하등의 소식도 없으므로 지방유지들은 다시 쫓기하여 증설자금 2,000원을 염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4일 지방유지대표 김영준 이종태 양씨는 인제군수에게 진정하였으며 뒤이어 도에 가서 진정하리라는 데 동교관내 학령아동수는 만 6세로부터 10세까지 올해 2월 20일 현재로 975명이라는데 금년 모집 예정수는 약 40명이라 한다.

1937-03-02-03-12

### 매일신보

#### 인제 간성간 도로복구 요망

【인제】 인제 간성간 도로는 기보한바와 같이 작년 여름 미증유의 수해로 전부 파괴되어 한때는 인마교통이 두절되었는데 작년 10월부터 도예산으로 국부적 공사가 착수되어 겨우 보행만은 통하게 하였으나 자동차의 교통은 아직도 전도가 막연하므로 일반 주민은 지급 개수를 요망중이라 한다.

1937-03-07-03-06

### 매일신보

#### 인제군의 현안 전화가설 실현된다 군당국서 기본적 조사

【인제】 인제군에서는 전화 가설이 없어서 각면 간에 혹 급한 사고가 발생한때라도 부득이 인부로 통신내왕시키는 상태이므로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주민들까지 불편을 느껴오더니 이번에 도에서 전화가설에 대하여 기본 조사를 하였다는데 인제군 각면 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열렬히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면민들은 다소간이라도 가설비에 대해 자진해서 보조하겠다고 한다.

內面蒼村公普  
學年增設期成  
【麟蹄】麟蹄郡內面蒼村普校는 從來四學年制로授業하여오는關係上窮乏에빠진農村兒童으로五六學年の卒業을하고자하나財政上到底에달수없게되어一般兒童의憂鬱相은勿論이요學父兄弟小學校도完全히授業을못하고

中途에서구만두고歸農을한다는것은事實遺憾千萬이요現金一千五百圓은麟蹄面金組支所에預金하고未收金一千三百圓은學年增設認可가되는即時一齊히納入하리라는데 期成會長全相周氏는來五、六日頃에上道하여 道知事에게陳情코져本月二十一日麟蹄郡을經由出發하였다한다

麟蹄元通普校  
學級增設徹底期成  
地方有志等上道陳情  
【麟蹄】麟蹄郡北面元通公普校는昭和九年二月十八日設立開校以來入學志願兒童數가募集人員의倍以上에達하여未就學兒童과學父兄弟들의悲嘆은말할수없는데 昨昭和十一年三月十一日에地方民들은學級增設運動에對하여江原道知事處를비롯하여內務部長官廳에게陳情하였으나于今何等의消息도없음으로地方有志들은다시斷起하여增設資金二千圓을捻出하기로決定하고昨廿二日十四日地方有志代表金英俊、李鍾泰兩氏는麟蹄郡에게陳情한바이것스며뒤이어上道陳情하려하는데同校當內學齡兒童數는額六才로부터十才까지本年二月二十日現在로九百七十五名이라는데今年募集決定員數는約四十名이라고한다

麟蹄、杆城間  
道路復舊要望  
【麟蹄】麟蹄杆城間道路는既報한바외가치昨夏未曾有의水害로全部破壞되어一時是人馬交通이全然杜絶되었는데中昨年十月부터道豫算으로局部の工事が着手되어겨우步行만은通하게되었으나自動車의交通은아직도前途가漠然함으로一般住民은至急改修를要望中이라한다

麟蹄郡의懸案  
電話架設實現乎  
郡當局서基本的調査  
【麟蹄】麟蹄郡은電話架設의必要가甚大인것은勿論이요 本郡에屬하는各面民衆은電話架設을切實히望望하고있다 麟蹄郡當局에서는電話架設의實現을爲하기爲한바다소數의民衆을多少開회하여調査

관세청에서  
고원다  
麟蹄郡에  
電話架設  
實現을  
爲하기  
爲한  
바다  
조사  
하고  
있다

1937-03-07-03-09

매일신보

인제 금융조합 평의회

【인제】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의회를 개최하고 좌기사항을 자문하였다고 한다. 신가입 조합원에 대한 가입 수락과 부결 결정

1937-03-11-04-02

매일신보

지주간 의견 충돌로 관평보 수선 지연, 춘경기로 작인 불안

【인제】 인제군 북면 관평보는 작년 여름 대홍수로 참혹하게 파괴되어 수선을 하자면 수천원을 요한다는데 관평보의 물리 면적은 600여 두락으로 지주는 단 3인이나 소작인 수는 100여명에 달한다는데 방금 관평보를 수리코자 지주에게 통지하였더니 지주 중에는 화약을 사용하지는 지주와 송관으로 간편하게 하자는 주장이 서로 달라 각각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닥쳐오는 농사기가 박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선을 중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소작인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면 부모처자를 데리고 생활을 할 길이 없다고 매일 미간을 피지 못 할 뿐 아니라 500, 600명의 소작인 가족들은 물끓듯이 아우성을 치고 있으므로 북면 면장 이희규씨는 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각 지주에게 수차 교섭을 하였으나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한다.

1937-03-13-03-03

매일신보

인제 청년회에 국고로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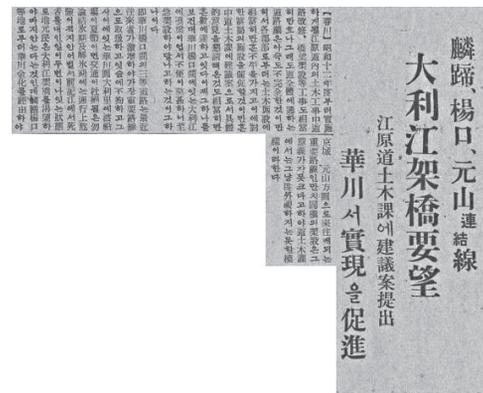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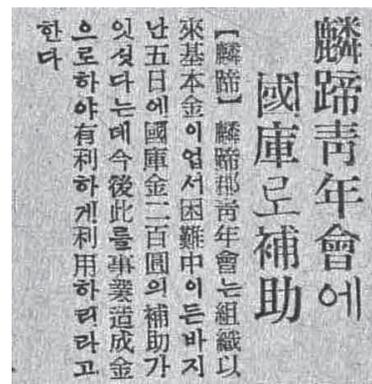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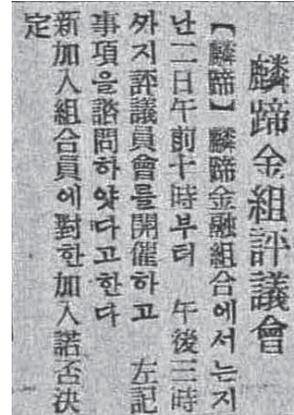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청년회는 조직 이래 기본금이 없어서 곤란중이던 바 지난 5일에 국고금 200원의 보조가 있었다는데 급후 이를 사업조성금으로 하여 유리하게 이용하리라 한다.

1937-03-13-03-06

매일신보

인제 양구 원산 연결선 대리강 가교 요망, 강원도 토목과에 건의안 제출 화천서 실현을 촉진

【춘천】 1937도부터 실시하게될 강원도내의 토목공사 중 도로개수 교량가설 등 공사도 상당히 많으나 그래도 도 전체에 통하는 도로망은 아직도 불완전한 것이 많아서 각 군부로부터는 토목시설에 상당히 많은 불평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당국의 시설을 재촉할 것이 많은 중 도토목과에 건의안으로서 구체적 의견을 간청해 온것도 상당히 많은 수에 달하고 있다 이제 그 하나를 보건대 화천 양구간에 있는 대리강에 교량이 없어 불편이 막심하니 지금 가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다.



즉 화천 양구간의 3등도로는 최근 왕래자가 격증하여 가장 중요한 노선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화천면 대리리에 도선장이 여름철이면 교통이 두절됨은 물론 결빙기와 해빙기에는 통행상 위험이 적지 않아 벌써 전기강에서 사망자를 낸일이 두 번이나 있는 상태로 지방의 원주민은 대리강 가교를 갈망하여 마지않는 다는 것인데 인제 양구 등지로부터 화천 김화를 경유하여 서울 원산방면으로 왕래하게 되는 중요노선인 만치 동교의 사설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여 도 토목과에서는 그냥 도외시 하지는 못할 모양이다.

1937-03-13-03-08

**매일신보**

**인제 공보교 졸업식**

【인제】인제공립보교 졸업식은 오는 25일에 거행한다 하는데 금번 졸업생의 수는 70명이라 하는데 상급학교에 희망자 수가 약 20명이고 그 외는 전부가 향촌에 돌아가 농업과 실업에 종사하리라고 한다.

1937-03-16-03-07

**매일신보**

**인제군 일본어 해득자**

【인제】인제군 내 조선인 총원 69,648명중 일본어 해득자가 1936 말 현재 2,945명인데 남녀별로 구분하면 남 2,459명 여 486명이라 하며 이를 1935년 말에 비하면 168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매년 평균 200명 내외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다.

1937-03-17-03-03

**매일신보**

**인제군 농회 예산 35,000원 전년에 비해 4,000원 증액**

【인제】인제군 농회에서는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군회의실에서 1937도 예산에 대해 준비심사가 있었는데 총액 35,000원으로 전년도 31,000원에 비하여 약 4,000원의 증액예산을 보았는데 이것은 건, 공 공관수량 증가에 의한 것이라 하며 증액 4,000원은 일반 신규사업에 충당하리라 한다.

1937-03-17-03-05

**매일신보**

**이유 없이 작권 이동한 악덕 지주에 철퇴, 인제소작위원회서**

【인제】인제군소작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하등의 이유없이 작권을 이동한 지주에게 과태료 5원의 처분을 하였다 한다.

**麟蹄公普校卒業式**  
 【麟蹄】麟蹄公普校卒業式은來  
 廿五일에舉行한다는바今番卒業  
 生の數는七十名이라는데上級學  
 校에希望者數가約二十名이고其  
 外는全部가鄉村에도라가農業과  
 實業에從事하리라高한다

**麟蹄郡國語解得者**  
 【麟蹄】麟蹄郡內解得者入總人口  
 六萬九千六百四十八名中國語解  
 得者數가昭和十一年末現在二千  
 九百四十五名인데男女別로區分  
 하면男二千四百五十九名女四百  
 八十六名이라하며此를昭和十年  
 末에比하면百六十八名の增加를  
 보이고잇슴으로每年平均二百名  
 内外의增加를보고잇다한다

**麟蹄農會豫算**  
 三萬五千圓  
 比前四千圓增  
 【麟蹄】麟蹄郡農會에서는 지난  
 七日午前九時부터午後三時까지  
 郡會議室에서昭和十二年度新豫  
 算에對하여新豫算을查가잇는에  
 總額三萬五千圓으로前年度三萬  
 千圓에比하여約四千圓의增加額  
 算을보아잇는事를大로共取數  
 增加에依함이라하며豫算四千  
 圓은一般規程에依함이라  
 한다

**理由없이作權移動한  
 惡德地主에鐵槌  
 麟蹄小作委員會서**  
 【麟蹄】麟蹄郡小作委員會에서  
 는 지난五日零의理由없이作權  
 을移動한地主에게罰料五圓의處  
 分을하였다한다

1937-03-19-03-06

### 매일신보

#### 인제군 농민회 춘잠 좋은 성적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작년 봄에 소립한 잠종수 6,180매에 도달하자 산잠량 21,000관으로 대금 63,299원(공동판매분만)에 달하여 일반농촌의 경제 완화에 다대한 영향이 있었으므로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6,188매를 소립시키고자 목하 잠종 신입에 대하여 독려중인데 벌써 5,000여매가 신입되었다 하며 앞으로 한달 동안이면 예정매수는 무난히 돌파하리라 한다.

1937-03-19-03-07

### 매일신보

#### 인제군 노동자 수급수 격증 연 38만여명

【인제】 인제군에서는 종래 재해지 이재구민들을 매년 봄이 되면 타군으로 이출시켜오더니 금년에는 타군 이출은 고사하고 4월 1일부터 군내 수용될 인원수가 398,000명을 요한다는데 군내 노동자 총수가 1,544명으로 1인 평균 250일의 노동을 하게 되어도 부족 인원수가 12,000명이라 하며 이 노임을 계산하면 연액 약 10만원에 달한다는데 이에 대하여 일단 세구민의 호구는 물론이요 일반 농민에게 까지 경제의 원활이 되리라고 추측되며 이 노동자의 수요처는 관내 각면 금광과 학교 신증축, 영림서 제재소, 재화지 복구공사, 서울 오리진선 도로공사, 인제 원통 양 시장 이전 공사, 농민훈련소 신축공사 등이라 한다.

1937-03-19-03-08

### 매일신보

#### 풍수해 재민 구제식량비 배분 인제군서 6개면에

【인제】 인제군에는 작년 여름 풍수해의 참경을 당한 이재민에게 전 반 도청으로부터 식량급여금으로 3,720원이 왔으므로 좌기와 같이 각면에 배분하고 군직원이 출장하여 직접 배부하기로 하였다 한다. 인제면 144원 남면 108원 북면 1,200원 서화면 816원 기린면 816원 내면 636원

1937-03-19-03-08

### 매일신보

#### 인제군 장의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회의실에서 전군수 통재로 장의회를 개최하였다.

麟蹄郡農會春蠶好績  
〔麟蹄〕麟蹄郡農會에서는昨春에掃立한蠶枚種數六千一百八十八枚에到하여產蠶量二萬一千實으로代金六萬三千二百八十九圓(共同販賣分)에達하여一般農村의經濟緩和에多大한影響을與せしむるに今年亦是昨年同様으로六千一百八十八枚을掃立し키고자目下蠶種申込에到하여蠶勵中人數別서五千餘枚が申込되었다하며앞으로一箇月동안이면豫定枚數는無難히突破하리라한다

麟蹄郡勞働者  
需給數激增  
年卅八萬餘名  
〔麟蹄〕麟蹄郡에서는從來災害地難弱民을每年春期가되면他郡으로移出시키勞働으로開口를하여오든바今年에는他郡移出人數가三十九萬八千名을要한다는데郡內勞働者總數가一千五百四十四名으로一人平均二日五十日의勞働을하게되어不足人數가一萬二千名이라하며此勞賃計算하면年額約十萬圓에達한다는바此에對하여一般農村에對한口는勿論이요一般農村에對한經濟의圓滑이되리다推測되여此勞働者의需用處는管内各面金礦과學校新築、森林製材所、災害地復舊工事、京城、五里津線監工工事、麟蹄元通南市場修繕工事、農民訓練所新築工事等이되고한다

風水害災民  
救濟食糧費分配  
麟蹄郡서六個面に  
〔麟蹄〕麟蹄郡에는昨夏風水害直接配付하기로하였다한다의慘況을當한災民에게前般運 麟蹄面一四四兩面一〇八圓北面一〇圓이왔으므로左記와같이各 麟蹄面八一六圓內面六三六圓面에分配하고郡職員이出張하여

○麟蹄郡掌議會(麟蹄)麟蹄郡에서는 지난 13日午前十時부터午後三時外지郡會議室에서全郡守統裁로掌議會를開催하였었다

1937-03-19-03-09

### 매일신보

#### 도로와 나무 식재 교통사고 방지

【인제】 종래 인제군 관내 각도로는 산간인 만큼 모두가 험악할 뿐 아니라 급커브가 많아서 자동차 운전수는 물론이요 일반 승객들은 상시 불안을 느껴오는 현상이므로 인제군에서는 교통사고 방지책의 일조로 급커브와 절벽 등에다 포플러를 높이 8척의 한도로 조밀히 식재하여 이로써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방금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한다.

1937-03-21-03-02

### 매일신보

#### 홍천세무서 관하 각면 사무검열

【홍천】 홍천세무서장 박승국씨는 관내 각면 세무사무 검열을 시행하기 위하여 화촌면을 거쳐 인제군 서화면과 북면을 향하여 거 14일 출발하였다 한다.

1937-03-21-03-07

### 매일신보

#### 인제군 농회의 목우 품평회 성황

【인제】 인제군 농회에서는 군내 각 갱생농가에 목성우 1마리씩을 대부(300마리)하여 농업을 경영케하는 동시에 축우 증식을 목표로 해오던 바 지난 12일에는 사육관리 품평회를 개최하고 도농무과장 기수 유전경삼씨가 인제에 와서 심사하였는데 대개가 성적이 양호하다 하며 입상우는 후일 발표한다고 한다.

1937-03-24-03-03

### 매일신보

#### 인제 면작 강습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제 공회당에서 각면 근업담당자와 일반 농실 부인회원 등 다수를 초대하여 면작 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사는 도의 기수 최범열씨요 당일 출석인원수는 50여명이라고 한다.

1937-03-24-03-04

### 매일신보

#### 인제군 학교비 평의회회 개최

【인제】 인제군에서는 1937년도 학교비 예산을 심의하고자 오는 25일에 평의회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道路並木植栽  
交通事故防止  
【麟蹄】從來麟蹄郡管內各道路는山間인마음모도가險惡한것인이라急커브가만어서自働車運轉手는勿論이요一般乘客들은常時不安을느껴오는現狀임으로麟蹄郡에서는交通事故防止策의一助로急커브와 絕壁等에다「포플러」를長八尺의限度로調密히植栽하여此로써交通事故를防止코저目下計劃을樹立中이라고한다

洪川稅署管下  
各面事務檢閱  
【洪川】洪川稅務署長朴承國氏는管內各面稅務事務檢閱을施行하기爲하여 化村面을거쳐麟蹄郡瑞化面과北面을向하여去十四日出發하였다한다

麟蹄郡農會의  
牝牛品評會盛況  
【麟蹄】麟蹄郡農會에서는郡內各更生農家에 牝成牛一頭式을貸付(三百頭)하여農業을經營케하는同時에畜牛増殖을目標로해오는데 지난十二日에는飼育管理品評會를開催하고 道農務課技手 柳田敬三氏가來麟審査하였다는데 大槪가成績이良好하다고하며入賞牛는後日發表한다고한다

麟蹄棉作講習  
【麟蹄】麟蹄郡에서는 지난十六日午前十二時부터 午後四時까지 麟蹄公會堂에서 各面勸業擔任者及一般農實 婦人會員等을多數招集하여 棉作講習會를開催하였는데 講師는道技手崔範烈氏요 當日出席人員는五十餘名이라고한다

麟蹄郡學校費  
評議員會開催  
【麟蹄】麟蹄郡에서는十二年度學校費豫算을審議코저來二十五日에評議員會를開催한다고한다

1937-03-24-03-07

### 매일신보

#### 인제 농진위원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회의실에서 전군수 통재하에 농촌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갱생부락에 대한 5개년 계획의 심사가 있는 후 실시와 지도상 만전을 기하고자 제반 타합이 있었는데 담당 출석의원수는 30여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다.

1937-03-26-03-06

### 매일신보

#### 인제 관대리 보교 학급증설운동 백열, 기성회 조직하고 거금

【인제】 인제군 남면 관대공보교는 개교이래 입학 지원자수가 매년 조금씩 초과해 오더니 작년부터는 모집인원의 배 이상이 초과되어 곤란을 겪어오더니 지방유지들은 입학난 완화책을 연구하고자 지난 21일에 동 면사무소에 모여 기성회를 조직하고 보교증설비로 3,000원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1937-03-26-04-09

### 매일신보

#### 분쟁해결로 관평보 수리

【인제】 기보= 인제군 북면 한계리 관평보는 지주간 의견 충돌로 준경기가 닦쳐옴에도 불구하고 수선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소작인들은 불안을 느껴오더니 북면장 이희규씨가 불철주야로 교섭한 결과 지주들의 승인을 얻어 지난 19일부터 공사를 착수했다고 한다.

1937-03-27-03-07

### 매일신보

#### 덕산리 갱생부락 부업품 경진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관내 갱생부락을 단위로 영농상 필수품인 농구를 농한기를 이용하여 제작하도록 기술원들이 출장 독려해와 지난 12일부터 이의 심사를 시행중인데 각 면이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 인제면 덕산리(차평동) 제4차 갱생부락이 제일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그 원인을 들으면 군면의원이 매일 오전 7시서부터 동 9시까지 출근시각 전을 이용하여 세밀한 독려를 한 결과라고 한다. (사진은 산적된 부업품)

1937-03-30-03-05

### 매일신보

#### 인제 식산계 설립계획 실현

【인제】 인제군관내 각 갱생부락을 중심으로 식산계를 설치하고 도에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최근에 인가되어 목하 사업 준비에 분망중이라 한다.

麟蹄農振委員會  
【麟蹄】麟蹄郡에서는 지난 15日午前十一時부터午後三時까지 郡會議室에서全郡守統裁下에農村振興委員會를開催하고第五次更生部落에對한五個年計劃書의審査가잇은後 實施及指導上萬全를期하고자諸般打合이잇었는데 當之出席會員數는三十餘名에達하여大盛況을이루었다고한다

麟蹄冠垆普校  
學級增設運動白熱  
期成會組織醞釀金  
【麟蹄】麟蹄郡南冠垆公普校는開校以來入學志願者數가每年는 증가해 오는데 去年부터는 모집인원의 배 이상이 초과되어 곤란을 겪어오더니 지방유지들은 입학난 완화책을 연구하고자 지난 21일에 동 면사무소에 모여 기성회를 조직하고 보교증설비로 3,000원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紛爭解決로 冠垆狀修理  
【麟蹄】기보= 인제군 북면 한계리 관평보 (麟蹄郡北面寒溪里冠垆狀)는 지주간의 전종물 (地主間意) (衝突)로 준경기가 닦쳐옴에 드물구하고 수선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으로 일반 소작인들은 불안을 느끼어오더니 북면장 이희규(李會奎)씨가 불철주야로 교섭 (交涉)한 결과 지주들의 승낙을 얻어 지난 19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한다.

德山里更生部落 副業品競進會  
【麟蹄】麟蹄郡에서는 既報한 바와 같이 郡內各更生部落을單位로 發展上必需品인農具를農閑期를利用하여 作製하도록技術員들이出張督勵해오는데 지난 12日부터此의審査를施行中인데各面이良好한成績을이르고잇스나 其中麟蹄南德山里(車坪洞)第4次更生部落이第一優秀한成績을 나타내고잇다는데 그原因을 들으면 那面職員이 每日午前七時서부터 同九時半까지出勤時刻前을利用하여 銳意의督勵를加한結果라고한다. (寫眞은山積된副業品)

麟蹄殖産契 設立計劃實現  
【麟蹄】麟蹄郡管內各更生部落을中心으로殖産契를設置하고道에認可申請을하였는데最近에認可되어且下事業準備에奔忙中이라고한다



1937-03-31-03-05

### 매일신보

#### 인제 갱생부락 돈사 개조 독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관하 각 갱생부락 농가 호수에 대하여 전부 돈사를 개조하기로 사육림의 벌채허가를 얻게한 후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일주간을 지도주간으로 정하고 군직원 총동원으로 출장지도 한다는데 금번에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일제히 개조하기로 한다고 한다.

1937-03-31-03-08

### 매일신보

#### 각 농회 총회 인제군

【인제】 인제군농회 제 1회 통상총회는 24일 군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각 의안을 심의하였다.

1937-03-31-03-08

### 매일신보

#### 인제면협의위원회

【인제】 인제군 인제면 제22회 면 협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동면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동면 1937년도 예산은 9,130원으로 작년도 8,428원에 비하여 703원의 증가라 한다.

1937-03-31-03-09

### 매일신보

#### 인제군의 양잠 장려

【인제】 인제군농회에서 양잠의 여자지도원을 폐지하고 청년 남자 6명을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4개월간 탐문을 위해 임용하여 지도의 철저를 기하고자 지군회의실에서 강습을 행한다는데 강사는 안정 기수와 윤근 기수라 한다.

1937-04-01-04-06

### 매일신보

#### 인제에 도박 행위가 있었음

【인제】 인제군은 기보한 것과 같이 작년 풍수해로 인해 세국민들은 생계에 곤란한자가 많아 그들 중에는 도박을 일삼는 자가 적지 않다는데 지난 25일에 인제경찰서원의 활동으로 5, 6명을 검거하여 방금 김 사법주임이 취조한 결과 최고 40원 최하 2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麟蹄更生部落  
豚舍改造督勵

【麟蹄】麟蹄郡에서는管下各里生部落農家戶數에對하여全部豚舍를改造하기로私有林의伐採許可를發給한後 지난 27 日 午前來 四月 二 日 外 一 週 間 을 指 導 週間으로定하고郡職員總動員으로出張指導한다는바今番에는엇던事情이잇드라도一齊히改造하기로한다고한다

各郡農會總會

麟蹄郡 (麟蹄) 麟蹄郡農會 十一月 一 日 通 常 總 會 是 二十四日 郡會議室에서開會하고各議案을 審議하였다

麟蹄面協議員會

【麟蹄】麟蹄郡麟蹄面第二十二回面協議員會는 지난 27 日 午前十時부터同面會議室에서開催한것은바同面昭和十二年度豫算은九千一百三十六圓으로昨年度八千四百二十八圓에比하여七百三圓의增加라한다

麟蹄郡의 養蠶 獎勵

【麟蹄】麟蹄郡農會에서는養蠶의女子指導員을廢止하고青年男子六名을 四月 一 日 부터 七月 末 日 外 四 個月 間 採 用 하여 指導 的 徹底 期 行 한다는데 講 師 是 安 井 技 手 外 尹 根 洙 技 手 라 고 한다

麟蹄에 賭博 行

【麟蹄】麟蹄郡(麟蹄郡)은기보한바와갓치, 작년 풍수해(昨年 旱水害)로인하여 세국민들은 생계에 곤란한자가만히 그들 중에는 도박으로일을삼는자가 적지안다는바, 지난 二十五일에 麟蹄서원(麟蹄署)의 활동으로五六명을검거하여, 목하 김 사법주임(金司法主任)이취조한결과, 최고四十원, 최하二十원 罰 金 을 과 하 였 다 고 한다

1937-04-02-03-01

### 매일신보

## 동원령 전의 노동시장 24만여명 기대, 강원서 각군 노력 순조

【춘천】 1937년도 중에 시행할 강원도내의 각종 공사비는 토목공사인 철도건설비 906만3,830원을 필두로 1,378만8,275원이란 거대한 금액에 달하여 이에 따른 노임 살포액만도 579만1,272원이나 되는데 차종공사에 사역할 노동자 총인원수 679만9,817명을 소요하게 된다함은 작보한 바이거니와 이에 강원도에서 관하 각군과 경찰서를 지휘 독려하여 명령일하 총동원할 수 있도록 노동수급 조정의 만전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다. 그리하여 도로 부터 각군에 통첩하여 노력 소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일 현재 노동 가능자 총수 24만3,810명이라 한다.

=괄호 내는 기타 유업자=

- ▲춘천 3,040인(7,513) ▲인제 2,382(6,101) ▲양구 1,888(8,738)
- ▲회양 888 (9,126) ▲통천 2,432(9,693) ▲고성 3,962(7,630)
- ▲양양 1,981(16,631) ▲강릉 2,450(17,509) ▲삼척 4,380(13,484)
- ▲울진 1,731(4,169) ▲정선 3,011(9,127) ▲평창 1,485(9,530)
- ▲영월 1,041(1,601) ▲원주6,723(10,796) ▲횡성 1,034(10,796)
- ▲홍천 1,671(10,906) ▲화천 626(5,476) ▲김화 2,478(5,772)
- ▲철원 3,277(18,566) ▲평강 883(849) ▲이천 3,071(7,033)

그리고 노동자를 사용한 결과 노동자로 적당하다 인정하는 자는 그 향리 관청에 등록하여 두어 발휘의 기운을 조장하는 동시에 장래 사용할 시에 편의를 도하기로 하리라 한다.

1937-04-07-03-03

### 매일신보

## 인제 갱생부락 작년 실적 양호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군내 각 갱생부락에 한하여 작년중 실적조사를 행하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한 모양이라 한다.

1937-04-07-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농회에서 뽕나무 묘목을 구입배급 갱생부락 12리에

【인제】 인제군 농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으로 군내 제4차 갱생부락 12개리에 뽕나무 심기를 철저히 실행시키기 위해 뽕나무 묘목 12만 그루를(가격 1,190원)구입 배부하고 목하 각 면직원들이 식상장려에 열중하는 중이다.

### 動員令前의 勞働市場 廿四萬餘名待機 江原서各郡勞力調査

【春川】 昭陽十二年度中 昭陽省 江原道 各郡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昭陽省 總計 勞働市場 調查 結果

### 麟蹄更生部落 昨年實績良好

【麟蹄】 麟蹄郡에서는 지난 三月 二十七日부터 郡內 各更生部落에 亘하여 昨年 中 實績 調査를 行하는 바 成績이 매우 良好한 모양이라 한다.

### 麟蹄郡農會에서 桑苗를 購入 配給

【麟蹄】 麟蹄郡農會에서 新年度 豫算으로 郡內 第四 次 更生部落 十二 個里에 植桑을 徹底 行하기 爲하야 桑苗 十二 萬本을 (價格 一,一九〇圓) 購入 配給하고 目下 各面 職員들이 植桑 奨勵에 熱心하는 中이다.

1937-04-07-03-05

### 매일신보

#### 가마니짜는 기계구입 농가 부업을 장려

【인제】 인제군 농회에서는 일반 갱생 농가의 부업을 장려하고자 본년도 예산으로 가마니짜는 기계 50대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지도 장려하는 동시에 관로를 연구하여 다량의 판매를 하여 경제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방금 준비중이라고 한다.

1937-04-07-03-09

### 매일신보

#### 기념식수데이 각지서 성황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3일에 각 관공서원과 지방 유력자가 다수 모여서 인제의 명승고적인 함강정 뒷산에 기념식수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1937-04-07-04-05

### 매일신보

#### 때 아닌 육화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5일 때 아닌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와 일기가 냉한하여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겨울옷을 입고 다녔다.

1937-04-08-03-04

### 매일신보

#### 강원 양봉농가 17,000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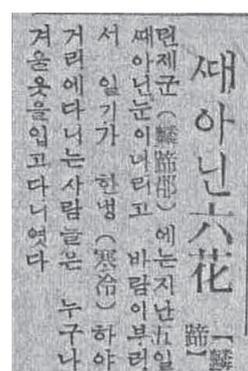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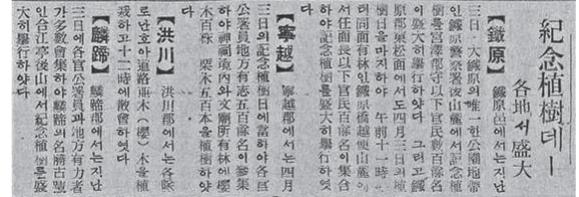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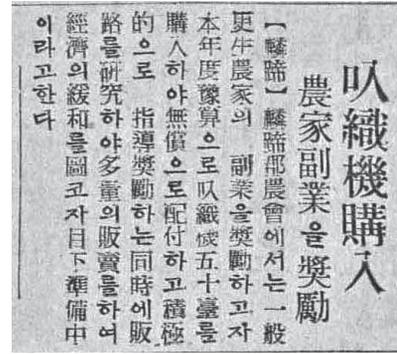
【춘천】 농가 부업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강원도내의 양봉상황을 도 농무과로부터 조사한 것에 의하면 1937년도 말 현재 사육호수 17,296호에 사육상자수가 재래종 37,125상자 개량종 765상자인바 이를 전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보면 사육농가에 있어 450여호 감소이며 사육 상자수로 보아도 또한 370여 상자에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성가를 알리고 있는 인제군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의 봉종이 지난 풍수해로 인하여 절종상태에 이르게 되어 강원 양봉사상 전무한 치명을 주고 있는데 이에 도 당국에서는 동 봉종의 부흥을 기하고자 계획중이라 한다.

1937-04-11-03-02

### 매일신보

#### 면 이원들에 복음 향상의 길 전개, 인제 전군수 영단

【인제】 인제군에서는 역대로 인사취급에 대하여 그다지 호평을 듣지 못하고오던 중 현 군수 전제우씨는 작년 3월 부임이래 사무의 간단하고 빠른 진행과 인사 취급에 대해 공명정대를 목표로 하여 처리해오던 중 더욱이 요사이는 면 이원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면 이원 중 중등학교 이상의 학적을 가진 자는 군 고원 또는 군농회 서기 기수로 승진시켜 장래에 임관 출신하도록 훈련을 시킨다하며 제1차적으로 면기수를 군농회 기수로 승진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37-04-11-03-06

### 매일신보

#### 인제 북면 서화간 노선측량 실측 양면민들이 열망

【인제】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과 인제군 서화면 간의 등외도로는 군면간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의 홍수로 인하여 전연 도로의 형상이 없어 통행인의 곤란이 적지 않은데 1928에 양 면민들이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군당국에서도 특별한 응원을 가하여 또다시 완전전대로 노선을 변경하여 복구하고자 측량경비 300원을 적립하고 방금 당국에 측량기수 파견을 요망중이라 한다.

1937-04-11-04-09

### 매일신보

#### 인제지방에 디프테리아

【인제】 요즘 인제읍내에는 「디프테리아」가 발생되어 1세 이상 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데 여기에 걸려서 사망한 아이가 1명이며 생명이 위험한 정황에 있는 아이가 있으므로 인제경찰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환자아이의 집과 그 부근에는 소독을 하는 동시에 선전 전단을 시내에 다수 산포하였다.

1937-04-15-03-01

### 매일신보

#### 신흥 기세 발랄 인제 건축계 활황 군에선 시구 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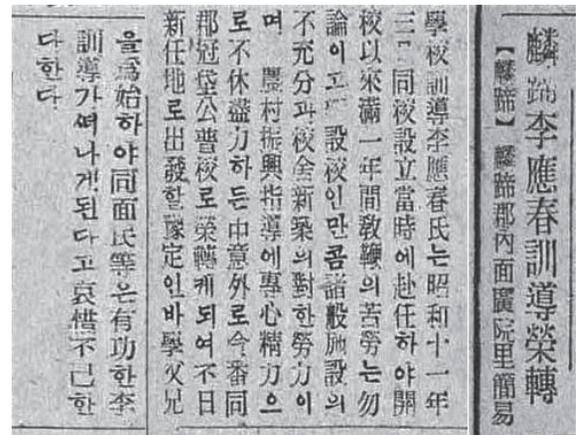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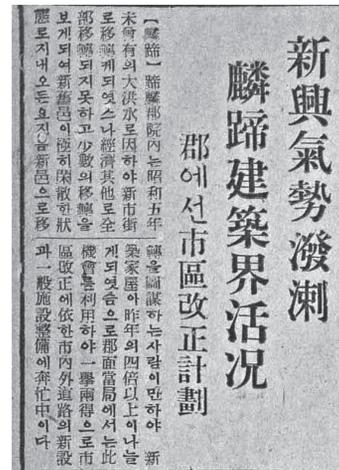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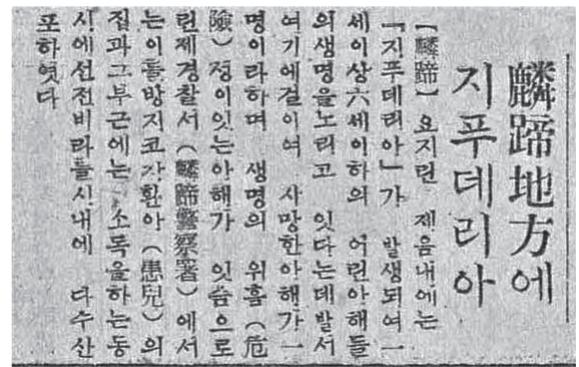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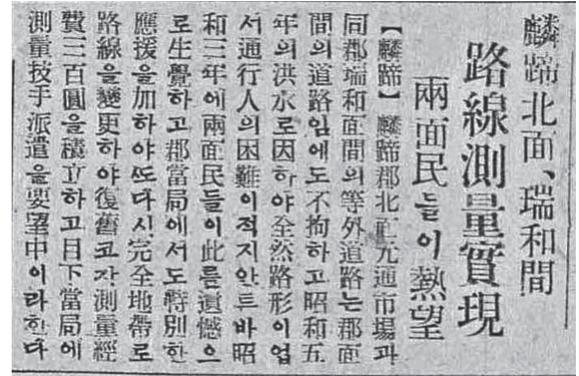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원내에서는 1930년 미증유의 대홍수로 인하여 신시가로 이전하게 되었으나 경제 기타로 전부 이전되지 못하고 소수의 이전을 보게되어 신규 읍이 극히 한산한 상태로 지내오던 요즈음 신흥으로 이전을 도모하는 사람이 많아 건축가옥이 작년의 4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군 당국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거양득으로 시구 개정에 의한 시내외 도로의 신설과 일반 시설정비에 분망이다.

1937-04-15-03-03

### 매일신보

#### 인제 이응춘 교사 영전

【인제】 인제군 내면 광원리 간이학교 교사 이응춘씨는 1936년 3월 학교 설립당시에 부임하여 개교 이래 만 1년간 교편의 노고는 물론 신설교인 만큼 제반시설의 불충분과 교사 신축에 대한 노력이며 농촌진흥지도에 전심정력으로 철새없이 진력하던 중 의외로 이번 동군 관대리공보교로 영전하게 되어 머지않아 신입지로 출발할 예정인데 학부형을 위시하여 동면민 등은 공이 많은 이 교사가 떠나게 된다며 애석하며 잊을 수 없다 한다.



1937-04-15-03-04

### 매일신보

#### 인제시가에 앵두나무 심어 군수 이하 총동원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1일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전군수 이하 직원이 총출동하여 신시가지(군청통)에 앵두나무 300여그루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는데 이것이 장차 인제읍에 대해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1937-04-15-03-04

### 매일신보

#### 우편료 인상후 인제 성적 양호

【인제】 인제우편소에서는 우편요금 인상후 우편물 취급의 성적을 보면 시행일인 4월 1일로부터 4월 8일까지의 위반건수가 단 3건 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동 우편소장 석준철씨 이하 각 직원의 선전이 충분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1937-04-15-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농회에서도 뽕밭 간작 녹비 장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예년 뽕나무밭 간작 녹비(헤아리 뺏지)를 장려해 오더니 성적이 매우 양호하였으므로 금년도에는 신설 상전 55 정보와 기설 상전에 간작을 목표로 1,300여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철저히 지도장려하기로 계획중이라 한다.

1937-04-15-03-07

### 매일신보

#### 인제청년단 연합운동회 오는 29일 개최

【인제】 인제군에서는 오는 29일 천장절을 기려 관내 청년단원을 모아 연합운동회를 행할 예정이라는데 27, 28 양일에는 조선수양회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강화와 수양에 대한 실지강습을 행하여 일반민중의 수양심을 환기시킨다는데 이번 연습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반은 기대중이라 한다.

1937-04-15-04-06

### 매일신보

#### 국유림 도벌자 인제서 10여명 춘천지검에 송치

【인제】 인제읍국유 삼림보호구역에서는 국유림에서 도벌자 10여명을 검거하여 검사국으로 송치하여 전부 벌금형에 처해졌다.

麟蹄市街에  
櫻木을植付  
郡守以下總動

【麟蹄】麟蹄郡에서는 지난 11일 日曜日임에도 불구하고 全郡守以下職員이總出動하여 新市街地(郡廳通)에 櫻木三百餘本을購入하여植栽하였는데 이것이 장차 麟蹄市에對하여는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郵便料引上後  
麟蹄成績良好

【麟蹄】麟蹄郵便所에서는 郵便金引上後郵便物取扱의成績을 日施行日인 四月一日로부터 同日外의違反件數가 단 三件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郵便所長 石田春哲氏以下各職員의 선전이 充分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麟蹄郡農會에서도  
桑田間作綠肥獎勵

【麟蹄】麟蹄郡에서는 例年桑田間作綠肥(헤아리뺏지)를獎勵해 오는데 今年度는 新設桑田五十五町步外間作桑田에 間作을 目標로 三千餘圓을豫算에 計上하고 徹底히指導獎勵하기로 計劃中이라 한다.

麟蹄青年團  
聯合運動會  
來廿九日開催

【麟蹄】麟蹄郡에서는 來二十日 天長節을卜하여 管内青年團員을召集하여 聯合運動會를 行할豫定이라는데 二十七, 二十八日에는 朝鮮修養會로부터 講師를招請하여 講話外修養에對한 實地講習을行하여 一般民衆의 修養心을喚起시킨다. 今般講習에對하여는 淸快한 氣分이 充溢한 中이라 한다.

國有林盜伐者  
麟蹄서十餘名  
春川檢局에送致

【麟蹄】인제읍국유삼림보호구역(國有林保護區)에서 國有林에서 도벌자 十餘名을 검거하여 검사국으로 송치한 바 春川地檢局에 送致되었다.

1937-04-17-03-02

### 매일신보

## 강원의 축록전도 백열 신구의 도전 격렬, 14일 정오까지 입후보 37명 신진만 37명 출마

【춘천】 지난 9일부로 강원도지사의 도의원 선거의 고시가 한번 발표되자 대기의 자세를 취하고 있던 각군의 입후보들은 우후죽순같이 쟁선하여 소관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입후보의 간판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고시 다음날인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벌써 입후보를 솟아난 사람이 민선 정원수 21명의 약 배에 가까운 37명에 달하고 있어 백열화할 선거 대접전은 드디어 본무대로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오후4시까지의 입후보자가 37명에 달한 현상으로 본다면 1일 평균 7명으로 입후보만도 그 형세가 자못 의기있게 출현되고 있는데 현재 도의원 중 20명이 만주 각지 시찰 중이므로 그들 의원의 재출마 신고가 솟아남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같은 입후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비례로 나간다면 아무래도 50명은 무난히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4일 오후4시까지의 입후보자를 보면 (중략) ◇인제 이종성(39 신) ▲이중형(47 신) ▲민경호(40 신) (중략) 이상의 입후보한 37명으로 본다면 현의원이 겨우 7명에 신인이 단연 30명이 되어 어마어마한 쟁탈전이 전개될 것 같아 보이는데 철원 삼척 양군에는 각 4명의 출마가 있어 축록전의 격렬함이 여하하리라는 것을 예상케 하여 상당한 고전이 연출될 것이며 다음 울진과 인제가 모두 3명씩으로 또한 평범치 않은 돌격 상박전이 있을 모양이다. 그런데 평강 정선 평창 원주 4군에는 아직 한명의 입후보가 없으므로 이상한 현상이라 하겠는데 어쨌든 금회의 선거는 신인의 출마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 신구의 공방접전이 평범치 않을 것이라 한다.

1937-04-17-03-07

### 매일신보

## 각지 문묘 춘제 인제

인제군에서는 문묘 춘제대제를 전조선적으로 개정된 4월 15일에 성대히 거행하였다고 한다.

1937-04-17-04-05

### 매일신보

## 22세 청년이 보교입학을 애원, 인제공보서 거절당하고 도와 총독부에 진정

【인제】 인제군 인제면 귀문리 차병남(22)이라는 청년은 보통학교에 입학할 시켜달라고 총독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수년전에 인제공립보통학교 제4학년을 수업하고 사정에 의해 퇴학 한 후 향리 농촌에 돌아가 본 즉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보통의 지식도 충분치 못해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여 다시 6학년이라도 졸업할 생각으로 입학원서를 학교당국에 제출하였는데 학교당국에서는 연령과 정원관계로 도저히 입학할 허가를 수 없다고 반려하였으므로 차병남은 다시 강원도지사에게 진정을 하였다 하며 최근에는 총독부에게까지 진정을 하였다 한다.

江原의逐鹿戰 白熱  
新舊의挑戰激烈  
十四日正午까지立候補37名  
新進三十名出馬

【춘천】 강원도지사선거의 고시발표 후 각군의 입후보자들은 우후죽순같이 쟁선하여 소관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입후보의 간판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고시 다음날인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벌써 입후보를 솟아난 사람이 민선 정원수 21명의 약 배에 가까운 37명에 달하고 있어 백열화할 선거 대접전은 드디어 본무대로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오후4시까지의 입후보자가 37명에 달한 현상으로 본다면 1일 평균 7명으로 입후보만도 그 형세가 자못 의기있게 출현되고 있는데 현재 도의원 중 20명이 만주 각지 시찰 중이므로 그들 의원의 재출마 신고가 솟아남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같은 입후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비례로 나간다면 아무래도 50명은 무난히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4일 오후4시까지의 입후보자를 보면 (중략) ◇인제 이종성(39 신) ▲이중형(47 신) ▲민경호(40 신) (중략) 이상의 입후보한 37명으로 본다면 현의원이 겨우 7명에 신인이 단연 30명이 되어 어마어마한 쟁탈전이 전개될 것 같아 보이는데 철원 삼척 양군에는 각 4명의 출마가 있어 축록전의 격렬함이 여하하리라는 것을 예상케 하여 상당한 고전이 연출될 것이며 다음 울진과 인제가 모두 3명씩으로 또한 평범치 않은 돌격 상박전이 있을 모양이다. 그런데 평강 정선 평창 원주 4군에는 아직 한명의 입후보가 없으므로 이상한 현상이라 하겠는데 어쨌든 금회의 선거는 신인의 출마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 신구의 공방접전이 평범치 않을 것이라 한다.

忠北戶別免稅者四  
陰城邑

麟蹄 麟蹄郡에서는文廟春祭大祭를全鮮的으로改正된四月十五日에盛大히舉行하였다고한다

廿二歲青年이 普校入學을哀願  
麟蹄公普校入學을哀願  
道外總督府에陳情

【麟蹄】 인제군 인제면 귀문리 차병남(22)이라는 청년은 보통학교에 입학할 시켜달라고 총독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수년전에 인제공립보통학교 제4학년을 수업하고 사정에 의해 퇴학 한 후 향리 농촌에 돌아가 본 즉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보통의 지식도 충분치 못해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여 다시 6학년이라도 졸업할 생각으로 입학원서를 학교당국에 제출하였는데 학교당국에서는 연령과 정원관계로 도저히 입학할 허가를 수 없다고 반려하였으므로 차병남은 다시 강원도지사에게 진정을 하였다 하며 최근에는 총독부에게까지 진정을 하였다 한다.

1937-04-18-04-01

### 매일신보

## 큰바위 붕락 가옥 파괴 인부 8명이 압사상, 인제군하 도로공사장의 20명 폭풍우 피하다 참변

【인제】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삼가교 강원도 승전조 도로공사장에서 지난 14일 오후 4시반경 도로공사에 종사하던 인부 약 20명은 폭풍우를 피하려고 공사장 부근에 있는 김순명의 집에 들어가 쉬던 중 뒷산 약 60m 되는 곳에서 길이 3척 폭 5척 무게 400관정도 나가는 큰 바위가 홀연히 굴러 전기 김순명의 집이 파괴되는 순간에 20명중 4명은 즉사하고 4명은 2주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당했다는 바 인제경찰서에서는 포 경무주임과 문 공의가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동시에 사체의 검안과 부상자의 응급치료를 행하였는데 즉사자와 부상자의 주소 성명은 아래와 같다.

- ◇즉사자 ▲평안도 이하 불명 함순명(추정연령)(25) ▲본적 주소 불상 고대식(추정연령)(23) ▲본적 주소 불상 송경순(추정연령)(33) ▲본적 주소 불상 김준덕(추정연령)(22)
- ◇중상자 ▲강원도 삼척군 속면 상반천리 김형태(22) ▲평북 희천군 북면 가고개동 양오중(33)
- ◇경상자 ▲충남 연기군 서면 내창리 임순노(33) ▲충남 서산군 고북면 신상리 조병만(39)

1937-04-19-02-08

### 매일신보

## 화물자동차가 절벽에서 추락, 통행인 피하려다 전복 운전수는 경상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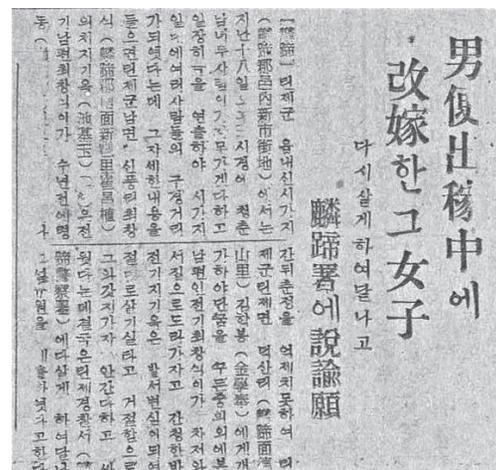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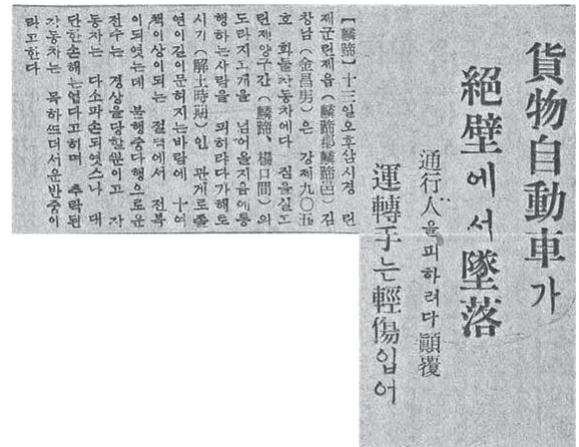
【인제】 13일 오후 3시경 인제군 인제읍 김창남은 강 제905호 화물자동차에다 짐을 싣고 인제 양구간 도라지고개를 넘어올 즈음에 통행하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해토시기인 관계로 홀연히 길이 무너지는 바람에 10여척 이상되는 절벽에서 전복되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운전수는 경상을 당했고 자동차는 다소 파괴되었으나 대단한 손해는 없었다고 하며 추락한 자동차는 방금 뜯어서 운반중이라 한다.

1937-04-22-04-07

### 매일신보

## 남편 출타 중에 개가한 그 여자 다시 살게하여 달라고 인제경찰서에 설유원

【인제】 인제군 읍내 신시가지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경에 청춘남녀 두사람이 가자 못가겠다 하고 일장 희극을 연출하여 시가지 일대에 여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인제군 남면 신평리 최창식의 처 지기옥(29)은 전기 남편 최창식이 수년전에 영동 ●●●간 뒤 춘정을 억제치 못하고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 김학봉에게 개가하여 단꿈을 꾸던 중 의외로 본남편이던 최창식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청하여 전기 지기옥은 벌써 변심이 되어 절대로 살기 싫다고 거절하므로 그와 같이 안간다고 싸웠는데 결국은 인제경찰서에다 살게하여 달라고 설유원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1937-04-23-03-09

### 매일신보

#### 인제 김수용씨 농촌진흥 노력

【인제】 인제군 남면 어른리 김수용씨는 본래 자선심이 많은 사람으로 일반의 호평을 들어올 뿐 아니라 농촌진흥과 자력갱생을 부르짖기 전인 1928년부터 부락을 단위로 부인회를 조직하고 부인의 육외노동을 역행하여 공동작업까지 시행해온 결과 지금은 부인회의 기본재산이 상당한 다액에 달하여 각각 목우 1마리씩 구입하였다 하며 더욱이 금년은 군방침에 호응하여 일반 소작인의 부가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작인 40여명에 대한 담 200여 두락을 전부 다수확 품평회를 계획하고 벌써부터 자기 사재를 투입하여 선량한 종자와 먹는 쪽을 구입하여 쪽 수선을 하도록 각각 분양하였다는데 군에서는 이를 표창하고자 사실을 강원도지사에게 납신할 예정이라고 하며 일반소작인들은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7-04-29-04-01

### 매일신보

#### 담배판 돈 절취

【인제】 인제군 남면 부평리 김중철(22)는 지난 21일 오전 2시경에 인제군 남면 동리 임준상의 담배가게에 침입해 수제금고를 들고 부근 강가에 나와 돌로 금고를 파괴하고 현금 98원59전을 절취하여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며 호화롭게 20원 20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단서로 남면주재소 박인중 순사에게 발각되어 지난 22일 오후 4시경에 체포하여 본서로 압송되었는데 방금 김 사법주임은 엄중한 취조를 하는중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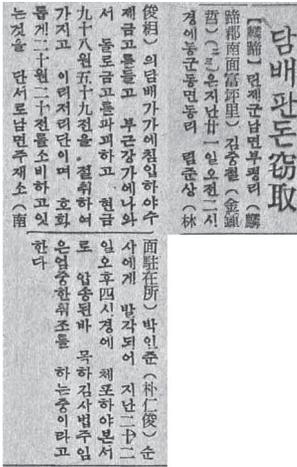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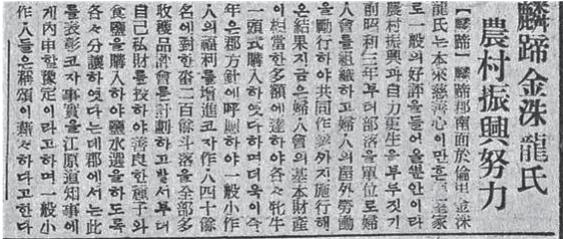
1937-05-01-03-01

### 매일신보

#### 소비조합제 개조 협조 식산계 설치, 1936년 중에 105개소 조직코 강원도 당국이 지도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촌 갱생안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생산증가를 기도하는 반면 힘써 소비의 절약을 도모하여 조선 고래의 습관인 시장행을 감소시켜 나머지에 노력의 축적에 스스로 하도록 갱생부락이 설치한 농촌진흥회에 도비 및 간이생명적립금으로써 1933년도에 4개소, 1934년도에 37개소의 소비조합을 설치하여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소비 절약에 스스로 하는 바 적지 않으므로 다시 이 시설을 확충하여 판매 구매 이용 등의 시설을 병행케 함은 현하 실정에 비취 극히 꼭 필요하므로 1936년도에 이르러 이 조직체를 개조하여 식산계령에 의하여 105개소의 갱생부락 협동조합 식산계를 설치케 하고 지도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차등 설치의 자금은 1조합 500원으로 간이보험자금의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다. 계수를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춘천 6 인제 4 양구 5 회양 5 통천 5 고성 5 양양 5 강릉 6 삼척 5 울진 6 정선 4 평창 5 영월 5 원주 5 횡성 5 홍천 5 화천 3 김화 5 철원 6 평강 5 이천 5 합 105



1937-05-01-03-05

### 매일신보

#### 무산아동을 위하여 개량사숙을 설립 인제 최익무씨 열성

【인제】 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2구장 최익무씨는 농촌의 무산아동으로 문맹에 울고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농촌 진흥과 자력갱생의 일조가 되는 문맹퇴치의 봉화를 들기 전인 1930년부터 동리 유지를 방문하고 야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자기집 객실에다 10여명의 아동과 청년을 모아 사재를 들여가며 자기가 직접 교수를 하는 등 낮에는 구장의 책임을 다해 농민의 지도를 한결같이 해오던중 지금은 개량사숙의 인가를 얻어 자기가 숙장이 되어 전임 선생을 두고 보통학교 3학년 정도의 교수를 하는 관계로 인근 동리의 아동들도 많이 입학하게 되어 지금은 40여명에 달하였다고 하며 당해 동민 반수 이상이 문맹퇴치가 되었으므로 인근리민들은 씨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칭송이 자자하다하며 인제면에서는 면내 모범구장으로 가까운 날에 군에 납신하여 표창할 예정이라 한다.

1937-05-01-03-08

### 매일신보

#### 지방집회

◇인제금융조합 역원 선거

【인제】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지난 24일 오후1시부터 감사와 평의원을 선출하여 좌기제씨가 당선되었다고 한다.

기

1. 감사

이종형 김윤도 방범주

2. 평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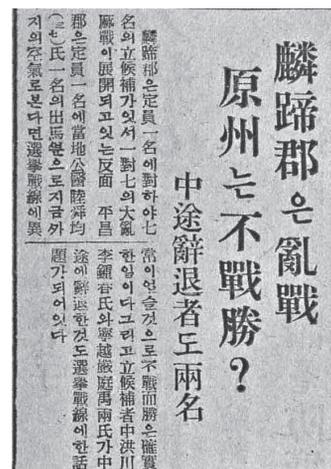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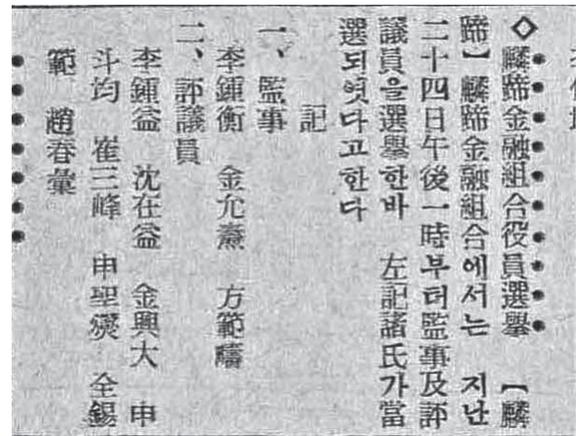
이종의 심재익 김흥대 신두균 최삼봉 신성섭 전석범 조춘휘

1937-05-04-03-02

### 매일신보

#### 인제군은 혼전 원주는 부전승? 중도사퇴자도 2명

인제군은 정월 1명에 대해 7명의 입후보가 있어서 1대 7의 대혼란이 전개되고 있는반면 평창군은 정월 1명에 평창공의 목승균(37)씨 1명의 출마뿐으로 지금까지의 공기로 본다면 선거 전선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부전승은 확실한 일이다. 그리고 입후보자중 흥천 이종춘씨와 영월 엄정우 양씨가 중도에 사퇴한 것도 선거전선에 화제가 되어 있다.



1937-05-07-03-01

### 매일신보

#### 강원 입후보 72명 공방의 전운 백열 신흥진의 추격도 맹렬

【춘천】 분화구 같은 의기와 필승의 자신을 가지고 도처에서 비장한 격전을 계속하고 있는 강원도회의원 선거전은 제2기의 고비를 넘기고 제3기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등록마감일인 3일 오후 12시가 지난 4일 현재의 입후보를 보면 전부 72명으로 21군 21명에 대하여 3배반이나 되는 강원도의 선거사상 기록적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써 1대3의 고전으로 이번의 선거전은 공전 미증유의 대격전이 벌어질 것은 확실한 사실로 되었다.

그런데 전기 72명의 진영을 살펴보면 현의원이 12명이고 60명이 신 입후보자라 친구대립의 맹격 방어전도 일대 장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내의 유권자 총수 1,790명! 적성의 1표는 누구에게? 영관 획득의 행운은? 160만 도민의 시청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신고 총결산을 보게 된 4일 오전 10시 현재 입후보자의 『멤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인제군(입후보 7인)

이종형(47) (전)의생 농업

이종성(39) (신)매일신보 분장

민경호(40) (신)운송업

정해팔(48) (신)대서업

이종태(40) (신)양조업

김영제(46) (현)재목상

(중략)

1937-05-07-03-08

### 매일신보

#### 인제 소방조 출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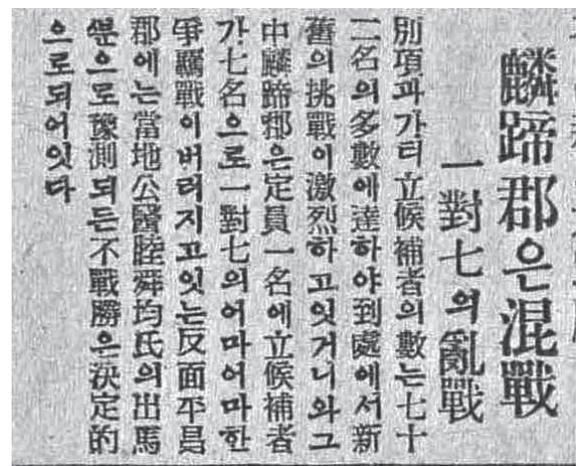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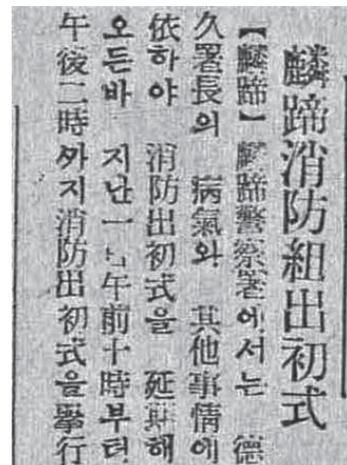
【인제】 인제경찰서에서 덕구서장의 병사와 기타사정에 의하여 소방출초식을 연기해 오던 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방출초식을 거행.

1937-05-08-03-02

### 매일신보

#### 평창군은 부전승 인제군은 혼전 1대7의 난전

별항과 같이 입후보자의 수는 72명의 다수에 달하여 도처에서 신구의 도전이 격렬해지고 있거니와 그중 인제군은 정원 1명에 입후보자가 7명으로 1대 7의 어마어마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평창군은 당지 공의 목승균씨의 출마뿐으로 예측되는 부전승은 결정적으로 되어 있다.



1937-05-09-03-02

### 매일신보

#### 인제 아동보호주간

【인제】 인제군에서는 금번 아동보호주간 중 지난 5일에 공회당에서 문공의가 진찰한 결과 인제읍내 강대의 3남 강덕홍이가 1등 입선 이라는데 덕홍은 생후 7개월된 유아로 체중이 11.4kg 가슴둘레가 51cm 키가 69cm인데 진찰상 하등의 결함이 없는 건강아라고 하며 입상 아동은 약 3명인데 5등까지 상품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1937-05-12-02-06

### 매일신보

#### 판명되는 신도의원 11일 오후6시 현재

강원도 \*인제군 발취

◇인제군(정원 1명)

14표 김영제(46) 임목상(전) 차점 13표 이종형(원)

1937-05-20-03-09

### 매일신보

#### 인제지방 폭풍 보리 작황 영향 적지 않음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8일부터 폭풍이 불기 시작하여 와가는 기와장이 날리고 초가는 지붕이 전부 벗겨져 한때는 대요동을 친 일이 있으며 그 중에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맥작이라고 한다. 비가 와서 충실한 이삭을 만들 이때에 폭풍으로 보리이삭을 전부 고사케 되어 일반 농가에서는 우울한 상태로 미간을 펴지 못하는 현상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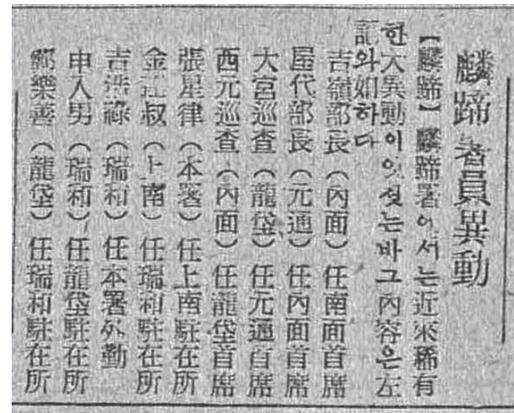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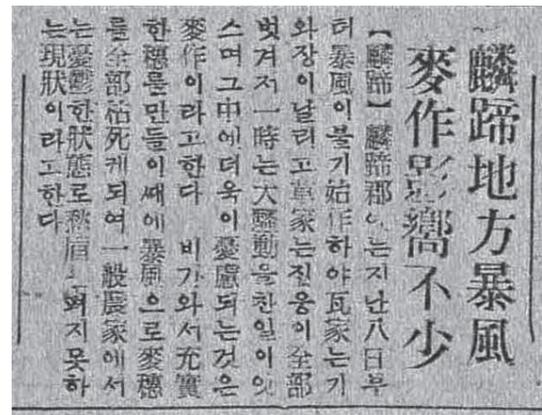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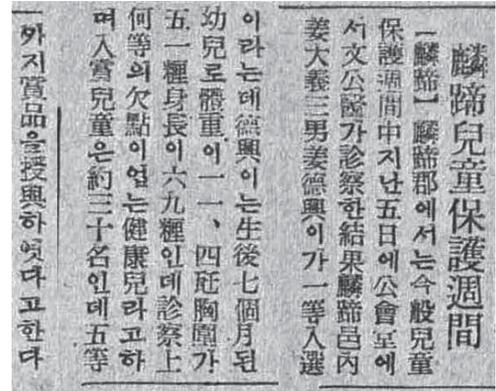
1937-05-20-03-09

### 매일신보

#### 인제서원 이동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대이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좌와 같다 하다.

- 길령부장 (내면) 임 남면수석
  - 옥대부장 (원통) 임 내면수석
  - 대궁순사 (용대) 임 원통수석
  - 서원순사 (내면) 임 용대수석
  - 장성률 (본서) 임 상남주재소
  - 김달숙 (상남) 임 서화주재소
  - 길호록 (서화) 임 본서이동
  - 신입남 (서화) 임 용대주재소
  - 정락선 (용대) 임 서화주재소
- (사진없음)



1937-05-23-03-01

### 매일신보

#### 인제갱생부락 퇴비 제조 전력

【인제】 인제군에서는 군직원이 총출동하여 군내 각 갱생부락계획서에 대한 퇴비표준수량을 제조시킬 목표로 목하 철저히 지도를 행하는 중이리는데 벌써 표준수량이상에 달하는 호성적을 득하고 있다 한다.

1937-05-23-03-06

### 매일신보

#### 각지에 반가운 비 인제

【인제】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작년 미증유의 풍수해로 농작물의 참상을 입은 농촌민들은 아직도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날그날 생활을 해가면서도 작년 재해의 광경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나는 이때 또다시 가뭄이 1개월 이상이나 계속되어 묘상에 부을 물의 부족으로 농작물의 감수영향이 적지 않아 농촌민들은 수해의 반대로 금년은 가뭄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여 매일 근심을 펴지 못하고 우울상태에 있는 중 다행히 지난 19일 오후부터 강우가 시작되어 20일 오후까지 1주일을 계속 강우하여 보리농사는 가뭄이 극복되어 금년에 처음 보는 풍작을 이루었다 한다.

1937-05-23-03-08

### 매일신보

#### 인제서 청결시행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춘계 청소를 관내 각면에 한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화재예방과 전염병 방지에 대하여 진력하고 있다한다.

1937-05-25-03-06

### 매일신보

#### 홍천세서 주최로 주조업자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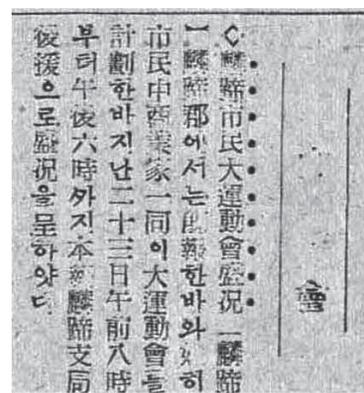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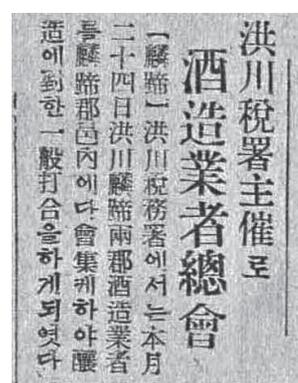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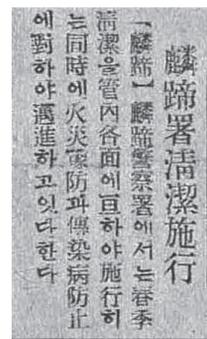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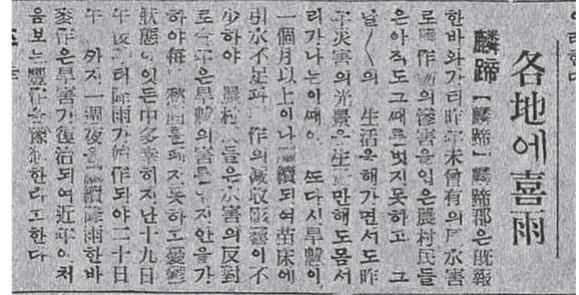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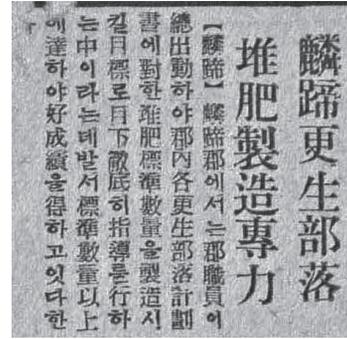
【홍천】 홍천세무서에서는本月 24일 홍천 인제 두군 주조업자를 인제군 읍내에다 회집케 하여 양조에 대한 일반 타합을 하게되었다.

1937-05-28-03-09

### 매일신보

#### 인제시민 대운동회 성황

【인제】 인제군에서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시민 중 상업가일동이 대운동회를 계획하여 지난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신보 인제지국 후원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1937-05-28-04-07

### 매일신보

## 산업기수 상대 상해소 제기 동민 30여명은 도에 탄원 인제지방의 불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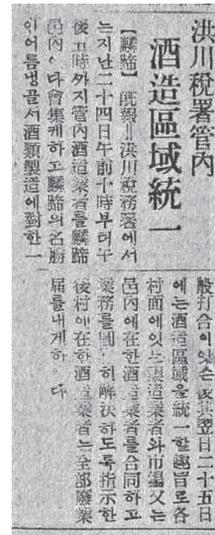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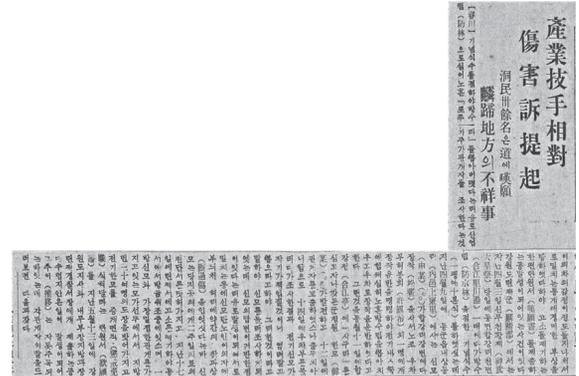
【춘천】 기념식수를 겸하여 방수림으로 심어놓은 『포플러』를 뽑아 버렸다는 이유로 산업기수가 관계자를 조사한다는 것이 피차 감정이 정도를 지나쳐 서로 밀치는 통에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다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지난 4월 3일 신무천황제 강일에 동면 합강리 천변 일대에다가 방수림을 겸한 기념식수(1평에 10그루씩)를 하였는데 지난 4월 9일 인제군 읍내 상동리에 사는 신모(70)가 합강리 강변에다 장작을 사서놓고 우차부 허봉희 외 1명에게 장작운반을 명령하여 전기 강가 독에 애써 심어놓은 방수림을 뽑아치우고 우차로 장작을 운반하였다고 한다. 그런 것을 4월 11일에 합강정에 『사꾸라』를 심고자 나갔던 군청원 한모(33)가 발견하고 12일에 관계자를 호출하였으나 출두치 않으므로 14일에 우차부를 불러다가 조사한 결과 전기 신모가 자기가 책임질 것이니 염려말고 뽑으라고 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여 신모를 불러다가 조사하였는데 신모의 답변이 거만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말썽이 되어 서로 밀치는 통에 신모란 노인이 의자에 부딪쳐 허리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는데 신모는 당지 공의에게 2주일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지난 17일 인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여 동서에서 방금 취조중에 있으며 일방 신모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가 선두에서 지방민 30명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전기 한모를 증정계 면직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5월 13일에 강원도지사와 재무부장 지방과장 인제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등 대수롭지 않은 일이 말썽이 되어 그 추이는 자못 주목되는 것인데 각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937-05-29-03-03

### 매일신보

## 홍천세서 관내 주조 구역 통일

【인제】 기보=홍천세무서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 주조업자를 인제읍내에다 회집케 하고 인제의 명승인 얼음냉골서 주류 제조에 대한 일반 타합이 있은 후 그 익일 25일에는 주조구역을 통일할 취지로 각 촌면에 있는 주조업자와 시장 우는 읍내에 재한 주조업자를 합동하고 업무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지시한 후 촌에 재한 주조업자는 전부 폐업계를 내게 하였다.



1937-05-30-03-01

### 매일신보

#### “헤아리벤티” 홍천군서 장려

【홍천】 홍천군에서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각 갱생부락의 금비 사용을 될수록 절약시키고 퇴비 증제 계획과 녹비 증산 계획을 세워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지도에 열중하고 있는 터로 헤아리벤티 식부로 작년도보다 면적을 배가하여 전부 총면적이 107정보로 성장기를 벌써 지나 개화 중으로 양호한 성적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도 대농 기사도 수차 홍천으로 와 실지 지도 겸 시찰을 한 일이 있다는데 현재로도 부족된 감이 유하여 벌써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도 면적을 배가하여 207정보로 하여 특히 공지 이용에 목적과 모범을 시하기 위하여 홍천서 서울 춘천 원주 인제를 통하는 각 가도 양측에도 심어 대대적으로 장려하리라 한다.

1937-06-01-03-01

### 매일신보

#### 산미 증식을 목표로 묘대개량에 전력 인제군 직원 총동원

【인제】 산미 개량의 근본적 방침은 건강한 묘목 육성이 제일 필요하다는 표어아래 묘대 개량에 부단의 노력을 가해오던 인제군에서는 목하 묘대의 시기를 이용하여 버드나무관과 넓게 뿌리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군농회에서는 묘대품평회를 계획하고 목하 군기술원 전부가 각면에 출장하여 묘대 심사를 행하는 중인데 묘대가 군내에 90% 이상이 당국의 지도장려에 도달하여 성적이 많이 양호하다 한다.

1937-06-01-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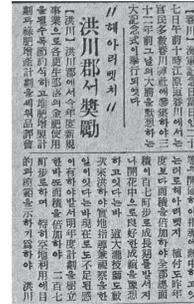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인제 설악산 봉밀을 조합 설립코 장려 군농회서 보조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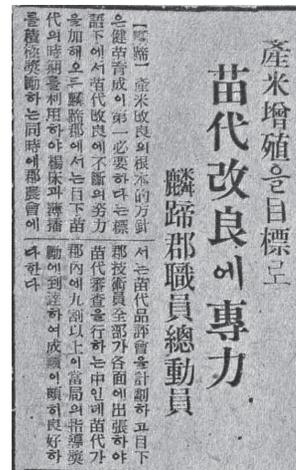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 봉밀은 그 성가가 높아오던 중 조선 중세기에 이르러 (약 150년 전) 산업 장려상 본군에다 이왕직으로부터 장려금을 교부하여 장려하는 동시에 그대가로 생산봉밀을 매년 30두레박씩 이왕직에 봉납해 왔고 올해는 군농회에서 다액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양봉조합을 설립케하고 일반봉밀업자에게 특별한 지도를 가하여 생산증가와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봉밀과 밀랍의 공동판매제를 취하여 일반해당업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본군 봉밀의 성가를 높이고자 방금 철저한 지도를 가하는 중이라는 데 작년도 생산수량과 대가와 판매선은 좌와 같다고 한다.

기

1. 봉밀수량 14,001kg 가격 10,004원
  2. 봉밀수량 1,797kg 가격 2,469원
- 조선내 각처와 육군성



서 울 홍천군에서 농사일을 잘한 농민을 장려하는 훈포장을 수여하는 모습이다.



1937-06-01-03-09

### 매일신보

## 37,000석 목표로 인제산 콩 장려 개량조합 다수 설치

【인제】 인제군 농회에서는 콩을 적극 장려하여 공동판매를 시행해 온 결과 매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호기로 올해는 년차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각면 지주들을 망라하여 자가 채종전을 설치시켜 그 종자를 일반 소작인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일방 가가 갱생부락에는 전부(48개소) 대두개량조합을 조직하고 품질의 향상과 수량의 증가를 도모하고자 1937년부터 1942년까지 6년간 연차계획으로 적극 장려중인데 금년도 장려면적 3,300정보에 대한 콩 23,000석을 비롯하여 1942년에는 3,700정보로 37,000석을 목표로 삼고 진행중이라는데 콩 장려면적을 군내 총경지면적 13,000정보에 비하면 약30%에 해당한다 하며 인제군 콩은 타지방에 비해 품질 양호하므로 전부 인천 서울 원산 방면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1937-06-03-03-05

### 매일신보

## 이양기 앞두고 정조식을 지도 인제군농 총동원

【인제】 인제군에서는 방금 논벼 정조식을 실시하고자 군농회 기수전부가 각면에 출장하여 모내기를 앞두고 모내기를 철저히 시행할 목적으로 야간강좌를 실행하는 동시에 모내기질의 준비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1937-06-03-03-07

### 매일신보

## 인제 산림계원 녹비 채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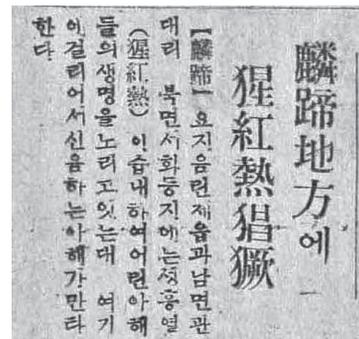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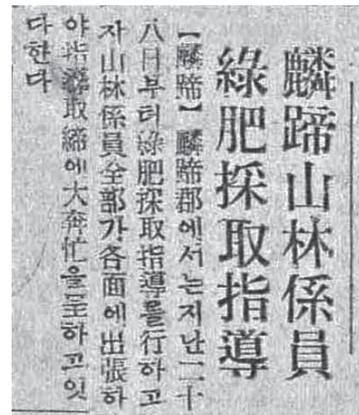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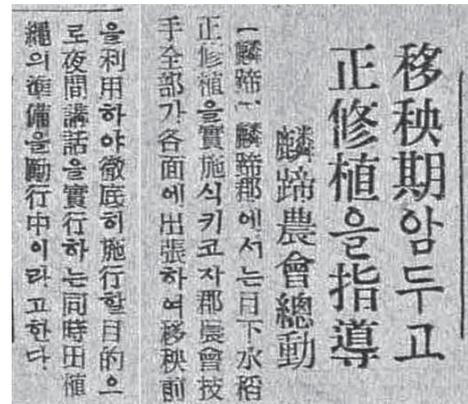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28일부터 녹비 채취지도를 행하고자 산림계원 전부가 각면에 출장하여 지도 단속에 대단히 분주하고 있다고 한다.

1937-06-03-04-08

### 매일신보

## 인제지방에 성홍열 창궐

【인제】 요즈음 인제읍과 관대리 서면 서화 등지에는 성홍열이 내습하여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서 신음하는 아이가 많다 한다.



1937-06-10-03-03

### 매일신보

#### 다수확을 목표로 논벼 정조식 지도 인제군수 자신 독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산미개량과 다수확을 목표로 방금 논벼 이앙시를 계기로 군수 전재우씨는 내무의 다망함을 불구하고 남리 내무주임 이하 직원을 총동시켜서 지도를 할뿐 만 아니라 군수 자신도 보통 농사주임 기수 석보년씨를 대동하고 방방곡곡에 출장하여 농부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산미개량의 원동력이 되는 묘대 개량과 정조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가며 철저히 지도를 한 결과 일반농민은 이에 감격되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차차 실행한다는데 그 성적이 반드시 양호하다고 한다

1937-06-10-03-05

### 매일신보

#### 인제선 버스 운전

【홍천】 경춘도로의 여객자동차부 홍천영업소에서는 각지에 자동차 신설개통과 인제선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대형버스 운전을 개시하였으며 경홍선 중 양평군 용두까지 증발 계획을 세워 조만간에 시행하리라는데 홍천읍에서 서울행차가 2회뿐이어서 여객의 불편한 점을 깨닫고 오전 8시 출발하여 횡성선과 연락시켜 편리를 도모한다고 한다.

1937-06-10-03-06

### 매일신보

#### 인제군 농회서 누에올리기 개량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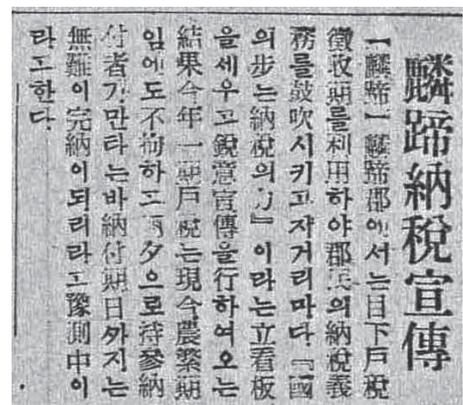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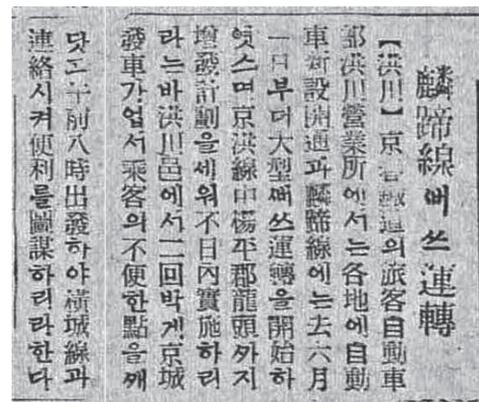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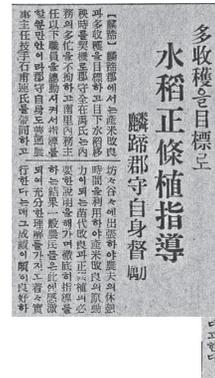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금년 춘잠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인제산 잠건의 성가를 높이고자 방금 잔여인원 전부가 총출동으로 상족개량지도에 전력중이란다 올봄은 강우량이 아직 적은 관계로 잠건의 품질은 아주 양호하다고 한다.

1937-06-10-03-08

### 매일신보

#### 인제 납세선전

【인제】 인제군에서는 방금 호세 징수기를 이용하여 군민의 납세위무를 고취시키고자 거리마다 나라의 보위는 납세의 힘이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예의 선전을 해온 결과 금년 1기 호세는 지금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석으로 지참 납부자가 많다는데 납부기일까지는 무난히 완납되리라고 예측중이라고 한다.



1937-06-10-03-09

### 매일신보

#### 홍천자동차 개통

【홍천】 홍천군 서석 내촌 양면민의 다년간 열망 중이던 자동차 개통은 6월 1일부터 실시케되어 면민의 편리는 물론이거니와 인제군 기린면과 내면까지도 혜택을 입게 되었으며 장래로는 영동방면을 계속하는 중요 간선이 될 것이므로 현재 등외도로를 유등도로로 승격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양면 면장은 도로 수선에 필사적 노력 중이라 하며 그간에 승차 성적이 양호하여 대발전을 예기 중이라 한다.



1937-06-12-03-03

### 매일신보

#### 인제우편소도 임시 증급 단행

【인제】 인제우편소에서는 지금의 물가고에 따라 사무원 이하 각배달인까지 전부 현재의 봉급에 대하여 10%씩 일제히 인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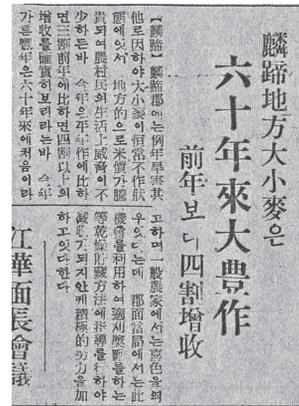


1937-06-15-03-8

### 매일신보

#### 인제지방 보리 밀은 60년래 대풍작 전년보다 40% 증가

【인제】 인제군에서는 예년 한해 기타로 인하여 보리 밀이 항상 부족상태에 있어서 지방적으로 미가가 오르고 귀하게 되어 농촌민의 생활상 위협이 적지 않았는데 올해는 평년작에 비하면 30% 전년에 비하면 40% 이상의 증수를 확실히 보이려는데 금년 같은 풍년은 60년래 처음이라고 하며 일반 농가에서는 희색을 띠고 있는데 군면 당국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적기에 벼를 장려를 하는 등 건조저장방법도 지도를 행하여 감수가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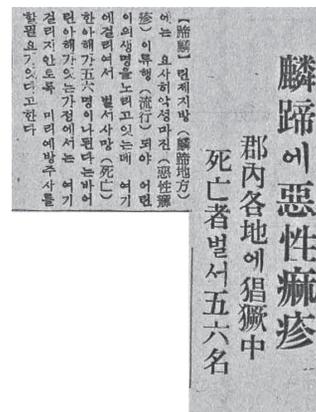


1937-06-16-04-04

### 매일신보

#### 인제에 악성 홍역 군내 각지에 창궐 중 사망자 벌써 5, 6명

【인제】 인제지방에는 요사이 악성 홍역이 유행되어 어린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서 벌써 사망한 아이가 5, 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여기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937-06-17-03-04

매일신보

군민 생활상 필요한 이제의 공동우물 시급한 실현을 요망

【인제】 인제군의 보건위생상 견지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공동우물 설치 문제이다.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1930년, 1936년 2회에 한하여 대홍수로 시가지지를 이전해(현재 신시가지) 호수가 400여호에 달하나 공동우물은 1개소 밖에 없어 상시 음료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취급하는 바람에 위생상 불결함은 말할 여지도 없다. 그나마 가뭄기에는 수량이 적어져 전 원이식을 하지 못해 급수를 원하는 군중들은 10정 이상이나 되는 강물을 길어오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강구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 이상의 불가사의한 것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하루라도 속히 면 당국과 협력하여 시급히 공동우물을 2, 3개소 증설하여 일상생활상 고통을 면하는 동시에 보건위생상을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1937-06-18-03-01

매일신보

강원서 농번기 임박 각 농촌에 탁아소 부인 옥외노동 권장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번기를 당하여 각지에 탁아소를 개설하고 일반 농촌 부인의 옥외 노동을 장려키로 하여 사회사업협회 강원도 지부에서는 완구 기타의 설비비를 보조키로 되었다. 현재 각 군의 기설 경영상태는 극히 빈약하여 겨우 119개소에 불과하므로 금년에는 특히 갱생부락을 중심으로 극력 개설케 할 의향으로 각 군 현재의 상황은 여좌하다. 춘천 1, 인제 2, 양구 24, 회양 2, 고성 12, 양양 1, 삼척 6, 울진 5, 정선 3, 평창 2, 영월 16, 원주 7, 횡성 6, 화천 20, 김화 2, 철원 2, 계 119개소

1937-06-18-03-03

매일신보

인제 다년 염원이던 전등가설 실현되다 석전우편소장 활동

【인제】 인제군에서는 전등 가설문제가 3년 전부터 고창되어왔으나 지금까지 지방에 별 성가가 없이 맹목적으로만 해오던 중 금번 우편소장 석전출척씨가 자기의 여비를 희생해가며 대전 전기회사에 가서 담임자를 방문하고 기어이 올해 내로는 실현을 해달라고 애원하여 회사당국에서도 씨의 열정에 감격되어 금년 8월경에 설치조사를 한다는 확답을 듣고 온 석전씨는 매일신보 지국을 방문하고 실현책을 철저히 연구협력하여 기어이 실현토록 조만간 기본 조사를 행하여 조사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준비중이라는데 여기에는 지방유지도 특별히 찬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적은 편이므로 일반 유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실현의 서광이 비친 인제사회에도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는 중이다.

郡民生活上必要한 麟蹄의 共同井戸 時急한 實現을 要望

江原서 農繁期 臨迫 各農村에 托兒所 婦人屋外勞動勸獎

麟蹄多年懸案이든 電燈架設實現乎 石田郵便所長活動

1937-06-18-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원통시장 이전공사 급진 증수기 임박을 우려

【인제】 인제군 원통시장은 기보도한 것과 같이 작년 여름 미증유의 수해로 전멸 상태에 빠져 일반시민들은 주택난을 부르짖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 이 면장은 지방유지와 유산계급자들의 동의를 얻어 고지대로 시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시일이면 1호당 2원씩을 수급하여 부지 8,000평을 매입케한 것이 순조로이 완성되어 목하 증수기가 임박해움을 우려하고 최고속도로 건축을 시행해 오는데 현재 50호가량이나 가옥이 완성되고 계속하여 건축해 오는 미완성 가옥이 약 50여호 가량 된다는데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금년 가을까지 전부 이전하리라 보는데 시장이 완성만 되면 불행중 다행 격으로 인근에 이같이 미묘한 시장은 처음 보리라고 한다.

1937-06-18-03-07

### 매일신보

#### 각지 농민데이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공서 직원 전부와 지방유지가 다수 모여서 인제군 향교 제당 2두락을 정조식으로 모를 심어 일반농민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한다.

1937-06-18-04-05

### 매일신보

#### 인제에 화재 양조장 전소

【인제】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이종을씨 양조장에서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다는데 그 손해액은 약 2,000원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1937-06-19-03-02

### 매일신보

#### 용수 흡족으로 인제 모내기 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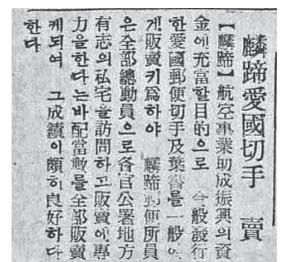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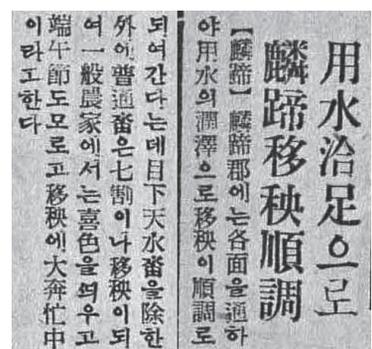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는 각면을 통하여 용수가 못에 가득하여 모내기가 순조로이 되어간다는데 목하 천수답을 제외한 보통 논은 70%나 모내기가 되어 일반농가에서는 희색을 띄우고 단오절도 모르고 모내기에 매우 분망중이라 한다.

1937-06-19-03-02

### 매일신보

#### 인제 애국 절수 판매

【인제】 항공사업 조성진흥의 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금번 발행한 애국우편 우표와 엽서를 일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인제우편소원은 전부 총동원으로 각 관공서 지방유지의 사택을 방문하여 판매에 전력을 한 다는데 배당수를 전부 판매케 되어 그 성적이 자못 양호하다 한다.



1937-06-20-03-03

### 매일신보

#### 인제공보 아동 노동열을 고취

【인제】 인제군 인제 공립보통학교에서는 방금 농번기를 이용하여 5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약 1주일간을 노동주간으로 정하고 전부 가정에 돌아가서 농사에 대한 조력을 하도록 지도하고 매일매일 담임선생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사실 노동에 종사하나 안하나 실지 조사하는 동시에 철저히 지도를 행하여 온다는 데 각 학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감격을 마지않는다고 한다.

1937-06-20-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면장회의

【인제】 인제군에는 면장회의를 오는 23-24일경 개최할 예정으로 목하 회의사정 준비에 분망중이라 한다.

1937-06-22-03-03

### 매일신보

#### 인제군 각 공보교 보리 검은 이삭 베어 없애버리는 데 좋은 성과

【인제】 인제군내 각 공보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리 검은 이삭 제거를 이행시켜 오는데 학생들은 성심으로 발제를 행하여 한이삭 한 이삭 모은 것이 학교 퇴비장에 산적되어 있다는데 이에 대해 일반농민들에게 직접 자극을 주게 되었다 하며 그중 제일 우수한 곳은 인제 북면 남면 3공보교라 한다.

1937-06-27-03-05

### 매일신보

#### 인제 생견 공판

【인제】 인제군에는 올봄 생견공동판매를 목하 시행해 오던 중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견가격의 경기가 좋은 관계로 일반 농촌에서는 경기가 완화된다고 하며 관내 취급장소와 일정은 좌와 같이 한다고 한다.

- 1. 인제읍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 1. 관대리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 1. 어론리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 1. 원동리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 1. 서화리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 1. 현리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 1. 창촌리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麟蹄公普校兒童勞動熱을鼓吹**

【麟蹄】麟蹄郡公普校學生들이 家庭에 돌아가서 農事에 對한 助力을 하도록 指導하고 侮々 擔任 先生들이 各家庭을 訪問하면서 事實勞動에 從事하나 안하나 實地 調査하는 同時에 徹底히 指導를 行하여 온다는 데 各學友兒童은 此에 對한 日間은 勞働 期間으로 定하고 全部의 感激을 表지 안는다고 한다.

**麟蹄郡面長會議**

【麟蹄】麟蹄郡에서 是日 面長會議를 來二十三日 四日頃 開催할 豫定으로 日下 會議事項 準備에 奔忙中이라고 한다.

**麟蹄郡各公普校 麥黑穗刈除好績**

【麟蹄】麟蹄郡內各公普校에서 學生들이 麥黑穗 刈除를 勵行 시키는데 學生들은 熱心으로 拔除를 行하여 二穗二穗 集合한 것이 學校堆肥場에 山積되었다는 바 此에 對하여는 一般農民들이 直接 刺戟을 주게 되었다 하며 그中 第一 優秀한 곳은 麟蹄 北面 南面 三公普校라고 한다.

**麟蹄生繭共販**

【麟蹄】麟蹄郡農會에서 今年生繭 共同販賣을 日下 施行해 온 中 今年는 去年에 比하여 繭價의 景氣가 至은 關係로 一般農村에서 生繭이 經濟가 發達된다고 하며 管内 取扱場所와 日割은 左와 如하다고 한다.

一、麟蹄邑內 自六月廿二日至七月十日

一、冠岳里 自六月廿二日至七月十日

一、於倫里 自六月廿三日至七月二日

一、元通里 自六月廿七日至七月五日

一、瑞和里 自六月廿七日至七月十日

一、麟里 自六月廿七日至七月十日

一、倉村里 自六月廿七日至七月十日

1937-06-27-03-11

### 매일신보

#### 인제서 검도 연습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오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서장회의에서 각서 대항 검도 시합에 최우등의 성적을 획득하고자 요사이 매일 오후만 되면 검도 연습에 열중되었다고 한다.

1937-06-27-04-08

### 매일신보

#### 인제 선거위반 사건 정식 고발로 조사중

【인제】 기보=인제군에는 지난번 도의 개선에 제하여 입후보자가 7명이나 난립하여 대격전을 이루었는데 그 여파로 모 입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사건이 있다고 모 입후보자 측에서 그 사실을 일일이 조사하여 인제경찰서에다 정식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강원도지사에게 이의 신고를 하여 방금 인제경찰서에서는 이 사실을 극비에 부치고 조사를 한다는데 불원간 조사가 끝나면 소관 검사국으로 사건을 회부하리라 한다.

1937-06-28-04-08

### 매일신보

#### 인제경찰서 각종 시험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지난 24, 25 양일에 정기소집을 이용하여 각종 시험을 행하였는데 그 성적 여하는 도경찰부에서 가까운 날 발표하리라는데 시험의 종류는 좌와 같다고 한다.

1. 순사부장 예비시험
2. 정려시험
3. 통역시험

1937-06-29-03-06

### 매일신보

#### 견가 폭등을 엿보는 간상배 발호 우려, 인제경찰서에서 경계중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춘삼절 공동관매를 각면에서 시행해오는데 금년은 견가가 폭등하여 일반농가에서는 희색을 띠우고 부업의 정신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오는 이때 혹 간상배들의 피임에 빠져서 자택 또는 도중에서 사매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돌아가는 자가 혹 있지않은가 하고 우려하는 인제경찰서에서는 방금 각면을 통하여 부정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계를 행하고 있다.

麟蹄署劍道練習

【麟蹄】麟蹄警察署에서는來七月十四일부터十七日外지에開催되는會長會議에서各署對抗劍道試合に最優等の成績を獲得하고자요사이毎日午後에만 되면 검도 연습에 열중되었다고 한다.

麟蹄選 舉違反事件 正式告發로 調査中

【麟蹄】기보=인제군(麟蹄郡)에서는 6월 27일의 개선에 제하여 입후보자(立候補者)가 7명이나 난립하여 대격전을 이루었는데 그 여파로 모 입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사건이 있다고 모 입후보자 측에서 그 사실을 일일이 조사하여 인제경찰서에다 정식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강원도지사에게 이의 신고를 하여 방금 인제경찰서에서는 이 사실을 극비에 부치고 조사를 한다는데 불원간 조사가 끝나면 소관 검사국으로 사건을 회부하리라 한다.

가 停勝番을 附하고 本署에서 成續如何는 道警察部에서 近々 洪性淑(永女四年) 崔三福(淑明) 麟蹄署各種試驗 麟蹄署에서는 지난 24, 25 양일에 정기소집을 이용하여 각종 시험을 행하였는데 그 성적 여하는 도경찰부에서 가까운 날 발표하리라는데 시험의 종류는 좌와 같다고 한다.

一、巡查部長 豫備試驗 二、 麟蹄試驗 三、 通譯試驗

滿價暴騰을 엿보는 奸商輩跋扈憂慮

麟蹄署에서 警言戒中

【麟蹄】麟蹄郡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춘삼절 공동관매를 각면에서 시행해오는데 금년은 견가가 폭등하여 일반농가에서는 희색을 띠우고 부업의 정신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오는 이때 혹 간상배들의 피임에 빠져서 자택 또는 도중에서 사매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돌아가는 자가 혹 있지않은가 하고 우려하는 인제경찰서에서는 방금 각면을 통하여 부정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계를 행하고 있다.

1937-06-29-03-07

### 매일신보

#### 홍천세무위원회

【홍천】 홍천세무서에서는 홍천 인제 2개군민의 소득세 조사를 끝내고 거 25일 오전10시부터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하였는데 작년에 비하여 다소 감액되었다 한다.

1937-06-29-04-05

### 매일신보

#### 경춘화물 자동차 인제 통과

【인제】 인제군은 산간군으로 전조선에 제일가는 약초재와 콩 등의 부산물이 산출되고 있으나 시세에 적응도록 운반 매대코자 하여도 화물차가 없는 관계로 임의의 운반이 되지 않는 까닭에 시세에 손해를 보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이 적지 않아 화물자동차의 설치를 요망하여 오던 중 다행히 지난 6월 1일부터 설치키로 되어 있어 목하 일반 화물운반에 종사중이다

1937-06-30-03-09

### 매일신보

#### 지방집회 ◇ 인제군삼림조합 총회

【인제】 인제군 원통삼림보호구 관내에서는 종래 1개소의 보호조합을 두고 조사의 보조를 행하여오는데 조사 기타의 편리와 조합원의 일반편익을 도모키 위하여 지난 22일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4개소에다 조합을 설치하도록 보호구 내에다 연합회를 신설하여 종래보다 배 이상 조사에 주력을 하리라고 한다.

1937-07-06-05-12

### 동아일보

#### 사고

이종성 임 인제지국장  
인제지국장 김영제 의원면직  
금반 우와 같이 폐사 지국을 변경하였사옵기 이에 근고하나이다.  
1937년 6월 30일부 동아일보사

【洪川】 洪川稅務署에서는 洪川 麟蹄二個郡民의 所得稅 調査를 完了하고 去廿五日午前十時부터 調査委員會를 開會하고 審査하였다 한다. 小麥의 取收適 期는 六月二十五日로부터 七月一 日까지로 定하고 亦是 郡面 總動員 으로 極力 督勵 하기로 되어 있다.

【麟蹄】 麟蹄(麟蹄郡)은 산간으로 전조선에 제일가는 약초재(藥草材)와 대두(大豆) 등의 부산물(副産物)이 산출되고 있으나 시세에 적응하도록 운반매대코자 하여도 화물차가 없는 관계 상의로 운반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시세에 손해를 보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이 적지 않아 화물자동차의 설치를 요망하여 오던 중 다행히 지난 6월 1일부터 설치키로 되어 있어 목하 일반 화물운반에 종사중이다.

地方集會  
○職業科研究會 【江華】 江華郡 洞帖公普校에서는 二十六日午前 八時부터 京畿道主權의 視學委員 職業科研究會를 管內各學校校長과 訓導約四十名를 集會하여 開會하고 島之江校長으로부터 開會人事가 以後 實地指導研究會가 同 午後六時無事終了하였다.  
○麟蹄森林組合總會 【麟蹄】 麟蹄郡元通森林保護區管內에서는 從來一個所의 保護組合을 두고 取締의 補助를 行해오던 取締其他의 便利와 組合員의 一般利益을 圖謀키 爲하야 지난 二十二日에는 組合員總會를 開會하고 四個所에다 組合을 設置하고 保護區內에다 聯合會를 新設키 爲하야 從來보다 倍以上 取締에 注力을 하기로 하였다.

社  
李鍾聲  
任麟蹄支局長  
金永潤  
麟蹄支局長  
本報右와 知하 麟蹄支局長을 任하 爲하야 茲에 謹告 하나이다.  
昭和十二年六月三十日附  
東亞日報社

1937-07-07-05-13

### 동아일보

#### 인제에 보리 밀은 연래 드문 풍작

【인제】 인제군에는 예년 한해 혹은 냉해로 인하여 보리 밀이 항상 부진상태에 있어 지방적으로 미가가 고등하여 농촌 세국민의 생활상 위협이 적지않았는데 금년은 전년에 비하여 40% 이상의 증수는 확실히 보리라는데 금년같은 풍년은 근래에 처음이라고 하며 일반 농촌민들은 다 각기 희색을 띄우고 수확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1937-07-18-05-08

### 동아일보

#### 인제군 금년 풍형 대체로 풍년 예상

【인제】 인제군은 산간지대인 만큼 매년 냉해 수해로 인하여 흉작을 거듭해왔는데 금년은 기후가 적당한 관계로 다소의 가뭄은 있었으나 그다지 대단치 않아서 천수답 이외에는 전부 이앙이 순조로 되고 전곡도 초행이 매우 좋아서 이대로 천후가 계속한다면 금년은 틀림없이 풍작을 예상하리라고 한다.

1937-07-18-05-09

### 동아일보

#### 인제 선거위반 사건 조사 일단락 서류를 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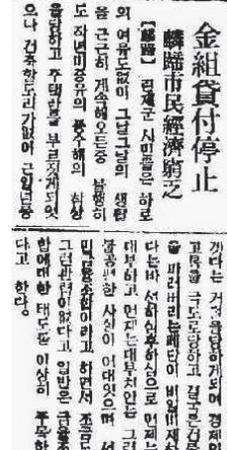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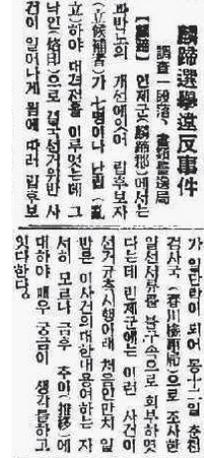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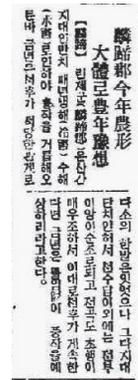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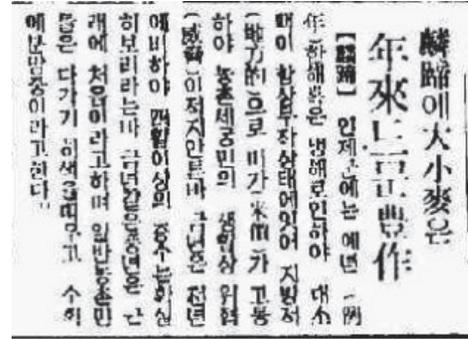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서는 강원도의 개선에 있어 입후보자가 7명이나 난립하여 대격전을 이루었는데 그 낙인으로 결국 선거위반 사건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입후보자 모씨의 운동자 이군섭씨는 당선 도회의원 모씨를 상대로 인제경찰서에다 위반 사건을 들어 고소를 제기하여 인제경찰서에서는 주야겸행으로 사건의 유무 및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등 각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취조를 받는 중 지난 10일에는 조사가 일단락이 되어 동 12일 춘천검사국으로 조사한 일건서류를 불구속으로 회부하였는데 인제군에는 이런 사건이 선거 규칙 시행 이래 처음인만큼 일반은 이 사건의 대용 여하는 자세히 모르나 금후 추이에 대하여 매우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

1937-07-20-05-09

### 동아일보

#### 금융조합 대부 정지 인제시민 경제 궁지

【인제】 인제군 시민들은 하루의 여유도 없이 그날그날의 생활을 근근이 계속해 오던 중 불행히도 작년 미증유의 풍수해의 참상을 당하고 주택난을 부르짖게 되었으나 건축할 도리가 없어 근 1년 동안이나 고민 중으로 지내왔다. 그 중에도 다소의 활동력이 있는 자는 건물을 금융조합에다 저당하여 주겠다는 약속으로 건물을 외상으로 건축하고 금융조합에다 교섭한 결과 예상과 반대로 지금부터는 건물을 잡고는 금전을 대부치 못하겠다는 거절을 당하게 되어 경제의 고통을 극도로 당하고 결국은 건물을 팔아버리는 폐단이 비일비재하다는데 신하심후하심으로 언젠는 대부하고 현재는 대부치 않는 그런 불공평한 사실이 어디 있으며 서민 금융조합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그런 관련이 없다고 일반은 금융조합에 대한 태도를 이상히 주목한다고 한다.





1937-07-24-08-09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에서 밀 공판 개시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생산농가의 복리증진과 경제상 이익을 도모케할 목적으로 밀 공동판매를 시행해왔는데 그 성적이 대단히 양호하므로 금년도 역시 공판 실행하기로 되어 오는 18일부터 좌기 장소에서 행하리라는데 금년은 특히 공동판매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위안을 주기 위하여 밀 1두5송 판매한 사람에게는 유치권을 주고 유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는데 등급은 1등서부터 5등까지로 상품도 상당히 많은 모양으로 보여 일반 농민들은 흥미를 가지고 공판을 이용하리라고 추측된다. 인제읍 원통시 관대시 서화시 인제시 창촌시 어론시

1937-07-31-08-11

### 동아일보

#### 인제군 퇴비지도 매 반 300관 목표

【인제】 인제군에서는 농가의 퇴비를 장려코자 지난 15일부터 반당 300관을 목표로 8월 말까지 각관공서원들은 오전4시부터 동 7시까지 약 4시간을 독려한다는데 독려 일정은 좌와 같다고 한다. 매월 초5, 6일 1회 15, 16일 2회 25, 26일 3회 구분하여 옥외 독려를 행하는데 목하 취합된 퇴비만 해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1937-08-03-05-13

### 동아일보

#### 우량 흡족으로 인제 풍년 예상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28일부터 비가 적당히 온 관계로 용수가 윤택하여 금년은 일반 농가에서 풍년을 예상한다는데 단지 우려됨은 앞으로 1개월이 수해 위험기이므로 방수에 다소 우려 중이라고 한다.

1937-08-07-05-05

### 동아일보

#### 답지하는 국방헌금

◇…인제군에서는 지난일까지 국방헌금과 일본군황군위문금은 다음과 같다  
◇국방헌금 ▲김연기 20원 ▲평창 이씨문중 21원 70전▲인제 공립 (판독불능)

1937-08-07-05-06

### 동아일보

#### 시극 강연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3일 오후8시부터 당지 경찰서 연무장에서 도 이재과장 원종삼씨의 시극에 관한 강연으로 당일의 청강자가 200여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강연과 각처 미담에 감격 되어 청강자 중에서는 국방헌금과 위문금이 현장에서 많이 연출되었다고 한다.

麟蹄郡農會에서  
小麥其販開始  
【麟蹄】 麟蹄郡農會에서는 生産農家의 福利進進과 經濟上의 利益을 도모케할 目的으로 小麥의 共同販賣을 實行해왔는데 그 成績이 大단히 양호하므로 今年도 역시 共同販賣을 實行하기로 되어 오는 18일부터 좌기 장소에서 行하리라는데 今年는 特別히 共同販賣의 精神을 高揚시키는 同時에 위안을 주기 위하여 密 1두5송 販賣한 사람에게는 留置權을 주고 留置를 施行할 豫定이라는데 等級은 1等부터 5等까지로 商品도 相當히 많은 모양으로 보여 一般農民들은 興味를 가지고 共同販賣을 利用하리라고 推測된다. 麟蹄郡 元通市 官大市 西花市 人濟市 창촌市 어론市

麟蹄郡堆肥指導  
每反三百貫目標  
【麟蹄】 麟蹄郡에서는 農家의 堆肥를 장려코자 지난 15일부터 反當三百貫을 目標로 八月末까지 各管公署員들은 午前四時부터 同七時까지 的(4時)을 圖利한다는데 獨려 일정은 左와 같다고 한다.  
每月初五、六日 一區十五、六日 二區二十五、六日 三區로 分할하여 別所獨려 行하는바 目下 獨려 堆肥만해도 相當히 반타고 한다

雨暈洽足으로  
麟蹄豊年豫想  
【麟蹄】 麟蹄군에는 지난 28일부터 비가 적당히 온 關係로 容수가 윤택하여 金년에는 一般 農가에서 豊年을 豫想한다는데 단지 우려됨은 앞으로 1개월이 수해 위험기이므로 방수에 다소 우려 중이라고 한다.

運至하는國防獻金

김연기	20원
平昌 이씨문중	21원 70전
인제 공립	판독불능

時局講演會를  
三日麟蹄에서開催  
【麟蹄】 麟蹄군에서는 日9時부터 당지 警察署 연무장에서 大規模로 時局講演會를 開催하는바 三日前의 新聞에 關係한 講演은 大衆의 注意를 引키었는데 그 강연과 各處의 米담에 感격되어 清강자 中에서는 國庫헌금과 위문금이 現場에서 많이 演出되었다고 한다.

1937-08-10-03-05

### 매일신보

## 국방에 “적성의 거탄” 총후부대의 헌금군 완전 육속 강원도민의 지성 헌금 각군서 답지 도처에 감격의 가화

【춘천】 북중국의 풍운이 거역 급박을 고하자 전국의 애국열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강원도에도 국방헌금 일본군(황군) 위문품이 각지에서 답지하고 있어 당국을 감격케하고 있는데 8월 1일 이후 7일까지 도내 각 경찰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취급한 헌금을 각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인제군 ▶광원리 박창구 외 13명 45원 ▶남면 북리구에 사는 이종형 30원 ▶상동리 김종목 20원 ▶동아지국장 이종성 2원 (중략)

1937-08-13-05-01

### 동아일보

## 사진 서호교

서호교 (인제 소견)

1937-08-13-05-09

### 동아일보

## 군사후원회 발회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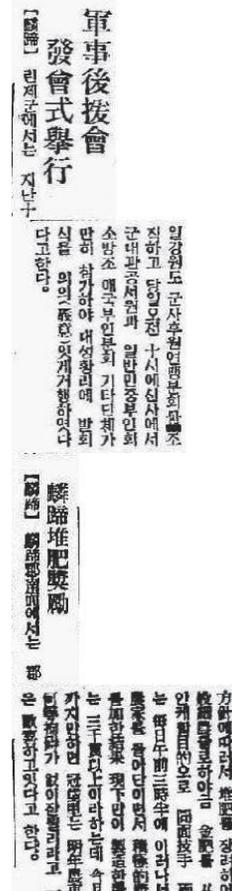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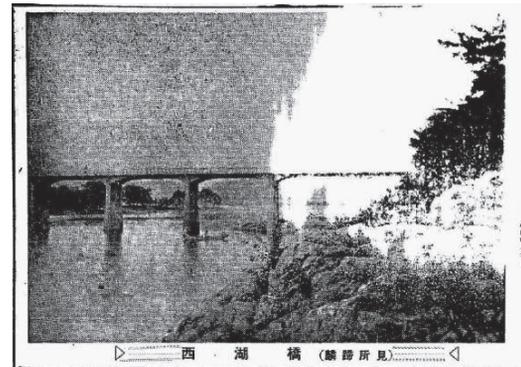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0일 강원도 군사후원연맹분회를 조직하고 당일 오전 10시에 신사에서 군내 관공서원과 일반민중, 부인회, 소방조, 애국부인분회 기타 단체가 많이 참가하여 대성황리에 발회식을 의의있게 거행하였다고 한다.

1937-08-13-08-03

### 동아일보

## 인제 퇴비장려

【인제】 인제군 남면에서는 군 방침에 따라서 퇴비를 장려하여 일 반 세농으로 하여금 금비를 사지 않게 할 목적으로 남면 기수 양씨는 매일 오전3시 반에 일어나서 각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적극적 장려를 가한 결과 현하 많이 제조한 농가는 3,000t 이상이라 하는데 금 월 말까지만 하면 관대리는 명년 농사에 하등 구매가 없이 잘 되리 라고 일반은 환희하고 있다고 한다.



1937-08-14-05-03

### 동아일보

#### 인제지국 후원 정구대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오는 15일 본사 인제지국 후원으로 개인 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참가에 대하여는 좌에 의한다는데 당일은 상당히 대성황을 이루리라고 예측한다.

1. 시일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 장소 인제공보교 교정 코트
  3. 신청기일 당일 9시까지
  4. 신청금 1조 1원(주식대)
- 주최 인제공립보통학교동창회  
후원 동아일보사 인제지국

1937-08-16-03-04

### 동아일보

#### 인제지방에 백일해

【인제】 요즘 인제읍 부근에는 백일해가 습래하여 10세 이하의 어린이아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벌써 사망한 아이도 2, 3명이나 있다 하며 생명에 위험이 있는 아이가 많아서 병원에는 매일 입원하는 아이가 2, 3인씩 되어 방금 만원상대라고 한다.

1937-08-17-03-06

### 매일신보

#### 강원 각지에 강연 행각 비상시 인식 고취, 전도를 4구로 강연회

【춘천】 강원도에서는 관하 각군 청년단원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자 명덕회장으로부터 각군 지부장에게 지시를 발하였다 함은 별항과 같거니와 시국에 대한 인식을 일층 철저 또 강화하고자 전도를 4구에 나누어 흥 참여관과 김 촉탁이 출장하여 시국에 대한 강연회를 하기로 되었는데 그 일정과 개최지는 좌와 같다. (중략) ◇ 제2구 철원에서 6월 16일 철원 양구 인제 화천 김화 평강 이천 회양

1937-08-18-05-03

### 동아일보

#### 인제지국 후원 야구대회 성황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본사 인제지국 후원으로 야구시합이 인제 보통학교 코트에서 개최되었는데 참가팀은 군청 시민 유학생의 두팀을 포함하여 수백의 관광객으로 대성황리에 각단체의 대항 운전은 자웅난결의 백열전을 연출한 나머지 우승은 군청팀이 총점수 28점으로 되고 당일 오후 6시에 폐회하였는데 금번 시합으로 하여금 앞으로 당지 운동열에 대하여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한다.

**麟蹄支局後援 庭球大會**

【麟蹄】 인제군에서는 오는 15일 본사 인제지국 후원으로 개인 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참가에 대하여는 좌에 의한다는데 당일은 상당히 대성황을 이루리라고 예측한다.

- 一、時日 八月十五日 午前十時부터
- 二、場所 麟蹄公署後校庭球コート
- 三、申請期 同日 九時까지
- 四、申請金 一圓(現金代)

主催 麟蹄公署 後校庭球會  
後援 東亞日報 麟蹄支局

**麟蹄地方에 百日咳**

【麟蹄】 오직을 인제읍 부근에는 백일해가 습래하여 10세 이하의 어린이아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벌써 사망한 아이도 2, 3명이나 있다 하며 생명에 위험이 있는 아이가 많아서 병원에는 매일 입원하는 아이가 2, 3인씩 되어 방금 만원상대라고 한다.

**江原各地에 講演行脚 非常時認識鼓吹 全道를 四區로 講演會**

【春川】江原道에서는 관하 각군 청년단원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자 명덕회장으로부터 각군 지부장에게 지시를 발하였다 함은 별항과 같거니와 시국에 대한 인식을 일층 철저 또 강화하고자 전도를 4구에 나누어 흥 참여관과 김 촉탁이 출장하여 시국에 대한 강연회를 하기로 되었는데 그 일정과 개최지는 좌와 같다. (중략) ◇ 제2구 철원에서 6월 16일 철원 양구 인제 화천 김화 평강 이천 회양

**麟蹄支局後援 野球大會盛況**

【麟蹄】 인제군에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본사 인제지국 후원으로 야구시합이 인제 보통학교 코트에서 개최되었는데 참가팀은 군청 시민 유학생의 두팀을 포함하여 수백의 관광객으로 대성황리에 각단체의 대항 운전은 자웅난결의 백열전을 연출한 나머지 우승은 군청팀이 총점수 28점으로 되고 당일 오후 6시에 폐회하였는데 금번 시합으로 하여금 앞으로 당지 운동열에 대하여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한다.

1937-08-20-05-10

**동아일보**

**인제의 북면강도 금품을 강탈 도주**

【인제】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박수업의 집에는 지난 16일 오후11시 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에 북면한 강도가 침입하여 주인 박수업을 협박한 후 현금 155원51전을 강탈 도주하였는데 이 금보를 받은 인제경찰서에서는 김 사법주임이 6, 7명의 경관대를 인솔하고 현장에 급행하여 경계망을 늘리고 방금 범인 수사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1937-08-22-05-04

**동아일보**

**국방헌금 위문금**

◇인제...인제의 국방헌금은 다음과 같다  
▲최병규 10원▲이익규 20원▲이강국 10원▲한연수 10원▲강만봉 5원 ▲문광복 7원▲정태형 백남규 공동 5원▲조응구 1원▲김군삼 2원 ▲임광원 6원▲김진호 6원▲김순호 6원▲차학성 6원▲한경원 3원 ▲박성선 3원▲이배근 3원▲김호욱 2원▲김일용 1원▲이원태 2원 ▲김호경 1원▲석근필 1원▲송화삼 1원▲이성흠 5원▲김동호 10원 ▲차석호 5원▲권기순 10원▲안수만 5원▲김성조 3원▲김우삼 3원 ▲김성재 2원▲김중환 1원 ▲김형도 50전▲김동인 50전(중략) ▲김창두 1원▲최필렬 1원▲김학걸 50전▲이근화 50전▲이길선 50전 ▲▲김병렬 50전▲이현수 50전▲인봉관 50전▲장천봉외 14명 52원 ▲오현식 10원▲인제 서리 소방조 10원▲이형권의 18명 12원 40전 ▲심삼기 외 3인 3원 50전▲대삼송차량 1원▲선린상점 김동호 5원 ▲김건량 1원▲최복순 50전 ▲박원모 50전▲상임 50전 ▲조영구 50전▲김오숙 50전▲최형자 50전▲공영배 5원 40전(중략)

1937-08-23-04-08

**동아일보**

**인제시국 강연**

【인제】 인제군에서는 시국 문제를 일반 민중에게 인식시키고자 군수 전재우씨와 경찰서장 덕구정중씨는 각면을 순회하면서 목하 강연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1937-08-25-05-12

**동아일보**

**인제농촌에 희보 농작물 대풍**

【인제】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인제군은 지난해 여름 미증유의 대홍수로 인하여 농작물을 여지없이 참상을 당하고 일반농촌의 세궁민들은 파산과 유리를 속출케되었던 인제군도 금년은 어디를 물론하고 오히려 대체로 그 성장 발육이 양호하여 벌써부터 풍년의 징조가 보이므로 일반농민들은 작년 수재의 고단한 꿈을 청산하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요사이 100도(화씨)나 되는 노엽에도 불구하고 제초에 분망 중이었는데 군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천후가 앞으로 순조롭게 계속만 된다면 작년에 비하여 오히려 30% 이상이 증수되리라고 한다.

**麟蹄의覆面強盜**  
**金品巨強奪逃走**

【麟蹄】 麟蹄군 북면 용대리 박수업의 집에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에 북면한 강도가 침입하여 주인 박수업을 협박한 후 현금 155원 51전을 강탈 도주하였는데 이 금보를 받은 인제경찰서에서는 김 사법주임이 6, 7명의 경관대를 인솔하고 현장에 급행하여 경계망을 늘리고 방금 범인 수사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國防獻金·慰問金**

▲최병규 10원▲이익규 20원▲이강국 10원▲한연수 10원▲강만봉 5원 ▲문광복 7원▲정태형 백남규 공동 5원▲조응구 1원▲김군삼 2원 ▲임광원 6원▲김진호 6원▲김순호 6원▲차학성 6원▲한경원 3원 ▲박성선 3원▲이배근 3원▲김호욱 2원▲김일용 1원▲이원태 2원 ▲김호경 1원▲석근필 1원▲송화삼 1원▲이성흠 5원▲김동호 10원 ▲차석호 5원▲권기순 10원▲안수만 5원▲김성조 3원▲김우삼 3원 ▲김성재 2원▲김중환 1원 ▲김형도 50전▲김동인 50전(중략) ▲김창두 1원▲최필렬 1원▲김학걸 50전▲이근화 50전▲이길선 50전 ▲▲김병렬 50전▲이현수 50전▲인봉관 50전▲장천봉외 14명 52원 ▲오현식 10원▲인제 서리 소방조 10원▲이형권의 18명 12원 40전 ▲심삼기 외 3인 3원 50전▲대삼송차량 1원▲선린상점 김동호 5원 ▲김건량 1원▲최복순 50전 ▲박원모 50전▲상임 50전 ▲조영구 50전▲김오숙 50전▲최형자 50전▲공영배 5원 40전(중략)

**麟蹄時局講演**

【麟蹄】 麟蹄군에서는 시국 문제를 일반 민중에게 인식시키고자 군수 전재우(全在禹)씨와 경찰서장 덕구정중(德久貞重)씨는 각면을 순회하면서 목하 강연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麟蹄農村大喜報**  
**農作物大豊**

【麟蹄】 麟蹄군에서 미증유의 대홍수로 인하여 농작물을 여지없이 참상을 당하고 일반농민들은 파산과 유리를 속출케되었던 인제군도 금년은 어디를 물론하고 오히려 대체로 그 성장 발육이 양호하여 벌써부터 풍년의 징조가 보이므로 일반농민들은 작년 수재의 고단한 꿈을 청산하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요사이 100도(화씨)나 되는 노엽에도 불구하고 제초에 분망 중이었는데 군당국자의 말을 들으면 천후가 앞으로 순조롭게 계속만 된다면 작년에 비하여 오히려 30% 이상이 증수되리라고 한다.

1937-08-25-05-12

### 동아일보

#### 인제 상계 침체 수송 두절

【인제】 강원도 인제 지방은 작년 여름 미증유의 풍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여지없이 참경에 이르렀다 함은 기묘한 바이거니와 그 여파는 일반 상계에 미치게되어 농촌의 구매력이 감퇴한데다가 최근에는 물가가 폭등하여 상품의 거래도 원활히 되지 않는 관계상 각상점의 매상고가 전년에 비하여 40% 이상이나 감퇴된 현상이라고 하며 더욱이 인제에서는 원통시장이 여항의 제1위를 점령하고 있던 것이 작년 수해이래로 예상 이상의 부진을 보게되었다. 그 원인은 인제의 생명선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인제 간성간 도로가 전부 파멸되어 유해산물의 집주가 되지않는 관계이라 하며 일반 상인들도 근심을 펴지 못하고 우울상태로서 이 도로가 시급히 복구되기를 고대중인데 금번 강원도지사가 머지않아 당지에 초순시를 한다는 전설을 듣고 각유력자층에서는 복구운동의 진정을 하리라고 추측된다.

1937-08-25-05-12

### 동아일보

#### 물가 폭등을 엿보는 간상배 발호 우려 인제경찰서에서 경계중

【인제】 시국이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물가는 날개 돋힌듯이 나날이 올라가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일반 간상배들이 농촌의 세궁민들을 속여서 부당의 이익을 보지않나 염려하는 인제경찰서에서는 관하 재소를 통하여 물가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하는 등 일방으로는 폭리 단속의 경계 중이라고 한다.

1937-08-25-05-13

### 동아일보

#### 인제의 중국인 귀국 준비

【인제】 인제지방에 거류하는 중국인들은 북중국 전쟁이래 양국의 평화되기를 날로 고대하였으나 도저히 평화의 길은 없고 점점 전면적으로 강화해가므로 할 수 없이 귀국의 의향을 가지고 상품과 외상회수에 분주 중인데 대개 정리만 되면 시급히 귀국의 길을 떠날 모양이라고 한다.

1937-08-28-05-01

###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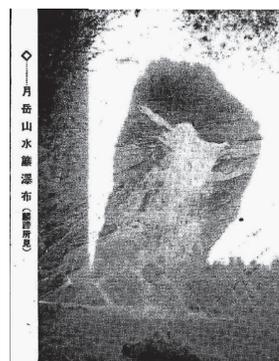
#### 사진 월악산 수렴폭포

월악산 수렴폭포(인제 소견)

麟蹄商界沈瀋  
道略破綻運輸社絶  
【麟蹄】 麟蹄의 物價暴騰은 沈瀋한 商情을 反映한 結果로 一般 商民의 購買力이 減退한 데다가 最近에는 물가가 폭등하여 상품의 거래도 원활히 되지 않는 관계상 각상점의 매상고가 전년에 비하여 40% 이상이나 감퇴된 현상이라고 하며 더욱이 인제에서는 원통시장이 여항의 제1위를 점령하고 있던 것이 작년 수해이래로 예상 이상의 부진을 보게되었다. 그 원인은 인제의 생명선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인제 간성간 도로가 전부 파멸되어 유해산물의 집주가 되지않는 관계이라 하며 일반 상인들도 근심을 펴지 못하고 우울상태로서 이 도로가 시급히 복구되기를 고대중인데 금번 강원도지사가 머지않아 당지에 초순시를 한다는 전설을 듣고 각유력자층에서는 복구운동의 진정을 하리라고 추측된다.

物價暴騰을 엿보는  
奸商輩 跋扈 憂慮  
【麟蹄】 시국이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물가는 날개 돋힌듯이 나날이 올라가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일반 간상배들이 농촌의 세궁민들을 속여서 부당의 이익을 보지않나 염려하는 인제경찰서에서는 관하 재소를 통하여 물가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하는 등 일방으로는 폭리의 경계 중이라고 한다.

麟蹄의 支那人  
續續 歸國 準備  
【麟蹄】 인제지방에 거류하는 중국인들은 북중국 전쟁이래 양국의 평화되기를 날로 고대하였으나 도저히 평화의 길은 없고 점점 전면적으로 강화해가므로 할 수 없이 귀국의 의향을 가지고 상품과 외상회수에 분주 중인데 대개 정리만 되면 시급히 귀국의 길을 떠날 모양이라고 한다.





1937-09-04-05-06

### 동아일보

#### 관대강 범람으로 인제에 교통 두절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26일부터 동 28일까지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관대 강물이 범람하여 인제 흥천간, 인제 춘천간은 교통이 두절되었다 하며 농작물에는 별로 큰 피해는 없다고 한다.

1937-09-06-04-01

### 동아일보

#### 인제도의원 선거

【인제】 지난 5월에 전조선 각지를 물론하고 도의원 개신 문제로운 동이 백열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다. 이제 강원에 대한 선거 위반 사건이 돌발되어 당지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서류만 송국하였는데 지난 7월에는 관계자 이성흠 외 4, 5명을 춘천 검사국에서 호출 취조하고 또다시 지난 8월 26일에는 산전 검사가 인제에 출장하여 각면 관계자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은 것에 의하면 모면 협의회원에게 주식을 향응했다는 것과 음력설에 조선민력을 주었다는 것과 입후보자 자신이 문묘 직원인 만큼 유권자 수명을 춘기제향 대한관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기린면 백성철 외 십수명이라고 한다.

1937-09-07-05-05

### 동아일보

#### 강원호 헌납자금 인제서 3천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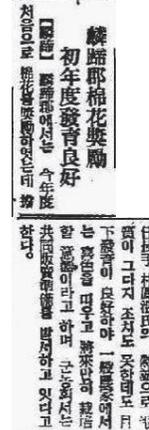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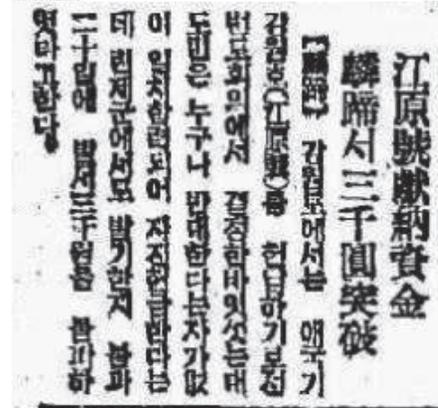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에서는 애국기 강원호를 헌납하기로 전번 도회의에서 결정한 적 있었는데 도민은 누구나 반대한다는 자가 없어 일치 협력되어 자진 헌금하는데 인제군에서도 발기한 지 불과 20일에 벌써 3천원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1937-09-07-08-08

### 동아일보

#### 인제군 면화 장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면화를 장려하였는데 담임 기수 박봉호씨의 열성으로 품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는데도 목하 발육이 양호하여 일반 농가에서는 희색을 띠우고 장래 많이 재배할 의향이라고 하며 농군회서는 공동판매 준비를 벌써하고 있다고 한다.



1937-09-08-05-10

### 동아일보

#### 16세 소년 노동자 1일 노임금 헌납

【인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용상옥(16)은 빈곤한 가정의 소동으로 매일 상남리 등의 도로 수리공사장에서 품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그날그날 겨우 지내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중일전쟁에 대한 일본군(황군)의 고뇌를 생각하고 지난 28일 기린면 상남리 구장을 방문하고 하루 임금 50전을 내놓고 군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일반은 이 적성에 감격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며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7-09-14-08-04

### 동아일보

#### 인제퇴비 품평회 도 심사 성적 양호

【인제】 강원도 방침인 퇴비 품평회에 인제군에서도 출품케 되어 지난번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관민일치 협력하여 7월부터 8월말까지 퇴비 주간을 정하고 열심히 지도하여 그 수확이 크다고 하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도농무과 직원이 출장하여 심사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인제같이 우량한 데가 없으리라는 기본으로 암시가 보였다고 한다.

1937-09-15-05-07

### 동아일보

#### 인제 중국인 속속 귀국

【인제】 중일전쟁 이래 인제군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귀국할 의향으로 상품을 헐가 방매하고 있던 중 요즈음은 상품도 대개 다 팔았으므로 지난 11일에 3명이 귀국하고 또 다시 잔류인 3, 4명은 뒤를 이어서 곧 귀국한다고 한다.

1937-09-15-05-11

### 동아일보

#### 인제에 폭풍 습래 농작 피해 막대, 도괴 가옥도 6, 7동

【인제】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농작물의 발육이 양호하여 수십년 내에 처음 당하는데 풍년을 노래하며 작년 수해의 비참한 꿈을 청산하리라고 예측하던 이때 불행히 지난 10일 오전10시부터 폭풍이 습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며 가옥도 6, 7채나 쓰러졌다는데 아직도 개일 줄을 모르고 여전히 12일까지 계속하여 오고 있으므로 일반농촌에서는 걱정을 펴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十六才少年勞働者  
一日勞賃金獻納

【麟蹄】 麟蹄郡 기린면 상남리 (麟蹄郡 麟蹄面 上南里) 용상옥 (龍相玉) 16세 빈곤한 가정의 소동으로 매일 상남리 등의 도로 수리공사장(土面修理事務)에서 품을 팔아서 그날그날 겨우 지내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중일전쟁에 대한 황군의 고뇌를 생각하고 지난 28일 기린면 상남리 구장을 방문하고 하루 임금 50전을 내놓고 군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일반은 이 적성에 감격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며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麟蹄堆肥品評會  
道審査成績良好

【麟蹄】 江原道 방침인 퇴비 품평회에 인제군에서도 출품케 되어 지난번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관민일치 협력하여 7월부터 8월말까지 퇴비 주간을 정하고 열심히 지도하여 그 수확이 크다고 하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도농무과 직원이 출장하여 심사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인제같이 우량한 데가 없으리라는 기본으로 암시가 보였다고 한다.

麟蹄支人續續歸國

【麟蹄】 中日戰爭以來 麟蹄郡에 居住하는 中國人들도 歸國할 의향으로 商品을 賣放하고 있던 中 最近 商品도 大개 다 팔았으므로 지난 11日에 3名이 歸國하고 또 다시 殘留인 3, 4名은 뒤를 이어서 곧 歸國한다고 한다.

麟蹄에 暴風襲來  
農作被害莫大  
倒塌家屋도 六七棟

【麟蹄】 麟蹄郡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농작물의 발육이 양호하여 수십년 내에 처음 당하는데 풍년을 노래하며 작년 수해의 비참한 꿈을 청산하리라고 예측하던 이때 불행히 지난 10일 오전10시부터 폭풍이 습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며 가옥도 6, 7채나 쓰러졌다는데 아직도 개일 줄을 모르고 여전히 12일까지 계속하여 오고 있으므로 일반농촌에서는 걱정을 펴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1937-10-02-04-09

### 동아일보

#### 방화선에 실수로 인부를 구타

【인제】 국유삼림의 방화선을 닦다가 인부와 산림간수 사이에 말썽이 되어 결국 난투극까지 연출되어 피해자는 전치 1개월의 진단으로 당지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듣건대 지난 20일 인제삼림보호구에서는 산화방지책으로 인제군 인제면 덕적리 국유산에 방화선을 닦기 위하여 산림간수 김모를 현장에 출장 감독케하고 상하 2반으로 나누어 시행하더니 일방은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 100명의 군중을 향하여 좋지 못한 언사를 강행하므로 그 동리 김명준씨는 산림간수에게 대하여 우리가 자유로 한 것은 아니요 당신의 감독 지도대로 닦은 것이요 또는 내일 다시 닦으라고 해도 복종할 터인데 그다지 좋지못한 언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운운히 말하니 전기 산림간수는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전기 김명준과 난투극이 일어나서 전치 1개월을 요할 부상을 주었다는데 피해자 김명준은 지난 22일 당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일반은 이 사건의 진전 여하에 주목하고 있다 하며 관계자들의 말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김명준 담

미안합니다. 이 비상시에 이런 불미한 일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일에 대하여는 저는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이 이런 번을 당하고 보니 운수만 한탄할 뿐입니다. 운운

가해자 산림감수 담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전zana 지금이나 조금도 사혐은 없고 단지 술김에 그랬으나 그 즉시 사과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되었다니 어떻게나 끝이 있을 터이지요.

1937-10-03-08-08

### 동아일보

#### 아편 밀경작자 인제경찰서서 검거

【인제】 인제군 내면 방내리 최원호는 자기 집 뒤 산속에다 남모르게 아편 약 100평 가량을 밀경작하여 50양중을 타인에게 판매하려다가 인제서원에게 발각되어 방금 조선아편취체령 위반으로 취조를 받는 중인데 불일간 춘천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 같이 송치되리라고 한다.

1937-10-05-02-06

### 동아일보

#### 때 아닌 홍수로 인제 교통두절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25일부터 때 아닌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각 하천이 증수되어 어느 군을 불구하고 인접군은 전부 교통이 두절되어 우편물이 미착으로 일반은 임시 궁급중이어서 대곤란을 겪었다 하며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나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지 않으리라고 한다.

**防火線에失手로 人夫冒殿打**

【인제】 인제군 내면 방내리 최원호는 자기 집 뒤 산속에다 남모르게 아편 약 100평 가량을 밀경작하여 50양중을 타인에게 판매하려다가 인제서원에게 발각되어 방금 조선아편취체령 위반으로 취조를 받는 중인데 불일간 춘천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 같이 송치되리라고 한다.

**被審者 金明俊談**

【인제】 인제군 내면 방내리 최원호는 자기 집 뒤 산속에다 남모르게 아편 약 100평 가량을 밀경작하여 50양중을 타인에게 판매하려다가 인제서원에게 발각되어 방금 조선아편취체령 위반으로 취조를 받는 중인데 불일간 춘천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 같이 송치되리라고 한다.

**加審者 山林監守談**

【인제】 인제군 내면 방내리 최원호는 자기 집 뒤 산속에다 남모르게 아편 약 100평 가량을 밀경작하여 50양중을 타인에게 판매하려다가 인제서원에게 발각되어 방금 조선아편취체령 위반으로 취조를 받는 중인데 불일간 춘천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 같이 송치되리라고 한다.

**阿片密耕作者 麟蹄署서檢舉**

【麟蹄】 인제군 내면 방내리(麟蹄郡內面防內里) 최원호(崔元浩)는 자기 집 뒤 산속에다 남모르게 아편(阿片) 약 백평(百坪) 가량을 밀경작하여 50양중을 타인에게 판매하려다가 인제서원에게 발각되어 방금 조선아편취체령(朝鮮阿片取締令) 위반으로 취조를 받는 중인데 불일간 춘천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 같이 송치되리라고 한다.

**때 아닌 홍수로 交通杜絶**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25일부터 때 아닌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각 하천이 증수되어 어느 군을 불구하고 인접군은 전부 교통이 두절되어 우편물이 미착으로 일반은 임시 궁급중이어서 대곤란을 겪었다 하며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나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지 않으리라고 한다.

1937-10-05-07-09

### 동아일보

#### 인제 중심인물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시국 인식과 농촌진흥 지도교자 군내 중심인물을 소집하여 군회의실에서 강습을 시켰는데 강사는 군청 직원과 관내 농촌진흥위원들이라고 한다.

1937-10-05-07-11

### 동아일보

#### 방화선 잘못했다고 출역인부를 구타,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제기 인제 산림감수 행패

【인제】 국유산림의 방화선을 닦다가 출역인부와 산림감수 사이에 말썽이 되어 결국 난투극이 연출되어 피해자는 전치 1개월의 진단으로 당시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듣건대 지난 20일 인제삼림보호구에서 산화방지책으로 인제군 인제면 덕적리 국유산에 방화선을 닦으려고 보조하 산림감수 김복동(가명)을 현장에 출장 지도케하고 동민 부역으로 상하 2반에 나누어 시행한바 일방은 성적이 양호하고 일방은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십명의 군중을 대하여 좋지못한 언사를 하므로 동리 김명준(34)은 전기 산림감수에게 대하여 우리가 자유로 닦은 것도 아니요 당신의 감독 지도대로 닦은 것이며 또는 명일 다시 닦으라고 해도 복종할 터인데 그다지 좋지못한 언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하니 전기 산림감수는 무슨 말이냐고 하며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김명준과 난투극이 일어나서 전치 1개월의 치료를 요한 부상을 주었다는데 피해자 김명준은 지난 22일 당시 경찰서에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일반은 이 사건 진전 여하에 주목하고 있다 하며 관계자의 말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피해자 김명준 담

미안합니다. 더욱이 비상시에 이런 불미한 일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습시다만은 이일에 대하여는 저는 조금도 실수한 생각은 안납니다. 그런데 이런 변을 당하고 보니 운수만 한탄할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자 산림감수는 우리 자식과 동창생이랍니다. 그거 생각을 하면 더구나 분합니다. 운운

가해자 산림감수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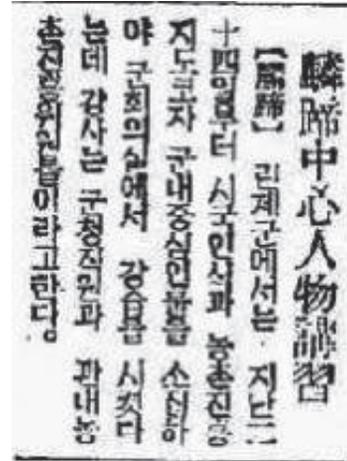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절대로 사사 사사감정은 없고 단지 술김에 공분으로 하고보니 미안해서 그 즉시 사과를 하였고 그다지 몹시 때린 일은 없습니다. 고소가 되었다니 어떻게나 끝이 있을 터이지요. 운운

1937-10-05-07-14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서 일본군[황군] 위문건 모집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금번 추기 공동판매를 이용하여 가산 건주로부터 5일씩을 모집하여 이 대가로 진면을 가서 일본군[황군]에게 위문한다고 방금 활동 중인데 벌써 현금 50여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1937-10-07-02-12

### 동아일보

#### 인제군에서 마랑을 준비

【인제】 인제군에서는 금번 중일전쟁에 대한 일본군(황군)의 고로를 위문코자 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서 산간인만치 천연생의 마초를 베어 그 것으로 위문코자 인제군수 전재우씨는 각면에 통첩하고 5만근 예정으로 준비케하였더니 방금 예정수량에 달하였다고 한다.

1937-10-07-06-10

### 동아일보

#### 조 다수확 품평회를 개최

【인제】 인제군에서는 조 다수확을 목표로 금년에 각갱생부락을 단위로 품평회를 개최키로 하고 예의적 지도를 가해왔는데 지난번에 도직원이 출장하여 심사를 행한것에 의하여 수확을 예상하면 작년에는 1반보에 대하여 1석3두박에 안되는 것이 금년은 반당 5석4두 가량의 놀랄만한 숫자를 보게되었다고 한다.

1937-10-08-06-12

### 동아일보

#### 보리밀 농사 확장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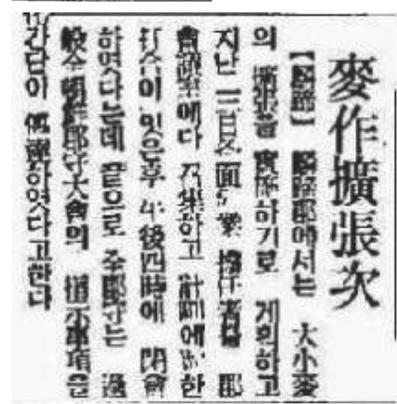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서는 보리 밀의 확장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3일 각면 산업 담임자를 군회의실에서 소집하고 계획에 대한 타합이 있던 후 오후 4시에 폐회하였는데 끝으로 전 군수는 과반 전조선군수대회의 지시사항을 간단히 연설하였다고 한다.

1937-10-14-03-02

### 매일신보

#### 전선군마에 호위문품 마랑 10만t 헌납, 군인과 같이 활약하는 그들 강원도국방의회에서

강원도국방의회연합회에서는 연전연승 파죽의 기세로 일본군(황군)의 위력을 충의에 떨치고 있는 장병의 활약에 감격하며 동시에 인마 일치로 포연탄우 속에서 용약치구하는 군마의 노고를 동정하여 동시에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제공하려고 인제 양구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 화천 양양 등 각국방의회 회원을 총동원시켜 마랑의 건조를 모으게 한 결과 10만kg에 달하였으므로 동연합 회장 김시권씨는 12일 제20사단 홍보부를 방문하고 헌납의 수속을 취하였다. 이 건조는 오는 15일 기차와 화물차에 실어서 헌납하리라 한다.



1937-10-14-04-04

매일신보

남편 방탕을 방지코자 허위강도를 신고 ◇헛물만 켜 인제서

【춘천】 지난 10일 오후 7시경 인제군 북면 원통리 24번지 이진하(60)의 집에 수건으로 머리를 두른 괴한이 침입하여 단도를 가지고 혼자 있는 그 집 며느리를 협박하고 현금 10원을 강탈해 갔다는 사건이 있어 급보를 받은 인제경찰서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혈안 수사를 한 결과 허위의 고발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다. 즉 이진하의 장남 근오(25)가 방탕한 생활을 하자 이를 염려한 그의 아내 박성녀(21)가 남편의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그 같이 허위고발을 한 것이라 한다.

1937-10-31-03-06

매일신보

현리와 내촌면간 등외도로 개통, 오지 산업개발에 기대

【춘천】 인제군 기린면은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산간오지로 교통이 지극히 불편한 관계로 문물의 혜택을 입지 못하여 일반 면민은 크게 유감으로 여겨오던 중 동면장 방범주씨의 불효불굴의 노력과 잠도 앓자고 쉬름도 없는 활동으로 1935년부터 협준한 도로 개척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 하게 되자 이에 감복한 일반 유지의 자발적 기여와 도로부터 난공사비의 보조를 얻게되어 무수히 많은 난관을 돌파하면서 밥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고 분투한 결과 얼마 전에 공사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인제면 현리와 흥천군 내촌면 도관리 간 36km의 등외도로는 드디어 개통하게 되어 지난 21일에 시운전을 행하였는데 이 도로를 완성함에 연인원이 실로 25,000명을 돌파하였다 하며 인제면은 총호수 2,900여호를 포용한 큰 세대로 유사 이래 천혜의 산물이 무진장으로 있어 목재 약초의 집산이 많을뿐 아니라 부산물로 양잠 봉밀 축우 등 이 대량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농산물로는 주로 콩과 팥 등이 가장 많이 산출되어 연산 2,000여석을 수출하는 상태라 하는데 동선에 자동차 정기운전이 실현되는 날에는 모든 부자유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인제 오지의 산업개발이 크게 기대되는데 이는 전혀 방면장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일이라 하여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한다.

1937-10-31-04-02

매일신보

흥천세무서 관내 주가를 일제 인상 음주당에 일대 타격

【흥천】 흥천세무서에서는 관하 흥천 인제 양군에 주가 인상을 단행하여 약주는 매 두에 50전, 탁주는 매두 20전씩 인상되어 각 음식점 영업자들이 따라서 소매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비난하며 공황 중으로 근일에 음주량이 격감하였다 한다.

男 放蕩을防止코자 虛偽強盜를申告 〇헛물만 켜 隣蹄署

縣里와乃村面間 等外道路開通 輿地産業開發에期待

洪川稅務署管内 酒價를一齊引上 飲酒黨에一大打擊

1937-11-01-04-06

### 동아일보

#### 인제농진위원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26일 오후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군농촌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7일부터 앞으로 1주일간 정신작흥주간에 대하여 타합이 있었는데 이로 인연하여 각 위원들이 전부가 갱생부락에 출장하여 철저히 지도를 하는 동시에 작흥주간에 실행사항은 전부 실시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1937-11-05-03-11

### 매일신보

#### 홍천축구대회 성황

【홍천】 홍천체육협회 주최 재흥 각 신문지국 후원 하에 제3회 전조선축구대회는 예정과 여히 지난 31일 오전10시부터 개시되어 참가팀 다수로 자못 성황리에 결승전은 춘천과 인제가 열전 끝에 2대 0으로 춘천군 우승하였다 한다.

1937-11-09-08-05

### 동아일보

#### 인제서 다년의 현안 경비전화망 실현

【인제】 다년간 현안 중에 있어 군민이 갈망하는 인제경찰서 관내 기린주재소와 상남주재소에 대한 경비전화는 도경찰부의 인가를 얻어 시급 실현하리라는 데 덕구 서장 신임 이래로 중요간부들의 활동과 해당 면민들의 열렬한 후원으로 총공비 2천원을 얻게되어 방금 설치 측량중인데 오는 12월경에는 완성되어 오지의 뉴스도 즉각으로 들을수가 있으리라고 한다.

1937-11-09-08-10

### 동아일보

#### 소작인 지주 협화로 소작쟁의 근절, 소작 계약 만기나 조정 신청 전무 인제지방 농촌 명량화

【인제】 인제군은 130방리나 되는 큰 군이나 반수가 산악이요 농경지는 불과 얼마되지않는 관계로 1만9천여호 인구들은 경지 문제로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그칠 날이 없이 소작쟁의가 매일같이 군소작위원회에 애원장이 쇄도하여 소작위원들의 골치를 앓게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발생되는 쟁의를 미연에 방지코자 소작위원회서는 갖은 방법으로 방지책을 연구노력하여 지주 소작인들을 상시 소집하고 친화를 주로 지도해와 금년은 농지령에 의한 소작계약이 만기되는 해요 또 소작 갱신통지가 넘어가도 한건의 조정신청이 없게 되었다. 당국의 기쁨은 물론이요 인제군 각지방에 산재해있는 1만여호 소작농가에서는 우울상을 해결하고 금후 3년 동안은 명량한 기색에 잠겨있으리라고 한다.



1937-11-10-08-11

### 동아일보

#### 면민의 열망이던 서화 장승보교 인가

【인제】 인제군 서화면은 면적 27방리에 2,181호에 대한 인구 1만 2,229명으로 학령 아동이 1만6,000여명이 되는 면으로 학교수를 보면 면 소재지 되는 서화리에 공립보통학교 하나 외 소재지서 8리나 되는 이포리에 간이학교가 하나 있을 뿐으로 겨우 지내왔으나 점점 해를 쫓아 올라오는 학령아동의 처치 방법이 곤란하여 면민은 다년 보통학교 증설을 진정해오더니 다행히 지난 20일 당국의 인가를 얻어 목하 개교 준비 중이리는데 초임 교장은 서화공보교 소천 교장과 김준배 교사라고 한다.

1937-11-12-04-01

### 동아일보

#### 인제군 콩 공판 1천여석 출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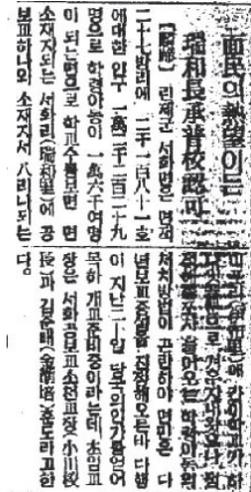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농회에서 콩을 매년 적극장려한 결과 양호한 재배 실적을 하고 있는 중 금년도 작년과 동일해 오는 11월 9일부터 기린, 남, 북 3개면 시장에서 매2일마다 공동판매를 행하리리는데 금반은 원년인 만치 작년 500석에 비하여 2배 1,000여석은 무난히 수탁하리라 생각하고 목하 군농회에서는 공동 판매입찰 정비에 분망중이리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입찰 상인이 증가되어 춘천 흥천 울진 서울 인천 원산 고성 등지에서 입찰예정자가 쇄도중이라 한다.

1937-11-15-04-01

### 동아일보

#### 지방논단 인제공회당을 이축하라, 인제제국 일기자

인근 문화의 향상과 민도의 진양에 따라 소위 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소도시에도 있어서도 공중의 회합장소로 공회당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듣고 보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제만은 이름하여 공회당의 건립이 있다고 하나 그 건평이 심히 협소하여 100명이상의 인원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제반 시설이 불완전하여 설비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작년 수해로 인하여 시장을 이전한 관계로 거리가 멀게되어 무슨 회합이든지 있을 때에는 사람이 오는 것이 늦는 일이 많게 되어 이용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공립보통학교의 강당과 경찰서 강무장을 이용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이는 시간의 관계와 사정여하에 따라 학교와 경찰서에서 대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회합에 있어서는 관련기관의 폐해도 적지 않고 유관기관의 고충도 없지 않아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실에 의해 서로간의 불화의 일이 없지 않다. 우리 인제는 우수한 도시라고는 칭하기 어려우나 현재 기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또 간제선이 가까운 시간에 개통되면 동해안의 내방객과 해수욕객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경춘선 도로 개통에 따라 제반시설이 확장되어 약진적으로 발전할 기분이 충만하니 장래 민중의 휴식과 이해를 여론에 물어



야 할 것도 많을 것이요 도시의 발전과 생활의 개량 등 여러 가지 수효문제를 일반의 의향에 물을 것도 많을 것이며 사상의 전개와 지식의 증가 등 각종의 집회를 하게 될 기회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집회소의 완전한 설비가 진실로 현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들는 바에 의하면 이미 건축된 건물은 건축당시에 인제면사무소 소재로 하고 면에서 수리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는데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증도에 와서 번영회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 번영회 소유는 좋다 그러나 필지는 한두명의 개인 공동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불행한 과정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만일 개인간 대차 문제로 발생하는 소송이라도 있을 때에는 그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의 여론이 지금 인제사회에서 떠돌고 있다고 한다. 모름지기 인제의 유지 일동은 이에 깨달음이 있어 공회당의 이전 개축을 시급히 도모하는 동시에 그의 부대설비와 옮기는 방법과 소유권 개정에 충분한 연구를 행하여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937-11-16-04-05

**매일신보**

**결핵예방선전 인제서에서 활동**

【인제】 금번 국민정신작흥주간 제6일인 건강증진일을 중심으로 하여 11월 11일부터 3일간을 결핵예방데일로 하고 좌기와 같이 예방선전을 철저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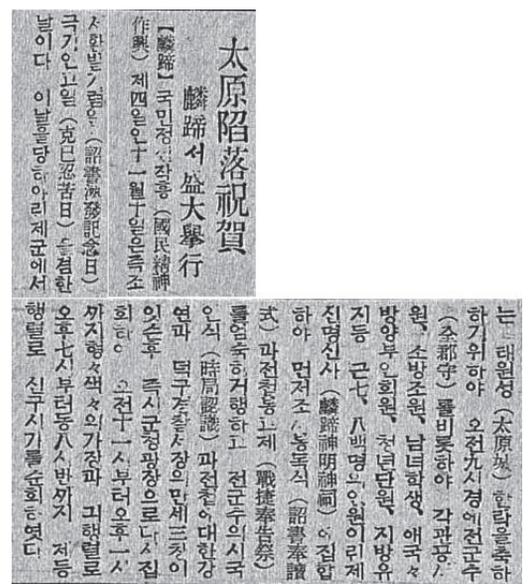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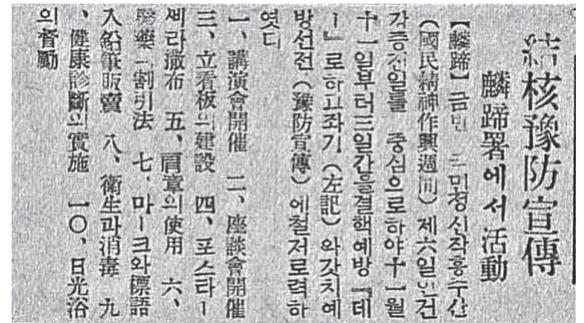
1. 강연회 개최 2. 좌담회 개최 3. 입간판의 건설 4. 포스타 전단 살포 5. 건장의 사용 6. 의약 할인법 7. 마크와 표어 든 연필 판매 8. 위생과 소독 9. 건강진단의 실시 10. 일광욕의 독려

1937-11-16-04-05

**매일신보**

**태원 합락 축하 인제서 성대 거행**

【인제】 국민정신 작흥 제4일인 11월 10일은 즉 조서활발기념일 극기인고일을 겸한 날이다. 이날을 당하여 인제군에서는 태원성 합락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전9시경에 전 군수를 비롯하여 각관공서원, 소방조원, 남녀학생, 애국 국방 양부인회원, 청년단원, 지방유지 등 근 700, 800명의 인원이 인제 신명신사에 집합하여 먼저 조서봉독식과 전첩봉고제를 엄숙히 거행하고 전 군수의 인식과 전첩에 대한 강연과 덕구 경찰서장의 만세삼창이 있는 후 즉시 군청광장으로 다시 집회하여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형형색색의 가장과 기행렬로 오후7시부터 동8시반까지 제등행렬로 신구 시가를 순회하였다.



1937-11-16-08-09

### 동아일보

#### 서석 창촌간의 등외로 불원 개통

【인제】 인제군 내면 창촌리와 흥천군 서석면 사이의 등외도로는 1934년부터 계획하여 오더니 그간 흥천군 서석면장 박승학씨와 인제군 내면장 전석범씨는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하여 급진적으로 흥천의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바 불일내로 공사를 완성케 되어 오는 12월경에는 자동차 시운전을 하리라고 하는데 일반은 이 도로 개통에 따라 오지 먼내에 잠겨있던 무진장의 임산물과 콩 소 등도 타지방으로 다량 수출을 보리라고 하여 지방 발전과 산업 개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37-11-16-08-11

### 동아일보

#### 인제 채소 풍작 세국민의 경제완화

【인제】 인제군에는 예년에 보지 못하는 소채의 풍년으로 한 포기 에 1전, 무 한섬에 40전씩으로 매매되었다 하며 지금은 더 사게 하여 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 중이라고 하는데 일반 세국민들은 이로 인하여 겨울 김장준비에 다소 경제의 완화가 있었다고 한다.

1937-11-18-08-11

### 동아일보

#### 인제 결핵 예방선전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동 14일까지를 결핵예방 선전일로 정하고 각관공서원 기타 일반유지를 망라하여 자동차로 선전전단을 산포한 후 오후3시부터는 연무장에서 당지 공의 문광모 씨의 전문적 위생 강연이 있었다 한다.

1937-11-19-03-09

### 매일신보

#### 흥천 교통량 격증 각선 자동차를 증발

【흥천】 흥천군은 근래에 비약적 발전 상태에 있어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중 읍내를 기점으로 서석면 32천km 등의 도로에도 승객차 개통이 금년 1월 중에 시작되어 각선에는 매일 만원을 이루어 여행객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일 중 각각 매일 2회로 증발을 하며 따라서 종래 임금이 4km(1리)에 20전이었던 것을 18전으로 인하하였는데 흥천 인제도 같은 모양으로 인하하였다 한다.

瑞石蒼林間의 等外路不遠開通  
【龍巖】 龍巖군내면창촌리와인제군 서석면사이의 등외도로는 소 화九回부터 계획하여오던바 그간 흥천군내면장전석범씨와인제군내면장 박승학씨간의 노력으로 급진적으로 개통하여오는 12월경에는 자동차시운전을 하리라고 하는데 일반은 이 도로 개통에 따라 오지 먼내에 잠겨있던 무진장의 임산물과 콩 소 등도 타지방으로 다량 수출을 보리라고 하여 지방 발전과 산업 개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麟蹄蔬菜豐作으로 細窮民의經濟緩和  
【麟蹄】 麟蹄군에는 예년에 보지 못하는 소채의 풍년으로 한 포기 에 1전, 무 한섬에 40전씩으로 매매되었다 하며 지금은 더 사게 하여 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 중이라고 하는데 일반 세국민들은 이로 인하여 겨울 김장준비에 다소 경제의 완화가 있었다고 한다.

개통에따라 오지내면 창촌리와 무진장의 임산물과 콩 소 등도 타지방으로 다량 수출을 보리라고 하여 지방 발전과 산업 개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麟蹄結核豫防宣傳  
【麟蹄】 麟蹄경찰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동 14일까지를 결핵예방선전일로 정하고 각관공서원 기타 일반유지를 망라하여 자동차로 선전전단을 산포한 후 오후 3시부터는 연무장에서 당지 공의 문광모 씨의 전문적 위생 강연이 있었다 한다.

洪川交通量激增  
谷津自動車를增發  
【洪川】 洪川郡은 近來에 비약적 발전 상태에 있어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중 읍내를 기점으로 서석면 32천km 등의 도로에도 승객차 개통이 금년 1월 중에 시작되어 각선에는 매일 만원을 이루어 여행객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일 중 각각 매일 2회로 증발을 하며 따라서 종래 임금이 4km(1리)에 20전이었던 것을 18전으로 인하하였는데 흥천 인제도 같은 모양으로 인하하였다 한다.

1937-11-21-06-07

### 동아일보

#### 인제군 면화공판 1만근 출회 전년보다 배증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작년부터 각 부락에 면화 재배를 장려하고 공동판매를 시행해 오더니 작년은 미증유의 수해로 약 50% 이상 감을 보았으나 금년은 대풍작을 예기하여 지난 10월부터 공동판매를 시작하여 지난 10일까지 취급한 것이 6,000근 이상에 달하였다. 전년에 비하여 배 이상 증가일뿐 아니라 오는 12월 20일까지 취급한다면 예정수량 1만근은 무난히 돌파하리라고 한다. 더욱이 금년 공판은 일반 당래자의 이중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군농회에서는 서울 방적회사와 특약을 하고 광목 80여필을 저가로 구입하여 면화와 교환한다는데 방금 물가 고등한 때이므로 농가를 위하여 이상적 공판이라고 한다.

1937-11-22-04-04

### 동아일보

#### 인제 시국 강연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제공립보통학교에서 도내 황성공립보통학교장 산본성지씨의 시국 강연이 있었다는데 산본씨는 과반 직접으로 일본군[황군]을 위문코자 북중국 전쟁 현장에 가서 분투의 자취를 시찰하고 온 관계로 청강자들의 의식을 굳게 인식케 되었다고 하며 당일의 학생까지 300, 400명의 청강자가 있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1937-11-22-04-07

### 동아일보

#### 인제 색의 장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생활개선의 제일책으로 수년 이래 색복을 장려하여 적지 않은 실적을 획득하여 왔으므로 금년도 역시 동북 착용기를 이용하여 철저히 장려코자 각 관공서 정문에는 간판을 세우고 시일마다 관공서원이 연락 협조하여 선전 「빠라」를 배포하는 동시에 색복의 유리함을 감화하여 일반민중이 생활상 유리한 자각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데 지금은 백의를 착용한 자가 극히 희소하다고 한다.

1937-11-22-04-08

### 동아일보

#### 두견화 만개!

【인제】 인제지방은 기후가 요사이 따뜻해서 봄날 같다는데 군내 각지에는 때아닌 초목화가 만발되고 벼 뽕 뜰에 다시 벼 이삭이 돌아 논바닥은 어디를 물론하고 5, 6월이 다시 온듯한 감이 있다고 하며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겨울 김장이 부패치나 않을까 해서 일반은 우울상태에 있다고 한다.

**麟蹄郡棉花共販**  
一萬斤出廻

【麟蹄】 麟蹄郡棉花共販會에서는 前年보다倍増の成績を上げた。昨年は米害の影響で約五割減を記録したが、今年は大豊作を記録し、前年より倍増の成績を上げた。これは、本郡の棉花生産が、前年より倍増したためである。本郡の棉花生産は、前年より倍増したためである。本郡の棉花生産は、前年より倍増したためである。

**麟蹄時局講演**

【麟蹄】 麟蹄郡에서는 昨日(十八日) 午前 10 時より 午後 1 時 까지 麟蹄公립보통학교에서 山本성지씨의 시국 강연이 있었다. 山本씨는 北中國의 戰況을 시찰하고 온 관계로 청강자들의 의식을 굳게 인식케 되었다고 하며 당일의 학생까지 300, 400명의 청강자가 있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麟蹄色衣獎勵**

【麟蹄】 麟蹄郡에서는 生活개선의 제일책으로 수년 이래 색복을 장려하여 적지 않은 실적을 획득하여 왔으므로 금년도 역시 동북 착용기를 이용하여 철저히 장려코자 각 관공서 정문에는 간판을 세우고 시일마다 관공서원이 연락 협조하여 선전 「빠라」를 배포하는 동시에 색복의 유리함을 감화하여 일반민중이 생활상 유리한 자각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데 지금은 백의를 착용한 자가 극히 희소하다고 한다.

**杜鵑花 滿開!**

【麟蹄】 麟蹄지방은 기후가 요사이 따뜻해서 봄날 같다는데 군내 각지에는 때아닌 초목화가 만발되고 벼 뽕 뜰에 다시 벼 이삭이 돌아 논바닥은 어디를 물론하고 5, 6월이 다시 온듯한 감이 있다고 하며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겨울 김장이 부패치나 않을까 해서 일반은 우울상태에 있다고 한다.



1937-12-03-08-06

### 동아일보

#### 인제에 소작쟁의

【인제】 인제군 북면 월악리 이문백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인제군 인제면 합강리 이세규에게 소작을 시켜오던 중 금년은 소작료를 올려야 하겠다는 이유로 소작권을 인상하였으므로 전기 이세규는 할 수 없이 군소작위원회에다 신고를 하고 그 처치를 기다린다고 한다.

1937-12-03-08-12

### 동아일보

#### 통행인계 무단 폭행

【인제】 인제군 남전리에 본적을 둔 최진동은 지난26일 인제군 원대리를 갔다오는 도중 동리 안길락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디 사느냐고 붙들고 힐난을 하다가 결국은 난투극을 일으켜 전치 2주일의 진단으로 인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1937-12-11-08-12

### 동아일보

#### 근고

임 기자 원용진

1937년 12월 1일부 동아일보사 인제지국

1937-12-10-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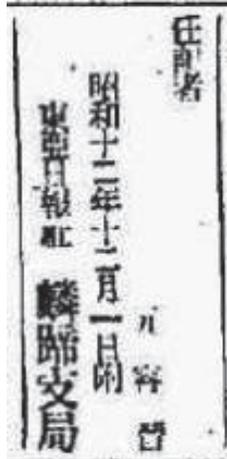
### 동아일보

#### 농한기 이용하여 농촌문맹퇴치 강원도당국서 활동

【춘천】 배우고자하나 배울 곳 없어 부득이 문맹을 면치 못하는 현 하 조선의 현상인데 당국으로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반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중인데 현재 강원도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보면 학령아동 202,000명 중 47,000명이 취학을 하니 그 취학률은 겨우 24%에 불과하여 도당국에서는 당면에 미취학의 아동과 성년 문맹을 구제하기 위하여 강원도 방방곡곡에 동기 단기 야학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중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만3개월간씩 개최되었는데 그 수가 356개소 수강자수가 12,425명에 달하여 일반은 그 소득이 적지 않으리라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장소수	수강생
춘천	12	589
인제	13	369

(중략)



### 農閑期利用하여 農村文盲退治

#### 江原道當局서活動

【춘천】 배우고자하나 배울 곳 없어 부득이 문맹을 면치 못하는 현 하 조선의 현상인데 당국으로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반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중인데 현재 강원도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보면 학령아동 202,000명 중 47,000명이 취학을 하니 그 취학률은 겨우 24%에 불과하여 도당국에서는 당면에 미취학의 아동과 성년 문맹을 구제하기 위하여 강원도 방방곡곡에 동기 단기 야학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중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만3개월간씩 개최되었는데 그 수가 356개소 수강자수가 12,425명에 달하여 일반은 그 소득이 적지 않으리라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군	장소수	수강생
원주	12	589
인제	13	369
정선	14	450
홍천	15	500
횡성	16	550
영월	17	600
철원	18	650
강릉	19	700
동해	20	750
속초	21	800
고성	22	850
태백	23	900
강령	24	950
진천	25	1000
영양	26	1050
철원	27	1100
강릉	28	1150
동해	29	1200
속초	30	1250
고성	31	1300
태백	32	1350
강령	33	1400
진천	34	1450
영양	35	1500
철원	36	1550
강릉	37	1600
동해	38	1650
속초	39	1700
고성	40	1750
태백	41	1800
강령	42	1850
진천	43	1900
영양	44	1950
철원	45	2000
강릉	46	2050
동해	47	2100
속초	48	2150
고성	49	2200
태백	50	2250
강령	51	2300
진천	52	2350
영양	53	2400
철원	54	2450
강릉	55	2500
동해	56	2550
속초	57	2600
고성	58	2650
태백	59	2700
강령	60	2750
진천	61	2800
영양	62	2850
철원	63	2900
강릉	64	2950
동해	65	3000
속초	66	3050
고성	67	3100
태백	68	3150
강령	69	3200
진천	70	3250
영양	71	3300
철원	72	3350
강릉	73	3400
동해	74	3450
속초	75	3500
고성	76	3550
태백	77	3600
강령	78	3650
진천	79	3700
영양	80	3750
철원	81	3800
강릉	82	3850
동해	83	3900
속초	84	3950
고성	85	4000
태백	86	4050
강령	87	4100
진천	88	4150
영양	89	4200
철원	90	4250
강릉	91	4300
동해	92	4350
속초	93	4400
고성	94	4450
태백	95	4500
강령	96	4550
진천	97	4600
영양	98	4650
철원	99	4700
강릉	100	4750

1937-12-16-04-05

### 매일신보

#### 남경 함락 축하식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2일 오전10시 군민 1천여명이 인제신사에 집합하여 전승봉고제를 거행하고 인하여 형형색색의 가장으로써 주간에는 기행렬 야간에는 제등행렬을 행하였다.

1937-12-19-03-04

### 매일신보

#### 신임 인제군수 김학수씨 부임 관민 환영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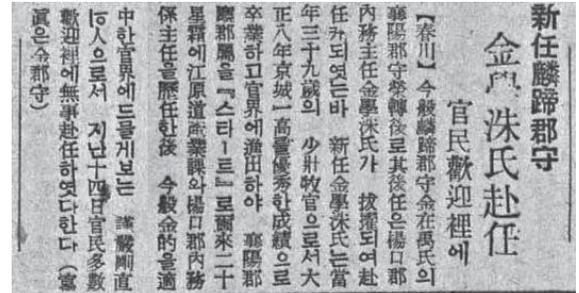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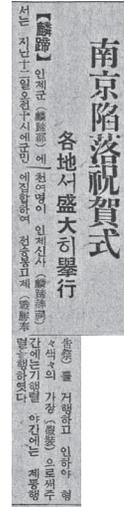
【인제】 금반 인제군수 전재우씨의 양양군수 영전 후로 그후임은 양구군내무주임 김학수씨가 발탁되어 부임케 되었는데 신임 김학수씨는 당년 39세의 소장목관으로서 1919년 서울일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관계에 진출하여 양양군청 군속을 스타트로 이래 20성상에 강원도 산업과와 양구군 내무계 주임을 역임한 후 금반 금직을 적중한 관계에 드물게 보는 근엄장직의 인으로서 지난 14일 관민 다수 환영리에 무사 부임하였다 한다.

1938-01-12-06-07

### 동아일보

#### 홍천군 중심으로 자동차도로 수리 중

지방발전은 교통발달에 수반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거니와 홍천군의 발전상은 근래 비약적 전개를 보하며 작년 중 내촌 서석 2개면에 자동차개통을 위시로 금년 신춘에는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대간선 산업도로 개발에 관계된 각면에서는 면민을 총동원시켜 개수에 착수했는데 화촌 서석면 경유하는 양양선과 다시 평창군을 거치며 강릉군에 이르는 선으로 완성 익일에는 해산물 집산과 서울방면에 수출입되는 물화운반이 전부 홍천군을 경유할 것으로 지방발전은 막론하고 상계 융성을 따라 경제 부조에 신기축을 세울 것으로 군민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강릉선에는 현금 인제군 내면까지 자동차가 개통하고 있어 서석면 당국에서는 급속 실현코자 근제인 이현까지 16km를 면민 총동원으로 수축중 완성도 재이하였으며 조상에 양양선 수축도 노력 중으로 공비 보조를 신청중 화촌면에서도 호응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여객수송영업자들은 선로인가를 쟁탈하고 있다 하며 경춘철도 여객부 홍천영업소에서는 내촌면 경유 인제면 현리까지에 등외도로가 완성하여 시운전 결과 호적으로 개통을 보리라 한다.



1938-01-14-08-02

### 동아일보

#### 술김에 음독코 해매던 남녀 입원 치료중

【인제】 인제군 북면동 통시잠에 사는 김옥순 외 두사람은 정초날 이에 술들이 취하여 대수롭지 않은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생을 비 통히 생각한 이들은 다 서로 모르게 양젓물을 먹고 고민함을 이웃 사람들이 발각하여 당지 인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위험이 없다고 하며 음독한 세남녀는 술이 깬 후 음독을 후회하고 살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1938-01-14-08-09

### 동아일보

#### 인제! 시내전화! 가설준비 완료

【인제】 인제군읍내 유지들은 항상 시내전화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해오더니 금번 신년연회를 기회로 금년에는 시내 전화를 가설키로 약속하고 방금 신입을 모집 중인데 신입이 끝나면 불원간 체신당국에 인가신청을 제출하리라고 한다.

1938-01-15-08-10

### 동아일보

#### 도의원 김씨 사임

【인제】 인제군 도의원 김영제씨는 금번 사정에 의하여 지난 10일부로 사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후보에 대한 보결선거가 곧 있을 모양으로 추기되면 선거기일 공시가 있다면 입후보자에게 제출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입후보를 준비하는 분들과 일반 군민들은 하루라도 군민대표가 결원이 되지 않기를 고대하는 동시에 불원간 열릴 도회의에 인제군서도 참석하도록 시급히 보결선거 공시가 있기를 고대중이라고 한다.

1938-01-15-08-10

### 동아일보

#### 인제유지들이 절약하여 헌납

【인제】 인제군 기린면 유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명함교환회를 1면당 회비 50전으로 개최하던 것을 금년은 특별히 25전으로 절약하여 면장 방법규씨의 42명에 대한 절약금 2원60전을 황금위문금으로 헌납하였다.

1. 기린면과 내면에서는 매년 신년을 맞이하면 다 각각 도소주를 준비해두었다가 집집이 순회 음주하던 것을 금년은 충정한 일본군향군을 생각한 나머지 절약하기로 하고 기린면에서는 면장 방법규씨, 교장, 보호구주임, 금융조합 이사, 의생, 주재소 구아 수석이 합동하여 1인당 40%씩 30원 내면서는 교장 김리원씨 산하 좌야 등 약 (판

### 술김에 음독코 해매던 남녀 입원 치료중

【인제】 인제군 북면동 통시잠에 사는 김옥순 외 두사람은 정초날 이에 술들이 취하여 대수롭지 않은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생을 비 통히 생각한 이들은 다 서로 모르게 양젓물을 먹고 고민함을 이웃 사람들이 발각하여 당지 인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위험이 없다고 하며 음독한 세남녀는 술이 깬 후 음독을 후회하고 살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 麟蹄! 市内電話! 架設準備完了

【麟蹄】 인제군읍내 유지들은 항상 시내전화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해오더니 금번 신년연회를 기회로 금년에는 시내 전화를 가설키로 약속하고 방금 신입을 모집 중인데 신입이 끝나면 불원간 체신당국에 인가신청을 제출하리라고 한다.

### 김영제 사임

【인제】 인제군 도의원 김영제씨는 금번 사정에 의하여 지난 10일부로 사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후보에 대한 보결선거가 곧 있을 모양으로 추기되면 선거기일 공시가 있다면 입후보자에게 제출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입후보를 준비하는 분들과 일반 군민들은 하루라도 군민대표가 결원이 되지 않기를 고대하는 동시에 불원간 열릴 도회의에 인제군서도 참석하도록 시급히 보결선거 공시가 있기를 고대중이라고 한다.

### 節約하여 獻納

【인제】 인제군 기린면 유지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명함교환회를 1면당 회비 50전으로 개최하던 것을 금년은 특별히 25전으로 절약하여 면장 방법규씨의 42명에 대한 절약금 2원60전을 황금위문금으로 헌납하였다.

1. 기린면과 내면에서는 매년 신년을 맞이하면 다 각각 도소주를 준비해두었다가 집집이 순회 음주하던 것을 금년은 충정한 일본군향군을 생각한 나머지 절약하기로 하고 기린면에서는 면장 방법규씨, 교장, 보호구주임, 금융조합 이사, 의생, 주재소 구아 수석이 합동하여 1인당 40%씩 30원 내면서는 교장 김리원씨 산하 좌야 등 약 (판

독불능) 20원을 일본군(황군) 위문금으로 헌납하였다고

1. 인제군을 소학교 생도 6명은 그 추운데를 불구하고 이들이 읍내 각가정을 방문하고 헌신문지를 얻어다가 팔아서 1원55전을 국방헌금으로 했다고 한다

인제군 남면 관대리 청년 김영문, 함춘화, 김봉업, 김덕준, 최강섭, 한명화 6인은 빈한한 살림을 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매월 15전씩을 거두어서 10개월 한하고 일본군(황군)위문금을 하자고 하고 벌써 (판독불능)

1938-01-18-08-09

**동아일보**

**3세 여아 소사 아궁이에서 불피다 인제군 원통리의 참화**

【춘천】 인제군 북면 원통리 장춘삼의 딸 간난(3)은 지난 11일 불에 타서 비참히 즉사하였는데 그 자세한 말을 듣건대 자기 어머니가 밥하는데 따라가서 놀다가 어머니가 물 길러 간 사이 불을 쪼이려다가 옷에 불이 붙어서 그 같이 비참한 죽음을 하였다고 한다.

1938-01-19-08-12

**동아일보**

**인제군농회 면 공판 호적**

【춘천】 인제군농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면화공판을 개시하였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예정 근수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현재 공판된 수량이 2,000여근에 달하였는데 장려 초년도 구역으로 성적이 우량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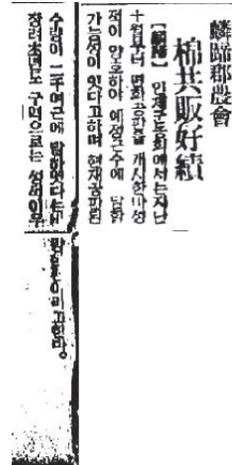
1938-01-25-03-05

**매일신보**

**400여부락 1만2천호 갱생부락으로 설정 강원도에서 제6차 계획으로 1938년도부터 실시**

【춘천】 강원도에서는 본부 방침에 의거하여 피폐해가는 농촌의 갱생을 주안으로 지난 1933년부터 5개년(1935년도 10개년 확충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갱생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여왔는데 5개년 계획은 본년도로서 실행기한이 만료되므로 이들 갱생 부락에 대하여는 관변의 개별적 지도로부터 부락민의 자조 공력에 이행케 할 취지하에 「부락시」를 설정케 하는 등 자치적 정신을 조장하여 전락을 방지하기로 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이에 제6차 갱생계획 즉 1938년도 농가갱생지도부락 계획도 수립을 보게 되어 각군 모두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수립된 강원도의 제6차 갱생계획을 보면 467부락에 1만2,121호로 각 군별 계획을 보면 좌와 같다.

군명	갱생계획부락수(부락)	갱생계획수립예정농가호수(호)
춘천	32	838
인제	15	373
양구	15	389



군명	갱생계획부락수(부락)	갱생계획수립예정농가호수(호)
회양	21	580
통천	15	373
고성	15	399
양양	23	488
강릉	25	708
삼척	23	658
울진	116	560
정선	21	591
평창	26	755
영월	22	567
원주	30	741
횡성	21	537
홍천	31	726
화천	12	314
김화	32	646
철원	25	634
평강	14	408
이천	24	639
계	467	3,121

1938-01-27-03-08

**매일신보**

**작업 수입을 현금한 인제간이교생에 남중국의 일본군 [황군]이 감사장**

강원도 인제군 광원간이학교 이동 일동은 중일전쟁 이래 가냘픈 어린 몸으로 스스로 노동을 하여 현금을 하였다고 지난 9월 6일의 애국일에는 위문에다 일장기 3장과 위문문을 넣어서 북중국 전선에서 활약하는 일본군[황군]에게 보내었었는데 요즈음 전기 간이교 아동들에게 군사우편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중에는 감격에 넘치는 편지 한 장과 아동들이 보냈던 일장기 3매 중의 1매를 도로 넣어보냈다. 편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보내준 위문대를 받고서 적병의 목을 베었을 때 보다 더 기뻐하였습니다. 보내준 일장기는 적의 진지를 점령할 때마다 총 끝에 꽂아가지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기한 장은 도로 보내니 우리가 승전하고 돌아가거든 이를 가지고 맞아주시오

광원간이학교에서는 이 명예스러운 기의 게양식을 거행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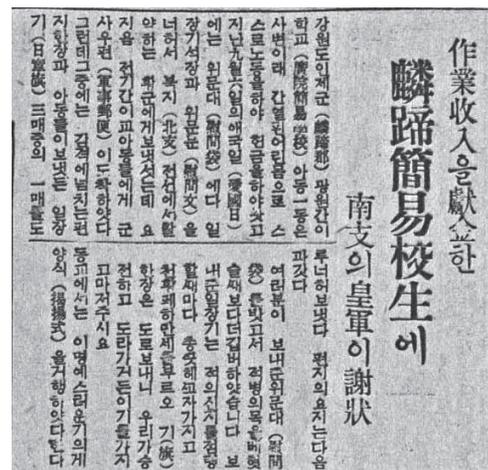
1938-01-28-03-01

**매일신보**

**기원가절을 복하여 우량 납세자 표창 강원 각군에서 전달식**

【춘천】 강원도에서는 예년에 의하여 오는 2월11일 기원절의 가일을 복하여 관하 각군의 납세성적이 우량한 면, 단체, 독행자를 표창하기로 되었는데 영예의 표창자는 다음과 같으며 2월 11일 각군에서 전달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인제군 발취

2. 단체 - 인제군 남면 신당리 사치동납세조합



1938-01-28-03-07

매일신보

강원도의 미작실수 134만여석 전년 비해 40만석 증수

【춘천】 강원도의 1937년쌀 실수확고를 도 농무과로부터 조사해보면 작부면적 8만4,247정보9반에 수확고가 134만3,876석으로 전년에 비하여 면적에 있어 1,650정보가 증가이며 수확고에 있어 40만8,952석 증수라는데 각 군별 작부반별 및 실수확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37년 쌀 실수확고

군명	작부반별(정)	수확고
춘천	4,333.9	63,209
인제	2,386.8	33,617
양구	2,420.7	36,151
회양	2,463.6	30,091
통천	5,758.3	95,256
고성	4,216.4	64,972
양양	5,026.4	75,776
강릉	6,852.2	30,753
삼척	2,357.2	30,753
울진	4,148.2	73,208
정선	851.0	20,888
평창	2,427.7	42,588
영월	1,726.2	33,723
원주	6,402.8	102,064
횡성	4,948.8	82,290
홍천	5,283.2	76,778
화천	1,760.3	29,706
철원	11,764.7	199,954
김화	3,923.8	68,579
평강	3,088.0	46,500
이천	2,107.2	32,715
계	84,247.9	1,343,876

1938-01-30-03-04

매일신보

고성, 인제의 도의원 보결선거 2월 8일과 17일에

【춘천】 강원도회의원 선거전은 지난해 5월 10일로서 막을 닫히게 된 후 인제 고성 철원 삼척 외 1개군에 위반사건이 있었는데 고성은 오는 2월 8일에 인제는 2월 17일에 각기 선거를 집행하리라 한다.

### 江原道の米作實收

## 一百卅四萬餘石

### 比前四十萬石增收

【春川】江原道の昭和十二年米實收... 比前四十萬石增收... 高城 鐵原 三陟外一個郡에 違反事件이 있엇는데 高城은來二月八日... 鐵原는三月十七日... 其選舉를執行하리라한다.

高城	三三、三、三	鐵原	三三、三、三	三陟	三三、三、三	外一個郡	三三、三、三
高城	三三、三、三	鐵原	三三、三、三	三陟	三三、三、三	外一個郡	三三、三、三

### 高城、麟蹄의

## 道議員補缺選舉

### 二月八日과十七日에

【春川】江原道會議員選舉... 高城은來二月八日... 麟蹄는三月十七日... 其選舉를執行하리라한다.



1938-02-05-03-06

### 매일신보

#### 강원도의 지원병, 2일 현재 82명의 다수

【춘천】 지원병 제도가 실시된다는 발표를 보게되자 강원도에서는 황국청년의 일원으로서 갈망의 시기는 도래하였다는 듯이 조수같이 지망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2일 현재 도 경찰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벌써 82명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1명의 지망도 없는 곳이 인제, 평창, 평강 3개군이라 하며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15 ▲양구 4 ▲회양 1 ▲통천 8 ▲고성 4 ▲양양 9 ▲강릉 3
- ▲삼척 2 ▲울진 1 ▲정선 1 ▲영월 4 ▲원주 11 ▲횡성 2 ▲홍천 2
- ▲화천 2 ▲김화 7 ▲철원 5 ▲합계 82명

1938-02-06-03-05

### 매일신보

#### 인제군민 적성

【인제】 강원도 인제군민들은 신년 비용을 절약하여 가지고 일본군향군에게 위문하여 달라고 인제군경찰서에 헌금한 자가 다수 있었다.

1938-02-06-03-08

### 매일신보

#### 강원호 애국기에 10원 이상 헌금 1,900여명

【춘천】 160만 도민의 적성의 결정인 애국기 강원도호의 헌납은 작년 9월 이래 헌금을 취급이었는데 예상외의 호성적으로 예정액인 11만원을 돌파하여 육해군 각 1기씩을 헌납하였는데 헌금총액이 130,581원13전에 달하였는데 도지방과로부터 금액별 헌금액을 조산 데 의하면 10원 이상 헌금자가 강릉 205명을 필두로 1,957명이란 다수에 달하여 도민의 적성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10원 이상 헌금자를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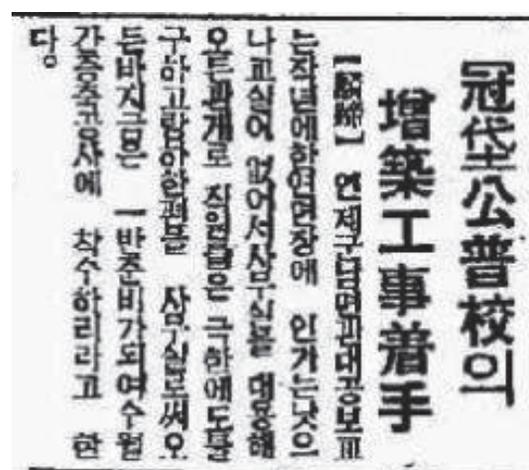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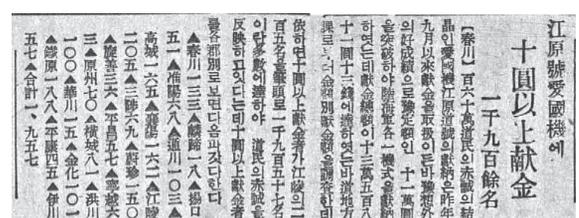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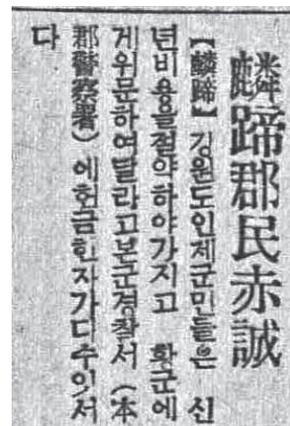
- ▲춘천 133 ▲인제 18 (중략)

1938-02-06-08-04

### 동아일보

#### 관대공보교의 증축공사 착수

【인제】 인제군 남면 관대공보교는 작년에 학년 연장에 인가는 낫으나 교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대용해오던 관계로 직원들은 극한에도 불구하고 방 한칸을 사무실로 써오다가 지금은 일반 준비가 되어 수월간 증축공사에 착수하리라고 한다.



1938-02-06-08-12

### 동아일보

#### 인제소방조 총동 방화방법에 전력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덕구 서장 이하 총동원으로 소방조를 이용하여 구년 말 경계에 당하게 하고 매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윤번으로 야경을 실시하여 방범 방화를 철저히 실행한다고 한다.

1938-02-19-08-03

### 동아일보

#### 인제에 대설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13일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여 1자 이상이나 쌓여서 각 산간도로는 전부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1938-02-25-08-02

### 동아일보

#### 인제군도의원 보결선거 종막

【인제】 인제군 도의원 보결선거에 대하여는 방금 운동에 백열전을 연출하고 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는데 싸움이 끝이 있어 지난 18일 오전10시에 인제군회의실에서 개표되었는데 결국은 이종형 23점, 민경호 23점으로 문제의 쌍둥이를 낳게되어 형제의 구분을 짓고자 연령의 순을 조사하였는데 민경호는 51세요 이종형은 48세로 결국은 이종형이가 차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될치이려니와 민경호는 호적에 자기 형님보다 나이 많다고 하는 이유로 또다시 문제는 전환되어 이종형에게로 영예의 당선고지서가 가게 되었다 함에 대하여 상대자 민경호 말에 의하면 나의 호적상 연령만 틀렸다고 하고 우리 형님의 연령이 호적상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다변에 있느냐고 하며 당국의 처리를 의심한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인제사회에서 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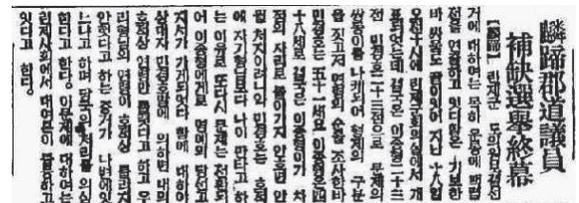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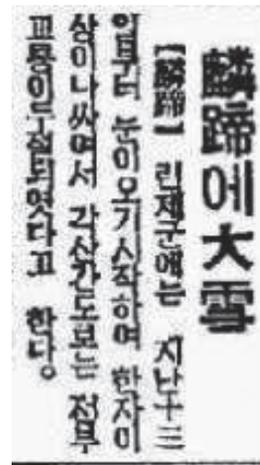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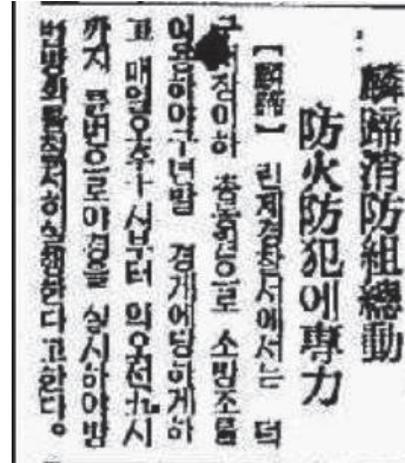
1938-02-25-04-01

### 매일신보

#### 좌담회 개최 2천회에 동원인수 11만명 강원도내 경관 중심의 시국인식좌담회 호적 금후도 계속할 방침

【춘천】 강원도내 경관 중심의 시국인식 좌담회 호적 금후도 계속할 방침 강원도에서는 조선인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자 도내 각 경찰서와 동 주재소를 중심으로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에 있어서 다른 방법에 의한 것보다 놀랄만큼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한다. 이제 실시한 내용을 보면 개최 회수는 2,718회에 참가한 연인원수가 실로 11만1,283명에 달하였는데 각군서 동원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군별	개최회수	총인원수
춘천	131	4,829
인제	120	3,673 (중략)
합계	2,718	111,283



1938-03-06-08-08

### 동아일보

#### 인제 지방에 전염병 창궐

【인제】 인제군읍내에는 요사이 발진티푸스 라는 전염병이 여기저기서 발생되어간다는데 인제경찰서에서는 이 방지책으로 환자들을 격리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 중이라고 한다.

1938-03-06-08-12

### 동아일보

#### 척여의 강설로 인제교통 두절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1일 밤부터 눈이 퍼붓기 시작한 것이 2척 3촌이나 와서 2일 동안을 교통이 두절되어 대소동을 일으켰다 하며 눈 녹는 물로 인하여 전담의 피해가 적지않았다고 한다.

1938-03-08-03-06

### 매일신보

#### 홍천군하 양처 우편소 승격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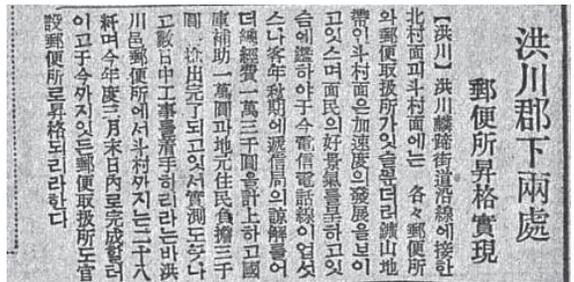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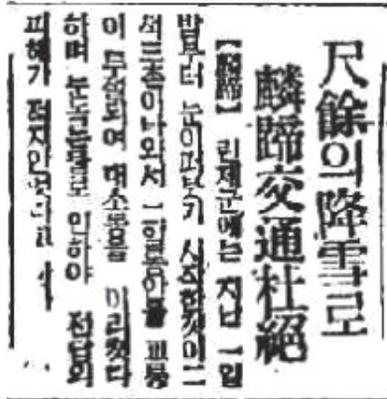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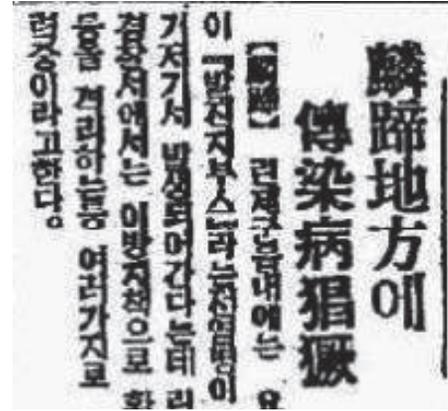
【홍천】 홍천 인제 가도 연선에 접한 북촌면과 두촌면에는 각각 우편소와 우편취급소가 있을 뿐더러 광산지대인 두촌면은 가속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면민의 호경기를 나타내고 있음에 감하여 지금까지 전신전화선이 없었으나 객년 추기에 체신국의 양해를 얻어 총경비 1만3,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1만원과 지원주민 부담 3,000원 염출 완료되고 있어 실측도 끝나고 수일 중 공사를 착수하리라는데 홍천읍 우편소에서 두촌까지는 28km이며 금년도 3월 말일 내로 완성할 터이고 우금까지 있던 우편 취급소도 관설 우편소로 승격되리라 한다.

1938-03-10-08-06

### 동아일보

#### 맥작 전멸상태 인제농촌엔 춘궁 난면

【인제】 농촌 세궁민들의 춘궁을 면하는 보충곡물인데 밀이 전멸상태에 이르러 인제지방에는 대타격을 받게되었다고 한다. 인제지방에는 작년 겨울에 눈은 다소가 왔으나 그다지 분량이 많지 못하고 혹한은 삼동을 계속하여 습래한 관계상 지각이 5, 6석이나 동결되어 추경 작물은 전부가 동사되었다는데 일반 농촌 세궁민들은 보리 밀을 유일무이한 궁하게 양곡물로 사료하는데 이것이 한정적 흉작을 보게되어 일반농민들은 춘궁을 면할 계획이 없으므로 걱정을 펴지 못하고 우수사려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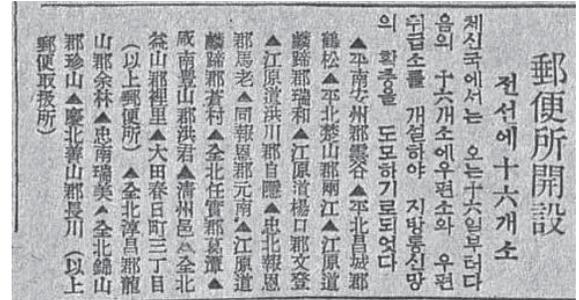
1938-03-13-03-04

### 매일신보

#### 우편소 개설 전조선에 16개소

제신국에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의 16개소에 우편소와 우편취급소를 개설하여 지방 통신망의 확충을 도모하기로 되었다.

- ▲평남 안주군 운곡 ▲평북 창성군 학송 ▲평북 초산군 양강 ▲강원도 인제군 서화 ▲강원도 양구군 문동 ▲강원도 홍천군 자은 ▲충북 보은군 마로 ▲동 보은군 원남 ▲강원도 인제군 창촌 ▲전북 임실군 갈담 ▲함남 풍상군 흥훈 ▲청주읍 ▲전북 익산군 이리 ▲대전 춘일정 3정목(이상 우편소) (중략)



1938-03-16-03-07

### 매일신보

#### 강원 비료 강습

【춘천】 강원도에서는 자급비료의 증제 판매 비료의 합리적 사용 방법 등 비료 장려에 관한 강습회를 좌기에 의하여 개최하리라 한다.

##### 1. 개최일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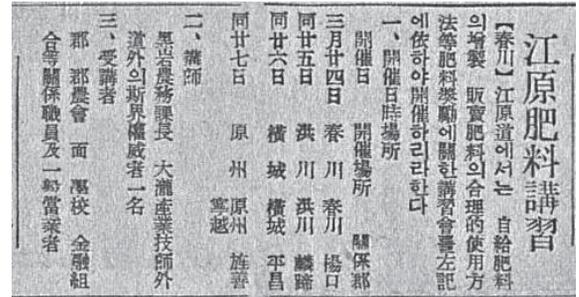
개최일	개최장소	관계군
3월24일	춘천	춘천 양구
동 25일	홍천	홍천 인제
동 26일	횡성	횡성 평창
동 27일	원주	원주 정선 영월

##### 2. 강사

흑암 농무과장, 대농 산업기수 외 도외의 사계 권위자 1명

##### 3. 수강자

군 군농회 면 학교 금융조합 등 관계직원 및 일반 당업자



1938-03-17-03-05

### 매일신보

#### 영동, 영서를 2조로 초등학교장 회의 회장은 춘천과 강릉으로 결정 회기는 20일,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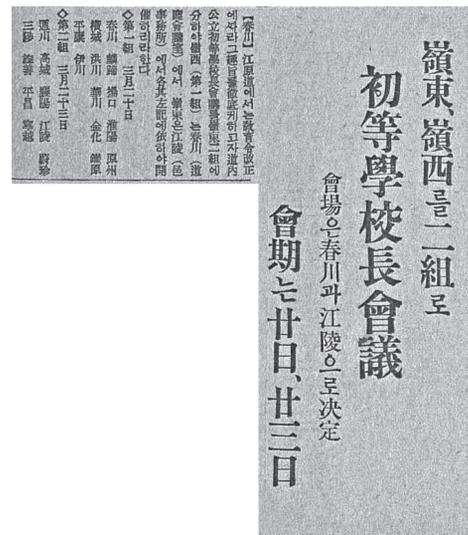
【춘천】 강원도에서는 교육령 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철저히 하고자 도내 공립초등학교 학교장 회의를 영동 2조에 분하여 영서(제1조)는 춘천(도청회의실)에서, 영동은 강릉(읍사무소)에서 각기 좌기에 의하여 개최하리라한다.

◇제1조 3월 20일

춘천 영월 양구 인제 원주 횡성 홍천 화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

◇제2조 3월23일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울진 삼척 정선 평창 영월



1938-03-25-08-04

### 동아일보

#### 인제에 홍역 창궐 일반가정의 주의 긴요

【인제】 인제군에는 요즘 홍역이 전파하여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데 여기에 걸려 벌써 사망한 아이들도 있는 모양이므로 일반가정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938-03-25-08-10

### 동아일보

#### 폐쇄된 인제유치원 시민은 부활 갈망

【인제】 인제유치원은 창설이래 4년간이나 꾸준히 천진난만한 어린 인재들 양육하여 나오던 중 불행히 선교부에 재원이 끊어져 일시는 비운에 빠져있었으나 지방유지의 열성으로 약 1년간은 유지하여 왔는데 다시 폐문치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이르러 2년간이나 폐문되고 지금은 유치원의 그림자도 볼 수 없어 다시 유치원을 부활시켜서 어린 인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1938-03-28-02-06

### 동아일보

#### 위조 사광 사건 공판에 회부 4월 8일 개정예정

【신의주】 신의주 미륵동우편소장 고준선(45)이하 8명에 관한 1만 5,000원 사기사건은 멀지않을 4월 8일에 제1회 공판이 개정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강원도 인제군 주소 부정 김창준은 동피고 평남 순천군내 주소부정 차병선과 공모하여 광표에 토금과 염분 시멘트를 이용하여 위조 광석을 만들어 일확천금을 꿈꾸며 매주를 몰색하던 중 서울 남산정 대촌모가 광산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공교해 대촌이와 근접하여 삭주군 남면 품림동에 광사가 있다고 감쪽같이 속여 현지에 동행하여 대촌이를 달래 6만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신의주 미륵동 우편소장실에서 수부금으로 1만5,000원을 받아 각기 분배하여 가진 사실인데 탐광열이 심한 때를 교묘히 이용한 근래에 보기 드문 사건으로 잠소 흥미있는 공판이 기대되고 있다.

1938-04-01-06-11

### 동아일보

#### 인제농용림지 설치 군농회서 기채 준비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조선간이보험금을 차입하여 연차계획으로 1937년부터 1943년까지 7개년을 매년 1면당 1부락씩 합 6부락을 선정 외에 1부락에 대하여 30정보씩을 매입 설치하여 7년후에는 갱생부락 전부가 다 농용림지의 혜택을 받게한다는데 이는 영전된 현 양양군수 전재우씨의 계획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방금 군농회에서는 기채준비를 하는 동시에 각면을 통하여 적립지의 선정과 매수교섭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醫報】 麟蹄 紅疫 猖獗 一般家庭의 注意 緊要

이런 종류의 홍역은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데 여기에 걸려 벌써 사망한 아이들도 있는 모양이므로 일반가정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閉鎖된麟蹄幼稚園 市民의復活渴望

【醫報】 麟蹄유치원은 창설이래 4년간이나 꾸준히 천진난만한 어린 인재들 양육하여 나오던 중 불행히 선교부에 재원이 끊어져 일시는 비운에 빠져있었으나 지방유지의 열성으로 약 1년간은 유지하여 왔는데 다시 폐문치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이르러 2년간이나 폐문되고 지금은 유치원의 그림자도 볼 수 없어 다시 유치원을 부활시켜서 어린 인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偽造砂鑛事件 公判에 廻附

四月八日開廷豫定

【醫報】 위조사광사건은 강원도 인제군 주소 부정 김창준은 동피고 평남 순천군내 주소부정 차병선과 공모하여 광표에 토금과 염분 시멘트를 이용하여 위조 광석을 만들어 일확천금을 꿈꾸며 매주를 몰색하던 중 서울 남산정 대촌모가 광산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공교해 대촌이와 근접하여 삭주군 남면 품림동에 광사가 있다고 감쪽같이 속여 현지에 동행하여 대촌이를 달래 6만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신의주 미륵동 우편소장실에서 수부금으로 1만5,000원을 받아 각기 분배하여 가진 사실인데 탐광열이 심한 때를 교묘히 이용한 근래에 보기 드문 사건으로 잠소 흥미있는 공판이 기대되고 있다.

麟蹄農用林地設置 郡農會서起價準備

【醫報】 麟蹄郡農會에서는 조선간이보험금을 차입하여 연차계획으로 1937년부터 1943년까지 7개년을 매년 1면당 1부락씩 합 6부락을 선정 외에 1부락에 대하여 30정보씩을 매입 설치하여 7년후에는 갱생부락 전부가 다 농용림지의 혜택을 받게한다는데 이는 영전된 현 양양군수 전재우씨의 계획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방금 군농회에서는 기채준비를 하는 동시에 각면을 통하여 적립지의 선정과 매수교섭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1938-04-02-04-01

동아일보

춘우 적당으로 보리 밀이 소생

【인제】 인제지방에는 작년 겨울에 눈은 오지않고 강추위만 심해서 보리 밀이 전부 얼어죽었다고 일반 세농들은 걱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은 호우가 적당히 온 후로는 보리 밀이 다소 소생되었다고 한다.

1938-04-05-03-01

매일신보

670여 단체에 단원만 1만8천 강원청년단 총계

【춘천】 시난의 극복과 지방의 진흥을 도모함에는 청년의 발랄한 원기와 공고한 단결력에 의치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강원도에서는 도내 청년단의 연락통일을 도모하여 강력한 진보발달을 조장하고자 도내 청년단을 일환으로 하는 연합청년단의 결성을 보게 되었는데 최고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세포청년단의 분포상황을 보면 지난 연말 현재 본단수 165단체에 단원에 8,027명이며 분단 512단체에 분단원에 1만190명으로 이를 통합해본다면 677단체에 단원수가 1만8,217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를 다시 군별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군명	단수	단원수	분단수	분단원수
춘천	8	445	17	330
인제	6	186	5	43
양구	8	368	10	161
회양	6	200	2	58
통천	10	340	24	443
고성	7	233	13	275
회양	8	364	29	347
강릉	10	484	24	646
삼척	9	1,089	50	1,149
울진	8	922	60	949
정선	5	135	3	51
평창	6	241	3	46
영월	8	290	4	78
원주	10	713	70	1,586
횡성	8	213	52	1,112
홍천	9	283	22	296
화천	3	95	22	599
김화	10	314	23	591
철원	9	425	13	204
평강	6	226	25	505
이천	2	461	41	72
계	165	8,027	512	10,190

**春雨適當으로  
大小麥이蘇生**

【春川】 江原道에서는 작년 겨울에 눈은 오지않고 강추위만 심해서 대소맥이 전부 얼어죽었다고 하고 잇는데 요즘은 호우가 적당히 온 후로는 대소맥이 다소 소생되었다고 한다.

**六百七十餘團體에  
團員만 一萬八千**

**江原青年團總計**

【春川】 時艱의克服과 地方의 振興을 도모함에는 青年의 發達을 完備한 別로 본다면 多을 파자다.

郡名 團數 團員數 分團數 分團員數

春川	8	445	17	330
鐵蹄	6	186	5	43
楊口	8	368	10	161
淮陽	6	200	2	58
通川	10	340	24	443
高城	7	233	13	275
襄陽	8	364	29	347
江陵	10	484	24	646
三陟	9	1,089	50	1,149
蔚珍	8	922	60	949
正善	5	135	3	51
平昌	6	241	3	46
英陽	8	290	4	78
元州	10	713	70	1,586
橫城	8	213	52	1,112
原州	9	283	22	296
寧越	3	95	22	599
昌寧	10	314	23	591
平康	9	425	13	204
鐵原	6	226	25	505
華川	2	461	41	72
計	165	8,027	512	10,190

1938-04-05-03-01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각초등학교 교명을 일제 변경 1일부터 소학교로 통일

【춘천】반도 통치상 획기적 시점의 일대 혁신인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강원도에는 도내 초중등학교의 교명을 일시 변경하게 되니 4월 1일을 기해서 이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학교수를 보면 중등학교 1교, 보통학교 188교, 소학교 2천80교인 바 보통학교는 188교 중 37교가 전연 명칭이 변경되고 나머지 151개교는 원학교명에 「보통」을 「소」로만 변경하였으며 소학교는 28교 중 16교가 변경되고 나머지 12교는 종전대로 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도내 간이학교는 전부 105교(도시간이학교 3교 포함)인데 이 간이학교는 원칙적으로 본교명에 따라 ○○공립소학교 ○○간이학교라고 하리는데 교명이 변경된 학교를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공립심상은 지면관계로 생략함)

\*인제군발취

◇인제군

▲인제동소학교(인제소학교) ▲인제남소학교(인제공보) ▲서화, 인제, 관대, 창촌, 원통, 장승곡공보도 소학교로

1938-04-06-04-03

### 동아일보

## 인제 서화간 도로 3월 하순 기공

【인제】인제군 읍내서 북면 원통리를 거쳐 가는 서화간 도로는 7, 8년을 숙제로 두고 해결을 보지못하고 한갓 당국의 선처만 기대하고 있는데 양양군으로 영진된 군수 전재우씨는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여 기회마다 열렬한 태도로 운동도 하고 부탁도 한 결과 이 도로 수선비로 2,000원의 보조를 받게 되었으며 5, 6년을 두고 실현을 보지 못하던 측량까지 속행케 되어 방금 도로공사에 착수되어서 화전민은 문화혜택을 입지못한만치 주야 겸행으로 공사에 열중되어 금년 가을에는 기어이 자동차를 통행케 할 목표라는데 인제군에서는 전 군수가 간후 도무지 꿈도 꾸지않은 관계로 다소 공사진행상 지연의 폐가 있지않을까 일반은 우려중이라고 한다.

1938-04-08-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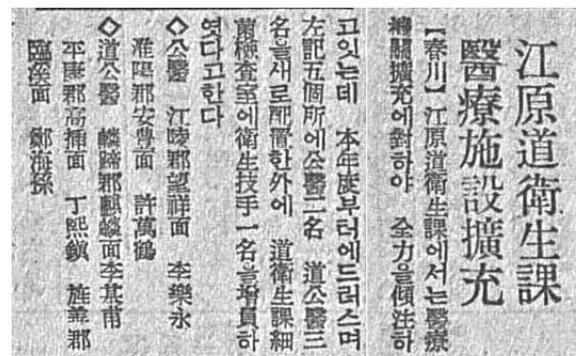
### 매일신보

## 강원도 위생과 의료시설 확충

【춘천】강원도 위생과에서는 의료기관 확충에 대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본년도부터에 들어서며 작기 5개소에 공의 2명, 도공의 3명을 새로 배치한 외에 도위생과 세균검사실에 위생 기수 1명을 증원하였다고 한다.

◇공의 강릉군 망상명 이낙영, 회양군 안풍면 허만학

◇도공의 인제군 인제면 이기보, 평강군 고삼면 정희진, 정선군 임계면 정해손



1938-04-09-06-04

### 동아일보

#### 초등교 아동에게 잠종 무상배부 인제군농회에서

인제군 양잠계 주임 기수 안정실지조씨는 현하 농촌갱생운동을 따라 초등학교 아동 직업과 교육이 고창되는 차제에 양잠은 농가 부업에 유일한 사업인만치 이를 이해시키고 흥미를 주어 유시부터 식상비배와 육잠기술을 습득케하여 일반농촌개생의 일조가 되게 하기 위하여 1938년도 예산으로 좌기와 같은 뽕나무묘목 및 잠종을 무상배부하여 아동들의 직업열을 고취시킨다고 한다.

학교명 잠종배부수(매) 뽕나무묘목(그루)

인제공보교	3	-
관대공보교	2	5
어른공보교	1	100
원통공보교	2	-
서화공보교	2	300
이포간이교	1	-
장승공보교	1	50
기린공보교	3	100
상남간이교	1	-
양촌공보교	2	200
광원간이교	1	500
표전간이교	1	-
합	20	1,300

1938-04-10-04-01

### 동아일보

#### 지방논단 시급한 위생시설, 인제지국 일기자

우리 인제읍은 약1,000호의 5,000여 인구를 포용하고 날날이 약진의 보폭을 더하고 있는데 보건시설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첫째 뚝뚝한 공동변소가 한곳도 없어서 장날같은 때에 촌민들이 와서 서두르는 곳이라 변소를 찾을 길이 없어 해매는 광경을 가끔 본다. 거리가 먼 시가지 외를 갑자기 갈수도 없는 사정인에서 그들의 곤란도 크다 하려니와 일반 조선인 가옥의 변소 설치가 시급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제읍 신구시가 어디를 물론하고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떠도는 분악취 때문에 그야말로 코를 찌를 지경이다. 변소는 더러운 곳이니 더럽게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변소도 꼭같은 주택의 일부분이니 '식당'이 필요한 것과 같이 '변소'도 필요한 것이다. 변소가 병균의 매개소이라면 소제와 청결을 위주하여 위생에 주의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설혹 변소의 설치가 있는 집이라도 대변이 노출되어 태양이 직사하는 등 그 부정 악취는 그 얼마나 비위생적인가. 위생이란 우리 일상생활상에서 얼마나 중대 문제인가는 중언부언코자 하지 않는다.

인제읍은 방금 공보교 소학교 이전과 변소 개축 등 다사다망한 때이니 물론 일은 숙제로 있을 것이나 위선 시급한 보건과 위생이 제 시설은 급속히 실현하기 바란다.

**初等校兒童에게 蠶種無償配付**

麟蹄郡農會에서  
農蹄郡農會主任 安井 賢之助 氏가 現下 農村 更生 運動을 指導 中에 蠶 養育 技術을 普及 爲기 爲 蠶 種을 無償 配付 하여 兒童 들에게 蠶 養育 技術을 傳授 케 하리니 此 蠶 種을 配付 케 하리니 蠶 養育 技術을 傳授 케 하리니 蠶 養育 技術을 傳授 케 하리니

麟蹄公産校	三枚	五本
冠嶽公産校	二枚	五本
於論公産校	一枚	一〇〇本
元浦公産校	一枚	三〇〇本
瑞根公産校	一枚	三〇〇本
伊布間公産校	一枚	五〇本
長承公産校	一枚	五〇本
計	一〇枚	一,三〇〇

**地方論壇**

**時評**

**衛生施設**

우리 인제읍은 약 1,000호의 5,000여 인구를 포용하고 날날이 약진의 보폭을 더하고 있는데 보건시설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첫째 뚝뚝한 공동변소가 한곳도 없어서 장날같은 때에 촌민들이 와서 서두르는 곳이라 변소를 찾을 길이 없어 해매는 광경을 가끔 본다. 거리가 먼 시가지 외를 갑자기 갈수도 없는 사정인에서 그들의 곤란도 크다 하려니와 일반 조선인 가옥의 변소 설치가 시급한 문제의 하나이다.



1938-04-22-03-01

### 매일신보

## 인제군 임산 부업조합 설립

【춘천】 인제군 내면에서는 임산부업조합을 설치하여 4월부터 업무를 개시케 되어 취지로는 내면은 산악중첩하여 화전지대로써 지미 척박하여 주민은 영농의 혜택을 입지 못하나 자연 생산물 채취로서 생계에 큰 부조가 되는데 연산액 1만원에 달하는 풍부한 부산물을 가지고 정당한 시세를 알지못하여 간상배 조랑에 희생되어 지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면당국에서는 지금에 이르러 방도를 강구중 도비 보조와 임산협회에 막대한 자금대부를 받아 전기 조합을 창설케 되어 그 판매 통제와 품질 개량을 장려하여 주민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빈민의 사할 문제에 대하여 극히 호영향을 재래할 것으로 기대도 크거니와 장래 발전 여하로 주민의 금융기관이 될 터이므로 운영 여하가 주목치이러는데 면에서 직접 경영케되어 좌의 요항을 지도알선하리라 한다.

1. 임부산물의 공동판매
2. 임부산물의 채취 시기와 건조방법의 지도
3. 임부산물의 품질개선의 연구
4. 조선내 주요시장에 판매상황 및 시가 조사
5. 기타 사업 진행상 필요사항

1938-4-23-07-05

### 동아일보

## 인제

【인제】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오는 23일 오전10시에 제32회 정기총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당일엔 총대 중 1인도 결석자가 없게 수배중이라고 한다.

1938-04-29-04-08

### 매일신보

## 창촌소학교서 학급증가 운동중 경비 각출코 맹활동

【홍천】 인제군 내면의 초등교육기관으로 창촌소학교는 1930년 창설 이래 다수의 아동을 교양하고 있으나 지금껏 4년 2학급 복식으로 완비치 못하여 우리도 배워서 남과 같이 살겠다는 어린 자녀를 전부 수용치 못할 현 사회의 공통된 실정으로 금반 교육채신과 아울러 초등교육기관은 주마가편격으로 촉진되고 있으나 명일의 광명도 대망하는 것이거니와 초미의 급무인 학급 증가를 절규하여 기성회를 조직코 학년도 초부터 맹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데 초조한 학부모들은 교사 증축 및 소요 경비 3,300원을 술선 염출완료코 당국의 선처를 열망중이라 한다.

【洪川】 麟蹄郡內面에서는 林産副業組合을 設置하여 4월부터 業務를 개시케 되어 취지로는 내면은 산악중첩하여 화전지대로써 지미 척박하여 주민은 영농의 혜택을 입지 못하나 자연 생산물 채취로서 생계에 큰 부조가 되는데 연산액 1만원에 달하는 풍부한 부산물을 가지고 정당한 시세를 알지못하여 간상배 조랑에 희생되어 지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면당국에서는 지금에 이르러 방도를 강구중 도비 보조와 임산협회에 막대한 자금대부를 받아 전기 조합을 창설케 되어 그 판매 통제와 품질 개량을 장려하여 주민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빈민의 사할 문제에 대하여 극히 호영향을 재래할 것으로 기대도 크거니와 장래 발전 여하로 주민의 금융기관이 될 터이므로 운영 여하가 주목치이러는데 면에서 직접 경영케되어 좌의 요항을 지도알선하리라 한다.

麟蹄郡內面에서는 林産副業組合을 設置하여 4월부터 業務를 개시케 되어 취지로는 내면은 산악중첩하여 화전지대로써 지미 척박하여 주민은 영농의 혜택을 입지 못하나 자연 생산물 채취로서 생계에 큰 부조가 되는데 연산액 1만원에 달하는 풍부한 부산물을 가지고 정당한 시세를 알지못하여 간상배 조랑에 희생되어 지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면당국에서는 지금에 이르러 방도를 강구중 도비 보조와 임산협회에 막대한 자금대부를 받아 전기 조합을 창설케 되어 그 판매 통제와 품질 개량을 장려하여 주민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빈민의 사할 문제에 대하여 극히 호영향을 재래할 것으로 기대도 크거니와 장래 발전 여하로 주민의 금융기관이 될 터이므로 운영 여하가 주목치이러는데 면에서 직접 경영케되어 좌의 요항을 지도알선하리라 한다.

麟蹄 人제군용 5월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제 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내면 麟蹄 3대중 인제군에서  
자기에게 수배중이라 한다.

서술한바와 같이 바림은 크고  
말에 회담은 중점하여 부원소나  
무비까지 출판물이 바림은 크고  
우익원용(2) 및 출판물 퍼싱  
등(1)의 점에 따라 제 삼신(2) 초가  
삼촌을 전수시켰다는데 소해가막  
三十一일에 탈하고 전기로는 경  
매진화하였다 한다.

생각으로 근근히 자립생활의 취  
지를 깨닫고 있는 오지은 그간  
철호하게 되어 경쟁개화에 자상이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며 연소되는 화염  
은 리계소방대 약 70여명과 인  
근주민이 진압하여 의양은 전  
매진화하였다 한다.

【洪川】 麟蹄郡內面의 初等教育機關으로 蒼村小學校는 昭和五年에 創設以來多數의 兒童을 敎育하고 있  
스나 于今 四年二學級形式으로 完備치 못하여 우리도 배워서 남과  
같이 살겠다는 어린 자녀를 전부 수용  
치 못할 현 사회의 공통된 실정으로  
금반 교육채신과 아울러 초등교육  
기관은 주마가편격으로 촉진되고 있  
스나 明日의 光明을 待望하는 바  
니와 蒼村의 急務인 學級增加를 促  
진하기 위하여 期成會를 組織코 學年  
부터 學活會를 開始하고 있는데 焦  
燥한 父兄을 及 舍長等 及 所屬經  
費 三、三、三百圓을 先출 出脫了 五當  
局의 善處를 期望中 이라 한다.

蒼村小學校서  
學級增加運動中  
經費醜出코 猛活動

1938-05-01-04-06

### 동아일보

#### 농가 3호 전소

【인제】 지난 26일 오후8시 경부터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 갯생부락 정웅식의 집 부엌에서 돌연 발화되어 때마침 부는 바람에 화염은 증천하여 후원 소나무에 까지 솔방울이 바람을 타고 이웃인 원용국과 심수일의 집에 떨어져 삼시간에 3호를 전소시켰는데 손해가 약 3,000여원에 달하고 전기 3호는 갯생농가로 근근히 자력갱생의 취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 그같이 참혹하게 되어 갯생계획에 지장이 생할 듯하다고 하며 연소되는 화염은 인제소방대 약 70여명과 인근 동민이 진력하여 다음날 오전2시에 진화하였다 한다.

1938-05-02-04-09

### 매일신보

#### 인제군 내면 소방조 결성

【홍천】 인제군 내면에서는 소방조를 조직하였는데 다년간 민민의 촉망하던 터로 기구대와 창고 건설비 1,200원을 계상하고 각출 중 조두는 강장복씨로 결정되었으며 일반 조원 35명으로 근일 중 창립 초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1938-05-03-04-04

### 동아일보

#### 인제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3월 20일부터 날이 가물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비한방울 오지않고 매일 밤낮을 계속하여 폭풍만 들어서 점점 더 건조하게 한 관계로 작년 겨울추위에다 얼어죽고 조곰씩 남아있는 보리 밀이나마 전부 타죽고 전멸상태에 빠져있을 뿐 아니라 감자 옥수수 등을 파종한 것이 전부 타고 말라 죽었다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철궁을 난면하리라는 예측으로 이 강구지책을 하기 위하여 품을 팔고 산채라도 채취하고자 하나 이것도 여의치않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산화로 인연하여 자유로 입산치 못하고 매일 방재 출역에 눈코뜰 사이가 없다 하며 닥쳐오는 철궁을 어찌하려고 우울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1938-05-03-06-12

### 동아일보

#### 면작 장려 신계획 부인지도포 설치

【홍천】 인제군농회에서 작년부터 면작을 장려해왔는데 역시 성적이 양호하므로 이를 철저히 장려하는 동시에 농촌부녀자들이 잉여노력을 현금화시키는 일방 법으로 면작 주요지대가 되는 좌기면에 부인지도포를 설치하고 장려시켜 면작은 부인작업에 제일 적당한 것이라고 확언할 뜻으로 1938년도 예산에 설치비 60원을 계상하고 1개소에 대하여 2원씩 보조를 한다고 한다. 인제면에 3개소 합9반, 남면에 5개소 합 15반, 북면 2개소 합 9반, 합계 10개소 합 30반

農家三戶全燒  
【인제】 지난 26일 오후 8시 경부터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 갯생부락 정웅식의 집 부엌에서 돌연 발화되어 때마침 부는 바람에 화염은 증천하여 후원 소나무에 까지 솔방울이 바람을 타고 이웃인 원용국과 심수일의 집에 떨어져 삼시간에 3호를 전소시켰는데 손해가 약 3,000여원에 달하고 전기 3호는 갯생농가로 근근히 자력갱생의 취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 그같이 참혹하게 되어 갯생계획에 지장이 생할 듯하다고 하며 연소되는 화염은 인제소방대 약 70여명과 인근 동민이 진력하여 다음날 오전2시에 진화하였다 한다.

麟蹄郡內面 消防組結成  
【洪川】麟蹄郡內面에서는 消防組를組織하였는데 多年間面民의嚮望하던대로 器具代倉庫建設費一千二百圓을計上하고 醴田中組頭는姜長福氏로決定되었으며一般組員三十五名으로 近日中創立田初式을舉行하리라한다

麟蹄 麟蹄군에는 3월 20일부터 날이 가물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비한방울 오지않고 매일 밤낮을 계속하여 폭풍만 들어서 점점 더 건조하게 한 관계로 작년 겨울추위에다 얼어죽고 조곰씩 남아있는 보리 밀이나마 전부 타죽고 전멸상태에 빠져있을 뿐 아니라 감자 옥수수 등을 파종한 것이 전부 타고 말라 죽었다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철궁을 난면하리라는 예측으로 이 강구지책을 하기 위하여 품을 팔고 산채라도 채취하고자 하나 이것도 여의치않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산화로 인연하여 자유로 입산치 못하고 매일 방재 출역에 눈코뜰 사이가 없다 하며 닥쳐오는 철궁을 어찌하려고 우울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棉作獎勵新計劃 婦人指導團設置  
麟蹄郡農會에서는 昨年부터 棉作을獎勵했으나 亦是成績이良好하므로 以發放低利 獎勵하는同時에 農村婦人全體의 餘餘勞力을現金化시키는 方法으로 棉作主要地帶에 左記如에 婦人指導團을設置하고 獎勵시키어 棉作은 婦人作業에 第一適當한것이라고 確言할것으로 昭和十三年度 豫算에 設置費六十圓을 計上하고 一團所에 補助費 二圓씩補助할 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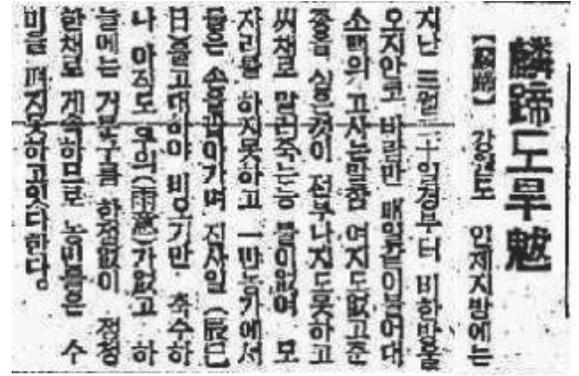
麟蹄面	三團所	合九反
南面	五團所	合十五反
北面	二團所	合九反
計	十團所	合三十三反

1938-05-05-04-08

### 동아일보

#### 인제도 가뭄

【인제】 강원도 인제지방에는 지난 3월 20일경부터 비 한방울 오지 않고 바람만 매일같이 불어대 밀의 고사는 말할 여지도 없고 춘종을 심은 것이 전부 나지 못하고 씨채로 말라죽는 등 물이 없어 모자리를 하지 못하고 1만 농가에서들은 손을 꼽아가며 진사(辰巳)일을 고대하여 비 오기만 축수하나 아직도 우의가 없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 한 점 없이 청정한 채로 계속하므로 농민들은 근심을 펴지 못하고 있다 한다.



1938-05-07-04-05

### 동아일보

#### 인제금융조합 신축

【인제】 인제금융조합은 건축한지 오래되어 풍파세우로 퇴락한데다 1930년, 1936년 2회나 대홍수를 겪은 후 부패되어 도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직원들은 집무시간이면 불안을 느껴오더니 이사 김동윤씨의 열성으로 신축케되어 공비 1만원 예정으로 신사가지에 최신식으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착수중인데 5월 말일까지는 공사가 완성되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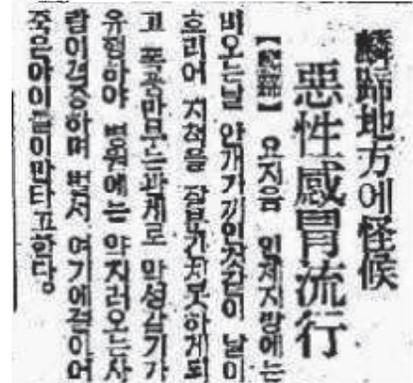


1938-05-07-04-06

### 동아일보

#### 인제지방에 괴질 악성감기 유행

【인제】 요즘 인제지방에는 비오는 날 안개가 낀 것 같이 날이 흐려 지척을 잘 분간치 못하게되고 폭풍만 부는 관계로 악성감기가 유행하여 병원에는 약 지러 오는 사람이 격증하며 벌써 여기에 걸려 죽은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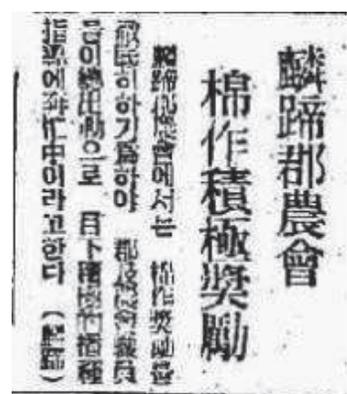


1938-05-07-06-04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 면작 적극 장려

인제군농회에서는 면작 장려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군 및 농회 직원 총출동으로 방금 적극적 파종지도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인제)





1938-05-10-03-02

### 매일신보

### 의무교육 실시 인제 이성흠씨 담

- 1. 현하 내의 정세에 비취 내선일체의 구현이 긴박하므로 가론을 불의 인데 이의 실현을 심화함에는 일면 조선인에 있어서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진실한 각오를 가지고 시국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일면 일본인에 있어서는 조선의 실정을 인식하고 조선인 일본인 인화리 협력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염원함
- 2. 일시동인의 아래 이는 신민으로서 황택에 욕함을 후박심전의 도가 없이 균벽하기를 회구함은 사람의 상정인데 조선주민에게는 속히 참정권을 향유케 할 것과 조선내의 관리는 우수한 조선인을 발탁하여 일본인과 같은 모양으로 요직에 배치할 것을 갈망한다.
- 3. 학령에 달하고도 미취학되는 아동을 위하여 의무교육제의 실시에 이르기까지는 심상교육을 확충하여 문맹이 축소를 꾀할 필요가 있다.



1938-05-12-04-05

### 동아일보

### 인제 노임 고등 인부난으로 인해

【인제】 인제군은 천혜적 임산물이 풍부하여 매년 3월로 8, 9월까지의 목상들이 들어와서 제재유하(製材流下) 등에 몰두하는데 금년은 각종 물가 고등에 따라 재목값도 고등하여가는 일로인데도 불구하고 봄기름이 심하여 물 붙어나지 않는 관계로 운반치 못하여 가슴을 졸이고 있던 중 다행히 요즘 비가 와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빨리가자고 갈 계획으로 종내 1일임금 80, 90전 이상을 준다는데 그것으로 연연하여 보통 농가에서는 다소 인부난으로 곤란한 상태이나 그 반면에 일반노동자측에서는 공전의 호경기를 디고 있다 한다.



1938-05-13-03-01

### 매일신보

### 4천500여 부락에 탁아소 개설 계획, 강원도서 농번기에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촌진흥운동에 일역자가 되도록 부녀자의 옥외노동을 장려함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부녀자의 노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지도부락 등에 대하여는 농번기 탁아소를 개설하도록 장려 하여온 바 1937년 중 농번기의 탁아소의 개설 개소수는 184개소 개소일수 7,195일 간으로 수용연인원이 119,365인이라 하는데 1938년 중에는 전도 4,500여 부락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설하도록 적극적 장려하며 실시하도록 도사회과에서는 입안 토론중이라 한다. 그리고 1937년 중 개설 탁아소 중에 성적 최 양호한 원주군 신초면 개암동과 이천군 학봉면 성호리 양탁아소에 대하여는 최근 대관조일신문사로 자애기와 금일봉과 표창장의 기증까지 받았다는데 각군별의 탁아소 개설 현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명	개설수	수용연인원(인)
춘천	2	2,209
인제	10	9,021 (중략)



1938-05-14-03-03

### 매일신보

## 4천여 부락에 실시한 비황저곡 3만여석, 강원도의 전 농가 80%가 실행

【춘천】 강원도에서는 타에 솔선하여 실시하여 온 비황저곡의 계획에 는 세농의 춘추단경궁기(춘궁, 칠궁)에 구조와 농촌경제 정책의 역할 과 불의재난에 의한 이재민의 구제 등 인보상조의 미덕양풍을 배양하 고 이를 실제화 하기 위하여 1930년부터 도내 전면적으로 각 부락에 비 황저곡을 실시 장려하여온바 이에 대한 실제적 효과는 막대한바 있는 데 1937년도까지의 실시한 부락수는 4,186개소로 실행호수 179,936호 에서 저곡량은 벼 12,809석, 34두 3승과 잡곡 18,996석 6두5승으로 합계 31,806석에 달하여 매호당 1두7승의 저곡이 되고 있다. 이의 계획은 농 가호수 80%를 정하고 있는 강원도로서 농촌진흥정책상으로 보아 많은 조역이 됨은 물론이요 현하 비상시 국민 인식케 하여 더욱 절약의 관념 을 강화하라는 방침으로 1938년도부터는 국민저축운동과 상반하여 적 극적 저축 장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하는데 1937년도 말의 각군 비 황저곡 상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별	실시군부락	실시군호수(호)	저곡수량(승)
춘천	247	10,312	362석19
인제	167	5,458	543.79 (중략)

1938-5-14-05-04

### 동아일보

## 냉해방책으로 내한작물 시작 모범작포 설치 인제군농 회에서

인제군은 산간군인만치 고지대가 많은 관계상 조상이 되어서 그 지 방사람들은 연연히 냉해의 피해를 입고 1년 혹은 1년 반이면 거소를 이동하는 등 여러 가지의 소동으로 생활의 불안정을 초치하여 당국 에서는 매년 구제치 않으면 안될 처지이므로 인제군농회에서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여 냉해지대에 적당한 주요작물이 되는 모범작 포를 설치하고 우량품종의 보급 경중법 개선 비료의 증설 등을 행하 여 이를 장려 모범케 하기 위하여 좌와 같이 모범작포를 설치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면명	설치개소수	1개소설치면적(반)	반당보조액(원)	보조총액(원)
북면	1	3	3.00	9.00
서화면	1	3	3.00	9.00
기린면	1	3	3.00	9.00
내면	2	6	3.00	18.00
계	5	15	3.00	45.00

## 四千餘部落에實施한 備荒貯穀二萬餘石

### 江原道の全農家八割이實行

【春川】江原道에서는 타에 솔선하여 실시하여 온 비황저곡의 계획에 는 세농의 춘추단경궁기(춘궁, 칠궁)에 구조와 농촌경제 정책의 역할 과 불의재난에 의한 이재민의 구제 등 인보상조의 미덕양풍을 배양하 고 이를 실제화 하기 위하여 1930년부터 도내 전면적으로 각 부락에 비 황저곡을 실시 장려하여온바 이에 대한 실제적 효과는 막대한바 있는 데 1937년도까지의 실시한 부락수는 4,186개소로 실행호수 179,936호 에서 저곡량은 벼 12,809석, 34두 3승과 잡곡 18,996석 6두5승으로 합계 31,806석에 달하여 매호당 1두7승의 저곡이 되고 있다. 이의 계획은 농 가호수 80%를 정하고 있는 강원도로서 농촌진흥정책상으로 보아 많은 조역이 됨은 물론이요 현하 비상시 국민 인식케 하여 더욱 절약의 관념 을 강화하라는 방침으로 1938년도부터는 국민저축운동과 상반하여 적 극적 저축 장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하는데 1937년도 말의 각군 비 황저곡 상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별	실시군부락	실시군호수(호)	저곡수량(승)
춘천	247	10,312	362석19
인제	167	5,458	543.79 (중략)

**로으兼止妨害冷  
作試物作寒耐  
置設園作範模  
서에會農郡歸隣**

【春川】江原道에서는 타에 솔선하여 실시하여 온 비황저곡의 계획에 는 세농의 춘추단경궁기(춘궁, 칠궁)에 구조와 농촌경제 정책의 역할 과 불의재난에 의한 이재민의 구제 등 인보상조의 미덕양풍을 배양하 고 이를 실제화 하기 위하여 1930년부터 도내 전면적으로 각 부락에 비 황저곡을 실시 장려하여온바 이에 대한 실제적 효과는 막대한바 있는 데 1937년도까지의 실시한 부락수는 4,186개소로 실행호수 179,936호 에서 저곡량은 벼 12,809석, 34두 3승과 잡곡 18,996석 6두5승으로 합계 31,806석에 달하여 매호당 1두7승의 저곡이 되고 있다. 이의 계획은 농 가호수 80%를 정하고 있는 강원도로서 농촌진흥정책상으로 보아 많은 조역이 됨은 물론이요 현하 비상시 국민 인식케 하여 더욱 절약의 관념 을 강화하라는 방침으로 1938년도부터는 국민저축운동과 상반하여 적 극적 저축 장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하는데 1937년도 말의 각군 비 황저곡 상황은 좌와 같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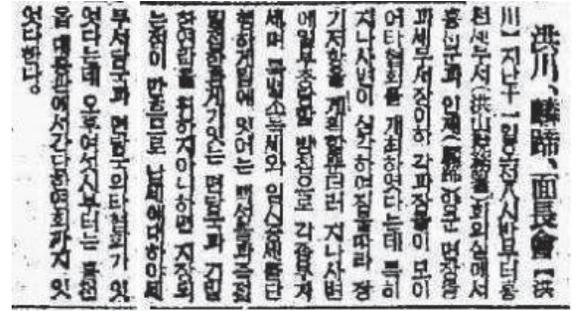
면명	설치개소수	1개소설치면적(반)	반당보조액(원)	보조총액(원)
북면	1	3	3.00	9.00
서화면	1	3	3.00	9.00
기린면	1	3	3.00	9.00
내면	2	6	3.00	18.00
계	5	15	3.00	45.00

1938-05-14-07-03

### 동아일보

#### 홍천, 인제 면장회

【홍천】 지난 1일 오전8시부터 홍천세무서 회의실에서 홍천군과 인제 두군 면장들과 세무서장 이하 각 관장들이 모여 타협회를 개최하였는데 특히 중일전쟁이 심각하여짐을 따라 장기 저항을 계획할 뿐더러 중일전쟁에 일부 충당할 방침으로 각종 부가세며 특별소득세와 임시 증세를 단행하게 됨에 있어서는 백성들과 직접 밀접한 관계에 있는 면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지장되는 점이 많으므로 납세에 대하여 세무서 당국과 면당국의 타협회가 있었다는데 오후 6시부터는 홍천읍 대홍관에서 간단한 연회까지 있었다 한다.



1938-05-15-03-01

### 매일신보

#### 인제면장 회의

【홍천】 홍천세무서에서는 관하 홍천 인제 양군 면장회의를 지난 11일 오전9시부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세무기관 설치 후 초회의 면장회의로써 세무 행정상 격리할 수 없는 면 사무와 일층 면밀한 연락을 취하여 현 중대 국면하 납세보국의 관념을 진작 경신하여 세무의무를 재인식시키기에 매진함을 목적으로 참집한 각면장들도 격의 없는 의견을 피력하여 의의심중한 회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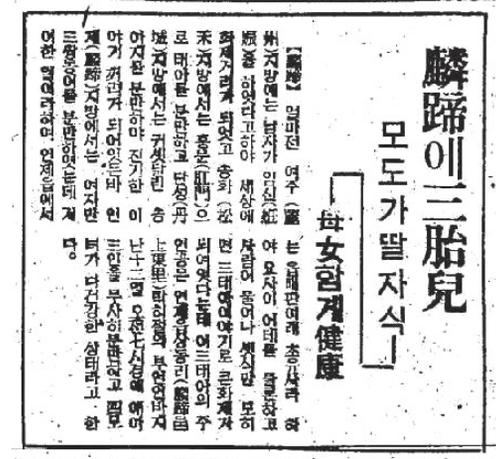


1938-05-15-04-04

### 동아일보

#### 인제에 3태아, 모두가 딸자식 모녀 함께 건강

【인제】 얼마전 여주지방에는 남자가 임신을 하였다고 하여 세상에 화제거리가 되었고 송화지방에서는 홍문으로 태아를 분만하고 단성 지방에서는 귀 셋달린 송아지를 분만하여 진기한 이야기 거리가 되었는데 인제지방에서는 여자만 세쌍둥이를 분만하였는데 기이한 일이라 하여 인제읍에서는 읍생김 이래 초유 일이라 하여 요사이 어디를 물론하고 사람이 들이나 세씩만 모이면 3태아 이야기로 큰화제가 되어있는데 이 3태아의 주인공은 인제읍 상동리 박희철의 부인인데 지난 12일 오전7시경에 여아 3인을 무사히 분만하고 4모녀가 다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1938-05-16-03-01

### 동아일보

## 인제 기린간 도로 개통요망 치열화, 내무부장 순시를 기회로 하여 전군민이 대거 진정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9일 강원도 내무부장이 토목과장을 대동하고 돌, 자갈 품평회 심사를 하러온다는 기회를 타서 다년간 요망이던 기린면과 안제읍간 도로 개착 공사 착수에 대한 구체적 진정을 필두로 경춘철도 연장과 인제읍 제방공사 등 여러 가지로 전도회의원 김영제씨로 하여금 진정한바 곧 해주겠다고 쾌락이 있었는데 금후 착수 실현만 고대한다고 하며 기린면과 인제읍간 도로에 대하여는 1925년부터 1938년까지 13년간을 두고 역대 도지사와 내무부장 등에게 가서도 진정하고 온 기회를 이용해서 진정한 것인데 모두가 고려 고려해오던 것이 금번 내무부장은 쾌락이 있었으므로 방금 일반군민들은 희색을 띠우고 인제는 절대 실현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만큼 당국자로서도 이점에 충분히 연구 고려해서 군민의 소망이 끊어짐이 없게 하는 동시에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있기를 기대중이라고 한다.

1938-05-17-07-06

### 동아일보

## 홍천, 인제 1년 음주량 물경! 1만5천여석 1인당 세액 2원34전

【홍천】 홍천군과 인제 두 군에서 1년간 술먹어 없어진 양을 조사해 본다면 석수로는 1만5,896석이고 세액으로는 66,155원31전이라는 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세라고는 한푼도 낼수없는 형편이 태반이나 되는 홍천면 사람들에게 주세액을 분담하여 본다면 1인당 3원34전이나 된다하며 제일 작은면이 인제 서화면에 1인당 18전이 최하라는 데 지금도 홍천읍 요리집 경기를 본다면 어찌나 좋은지 매일 밤늦도록 장구소리가 떠나지 않는 형편이라 한다.

1938-05-18-02-04

### 동아일보

## 명치좌 에드벌룬 인제로 공중여행

얼마전에 부내 명치정 명치좌 옥상에 매어둔 극장 선전용의 에드벌룬이 강한 바람에 끊겼는데 행방불명이 되어 서울 장안의 화제를 주고 있는데 그 행방이 드러났다. 즉 문제의 에드벌룬은 멀리 강원도 인제 산중까지 여름 하늘 따뜻한 바람을 타고 공중여행을 한 것이 16일 알려져 일간 다시 서울로 올려와 다시 부민에게 인사하리라 한다.

### 麟蹄 麒麟間道路 開通要望熾烈化

全郡民은大舉陳情

내무부장순시봉기회로하여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9일 강원도 내무부장이 토목과장을 대동하고 돌, 자갈 품평회 심사를 하러온다는 기회를 타서 다년간 요망이던 기린면과 안제읍간 도로 개착 공사 착수에 대한 구체적 진정을 필두로 경춘철도 연장과 인제읍 제방공사 등 여러 가지로 전도회의원 김영제씨로 하여금 진정한바 곧 해주겠다고 쾌락이 있었는데 금후 착수 실현만 고대한다고 하며 기린면과 인제읍간 도로에 대하여는 1925년부터 1938년까지 13년간을 두고 역대 도지사와 내무부장 등에게 가서도 진정하고 온 기회를 이용해서 진정한 것인데 모두가 고려 고려해오던 것이 금번 내무부장은 쾌락이 있었으므로 방금 일반군민들은 희색을 띠우고 인제는 절대 실현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만큼 당국자로서도 이점에 충분히 연구 고려해서 군민의 소망이 끊어짐이 없게 하는 동시에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있기를 기대중이라고 한다.

### 洪川 麟蹄 一年飲酒量 勿驚ノ一萬五千餘石

一人當視額二圓四錢

【홍천】 홍천군과 인제 두 군에서 1년간 술먹어 없어진 양을 조사해 본다면 석수로는 1만5,896석이고 세액으로는 66,155원31전이라는 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세라고는 한푼도 낼수없는 형편이 태반이나 되는 홍천면 사람들에게 주세액을 분담하여 본다면 1인당 3원34전이나 된다하며 제일 작은면이 인제 서화면에 1인당 18전이 최하라는 데 지금도 홍천읍 요리집 경기를 본다면 어찌나 좋은지 매일 밤늦도록 장구소리가 떠나지 않는 형편이라 한다.

### 明治座 드바·룬바 麟蹄로空中旅行

명치좌 에드벌룬 인제로 공중여행

얼마전에 부내 명치정 명치좌 옥상에 매어둔 극장 선전용의 에드벌룬이 강한 바람에 끊겼는데 행방불명이 되어 서울 장안의 화제를 주고 있는데 그 행방이 드러났다. 즉 문제의 에드벌룬은 멀리 강원도 인제 산중까지 여름 하늘 따뜻한 바람을 타고 공중여행을 한 것이 16일 알려져 일간 다시 서울로 올려와 다시 부민에게 인사하리라 한다.

1938-05-19-03-05

**매일신보**

**강원도 봄누에떨기 전년 비해 2천여매 증, 잠종의 배급을 완료**

【춘천】 강원도는 기후풍토가 양잠적지로서 겸하여 산국인 만치 식상에 이용할 공지가 허다하여 도에서 수행중인 산에는 화전식 또는 사방식의 식상과 전지의 간식 휴반공지의 식상 등 계획은 그 성적이 차차 거양됨을 따라 장묘 증산계획도 같이 하고 있어서 불원장래에는 양잠왕국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많이 기대되고 있음은 물론 농산촌의 경제 갱생계획에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만치 당국의 지도방침도 강조되고 있는 터인데 금년 춘 잠종 배급은 근근 완료된 바 실 누에떨기 매수는 74,129매로 전년 같은 기간 71,698매에 비하여 2,431매의 증가인 호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뽕나무 발육상황을 화천 이북의 북부지방에는 한고의 피해가 있다하고 해안방면에는 산불관계로 다소 적상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큰 영향을 없으리라 하는데 각 군의 금년도 춘잠 소립상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명	금년도춘잠종매수(매)	전년도춘잠종매수(매)
춘천	4,833	4,795
인제	5,833	5,725

(중략)

1938-05-20-03-06

**동아일보**

**인제군 면서기 시험**

【인제】 인제군청에서는 24일에 면서기 채용시험을 보인다는데 시험 자격자는 북면과 내면에 본적을 둔 자에 한한다고 한다.

1938-05-22-04-09

**동아일보**

**인제에 악성 홍역 군내 각지 창궐**

【인제】 인제지방에는 요사이 악성 홍역이 유행되어 어린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 벌써 사망한 아이가 수십명이나 된다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각가정에서는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상시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江原 追春蠶婦立**  
比前年二千餘枚增  
蠶種의 配給을 完了

設에 追隨

【춘천】 강원도에서 蠶種의 配給을 完了한 바 실 누에떨기 매수는 74,129매로 전년 같은 기간 71,698매에 비하여 2,431매의 증가인 호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뽕나무 발육상황을 화천 이북의 북부지방에는 한고의 피해가 있다하고 해안방면에는 산불관계로 다소 적상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큰 영향을 없으리라 하는데 각 군의 금년도 춘잠 소립상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명	금년도춘잠종매수(매)	전년도춘잠종매수(매)
춘천	4,833	4,795
인제	5,833	5,725

**麟蹄郡面書記試驗**

【麟蹄】 인제지방에서는 요사이 악성 홍역이 유행되어 어린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 벌써 사망한 아이가 수십명이나 된다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각가정에서는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상시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麟蹄에 惡性 麻疹**  
郡內各地 猖獗

【麟蹄】 인제지방에는 요사이 악성 홍역이 유행되어 어린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 벌써 사망한 아이가 수십명이나 된다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각가정에서는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상시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1938-05-25-04-07

### 동아일보

## 선생 무책임에 격분 동맹휴학을 단행, 인제서화소학교 불상사

【인제】 인제군 서화면 심상소학교 5, 6학년생도들은 지난 21일 동맹휴학을 단행하였고 일반 학부모들도 학교당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 자세한 것을 들건대 지난 18일 동교 안 선생이 5, 6학년을 데리고 내금강까지 수학여행을 갔다오는 도중 생도들을 먼저가라고 하고 자기는 무슨 일인지 뒤떨어졌다가 트럭을 타고 오고 생도들은 종일 도로로 걸어오다가 피곤하여 중간에서 숙박했는데 선생이 여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숙박료도 지불치 못하고 주인에게 겨우 사정하여 후일 지불하기로 하고 오게되었다는 이유로 생도들은 분개하여 그런 무책임한 선생은 도저히 그냥 둘수 없다고 그와 같이 동맹휴학을 하게된 것이라고 한다.

1938-05-26-02-04

### 동아일보

백화점 순례의 가방 가진 수상한, 현직은 절도 전직은 교원 전 초등학교 교원이 용돈이 궁하여 트렁크를 가지고 백화점으로 물품을 절취하다가 경찰에 피검되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에 본적을 두고 일정한 주소가 없는 전 부내 보통학교 교원 김철수(26)는 지난 4월 24일 부내 청엽정 1정목 모사립학교 교원으로 있는데 월급이 적어 생활기 곤란하여 부내 원정 모 사립교사로 전직하기로 교섭이 성립되었으나 전기 재직교의 반대로 뜻대로 되지않아 실직케 되었다 한다. 생활에 곤란을 느낀 그는 생각다 못하여 지난 23일 오전11시경 자기 트렁크를 가지고 본정 삼월 3층 양복점에서 점원의 한눈과는 틈을 타서 시가 40여원짜리 모닝코트 한 벌과 50원짜리 양복 한 벌을 훔쳐 트렁크 속에 넣고 유유히 나오다가 문간에서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다 한다.

1938-05-26-02-08

### 매일신보

## 전교원이 절도

원적을 강원도 인제군에 두고 부내 청엽정 사립 영명학교 교원 김철수(26)는 금년 4월 24일까지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다가 학교경비의 부족으로 그 학교에서 사직하고 부내 원정 금광학교에 교원으로 취직하려고 교섭하였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못하므로 지난 24일에는 악의를 일으키며 자기의 트렁크를 들고 삼월백화점에 들어가서 점원의 눈을 피하여 양복 기타 물품 100여원 어치를 집어넣고 나오려다가 드디어 점원에게 들켜 본정서로 넘어가서 방금 취조를 받고있다 한다.

先生無責任에奮激  
同休曁斷行  
麟蹄瑞和小校不祥事

【인제】 인제군 서화면 심상소학교 5, 6학년생도들은 지난 21일 동맹휴학을 단행하였고 일반 학부모들도 학교당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 자세한 것을 들건대 지난 18일 동교 안 선생이 5, 6학년을 데리고 내금강까지 수학여행을 갔다오는 도중 생도들을 먼저가라고 하고 자기는 무슨 일인지 뒤떨어졌다가 트럭을 타고 오고 생도들은 종일 도로로 걸어오다가 피곤하여 중간에서 숙박했는데 선생이 여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숙박료도 지불치 못하고 주인에게 겨우 사정하여 후일 지불하기로 하고 오게되었다는 이유로 생도들은 분개하여 그런 무책임한 선생은 도저히 그냥 둘수 없다고 그와 같이 동맹휴학을 하게된 것이라고 한다.

百貨店巡禮의  
가방 가진 殊常漢

現據邑警署 緝獲盜賊

【인제】 인제군 서화면 남북리에 본적을 두고 일정한 주소가 없는 전 부내 보통학교 교원 김철수(26)는 지난 4월 24일 부내 청엽정 1정목 모사립학교 교원으로 있는데 월급이 적어 생활기 곤란하여 부내 원정 모 사립교사로 전직하기로 교섭이 성립되었으나 전기 재직교의 반대로 뜻대로 되지않아 실직케 되었다 한다. 생활에 곤란을 느낀 그는 생각다 못하여 지난 23일 오전11시경 자기 트렁크를 가지고 본정 삼월 3층 양복점에서 점원의 한눈과는 틈을 타서 시가 40여원짜리 모닝코트 한 벌과 50원짜리 양복 한 벌을 훔쳐 트렁크 속에 넣고 유유히 나오다가 문간에서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다 한다.

前敎員이 劫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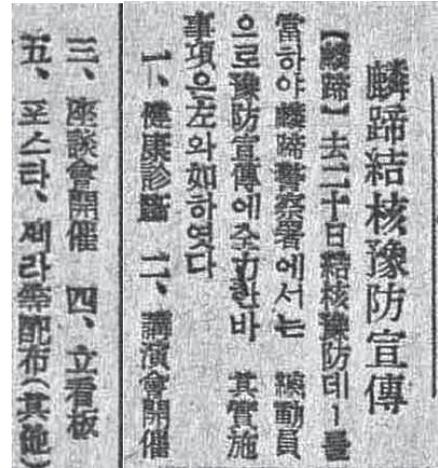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서화면 남북리에 본적을 두고 일정한 주소가 없는 전 부내 보통학교 교원 김철수(26)는 지난 4월 24일 부내 청엽정 1정목 모사립학교 교원으로 있는데 월급이 적어 생활기 곤란하여 부내 원정 모 사립교사로 전직하기로 교섭이 성립되었으나 전기 재직교의 반대로 뜻대로 되지않아 실직케 되었다 한다. 생활에 곤란을 느낀 그는 생각다 못하여 지난 23일 오전11시경 자기 트렁크를 가지고 본정 삼월 3층 양복점에서 점원의 한눈과는 틈을 타서 시가 40여원짜리 모닝코트 한 벌과 50원짜리 양복 한 벌을 훔쳐 트렁크 속에 넣고 유유히 나오다가 문간에서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다 한다.

1938-05-26-03-05

### 매일신보

#### 인제 결핵 예방 선전

【인제】 지난 20일 결핵예방데이를 당하여 인제경찰서에서는 총동원으로 예방선전에 전력하여 그 실시 사항은 좌와 같다.  
 1. 건강진단 2. 강연회 개최 3. 좌담회 개최 4. 입간판 5. 포스터 전단 등 살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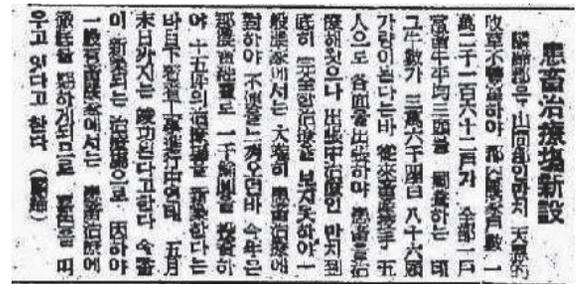


1938-05-29-06-08

### 동아일보

#### 가축병 치료장 신설

【인제】 인제군은 산간군인만치 천혜적 방초가 끊이지 않아 군내 농가호수 12,612호가 전부 1호당 축우 평균 3마리를 사양하는데 그 소마리수가 36,486마리가량 된다는데 종래 축산기수 5인으로 각면을 출장하여 가축병을 치료해왔으나 출장 중 치료인만큼 도저히 완전한 치료를 보지 못하여 일반농가에서는 대단히 환축치료에 대하여 불편을 느껴오더니 금년은 군농회 경비로 1,000여원을 투자하여 15평의 치료장을 신축한다는데 방금 착공 공사 진행 중인데 5월 말일까지는 준공된다고 한다. 금번이 신축되는 치료장으로 인하여 일반 유축농가에서는 가축병치료에 철저를 기하게 되므로 희색을 띠우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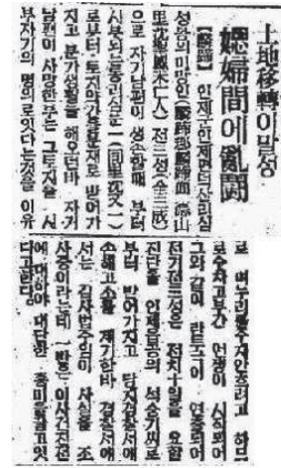


1938-06-04-04-08

### 동아일보

#### 토지 이전이 말썽, 시부간에 난투

【인제】 인제군 인제면 덕산리 심성봉의 미망인 전삼성으로 자기 남편이 생존할 때부터 시부되는 동리 심문일로부터 토지 약간을 분재로 받아가지고 분가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그 토지를 시부 자기의 명의로 있다는 것을 이유로 며느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므로 수차 고부간 언쟁이 시작되어 그와같이 난투극이 연출되어 전기 전삼성은 전치 10일을 요할 진단을 인제읍 공의 석송기씨로부터 받아가지고 인제경찰서에 손해 고소를 제기하여 경찰서에서는 김 사법주임이 사실을 조사 중이러는데 일반은 이 사건 진전에 대하여 대단한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한다.



1938-06-04-04-10

### 동아일보

#### 무산농가를 위하여 소유 임야 제공 인제 장동순씨 특지

【인제】 인제군 남면 어른리 무산농가들은 매년 면소유 임야에서 녹비(꿀)를 채취하여 1년 농사를 경영할 뿐이요 기타 금비 등은 경제 관계로 살 생각도 먹지 못하는 처지인데 금년은 군당국으로부터 자기 소유 산 이외에는 절대로 녹비를 채취치 못하게 엄중한 단속이 있는 관계상 임야를 소유치 못한 농가 50여호는 녹비를 채취치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금년농사를 짓지 못하겠다고 비명에 울고있는데 동리 유지 장동순씨는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기 소유산 40여정보를 내놓고 일반 무산농가에게 녹비를 제공하여 금년 농사에는 하등 지장이 없이 짓겠다고 하며 장씨의 자선심에 대하여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8-06-07-03-05

### 매일신보

#### 강원도의 인구증가율 매년 1만2,000인 총인구는 152만 9,000여인 정선, 영월만은 감소

【춘천】 강원도의 기존 10개년간 호수 및 인구의 1개년 평균 증가율을 조사하여 보면 호수에 있어 매년 4,272호의 증가이고 인구는 매년 12,247인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는데 현재의 총인구는 1,512,971인으로 이상의 증가율로 향후 30개년의 증가 인구를 전망해본다면 실로 367,410인이 증가될 것으로 강원도 인구의 팽창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선은 매년 420인 영월은 598인 평균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각군별 1개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는 감)

군명	호수증감	인구증감	군명	호수증감	인구증감
춘천	218	1,020	인제	164	783
양구	△76	360	회양	168	709
통천	164	638	고성	484	1,420
양양	276	1,104	강릉	482	2,521
삼척	375	1,129	울진	160	659
정선	87	△420	평창	186	1,038
영월	73	△598	원주	68	687
횡성	327	1,818	홍천	267	1,254
화천	108	494	김화	256	1,118
철원	382	1,812	평강	376	2,647
이천	207	1,095			
계	4,272	12,247			

無山農家爲하여  
所有林野提供  
麟蹄張東淳氏特志

【麟蹄】 인제군 남면 어른리 무산농가들은 매년 면소유 임야에서 녹비(꿀)를 채취하여 1년 농사를 경영할 뿐이요 기타 금비 등은 경제 관계로 살 생각도 먹지 못하는 처지인데 금년은 군당국으로부터 자기 소유 산 이외에는 절대로 녹비를 채취치 못하게 엄중한 단속이 있는 관계상 임야를 소유치 못한 농가 50여호는 녹비를 채취치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금년농사를 짓지 못하겠다고 비명에 울고있는데 동리 유지 장동순씨는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기 소유산 40여정보를 내놓고 일반 무산농가에게 녹비를 제공하여 금년 농사에는 하등 지장이 없이 짓겠다고 하며 장씨의 자선심에 대하여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江原道의 人口增加率  
每年一萬二千人  
總人口七十五萬九千餘人  
旌善, 寧越만은 減少

進 突破 萬圓

郡名	戶數	人口	增加率
春川	1,111	11,111	△100%
陽谷	1,111	11,111	△100%
通川	1,111	11,111	△100%
襄陽	1,111	11,111	△100%
原州	1,111	11,111	△100%
寧越	1,111	11,111	△100%
旌善	1,111	11,111	△100%
洪川	1,111	11,111	△100%
橫城	1,111	11,111	△100%
靈巖	1,111	11,111	△100%
正善	1,111	11,111	△100%
寧越	1,111	11,111	△100%
原州	1,111	11,111	△100%
襄陽	1,111	11,111	△100%
通川	1,111	11,111	△100%
陽谷	1,111	11,111	△100%
春川	1,111	11,111	△100%

1938-06-10-03-08

### 매일신보

### 강원도 이발 시험 합격자 발표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 4월 및 5월에 도청에서 이발시험과 이발 학설시험을 실시하였는데 8일 좌와 같이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발시험합격자(수험번호순) \*인제 발취, 조규동(인제)

1938-06-10-06-07

### 동아일보

### 인제군 면작 발아 성적 양호

인제군에서는 지난번 군농회원이 총출동하여 면화 파종에 적극 노력한 결과 지금은 발아 성적이 양호하다는데 이대로 개화기까지 성적이 계속한다면 금년은 예정 수량은 무난히 돌파하리라고 예측하여 일반 농업자와 지도당국자들은 자만하고 있다 한다. 【인제】

1938-06-12-03-05

### 매일신보

### 강원춘견 공판 출회고 34만관 예상, 4등견 이상만도 29만8천석

【춘천】 강원도의 금년 춘잠견 공동판매 출회 예상고를 도농무과의 조사에 의하여 보면 4등견 이상이 29만8,100관 등외견 이하 4만3,000관 합34만1,100관이라는데 각군별로 출회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잠견 공동 출회 예상

군별	4등견이상(관)	등외견이하(관)	합(관)
춘천	20,200	3,300	23,500
인제	23,000	2,900	25,900
양구	17,550	1,950	19,500
회양	10,000	1,000	11,000
통천	4,000	500	4,500
고성	5,630	870	6,500
양양	14,700	1,400	16,100
강릉	13,500	1,000	11,150
삼척	13,600	1,600	15,100
울진	8,300	7,000	90,000
정선	20,000	1,600	21,600
평창	21,400	3,800	25,200
영월	15,000	5,200	20,200
원주	17,000	3,000	20,000
횡성	21,500	5,600	27,000
홍천	20,120	1,880	22,000
화천	12,350	1,900	22,000
김화	16,200	2,200	18,400
철원	60,000	6,000	66,000
평강	75,000	1,100	86,000
이천	14,000	1,000	15,000
계	298,100	43,000	341,000

**江原理髮試驗 合格者發表**

五月五日 江原理髮試驗 合格者發表表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李相文 (江原)

**麟蹄郡棉作發**

**芽成績良好**

麟蹄郡에서는 通曉郡農會員이 總出動하여 棉花播種에 勵精努力한 결과 成績은 異常히 양호하며 今年는 豫定한 수량에 達할 수 있을 것으로 豫定한다.

출회고 34만1100관 예상, 4등견 이상만도 29만8천석

출회고 34만1100관 예상, 4등견 이상만도 29만8천석

**江原春繭共販出廻高**

**三十四萬貫豫想**

四等繭以上單豆廿九萬八千石

江原省의 繭產 共販出廻高가 豫想 三十四萬貫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江原省의 繭產 共販出廻高가 豫想 三十四萬貫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江原省의 繭產 共販出廻高가 豫想 三十四萬貫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938-06-14-05-05

### 동아일보

#### 인제

인제군에서는 산미 개량과 다수확을 목표로 하고 방금 논벼 이앙기를 계기로 군수 주임 계원 이하 군직원 및 농회 직원을 총동원시켜 지도에 매진하는데 착착 실행되어 방금 전면적에 비하여 37% 가량이 이앙되었는데 전부가 다 정조식이라고 한다.

1938-06-17-03-05

### 매일신보

총후의 근로보국 영세 저축 1만7천원 지난번 실시한 1주간 계획 동원된 인원만 16만여명 강원도에 인식 철저

【춘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강원도의 국민정신 총동원 총후보국주간의 실천 성적을 도에서 집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실시 부락이 4,143부락에 동원된 인원이 실로 16만9,912인에 달하였는데 주간 중 근로 작업에 의하여 소득 수입에서 저축된 것이 현금으로 1만7,609원44전이며 현물 즉 곡류 저축이 35석 9두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제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축성적 \*인제군 발취

▲인제 207부락 7,345인 721원57전

1938-06-18-05-08

### 동아일보

#### 각지 춘건공판 인제

인제군에서는 각면을 통하여 용수의 유택으로 이앙이 순조로 되어 간다는데 방금 천수답에 제한 외에 보통답은 앞으로 약 10일간이면 전부 이앙이 되리라는데 일반농가에서는 희색을 띠우고 이앙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인제】

1938-06-23-04-07

### 동아일보

#### 인제면장 회의 개최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번 군수회의 사항을 전부 지시하는 등 총독부 방침인 각도 해당된 총후 국민에 대한 저축장려와 타합 등이 있었다고 한다.

▲麟蹄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國報勞勤의後統 零細貯蓄萬七千圓 江原道에 認識徹底 動員人員 16萬餘名

麟蹄 國報部에서 各面을 通하여 用水의 價廉으로 移換이 圖로 되어 간다는데 巨下水 稻...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各地春繭共販 麟蹄 國報部에서 各面을 通하여 用水의 價廉으로 移換이 圖로 되어 간다는데 巨下水 稻...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麟蹄面長會議開催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國報部에서는 產米 改定野 冬穀... 巨下水 稻...

1938-06-23-04-07

### 동아일보

#### 용수 흡족으로 인제 이앙 완료

【인제】 인제군에는 비가 자주 와서 군내 어디를 물론하고 용수가 윤택하여 이앙이 98% 가량이다. 지난 18일까지에 완료되었다는데 예년에 비하면 약 30% 가량이 더 이앙되었다고 한다.

1938-6-24-06-11

### 동아일보

#### 산업잡신 인제

▲인제군은 양잠시대대로 매년 농가에서는 양잠을 유일무이한 부업으로 알고 적극적 장려하여 농작물의 수입이 다소 줄어도 양잠의 수입으로 보충해오더니 금년은 건가가 예년에 비하여 저렴한 관계상 농가 경제가 극히 궁하다고 한다.

1. 상족 개량분 우등 3.42전 특등 3.1전
2. 보통 우등 3.36전 특등 3.10전 1등 2.84전 2등 2.58전 3등 2.32전 4등 2.07전 등의 1.81전 설상 1.42전 설하 0.71전 옥상 1.42전 옥하 0.72전 이상 6●원 20일 현재 가격

1938-06-27-04-04

### 동아일보

#### 인제, 기린간 공사 기성 조직코 맹활동

【인제】 인제읍과 기린면간 3등도로 개착공사에 대하여는 심유년을 두고 역대 지사와 내무부장 토목과장에게 진정을 해왔으나 도무지 실현을 보지못하고 우울상태로 지내왔는데 지난 23일은 군내 유지가 전부 소집되어 만반으로 타합한 결과 도로비로 1만원을 거두어 토목비로 기부케한 후 적극적 운동을 하여 기어이 실현을 보고자 하는 한편 기성회를 조직하고 부단의 노력을 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기성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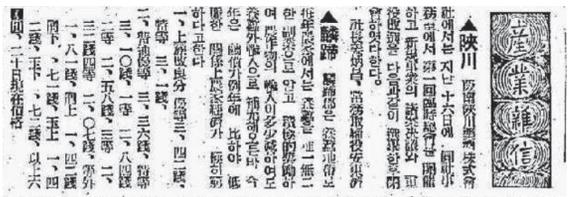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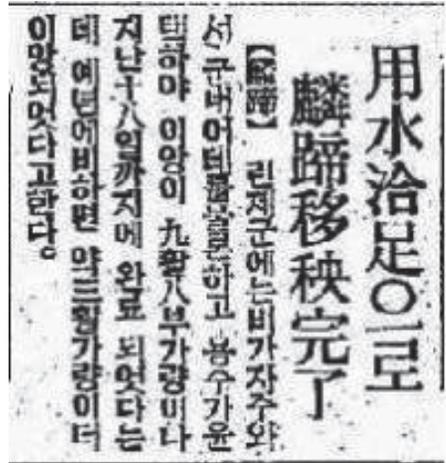
기성회장 이종형 부회장 김영제 이사 군청 토목계원 고문 인제경찰서장, 인제군수

1938-06-30-06-04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서 면작비배 관리 실시

인제군농회에서는 농가의 유일무이한 면화재배에 전력지도하는 중 더욱이 요사이의 비배관리주관을 설치하고 방금 직원 총동원으로 비배관리주관에 지도 철저를 기하는 중이라고 한다.



1938-07-01-03-03

### 매일신보

#### 인제군 면장회의

【춘천】 인제군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면장회의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김 군수 통제하에 각기 사항을 열심히 심의결정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국민정신충동원저축보국강조주간에 개최된 것인만큼 남 총독의 5개 정강을 부연강조하였음은 물론 자원증강 소비절약 근검저축의 3대 목표를 강조하는 등 비상히 긴장한 가운데 56건의 방대한 지시사항과 기타 협의사항을 원만히 심의하였다고 한다.

1938-07-01-04-08

### 동아일보

#### 기린 상남간이교 공립소교 승격

【인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간이학교는 금번 공립소학교로 승격하고, 원간이학교는 기린면 산암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립하여 방금 착착 준비 중인데 불원간 인가될 모양이며 실현된다면 기린면 면리민들의 열심히 자진기부한 금액도 금번에는 광채있게 쓸 것이요 따라서 운동의 고단한 땀을 씻는 동시에 조석으로 귀여운 아동들의 배움과 유희도 볼 것이므로 동민들은 기쁨을 마지않는다고 한다.

1938-07-01-04-09

### 동아일보

#### 간이학교 신설

【인제】 인제군은 산간지대로서 1면 1교는 되었으나 아직도 음지에 학령아동들은 학교가 어디있는지 방향도 모르고 배우기에 굶주림을 보고 일반은 1면 2교로 실시코자 당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중 다행히 그대신 우선 간이학교를 설립하기로 되어 각면에 간이학교가 되고 금번은 또다시 인제면 하추리추동에 간이학교가 신설케되어 방금 개교준비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1938-07-04-04-07

### 매일신보

#### 인제군 면장회의

【인제】 인제군에서는 총후군민 보국정신의 강화를 목적으로 군치를 쇠신코자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회의실에서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신궁대마 반포 보급, 면리원 대우 개선, 납세 성적 거양, 중일전쟁에 대한 민심 긴장 환기, 군사후원연맹의 활동 협조, 노무 수급 조정 등 제 사항을 지시하였다.

麟蹄郡面長會議  
【泰川】麟蹄郡에서는 去二十二日(七月二十四日)까지三日間日親으로面長會議郡廳會議室에서開催하였는데金郡守統政下에各面事項을熱心히會議決定하였다한다 그面長會議는國民精神總動員時

麟蹄上南簡易校  
公立小校昇格  
【國語】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간이학교는 금번 공립소학교로 승격하고 원간이학교는 기린면 산암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립하여 방금 착착 준비 중인데 실현된다면 기린면 면리민들의 열심히 자진기부한 금액도 금번에는 광채있게 쓸 것이요 따라서 운동의 고단한 땀을 씻는 동시에 조석으로 귀여운 아동들의 배움과 유희도 볼 것이므로 동민들은 기쁨을 마지않는다고 한다.

簡易學校新設  
【國語】인제군 기린면 하추리추동에 간이학교가 신설케되어 방금 개교준비에 분망 중이라고 한다.

麟蹄郡面長會議  
【麟蹄】麟蹄郡에서는 統後郡民進國精神의強化를目的으로郡治刷新新코져去月二十一日(七月二十三)日外三日間에各面의面長會議室에서面長會議를開催하고 神宮大麻頒布普及面吏員待遇改選 納稅成績擧揚 事變에對한民心緊張喚起 軍事後援聯盟의活動協助 勞務需給調整等諸事項을指示하였다

1938-07-07-04-03

### 매일신보

#### 맥경지 면적 인제서 확장

【인제】 인제군에서는 밀 경작면적을 올가을부터 200정보를 확충할 계획으로 그의 소용되는 종자 100석을 금융조합의 자금을 융통하여 군농회로부터 공동구입 알선을 하여 각인별로 확장 면적에 적당한 종자를 유상배급하겠다고 한다.

1938-07-07-04-04

### 매일신보

#### 임산 녹비 채취 인제에서 금지

【인제】 인제군에서는 일반농민들이 논에 임산 녹비만을 전용하므로 퇴비생산에 게으른 폐습을 생하고 또는 임상을 황폐케 한다 하여 이 폐습을 개혁코자 금년에 녹비채취허가일 수십일간을 내년부터는 54일로 줄이고 그 다음해 봄에는 3일로, 또 그 다음년에 1941년에는 2일로 줄여 1942년에는 전폐할 계획이라고 한다.

1938-07-09-04-08

### 매일신보

#### 인제군민들의 시국인식 철저

【인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김종운 외 5명은 군 당국자의 시국에 대한 강연과 좌담회며 신문상 보도 등으로 인하여 황국의 감사한 뜻에 감격되어 자기 친척끼리 협의하여 가지고 지난 음력 3월 10일경부터 매일 조석때마다 가족 1인에 한순가락 쌀을 저축하여 국방헌금을 할 계획으로 실행중이었는데 제작일 저미를 팔아가지고 당해 경찰관 주재소에 출두하여 국방헌금하여 달라고 금4원 50전을 납부하였는데 그 실행한 사람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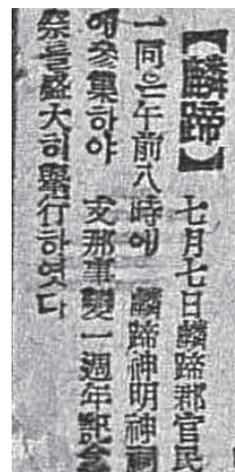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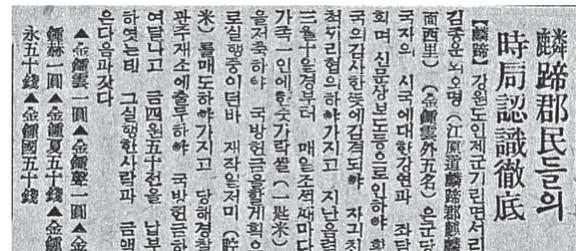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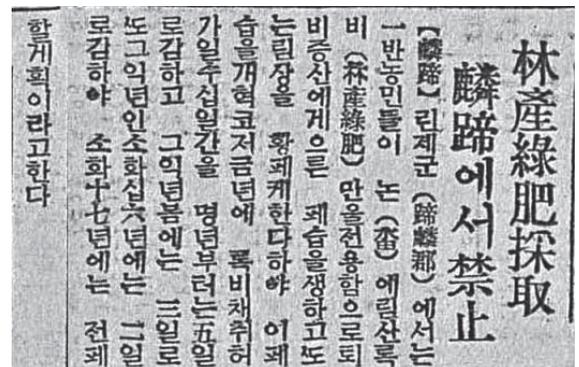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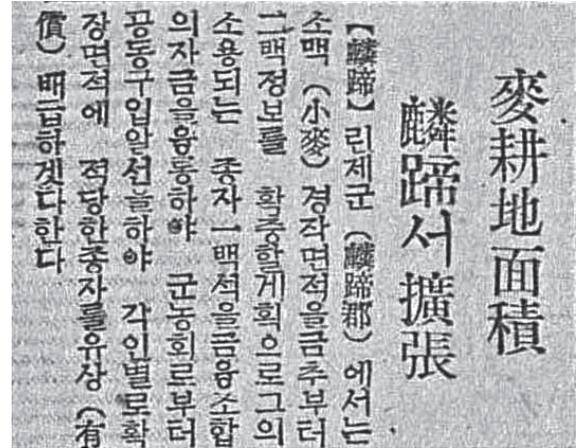
- ▲김종운 1원 ▲김중성 1원 ▲김중혁 1원 ▲김중하 50전 ▲김영오 10전 ▲김중국 50전

1938-07-10-03-02

### 매일신보

#### 7월 7일

【인제】 7월 7일 인제군관민 일동은 오전8시에 인제신명신사에 참집하여 중일전쟁 1주년 기념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1938-07-10-03-06

### 매일신보

#### 인제농회 부회장 김기선씨 취임

【인제】 금반 새로 취임한 인제군농회 부회장 김기선씨는 방금 45세의 장년으로 군내 유일한 명망가이며 성격이 온순하고 사업에 열중하는 분으로 부회장 취임에 일반 군민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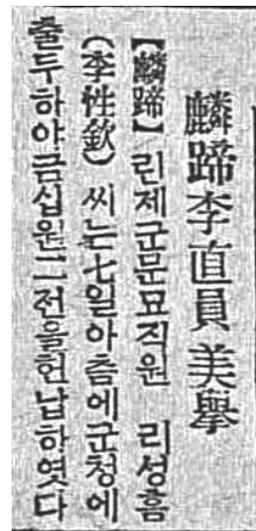


1938-07-10-04-07

### 매일신보

#### 인제 이 직원 미거

【인제】 인제군문묘 직원 이성흠씨는 7일 아침에 군청에 출두하여 금 10원2전을 헌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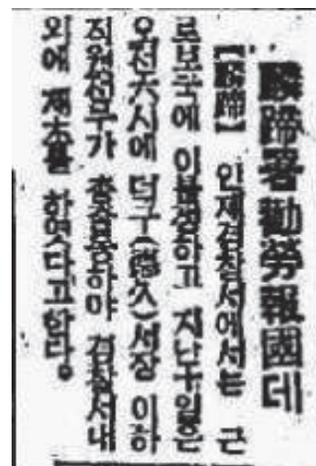


1938-07-14-04-09

### 동아일보

#### 인제 남소교 부형회

【인제】 인제남소학교에서는 월중 행사로 매월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학교당국과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교수하는 실지도 보이고 아동지도 방법 등의 견습까지 시켜오더니 더욱이 이달은 하기휴가 있는만큼 더 중요한 타합을 하기 위하여 지난 12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학생들의 학예회 연습을 시행하여 학부형을 다소 위안시키는 한편 학예품 장려를 한다하며 오후 4시부터는 학교 후원회가 있는 후 무사 폐회되었다고 한다.



1938-07-14-04-11

### 동아일보

#### 인제경찰서 근로보국데이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근로보국에 이를 정하고 지난 10일은 오전 6시에 덕구 서장 이하 직원 전부가 총출동하여 경찰서 내외에 제초를 하였다고 한다.

1938-07-20-03-05

### 매일신보

## 강원 춘견 공매 부진 31만여관에 86만여원 작년보다 모두 격감

【춘천】 강원도의 춘견 공동 판매는 지난 15일로써 전부 종료되어 결산을 보게 되었는데 출회 총수량은 319,628관으로 금액은 866,272원에 이르렀다. 전년 공동 판매수량 355,704관과 금액 1,355,278원에 비교하여 보면 수량 36,076관 금액 48,906원의 감소라는데 각군별 출회고와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견공판수량과 금액

군별	공판출회수량	공판금액
춘천	31,884관	76,100원
인제	25,315	61,028

(중략)

1938-07-24-03-02

### 매일신보

## 2,100여대에 대원 11만7천, 각군 모두 계속 결성 중

【춘천】 별항보도=강원서는 중일전쟁 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160만 도민으로 하여금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여 국가 관념이 함양과 내선일치의 심화를 도케함은 물론 근로 애호, 인고단련, 희생봉의 정신을 함양케하여 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을 가하여 체력의 증진과 지방개발에 투자케 하고자 만12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를 참가케 할 것을 본지로 하여 부락에 있는 청년단, 갱생공여부락, 갱생지도부락, 기타 각 관공서,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근로보국대를 결성케하여 원칙적으로 황폐지 개간, 식림식수, 도로, 하천 등의 개수, 지소 또는 용배수로의 청소, 신원의 청소 등 봉사작업을 실행케하여 충후생업보국의 정신을 부식시키리라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지방민의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만큼 각지 모두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 지난 10일 현재로 결성된 보국대만도 2,137대에 대원수가 11만 7,690명에 달하였다는데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후에도 결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군별	대수(대)	대원수(명)	군별	대수(대)	대원수(명)
춘천	32	1,250	인제	96	775
양구	27	1,703	회양	184	2,856
통천	117	15,368	고성	90	8,578
양양	88	4,152	강릉	167	13,481
삼척	198	12,438	울진	219	9,585
정선	5	242	평창	22	1,145
영월	128	10,287	원주	224	6,612
황성	116	5,818	홍천	135	6,273
황천	80	4,225	김화	59	2,457
철원	59	2,417	평강	102	9,429
이천	29	599			
계	2,137	117,690			

## 江原春繭共販不振

### 卅一萬餘貫에 八十六萬餘圓

### 昨年보다모다激減

【춘천】 강원도 춘견 공동판매는 15일부로 전부 종료되어 결산을 보게 되었는데 출회 총수량은 319,628관으로 금액은 866,272원에 이르렀다. 전년 공동 판매수량 355,704관과 금액 1,355,278원에 비교하여 보면 수량 36,076관 금액 48,906원의 감소라는데 각군별 출회고와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출회수량(관)	출회금액(원)
춘천	31,884	76,100
인제	25,315	61,028
양구	27,000	70,000
통천	117,000	15,000
양양	88,000	4,000
삼척	198,000	12,000
정선	5,000	200
영월	128,000	10,000
황성	116,000	5,000
황천	80,000	4,000
철원	59,000	2,000
이천	29,000	600
계	2,137	117,690

## 二千百餘隊에

## 隊員十一萬七千

### 各郡모다繼續結成中

【춘천】 강원도 각군에서는 중일전쟁 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160만 도민으로 하여금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여 국가 관념이 함양과 내선일치의 심화를 도케함은 물론 근로 애호, 인고단련, 희생봉의 정신을 함양케하여 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을 가하여 체력의 증진과 지방개발에 투자케 하고자 만12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를 참가케 할 것을 본지로 하여 부락에 있는 청년단, 갱생공여부락, 갱생지도부락, 기타 각 관공서,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근로보국대를 결성케하여 원칙적으로 황폐지 개간, 식림식수, 도로, 하천 등의 개수, 지소 또는 용배수로의 청소, 신원의 청소 등 봉사작업을 실행케하여 충후생업보국의 정신을 부식시키리라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지방민의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만큼 각지 모두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 지난 10일 현재로 결성된 보국대만도 2,137대에 대원수가 11만 7,690명에 달하였다는데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후에도 결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군명	대수(대)	대원수(명)
춘천	32	1,250
양구	27	1,703
통천	117	15,368
양양	88	4,152
삼척	198	12,438
정선	5	242
영월	128	10,287
황성	116	5,818
황천	80	4,225
철원	59	2,417
이천	29	599
계	2,137	117,690

1938-07-27-04-03

### 동아일보

#### 천후의 순조로 인제풍년 예상

【인제】 인제군은 요사이 장마가 개이고 날마다 섭씨 38도 가까운 더위로 일반 농작물은 일취일장되어 초행만으로도 금년은 풍년이라고 하여 농촌민들은 격양가를 부르는 현상이라 한다.

1938-07-27-06-04

### 동아일보

####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밀 공판을 개시하였는데 보리 밀 발육기와 성숙기에 한발이 장림으로 인하여 수확이 감소됨인지 아직은 그다지 상황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1938-07-28-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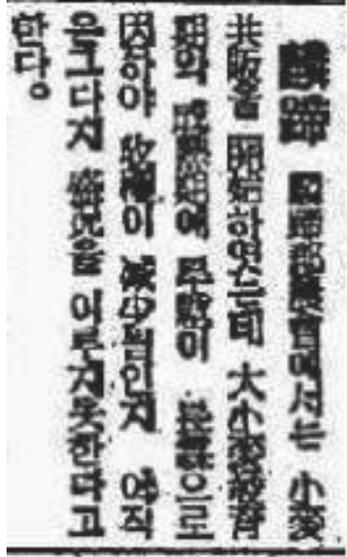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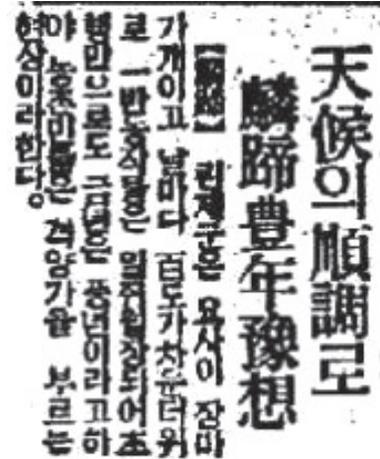
### 매일신보

#### 강원지사 이하 총동원 퇴비 증산을 독려 8월 하순 품평회 개최

【춘천】 퇴비의 증산과 건조의 채취는 농가 갱생상 가장 중요함은 물론 현하 시국에 처하여 이의 증산은 일층 중대성을 띠게 되었으므로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25일부 산업부장 명의로 관하 각 군수에게 통첩을 발하여 퇴비의 증산과 건조 채취에 대한 유감없기를 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각 지도기관은 면밀한 연계하에 총노력을 이점에 경주하여 지도 독려에 퇴비의 증제에 대하여 강원도 농사관계 기술원을 주체로 각 기술원이 상호 협력하여 그 형에 당해왔으나 금후는 축산 관계 기술원으로 하여금 지도의 주체가 되게 해가지고 퇴비 증제와 건조 채취를 철저독려하는 일면 돈피 등 모피 공출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리라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내 8월 하순이래 도농회에서는 이의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 우열은 지도자의 노력여하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노력을 불하라는 것인데 지도 기관의 지도 독려 상황을 시찰 조사키 위하여 김지사를 위시 내무 산업 양부장 외 관계직원의 총동원으로 지도 독려를 격려하기로 되었다 한다.

◇퇴비증제 독려출발 예정 ▲춘천 대룡기사 ▲인제 대룡기사 (중략)



江原知事以下總動員 堆肥増産을 督勵 八月下旬品評會開催

【춘천】 퇴비증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강원도에서는, 이의 증산을 일층 중대성을 띠게 되었으므로,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25일부 산업부장 명의로 관하 각 군수에게 통첩을 발하여 퇴비의 증산과 건조 채취에 대한 유감없기를 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각 지도기관은 면밀한 연계하에 총노력을 이점에 경주하여 지도 독려에 퇴비의 증제에 대하여 강원도 농사관계 기술원을 주체로 각 기술원이 상호 협력하여 그 형에 당해왔으나 금후는 축산 관계 기술원으로 하여금 지도의 주체가 되게 해가지고 퇴비 증제와 건조 채취를 철저독려하는 일면 돈피 등 모피 공출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리라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내 8월 하순이래 도농회에서는 이의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 우열은 지도자의 노력여하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노력을 불하라는 것인데 지도 기관의 지도 독려 상황을 시찰 조사키 위하여 김지사를 위시 내무 산업 양부장 외 관계직원의 총동원으로 지도 독려를 격려하기로 되었다 한다.

◇퇴비증제 독려출발 예정 ▲춘천 대룡기사 ▲인제 대룡기사 (중략)

1938-07-28-04-01

### 매일신보

## 공출할 돼지가죽 7천여매 각군 배정 수량 결정, 7월부터 5개월간 제1회로 강원모피보국운동

【춘천】 기보 강원도에서는 군수품으로서 새로 등장하게 되어 대량으로 수요하게 되는 돼지가죽의 공출을 유감없게 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각군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우선 제1회로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공출할 매수만도 7,350매로 확정된 각군의 할당 매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춘천 540매 ▲인제 240매 ▲양구 250매 ▲회양 575매 ▲통천 395매 ▲고성 155매 ▲양양 120매 ▲강릉 180매 ▲삼척 90매 ▲울진 70매 (중략) ▲계 7,350매

1938-07-30-03-06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각군에 간이 기상관측소 금년 내에 10개소 설치

【춘천】 강원도에서는 재해의 미연방지 또는 복구 등으로 1937년 8월부터 3개년계획으로 도내 20개소에 간이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기로 되었는데 금년내에 좌기 10개소에 설치하여 3개년 계획이던 것을 금년에 완료시키기로 되었다는데 각 관측소에는 관측원을 배치하여 기상관측에 완벽을 기하리라 한다.

◇금년 중 간이관측소 설치 위치 (중략) ▲인제군 서화주재소 (중략)

1938-07-30-03-09

###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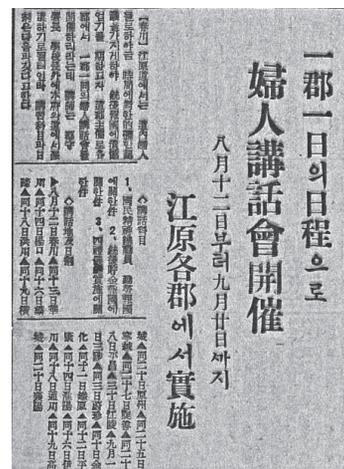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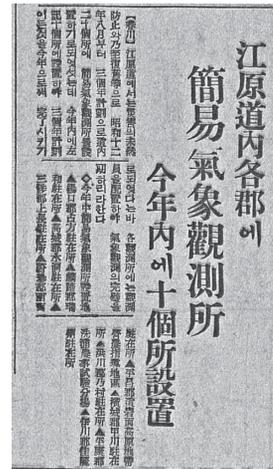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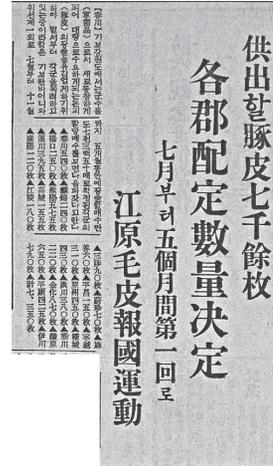
## 1군 1일의 일정으로 부인강화회 개최 8월 12일부터 9월 20일 까지 강원 각군에서 실시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부인들로 하여금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여 총후 보국에 귀감 얻기를 기하고자 도 군 주최로 각군에서 1군 1회의 부인강화회를 개최하려는데 강사는 군수 서장 학교장 외에 본부와 도에서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강습과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강습과목

1.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에 관한 건
2. 총후 저금보국에 관한 건
3. 4례의범 실시에 관한 건

◇ 강습지와 일정 ▲8월 12일 춘천 ▲동13일 화천 ▲동 14일 양구 ▲동 16일 인제 (중략)



1938-07-31-03-04

### 매일신보

### 강원도 사령

\*인제군 발취

(인제서장) 도경부 덕구정중 보 횡성경찰서장

(삼척) 도경부보 소위정8위 굴전진남 임 도경부 보 인제경찰서장

1938-08-02-03-01

### 매일신보

### 주재소 중심 좌담회에 출석자 13만명 개최회수 실로 3,370회 강원의 시국인식 보급

【춘천】 사변 이래 강원도에서는 도민에게 대하여 적확한 시국인식을 가지게 하여 장기항전에 대한 각오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충후보 국운동에 수많은 유혹없기를 기하고자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의 철저를 기해왔는데 특히 경찰관 주재소를 중심으로 시국좌담회는 그 효과가 현저하여 최대한 실적을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 29일 현재 개최 현황을 보면 3,370회에 참석인원이 13만5,101명에 달하였는데 각군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개최회수(회)	참석 인원(명)	군별 개최회수(회)	참석 인원(명)		
춘천	182	6,900	인제	169	4,834
양구	152	5,300	회양	258	13,147
통천	187	7,094	고성	97	2,289
양양	89	3,331	강릉	275	10,559
삼척	136	5,552	울진	196	9,197
정선	68	2,726	평창	118	3,922
영월	70	2,286	원주	174	5,543
횡성	82	2,916	홍천	99	3,375
화천	85	2,739	김화	183	6,217
철원	152	5,203	평강	80	3,037
이천	518	28,545			
계	3,370	135,101			

1938-08-04-03-09

### 매일신보

### 홍천주조조합 창립

【홍천】 다년 현안으로 있는 조선주류 제조자 공조기관인 비로소 지난 6일에 제령으로 발표를 보아 홍천세무서 관내(홍천, 인제) 조선주조업자는 주조협회를 해산하고 7월 30일 새로이 홍천조선주조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과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좌와 같이 임원을 선임하였다. 조합장 박한표 이사 지전등삼 평의원 김용일 외 7명

**江原道詳告**  
 (一) 總務部 長官 李 奎 一  
 (二) 總務部 次官 李 奎 一  
 (三)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四)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五)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六)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七)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八)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九)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一)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二)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三)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四)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五)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六)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七)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八)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十九)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二十) 總務部 參事官 李 奎 一

**駐在所中心座談會**  
**出席者十三萬名**  
 開催回数實三十三百七十回  
**江原の時局認識普及**

【春川】 時局認識普及會は、駐在所を中心として、各地で開催され、出席者は十三萬名に達した。開催回数も三十三百七十回に達した。この普及會は、時局の認識を普及し、國民の士氣を鼓舞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各地で開催されている。出席者は、駐在所の職員、警察官、民衆など、幅広い層から集まっている。この普及會は、時局の認識を普及し、國民の士氣を鼓舞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各地で開催されている。出席者は、駐在所の職員、警察官、民衆など、幅広い層から集まっている。

**洪川酒造組合創立**  
 〔洪川〕 多年懸案으로 있던 朝鮮酒製造者共助機關인 비로소 지난 6일에 制令으로 發布를 보아 洪川稅務署管內(洪川、麟蹄) 朝鮮酒造業者는 酒造協會를解散하고 七月二十日新히 洪川朝鮮酒造組合創立總會를 열고 組合定款과 其他重要事項을議決하고 左와如히 役員을選任하였다

組合長 朴漢杓 理事 池田勝  
 三評議員 金勇二 外七名

1938-08-04-06-01

### 동아일보

## 400여년 역사 가진 합강정의 절승! 사시에 시인 묵객 답지

인제의 합강정은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에 모 군수가 기린면과 서화면서 흘러오는 물이 합수됨을 기념키 위하여 정자를 건축하고 당시 한학자로 유명하던 김수증씨(호 곡운)의 신필로 합강정이라는 현판을 써붙인 이래 군수 정숙조, 박종영 시대에 수리하였으나 오래된 관개로 퇴락함을 면치 못하여 1937년 현 양양군수 전재우씨 당시에 인제면장 이종익씨와 지방유지의 발기로 부근으로 이전하였는데 합강정은 춘하추동 사시풍경이 절승할 뿐 아니라 더욱이 고결한 월야조망할 때는 마치 일쪽면을 편듯하며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수많은 잠수구와 백백장대에 한가이 어강을 메고 왕래하는 어부들을 볼 때에는 가위 승어금강이라는 문자가 나온다.

기타 명승지로 신라 때 창건된 백담사사와 그 경문에 오세암, 영시암, 원명암, 봉함암, 대승폭, 설악산, 냉천, 육각정, 기린 방동리 약수이다. 이 구적이 이곳의 장관인 동시에 누구나 한번 보고 다시 보기를 원할만한 승경이다. 그리고 냉천이란 약수가 있는데 요사이 여름철에는 냉욕하고 약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명을 돌파하는 것으로 이곳 명승 중에 하나이다.

1938-08-04-06-01

### 동아일보

## 목재산지 인제에 무진장의 대밀림, 앞날의 발전은 확실하다 콩과 봉밀도 유명

신라 경덕왕 16년(천평보 2년) 읍호를 조족현이라 칭(읍치 현 서화면 이포리)하였고 명종 8년(치승 2년) 춘주(춘천)에 속하여 서성현으로 개칭(읍치 현 서화면 서화리)하였다. 고려도 14년(원종 5년) 다시 조족현(읍치 현 인제면 남북리)으로 개칭하였으며 조선 태조 4년(응원 2년) 인제현으로 개칭(읍치 현 읍내)하였다가 개국 503년(1894년) 인제군으로 개칭되어 금일에 이르렀다.

그리고 면적은 139방리, 구획은 6개면에, 호수 조선 12,949호 인구 73,186, 일본인 45호 인구 145이다. 토지는 밭 32,601,778평 논 7,944,177평 대지 1,133,757평 임야 199,968정보 생산총괄적 수량 쌀 27,717석 보리 9,349석 조 26,403석 콩팥 29,893석 면화 70,288근 대마 68,604관 봉밀 9,322kg 견 206,406돈 감자 1,932,060관, 생우 15,895마리.

교육은 1면 1교 완성이며 1면 2교 실시로 군내 6개면에 1면 1교제는 벌써 완성되고 1면 2교제를 실시 중인데 서화면 장승교가 개방되고 기린면 상남교가 머지않아 개교예정이다

1. 공립심상소학교 82, 간이학교 6, 서당 13개 이다.

그리고 이곳은 삼림이 무성하여 가위 삼림지대의 칭호가 있어 도처에 초원산야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뿐이라 교통이 지편하고 천혜 풍부하니 더욱 앞날의 발전을 가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 봉밀이라면 전조선적으로 누구나 다 인상이 깊어졌다. 백담사봉밀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일개농부가 공



목에 봉소를 발견하고 이것을 사육하여 차차 세간에 봉밀의 성가가 넓혀오던 중 이왕직으로부터 사육장 여비를 받아 적극 장려한 적있어 매년 200관씩 이왕직에 헌납하여왔다. 그러던 중 모 서양인이 인천에 와서 살다가 이 봉밀의 종자를 갖다가 귀국 장려하여 지금은 이것을 개량종이라 칭한다. 이래 당업자간의 연구와 군농회 지도에 따라 지금은 품질이 양호하고 수익이 증가되어 약용품으로 전조선 어디를 물론하고 가지 않는 데가 없고 일본으로도 연중 주문이 쇄도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1938-08-04-06-01

**동아일보**

**약진 인제의 전모 소개관을 내면서 인제지국장 이종성**

인제군은 고래로 무진장의 삼림지대로서 도처에 천혜적 초원 산야가 벌어져 낙도를 건설함에 인간의 손을 기다리지 오래인 땅이다. 현시 자본문명의 바람이 골고루 이 땅까지 불어 교통지편하고 천혜 보고에 착안한 재벌들은 이런 쟁탈이 각축전을 시작하였고 세공민들이 산간 송하를 침복하여 방화개간하게 되니 그들이 칭 화전민이다. 이렇게 이땅도 어느덧 금일의 사회경제기구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인제의 사회는 교육계 실업계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심할 뿐이다. 어느 누가 앞날을 위하여 생각하고 걱정하는가?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시대의식과 협동의식이 부족함을 통탄하거나와 인제는 사회적으로 제반시설이 태부한 금일인만치 고식에서 적극적으로, 비겁에서 용진으로 우리가 해결지어야 할 건설해야할 긴급문제가 많지 않은가? 금번 불비한 소개관이나마 발행하여 지방일과 살림을 인식하고 검토하고 처고해서 문화 향상의 도에 향토발전에 자하여 행히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다. 끝으로 특히 필자가 군내 각지의 유지 역방에 있어서 무상한 애호를 주신 제위께 지상으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금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음으로 양으로 성원이 있기를 심축한다.

1938-08-04-06-02

**동아일보**

**온건 착실로 성공 문묘 직원 이성흠씨**

씨는 성품이 온유공검하고 강인평직하여 아무 사업이나 굴곡성이 적고 항상 평원하여 경제적 변태를 받은 것 없었다. 말하면 역경생활이 적었고 순경생활이 많은 이다. 인제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씨는 원만 미소의 온후로 선택이 아닌 때가 없으며 열정적 활동과 노력에 원만한 결과를 짓지않은 때가 없었다. 씨의 행적을 본다면 금일보다 명일의 기대가 많다. 건설한 활동에는 성공의 계단을 밟고야 말 것이다. 교화계의 중진으로 있어 활약하는지라 관민간의 사교계 화형을 짓고있는 중진적 인물이다.

1938-08-04-06-02

동아일보

지식 탁월한 상업가 선익상회지점 지배인 김동호씨

선익상회 지점은 명실이 한가지로 인제에 있어 규모의 광대한 대우역상이다. 인제읍 최요충지대를 점령하고 대자본으로 주단포목을 직수입하여 박리다매의 도매상으로 단연 사계의 대동맥적 임무를 하고 있다. 지배인 김동호씨는 50 미만의 장년 수완가로 유시로 상계에 진출하여 장차 조선유일의 대사업가를 목표로 하고 고심정력으로 건보 매진하여 성장하는 모양이 우리 상업계에 더욱 기대되며 상업조선의 명일을 장식할 유위인물이다.

1938-08-04-06-03

동아일보

간이저축 필요 인제군우편소장 석전춘철씨

자력갱생 농촌진흥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있는 체신사무의 진행상 전원이 일환이 되어 문자그대로 연중무휴의 헌신적 봉공을 하고 있는데 민중의 생활개선, 행복 증진을 위하여는 먼저 근검력을 제일의로 사수함이다. 고로 그 의미하에 당국에서는 특히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의 보급장려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차제인데 행히 여러분의 심심한 이해와 원조에 의하여 점차 건설한 발전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금번 인제소개관 발행의 중임을 지고 전심 활약하는 귀 지국에 대하여 쌍수를 들어 만강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이 지방 발전을 위하여 분투노력하심을 바랍니다.

1938-08-04-06-04

동아일보

인제군내에 원로 인제양조장 신덕휴씨

인제사회의 거성 신덕휴는 충남 출생 현 66세의 노구를 끌고 노당의 장하신 활동가이다. 씨는 구한국시대 탁지부 주사를 비롯하여 인천 감리서 관방주사, 해주 재무주사, 궁내부 참서, 중추원 의관 등 요직을 역임하고 수양차로 인제군에 이래한 지 어느덧 29개성상 그때의 인제 땅은 대감님 시절이니 지금의 읍내가 겨우 100여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하니 당시의 암흑시대를 가히 추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씨는 칠두칠미 이 땅을 개척하기에 심혈을 경주한 거장이니 그의 밝아온 반생은 오로지 형극이요 역투의 업적이거나 1930년 수해로 읍내가 전멸되었을 때도 일반을 위하여 사재를 투하여 읍내 이전을 도모하였다. 기타 공직으로도 인제금융조합장, 강원도평의회원 등을 역임한 후 양조계에 투족한지 어언간 십유여년 동안 칠전팔기의 분투로 금일의 성공을 이루어놓았는데 씨는 언제나 관대한 학자적 기풍을 가지고 있어 대인에 능화능용하고 경제적 두뇌가 명제하여 치가 치생에 또한 황범가이다. 어쨌든 씨는 인제사회의 원로나 노력의 강하여 많은 업적있기를 바란다.

知識卓越한 商業家  
善翼商會支店 支配人 金東濤氏



金東濤氏는 善翼商會支店의 支配人으로서 商業에 있어 知識과 實力을 具備한 卓越한 商業家이다. 善翼商會는 地方의 商業을 發達시키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기 위하여 設立된 商會이다. 金氏는 該商會의 支店을 支配하며 地方의 商業을 振興하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는 功績을 著하다. 金氏는 商業에 있어 知識과 實力을 具備한 卓越한 商業家이다. 善翼商會는 地方의 商業을 發達시키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기 위하여 設立된 商會이다. 金氏는 該商會의 支店을 支配하며 地方의 商業을 振興하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는 功績을 著하다. 金氏는 商業에 있어 知識과 實力을 具備한 卓越한 商業家이다.

簡易貯蓄必要  
儲蓄便所發行田春哲氏

田春哲氏는 地方의 商業을 振興하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기 위하여 設立된 商會의 支店을 支配하며 地方의 商業을 振興하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는 功績을 著하다. 田氏는 商業에 있어 知識과 實力을 具備한 卓越한 商業家이다. 善翼商會는 地方의 商業을 發達시키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기 위하여 設立된 商會이다. 田氏는 該商會의 支店을 支配하며 地方의 商業을 振興하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는 功績을 著하다. 田氏는 商業에 있어 知識과 實力을 具備한 卓越한 商業家이다.

麟蹄郡內에 元老  
麟蹄廳造場 申憲休氏



申憲休氏는 麟蹄郡內의 元老로써 地方의 商業을 發達시키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기 위하여 設立된 商會의 支店을 支配하며 地方의 商業을 振興하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는 功績을 著하다. 申氏는 商業에 있어 知識과 實力을 具備한 卓越한 商業家이다. 麟蹄廳造場은 地方의 商業을 發達시키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기 위하여 設立된 商會이다. 申氏는 該商會의 支店을 支配하며 地方의 商業을 振興하고 民衆의 福利을 增進하는 功績을 著하다. 申氏는 商業에 있어 知識과 實力을 具備한 卓越한 商業家이다.

1938-08-04-06-04

### 동아일보

#### 전도를 촉망 창신상점 이명록씨

씨는 흥천 출생으로 천성이 유순하고 풍모 또한 준수하여 일견 호인상을 주는 실업청년이다. 그 위에 민완을 가졌으므로 사업에 실패가 없다. 일찍이 고향인 흥천서 상업을 경영하다가 3년전에 이주하여 상업을 계속 경영하는 당년 29세의 소장으로서 그 장래를 촉망한다.

1938-08-04-06-04

### 동아일보

#### 정치적 수완가 인재면장 이중익씨

씨는 인재면 출생으로 정치적 수완에 정평있는 당년 44세의 장년신사이다. 씨는 일찍이 학교를 마치고 총독부 문서과에 근무하다가 가정상 형편으로 인재면 회계원으로 전직하여 면장을 보좌하는 일방면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한 것 있어 면민의 신망이 높던차 이 면장이 은퇴하자 그 후임으로 취임하니 총면민의 뜻에 오른 민선면장이다. 씨는 재임중 면내 도로완비, 위생시설, 면민의 부담 정리 등에 전력을 쓴다하니 인재면민의 숭경의 적 씨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외로 내로 힘쓰는 중인데 4,000원의 예산이 거의 달하게되어 금년중 착공할 예정이라 한다.

1938-08-04-06-04

### 동아일보

#### 후덕한 군자 향교장의 한국립씨

씨는 당년 59세의 노령으로 농촌에서 격양가를 부르는 후덕군자이다. 함남 정평군 귀림면 상풍리 출생으로 유시부터 한문을 전공하여 시와 문에 능한 분으로 전원생활에 도취하니 춘풍추우대월하서기도연명격을 찾고있다 하겠다. 농촌에서 군자의 풍으로 가도를 정비하고 자제교육에 충성하여 후인에게 모범을 주니 세태에 끌려가름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활교훈을 주고있다. 씨는 군내 유림의 추대로 인재문묘 장의 임을 띠고 유도에 열심정려하는 인물이다.

1938-08-04-06-05

### 동아일보

#### 대서업계 권위 사법서사 이중희씨

씨는 인재읍내 출생으로 사법서사에 종사하며 더욱 씨의 독특한 수완을 발휘하여 신속한 처리와 친절한 태도에 일반의 신망을 일신에 집중시키는 사계의 권위로 사법서사회 평의원, 사법서사회 감사, 인체체육협회 평의원 등 요직에 취하여 헌신적 노력하는 민첩한 활동가이니 장래가 기대된다.

**前途言囑望**  
 前通商李命祿氏  
 氏는 洪川田生。大荷이 齋殿하  
 고 風聲을 傳揚하여 一見好印  
 像을 주는 眞善美인이다. 그 우에  
 敬服할 가 志였으므로 事業에 失  
 敗가 없。말을 이 故稱한 洪川氏 年二十九歲 守正으로 그 精神을  
 他家를 稱譽한가 三年前에 遷居한다.

**政治的手腕家**  
 麟蹄面長 李鍾益氏  
 李鍾益氏는 麟蹄面長으로서 政治界에 手腕을 用하여 民衆의 利益을 代表하는 인물이다. 氏는 麟蹄面長으로서 民衆의 利益을 代表하는 인물이다. 氏는 麟蹄面長으로서 民衆의 利益을 代表하는 인물이다.



**厚徳한君子**  
 鄉校筆談 韓園林氏  
 氏는 當年在 九齡의 童蒙으로 學問에 專心을 기울여 人稱이다. 氏는 當年在 九齡의 童蒙으로 學問에 專心을 기울여 人稱이다. 氏는 當年在 九齡의 童蒙으로 學問에 專心을 기울여 人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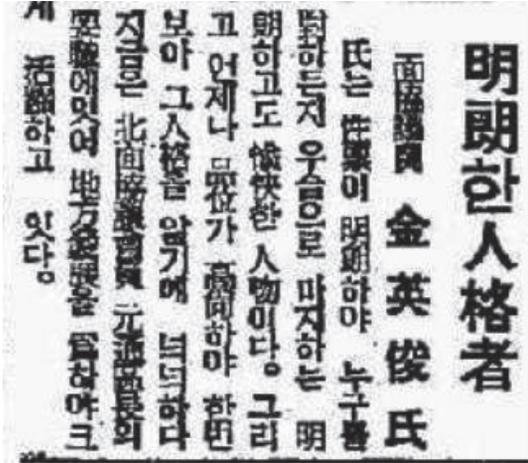
**代書業界權威**  
 泗水書士 李鍾會氏  
 氏는 關西邑內田生으로 司法書士에 從事하며 邑內의 司法界에 手腕을 用하여 民衆의 利益을 代表하는 인물이다. 氏는 關西邑內田生으로 司法書士에 從事하며 邑內의 司法界에 手腕을 用하여 民衆의 利益을 代表하는 인물이다.

1938-08-04-06-05

### 동아일보

#### 명량한 인격자 면협의원 김영준씨

씨는 성품이 명량하여 누구를 대하든지 웃음으로 맞이하는 명량하고도 유쾌한 인물이다. 그리고 언제나 품위가 고상하여 한번보아 그 인격을 알기에 넉넉하다. 지금은 북면협의회원, 원통구장의 요직에 있어 지방 발전을 위하여 크게 활약하고 있다.



1938-08-04-06-05

### 동아일보

#### 사회의 중추인물 향교장의 최삼봉씨

씨는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출생으로 유시부터 한문을 전공하다가 30년 전 기린면으로 이거한 후 항상 근검하고 강장하여서 매시에 실재 활약을 연하여 실패없이 성공한 이로 일반농가에게 편의를 주는 동시 지도자로서 중진에 처하여 부단의 활약을 한 결과 민중의 신망을 얻어 근자에는 인제금융조합 평의원, 인제군농회 평의원, 학교평의원 학무위원, 면협의회원 등 여러 공직을 겸직하고 사회공공사업에 선두를 서서 노력하는 동시에 민활 근면으로 성공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기린면에 중추인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 하다.



1938-08-04-06-05

### 동아일보

#### 청년의 모델 묘포업 허만훈씨

씨는 실업계나 사교계에 모두가 인재에서 전무후무한 건설후덕한 방년 25세의 모범청년이며 그리고 열정적이므로 사교적 움직임이 아직 적으나 성공을 득하였으며 실천적 견지는 장래의 사회에 중진으로 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 씨는 춘천고보를 마치고 군고원으로 강원도 군속까지 되어 근무하다가 그 부친 허찬씨의 사업이던 묘포업을 상속받아 방금 대활동인데 각종 묘포의 성적이 양호하여 도내 각지 어디를 물론하고 판로가 확장되어 장래 대성공의 전도가 양양한 사업가가 될 기대가 많은 인물이다.



1938-08-04-06-06

### 동아일보

#### 운수업계 거성 실업가 민경호씨

씨는 유시부터 두뇌가 과인하여 선견의 지략이 있으며 의지가 견실 정직한 남걸이다. 일찍이 학업에 열성이 있어 학교에 입학코자 하였으나 씨의 가정은 완고한 구식이었으므로 부명에 부득이하여 뜻을 이루지못하고 형설의 독학으로 일본어의 회화가 충분하다. 씨는 일시는 양조계에 주력하는 중 앞으로 인지발전을 따라 운수업의 필요를 느끼고 1934년에 화물자동차업을 착수하여 대대적 활약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도의원 출마까지 하여 동점이 되어 연관관계로 낙선이 되었지만 차기에 후보가 된다면 당선이 유망하다고 논하는 당년 41세의 장년사업가인 만큼 사업의 성공에 따라 인제사회에 일층 더 유익한 사업가가 되어주기를 촉망하는 분이다.

**運輸業界巨星 閔慶鎬氏**  
 閔慶鎬氏 幼時自幼穎異 過人 其志 堅毅 學業 優異 曾入 某 學校 肄業 因 家 庭 經濟 困難 遂 輟 學 歸 家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此君之志 堅毅 學業 優異 曾入 某 學校 肄業 因 家 庭 經濟 困難 遂 輟 學 歸 家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1938-08-04-06-06

### 동아일보

#### 청년사업가 경춘인제영업소 주임 이종욱씨

씨는 당년 32의 청년사업가로서 세간에 화예를 초월하여 사회에 유익한 사업을 꾸준히 영위하는 사실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사회의 창생을 구하겠다는 고귀하나 일념은 조석으로 그 머리를 떠날 때가 없이 자자히 위선한다는 것은 누세가 이기주의 타락에서 해매는 금세에 귀한 존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青年事業家 京春隣營業所主任 李鍾旭氏**  
 李君 年 三 十 二 之 青 年 事 業 家 一 心 一 意 奮 發 勇 進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1938-08-04-06-07

### 동아일보

#### 이재계에 민완가 인제금융조합이사 김동운씨

씨는 두뇌명제한 이재 수완가요 사회중추의 활동가다. 씨는 동천군 출생으로 일찍이 서울제대고보와 고등상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화금융조합 이사로 피임되어 자신있는 온축을 쌓고 조합 업무를 위하여 진취하여 업적을 나타냈다. 씨는 성품이 순후 돈실하고 공경질소하여 일견에 치밀한 태도를 볼수있는 이로 매사에 처리가 민활하다. 재덕이 겸전하고 식견이 탁월하여 정의의 신념이 굳세다. 근자에는 인제군체육협회 부회장으로 인제사회를 위하여 많은 활약을 하는데 사회사업이라면 언제든지 선두를 서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하는 이라 사회의 신망이 날로 두터워간다. 씨는 금일의 기록보다 명일의 기록을 기다린다. 끊이지 않는 사회사업을 위하여 침식을 불고하는 상태로 관민사교계의 화형을 짓고있는 소장인물이라 일반은 씨의 장래를 기대함이 적지않다.

**理財界에敏腕家 麟蹄金組理事 金東胤氏**



金東胤氏 幼時自幼穎異 過人 其志 堅毅 學業 優異 曾入 某 學校 肄業 因 家 庭 經濟 困難 遂 輟 學 歸 家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其 志 愈 堅 獨 自 苦 學 日 進 月 益 其 於 日 語 之 會 話 尤 為 熟 練 且 於 運 輸 業 亦 有 獨 到 之 見 解 故 於 三 十 四 年 創 設 貨 物 自 動 車 運 送 業

1938-08-04-06-07

### 동아일보

#### 자중하는 신사 북면장 신병도씨

씨는 언제나 부화한 허례에 흐르지 않고 실제적 생활에 자인하여 규모적 템포를 보여주는 이다. 그의 태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이가 어떠한 형태를 알고 있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다. 일찍이 보교를 마치고 경찰원이 되어 근무하다가 면행정에 유의한 데 있어 면서기로 전직한 후 열성으로 지내는데 금년 2월에 면장으로 피임되었다. 다년간 관료계에서 고배를 맛 본이라 유유한 그의 생활 전모는 글자 그대로 은인자중이다. 시는 41세의 장년으로 학식과 경험으로 보아 금일의 활약보다도 명일의 활약을 기다리는 인재의 중진인물이다. 비상시 농촌발전 조장은 일층 근기와 열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과분과 여부는 당면한 중추인물에 달려있거든 하물며 기회적 수완을 가진 자각적 역량이 누구보다도 탁월함이리오.

1938-08-04-06-07

### 동아일보

#### 교육계공적자 인제남소학교장 주임관대우 신권우위문씨

씨는 조선은 지 20여개 성상을 하루같이 꾸준히 교육에 열성을 다하여 오늘에 주임관대우까지 되었다. 씨가 당지에 부임한 이래 역시 학년 연장과 학급 증설 등에 독특한 활동이 있었고 그간 청년단 조직, 인제체육협회 조직까지 보게되어 종래 잠자고 있던 스포츠맨을 깨우게 하였으므로 인제사회로서는 없지 못할 탁월한 활동가이다.

1938-08-04-06-07

### 동아일보

#### 다각적 활동가 강원도회의원 이종형씨

씨는 인제읍내 출생으로 한학과 보교를 마치고 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씨의 백절불굴의 성격과 조리정연한 이론과 실천적인 재능은 관계사업을 모두 대성하게 하였다. 씨는 면행정에 뜻을 두고 인제면장이 된 후 면민과 군발전을 위하여 절극노력하였고 더욱이 1930S년 대홍수로 읍내가 전멸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고심노력으로 복구되었다. 씨는 백절불굴의 천성인만큼 일시는 읍민의 오해를 산일도 있으나 지금은 그것도 일장춘몽으로 돌아가고 각방면에 놀랄만한 수완을 보이고 있다. 올봄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도정의 발전 개혁을 위하여 커다란 포부가 있다고 한다. 씨로 하여금 금일의 성공이 있게 한 것은 씨의 조리적인 이론과 사회적 재능과 사업적 정열과 정치적 포부의 소치라고 한다.

**自重하는紳士**  
 老團長 申炳道氏

申氏는 41세의 장년으로 학식과 경험으로 보아 금일의 활약보다도 명일의 활약을 기다리는 인재의 중진인물이다. 비상시 농촌발전 조장은 일층 근기와 열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과분과 여부는 당면한 중추인물에 달려있거든 하물며 기회적 수완을 가진 자각적 역량이 누구보다도 탁월함이리오.

**教育界功蹟者**  
 權卷右簡氏

申氏는 조선은 지 20여개 성상을 하루같이 꾸준히 교육에 열성을 다하여 오늘에 주임관대우까지 되었다. 씨가 당지에 부임한 이래 역시 학년 연장과 학급 증설 등에 독특한 활동이 있었고 그간 청년단 조직, 인제체육협회 조직까지 보게되어 종래 잠자고 있던 스포츠맨을 깨우게 하였으므로 인제사회로서는 없지 못할 탁월한 활동가이다.

**多角的活動家**  
 江原道會議員 李鍾衡氏



李氏는 인제읍내 출생으로 한학과 보교를 마치고 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씨의 백절불굴의 성격과 조리정연한 이론과 실천적인 재능은 관계사업을 모두 대성하게 하였다. 씨는 면행정에 뜻을 두고 인제면장이 된 후 면민과 군발전을 위하여 절극노력하였고 더욱이 1930S년 대홍수로 읍내가 전멸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고심노력으로 복구되었다. 씨는 백절불굴의 천성인만큼 일시는 읍민의 오해를 산일도 있으나 지금은 그것도 일장춘몽으로 돌아가고 각방면에 놀랄만한 수완을 보이고 있다. 올봄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도정의 발전 개혁을 위하여 커다란 포부가 있다고 한다. 씨로 하여금 금일의 성공이 있게 한 것은 씨의 조리적인 이론과 사회적 재능과 사업적 정열과 정치적 포부의 소치라고 한다.

1938-08-04-06-07

### 동아일보

#### 득의의 상업가 환전상점 전와룡씨

씨는 흥천 출생으로 장대한 체구의 소유자이며 능률한 기골과 명랑한 면영이 벌써 선천적으로 호운을 타고났다. 씨의 사업은 포목상과 양조장의 전무로 실업계에 일익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사업에 활약하여 상남소학교 교림으로 임야 7정보를 기부하고 그 외에도 여간 많지않다. 어쨌든 씨의 사업은 금후에 있는이 만큼 득의의 빛나는 명일을 더욱 기대한다.

1938-08-04-06-07

### 동아일보

#### 충용근면의 인, 내면장 이진국씨

씨는 흥천군 내촌면 출생으로 일찍이 춘천농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24년 산업기수로 임명 10여년 근무한 후 내면장에 임명되어 면행정에 근로를 다하고 있다. 씨는 당년 38세의 소장으로서 충후근면하여 아무 일이나 가식이 없이 오직 충실뿐이다. 그리하여 인민의 신망이 날로 두터움과 지방을 위하여 꾸준히 배전노력하기를 촉망하여마지않는 인재인물의 1인이다.

1938-08-04-06-08

### 동아일보

#### 위대한 인격자 서화우편소장 김헌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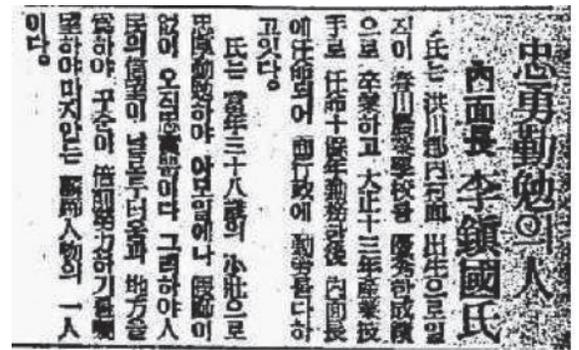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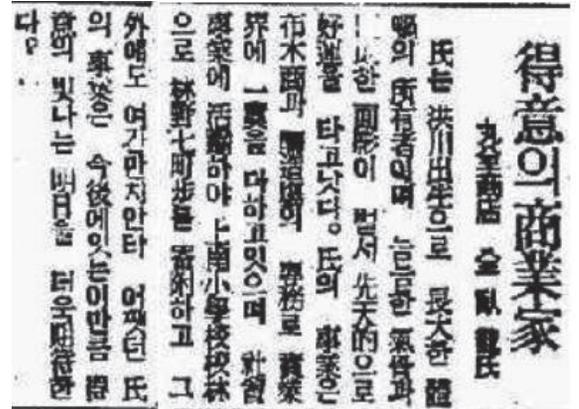
씨는 다년간 체신국에 근무하다가 1938년 4월에 서화우편소장으로 피임이래 농촌과 일반사회의 통신을 위하여 심혈경주 건설한 역군이다. 금년 처음으로 우편소를 만들고 산간지대로 교통이 불편하여 체신기관에 이해가 부족한 농촌민을 상대로 금일의 대를 이르기까지 씨는 거의 침식을 잊고 신경쇠약에 걸리리만큼 일을 위해서는 사색뇌심하였다. 씨는 사교에도 능란하거니와 언제나 낙천적이며 쾌활한 분으로 열혈의 사업가이니 그 장래를 촉망할 뿐이다.

1938-08-04-06-09

### 동아일보

#### 교육계 공헌자 서화소학교장 소야전영남

씨는 십유성상을 견인불발 불휴불식의 활동가로 교육사업에 헌신한 공헌자이다. 방금 서화소교를 양과 질로 충실히하고자 그 민원을 떨치고 있는만큼 우리 자녀의 서광이 될 것이다.



1938-08-04-06-09

### 동아일보

#### 실천역행의 행정가 기린면장(주임관대우) 방범주씨

씨가 면행정 의자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언간 30년의 광음이 흘러갔다. 그동안 공적으로도 중추원의관, 강원도평의회 회원 등을 역임하면서 내면으로 기린면장까지에 이르렀다. 이곳의 골치아픈 민중과 싸움을 한 셈이다. 천근이나 뉘적한 그 뚱뚱한 체구를 끌고 방태산 밑 방방곡곡 화전민을 찾아 농촌진흥을 위하여 개생을 위하여 지도격려하기에 방면장의 점점 혈흔이 맺혀 기린면은 꽃이 피었다 할 것이다. 면장 초임 당시의 기린면은 산고곡심한 면으로 호수가 600여호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2,700호에 흥천간 도로 개통과 공의 배치, 경비 전화, 면, 주재소, 신축학교 3개소 설치 등 위대한 공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면민은 방면장을 일시는 호랑이면장이라고도 칭하였다. 비상시 면장으로 최적임이요 활동가인 만큼 앞으로 방면장의 민활한 수탈이 더욱 빛날 것을 믿는다.

1938-08-04-06-09

### 동아일보

#### 양조계의 패왕 원통양조장 이종태씨

씨는 성격이 온후다자한 당년 41세의 장년 사업가이다. 인제보교를 졸업한 후 북면 회계원으로 다년 근무하다가 목적을 변경하고 주조업에 착수한 후 불면불휴로 업무를 충실히 하며 양조방법을 연구 훈련한 결과 주미는 애주가의 절대환영을 받고있다. 그 근실한 업적은 장래 대자본을 획득할 전제이다. 그리고 씨는 원통소방조두, 면협의 회원, 원통소학교 학무위원, 인제군농회 평의원 등 중요 공직을 가지고 지방공익사업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전도양양한 인재 대표인물의 한사람이다.

1938-08-04-06-09

### 동아일보

#### 침착한 사무가 서화면장 이설우씨

면행정에 가장 노련한 씨는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면행정시설에 들어 민활한 수완을 뽐내는 이다. 씨는 일찍이 보교를 마치고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다년 근무하다가 군농회 서기로 전직되었다가 면장으로 피임되면서부터 이때까지 면행정을 전임하는데 일반의 신망이 두터워졌다. 씨는 성품이 온후강직하고 두뇌가 명제하여 언제든지 사무를 등한시하지 않고 치밀하게 책임을 다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요즘은 서화 인제읍간 등외도로 개착공사에 매진하므로 머지않아 장래에 서화 오지산업개발에 막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전후 20여년 관공리 생활에 하루같이 분투하는 죽적은 금일 인재의 발전 그것이다. 그러므로 씨는 인재의 모범적 인물이다.

### 實踐力行政家

#### 麒麟面長(兼任官待遇) 方範疇氏



氏가 再政의 使命을 承사한 後 一 龍溪郡 龍溪邑 龍溪洞 防木山 古 邑 邑 長 於 民國 三十 年 之 秋 派 任 爲 方 範 疇 氏 任 職 於 此 氏 之 爲 政 實 踐 力 行 之 政 家 也 其 爲 政 之 實 績 如 左 一 龍溪洞 防木山 古 邑 邑 長 於 民國 三十 年 之 秋 派 任 爲 方 範 疇 氏 任 職 於 此 氏 之 爲 政 實 踐 力 行 之 政 家 也 其 爲 政 之 實 績 如 左

一 龍溪洞 防木山 古 邑 邑 長 於 民國 三十 年 之 秋 派 任 爲 方 範 疇 氏 任 職 於 此 氏 之 爲 政 實 踐 力 行 之 政 家 也 其 爲 政 之 實 績 如 左

### 釀造界에霸王

#### 元通釀造場李鍾泰氏



氏 氏 許 氏 鍾 泰 氏 爲 元 通 釀 造 場 之 創 始 人 也 其 爲 釀 造 界 之 霸 王 也 其 爲 釀 造 之 實 績 如 左 一 元 通 釀 造 場 之 創 始 人 也 其 爲 釀 造 界 之 霸 王 也 其 爲 釀 造 之 實 績 如 左

### 沈着한事務家

#### 瑞和面長 李說雨氏

面行政에 가장 노련한 氏는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면행정시설에 들어 민활한 수완을 뽐내는 이다. 씨는 일찍이 보교를 마치고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다년 근무하다가 군농회 서기로 전직되었다가 면장으로 피임되면서부터 이때까지 면행정을 전임하는데 일반의 신망이 두터워졌다. 씨는 성품이 온후강직하고 두뇌가 명제하여 언제든지 사무를 등한시하지 않고 치밀하게 책임을 다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요즘은 서화 인제읍간 등외도로 개착공사에 매진하므로 머지않아 장래에 서화 오지산업개발에 막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전후 20여년 관공리 생활에 하루같이 분투하는 죽적은 금일 인재의 발전 그것이다. 그러므로 씨는 인재의 모범적 인물이다.

1938-08-04-06-10

### 동아일보

#### 용단적 수완가 신평양조장 김기수씨

씨의 언어 행동이 단도직입적이다. 쾌활한 그의 성격은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남자다운 기분을 준다. 말하면 히로틱한 엄위야말로 사업의 성공을 자아올 것을 믿는다. 씨는 면행정에 뜻을 두고 남면장으로 피임되어 십유여년 동안을 꾸준히 면민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면내에 선정비까지 서게되자 용퇴하고 양조계에 투족하여 불면불휴로 양조방법을 연구하여 지금은 술맛으로서 군내 제1위를 점령하였고 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느니만치 일반의 신망이 일신에 집중하고있는 중진이다.

1938-08-04-06-10

### 동아일보

#### 문화경찰의 선구 인재서장 덕구정중씨

씨는 조선 와서 경찰계에 투신하자 민중의 신망이 높아 그간 십유여년을 모범경찰관으로 고명한 민완과 그 성적이 혁혁하였다.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인재에 경관으로 근무하다가 그후 강원도내 각군을 전근하였다. 다시 1936년에 서장으로 영전하여 착임 만 2개년에 교통위생에 특히 주력하여 현저한 실적을 내었고 경찰서와 연무장의 신축까지 실현시켰다. 씨는 부하의 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민중과 경찰의 간격을 두지않으며 민중을 위한 경찰이란 표어를 목표로 매진하며 민중은 신과 같이 믿는 터이다. 중일전쟁 발생이래에도 보국정신을 발휘하여 여가만 있으면 응소군인에게 위문장과 관내를 다니며 적극적 시국강연과 좌담회를 거듭하여 시국인식을 강조시키고 통일정신에 노력하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승진하리라는 물망이 되는 인재군민의 자부이다.

1938-08-04-06-11

### 동아일보

#### 인재의 명망가 인재금융조합장 김영제씨

씨는 인재사회의 명망가로 제일인이다. 지금의 성공을 보게됨은 일찍이 사회방면에 활약을 입지한 까닭이다. 어렸을 때 모든 세풍에 시달리면서도 친우간에 의리를 가장 잘 지켜왔다는 결과이겠다. 씨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일찍이 경주공보교를 졸업하고 헌병대 통역관으로 전전 이거하다가 인재에 온 후 여러 방면으로 활약하는 중 강원도회의원을 재임하고 문묘 직원, 면협의회원, 인재번영회장, 기타 세지 못할만한 공적을 역임하다가 금융조합장에 피임되어 지구적 활약을 계속한다. 성력이 있는 이만치 씨는 46세의 노인사로 인재를 움직이는 중추적 인물이다. 사회의 일이라면 소호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라 일반은 그의 덕성을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다.

**勇斷的手腕家**  
新豐里長 金慶洙氏

氏의 勇斷行動이 短刀價人의 이다. 然하면 그의 性情은 對하 同輩 輩으로 하던 男子는 氣分은 空 다 말하면 히로틱한 威威야 말로 飛의 成功을 자아올 것을 만든다. 氏는 面行政에 秀출하고 面長으로 被任되어 十有餘年 동안은 同輩 輩의 面民을 爲하여 努力을 經果 面內에 善政을 爲하여 努力을 經果 하고 面界에 投足하여 不眠不休

社의 第一位를 占領하고 一般의 信譽가 一身에 集中하고 있는 中진이다.

**文化警察의 先驅**  
警務長 德久貞重氏



氏는 朝鮮에서 警察界에 투신하자 민중의 신망이 높아 그간 십유여년을 모범경찰관으로 고명한 민완과 그 성적이 혁혁하였다.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인재에 경관으로 근무하다가 그후 강원도내 각군을 전근하였다. 다시 1936년에 서장으로 영전하여 착임 만 2개년에 교통위생에 특히 주력하여 현저한 실적을 내었고 경찰서와 연무장의 신축까지 실현시켰다. 씨는 부하의 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민중과 경찰의 간격을 두지않으며 민중을 위한 경찰이란 표어를 목표로 매진하며 민중은 신과 같이 믿는 터이다. 중일전쟁 발생이래에도 보국정신을 발휘하여 여가만 있으면 응소군인에게 위문장과 관내를 다니며 적극적 시국강연과 좌담회를 거듭하여 시국인식을 강조시키고 통일정신에 노력하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승진하리라는 물망이 되는 인재군민의 자부이다.

**麟蹄의 名望家**  
麟蹄組長 金永濟氏



氏는 麟蹄社의 名望家로서 一人이다. 지금의 成功을 보게됨은 일찍이 社會方面에 活躍을 立 志한 까닭이다. 少時은 世風에 對하 同輩 輩으로 하던 男子는 氣分은 空 다 말하면 히로틱한 威威야 말로 飛의 成功을 자아올 것을 만든다. 氏는 面行政에 秀출하고 面長으로 被任되어 十有餘年 동안은 同輩 輩의 面民을 爲하여 努力을 經果 面內에 善政을 爲하여 努力을 經果 하고 面界에 投足하여 不眠不休

1938-08-04-06-11

### 동아일보

#### 불교계의 사업가 백담사 주지 김재호씨

시대의 변천을 따라 금일의 불교에도 사회적으로 사업의 활동가를 요구한다. 씨는 사회적 요구에 응한듯한 도인군자이면서도 희유의 수완을 겸비하고 있다. 씨가 백담사 주지로 취임한 이래 다년간 사(寺)재를 저축시켰고 지금에 불화의 보급을 비롯하여 현저한 성적은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최근에는 사찰을 일부 수선키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활동한 결과 실현을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법제를 양성키 위하여 승려 1인을 현재 일본대학에 입학시켜 양성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백담사의 김재호나 김재호의 백담사나 할만큼 그 공로는 큰 것이다.

1938-08-04-06-11

### 동아일보

#### 사교계의 중진 실업가 김수룡씨

씨는 누가 보든지 남자다운 체구에다가 활발한 성격을 소유한 분으로서 사교에 민활한 수완가이다. 씨는 인제군 출생으로 당지 보고를 졸업한 후 농촌의 지도자가 되어 실천공행의 범을 보이고 있다. 씨는 활발한 품성에 관후은근을 가미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백절불굴의 철복과 확호불발의 기개를 보지하여 무엇이든지 목적인 일이면 기어이 성공하고야마는 중시일관의 결심가여서 일반사회의 신망이 두텁다. 씨는 근자에 와서 자가용 자동차를 두고 상업을 경영하는 등 면양과 양계로 소일하며 농촌을 위하여 지도에 선봉이 되어 활약하고 있으니 이는 과연 인제사회에 없지 못할 중진인물이다.

1938-08-04-06-11

### 동아일보

#### 온건 침착의 인, 남면장 심재익씨

씨는 당년 41세의 소장 면장으로 면행정에 경험이 풍부하여 정무상 예기한 기록을 반드시 돌파하리라고 확신한다. 씨는 남면 관대 출생으로 유시부터 한문을 전공하다가 인제공보교를 졸업하고 인제군 고원으로 면서기로 성적이 우수하였다. 일시 퇴직하고 실업에 종사하다가 1935년에 면민의 대거 진정으로 면장의 임에 처하였다. 다년 군면 사무에 경험이 있는 만큼 면행정을 일층 쇄신할 포부가 필유할 것이 틀림없다. 씨의 온정은 온건하고도 극히 침착하여 매사에 독립적 입장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처리하는지라 씨의 면목에는 항상 견실한 기풍이 넘는다. 물론 현시 농촌진흥과 산업발달에 씨의 에너지가 기여할 것이 실로 많을 것으로 장래 촉망이 적지않을 중추인물의 1인이다.

### 佛敎界의事業家

#### 百潭寺住持 金在浩氏

佛敎의 變遷을 따라 金日佛敎 耶薩崎키爲하야 努力을 必기지안 佛敎의 變遷을 따라 金日佛敎 耶薩崎키爲하야 努力을 必기지안 佛敎의 變遷을 따라 金日佛敎 耶薩崎키爲하야 努力을 必기지안



佛敎의 變遷을 따라 金日佛敎 耶薩崎키爲하야 努力을 必기지안 佛敎의 變遷을 따라 金日佛敎 耶薩崎키爲하야 努力을 必기지안 佛敎의 變遷을 따라 金日佛敎 耶薩崎키爲하야 努力을 必기지안

### 社交界의重鎮

#### 實業家 金洙龍氏

氏는 누가 보든지 남자다운 체구에다가 활발한 성격을 소유한 분으로서 사교에 민활한 수완가이다. 씨는 인제군 출생으로 당지 보고를 졸업한 후 농촌의 지도자가 되어 실천공행의 범을 보이고 있다. 씨는 활발한 품성에 관후은근을 가미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백절불굴의 철복과 확호불발의 기개를 보지하여 무엇이든지 목적인 일이면 기어이 성공하고야마는 중시일관의 결심가여서 일반사회의 신망이 두텁다. 씨는 근자에 와서 자가용 자동차를 두고 상업을 경영하는 등 면양과 양계로 소일하며 농촌을 위하여 지도에 선봉이 되어 활약하고 있으니 이는 과연 인제사회에 없지 못할 중진인물이다.

### 穩健沈着의人

#### 南面長 沈在益氏

씨는 당년 41세의 소장 면장으로 면행정에 경험이 풍부하여 정무상 예기한 기록을 반드시 돌파하리라고 확신한다. 씨는 남면 관대 출생으로 유시부터 한문을 전공하다가 인제공보교를 졸업하고 인제군 고원으로 면서기로 성적이 우수하였다. 일시 퇴직하고 실업에 종사하다가 1935년에 면민의 대거 진정으로 면장의 임에 처하였다. 다년 군면 사무에 경험이 있는 만큼 면행정을 일층 쇄신할 포부가 필유할 것이 틀림없다. 씨의 온정은 온건하고도 극히 침착하여 매사에 독립적 입장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처리하는지라 씨의 면목에는 항상 견실한 기풍이 넘는다. 물론 현시 농촌진흥과 산업발달에 씨의 에너지가 기여할 것이 실로 많을 것으로 장래 촉망이 적지않을 중추인물의 1인이다.

1938-08-04-06-11

**동아일보**

**자선가 조경훈**

웅은 인제에서 자선부호일뿐더러 지방유일의 자선가로서 유명하다. 웅이야말로 자성관후 충실한 상상 춘풍같은 자애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난받는 일이 없었을 만큼 덕망가이다. 또한 웅의 진보적 기질은 언제나 기자의 방문할 때마다 지방발전에 관한 경청할 만한 포부를 들어도 알수있는 인근 모범적 인물이다.

1938-08-04-06-12

**동아일보**

**동창상점 전동렬씨**

씨는 기린면 출생으로 기린소교를 졸업한 후 기린국유삼림보호구 감수로 다년 근무하다가 상업에 뜻을 품어 즉시 상업계로 진출되어 포목상을 경영하여 현저한 성적을 보이는 일방 지방을 위하여 많은 힘을 쓰는 진실한 모범청년이며 현 기린면 현리시장에 있는 동창상점은 씨의 경영이다.

1938-08-04-06-12

**동아일보**

**근검한 모범인 인재농회 부회장 김기선씨**

씨는 성격이 온순 정직하고 근검독실하여 인근에 신용이 독후한 이다. 씨가 유시에 부친을 사별하고 유산을 지키며 농업을 근면한 결과 지금은 인재군내에 제1위의 재산을 소유케 되었다. 씨는 자질 교육에 더욱 힘쓰며 농업에 근려하여 단란한 가정에 근심없는 웅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며 조각인에게는 도조를 후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하며 사회사업을 위하여서도 매년 다대한 금전을 희사하는 것 있으나 앞으로 더욱 사회사업에 착안하여 인재발전 위하여 활약하기를 축망한다.

1938-08-04-06-13

**동아일보**

**모범적 교육가 기린소학교장(주임관대우) 강문원씨**

씨는 일찍이 서울제일고보를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족한지 20년을 하루같이 주야를 불고하고 교무에 전력하여 수많은 연재를 교양하는 뜻있는 생활을 하여왔다. 씨는 품성이 인자하고 온건착실하여 1930년 장평교장으로 영진, 1935년에 현 기린소학교장으로 영진하여 오늘까지 꾸준히 분투의 생활을 순경으로 하여오며 지방농촌과 청년을 위하여 지도에 매진한 관계로 1937년 교육공적자로 도지사의 표창까지 받은 모범적 교육가이다.

**趙慶勛**  
 楚魯，趙慶勛  
 楚魯，趙慶勛  
 楚魯，趙慶勛  
 楚魯，趙慶勛  
 楚魯，趙慶勛

**全東烈氏**  
 楚魯，全東烈氏  
 楚魯，全東烈氏  
 楚魯，全東烈氏  
 楚魯，全東烈氏  
 楚魯，全東烈氏



**勤儉한模範人**  
 楚魯，勤儉한模範人  
 楚魯，勤儉한模範人  
 楚魯，勤儉한模範人  
 楚魯，勤儉한模範人  
 楚魯，勤儉한模範人

**模範的教育家**  
 楚魯，模範的教育家  
 楚魯，模範的教育家  
 楚魯，模範的教育家  
 楚魯，模範的教育家  
 楚魯，模範的教育家





1938-08-15-04-05

### 매일신보

#### 퇴비증산을 인제서 독려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일찍부터 퇴비증산과 토성 개량에 노력 하여오더니 일층 더 그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자 각 관계방면에 통첩 을 발하는 동시 군수 이하 군농회 직원 및 면직원이 총동원하여 각 부락을 담당하고 제1차로 지난 7월 15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14일 간을 퇴비 채취 주간으로 정하고 출장 독려 지시를 마친후 제2차로 8월 9일로부터 28일까지 반당 200간을 목표로 독려중인데 채취 성 적에 따라 제3차 4차까지라도 진행하겠다 한다.

1938-08-16-04-04

### 매일신보

#### 아동들의 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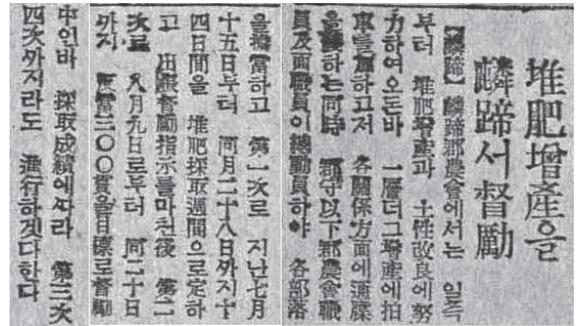
【인제】 수은주는 오르고 또 올라 화씨90도가 훨씬 넘어 사람도 익 을 듯한 염천에 잔약한 어린이의 몸으로 어른에 넘치는 근로를 하여 근로보국의 사실이 있다. 8월 10일 인제남공립심상소학교 아동들은 더위를 무릅쓰고 도로의 수리를 하여 얻은 돈으로 국방헌금을 한다 하는데 일반은 그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됨이 많다 한다. 그리고 인제읍내 북리에서 통학하는 인제남공립심상소학교 아동 13 명은 하기 휴가를 이용하여 근로보국을 하고자 인근 산에서 마른 송 지를 한지계씩 모아가고 시장에서 판매하여 금 1원50전을 얻어 그 중 1원을 국방헌금하였다는데 일반은 그 학동들의 미행을 칭송하며 감동됨이 많다 한다.

1938-08-18-03-02

### 매일신보

#### 강원 소농의 갱생, 대부된 생업자금 46만5천여원, 공동 저금만 6만여원

【춘천】 건전한 농촌의 건설은 소작농의 경제적 갱생으로부터 시작 하지만 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전조선적으로 빈궁한 농촌에서는 소농생업 자금을 융통해주고 있는데 이에 강원도에서는 1928년부터 각군에 근로공제조합을 설치케한 후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피폐해가 는 소농들로 하여금, 갱생의 길을 찾게 하는 등 현저한 실적을 거양 하고 있다 한다. 1937년도 말 현재조합수는722개소로 조합원이 2만 2,16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소농을 대상으로 대부한 총액이 실로 46만6,447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금은 주로 구우자금에서 융통해 주고 있어서 총대부액의 9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잔여 는 제직, 제입기의 구입 또는 양돈구입 등 농가부업으로서 현금 수입의 확실성이 있는 생활자금에 사용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회원들이 생업 수입에서 공동저금한 것이 6만1,000원에 달하고 있어서 1인당 평균 3원62전에 해당하고 있는바 최고 150원의 저금 을 가진 조합원도 있다 한다. 이같은 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구	조합명	조합원수	대부액	공동저금
강원도	강원도농민회	1,200	100,000	5,000
강릉군	강릉농민회	800	70,000	3,000
영양군	영양농민회	600	50,000	2,000
속초군	속초농민회	500	40,000	1,500
홍천군	홍천농민회	400	30,000	1,000
철원군	철원농민회	300	20,000	800
평창군	평창농민회	200	10,000	500
정선군	정선농민회	100	5,000	200
인제군	인제농민회	100	5,000	200
고성군	고성농민회	100	5,000	200
횡성군	횡성농민회	100	5,000	200
영월군	영월농민회	100	5,000	200
태백군	태백농민회	100	5,000	200
강릉군	강릉농민회	100	5,000	200
영양군	영양농민회	100	5,000	200
속초군	속초농민회	100	5,000	200
홍천군	홍천농민회	100	5,000	200
철원군	철원농민회	100	5,000	200
평창군	평창농민회	100	5,000	200
정선군	정선농민회	100	5,000	200
인제군	인제농민회	100	5,000	200
고성군	고성농민회	100	5,000	200
횡성군	횡성농민회	100	5,000	200
영월군	영월농민회	100	5,000	200
태백군	태백농민회	100	5,0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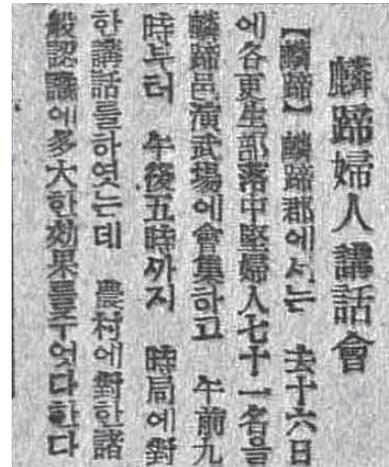
군별	조합수	조합원수	대부액	군별	조합수	조합원수	대부액
춘천	52	1,622	33,415.95	인제	16	893	16,750.20
양구	31	914	19,045.02	회양	28	776	18,368.99
통천	31	875	17,126.67	고성	31	956	19,000.00
양양	36	1,124	24,285.60	강릉	44	1,437	28,478.00
삼척	36	1,028	22,204.00	울진	34	1,061	21,628.00
정선	31	951	20,299.00	평창	30	967	20,318.59
영월	37	1,259	25,099.00	원주	45	1,024	30,926.00
횡성	35	665	22,647.00	홍천	36	1,156	22,969.00
화천	20	1,073	12,995.00	김화	39	1,156	25,536.95
철원	36	1,073	23,656.65	평강	28	832	18,551.00
이천	35	1,095	22,217.00				
계	722	22,160	465,447.71				

1938-08-20-03-06

### 매일신보

#### 인제 부인강화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6일에 각갱생부락 중견부인 71명을 인제읍 연무장에 회집하고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국에 대한 강화를 하였는데 농촌에 대한 제반 인식에 다대한 효과를 주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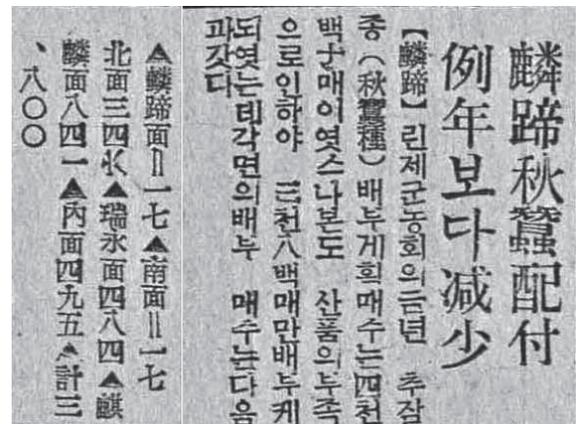


1938-08-20-04-06

### 매일신보

#### 인제 추잠 배부 예년보다 감소

【인제】 인제군농회의 금년 추잠중 배부계획 매수는 4,010매였으나 강원도 산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3,800매만 배부케되었는데 각면의 배부면수는 다음과 같다. ▲인제면=17 ▲남면=17 ▲북면=346 ▲서화면 484 ▲기린면 841 ▲내면 499 ▲합 3,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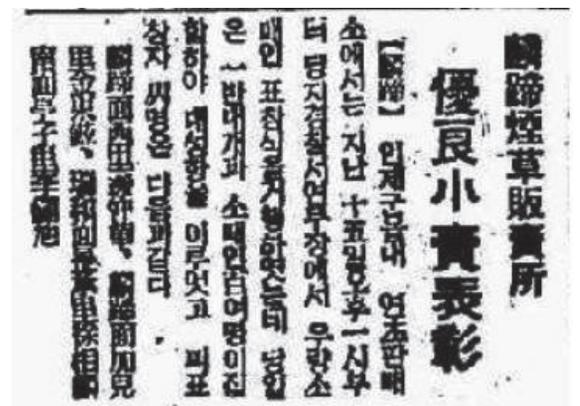


1938-08-20-04-12

### 동아일보

#### 인제연초판매소 우량 소매 표창

【인제】 인제군 읍내 연초판매소에서는 지난 15일 오후1시부터 당지 경찰서 연무장에서 우량 소매인 표창식을 거행하였는데 당일 일반 대개과 소매인 100여명이 집합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피표창자 씨명은 다음과 같다.인제면 서리 변●●, 인제면 가아리 김동현, 서화면 장승리 손상순, 남면 정자리 이종욱



1938-08-21-03-07

### 매일신보

#### 1군 1일의 일정으로 부인강화회 개최 강원 각군에서 실시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부인들로 하여금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여 충후보국의 유감없기를 기하고자 도 군 주최로 각군에서 1군 1일의 일정으로 부인 강화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인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 하며 강사는 군수, 서장, 학교장의 도에서 파견하고 있는데 강습과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하며 9월 20일에 전부 종료하게 되리라 한다.

◇강화 과목

- 1.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에 관한 건 2. 충후저축보국에 관한 건
- 3. 사례의범 실천에 관한 건

◇강화지와 일정

(중략) ▲8월 16일 인제 (중략)

1938-08-21-03-07

### 매일신보

#### 인제갱생부락 중심인물 강습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3일간 군내 제6차 갱생계획예정부락에서 각 1명씩과 각면 신규채용의 면직원 및 농촌진흥 관계서기와 기수 등을 초집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충후의 산업진을 일층 강화철저케하리라 한다.

1938-08-21-04-12

### 동아일보

#### 인제지방발전 간담

【인제】 인제경찰서장 산전진남씨는 금번 도내 삼척경찰서로부터 서장으로 영전되어 부임이래 시국인식과 지방 발전책에 유의하던중 더욱이 지난 16일에는 관내 기자단을 관사로 초대하여 시국인식과 지방발전에 대한 간담과 관민일치에 노력하지는 열렬한 회화가 있는 후 오후7시에 산회하였다.

一郡一日の日程으로  
**婦人講話會開催**  
 江原各郡에서實施

【春川】江原道에서는 道内婦人들를 하여금 時局에對한 的確한 認識을 가지게 하여 統後保國의 義務을 盡하게 하고자 道郡主權로 各郡에서 一郡一日の 日程으로 婦人講話會를 開催하고 있는 中인데 成績이 매우 양호하다 하며 講師는 郡守 署長 警察署長에 由하여 파견하고 있는데 講習科目과 日程은 다음과 같다 하며 九月二十日에 全部 종료하게 되리라 한다.

◇講話科目  
 1. 國民精神總動員 勤勞報國에 關한件 2. 統後保國의 義務에 關한件 3. 四廳派黨派의 關係에 關한件

◇講話地及日程  
 ▲八月十二日春川 ▲八月十三日平康 ▲八月十四日淮陽 ▲八月十五日伊川 ▲八月十八日洪川 ▲八月十九日高城 ▲八月二十日襄陽

**麟蹄更生部落**  
**中心人物講習**

【麟蹄】江原道麟蹄郡에서는 來九月二十八일부터 三日間郡内第六次更生計劃決定部落에서 各一名式과 各面新起採用의 面職員及農村振興關係書記並技手等を招集하여 講習會를 開催하고 統後의 産業進歩를 一層強化徹底케 하리라 한다

**麟蹄地方發展懇談**

【麟蹄】인제경찰서장서진남(麟蹄警察署長서진남)은 금번도내 삼척서로부터 서장으로 영전되어 부임이래 시국인식과 지방 발전책에 유의하던중 더욱이 지난 16일에는 관내 기자단을 관사로 초대하여 시국인식과 지방발전에 대한 간담과 관민일치에 노력하지는 열렬한 회화가 있는 후 오후7시에 산회하였다.

1938-08-23-04-12

### 동아일보

#### 국방헌금

【인제】 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김태산은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매일 조석때마다 반미를 한순가락씩 저축하여온 것이 만 1년만에 5원을 받게되어 지난 12일 당지 경찰서에 의뢰하여 국방헌금을 하여 달라는데 일반은 범인의 성의에 감심하였다고 한다.

1938-08-24-04-06

### 매일신보

#### 인제산의 목기와 난곡 완초 슬리퍼 강원도 특산으로 지정

【춘천】 강원도에서는 종래 도내 생산품의 선전 소개와 판매 알선 등의 기관이 완비되지 못하였던 탓으로 널리 일반에게 취인되지 못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되었는데 이를 유감으로 여긴 도당 국에서는 도 산업장려관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일방 특산품 생산에 대한 개선조장의 방도를 강구하는 특산품 보호장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난곡의 왕골 『슬리퍼』와 인제의 목제기 등은 도 특산품으로 그 장래가 유망할 것이라 하여 적극적 개선 조장을 가하고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즉 난곡에서 제조한 왕골슬리퍼는 제작기술과 품질이 극히 우수하여 국내 각시장분 아니라 조금만 더 개선을 가한다면 외국에 수출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하여 증산 개선에 주력하기로 되었다 하며 인제군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남박』 『목관』 『뚝배기』 등 목제기도 품질이 상당히 양호하므로 이역시 개선하도록 하여 내외시장에 진출시키고자 개선조장의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1938-08-27-03-05

### 매일신보

#### 인제서 관하에 장티푸스유행 예방주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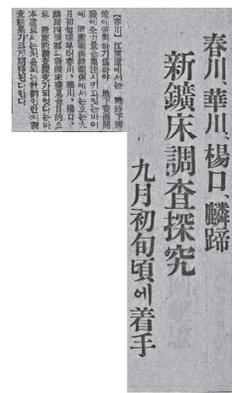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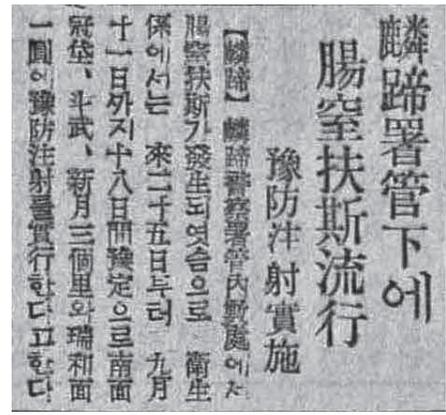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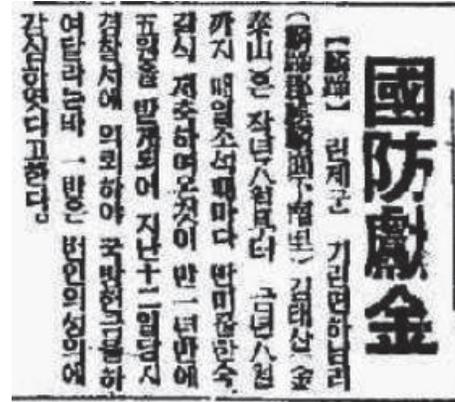
【인제】 인제경찰서 관내 수처에서 장티푸스가 발생되었으므로 위생계에서는 오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 예정으로 남면 관내, 두무, 신월 3개리와 서화면 일원에 예방주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1938-08-27-03-06

### 매일신보

####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신광상 조사탐구

【춘천】 강원도에서는 전시하 국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하자원 개발에 전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도 산업과 광업계에서는 오는 9월 초순경부터 춘천, 화천, 양구, 인제 4개군의 신광상 발견을 목적으로 철저적 조사 탐구가 되었다는데 강원도로서는 처음되는 계획인만치 조사결과가 크게 기대된다 한다.



1938-08-27-03-07

### 매일신보

## 가축금 구입자금 청년단원에 교부, 강원도서 1군 1명씩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청년단원으로 하여금 곡, 과수, 원예, 맥작, 재해복구, 황무지개간, 조림, 퇴비 등 농사전반에 대한 개선조장을 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교부키로 되었었는데 이번 김지사 방침에 대하여 기정 계획을 변경한 후 축산증식을 적극 장려하고자 일제히 1군1명씩 선정하여 가축금 구입자금으로 30원씩 조성키로 되어 불일 송금하리라는데 조성금을 교부하게 된 단원은 다음과 같다.

- ◇가축금 구입자금 조성자
- 춘천군 동내면 양창석 30원
- 인제군 북면 정동진 30원 (중략)

1938-08-27-04-01

### 매일신보

## 강원도민의 적성 흡연, 현금미담이 속출 관계당국도 크게 감격

【춘천】 중일전쟁 발발 이래 강원도민의 애국열은 자못 치열하고 있어 각종의 현금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지가지의 미담가화도 있어 총후의 꽃을 피우고 있는 바 그 중의 몇 가지만 들추어보더라도 (중략)

- ◇...(기 6) 인제군 북면 용대리 도로공사장 종업원 69명은 일본군항군 장병이 노고에 깊이 감격하여 도로공사에 취로하여 얻은 임금 중에서 51원 10전을 일본군[항군]위문금으로 헌납하였다.
- ◇...(기 7) 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김태산(46)은 작년 8월부터 비행적곡을 해왔는데이번에 이것을 매각하여 5원을 국방비로 헌금하였다.

1938-08-29-04-02

### 매일신보

## 철원, 인제 양군 온돌개량 강습

【인제】 인제군 임업계에서는 다년 현안중이던 농촌의 연료를 절약하고자 군내 각갱생부락민과 종래의 직공 등을 회집케하고 좌기 일정으로써 계원이 출장하여 온돌개량 직공양성강습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인제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남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북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화면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기린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내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 家畜禽購入資金 青年團員에交付 江原道서一郡一名式

金順廷	300圓
池相來	300圓
崔廷業	300圓
李啓春	300圓
李榮文	300圓
李榮連	300圓
李榮元	300圓
李相春	300圓
李相成	300圓
李相根	300圓
李相明	300圓
洪德福	300圓
吳顯根	300圓
薛道成	300圓
金昌義	300圓
徐萬泰	300圓

### 江原道民의 赤誠翁然 獻金美談이 續出 關係當局도 크게 感歎

중일전쟁 발발 이래 강원도민의 애국열은 자못 치열하고 있어 각종의 현금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지가지의 미담가화도 있어 총후의 꽃을 피우고 있는 바 그 중의 몇 가지만 들추어보더라도 (중략)

### 鐵原麟蹄兩郡 溫突改良講習

【鐵原】麟蹄兩郡의 溫突改良講習會를 開辦한다. 麟蹄郡은 自八月二十五日至二十七日, 南面은 自八月二十九日至三十一日, 北面은 自九月二日至四日, 瑞和面은 自九月六日至八日, 麟蹄面은 自九月十一日至十三日, 內面은 自九月十五日至十七日.

1938-08-29-04-03

### 동아일보

#### 인제 기린간 도로공사 중지 기부 성적 불량으로

【인제】 인제읍과 기린면간 도로는 다년 개척공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지난번에 군청의 후원으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각면에 공사비를 배당하여 1만원을 기부받아서 도 토목과에 납부한 후 속속 실현을 요망하기로 계획중이더니 이외에도 해당 면 이외에서는 절대로 기부치 않겠다고 반대한다는바 설계한 당국자도 여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으로 결국 기성회도 수포로 돌아가고마는 모양인데 그래도 군당국에서는 기어이 하겠다는 의미로 각면만 줄라대는데 인민측에서는요사히 의무적금이니 무엇이지 하는 이때 도저히 못하겠다고 비난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8-08-29-04-05

### 동아일보

#### 한발의 계속으로 음료수 기근

【인제】 인제군에 가뭄이 계속되어 요사이 어디를 물론하고 음료수가 고갈되어 일반은 대소동을 치는 중이고 기린면은 음료수는 고사하고 전곡이 전부 말라죽는 관계로 일반 농민은 근심을 펴지 못하고 우울상태라고 한다.  
인제경찰서 위생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을 인제군 남면 서화면에 걸쳐 전염병 예방주사를 한다는데 당무자는 위생주입 최기완씨와 공의 석승기씨라고 하며 주사 줄 인원은 5,200명이라고 한다.

1938-08-31-04-01

### 매일신보

두절된 만 2개년 만에 인제 거진간 개통 도로수리공사 준공  
춘천-거진선은 강원도의 심장부인 춘천으로부터 동해안을 횡단하는 최단노선으로서 교통운수상 가장 중요한 노선이었는데 1936년 대홍수로 도로가 여지없이 파손되어 교통이 두절된 이래 춘천-인제-원통간은 응급공사로 즉시 개통을 보게 되었으나 인제 거진간은 이래 수선 중에 있어 일반의 불편이 막대하던중 지난 23일에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춘철도 여객부 관계자와 강원도측에서 27일에 시운전을 마치고 29일에 돌아왔는데 공사가 완전히 되었으므로 머지않아 개통하게 되리라는데 노선연장이 33리로 5시간을 소요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교통 두절이후 만 2개년만에 개통을 보게된 것이라 한다.

**麟蹄、麒麟間 道路工事中止**  
寄附成績不良으로

【麟蹄】 麟蹄와 麒麟間 도로는 다년 개척공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지난번에 군청의 후원으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각면에 공사비를 배당하여 1만원을 기부받아서 도 토목과에 납부한 후 속속 실현을 요망하기로 계획중이더니 이외에도 해당 면 이외에서는 절대로 기부치 않겠다고 반대한다는바 설계한 당국자도 여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으로 결국 기성회도 수포로 돌아가고마는 모양인데 그래도 군당국에서는 기어이 하겠다는 의미로 각면만 줄라대는데 인민측에서는요사히 의무적금이니 무엇이지 하는 이때 도저히 못하겠다고 비난이 자자하다고 한다.

**旱魃의繼續으로 飲料水飢饉**

【麟蹄】 麟蹄군에 한발이 계속 되어 요사이 어디를 물론하고 음료수(飲料水)가 고갈되어 일반은 대소동을 치는 중이고 기린면은 음료수는 고사하고 전곡이 전부 말라죽는 관계로 일반 농민은 근심을 펴지 못하고 우울상태라고 한다.  
인제경찰서 위생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을 인제군 남면 서화면에 걸쳐 전염병 예방주사를 한다는데 당무자는 위생주입 최기완씨와 공의 석승기씨라고 하며 주사 줄 인원은 5,200명이라고 한다.

**杜絶된滿二個年만에 麟蹄巨津間開通**  
道路修理工事竣工

【春川】 춘천(春川) 거진간(巨津間) 도로수리가 여지없이 파손되어 교통이 두절된 이래 춘천-인제-원통간은 응급공사로 즉시 개통을 보게 되었으나 인제 거진간은 이래 수선 중에 있어 일반의 불편이 막대하던중 지난 23일에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춘철도 여객부 관계자와 강원도측에서 27일에 시운전을 마치고 29일에 돌아왔는데 공사가 완전히 되었으므로 머지않아 개통하게 되리라는데 노선연장이 33리로 5시간을 소요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교통 두절이후 만 2개년만에 개통을 보게된 것이라 한다.

1938-08-31-04-01

### 매일신보

#### 강원도의 논벼 작황은 평년작만은 확실 도농무과 조사 발표

【춘천】 강원도의 금년 논벼농사는 계속적 가뭄으로 일시 흉작을 우려하게 되어 농가의 우환은 자못 심각하였는데 금일 하순경의 적당한 강우로 인하여 대체로 소생하게 되어 평년작은 틀림없으리라고 예상된다 한다. 즉 8월15일 현재로 집계한 수도작 상황을 도농무과로부터 발표한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다.

▲춘천 양 ▲인제 초량(중략) ▲양=10% 이상 증수 예상 ▲초량=3분 이상 증수 예상 ▲보통=3% 이상 증수 또는 3% 이내 감수 예상 ▲초불량=3%이상 10% 미만 감수 예상 ▲불량=10% 이상 감수 예상

1938-09-01-04-11

### 동아일보

#### 인제농진회 개최

【인제】 인제에서는 지난 29일 오후2시부터 농촌진흥위원회를 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좌기 타합을 하였다고 한다.

1938-09-01-04-12

### 동아일보

#### 인제, 간성도로 9월 1일 개통예정

【인제】 인제 간성간 도로는 1936년 대홍수로 인하여 전부 파괴되어 이래 3년동안을 교통이 두절되어 일반의 불평이 날로 높아오던중 다행히 지난 25일에 복구 공사가 완성되어 27일에 시운전을 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계속하여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 복구되는데 따라 원통과 인제읍은 다소 번창할 모양이라고 한다.

1938-09-02-03-03

### 매일신보

#### 강원서 유력 재벌 유치 대철광회사를 신설 영서지방에 유망한 광상 발견 본격적으로 자원조사

【춘천】 자원증강을 모토로 예의 각종방면의 산업개발 진전에 노력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경희 지하자원개발 증강에 착목하고 영서 지방에 유망한 철광상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매장량을 함유한 것이 확실하게되어 출원자를 중심으로 유력재벌을 유치하여 철광과 제철회사를 창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착착 준비공작을 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당국에서도 본점의 적극적 원조를 얻어 될 수만 있으면 오는 11월경에 전기 회사의 탄생을 보도록 할 예정이며 경희 춘천 인제 화천의 각군하의 철광상의 조사에 총독부 광산과원을 초빙하여 9월 상순부터 착수하기로 되었는데 철광회사 설립을 보는 날에는 이것을 계기로 타공장도 유치할 것으로 강원도 광업계의 전도는 기대되는 점 많다고 한다.

江原道의水稻作況은  
**平年작만은確實!**  
 道農務課調査發表

【춘천】 강원도에서 8월 15일 현재로 집계한 수도작(벼)의 작황은 평년작(平年작)만은 틀림없으리라고 예상된다 한다. 즉 8월 15일 현재로 집계한 수도작(벼)의 작황은 평년작(平年작)만은 틀림없으리라고 예상된다 한다.

**麟蹄農振會開備**  
 【麟蹄】 인제에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농촌진흥위원회를 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좌기 타합을 하였다고 한다.

**麟蹄、杆城道路**  
 九月一日開通豫定  
 【麟蹄】 인제간성간 도로는 9월 1일 개통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제와 간성 간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江原서有力財閥誘致  
**大鐵鑛會社를新設**  
 嶺西地方에有望한鑛床發見  
 本格的으로資源調査

【춘천】 강원도에서는 경희 지하자원개발 증강에 착목하고 영서 지방에 유망한 철광상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매장량을 함유한 것이 확실하게되어 출원자를 중심으로 유력재벌을 유치하여 철광과 제철회사를 창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착착 준비공작을 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당국에서도 본점의 적극적 원조를 얻어 될 수만 있으면 오는 11월경에 전기 회사의 탄생을 보도록 할 예정이며 경희 춘천 인제 화천의 각군하의 철광상의 조사에 총독부 광산과원을 초빙하여 9월 상순부터 착수하기로 되었는데 철광회사 설립을 보는 날에는 이것을 계기로 타공장도 유치할 것으로 강원도 광업계의 전도는 기대되는 점 많다고 한다.

1938-09-04-02-06

### 동아일보

#### 인제군의 농진운동 실적을 세밀조사

【인제】 인제군 농촌진흥회에서는 오는 4일에 인제군갱생부락을 제1차로부터 제5차부락까지 각위원들이 전부 총출동으로 진흥 성적을 심사하여 종래보다 더 일층 부족한 점을 개정하기로 되었다.

1938-09-04-04-11

### 동아일보

#### 춘천 거진선 개통으로 여객 사태 출현 자동차부 몹시바빠

【인제】 1936년 대홍수로 인하여 춘천거진선이이 형체도 없이 망가져서 약 2년동안을 교통이 두절되었다가 지난 9월 1일부터 개통이 되었는데 그간 막혔던 여객들은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던 터라 매일 18인승 자동차가 왕래하지만 타지못하고 1, 2일 연체하는 손님이 많아서 곤란을 겪는 현상이며 경춘철도 자동차부에서는 손님 처지에 몹시 바쁘다고 하는데 대개 이방면으로 오는 손님들은 강릉 양양 간성 고성 원산이라고 하며 일반은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 증차를 원한다고 한다.

1938-09-04-03-02

### 매일신보

#### 인제군청 보국대 도로 제초 실시

【인제】 인제군청 근로보국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오후4시로 5시까지 1시간씩 망라하여 군청사 내외의 청소작업과 군청 전으로부터 합강리로 통하는 3등도로에 제초 작업을 실시 중이다.

1938-09-04-03-05

### 매일신보

#### 인제특산 봉밀 농회서 알선판매

【인제】 인제명산의 하나인 『인제봉밀』 그 명성이 높은 것으로 일찍이 널리 알려진 터이나 아직까지 당국으로서는 아무런 지도와 장려 시설이 없어 유감으로 여기던중 김 군수 부임 이후로 농회 예산으로서 봉밀공동판매 알선자금 1,000원을 세워 금년도에는 벌써 알선 판매한 것이 1,700여원에 달하여 종래 중간상인과 간상들의 착취를 배제하고 직접 생산가들이 다대한 이익을 보게되었다.

1938-09-04-03-05

### 매일신보

#### 인제농진위원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29일 오후2시부터 군청 회의실에서 김 군수 사회하에 군농촌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이동 보고와 제1차 갱생공려부락 5년간 실정보고가 있는다음 좌기 2건을 결의하고 동 5시경 무사폐회하였다 한다.

1. 제7차(1939년도) 갱생지도부락 선정의 건
2. 농촌진흥심사의 건

麟蹄農振委員會  
 麟蹄郡에서는 지난 29日午後二時부터郡廳會議室에서 郡農村振興委員會를 開催하고委員異動報告와第一、第七次(昭和十四年度)更生指導部落選定の件二、農村振興審査の件

春巨線開通으로  
 旅客沙汰出現  
 自動車部眼鼻莫開  
 春巨線開通으로 旅客沙汰出現 自動車部眼鼻莫開

麟蹄部廳報國際  
 道路除草實施  
 麟蹄郡廳勤務報國際는 지난 8月二十八日부터午後四時로 同五時까지 一時間式繼續하여 郡廳舍内外의 清掃作業과 郡廳前으로 부터 合江里로 通하는 三等道路에 除草作業을 實施中이다

麟蹄特産蜂蜜  
 農會서 斡旋販賣  
 麟蹄名産의 하나인 『麟蹄蜂蜜』은 그名聲이 높은것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진 터이나 아직까지當局으로서는 아무런 指導와 獎勵設施이 없서 遺憾으로 여기는中 麟蹄郡赴任以來로 農會豫算으로 서 蜂蜜共同販賣斡旋資金壹千圓을 세워 今年度에는 벌써 斡旋販賣한 것이 一千七百餘圓에 달하여 從來中間商人과 奸商들의 搾取를 排除하고 即接生産家를 多

麟蹄農振委員會  
 麟蹄郡에서는 지난 29日午後二時부터郡廳會議室에서 郡農村振興委員會를 開催하고委員異動報告와第一、第七次(昭和十四年度)更生指導部落選定の件二、農村振興審査の件

1938-09-04-03-07

### 매일신보

#### 인제, 기린간 도로 명춘 4월에 착공 오지 개발에 기대

【인제】 강원도 인제군은 산간벽지로서 교통망의 불편은 거의 전조선에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총면적 139방리의 광대한 면적으로서 현재 강원도내의 교통진도로서 보아 1방리에 부설된 도로가 평균 1.6km인데 인제군내에도 겨우 노선 총연장이 73km로서 평균 1방리에 0.5km에 불과하여 군내에 잠재한 무진장의 보고가 사장된 대로 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인제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망의 완전을 기하는 것이 급무인데 그 중에도 인제를 남북으로 관통할 인제 기린선 부설이 인제의 생명선으로서 연래의 일반국민의 숙망이면서도 부설치 못하였더니 김 군수 부임이래로 인제군 도로개착기성회를 조직하고 공사비 1만원을 엄출하여 도비에 기부한 다음 도시업으로 가급적 내년 봄 4월경 기공 예정이었는데 일반국민의 열성으로 공사비 엄출이 금년도 내로 완납을 보리라는 데 공사비의 완납을 기다려 내년 봄 4월에는 무위공사에 착수케되리라 한다.

1938-09-04-03-09

### 매일신보

#### 인제면정신연맹 결성

【인제】 강원도인제군에서는 지난 1일 오전8시 인제신사 경내에서 인제면장 이종익씨 사회하에 애국일 행사를 거행한 다음 이어서 국민정신총동원 인제군연맹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1938-09-07-04-09

### 동아일보

#### 인제애국부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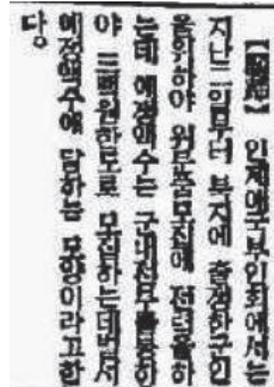
【인제】 인제애국부인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북중국에 출정한 군인을 위하여 위문품 모집에 전력을 하는데 예정액수는 군내 전부를 통하여 300원 한도로 모집하는데 벌써 예정액을 달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1938-09-07-04-09

### 동아일보

#### 인제에 호우로 농작물이 소생 일반농가 희색만면

【인제】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1개월여를 가뭄이 계속되어 음료수에 기근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농작물이 가위 고사상태에 있더니 다행히 지난 3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아직 끊이지 않고 온다는데 일반농가에서는 근심을 펴지 못하고 지내오더니 농작물의 소생을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풍년 기분이 창일하다고 한다.



1938-09-09-04-10

### 동아일보

#### 인제군 벼농사 전년비해 풍년을 예상 일반농가 희색만면

【인제】 인제군 각면의 농작물의 상황을 본다면 조 농사 이외는 전부 평년작 이상인데 그중에도 벼농사는 전년에 비하여 대풍작을 예상한다는데 일반농가에서는 고달픈 땀을 흘려가며 지은 농작물이 풍작의 진도를 나타내자 희색이 만면상라고 한다.

1938-09-10-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각면에 사무주임 임명

【인제】 군행정기구의 개정에 따라 인제군 각면에도 지난 1일자로 좌기와 같이 사무주임을 임명하였다. 인제면 이동규, 남면 정원식, 기린면 미정, 내면 서연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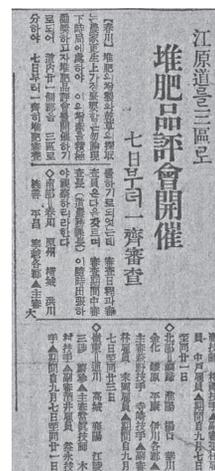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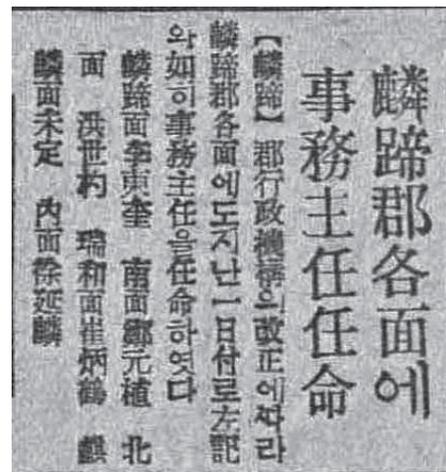
1938-09-10-03-06

### 매일신보

#### 강원도를 3구로 퇴비품평회 개최 7일부터 일제 심사

【춘천】 퇴비의 증제와 건조의 채취는 농가갱생상 가장 긴요함은 물론 현하 시국에 처하여 이의 증산을 적극 권장하고자 퇴비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도내 21개 군을 3구로 나누어 7일부터 일제히 퇴비 심사를 하기로 되었는데 심사 일정과 심사원은 다음과 같으며 심사 기간 중 심사장(도 농무과장)이 수시 출장하여 시찰하리라 한다.

- ◇ 남부 = 춘천, 원주, 횡성, 홍천, 정선, 평창, 영월 각군
- ▲ 주심 대룡 기사, 상택 기사
- ▲ 부심 평립 고원, 중호 고원
- ▲ 기간 9월 7일부터 동 11일까지
- ◇ 북부 = 인제, 회양, 양구, 화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 각군
- ▲ 주심 추야 기사, 시기 기사
- ▲ 부심 임 고원, 미강 고원
- ▲ 기간 9월 7일부터 동 13일 까지
- ◇ 영동 =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 ▲ 주심 당진 기사, 목촌 기사
- ▲ 부심 주정 고원, 익영 기사
- ▲ 기간 9월 7일부터 동 11일 까지



1938-09-10-04-06

### 매일신보

#### 강원도지원병 후기생 32명 대기 중, 목하 각서서 예비 훈련

【춘천】 2,300만 도민 중의 다같이 열망하여오던 지원병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이 한번 발표되자 때는 왔다는 듯이 밀려드는 지방자는 3천리 방방곡에 끊일 줄 모르고 계속하여 조선청년의 불타는 애국심을 여실히 표현한 바 있었는데 당시 강원도에서도 300여명의 지방자가 있었으나 정원 관계로 추리고 추리어 전기생으로 28명이 입소되어 방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며 후기 입소예정자 32명도 오는 12월 1일에 입소를 앞두고 모두 견재하여 대기중에 있다는데 이에 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훈련소 생도 채용 예정자의 평소의 훈련을 가하고자 금월 초순부터 그후의 건강 상태의 재조사와 규율, 예식, 학과 등에 대하여 맹렬한 훈련을 가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기 중의 입소 예정자의 씨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엄양환(춘천) ▲박동순(춘천) ▲김용식(인제) ▲윤기락(양구) ▲송의순(회양) ▲송인복(회양) ▲한원갑(동천) ▲이명손(통천) ▲이영희(통천) ▲박장수(고성) ▲이상봉(양양) ▲최돈겸(강릉) ▲강세병(강릉) ▲김수정(삼척) ▲이택우(울진) ▲권백룡(울진) ▲유광돈(정선) ▲이종대(영월) ▲임무열(영월) ▲홍돈헌(원주) ▲박원복(원주) ▲김철용(원주) ▲한명우(원주) ▲오하운(횡성) ▲이승우(홍천) ▲홍중현(화천) ▲최중규(화천) ▲박봉석(화천) ▲이종술(이천) ▲김화옥(화천) ▲이종욱(화천)

1938-09-11-03-04

### 매일신보

#### 인제 애국부인회서 위문금품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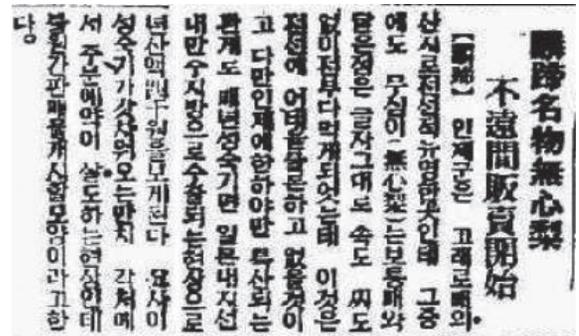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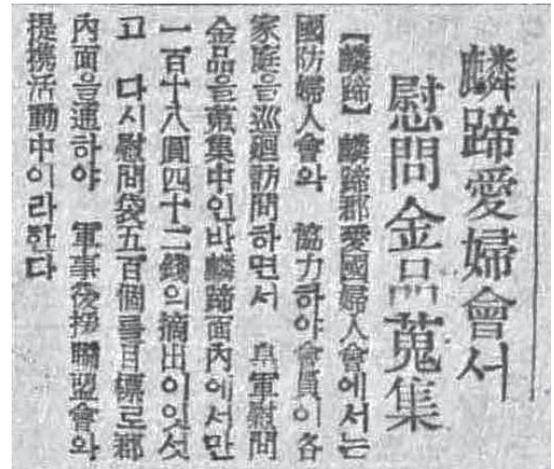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애국부인회에서는 국방부인회와 협력하여 회원이 각 가정을 순회방문하면서 일본군(황군) 위문금품을 수집중인데 인제면내에서만 118원42전의 적출이 있었고 다시 위문대 500개를 목표로 군내면을 통하여 군사후원연맹회와 제휴활동중이라 한다.

1938-09-11-04-10

### 동아일보

#### 인제 명물 무심이(無心梨) 불원간 판매 개시

【인제】 인제군은 고래로 배의 산지로 전조선적 유명한 곳인데 그 중에도 무심이는 보통배와 다른 점은 글자 그대로 속도 씨도 없이 전부다 먹게되었는데 이것은 전조선에 어디를 물론하고 없을 것이고 다만 인제에 한하여만 특산되는 관계로 매년 성숙기면 일본 내지 만주지방으로 수출되는 현상으로 연산액 4,000원을 보게된다. 요사이 성숙기가 가까워오는만치 각처에서 주문 예약이 쇄도하는 현상인데 머지않아 판매물 개시할 모양이라고 한다.



1938-09-12-04-10

### 동아일보

#### 인제남소교생 근로보국대 조직

【인제】 인제군읍내 남소학교생도들은 지난 6일부터 수업이 끝나면 오후4시부터 5, 6인씩 보국대를 조직하여 보국대라는 기를 들고 시내 각집을 돌아다니면서 1전 내지 10전까지의 국방헌금을 모집하는데 이 어린이들의 활동에는 누구나 감격하지 않은 자 없이 자기형편대로 헌금한다고 한다.

1938-09-12-04-10

### 동아일보

#### 조냉! 농작이 우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요사이 비가 갠 뒤로 별안간 일기가 풀변되어 아침저녁으로는 한기가 심하여 모두가 따뜻한 데로만 찾게 되는데 이대로 계속한다면 일찍 서리올까 염려가 있어 농작물 성숙에 다소 피해나 있지 않을까하여 일반은 염려중이라고 한다.

1938-09-12-04-11

### 동아일보

#### 인제관매소서 위문 담배 모집

【인제】 인제연초관매소에서는 요사이 총출동으로 일본군[황군]위문 담배모집에 대활동중인데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는데 근근 모집되는대로 발송한다고 한다.

1938-09-13-03-01

### 매일신보

#### 27개 부락 900여호 갱생계획을 수립 인제군서 명년에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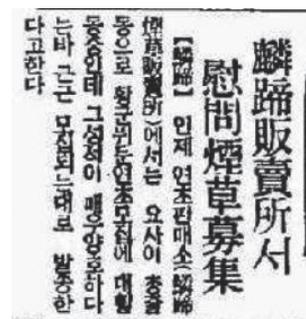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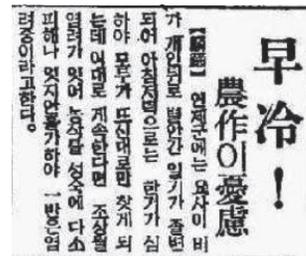
【인제】 1938년 제1차 갱생지도부락을 설치한 이래 제6차에 이르도록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농가의 약 50%이상이 점차로 갱생의 경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제 다시금 내년 1939년도에는 군내 27개부락에 농가 902호의 계획수립을 목표로 군면과 일반관공서가 일치협력하여 준비공작으로 야학회 실시, 가계부 배부, 부채 정리 등을 실시하여 착착 진행중이라고 한다.

1938-09-14-04-08

### 동아일보

#### 인제에 폭풍 습래로 농작물 피해 불소, 서화지방이 제일 우심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에 폭풍이 습래하여 농작에 피해가 막대하다는데 그중에도 서화면은 벼농사 피해가 많아서 반수가 말라죽었다고 한다.



1938-09-14-04-09

### 동아일보

#### 시국영화회 개최

【인제】 인제군에서는 강원도 주최로 순회 시국강연회가 지난 11일 밤에 있었는데 이날 밤 합동사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당일 집회인원이 상당히 많았으나 그래도 입장료로 1인당 10전씩 받게되는 관계로 예상과는 다소 감소되었다고 한다.

1938-09-15-04-01

### 매일신보

#### 강원도청년단대회 21일부터 개최 각군 대표 340명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의 청년들로 하여금 비상시 전시체제에 있어서 시국을 재인식케 하는 동시에 애국청년으로서의 진로를 명시하여 충후보국의 만전을 기케 하고자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춘천에서 강원도연합청년단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공전의 역사적 회합인 만치 도내 각군에서 다음과 같이 339명이 출석하리라 한다. 그리고 24일부터 총독부 청년단대회에도 255명을 출석케 하리라는데 이들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기일까지에는 다소 이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괄호 내는 전선대회 출석자 수)

- ▲춘천 49명(42명) ▲인제 7(1) ▲양구 9(3) ▲회양 6(5) ▲통천 7(7)
- ▲고성9(6) ▲양양 29(17) ▲강릉 10(9) ▲삼척 10(10) ▲울진 3(5)
- ▲정선 7(8) ▲평창 1(1) ▲영월 6(2) ▲원주 12(24) ▲횡성 34(13)
- ▲홍천 18(12) ▲통천 23(13) ▲김화 36(18) ▲철원 23(22) ▲평강 29(29)
- ▲이천 11(8) ▲계 339(255)

1938-09-15-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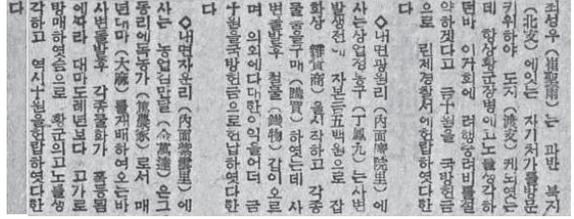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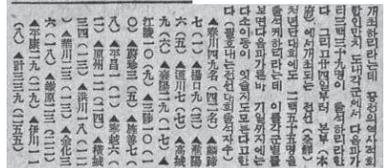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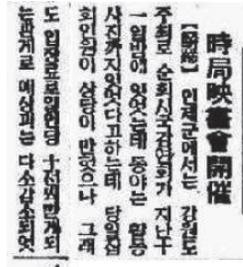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인제 헌금 일속

【인제】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 사는 상업 최성우는 지난번 북중국에 있는 자기 처가를 방문키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게 되었는데 항상 일본군(황군)장병에 고노를 생각하더니 이 기회에 여행 중 여비를 절약하겠다고 금 10원을 국방헌금으로 인제경찰서에 헌납하였다 한다.

◇내면 광원리에 사는 상업 정봉구는 중일전쟁 발생 전에 자본금 500원으로 잡화상을 시작하고 각종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전쟁 돌발 후 철물값이 오르며 의외에 다대한 이익을 얻어 금 10원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였다 한다.

◇내면 자운리에 사는 농업 김만달은 그 동리에 독농가로서 매년 대마를 재배하여오는데 중일전쟁 돌발 후 각종 물화가 폭등됨에 따라 대마도 예년보다 고가로 팔았으므로 일본군(황군)의 고노를 생각하고 역시 10원을 헌납하였다 한다.



1938-09-17-03-02

매일신보

강원서 기술원회의 초집 면작 증산 방책 토의, 병충해 방제와 손실 보상건 등 구체적 실행안 지시

【춘천】 강원도에서는 국책에 의한 면작 장려의 유감없기를 기하고 자 오는 26일에 춘천 인제 양구 영월 원주 횡성 홍천 화천 김화 철원 이천 11개군의 면작 담임기술원과 삼척 울진 양군의 보통농사담임 기술원을 초집한 후 도회의실에서 면작 기술원 타합회를 개최하리 라는데 지시와 타합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7일에는 용강 면작지장 장, 소야사 기사의 강연이 있는 후 일동이 춘천군 서면 중도와 농사 시험장을 시찰하리라 한다

◇지시사항

(1) 지도기관의 연락협조에 관한 건 (2) 작부면적의 충실에 관한 건

◇주의사항

(1) 금비의 시용지도에 관한 건 (2) 병충해의 방제에 관한 건 (3) 채취면화와 목재면의 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건

◇타합사항

(1) 금년도 면화공동판매수량 증가에 관한 건 (2) 1939년도 면작 준비에 관한 건 1. 맥 간작 보급에 관한 건 2. 종자준비에 관한 건 (3) 면화재배 손실 보상실시에 관한 건

◇청취사항 본년 수량 예상과 공판 예상

1938-09-17-04-04

동아일보

인제군내에 우박재해로 농작 피해 적지않아

【인제】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일기가 차서 따뜻한 데만 일반이 찾게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우려가 많은데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약 5분간을 우박이 내렸는데 이일로 인연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말할 여지도 없고 채소 등은 작으나마 형체도 없이 되어 일반은 겨울살이 김장할 길이 없어 초조중이라고 한다.

1938-09-17-04-09

동아일보

인제 우시장 성황

【인제】 인제군 읍내 우시장은 본래 한산하기 짝이 없어 일반지방 민들은 언제든지 성황을 기하기로 연구해오더니 다행히 요즘 소값도 폭등하고 연사도 풍년인 관계인지 차차 시장이 흥왕해지는 기회를 타서 우시장 감독 이봉운씨는 지방민과 협력하여 우시장 확장에 노력하여 요즘은 하루 장에 소가 40, 50마리씩 입장이 되어 성황을 이루는 한편 일반시장도 영향이 많다고 한다.

1938-09-17-04-11

### 동아일보

#### 인제의 시국강연

【인제】 인제군 문묘직원 이성흠씨는 자진하여 요사이 매일 각면을 돌아다니면서 시국강연을 한다는데 어디를 물론하고 집합인원이 만원이라고 한다.

1938-09-18-03-09

### 매일신보

#### 각지 추천공판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좌기와 같이 수건 공동판매를 실시한다 하며 예년 취급하던 남면 어른취급소는 올가을부터 타군 생건을 취급치 않을 목적으로 취급정지를 하였다. 인제면 북리건전장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면 관대건전장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북면 원통건전장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화면 서화건전장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인제면 현리건전장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내면 창촌건전장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938-09-18-03-10

### 매일신보

#### 염색강습회 인제면서 개최

【인제】 인제군 인제면에서는 색의 장려의 철저를 기하고자 지난 15일 인제면 북리공회당에서 면내 갱생부락 중견인물 및 부인회원 등을 회집하고 염색 강습을 행하였는데 예년에 비하여 다대한 효과를 보였다 한다.

1938-09-18-03-12

### 매일신보

#### 인제 추계청결

인제경찰서와 인제면에서는 좌기일정에 의하여 정기 청결검사를 시행하기로 되었다. 9월 26일 상동리 및 남북리(읍내) 9월 27일 상동리 및 남북리(읍외) 9월 29일 합강리 본 부락 9월 29일 덕산리 1, 2구 9월 30일 가아리 1, 2구 10월 1일 덕적리 일원 10월 2일 가리산리 일원 10월 3일 귀둔리 일원 10월 4일 하추리 일원 10월 5일 관대리 일원 10월 6일 고사리 일원

**麟蹄의時局講演**

【麟蹄】 인제군 문묘직원 이성(李性猷)씨는 자진하여 요사이 매일 각면을 돌아다니면서 시국강연을 한다는데 어디를 물론하고 집합인원이 만원이라고 한다.

**各地秋爾共販**

【麟蹄】 麟蹄郡農會에서는 左記의如히秋爾共同販賣會를 施行한다 하되 例年取扱하든 兩面販賣會 販賣開始한 狀况을 連日大體 販賣停止를 命じ고 있다

【金化】 金化郡農會에서는 場에서 廿四日부터 秋爾共販 販賣開始를 命じ고 있다

【高城】 高城郡에서는 廿二일부터 例年一週間과 二十日 부터 例年二週間의 秋爾共販 施行中이다

【蔚珍】 蔚珍郡農會에서는 秋爾共販賣會와 如히開始하고 있다

【龍仁】 龍仁郡農會에서는 廿六日 至 廿七日 兩面 平海里 同十七日 兩面 平海里 同十七日

**染色講習會**

麟蹄面서開催

【麟蹄】 麟蹄郡麟蹄面에서는 染色衣 獎勵의 徹底를 期하고 자 去十五日 麟蹄面北里公會 會에서 面內 更生部 落 中堅人物及 婦人會員等을 會集하고 染色講習會를 行하였는데 例年에 比하여 多大한 效果를 보였다 한다

**麟蹄秋季清潔**

【麟蹄】 麟蹄警察署와 麟蹄面에서 左記日割에 依하여 定期清潔檢査를 施行하기로 되었다

九月二十六日 上東里及北里(邑內) 九月二十七日 上東里及北里(邑外) 九月二十八日 合江里本部 九月二十九日 德山里一、二區 九月三十日 加兒里一、二區 十月一日 德積里一圓 十月二日 加里山里一圓 十月三日 貴屯里一圓 十月四日 下敵里一圓 十月五日 院卷里一圓 十月六日 古沙里一圓

1938-09-18-04-08

### 동아일보

#### 남의 심부름하다가 금전을 분실

【인제】 지난 14일 인제군 인제면 하추리 이필준은 자기 이웃 구장 박용수의 부탁으로 25원여를 당지 금융조합에 저금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우편소로 기타 상점 등지로 들리오던중 어디서인지 통장과 돈을 잃어버리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달라고 하는 광경은 보는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며 전기 이필준은 그것을 변상한다면 전가산이 기울어지리라는데 집에 가지않고 불행에 운다는데 경찰서에 도문실계를 수리하고 찾으려고 대활동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1938-09-18-04-08

### 동아일보

#### 자전거에 치어 중상

【인제】 인제군 남면 부평리 최필영 차남 최사형(12)은 지난 8일 관 대소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중 앞 신작로에서 관내 양조장 술매달부의 자전거와 충돌이 되어 우편 다리에 중상을 입었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결과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방금 치료를 받는중이나 완치까지는 상당히 시일을 요하리라고 한다.

1938-09-19-04-10

### 동아일보

#### 인제체육협 임원회

【인제】 인제군체육협회에서는 지난 16일 오후3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제2회 임원회를 열고 좌기 타합이 있었다고 한다.

- 1. 체육운동 행사에 관한 건
- 2. 193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 3. 193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협의사항

이상과 같이 협의하였는데 오는 10월 1일은 각청년단과 일반회원과 육상경기가 있을 모양으로 지금부터 그 준비에 분망중이라고 한다.

1938-09-20-03-10

### 매일신보

#### 송산업부장 인제군 시찰

【인제】 송 강원도 산업부장은 지난 15일 인제로 와 김군수의 안내로 같은날 북면 송거리객생부락을 시찰하고 귀읍하여 상본여관에서 1박하고 다음날 16일에는 오전8시부터 군수실에서 일반 관공청장과 지방유력자 등을 접견하고 이어서 총원 일동에게 대한 간단한 훈시가 있을 후 김 군수의 안내로 읍내 일반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한 다음 오후에 남면 어룡리공려부락을 시찰하고 흥천을 경하여 춘천으로 돌아갔다.

**남의 심부름하다가**  
**金錢을 분실**  
 【麟蹄】 인제군 인제면 하추리 이필준은 자기 이웃 구장 박용수의 부탁으로 25원여를 당지 금융조합에 저금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우편소로 기타 상점 등지로 들리오던중 어디서인지 통장과 돈을 잃어버리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달라고 하는 광경은 보는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며 전기 이필준은 그것을 변상한다면 전가산이 기울어지리라는데 집에 가지않고 불행에 운다는데 경찰서에 도문실계를 수리하고 찾으려고 대활동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자전거에 치어 중상**  
 【麟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최필영 차남 최사형(12)은 지난 8일 관 대소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중 앞 신작로에서 관내 양조장 술매달부의 자전거와 충돌이 되어 우편 다리에 중상을 입었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결과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방금 치료를 받는중이나 완치까지는 상당히 시일을 요하리라고 한다.

**麟蹄協任員會**  
 인제군체육협회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제2회 임원회를 열고 좌기 타합이 있었다고 한다.  
 一、體育運動行事에 관한 건  
 二、昭和十三年度 예산 결산 보고  
 三、昭和十二年度 慶典 出席 決議  
 四、其他本會의 發展에 관한 協議  
 事項  
 이상과 같이 협의하였는데 오는 10월 1일은 각청년단과 일반회원과 육상경기가 있을 모양으로 지금부터 그 준비에 분망중이라고 한다.

**宋産業部長**  
**麟蹄郡視察**  
 【麟蹄】 宋江原道産業部長은 去十五日來 麟蹄하여 金郡守의 案内로 同日 北面松峯里 更生館에서 視察하고 歸邑하여 榮本旅館에서 泊하고 翌 十八日에는 午前八時부터 郡守室에서 一般官公廳長과 地方有力者等을 接見하고 이어서 慶員 一同에 對한 간단한 訓示가 있은後 金郡守의 案内로 邑內 一般官公署를 一々히 訪問한다음 午後에 南面於 論里 共勵館을 視察하고 洪川을 經하여 歸察하였다.

1938-09-27-03-01

### 매일신보

#### 방공협회지부 각지서도 속속 결성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총독부 방침에 순응하여 공산주의사상 및 운동의 박멸을 기할 목적으로 조선방공협회 인제지부 및 인제방공단 결성식을 지난 23일 오전8시30분부터 인제신사 광장에서 읍내 각관공서 및 지방유지 애국부인회원 국방부인회원 각소학교생도 등 1,000여명이 회합하여 산전 지부장 사회화에 성대히 거행되었다는 데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조선방공협회 강원도 인제지부 임원 ▲지부장 산전 인제경찰서장 ▲지부간사 김 경부보, 포 경부보, 남리 내무과장, 국실 재향군인분회장, 김 금융조합장 ▲서기 중도 순사부장 ▲평의원 김 인제군수, 이 인제면장, 석전 우편소장, 신권 남소학교장, 좌동 등기소장, 김 판매소장, 김 조합이사, 이 도회의원, 이 문묘직원
- ◇ 지방측 행본친차 대책가조 철곡감치 신덕휴 김기선 삼호조차량 ▲단장 삼호조차량 ▲부단장 김군삼 ▲간사 백남규 이종욱 ▲고문 국실무사 신권우이문 행본친차

1938-09-27-03-01

### 매일신보

#### 강원전도를 3구로 금융조합 이사회의 원주, 강릉, 철원에서

【춘천】 강원도에서 해마다 도내 금융조합 이사회를 열어 금조사업의 쇄신과 자금유통의 원활 등에 대한 구체 방책을 협의해 왔는데 금년에는 사정상 도 주최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되었으므로 조선금융연합회 강원도지부 주관의 이사부분협의회를 좌기에 의해 개최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전도를 3구로 나누어 원주 원주제2 문막 횡성 홍천 춘천 춘주 화동 인제 주천 영변 평창 대화 진부 정선 둔내 천전 등 17조합은 9월 29일 원주에서, 강릉 명주 주문진 양양 대포 간성 옥계 삼척 원덕 울진 평해 죽변 등 12조합은 10월 3일 강릉에서, 철원 철원제2 동주 평강 이천 지석 안협 김화 금성 창도 통구 내금강 회양 화천 양구 흡곡 통천 고성 등 18조합은 10월 6일 철원에서 각기 개최하리라는데 이번 부분협의회의 지문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지문협의사항
- 1. 시국에 적응하여 과거 1년간에 있어서 금융조합의 취한 방책 및 기실현과 금후 취할 유효적절한 구체적 방안 (1)시국인식과 조합 취지 보급에 관한 사항 (2)생산확충에 관한 사항 1. 산업지도에 관한 실천과 계획 2. 부업장려실적과 시설 계획 (3)저축장려에 관한 사항 1. 금융조합예금 증가 목표 실시 개요 2. 예금단체의 결성 상황 3. 위실현에 관한 유효적절한 실행방책과 사무처리에 관한 개선의견 (4)알선 사업에 관한 사항 1. 취급 실적 2. 집하후제 판매 방법에 관한 실정 3. 좌의 사항에 대한 금후의 계획과 의견 가. 집하 배급망의 조직방법 나. 집하조제 방법 다. 청취사무에 관한 개선 사항
- 2. 조합원 80% 포용 실행에 관하여 금후 취할 실행방책을 강구코자 함 이에 대하여 지방에 즉한 구체적 방책 (1)시설실적과 계획의 개요 (2)장래의 대책



1938-09-29-03-04

### 매일신보

#### 미곡조사 강습 인제군서 개최

【인제】 인제군에서는 미곡정책상 중요한 관계가 있는 쌀의 생산고와 현재고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5, 6일 양일간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설악산 백담사에 각면 기수 외 담임서기 2명씩 합 18명을 집합케하고 군관계 직원이 출장하여 강습케 하리라 한다.

1938-09-29-04-06

### 동아일보

#### 인제육상경기 개최

【인제】 인제군체육협회에서는 회원의 체육을 발달시키는 의미하에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인제남소학교 교정에서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데 금번 경기만은 인제에서는 초유사로 대궐장히 할 모양으로 지금부터 준비에 분망중인데 이날은 각단체 대항 릴레이까지 있는데 일반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하며 경기순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 9월 30일 각청년단 운동
- 10월 1일 각단체대항 릴레이, 회원 육상경기
- 10월 2일 각단체의 정구시합 탁구시합 야구시합

1938-09-29-04-07

### 동아일보

#### 인제군 각학교의 추계운동일 결정

【인제】 인제군내 각학교에서는 추기 대운동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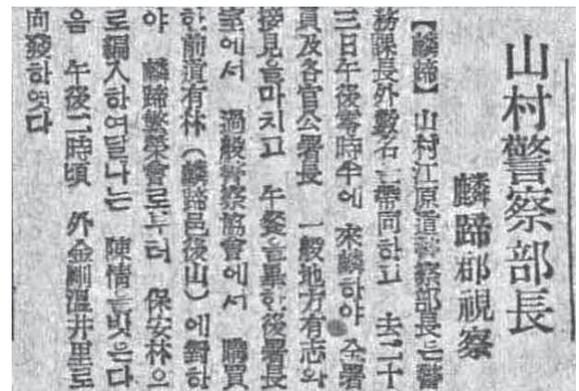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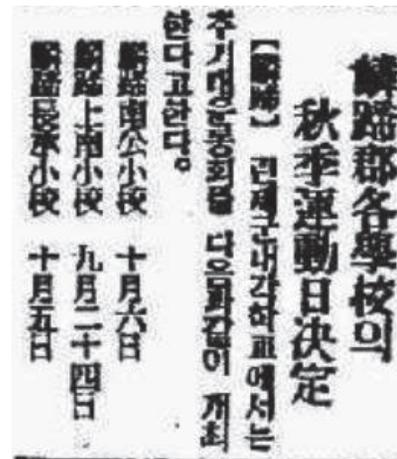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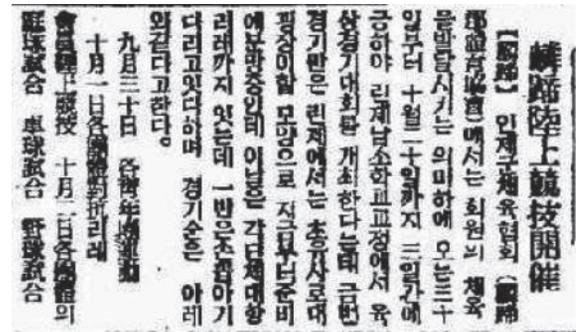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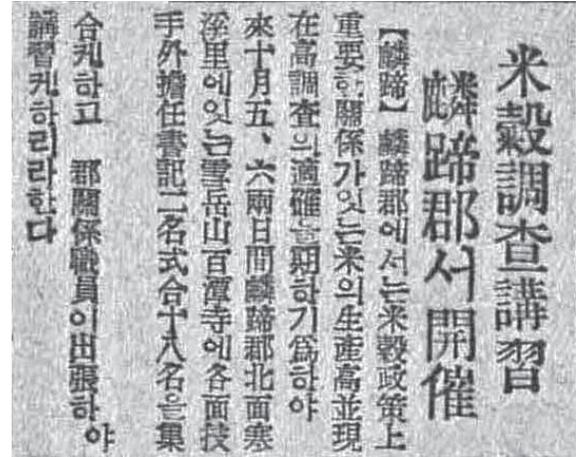
- 인제남공소교 10월 6일
- 인제상남소교 9월 24일
- 인제장승소교 10월 5일

1938-09-30-03-09

### 매일신보

#### 산촌 경찰부장 인제군 시찰

【인제】 산촌 강원도경찰부장은 경무과장 외 수명을 대동하고 지난 23일 오후 0시 반에 인제로 와 전서원 및 각관공서장 일반지방유지와 접견을 마치고 오찬을 필한 후 서장실에서 지난번 경찰협회에서 구매한 전 도유립(인제읍 뒷산)에 대하여 인제번영회로부터 진정을 받은 다음 오후 2시경 외금강 온정리로 향발하였다.



1938-10-01-03-02

### 매일신보

#### 인제신사 대제

【인제】 인제신사 추계예제는 시국관계로 일반여흥을 중지하고 특히 신사승배에 의로 강원신사 사장 강기용정씨를 초청하여 지난 9월 27일 오후8시에 예비제를 거행하고 다음날 28일에는 오전11시부터 각관공서와 일반지방민 단체 수천명이 참집되어 엄숙히 거행하였다.

1938-10-02-04-05

### 동아일보

#### 육십 노인 참사 트럭에서 떨어져서

【인제】 인제군 북면 용대리 윤봉래(64) 외 2인은 지난 26일 오후9시경 계림회사 강301호 화물차가 용대서 편목을 싣고 원주로 가는 기회로 그것을 타고 귀가하는 도중 전기 윤봉래는 술이 취한 관계로 불행히 떨어져서 무참히도 죽었고 기타 2인은 별고없었다 하며 그 운전수 강봉남(41)은 방금 당시 경찰서 김 사법주임이 현장 조사와 일반 취조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1938-10-02-04-10

### 동아일보

#### 인제시장일 변경, 회양가축시도 허가

【인제】 강원도 산업과에서는 다수 지원민의 요망에 따라 관하 인제, 양양 등 3개소의 좌기와 같은 시장 변경을 지난 9월 26일로 인가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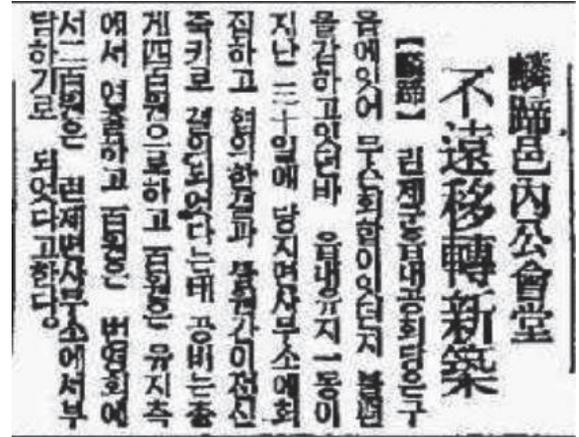
- 1. 인제군 인제시장일 3, 8일로
- 1. 인제군 상남리시장일 4, 9일로
- 1. 양양군 난곡면 현리시장에 가축시장을 허가

1938-10-03-04-09

### 동아일보

#### 인제읍내 공회당 불원 이전 신축

【인제】 인제군 읍내 공회당은 구읍에 이어 무슨 회합이있든지 불편을 띠고 있는데 읍내 유지 일동이 지난 30일에 인제면사무소에 회집하고 협의한 결과 머지않아 이전 신축기로 결의되었다는데 공비는 총계 400원으로 하고 100원은 유지측에서 연출하고 100원은 번영회에서 200원은 인제면사무소에서 부담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1938-10-03-04-09

### 매일신보

#### 인제군 두 시장 개시일을 변경

【춘천】 인제군 인제면 현리, 상남리 각시장의 개시일을 지난 26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하기로 되었다.

- ▲현리시장 3, 8, 13, 18, 23, 28
- ▲상남리시장 4, 9, 14, 19, 24, 29일  
(평년의 2월에는 29일을 28일로)

1938-10-04-04-04

### 매일신보

#### 강원도내 부인단체 공동 저축액 만원, 옥외 노동의 결정으로

【춘천】 강원도내 각부인회에서는 중일전쟁이래 시국을 철저히 인식한 나머지 총후부인단체로서 국가행사에 참가 협력하는 등 눈물겨운 활동을 해왔는데 그중에도 더욱 감탄할 것은 지금까지 문 밖에도 나와 보지 못하던 가정부인들이 혹은 농장으로 혹은 공사장으로 혹은 도로 수선작업으로 각종 옥외노동을 실시하여 총후생업보국에 매진하고 있는바 이같이 근로작업으로 얻은 수입금을 가지고는 국방헌금 일본군항군 위문 등 적성을 피력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회의 기본금과 공동저금을 해왔다 한다. 이같이 하여 1,800여 단체의 4만8,200여 회원이 조성한 기본금이 2만9,266원38단에 달하였으며 공동저금액이 1만96원39전에 달하고 있다는데 국책에 의한 저축 장려로 일층 철저히 계속실시중이러는데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조성금액(원)	공동저축액(원)
춘천	1,066.36	5,402.53
인제	1,526.00	1,90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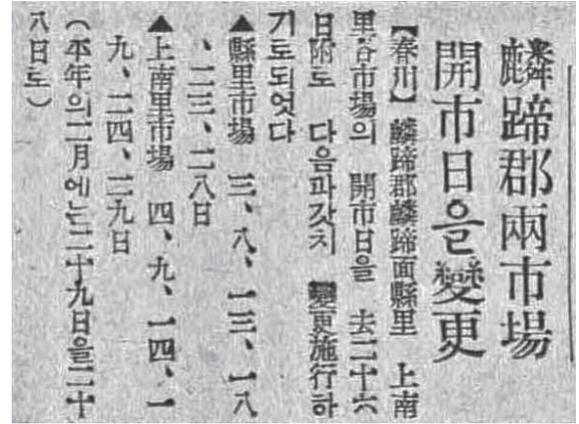
(중략)

1938-10-04-04-05

### 동아일보

#### 기룡산 벌채 금지를 읍민의 대거 진정, 인제군의 생명선이라고

【인제】 인제 후방산(기룡산)은 종래로 유림으로 있어 읍내의 풍치와 사태 등의 방치의 중대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번 도에 예산관계상 경찰협회로 매도하였는데 모소식 등으로 들으면 경찰협회에서 간벌을 한다는데 만일 간벌이나 개벌을 한다면 인제읍은 대홍수로 신음에 이전하였는데 또다시 사태의 화를 당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하여 읍민들은 지난 30일 면사무소에 집합하여 벌채 방책을 강구키로 하고 불원간 당국에다 벌채치 않도록 간곡한 진정을 하기로 되어 방금 진정 준비중이라고 한다.



1938-10-06-03-05

### 매일신보

## 강원도서 장려군 추가, 육지면을 적극재배 인제, 김화 두군 일부에도 장려 7,000여정보에 보급

【춘천】 강원도에서는 면작 증산의 구체적 방책을 평정하기 위하여 수일전 면작기술원타합회를 개최하였었는데 타합회 석상 내년 1939년도부터 보리와 면화 철저히 증산시키고자 보리 간작의 면적을 확장하기로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내년도부터는 다시 육지면의 보급을 철저히 장려하기로 방책을 세웠다고 한다.

즉 강원도의 육지면은 1934년 장려당시 겨우 400정보로 이의 재배는 주로 남부의 원주, 울진, 영월, 횡성에 한정되었었는데 이의 재배가 유리할 뿐 아니라 강원도에 적당함을 인식하게 되어 1935년이래 다시 춘천, 홍천을 1937년이래 양구 삼척 화천 철원 이천 각군을 육지면 장려지대에 편입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결과 금년에는 약 4,400정보에 달하여 총작부반별의 약 60%를 시현하고 있으며 1937년도의 공동판매 총출회고 80만근 중 육지면이 635,000근(약80%)에 달하여 각지의 풍토가 본종 재배에 호적하므로 실증하게되었다 한다.

그러하여 내년 1939년에는 육지면을 적극 보급하기로 된 것인데 보급계획의 내용을 보면 총작부 면적 10,300정보 중에서 7,708정보의 육지면 재배를 보급시키리라는 것으로 총면적에 대한 75%에 해당할 것인데 인제군의 남면, 북면, 인제면과 김화군의 김화면 4면은 본종 재배에 가능하다고 인하게 되었으므로 내년도부터 면작 장려군으로 편입하여 상당한 면적에 대하여 시작케 할 방침이라 한다.



1938-10-07-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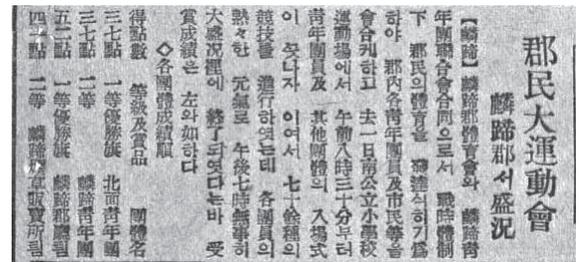
### 매일신보

## 군민대운동회 인제군서 성황

【인제】 인제군체육회와 인제청년단 연합회 합동으로서 전시체제 하 군민의 체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군내 각청년단원 및 시민 등을 회합케 하고 지난 1일 남공립소학교 운동장에서 오전8시30분부터 청년단원 및 기타 단원의 입장식이 끝나자 이어서 70여종의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각 단원의 열렬한 원기로 오후7시 무사히 대성황리에 종료되었다는데 수상성적은 좌와 같다.

◇각단체 성적순

득점수	등급 및 상품	단체명
37점	1등 우승기	북면청년단
37점	2등	인제청년단
52점	1등 우승기	인제군청팀
41점	2등	인제연초관매소팀



1938-10-07-06-13

### 동아일보

#### 송이 인공 재배 강원도서 장려

강원도에서는 도 특산품의 하나로 송이의 인공재배를 적극 장려하기로 되어 작년부터 제1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제 평창 강릉 양양 이천 정선 화천 7개군에 이를 재배케 한 결과 그 성적이 극히 양호하여 평창 같은 곳은 소나무 1,000그루에 대하여 균자만 50원의 수입이 있으며 화천군도 성적이 매우 좋아 각부락에 이를 장려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도당국에서는 금년도부터 제2기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양구 회양 통천 고성 삼척 울진 김화 황성 홍천 원주 평강 등 각군의 각개생부락에 대하여 1호당 평균 소나무 50그루씩 13만그루의 재배를 장려하여서 산촌농가의 현금 수입 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지난번 3월에서 개최된 도 특산품전람회에서도 송이가 단연 인기의 왕좌를 점하였던 만큼 육속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므로 주문에 수용하여 도특산품으로서 널리 선전에 힘쓰리라 한다.(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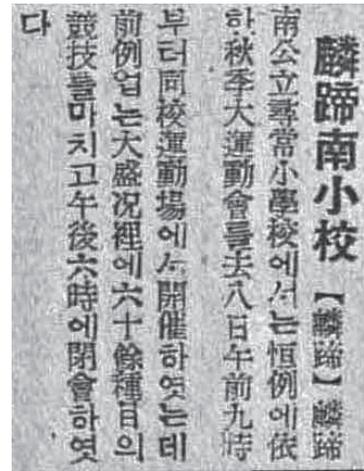


1938-10-11-03-10

### 매일신보

#### 인제남소학교

【인제】 인제남공립심상소학교에서는 항례에 의한 추계대운동회를 지난 8일 오전9시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전례없는 대성황리에 60여 종목의 경기를 마치고 오후6시에 폐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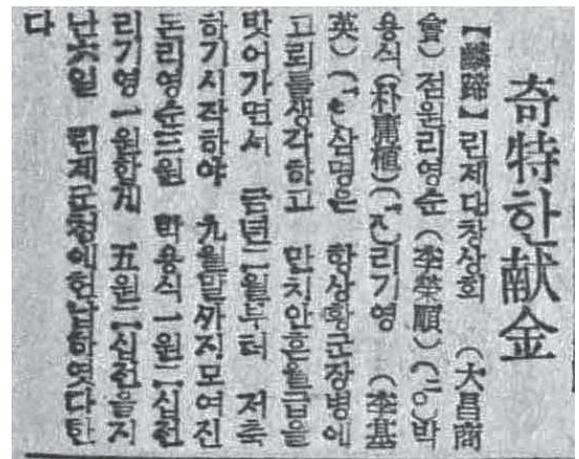


1938-10-11-04-05

### 매일신보

#### 기특한 현금

【인제】 인제 대창상회 점원 이영순(20) 박용식(19) 이기영(17) 3명은 항상 일본군[황군]장병에 고뇌를 생각하고 많지않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금년 2월부터 저축하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모여진 돈 이영순 3원, 박용식 1원20전, 이기영 1원 합계 5원 20전을 지난 6일 인제군청에 헌납하였다 한다.



1938-10-11-04-07

### 동아일보

#### 우장 증개인회 개최

【인제】 인제군은 산간벽지로 천혜 제 야초가 풍부한 군이다. 군내 어디를 물론하고 농가에서는 1호당 평균 2마리 내지 4마리까지는 무난히 축우를 사양하므로 각시장이 상당히 번창해지는 현상이었다. 군농회에서 축산 수입이 아니면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축산기술자들은 지리와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각시장 감독이 불철저해오더니 금번 새로 부임한 산업기술 김우달씨는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부임초 사업으로 각시장 증개인 26명을 지난 2일 군회의실에 소집하고 시장 번창과 수입 증가의 묘방안을 타합하였는데 인제군 설시이래 시장증개인타합회는 금번이 처음이라고 하며 금번 회의는 장내 수입 증가와 부정 사건방지책 연구에 일조가 되리라고 한다.

1938-10-11-04-11

### 동아일보

#### 인제시국강연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7일 오후3시반부터 인제경찰서 연무장에서 낭로문용씨가 와서 도만실황에 대하여 강연이 있었는데 당일은 관공서 직원 기타 민중하여 청강자가 다수 집합하였다고 한다.

1938-10-11-04-12

### 동아일보

#### 인제군내 각 광산 연산액 100만원

【인제】 인제군 각지에 있는 광산은 요사이 어느 것을 물론하고 전부가 성적이 양호하여 연산액 수백만원을 산한다는데 이로 인하여 인제같은 산간군도 점점 약진상을 본다 하며 군내 각시장 경기도 종전에 비하여 번성해간다는 현상으로 그중에도 제일 유력한 광구는 북면 한계리 길전광과 조선광업이라고 한다.

1938-10-12-03-03

### 매일신보

#### 인제 추천공판 종료

【인제】 인제군농회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군내 각취급소에서 추천공판판매를 시행하였는데 출회예정관수는 10,350관이었으나 실적은 9,418관에 달하였으며 실상 대금은 27,963원70전으로 일반양잠가 생업보국저금이 2,810원77전이라는 거액에 달하였다.

牛場仲介人會開催  
【麟蹄】 麟蹄郡農會에서는 11월 2일(일요일) 오후 3시반부터 인제경찰서 연무장에서 농노문용씨를 초청하여 강연이 있었는데 청강자가 다수 집합하였다고 한다.

麟蹄時局講演(麟蹄)인제군에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반부터 인제경찰서 연무장에서 농노문용씨를 초청하여 강연이 있었는데 청강자가 다수 집합하였다고 한다.

麟蹄郡內各嶺山年産數百萬圓  
【麟蹄】 인제군 각지에 있는 광산은 요사이 어느 것을 물론하고 전부가 성적이 양호하여 연산액 수백만원을 산한다는데 이로 인하여 인제같은 산간군도 점점 약진상을 본다 하며 군내 각시장 경기도 종전에 비하여 번성해간다는 현상으로 그중에도 제일 유력한 광구는 북면 한계리 길전광과 조선광업이라고 한다.

麟蹄秋繭共販終了  
【麟蹄】 麟蹄郡農會에서는 去九月十五日(日)부터 同三十日(日)까지 郡內各取扱所에서 秋繭共販賣을 施行하였는데 出廻豫定會數는 萬三千五百貫이었으나 實績은 九千四百十八貫에達하였으며 賣上代金は 二萬七千九百六十三圓七〇錢으로 一般養蠶家生業報國貯金이 二千八百十圓七十七錢이라는 巨額에達하였다

1938-10-12-03-06

### 매일신보

## 농경우 생산지구 금년부터 5개년 계획, 강원도 각군에 설치

【춘천】 강원도에서는 갱생지도부락의 축우사양 증가계획 실시에 의하여 축우의 수요는 점점 증가될 것이므로 이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각군농회를 주체로 금년부터 194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경우 생산지구를 설치하여 축우증식의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다.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 1938년 양양 고성 화천
- 1939년 울진 양구 홍천
- 1940년 통천 삼척 평강
- 1941년 회양 평창 이천
- 1942년 인제 정선 횡성

이상과 같이 연차별로 실시할 터인데 실시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지구는 축우생산에 적당한 지구를 선정함. 2. 군농회에서는 1 생산부락에 암소 200마리 이상을 구입하여 상치함. 3. 생산율은 연2월이래 매년 70%로 하여 1지구 160마리

1938-10-12-03-09

### 매일신보

## 인제군축산계 우시 중개인 회의

【인제】 인제군 축산계 주임 기수 김문달씨는 군내 가축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위선 각시장을 일순한 후 중개인 및 중개감독을 지난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초집하고 신중 협의를 행하였다.

1938-10-14-04-07

### 동아일보

## 기린, 원통 양소교 추계운동회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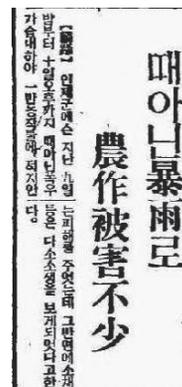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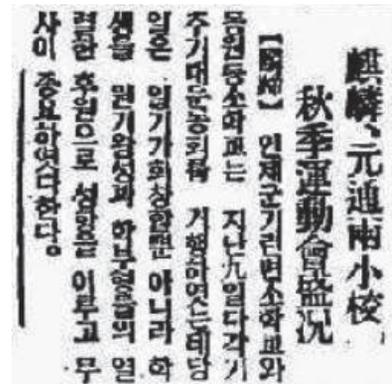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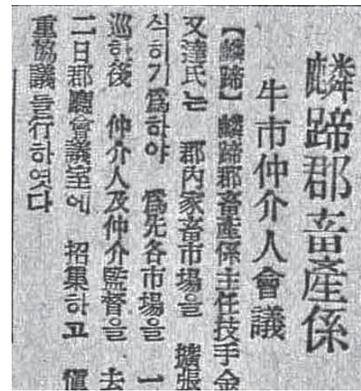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기린면소학교와 원통소학교는 지난 9일 다 각기 추계대운동회를 거행하였는데 당일은 일기가 화창할 뿐 아니라 학생들 원기 왕성과 학부모들의 열렬한 후원으로 성황을 이루고 무사히 종료하였다 한다.

1938-10-14-04-07

### 동아일보

## 때 아닌 폭우로 농작피해 적지않아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오후까지 때아닌 폭우가 습래하여 일반 농작물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 반면에 소채 등은 다소 소생을 보게되었다고 한다.



1938-10-14-04-09

### 동아일보

#### 남소교 운동회 성황

【인제】 인제군 남소학교운동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8일에 학교 교정에서 열려 일반 학부모들의 박수갈채리에 아동들은 원기있게 운동을 계속하였고 따라서 그중의 제일 유의미한 경기는 전시에 대한 인식운동이었다고 한다.

1938-10-19-06-07

### 동아일보

#### 농민이 가져온 고치 중량을 속여 기수 외 1명 송국

【춘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추잠공동판매장에서 다수 농민들이 가지고 온 고치를 사기해먹은 사실로 인제군농회기수 임모와 동 판매장 사무원 유모 2명은 얼마전부터 인제경찰에서 취조를 받다가 지난 14일 일건서류와 함께 춘천검사국으로 송치해왔다. 그들의 범죄내용을 보면 전기 유모는 촌민이 가져온 고치를 달 때 매인 앞에 약간씩의 중량을 속인 후 이를 추정하여 그 수량만한 유령 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총계 약 50관 금액으로 160여원이나 사기해먹은 것이라 한다.

1938-10-26-03-05

### 매일신보

#### 전도를 3구로 전작 품평회 내일 초순부터 강원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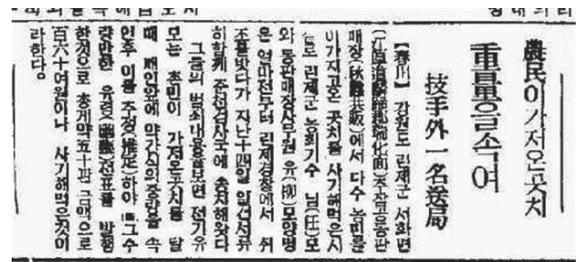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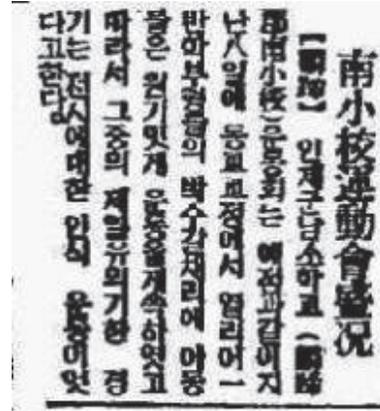
【춘천】 강원도에서는 전작 개량의 효과를 일반에게 주시시키고자 전도를 일원으로 하고 다시 3구로 나누어 좌기에 의해서 전작 품평회를 개최하리라는 데 각 군에 있는 출작개량지도단 및 각급 씨반이밭이 소개하는 부락과 전작 표준전은 전부 출품케 하리라 한다.  
기◇남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춘천, 정선,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  
◇북부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인제, 양구, 회양, 화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영동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울진

1938-11-11-04-01

### 매일신보

#### 용지 기타 제공 알선, 대규모 공장 유치 공업강원 실현도 재이

【춘천】 강원도에는 화천 인제 김화 강릉 등 곳곳에 수력발전사업이 실현되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삼척 영월의 무연탄 개발 등 연료탄과 각종 공업 원료가 풍부하므로 용지 기타 공장 경영에 필요한 요소의 제공 알선에 힘써 대자본 공장의 유치를 꾀하여 공업 강원도의 실현을 촉진시키고자 방금 착착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38-11-16-03-05

### 매일신보

#### 강원도의 근로보국대 무려 3,800여 대원수 실로 26만명

【춘천】 강원도에서는 160만 도민으로 하여금 국가 관념의 함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도모케 함은 물론 근로예호, 인고단련, 희생봉공의 정신을 독실케 하고자 지난7월7일 중일전쟁 기념일을 계기로 전도내 각 부락을 비롯하여 각종 기관단체에 이르기까지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기로 되었었는데 그후 조직이 활발해져서 지난10일 현재 3,804대대가 조직되었다는데 이의 대원수가 실로 26만822명에 달하여 각종근로 작업으로 충후보국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근로보국대 결성상황(11월10일 현재)

군명	대수	대원수
춘천	206	17,482
인제	96	775
계	3,804	260,822

1938-11-18-03-01

### 매일신보

#### 강원의 추잠공판 44만5천여kg 공판액 35만여원

【춘천】 강원도의 본추잠종의 소립 매수는 중앙선 및 경춘선 등의 철도공사로 노력 혹은 사육장소 부족을 보게 된 것과 추잠종의 일부 불발생의 지장에 의하여 전년에 비해서 1,834매 즉 3.6% 감소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육기간 중 기후가 적순하여 작병이 양호하였으므로 산견량에 있어서는 도리어 11만3,828kg 즉 17%의 증산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본년 추건의 공판성적을 보면 44만5,890kg로 전년 52만6,853kg에 비하여 8만960kg의 감소이며 공판가격은 35만764원으로 전년 39만6,749원에 비하여 4만5,985원의 감소이었다고 한다. 15일 도 농무과에서 발표한 각 군의 공판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공판수량(kg)	공판가격(원)
춘천	27,879	29,923
인제	35,275	27,964 (중략)

1938-11-18-04-02

### 매일신보

#### 인제 헌금 일속

【인제】 인제군 기린면 하남리에 있는 인남의숙에서는 선생 조인화 이하 학생 일동이 출정한 일본군항군의 고로를 생각하고 금년 추수기에 10일간 벼이삭을 주워 모은 것이 7두2승인데 이것을 방매한 금 7원20전을 일본군항군위문금으로 보내어달라고 수일 전에 인제경찰서에 헌납되었다 한다. ◇인제면하 추리에 있는 응야 금광사무소에서는 사무원 이하 광부 일동이 중국헌구 합락을 기념하기 위하여 항군 위문금 10원20전을 모아 인제경찰서에 헌납하였다 한다. ◇인제면에서는 지난 5일에 구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구장회의 비용 변상금 1원씩을 항군위문금으로 헌납하겠다고 17구장이 자진하므로 면당국자는 이에 감격되어 면직원 일동도 1원씩 거출하여 합계금 26원을 인제군청에 헌납하였다 한다.

### 江原道の勤勞報國家

## 無慮三千八百餘

### 隊員數實至廿六萬名

【춘천】 강원도에서는 160만 도민으로 하여금 국가 관념의 함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도모케 함은 물론 근로예호, 인고단련, 희생봉공의 정신을 독실케 하고자 지난7월7일 중일전쟁 기념일을 계기로 전도내 각 부락을 비롯하여 각종 기관단체에 이르기까지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기로 되었었는데 그후 조직이 활발해져서 지난10일 현재 3,804대대가 조직되었다는데 이의 대원수가 실로 26만822명에 달하여 각종근로 작업으로 충후보국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군명	대수	대원수
춘천	206	17,482
인제	96	775
계	3,804	260,822

### 江原의秋蠶共販

## 四十四萬五千餘斤

### 共販額卅五萬餘圓

【춘천】 강원도의 본추잠종의 소립 매수는 중앙선 및 경춘선 등의 철도공사로 노력 혹은 사육장소 부족을 보게 된 것과 추잠종의 일부 불발생의 지장에 의하여 전년에 비해서 1,834매 즉 3.6% 감소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육기간 중 기후가 적순하여 작병이 양호하였으므로 산견량에 있어서는 도리어 11만3,828kg 즉 17%의 증산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본년 추건의 공판성적을 보면 44만5,890kg로 전년 52만6,853kg에 비하여 8만960kg의 감소이며 공판가격은 35만764원으로 전년 39만6,749원에 비하여 4만5,985원의 감소이었다고 한다. 15일 도 농무과에서 발표한 각 군의 공판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공판수량(kg)	공판가격(원)
춘천	27,879	29,923
인제	35,275	27,964 (중략)

### 麟蹄獻金一束

【麟蹄】 린제면 기린면 하남리(麟蹄郡麟蹄面下南里)에 있는 린남의숙(麟蹄仁塾) 이하 학생 일동이 출정한 일본군항군의 고로를 생각하고 금년 추수기에 10일간 벼이삭을 주워 모은 것이 7두2승인데 이것을 방매한 금 7원20전을 일본군항군위문금으로 보내어달라고 수일 전에 인제경찰서에 헌납되었다 한다. ◇인제면하 추리에 있는 응야 금광사무소에서는 사무원 이하 광부 일동이 중국헌구 합락을 기념하기 위하여 항군 위문금 10원20전을 모아 인제경찰서에 헌납하였다 한다. ◇인제면에서는 지난 5일에 구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구장회의 비용 변상금 1원씩을 항군위문금으로 헌납하겠다고 17구장이 자진하므로 면당국자는 이에 감격되어 면직원 일동도 1원씩 거출하여 합계금 26원을 인제군청에 헌납하였다 한다.



1938-12-03-03-05

### 매일신보

#### 인제 부인강습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9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내면사무소에서 중견부인들의 강습회를 개최하고 시국의 재인식을 위한 『생업보국과 부인들의 책무』에 관하여 김군수의 강연이 있어 일반부인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었다.

1938-12-03-03-05

### 매일신보

#### 인제군농회서 콩과 벼 공판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매시일마다 콩과 벼 공동판매를 실시하기로 하고 취급장소는 남북리건전장과 남, 북면 각사무소에서 취급중이었는데 공판가격은 좌기와 같다 하며 콩은 500석 알선을 목표로 한 것이 벌써 600여석에 달하여 무난하게 1,000석이상에 달할 것을 예상한다는데 벼도 500석 목표이나 그 이상에 달하리라 한다.  
◇콩 가격=특등 1두 단가 1원87전 1등 1원83전 2등 1원79전 3등 1원 75전  
◇벼 가격=벼 매근 단가 7전

1938-12-03-03-07

### 매일신보

#### 인제군내 각면에 사무검열 실시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각면의 일반사무 검열을 실시하는 중인데 먼저 제일작으로 김 군수 통제하에 내면 기린 두면을 실시하였는데 금반은 종전과 같이 그 방식을 전연 달리하여 내적으로는 면사무의 검열을 실시하며 외적으로는 시국하에 농촌진흥운동과 총후국민의 근로생업보국상황을 시찰하는 동시 보국저금 실시를 독려하고 누년간 체납하여오던 면행정의 일종 암이라고 할 각종 특수세금의 징수 등도 행한다고 한다.

1938-12-03-03-11

### 매일신보

#### 인제보국저금 4만여원 돌파

【인제】 1억 국민의 80억 보국저금 실시운동은 애국혼의 발로를 도처에 불수있는 것이나 이제 산간벽촌으로서 강원 만주의 속칭을 듣는 인제군에서도 15만원을 목표로 보국저금 실시를 제창하여 각면의 향응도 가장커서 벌써 10월말일 현재로 45, 663원에 달하여 내년 봄 3월까지에는 무난하게 15만원을 돌파하리라는데 각면별 저축 현재액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인제면 9,597원 ▲남면 6,895원 ▲북면 4,171원 ▲서화면 10,474원 ▲기린면 9,239원 ▲내면 5,287원

麟蹄郡農會 大豆와 粉共販  
麟蹄郡農會에서는 지난 15일부터 每市日마다 大豆와 粉共販을 실시하기로 하고 北南各事務所에서 取致中이라는 共販價格은 左記와 如하다  
大豆는 五百石餘 發賣 價格은 無難하게 千石以上에 달할 것으로 相한다  
以上의 通り라 한다  
大豆價格  
特等 一斗 價一圓八七錢 一等 同 一圓八三錢 二等 同 一圓七九錢 三等 同 一圓七五錢  
◇ 粉價格

麟蹄郡內各面에 事務檢閱實施  
【麟蹄】 麟蹄郡에서는 지난 16일부터 管內各面의 一般事務檢閱을 實施하는 中인바 먼저 第一着으로 金郡守統制下에 內面 麟蹄兩面을 實施하였는데 今般은 從前과 그 方式을 全然 달리하여 內의 으로는 面事務의 檢閱을 實施하며 外의 으로는 農村 振興 運動과 統後國民의 勤勞 生業 報國 狀況을 視察하는 同時 報國貯金 實施을 督勵하고 累年 間 滯納한 欠은 面行政의 一種 徵收이라고 할 各種 特殊稅金의 徵收도 行한다고 한다

麟蹄報國貯金 四萬餘圓突破  
【麟蹄】 一億國民의 八十億報國貯金 實施運動은 愛國魂의 發露을 到處에 불수 있는 바이다 이제 山僻 村으로서 江原 滿洲의 俗稱을 受는 麟蹄郡에서도 十五萬圓을 目標로 報國貯金 實施을 提唱한 바 各面의 響應도 가장 커서 十一月末日 現在 四萬五千六百六十三圓에 달하여 明年 三月까지에는 無難하게 十五萬圓을 突破하리라는 데 各面別貯蓄 現在 額은 다음과 같다  
▲麟蹄面 九、五九七圓 ▲南面 六、八九五圓 ▲北面 四、一七一圓 ▲西面 一、〇、四七四圓 ▲麟蹄面 九、二三九圓 ▲內面 五、二八七圓

1938-12-03-07-10

### 동아일보

## 용대리 강도사건 현장을 재차 검증 서울지방법원 판, 검사진 출동

【인제】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고대봉사건은 인제경찰서에서 취조하여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는데 제1심을 지내도록 전기 고대봉은 사실을 부인한 관계상 서울으로 송치하였는데 금번 또다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검사가 와서 현지를 재검증하였다고 한다.

1938-12-07-03-04

### 매일신보

## 인제 양양간 최단거리 도로 신설 드디어 실현 과거 19년간 18회나 신청하던것 군민들의 숙망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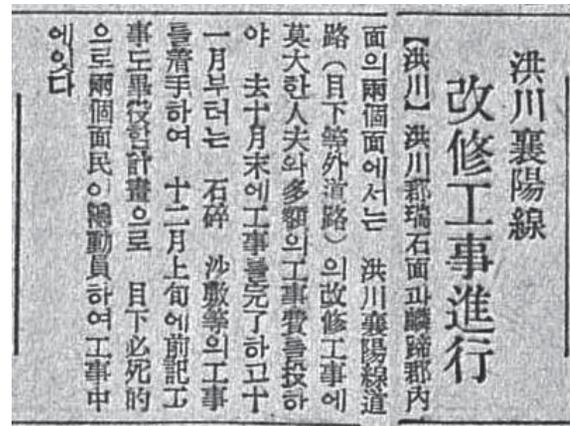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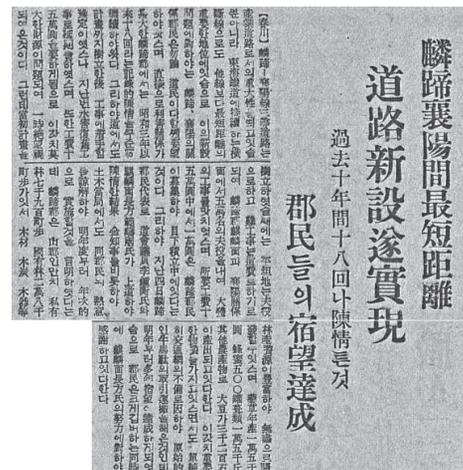
【춘천】 인제 양양선 3등도로는 산업도로로서의 중대성을 띠고있을 뿐 아니라 동해철도에 접속하는 횡단선으로도 타선보다 장단거리의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의 신설 문제에 대하여는 인제, 양양의 관계 군민은 물론 도민이 다함께 요망하여 왔으며 직접으로 이해관계가 심대한 인제군에서는 1928년이래 18회라는 기록적 진정을 꾸준히 계속하여왔다. 그리하여 도에서도 계획까지 수립한 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번 수해 복구 공사로 연기를 하였으며 또한 공비 15만원을 요하게 되므로 이같이 막대한 재원이 문제되어 일시 절망시되어온 것이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평탄지는 부역으로 하고 총공사는 도비로 하기로 되어 인제군 인제면과 양양 관계면에서 5만명의 부역을 내어 대강의 공사를 마쳤으며 소요공비 15만원 중에서 1만원은 인제군민이 모집하여 방금 적립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4일 인제군민 대표로 도회의원 이종형씨와 기린면장 방범주씨가 상도하여 진정한 결과 김지사를 비롯하여 토목당국에서도 인제군민의 열의를 양해하여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을 언명하였다는데 인제군은 산군인만치 사유림 7,900정보 국유림 28,000정보가 있어서 목재 목탄 목기 등 임산자원이 풍부하여 무진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약초 연산 15,000원, 봉밀 500kg, 버섯류 15,000근 기타 농산물로 콩이 3,200석이 산출되고 있다 한다. 이같이 중요한 물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교통망의 불비로 인하여 원시적인 우마태의 취인운반을 해온 것인데 내년부터 다년 숙망이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군민은 크게 기뻐하는 동시에 인제면장 방씨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한다.

1938-12-07-03-05

### 매일신보

## 홍천 양양선 개수공사 진행

【홍천】 홍천군 서석면과 인제군 내면이 양개면에서는 홍천양양선 도로(목하 등외도로)의 개수 공사에 막대한 인부와 다액의 공사를 역하여 지난 10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는 석쇄 수부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상순에 전기 공사도 필역할 계획으로 목하 필사적으로 양개 면민이 총동원하여 공사 중에 있다.



1938-12-09-03-04

### 매일신보

#### 인제군내 각면 농민야학 개최

【인제】 ●●년도에 창설한 제1차 갱생공려부락과 아울러 내년도 실시할 제7차 갱생지도부락에 걸쳐 가계부 1기 완성주의하에 지난 11월 1일부터 인제군내에서는 각면을 통하여 33개소에서 일제히 농민야학회를 개최하였는데 수강생은 621명에 달하며 방방곡곡에 독서성이 낭랑하다고 한다.

1938-12-10-03-10

### 매일신보

#### 광원간이학교승격기성회 조직

【흥천】 인제군 내면 광원리 간이학교는 1936년 6월부터 개교하였는데 연년 증가되는 입학지원자를 전부 수용치 못하게 되므로 공립소학교로 승격시키고자 기성회를 조직하고 소요경비 12,000원 중의 지방부담금으로 2,000원으로 하여 기성회 간부들이 방금 수합중인데 불일내로 완납할 계획이며 내년 4월 1일의 개교할 목표로 적극 활동중이라 한다.

1938-12-10-03-10

### 매일신보

#### 인제보국저금 4만여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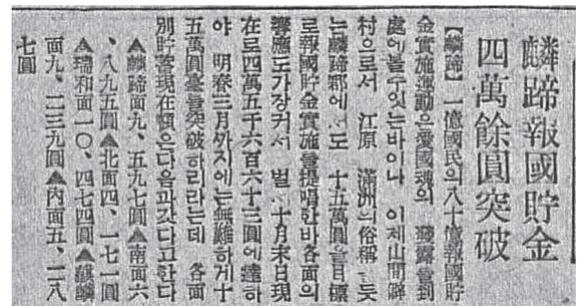
【인제】 1억국민의 80억 보국저금 실시운동은 애국혼의 발로를 도처에 불수 있는 것이나 이제 산간벽촌으로서 강원 만주의 속칭을 듣는 인제군에서도 15만원을 목표로 보국저금 실시를 제창하여 각면이 향응도 가장 커서 벌써 10월말일 현재로 4,5663원에 달하여 내년 봄 3월까지에는 무난하게 15만원을 돌파하리라는데 각면별 저축 현재액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인제면 9,597원 ▲남면 6,895원 북면 4,171원 ▲서화면 10,474원 ▲기린면 9,239원 ▲내면 5,287원

1938-12-10-04-02

### 매일신보

#### 절도를 잡고 보니 4년전의 강도범

【춘천】 지난 11월 15일 강릉군 왕산면 대기리 권영식의 집에 어떠한 괴한이 침입하여 현금 50원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하여 즉시 각서에 수배를 하였었는데 얼마전 인제서원이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오춘경의 집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를 잡아 취조한 결과 전기 절도사실을 자백한 외에 지난 1935년 8월 19일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이덕재의 모친 김씨를 습격하여 금전을 강요하였으나 때마침 가진 돈이 없어 마포 3월을 강탈도주한 사건으로 현재 각서에 지명 수배중의 강도범인 것을 자백하였다는데 동서에서는 엄중한 취조를 마친후 평창서로 넘겼다. 그리하여 동서에서는 이래 엄중한 취조를 해오던중 지난 23일 일건서류와 함께 원주검사분국으로 송치하였는데 그자는 형성에 원적을 둔 김인순(34)이란 자로 범행 후 즉시 도주하여 만수 광호 상만 철제 등 여러 가지 가명을 가지고 교묘히 경계망을 뚫고 전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다 운이 진하여 잡히게된 것이다.



1938-12-17-04-06

### 동아일보

## 인제군 산간벽지에 부녀의 독서성 낭랑 70세 노인도 야학에 열심중 문맹 퇴치 운동의 봉화

【인제】 인제군 각 농촌부인들은 산간벽지인만치 빈한한 살림을 하느라고 일찍이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장님 생활을 계속해오는 것을 언제든지 유감으로 생각해오더니 다행히 당국의 계획으로 야학회가 열리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너도 나도 다투어가며 하루라도 속히 문맹을 퇴치코자 전력을 경주한다는데 그 중에는 70노인이 백발을 휘날리며 이 추위를 무릅쓰고 매일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한다. 이대로 수년만 계속하면 군내에 1인도 문맹에 울고있을 자가 없으리라 하여 이 운동의 장래를 축복하고 있다 한다.

1938-12-17-03-01

### 매일신보

## 인제군보국대 소교 기지 정지

【인제】 인제군내에는 11월 말일 현재 근로보국대가 199개소에 그 대원수는 16,500여명에 달하는데 인제면에서는 대수 12개소에 대원 713명으로서 11월 상순부터 인제 남소학교 이전후보지인 읍내 합강리 기지 4,000여평의 정지를 하고자 각리 보국대가 매일같이 출진 출역하여 거의 정지의 완성을 보게되었다는데 일반관공청 보국대는 매일 보국일을 기하여 일제히 출역하였었다고 한다.

1938-12-17-03-02

### 매일신보

## 농한기를 이용하야 부업품 증제지도 인제군서 만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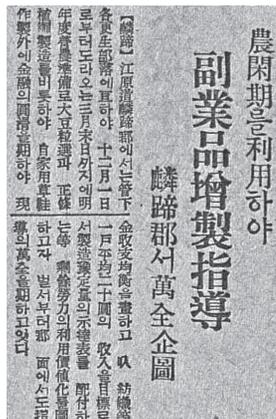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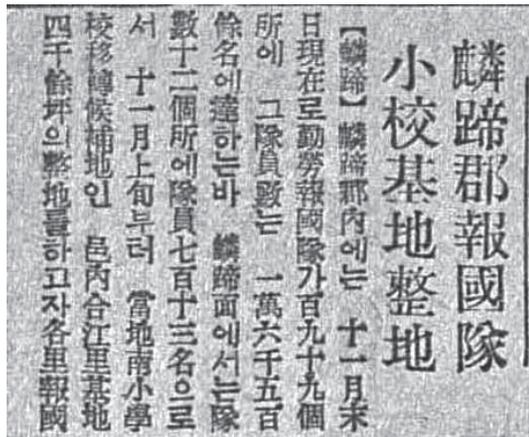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관하 각생부락에 걸쳐 12월 1일로부터 오는 3월 말일까지에 내년도 영농준비로 콩 입선과 정조식 새끼 제조를 비롯하여 자가용 초혜 작제 외에 금융의 원활을 기하여 현금 수지 균형을 획하고 가마니 방직 제1호 평균 20원의 수입을 목표로 제조예정량의 시달표를 배부하는 등 잉여노력의 이용가치화를 꾀하고자 벌써부터 군면에서도 지도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38-12-17-03-03

### 매일신보

## 충후보국강조주간 인제, 철원 각지서도 15일부터 저축절약, 생활쇄신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11일 군회의실에서 각관공서장과 지방유지 30여명이 회합하여 연말연시 보국주간 행사를 협의하였는데 본 주간 중 군민의 충후정신을 일층강조하여서 일상생활상의 인식을 철저히 하며 충후보국의 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좌와 같이 실행하기로 협정하였다. 1. 12월 15일 시국인식 신사참배 2. 12월 16일 물자절약 3. 12월 17일 극기정려 4. 12월 18일 보국감사 5. 12월 19일 근로보국 6. 12월 20일 생활개선 7. 12월 21일 저축보국



1938-12-17-03-06

### 매일신보

#### 인제군 밀랍공판 벌써 800백근 돌파 성적이 도내에서 1위

【인제】 군수상 불가결의 밀랍 공출은 벌써부터 강원도내에서 12,000근 공출을 목표로 각군에 공판을 실시하였는데 지난 11월 5일 현재로 그 성적을 보면 인제군에서 공출한 것만 880여근에 달하여 예정공출량 1,500근은 무난하게 공출하리라 한다.

1938-12-17-04-06

### 동아일보

#### 인제군 산간벽지에 부녀의 독서성 낭랑 70세 노인도 야학에 열심 중 문맹 퇴치운동의 봉화

【인제】 인제군 각 농촌부인들은 산간벽지인만치 빈한한 살림을 하느라고 일찍이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장래생활을 계속해온 것을 언젠지 유감으로 생각해오더니 다행히 당국의 계획으로 야학회가 열리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너도 나도 다투어가며 하루라도 속히 문맹을 퇴치코자 전력을 경주한다는데 그중에는 70노인이 백발을 휘날리며 이 추위를 무릅쓰고 매일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한다. 이대로 수년만 계속하면 군내에 1인도 문맹에 울고있을 자가 없으리라 하여 이 운동의 장래를 축복하고 있다 한다.

1938-12-17-04-09

### 동아일보

#### 부정 시탄상에 단호 엄벌 방침 인제경찰서의 대책 적극

【인제】 한기가 습래함과 같이 인제의 일부 연료상인 중에는 폭리를 도모하는 자가 왕왕있어 빈민가에는 일층 곤란을 받는 폐단이 많으므로 인제경찰서에서는 이를 방지키 위하여 신탄상인에게 그 제재비용을 세밀히 조사하여 종래와 같은 폭리를 금지하고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케하였는데 만일 금후 부정한 매매를 하는 때는 단호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1938-12-29-03-10

### 매일신보

#### 성탄에 꽃을 팔아 일본군[황군]을 위문 인제감리교회에서

【인제】 감리교회에서는 25일의 『크리스마스』를 전신체제 하에 의미있게 맞는 동시 아울러 일본군[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출전장병을 위문하고자 지난 23, 24일 양일간에 교인 일동이 가두에서 일본군[황군]위문꽃을 팔았는데 그 수입금은 전부를 위문금으로 헌납하리라는데 일반은 동교도의 열성을 칭송하여마지않는다 한다.

麟蹄郡蜜蠟共販  
**벌서 八百斤突破**  
 成績이道內에서一位

【麟蹄】 蜜蠟是不可缺의蜜蠟其由 在道 그成績을보면 麟蹄郡에서 八百斤을突破 江原道內에서 一萬二 供出한것만 八百八十餘斤에達한 千斤供出을目標로 那에共販을實 供出한供出量 千五百斤은 距離 施하였을바 지난十一月十五日現 供出하리다한다

麟蹄郡山間僻地に  
**婦女の讀書聲琅琅**  
 七十歲老人に夜學에熱心中  
 文盲退治運動의烽火

【麟蹄】 山間僻地에 讀書聲琅琅 七十歲老人에 夜學에 熱心中 文盲退治運動의 烽火

**不正柴炭商에  
 斷乎嚴罰方針**  
 麟蹄署의對策積極

【麟蹄】 不正柴炭商에 斷乎嚴罰方針 麟蹄署의對策積極

聖誕에 꽃을 팔아  
**皇軍을慰問**  
 麟蹄監理敎에서

【麟蹄】 監理敎會(監理敎會)에서 聖誕에 꽃을 팔아 皇軍을慰問 麟蹄監理敎에서

1938-12-30-04-07

### 매일신보

#### 보국저축좌담

【인제】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지난 23일 오전10시부터 인제 소학교 내에서 군내 각유력자 200여명을 초집한 후 경제전 협조를 위한 국민의 각오와 저축보국론이라는 제하에 김군수의 강화가 있는 후 계속하여 좌담회를 개최한 후 15만2,000원 보국저금 실행의 구체책을 타합 결의하고 동 오후5시 무사 폐회하였다 한다.

1939-01-10-03-04

### 매일신보

#### 인제남소학교서 국기를 배부

【인제】 중일전쟁 3년의 신년을 맞이함에 당하여 1호도 샅틈없이 전부 일본기를 게양케하고자 인제남소학교에서 일본기를 무료로 배급하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탐문한데 의하면 남소학교 아동 400여명중 일본기 미소지 가정이 20호에 달하므로 아동의 방과후 근로 수입금을 저축하여 둔 것이 있는데 이로써 1매에 35전씩 지불하고 일본기를 구입하여 각 가정에 무료로 배급하였는데 이 장거에 대하여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1939-01-10-03-05

### 매일신보

#### 인제

【인제】 일찍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일반남자가 부녀자에게 일본어를 보급하여 내선일체의 실적을 거양코자 인제 각소학교에서 11월 1일부터 일제히 야학을 개시하였다.

1939-01-11-03-01

### 매일신보

#### 인제면화공판 목표의 8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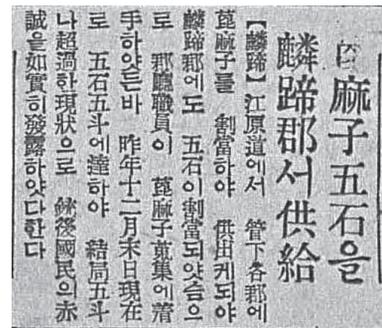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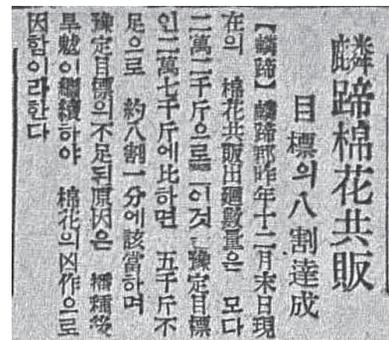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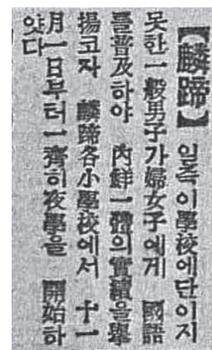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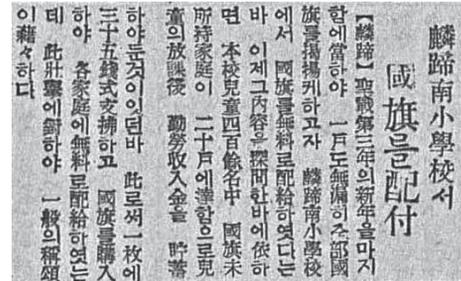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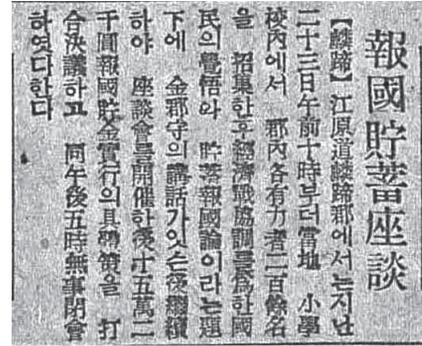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 작년 12월말일 현재의 면화공판 출회수량은 모두 22,000근으로 이것을 예정목표인 27,000근에 비하면 5,000근 부족으로 약 81%에 해당하며 예정목표의 부족된 원인은 파종후 가뭄이 계속하여 면화의 흉작으로 인함이라 한다.

1939-01-11-03-07

### 매일신보

#### 피마자 5석을 인제군서 공급

【인제】 강원도에서 관하 각군에 피마자를 할당하여 공출케되어 인제군에도 5석이 할당되었으므로 군청 직원이 피마자 수집에 착수하였는데 작년 12월 말일 현재로 초과한 현상으로 충후국민의 적성을 여실히 발로하였다 한다.



1939-01-15-03-08

### 매일신보

#### 대택씨 부인 헌금

【인제】 인제군기린면 상동리 대택가조씨 부인(현 국방부인회장)은 충후부인의 임무를 다하고자 항상 활동하여오던 중 특히 금반 연말연시를 당하여 허례 폐지와 일체의 소비를 절약하여 모은 돈 10원을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소하나마 국방비에 보태도록 보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데 이 장거는 사회의 귀감이 되는 동시에 일만은 칭송하여 마지않는다 한다.

1939-01-15-04-05

### 매일신보

#### 간이학교 신설에 기지와 현금 회사 인제 박용수씨 미거

【인제】 인제군 인제면 하추리 구장 박용수는 넉넉지 못한 생활로 이민의 신망만을 한몸에 지고 구장으로 재직 10여년간을 1일같이 지내오는데 학령아동은 많이 있으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취학치 못함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고 거의 비용 자담이나 다름없는 개량사숙을 경영하여 오던중 다행히 작년에 간이학교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씨는 밭 800여평과 현금 500원을 자진 회사하였으므로 일반은 씨의 칭송이 자자하다.

1939-01-20-03-05

### 매일신보

#### 27부락 900여호에 갱생계획을 수립 인제군서 5개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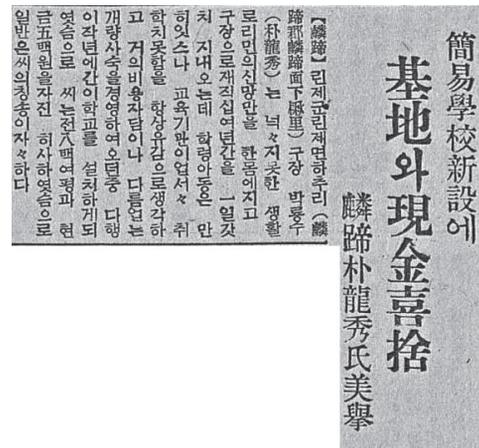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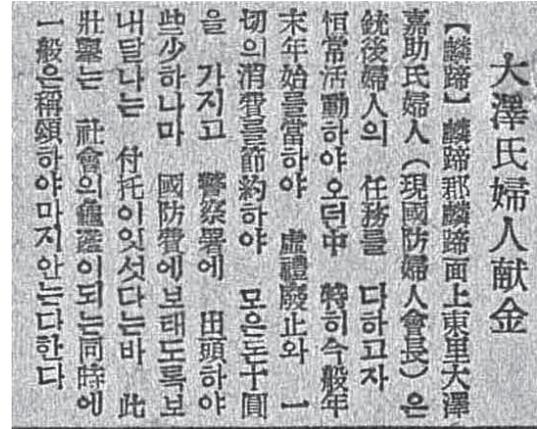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서 제7차 갱생부락의 계획수립에 대하여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준비지도에 대하여는 여간 세심의 주의를 불하여오더니 갱생예정농가의 고리채 정리며 야학회 등을 실시하여 고리채를 전부 저리채로, 가계부를 기장치 못할 문맹은 전부 가계부를 기장하도록 각각 호적을 나타냈으므로 금번에는 또다시 5개부락 900여호를 갱생의 역에 달케 하고자 1월 15일부터 군면직원 총동원하여 농가의 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개개의 계획을 수립하리라고 한다.

1939-01-20-03-05

### 매일신보

#### 인제, 기린간 도로 급속실현 요망

【인제】 인제 기린간 도로 개착기성회를 조직하고 작년 11월부터 도로개착비를 각면에 할당하여 각집하여 오더니 작년 11월 말일 현재로 각집액이 5,580여원에 달하여 현재 약 56%에 불과한 각면 공회 1월말일 이내로 완납하리라는데 현하 농촌의 재정이 그다지 윤택되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각출금 상황을 보건대 본군민이 교통에 얼마나 불편을 느꼈는지 가히 알 수있으며 도당국에서 1일이라도 속히 착공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1939-01-21-04-12

### 동아일보

#### 인제시국좌담 개최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2일 군내 각관공서장 30여명이 집합하여 금춘에 모집하는 육군입영 지원병 모집에 대한 좌담회가 있었다 한다.

1939-01-22-04-01

### 매일신보

#### 강원도내 지원병 희망 200명을 수들과 혈서지원자도 속출

【춘천】 작년 처음으로 실시를 보게된 지원병 모집사항이 관보로써 한번 발표되자 강원도에서도 19일 오전까지 173명의 지망자가 있었다함은 작보하였거니와 동일 오후까지 들어온 보고를 종합하면 208명에 달하여 강원청년의 불타는 애국심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전년에는 통천에 지망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는 울진이 가장 많다고 하며 인제 평창 영월 세곳은 전년모양으로 아직 지망자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화천같은 곳은 모면의 보고 졸업생 전부가 지망하기로 기세를 올리고 있다하며 고성 같은 곳에서는 혈서 지망자까지 있어 당국을 감격케하는 등 지금의 형세로 보아 2월 10일까지에는 500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지망자 적격자의 심사는 체격과 지조의 견실을 주안으로 하여 제국군인됨에 자질을 완비한자만을 엄선할 방침이라한다. 이제 19일 현재 각군별 지망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2 ▲인제 0 ▲양구 14 ▲회양 2 ▲통천 18 ▲고성 10 ▲양양 5 ▲강릉 10 ▲삼척 10 ▲울진 34 ▲정선 6 ▲평창 0 ▲영월 0 ▲원주 5 ▲횡성 8 ▲홍천 20 ▲화천 8 ▲김화 13 ▲금성 18 ▲철원 11 ▲평강 8 ▲이천 6 ▲합계 2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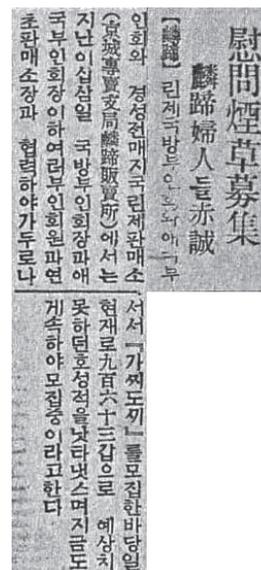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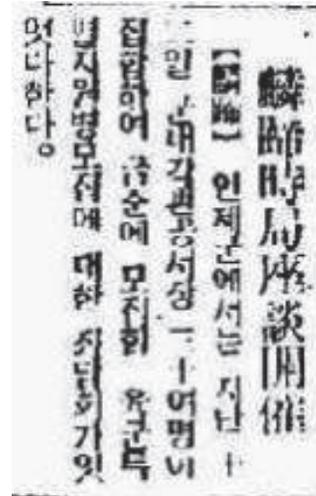
◎부기=전년은 지원자총수 363명 중 56명은 채용

1939-01-28-04-01

### 매일신보

#### 위문 연초 모집 인제부인들 적성

【인제】 인제국방부인회와 애국부인회와 서울전매지국 인제판매소에서 지난 23일 국방부인회장과 애국부인회장 이하 여러 부인회원과 연초판매소장과 협력하여 가두로 나서서 『가찌도끼』[승리의 함성이라는 뜻으로 담배이름을 모집하였는데 당일 현재로 963갑으로 예상치 못하던 호성적을 나타냈으며 지금도 계속하여 모집중이라고 한다.



1939-01-28-04-01

### 매일신보

## 애국열혈 지원병 강원도서 벌써 500명을 돌파, 울진 75명 최다

【춘천】 2천300만 반도 민중이 다같이 감격할 지원병 제도는 작년 처음으로 실시를 보게되어 강원도에서도 363명이 지원한 가운데 전후 56명이 채용되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600명을 모집한다는 사항이 발표되자마자 도내 21개군에서는 보국의 적성을 바칠 때는 왔다는 듯이 앞을 다투어가며 지원하는 자가 점점하여 10일이 채 못된 19일 현재 208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후에도 매일 다수한 지원자가 밀려들어 25일 현재 벌써 550명을 돌파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말일까지에는 모집정원 600명을 강원도에서만 돌파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강원청년의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다는 것과 같이 뜨거운 애국열이 폭발되고 있음을 여실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각군별 지원자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10 ▲인제 10 ▲양구 19 ▲회양 5 ▲통천 71 ▲고성 15 ▲양양 20 ▲강릉 134 ▲삼척 41 ▲울진 75 ▲정선 11 ▲평창 15 ▲영월 39 ▲원주 17 ▲횡성 27 ▲홍천 28 ▲화천 14 ▲김화 22 ▲금성 24 ▲철원 29 ▲평강 12 ▲이천 18 ▲합계 556명

1939-02-03-03-02

### 매일신보

## 인제농진위원회

【인제】 인제면에서는 지난 1월 28일 오전10시부터 인제면사무소에서 농촌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좌기 사항을 부의하였다.

1. 제7차 갱생부락의 무사우 농가를 유축화할 자금융通的 방책 2. 각 갱생농가의 고리채 정리 방책 3. 총후보국저축 실행의 건 4. 제7차 갱생부락 계획 심의의 건

1939-02-03-03-05

### 매일신보

## 기린면 소학교 학급증설 운동

【인제】 인제군 기린면에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기린공립보통학교가 생겨 6년제 3학급으로서 그간 다수한 인재를 양성하여왔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의 향학열이 고조에 달하여 현재의 학급으로서로는 도저히 취학아동을 전부 수용치 못하여 다대한 곤란을 받아오던 터이므로 당시 번영회에서는 이를 유감으로 여겨 학급증설기성회를 조직하고 교사증축자금으로 1월 25일 현재 1,500원을 각출하여 예금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합중인데 금년 4월부터 학급을 증설하여 취학아동을 전부 수용케하도록 당국에 실현을 요망중이다.



1939-02-05-06-08

### 매일신보

#### 강원도의 지원병 856명에 도달

【춘천】 지난 2일 현재 강원도내의 지원병 지망자수는 856명에 달했는데 통천의 140명을 최고로 올린 76명, 영월 70명, 강릉 66명이 가장 많으며 인제 10명과 춘천 22명이 가장 적는데 각지에 혈서 지망자가 속출해 일반을 감격케 하고 있다.

1939-02-07-04-10

### 동아일보

#### 농진위원회 개최코 갱생계획 철저 수립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3일 오전10시부터 군회의실에서 제34회 농촌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김학수씨의 총재로 농촌진흥계획에 대한 지도와 실행사항을 타협한 후 오후3시에 폐회하였는데 타협사항은 아래와 같다.

1939-02-08-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기린면에 우편소 설치요망

【인제】 인제군 기린면은 산간벽지의 땅으로서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통신조차 역시 불편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결국은 문명에 뒤떨어지며 시국인식이 늦어지게되어 당지 관민은 통탄하여마지않는 것으로서 재작년부터 우편의 설치를 당국에 부르짖었으나 일반주민은 끝까지 그 실현을 요망중이라 한다.

1939-02-08-04-06

### 동아일보

#### 인제지원병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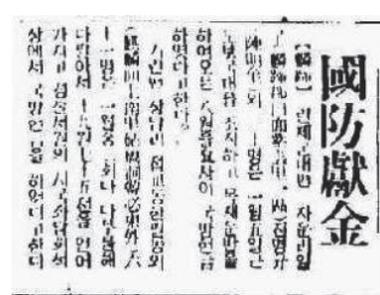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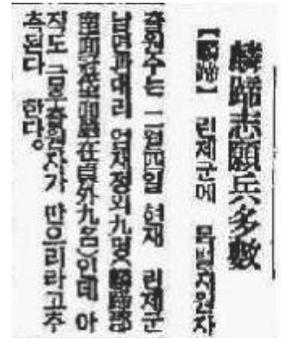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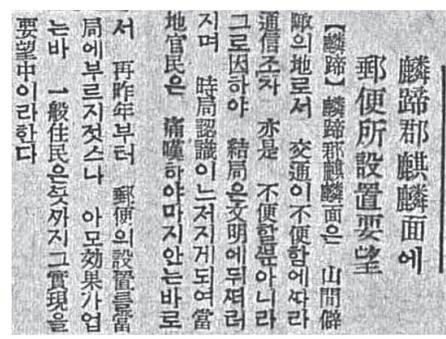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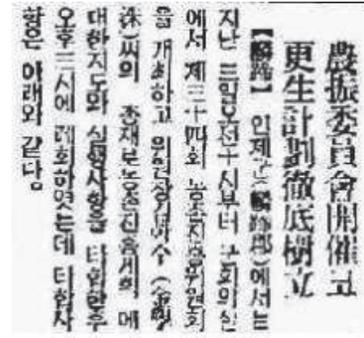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 육군지원자 출원수는 2월 4일 현재 인제군 남면 관대리 엄재정 외 9명인데 아직도 금후 출원자가 많으리라고 추측된다 한다.

1939-02-08-04-14

### 동아일보

#### 국방헌금

【인제】 인제군 내면 자운리 1구 진명규 외 ●명은 2월 5일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고 목재운반을 하여 얻은 8원을 요사이 국방헌금 하였다고 한다.



1939-02-11-03-10

### 매일신보

#### 인제소학교 장학상 수여

【인제】 강원도소학교 장학규정에 의한本年度 수여는 인제군내에는 좌기 양교 아동에게 수여케되어 기원절 당일 수여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인제군남소학교 사철환 ◇인제군 관대소학교 옥구흠

1939-02-13-04-05

### 동아일보

#### 인제에 증차 요망

【인제】 인제군은 종래 영동선이 불통되어 일반여객들은 곤란을 겪어오던중 지난 8월부터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매일 계속하여 경춘철도 버스가 영업을 개시하나 단지 1일 1회 밖에 안되는 관계상 승객은 나날이 격증되어 그날그날 타지 못하고 하루 이틀씩 체재하는 현상이므로 군민일반은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동회사에 대하여 종래 1일 1회를 2회로 증차하여 주는 것이 어떻까하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회사 당국에서도 일반의 요망을 참작하여 가솔린의 용서 있는한 시급히 증차를 단행하는 것이 일반승객의 편의상 좋지않은가 하는 일반의 큰요망이라 한다.

1939-02-14-03-01

### 매일신보

#### 불후의 공적 찬연 각지의 농촌공로자, 독행자 등 기원절 맞아 표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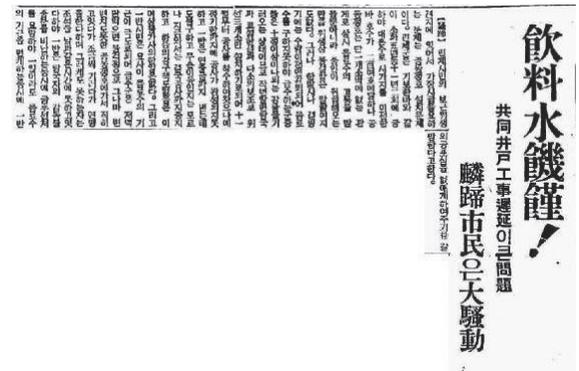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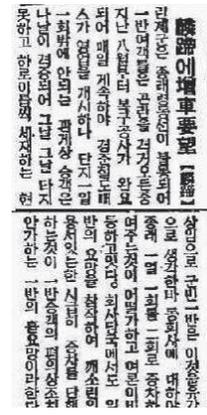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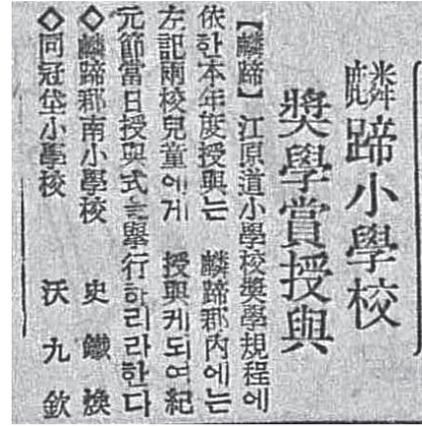
【춘천】 강원도에서는 11일 기원가절 당일에 도회의실에서 공로가 현저한 총후보국상행조합과 저축공적자를 표창하였는데 당일 도내에서 표창한 개인과 단체는 다음과 같다. 인제 인제면 하추리 하추리총후보국조합, 인제리 남면 남전리 가로동총후보국조합, 인제기린 가리산 김남혁, 인제서화 이해중, 인제 장승 서상린

1939-02-13-04-04

### 매일신보

#### 음료수 기근! 공동우물 공사 지연이 큰 문제 인제시민은 대소동

【인제】 인제시민의 보건위생견지에 있어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공동우물 설치 문제이다.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1930년 1936년 2회에 걸쳐 대홍수로 시가지를 이전하였는데 호수가 200여호에 달하나 공동우물은 단 1개소 밖에 없는 관계로 상시 음료수의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중인이 취급해오는 만큼 위생상 불결함은 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가뭄 때나 결빙기에는 수량이 전연 감퇴되어 음료수를 구하지 못하여 급수하는 군중들은 10정 이상이 되는 강



물을 길어오는 상태이므로 작년 말 면당국과 교섭한 결과 다소의 보조로 위선 3개소만 설치하기로 되어 1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왔으나 예정기한까지에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일반은 연출금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지금 와서는 결국 공사까지 중지하고 하등의 강구책도 없음을 이 이상 불가사의한 일은 없다. 그리고 일반시민은 요사이 음료수의 기근이 극도로 되어 급수군은 저녁만 먹으면 물걱정으로 그나마 변변치도 못한 공동우물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조금씩 길어다가 연명을 한다 하며 그렇게도 못하는 자는 조식을 남과 같은 시간에 못하고 있다 하여 일반은 당국자의 감독 불충분을 비난하는 동시에 급후 선처를 요망하여 1일이라도 음료수의 기근을 면케하는 동시에 일반의 공포심을 없애게 하여주기를 갈망한다고 한다.

1939-02-14-03-10

**매일신보**

**인제군 각면에 면작 강습 개최**

【인제】 현하 비상시국에 불가결한 면화를 증산하여 국가의 대계에 어그러지지않게 하기 위하여 인제군에서도 면화 증산계획을 수립하여 이래 십년의 지도를 가한 결과 작년에도 희유의 수량을 출하하였었고 금년에는 전년 배가의 목표로 벌써부터 이의 주의를 환기시키더니 지난 8일부터 인제군 면작 담임산업 기수 박봉호씨가 각면을 순회하며 강습회 겸 타합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일정과 요목은 다음과 같다.

- 일정 2월 8일 남면 2월 9일 북면 2월 10일 인제면  
 요항 1. 재래면을 육지면으로 할 것 2. 면적 확장 3. 반당 수량 증가 4. 신년도 파종준비

1939-02-14-04-01

**동아일보**

**인제동·남소학교의 학예회 개최**

【인제】 인제군 읍내에 있는 동·남 두 소학교에서는 금번 일본정신발양주간을 이용하여 지난 13일 오전10시부터 남소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예회를 개최하고 일반 학부모들에게 위안을 주었다고 한다.

1939-02-15-03-07

**매일신보**

**인제관민 토끼 수렵**

【인제】 인제군에서는 일본정신발양주간 제5일인 지난 12일 일요일을 기하여 군 경찰서 연합주최로 각관공서 직원 및 남소학교 5, 6학년 아동들과 합 200여명이 남면 가로동 뒷산에 가서 토끼 수렵을 하였다.

麟蹄 各面에  
 棉作 講習開催  
 【麟蹄】現下非常時局에 不可缺한 棉花를 增産하야 國家의 大計에 어 關한 至重한 任務에 對하여 本郡에 서도 棉花를 增産할 爲에 樹立하야 過去 十餘年의 經驗을 加한 結果 昨年에도 稀有的인 數量을 出産하였고 今年에 是前年에 比하여 目標을 2배로 增加하야 本郡의 注力을 喚起시키되야 지난 8日 부터 本郡棉作 擔任 潘榮授 技手 朴鳳滿 氏가 各面을 巡廻하야 講習會를 兼行

講習會開催하되였는바 其日程 要項은 다음과 같다  
 日程 二月八日 南面 二月九日 北面 二月十日 麟蹄面  
 要項 1. 在來棉產量 陸地地帶으로 限치 2. 面積擴張 3. 反當 數量增加 4. 新年度播種準備

麟蹄東南小學校의  
 學藝會開催  
 【麟蹄】인제군 읍내에 있는 동·남 두 소학교(東南小學校)에서는 금번 일본정신발양주간을 이용하여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남소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예회를 개최하고 일반 학부모들에게 위안을 주었다고 한다.

麟蹄官民兎狩獵  
 【麟蹄】麟蹄郡에서는 日本精神發揚週間第五日인 지난 十二日 日曜日을 期하야 郡 警察署聯合主 導로 各官公署職員及南小學校五 六學年兒童들과 合二百餘名이 南面加路洞後山에 가서 兎狩獵을 하 였다

1939-02-16-04-03

### 동아일보

#### 구 연말 임박으로 인제읍 시장 번영

【인제】 인제읍시장은 시장 위치와 기타로 인하여 종래 시장이 부진되어서 일반상인이 집중치 않는 관계상 지방인사들은 각종 물건 사기에 곤란하였고 혹시 물건이 있다해도 독점적인만큼 비싸서 대 불평을 겪었는데 금년은 농촌이 경제 윤택인지는 모르나 금년 가을 임박해서는 시장이 대흥양을 보게되는 동시에 각물건도 많이 시장에 진출되어 일반 소비대중들에게 편리가 되었다 하며 일반은 이대로 연중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 한다.

1939-02-17-03-08

### 매일신보

#### 홍천·양양선 지방도 급속개수를 요망, 자동차 정기 운행도 부활토록 양군 대표 상도 활동

【춘천】 홍천군 읍내와 서석면 및 내촌면에는 종래 임시이나마 정기적으로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여 왔었는데 『가솔린』 배급통제의 영향을 받아 작년겨울부터 운행을 중지하게 되었는데 이 도로는 인제를 경유하여 강릉 또는 양양 방면에 통하는 중앙 경유선으로 조선의 심장부인 서울을 동해안에 접속하는 최성거리의 중요노선으로 교통망이 상당히 증대되고있는만치 자동차 정기운행이 필요할 터이며 이에 따라 홍천 양양선 도로도 시급히 개수할 필요가 있는 터이다. 그리하여 홍천 인제 양군의 관계주민은 지방도로의 개수 연성을 누차 진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수의 실시는커녕 자동차의 운행까지 중지하게 되었으므로 지대한 불편을 느끼게 되어 양 군민 대표 7명이 지난 15일에 상도하여 자동차 정기운행을 허가할 것과 홍천 양양선 지방도를 개수할 것과 자동차 정기운행을 허가하여 달라고 김 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다.

◇상도 진정한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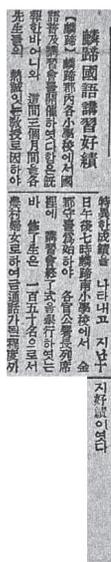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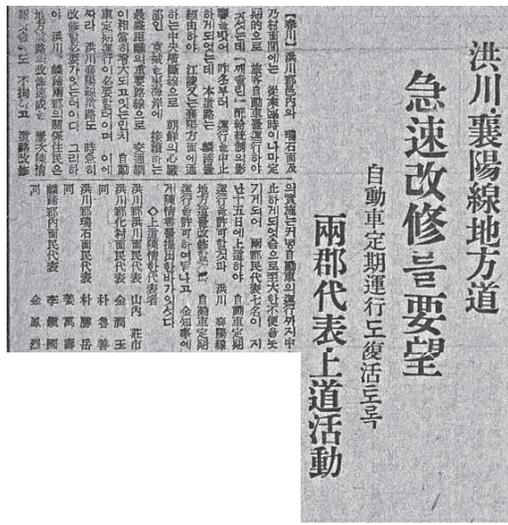
홍천군 홍천면민 대표 산내장시, 홍천군 화촌면민 대표 김윤옥 박노선, 홍천군 서석면민 대표 박승악 강만수, 인제군 내면민 대표 이진국 김봉열

1939-02-17-03-08

### 매일신보

#### 인제 일본어 강습 호적

【인제】 인제군내 각소학교에서 일본어 보급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거니와 저번 3개월간을 각선생들의 열성있는 교수로 인하여 특이한 성적을 나타내고 지난 10일 오후7시 인제남소 학교에서 김 군수를 위시하여 각관공서장 열석리에 강습회 종료식을 거행하였는데 수료생은 150명으로서 농촌부녀로 하여금 통화가 된 정도까지 호적하였다.



1939-02-28-03-12

### 매일신보

#### 인제면장 경질

【인제】 전 인제면장 이종익씨 퇴직후로 후임면장은 명성과 신망을 일신에 모으고 있는 인제면 사무주임 이동규씨를 발탁하기로 되어 지난 20일부로 발령되었는데 씨는 다년 경찰계에서 민안을 보이고 다시 인제군 내면장과 인제면 회계원, 인제면 사무주임을 역임한 사계에 보기 드문 적재라 한다. (사진은 이동규씨)

1939-02-28-04-05

### 매일신보

#### 평창이씨 문중에서 인제유치원 경영 4,000원 기금을 각출

【인제】 강원도 인제읍내에는 400여호 3,000명 인구를 포함한 산간 일소읍에 불과하나 수년전에는 인제야소교회에서 어린이들의 보육기관으로 인제유치원을 경영해왔었는데 경비 관계로 유지 곤란에 빠져 마침내는 폐원하고 말았는데 인제 유력가 평창이씨 문중에서는 인제에 유치원 하나 없다는 것은 인제의 수치라 하여 중중에서 사정한 임야임목 3,000여그루를 매각하여 수입된 대금 중으로부터 유치원을 경영키로 하고 기본금 4,000원을 거출하여 돌아오는 5, 6월까지에 만반준비를 완료한후 개원을 보리라는데 일반인사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며 왕방한 기사를 대하여 중중대표자 이종형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인제에 유치원 하나도 없는 것이 타군에 부끄러울 뿐 아니라 우리 자녀교양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겠기로 문중에서 책임지고 4,000원 기금을 세워 유치원을 경영코자합니다. 그러나 사회인사들의 절대한 원조와 지지를 바랍니다 운운.

1939-03-01-04-06

### 동아일보

#### 인제금융조합회 개최

【인제】 인제금융조합에서는 193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평의원회를 지난 27일 금융조합 회의실에서 김동운 이사의 통재 하에 개최되었다고 한다.

1939-03-01-04-08

### 동아일보

#### 인제친목회에서 경춘철도 연장 운동

【인제】 인제군친목회는 각관공서장 지방유지로 조직되어 매일 1회씩 회합하여 군발전책과 기타를 협의하는중 지난 25일에는 경춘철도를 인제까지 연장하여 울밀한 무진장의 목재와 콩약초 등을 세상에 널리 소개하는 동시에 인제군의 발전도 촉진하자는 토의가 있었는데 경춘철도도 최초 인제를 배경으로한 만치 여기 대하여는 군민이 일치협력하여 적극적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한다.



**麟蹄面長更迭**  
 後任 後任 面長은 名譽과 信譽를 一身에 모으고 있는  
 本面事務主任李東奎氏를 撥擢하기로 되어 지난 20日附로 發令되었는데 氏는 多年警察界에서 敏腕을 보이고 다시麟蹄郡 內面長과 麟蹄面會計員 麟蹄面事務主任을 歷任한 斯界에 보기 드문 適材라 한다 (寫眞은 李東奎氏)

**平昌李氏門中에서 麟蹄幼稚園經營**  
 四千圓基金을 醜出  
 【麟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내(平昌) 평창(麟蹄) 인제야소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경영코자하여 평창이씨 문중에서 사정한 임야임목 3,000여그루를 매각하여 수입된 대금 중으로부터 유치원을 경영키로 하고 기본금 4,000원을 거출하여 돌아오는 5, 6월까지에 만반준비를 완료한후 개원을 보리라는데 일반인사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며 왕방한 기사를 대하여 중중대표자 이종형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麟蹄金融組合開催**  
 【麟蹄】 인제금융조합에서는 193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평의원회를 지난 27일 금융조합 회의실에서 김동운 이사의 통재 하에 개최되었다고 한다.

**麟蹄親睦會에서 京春鐵道延長運動**  
 【麟蹄】 인제군친목회는 각관공서장 지방유지로 조직되어 매일 1회씩 회합하여 군발전책과 기타를 협의하는중 지난 25일에는 경춘철도를 인제까지 연장하여 울밀한 무진장의 목재와 콩약초 등을 세상에 널리 소개하는 동시에 인제군의 발전도 촉진하자는 토의가 있었는데 경춘철도도 최초 인제를 배경으로한 만치 여기 대하여는 군민이 일치협력하여 적극적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한다.

1939-03-03-05-02

### 동아일보

#### 인제축산 예산 전년비 배 증가

【인제】 인제군농회 예산 중 축산수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500원인데 금년은 1만원 이상의 증액 수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면 소값 등귀에도 다소 관계가 있다고 하나 축산계의 부단의 노력과 밀매매 단속, 기타 우시장 감독이 철저한 관계라고 하는데 금년도 1만원 증액 수입은 농회 창립 이래 초유 일이라고 하며 이 수입 풍부에 따라 일반 유축농가에 복음이 될 신규사업도 연구중이라고 한다. (인제)

1939-03-04-03-04

### 매일신보

#### 벽추지 각 면에는 선거규칙 불적용 강원서 도령으로 발표

【춘천】 강원도에서는 오는 5월 21일 면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숙정을 기하고자 기권 방지 등 여러 가지 선전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산간벽추지로서 교통이 불편하여 그 까닭에 민도가 저급한 좌기 각면에 대하여는 조선지방선거취체규칙을 적용치 않기로 되어 3월 1일 자 도령으로써 발표 시행하기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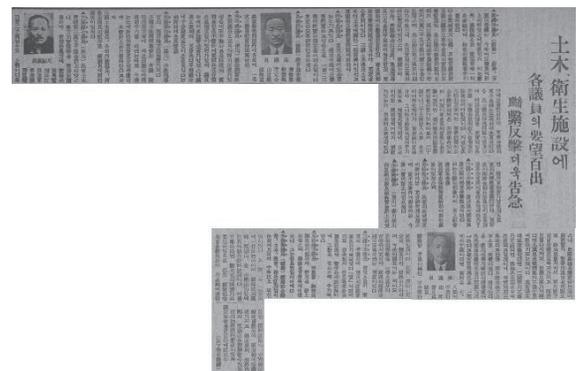
- ▲춘천군=동면, 동산면, 남면, 사내면, 북산면, 신북면, 신남면 ▲인제군=내면, 양구군=수입면, 동면, 남면 ▲양양군=토성면 ▲강릉군=왕산면 ▲삼척군=상장면, 호곡면, 소달면, 원덕면 ▲울진군=근남면, 원남면, 온정면, 서면 ▲정선군=동면, 남면, 북면, 임원면, 신동면 ▲평창군=미뢰면, 도암면 ▲영월군=하동면, 상동면, 서면, 남면, 수주면 ▲원주군=호구면, 지정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황성군=공근면, 청일면, 청원면 ▲홍천군=내촌면, 동면, 남면, 서면, 두촌면, 북방면 ▲화천군=간동면, 상서면 ▲김화군=서면, 근북면, 원동면, 원북면, 임남면, 통구면 ▲평강군=현내면, 남면, 유진면 ▲이천군=옹리면

1939-03-11-03-01

### 매일신보

#### 토목 위생시설에 각의원의 요망 백출 연계반격 더욱 고심

(중략) ▲이종형 의원(인제) 인제군은 권업, 토목, 교육, 위생할 것없이 타군에 비하여 10년 이상 뒤진 감이 있다. 모든 시설은 도당국에 일임하며 인제군의 영봉 설악산을 금강산과 함께 세계에 소개하려는 것이다. 이를 선전하라면 관광객의 유치가 필요하므로 위선 인제군 서화면을 경유하여 내금강에 연결하는 탐승도로와 경춘철도를 인제를 거쳐 동해선에 접속케해가지고 철도로서 해외내금강과 설악산을 탐승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열렬한 요망이 있다. (중략)



1939-03-18-03-12

### 매일신보

#### 인제군 각면 기술원 사무협의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8일 오전9시부터 군청회의실내에서 김군수 통재하에 각면 기술원 사무타합회를 개최하고 좌기 각항을 타합한 후 동일 오후4시경 폐회하였다.

- 1. 미곡생산 확보의 건 2. 제6차 논벼우량품종 중차 갱신계획의 건
- 3. 군용피마자 증산계획의 건 4. 대마증산 장려의 건 5. 발작물 우량품종 보급의 건 6. 목백대두 증산의 건 7. 발작물 개량 표준밭 설치의 건 8. 면 파종 준비와 지도대책의 건 9. 퇴비장 건축수리와 회차장 개조의 건 10. 뱃지 채종밭 관리지도의 건

1939-03-18-04-01

### 매일신보

#### 한푼 두푼 모아놓은 동전 1,000매를 헌납, 인제 이 소년의 미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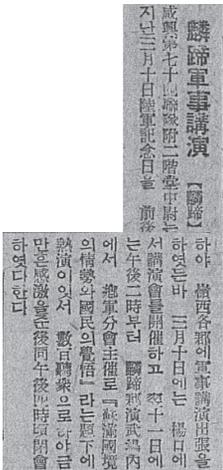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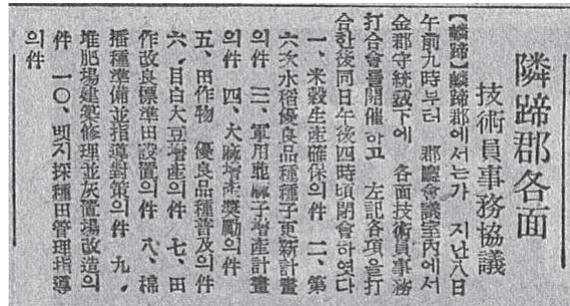
【인제】 지난 15일 강원도 인제군청내 군사후원연맹에는 15, 16세 되어보이는 소학교아동이 출두하여 『이것을 군부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큼직한 소포 한개를 내어놓으므로 계원은 내용포장이 무엇인가를 물은 즉 물경 1천동화 1,000매인지라 그 자세한 사실을 탐문한 즉 그 소년은 금년 인제남소학교 6학년에서 재학중인 이봉림(16)이라는 소년으로서 가정이 빈한하여 소학교 4년급에서부터 남의 집 심부름을 하여가며 고학하는 터로 작년 9월부터 푼푼이 모은 돈을 저금하는 병어리에 모아서 부인들의 천인침과 같은 의미로 동전 1,000매를 모아 국방헌금을 하겠다는 가특한 결심하에 저금을 하여오던중 지난 10일 육군기념일에 목적하던 동전 1,000개가 모두 모였으므로 오늘 가지고 헌납하려고 한다는 눈물겨운 사실을 듣자 계원들도 그 소년의 피끓는 애국심에 감격을 마지않는 동시에 즉시 헌납수속을 하였다 한다.

1939-03-19-03-03

### 매일신보

#### 인제 군사강연

【인제】 함흥제70단연대부 이계당 중위는 지난 3월 10일 육군기념일을 전후하여 영서 각군에 군사강연출장을 하였는데 3월 10일에는 양구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11일에는 오후2시부터 인제군 연무장내에서 향군분회 주최로 『소련만주국경의 정세와 국민의 각오』라는 제하에 열연이 있어 수백청중으로 하여금 많은 감격을 준후 오후4시경 폐회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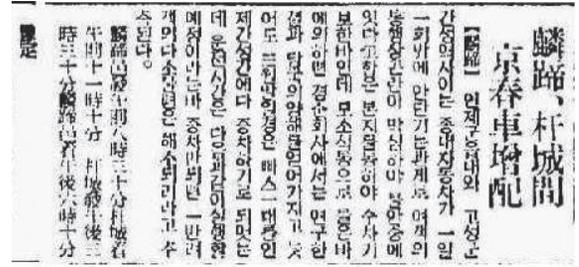
1939-03-21-06-04

### 동아일보

#### 인제 간성간 경춘차 증배

【인제】 인제군 읍내와 고성군 간성역 사이는 종래 자동차가 1일 1회밖에 안다니는 관계로 여객의 통행상 곤란이 막심하여 불안중에 있다고 함은 본지를 통하여 수차 이미 보도하였는데 모 소식통으로 들은 것에 의하면 경춘회사에서는 연구한 결과 당국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늦어도 3월 말일경은 버스 1대를 인제 간성간에 다 증차하기로 되었는데 운전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 예정인데 증차만 되면 일반여객의 다소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추측된다.

인제읍 발 오전8시30분 간성 착 오전 11시 10분  
간성 발 오후 3시30분 인제읍 착 오후6시10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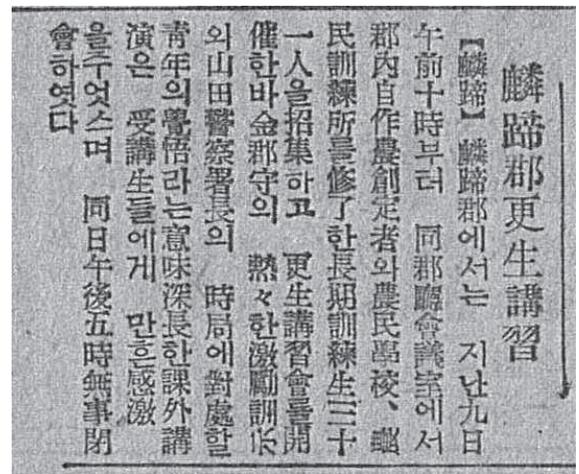


1939-03-19-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갱생강습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9일 오전10시부터 인제군청 회의실에서 군내 자작농 창정자와 농민학교, 농민훈련소를 수료한 장기 훈련생 31인을 초집하고 갱생강습회를 개최하여 김군수의 열렬한 격려훈사와 산전경찰서장의 시국에 대처할 청년의 각오라는 의미심장한 과외강연은 수강생들에게 많은 감격을 주었으며 동일 오후5시 무사 폐회하였다.



1939-03-20-04-02

### 동아일보

#### 소값 하락으로 인제시장 부진

【인제】 인제군은 산간지방인만치 천혜적 야초가 풍부하여 어느 농가를 물론하고 1호당 축우를 2마리 내지 5마리는 평균 사육하는 관계상 군내 어느 시장을 물론하고 우시장이 흥왕하여 일반시장까지 그 경기로 상품의 매매가 성황되어오는 현상인데 요사이의 소값이 다소 하락된 관계로 우시장의 부진을 보게된다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면 서울 인천 원산 등지에서 소값이 오르면 인제군은 산간지방인만치 약 10여일이나 되어야 그 소식을 듣는 현상이므로 소값이 오를 적에는 시장이 잘되나 소값이 하락될 때는 촌사람들은 비싼 생각만 하고 떨어진 소식은 못들은 관계라고 한다.



1939-03-25-04-07

## 동아일보

### 공동우물 공사 완료로 인제시 음료수 해소

【인제】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공동우물이 없어 시민은 음료수 기근으로 대소동일 일시는 일으키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공동우물 3개소가 신설되어 음료수의 기근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한다.

1939-03-26-04-06

## 매일신보

### 홍천 진부간 자동차 운전

【홍천】 오래 전부터 현안의 숙망이던 홍천 양양선은 그간 장구한 일자를 두고 개수공사의 눈물겨운 부민들의 미담미거가 있었던 것은 이미 본보에 이미 보도한 것과 같거니와 홍천 인제 내면에서는 생명과 같이 희생봉공으로 물심양면으로 주력하여 오더니 금일 21일로 도당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허가가 교부되었다고 일반은 희열에 넘치었다고 하며 그 발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한다.

▲홍천 오전10시40분 발 평창 진부 오후4시45분 착 ▲평창 진부 오전10시 발 홍천 오후3시45분 착

駐令	
三月廿五日發着(明洞驛行)	黃錫麟
麟蹄(麟蹄驛)	金周赫
任(任德驛)	尹熙再
命(命珍驛)	崔炳燾
命(命珍驛)	戚基燦
命(命珍驛)	金昌斗
命(命珍驛)	朴永煥
命(命珍驛)	金學洙

1939-03-28-01-10

## 동아일보

### 사령

3월 25일자 발령 총독부 강원도군속 김주혁 임 총독부군수(7등)명 강원도 인제군 재근 (인제군) 총독부군수 김학수 명 강원도 울진군 재근

1939-03-28-04-01

## 동아일보

### 북국 3월에 설한장립 파종이 실기를 우려, 해동이 예년 보다 반삭이나 늦어 걱정

【인제】 인제군은 요사이 일기가 겨울날같이 날마다 춥더니 지난 23일 밤에는 눈이 7, 8촌이나 쌓였다고 하며 추위는 의연히 심해서 악성감기가 유행되어 곤란중이라는데 그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극심하다고 한다.

1939-03-31-03-04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각 금조에 저축장려금 하부 2천700여원 전달

【춘천】 본부에서는 총후보국저축의 장려에 관하여 솔선협력해서 저축 취지의 선전과 장려에 다대한 노력을 지불하여 일반민중의 저축심을 환기해서 저축 증진에 공헌이 있는 금융조합에 대하여 장려금을 내려보내기로 하니 강원도에도 2,760원을 보내왔으므로 도에서는 좌기와 같이 각 조합에 전달하여 일층 분기노력하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 저축장려금 하부내역  
(중략) ▲인제 130원 (중략)

1939-04-05-03-08

### 매일신보

#### 인제 내면협의회

【홍천】 인제군 내면에서는 지난 26일 면협의회를 개최하고 7,686원이란 막대한 예산책을 필두로 각종 안건을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의사는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같은날 오후5시경에 폐회하였다 한다.

1939-04-05-04-06

### 동아일보

#### 경경선 개통으로 인제 서울간 교통 편리

【인제】 금번 4월 1일경 경선 개통을 보게되자 인근 홍천 황성은 물론이요 인제군에서도 종래 서울을 1일 1회 밖에 못다니던것이 결국 오후에 떠나서도 서울에 그날로 도착하게 된다고 하여 일반의 교통이 지극히 편리해졌다고 한다.

1939-04-05-04-09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에서 품평회 상품 수여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매년 연중행사로 농작물지도 장려의 일책이 되는 각종 품평회를 계획하고 군면 당국자가 극력지도해오더니 그 성적이 양호하다는데 지난 22일에는 군내 각면장과 유지들의 열석하에 상품 수여식이 거행되었는데 수상자수 중 최우등수를 점령한 면으로는 남면 이라고 하며 그중 개인상으로는 갯생부락지도의 철저를 기하였다는 공로로 인제군 남면 기수 박무병씨에게 시계 1개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江原道内各金組에  
貯蓄獎勵金下付  
二千七百餘圓傳達

【春川】本府에서 統後報國貯蓄  
の獎勵に關して、率先努力して貯蓄  
進歩百圓の獎勵金に多大の努力を  
盡したる、一般民衆の貯蓄心を喚  
起して、貯蓄増進に貢獻したる金  
貯組合に對して、獎勵金を下付す  
기로なり、江原道に於て、二十七日  
十圓以上貯蓄したる、道民は左  
記の如く組合に付、一、一、一、一  
圓起り、各組合に對して、一、一、一、一  
圓、貯蓄獎勵金下付内、

▲江原道貯蓄組合(以下、金貯合)  
○高城(第一)三五圓 ▲原州六〇圓  
▲麟蹄五五圓 ▲花七〇圓 ▲春川  
八〇圓 ▲伊川一〇〇圓 ▲羅川五

五圓 ▲襄陽五〇圓 ▲蔚山三〇圓  
▲洪川一〇〇圓 ▲寧越二八〇圓  
▲三陟一六〇圓 ▲金城五五圓  
▲平康四〇圓 ▲丹城四五圓 ▲夫和  
一六五圓 ▲羅日八〇圓 ▲淮陽五  
五圓 ▲羅川四五圓 ▲橫城三五  
圓 ▲麟蹄三〇圓 ▲旌義八五圓  
▲高城五〇圓 ▲平海三五圓 ▲文  
晔三〇圓 ▲泗川四〇圓 ▲津文津  
二五圓 ▲安峽八〇圓 ▲道二〇  
圓 ▲平昌三〇圓 ▲京山二五圓  
▲歙六五圓 ▲内金剛一〇圓 ▲天  
前二五圓 ▲羅東八〇圓 ▲中内七  
〇圓 ▲鐵原(第一)六五圓 ▲支  
石一五圓 ▲王孫一五圓 ▲淮陽二

麟蹄内面協議會

【洪川】麟蹄郡内面에서는 지난  
二十六日、面協議會を開催하고七  
千六百八十六圓이란、彪大の豫算  
策を筆頭로、各種案件を審議に回  
附하였는데、議事は一瀉千里に瀾  
場一致で可決하고、同日午後五  
時頃、閉會하였다고 한다.

京慶線開通으로  
麟、京間交通便利

【麟蹄】금번 4월 1일경, 경선  
개통을 보게되자 인근 홍천 황성은 물론  
이요 인제군에서도 종래 서울을  
1일 1회 밖에 못다니던것이 결국  
오후에 떠나서도 서울에 그날로 도착하  
게 된다고 하여, 일반의 교통이 지극  
히 편리해졌다고 한다.

麟蹄郡農會에서  
口肥會賞品授與

【麟蹄】인제군농회(麟蹄農會)에서  
올해는 매년연중행사로 농작  
물지도장려의 일책이 되는 각종품  
평회를 계획하고, 군면당국자가  
극력지도해오더니, 그 성적이 양호  
하다는바, 지난 22일에는 군내  
각면장과 유지들의 열석하에 상  
품 수여식이 거행되었는데, 수상자  
수 중 최우등수를 점령한 면으로  
는 남면(南面)이라고 하며, 그중 개  
인상으로는 갯생부락지도의 철저  
를 기하였다는 공로로, 동남면 기  
수 박무병(同郡南面機手朴武病  
氏)에게 시계(時計) 1개와 표창  
장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1939-04-06-04-03

### 동아일보

#### 인제에 기념식수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3일 관민 수백명이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

1939-04-06-04-10

### 동아일보

#### 폭풍 혹한으로 보리 밀 흉작 난면, 인제농촌의 우울상

【인제】 인제군은 지난 31일부터 폭풍이 들고 출기 시작하여 겨울 일기보다도 더 험악하다. 따라서 보리 밀은 흉작이 될까하는 염려로 일반 농촌은 근심을 펴지못하고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1939-04-06-04-12

### 동아일보

#### 국방헌금

【인제】 인제군읍내 선익상회 지점 점원 박해성(17)은 지난 30일 오후 6시경 경춘철도 인제영업소에서 일금 530원 든 봉투를 주워서 즉시 소관 인제경찰서에다 제출하였는데 동일 오후 8시쯤에 인제군 인제면 덕적리에 본적을 두고 잡화물 행상을 하는 한득섭이라는 분이 서울서 물건을 팔고오는 길에 잃어버린 것이 판명되어 그수수료 일금 30원을 받아가지고 15원을 그 즉시 국방헌금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일반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9-04-07-04-10

### 동아일보

#### 인제기념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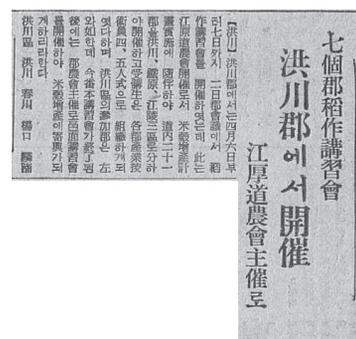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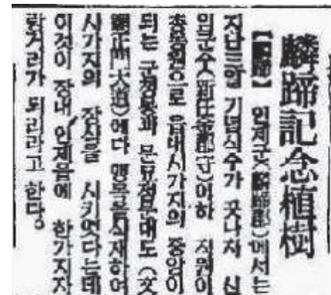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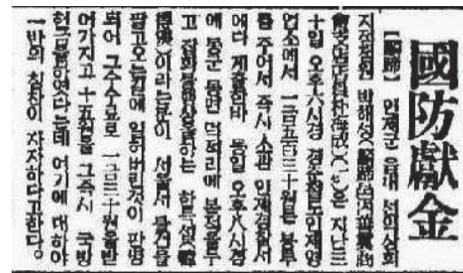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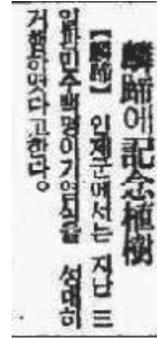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3일 기념식수가 끝나자 신임 군수 이하 직원이 총동원으로 읍내 시가지의 중앙이 되는 군청문과 문묘 정문 대도에도다 앵목을 식재하여 시가지의 장식을 시켰는데 이것이 장래 인제읍에 한가지 자랑거리가 되리라고 한다.

1939-04-08-03-05

### 매일신보

#### 7개군 도작 강습회 흥천군에서 개최 강원도농회 주최로

【흥천】 흥천군에서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군 회의에서 도작 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강원도농회 개최로서 미국 증산 계획 실시 에 수반하여 도내 21군을 흥천, 철원, 강릉 3구로 분하여 개최하고 수 강생은 각 군 산업기술원 4, 5인씩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하며 흥천구의 참가군은 좌와 여한데 금번 본강습회가 종료된 후에는 군농회 주최로 읍면 강습회를 개최하여 미국증산에 기여가 되게 하리라 한다. 흥천구 흥천 춘천 양구 인제



1939-04-12-04-05

## 동아일보

### 인제우편소 이전 지연

【인제】 인제군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수해로 인하여 읍을 고지 대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은 물론 각관공서가 전부 신읍으로 이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무의 중대역할을 가진 우편소는 아직 이전치 않은 관계로 읍민의 불편이 막대하여 읍내 유지 3명이 서울감 독국에 진정까지 간 일이 있었고 그후 인제우편소장 석전씨의 활동 으로 서울국청사협의에서 이전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부지까지 매입 하고도 공사 착수도 하지않고 아무 소식이 없으므로 일반 읍민들은 불평이 점고하며 하루바빠 공사 착수를 하기를 고대중이라고 한다.

1939-04-13-05-05

## 동아일보

### 인제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오는 15일로 조합원의 총회를 열고 1938년도 결산보고를 한 후 뒤이어 평의원과 감사역까지 하리라고 하는데 그 준비에 조합원들은 매일 주야를 모르고 사무에 분망중이라고 한 다.(인제)

1939-04-14-03-01

## 매일신보

### 지하자원 조사대, 도내를 3구로 강원도서 편성 신광상을 철저 조사

【춘천】 전시하 지하 자원개발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강원도에 서는 연도 초에 접어들며부터 인적 진용을 정비하는 등 개발 강화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본년도에는 좌기와 같이 도내를 3구로 분하여 지하자원조사대를 편성 신광상의 획기적 조사와 기득 광구의 정밀 조사를 단행하리라 한다. 이와 같이 전면적 조사를 하기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각군에서는 기본 및 위치 를 미리 조사해두기를 바란다 고 한다.

1. 동해안 8개군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2. 중앙 7개군  
회양 양구 인제 평창 정선 원주
3. 내륙 7개소  
이천, 평강, 철원, 김화, 화천, 횡성, 홍천

【譯】 인제군(仁濟郡) 기포면(基浦面)과 장미수면(長美水面)의 우편소(郵便所)가 고지 대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막대하여 읍내 유지 3명이 서울감독국에 진정까지 간 일이 있었고 그후 인제우편소장 석전씨의 활동으로 서울국청사협의에서 이전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부지까지 매입하고도 공사 착수도 하지않고 아무 소식이 없으므로 일반 읍민들은 불평이 점고하며 하루바빠 공사 착수를 하기를 고대중이라고 한다.

▲ 麟蹄 國幣 金融 組合 에서 3 月 15 日 日 本 決 算 報 告 會 開 演  
 演 說 者 爲 本 會 會 長 趙 某 氏 演 說 內 容 大 概 如 下  
 本 會 自 創 立 以 來 承 蒙 國 民 愛 護 業 務 日 見 發 達 茲 將 本 會 三 月 日 本 決 算 報 告 會 開 演 內 容 大 概 如 下  
 本 會 自 創 立 以 來 承 蒙 國 民 愛 護 業 務 日 見 發 達 茲 將 本 會 三 月 日 本 決 算 報 告 會 開 演 內 容 大 概 如 下

### 地下資源調査隊

道內各三區로 江原道서 編成

#### 新鑛床을 徹底調査

【譯】 國幣 金融 組合 會 長 趙 某 氏 演 說 內 容 大 概 如 下  
 本 會 自 創 立 以 來 承 蒙 國 民 愛 護 業 務 日 見 發 達 茲 將 本 會 三 月 日 本 決 算 報 告 會 開 演 內 容 大 概 如 下  
 本 會 自 創 立 以 來 承 蒙 國 民 愛 護 業 務 日 見 發 達 茲 將 本 會 三 月 日 本 決 算 報 告 會 開 演 內 容 大 概 如 下

#### 短期養成所開所

江原道種羊場에서

【譯】 國幣 金融 組合 會 長 趙 某 氏 演 說 內 容 大 概 如 下  
 本 會 自 創 立 以 來 承 蒙 國 民 愛 護 業 務 日 見 發 達 茲 將 本 會 三 月 日 本 決 算 報 告 會 開 演 內 容 大 概 如 下  
 本 會 自 創 立 以 來 承 蒙 國 民 愛 護 業 務 日 見 發 達 茲 將 本 會 三 月 日 本 決 算 報 告 會 開 演 內 容 大 概 如 下

1939-04-14-03-05

### 매일신보

#### 홍천 진부간에 자동차 선로 완통 9일부터 운전 개시

【홍천】 홍천 진부간 자동차 선로(서석면, 내면 경유)의 허가가 있어 3월 21일부터 개통하게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나 인제군 내면 관내의 도로 자갈채취 부입이 완성되지 못하여 그간 홍천읍내에서는 서석면까지만 평창군 진부면에서는 인제군 내면 창촌리까지만 매일 정기로 통행하고 내면, 서석간은 도보로 연락을 하게 되어 불편이 컸는데 이제는 도로 자갈채취 부입도 완성되었으므로 4월 9일부터는 홍천서 진부까지 직통을 보게되어 제반 물화 운수며 문화 발전에 기여되는데 크게 되었다 하며 자동차의 발차 시간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발차시간 및 요금

홍천 발 10시40분 진부 착 4시20분

진부 발 10시20분 홍천 착 4시

홍천-진석 1.62전 홍천-내면 창촌 2.88전

홍천-진부간 4.40전

### 洪川珍富間에 自動車線路完通

#### 九일부터運轉開始

【洪川】洪川珍富間 自動車線路는 洪川서珍富까지 直通客本客 (瑞石面、內面經由) 의許可가 잇 되며 諸般貨物運轉하며 文化發展 시 三月二十一日부터開通하게 되 았다함은 既報한바이다 瑞石面內 而管內의 道路砂利敷込이 完成되 지못하여 其間洪川區內에서는 瑞石面外지만 平昌郡珍富面에서 日定期로通行하고 內面、瑞石間 은 徒步로運送하게 되어 不便이 多大하다 이제는 道路砂利敷込이 完成되었으므로 四月九일부터 洪川-珍富間四、四〇錢

發着時間及料金  
 洪川發十時四十分 珍富着四時 二十分  
 珍富發十時二十分 洪川着四時 洪川-珍石一、六二錢 洪川-內面舊村一、八八錢

1939-04-21-03-01

### 매일신보

#### 폐품 회수 운동 강화, 매수인과 취급인 지정, 강원서 19 일 부로

【춘천】 강원도에서는 물자를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시국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번 강원도 폐품협회를 결성한 후 폐품의 재생 이용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지난19일자로 폐품매수인 140명과 취급인 13명을 선정하여 사업의 통제를 하기로 했다.

군별 폐품매수인 폐품취급인

춘천 8 정사성

인제 6 정사성

(중략)

### 廢品回收運動強化

#### 買收人及取扱人指定

江原서十九日附

春川	8	正事成
仁濟	6	正事成

1939-04-21-04-08

### 동아일보

#### 인제 설악산 탐승로 개척을 계획

【춘천】 인제 설악산은 그 산계가 영봉 금강과 연결하여 주위 약 100리(조선리수)로 되어있는 수릉으로 산속에는 절이 많고 여기저기 폭포를 이루고 장엄한 영봉은 높이 솟았다 다열이 솟아 천태만상을 이룬 승구로 금강을 능가할만하다고 이를만 하여 각지로부터 매년 시기가 되면 탐승객이 운집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탐승도로가 불편하므로 인제지원민은 일상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군당국에서도 이를 찬성할 나머지 인제군수 김주혁씨로부터 지난 17일에 도청에 당도하여 관계당국에 이 탐승도로 특히 설악과 내금강과의 연락도로를 개수하기를 요망하였다 한다.

### 山岳雪蹄麟

#### 計劃을拓開路勝探

【春川】 인제 (瑞石) 설악산(仁濟) 산기슭의 영봉과 천태만상을 이룬 승구로 금강을 능가할만하다고 이를만 하여 각지로부터 매년 시기가 되면 탐승객이 운집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탐승도로가 불편하므로 인제지원민은 일상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군당국에서도 이를 찬성할 나머지 인제군수 김주혁씨로부터 지난 17일에 도청에 당도하여 관계당국에 이 탐승도로 특히 설악과 내금강과의 연락도로를 개수하기를 요망하였다 한다.

1939-04-22-03-03

### 매일신보

#### 제7차갱생지도부락488부락에 1만여호, 강원도서 설정 완료

【춘천】 강원도에서는 총독부 방침에 순응하여 피폐해가는 농촌의 갱생의 주요사안으로 지난 1933년부터 농가갱생계획 (당초 5개년 계획이었으나 1935년도에 10개년 확충계획)을 수립 농촌의 전면적 갱생을 목표로 지도에 박차를 가한 결과 차차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제6차 갱생지도계획도 지난 연도말로써 완료되었으므로 제7차 갱생계획을 수립하여 신년도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각군으로부터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설치된 갱생부락의 488부락에 수립된 호수가 1만1,063호에 달하고 있는데 각군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부락수	총농가호수	계획수립호수
춘천	126	1,201	806
인제	27	902	551

(중략)

1939-04-23-04-09

### 동아일보

#### 인제군 각면에서 종모우 검사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종모우 검사를 축산주임 기수 김우달씨가 시행하는 중인데 대개가 성적이 양호하나 사양관리가 불량하다는데 사양자에게 특별주의를 시켰다고 한다.

1939-04-24-04-03

### 동아일보

#### 소고기 기준

【인제】 요사이 소값이 폭등으로 인하여 수육판매자들은 수지가 맞지않는 관계로 전연 도살을 하지않음에 따라 인제군 사람은 모여앉으면 모두가 소고기 타령이라 하며 전일에는 매일 1마리 내지 2마리씩 도살을 하여도 부족되는 것이 지금은 1개월에 1마리도 잡지않는 반면에 군면의 보건상 대한 위협을 주는 동시에 영양이 크게 우려된다고 일반의 여론이 비등되어있다고 한다.

1939-04-24-04-05

### 동아일보

#### 인제에는 적죽

【인제】 인제군은 요사이 가뭄이 극도로 심하여 춘기 파종한 것이 나지않고 보리 밀도 성적이 불량하던 중 다행히 지난 20일부터 비가 내려 파종한 각종 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밀도 활기를 띠고 싹씩해졌다고 한다.

第七次更生指導部落  
四百八十八部落에 一萬千餘戶  
江原道서設定完了

員增員  
各面에一名式

長前郡設所의  
事務簡掛要覽

改良典

麟蹄郡各面에서  
種牡牛檢査

【麟蹄】 인제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종모우(種牡牛) 검사를 축산주임 기수 김우달(畜産主任 基秀 金又達氏)가 시행하는 중인데 대개가 성적이 양호하나 사양관리가 불량하다는데 사양자에게 특별주의를 시켰다고 한다.

소고기飢饉

【麟蹄】 요사이 소가에 폭등으로 인하여 수육판매자들은 수지가 맞지않는 관계로 전연 도살을 하지않음에 따라 인제군 사람은 모여앉으면 모두가 소고기 타령이라 하며 전일에는 매일 1마리 내지 2마리씩 도살을 하여도 부족되는 것이 지금은 1개월에 1마리도 잡지않는 반면에 군면의 보건상 대한 위협을 주는 동시에 영양이 크게 우려된다고 일반의 여론이 비등되어있다고 한다.

麟蹄에는適足

【麟蹄】 인제군은 요사이 가뭄이 극도로 심하여 춘기 파종한 것이 나지않고 보리 밀도 성적이 불량하던 중 다행히 지난 20일부터 비가 내려 파종한 각종 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밀도 활기를 띠고 싹씩해졌다고 한다.

1939-04-25-06-06

### 동아일보

## 각지 금융조합 정총

【인제】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지난 15일 총회를 이용해서 임원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고 한다.

감사 이종형 방법주 이철우  
평의원 이동규 민경호 김흥대 신두균 김영배 신성섭 서정린 조준휘

1939-04-26-04-08

### 동아일보

## 목재가격 등귀로 인제 상계 활황

【인제】 인제군은 산간지대인만치 군내 어디를 물론하고 천혜적 무진장의 대밀림은 참으로 굉장할 뿐 아니라 목재의 품질이 조서에서 유명하며 최우수를 점령한 관계상 서울목재상들은 매년 수백명씩 모여들어 목재 운반과 매매가 성왕하여지는 반면에 일반세국민들의 경제가 완화되어가는데 더욱이 금년은 목재값이 등귀하여진 관계로 일반 목재상들의 경기는 극도로 호전되어 요사이는 인제군 어디를 물론하고 호경기라고 하여 여기에 대하여 살포된 금액이 수십만원이라고 한다.

1939-04-27-03-04

### 동아일보

## 강원은 버섯도 특산 인제 참버섯을 이출 계획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특산물로 인제군 내면 임산부업조합에서 해마다 증산을 보이고 있는 참버섯(추용)의 인공산 천연산 합하여 금년에도 다량으로 산출될 것을 단면 예상하고 그 이출판매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알선하여 산출액을 더욱 더욱 높이고자 방금 신춘물로 선택한 산출예정량 및 전년 같은기간의 판매가격 등이 알선에 참고될만한 재료를 조사중이라 한다.

1939-04-27-03-02

### 매일신보

## 강원도 19개군에 수목 벌채를 엄금 지난2월 6일부터 3년간

【춘천】 강원도에서는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지는 방침하에 사유림 보호취체규칙 제4조에 의하여 1939년 2월 6일부터 1942년 2월 5일까지 3개년간 좌기 19개군 74개면에 대하여 수목의 대체 또는 낙엽과 토석의 채취 및 갈퀴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강원도고시 13호로 발포 실시하기로 되었다.

군면	금지면적개소	금지면적정
춘천	7	1,905.52
인제	1	28.61
(중략)		

**各地金組定礎**

△延安遺業 奉天省延邊省... (text continues with financial details)

△遼東 遼東省... (text continues with financial details)

△瀋陽 瀋陽市... (text continues with financial details)

**木材價騰貴 麟蹄商界活況**

【麟蹄】 인제군은 산간지대인만치 군내 어디를 물론하고 천혜적 무진장의 대밀림은 참으로 굉장할 뿐 아니라 목재의 품질이 조서에서 유명하며 최우수를 점령한 관계상 서울목재상들은 매년 수백명씩 모여들어 목재 운반과 매매가 성왕하여지는 반면에 일반세국민들의 경제가 완화되어가는데 더욱이 금년은 목재값이 등귀하여진 관계로 일반 목재상들의 경기는 극도로 호전되어 요사이는 인제군 어디를 물론하고 호경기라고 하여 여기에 대하여 살포된 금액이 수십만원이라고 한다.

**江原는 버섯 道特産**

麟蹄·椎茸·늘移出計劃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특산물로 인제군 내면 임산부업조합에서 해마다 증산을 보이고 있는 참버섯(추용)의 인공산 천연산 합하여 금년에도 다량으로 산출될 것을 단면 예상하고 그 이출판매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알선하여 산출액을 더욱 더욱 높이고자 방금 신춘물로 선택한 산출예정량 및 전년 같은기간의 판매가격 등이 알선에 참고될만한 재료를 조사중이라 한다.

**江原道十九個郡에 樹木伐採를嚴禁**

去二月六日로부터三年間

郡	面	面積(畝)
春川	...	...
麟蹄	...	...
...	...	...
總計	...	...

1939-04-28-04-06

### 동아일보

#### 인제남소학교에서 실습지를 확장

【인제】 인제군 남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동열을 고취시킨다는 의미로 요사이 실습지를 확장하기로 되어 학교 부근의 토지로 약 700평을 매수하였다고 한다.

1939-04-28-04-08

### 동아일보

#### 면작 지도상황 시찰

【인제】 강원도 산업부장 송문현씨는 지난 24일 면작 지도상황 시찰차 인제군에 내도하여 남면 북면을 시찰하고 25일 귀향하였다고 한다.

1939-04-29-05-06

### 동아일보

#### 인제에 담배 기근

요사이 인제군에는 담배가 부족되어 소비 대중들은 돈을 내고 사먹 으면서도 자유로 사지 못하고 겨우 사 피우게 된다고 하며 '비종 갖 지도기 미도리' 등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전매당국에서는 하루라도 바빠 대책을 강구해서 일반 소비대중의 불편을 일소케 하는 여론이 분분하다. 【인제】

1939-05-01-04-04

### 동아일보

#### 인제군 삼림령 위반 100여건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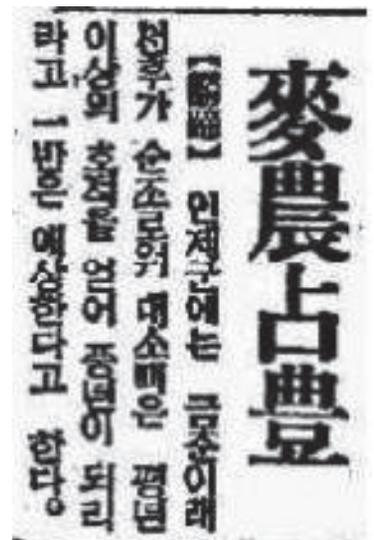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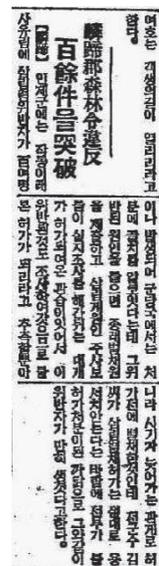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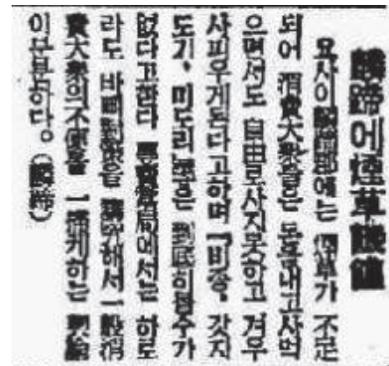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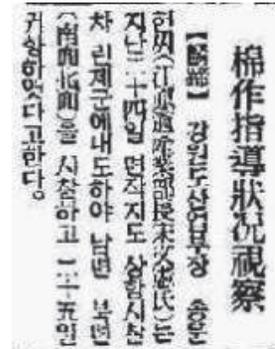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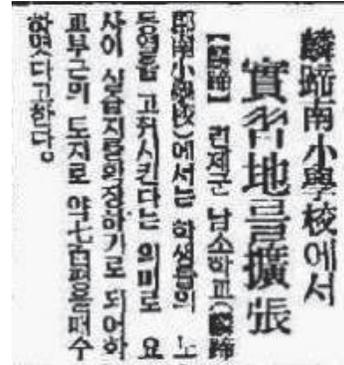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에는 지난 겨울 이래 사유림에 삼림령 위반자 100여 명이나 발생되어 군당국에서는 처분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데 그 위반된 원인을 들으면 종래 벌채원을 제출하고 삼림계원인 주사보들이 실지 조사를 해간 뒤는 대개가 허가되어온 관습이 있어서 이 위반된 것도 조사하여 갔으므로 물론 허가가 되리라고 추측할 뿐 아니라 시가가 늦어가는 관계로 허가 전에 벌채한 것인데 전군수 김씨가 삼림벌채 허가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바람에 전부가 불허가 처분이 된 까닭으로 그와같이 위반자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1939-05-01-04-07

### 동아일보

#### 맥농 점풍

【인제】 인제군에는 금춘 이래 천후가 순조로워 보리 밀은 평년 이상의 호적을 얻어 풍년이 되리라고 일반은 예상한다고 한다.



39-05-02-04-12

### 동아일보

#### 영봉 설악 찾아 탐승객 연일 잡담

【인제】 인제군 북면 설악산은 풍치로 보아 금강산에 지지않을만한 명승고적과 기암괴산석봉이 즐비하게 있는 관계로 매년 이때가 되면 탐승객들이 연박 끊이지않고 모여드는데 금년은 벌써부터 각처에서 탐승객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매일 40, 50명씩 된다는데 군당국에서는 차제에 설악산을 발전시키고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엽서를 발매하는 한편 선전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한다.

1939-05-05-04-01

### 매일신보

#### 강원도민의 적성 고조 현금 미담이 속출, 총후의 수비는 공고

【춘천】 중일전쟁이래로 강원도민의 애국의 적성은 날이 갈수록 그 도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현금 미담이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몇가지만 들춰보면 다음 과 같이 감격할 것이라 하여 총후 미담으로서 꽃을 피우고 있다

◇…(기 1) 인제군 남소학교 6년생 이봉림은 일본군(황군)의 분전에 감격하여 1938년 9월부터 2전씩 현금하여 왔는데 금년 3월까지에 1,000매(10원)에 달한 것을 국방현금하였다. (중략)

1939-05-07-07-11

### 동아일보

#### 인제소교 개축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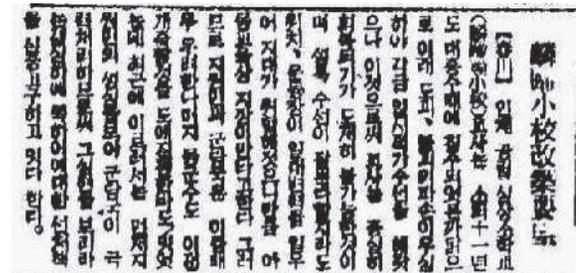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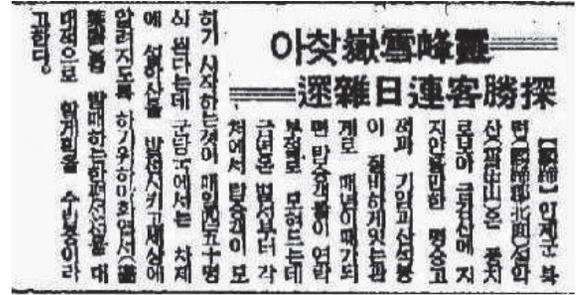
【춘천】 인제공립심상소학교 교사는 1936년도 대홍수때에 침수되었던 까닭으로 이래 도괴, 붕괴의 파손이 더욱 심하여 가끔 일시적 가수 선을 해왔으나 이것으로써 교사는 충실히 회복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설혹 수선이 잘된다 할지라도 위치, 운동장이 일대변혁을 이루어 지대가 위협해졌으니만큼 이등교육상 지장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원민과 군당국은 이를 매우 우려한 나머지 인제군수도 이전 개축할 것을 도에 진정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먼저 지원민의 성심을 보아 군당국이 극력 처리함으로써 그 실현을 보리라는 결심하에 방금 이에 대한 선처책을 신중고구하고 있다 한다.

1939-05-08-04-06

### 동아일보

#### 인제에 폭풍 습래 공사중 원통소교 도괴

【인제】 인제군에는 수일래 폭풍이 습래하여 원통심상소학교 증축 공사하였던 교실이 바람에 전부 도괴되어 방금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며 그뿐만 아니라 군내 각처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한다.



1939-05-08-04-09

### 동아일보

#### 사기 교원 피체

【인제】 인제군 내면 소학교 전교사 변경순(가명)은 1936년 4월에 전기 소학교로 부임하여 1938년 5월까지 근무하는중 교원의 간판을 이용하여 각학부형들에게 사기로 금품을 사취해서 도박과 주색에 전부 소비하고 있는 중 강원도 학무과에서는 즉시 권고사직을 시켰으므로 생로가 막연하여 할 수없이 충남 천안읍내에서 노동품을 팔고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인제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형사대가 천안읍에 가서 본인을 체포 취조한 후 지난 1일 일건서류와 함께 춘천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고 한다.

1939-05-09-04-06

### 동아일보

#### 가뭇 계속으로 묘판 고갈 상태 인제농촌의 우울상

【인제】 인제군에는 묘사외 폭풍만 계속하고 비는 오지않아서 보리 밭과 춘기 파종한 종자의 가뭇은 물론이고 모자리가 전부 말라서 대소동인데 앞으로 10여일만 더 계속해서 가뭇다면 농사는 전연 실패라고 하여 일반 농촌에서는 근심을 펴지못하고 우울상태로 비 오기만 고대중이라고 한다.

1939-05-12-06-04

### 동아일보

#### 인제군농회 뽕나무심기 지도에 전력

인제군농회에서는 요즘 뽕나무심기 지도에 전력을 하고 있다는데 농회 직원은 물론이요 군직원도 총출동 지도자 자신이 깡이를 들고 열심히 하는데 농민들도지도에 순응하여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성적이 대우량이라고 한다. (인제)

1939-05-12-06-07

### 동아일보

#### 인제면작 장려 종자 배부에 분망

인제군에서는 국책에 순응하여 면작을 적극장려하기로 되어 방금 종자배부에 대분망중이라고 한다. (인제)

詐欺訓導被逮  
【麟蹄】 인제군내 소학교 전교사 변경순(가명)은 1936년 4월에 전기 소학교로 부임하여 1938년 5월까지 근무하는중 교원의 간판을 이용하여 각학부형들에게 사기로 금품을 사취해서 도박과 주색에 전부 소비하고 있는 중 강원도 학무과에서는 즉시 권고사직을 시켰으므로 생로가 막연하여 할 수없이 충남 천안읍내에서 노동품을 팔고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인제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형사대가 천안읍에 가서 본인을 체포 취조한 후 지난 1일 일건서류와 함께 춘천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고 한다.

旱魃繼續○三  
苗板枯渴狀態  
麟蹄農村的憂鬱相  
【麟蹄】 인제군에는 묘사외 폭풍만 계속하고 비는 오지않아서 보리 밭과 춘기 파종한 종자의 가뭇은 물론이고 모자리가 전부 말라서 대소동인데 앞으로 10여일만 더 계속해서 가뭇다면 농사는 전연 실패라고 하여 일반 농촌에서는 근심을 펴지못하고 우울상태로 비 오기만 고대중이라고 한다.

麟蹄郡農會  
植桑指導에專力  
麟蹄郡農會에서는 요즘 뽕나무심기 지도에 전력을 하고 있다는데 농회 직원은 물론이요 군직원도 총출동 지도자 자신이 깡이를 들고 열심히 하는데 농민들도지도에 순응하여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성적이 대우량이라고 한다. (인제)

麟蹄棉作獎勵  
種子配付에奔走  
인제군에서는 국책에 순응하여 면작을 적극장려하기로 되어 방금 종자배부에 대분망중이라고 한다. (인제)

1939-05-14-06-08

### 동아일보

#### 경춘철도 인제 하물 5월부터 회사 직영

경춘철도 인제화물부는 종래 개인의 영업으로 할합제를 해오더니 5월 1일부터는 회사에서 직접 경영한다는데 방금 출장소장의 인물을 고사 중인데 위임자가 별로이 없는 모양이라는데 인제는 타지방과 달라서 직영을 하는만치 지방인물을 채용하여 영업상 다대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

1939-06-03-04-12

### 동아일보

#### 인제지방 괴후로 악성감기 유행

【인제】 인제군에는 요사이 일기가 겨울같이 춥고 매일 폭풍이 계속하는 관계로 군내 어디를 물론하고 악감이 유행되어 일반은 우려중이라고 한다.

1939-05-20-03-05

### 매일신보

#### 인제 금조에서 집단 자작농 창정 박충모씨의 특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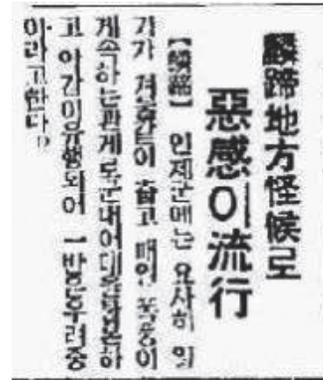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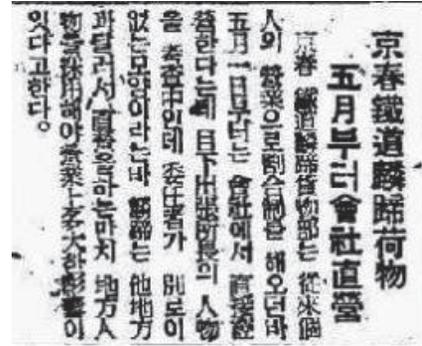
【춘천】 인제금융조합에서는 북면 한계리 관평동 농가 16호에 대하여 집단적 자작농을 창정하였는데 각 농가의 노력과 가족을 참작하여 1호 평균 816평씩 평당 74전을 주고 설정하였다고 한다. 설정자금은 9,666원 62전으로 원주 박충모씨의 소유 답 13,063평을 매수하여 설정하게 된 것인데 이는 금융조합 이사의 열의도 열의려니와 전기 박씨의 특지로 용의 하계 실현하게 된 것이라 하여 17일 일부 송산업부장의 명의로 인제군수의 통첩을 받아 지주와 이사의 공격을 칭찬하는 동시에 군당국으로서도 이같은 사업에는 극력 협력하도록 농촌경생에 기여하도록 지시하였다.

1939-06-09-03-03

### 매일신보

#### 송진 채취 강습 인제 각면에 개최

【홍천】 인제군은 원래 삼림지대로 유명한 지방으로서 매년 산출되는 임산물은 산출액으로 보아 도내 제1위를 점령하고 있던 것인데 금번에 또다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자원으로서는 필요한 송진 채취의 방법을 지도하고자 지난 1일부터 군 임업기술원을 총동원하여 군내 각면을 순회하면서 송진 채취 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다.



1939-06-12-02-03

### 매일신보

#### 홍아근로보국대 강원도서로 10명 파견

【춘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홍아근로보국대 조선부대에 강원도에서도 좌기 1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장호(인제) 조성묵(양구) 김경순(통천) 이명옥(고성) 최현집(강릉) 윤학원(삼척) 홍성룡(울진) 나천만(평창) 김창식(홍천) 이장재(김화)

1939-06-12-04-07

### 매일신보

#### 인제군농회 모자리관 심사회

【홍천】 인제군 농회에서는 개량묘대의 효과를 일반에게 주지할 목적으로 묘대품평회를 개최하였다.

1939-06-13-03-01

### 매일신보

#### 자동차 정류소 설치를 맹렬히 운동

【홍천】 인제군 남면 어른리는 인근 큰 광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업지대로서 비약적 발전 길에 오르고 있는 여파로 여객은 매일 끊이지 않는데 현재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여객차가 날마다 4회 왕복을 하고 있으나 정류소가 없고 다만 승차장 하나로서 자동차의 정기 정류가 없어서 타고자 하는 여객이 타지 못하는 폐단이 생김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당지 주민과 몇몇 인근 주민들은 이와 같이 매일 평균 5, 6인의 여객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인만큼 정류소 하나는 절대로 필요하여 회사측에서 양해가 있도록 재작년부터 수차 부탁을 하여 왔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았던바 근자에 이르러 여객은 나날이 늘어가 는 현상이므로 시급히 정류소를 설치하여주기를 바라며 맹렬한 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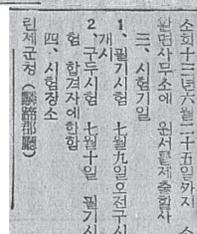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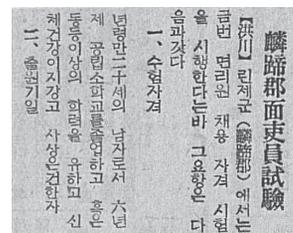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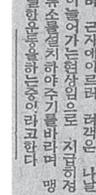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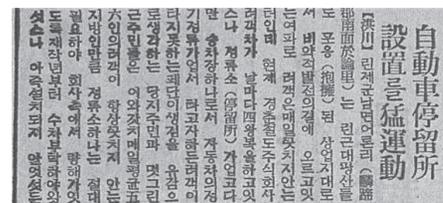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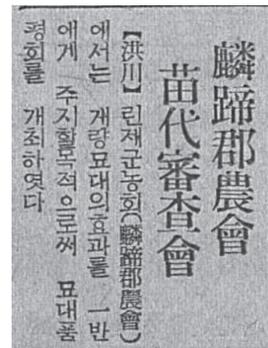
1939-06-13-03-05

### 매일신보

#### 인제군 면리원 시험

【홍천】 인제군에서는 금번 면리원 채용자격시험을 실시하는데 그 요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자격  
연령 만20세의 남자로서 6년제 공립소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신체건강하고 사상은 건전한 자
2. 출원기일  
1938년 6월 25일까지 소관 면사무소에 원서 제출할 것
3. 시험기일  
1) 필기시험 7월 9일 오전 9시 개시  
2) 구두시험 7월 10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장소  
인제군청



1939-06-18-03-01

### 매일신보

## 경춘철도 운송 직영 각군이 일제 반대, 오지산업 개발 상 지장도 적지 않음 금후의 귀결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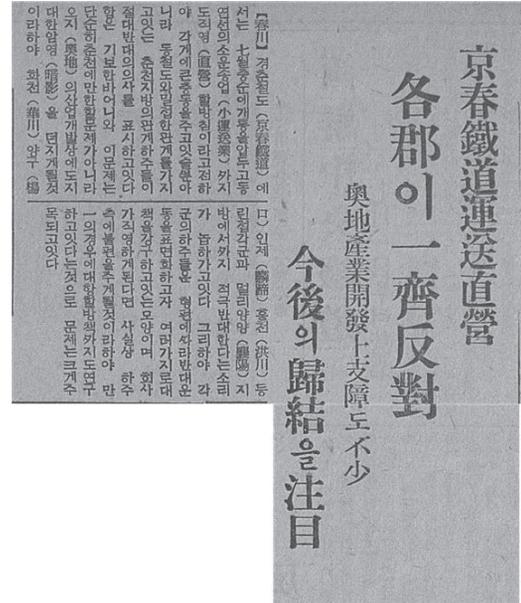
【춘천】 경춘철도에서는 7월 중순에 개통을 앞두고 동연선의 소운 송업까지도 직영할 방침이라고 전하여 각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춘철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춘천지방의 화물 주들이 절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함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 거니와 이제는 단순히 춘천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오지산업개발 상에도 지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될 것이라 하여 화천 양구 인제 홍천 등 인접 각 군과 멀리 양양지방에서까지 반대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각군의 화물주들은 형편에 따라 반대운 동을 표현하고자 여러 가지 문제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이며 회사가 직영하게 된다면 사실상의 화물주에 불편을 주게 될 것 이라 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방책까지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문 제는 크게 주목되고 있다.

1939-06-23-03-07

### 매일신보

## 은막에 재현될 인제 승지 설악산 도당국이 영화 제작

【춘천】 인제 설악산은 금강산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없는 명승과 고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만 교통이 불편한 까닭으로 내외에 선 전이 부족하여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유감으로 여긴 인 제군에서는 도의회때마다 널리 선전을 하도록 역설하는 등 갖은 방 법을 다하여 설악산의 존재를 알리려 노력해 왔는데 도 당국에서도 늦게나마 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0여일전 도 사회과 촬영반 이 현지에 출장하여 대승폭포 백담사 비선대 와선대 천불동 봉차암 마등령 상청봉 쌍폭 백운동 점봉령 신흥사 등 50여개소의 촬영을 마 치고 19일에 귀임하였다. 이번 촬영은 상당한 난관을 돌파해 가며 고심 촬영한 것으로 12미리의 『필름』으로는 늦게된 것이라는데 일 본으로 보내서 완전한 『필름』을 만들어 오게 되었으므로 약 2개월 뒤에는 시사를 하게 될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장승보옥의 가치가 세간과 접촉이 끊어져 있던 설악산 일대의 명승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 자태가 은막에 나타날 것으로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1939-06-25-03-01

### 매일신보

## 양정, 철선, 아연 등 배급 통제를 강화, 강원서 대리점과 판매점 지정

강원도에서는 양정 철선 아연의 배급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내를 6구로 나누어 각각 대리점 1개소씩 둔 다음 그 밑에다 19개소의 지정판매점을 두어 가지고 각 소매점에 넘겨 팔도록 하였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경기 함남 경남세를 거쳐 할당을 받게 되었으므로 춘천 원주지구는 경기도에, 철원 동해북부지구는 함남도에, 강릉 삼척지구는 경남도로 각각 정하여 지정된 대리점에서는 도에서 발행한 할당증명을 가지고 물건을 가져다 팔수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정된 각 지구와 대리점 지정판매점은 다음과 같다.

◇춘천지구=양구 인제 홍천 춘천 ▲대리점 춘목상점 ▲지정판매점 교교상점 북촌상점 춘목상점 (중략)

1939-07-01-03-01

### 매일신보

## 강원 각 읍면을 단위로 철벽의 방공단 포설, 7월 중 100여단을 결성 계획

【춘천】 강원도에서는 현 시국의 중대성에 비취 일반 민중을 총동원하여 공산주의의 사상과 운동의 그릇됨을 주지케 해서 이의 박멸 방위를 기함과 동시에 한걸음 더 나가서 일본정신의 양양을 도모하여서 사상국방의 완벽을 기하고자 작년 9월에 조선방공협회 강원도지부를 결성한 뒤 다시 각군에 방공단을 조직케 하는 등 철벽의 방공진을 펴가고 방공방첩에 만전을 기해왔는데 장개석정권은 아직도 장기 항전을 표방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을 싸고도는 국제 정세는 혼돈을 자극하여 시국은 갈수록 중대화해 가고있으며 반면에 흥측한 소련의 적화 공작은 부단히 마수를 펴고 있어서 일각이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인될 중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정세에 비추어 방공진을 한층 확충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적어도 각 읍면에 한 개씩은 방공단을 조직하기로 되어 오는 7월 중에 전부 결성을 하도록 준비를 정돈하고 있다 한다. 즉 현재 조직된 방공단 수는 전부 58개 단 체로 단원이 2,762명에 달하고 있는 데 7월 중에 다음과 같이 100여단을 확충 신설하여 각읍면에 1단체씩은 두도록 하리라는 것인데 이로써 강원도의 방공방법 운동은 물 부어 샬틈 없는 철벽진을 펴게 될 것이라 하여 크게 기대 되고 있다.

◇방공단 설치 예정 (7월 중)

- ▲ 인제 8 ▲ 양구 6 ▲ 통천 5 ▲ 고성 3 ▲ 양양 2 ▲ 강릉 2 ▲ 삼척 9
- ▲ 울진 3 ▲ 정선 4 ▲ 평창 6 ▲ 영월 2 ▲ 원주 4 ▲ 횡성 4 ▲ 홍천 9
- ▲ 화천 3 ▲ 금성 3 ▲ 철원 8 ▲ 평강 ▲ 이천 3

◎ 비고=춘천 홍천 김화 3경찰서의 보고 미착으로 확실치 못하나 100개소는 되리라 한다



1939-07-04-03-01

### 매일신보

#### 한강수력발전소 제방 축조로 행정구역 폐합 어려움을 면함,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뱃길도 두절 될 듯 별목나무 뗏목과 교통에 이상

【춘천】 전력 국책에 의해 실현하게되는 한강수력발전소 사업은 제 1기공사인 화천발전소부터 착수하기로 되어 방금 각반의 재료를 운반하는 등 벌써 800명의 노동자가 달라붙어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점포 합숙소 등의 신설을 급히 하고 있는 중인데 『뱃』의 축조로 인하여 광대한 면적이 호수화되게 되는 만치 근 면 행정구역의 폐합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라 하여 크게 주목하고 있다.

발전 사업계획을 보면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화천 춘천 김화 가평 4개소에 뱃을 축조하게 됨에 따라 민가와 전답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계지역 일대의 광활한 면적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모군과 같은 곳은 1면 7개리 중에서 5개리가 전부 물속에 잠기게 되는 등 면행정구역의 존폐문제는 명약관화의 사실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방주민들의 이점에 관한 관심도 크거니와 도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얼마전 본부 내무국장으로부터 수물지에 관계한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것은 확실한 일이며 현지의 유력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면 행정구역의 폐합문제보다 모군의 폐합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것으로 한층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

### 漢江水電堰堤築造로 行政區域廢合難免

#### 廣大한面積의湖水化가原因

한강수력발전소 제방 축조로 인하여 행정구역 폐합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라 하여 크게 주목하고 있다. 발전 사업계획을 보면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화천 춘천 김화 가평 4개소에 뱃을 축조하게 됨에 따라 민가와 전답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계지역 일대의 광활한 면적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모군과 같은 곳은 1면 7개리 중에서 5개리가 전부 물속에 잠기게 되는 등 면행정구역의 존폐문제는 명약관화의 사실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방주민들의 이점에 관한 관심도 크거니와 도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얼마전 본부 내무국장으로부터 수물지에 관계한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것은 확실한 일이며 현지의 유력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면 행정구역의 폐합문제보다 모군의 폐합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것으로 한층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

1939-07-05-03-01

### 매일신보

#### 800만원을 목표로 각군 배당을 결정 강원 저축 장려 운동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 28일 제2회 저축장려위원회회를 개최한 후 목표액을 800만원으로 했다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고 그 후 각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가목표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한다.

이번 각군 할당액은 도세 호별세 배당액과 광산 공장 토목공사 등에 의한 노임산포 기타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번 할당액 중에는 국채 또는 저축채권 기타 일반 유가증권의 직접 투자 증가액도 포함되었으므로 금후 각군에 할당할 국채와 저축채권의 소화 보급에 대하여도 일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군과 읍면에서는 각각 총후보국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축장려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결정하여 관민 총일체가 되어 목표 달성에 매진하기로 되었다.

◇각군 저축목표 할당액 (단위 천원)

춘천 518 인제 173 양구 165 회양 302 통천 339 고성 411 양양 352 강릉 817 삼척 725 울진 373 정선 169 영월 382 원주 552 횡성 325 홍천 359 화천 150 평창 233 김화 504 철원 581 평강 273 이천 297 합계 8,000

### 八百萬圓을目標로 各郡配當을決定

#### 江原貯蓄獎勵運動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 28일 제2회 저축장려위원회회를 개최한 후 목표액을 800만원으로 했다함은 이미 보도한 것이고 그 후 각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가목표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한다.

춘천	518	인제	173	양구	165	회양	302	통천	339	고성	411	양양	352	강릉	817	삼척	725	울진	373	정선	169	영월	382	원주	552	횡성	325	홍천	359	화천	150	평창	233	김화	504	철원	581	평강	273	이천	297	합계	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9-07-07-04-05

### 동아일보

## 야도충의 발생으로 조 작물 전멸 위기, 인제군 당국은 구제에 부심 중

【인제】 인제군에는 요사이 조밭에 야도충이 발생되어 어디를 물론 하는 군내 현 면적으로 심해지는데 조 농사는 전혀 가능성이 없게될 모양이라는데 군당국에서는 기술자들이 각면에 출장하여 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나 도무지 별 효력이 없는 모양이고 이 야도충은 이동식으로 먹어가는 관계로 예방과 구제를 잘못하면 군내 조 농사 300정부가 전멸될 우려가 있다는데 군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방구제를 하는 동시에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라고 하며 일반 당업자들은 근심을 펴지못한다고 한다.

1939-07-09-05-05

### 동아일보

## 강원도 춘잠종 소립 약 8만매 평창, 인제가 1, 2위

7일 현재로 농무과의 발표한 것에 의한 강원도의 춘잠종 소립매수는 보통잠종 76,213매, 원잠종 3,293매 계 79,506매인데 전년의 보통잠종 74,218매 원잠종 3,212매 계 77,430매에 비하여 보통잠종은 1,995매 원잠종은 81매 계 2,076매나 늘었다. 그리고 기후 적당하고 빙이 풍부한 까닭에 양잠군으로 가장 유명한 평창이 6,299매가, (인제군)이 6,120매로 도내에서 1, 2위를 점하여있다. (춘천)

1939-07-12-03-07

### 매일신보

## 장안사의 사슴을 각군에 분양예정 강원도의 녹용 증산책

【춘천】 강원도에서는 사슴의 증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1934년에 금강산 장안사에 수놈 1마리와 암놈 2마리를 대부하여 육성케하였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그동안 새끼사슴 4마리를 생산하게되어 현재 수놈 2마리 암놈 5마리에 달하였다는데 그런데 요즘 인제군으로부터 사슴을 양식해보겠으니 수놈 1마리를 분양하여달라는 조희가 있어 도농회에서 전기 장안사에서 1마리를 보내도록 하여 불일 수송하기로 되었는데 도당국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녹사 기타 설비 여하에 따라 분양해줄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강원도산의 녹용은 그 효력이 탁월한만치 고래로 성가를 높이고 있었던만치 이의 증식 장려는 그 장래가 크게 기대된다고 한다.

### 夜盜虫의發生으로 粟作物全滅危機

麟蹄郡當局の驅除に腐心中

【麟蹄】 麟蹄郡의 야도충 발생은 전 해를 계속하여 극심하여 주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국은 구제에 부심 중인데 기술자들이 각면에 출장하여 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나 도무지 별 효력이 없는 모양이고 이 야도충은 이동식으로 먹어가는 관계로 예방과 구제를 잘못하면 군내 조 농사 300정부가 전멸될 우려가 있다. 당국은 적극적으로 예방구제를 하는 동시에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라고 하며 일반 당업자들은 근심을 펴지못한다고 한다.

### 江原道春蠶種 掃立約八萬枚

平昌、麟蹄가 1, 2位

七日現在로農務廳의發表한바에 의하면 江原道の春蠶種掃立枚數는普通種種 七六、二二三枚元蠶種 三、二九三枚計 七九、五〇六枚인데前年の普通種種 七四、二一八枚元蠶種 三、二一二枚計 七七、四三〇枚에 비하여普通種種은 一、九九五枚元蠶種은 八一枚計 二、〇七六枚나 늘었다. 그리고 기후 적당하고 빙이 풍부한 까닭에 양잠군으로 가장 유명한 평창이 六、二九九枚가, (인제군)이 六、一二〇枚로 도내에서 1, 2위를 점하여있다. (춘천)

### 長安寺의「사슴」을 各郡에分讓豫定

#### 江原의鹿茸增産策

【春川】 강원도에서 사슴(鹿)의 증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1934년에 금강산 장안사에 수놈 1마리와 암놈 2마리를 대부하여 육성케하였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그동안 새끼사슴 4마리를 생산하게되어 현재 수놈 2마리 암놈 5마리에 달하였다는데 그런데 요즘 인제군으로부터 사슴을 양식해보겠으니 수놈 1마리를 분양하여달라는 조희가 있어 도농회에서 전기 장안사에서 1마리를 보내도록 하여 불일 수송하기로 되었는데 도당국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녹사 기타 설비 여하에 따라 분양해줄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강원도산의 녹용은 그 효력이 탁월한만치 고래로 성가를 높이고 있었던만치 이의 증식 장려는 그 장래가 크게 기대된다고 한다.

1939-07-14-03-01

매일신보

경찰의 시국좌담회 무려 1만3천회 강원도하서 55만명 참가

【춘천】 강원도 경찰부에서는 도내 각 주재소를 중심으로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여 궁벽한 산촌에 있는 촌민에게까지라도 시국인식을 철저케 하여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고 왔는데 중일전쟁이래 지난 6월 말일까지 개최한 사항을 보면 개최회수 1만3,450회에 참가인원이 실로 54만9,312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중 강릉과 이천 두 경찰서 관내가 가장 성적이 양호하다는데 각서별 개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명	개최수	참가인원	서명	개최수	참가인원
강릉	1,046	45,137	이천	1,037	57,580
고성	701	22,334	양양	537	21,386
삼척	666	28,055	원주	666	27,481
홍천	652	15,040	인제	633	20,648
(중략)					
계	13,450	549,032			

1939-07-14-03-08

매일신보

북부중앙철도 홍천 관통을 운동 산업상 기대가 다대

【홍천】 강원도 인제군 내면은 사방 산악이 둘러있는 산간 벽취의 지대이다. 그러나 지방 산물에 있어서는 도내 이제 1위일 뿐 아니라 전 조선 내에 우수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생산 지대인데 이제 그 산물의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약초 버섯 등만 매년 10여만 원에 달하였는데 작년부터 부산물 생산 확충과 채취 장려에 박차를 가하여 온 결과 전년도에 약초와 버섯 등의 부산물 수입만 15만원이상에 달하였으며 그 보다 더 큰 목적은 서울영림서에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경영하여 오는 제재소가 있어 매년 수십만원의 목재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적어도 13년간은 제재할 목재가 풍부하다고 하는 터인데 그 외에 사장된 산물도 적지 않던 중 최근에는 내면 구룡령으로부터 양양 속초항까지 약 24km에 통하는 대철광맥이 발기되어 금상첨화의 격이 되어 비상 지하 자원 증강의 일조가 되게 되었다고 인기를 총집중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이 축일 발전의 기를 뻗치고 있으나 다만 현재 겨우 자동차를 통하게 되었을 뿐으로 산물 반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북부중앙철도를 당지를 경유케 하기를 요망한다고 한다.

警察의時局座談會 無慮一萬三千回

江原道下서五十五萬名參加

지명	회수	참가인원
강릉	1,046	45,137
이천	1,037	57,580
고성	701	22,334
양양	537	21,386
삼척	666	28,055
원주	666	27,481
홍천	652	15,040
인제	633	20,648
계	13,450	549,032

北部中央鐵道 洪川貫通을運動

産業上期待가多대

【홍천】 강원도 인제군 내면은 사방 산악이 둘러있는 산간 벽취의 지대이다. 그러나 지방 산물에 있어서는 도내 이제 1위일 뿐 아니라 전 조선 내에 우수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생산 지대인데 이제 그 산물의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약초 버섯 등만 매년 10여만 원에 달하였는데 작년부터 부산물 생산 확충과 채취 장려에 박차를 가하여 온 결과 전년도에 약초와 버섯 등의 부산물 수입만 15만원이상에 달하였으며 그 보다 더 큰 목적은 서울영림서에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경영하여 오는 제재소가 있어 매년 수십만원의 목재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적어도 13년간은 제재할 목재가 풍부하다고 하는 터인데 그 외에 사장된 산물도 적지 않던 중 최근에는 내면 구룡령으로부터 양양 속초항까지 약 24km에 통하는 대철광맥이 발기되어 금상첨화의 격이 되어 비상 지하 자원 증강의 일조가 되게 되었다고 인기를 총집중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이 축일 발전의 기를 뻗치고 있으나 다만 현재 겨우 자동차를 통하게 되었을 뿐으로 산물 반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북부중앙철도를 당지를 경유케 하기를 요망한다고 한다.

### 혜성과 같이 출현한 춘천의 모범의원 의학박사 이재근씨 경영

씨는 강원도 홍천 출생으로 성격이 온유침착한 강원도 최초의 의학박사이며 조선에 있어서 최연소한 의학박사이다 당년 32세의 수재 독학자인 씨는 1932년 서울의전을 발군의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의 학부 소삼, 소천 양씨에게서 만 7년간 외과와 병리학을 전공하여 논문을 완성하여 1938년 9월에 이를 서울대학교수회에 제출하여 의학박사논문이 통과하게 되었다. 씨의 주논문은 인체발육에 극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세포 치면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몬』의 장기소 갑상선의 형태학적인 연구인데 씨의 역절한 것은 지금까지 전세계가 불치의 병으로 남겨온 불유쾌한 질병 더욱이 젊은 20세 내외의 묘령의 여자만 침범하는 바세도씨병의 본태를 명백히 하였으며 그의 치료법을 완성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세계적 대발견임과 동시에 세계 치료계에 일대 혁신을 주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하여 종래 의료기관에 혜택을 입지 못한 춘천지방에서는 마치 구세주나 군림한 것 같이 흠모하고 우려러서 평판이 높은데 멀리 화천 양구 인제 홍천 가평 원주 등지로부터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가 날로 증가하여 개업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대변창을 이루고 있어서 매일 외래환자 만이 70명으로부터 100명이상에 이르러 입원실은 연일 초만원에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씨의 의원을 보면 전문이 외과 인것 만큼 외과에 필요한 설비로 X 광선 태양등 적외선 단파까지도 설비하여 치료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과목은 간장 폐 위장 비장 식도의 질환 등 내강외과를 주로 하여 외상외과 항문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화류병이다. 분노를 위시하여 혈액의 검사까지도 전부 스스로 직접하여 환자는 물론 일반의 호평을 받고 있다. 씨는 현 사회에서 자칫하면 존귀한 의학의 사명을 잊지 않게 되어 거의 상품화하고 있는 이때 순수한 인의의 견지로 이를 구하여 빈곤과 병마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극빈자와 또는 출정 군인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일면 진실한 의학자로서의 생명을 구제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사진은 의학박사 이재근씨)

慧星과 같이出現한  
春川의模範醫院

醫學博士李在岷氏經營



氏 立江原道洪川由生으로 作格 甲狀腺의 形體學的 研究인바 氏 醫學博 本道最初の醫學博 士이며 朝鮮에서서 最年少인 醫學博士이다. 當年三十二歲의 秀才 醫學博 昭和七年京城醫 學大學에 卒業한 後 春川 醫學博 小杉 小川兩教授에게 서 滿七年間의 醫學博 研究 出하여 醫學博 文의 通過하게 되었다 氏의 主眼은 人體發育에 關한 醫學博 研究에 在하여 醫學博 博士 李在岷 氏의 醫學博 研究의 概略을 소개한다. 醫學博 博士 李在岷 氏의 醫學博 研究의 概略을 소개한다. 醫學博 博士 李在岷 氏의 醫學博 研究의 概略을 소개한다.

醫學博 博士 李在岷 氏의 醫學博 研究의 概略을 소개한다. 醫學博 博士 李在岷 氏의 醫學博 研究의 概略을 소개한다. 醫學博 博士 李在岷 氏의 醫學博 研究의 概略을 소개한다.

1939-07-22-05-09

### 매일신보

#### 천혜복지의 인제군

인제군은 교통이 지극히 불편하여 문물의 수입이 여의치 못하였던 관계로 대외적으로 인식이 적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몇해 전부터 지금까지 교통의 편리함을 더하려는 것과 전시관계로 인한 자원개발 관계로 인한 자원개발의 소리가 높아지자 이곳도 잠깐 사자와 같이 일어서게 되어 지상지하를 통하여 전체적 약진의 과정을 걷게 되었다. 인제군은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탐광 여하에 의해 무진장의 지하보물이 쏟아질 것이라 하여 크게 촉망되고 있으며 원시적인 임산물이 촘촘이 매장되어 있을 뿐아니라 축산 양봉 등의 적지로서 금후의 산업진흥은 전조선적으로 중요시하게 되었다. 또한 경춘철도는 멀지않은 장래에 인제군을 경유하여 동해안으로 관통될 것으로 교통의 정비와 함께 산업의 전면적 개발은 괄목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로 되었다. 그리고 동군의 설악산 중에는 백담사 오세암 원명암 봉정암 대승폭포 등 다수의 명승과 고적이 있어 제2금강산으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도당국에서도 선전의 필요를 느껴 설악산 일대를 영화로 촬영하는 등 산군 인제는 천하에 그 자태를 내놓게 되었다.

1939-07-29-04-08

### 동아일보

#### 경춘철도 개통후로 우편물이 연착 인제군민 불평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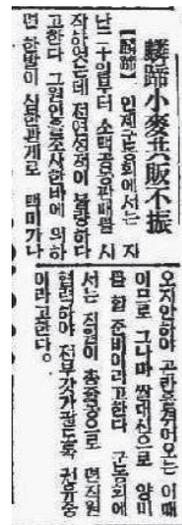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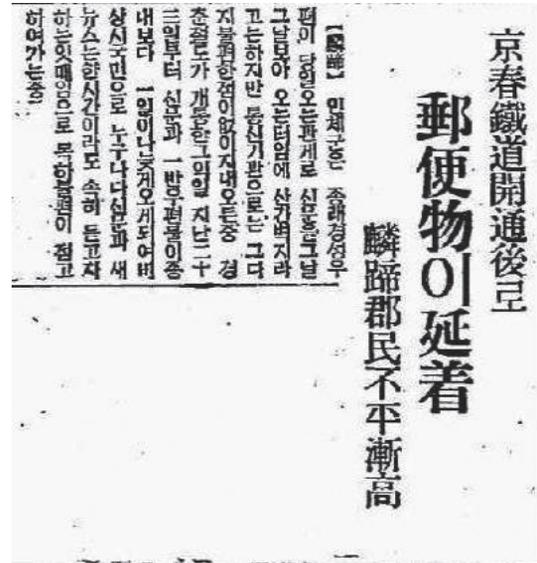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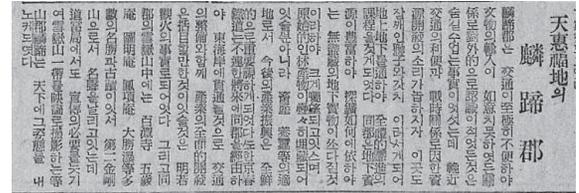
【인제】 인제군은 종래 서울우편이 당일 오는 관계로 신문을 그날 그날 보아오는 터임에 산간벽지라고는 하지만 통신기관으로는 그다지 불편한 점이 없이 지내오던 중 경춘철도가 개통한 그 다음날 지난 23일부터 신문과 일반 우편물이 종래보다 1일이나 늦게오게되어 비상시 국민으로 누구나 다 신문과 새 뉴스는 1시간이라도 속히 듣고자하는 이때이므로 방금 불편이 점점 높아가는 중이다.

1939-07-29-04-10

### 동아일보

#### 인제 밀 공판 부진

【인제】 인제군농회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밀 공동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전연 성적이 불량하다고 한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발이 심한 관계로 백미가 나오지 않아 곤란을 겪어오는 이때이므로 그나마 쌀 대신으로 양미를 할 준비라고 한다. 군농회에서는 직원이 출출장으로 면직원 협력하여 전부가 팔도록 권유중이라고 한다.



1939-07-30-03-03

### 매일신보

#### 1만여명이 동원될 강원청년단대회 내 9월에 개최 결정

【춘천】 강원도에서는 시국하 청년운동의 강화를 꾀하고자 오는 9월 중에 도내 청년단 대회를 춘천, 철원, 원주, 강릉 4개군에서 개최 하리라는데 좌기 일정과 같이 각각 이들 동안씩 열기로 하여 첫날에 예비연습을 하고 이튿날은 분열식, 운동회, 시가행진 등을 실시할 터이라 한다. 이에 참가 해당 청년단원이 실로 1만명에 달하는바 대회가 끝나면 강원도 대표로 50명을 선발하여 9월 15일부터 사흘동안 열게 되는 전선청년단대회에서 출석케 할 터이다.

#### ◇개최 일정

- 원주 9월 4, 5일 원주 횡성 평창 영월
- 강릉 9월 7, 7일 양양 울진 삼척 고성 정선 강릉
- 철원 9월 9, 10일 김화 평강 통천 이천 회양 철원
- 춘천 9월 13, 14일 홍천 양구 화천 인제 춘천

1939-08-03-04-01

### 동아일보

#### 춘천부근에 대규모 제재, 제지공장 설치 연산재 2,000만 30년 대계

【춘천】 산국 강원도는 인제, 양양 등지를 중심으로 목재가 무진장 한데 이번 경춘철도가 개통되자 이 임산을 적극적 개발하여 국책에 대응함이 시급하였으므로 도당국에서는 작년도부터 30년 계획으로 매년 2,000t씩 목재를 산출하며 따라서 펄프지도 경영하기로 하고 춘천에 이 제재 및 제지의 큰 공장을 설치하려고 방금 만반 준비를 급히하는 동시 총독부와 철저히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이 문제는 가장 긴요한 것이요 또 실현이 시급함에 이르러 일반의 기대하는 것 매우 크다 한다.

1939-08-13-03-01

### 매일신보

#### 송지화학공장을 춘천에 설치 운동, 일본서 재벌을 유치

【춘천】 부제 실시를 내다보고 착착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대춘천읍에서는 전시산업이 성해짐에 따라 공업도시 춘천을 건설하자면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하여 교외인 우두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공장을 속속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또다시 전기 우두리에 규모가 굉장히 큰 송지화학공장을 유치하고자 활동 중이라 한다.

즉 도내에 적송이 울밀한만큼 조송지를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게 되어도 당국에서는 도청구내를 비롯하여 춘천 인제 울진 삼척 강릉 횡성 등 각군에 조송지 제조공장을 설치케 하는 등 채취에 박차를 가하기로 되었는데 이것 규모가 극히 적어 유감되는 점이 없지 않으므로 일본 오사카의 모 재벌을 유치하여 대규모의 공장을 설치케 한 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조송지 자재를 공급하여 송지를 제조케 하는 일면 채취한 송지를 가지고 각종 물자를 만들어내게 하지는 것인데 자재가 풍부한만큼 전시하 물자 증강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一萬餘名이動員될  
**江原靑年團大會**  
來九月에開催決定

【춘천】 강원도청에서는 시국하 청년운동의 강화를 꾀하고자 오는 9월 중에 도내 청년단 대회를 춘천, 철원, 원주, 강릉 4개군에서 개최 하리라는데 좌기 일정과 같이 각각 이들 동안씩 열기로 하여 첫날에 예비연습을 하고 이튿날은 분열식, 운동회, 시가행진 등을 실시할 터이라 한다. 이에 참가 해당 청년단원이 실로 1만명에 달하는바 대회가 끝나면 강원도 대표로 50명을 선발하여 9월 15일부터 사흘동안 열게 되는 전선청년단대회에서 출석케 할 터이다.

開催地 春川 開催日 9월 4, 5, 7, 9, 10, 13, 14일

開催地 春川 開催日 9월 4, 5, 7, 9, 10, 13, 14일

開催地 春川 開催日 9월 4, 5, 7, 9, 10, 13, 14일

**春川附近에大規模  
製材、製紙工場設置**  
年産材 二萬噸 三十年大計

【춘천】 강원도청에서는 산국 강원도는 인제, 양양 등지를 중심으로 목재가 무진장 한데 이번 경춘철도가 개통되자 이 임산을 적극적 개발하여 국책에 대응함이 시급하였으므로 도당국에서는 작년도부터 30년 계획으로 매년 2,000t씩 목재를 산출하며 따라서 펄프지도 경영하기로 하고 춘천에 이 제재 및 제지의 큰 공장을 설치하려고 방금 만반 준비를 급히하는 동시 총독부와 철저히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이 문제는 가장 긴요한 것이요 또 실현이 시급함에 이르러 일반의 기대하는 것 매우 크다 한다.

**松脂化學工場을  
春川에設置運動**  
内地서財閥을誘致

【춘천】 송지화학공장을 춘천에 설치 운동, 일본서 재벌을 유치

【춘천】 송지화학공장을 춘천에 설치 운동, 일본서 재벌을 유치

【춘천】 송지화학공장을 춘천에 설치 운동, 일본서 재벌을 유치

1939-08-15-03-01

###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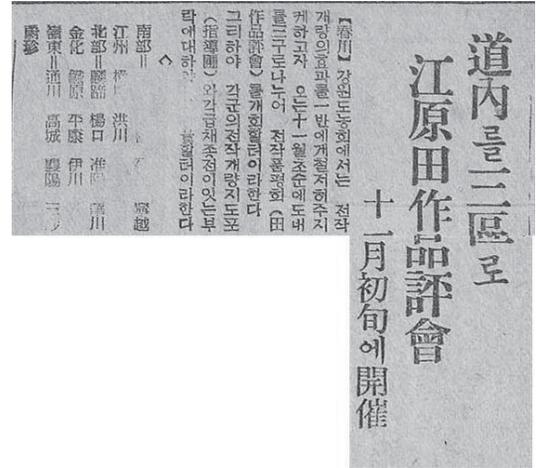
#### 도내를 3구로 강원 발작물 품평회 11월 초순에 개최

【춘천】 강원도 농회에서는 발작물 개량의 효과를 일반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자 오는 11월 초순 도내를 3구로 나누어 발작물 품평회를 개최할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각군의 발작물 개량 지도포와 각급 채종전이 있는 부락에 대해 포상할 것이라 한다.

남부 = 영월 강주 횡성 홍천

북부 = 인제 양구 회양 춘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

영동 = 통천 고성 양양 삼척 울진



1939-08-17-03-09

###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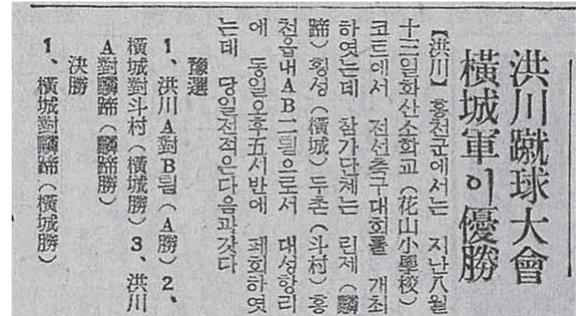
#### 홍천축구대회 횡성군이 우승

【홍천】 홍천군에서는 지난 8월 13일 화산소학교 코트에서 전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단체는 인제, 횡성, 두촌, 홍천 읍내 A, B 2팀으로서 대성황리에 동일 오후5시반에 폐회하였는데 당일 전적은 다음과 같다.

예선

1. 홍천 A 대 B팀(A승) 2. 횡성 대 두촌(횡성 승) 3. 홍천 A 대 인제(인제 승) 결승

1. 횡성 대 인제(횡성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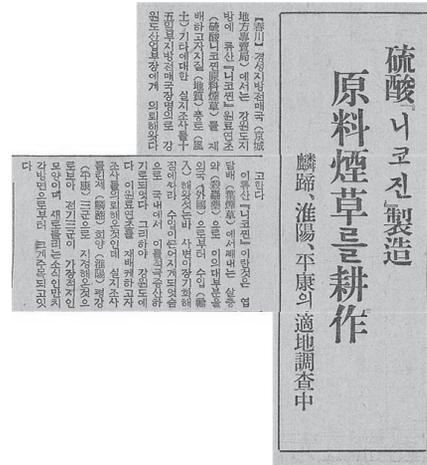


1939-08-19-03-05

### 매일신보

#### 유산 『니코틴』 제조 원료 연초를 경작 인제 회양 평강의 적지 조사 중

【춘천】 서울지방전매국에서는 강원도지방에 유산 『니코틴』 원료 연초를 재배하고자 지질 풍토 기타에 대한 실시조사를 15일자로 지방전매국장 명의로 강원도 산업부장에게 의뢰해 왔다고 한다. 이 유산 『니코틴』이란 것은 엽연초에서 빼내는 살충약으로 이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었는데 중일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입이 끊어지게 되어 국내에서 이를 적극 증산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에도 이 원료 연초를 재배하게 하고자 조사를 의뢰해 온 것인데 실시조사를 인제 회양 평강 3군으로 지정해 온 것으로 보아 가장 적지인 모양이며 새로 들리는 소식인 만큼 각 방면으로 부터 크게 주목되고 있다



1939-08-23-02-07

### 매일신보

#### 강원도 각지의 최고 쌀값 결정 22일부터 실시

【춘천전화】 강원도에서는 전시하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식량인 쌀값을 통제하기로 되어 백미 소매 최고 가격을 검토하여 총독부에 신청 중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승인되어 22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춘천 39원 인제 40원 양구 38원 회양 37원 통천 39원 고성 39원 양양 39원 강릉 38원 삼척 40원 울진 38원 정선 42원 평창 39원 영월 39원 원주 38원 횡성 38원 홍천 38원 화천 40원 김화 39원 철원 39원 평강 39원 이천 37원50전

1939-08-29-04-06

### 매일신보

#### 강원 추잡 소립 5만매를 수 돌과 전년 비해 734매 증

【춘천】 강원도의 올해 추잡 누에떨기는 50,491매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734매 증가인데 이를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2,898매 ▲인제 4,200매 (중략)

1939-09-08-03-01

### 매일신보

#### 각지에 독려대 파견 지하자원을 개발 잠자는 광산 개발과 채광에 박차

【춘천】 전시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도내에 무진장으로 파묻혀있는 지하자원을 적극적으로 파내고자 산업과 광산계원을 총동원시켜 도내의 광산개발을 독려하기로 되었다 이번 독려에는 주로 수면 광산의 개발촉진과 탐광 장려를 하기 위함이라는 데 출장 배경일은 다음과 같다

1939-09-08-03-05

### 매일신보

#### 강원도내를 3구로 퇴비품평회 심사 내11일부터 개시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를 3구로 나누어 퇴비품평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심사를 좌기 일정에 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심사일정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정선, 평창, 영월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인제, 양구, 회양, 화천 김화, 철원, 평강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江原道各地의 最高쌀값決定**  
一十二日부러實施

【春川電】 江原道에서는 전시하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식량인 쌀값을 통제하기로 되어 백미 소매 최고 가격을 검토하여 총독부에 신청 중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승인되어 22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春川 三九圓 襄陽 四二圓 通川 三九圓 江陵 三九圓 襄陽 三九圓 平昌 三九圓 寧越 三九圓 洪川 三九圓 橫城 三九圓 金化 三九圓 鐵原 三九圓 平康 三九圓 伊川 三九圓 口州 三九圓 淮陽 三九圓 通川 三九圓 七園 三九圓

**江原秋蠶掃立**  
比前年七百卅四枚增  
五萬枚를遂突破

【春川】 江原道의 今年秋蠶掃立은 五萬四千九十二枚로 前年同期에 比하여 七百三十四枚增加한데 이 蠶桑部는 比前年 多產하였다

▲春川 三,八九九枚 ▲襄陽 二,〇〇枚 ▲陽川 二,〇〇枚 ▲淮陽 一,四六六枚 ▲鐵原 二,五三三枚 ▲洪川 二,七二六枚 ▲三陟 六,七五七枚 ▲襄陽 一,三九〇枚 ▲襄陽 一,八四四枚 ▲平昌 八,二四四枚 ▲襄陽 一,七〇〇枚 ▲原州 三,〇〇〇枚 ▲橫城 四,一〇〇枚 ▲洪川 三,八〇〇枚 ▲襄陽 二,三〇〇枚 ▲金化 二,一〇八枚 ▲平康 一,一〇〇枚 ▲伊川 二,四九五枚 ▲鐵原 九,二二八枚 ▲口州 二,四九一枚

**各地에督勵隊派遣**  
地下資源을開發

【春川】 各地方에 督勵隊를 派遣하여 地下資源의 開發을 促하여 줄 것을 命하였다

九월 八일 日, 各地方에 督勵隊를 派遣하여 地下資源의 開發을 促하여 줄 것을 命하였다

九월 八일 日, 各地方에 督勵隊를 派遣하여 地下資源의 開發을 促하여 줄 것을 命하였다

**江原道内를三區로 堆肥品評會審査**  
來十一日부러開始

【春川】 江原道에서는 堆肥를 三區로 分하여 堆肥品評會(堆肥品評會)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堆肥品評會(堆肥品評會)를 九월 十一日 부터 開始한다

◇審査日程

九월 十一日 至 九月 十四日 春川, 洪川, 襄陽, 原州, 旌善, 平昌, 寧越  
九월 十一日 至 九月 二十六日 襄陽, 橫城, 平康, 金化  
九월 十一日 至 九月 二十五日 通川, 高城, 襄陽, 江陵, 三陟, 陽川

1939-09-09-03-01

### 매일신보

#### 군수이하 직원들이 일본군황군 위문금 거출 인제군청에서 시범

【춘천】 인제군청에서는 군수 이하 직원 전부가 작년 4월부터 매월 1일의 애국일을 일본군(황군) 위문일로 정하고 각자 응분의 위문금을 거출해 왔는데 요즈음 45원에 달했으므로 당지 연초판매소로부터 위문 연초 4,500그루를 사서 전지로 보냈다 한다. 그리고 당지 경찰서와 금융조합에서도 전기와 같은 방법으로 위문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지도의 입장에 있는 당국자들의 이같은 행동을 알게 된 군민은 모두 감격하고 있다고 한다.

1939-09-15-03-04

### 매일신보

#### 전국청년단 대회에 강원대표 200명 15일 춘천을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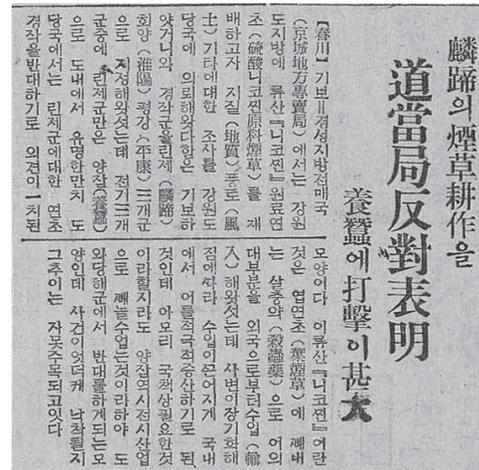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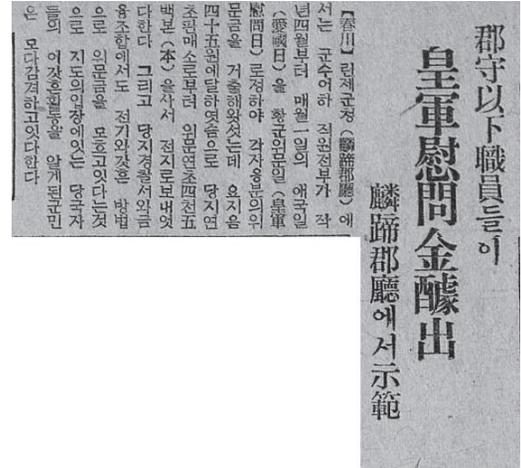
【춘천】 강원도 청년단대회는 도내를 4구로 구분하여 춘천 강릉 원주 철원 4개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춘천을 제외한 3개소에서는 벌써 대회를 마쳤는데 춘천에서는 14, 15 양일간 춘천중학교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인제 5개군의 청년단원대표들이 오는 16-17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대일본 청년단대회와 일본만주중국 청년교환회에 강원도 연합청년단 대표로 윤중재 이하 단원 173명과 임원 61명 합계 234명이 출석하기로 되어 15일에 출발할 것이라 한다.

1939-09-16-03-07

### 매일신보

#### 인제의 연초 경작을 도당국 반대 표명, 양봉에 타격이 심대

【춘천】 기보= 서울전매국에서는 강원도 지방에 유산『니코틴』원료 연초를 재배하고자 지질 풍토 기타에 대한 조사를 강원도 당국에 의뢰해 왔다함은 기 보도하였거니와 경작군을 인제 회양 평강 3개군으로 지정해 왔었는데 전기 3개군 중에 인제군만은 양잠으로 도내에서 유명한 만치 도당국에서는 인제군에 대한 연초 경작을 반대하기로 의견이 일치된 모양이다. 이 유산『니코틴』이란 것은 엽연초에서 빼내는 살충제로서 이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었는데 전쟁이 장기화해짐에 따라 수입이 끊어지게 되어 국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증산하기로 된 것인데 아무리 국책상 필요한 것이라도 양잠 역시 전시산업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도와 인제군에서 반대를 하게 되는 모양인데 사건이 어떻게 낙찰될지 그 추이는 자못 주목되고 있다



1939-09-16-03-07

### 매일신보

## 강원서 원피 중매인 매수구역을 지정 실직자 구제책으로

【춘천】 강원도에서는 군수물자로 중용되고있는 피혁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7개군에 원피가공되지 않은 동물 가죽 중매인을 지정 배치한 후 생산되는 원피를 취급케 해왔었는데 이 바람에 종래부터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취급해오던 다수한 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되었으므로 도당국에서는 그들을 구제하자는 의미에서 지정한 중매인 밑에 종래 거래해오던 업자를 종업원으로 쓰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지정중매인들은 그들 실직자를 종업원으로 쓰지를 않게되어 구제상 지장이 적지않으므로 이번 도당국에서는 종래의 거래경로 등을 참작하여 중매인의 매수구역을 지정한 후 중매인들은 각자의 구역안에 있는 종래의 거래업자를 한 사람도 빼지않고 종업원으로 쓰도록 하여 원피 매출에 종사케 하도록 하라고 엄중지시를 하였다.

### ◇원피중매인의 매수구역

지정군	중매인	구역
춘천	정봉록	춘천, 양구
홍천	이성신	홍천, 인제, 원주, 횡성

(중략)

1939-09-22-03-03

### 매일신보

## 한해 대책 협의코자 각군 지주간담회, 3정보 이상 소유자 300명 소집

【춘천】 가뭃피해 대책과 농사 개량의 완벽을 기하자면 무엇보다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지에서 도내를 3구로 나누어 원주 강릉 철원 3개군에서 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 간담회에는 대소지주 전부를 망라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280명을 출석케 하리라는데 개최 일정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원주=9월25일 연무장에서  
구역=원주, 횡성, 홍천, 평창, 영월, 인제 6개군
- ◇강릉=9월29일 읍사무소에서  
구역=강릉, 통천, 고성, 양양, 삼척, 울진, 정선 7개군
- ◇철원=9월30일 남소학교에서  
구역=철원, 회양, 양구, 화천, 김화, 평강, 이천, 춘천 8개군

### 江原서原皮仲買人 買收區域을指定 失職者救濟策으로

【春川】 강원도에서는 군수물자로 중용되고있는 피혁(皮革)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7개군에 원피가공되지 않은 동물 가죽 중매인(原皮仲買人)을 지정 배치한 후 생산되는 원피를 취급케 해왔었는데 이 바람에 종래부터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취급해오던 다수한 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되었으므로 도당국에서는 그들을 구제하자는 의미에서 지정한 중매인 밑에 종래 거래해오던 업자를 종업원으로 쓰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지정중매인들은 그들 실직자를 종업원으로 쓰지를 않게되어 구제상 지장이 적지않으므로 이번 도당국에서는 종래의 거래경로 등을 참작하여 중매인의 매수구역을 지정한 후 중매인들은 각자의 구역안에 있는 종래의 거래업자를 한 사람도 빼지않고 종업원으로 쓰도록 하여 원피 매출에 종사케 하도록 하라고 엄중지시를 하였다.

◇原皮仲買人の買收區域

指定郡	仲買人	區
春川	鄭奉祿	春川、楊口
洪川	李成辰	洪川、鷹城
江陵	金興伊	江陵、通川、高城
平昌	金鍾瓚	平昌、通川、高城
金化	張奉植	金化、通川、高城
平康	姜泰善	伊原、平康

### 旱害對策協議코자 各郡地主懇談會 卅町步以上所有者三百名招集

【春川】 한해대책(旱害對策)과 농사개량(農事改良)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도내를 3구로 나누어 원주 강릉 철원 3개군에서 지주 간담회(地主懇談會)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 간담회에는 대소지주 전부를 망라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280명을 출석케 하리라는데 개최 일정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주=9월25일 연무장에서  
구역=원주, 횡성, 홍천, 평창, 영월, 인제 6개군

◇강릉=9월29일 읍사무소에서  
구역=강릉, 통천, 고성, 양양, 삼척, 울진, 정선 7개군

◇철원=9월30일 남소학교에서  
구역=철원, 회양, 양구, 화천, 김화, 평강, 이천, 춘천 8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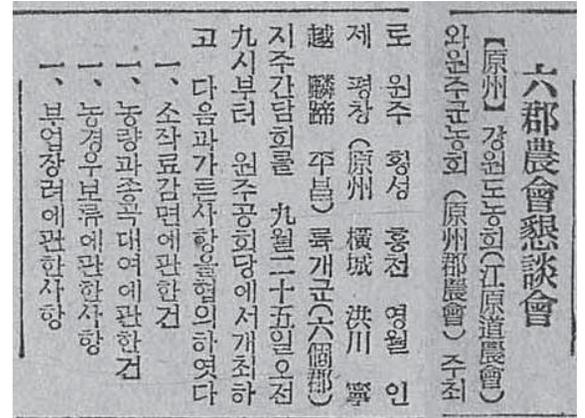
1939-10-01-03-02

## 매일신보

### 6군 농회 간담회

【원주】 강원도농회와 원주군농회 주최로 원주 황성 흥천 영월 인제 평창 6개군 지주간담회를 9월 25일 오전9시부터 원주공회당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였다.

- 1. 소작료 감면에 관한 건
- 1. 농량과 종곡 대여에 관한 건
- 1. 농경우 보류에 관한 사항
- 1. 부업 장려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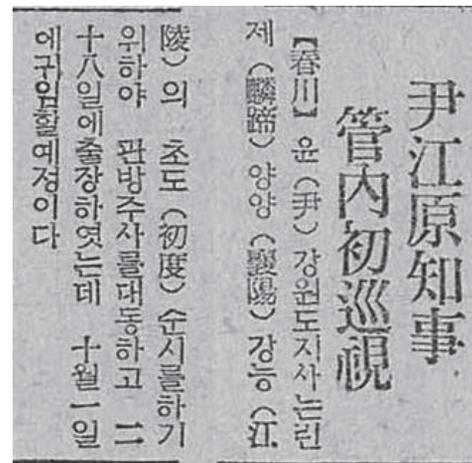


1939-10-01-03-03

## 매일신보

### 윤 강원지사 관내 초순시

【춘천】 윤 강원도 지사는 인제 양양 강릉의 초도순시를 하기 위하여 관방주사를 대동하고 28일에 출장하였는데 10월 1일에 귀임할 예정이다.



1939-10-04-03-01

## 매일신보

### 냉장고의 대용으로 도내『風穴』을 조사 강원에서 28처 발견

【춘천】 강원도에서는 내지에서 낙엽송 종자의 결실이 좋지 못하여 금년 가을에는 낙엽송 씨를 대량으로 채취하고자 채취시기와 방법을 각 군에 지시하기로 되었는데 이 낙엽송 종자는 풍혈의 차가 격심하여 어떤 해에는 도무지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치 비황저곡과 같이 잘된 해에 많이 채취하여 잉여량을 저장 보류하였다가 다음에 쓰도록 하고자 종자를 보관할 풍혈을 조사하기로 되었다. 풍혈이란 것은 천연적으로 된 동굴로서 수림이 가득한 곳에 흔히 있는 것인바 여름철에는 겨울만치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특색인데 잠종의 부화와 종자의 발아를 억제하기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풍혈의 소재를 조사하여 냉장고 대용으로 쓰고자 각 군에 조회한 결과 좌기 14개군에 28개나 있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풍혈로서의 적부를 도에서 다시 조사한 후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으로 각 방면으로부터 흥미를 끌고 있다 한다.

- ◇ 풍혈 소재지 \*인제군 발취
- 인제군 남면 두무리 하두무동
- 계 14개군 28개소



1939-10-06-03-08

### 매일신보

#### 각 학교 운동회

【홍천】 지난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인제군 관대소학교에서는 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활발한 모양은 충후의 국민된 의기를 여실히 나타내고 동일 오후 6시경 폐회하였다

1939-10-07-03-06

### 매일신보

#### 은막에 재현될 설악의 승광 강원도 영화반 출동

【춘천】 인제와 양양 군경에 있는 설악산은 연봉계곡과 기암절벽이 중첩하여 천하무비의 위관을 이루고 있으며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만산을 붉게 물들여 그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은 금강산보다 나면 나지 못하지는 않을 만큼 입과 붓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인제 양양군에서는 이 명승을 널리 천하에 소개하고자 당국의 응원을 얻어가지고 명승과 고적의 구석구석을 끌고루 영화로 촬영하리라 한다. 그리하여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예정으로 도사회와 영화반이 출동하여 16mm영화를 촬영하리는데 이같이 유명한 설악산에는 경계만 절승할 뿐 아니라 유서와 역사가 깊은 백담사 신흥사 등의 고찰과 대소암이 있어 더욱 유명하고 표고 1,300m나 되는 정상인 청봉에 오르면 멀리 동방을 부감할 수 있어서 망망한 동해가 눈앞에 전개되는 등 천하의 절승임을 탄식케 된다 한다. 또한 양양관내에는 오색온천과 오색약수가 있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전설로 유명한 오색목이 있다 느니 만치 이번의 영화 촬영이 끝나게 되면 천하 무류의 명승이 은막을 통하여 널리 소개될 것이므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청봉의 위관)

- ◇ 촬영예정지 ▲대승폭포 ▲완곡 ▲백담사 ▲수렴동 수렴폭포 ▲쌍폭포 ▲봉정암 ▲청봉 ▲가야동 완곡 ▲오세암 ▲마동령 ▲금강문 ▲해안원경 ▲비선대 ▲신흥봉 ▲계조암 ▲기타 명승 전부

1939-10-13-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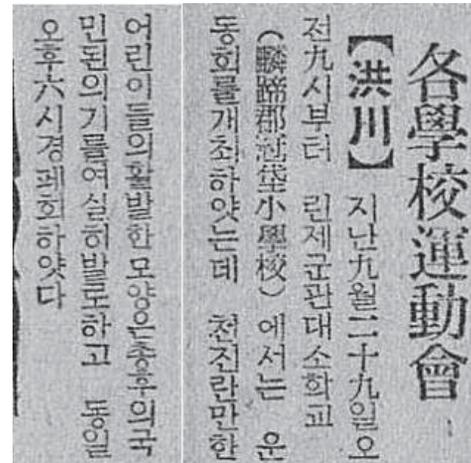
### 매일신보

#### 강원도 정조 백미 최고가격 결정 거10일부터 수 실시

【춘천】 강원도에서는 국민의 주요식량인 미곡의 가격을 통제하여 국민생활이 안정을 꾀하고자 총독부 방침에 순응해서 도내 각군의 벼와 쌀의 최고거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지난10일부터 드디어 실시하기로 되었다. 이와 동시에 최고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매석 매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단호한 단속을 하게 되리라 하며 일반도 국책에 의하여 단행하게 되는 당국의 방침을 이해하여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는 때는 기탄할 것 없이 당국에 알리도록 하여 전시장에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벼 및 백미 최고취인가격

군명	벼최고취인가격	백미최고취인가격
	1근당	1석당
춘천	9.66	36.95
인제	8.70	36.11 (중략)



1939-10-20-03-02

### 매일신보

#### 각지 석전제

【인제】 인제군문묘에서는 추계 석전대제를 지난 15일 오전11시부터 거행하였는데 일반의 다수 참여자가 있었다.

1939-10-20-03-09

### 매일신보

#### 인제 각청년단 연합대회 성황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 15일 오전10시부터 인제남소학교 운동장에서 인제군 각면 청년단 연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동의 입장식이 끝나자 각면 청년단원의 개별적 분열식이 있었고 뒤이어 육상경기에 들어가 100여단원의 백열전이 전개되어 정오에 육상경기를 막을 단쳤는데 당일 전적은 다음과 같으며 오후에는 실내대회를 개최하고 도사회과로부터 임석관의 훈시와 각단원의 의견진술이 있는 다음 대성황리에 오후5시에 폐회하였다.

1등 내면청년단 2등 인제면청년단 3등 남면청년단

1939-10-31-04-07

### 매일신보

#### 서울세무감독국 관하의 납세공로자 표창, 내월 3일 명치가절에

서울세무감독국에서는 항례에 의한 납세 공로자를 표창코자 일찍부터 읍면장, 구장, 농산어촌진흥회 및 납세단체의 간부 등으로서 평상시부터 징세의 제일선에서 납세 성적의 향상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를 조사 중인데 명치절의 가진을 복하여 관하 각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표창장 및 상품의 전달식을 거행케 하기로 되었다.

\*인제군 발취

◇구장 및 기타의 부

▲인제군 인제면 하추리구장 박용수

1939-11-07-04-13

### 매일신보

#### 법인등기공고

어두식산계(설립) 명칭 어두식산계 사무소 인제군 북면 원동리 130번지 목적 생산품의 판매, 필수품의 구매, 공동시설산업의 지도, 공제사업지구 인제군 북면 원동리 어두동 속하는 금융조합 설립연월 일 1939년 10월 9일 주사 인제군 북면 원동리 130번지 고기홍 부주사 원동리 84번지 이문익

고원통신산계(설립) 명칭 고원통식산계 사무소 인제군 북면 한계리 1163번지 목적 생산품의 판매, 필수품의 구매, 공동시설산업의 지도, 공제사업지구 인제군 북면 한계리 고원통동 및 관반 속하는 금융조합 설립연월 일 1939년 10월 9일 주사 인제군 북면 한계리 163번지 이용인, 부주사 북면 1429번지 박광수

1939년 10월 19일 등기 서울지방법원 인제출장소

### 各地釋奠祭

【江華】 장화교동(橋橋) 양문묘에서는 지난十五日 정오를 기하여 추계석전제를 거행하였다.

【鐵原】 천원관학교(鐵原館學校)에서는 지난十五日 오후 1시부터 동문묘에서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麟蹄】 인제문묘에서는 추계석전제(秋祭)를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거행하였다.

【高陽】 고양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南陽】 남양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寧越】 영월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原州】 원주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春川】 춘천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襄陽】 양양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平昌】 평창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安東】 안동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醴泉】醴泉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南浦】 남浦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西浦】 서浦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南原】 남原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金剛山】 금강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妙香山】 묘香山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天鼓山】 천鼓山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金剛山】 금강산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妙香山】 묘香山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天鼓山】 천鼓山에서는 문묘(文廟)에서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추계석전제(秋祭)를 거행하였다.

### 麟蹄各青年團 聯合大會盛況

【麟蹄】 인제군에서는 지난十五日 오전 10시부터 인제남소학교(麟蹄南小學校) 운동장에서 인제군 각면 청년단 연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동의 입장식이 끝나자 각면 청년단원의 개별적 분열식이 있었고 뒤이어 육상경기에 들어가 100여단원의 백열전이 전개되어 정오에 육상경기를 막을 단쳤는데 당일 전적은 다음과 같으며 오후에는 실내대회를 개최하고 도사회과로부터 임석관의 훈시와 각단원의 의견진술이 있는 다음 대성황리에 오후 5시에 폐회하였다.

1등 내면청년단 2등 인제면청년단 3등 남면청년단

### 京城稅監局管下의 納稅功勞者表彰

來月三日明治佳節에

京城稅監局에서는 항례에 의한 납세 공로자를 표창코자 일찍부터 읍면장, 구장, 농산어촌진흥회 및 납세단체의 간부 등으로서 평상시부터 징세의 제일선에서 납세 성적의 향상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를 조사 중인데 명치절의 가진을 복하여 관하 각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표창장 및 상품의 전달식을 거행케 하기로 되었다.

\*인제군 발취

◇구장 및 기타의 부

▲인제군 인제면 하추리구장 박용수

### 法人登記公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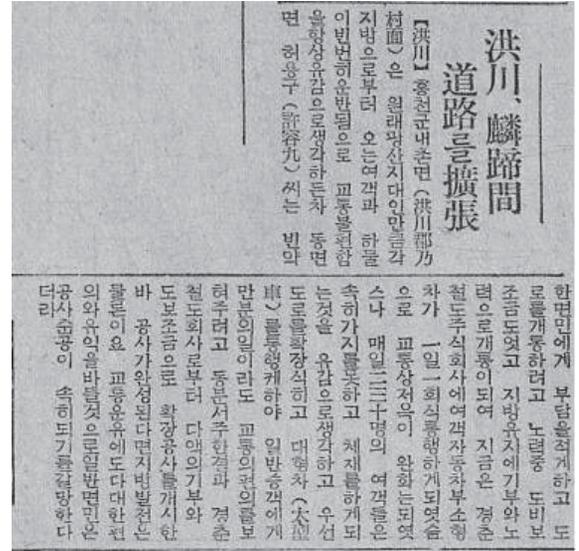
魚頭(魚頭) 廣興(廣興) 設立(設立) 名稱(名稱) 魚頭廣興(魚頭廣興) 事務所(事務所) 麟蹄郡(麟蹄郡) 北元通里(北元通里) 130番地(130番地) 目的(目的) 生産品(生産品) 販賣(販賣) 必(必) 需(需) 品(品) 購買(購買) 共同(共同) 施設(施設) 事業(事業) 地(地) 區(區) 麟蹄郡(麟蹄郡) 北元通里(北元通里) 魚頭廣興(魚頭廣興) 聯合(聯合) 設立(設立) 年月日(年月日) 昭和(昭和) 四年(四年) 十月(十月) 九日(九日) 主事(主事) 李(李) 龍(龍) 仁(仁) 副(副) 李(李) 龍(龍) 光(光) 右(右) 昭(昭) 和(和) 四(四) 年(年) 十(十) 月(月) 九(九) 日(日) 登(登) 記(記) 所(所) 京(京) 城(城) 地(地) 區(區) 麟蹄郡(麟蹄郡) 北元通里(北元通里) 廣興(廣興) 事務所(事務所) 李(李) 龍(龍) 仁(仁) 副(副) 李(李) 龍(龍) 光(光)

1939-11-12-03-03

### 매일신보

#### 홍천, 인제간 도로를 확장

【홍천】 홍천군 내촌면은 원래 광산지대만큼 각 지방으로부터 오는 여객과 하물이 빈번히 운반되므로 교통 불편함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차 동면 허용구씨는 빈약한 면민에게 부담을 적게하고 도로를 개통하려고 노력 중 도비 보조금도 얻고 지방유지에 기부와 노력으로 개통이 되어 지금은 경춘철도주식회사에 여객자동차부 소형차가 1일 1회씩 통행하게 되었으므로 교통상 적이 완화는 되었으나 매일 20, 30명의 여객들은 속히 가지를 못하고 체재를 하게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선 도로를 확장시키고 대형차를 통행케 하여 일반 승객에게 만분의 일이라도 교통의 편의를 보여주려고 동분서주한 결과 경춘철도회사로부터 다액의 기부와 도 보조금으로 확장공사를 개시하여 공사가 완성된다면 지방발전은 물론이요 교통운유에도 다대한 편의와 유익을 받을 것으로 일반 면민은 공사 준공이 속히 되기를 갈망한다더라.



1939-11-17-02-01

### 동아일보

#### 춘천에서 인제, 양양 연결 중 조선횡단선 계획 철도국에서 심의 개시

조선 동해안의 약진에 대응하여 서울 춘천간(94km)의 경춘철도를 다시 강원도의 오지에 48km를 연장, 강원도 배양산맥을 관통하여 동부해안선에 연결시켜 인천, 서울, 춘천, 인제, 양양을 연락하는 중부조선의 일대 횡단부설 계획이 동사의 손으로 착착 진행중이다. 이 선이 실현되면 경인공업지대와 삼척공업지대를 맺는 최단거리로 되어 산업국책상 매우 중요성을 가지는데 동 구간은 산악중첩하여 상당한 난공사를 예상한다. 이리하여 철도국으로서도 중부 횡단선의 완성에는 중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춘철도측의 요망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근근 구체적 절충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의 착수는 오직 시기문제로 되어있다.



1939-11-24-03-01

매일신보

강원의 축우 증식 27만두를 목표로 1기 10개년 계획 수립

【춘천】 강원도에서는 총독부의 축우 증산 방침에 순응하여 20개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강원도의 사우 현상을 보면 현재 사우호수 13만7,000호(총농가호수의 60%)에 사우두수가 19만마리로 경지 100정보에 대하여 40마리에 불과하는 상태인데 이번에 수립된 계획을 보면 증식수를 28만마리에 달케할 가능성이 충분하나 그러나 우선 제1기 10개년 계획(1937년부터 1947년까지)을 수립한 후 현재의 19만마리에서 8만마리를 증식하여 1947년까지에 27만마리에 달케할 계획이라 한다. 이제 각군별 증식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기준(두)	기준수대 증가수(두)	1947년말 현재(두)
춘천	9,623	4,074	23,697
인제	5,191	2,502	7,696
양구	7,507	3,190	10,697
회양	13,305	9,389	22,694
통천	5,492	1,705	7,197
고성	5,191	2,502	7,696
양양	6,796	2,401	9,197
강릉	9,838	1,859	2,697
삼척	13,139	2,558	15,597
울진	8,132	1,063	9,196
정선	7,297	3,401	10,698
평창	13,229	3,967	17,196
영월	6,977	2,720	9,697
원주	8,126	3,572	11,698
횡성	10,693	3,004	13,697
홍천	12,209	2,488	14,697
화천	10,734	5,963	6,699
김화	5,191	2,502	16,697
철원	7,414	7,281	14,697
평강	8,449	7,247	15,696
이천	10,332	8,365	18,696
계	10,332	83,476	273,631

(기준수는 1937년 말의 축우수로 한다)

1939-11-28-04-01

매일신보

급속 증산을 기도하고 강원 목탄가 인상 25일부터 실시

【춘천】 최근 목탄의 수요가 현저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제탄비용과 운반비 등이 고등하여 증산계획에 지장이 있을뿐더러 목탄을 한참 써야할 요즈음에 점점 공급이 부족될 염려가 있는 실정므로 강원도에서는 할 수없이 지난25일 날짜로 다음과 같이 목탄가격을 개정 인상하여 당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이로써 목탄의 증산이 원활해질 것은 물론 시장 출회가 왕성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정지군읍면명 절찬판매가격(원) 최종지입판매가격(원)

춘천	1.75	1.90
인제	1.35	1.45

(중략)

## 江原의 畜牛 増殖

### 二十七萬頭를 目標로 一期十個年計畫樹立

【春川】 강원도에서는 총독부의 축우 증산 방침에 순응하여 20개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강원도의 사우 현상을 보면 현재 사우호수 13만7,000호(총농가호수의 60%)에 사우두수가 19만마리로 경지 100정보에 대하여 40마리에 불과하는 상태인데 이번에 수립된 계획을 보면 증식수를 28만마리에 달케할 가능성이 충분하나 그러나 우선 제1기 10개년 계획(1937년부터 1947년까지)을 수립한 후 현재의 19만마리에서 8만마리를 증식하여 1947년까지에 27만마리에 달케할 계획이라 한다. 이제 각군별 증식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기준(두)	기준수대 증가수(두)	1947년말 현재(두)
춘천	9,623	4,074	23,697
인제	5,191	2,502	7,696
양구	7,507	3,190	10,697
회양	13,305	9,389	22,694
통천	5,492	1,705	7,197
고성	5,191	2,502	7,696
양양	6,796	2,401	9,197
강릉	9,838	1,859	2,697
삼척	13,139	2,558	15,597
울진	8,132	1,063	9,196
정선	7,297	3,401	10,698
평창	13,229	3,967	17,196
영월	6,977	2,720	9,697
원주	8,126	3,572	11,698
횡성	10,693	3,004	13,697
홍천	12,209	2,488	14,697
화천	10,734	5,963	6,699
김화	5,191	2,502	16,697
철원	7,414	7,281	14,697
평강	8,449	7,247	15,696
이천	10,332	8,365	18,696
계	10,332	83,476	273,631

### 急遽増産을企圖코 江原木炭價引上

#### 二十五일부터實施

【春川】 최근 목탄의 수요가 현저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제탄비용과 운반비 등이 고등하여 증산계획에 지장이 있을뿐더러 목탄을 한참 써야할 요즈음에 점점 공급이 부족될 염려가 있는 실정므로 강원도에서는 할 수없이 지난25일 날짜로 다음과 같이 목탄가격을 개정 인상하여 당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이로써 목탄의 증산이 원활해질 것은 물론 시장 출회가 왕성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	절찬판매가격(원)	최종지입판매가격(원)
춘천	1.75	1.90
인제	1.35	1.45

1939-12-03-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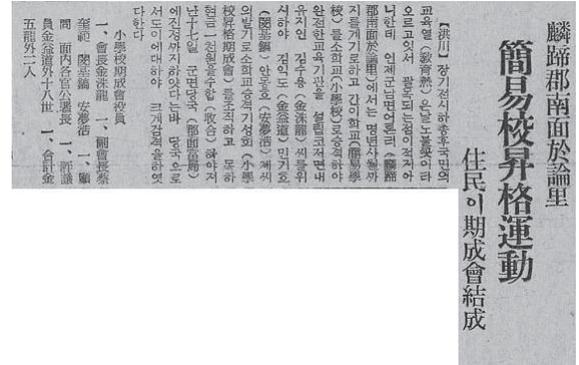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인제군 남면 어른리 간이교 승격운동 주민이 기성회 결성

【홍천】 장기 전시하 총후국민의 교육열은 날로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팔목되는 점이 적지 않은데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서는 내년 4월까지를 계기로 하고 간이학교를 소학교로 승격하여 완전한 교육기관을 설립코자 면내 유지인 김익도, 민기호, 안몽호 여러명의 발기로 소학교승격기성회를 조직하고 방금 현금 1,000원을 수합하여 지난 17일 군면 당국에 진정까지 하였다는데 당국으로서도 이에 대하여 크게 감격을 하였다 한다.

소학교기성회 임원

- 1. 회장 김수룡 1. 부회장 채규범 민기호 안몽호 1. 고문 면내 각관공서장 1. 평의원 김익도 외 18인 1. 합계 김오룡 외 2인



1939-12-04-04-02

### 매일신보

## 저축 목표 100만원 추가 각군 할당액 결정 강원도에서 목적달성에 매진

【춘천】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저축 순증가책임액 800만원을 목표로 국민저축을 적극 장려해오고있는 중인데 이번에 총독부로부터 100만원을 추가 할당해오게 되었으므로 결국 연도안으로 900만원이란 저축을 해놓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다. 이같이 100만원을 추가 할당해오게 된 원인은 금년 여름의 한해로 인하여 남선 지방의 저축 장려운동에 영향이 미치게되어 당초의 할당한 목표액을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사정이라 하여 그곳에서 감액한 일부분을 떠맡아 오게된 것이라는데 강원도에도 일부 지방에 한해가 심하였던 만큼 여러 가지로 지방의 실정을 참작하여 무기가 없도록 각군에 적당히 할당하기로 되어 2일자로 각군에 통첩을 보내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100만원 저축은 주로 도시나 회사, 공장, 광산 같은 은진산업과 어업 방면에 대하여 실시할 것이나 도내의 실정으로 보아 특히 수입이 증가될만한 은진산업의 불만한 것이 없을 분 아니라 어업도 금년은 시원치 않은 모양이어서 결국은 관민 일치노력에 의하여 목표를 수행해나가기로 되었으며 원주민은 도내에서도 가장 한해가 심했으므로 이번의 추가할당에는 특히 빼놓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각군의 할당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저축증가 할당액(단위 천원)

군별	당초할당액	증가액	합계
춘천	518	50	568
인제	153	17	190

(중략)



1939-12-06-03-06

### 매일신보

#### 가혹한 지주

【홍천】 한재를 극복하며 근근히 살려고 애쓰는 농촌의 이재민들 현상을 볼 때 누구나 따뜻한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인데 도리어 너무 가혹한 처치를 하는 악덕지주가 있다. 인제군 읍내에있는 모 지주는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있는 논 일부는 한재로 인하여 예년에 정조 6석씩으로 나오던 것이 금년에는 전수확이 8두 밖에 없었다 하는데 이렇다하면 소작인의 종자대와 풀값도 잘 안될 것이니 그대로 전부 소작인을 준대야 소작인으로서도 별로 이익도 없을 것인데 그를 반분하여 4두씩 나누었다는 것이다. 소위 지주라는 사람이면 소작인이 그 형편에 당하였다면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너무나 가혹한 처치라고 일반의 여론이 비등하여있다고 한다.

1939-12-12-03-07

### 매일신보

#### 인제군 내면 간이교 유지재단을 조성, 유지 4씨 노력 다대

【홍천】 어느 곳을 물론하고 교육열이 날로 고조되어감은 참으로 기쁜 현상이라 하겠다. 인제군 내면 미산리는 본래 산간벽촌으로 교통이 불편한 까닭에 학령아동은 모두 어느 학교에나 통학할 수가 없어 문맹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지방에 은인이라 할까 교육의 서광이 뻗치게 되었던 그는 전 내면 면장(현 미산간이학교 유지계 감사) 신성섭씨로서 학교 설립에 대하여 주야 활동한 결과 지난 8월 중에 간이학교의 인가를 얻게되어 즉시 개교케 되었는데 신성섭씨는 다대한 금품과 실습지 300여평을 자진기부하였으며 현재 용지계장 고우근씨, 부계장 장동규씨, 구장 신병운씨 등도 사사의 희생을 불고하고 다대한 금품을 출납기부하는 외에 헌신적 활동을 함에 감격되었음인지 화전민내 170여호에서 토지 구입 신설기금 1,500여원을 모았으며 인근 동리인 상남리에서도 특별기부까지 있어 이학교 유지기초가 굳게 되어감은 전혀 이상 여러명의 열사봉공의 활동의 덕이라 하여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1939-12-13-03-05

### 매일신보

#### 인제군하 광원리에서 호세의 철광 발견 강원도 기사가 실츄

【인제】 인제군 내면 광원리 지대에는 철광맥이 풍부히 있으나 이것을 시굴하는 사람조차 없어 매장된 채 있었는데 인제군수 김주혁씨 부임 이래 국책상 가장 중요한 철광 발견을 관하 전반에 선전한 결과 광원리 일대 5방리에 걸쳐 우수한 철광맥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강원도청 대관 기사 일행은 지난 11월 10일 현자에 출장 감정한 결과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매장량이 1억이상 이라며 군내 일반은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다.

**苛酷한地主**

【洪川】 縣內 南面 富平里 有 某 地主 一 人 其 田 畝 僅 有 數 畝 而 其 田 畝 之 產 額 則 有 數 萬 兩 矣 其 故 何 也 蓋 該 地主 之 田 畝 係 屬 旱 田 且 其 田 畝 之 質 亦 極 劣 故 其 田 畝 之 產 額 本 應 不 過 數 千 兩 矣 然 該 地主 則 以 其 田 畝 之 產 額 而 徵 稅 則 有 數 萬 兩 矣 其 故 何 也 蓋 該 地主 之 田 畝 係 屬 旱 田 且 其 田 畝 之 質 亦 極 劣 故 其 田 畝 之 產 額 本 應 不 過 數 千 兩 矣 然 該 地主 則 以 其 田 畝 之 產 額 而 徵 稅 則 有 數 萬 兩 矣

**麟蹄郡內面簡易校 維持財團을造成**

**有志四氏努力多大**

【洪川】 어느 곳을 물론하고 교육열이 날로 고조되어감은 참으로 기쁜 현상이라 하겠다. 인제군 내면 미산리는 본래 산간벽촌으로 교통이 불편한 까닭에 학령아동은 모두 어느 학교에나 통학할 수가 없어 문맹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지방에 은인이라 할까 교육의 서광이 뻗치게 되었던 그는 전 내면 면장(현 미산간이학교 유지계 감사) 신성섭씨로서 학교 설립에 대하여 주야 활동한 결과 지난 8월 중에 간이학교의 인가를 얻게되어 즉시 개교케 되었는데 신성섭씨는 다대한 금품과 실습지 300여평을 자진기부하였으며 현재 용지계장 고우근씨, 부계장 장동규씨, 구장 신병운씨 등도 사사의 희생을 불고하고 다대한 금품을 출납기부하는 외에 헌신적 활동을 함에 감격되었음인지 화전민내 170여호에서 토지 구입 신설기금 1,500여원을 모았으며 인근 동리인 상남리에서도 특별기부까지 있어 이학교 유지기초가 굳게 되어감은 전혀 이상 여러명의 열사봉공의 활동의 덕이라 하여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麟蹄郡下廣院里에서 豪勢의 鐵鑛發見**

**江原道技師가實測**

【襄陽】 인제군내면광원리(麟蹄郡內面廣院里) 지대에는 철광맥이 풍부히 있으나 이것을 시굴하는 사람조차 없어 매장된 채 있었는데 인제군수 김주혁씨 부임 이래 국책상 가장 중요한 철광 발견을 관하 전반에 선전한 결과 광원리 일대 5방리에 걸쳐 우수한 철광맥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강원도청 대관 기사 일행은 지난 11월 10일 현자에 출장 감정한 결과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매장량이 1억이상 이라며 군내 일반은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다.

1939-12-14-03-03

### 매일신보

## 전시하 중요자원으로 강원산 “송지”등장 각부락에 간이공장을 설치

물건이면 무엇이든지 살려쓰고 아껴쓰자는 소리는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새로운 말같이 들리고있는 소리다. 어찌서 평시에도 이같은 습관을 길러오지 못했는가 하고 민망스러울만치 귀가 아프게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종래에도 생산해오던 눈에 익고 귀에 젖은 물건까지도 마치 새로운 발견이나 한것처럼 전시 혹은 군수 물자라 하여 귀여움을 받지않는 것이 없지만 중일전쟁 전만해도 업신여기고 천대하여 도리어 귀치않게 굴어오던 물건이 그야말로 일약 전시자원으로 등장하게되어 금쪽같이 귀중하게 알려지고 있는 물건도 한두가지가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것이라 하겠다. 그 중에 송지=흔히 송진이라고 부른다=가 그러한 것으로 종래에 오던것이 오늘에 와서는 쏘시개로써 귀중한 물건을 이 송지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되어 중용되고 있는 만치 전시의 물결을 타고 알려진 산업을 소개하려면 이 송지를 푸대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강원도는 산국인만치 도처에 적송이 울밀하여 송지를 얼마든지 채취해 낼수있는데 전시 산업으로 송지가 한몫을 보게끔되어 연산 100t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 증산을 기도하기로 되었으며 도당국에서는 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춘천 인제 울진 삼척 강릉 양양 횡성 등 7개군에 13개소의 조송지 제조공장을 설치케하는 일방 (중략)

1939-12-15-03-03

### 매일신보

## 어른간이교생 재해지에 동정

【인제】 인제군 남면 어른간이학교에서는 지난 8일 매일신보 홍천지국을 통하여 출정장병의 위문금과 남조선 지방 한해구제금으로 보내달라고 기탁하여왔는데 이것은 나이 어린 아이들의 애국열에서 솟아나온 것으로서 금년 여름부터 풀을 베어 벼이삭을 주우며 밭에서 콩알을 줍는 등 이것을 판 것이라 한다. 그중 출정 장병에게 4원을 한해지 이재민에게 4원 31전을 보내달라는 것인데 이 소문을 들은 인근에서는 모두 크게 감격되어 각각 위문금과 의연금을 거출케 되었으므로 일반에 귀감이 되었다고 사회의 칭송이 자자하다.

1939-12-16-03-08

### 매일신보

## 인제군 남면에서 구제 사업 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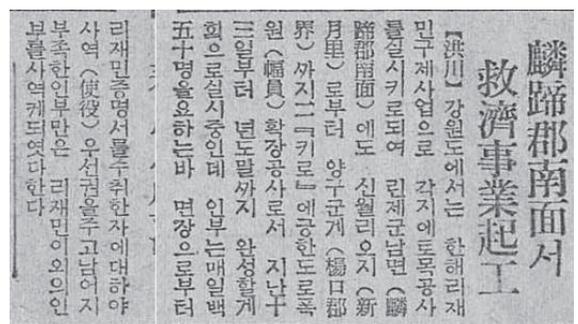
【홍천】 강원도에서는 한해 이재민 구제사업으로 각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키로 되어 인제군 남면에도 신월리 오지로부터 양구군계까지 2km에 걸쳐도록 폭원 확장공사로써 지난 13일부터 연도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실시중인데 인부는 매일 150명을 요하는데 면장으로부터 이재민증명서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 사역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부족할 인부만은 이재민 이외의 인부를 사역케되었다 한다.



### 於論簡易校生 旱害地에同情

【洪川】 인제군 남면 어른간이학교 (麟蹄郡南面於論簡易學校) 에서는 지난 8일 일본보홍천지국을 통하여 출정장병의 위문금과 남조선 지방 한해구제금으로 보내달라고 기탁하였는데 이것은 나이 어린 아이들의 애국열에서 솟아나온 것으로서 금년 여름부터 풀을 베어 벼이삭을 주우며 밭에서 콩알을 줍는 등 이것을 판 것이라 한다. 그중 출정 장병에게 4원을 한해지 이재민에게 4원 31전을 보내달라는 것인데 이 소문을 들은 인근에서는 모두 크게 감격되어 각각 위문금과 의연금을 거출케 되었으므로 일반에 귀감이 되었다고 사회의 칭송이 자자하다.

배이삭을 주우며 밭에서 콩알을 줍는 등 이것을 판 것이라 한다. 그중 출정장병에게 4원을 한해지 이재민에게 4원 31전을 보내달라는 것인데 이 소문을 들은 인근에서는 모두 크게 감격되어 각각 위문금과 의연금을 거출케 되었으므로 일반에 귀감이 되었다고 사회의 칭송이 자자하다.



1939-12-22-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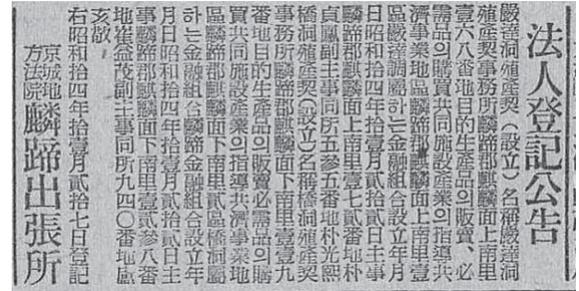
### 매일신보

#### 법인등기공고

업달동식산계(설립) 명칭 업달동식산계 사무소 인제군 인제면 상남리 168번지 목적 생산품의 판매, 필수품의 구매, 공동시설산업의 지도, 공제사업지구 인제군 인제면 상남리 1구 업달동 속하는 금융조합 설립연월일 1939년 11월 22일 주사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172번지 박정봉, 부주사 인제면 상동리 535번지 박광희

교동식산계(설립) 명칭 교동식산계 사무소 인제군 인제면 하남리 119번지 목적 생산품의 판매, 필수품의 구매, 공동시설산업의 지도, 공제사업지구 인제군 인제면 하남리 2구 교동 속하는 금융조합 인제금융조합 설립연월일 1939년 11월 22일 주사 인제군 인제면 하남리 1238번지 최익무, 부주사 인제면 하남리 940번지 노해경

1939년 11월 27일 등기  
서울지방법원 인제출장소



1939-12-23-03-04

### 매일신보

#### 축접후 가정불화로 자가 방화한 우부 인제서 취조후 송국

【인제】 일에 처와 첩 사이의 불화는 모두가 본처의 조화로 그리되는 것이라고 본처의 집에 불을 쬐놓은 어리석은 사나이가 있다.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770번지 김윤신(41)은 아내되는 심경열이와 의종계 살아오던 중 얼마 전에 김재현이란 여자를 첩으로 얻어들게 되자 그 후부터 본처와 첩 사이에 항상 불화가 떠날 사이가 없었는데 이는 전혀 본처의 잘못으로 그리되는 것이라고 지난 8월 11일에 본처의 집에 불을 쬐놓아 한 채를 전부 태워버렸다. 그런 것을 최근에 와서야 인제경찰서에서 알게되어 남편 김 모를 지난 10일에 잡아다가 이래 취조중이더니 19일에 일건서류와 함께 춘천검사국으로 송치해왔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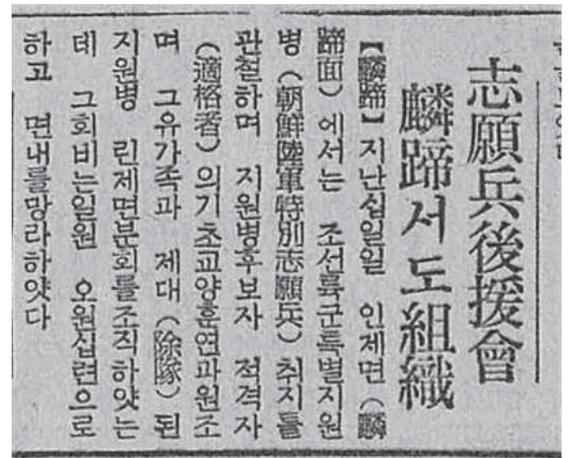


1939-12-24-03-10

### 매일신보

#### 지원병후원회 인제에서도 조직

【인제】 지난 11일 인제면에서는 조선육군특별지원병 취지를 관철하며 지원병후보자 적격자의 기초교양훈련과 원조며 그 유가족과 제대된 지원병 인제면분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회비는 1원 5원 10전으로 하고 면내를 망라하였다.





# IV

1940 - 1945년 인제신문

【麟蹄】린제군기린면현리(麟蹄郡麒麟面 현리)의 郡麒麟面懸里(박용순영사)의 順女史(은녀사)는 기린공립심상소학교(麟蹄公立心相小學校)에잇는유기계(유계)는모자임으로 이를절재로개도록삼반의원할 기증하얏슴의 피당국차그후원금그반의칭영의



1940-01-01-14-03

### 매일신보

#### 광고 (축) 흥아신춘

- 인제군 내면 울전리
- 인제군 내면 미산간이학교 유지계
- 인제군 기린면 현리 기린양주조합
- 인제군 기린공립심상소학교 교장 강문원 외 직원 일동
- 인제군 기린면 현리 동창상회 김동렬
- 인제군 기린면 현리 선홍상점 윤범호
-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덕홍상점 장덕수
-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남창상점 김창임
-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창신상점 이명록
-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신흥상점 권오신
- 인제군 기린면사무소 직원일동
- 인제군 기린면 면협의회원 박순길
- 인제군 내면 면장 서연린

1940-01-06-12-08

### 매일신보

#### 광고 (축) 흥아신춘

- 인제
  - 기린면 현리 구장 최일영
  - 선익상회지점 주 김종원
  - 선홍상회 윤범호
  - 기린 경방단장 황의순
  - 인제읍내 성기창
  - 기린면 서리 탁낙현
  - 기린면 하추양조장 주 박용수
  - 기린면 원대주조장 주 이종욱
  - 기린의원
  - 기린 장흥상회 주 박장하
  - 인제금융조합 현리지소
  - 기린 근본상회 주 신철근
  - 인제 응야오광산 대원광업소
  - 기린면직원일동 면장 방범주
  - 인제군 기린면 현리 박용순
  - 동창상회 주 전동렬
  - 기린양조장 신덕휴
  - 인제금융조합
  - 기린면 현리 신승균
  - 기린국유림보호조합연합회
  - 기린양주조합 이기룡 신봉식
  - 인제 장춘관 주 지태룡
- (중략)

洪川 南相範	李昌鍾	朴致冕	俞明棋	永煥	金鶴洙	李基甫	麒麟酒組合	外職一同
全東烈	尹範鎬	張德洙	金昌任	李命祿	權五臣	李膺善	鳳麟	金鳳鶴
斗村酒造會社	金相雲	大興、館	申泰貞	職面事務所	朴淳吉	吳泰賢	徐廷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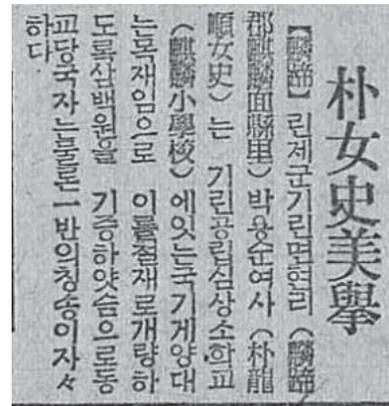
麟蹄	尹範鎬	申應烈	申界均	李琦龍	池泰龍	大原鐵業所	麒麟酒組合	賣方範疇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林順

1940-01-08-07-07

### 매일신보

#### 박여사 미거

【인제】 인제군 기린면 현리 박용순 여사는 기린공립심상소학교에 있는 일본기 게양대는 목제이므로 이를 철재로 개량하도록 300원을 기증하였으므로 동교 당국자는 물론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1940-01-09-03-02

### 매일신보

#### 화물자동차 추락 인제서 2명이 중상

【홍천】 지난 5일 춘천을 떠나 인제로 향하여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트럭 '강 제2584호'를 박한주(가명)가 운전하여 가던 도중 인제군 남면 신월리 고개에서 커브를 돌다가 실수가 되어 짐을 가득 실은 채 70척 단애에서 떨어져서 승객 2명의 중상자를 내일 뿐이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는데 원인인 즉 길이 미끄러워서 그리된 것이라 하며 손해는 약 1천원 가량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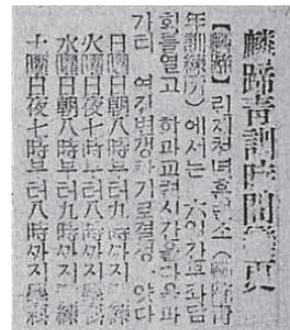
1940-01-12-03-03

### 매일신보

#### 인제 청혼 시간 변경

【인제】 인제청년훈련소에서는 6일 간부 좌담회를 열고 학과 교련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훈련
- 화요일 밤 7시부터 8시까지 학과
- 수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훈련
- 토요일 밤 7시부터 8시까지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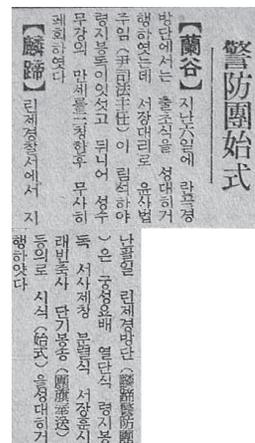


1940-01-13-03-01

### 매일신보

#### 경방단 시식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8일 인제경방단은 궁성요배 열단식 영지봉독 서사제창 분열식 서장훈사 내빈축사 단기봉송 등의 시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1940-01-13-03-01

### 매일신보

#### 저축 장려에 박차 강원도서 금조 이사 부분회의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금융조합 이사 부분회의를 오는 20일부터 춘천 철원 강릉 원주 네 곳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부분회의를 열게 된 것은 닥쳐오는 연도 말을 앞두고 저축 장려와 부채 정리 등 당면의 중요 문제를 협의 평정하여 수행에 유감없기를 기하기 위함이라한다. 개최일정과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2월20일 (춘천) 춘천제1 흥천 양구 화천 인제 천전 화동 춘천 이상 8개조 출석

2월23일 (철원) 철원 김화 이천 금성 평강 회양 안협 창도 내금강 철원제2 지석 통구 동주 이상 13조합 출석

2월26일 (강릉) 강릉 통천 양양 울진 삼척 간성 고성 평해 주문진 흡곡 대포 옥계 원덕 죽변 명주 이상 15조합 출석

2월 28일 (원주) 원주 영월 대화 횡성 정선 문막 주천 평창 둔내 진부 원주제2 이상 11조합 출석

1940-01-13-04-11

### 매일신보

#### 광고 (축)황기 2600년 신춘

(중략) 인제군 기린면 현리 면장 방범주

\*방부주는 오타

1940-01-20-03-01

### 매일신보

#### 총동원법 좌담회 강원도에서 관계업자들을 망라 각 군은 단위로 개최

【춘천】 국가총동원 관계법령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에는 무엇보다도 업자들의 협력이 필요 하다고 하여 강원도에서는 좌담회 일정에 의해서 각군을 단위로 업자 좌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한다. 이번 좌담회에서 타합할 법령은 지대가임통제령을 비롯하여 임금통제령,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종업자 고입제한령, 공장사업장 기능자양성령 등인데 좌담회에서는 도 직원을 파견(인제, 양구, 평창, 화천 제외) 할 터이라 한다.

##### ♠동부방면

▲1월 26일 춘천 ▲1월 28일 철원 ▲1월 30일 통천 ▲1월 31일 고성  
▲2월 1일 양양 ▲2월 3일 강릉 ▲2월 5일 삼척 ▲2월 7일 울진

##### ♠남부방면

▲1월28일 흥천 ▲1월 29일 횡성 ▲1월 30일 원주 ▲2월 1일 정선 ▲2월 3일 영월

##### ♠북부방면

▲2월 17일 화천 ▲2월 10일 김화 ▲2월 21일 회양 ▲2월 23일 평강

**貯蓄獎勵에 박차**  
江原道서金組理事部分會議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금융조합 이사 부분회의를 오는 20일부터 춘천 철원 강릉 원주 네 곳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부분회의를 열게 된 것은 닥쳐오는 연도 말을 앞두고 저축 장려와 부채 정리 등 당면의 중요 문제를 협의 평정하여 수행에 유감없기를 기하기 위함이라한다. 개최일정과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2월20일 (춘천) 춘천제1 흥천 양구 화천 인제 천전 화동 춘천 이상 8개조 출석

2월23일 (철원) 철원 김화 이천 금성 평강 회양 안협 창도 내금강 철원제2 지석 통구 동주 이상 13조합 출석

2월26일 (강릉) 강릉 통천 양양 울진 삼척 간성 고성 평해 주문진 흡곡 대포 옥계 원덕 죽변 명주 이상 15조합 출석

2월 28일 (원주) 원주 영월 대화 횡성 정선 문막 주천 평창 둔내 진부 원주제2 이상 11조합 출석

**황기 2600년 신춘**

洪川	洪川 李京勳
江界	江界 李辛平
江界	江界 崔福諱
江界	江界 車玉俊
江界	江界 李文模
江界	江界 方簿

**總動員法座談會**  
江原道서關係業者를網羅  
各郡을單位로開催

【춘천】 국가총동원 관계법령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에는 무엇보다도 업자들의 협력이 필요 하다고 하여 강원도에서는 좌담회 일정에 의해서 각군을 단위로 업자 좌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한다. 이번 좌담회에서 타합할 법령은 지대가임통제령을 비롯하여 임금통제령,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종업자 고입제한령, 공장사업장 기능자양성령 등인데 좌담회에서는 도 직원을 파견(인제, 양구, 평창, 화천 제외) 할 터이라 한다.

♠동부방면  
▲1월 26일 춘천 ▲1월 28일 철원 ▲1월 30일 통천 ▲1월 31일 고성  
▲2월 1일 양양 ▲2월 3일 강릉 ▲2월 5일 삼척 ▲2월 7일 울진

♠남부방면  
▲1월28일 흥천 ▲1월 29일 횡성 ▲1월 30일 원주 ▲2월 1일 정선 ▲2월 3일 영월

♠북부방면  
▲2월 17일 화천 ▲2월 10일 김화 ▲2월 21일 회양 ▲2월 23일 평강

1940-01-20-03-05

### 매일신보

#### 강원출신의 지원병 도내로 순회강연 취지를 철저히 보급

【춘천】 강원도 육군 특별지원병후원회에서는 지원병 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보급시키고자 제19사단 소속 부대의 본도 출신 재영 지원병을 2반에 편성하여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도내 순회강연을 실시할 터이란다 강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반

▲1월 22일 통천 ▲1월 23일 고성 양양 ▲1월 24일 강릉 삼척 ▲1월 25일 울진 ▲1월 26일 정선 ▲1월 27일 평창 영월 ▲1월 28일 원주 횡성 ▲1월 29일 춘천

○제2반

▲1월 22일 평강 ▲1월 23일 철원 이천 ▲1월 24일 회양 ▲1월 25일 금성 ▲1월 26일 김화 화천 ▲1월 27일 양구 인제 ▲1월 28일 홍천 ▲1월 29일 춘천

江原出身の志願兵  
道内로 巡廻講演  
趣旨를 徹底히 普及

【春川】 강원도 육군 특별지원병 후원회에서는 지원병 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보급시키고자 제19사단 소속 부대의 본도 출신 재영 지원병을 2반에 편성하여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도내 순회강연을 실시할 터이란다 강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반  
▲1월 22일 통천 ▲1월 23일 고성 양양 ▲1월 24일 강릉 삼척 ▲1월 25일 울진 ▲1월 26일 정선 ▲1월 27일 평창 영월 ▲1월 28일 원주 횡성 ▲1월 29일 춘천

○제2반  
▲1월 22일 평강 ▲1월 23일 철원 이천 ▲1월 24일 회양 ▲1월 25일 금성 ▲1월 26일 김화 화천 ▲1월 27일 양구 인제 ▲1월 28일 홍천 ▲1월 29일 춘천

1940-01-21-03-01

### 매일신보

#### 갱생농가 1만2천호를 4월에 신설할 계획 강원농촌의 여명보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촌갱생을 위하여 1933년부터 농가갱생계획을 수립한 후 갱생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는 4월부터 설치할 제8차 갱생계획을 보면 1만7,081호로 계획수립예정농가 1만1천725호에 달하리란다 각군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갱생계획부락수 갱생계획수립예정농가호수

	부락	호
춘천	37	909
인제	25	580
양구	15	328
(중략)		
계	491	11,725

更生農家萬二千戶를  
四月에 新設할 計畫  
江原農村의 黎明譜

【春川】 강원도에서는 농촌갱생을 위하여 1933년부터 농가갱생계획을 수립한 후 갱생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는 4월부터 설치할 제8차 갱생계획을 보면 1만7,081호로 계획수립예정농가 1만1천725호에 달하리란다 각군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갱생계획부락수 갱생계획수립예정농가호수

군	부락	호
춘천	37	909
인제	25	580
양구	15	328
횡성	15	328
원주	15	328
영월	15	328
평창	15	328
정선	15	328
울진	15	328
삼척	15	328
강릉	15	328
고성	15	328
양양	15	328
계	491	11,725

1940-01-21-04-08

### 매일신보

#### 강원 지대가임 심사위원 촉탁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대가임통제령 운용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군에 지대가임 심사회를 설치케 하였는데 지난 17일까지에 좌기와 같이 각군 위원을 임명 촉탁하여 진용을 정비하였다는 것으로 금후 지대가임의 단속은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 하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춘천 9 ▲인제 9 ▲양구 9 ▲회양 5 ▲통천 7 ▲고성 10 ▲양양 10 ▲강릉 9 ▲삼척 7 ▲울진 10 ▲정선 9 ▲평창 9 ▲영월 8 ▲원주 8 ▲횡성 5 ▲홍천 5 ▲화천 10 ▲김화 9 ▲철원 8 ▲평강 6 ▲이천 4 ▲계 166명

江原地代家賃  
審査委員 勅託

【春川】 강원도에서는 지대가임통제령 운용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군에 지대가임 심사회를 설치케 하였는데 지난 17일까지에 좌기와 같이 각군 위원을 임명 촉탁하여 진용을 정비하였다는 것으로 금후 지대가임의 단속은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 하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춘천 9 ▲인제 9 ▲양구 9 ▲회양 5 ▲통천 7 ▲고성 10 ▲양양 10 ▲강릉 9 ▲삼척 7 ▲울진 10 ▲정선 9 ▲평창 9 ▲영월 8 ▲원주 8 ▲횡성 5 ▲홍천 5 ▲화천 10 ▲김화 9 ▲철원 8 ▲평강 6 ▲이천 4 ▲계 166명

1940-01-23-04-01

### 매일신보

## 애국지성은 작열 함북 강원애 1천명, 황해 400명 지원병 지원자 운집

【춘천】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한 이래 강원청년의 의기는 자못 높아져서 진중보국의 정성을 드러낼 때는 이때라 하여 지원병을 지망하는 자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올해 입소시킬 지원병을 모집한 결과 벌써 지원자가 1,262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제 20일 현재 각 경찰서별 지원자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벌써 195명이나 달하였다고 한다.

◇각서별 지망자수(20일 현재)

▲춘천 8 ▲인제 16 ▲양구 57 ▲회양 16 ▲통천 176 ▲고성 9 ▲양양 26 ▲강릉 42 ▲삼척 33 ▲울진 40 ▲정선 46 ▲평창 20 ▲영월 39 ▲원주 70 ▲횡성 136 ▲홍천 195 ▲화천 45 ▲김화 80 ▲금성 18 ▲철원 무 ▲평강 21 ▲이천 48 ▲계 1,261명

1940-01-24-03-04

### 매일신보

## 인제 정동연맹 지도자대회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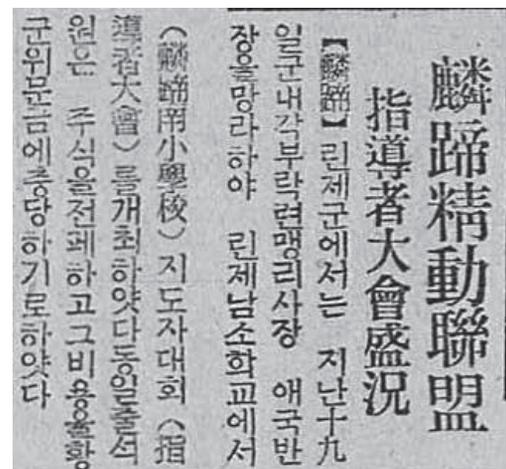
【춘천】 인제군에서는 지난19일 군내 각부락연맹 이사장 애국반장을 망라하여 인제남소학교에서 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일 출석원은 주식을 전폐하고 그 비용을 일본군황군 위문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940-01-26-04-01

### 매일신보

## 축산 강원의 대중식 계획 검토 3개년 계획 수립 4만5천 두 증식 중돈 생산부락 설치, 양돈편

돼지는 사육방법이 지극히 쉬우며 어느 가축보다도 사고가 비교적 매우 적은 만큼 조선에 있어서 보편화 되고있는 가축을 들자면 돼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도에서는 농촌의 진흥, 농가의 갱생상 필요불가결한 가축의 하나로 제종의 시설을 구하여 개량 증식에 힘써 왔는데 더욱이 이번 중일전쟁 이래 돼지가죽을 피혁 자원으로 다수 공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고 또한 군용으로 생돼지를 공출하게 되는 등 돼지의 수요는 급격한 증가를 보임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 수가 아직도 8만여 마리에 불과한 상태로 매년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는 도내 소비량에도 충족할 수가 없어서 매년 도외로부터 들여와 겨우 현상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급격한 감소를 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금후 증식상에도 영향이 심대할 것이므로 돼지의 증식만은 급속히 이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가축과 마찬가지로 10년 혹은 20년의 장기 계획으로서는 도저히 절박한 현실에 대응할 수 없다하여 1939년부터 1941년



까지 단기 3개년 간에 1만5,382마리를 급속 증산해서 현재 8만마리를 14만마리에 달하게 하려는 이른바 「시국 대처 양돈장려 대책」이란 명목조차 색다른 증식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인데 아래에 수립된 대책(계획)의 전모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즉 양돈은 기후 풍토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가축이므로 도처가 사육의 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축우나 ●수 모양으로 장려군을 특설하지 않고 도내 21개 군 전반에 걸쳐 양돈장려부락을 설정케 한 후 군농회가 주체가 되어 씨돼지를 대부해주는 등 적극적인 증식방책을 취하기로 된 것이 특색이라 하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

1. 실시방법과 부락설정

씨돼지의 생산 부락은 특히 농가개생부락 중 지도에 편리한 집단 부락으로서 축산에 열심하면서도 사료가 풍부한 농가 11호를 설정하여 씨수돼지 1마리, 씨암돼지 10마리를 가지고 각호에 1마리씩 대부하기로 되었는데 장려부락 설치 계획을 보면

군별	설치부락수	대부두(모)	(빈)	수계
춘천	2	2	20	22
인제	1	1	10	11
(중략)				
계	35	35	350	385

이상과 같이 35부락을 양돈장려부락으로 설정하여 씨수돼지 35마리, 씨암돼지 350마리를 사육케 해서 매년 수컷 1,050마리, 암컷 1,050마리 계 2,100마리씩을 생산시키기로 되었으며 생산된 새끼돼지는 강원도 평균에 의한 사고비율 즉 생산수의 8%를 예상하여 수컷 암컷 각각 96마리씩 계 1,932두를 종자 돼지로 각 농가에 공급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한 부락에 대해 자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대부한 씨돼지 가운데서 즉시 대체 돼지를 보충하기로 되어 절대 안전을 보증해 하고 있는 것이다.

2. 사양돈중

씨돼지 「바쿠샤」종으로 구입에 관하여 수송 편리한 군에 대하여 도농회에서 알선하기로 되었다.

3. 대부방법

씨돼지 대부는 군농회에서 제정한 대부 규정에 의하여 ①신원이 확실한 농가로서 상당한 자력과 사료를 갖고 있는 자 ②성질 선량 소행 방정한 자 ③신원이 확실한 보증인 2명 이상을 있는 자를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되었다.

4. 사양 돼지의 증가시설

그리고 양돈을 희망하나 구입할 자금의 관계로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군농회의 양돈 시설을 적용하는 외 금융조합자금 혹은 군농공제조합자금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계속) 【춘천지사발】

### 三箇年計畫樹立 四萬五千頭増殖

#### 種豚生産部設置

(急務)

【春川支社發】

郡	部	頭數	備註
春川	第一	100	...
	第二	100	...
	第三	100	...
	第四	100	...
... (其他郡)	...	...	...
	...	...	...
	...	...	...
	...	...	...

【養豚】 種豚生産部設置の目的は、種豚の生産を奨励し、品質の向上を図ることにあり、各郡に生産部を設置し、技術指導と防疫対策を実施する。...

【安全】 種豚の飼育には、衛生管理と防疫が極めて重要であり、各生産部において、定期的な消毒と健康診断を実施し、疾病の発生を防止する。...

1940-01-27-02-11

### 매일신보

#### 한해 극복하고자 입직 부업 장려

【춘천】 인제군에서는 지난 여름 미증유의 대가뭄으로 인하여 피해가 상당히 커서 다수한 이재민을 내게 되었었는데 시국을 철저히 인식한 이재민들은 조금도 괴로워하는 빛이 없이 당국의 지도를 신뢰하며 가뭄 극복에 매진해가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물론 집안에 있는 부녀들까지도 분연히 일어나 요새같은 겨울밤도 짧다는 듯이 가마니를 쳐서 내다파는 등 일가 총동원으로 부업에 힘쓰고 있는 광경은 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고 한다.

1940-01-27-03-05

### 매일신보

#### 강원의 지원병 지망자 2천300명 돌파 애국지성이 도처 폭발

【춘천】 강원도의 지원병 지원자는 날로 그 수를 더하여 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지원자가 물밀듯 모여들고 있는데 지난 25일 현재 지원자 총수를 보면 벌써 2,300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이번의 모집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하여 23일까지 열흘 동안에 1,026명이던 것이 21일부터 25일까지 불과 닷새 동안에 1,046명이 지원을 하게 되어 하루 평균 210명씩의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대로 나가게 된다면 마감기일인 2월 10일까지에는 4천명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각서별 지원자수를 보면 다음과 같아서 흥천 223명이 최고이고 다음이 통천 213명 평강 211명 횡성 196명의 순서이며 제일 적은 곳이 인제 16명으로 매년 다른 곳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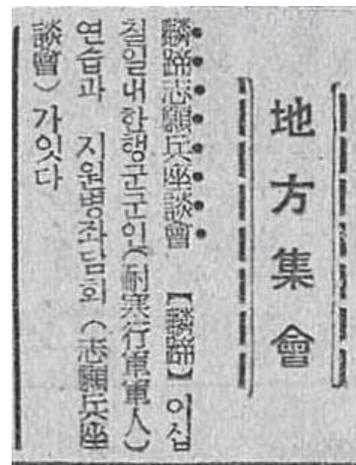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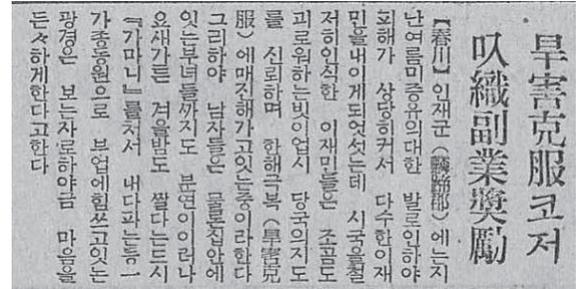
- ▲춘천 5 ▲인제 16 ▲양구 108 ▲회양 68 ▲통천 213 ▲고성 27 ▲양양 55 ▲강릉 46 ▲삼척 118 ▲울진 110 ▲정선 47 ▲평창 115 ▲영월 92 ▲원주 142 ▲횡성 196 ▲흥천 223 ▲화천 55 ▲김화 83 ▲금성 52 ▲철원 176 ▲평강 211 ▲이천 104 ▲계 1,308명

1940-01-27-03-09

### 매일신보

#### 지방집회

【인제】 27일 내한행군군인 연습과 지원병 좌담회가 있다.



1940-01-27-04-05

### 매일신보

## 각도 미작 실수고 제2회 예상보다 증수 강원미작 실수 113만여석

【춘천】 24일 도 농무과 발표=1939년도 강원도의 쌀 실수고를 보면 작부반별은 논벼 8만2천794정보, 밭벼 443정7만보 합계 8만4천237정7만보이고 수확고는 논벼 113만1천703석, 밭벼 1천354석 계 113만3천517석인바 이것을 제2회 예상고 110만5천371석에 비하면 2만7천687석의 증가가 되었다.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작부반별(반)	맨수고(석)	군별	작부반별(반)	맨수고(석)
춘천	4,321.1	44,195	인제	1,492.7	31,680
양구	1,491.0	35,822	회양	2,637.6	33,011
통천	6,183.9	108,045	고성	4,195.4	69,159
양양	5,213.4	84,583	강릉	6,631.2	102,707
삼척	1,943.7	20,627	울진	3,334.6	61,586
정선	635.6	11,009	평창	2,375.0	36,177
영월	1,764.8	27,250	원주	5,560.3	36,754
횡성	4,770.1	68,645	홍천	5,162.6	51,986
화천	8,788.9	24,720	김화	4,291.1	70,730
철원	12,426.1	135,553	평강	3,417.6	38,719
이천	2,299.9	38,719			
계	84,237.7	1,233,057			

1940-01-30-03-07

### 매일신보

## 산업개발의 동맥인 풍암선 개통 요망 갑천면민이 도에 진정

【횡성】 횡성읍을 기점으로 하여 갑천면 청일면으로 홍천군 서석면, 인제군 멀리 양양까지 통하는 산업개발에 대동맥선인 풍암선은 1933년도에 강원도회 석상에서 3등도로로써 개통 계획이 가결되었는데 그 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통을 보지 못하게 됨은 유감이었으나 금년 봄에 공사에 착수하여 그 개통을 보게 되리란데 이 선로 중 갑천면 매일리에서 안흥면 정금리 우천면 추동리를 경유하여 횡성읍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바 이 계획대로 통한다면은 2리 반이나 더 돌게 됨은 물론이려니와 이 뿐 아니라 수해에 염려가 불소하다는 이유로써 갑천면에서는 지난 11월에 강원도 토목과장이 노임을 계기로 하여 전갑천면민은 환기하여 갑천면 매일리에 서동면 포동리 구방내리 횡성면 옥동리 개전리로 해서 횡성읍으로 직통한다면 2리 반이나 단축함은 물론 수해에 염려가 조금도 없다는 이유와 갑천면에 생명선이라는 조건으로 도 당국에 진정서까지 제출함과 동시에 측량을 착수하고 난공사 구역만을 제외하고는 평탄구역만은 갑천면민이 자진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는데 이 진정과 같이 시급히 개통하기를 갈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라고 한다.

## 各道米作實收高

### 第二回豫想보다增收

江原米作實收 百十二萬餘石

【春川】二十四日農務廳發表江原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原州	寧越	平康	旌善	麟蹄	三陟	江陵	高陽	通川	淮陽	陽口	春川	襄陽
三萬石	二萬石	三萬石										

## 産業開發の動脈인

### 豐岩線開通要望

#### 甲川面民이道에陳情

【春川】 農務廳發表江原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春川】 農務廳發表江原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昭和十四年度江原道米實收高總額

1940-01-31-03-08

### 매일신보

#### 인제, 양양간 지방도 지금 개통을 요망 유지들이 도에 진정

【인제】인제 양양선 지방도로는 인제군민이 일찍부터 그 개통을 요망하여 온갖 운동을 거듭하여 오던 것인데 작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의 완성을 보기까지에는 아직도 요원하므로 지금 개통을 요망하여 이종형 도의원 외 유지가 지난 26일 도당국을 방문하고 인제 기린간만은 급년 내로 기어이 개통하여 달라고 진정하였는데 군민은 그 성과를 기대한다.

1940-02-02-03-02

### 매일신보

#### 조, 콩의 공정가격 30일 강원서 지정 실시

【춘천】강원도에서는 지난30일 조와 콩의 소매가격을 지정하여 작일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지정된 가격을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와 콩의 가격(석당)

읍면명	조소매가격	콩소매가격
춘천	24.94	33.46
인제	32.39	30.53
양구	33.00	31.39

(중략)

1940-02-03-04-07

### 매일신보

#### 장려군을 지도군으로 강원 면작 대장려 부락지도원 400여명도 배치

【춘천】면화는 군수자원으로서 중용되고있는 만큼 강원도에서는 면화 증산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시국의 장기화에 따라 수요는 갈수록 더욱 증가를 보게 되었으므로 1940년도에는 종래에 구분 지도해오던 장려군 12개군을 전부 지도군으로 하여 다액의 국고보조를 주어서 농후한 지도를 가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종래에는 춘천 인제 양구 울진 영월 원주 횡성 홍천 화천 김화 철원 이천 등 12개군을 본부 장려군으로 하여 지도해왔었는데 1939년도부터 전기 12개군을 지도군 5, 모범군 3, 일반장려군 4로 구분하여 지도장려를 해왔으나 신년도부터는 전부 지도군으로 하여 농후한 지도를 하기로 되었으며 지도군에 대하여는 농회 기수 5명, 지방산업기수 1명씩을 배치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전기 지도군 외에 순도비 보조장려군도 4개군을 신설하리라 하며 면작장려면 아래 있는 지도정리 430개소에 대하여는 부락지도원 1명씩을 셀 틈없이 배치하기로 되었다 한다.



1940-02-05-03-06

### 매일신보

#### 인제 벼 공판

【인제】 인제군식량배급통제조합에서는 식량 배급을 완화코자 다 음과 같이 벼 공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제면, 남면, 북면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화면, 기린면 2월 7일부터 15일까지  
 내면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940-02-05-03-11

### 매일신보

#### 전화 가설 요망 인제서 맹운동

【인제】 다년 현안이던 인제군 시내전화 가설 운동은 그동안 당국 에 누차 진정한 바 있어서 지난 1월 28일 서울체신분장국장이 당지 에 온 것을 기회로 관민 협력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가설 희망자는 40개소라 한다.

1940-02-06-03-07

### 매일신보

#### 정신병자가 방화 인제서 1동을 전소

【춘천】 인제군 내면 방내리 최만수의 누이 언령(29)은 1931년경부 터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이곳저곳으로 언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지 난 1월 23일 오후 2시경 인제군 기린면 현리 김영배(51)의 집에 들어 가 불을 쬐이려 하였으나 마침 주인이 없으므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나무단에 불을 싸놓아 그 집 한 채를 전소시켰다고 한다. 이것을 발 견한 동리 사람들이 달려가서 범인을 어렵지않게 잡았는데 경찰에 서 취조한 결과 정신병자에 틀림없으므로 실형에게 인도하여 보호 하도록 하였다 한다.

1940-02-07-03-05

### 매일신보

#### 춘천중학에 두화, 진성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여 휴학교 전교를 소독

【춘천】 춘천중학교 안에 천연두(마마) 환자가 발생하였다 함은 별 향과 같거니와 전교 생도가 400여명이나 되는 만큼 학교당국에서는 대경실색하여 환자를 내게된 3년 을조 생도 40명에게 5일과 6일 이 틀동안 휴교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교생도 400여명에 대 하여는 앞서 중두를 실시하였으므로 더 만연될 염려는 없을 모양이 라고 하며 전기 이군 인제가 고향인데 3일 전 양양으로부터 왔다는 것으로 보아 양양에서 감염되어온 모양이며 환자는 목하 도립의원 에서 치료중이라고 한다.

**麟蹄粉共販**  
 【麟蹄】 인제군식량배급통제 조합 (麟蹄郡食糧配給統制組合) 에서 는 식량배급을완화코자 다음과 가리 배공판을실시하기로하였다  
 麟蹄面、南面、北面 一月二十 一日至二月十日 瑞和面、麟蹄 面 一月七日至十五日 内面 一 月十五日至二十四日

**電話架設要望 麟蹄서猛運動**  
 【麟蹄】 다년현안이던 인제군시 내전화가설운동은 그동안당국에 루차진정한바있어서 지난1월廿八 일 경성체신분장국장(京城遞信 分掌局長)이 당지에온것을기회 로관민협력하여 진정을하였는데 가설희망자는 四十개소라한다

**精神病者が放火 麟蹄서一棟을全燒**  
 【春川】 인제군내면방내리(麟蹄 郡内面防内里) 최만수(崔萬壽)의 누이 언령( 언령(29)은 1931년경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이곳저곳으로 언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경 인제군 기린면 현리 김영배(51)의 집에 들어가 불을 쬐이려 하였으나 마침 주인이 없으므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나무단에 불을 싸놓아 그 집 한 채를 전소시켰다고 한다. 이것을 발견한 동리 사람들이 달려가서 범인을 어렵지않게 잡았는데 경찰에서 취조한 결과 정신병자에 틀림없으므로 실형에게 인도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한다.

**春川中學에痘禍 眞性天然痘患者가發生하여 休學校全校를消毒**  
 【春川】 춘천중학교 안에 천연두(마마) 환자가 발생하였다 함은 별향과 같거니와 전교 생도가 400여명이나 되는 만큼 학교당국에서는 대경실색하여 환자를 내게된 3년 을조 생도 40명에게 5일과 6일 이 틀동안 휴교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교생도 400여명에 대 하여는 앞서 중두를 실시하였으므로 더 만연될 염려는 없을 모양이 라고 하며 전기 이군 인제가 고향인데 3일 전 양양으로부터 왔다는 것으로 보아 양양에서 감염되어온 모양이며 환자는 목하 도립의원 에서 치료중이라고 한다.

1940-02-07-04-05

### 매일신보

## 열혈의 애국건아 강원지원병 지망자 1만명 돌파호 황해는 2천800여 강원

【춘천】 강원도의 육군지원병 지망자수는 날로 증가하여 의기 강원 청년의 애국열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3일 현재 지망자 수를 보면 실로 5,824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마감기인 10일까지에는 모집 자원 8,000명은커녕 근 1만명에 달할 의기를 보이고 있다 하여 당국으로서도 감격하고 있을 뿐이러는데 각서별로 지망자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157 ▲인제 80 ▲양구 272 ▲회양 248 ▲통천 454 ▲고성 305 ▲양양 176 ▲강릉 183 ▲삼척 294 ▲울진 205 ▲정선 167 ▲평창 280 ▲영월 247 ▲원주 374 ▲횡성 258 ▲홍천 251 ▲화천 105 ▲김화 280 ▲금성 232 ▲철원 560 ▲평강 501 ▲이천 204 ▲계 5,824

1940-02-10-03-03

### 매일신보

## 전등 가설 요망 인제서 기성회 조직

【인제】 인제에서는 3일 인제토요회는 전화전등가설기성회를 조직하고 2월 5일 구 회의실에서 간부회를 개최하고 운동 방식과 제비용에 대하여 토의한 적이 있었다.

1940-02-10-03-11

### 매일신보

## 인제임시총회

【인제】 인제군농회 임시총회는 2월 5일인데 의원의 출석수가 부족하므로 유회가 되고 다시 2월 9일로 연기하였다.

1940-02-10-04-01

### 매일신보

## 강원의 지원병 지원자 7천300, 1만명 돌파는 확실시

【춘천】 강원도지원병 지망자는 체절기일이 절박함에 따라 호수와 같이 밀려들고 있는데 거 7일 현재 벌써 7,300명을 돌파하였다. 10일까지에는 모집 목표 8,000명은커녕 근 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철원의 637명을 최고로 평강 568명, 통천 525명, 원주 448명, 삼척 387명의 순서이며 인제 118명이 의연 최소수이라 한다. 각서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춘천 288 ▲인제 118 ▲양구 160 ▲회양 375 ▲통천 525 ▲고성 377 ▲양양 279 ▲강릉 227 ▲삼척 387 ▲울진 213 ▲정선 220 ▲평창 372 ▲영월 310 ▲원주 448 ▲횡성 279 ▲홍천 375 ▲화천 175 ▲김화 353 ▲금성 236 ▲철원 637 ▲평강 568 ▲이천 238 ▲계 7,306명

**熱血의愛國健兒**  
江原志願兵志願者萬名突破乎

黃海는 二千八百餘

江原 道 志 願 兵 志 願 者 數 目 日 增 進 於 今 日 之 現 狀 已 達 五 萬 八 千 餘 名 矣 此 實 爲 我 國 歷 史 上 之 偉 大 事 業 也 茲 將 各 道 志 願 者 數 目 列 後 以 示 其 概 焉

▲春 川 一 五 七 ▲高 城 三 〇 五  
▲陽 陽 一 七 六 ▲江 陵 一 八 三 ▲三 陟 二 九 四  
▲蔚 珍 二 〇 五 ▲正 先 一 六 七 ▲平 昌 二 八 〇  
▲英 陽 二 四 七 ▲元 州 三 七 四 ▲橫 城 二 五 八  
▲洪 川 二 五 一 ▲花 川 一 〇 五 ▲金 華 二 八 〇  
▲金 城 二 三 二 ▲鐵 原 五 六 〇 ▲平 康 五 〇 一  
▲利 川 二 〇 四 ▲計 五 八 二 四

**電燈架設要望**  
麟蹄時期成會組織

【麟蹄】 린제에서는 3일 린제토요회는 전화전등가설기성회(電話電燈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이월 5일 구 회의실에서 간부회를 개최하고 운동 방식과 제비용에 대하여 토의한 적이 있었다

**地方集會**

江原道油脂組合總會 【江陵】 강원도양유비제조업주산조합(麟蹄油脂製造水産組合)에서는 오는 廿二、三兩일간 금강오정리에서 제1회통상총대회를개최하리란한다

慶尙臨時總會 【麟蹄】 린제군농회임시총회는 二월五일인데이원의출석수가부족함으로 유회가되고 다시 二월九일로연기하였다

**江原의志願兵**  
志願者七千二百 萬名突破는確實視

江原 道 志 願 兵 志 願 者 數 目 日 增 進 於 今 日 之 現 狀 已 達 七 千 三 百 餘 名 矣 此 實 爲 我 國 歷 史 上 之 偉 大 事 業 也 茲 將 各 道 志 願 者 數 目 列 後 以 示 其 概 焉

▲春 川 二 八 八 ▲高 城 三 〇 五  
▲陽 陽 一 七 六 ▲江 陵 一 八 三 ▲三 陟 二 九 四  
▲蔚 珍 二 〇 五 ▲正 先 一 六 七 ▲平 昌 二 八 〇  
▲英 陽 二 四 七 ▲元 州 三 七 四 ▲橫 城 二 五 八  
▲洪 川 二 五 一 ▲花 川 一 〇 五 ▲金 華 二 八 〇  
▲金 城 二 三 二 ▲鐵 原 五 六 〇 ▲平 康 五 〇 一  
▲利 川 二 〇 四 ▲計 七 三 〇 六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공려)  
 영월군 영월면 방절리 마두(공려)  
 원주군 소초면 장양리 장막(3차)  
 이천군 안협면 퇴탄리 어은동(3차)  
 울진군 평해면 금음리 지음동(1차 어촌)  
 양구군 양구면 정림(4차) 최석희  
 회양군 안평면 흥인하간촌(3차) 이석행  
 고성군 과내면 산산리(공려) 정봉학  
 양양군 과내면 죽리(3차) 정익철  
 강릉군 성덕면 회산리(공려) 심양섭  
 철원군 온천면 금마리(3차) 박필호  
 양구군 동면 덕곡리(3차) 윤상섭  
 평창군 평창면 조동리(공려) 함동호  
 고성군 서면 장정리(공려)  
 영월군 영월면 능동(3차) 이원한  
 원주군 지정면 신평리 목면동(3차) 원형왕  
 평강군 남면 학전리구(3차) 박재근  
 회양군 내금강면 유동리(3차) 김건중  
 강릉군 망상면 부곡리(6차) 한필우  
 회양군 난곡면 서기 송창숙  
 강릉군 연곡공립심상소학교 부설 퇴곡간이학교 훈도 조창환  
 울진군 북면장 박홍래  
 횡성군 서원공립심상소학교 부설 1리간이학교 훈도 원영수  
 철원군 인목면 간 김영범  
 (중략)  
 ◇ 남세 우량단체 및 남세공적자  
 1. 단체  
 강릉군 연곡면 신암리 마암동남세조합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2구  
 횡성군 갑천면 산금대리  
 2. 개인  
 춘천군 동산면 군자리 구장 조창행  
 인제군 인제면 하추리 구장 박용수  
 회양군 금강면 봉현리 남세조합장 김용택  
 고성군 오대면 초계리 구장 황런주  
 양양군 양양면 월리구장 박대근  
 강릉군 망상면 대진리 남세조합장 김두만  
 삼척군 삼척읍 강하리 김용담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구장 신도균  
 정선군 정선면 신월리 구장 최석규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구장 박해병  
 원주군 호지면 대덕리 구장 지세영  
 홍천군 동면 좌운리 구장 이제선  
 화천군 화천면 풍산리 구장 유세영  
 김화군 금성면 어천리 구장 김정복

## 紀元佳節表彰者

### 江原서인選을決定

洪川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洪川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洪川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洪川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上科 (七次) 曹日煥 高城郡 楊川面 長壽里 下科 (七次) 曹日煥
--	--	--	--	--	--	--	--	--	--

### ○ 篤行者其他表彰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	--	--	--	--	--	--	--	--	--

### ○ 社會教化功績者朝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	--	--	--	--	--	--	--	--	--

### ○ 勳農共濟組合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	--	--	--	--	--	--	--	--	--

### ○ 勳農共濟組合員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	--	--	--	--	--	--	--	--	--

### ○ 納稅優良團體及納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同 上三郎部 所進面 曹昌
--	--	--	--	--	--	--	--	--	--

1940-02-13-03-01

### 매일신보

#### 저축 장려에 박차 강원도서 금융조합 이사 부분회의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금융조합지부 이사 부분회의를 오는 20일 부터 춘천, 철원, 강릉, 원주 4곳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부분 회의를 열게된 것은 각처 닥쳐오는 연도 말을 앞두고 저축 장려와 부채 정리 등 당면의 중요 문제를 협의 평정하여 수행에 유감없이 기하기 위함이라 한다. 개최 일정과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2월20일(춘천) 춘천제1 흥천 양구 화천 인제 주천 화동 춘천 이상 8조합 출석, 2월22일(철원) 철원 평강 회양 안협 창도 내금강 철원제2 지석 통 구 동주 이상 13조합 출석, 2월26일(강릉) 강릉 통천 양양 울진 삼척 간성 고성 평해 주문진 흡곡 대포 옥계 영덕 죽변 명주 이상 15조합 출석, 2월 28일(원주) 원주 영월 대화 횡성 정선 문막 주천 평창 둔내 진부 원주제2 이상 11조합 출석

1940-02-13-03-04

### 매일신보

#### 감격! 8천600명 그 중에 적격자만도 4천700여명의 다 수, 전강원에 비등된 지원병 열

【춘천】 강원도의 지원병 모집은 지난 10일 오후 4시으로써 마감하였는데 모집예정 8,000명을 훨씬 돌파하여 8,619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적격자만도 4,788명에 달한다 하며 혈서 지원 자가 8명이 있는 외에 현직 순사의 지원자도 1명이 있다고 한다. 금 후라도 지방자가 있으면 접수를 하리라는데 지방자를 각 경찰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604 ▲양구 316 ▲회양 408 ▲통천 588 ▲고성 397 ▲양양 302 ▲강릉 420 ▲삼척 419 ▲울진 208 ▲정선 260 ▲평창 422 ▲영월 213 ▲원주 478 ▲횡성 295 ▲홍천 514 ▲화천 210 ▲김화 364 ▲금성 236 ▲철원 686 ▲평강 602 ▲이천 328 ▲8,619명

1940-02-13-03-11

### 매일신보

#### 아직 34명 신음, 강원도에 두화는 의연히 만연

【춘천】 강원도의 마마천연두는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수를 더할 뿐이어서 통천에 2명, 평강에 1명이 또다시 발생하여 10일 현재 발생투계가 54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 전치 11명, 사망 9명이어서 현재 남은 환자가 34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각지별 발생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성 11 ▲통천 8 ▲이천 2 ▲양양 9 ▲김화 5 ▲화천 7 ▲춘천 3 ▲금성 2 ▲인제 2 ▲삼척 1 ▲평강 2 ▲철원 1 ▲계 54

### 貯蓄獎勵에拍車

#### 江原道저금組理事部分會議

【춘천】저금조합지부 이사 부분회의는 오는 20일부터 춘천, 철원, 강릉, 원주 4곳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부분 회의를 열게된 것은 각처 닥쳐오는 연도 말을 앞두고 저축 장려와 부채 정리 등 당면의 중요 문제를 협의 평정하여 수행에 유감없이 기하기 위함이라 한다. 개최 일정과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二月二十日(춘천) 춘천제1 흥천 양구 화천 인제 주천 화동 춘천 이상 8조합 출석, 二月二十二日(철원) 철원 평강 회양 안협 창도 내금강 철원제2 지석 통 구 동주 이상 13조합 출석, 二月二十六日(강릉) 강릉 통천 양양 울진 삼척 간성 고성 평해 주문진 흡곡 대포 옥계 영덕 죽변 명주 이상 15조합 출석, 二月二十八日(원주) 원주 영월 대화 횡성 정선 문막 주천 평창 둔내 진부 원주제2 이상 11조합 출석

### 感激! 八千六百名

#### 全江原에沸騰된志願兵熱

그 중에適格者만도四千七百餘名의多數.

【춘천】 강원도의 지원병 모집은 지난 10일 오후 4시으로써 마감하였는데 모집예정 8,000명을 훨씬 돌파하여 8,619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조사한 적격자만도 4,788명에 달한다 하며 혈서 지원 자가 8명이 있는 외에 현직 순사의 지원자도 1명이 있다고 한다. 금 후라도 지방자가 있으면 접수를 하리라는데 지방자를 각 경찰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604 ▲양구 316 ▲회양 408 ▲통천 588 ▲고성 397 ▲양양 302 ▲강릉 420 ▲삼척 419 ▲울진 208 ▲정선 260 ▲평창 422 ▲영월 213 ▲원주 478 ▲횡성 295 ▲홍천 514 ▲화천 210 ▲김화 364 ▲금성 236 ▲철원 686 ▲평강 602 ▲이천 328 ▲8,619명

### 아직卅四名呻吟

#### 江原道에痘禍는依然히蔓延

【춘천】 강원도의 마마천연두는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수를 더할 뿐이어서 통천에 2명, 평강에 1명이 또다시 발생하여 10일 현재 발생투계가 54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 전치 11명, 사망 9명이어서 현재 남은 환자가 34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각지별 발생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성 11 ▲통천 8 ▲이천 2 ▲양양 9 ▲김화 5 ▲화천 7 ▲춘천 3 ▲금성 2 ▲인제 2 ▲삼척 1 ▲평강 2 ▲철원 1 ▲계 54

1940-02-13-03-12

매일신보

강원도 표창자 저축공로자

◇저축공로자

춘천 고성리 충후보국실행조합, 춘천 당림 충후보국실행조합  
인제 도채동 충후보국실행조합

(중략) ▲개인=춘천 이교철 ▲춘천 장진국 ▲춘천 조창연 ▲춘천 지  
춘화 ▲인제 윤익병 ▲인제 이봉권 ▲인제 이종혁 ▲양구 송기창 ▲  
양구 전상필 ▲양구 이상익 ▲양구 김종석 (중략)

1940-02-13-03-12

매일신보

강원도표창자

\*인제군 발취

◇저축공로자

인제 도채동충후보국실행조합

▲개인=인제 윤만병, 인제 이봉권, 인제 이종혁

1940-02-13-03-12

매일신보

사범생 실습

【춘천】 춘천사범학교에서는 금춘에 교문을 나서 교육계에 첫걸음  
을 내던게 될 강습과생 120명으로 하여금 13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도내 8개군의 군청 소재지 학교에 1교 14, 15명씩 나누어 숙박교육  
실습을 해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각 학교의 학교경영, 학급경영, 학  
교의 사회 진출, 청년단과 졸업생의 지도 상황, 갱생부락지도의 실  
제, 사설교육기관의 지도상황 등 소학교의 전면적 활동상황을 실제  
로 참관 시찰케 하기 위함이라는데 흥천 화산, 횡성남, 원주봉산, 화  
천, 양구, 인제남, 평강동, 김화남의 각 소학교라 한다.

1940-02-14-03-10

매일신보

한해 구제 위하여 강원서 26만원의 도로 공사

【춘천】 강원도에서는 가뭄피해 구제대책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로  
되어 1940년도 예산에 26만9,000원의 도로공사비를 계상하였다. 이  
것은 순전히 가뭄피해지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한 도로의 개량과 개  
수 공사비를 계상한 것인 만큼 원주 일진 삼척 횡성 흥천 춘천 영월  
인제 철원 평강 등 10개군에 한하여 실시하기로 되었으며 전기 공사  
비의 약 70%인 18만8,800여원의 노임으로써 떨어지게 될 터이라 한  
다. 이외에 지방도 개수비 9만원 국도 수선비 11만원도 계상되어있  
는데 이는 특히 한해 구제를 목적인 것이 아니나 될수있는 대로 가  
뭄피해지에 실시하기로 되었다는 것이다.

1940-02-14-04-12

### 매일신보

#### 강원도 사령(2월 10일부) (중략)

인제 내무과장 각전총부 임 도속, 산업과 농무과 근무를 명함  
 영월군속 서천청 임 도속,  
 도속원 지방 길전●사진 임 군속, 이천군 재근을 명함  
 회양군속 소실행조 인제군 내무과장 겸 근업과장을 보함, 산업부 산  
 립과 근무를 명함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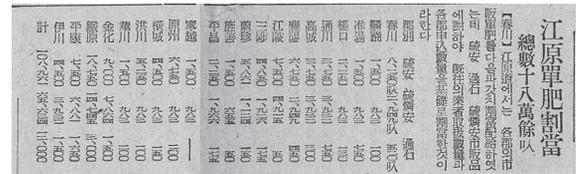
1940-02-16-04-05

### 매일신보

#### 강원 단비 할당 총수 18만여 입

【춘천】 강원도에서는 각군의 시판 단비를 다음과 같이 할부 배급하  
 였는데 황산암모늄, 과린산석회, 황인산암모늄 시판품에 대하여 기  
 왕의 업자 취급수량과 각군 신입수량을 기초로 할당한 것이라 한다.

군별	황산암모늄(입)	황인산암모늄(입)	과린산석회(입)
춘천	8,250	2,949	520
인제	1,500	923	100
(중략)			
계	108,961	65,634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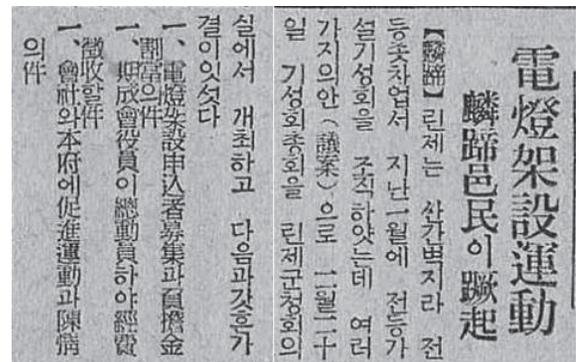
1940-02-24-03-10

### 매일신보

#### 전등가설운동 인제읍민이 쫓기

【인제】 인제는 산간벽지라 전등조차 없어 지난 1월에 전등가설기  
 성회를 조직하였는데 여러 가지의 안으로 2월 20일 기성회 총회를  
 인제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가결이 있었다.

1. 전등가설 신입자 모집과 부담금 할당의 건
1. 기성회 임원이 총동원하여 경비 징수할 건
1. 회사와 본부에 촉진운동과陳情의 건



1940-03-02-03-01

### 매일신보

## 김화 청평간 산금 송전선 3월중 준공예정 양구, 인제에도 송전

【춘천】 김화-청평간의 산금 송전선은 작년 4월에 경성전기에서 대행하여 공비 약300만원으로 공사에 착수했었는데 드디어 이달(3월) 안으로 준공을 보게 되라라는 것으로 일대의 산금사업은 더욱 발전되리라 한다. 그리고 이 산금 송전선의 공사가 끝나게 되면 현재 춘천지점에서 쓰고있는 300마력과 200마력의 발전기 2대를 양양발전소로 보내어 종방에서 경영하고 있는 철산개발에 이용하도록 신설하리라고 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전기 산금송전선을 화천서부터 인제에 연장하게 되었으므로 양구와 인제 두 군 모두 전기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 하여 군민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춘천지점의 발전기를 양양으로 보내게 되는 것은 산금 송전선이 되면 종래보다도 훌륭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한강수전의 공사 진행과 함께 전강 원도가 전력화하려는 전제라 하여 크게 기대되고 있다.

1940-03-02-03-10

### 매일신보

## 납세 성적 양호 홍천세무서 관하

【홍천】 홍천세무서 관내인 인제군, 홍천군민의 이번 2월 29일까지 바칠 세금은 개인 임시 이득세가 6,000원 지세가 11,706원, 3종 소득세가 7,698원으로 되어있다. 그 납세 성적은 매우 양호하다는데 면 지정 납기 2월 20일까지에 벌써 75%의 납세액을 보아 당서에서는 기일까지에 전부 완납되리라고 하며 이와 같은 호성적을 보게 된 것은 일반의 시국 하의 납세 관념이 철저히 된 것에 있다 하여 매우 기뻐한다.

1940-03-10-03-03

### 매일신보

## 인제 애국 미담

【춘천】 인제군하의 애국반과 농촌진흥회 등 각단체의 애국열에 불타는 헌금 일속

1. 인제군 내면 울진리 이현동 애국반 반원들은 일본군[황군]장병의 노고를 생각하고 나무를 해서 팔은 돈 10원을 국방헌금 하였으며
2. 인제군 내면 자운리 운두동 애국반원들도 일본군[황군]의 노고에 감격하여 농한기를 이용해서 나무를 해 팔아가지고 70원55전을 국방비에 서달라고 헌금하였다.
3. 그리고 인제군 인제면 가아리 1구 농촌진흥회 회원 김동현 외 24명은 3월 2일 경찰서 주최 좌담회에서 시국에 대한 강연을 듣고 감격하여 근로보국에 의해서 국방헌금을 하기로 결의한 후 이튿날인 3일은 아침에 1시간동안 목재운반을 하고 얻은 돈 2원 55전을 헌금하였으며

**金清間産金送電線**

**三月中竣工豫定**

**楊口麟蹄에도送電**

【춘천】 김화(金化) - 청평(淸平) 간 산금(山金) 송전선(送電線)은 작년 4월에 경성(京城) 전기(電氣)에서 대행(代辦)하여 공비(公費) 약 300만원(300萬圓)으로 공(工)사에 착(着)수(手)했었는데 드디어(드디어) 이달(3월) 안(안)으로 준(准)공(工)을 보(보)게 되(되)라(라)는 것(것)으로 일(一)대(代)의 산(山)금(金)사(事)업(業)은 더(더)욱(욱) 발(發)전(電)되(되)리(리)라(라) 한(한)다(다). 그(그)리고(고) 이(이) 산(山)금(金) 송(送)전(電)선(線)의 공(工)사(事)가 끝(結)나(나)게 되(되)면 현(現)재(재) 춘(春)천(天)지(地)점(點)에 서(서) 쓰(쓰)고(고)있(있)는 300마(馬)력(力)과 200마(馬)력(力)의 발(發)전(電)기(機) 2대(臺)를 양(陽)양(陽)발(發)전(電)소(所)로 보(보)내(내)어 종(宗)방(房)에 서(서) 경(經)영(營)하(하)고 있(있)는 철(鐵)산(山)개(開)발(發)에 이(利)용(用)하(하)도(도)록 신(新)설(設)하(하)리(리)라(라)고(고) 한(한)다(다). 또(또)한(한) 오(오)는 4월(月)부(부)터(터)는 전(電)기(機) 산(山)금(金)송(送)전(電)선(線)을 화(火)천(天)서(서)부(부)터(터) 인(仁)제(濟)에 연(連)장(長)하(하)게 되(되)었(었)으(으)므(므)로 양(陽)구(구)와 인(仁)제(濟) 두(두) 군(郡) 모(모)두(두) 전(電)기(機)혜(惠)택(택)을 입(入)게 되(되)는 것(것)이라(라) 하(하)여 군(郡)민(民)들(들)은 크(크)게 기(期)뻐(뻐)하(하)고 있(있)다(다). 그(그)런(런)데(데) 춘(春)천(天)지(地)점(點)의 발(發)전(電)기(機)를 양(陽)양(陽)으(으)로 보(보)내(내)게 되(되)는 것(것)은 산(山)금(金) 송(送)전(電)선(線)이 되(되)면 종(宗)래(來)보(보)다(다)도 훌(忽)륭(隆)한 전(電)력(力)을 공(公)급(給)할 수 있(있)게 되(되)기 때(때)문(문)이라(라)는(는)데(데) 이(이)는 한(한)강(江)수(水)전(電)의 공(工)사(事) 진(進)행(行)과 함(함)께 전(電)강(江) 원(原)도(道)가 전(電)력(力)화(化)하(하)려(려)는 전(前)제(制)라(라) 하(하)여 크(크)게 기(期)대(待)되(되)고 있(있)다(다).

**納稅成績良好**

**洪川稅務署管下**

【洪川】 홍천(洪川)세무(稅務)서(署)관(管)내(內) 인(仁)제(濟)군(郡) (麟蹄郡) 홍(洪)천(天)군(郡)민(民)의 이(이)번(번) 2월(月) 29일(日)까(까)지(지) 바(巴)칠(칠) 세(稅)금(金)은(은) 개(個)인(人) 임(臨時)시(時)득(得)세(稅) (個人臨時所得稅)가 六千圓, 지(地)세(稅)가 一七,〇六圓, 저(宗)소(所)득(得)세(稅)가 七,六九八圓으로 되어(有)었다(다). 그(그) 납(納)세(稅) 성(成)적(績)은(은) 매우(매우) 양(良)호(好)하(하)는(는)데(데) 면(面) 지(指)정(定) 납(納)기(期) 2월(月) 20일(日)까(까)지(지)에(에) 벌써(벌써) 75%의 납(納)세(稅)액(額)을 보(보)아(아) 당(當)서(署)에(에)서(서)는(는) 기(期)일(日)까(까)지(지)에(에) 전(全)부(部) 완(完)납(納)되(되)리(리)라(라)고(고) 하(하)며(며) 이(이)와(와) 같(같)은(은) 호(好)성(成)적(績)을 보(보)게 되(되)는(는) 것(것)은(은) 일(一)반(半)의 시(時)국(局) 하(下)의 납(納)세(稅) 관(觀)념(念)이 철(鐵)저(저)히 된(된) 것(것)에(에) 있(있)다(다) 하(하)여(여) 매(매)우(우) 기(期)뻐(뻐)하(하)는(는)다(다).

**麟蹄愛國美談**

【仁濟】 인(仁)제(濟)군(郡)하(下)의 애(愛)국(國)반(班)과 농(農)촌(村)진(進)흥(興)회(會) 등(等) 각(各)단(團)체(體)의 애(愛)국(國)열(烈)에 불(不)타(타)는 헌(獻)금(金) 일(一)속(速)

1. 인(仁)제(濟)군(郡) 내(內)면(面) 울(울)진(津)리(里) 이(李)현(顯)동(洞) 애(愛)국(國)반(班) 반(班)원(員)들(들)은(은) 일(一)본(本)군(郡)[黃(黃)군(軍)]장(將)병(兵)의 노(勞)고(苦)를 생(生)각(覺)하(하)고(고) 나(木)를(를) 해(解)서(서) 팔(賣)은(은) 돈(돈) 10圓(圓)을(을) 국(國)방(防)헌(獻)금(金) 하(하)였(었)으(으)며(며)
2. 인(仁)제(濟)군(郡) 내(內)면(面) 자(紫)운(雲)리(里) 운(雲)두(頭)동(洞) 애(愛)국(國)반(班)원(員)들(들)도(도) 일(一)본(本)군(郡)[黃(黃)군(軍)]의 노(勞)고(苦)에 감(感)격(格)하(하)여(여) 농(農)한(閑)기(期)를(를) 이(利)용(用)하(하)서(서) 나(木)를(를) 해(解) 팔(賣)아(아)가(가)자(자)고(고) 70圓(圓)55錢(錢)을(을) 국(國)방(防)비(費)에(에) 서(書)달(達)라(라)고(고) 헌(獻)금(金)하(하)였(었)다(다).
3. 그(그)리고(고) 인(仁)제(濟)군(郡) 인(仁)제(濟)면(面) 가(加)아(阿)리(里) 1구(區) 농(農)촌(村)진(進)흥(興)회(會) 회(會)원(員) 김(金)동(洞)현(顯) 외(外) 24名(名)은(은) 3월(月) 2日(日) 경(警)찰(察)서(署) 주(主)최(催) 좌(座)담(談)회(會)에(에)서(서) 시(時)국(局)에(에) 대(對)한(한) 강(講)연(演)을(을) 듣(聽)고(고) 감(感)격(格)하(하)여(여) 근(勤)로(로)보(保)국(國)에(에) 의(依)해(해)서(서) 국(國)방(防)헌(獻)금(金)을(을) 하(하)기(기)로(로) 결(決)의(意)한(한) 후(後) 이(이)튿(튿)날(日)인(日) 3日(日)은(은) 아(아)침(晨)에(에) 1時(時)간(間)동(動)안(安) 목(木)재(材)운(運)반(搬)을(을) 하(하)고(고) 얻(얻)은(은) 돈(돈) 2圓(圓) 55錢(錢)을(을) 헌(獻)금(金)하(하)였(었)으(으)며(며)

1940-03-12-03-05

### 매일신보

#### 목재조합 결성 인제군에서

【인제】 인제군은 산군이다. 거주민 태반이 산림으로서 생활을 하며 또 현하 제물이 통제하에 이를 방지할 수 없어 7일 군회의실에서 목재업자 총회를 열고 목재업조합이 조직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조합원이 지정되고 조합역원도 선거하였다.

조합장 김영제 부조합장 이기룡 평의원 이보현 민경호 황선언 이진국 조합원 김정수 심재호 송영재 김재식 정기봉 본사지국장 이동규

1940-03-12-03-11

### 매일신보

#### 제탄조합을 인제군서 결성

【인제】 지난 7일 인제군청회의실에서 목재조합이 결정하였는데 목재조합원 가입금은 100원이고 제탄조합 가입금은 1인당 10원이라 하며 조합원은 22명인데 조합장은 상본진차, 부조합장은 민경호 양씨가 당선되었다.

1940-04-03-03-04

### 매일신보

#### 인제농회 총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1940년도 군농회 예산총회를 3월 30일 군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방범주 의원으로부터 농촌진흥 시설비와 양잠비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진국 의원으로부터 농사비 중고지대 대책 장려비를 삭제한 것은 산군 인제를 위하여 부당한 일이라고 장시간 의논이 분분하였다. 기타 일반 항목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후 2시 이어서 작년에 실행한 각종 농식품 평회 상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1940-04-05-03-10

### 매일신보

#### 인제학교비 평의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3월 29일 학교평의회와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고 1940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특히 향교 예산에는 식수비를 계상하여 문묘 주위에 장록수를 심게 한 외에 사례의 범의 실행, 생활 개선에 따른 애국반 훈련에 대하여 상당한 예산을 계상한 등 예년에 없는 시설 항목이라 하여 각의원은 화기에애리에 회의의를 마쳤다 한다.

**木材組合結成**  
麟蹄郡에서

【麟蹄】 린제군은 산군(山郡)이다. 거주민 태반이 산림이어서

생업을하며 또 현하 제물이 통제하에 이를 방지할 수 없어 7일 군회의실에서 목재업자 총회를 열고 목재업조합이 조직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조합원이 지정되고 조합역원도 선거하였다.

조합장 김영제 부조합장 이기룡 평의원 이보현 민경호 황선언 이진국 조합원 김정수 심재호 송영재 김재식 정기봉 본사지국장 이동규

**製炭組合을**  
麟蹄郡서 結成

【麟蹄】 지난 7일 인제군청회의실에서 목재조합이 결정하였는데 목재조합원 가입금은 100원이고 제탄조합 가입금은 1인당 10원이라 하며 조합원은 22명인데 조합장은 상본진차, 부조합장은 민경호 양씨가 당선되었다.

**麟蹄農會總會**

【麟蹄】 린제군에서는 1940년도 군농회 예산총회를 3월 30일 군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방범주 의원으로부터 농촌진흥 시설비와 양잠비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진국 의원으로부터 농사비 중고지대 대책 장려비를 삭제한 것은 산군 인제를 위하여 부당한 일이라고 장시간 의논이 분분하였다. 기타 일반 항목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후 2시 이어서 작년에 실행한 각종 농식품 평회 상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麟蹄學校費評議會**

【麟蹄】 린제군에서는 3월 29일 학교평의회와 학교장 회의를 개최하고 1940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특히 향교 예산에는 식수비를 계상하여 문묘 주위에 장록수를 심게 한 외에 사례의 범의 실행, 생활 개선에 따른 애국반 훈련에 대하여 상당한 예산을 계상한 등 예년에 없는 시설 항목이라 하여 각의원은 화기에애리에 회의의를 마쳤다 한다.

1940-04-09-03-03

### 매일신보

#### 창씨상담소 인제서 설치

【인제】 인제군에서는 창씨좌담회를 그간 여러 가지로 개최하였으나 여러 민중은 그 절차를 몰라 주저하는 모양이므로 각면에 창씨상담소를 설치하고 창씨작명 수속을 차려주도록 하였다 하는데 그 주임은 면 호적서기로 하였다.

1940-04-10-03-01

### 매일신보

#### 강원도내 6개군에 신사 조어영 계획 금년 중 2군에 보조

【춘천】 강원도에서는 국제명징과 경신숭조의 관념을 계배하기 위하여 신사의 조어영을 장려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철원, 장전, 원주, 삼척, 강릉, 인제 6개군에서 신사를 조어영하기로 되어 방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도에서는 그 중에 2개군에 대하여 2천 원씩 보조를 하고자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한다.

1940-04-10-03-07

### 매일신보

#### 인제군 지원병 필기시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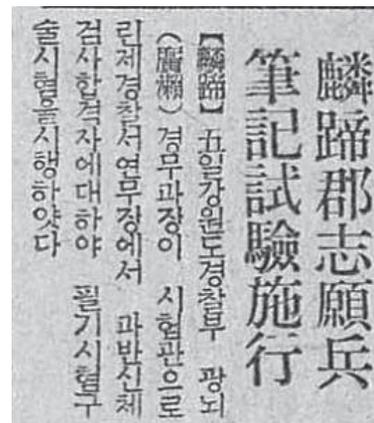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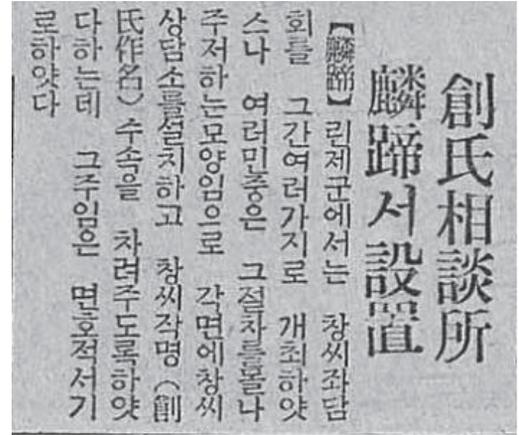
【인제】 5일 강원도경찰부 광복 경무과장이 시험관으로 인제경찰서 연무장에서 지난번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구술시험을 시행하였다.

1940-04-12-03-08

### 매일신보

#### 금춘 5월 중순경에 꽃의 설악을 촬영 강원도 영화반 출동

【춘천】 인제와 양양 군경에 있는 설악산은 연봉계곡과 괴기 암석이 중첩하여 천하 무비의 위관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만산을 붉게 물들여 그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승경은 영봉 금강산보다도 나오면 나왔지 못하지 않을 만큼 입과 붓으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신비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전년에 인제 양양 두 군에서 이 명승을 널리 천하에 소개하고자 도 당국의 응원을 얻어가지고 명승과 고적의 구석구석을 고루고루 돌아다니며 단풍의 설악을 촬영한 일이 있는데 금년에는 오는 5월 중에 『철쭉』이 피게 되면 또다시 도 영화반이 출동하여 꽃의 설악을 『필름』에 집어넣으리라 한다. 이 설악산에는 경계만 절승할 뿐 아니라 유서와 역사가 깊은 백담사 신흥사 등의 고찰과 대소암이 있어서 더욱 유명하며 표고 1,700m나 되는 청봉에 오르게 되면 멀리 동방을 부감할 수 있어 망망한 동해가 눈앞에 전개되는 등 천하의 절승임을 탄식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양양관내에는 오색온천과 오색약수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설로 유명한 오색목이 있다느니 만치 이번의 영화 촬영이 끝나게 되면 천하무류의 명승이 향기로운 꽃과 함께 은막 울동하여 널리 소개될 것으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가야동 계곡의 위관)



1940-04-14-03-04

매일신보

4천호에 3만명 선풍 같은 감격 속에서 강원도 각지에 씨창설열 비등

【춘천】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씨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데 대하여 2,300만 조선민중은 선풍과 같은 감격 속에서 창씨를 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지난 2월 11일 기원가절을 기하여 씨 설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였는데 앞을 다투어가며 신고하는 자가 날로 늘어서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즉 2월 11일부터 3월 그믐까지에 신고한 사람도 경찰부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4,280호에 29,509명으로 이를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씨창설호수	가족수	군별	씨창설호수	가족수
춘천	88	598	인제	90	748
양구	159	1,172	회양	73	443
통천	294	1,772	고성	285	1,951
양양	77	652	강릉	152	897
삼척	129	952	울진	1,215	9,024
정선	203	1,228	평창	270	1,590
영월	129	828	원주	211	1,292
횡성	56	443	홍천	73	540
화천	107	798	김화	107	498
철원	157	894	평강	102	657
이천	260	2,292			
계	4,218	15,509			

1940-04-14-03-05

매일신보

도내를 3구로 분해 묘대품평회 개최 강원에서 5월 초순에

【춘천】 강원도에서는 못자리 개량의 철저를 기하고자 오는 5월 초순부터 못자리 개량 품평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출품구역은 정선군을 제외한 20개 군으로 다음과 같이 3구로 나누어 리를 단위로 출품케 하리라 한다. 그리하여 1개군 6개리를 심사하기로 되었는데 그중에 1개리는 군내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부락으로 하고 5개리는 도농회에서 제비(추첨)를 뽑아 결정할 터인데 심사 결과에 의하여 군농회와 부락을 표창하기로 되었다.

◇출품구역

제1구=춘천 인제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 7개군

제2구=양구 화천 회양 김화 철원 평강 이천 7개군

제3구=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6개군

◇심사채점

▲종자갱신 5점 ▲종자에조 10점 ▲묘대설치방법 20점 ▲양상상황

20점 ▲파종상황 20점 ▲비배관리 25점 ▲계 100점

◇포상 1. 군농회=1등(3) 40원식 ▲2등(6) 30원식 ▲3등(8) 20원식

2. 부락=1등(3) 15원식 ▲2등(6) 10원식 ▲3등(9) 5원식

四千戸に三萬名  
旋風が感激속에서

江原道各地에 氏創設熱沸騰

군명	호수	가족수
春川	88	598
襄陽	159	1,172
通川	294	1,772
襄陽	77	652
三陟	129	952
正善	203	1,228
英月	129	828
橫城	56	443
花川	107	798
鐵原	157	894
利川	260	2,292
계	4,218	15,509

道內를 三區로 분해  
苗代品評會開催  
江原서 五月初旬에

【춘천】 강원도에서는 묘대(苗代)라는 도농회에서 제비(추첨)를 뽑아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농회와 부락을 표창하기로 하였다.

◇출품구역  
제1구=춘천 인제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 7개군  
제2구=양구 화천 회양 김화 철원 평강 이천 7개군  
제3구=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6개군

◇심사채점  
▲종자갱신 5점 ▲종자에조 10점 ▲묘대설치방법 20점 ▲양상상황 20점 ▲파종상황 20점 ▲비배관리 25점 ▲계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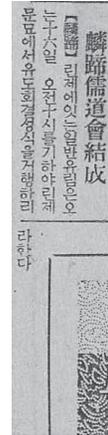
◇포상 1. 군농회=1등(3) 40원식 ▲2등(6) 30원식 ▲3등(8) 20원식  
2. 부락=1등(3) 15원식 ▲2등(6) 10원식 ▲3등(9) 5원식

1940-04-15-02-06

### 매일신보

#### 인제유도회 결성

【인제】 인제에 있는 일반유림은 오는 16일 오전10시를 기하여 인제문묘에서 유도회 결성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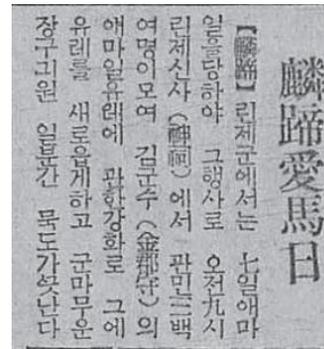


1940-04-16-03-03

### 매일신보

#### 인제 애마일

【인제】 인제군에서는 7일 애마일을 당하여 그 행사로 오전9시 인제신사에서 관민 300여명이 모여 김 군수의 애마일 유래에 관한 강화로 그의 유래를 새롭게 하고 군마 무운장구 기원 1분간 묵도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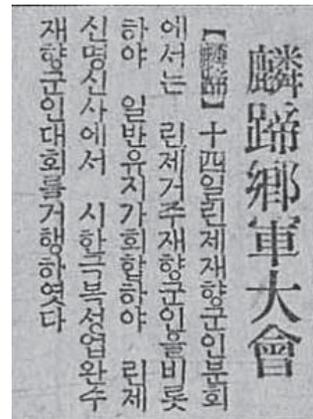


1940-04-17-03-03

### 매일신보

#### 인제향군대회

【인제】 14일 인제재향군인부회에서는 인제 거주 재향군인을 비롯하여 일반 유지가 회합하여 인제 신명신사에서 시한 극복 성업 완수 재향군인대회를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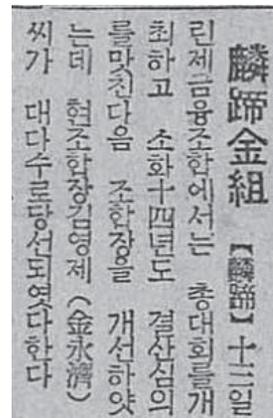


1940-04-18-03-08

### 매일신보

#### 인제금융조합

【인제】 13일 인제금융조합에서는 총대회를 개최하고 1939년도 결산 심의를 마친다음 조합장을 개선하였는데 현 조합장 김영제씨가 대다수로 당선되었다 한다.



1940-04-19-03-10

### 매일신보

#### 인제향교장의 미거

【인제】 15일 춘천비상전제에 인제군향교 장의들이 주식비를 절약하여 금 10원을 국방헌금으로 경찰서에 헌납하였다.

1940-04-20-03-07

### 매일신보

#### 인제유도회 결성식 성황

【인제】 16일 인제 명륜당에서 금촌 군수 좌장하에 유도회 결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그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 회장 금촌 군수
- 부회장 엄정환, 이종목
- 이사 이동규, 이성구, 이종설, 신상우
- 감사 김재은 심병흠, 군 내무과장, 경찰서 사법주임
- 평의원 인제면 김영제 외 9명, 남면 허찬 외 3명, 북면 이종태 외 4명, 서화면 신두균 외 3명, 기린면 이기룡 외 3명, 내면 임광호 외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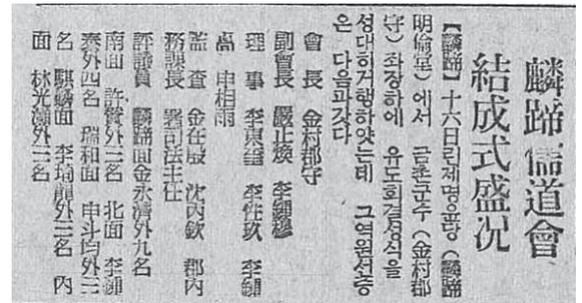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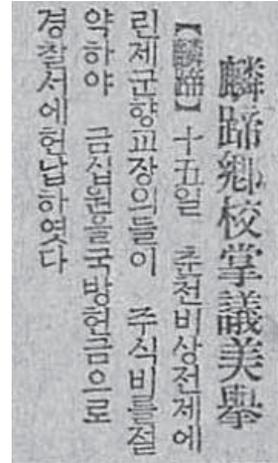
1940-04-23-04-04

### 매일신보

#### 파종 독려반 강원서 출동

【춘천】 강원도에서는 파종기를 위시하여 묘대 설치, 가마니 증산의 일층 독려를 겸하여 잡곡 현재고 조사 상황을 청취하고자 농부, 농진 두 과장 이하 기술원 등으로 7개반의 독려반을 조직한 후 지난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각군에 출장하기로 되었는데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독려반과 검사반 일정
- ▲대산 기사 18일부터 21일까지 김화 철원에 ▲중천 기사 19일부터 28일까지 원주 강릉 삼척 울진에 ▲농진과장 산구 기사 22일부터 28일까지 통천 고성 양양에 ▲사기 기사 18일부터 24일까지 정선 평창 영월에 ▲울말 기사 18일부터 24일까지 춘천 인제 양구 화천에 ▲태전 기사 19일부터 22일까지 횡성 홍천에 ▲한 기사, 전 기사 18일부터 24일까지 회양 평강 이천에
- 농무과장은 이 기간 중 적의 출장 독려를 가하고 군별 일정은 각 담임자로부터 통지함.



1940-04-24-03-02

### 매일신보

## 중돈생산부락 설치 양돈을 적극 장려, 강원서 구입비 보조

【춘천】 중일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군수 자원의 수요도 점차 격증될 추세에 있는데 그 중에도 각종 모피가 군수품으로 많이 수요되고 있음에 이의 공급을 유감없이 하고자 축우, 면양, 양돈 등 가축 전반에 대한 일대 증식 계획을 수립한 외에 다시 돼지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각군에 양돈 장려 부락을 설치하는 등 금년도까지 4만마리 증식을 목표로 적극 장려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42개소(1군 2개소) 중돈생산부락을 두어 증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는 다시 100여개소의 중돈생산부락을 설치하여 920두의 중돈을 대부해가지고 증식을 기도하기로 하였는데 중돈 375마리 구입비 7,500원 중에서 1,500원(1마리 20원 중에서 4원씩)은 도에서 보조하기로 되었다.

각군별 설치 마리수와 보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중돈설치수	중돈설치구입비	중돈설치보조비
춘천	60	240	68
인제 (중략)	38	160	32
계	921	7,500	1,500

1940-04-28-06-15

### 매일신보

## 상업등기공고

주식회사 선익상회(변경) 1940년 3월 10일 주주총회에 있어서 당사 정관 제5조를 좌와 같이 변경함. 제5조 당회사의 공고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위함

주식회사 선익상회(변경) 취체역 전원 임기만료이었는데 1940년 3월 10일 주주총회에 있어서 박한표, 고익진, 이두한, 이태우, 임용상은 재선되어 중임하였음. 회사를 대표할 취체역 박한표 이두한

우 1940년 4월 9일 등기  
서울지방법원 인제출장소

1940-05-07-03-02

### 매일신보

## 인제 건강주간

【춘천】 5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간을 국민건강주간으로 하고 건강감사와 기원제 등 각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種豚生産部設置  
養豚者積極獎勵  
江原道購入費補助

【춘천】 江原道는 種豚生産部를 設置하고 養豚者에 對하여 積極的인 獎勵를 行할 爲미 江原道 農務廳에 屬한 種豚購入費補助를 實施하기로 하였다. 이 補助는 種豚 1마리 당 20원(도에서 4원씩)을 補助하고 있다. 이 補助를 受領하기 爲미 養豚者은 農務廳에 申請하고 審査를 受들 後에 補助를 受領할 可하다.

養豚者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補助費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 商業登記公告

株式會社善翼商會(變更) 物租拾五年參月拾日株主總會에서서 當社定款第五條를 좌와 如하 變更한 第五條當會社의 公告는 朝鮮總督府官報에 揭載하야 此를 爲함

株式會社善翼商會(變更) 取締役 全員任期滿了 이든 物租拾五年參月拾日株主總會에서서 朴漢表 高翼振 李斗漢 李台雨 林龍相 을 再選되 어 重任하야 該會社를 代表할 取締役 朴漢表 李斗漢

右 昭和拾五年四月九日登記

京城地方法院 麟蹄出張所

## 麟蹄健康週問

【麟蹄】 五月二일부터 八일까지 一주간을 국민건강주간으로 하고 건강감사와 기원제(祈願祭) 등 각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1940-05-12-03-07

### 매일신보

#### 가계부 심사 홍천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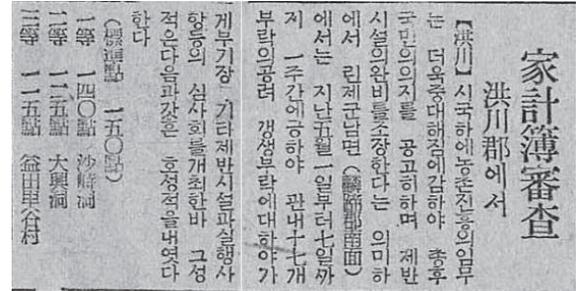
【홍천】 시국 하에 농촌진흥의 임무는 더욱 중대해짐에 비취 총후 국민의 의지를 공고히 하며 제반 시설의 완비를 조장한다는 의미 하에서 인제군 남면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에 걸쳐 관내 17개 부락의 공려쟁생부락에 대하여 가계부 기장 기타 제반 시설과 실행사항 등의 심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적은 다음과 같은 호성적을 내었다 한다.

(표준점 150점)

1등 140점 사치동

2등 125점 대흥동

3등 115점 익전리 곡촌



1940-05-14-03-06

### 매일신보

#### 인제 노력 부족 각종 공사 부진

【인제】 인제군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여 준공기는 자연히 천연되고 있다.



1940-05-14-03-08

### 매일신보

#### 인제 혼식 철저

【인제】 인제군 서화면에서는 청결 검사를 아울러 가가호호에 식사를 검사한 결과 면 소재지인 서화리 200여호에 여관 영업 2호만 쌀밥이고 전부가 혼식이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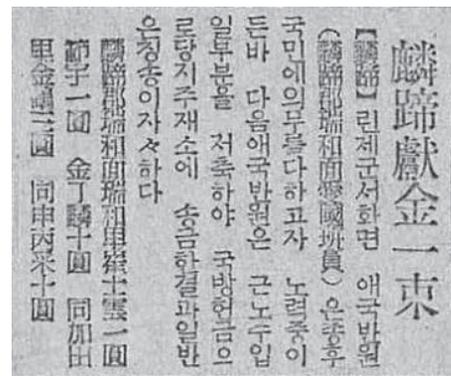


1940-05-15-03-03

### 매일신보

#### 인제 헌금 일속

【인제】 인제군 서화면 애국반원은 총후국민에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 중이었는데 다음 애국반원은 근로수입 일부분을 저축하여 국방헌금으로 당지 주재소에 송금한 결과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최사운 1원, 범우 1원, 김정린 10원, 가전리 김학 3원, 가전리 병채 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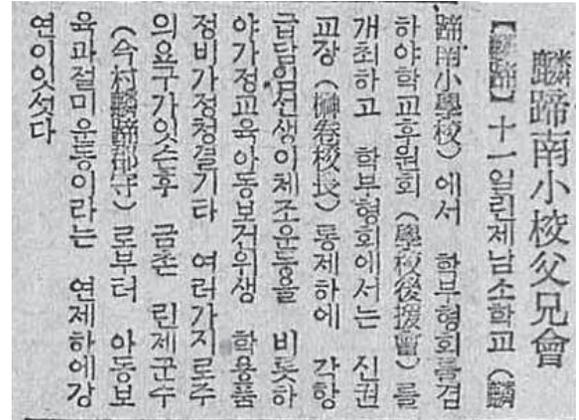


1940-05-15-03-05

### 매일신보

#### 인제남소교 부형회

【인제】 11일 인제 남소학교에서 학부형회를 겸하여 학교 후원회를 개최하고 학부형회에서는 신권 교장 통제하에 각 학급 담임선생이 체조운동을 비롯하여 가정교육, 아동보건위생, 학용품 정비, 가정청결, 기타 여러 가지로 주의 요구가 있을 후 금촌 인제군수로부터 아동 보육과 절미운동이라는 연제 하에 강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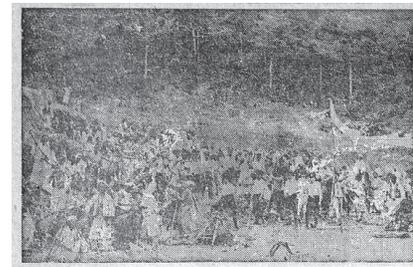
1940-05-20-03-03

### 매일신보

#### 인제신사 조영 애국반원들 봉사

【인제】 인제군정신총동원연맹은 매월 1일, 15일을 근로봉사일로 작정하고 작년 10월부터 실시하였는데 그간 여러 가지 근로수입도 있었지만은 폐품 회수로만 수입된 것이 1천여원에 달하였다 한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인제신사 부지 공사에는 각 부락애국반원이 총출동하여 근로봉사를 하는 중이라 한다.

(사진은 인제애국반원들의 근로 봉사 광경)



麟蹄新社造營  
愛國班員들 봉사  
인제군정신총동원연맹은 매월 1일, 15일을 근로봉사일로 작정하고 작년 10월부터 실시하였는데 그간 여러 가지 근로수입도 있었지만은 폐품 회수로만 수입된 것이 1천여원에 달하였다 한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인제신사 부지 공사에는 각 부락애국반원이 총출동하여 근로봉사를 하는 중이라 한다.

1940-06-04-03-03

### 매일신보

#### 최고는 올진 75mm 평균 35mm 정도 강원 각지 우량 집계

【춘천】 강원도내 일대에는 지난 29일부터 대망의 비가 내려 농촌에는 기쁨으로 가득차있는데 도경찰부에 들어온 각지의 보고에 의하면 30일부터 6월 1일까지의 내린 우량은 올진이 75mm를 최고로 고성의 14mm6의 최저인데 평균으로 보면 35mm에 해당하며 이번 비는 각군 모두 고루고루 내렸다 한다. 우량이 아직도 흠족하지는 못한 편이기는 하나 금년의 농형을 작년에 비한다면 지금 상태로도 풍년에 진배 없다하여 농민들은 매우 긴장해서 모내기에 분주하고 있다 한다. 이번 우량을 각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춘천 34.9mm ▲인제 30.7mm ▲양구 35.8mm (중략)

最高는蔚珍七五耗  
平均卅五耗程度  
江原各地雨量集計

【춘천】 강원도내 일대에는 지난 29일부터 대망의 비가 내려 농촌에는 기쁨으로 가득차있는데 도경찰부에 들어온 각지의 보고에 의하면 30일부터 6월 1일까지의 내린 우량은 올진이 75mm를 최고로 고성의 14mm6의 최저인데 평균으로 보면 35mm에 해당하며 이번 비는 각군 모두 고루고루 내렸다 한다. 우량이 아직도 흠족하지는 못한 편이기는 하나 금년의 농형을 작년에 비한다면 지금 상태로도 풍년에 진배 없다하여 농민들은 매우 긴장해서 모내기에 분주하고 있다 한다. 이번 우량을 각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춘천 34.9mm	▲양구 35.8mm
▲인제 30.7mm	▲강릉 38.2mm
▲속초 32.1mm	▲홍천 36.5mm
▲원주 31.5mm	▲평창 34.8mm
▲정선 33.0mm	▲철원 37.1mm
▲고성 14.6mm	▲영월 35.4mm
▲태백 32.8mm	▲강령 34.9mm
▲진천 31.2mm	▲속초 32.1mm
▲삼척 30.5mm	▲양구 35.8mm
▲고성 14.6mm	▲영월 35.4mm
▲태백 32.8mm	▲강령 34.9mm
▲진천 31.2mm	▲속초 32.1mm
▲삼척 30.5mm	▲양구 35.8mm

1940-06-04-03-09

**매일신보**

**설악산 기록 영화 철쭉꽃을 배경으로 인제, 양양군서 촬영**

【춘천】 인제와 양양군경에 있는 설악산 연봉 계곡과 기암절벽이 중첩하여 천하무비의 위관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춘하절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전산을 곱게 물들여 그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승경은 영봉 금강산을 능가할 만큼 설필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객년에 인제와 양양 두군에서는 이 명승을 널리 천하에 소개하고자 도당국의 응원을 얻어가지고 명승과 고적의 구석구석을 고루고루 돌아다니며 단풍의 설악을 촬영한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꽃(철쭉꽃)의 설악을 '필름'에 집어넣어 철저히 선전하고자 도 영화반이 현지에 출동하였다. 즉 지난 2일에도 사회과 아부 영화반 기수가 송 고원을 대동하고 현지로 출장하였는데 3일은 오세암, 4일은 봉정암, 5·6일은 청봉의 순서로 연로 각지의 화경을 촬영한 다음 7일 인제로 나왔다가 양양 속초 간성에서 작년에 촬영한 영화를 공개한 후 11일 경에 귀임하리라는데 이번에 촬영하는 영화가 완성되는 날에는 영봉 설악은 일층 널리 소개될 것이라 하여 크게 기대되고 있다 한다. (사진은 황철산 일대)

1940-06-12-03-01

**매일신보**

**인제군에서는**

【인제】 인제군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이래 농산촌에서는 전력을 거하여 전시국책의 수행에 협력하고 그 미증유의 한해를 조우하였어도 이를 극복하며 협력일치로 생업보국에 성의를 다하였으나 이를 일층 공고케 하며 실전을 도모하여 시국하 농산촌의 부하할 사명을 수행코자 농업보국주간을 결정하고 각관공서 직원 총동원하에 지도하기로 되었다.

1940-06-12-03-02

**매일신보**

**3만5천여 호에 23만명 돌파 강원도 창씨열 고조**

【춘천】 조선인에게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씨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되자 2300만 민중은 감격한 나머지 앞을 다투어가며 씨의 설정을 급히 하고 있는 중인데 강원도에도 씨를 설정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서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즉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난 2월 11일 기원절날부터 5월 말일까지의 설정상황을 보면 호수로 35,752호에 가족수가 232,219인이라는데 5월 한달동안에만 24,596호에 157,278인이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이 신고자가 다달이 격증되어가는 것은 신고기간이 앞으로 불과 두달밖에 남지 않은 것과 처음에는 수속방법을 몰라 주저하고 있다가 요즘에 신고를 하게되는 때문이라는게 기한이 하루하루 절박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격증을 보게 될 터이라 한다. 5월 말일까지의 각군별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군별	호수	가족수	군별	호수	가족수	군별	호수	가족수
춘천	787	4,879	인제	576	4,885	양구	1,633	11,691



【足跡】 願節部에서는支那事を擧發以來 農山村에서는 全力을擧하야 戰時國策의 遂行에協力하고 未曾有의 努力을 遭遇하였서도 이를克服하며 協力一致로 生業報國에誠意을다 하얏스나 이를一層鞏固케하며 實踐을圖謀하야時局下 農山村의 負擔할使命을 遂行코자農業報國週間을決定하고 各官公署職員總動員下에 指導하기로되었다

**二萬五千餘戸에 廿二萬名突破 江原道創氏熱高潮**

郡	戶數	人口數	郡	戶數	人口數	郡	戶數	人口數
春川	1,011	8,301	南浦	1,011	8,301	襄陽	1,011	8,301
... (other counties listed)	...	...	...	...	...	...	...	...

1940-06-12-03-03

### 매일신보

#### 산금전 인제로 결정

【인제】 인제군에서는 전등가설기성회를 조직하고 그간 누차 운동 중 5월 20일 기성회 임원이 상경하여 각방면에 운동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산금전은 인제로 결정되었다는 희보가 있었다.

1940-06-14-03-07

### 매일신보

#### 인제 허위 강도

【춘천】 인제군 기린면 광원리 김인수의 집에 묵고 있는 김경태(39)는 지난 5일 오후 6시경 인제군 내면 창촌리 길 위에서 4인조 강도단을 만나 현금 158원21전을 강탈당한 사건이 있다 하여 내면주재소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동주재소에서는 시각을 지체치 않고 경방단원 40여명을 풀어서 수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취조한 결과 6일에 이르러 허위신고로 판명되었다 한다. 그같이 밀짚한 거짓말을 하게된 것은 그날이 마침 장날이므로 7원을 가지고 술을 마셔버린 후 되는데로 꾸며낸 것이라는데 인제경찰서에서는 후일을 경계하기 위하여 구류처분을 하였다 한다.

1940-06-15-03-06

###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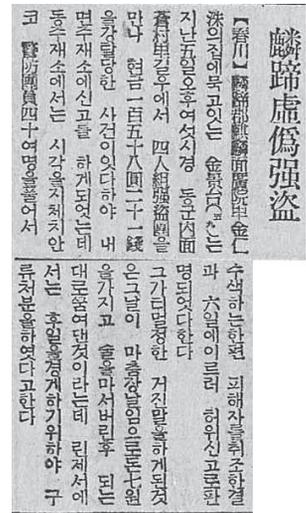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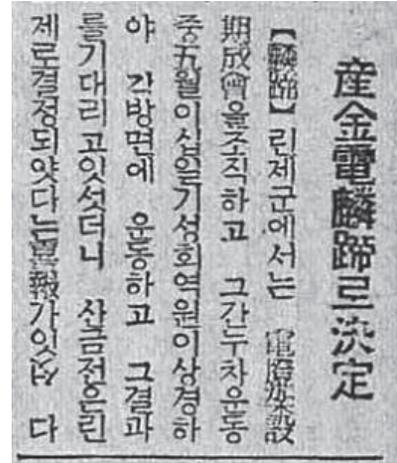
#### 강원도의 소작쟁의 권해성립이 다수 금년 중 500건 발생

【춘천】 금년 1월부터 4월 말일까지 녉달동안에 일어난 강원도내의 소작쟁의 건수를 보면 전부 508건으로 그중에 해결된 것이 권해 전취하가 70건 권해성립이 85건이라 하며 권해 성립의 내용을 보면 소작인의 요구대로 관철된 것이 68건 요구를 철회한 것이 8건 당사자끼리 양보한 것이 9건이라 한다.

그런데 쟁의건수 507건에 대한 신입내용을 보면 지주신입은 불과 11건이고 나머지 496건은 전부 소작인들이 신입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대한 불만은 적은 반면에 소작인들은 지주들의 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 하여 그같이 신입을 많이 하게되는 모양이라 한다.

#### ▲각종 쟁의 발생건수

▲춘천 25 ▲양구 12 ▲회양 5 ▲통천 80 ▲고성 38 ▲양양 60 ▲강릉 104 ▲삼척 13 ▲울진 5 ▲평창 15 ▲영월 5 ▲원주 57 ▲횡성 45 ▲홍천 4 ▲화천 15 ▲철원 9 ▲평강 5 ▲이천 10 ▲인제 정선 김화는 무 ▲계 507건



1940-06-15-03-07

### 매일신보

## 설악산에 보안림 인제, 양양군의 3천 정보 편입, 자연의 신비경 조성

【춘천】인제와 양양 군계에 있는 영봉 설악산은 장엄한 산악이 중첩한 품이라든지 기암계곡의 신비스러운 맛이 세계적 명승 금강산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하여 관계군민들은 이 경승을 널리 천하에 소개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을 뿐 더러 도에서도 작년에 영화반을 출동시켜 명승과 고적의 구석구석을 촬영한 일이 있었고 며칠 전에도 꽃의 설악을 촬영해 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설악은 심사를 거듭할수록 진가는 더욱 빛날 뿐이어서 도에서도 금후 설악의 승경을 영구 보존하는 동시에 제2금강으로서 천하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명승 구역으로 만들고자 대규모의 보안림을 조성하기로 드디어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즉 인제와 양양 군내에 있는 국유 사유 사찰림 제3천여 정보를 보안림으로 편입하여 자연의 풍치를 더욱 값나가는 하리라는 데 사유림과 사찰림은 임주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교섭을 하기 위하여 불의 계원이 현지에 출장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 설악산 일대는 금강산과 같이 인공을 가했다거나 또는 속화된 점은 찾아볼래야 볼 수 없어서 자연 그대로의 신비경을 이루고 있는 만치 도의 본격적 선전에 의하여 그 성가는 더욱 높아지게 될 터이라 한다. (사진은 가야계의 승경)

1940-06-15-03-08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금융조합 저축책임액 결정, 각 지방에 협력요구

【춘천】강원도내 금융조합의 1940년도 저축장려에 대하여는 전선 금융조합 할당예산액 8,400만원에 호응해서 일용 강원도의 순증목표예정액을 550만원으로 정한 후 지난번 이사타합회에서 각금융조합의 분담액을 협의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지부장협의회에서 금조 순증가 목표액을 1억원에 증액하여 강원도에 660만원(당좌예금을 포함치않음)을 할당해 오게 되었으므로 각조합별 할당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8일날짜로 각각 통첩을 내었다 한다.

◇ 금조 저금증가할당액 (단위 천원)

- ▲강릉조합(이상 조합 생략) 160 ▲원주 140 ▲철원 165 ▲김화 160
- ▲춘천제2 80 ▲이천 73 ▲통천 290 ▲양양 220 ▲울진 145 ▲홍천 205
- ▲영월 210 ▲삼척 360 ▲금성 80 ▲평강 158 ▲간성 112 ▲대화 66
- ▲양구 165 ▲회양 145 ▲화천 120 ▲횡성 16 ▲인제 190 ▲정선 140
- ▲고성 350 (중략) ▲합계 6,600

1940-06-18-03-10

###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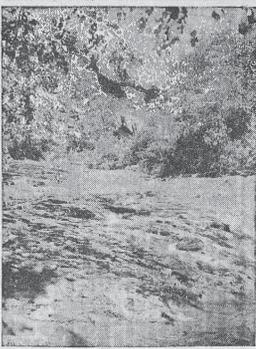
## 인제 정례 면장회의

【인제】인제군 정례 면장회의의 6월 18, 19일 양일간이라 한다.

### 雪嶽山에保安林

麟蹄、襄陽郡의 三丁步編入  
自然의 神秘境界 造成

雪嶽山(설악산)은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에 걸쳐 있는 명승이다. 이 산악의 장엄함과 기암계곡의 신비로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강원도에서는 이 경승을 널리 천하에 소개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을 뿐 더러 도에서도 작년에 영화반을 출동시켜 명승과 고적의 구석구석을 촬영한 일이 있었고 며칠 전에도 꽃의 설악을 촬영해 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설악은 심사를 거듭할수록 진가는 더욱 빛날 뿐이어서 도에서도 금후 설악의 승경을 영구 보존하는 동시에 제2금강으로서 천하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명승 구역으로 만들고자 대규모의 보안림을 조성하기로 드디어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즉 인제와 양양 군내에 있는 국유 사유 사찰림 제3천여 정보를 보안림으로 편입하여 자연의 풍치를 더욱 값나가는 하리라는 데 사유림과 사찰림은 임주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교섭을 하기 위하여 불의 계원이 현지에 출장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 설악산 일대는 금강산과 같이 인공을 가했다거나 또는 속화된 점은 찾아볼래야 볼 수 없어서 자연 그대로의 신비경을 이루고 있는 만치 도의 본격적 선전에 의하여 그 성가는 더욱 높아지게 될 터이라 한다. (사진은 가야계의 승경)



### 江原道內金融組合 貯蓄責任額決定

各地方에 協力要求

【춘천】강원도내 금융조합의 1940년도 저축장려에 대하여는 전선 금융조합 할당예산액 8,400만원에 호응해서 일용 강원도의 순증목표예정액을 550만원으로 정한 후 지난번 이사타합회에서 각금융조합의 분담액을 협의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지부장협의회에서 금조 순증가 목표액을 1억원에 증액하여 강원도에 660만원(당좌예금을 포함치않음)을 할당해 오게 되었으므로 각조합별 할당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8일날짜로 각각 통첩을 내었다 한다.

- ▲강릉조합(이상 조합 생략) 160 ▲원주 140 ▲철원 165 ▲김화 160
- ▲춘천제2 80 ▲이천 73 ▲통천 290 ▲양양 220 ▲울진 145 ▲홍천 205
- ▲영월 210 ▲삼척 360 ▲금성 80 ▲평강 158 ▲간성 112 ▲대화 66
- ▲양구 165 ▲회양 145 ▲화천 120 ▲횡성 16 ▲인제 190 ▲정선 140
- ▲고성 350 (중략) ▲합계 6,600

### 麟蹄定例面長會議

六月十九日兩日間이라 한다

1940-06-23-03-01

### 매일신보

## 8만원 공비로 설악산 탐승도로 인제군서 계획 진행

【양양】 인제군 금촌 군수는 부임 이래 지방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가하여 본군은 약진적 혁신의 면목을 갖추어오는데 일반 군민의 신망은 자못 심각되어 오던 것이다. 인제 양양군경에 있는 전세계적 명산인 설악산 탐승 고객에게 교통상 불편한 점이 없도록 탐승도로를 개발하여 명승지를 만천하에 선전코자 인제군 용대리에서 설악산까지 들어가는 데 2리가량되는 도로 내금강에 가는 3리간 탐승도로 개발에 8만원 경비를 수립하고 방금 공사에 착착 진행 중이고 또 탐승도로 측에는 처처마다 명승고적을 써서 표찰을 세우는 등 기타 여러 가지로 탐승객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여 설악산 명승을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선전을 하고 있다.

1940-06-26-03-01

### 매일신보

## 우방 만주국 건설의 근로봉사대 파견 강원서 21명 선발

【춘천】 1940년도 만주국 건설근로봉사대로 전조선에서 240명을 뽑아 보내기로 되었는데 강원도에서는 18세 이상 27세까지의 남자 청년단원으로 지방 중견청년 21명(1군1명씩)을 선발하여 보내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오는 28일에 수권 부대장의 인솔로 춘천을 떠나 29일 서울에서 일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리라는 데 결정된 대원은 다음과 같다.

주소	씨명	연령
춘천군 신동면	양창석	25
인제군 북면	김재화	23
양구군 동면	신상균	20
회양군 회양면	궁곡명정	20
통천군 벽양면	서주하	25
고성군 고성면	최석환	21
양양군 현남면	매전개세	23
강릉군 경포면	권학주	25
삼척군 북삼면	최형식	20
영월군 영월면	이만호	18
원주군 원주읍	장윤현	20
홍천군 홍천읍	이두한	24
화천군 화천면	장춘홍	20
김화군 근북면	박남홍	19
철원군 갈말면	박용직	25
평강군 남면	곽기택	24
이천군 이천면	이승규	22
평창군 도암면	김동진	27
울진군 울진면	정택영	18
정선군 정선면	유광무	24

(이상 21명)



### 작년 퇴비 제조량 7억300여만관 강원서 증산에 박차

【춘천】『거름뽕이 쌀뽕이』라는 정신아래 강원도에서는 퇴비 제조의 증산을 적극 장려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도 매년의 제조성적을 놀랄만하여 작년 같은 때에도 7억관이나 넘는 퇴비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도내 농가호수 22만861호에서 퇴비를 제조하는 호수가 21만 1,124호로 1939년 동안에 7억396만2,859관을 제조해내게 되어 제조 농가 1호당 3,324관에 해당했다고 하며 경지면적이 35만2,172정보로 1반보에 대해서 200관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퇴비의 제조장려는 반당 300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목표에는 달치 못하고 있으니 인제군 같은 곳에서는 반당 286관에 이르는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각군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퇴비제조량	1반당제조
춘천	27,973,287	156
인제	40,465,295	286
양구	27,715,860	198
회양	50,122,056	174
통천	22,287,905	167
고성	17,572,795	195
양양	22,852,061	229
강릉	32,927,069	243
삼척	32,595,895	286
울진	18,185,044	211
정선	33,727,050	241
평창	48,416,461	265
영월	30,723,982	234
원주	32,772,108	197
횡성	29,222,755	198
홍천	36,938,806	230
화천	15,603,323	191
김화	50,581,566	189
철원	53,727,043	162
평강	45,079,440	149
이천	34,483,058	161
계	703,862,859	200

## 昨年堆肥製造量 七億二百餘萬貫

### 江原서增産이拍車

【춘천】「거름뽕이 쌀뽕이」라는 정신아래 강원도에서는 퇴비 제조의 증산을 적극 장려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도 매년의 제조성적을 놀랄만하여 작년 같은 때에도 7억관이나 넘는 퇴비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도내 농가호수 22만861호에서 퇴비를 제조하는 호수가 21만 1,124호로 1939년 동안에 7억396만2,859관을 제조해내게 되어 제조 농가 1호당 3,324관에 해당했다고 하며 경지면적이 35만2,172정보로 1반보에 대해서 200관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퇴비의 제조장려는 반당 300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목표에는 달치 못하고 있으니 인제군 같은 곳에서는 반당 286관에 이르는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각군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郡名	堆肥製造量	1反當製造
春川	27,973,287	156
仁濟	40,465,295	286
襄陽	27,715,860	198
淮陽	50,122,056	174
通川	22,287,905	167
高城	17,572,795	195
襄陽	22,852,061	229
江陵	32,927,069	243
三陟	32,595,895	286
蔚珍	18,185,044	211
正善	33,727,050	241
平昌	48,416,461	265
英陽	30,723,982	234
元州	32,772,108	197
橫城	29,222,755	198
洪川	36,938,806	230
華川	15,603,323	191
金化	50,581,566	189
鐵原	53,727,043	162
平康	45,079,440	149
利川	34,483,058	161
計	703,862,859	200

春川漢穀組合總會  
【춘천】春川漢穀組合總會의 산하에 있는 춘천군 퇴비제조조합은 퇴비 제조의 증산을 적극 장려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도 매년의 제조성적을 놀랄만하여 작년 같은 때에도 7억관이나 넘는 퇴비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도내 농가호수 22만861호에서 퇴비를 제조하는 호수가 21만 1,124호로 1939년 동안에 7억396만2,859관을 제조해내게 되어 제조 농가 1호당 3,324관에 해당했다고 하며 경지면적이 35만2,172정보로 1반보에 대해서 200관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퇴비의 제조장려는 반당 300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목표에는 달치 못하고 있으니 인제군 같은 곳에서는 반당 286관에 이르는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각군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0-06-28-03-01

**매일신보**

**광목 당목 옥양목 등 6월 중 1만여필 배급 강원 각군의 분량 결정**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를 단위로 하는 면포배급조합을 조직하는 동시에 종래 면 직조와 거래의 실적이 있는 600여 면화점을 소매상으로 지정하여 광폭면포를 농촌에 배급해주기로 되었다고 함은 이미 보도 하였거니와 6월분으로 1만295포의 구입 전표를 집행하여 각군에 보내어 지정 상인들로 하여금 면포를 사다가 갖도록 수배를 마쳤다 한다. 이번에 할당 배급하는 광폭면포는 광목, 당목, 옥양목 등 7종으로 각군의 인구수에 의하여 할당하였다는 것으로 할당면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6월분 면포 배급 수량 ▲춘천624만 ▲인제 437만 ▲양구 334만 ▲회양 489만 ▲통천 362만 ▲고성 477만 ▲양양 457만 ▲강릉 780만 ▲삼척 738만 ▲울진 489만 ▲정선 358만 ▲평창 498만 ▲영월 477만 ▲원주 500만 ▲횡성 435만 ▲홍천 560만 ▲화천 270만 ▲김화 627만 ▲철원 582만 ▲평강 435만 ▲이천 469만 ▲계 10,395만

1940-07-03-03-01

**매일신보**

**500부락에 1만여호 갱생농가 설정 완료 강원농촌의 여명보**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촌의 갱생을 기도하기 위하여 1933년부터 농가갱생계획을 수립한 후 갱생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한 제8차 갱생계획을 도에서 집계 발표한 것에 의하면 490부락에 1만4,772호를 갱생했다고 한다. 각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군별	갱생계획부락수(부락)	갱생계획수립예정농가호수(호)
춘천	37	837
인제	25	532
양구	15	295
회양	23	552
통천	17	461
고성	9	194
양양	22	294
강릉	26	585
삼척	19	446
울진	15	465
정선	19	416
평창	26	638
영월	24	426
원주	29	602
횡성	18	444
홍천	34	686
화천	13	236
김화	36	875
철원	27	641
평강	18	357
이천	28	482
계	490	19,473

**廣木、唐木、玉洋木等  
六月中萬餘疋配給  
江原各郡의分量決定**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를 단위로 하는 면포배급조합을 조직하는 동시에 종래 면 직조와 거래의 실적이 있는 600여 면화점을 소매상으로 지정하여 광폭면포를 농촌에 배급해주기로 되었다고 함은 이미 보도 하였거니와 6월분으로 1만295포의 구입 전표를 집행하여 각군에 보내어 지정 상인들로 하여금 면포를 사다가 갖도록 수배를 마쳤다 한다. 이번에 할당 배급하는 광폭면포는 광목, 당목, 옥양목 등 7종으로 각군의 인구수에 의하여 할당하였다는 것으로 할당면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6월분 면포 배급 수량 ▲춘천624만 ▲인제 437만 ▲양구 334만 ▲회양 489만 ▲통천 362만 ▲고성 477만 ▲양양 457만 ▲강릉 780만 ▲삼척 738만 ▲울진 489만 ▲정선 358만 ▲평창 498만 ▲영월 477만 ▲원주 500만 ▲횡성 435만 ▲홍천 560만 ▲화천 270만 ▲김화 627만 ▲철원 582만 ▲평강 435만 ▲이천 469만 ▲계 10,395만

**五百部落에萬餘戶  
更生農家設定完了  
江原農村的黎明譜**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촌의 갱생을 기도하기 위하여 1933년부터 농가갱생계획을 수립한 후 갱생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한 제8차 갱생계획을 도에서 집계 발표한 것에 의하면 490부락에 1만4,772호를 갱생했다고 한다. 각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군	부락	호수
춘천	37	837
인제	25	532
양구	15	295
회양	23	552
통천	17	461
고성	9	194
양양	22	294
강릉	26	585
삼척	19	446
울진	15	465
정선	19	416
평창	26	638
영월	24	426
원주	29	602
횡성	18	444
홍천	34	686
화천	13	236
김화	36	875
철원	27	641
평강	18	357
이천	28	482
계	490	19,473

1940-07-03-03-03

### 매일신보

#### 인제 창씨 호적

【인제】 인제군에서 민사령 개정에 의하여 창씨에 대한 취지를 보급코자 이래 각면 각부락까지 좌담회를 누차 개최하였으나 그 실적이 현양치 못하므로 각면에 창씨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취지 선전에 예의 노력한 결과 5월 말 현재 씨 설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인제면 1,321명 남면 375명 북면 600명 서화면 267명 기린면 985명 내면 956명 계 4,513명

1940-07-06-03-08

### 매일신보

#### 수급의 원활 기코져 강원서 빈가마니 회수, 각군의 책임량 결정

【춘천】 1939년 11월 1일부터 1940년 10월 말일까지의 비료 17목가마니 120만매, 곡용4두가마니 60만매, 어업용 건(乾)명석 80만매 어업용 건(建)명석 25만매, 잡(雜)명석 18만매를 목표로 생산을 계획해왔는데 지난6월 20일 현재의 생산량을 보면 비료17목가마니 60만매, 곡용4두가마니 18만매, 어업용건(乾)명석 18만2천매, 건(建)명석 5만매, 잡명석 3만1천매에 불과하여 가마니와 명석 기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내기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이 연락 협조하여 생산을 극력 장려하기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부족될 염려가 있다하여 이에 확충하고자 비료포장용 빈가마니 24만1천988매와 비료빈포대 6천519매를 7월 말일까지 회수하기로 되었다. 매상 가격은 도내를 통하여 빈가마니 1매 15전, 빈포대 1매에 8전으로 결정되었는데 도농회의 알선으로 강원식산주식회사에서 매상하기로 되었으며 할당의 각군별 회수 책임수량은 다음과 같다.

군별	비료포장용빈가마니	비료빈포대
춘천	5,000	-
인제	2,750	333
양구	2,300	180
회양	19,000	360
통천	27,773	96
고성	11,321	332
양양	2,700	-
강릉	11,000	260
삼척	2,152	649
울진	3,000	-
정선	1,500	-
평창	2,000	-
영월	2,265	-
원주	9,654	-
횡성	6,500	1,177
홍천	3,000	-
화천	3,583	-
김화	1,500	-
철원	74,000	333
평강	25,000	333
이천	15,000	-
계	241,988	6,579

麟蹄創氏好績

【麟蹄】麟蹄郡에서 民令會改正에 의하여 創氏에對한 趣旨을普及코자 以來各面各部落까지座談會를 屢次開催하였으나 그實績이 現揚치 못함으로 各面에創氏相

談所를設置하고 그趣旨을萬에親意努力한結果五月末現在氏設定人員은 다음과 같다.

麟蹄面一、三二一名 南面三七五名 北面六〇〇名 瑞和面二七六名 麟蹄面九八五名 内面九五六名 計四、五二三名

需給의 圓滑期코저 江原서 空収回收 各郡의 責任量決定

【춘천】 1940년 7월 1일부터 1940년 10월 31일까지의 비료 17목가마니 120만매, 곡용4두가마니 60만매, 어업용건(乾)명석 80만매, 어업용건(建)명석 25만매, 잡(雜)명석 18만매를 목표로 생산을 계획해왔는데 지난 6월 20일 현재의 생산량을 보면 비료 17목가마니 60만매, 곡용 4두가마니 18만매, 어업용건(乾)명석 18만 2천매, 건(建)명석 5만매, 잡명석 3만 1천매에 불과하여 가마니와 명석 기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내기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이 연락 협조하여 생산을 극력 장려하기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부족될 염려가 있다하여 이에 확충하고자 비료포장용 빈가마니 24만 1천 988매와 비료빈포대 6천 519매를 7월 말일까지 회수하기로 되었다. 매상 가격은 도내를 통하여 빈가마니 1매 15전, 빈포대 1매에 8전으로 결정되었는데 도농회의 알선으로 강원식산주식회사에서 매상하기로 되었으며 할당의 각군별 회수 책임수량은 다음과 같다.

군별	비료포장용빈가마니	비료빈포대
춘천	5,000	-
인제	2,750	333
양구	2,300	180
회양	19,000	360
통천	27,773	96
고성	11,321	332
양양	2,700	-
강릉	11,000	260
삼척	2,152	649
울진	3,000	-
정선	1,500	-
평창	2,000	-
영월	2,265	-
원주	9,654	-
횡성	6,500	1,177
홍천	3,000	-
화천	3,583	-
김화	1,500	-
철원	74,000	333
평강	25,000	333
이천	15,000	-
계	241,988	6,579

1940-07-09-03-07

### 매일신보

## 강원도내 각지의 자동차선 불통 전부 개통까지는 상조

【춘천】 지난 1일 이래의 호우로 강원도내의 각면간 교통은 거의 두절되어 일반의 불편이 막심할 뿐 아니라 그 때문에 통신까지도 거의 끊어져서 각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하여 각 우편국과 우편소에는 우편물이 산같이 쌓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더욱이 신문같은 것이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일반은 여간 궁급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일 현재 자동차 교통 상황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날만 좋게 되면 속속 개통을 하게 될 모양이다.

### 【6일 정오 현재 자동차 교통상황】

#### 1. 불통 노선

- ▲춘천-김화간 ▲양구-간성간 ▲홍천-원주간 ▲홍천-인제간 ▲홍천-진부간 ▲평창-대화간 ▲정선-강릉간 ▲이천-평강간 ▲이천-귀두간 ▲이천-지하리간 ▲귀두-마전간 ▲이천-철원간 ▲홍천-현리간 ▲원주-영월간 ▲원주-서울간 ▲영월-평창간 ▲영월-제천간 ▲평창-정선간 ▲화천-양구간 ▲횡성-유동간 ▲횡성-둔내간 ▲회양-세포간 ▲회양-고산간 ▲회양-말회리간 ▲회양-창도간 ▲김화-서울간 ▲원주-제천간 ▲원주-충주간 ▲횡성-양평간 ▲횡성-원주간 ▲강릉-원주간

### 【현재 운행중의 노선】

- ▲춘천-홍천간 ▲이천-시변간 ▲강릉-삼척간 ▲정선-화암간 ▲울진-삼척간 ▲울진-경북 영해간 ▲도계-장성리간 ▲고저-창도간 ▲외금강-각노선간 ▲춘천-양구간 ▲경춘철도는 대성리에서 자동차와 열차 연락 운행 중이고 강릉 양양간은 남대천에서 증계운행중이다.

# 江原道内各地의 自動車線不通

## 全部開通外진尙早

【춘천】 지난 1일 이래의 호우로 강원도내의 각면간 교통은 거의 두절되어 일반의 불편이 막심할 뿐 아니라 그 때문에 통신까지도 거의 끊어져서 각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하여 각 우편국과 우편소에는 우편물이 산같이 쌓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더욱이 신문같은 것이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일반은 여간 궁급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일 현재 자동차 교통 상황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날만 좋게 되면 속속 개통을 하게 될 모양이다.

【6일 정오 현재 자동차 교통상황】

1. 불통 노선

- ▲춘천-김화간 ▲양구-간성간 ▲홍천-원주간 ▲홍천-인제간 ▲홍천-진부간 ▲평창-대화간 ▲정선-강릉간 ▲이천-평강간 ▲이천-귀두간 ▲이천-지하리간 ▲귀두-마전간 ▲이천-철원간 ▲홍천-현리간 ▲원주-영월간 ▲원주-서울간 ▲영월-평창간 ▲영월-제천간 ▲평창-정선간 ▲화천-양구간 ▲횡성-유동간 ▲횡성-둔내간 ▲회양-세포간 ▲회양-고산간 ▲회양-말회리간 ▲회양-창도간 ▲김화-서울간 ▲원주-제천간 ▲원주-충주간 ▲횡성-양평간 ▲횡성-원주간 ▲강릉-원주간

【현재 운행중의 노선】

- ▲춘천-홍천간 ▲이천-시변간 ▲강릉-삼척간 ▲정선-화암간 ▲울진-삼척간 ▲울진-경북 영해간 ▲도계-장성리간 ▲고저-창도간 ▲외금강-각노선간 ▲춘천-양구간 ▲경춘철도는 대성리에서 자동차와 열차 연락 운행 중이고 강릉 양양간은 남대천에서 증계운행중이다.

1940-07-07-03-07

### 매일신보

## 홍천도 큰비

【홍천】 7월 1일부터 내리는 비는 연일 계속하여 본격적 우기에 들어간 감이 있어 그간의 우량으로 전면적에 대한 이양은 완비할 수 있다. 연일의 비로 하여 각 하천이 증수가 되어 7월 2일에 이르러서는 인제 내촌 서석 방면행의 정기 『버스』교통은 두절하였다. 3일 정오 현재도 각 하천이 3척 내지 2척의 증수를 보고 있는데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려 상증수할 경향에 있다.

# 洪川도大雨

【洪川】 七月二日로부터 내리는 비는 連日 계속하여 本格的雨期에 들어간 감이 있어서 그간의雨量으로 전면적에 대한 이양은 완비할 수 있다. 連日의 비로하여 各河川의 増水가 되어 七月三日에 이르러서는 定期의 『버스』交通은 杜絶하였다. 三日正午現在 各河川의 三尺乃至二尺의 増水를 보고 있는데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려 尙増水할 傾向에 있다.

1940-07-13-03-03

### 매일신보

## 풍작의 적 “병충해” 철저 구멸을 기도, 강원도에서 각군에 보조비 지급

【춘천】가뭄으로 걱정되는 강원도 일대에는 지난1일부터 각지에 호우가 흡족히 내려 10일 현재로 약9mm5분의 이앙을 마치게 되었는데 앞으로 병충해만 없다면 평년작 이상은 무난하다 하며 병충해의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각 군에 며칠안에 통첩을 발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신청이 미처 달지 못한 회양 정선 원주 횡성 김화 철원 6개군을 제한 15개군 39개 읍면에 대하여는 도별병 방제에 준비케 하고자 소독용 분무기 135개(가격6,750원)을 구입케 하여 2,430원을 보조하기로 되었으며 춘천, 양양, 강릉, 삼척, 울진, 홍천 6개군에 대하여는 이화병충 방지시설공비로 3,900원을 보조하여 유아등 7,800개 석유 1,560관 포살망 7,800개를 구입케 하였다 한다. 각군의 분무기 구입 보조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읍면수	개수	보조액
춘천	9	15	270
인제	5	4	12 (중략)

1940-07-14-03-01

### 매일신보

## 22山農지구 설치 적극적 지도 보호 장래론 훈련소도 설치

국유산림을 확보하자면 무엇보다도 산화방지와 화전정리가 필요한 만큼 도내 국유림 중에서 화전민이 가장 많은 좌기 22개소를 산농지 도로로 지정한 후 1구에 1명씩 지도수 22명을 두어 지도구를 중심으로 공려조합을 조직케한 다음 그 산하에 세포조직체로 산농계를 설치케 하여 지도의 만전을 기하리라 한다. 본 사업은 얼른 생각하기에 화전민을 몰아내는 종래의 정리대책같이 알기 쉬우나 결코 그 과정은 근본정신부터가 다른만큼 원칙적으로 현재에 정착하고 있는 화전을 그대로 용인하여 곧 지도 장려에 착수하기로 된 것인데 지도와 장려는 강원도 당국이 맡아서 화전민으로 하여금 고착케 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마련해 줄 터이며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는 농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소유토지로 부쳐먹게 마련해 줄 터이다. 그리고 화전의 정리조사는 총독부에서 맡아 가지고 하기로 되었는데 조사(금년은 삼척관내를 조사한다)결과 화전으로서 내버려둘 수 없는 폐경화전이 있게 되면 필요에 응하여 국유림내의 적당한 농경적지를 영림서가 물색하여 이주시키기로 되었는데 이주비까지도 전부를 영림서가 물어주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에서는 산림과 안에 속 2명, 고원 2명을 배치하고 22개소 지도구에도 지도수를 곧 배치하기로 되었는데 이번 계획은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화전민을 덮어놓고 내몰자는 정리미착이 아니고 자치적으로 국유산림의 자원을 확보 하자는 일종의 커다란 국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만큼 평지로 치면 농어촌갱생지도와 마찬가지로 산촌농민의 갱생을 기도하자는 것으로 지도에 있어서도 영농개선 비료의 증산 증시 등 생업에 대한 일체적 지도를 하게 될 터이며 장래에는 농민훈련소와 같이 산농훈련소 같은 것도 설치하게 될 모양이어서 크게 기대되고 있는바 이번의 시설

**豊作의敵 病蟲害**  
**徹底驅滅을企圖**  
江原道에서 各郡에補助費支給

군명	읍면수	개수	보조액
춘천	9	15	270
인제	5	4	12
...	...	...	...

**廿二山農地區設置**  
**積極的指導保護**  
將來는訓練所도設置

이야말로 화전민의 갱생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 하여 당국의 온정 방침에 화전민들은 감격하고 있다. 지도구로 지정되었는바 지도구 안에 들어있는 담당 예정 총호수가 9,422호로 1지구에 약 400호가 량 된다고 한다.

【확정된 산농지도구】

▲인제군=원통 한계 서화 이포 ▲양구군=문동 점방 ▲양양군=어성면 ▲강릉군=목계 대기 ▲삼척군=호산 도계 중마읍 하거노 ▲울진군=삼근 ▲평창읍=하진부 빙정 횡계 ▲평강군=유연 상술 동산 ▲이천군=왕막 어랑 ▲계 22개구

1940-07-14-03-07

매일신보

강우, 전도내에 適順 7월 1일 이래 강원 각지 우량

【춘천】 지난 1일부터 호우가 내리기 시작하여 일부 지방에 수해까지 입게 된 강원도에는 8일에 이르러 비가 멈춘 듯하다니 9일부터 다시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각지의 하천이 범람하고 교통이 재차 두절되었는데 1일부터 11일 오전10시까지 내린 우량을 보면 다음과 같아서 춘천의 629mm를 최고로 영서 일대는 거의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었다. 다만 영동지방의 우량이 적어서 울진 같은 곳에서는 대작의 과중까지 마쳤는데 이번에 두 번째 내린 비로 강릉 삼척은 전부 모를 내게 되었고 울진도 일부를 제하고는 전부 대작을 같아엎고 모를 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지 모두 부녀자와 소학생들까지도 총동원하여 모내기에 분주하고 있는데 이번이야말로 전부 나가게 되리라 하여 농촌에는 환희의 빛이 가득차 있으며 앞으로 병충해의 방제만 빈틈없이 한다면 평년작 이상의 풍년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한다.

1940-07-16-03-06

매일신보

인제보국저축운동

【인제】 인제군정신총동원연맹에서는 보국 저축을 강화코자 춘삼건 공동판매시 천인저금을 시행한 결과 그 저금액은 3만여원에 달하였으나 아직 목표액에 달하자면 전도요원하므로 채권 소화에 전력을 취할 방침이라 한다.

1940-07-16-03-07

매일신보

【인제】 인제에霖雨로 보리 출회 불능

인제군 농작은 우로가 균점하여 풍년을 예상하였는데 7월 2일부터 계속한 임우로 강수만 범람하여 전답 유실이 막대하며 수확치못한 보리는 부패하여버리고 수확한 보리는 농가 식량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보리 공출이 불가능하다 하며 급반 수해에 사상자 2, 주가 유실 2, 반계 4호, 선박 유실 1척이라 한다.

降雨·全道내에 適順  
七月一日以降江原各地雨量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합계
춘천	100	150	120	180	200	150	100	120	150	180	200	1500
강릉	80	100	120	150	180	150	100	120	150	180	200	1300
삼척	60	80	100	120	150	180	150	100	120	150	200	1100
영월	50	70	90	110	130	150	180	150	100	120	150	1000
홍천	40	60	80	100	120	150	180	150	100	120	150	800
원주	30	50	70	90	110	130	150	180	150	100	120	700
인제	20	40	60	80	100	120	150	180	150	100	120	600
고령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400
영서	200	250	200	300	350	250	150	200	250	300	350	2200
영동	100	120	150	180	200	150	100	120	150	180	200	1300
전도	300	370	350	480	550	400	250	320	370	480	550	3500

【모】不足은浪說  
道報錄 道報錄

麟蹄報國貯蓄運動

【麟蹄】麟蹄郡精勤聯盟에서는報國貯蓄을強化코자 春蠶共同販賣時 天引貯金을施行한結果貯金額은 三萬餘圓에達하였으나 巨目標額에達하자면 前途遙遠함으로債券消化에 全力을取할方針이라한다

麟蹄에霖雨로 大麥出廻不能

【麟蹄】麟蹄郡農作은 雨露가均霑하여 豊年을豫想하였는데七月二日부터 繼續한霖雨로江水汎濫하여 田畜流失이莫大하며收穫치 못한大麥은 腐敗하여 버리고收穫한보리는 農家食糧으로充當하였으므로 大麥供出이不可能하다 하며 今般水害에死傷者二往家流失三半潰四戶 船舶流失一隻이라한다

1940-07-16-04-01

### 매일신보

## 도민의 3분의 1 계출, 설정자 50만명 강원도에도 창씨 열고조

【춘천】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씨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2,300만 민중은 감격한 나머지 앞을 다투어가며 씨의 설정을 급히 하고 있는 중인데 강원도에서도 씨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서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한다. 즉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난2월11일 기원절날부터 6월 말일까지의 설정 상황을 보면 호수로 17만9,117호에 가족수가 50만6,449인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출하는 사람이 다 많이 격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신고기간이 앞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과 처음에는 수속 방법을 몰라 주저하다가 요즘에 신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데 기간이 하루하루 절박하므로 앞으로 더욱 격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6월 말일까지 각군별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전도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군명	호수(호)	가족수	군명	호수(호)	가족수
춘천	1,857	12,178	인제	1,616	12,062
양구	3,213	22,887	회양	1,944	16,445
통천	3,326	21,517	고성	2,882	18,676
양양	1,572	12,221	강릉	1,494	10,305
삼척	10,454	68,095	울진	7,398	53,531
정선	3,102	20,333	평창	9,806	49,500
영월	3,811	33,902	원주	5,328	32,764
횡성	4,065	23,695	홍천	2,305	13,137
화천	1,940	11,06	김화	2,112	14,818
철원	4,640	27,019	평강	2,348	18,167
이천	3,734	24,128			
계	79,147	506,449			

1940-07-19-03-02

### 매일신보

## 정신총동원 운동을 강화 강원도내 각청년단에 보급부설치

【춘천】 강원도에서는 연합청년단 결성 이래 국세가 날로 진전되어 벌써 1만여원의 단원을 포용하게 되었는데 이들 단원은 시국하에 각기 본분을 잘 지켜 총후 봉고에 힘쓰는 동시 국민정신총동원에도 기여하여 감격할만한 실적을 드러내고 있음은 기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하와 장래에 있어서 제국의 내외정세와 반도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청년층의 지도훈련은 일층 긴요한 바로 차제 청년단원으로 하여금 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직접으로 적극적으로 본 운동에 참가케 하여 유기적 조직과 단원의 왕성한 실행력에 의해서 본 운동의 보급 추진을 도모하고자 각 청년단에 정신총동원보급부를 일제히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설치된 보급부에서는 학교 연맹과 지방애국반과의 협조 연락을 긴밀히 해서 보급부의 사명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는데 설치된 보급부가

# 道民의 三分一 届出 設定者 五十萬名

## 江原道에 도創氏熱高潮

【춘천】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씨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2,300만 민중은 감격한 나머지 앞을 다투어가며 씨의 설정을 급히 하고 있는 중인데 강원도에서도 씨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서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한다. 즉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난2월11일 기원절날부터 6월 말일까지의 설정 상황을 보면 호수로 17만9,117호에 가족수가 50만6,449인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출하는 사람이 다 많이 격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신고기간이 앞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과 처음에는 수속 방법을 몰라 주저하다가 요즘에 신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데 기간이 하루하루 절박하므로 앞으로 더욱 격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6월 말일까지 각군별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전도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군명	호수(호)	가족수	군명	호수(호)	가족수
춘천	1,857	12,178	인제	1,616	12,062
양구	3,213	22,887	회양	1,944	16,445
통천	3,326	21,517	고성	2,882	18,676
양양	1,572	12,221	강릉	1,494	10,305
삼척	10,454	68,095	울진	7,398	53,531
정선	3,102	20,333	평창	9,806	49,500
영월	3,811	33,902	원주	5,328	32,764
횡성	4,065	23,695	홍천	2,305	13,137
화천	1,940	11,06	김화	2,112	14,818
철원	4,640	27,019	평강	2,348	18,167
이천	3,734	24,128			
계	79,147	506,449			

# 精動運動을 强化

## 江原道内各青年團에 普及部設置

【춘천】 강원도에서는 연합청년단 결성 이래 국세가 날로 진전되어 벌써 1만여원의 단원을 포용하게 되었는데 이들 단원은 시국하에 각기 본분을 잘 지켜 총후 봉고에 힘쓰는 동시 국민정신총동원에도 기여하여 감격할만한 실적을 드러내고 있음은 기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하와 장래에 있어서 제국의 내외정세와 반도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청년층의 지도훈련은 일층 긴요한 바로 차제 청년단원으로 하여금 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직접으로 적극적으로 본 운동에 참가케 하여 유기적 조직과 단원의 왕성한 실행력에 의해서 본 운동의 보급 추진을 도모하고자 각 청년단에 정신총동원보급부를 일제히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설치된 보급부에서는 학교 연맹과 지방애국반과의 협조 연락을 긴밀히 해서 보급부의 사명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는데 설치된 보급부가

군명	호수(호)	가족수	군명	호수(호)	가족수
춘천	1,857	12,178	인제	1,616	12,062
양구	3,213	22,887	회양	1,944	16,445
통천	3,326	21,517	고성	2,882	18,676
양양	1,572	12,221	강릉	1,494	10,305
삼척	10,454	68,095	울진	7,398	53,531
정선	3,102	20,333	평창	9,806	49,500
영월	3,811	33,902	원주	5,328	32,764
횡성	4,065	23,695	홍천	2,305	13,137
화천	1,940	11,06	김화	2,112	14,818
철원	4,640	27,019	평강	2,348	18,167
이천	3,734	24,128			
계	79,147	506,449			

156부로 보급원이 1,601명에 달하였다는 것으로 정동운동의 추진력이 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리라 한다.

♣청년단 정동 보급부 설치 상황

군명	보급부수	보급원수
춘천	9	145
인제	6	47
(중략)		
계	156	1,601

1940-07-19-03-08

매일신보

인제 퇴비 장려

【인제】 인제군에서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 퇴비재료 채취기간으로 정하고 군수 서장이 반장이 되어 각면을 분담하고 각마을 정심총동원연맹원을 총동원시켜 퇴비제조에 박차를 가하여 산미증산계획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1940-07-19-03-10

매일신보

인제 대마 흉작 예상

【인제】 인제군 대마 파종은 400정보이던 것이 금반 호우로 70정보가 유실되고 그 여타도 성적이 불량하여 수확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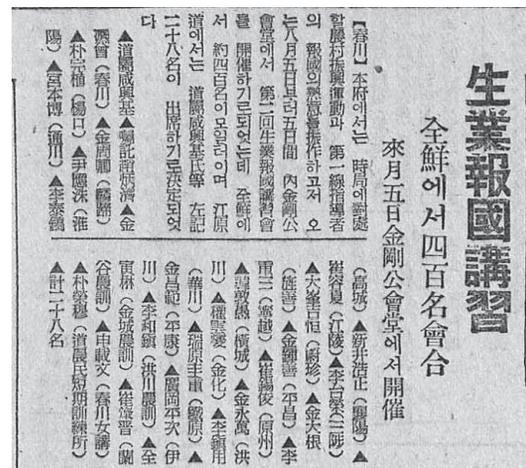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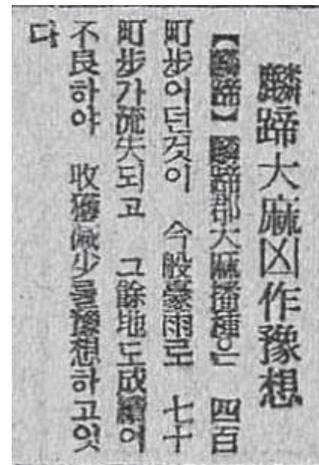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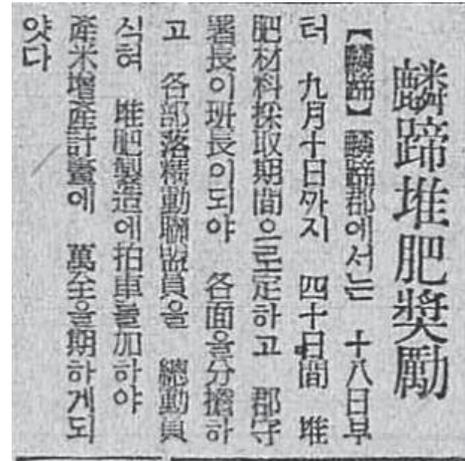
1940-07-20-03-02

매일신보

생업보국강습 전선에서 400명 회합, 내일 5일 금강공회당에서 개최

【춘천】 총독부에서는 시국에 대처할 농촌진흥운동과 제일선 지도자의 보국의 열의를 진작하고자 오는 8월 5일부터 5일간 내금강공회당에서 제2회 생업보국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전선에서 약 400명이 모임 터이며 강원도에서는 도속 함흥기씨 등 좌기 28명이 출석하기로 결정되었다

- ▲도속 함흥기 ▲축탁 조병제 ▲김희회(춘천) ▲김주경(인제) ▲박완식(양구) ▲윤응수(회양) ▲궁본박(통천) ▲이태호(고성) ▲신정조정(양양) ▲최용하(강릉) ▲이태영(삼척) ▲대봉길항(울진) ▲김대근(정선) ▲김중선(평창) ▲이중삼(영월) ▲최석준(원주) ▲한돈우(횡성) ▲김영만(홍천) ▲권운섭(김화) ▲이진용(화천) 서원주중(철원) ▲김창범(평강) ▲광망평차(이천) ▲이화진(홍천농훈) ▲전인무(금성농훈) ▲최돈진(남곡농훈) ▲신재문(춘천여강) ▲박영목(도농민단기훈련소) 계 28명



1940-07-21-03-02

매일신보

강원도내 군수 17명이 창씨, 도회의원도 속속 신고

【춘천】 강원도내 군수들은 절박하는 기일을 앞두고 민중에 출선하여 속속 창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선인 군수 19명 중 16명이 창씨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평강군수 이태용씨가 송택으로 창씨의 수속을 마쳤으므로 전부 17명에 달하였다. 남은 2명은 화천군수 임용준씨와 통천군수 이현재씨인데 양씨도 기일까지에는 수속을 마칠 것이라 한다. 그리고 도회의원의 창씨 상황을 보면 관나선 민선을 하여 조선인 의원의 15명(일본인 의원 6명)인데 그 중에서 18일 현재로 좌기 9씨가 창씨의 수속을 마쳤으며 남은 16명도 방금 수속 중이라고 한다.

▲철원(강원기양)박보양 ▲인제(평목구달)이중형 ▲김화(금산광일)김만봉 ▲통천(부전하작)전하당 ▲이천(송산번)송규환 ▲철원(평천덕일)이덕일 ▲양양(고도덕삼랑)고덕주 ▲김화(금본기옥)김기옥 ▲강릉(옥천명순)유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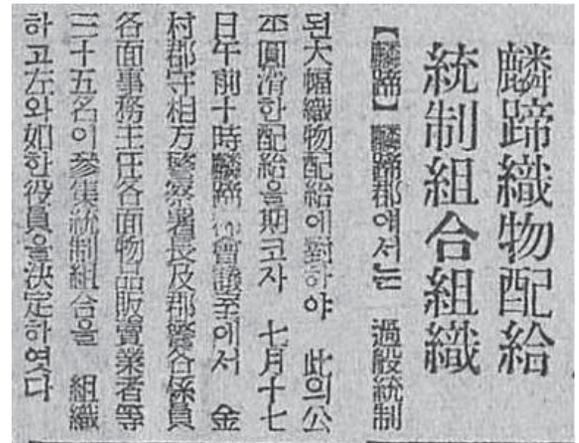


1940-07-21-03-04

매일신보

인제 직물배급통제조합 조직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번 통제된 대폭 직물 배급에 대하여 이의 공평 원활한 배급을 기코자 7월 17일 오전10시 인제군 회의실에서 금촌 군수, 상방 경찰서장 및 군경 각 계원, 각면사무주임, 각면 물품판매업자 등 35명이 참석, 통제조합을 조직하고 좌와 같은 임원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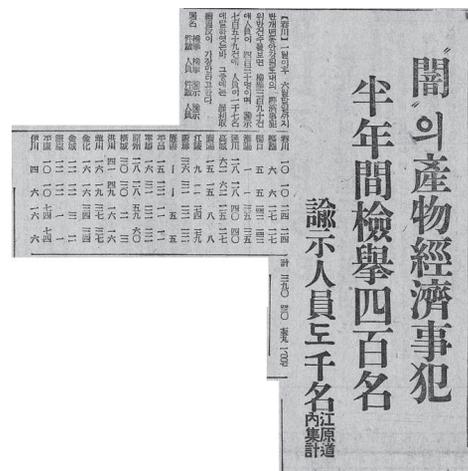
1940-07-21-03-05

매일신보

“암”의 산물 경제사범 반년간 검거 400명, 유시인원도 1천명 강원도내 집계

【춘천】 1월 이후 6월 말일까지 6개월 동안 강원도내의 경제사범 위반 건수를 보면 검거 390건에 인원이 430명이 되어 유시 759건에 인원이 1천7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폭리 단속위반이 가장 많다고 한다.

서명	검거건수	검거인원	유시건수	유시인원
춘천	10	10	24	24
인제	6	6	27	27
(중략)				
계	390	430	759	1,007





1940-07-26-03-05

### 매일신보

#### 인제표준부락 좌담회

【인제】 인제군에서는 농촌진흥회를 장려하는 일방 표준부락 좌담회를 통해 인제면 7월 18일 남면 18일 기린면 7월 19일 내면 7월 22일 서화면 7월 25일에 개최하였는데 그 심사요점과 상품 등은 좌와 같다. 2등 남면 부평리 구만동, 인제면 덕산리 수변촌 상금 각30원 3등 인제면 방동리 오류동, 인제면 하추리 간촌, 인제면 합강리 이평동, 자운리 도향동 상금 각25원 면으로는 남면 1등 20원 인제면 2등 15원 서화면 3등 10원

1940-07-28-03-04

### 매일신보

#### 명물 인제 봉밀 입우로 대타격

【인제】 인제 특산 봉밀은 조선에서 명성을 득하여 외지로부터도 매년 주문이 쇄도하였는데 금년에는 7월 2일 이후 계속한 입우로 봉밀은 식물을 얻지 못하여 전부 아사지경으로 농회에서 길러오던 종봉조차 전부가 아사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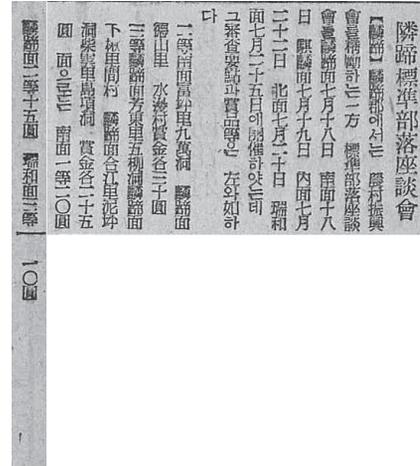
1940-07-31-03-01

### 매일신보

#### 납세보국에 강원도내 제1기분 징수 성적 13만4,100여 원 98%

【춘천】 강원도의 1940년도 납세 1기분 징수성적을 보면 지난20일 현재로 징수예정 13만5,410원60전에서 수입된 것이 13만4,157원90전으로 미수된 것은 1,261원61전에 불과해 99%에 달하였다는데 작년 같은 기간 98%에 비하면 성적이 조금 좋다고 한다. 이는 도민들이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여 납세 징수에 유감없기를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조정가액	수입가액	미수입액
춘천	10,489.92	9,782.43	681.61
인제	3,877.37	3,877.37	-
(중략)			
계	135,410.60	134,257.99	1,253.61



군명	징수액	징수율
원주	1,234,567.89	98.5%
정선	987,654.32	99.1%
인제	3,877.37	100%
계	134,257.99	98.8%

1940-07-31-03-05

### 매일신보

#### 인제읍 이전 기성회

【인제】 인제읍은 종래 소양강 상류 천변에 접근하여 1930년과 1936년 양년 대수해에 타격을 받고 현재 고지대에 이전하여 이른바 신읍이 되었으나 아직 구읍에는 누거 재산가가 잔존하고 있으나 하기 경우마다 피난 소동이 일으키므로 지원유지기간에서는 차제 급속히 신읍에 이전케 하고 향후의 수화를 구제토록 근근 이 기성회를 조직할 모양이다.

1940-07-31-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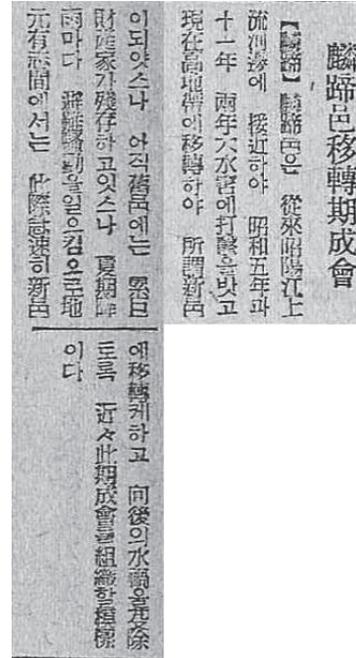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춘삼 뒤에 추삼 금년 누에떨기 5만7천매 강원도 각 군에 1, 2회분 배포 완료

【춘천】 춘삼건의 공판을 끝낸 강원도에서는 벌써부터 추삼종 배부에 대한 준비를 마쳤는데 금년 추삼 누에떨기 예상매수를 보면 5만 6,867매로 작년 같은 기간에 누에떨기실적 매수 4만9,943매에 비하면 5천924매(13.9%)의 증가이라 한다. 본년 누에떨기 목표매수는 최근 5개년에 있어서 최고 누에떨기매수의 10% 증인데 지난27일 현재로 각군에서 신입해온 매수만도 벌써 목표 매수에 가까운 5만1,980매에 달하였다고 하며 잠중배포는 8월 8일에 북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2회로 나누어 제1회분으로 4만9,917매, 제2회분으로 6,980매를 배포하여 16일까지 마칠터이라 한다. 각 군별 누에떨기 예상매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전년누에떨기실적매수(매) 올해목표매수(매) 작년비교증가매수(매)

춘천	2,906	3,739	833
인제	4,187	4,617	420
양구	3,300	3,692	392
회양	1,108	1,219	111
통천	850	935	85
고성	1,466	1,613	147
양양	2,513	2,833	320
강릉	2,719	2,991	273
삼척	2,669	2,970	301
울진	1,380	1,528	139
정선	1,850	2,035	185
평창	3,903	4,293	390
영월	1,700	1,960	260
원주	2,945	3,630	685
횡성	4,100	4,521	421
홍천	3,800	4,180	380
화천	2,145	2,860	715
김화	1,888	2,310	422
철원	924	1,013	89
평강	1,120	1,232	112
이천	2,450	2,695	145
합계	49,543	56,867	6,924



1940-07-31-04-07

매일신보

강원 도내 각군수 전부 창씨를 완료

【춘천】 기일이 절박해 감에 따라 강원도민의 창씨열은 날로 급해 가고 있는데 도내 각 군수들도 민중에 솔선하여 속속 창씨를 하게 되어 한국인 군수 19명은 다음과 같이 창씨 혹은 개명의 수속을 전부 마쳤다.

주재군	창씨신명	구 성명
춘천	원종삼	(일본인)
인제	금촌주방	(김주혁)
양구	무종의우	(함기번)
회양	방본풍장	(김재만)
통천	이가현재	(이현재)
고성	목산영일랑	(박영빈)
양양	평망영우	(윤석중)
강릉	금자시명	(김시명)
울진	금성덕치	(김학수)
정선	고진량	(고학진)
영월	금곡강평	(김창두)
원주	덕중용언	(이필국)
횡성	평천가강	(황학근)
홍천	이가기명	(이기명)
화천	임용준	(임용준)
김화	산강달웅	(최만달)
철원	목원장오	(일본인)
평강	송택태용	(이태용)
이천	평전천추	(황봉인)

1940-08-04-03-05

매일신보

문맹 퇴치의 이 실적 강원도내의 농촌야학 수강자 남녀 1만6천명을 돌파

【춘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 아래 강원도에서는 농촌 야학을 적극 실시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다섯달 동안 도내 각 군에서 석달동안 적당한 시기를 골라 실시한 성적을 조사해 보면 실시부락이 921부락에 수강자가 1만6,455명 여자 5,309명으로 도합 2만1,764명에 달한다고 한다. 배움에 굶주린 농촌 남녀들은 눈뜬장님이라는 치욕적 대명사를 벗어나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가며 열심히 수강하여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계부에 기입을 할 정도로 눈을 뜬 사람이 남자 1만2,834명 여자 3,318명 계 1만6,152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 갱생농가의 호주 또는 주부만도 1만3,788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강자 중에는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7,297명으로 총수강자의 약 반수를 점령하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겨우 7살 된 어린 소년이 있나 하면 72세나 된 노인도 섞이어 「가가거거」를 외우는 등 한 자라도 배우려는 계몽열에는 실로 감격할 지경이라고 한다. 각 군별

### 江原道内各郡守 全部創氏를完了

【春川】 기일이 절박해 감에 따라 강원도민의 창씨열은 날로 급해 가고 있는데 도내 각 군수들도 민중에 솔선하여 속속 창씨를 하게 되어 한국인 군수 19명은 다음과 같이 창씨 혹은 개명의 수속을 전부 마쳤다.

▲ 淮陽 邦本魯巖 (全在禹)	▲ 蔚山 李泰文 (李泰文)
▲ 通川 李泰文 (李泰文)	▲ 高城 木山永一郎 (李錫煥)
▲ 襄陽 平岡永手 (尹錫甲)	▲ 江陵 金平時明 (金時明)
▲ 三陟 高山炳機 (崔炳機)	▲ 蔚珍 金炳德治 (金學洙)
▲ 慶善 高顯 郎 (高顯鎮)	▲ 平昌 松川昇平 (朴昇洙)
▲ 寧越 金公康平 (金昌斗)	▲ 原州 鄭普隆珍 (李勳國)
▲ 橫城 平川壽康 (壽相根)	▲ 洪川 李泰起明 (李起明)
▲ 華川 林 龍俊 (林龍俊)	▲ 金化 山江壽雄 (崔壽壽)
▲ 鐵原 木原章吾 (內耶人)	▲ 平康 松澤泰露 (李泰露)
▲ 伊川 平田千秋 (黃鐘麟)	

### 文盲退治의 이實績 江原道内의 農村夜學受講者 男女萬六千名을突破

【春川】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 아래 강원도에서는 농촌 야학을 적극 실시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다섯달 동안 도내 각 군에서 석달동안 적당한 시기를 골라 실시한 성적을 조사해 보면 실시부락이 921부락에 수강자가 1만6,455명 여자 5,309명으로 도합 2만1,764명에 달한다고 한다. 배움에 굶주린 농촌 남녀들은 눈뜬장님이라는 치욕적 대명사를 벗어나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가며 열심히 수강하여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계부에 기입을 할 정도로 눈을 뜬 사람이 남자 1만2,834명 여자 3,318명 계 1만6,152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 갱생농가의 호주 또는 주부만도 1만3,788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강자 중에는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7,297명으로 총수강자의 약 반수를 점령하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겨우 7살 된 어린 소년이 있나 하면 72세나 된 노인도 섞이어 「가가거거」를 외우는 등 한 자라도 배우려는 계몽열에는 실로 감격할 지경이라고 한다. 각 군별

郡別	受講者數	男女別
春川	1,234	男 650 女 584
江陵	1,123	男 580 女 543
襄陽	1,098	男 560 女 538
通川	1,045	男 540 女 505
高城	1,012	男 520 女 492
三陟	987	男 500 女 487
蔚珍	954	男 480 女 474
蔚山	921	男 460 女 461
慶善	898	男 440 女 458
平昌	865	男 420 女 445
寧越	832	男 400 女 432
原州	809	男 380 女 429
橫城	776	男 360 女 416
洪川	743	男 340 女 403
華川	710	男 320 女 390
金化	677	男 300 女 377
鐵原	644	男 280 女 364
平康	611	男 260 女 351
伊川	578	男 240 女 338
合計	16,455	男 12,834 女 5,309

개최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실시부락수	수강자수	기장가능자수
춘천	49	1,272	995
인제	42	1,368	1,194
양구	20	380	257
회양	23	380	257
통천	40	1,038	699
고성	48	1,149	661
양양	50	1,778	1,158
강릉	67	1,992	1,605
삼척	54	1,129	1,055
울진	38	534	884
정선	38	667	455
평창	31	907	751
영월	44	730	509
원주	48	1,119	860
횡성	56	1,081	962
홍천	44	995	601
화천	보고 미착으로 불명		
김화	98	1,712	965
철원	50	1,341	993
평강	30	663	513
이천	51	1,096	674
계	921	21,764	16,151

1940-08-04-03-05

**매일신보**

**인제 임시 청결**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오는 5일 상동리 남북리 6일 합강리 덕산리 7일 가아리에 대하여 청결법을 시행한다고 한다.



1940-08-04-03-11

**매일신보**

**인제제탄조합 평의회**

【인제】 7월 31일 인제군제탄조합사무소에서 제탄조합평의회를 개최하고 금촌 군수 통재하에 목탄 증산계획, 제탄자금 조달, 제탄중업자 모집, 식량제탄용구 배급, 흑탄 외사용탄 생산, 제탄재료할당, 특수제탄계획 등 수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반출에 대하여는 서울여관조합, 일본요리점조합, 조선요리점조합, 대좌부조합 임원과 협정하고 오후4시 해산하였다.



1940-08-07-04-10

### 매일신보

#### 인제에 라디오 체조

【인제】 인제면에서는 국가총력의 실을 거양하려면 위선 왕성된 체력과 건전된 정신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 하여 예년과 같이 5일부터 20일까지 인제남소학교에서 매일 오전6시부터 체조를 개최한다고 한다.

1940-08-07-04-12

### 매일신보

#### 각지의 지원병 인제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 이장호, 인제군 북면 월학리 김재형 양군은 조선육군지원병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1일 오전8시30분 인제신사에서 기원제를 집행하고 오후1시20분 입소차 자동차로 군내 각종 단체가 국기를 휘날리며 환영리에 의기양양하게 출발하였다.

1940-08-10-03-10

### 매일신보

#### 인제 애국반장대회

【인제】 오는 18일 오전9시부터 인제면에서는 각부락 애국반장을 망라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정신총동원 취지를 일층 철저히 인식케 하며 그 훈련을 시킨다는데 당일은 도군연맹 직원까지 임석한다고 한다.

1940-08-13-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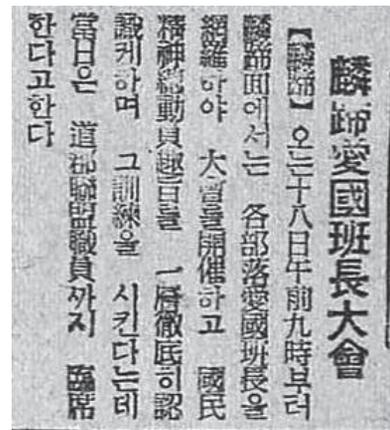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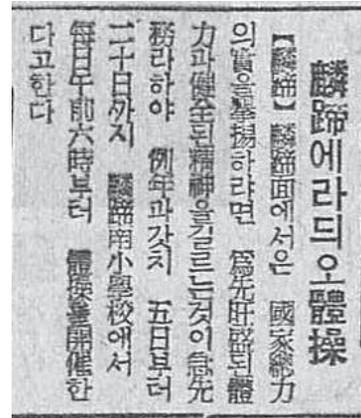
### 매일신보

#### 드러난 각지 창씨의 총결산 강원예 17만호 총 호수의 66%

【춘천】 감격의 시풍가운데 계속되는 반도의 창씨는 만1년6개월만인 지난 10일로써 드디어 마감의 하게 되었는데 지난 7월 말일까지 강원도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아서 신청호수가 16만9,388호에 가족수가 105만4,802명에 달해 14일 현재 조사에 의한 반도인 총인구수 159만7,597인에 비해서 66%에 해당하게 되었다. 8일 이후의 실적은 각군의 보고가 없어서 알수 없으나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하게 된 모양으로 80% 이상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호적상 수속관계 등으로 금후에도 계속 수속을 하게 될 모양이다.

씨 창정 신청조(7월말일 현재)

군명	호수	가족수	
춘천	7,117	43,241	
인제	5,513	38,575	(중략)
계	169,388	1,054,802	



1940-08-27-03-09

### 매일신보

#### 인제면 설치 운동 치열

【인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는 고려 태조 8년부터 춘천군에, 인제군 내면 미산리 방내리는 내삼면으로 강릉군에 소속되었다가 1909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인제군에 이속된 지방이라 지세가 산악이 중첩하고 평탄지가 적으나 금강산 지맥이 분수계를 이룬 상남분지이니 태고로 관개사업이 발달되어 논이 흔하고 경지가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하고 천연사료가 흔하니 목축업에 왕성하여 시장은 도내에서 이류시장이고 학령아동은 매년 증가되어 4학년제 소학교를 6학년제로 변경하려는 원성은 매일같이 들린다. 그리고 경찰관주재소도 설치된 약진 상남이 1924년부터 시작한 면설치 운동은 동서건설과 같이 병진할 필요가 있다하여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인제군 남면 금부리, 인제군 내면 미산리 장내리를 면행정구역으로 한 진정서를 8월 10일 인제군수와 인제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 여하에 의하여 도당국과 총독부당국에 출발할 진정위원을 각기 선임하고 대기중인데 다만 인제군 내면에서는 반대설이 있다 하나 신설면 소속될 지방주민은 진정위원의 활동만 고대하고 있다 한다.

1940-08-28-03-07

### 매일신보

#### 인제 제탄 배급 원활

【인제】 인제군제탄조합에서는 각면에 지정 소매인을 배치하고 목탄 배급의 원활과 판매의 통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가격은 다음과 같다.  
환상 1원77전, 환아 1원72전, 할상 1원72전, 할아 1원 67전 잡상 1원 62전 잡아 1원57전

1940-08-31-03-03

### 매일신보

#### 인제 순회진료

【인제】 인제경찰서에서는 각면 배치 공공의사를 동원시켜서 의과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질병에 신음하는 벽지국민을 구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9월 중 좌기 벽추지에서 순회 진료를 개시한다.  
인제면 가야리, 귀둔리, 가리산리  
북면 용대리, 한원리  
내면 광원리, 울전리, 자운리  
인제면 상남리, 진동리, 방동리

**麟蹄面設置運動熾烈**

【麟蹄】麟蹄郡麟蹄面上面居民高麗太祖八年부터 齊州郡에 麟蹄郡內面美山里 防內里는 丙三面으로 江陵郡에 所屬되던지 昭和四十二年行政區劃變更에 따라 麟蹄郡에 移屬된地方이라 地勢가 險峻하고 田畠이 乏乏하고 山嶽이 層出하며 分水界를 淸히 上南流地이니 本土居民은 農業의發達이 容易하고 耕牧이 便當하다 麟蹄郡의 豐富하고

고 天然飼料을 富히나牧畜業의 旺盛하다 市場이 進內에서 流通市場이고 學齡兒童은 每年增加되어小學年制小學校를 六學年制로 改定하리란 關係는 每日가 日言된다 그리고 警察官廳在 丙三面美山里 麟蹄面上面에 大正十三年부터始作한 面設置運動은 東西建設과 結合 併進할 必要가 있다 麟蹄郡麟蹄面上面居民 麟蹄郡內面美山里 防內里를 面行政區域으로 劃定해 八月十日 麟蹄郡의 警察署長에게提出하고 그結果 如何에 依하여 警察署和本府當局에 出願한 陳情委員各其選任하고 符符中이며 다만 麟蹄郡內面에 設킨 反對說이 있다 麟蹄面上 所屬地方住民의 陳情委員의 活動만 苦悶하고 있다 한다

**麟蹄製炭配給圓滑**

【麟蹄】麟蹄郡製炭組合에서는 各面에 指定小賣人을 配置하고 木炭配給의 圓滑과 販賣의 統制을 八月一일부터 施行하였는데 그 價格은 다음과 같다

丸上一圓七十七錢 丸並一圓七十錢  
二錢 割上一圓七十二錢 割並一圓六十七錢 雜上一圓六十二錢 雜並一圓五十七錢

**麟蹄巡迴診療**

【麟蹄】麟蹄警察署에서는 各面에 醫公醫士를 動員시켜서 醫科機關의 恩澤을 及치 못하고 疾病에 呻吟하는 僻地國民을 救療하고 健康을 增進을 圖謀코자 九月中 左記 僻地에서 巡迴診療를 開始한다

麟蹄面 加兒里、貴田里、加里山里  
北面 龍袋里、寒凌里  
內面 鷹里、栗田里、柴里  
麟蹄面 上南里、鏡東里、芳東里



1940-09-15-03-06

### 매일신보

#### 무진장의 활엽수로 제탄 12만표 탄지 인제에서 전력

【인제】 임산자원에 무진장을 자랑하는 인제군은 종래 엽수를 원료로 하여 다수한 목탄을 산출하여왔었으나 구래에 제탄법으로 산출하여오던 관계상 그 품질이 양호치 못하므로 품질에 개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당국은 목탄개량강습회를 지난 8월에 개최하고 목탄조합을 주체로 하여 제탄자금을 융통하는 등 목탄의 산출을 위하여 다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서울방면에서 요리업조합 여관조합 대옥부조합 등에서 다량의 목탄 주문이 있으므로 그것에 수급에 대응하기 위하여 12만표에 목탄을 생산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갑중, 국당 양 기수는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하여 전국적으로 기근을 느끼는 목탄수급의 다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무성한 활엽수의 광경)

1940-09-25-03-05

### 매일신보

#### 인제 봉밀 대흉작 각지의 주문 거의 없는 상태

【인제】 전조선적으로 유명한 “인제 봉밀”은 그 성가가 높아서 각종 약용으로 공급하여왔었는데 인제군에서는 근래에 개량종 봉밀을 다수 산출하고 작년에 30관을 군농회에서 판매 알선하여 금년에도 작년에 비등한 수량을 산출할 예정이었으나 희유의 강우로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전반적으로 봉밀이 되지 않아서 전무 상태로 각지방에서는 주문을 중지하고 있다 한다.

1940-09-25-03-09

### 매일신보

#### 목탄 생산에 임도를 개설 인제군에서 착공 중

【인제】 임산자원의 무진장을 자랑하는 인제군에서는 종래 교통 불편으로 임산자원을 완전히 개발치 못하여 실로 사장 자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근자에 이르러 서울방면 요리업조합, 대좌부조합, 여관조합 등에서 다량의 목탄주문을 받고 활엽수를 원료로 금년도에 2만표 목탄을 산출하기로 계획을 하고 착착 진행 중인데 인제면 남북리 지내에 약5km되는 거리가 교통이 불편하여 인마가 겨우 통행하는 관계로 목탄생산지로부터 인제면 상동리까지 자동차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임도 개착을 하기로 지난 8월 하순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전연장 80%는 완전히 준공되고 나머지를 방금 공사 중인데 10월 초순에는 화물자동차로 목탄을 반출하게 되어 목탄수급이 일층 원활하게 되므로 예측되며 생산지에 산적된 목탄이 서울방면으로 수출되기도 전보다 속하여서서 목탄 수급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 한다.



1940-10-12-03-01

### 매일신보

## 강원도 미 수확 예상 93만4천여석

【춘천】 금년 강원도의 벼농사는 용수가 풍부하여 파종, 모내기 모두 순조로웠으나 모내기 이후에 세 번이나 거듭한 수해와 성숙기에 풍해냉해가 있어서 결실이 좋지 못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곳곳에 병충해까지 발생하여 좌기와 같이 감수의 수확예상을 보게되었다. 즉 논벼는 작부반별 86만391반보에 수확예상고가 93만3,167석 이요, 밭벼는 작부반별 1,328반보에 수확예상고가 1,047석이라는 데 제1회 작부반별 수확예상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제1회 쌀 예상수확고

군명	논벼작부반별(석)	논벼예상수확고(석)	밭벼작부반별(석)	밭벼예상수확고
춘천	44,198	61,579	36	47
인제	14,780	18,889	17	3

(중략)

1940-10-20-03-03

### 매일신보

## 강원도 잠업 품평회

【춘천】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잠업 품평회를 좌기 일정에 의하여 도내를 북부, 남부, 영동 3개로 나누어서 순회하기로 하였는데 주로 뽕밭 관리와 잠업 기구 정비에 상태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잠업품평회 심사 일정 및 심사원

- 북부  
 월일 출발 도착  
 10.21 춘천 인제  
     22 체재  
     23 인제 양구  
     24 체재  
     25 양구 화천  
     26 체재

(중략)

### 2. 심사원

- 북부 전공 기수, 무시 기수, 우야 조수  
 남부 등야 기수, 금촌 기수, 평소 검사원  
 영동 대석 기수, 성야 기수, 죽산 기수

# 江原道米收穫豫想

## 九十二萬四千餘石

【춘천】今年江原道の米收穫豫想 用 柳川 郡 田 畝 別 米 收穫 豫想 表 示 之 如 下 其 中 田 畝 別 米 收穫 豫想 表 示 之 如 下 其 中 田 畝 別 米 收穫 豫想 表 示 之 如 下 其 中 田 畝 別 米 收穫 豫想 表 示 之 如 下

郡名	田畝別米收穫豫想
春川	44,198
英陽	14,780
... (중략) ...	...
全道	93,400

### 江原道蠶業品評會

【춘천】蠶業品評會 日程 및 심사원

군명	출발	도착
10.21	춘천	인제
22	체재	
23	인제	양구
24	체재	
25	양구	화천
26	체재	

2. 심사원

군명	전공 기수	무시 기수	우야 조수
북부	전공 기수	무시 기수	우야 조수
남부	등야 기수	금촌 기수	평소 검사원
영동	대석 기수	성야 기수	죽산 기수

1940-10-20-03-05

### 매일신보

#### 우돈육 판매 가격 강원도 각군별로 지정

【춘천】 강원도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판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12일부터 실시하였는데 돼지고기 가격은 종전보다 훨씬 인상되었으며, 골류까지도 모조리 가격을 지정해버렸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의 인상에 따라 금후는 정육점 돈육을 떨기지 않도록 해서 일반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인데 그래도 돼지를 잡지 않는 경우에는 돼지의 도살판매를 일체 금지하여 응징할 것이라 한다.

##### 1. 우육 판매가격

군명 단위 상육(전) 중육(전) 하육(전) 두골골발(전) 기타(전)골류

춘천 1근	80	72	52	30	30
인제 1근	75	60	50	30	30

(중략)

##### 2. 돈육 판매가격

군명 단위 상육(전) 하육(전) 골류(전)

춘천 1근	65	40	10
인제 동	50	40	10

(중략)

1940-11-03-03-08

### 매일신보

#### 홍천, 인제 물산 지평역 경유 권유 지평번영회에서 맹활동

【홍천】 경경북부선 철도가 원주까지 개통된 이래 홍천지방은 직접 간접으로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종래 홍천으로부터 서울 방면으로 하물수송을 하려면 하물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어 종래부터 용문역을 경유하였는데 철도개통된 금일까지도 의연히 당지를 경유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개통이래 일약 교통요로의 일거점으로 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서는 유지일동이 번영회를 조직하고 홍천 인제 양군으로부터 서울방면으로 반출되는 물산의 집산지로 만들고자 그곳 면장이하 제씨는 전번 수차 홍천번영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열고 홍천인사들에게 지평리를 경유하라고 요청하였는데 홍천으로부터 용문까지는 42km 밖에 안된다는데 이정으로 보아도 현하 가솔린 입수난의 점차 심각화하여 가고 있는 이때 2km반이나 쓸데없이 차를 달린다면 1년간에는 수천km를 공연히 달리는 셈이며 그 소비되는 가솔린도 1년에는 수백갤런이 낭비되게 되는 것이라 속달주의로 보더라도 지평역을 경유하는 것이 양책이라는 것이다. (사진은 지평역전)

### 牛豚肉販賣價格

#### 江原道各郡別指定

郡名	單位	肉上	肉中	肉下	豚
江原道	斤	...	...	...	...
...	...	...	...	...	...

### 洪川、麟蹄物産

#### 砥平驛經由勸誘

砥平驛榮會서猛活動



...

1940-11-09-03-07

### 매일신보

#### 보건조사 실시 인제서의 체위향상책

【인제】 인제경찰서는 전시하 아동의 체위향상을 확보키 위하여 관내 공의로 하여금 좌기와 같이 남녀소년 진료를 경찰서 연무장에서 실시 기

- 11월 5일 여자 20세 19세 18세
- 11월 5일 여자 18세 17세 16세
- 11월 6일 남자 20세 19세 18세
- 11월 6일 남 18세 17세 16세
- 11월 7일 여자 15세 14세 13세 12세
- 11월 7일 여자 13세 12세 11세
- 11월 8일 남자 15세 14세 13세
- 11월 8일 남자 13세 12세 11세

### 保健調査實施

#### 麟蹄署의體位向上策

【麟蹄】 麟蹄警察署三 臨時下兒  
童團、體位向上策、臨時爲計、  
管内公醫所、하인근、左記와가치  
男女少年診療會、警察署民衆에  
서 實施

十一月五日  
女子二十歲十九歲十八歲  
十一月五日 女子十八歲十七歲  
十六歲

十一月六日  
十一月七日  
十一月八日  
十一月八日

十一月六日 男子二十歲十九歲十八歲  
十一月六日 男子十八歲十七歲十六歲  
十一月七日 女子十五歲十四歲十三歲十二歲  
十一月七日 女子十三歲十二歲十一歲  
十一月八日 男子十五歲十四歲十三歲  
十一月八日 男子十三歲十二歲十一歲

1940-11-21-03-07

### 매일신보

#### 남는 노력으로 탄표 제조 장려

【인제】 목탄수요기에 입하여 제탄업자는 탄표 부족으로 수요지에 반출을 못하는 현상이므로 군당국에서는 농산촌민의 잉여노력을 이용하여 탄표 제작을 장려하기로 되어 좌기와 같이 각면에 지정 배정 하였다 한다.

- ▲인제면 40kg표 10,000 20kg표 10,000
- ▲남면 40kg표 12,000 20kg표 12,000
- ▲기린면 40kg표 10,000 20kg표 12,000
- ▲내면 40kg표 24,000 20kg표 16,000
- ▲북면 40kg표 15,000 20kg표 12,000
- ▲합계 40kg표 54,000 20kg표 65,000

### 餘剩勞力으로 炭俵製造獎勵

【麟蹄】 炭俵製造獎勵 炭俵製造期에 入計여 製炭業者는 炭俵不足으로 需炭地에 搬出을 못하는 現狀인으로 郡當局에서는 農山村民의 餘剩勞力을利用하여 炭俵製作을 獎勵하기로되어 左記와가치 各面에 指定配定하였다 한다

麟蹄面 四十匹俵 六、五〇〇  
二十匹俵 一〇、〇〇〇

▲南面 同三〇〇 同三〇〇  
▲麟蹄面 同三〇〇 同三〇〇  
▲内面 同四〇〇 同六〇〇  
▲北面 同二五〇 同三〇〇  
▲合計 同四〇〇 同六五〇〇

1940-11-23-03-04

### 매일신보

#### 원통 서화간 도로 개통

【인제】 군내 서화면은 군하 제일가는 경지면적을 가진 곳이며 자원이 풍부한 곳이나 종래로부터 교통이 불편하여 도로 시설을 요로 당국에 진정한 것도 누차있었으나 지금까지 실현치 못하여 지방발전에 타격이 많았는데 실로 금촌 군수의 열심한 노력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북면 서화간은 완전히 준공되어 오는 24일 개통 초시 운전을 하기로 되었다. 이리하여 서화시장에서는 서화경방단 주최하에 시민씨름 및 운동대회를 3일간 개최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 元通瑞和間道路開通

【麟蹄】 郡内瑞和面은 郡下第一 가는 耕地面積을 가진 곳이며 資源이 豊富한 곳이나 從來로 運路交通이 不便하여 道路新設을 要路當局에 陳情한 바도 累次이었으나 尙今까지 實現치 못하여 地方發展에 打撃이 甚大인 實은 金村郡守의 熱心한 努力으로 工事에着手하여 北面瑞和間三 完全히竣功되어 오는二十四日開通初試運轉을 하기로 되었다. 이리하여 瑞和市場에서는 瑞和警防團主催에 市民脚戲及運動大會를三日間開催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 가마니 420여만매 명석 147만매, 총 212만여관 등 강원도, 각군에 생산 수량 배정

【춘천】 강원도에서는 새끼·가마니·명석 생산을 확보하고자 강릉, 원주, 철원 3개소에서 농업기술원협의회를 개최한 후 1941년 미곡년도(1940년 11월 1일부터 1941년 10월 31일까지)의 새끼·가마니·명석 생산 배급 배정 수량을 결정하는 동시에 기술 개선과 각종 빈가마니 회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지시 협의하였는데 결정된 각군의 생산배정수를 보면 가마니가 곡용4두 146만800매, 곡용3두 60만매, 비료17목 84만매, 지정 외 잡입목 23만4,300매로 계 423만5,100매이며 명석은 건연(乾筵) 99만7,000매, 건연 37만6,000매, 담배포대용 명석 2,700매, 절우대근포장용 명석 2만9,500매로 계 147만5,200매라 한다. 그리고 새끼는 경2분 14만7,400관, 경3분 34만4,200관, 경3분5리내 11만7,500관, 경4분내지 4분5리 147만3,900관, 경5분 3만7,000관, 경6분 3,000관으로 계 212만3,000관을 생산해내기로 된것인데 협의회의 지시사항과 각군별 생산 배정 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시사항

(중략)

◇각군별 생산배정수량

군별	승(새끼)	입(가마니)	연(명석)	군별	승(새끼)	입(가마니)	연(명석)
춘천	131,800	6,700	27,000	인제	35,500	-	10,000
양구	25,300	-	-	회양	131,000	28,000	12,000
통천	258,000	295,000	39,800	고성	43,400	200,000	164,000
양양	241,000	215,000	37,000	강릉	264,500	420,000	390,000
삼척	68,400	144,000	96,000	울진	43,000	69,000	234,000
정선	31,000	8,000	28,000	평창	31,000	10,500	46,000
영월	28,000	-	10,000	원주	730,000	-	55,000
횡성	437,000	-	60,000	홍천	292,000	-	33,000
화천	14,200	-	35,000	김화	259,700	17,500	55,000
철원	705,200	7,000	196,000	평강	251,000	14,000	45,000
이천	215,000	105,000	20,000				

## 가마니 四百廿餘萬枚

莖百四十七萬枚, 總二百十二萬餘貫等

### 江原道、各郡에 生産數量配定

【春川】江原道에서는 新子·가마니·명석 生産을 確保하고자 江陵, 원주, 철원 3개소에서 農業技術원협의회를 개최한 후 1941년 미곡년도(1940년 11월 1일부터 1941년 10월 31일까지)의 新子·가마니·명석 生産 배급 배정 수량을 결정하는 동시에 기술 개선과 각종 빈가마니 회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지시 협의하였는데 결정된 각군의 生産배정수를 보면 가마니가 곡용4두 146만800매, 곡용3두 60만매, 비료17목 84만매, 지정 외 잡입목 23만4,300매로 계 423만5,100매이며 명석은 건연(乾筵) 99만7,000매, 건연 37만6,000매, 담배포대용 명석 2,700매, 절우대근포장용 명석 2만9,500매로 계 147만5,200매라 한다. 그리고 새끼는 경2분 14만7,400관, 경3분 34만4,200관, 경3분5리내 11만7,500관, 경4분내지 4분5리 147만3,900관, 경5분 3만7,000관, 경6분 3,000관으로 계 212만3,000관을 生産해내기로 된것인데 협의회의 지시사항과 각군별 生産 배정 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시사항  
(중략)  
◇各군별 生産배정수량

군별	승(새끼)	입(가마니)	연(명석)
춘천	131,800	6,700	27,000
양구	25,300	-	-
통천	258,000	295,000	39,800
양양	241,000	215,000	37,000
삼척	68,400	144,000	96,000
정선	31,000	8,000	28,000
영월	28,000	-	10,000
횡성	437,000	-	60,000
화천	14,200	-	35,000
철원	705,200	7,000	196,000
이천	215,000	105,000	20,000

1940-11-26-03-09

### 매일신보

#### 인제군총력연맹 임원

【인제】 인제군총력연맹 임원은 그간 전형 중이었는데 이즘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한다. 이사장 금촌주방, 고문 상방진일, 고문 평본구달, 이사 중천태희장, 산소정시 평의원 약간명



1940-11-30-03-01

### 매일신보

#### 북면, 서화간 도로 개통식

【인제】 북면 서화면 도로 개통식은 지난 24일에 거행되었는데 금촌 군수, 상방 서장 및 지방유지 기자단 등은 경춘철도에서 특별히 내놓은 자동차를 타고 그날 오전9시30분 인제를 출발하여 오후2시 10분 전에 서화면 개통식 전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개통식 초시 운전 에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암본 서화면장, 상야 서화주재소 순사 부장, 금강 서화우편소장 등 각관공서 지방유지 서화면민 수천명의 출영을 받은 후 서화면사무소 광장에서 순서대로 식을 거행하였는데 서화, 북면간 도로 연장은 11,812m로 서흥리 사천촌부터 논장촌 간 가도로가 2,750m이며 논장촌부터 서화간이 9,062m인데 도폭원은 4m 내지 6m이라 한다. 1938년 4월 15일에 기공하여 금년 3월말 에 준공하였는데 그 총공사비는 2만4,537원58전으로 그중 도비보조 액이 2천원, 면민부담 부역이 2만6천명, 현금이 4,317원58전이라 한다. 이 도로는 무진장인 인제임산자원 개발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면민은 하루바삐 정기버스 운전을 요망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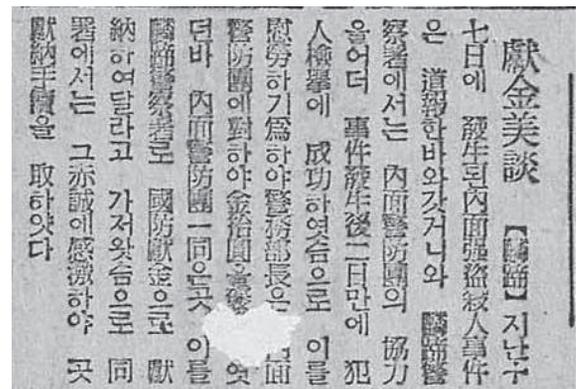


1940-11-30-03-05

### 매일신보

#### 헌금 미담

【인제】 지난 17일 발생된 내면 강도살인사건은 보도한 것과 같거니와 인제경찰서에서는 내면경방단의 협력을 얻어 사건발생 후 2일 만에 범인 검거에 성공하였으므로 이를 위로하기 위하여 경방부장은 내면경방단에 대하여 금 10원을 포상하였는데 내면경방단 일동은 곧 이를 인제경찰서로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여달라고 가져왔으므로 경찰서에서는 그 적성에 감격하여 곧 헌납수속을 취하였다.



1940-11-30-03-08

### 매일신보

#### 인제목재업자 총회

【인제】 인제군임업계에서는 군내 각목재업자를 총망라하여 좌기와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로 되었다 한다.

- 1. 개최의 일시 1940년 12월 3일
- 2. 개최장소 인제군 회의실
- 3. 부의사항
  - 가. 목재업자 벌채면적 배정에 관한 건
  - 나. 임목벌채 방법에 관한 건
  - 다. 목재(갱목 및 건축용재) 수급 조절에 관한 건
  - 라. 임목 판매 및 구입 알선에 관한 건
  - 마. 지원 연료 공급에 관한 건
  - 바. 기타 잡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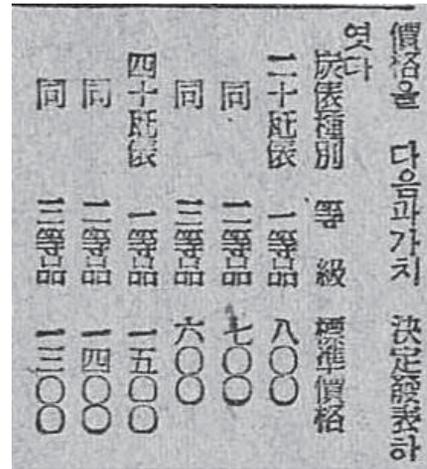
1940-12-07-03-05

### 매일신보

#### 인제 탄표 표준가 결정

【인제】 인제군에서는 탄표 표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였다.

탄표종별	등급	표준가격
20천표	1등급	800
20천표	2등급	700
20천표	3등급	600
40천표	1등급	1500
40천표	2등급	1400
40천표	3등급	1300



1940-12-07-03-10

### 매일신보

#### 인제 가마니짜기 강습회

【인제】 인제군은 1941년도 미곡가마니 배정 수량 생산을 일층 강조할뿐더러 품질 개량 및 입직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좌기와 같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전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면별	개최월일	개최장소	전습기술원씨명
인제면	12월 9일	인제군청정구코트장	대산정응금원덕명 등촌진국
남면	동 10일	남면사무소 전정	동
북면	동 11일	북면소학교운동장	동
서화면	동 12일	서화소학교운동장	동
기린면	동	동	동
내면	동	동	동



1940-12-17-04-08

### 매일신보

#### 인제지방에 염병

【인제】 인제읍에는 올봄에서 발생되어 많은 희생자를 내던 장티푸스가 또다시 11월 하순부터 재발되어 벌써 남자 4명, 여자 1명이 신음하고 있으므로 인제서 위생계에서는 방역에 전력중이다.

1941-01-18-03-02

### 매일신보

#### 검거만 1천700여건 강원도내의 작년 중 경제사범

【춘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1개년 간 강원도내의 경제통제법령의 위반건수를 보면 검거 1,711건에 인원이 2,410명이고, 유시 3,629건에 인원이 3,675명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폭리행위규칙 위반이 단연 많아서 검거 1,016건에 인원이 1천21인, 유시 1,985건에 인원이 1,016인이며 다음 가격등통제령 위반으로 검거 476건에 인원이 792인, 유시 1,114건에 인원이 1,222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대가입통제령 위반도 검거 83건에 인원이 51인, 유시 376건에 인원이 253인이며 사치품제조판매제한령 위반은 검거 12건에 인원이 31인이었다고 한다. 또한 중유수급배급조정 위반도 검거 5건에 인원이 7인이나 되는데 이는 특수한 경제사범이라고 하겠는데 각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서별	검거건수	유시건수 (괄호내는 인원 수)
춘천	123(123)	88 (88)
인제	29(40)	100 (104)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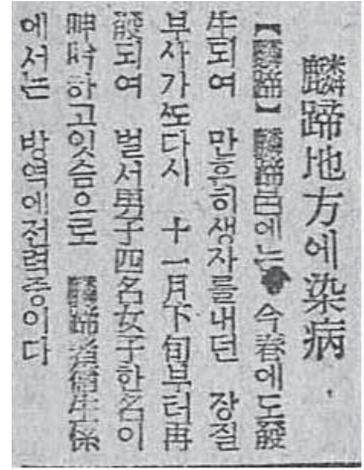
1941-01-18-03-03

### 매일신보

#### 면화 공판 실적 불량

【춘천】 강원도의 면화공판 실적을 보면 지난 12월 말일 현재 출하 물량이 겨우 125만근에 불과하여 예년에 없는 부진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를 각군 배정 수량 550만근에 비한다면 24.5%에 해당되는 불량한 성적이다. 이같이 출하가 부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면작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달 말까지 공판을 실시할 터이므로 그 안이라도 있는 대로 출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각군에서는 관계직원 총동원으로 출하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각 군별 공판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면화공판실적(12월 말일 현재)		
군별	배정수량(천근)	출하실적(근)
춘천	640	78,757
인제	140	14,306



江原道内の 昨年中 經濟事犯 檢舉 千七百餘件

江原道	1,711	2,410
春川	123	88
人津	29	100
...	...	...

棉花共販成績不良

【春川】江原道棉花共販成績最不振。昨年12月末日現在出下数量僅125萬斤。而配額550萬斤。僅及24.5%。成績不良。...

郡別	配額(千斤)	出下 실적(斤)
春川	640	78,757
人津	140	14,306
...	...	...

1941-01-28-03-08

### 매일신보

#### 1평에 7원50전 인제군 장작가격 협정

【인제】 인제군에서는 군내 장작 수급의 원활을 꾀하는 동시에 가격의 적정을 기하고자 지난 26일 경찰서장 및 신목업자 기타 지방 유력자 등을 초집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가격 협정을 하고 당일 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 ◇적송목 최고가격 ▲1등 1평당 7원50 ▲2등 동6.50 ▲3등 동6.00 ▲등의 동5.50
- ◇유신목 최고가격 ▲1등 1평당 8.00 ▲2등 동7.00 ▲등의 동6.50

1941-02-02-03-02

### 매일신보

#### 1만명 돌파도 재이, 고조된 강원청년의 지원병열

【춘천】 강원도내의 지원병열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애국열에 불타는 강원청년의 의기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31일 현재 응모자수를 보면 실로 9,423명에 달하여 1만명을 돌파할 날도 멀지않다고 한다. 응모자수를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아서 춘천의 827명이 가장 많고 원주의 770명이 다음으로 많으며 제일 적은 곳이 화천의 177명인데 그 중에도 중등학교 졸업자가 29명 혈서탄원자가 25명이나 된다고 한다.

- ▲춘천 827 ▲인제 341 ▲양구 300 ▲회양 224 ▲통천 406 ▲고성 325 ▲양양 270 ▲강릉 386 ▲삼척 582 ▲울진 311 ▲정선 461 ▲평창 480 ▲영월 468 ▲원주 770 ▲횡성 355 ▲홍천 470 ▲화천 177 ▲김화 539(그 중 금성 39명) ▲철원 649 ▲평강 661 ▲이천 421 ▲계 9,423명

1941-02-06-03-07

### 매일신보

#### 우량청년 21명 선발 일본 聖蹟을 참배시킴

【춘천】 강원도에서는 각군 청년단에서 1명씩 우량청년을 선발하여 오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일본의 성스러운 유적지를 참배시키는 동시에 대본영을 비롯하여 조폐국내원훈련소 등을 시찰케 하리라는데 선발된 단원은 좌기 21명이라고 한다.

- ▲금야구척 (춘천) ▲미원관(인제) ▲금산선목(양구) ▲향산훈(회양) ▲금광무용(통천) ▲암본연조(고성) ▲금택경희(양양) ▲권춘학주(강릉) ▲광야일운(삼척) ▲송원영무(울진) ▲삼정문웅(정선) ▲대촌재수(평창) ▲금곡진원(영월) ▲장윤현(원주) ▲송산영호(횡성) ▲명석의본(홍천) ▲평산영(화천) ▲고산대석(김화) ▲김영철(철원) ▲청수국본(평강) ▲평소명중(이천)

【麟蹄】麟蹄에서는 郡内長研 需給の 圓滑を圖する同時に 價格の適正を期하고서 지난廿六日 警察署長及 薪木業者 其他地方 有刀者等並 招集協談の結果 다음과 같이 價格協定을 하고 當日 부터 實施하기로 되었다.

◇赤松不最高價格 ▲一等 一坪 七圓五〇 ▲二等同六 五〇 ▲三等同六 〇〇 ▲等外同五 五〇

◇薪木不最高價格 ▲一等 一坪當 八 〇〇 ▲二等同七 〇〇 ▲等外同六 五〇

한坪에 七圓五十錢  
麟蹄郡長研價格協定  
外同六 五〇

一萬名突破在邇  
高調된江原靑年의志願兵熱

【原州】江原도내의 지원병열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애국열에 불타는 강원청년의 의기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31일 현재 응모자수를 보면 실로 9,423명에 달하여 1만명을 돌파할 날도 멀지않다고 한다. 응모자수를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아서 춘천의 827명이 가장 많고 원주의 770명이 다음으로 많으며 제일 적은 곳이 화천의 177명인데 그 중에도 중등학교 졸업자가 29명 혈서탄원자가 25명이나 된다고 한다.

▲춘천 827 ▲인제 341 ▲양구 300 ▲회양 224 ▲통천 406 ▲고성 325 ▲양양 270 ▲강릉 386 ▲삼척 582 ▲울진 311 ▲정선 461 ▲평창 480 ▲영월 468 ▲원주 770 ▲횡성 355 ▲홍천 470 ▲화천 177 ▲김화 539(그 중 금성 39명) ▲철원 649 ▲평강 661 ▲이천 421 ▲계 9,423명

優良靑年廿一名選拔 內地聖蹟을參拜시킴

【春川】江原道에서는 各郡靑年團에서 一名씩 優良靑年을選拔하여 오는 25일부터 3月9日까지 二週間에 걸쳐 内地의聖蹟을參拜시키는 동시에 大本營等을視察케 하리라는데 選拔된靑年은 左記 21名이라고 한다.

▲金野久則(春川) ▲米原寬(麟蹄) ▲金山源(龜田) ▲香山(省城) ▲金光謙(通川) ▲岩本眞作(高城) ▲金慶慶(龜田) ▲權哲高(江陵) ▲廣野一連(三陟) ▲松原榮茂(陽城) ▲森井文雄(淮陽) ▲木村士水(平昌) ▲金谷鍾沅(寧越) ▲張南敦(同州) ▲松山英鎭(橫城) ▲明行顯本(洪川) ▲平山榮(華川) ▲高山泰壽(金化) ▲金永益(龜田) ▲清次國本(平康) ▲平治明重(伊川)

1941-02-08-03-05

매일신보

강원도 만명을 돌파 5일 현재의 지원병 응모자수

【춘천】 강원도내의 지원병 지원자는 지난 5일 현재로 드디어 1만명을 돌파하고 말았다. 즉 춘천의 827명을 최고로 1,208명에 달해 그 중에는 중등학교 졸업자가 33명이나 되며 혈서로 채용을 탄원한 청년도 27명이나 된다고 한다. 각 군의 지원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827명 ▲인제 243 ▲양구 319 ▲회양 249 ▲통천 412 ▲고성 333 ▲양양 439 ▲강릉 486 ▲삼척 583 ▲울진 365 ▲정선 461 ▲평창 80 ▲영월 520 ▲원주 794 ▲횡성 417 ▲홍천 625 ▲화천 250 ▲김화 445(그 중 금성 234명)▲철원 721 ▲평강 718 ▲이천 421 ▲계 10,208

1941-02-09-03-03

매일신보

납세 공로자 표창

【춘천】 강원도에서는 항례에 의해 오는 11일 기원가절에 납세공로자를 표창하기로 되었는데 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 ◇단체(5단체) ▲김화군 서면 ▲철원군 묘장면 ▲인제군 내면 울전리 2구 납세조합 ▲회양군 안풍면 용암리 ▲원주군 귀래면 귀래리
- ◇개인(9명) ▲통천군 통천면 금란리구장 최봉훈 ▲고성군 오대면 원당리 구장 최상집 ▲양양군 서면 수리 구장 김종효 ▲삼척군 삼척읍 정상리 조목일순 ▲정선군 정선면 굴암리 구장 왕산영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지포동 강효선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박상준 ▲김화면 학사리 2구장 덕원건태 ▲이천군 낙●면 외낙리 납세조합장 이종용

1941-02-09-03-06

매일신보

총력운동 공적자 강원도연맹에서 표창

【춘천】 국민총력강원도연맹에서는 오는 11일 기원절의 가진을 맞아 총력운동의 공적자를 표창하기로 되어 당해 각군연맹에서 각각 표창장과 상금의 전달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상금은 1연맹에 30원, 개인에 10원인바 연맹은 현금, 개인은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되었으며 영예의 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한다.

- ◇단체 (중략)
- ◇개인(애국반원) (중략) ▲인제군 남면 신흥리제8애국반장 평산덕근 (중략)

萬名을突破! 五日現在の志願兵應募者數

【春川】 강원도 군의 지원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春川(八十七名) ▲麟蹄(三三三) ▲志願兵(二四九) ▲通川(二二九) ▲高城(三三三) ▲鐵原(二二九) ▲陽川(二二九) ▲江陵(四八六) ▲三陟(五八三) ▲蔚珍(三六五) ▲旌善(四一七) ▲平昌(四八〇) ▲靈越(五二一) ▲原州(七四四) ▲橫城(四一七) ▲洪川(六二五) ▲華川(二五〇) ▲鍾淵(三三三) ▲洪川(二五〇) ▲金剛山(三三四) ▲中興(二三四) ▲包谷(一八) ▲麟蹄(七一) ▲平康(七二) ▲伊川(二二) ▲計(一〇,二〇八)

納稅功勞者表彰

【春川】 江原道에서는 恒例에 의해서 오는 11日 紀念納稅功勞者를表彰하기로 되었다

○團體(五團體) ▲金化郡西面 ▲麟蹄郡龍長面 ▲麟蹄郡西面 田甲二區納稅組合 ▲淮陽郡安邊洞 納稅組 合 ▲淮陽郡安邊洞 納稅組 合 ▲原州郡 曹來面 曹來里

○個人(九名) ▲通川郡通川面金蘭里 區長 崔鳳勳 ▲高城郡橫山面源塘里 區長

崔相集 ▲麟蹄郡西面水甲里 區長 金鍾孝 ▲三陟郡二陟邑 上里 朝木鴻澤 ▲旌善郡旌善面 楊石里 區長 王山榮 ▲平昌郡六和面 龍石面 曹里 朴柏榮 ▲平昌郡 龍沙里 二區 區長 德煥 榮 ▲平昌郡 龍沙里 區長 外 崔相集 ▲通川郡 通川面 納稅組 合 李 鍾淵

總力運動功績者 江原道聯盟에서表彰

【春川】 國民總力江原道聯盟에서는 오는 11日 紀念總力運動의 功績者를表彰하기로 되었다

○團體 ▲麟蹄郡西面 通川里 一區 納稅組合 ▲伊川郡 伊川面 北谷里 區長 李 鍾淵

○個人 ▲麟蹄郡 ▲春川(大成町) 二丁 麟蹄總事務 長 金相光 ▲三陟郡 北二面 區長 李 鍾孝 ▲通川郡 通川面 楊石里 區長 王山榮 ▲旌善郡 旌善面 楊石里 區長 崔相集 ▲平昌郡 龍沙里 區長 德煥 榮 ▲平昌郡 龍沙里 區長 外 崔相集 ▲通川郡 通川面 納稅組 合 李 鍾淵

1941-03-12-03-10

### 매일신보

#### 인제 신사 신역에 봉헌목 식수계획

【인제】 연래의 현안이던 인제신사는 광휘있는 황기 2600년을 기하여 조영을 계획하여 올 봄에 착공한 이래 공사가 진척되어 오는 4월 경에는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군당국은 신역림원을 정비하고자 봉헌목 약 1200주를 식수할 계획으로 목하 각면과 독지가의 다수 봉헌을 받아 4월 3일 「기념식수일」을 기하여 식수할 계획이라 하며 수종은 상록수인 「적송 전나무 정목 향나무 잣나무」등이라 한다고 한다.

1941-03-14-03-04

### 매일신보

#### 군용가마니 증산 호적 인제도 예정수량 돌파

인제군에서는 「군용가마니」증산에 대하여 방금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각부락 애국반으로부터 출하된 수량이 수일간에 약 5천여표에 달하며 매일 매일 출하되는 성적이 매우 순조로워 예정수량 돌파하기는 용이하리라고 한다.

1941-03-16-03-03

### 매일신보

#### 인제의 육군 기념일

【인제】 인제군에서는 3월 10일 제36회 육군 기념일을 맞이하여 동 일 오전 9시 반에 각 관공서원은 물론 시내 애국반장이 총출동하여 인제 신사 대전 광장에는 입주의 여지조차 없어 근래의 희유한 대집합이었는데 이것은 민중이 시국을 잘 인식하는 일증좌로 볼 수있다. 소정의 식을 마치고 뒤이어 기행렬로 시내를 행진하였는데 참가 인원이 수천명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1941-03-21-03-07

### 매일신보

#### 산화방지에 만전 인제군 대활동

【인제】 인제군에서는 산화 빈발기를 앞두고 산화 방지에 만전을 기코자 각종 선전 「전단」을 살포하며 「포스터」를 각 관공서를 위시하여 상점 출입하는 창문과 중인이 보기 쉬운 곳에 첩부하여 민중에 이해를 환기시키며 각부락, 산화 방지단과 연락을 취하여 산화의 미연 방지를 기도하고 있다.

麟蹄神社神域에  
奉獻木植樹計畫  
【麟蹄】年來의懸案이던 麟蹄神  
社는 光輝있는皇紀二千六百年을  
期하여 造營計畫計畫御年時 刷  
봄이著工以來 工事가進拂되어  
오는 四月頃에는 竣功을豫定이  
라고하는바 郡當局은神域林苑을  
整備하고자 奉獻木約一千二百株  
를 植樹할計畫으로 目下各面과  
特志家の 多數奉獻을 바디四月  
三日「紀念植樹日」을期하여 植  
樹할計畫이라하며 樹種은常綠樹  
인「赤松」전나무 정목 향나무  
잣나무」등이라 한다고 한다

軍用吹增産好績  
麟蹄도豫定數量突破  
【麟蹄】麟蹄에서는「軍用吹」屬의 數日間에約五千餘張에達하  
고있으며 吹發의 매우良好하여 日 毎々々出荷되는 成績이매  
谷部洛愛國班으로부터 出荷된數 益勢이되고있다

麟蹄의陸軍記念日  
【麟蹄】麟蹄에서는 三月十日  
第三十六回 陸軍紀念日을마지하  
야 同日午前九時半에 各官公署  
員은勿論 市内愛國班員이 總出  
動하여 麟蹄神前大前 廣場에는  
立錫의餘地조차없서 近來의稀有  
한 大集會이였는데 이것은 民  
衆이時局을 잘認識하는 一證左  
로볼수있다 所定의式을마치고뒤  
이어 旗行列로 市内을行進하였  
는데 參加人員이數千名으로 盛  
況裏에 行事를마치었다

山火防止에萬全大活動  
【麟蹄】麟蹄에서는 山火頻發 時時發生을公會議에서 官民有  
期警惕하고 山火防止에 萬全을 志多懸念列下에 盛大히 舉行하  
期코자 各種傳「제」를 各官公署  
를爲始하여 商店出入하는 衆商  
과衆人이보기쉬운處에 懸付하여  
民衆이理解를 喚起시키며 各部  
落, 山火防止團과 連絡을取하여  
山火의未然防止를 企圖하고있다

1941-04-09-03-08

### 매일신보

#### 부녀의 근로열 자갈 까는 부역에 출동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2월 말일 경부터 서울 오리진선 2등 도로와 흥천, 인제선 3등 도로에 자갈을 깔기로 되어있는데 각 부락 담당 구역에는 부인, 아동들이 총출동하여 자갈 채취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부인들이 반수 이상이나 되어 근로 보국에 대한 부인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군민은 자못 감동하고 있다 한다.

1941-04-09-03-02

### 매일신보

#### 북선 개척 이민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매년 만주와 북조선지방으로 이민을 앞선해왔는데 올봄에도 북조선 개척이민으로 217호 1,086명을 함북 무산군 연상면 조선개척제련주식회사 사업구에 이주시키기로 되어 금월 중순경에 각군에서 출발하리라는데 군별 이주민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화천 39호 184명 ▲인제 7호 38명 ▲양구 29호 156명 ▲김화 37호 157명 ▲원주 42호 213명 ▲흥천 63호 338명 계 217호 1,086명

1941-04-09-03-10

### 매일신보

#### 인제학교평의회

【인제】 인제군학교위에서는 지난 29일 오전10시부터 군회의실에서 평의회를 개최하였는데 13만원에 달하던 미중유의 방대 예산을 신중 심의 가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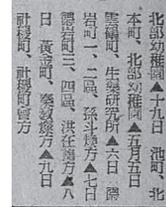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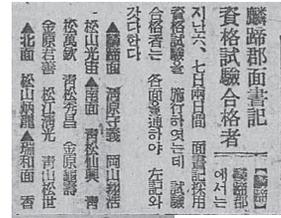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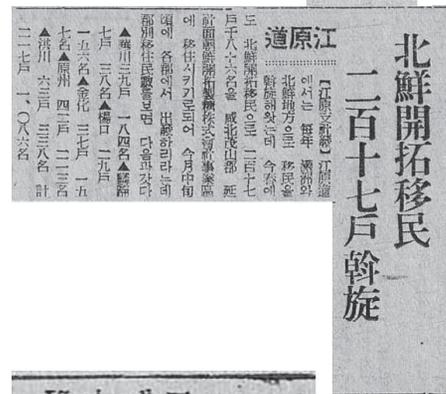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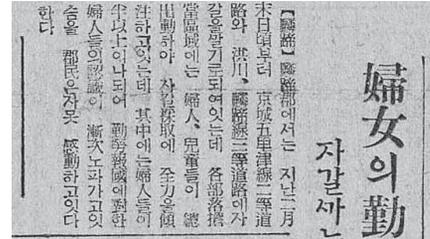
1941-04-16-03-06

### 매일신보

#### 인제군 면서기 자격시험 합격자

【인제】 인제군에서는 지난6, 7일 양일간 면서기 채용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는데 시험 합격자는 각면을 통하여 좌기와 같다 한다.

▲인제면 청원수의 강산상호 송산광주 ▲남면 청송선홍 청송만흠 청송수창 금원구수 금원군선 송강청광 청산송세 ▲북면 송산병룡 ▲서화면 향산정웅 송본형근 산봉룡옥 ▲기린면 문전인화 평본봉수 암본종구 ▲내면 금곡진원 금전동호 신정기선 금택미좌웅



1941-04-20-03-09

### 매일신보

#### 강원도의 입후보자

【인제】 금번 강원도회의원 총개선에 제하여 인제군에서는 좌의 제씨가 지난 14일에 정식 입후보 계를 제출하였다.  
 ▲금곡민(구 김영제) ▲국본정좌(구 이진국)



1941-04-23-03-01

### 매일신보

#### 신인 출마가 대부분 현 의원은 45명 중 8명

【강원지사발】 지난20일 현재 강원도회의원 입후보자수는 45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 현의원의 출마자는 겨우 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7명은 전부 신인들 뿐이어서 이번 개선기에는 상당한 결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각 군별 입후보자수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아직까지 원주와 평강에 입후보자가 1명도 없는 것은 기이한 현상으로 암약전이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당국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모양이다.  
 ▲춘천 1 ▲인제 2 ▲양구 2 ▲회양 3 ▲통천 2 ▲고성 3 ▲양양 4 ▲강릉 3 ▲삼척 3 ▲울진 3 ▲정선 2 ▲평창 2 ▲영월 4 ▲횡성 2 ▲홍천 2 ▲화천 2 ▲김화 2 ▲철원 2 ▲이천 1 ▲계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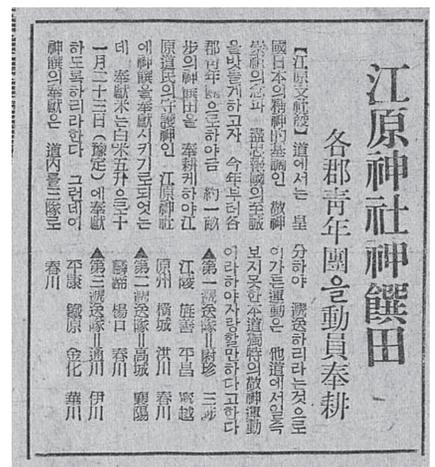


1941-04-23-03-04

### 매일신보

#### 강원신사 신찬전 각군 청년단을 동원 봉경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황국 일본의 정신적 기조인 경신숭조의 엄과 진충보국의 지성을 받들게 하고자 금년부터 각군 청년단으로 하여금 약 1무보의 신찬미는 백미 5승으로 11월 23일(예정)에 봉헌하도록 하리라 한다. 그런데 이 신찬의 봉헌은 도내를 3대로 분하여 체송하리라는 것으로 이 같은 운동은 타도에서 일찍 보지 못한 강원도 특유의 갱신운동이라 하여 자랑할 만하다고 한다.  
 ▲제1체송대=울진 삼척 강릉 정선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 춘천  
 ▲제2체송대=고성 양양 인제 양구 춘천  
 ▲제3체송대=통천 이천 평강 철원 김화 화천 춘천



1941-04-27-03-03

### 매일신보

#### 도 간부 총동원 면화 대마 파종 독려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도 면화와 대마를 증산키로 되어 면화 1만3천정보 대마 700정보를 작부시키기로 되었는데 도에서는 파종의 일제 지도를 하고자 고미 지사 이하 3부장을 위시하여 관계직원 총동원으로 도내를 7반으로 나누어 출장독려하기로 되었다.

○지도독려 분담

- ▲제1반 춘천 철원 평강 이천 가촌기사 증영기사 대금기사
- ▲제2반 강릉 삼척 울진 굴산농무과장 창본기사
- ▲제3반 원주 횡성 홍천 영월 대천기사
- ▲제4반 화천 김화 회양 울미기사 토기기사
- ▲제5반 인제 양구 태전기사
- ▲제6반 양양 대촌기사
- ▲제7반 정선 평창 진촌기사

1941-04-27-05-01

### 매일신보

#### 상업 등기 공고

주식회사 선익상회 변경 감사역 이중익 이형선은 1941년 3월 20일 중임함

1941년 3월 25일 등기 서울지방법원 홍천출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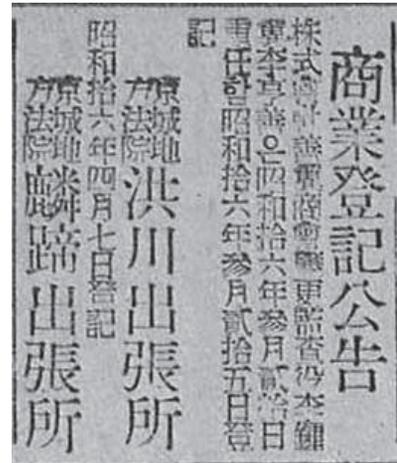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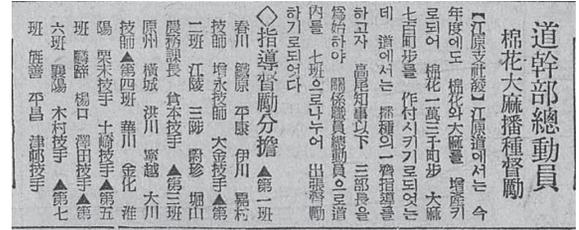
1941년 4월 7일 등기 서울지방법원 인제출장소

1941-05-02-03-02

### 매일신보

#### 정원의 2배반 돌과 강원도의 축록전 맹렬

【강원지사발】 개선기가 박두해감에 따라 강원도회의원 축록전은 날로 방감하여져서 지난 30일 현재 입후보자 수는 전부 54명에 달하였다. 이로써 입후보 계층은 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만 가지고 보더라도 정원 21명에 대하여 2배 반을 초과하였으며 그 중에도 인제, 양양, 영월 각 군은 1대 4의 격전이고 원주군은 입후보자가 현 도의원 박충모씨 단 1인뿐이어서 부진승은 확실하게 되었다.



41-05-02-03-08

### 매일신보

#### 인제군 농업 노임

【인제】 인제군에서는 금번 일반 노무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발표하였다.

농번기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남1.50 여 1.00 ▲15세 이상 18세 미만 남 1.00 여 70 ▲15세 미만 남 60 여 50 농번기 이외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남1.10 여 85 ▲15세 이상 18세 미만 남 95 여 75 ▲15세 미만 남 60 여 40

단 농번기라 칭하는 것은 논 갈기, 모내기, 논의 제초, 벼 보리 수확, 논외 이작 파종, 벼 보리의 탈곡과 조정, 면작 밭의 제초, 밭 사이갈기, 과일 채취 등 작업으로 함.

1941-05-13-03-01

### 매일신보

#### 전선 각 도회의원 일람

강원도(21명)

- ▲춘천군(정원 1명) 정등은섭(49) 사법서사(구)
- ▲강릉군(정원 1명) 송강세종(42) 수산업(신)
- ▲화천군(정원 1명) 홍원의(46) 신문기자(신)
- ▲삼척군(정원 1명) 나정용(35) 회사원(신)
- ▲인제군(정원 1명) 국본정좌(39) 양조업(신) (중략)

1941-05-23-03-02

### 매일신보

#### 벼농사 개선 강습회

【강원지사발】 강원도농회에서 관민 총동원대세로서 증미계획 달성 제2기전에 대비하고자 오는 25일부터 도내를 3구로 분하여 벼농사 개선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개최 장소는

- ▲춘천 5월 25일 춘천 인제 양구 화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 ▲강릉 5월 27일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평창
- ▲철원 5월 29일 회양 통천 고성 김화 철원 평강 이천으로 각 농회 읍면 곡물검사소 수리조합 금융조합 농장의 직원과 지주 중심인물 독농가 등이 출석할 터이며 도 관계 직원 외에 특히 본부로부터 이동기사를 강사로 초빙해올 터이다. 강습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차계획에 의한 주요작업의 실시방법 ▲묘대 적지 재배법의 개선 ▲심경의 실시 ▲평휴 및 휴반의 실시 ▲본년도에 실시할 주요작업의 실시방법=묘대 준비의 합리적 시용법 묘의 간인 보식 및 제초 피뽑기 식부방법 분담 비료의 합리적 시용법 병충해의 방제냉해 방지법 ▲종자 갱신계획의 확충 ▲국민총력연맹 식량 증산 운동 ▲조선농회 증미 공진회의 개최

麟蹄郡農業者賃  
 【麟蹄】麟蹄郡에서는 今番一般 勞務者の賃金を 다음과 같이 指定 발표 하였다.

農繁期에 있어서는 ▲十八歲以上 男一、五〇女一、〇〇▲十五歲以上十八歲未滿 男一、〇〇女七〇▲十五歲未滿 男六〇女五〇

農繁期以外에 있어서는 ▲十八歲以上 男一、一〇女八五▲十五歲以上十八歲未滿 男九五女七五▲十五歲未滿 男六〇女四〇

但農繁期라稱하는것은 耨起耕 插秧、畚의除草稻麥의收穫、畚의裏作播種、稻麥의脫穀과調整、棉作田의除草田の中耕、荏草採取等 作業에 포함

江原道(21名)

- ▲春川郡(정원 1명) 정등은섭(49) 사법서사(구)
- ▲강릉군(정원 1명) 송강세종(42) 수산업(신)
- ▲화천군(정원 1명) 홍원의(46) 신문기자(신)
- ▲삼척군(정원 1명) 나정용(35) 회사원(신)
- ▲인제군(정원 1명) 국본정좌(39) 양조업(신) (중략)

### 稻作改善講習會

【江原支社發】道農會에서는 官民總動員政策로서 增米計畫達成 第二期戰에 對應하고자 오는 二十五日 부터 道內를 三區로 分하여 稻作改善講習會를 開催하기로 되었는리 開催場所는

▲春川 五月二十五日 春川 麟蹄 楊口 華川 洪川 橫城 原州 寧越 ▲江陵 同廿七日 梨陽 江陵 三陟 蔚珍 旌善 平昌 ▲鐵原 同廿九日 淮陽 通川 高城 金化 鐵原 平康 伊川 各郡農會 岳面 驛物檢査所 水利組合 金融組合 農場等의 職員과 地主 中心人物 管農家等이 出席할이며 道關係職員外에 特別本府로부터 伊

農技師를 講師로 聘請할 터이다 講習科目은 米田을 보다 云과 같다

- ▲年次計畫의 依對主要作業의 實施方法 ▲苗代地 栽培法의 改善 ▲深耕의 實施 ▲本畦及 畦畔의 實施 ▲本年度에 實施할 主要作業의 實施方法 ▲苗代追肥 及 合理的 施用法 ▲苗の 間引 補植 及 除草 雜草 拔 除草方法 ▲本畝肥料의 合理的 施用法 ▲病蟲害의 防除 ▲冷害防止法 ▲種子更新計 畫의 擴充 ▲國民總力 聯合會 糧食 增産 運動 ▲朝鮮農會 增米 共進會의 開催

1941-06-04-03-08

### 매일신보

#### 홍천군 도로 심사

【홍천】 강원도에서는 관내 각군을 연합하여 도로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토목 기사 암본씨가 심사 차로 지난 20일에 내홍하여 23일까지 3일간 좌기 6개 면 도로를 심사하였는데 타군에 비하여 대체로 성적이 양호하다고 한다.

- ▲ 김화 충주선 2등도로(북방, 홍천 남면)
- ▲ 서울 인제선 3등도로(두촌, 화촌, 홍천, 남면)
- ▲ 홍천 양양선 등외도로(서석)



1941-06-29-03-04

### 매일신보

#### 인제 어른국민교 학부형회와 후원회

【강원지사발】 인제군 남면 어른국민학교는 당지 유지 금원광소, 구장 금본익도 양씨의 노력에 의하여 설립을 보게 되어 교사 신축도씨는 공장 종업원 일동을 동원하여 근로보국단을 조직하여 농번기에 모내기를 하고 받은 노임 27원72전을 국방헌금으로 하여달라고 전부 연맹이사장에게 보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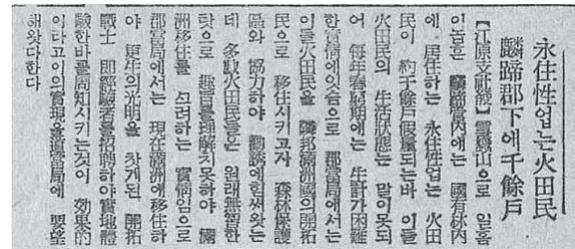


1941-07-23-03-05

### 매일신보

#### 영주성없는 화전민 인제군하에 1천여호

【강원지사발】 설악산으로 이름이 높은 인제관내에는 국유림내에 거주하는 영주성 없는 화전민이 약 1천여호 가량되는데 이들 화전민의 생활상태는 말이 못되어 매년 춘궁기에는 생계가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군 당국에서는 이들 화전민을 인방 만주국의 개척민으로 이주시키고자 삼림보호구와 협력하여 권유에 힘써왔는데 다수 화전민들은 원래 무지한 탓으로 취지를 이해치 못하여 만주 이주를 꺼려하는 실정이므로 군당국에서는 현재 만주에 이주하여 개생의 광명을 찾게 된 개척전사 즉 경험자를 초빙하여 실지 체험한 바를 주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의 실현을 도당국에 요망해왔다 한다.



### 세나는 강원도 목탄 76만표를 도외로 반출 계획

【강원지사발】 도내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대환영을 받고 있는 강원도목탄은 날로 수요가 높아가고 있는바 강원도에서는 개량탄 증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최근 연료 사용량의 증가와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한 목탄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의 수요가 날로 격증되어가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올해내에 다음과 같이 목탄의 대량 증산을 기도하기로 되었다. 즉 춘천군의 25만표를 필두로 152만1,000표의 목탄을 생산해내기로 되어 방금 각군에서 제탄에 힘쓰고 있는 중인데 생산 목탄 중에서 71만1,000표만을 도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76만표는 도외로 반출하기로 되었는바 도외 반출탄은 주로 서울에 64만9,000표, 함남에 1만5,000표, 경남에 3만1,000표를 반출하는 외에 일본 오사카에도 6만5,000표를 보낼 터이라고 한다. 이제 각군별 생산목표 수량과 수급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탄생산수급계획 (단위 정미20t입표)

군명	생산량	군내수요량	도외반출량	군명	생산량	군내수요량	도외반출량
춘천	250,000	85,000	165,000	인제	65,000	34,000	31,000
양구	105,000	15,000	90,000	통천	38,000	28,000	10,000
고성	35,000	35,000	-	양양	56,000	30,000	26,000
강릉	60,000	55,000	5,000	삼척	50,000	50,000	-
울진	58,000	30,000	28,000	정선	40,000	40,000	-
평창	65,000	35,000	30,000	영월	27,000	27,000	-
원주	66,000	40,000	26,000	횡성	41,000	15,000	26,000
홍천	100,000	38,000	62,000	화천	45,000	37,000	8,000
김화	110,000	25,000	85,000	철원	65,000	45,000	20,000
평강	105,000	22,000	83,000	이천	70,000	30,000	40,000
총계	1,521,000	761,000	760,000				

## 세나는江原道木炭

七十六萬俵을道外로搬出計畫

【江原道發】鮮內勿論 内地에서까지 大歡迎을 받고 있는 江原道木炭은 日來 日甚히 需要가 높아지고 있다. 山林課에서는 改良炭 産出의 努力을 하고 있다. 今年 産出의 最盛期에 達한 木炭自動車의 登場은 勿論하여 그의 需要가 日甚히 높아지고 있다. 本年 産出의 最盛期에 達한 木炭自動車의 登場은 勿論하여 그의 需要가 日甚히 높아지고 있다.

今年 産出의 最盛期에 達한 木炭自動車의 登場은 勿論하여 그의 需要가 日甚히 높아지고 있다. 本年 産出의 最盛期에 達한 木炭自動車의 登場은 勿論하여 그의 需要가 日甚히 높아지고 있다.

本年 産出의 最盛期에 達한 木炭自動車의 登場은 勿論하여 그의 需要가 日甚히 높아지고 있다. 本年 産出의 最盛期에 達한 木炭自動車의 登場은 勿論하여 그의 需要가 日甚히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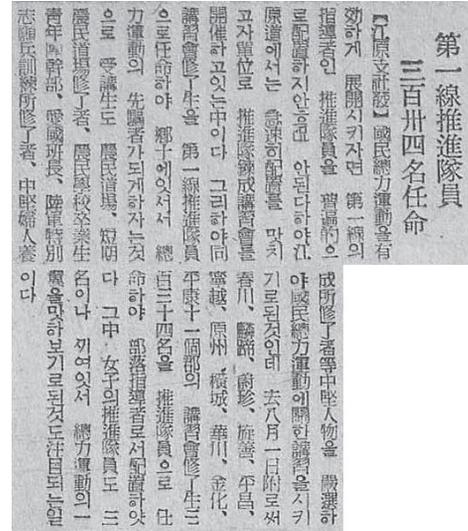
高城	10,000	高城	10,000	高城	10,000	高城	10,000
江陵	10,000	江陵	10,000	江陵	10,000	江陵	10,000
三陟	10,000	三陟	10,000	三陟	10,000	三陟	10,000
寧越	10,000	寧越	10,000	寧越	10,000	寧越	10,000
原州	10,000	原州	10,000	原州	10,000	原州	10,000
金剛	10,000	金剛	10,000	金剛	10,000	金剛	10,000
平康	10,000	平康	10,000	平康	10,000	平康	10,000
伊川	10,000	伊川	10,000	伊川	10,000	伊川	10,000

1941-08-08-03-01

### 매일신보

#### 제일선추진대원 334명 임명

【강원지사발】 국민총력운동을 유효하게 전개시키자면 제일선의 지도자인 추진대원을 보편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하여 강원도에서는 급속히 배치를 마치고자 단위로 추진대 연성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동강습회 수료생을 제일선추진대원으로 임명하여 향토에 있어서 총력운동의 선구자가 되게 하자는 것으로 수강생도 농민도장, 단기농민도장 수료자, 애국반장, 육군특별지원병 훈련소 수료생, 중견부인양성소 수료자 등 중견인물을 엄선하여 국민총력운동에 관한 강습을 시키기로 된 것인데 지난 8월1일 부로써 춘천, 인제, 울진, 정선,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화천, 김화, 평강 11개군의 강습회 수료생 334명을 추진대원으로 임명하여 부락지도자로서 배치하였다. 그 중 여자의 추진대원도 3명이나 끼여있어 총력운동이 일익을 맡아보기로 된 것도 주목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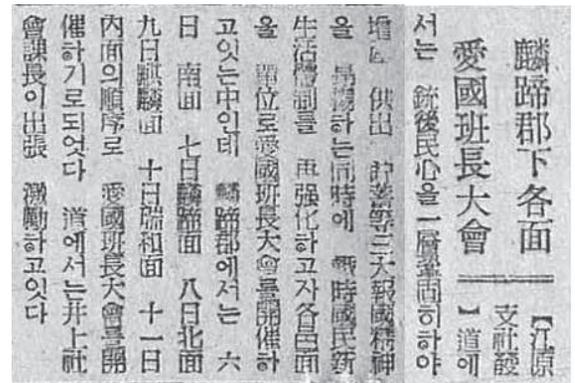


1941-08-08-03-03

### 매일신보

#### 인제군하 각면 애국반장대회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총후민심을 일층 견고히 하여 증산, 공출, 저축 등 3대 보국정신을 앙양하는 동시에 전시국민생활체제를 재강화하고자 각 읍면을 단위로 애국반장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인데 인제군에서는 6일 남면 7일 인제면 8일 북면 9일 기린면 10일 서화면 11일 내면의 순서로 애국반장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도에서는 정상 사회과장이 출장 격려하고 있다.



1941-08-24-03-02

### 매일신보

#### 공동시설을 조성 1부락에 150원 평균 보조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부락생산 확충계획에 들어있는 쌀 보리 등 주요식량 농산물 증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락공동시설에 대하여 1부락 평균 150원씩 조성금을 교부하기로 되었다 한다. 보조금은 기계기구 재료 등에 대해서 군농회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생산확충계획부락 4,600부락 중 623부락에 대하여 9만3,46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목하 도농정과에서 시설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군별보조액 할당

군별	주산확충계획부락수	보조부락수	보조금액(원)
춘천	147	39	5,850
인제	99	22	4,000

(중략)



1941-10-02-03-04

### 매일신보

#### 첨화될 설악승경 대규모의 풍치림 조성

【강원지사발】 인제와 양양군계에 있는 영봉 설악산은 장엄한 산악이 중첩한 품이라든지 기암계곡의 신비스러운 맛이 세계적 명승 금강산과 어깨를 겨룰만하다 하여 관계군민들은 이 경승을 널리 천하에 소개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을뿐더러 도에서도 수년전부터 영화반을 현지에 보내어 명승과 고적의 구석구석을 촬영케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설악산은 탐사를 거듭할수록 진가는 더욱 빛날 뿐이어서 도에서도 금후 설악의 승경을 영구보존하는 동시에 제2 금강산으로서 천하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명승구역을 만들고자 대규모의 보안림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운다고 한다. 즉 인제와 양양군내에 있는 국유 사유 사찰 등 3,000여정보를 보안림으로 편입하여 자연의 풍치를 더욱 값있게 하리라 하며 이와 함께 탐승도로 같은 것도 지방민의 근로에 의하여 개설 또는 수선하고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그런데 이 설악산은 금강산과 같이 인공을 가했다거나 또는 속화된 점은 찾아보려야 볼 수 없어서 자연 그대로의 신비 경색을 이루고 있는 만큼 도의 본격적 선전에 의하여 그 성가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 한다.

1941-10-04-03-01

### 매일신보

#### 한 살부터 열 살까지 어린이 보건조사 인제군 등 4개군에서 실시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도민의 보건상황을 조사 연구하여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30일부터 인제 회양 평창 평강 4개군에 걸쳐 약 1개월동안 세밀한 조사를 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래서 위생과장을 반장으로 한 조사대 일행 5명이 제일착으로 인제군에 출장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조사범위는 1세로부터 10세까지의 남녀 250명씩 도합 500명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되었으며 주로 신체계측은 물론 질병의 유무 결핵에 대한 조사를 할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번 실시하게된 연구조사는 제2세 국민의 보건상태를 조사하여 체위 향상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지는 획기적 시설인 만치 조사결과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 조사일정

▲ 인제군 인제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중략)



1941-10-22-03-01

매일신보

잠건 공출 성적 부진 주요 원인은 자가 소비의 증가

【강원지사】 강원도의 금년도 잠건 공출성적을 보면 12만9,152관으로 공판금액에 있어서는 67만8,545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전년 같은 기간 실적에 비하면 공판 수량 16만5,823관에 대하여 3만6,670관이 감소이고 금액에 있어서는 94만5,427원에 대하여 26만7,092원 감소라고 한다. 그런데 올해 춘잠건 공판실적은 29만2,465관에 공판금액이 263만657원이었으므로 춘추잠건 총결산을 본다면 42만1,617관에 공판금액이 330만8,992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전년의 실적에 비하면 공판수량에 비하면 6만5,455관 감소이고 금액 역시 5만739원의 감소이었다고 한다. 이같이 공판이 부진한 것은 자가 소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하는데 끝으로 추천공판의 결산실적을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공판수량(관)	공판금액(원)	군명	공판수량(관)	공판금액(원)
춘천	10,069	54,166	인제	10,037	53,072
회양	8,572	45,393	통천	2,262	11,664
고성	3,149	17,117	양양	8,051	43,451
강릉	5,270	27,396	삼척	8,626	39,442
울진	4,045	20,914	정선	6,029	29,996
평창	8,354	44,910	영월	2,695	13,286
원주	8,773	47,799	횡성	13,111	69,773
홍천	13,104	71,169	화천	5,235	27,633
김화	2,745	14,478	철원	1,165	6,266
평강	864	4,952	이천	5,147	27,127
계	129,152	678,335			

1941-10-29-03-01

매일신보

도청년단 대회 예행연습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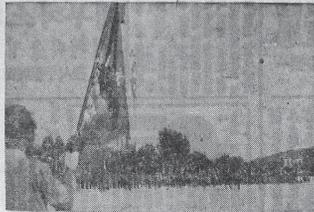
【강원지사발】 강원신사 열격봉축 도청년단 대회는 예정과 같이 28일 춘천중학교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보다 하루 앞에 27일에는 각 군으로부터 선발해 보낸 남녀 정예단원 1천여명이 오전8시부터 춘천중학교 교정에 모여 국방경기와 사열 분열식의 예행연행 연습이 있었으며 오후1시부터는 소양교 부근에서 근로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밤 7시부터는 읍공회당에서 「청년의 석」을 개최코 각군 남녀 청년단원 대표자들의 소감발표와 여흥이 있었는데 초비상시하 애국의 지성에 불타는 군국 건아들의 의기는 자못 현양하여 불을 토하는 듯한 열변과 또는 군가를 부르는 여흥 등이 있어 만장으로 감격과 흥분의 박수소리로 가득하였다. 즉 각대표자들은 차례차례로 등단하여 「지원병이 되어 일사보국의 충성을 마치라」 또는 「인방만주국 건설에 근로대원으로 활약하자」는 등의 절구가 있는가 하면 다음에는 「시국은 더욱 중대해져서 국가는 흥폐 관두에 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청년 동지제군은 더욱 단결을 굳게하여 봉공의 지성을 다하자」는 등 우국의 청년들은 한자리에 모아 놓은 듯 장내는 숙연하였으며 청중은 손에 땀을 쥐고 듣고 있다가 손이 깨지라고 박수를 보내는 등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고 동 9시 지나 산회하였는데 각대의 출연자와 중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사진은 각군 청년

**蠶繭供出成績不振**  
主要原因○1自家消費의增加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금년도 잠건 공출성적을 보면 12만9,152관으로 공판금액에 있어서는 67만8,545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전년 같은 기간 실적에 비하면 공판 수량 16만5,823관에 대하여 3만6,670관이 감소이고 금액에 있어서는 94만5,427원에 대하여 26만7,092원 감소라고 한다. 그런데 올해 춘잠건 공판실적은 29만2,465관에 공판금액이 263만657원이었으므로 춘추잠건 총결산을 본다면 42만1,617관에 공판금액이 330만8,992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전년의 실적에 비하면 공판수량에 비하면 6만5,455관 감소이고 금액 역시 5만739원의 감소이었다고 한다. 이같이 공판이 부진한 것은 자가 소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하는데 끝으로 추천공판의 결산실적을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공판수량(관)	공판금액(원)	군명	공판수량(관)	공판금액(원)
춘천	10,069	54,166	인제	10,037	53,072
회양	8,572	45,393	통천	2,262	11,664
고성	3,149	17,117	양양	8,051	43,451
강릉	5,270	27,396	삼척	8,626	39,442
울진	4,045	20,914	정선	6,029	29,996
평창	8,354	44,910	영월	2,695	13,286
원주	8,773	47,799	횡성	13,111	69,773
홍천	13,104	71,169	화천	5,235	27,633
김화	2,745	14,478	철원	1,165	6,266
평강	864	4,952	이천	5,147	27,127
계	129,152	678,335			

**道青年團大會 豫行演習施行**



【강원지사발】 강원신사 열격봉축 도청년단 대회는 예정과 같이 28일 춘천중학교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보다 하루 앞에 27일에는 각 군으로부터 선발해 보낸 남녀 정예단원 1천여명이 오전8시부터 춘천중학교 교정에 모여 국방경기와 사열 분열식의 예행연행 연습이 있었으며 오후1시부터는 소양교 부근에서 근로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밤 7시부터는 읍공회당에서 「청년의 석」을 개최코 각군 남녀 청년단원 대표자들의 소감발표와 여흥이 있었는데 초비상시하 애국의 지성에 불타는 군국 건아들의 의기는 자못 현양하여 불을 토하는 듯한 열변과 또는 군가를 부르는 여흥 등이 있어 만장으로 감격과 흥분의 박수소리로 가득하였다. 즉 각대표자들은 차례차례로 등단하여 「지원병이 되어 일사보국의 충성을 마치라」 또는 「인방만주국 건설에 근로대원으로 활약하자」는 등의 절구가 있는가 하면 다음에는 「시국은 더욱 중대해져서 국가는 흥폐 관두에 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청년 동지제군은 더욱 단결을 굳게하여 봉공의 지성을 다하자」는 등 우국의 청년들은 한자리에 모아 놓은 듯 장내는 숙연하였으며 청중은 손에 땀을 쥐고 듣고 있다가 손이 깨지라고 박수를 보내는 등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고 동 9시 지나 산회하였는데 각대의 출연자와 중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사진은 각군 청년

대원들의 시열 분열식 여행연습광경)

▲소감 영월 국본무남 ▲아동 청년의 각오 이천 청수진영 ▲체험담 인제 포곡호원 ▲군가 평강 전용 ▲청년의 나이갈길 화천 금성홍능 ▲해의 진군 울진 고야농사 ▲월의 사막 회양 산봉학자 ▲청년은 여하한 책임이 있는가? 평창 무전광홍 ▲군가 이천 무원옥철 ▲군가 횡성 창치언부 ▲청년대원의 각오 평강 금성정자 ▲가요 평강 금광청삼 외 3명 ▲가요 화천 임경자 외 1명 ▲가요 원주신정승취 ▲시국하 청년대원의 각오 삼척 홍정규용 ▲군가 회양 길원홍용 ▲군가 원주 삼전광자 ▲애국반 춘근 춘천대원 일동 ▲가요 강릉 금좌광용 ▲체험담 김화 임정남홍 ▲소감 원주 장영번부

1941-10-30-03-05

매일신보

만주개척민 좌담회 화천군청에서 개최

【화천】 한강수전 화천공사장 수몰지대 1,200여호 이주민 문제는 도당 국에서 작년 봄 이래 각방으로 알선하여 수백여호를 도내로 이주시켰으나 아직도 순소작농 극빈자의 이주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그 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군회의실에서 목원도 농정과장 사회 하에 춘천 양구 인제 각군 대표자와 총독부 평정 사무관, 만주개척간사 등이 모여 만주 개척민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목원 농정과장으로부터 1942년도 입식계획에 대한 설명과 평정 사무관으로부터 제국의 동야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도의적 신대륙 정책에 순응하여 만주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연사와 각군 대표자들의 의견 진술과 질의가 있었는데 집단 이주는 50호 일단, 300호 일단으로 하되 집단 이주에 대하여 1호 당 여비는 60원을 보조하여 공동 시설비도 264원을 보조하고 철도임도 60%로 할인하며 농업기수 축산기수 보건의까지 파견하여 이주민 생활상 만전을 다할 것이라는데 경지 면적은 1호당 10정보 가량이라고 한다.

1941-10-30-03-06

매일신보

군문에 나가다, 강원도내에 지원병 응모 벌써 6천명 돌파

【강원지사】 국가의 간성이 되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원병을 지망하는 반도청년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때 강원청년들이 애국열도 날로 고조되어 지원병이 되게 해달라고 지망한 청년이 벌써 6,30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즉 25일 현재 지원자수를 보면 6,310명으로 20일 현재 3,360명이던 것이 불과 닷새 동안에 3,000명이나 더 늘었다는 데 그 중에 중등학교 졸업자가 29명에 혈서 지원자도 56명이나 섞여 있다는 것이다. 각군별 지망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293 ▲인제 379(중등 졸업 5명) ▲양구 221 ▲회양 143 ▲통천 301 ▲고성 109(중등 졸업 1명, 혈서 1명) ▲양양 161(혈서 1명) ▲강릉 275(중등 졸업 1명, 혈서 1명) ▲삼척 179(중등 졸업 1명) ▲울진 116 ▲정선 506(중등 졸업 3명) ▲평창 295(중등 졸업 2명) ▲영월 367 ▲원주 303(중등 졸업 2명) ▲횡성 362(중등 졸업 1명) ▲홍천 853 ▲화천 30 ▲김화 225(중등 졸업 3명) ▲금성 455(중등 졸업 1명) ▲철원 167(중등 졸업 29명, 혈서 5명) ▲평강 175 ▲이천 318(중등 졸업 9명, 혈서 2명) ▲계 6,310명

### 滿洲開拓民座談會

#### 華川郡廳에서開催

【華川】漢江水電 華川工事場水 平井事務官으로부터 帝國の東亞 沒地帯 一千二百餘戸 移住民商 新秩序建設爲爲하여 道義的對大 題는 道義局에서 昨年春以來 陸政策에 關應하여 滿洲開拓大 各方으로 發願하여 數百餘戸量 遵內로 移住시켰으나 아직 道廳小 作廢廢者의 移住問題가 該 戶一團으로 移住 集團移住에 對 하야 一戶當放費는 六十圓을補 助하며 共同施設費도 二百六十 圓을 補助하고 鐵道賃도六割 로 割引하며 農業技術 管理後 務官 滿拓警署等이모이며 滿洲 開拓民座談會를 開催하였다. 먼 저木原農政課長으로부터 昭和十 七年度 入植計畫에對한說明과 耕地面積은 一戶當十町步假賣이 라고한다

### 軍門에나가자다

#### 志願兵應募 江原道내에 벌써六千名突破

【江原省廳】군의 長官부 從軍으로 志願兵에 志願한 志願兵은 25日 현재 6,310名에 달하였다. 그 중에 中學校 卒業生 29名, 血書 志願者 56名이 섞여 있다. 各郡別 志願者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春川 293 ▲인제 379(중등 졸업 5명) ▲양구 221 ▲회양 143 ▲통천 301 ▲고성 109(중등 졸업 1명, 혈서 1명) ▲양양 161(혈서 1명) ▲강릉 275(중등 졸업 1명, 혈서 1명) ▲삼척 179(중등 졸업 1명) ▲울진 116 ▲정선 506(중등 졸업 3명) ▲평창 295(중등 졸업 2명) ▲영월 367 ▲원주 303(중등 졸업 2명) ▲횡성 362(중등 졸업 1명) ▲홍천 853 ▲화천 30 ▲김화 225(중등 졸업 3명) ▲금성 455(중등 졸업 1명) ▲철원 167(중등 졸업 29명, 혈서 5명) ▲평강 175 ▲이천 318(중등 졸업 9명, 혈서 2명) ▲계 6,310명

### 가마니 320만매, 새끼 190만관 등 내년도 생산 목표 결정 증산위원회 설치 연락 통제기로

【강원지사】 시국하 양곡의 포장은 물론 비료 수산물 광공산 기타 군수자재의 포장용으로서 가공 새끼가마니.명석(승입 연)의 수요가 격증되고 있는 만치 강원도에서는 새끼가마니.명석 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942년 미곡연도(1941년 11월 1일부터 1942년 10월 31일까지) 1개년 간에 곡용4두가마니 195만매, 곡용3두가마니 15만매, 비료 17목가마니 110만매, 각종 명석 66만매, 각종 새끼 190만관의 증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증산구역은 도내 각 군으로 하여 새끼가마니.명석의 종류별로 군은 각 읍면에, 읍면은 각 부락에 장려지대를 선정하고 도 계획 할당 수량에 기하여 군은 각 읍면에 읍면은 각 부락별 농가별로 책임생산 출하 수량을 할당하여 목표 수량의 생산을 확보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각 군에서는 새끼가마니.명석 증산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또는 지도 관계기관의 연락통제를 피할 목적으로 각군을 단위로 하여 승입연증산위원회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기로 되었는데 각 군별 생산할당 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가마니(매)	명석(매)	새끼(매)	군별	가마니(매)	명석(매)	새끼(매)
춘천	180,000	4,000	34,000	인제	50,000	-	10,000
양구	10,000	-	26,000	회양	10,000	12,500	11,000
통천	80,000	80,000	314,000	고성	50,000	16,000	119,000
양양	150,000	60,000	197,000	강릉	150,000	120,000	246,000
삼척	5,000	26,000	99,000	울진	30,000	110,000	125,000
정선	-9,000	-	10,000	평창	3,000	13,000	13,000
영월	2,000	24,100	13,000	원주	550,000	-	51,000
횡성	350,000	-	33,000	홍천	200,000	7,000	41,000
화천	50,000	-	29,000	김화	240,000	14,400	129,000
철원	750,000	7,100	275,000	평강	245,000	8,000	84,000
이천	140,000	7,200	31,000				
계	3,200,000	663,000	900,000				

## 叻三百廿萬枚、繩百九十萬貫等 來年度生産目標決定

### 増産委員會設置、連絡統制기로

口糧要需極大、時局下、糧食之重要、更見其然、我國政府、爲救濟民生、特設此委員會、以統制糧食之生產、及分配、凡我同胞、應各盡其力、以期達成此項任務、此項任務、關係國家之存亡、至爲重要、望各同胞、一體注意、

昭和十七年米穀年度(昭和十六年十一月一日至昭和十七年十月三十一日)一年間、預計四、二、九、百九十五萬枚、繩三、八、五、百六十六萬貫、各縣別、預計如下、

郡縣	米穀(枚)	繩(貫)
三陟	1,100,000	110,000
原州	1,100,000	110,000
橫城	1,100,000	110,000
洪川	1,100,000	110,000
龍仁	1,100,000	110,000
伊川	1,100,000	110,000
計	3,200,000	663,000

도전형 신체검사 16일부터 내월 2일까지 실시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지원병은 드디어 2만116명에 달하였다 하는 것은 전보도와 같거니와 도에서는 도내에 4반으로 나누어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까지에 도전형 신체검사를 각군에 실시하기로 되었으며 학과 시험은 11월 21일 강릉서부터 시작하여 1월14일 정선을 마지막으로 끝낼 터이라 한다.

◇도전형 신체검사 일정

반별	도전형신체검사검사지	월일	검사의관
제1반	철원	11월 16일	지택의관 탄과축탁
	이천	동 18일	동
	평강	동 20일	동
	회양	동 22일	동
	금성	동 24일	동
	김화	동 26일	동
제2반	화천	동 16일	송공의관 금풍의원
	양구	동 18일	동
	인제	동 20일	동
	양양	동 22일	하상의관 송산의원
	고성	동 24일	동 (중략)

## 道銓衡身體檢査

十六日早來月二日外지實施

【江原支社發】江原道の志願兵募集者百六十名に達し、別項과가치니、道에서는 道内を四區으로 나누어 오는十一月十六日早來、十二月二日外지에 道銓衡身體檢査를 各部에 實施하기로 되었으며、學科試驗은 十一月二十一日江陵서부터 始作하여 一月十四日正線을 마지막으로 完滿이라 한다

道銓衡身體檢査日程

班	檢査地	檢査日	檢査醫官
第一班	伊川	同十八日	同
第二班	平康	同二十日	同
第三班	淮陽	同廿二日	同
第四班	金城	同廿四日	同
第五班	金化	同廿六日	同
第六班	華川	同廿八日	同
第七班	楊口	同十八日	同

班	檢査地	檢査日	檢査醫官
第一班	襄陽	同廿二日	同
第二班	高城	同廿四日	同
第三班	通川	同廿六日	同
第四班	洪川	同廿七日	同
第五班	春川	同廿九日	同
第六班	江陵	十月十七日	同
第七班	三陟	同十八日	同
第八班	蔚珍	同二十日	同
第九班	旌善	同廿四日	同
第十班	寧越	同廿六日	同

총수 2만명 돌파 적격자만 9천200여명 강원청년의 의기를 십분 발휘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육군특별지원병은 드디어 10일로써 마침을 하였는데 지원자 총수가 2만116명에 달하여 열혈 강원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열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지원자 중에는 중등학교 졸업자가 93명에 혈서로 채용을 지원한 자도 17명이나 되었다는데 총지원자 중에서 적격자로 추정되는 자만도 가장 적게 잡아 9,219명에 달할 모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전년에 비하여 보면 지원자 총수에 있어서 전년의 1만1,731명에 비하여 8,385명의 격증을 보여 조선 제5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적격자는 전년 5천11명에 비하여 4,288명의 격증이어서 적격자가 많기로는 조선 제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중등학교 졸업자는 전년 44명에 비하여 49명이 늘었고 혈서는 전년 32명에 비하여 15명의 줄어들었는데 이같이 중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부족 늘고 있는 것은 유식계급 자제들의 지원열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증좌이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지원자 수를 각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아서 평강이 1,393명으로 단연 최고이고 다음이 춘천 1,032명, 통천의 1,246명, 강릉 1,161명, 고성 1,127명, 철원 1,120명, 화천 1,060명의 순서인데 적격자가 많기로는 화천의 700명이 최대이다.

◇10일 마감 후 지원자수

군별	지원자총수	적격자수	중등교졸업자	혈서지원자	군별	지원자총수	적격자수	중등교졸업자	혈서지원자
춘천	1,302	530	2	-	인제	733	364	7	-
양구	777	479	1	-	회양	869	4,791	-	1
통천	1,246	598	3	-	고성	1,127	515	1	-
양양	1,036	565	1	-	강릉	1,161	286	3	-
삼척	1,030	276	8	-	울진	581	154	-	3
정선	631	290	5	-	평창	763	405	3	-
영월	655	385	-	-	원주	1,002	678	10	-
횡성	714	475	2	1	홍천	922	586	-	2
화천	1,060	700	-	-	김화	441	133	3	-
금성	832	487	1	-	철원	1,120	634	2	-
평강	1,393	286	3	-	이천	729	200	9	4
계	20,116	9,279	94	17					

## 總數二萬名突破

### 適格者만九千二百餘名

江原靑年의 意氣를 十分發揮

【通原靑年】江原靑年의 總數가 二萬名에 달하여 意氣를 十分發揮하고 있다. 지원자 20,116명, 적격자 9,279명, 중등교졸업자 94명, 혈서지원자 17명이다. 강원도청에서 발표하였다.

【通原靑年】江原靑年의 總數가 二萬名에 달하여 意氣를 十分發揮하고 있다. 지원자 20,116명, 적격자 9,279명, 중등교졸업자 94명, 혈서지원자 17명이다. 강원도청에서 발표하였다.

郡別	總數	適格者	中學校畢業生	血書者
春川	1,302	530	2	0
襄陽	777	479	1	0
通川	1,246	598	3	0
襄陽	1,036	565	1	0
三陟	1,030	276	8	0
正善	631	290	5	0
英陽	655	385	0	0
橫城	714	475	2	1
華川	1,060	700	0	0
金剛	832	487	1	0
平康	1,393	286	3	0
計	20,116	9,279	94	17

### 대마 200만관 목표로 강원도, 증산 5개년 계획 실시

【강원지사발】 대마의 산지로 유명한 강원도에서는 이에 수요가 날로 격증되어 감에 비추어 증산과 품질의 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1941년도이래 1945년에 이르는 5개년을 기하여 대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강원도는 대마 재배에 매우 적당하여 산맥도 전조선 제1위를 점하고 있으나 소비는 주로 농가의 자가제조 마포용 기타에 쓰일 뿐이어서 방직원료로서의 통제있는 판매는 돌아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번 중일전쟁을 계기로 군수품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을 뿐더러 일반 직유자원의 팽박에 따라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특히 대마직유의 면상화에 성공한 방직기술도 발달되었으므로 대책 순응의 견지에서 종래의 계획을 다시 고쳐 수립하게 된 것이다.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올해 이래 5개년 계획으로 재배 면적 8천 정보에 총생산고 200만관(반당 수량 25관)을 생산해내리라는 것인데 시설사항으로는 도에 산업기수 1명을 배치하고 각 군에는 1942년도 이래 대마 재배면적 200정보에 대하여 산업기수 1명씩을 표준으로 설치할 터이며 도와 장려 각군에는 금년도 이래 계속하여 지방 산업기수를 설치해 나가리라 한다. 그래가지고 우량종의 보급 지도원의 설치 공동경작단의 설치 등 주도 면밀한 장래 시설을 해나갈 것이며 또한 올해부터 대마의 품질향상과 판매의 통제를 하고자 대마와 대마종자의 검사를 하리라는 데 각군별 증산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마작촌 예정면적 및 수확예상고 군별 목표

군별	총작촌면적(정)	반당수량(관)	총수확고(관)
춘천	630	24	151,200
인제	450	24	108,000

(중략)

## 二百萬貫目標로

### 江原道、増産五個年計畫實施

## 大 麻

어 감에 비추어 증산과 품질의 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1941년도이래 1945년에 이르는 5개년을 기하여 대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강원도는 대마 재배에 매우 적당하여 산맥도 전조선 제1위를 점하고 있으나 소비는 주로 농가의 자가제조 마포용 기타에 쓰일 뿐이어서 방직원료로서의 통제있는 판매는 돌아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번 중일전쟁을 계기로 군수품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을 뿐더러 일반 직유자원의 팽박에 따라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특히 대마직유의 면상화에 성공한 방직기술도 발달되었으므로 대책 순응의 견지에서 종래의 계획을 다시 고쳐 수립하게 된 것이다.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올해 이래 5개년 계획으로 재배 면적 8천 정보에 총생산고 200만관(반당 수량 25관)을 생산해내리라는 것인데 시설사항으로는 도에 산업기수 1명을 배치하고 각 군에는 1942년도 이래 대마 재배면적 200정보에 대하여 산업기수 1명씩을 표준으로 설치할 터이며 도와 장려 각군에는 금년도 이래 계속하여 지방 산업기수를 설치해 나가리라 한다. 그래가지고 우량종의 보급 지도원의 설치 공동경작단의 설치 등 주도 면밀한 장래 시설을 해나갈 것이며 또한 올해부터 대마의 품질향상과 판매의 통제를 하고자 대마와 대마종자의 검사를 하리라는 데 각군별 증산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江原道許諾 大麻  
의 產額은 有 名 江  
原道에서는 이에需  
要가 날로 漸增되  
어 감에 비추어 증산과 품질의 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1941년도이래 1945년에 이르는 5개년을 기하여 대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即 本道는 大麻栽培에 好適하여 產額도 全道第一位를 占하고 있으나 消費는 主로 自家製織 織原料로서의 消費에 止留되어서 紡 織原料로서의 銷路가 乏한 實情에 對하야 地方官公署가 特히 大麻栽培의 網羅를 擴張하고 特別히 大麻栽培의 網羅를 化學에 成功한 紡績技術도 發達되였을 것으로 國家機關의 見地에서 從來의 計畫을 更設되게 되엇다. 樹立된 計畫의 內容은 本年 度에 以 降 五個年 計畫으로 栽培面積八千 町步에 總生産高二百萬貫(反當 收穫二十五貫)을 產出하리라 하는 것인데 施設事項으로는 道에 產業技術者一名을 配屬하고 各郡에는 昭和十七年度以來 大麻栽培面積 二百町步에 對하야 產業技術者一名을 標準으로 設置되엇으며 道와 獎勵各郡에는 今年 度에 陸續히 地方官廳技術者를 設置하야 나가리라 한다. 該가지고 優良種의 普及 指導員의 設置 共同耕作團의 設置等에 對하야 獎勵加增을 해나갈 터이며 또한 本年度부터 大麻의 品質向上과 販賣의 統制을 하고자 大麻와 大麻種子의 檢査를 하리라는 데 各郡別 增産計畫을 보

計	高郡別目標																			
	伊川	平康	金剛	洪川	橫城	原州	寧越	平康	雄珍	蔚珍	三陟	江陵	襄陽	通川	淮陽	麟蹄	春川	那		
栽培面積(町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總生産高(萬貫)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매일신보

놀고먹는 유한남녀 농촌에만 1만8천여 강원도의 부유노력 조사 결과

【강원지사발】 「놀고먹는 자는 황민이 아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국민개로운동을 힘차게 부르짖고 있는 이때 강원도에서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밝혀 좌와같이 개로전사로서 생산전선에 동원을 시키고자 농촌에 흩어져있는 소위 부유노력을 일제 조사하기로 되었다. 종래 자유주의적 경제이념에서 생겨난 관습에 의하여 조금만 먹은 것이 있어도 의례히 손발을 싸매고 들어가서 하는일 없이 앉아서 편안히 먹고 지내왔으나 오늘과 같은 국가 초비상시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용인할 일이 못된다하여 불구자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다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일터로 나서야된다고 부르짖게 되어 무위도식의 무리들을 일제조사하기로 된 것인데 그 숫자는 실로 1만8,500여명이나 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번에 조사한 것은 도내 175개읍면 중에서 순전한 농촌인 141개읍면 2,062부락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 것인데 총호수 18만7,693호에 인구 105만7,077명 중에서 손끝도 까딱 안하고 놀고먹는 유한자가 16세이상인 남자 3,735명 여자 3,225명명이고, 50세 이상 60세까지가 남자 2,004명 여자 2,344명, 20세이상 50세까지가 남자 2,453명 여자 2,344명, 20세 미만인 남자 1,071명 여자 1,785명으로 놀라지 말라! 그 총수가 남자 9,363명 여자9,206명이어서 1만8,569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농촌부락에 한하여 조사한 것이고 그 위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면 엄청난 숫자에 달하리라 하여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놀라게 하고 있는데 근후 이들 유한자들에 대하여는 총후생활전사로서 동원령을 내리도록 하여 부유노력의 그림자를 감추게하리라 한다. 조사표에 드러난 각 군별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유노력 조사표

군별	호수	인구	남	여	계	군별	호수	인구	남	여	계
춘천	12,851	66,058	494	243	738	인제	10,675	62,325	850	1,000	1,850
양구	6,047	34,995	278	196	474	회양	4,754	25,546	149	153	282
통천	3,520	18,017	119	147	266	고성	3,464	27,535	255	230	485
양양	13,168	76,937	590	429	1,019	강릉	14,225	83,064	1,155	702	1,857
삼척	11,995	38,650	716	714	1,433	울진	980	3,787	101	85	186
정선	755	3,685	27	10	37	평창	9,932	5,4209	589	548	1,137
영월	15,394	79,361	631	680	1,311	원주	11,729	72,720	435	430	865
횡성	7,865	22,983	78	202	280	홍천	9,691	35,648	483	579	1,063
화천	7,973	43,165	146	108	254	김화	10,534	5,773	499	359	858
철원	13,162	65,148	738	1,510	2,248	평강	15,354	79,361	631	680	132
이천	5,625	2,674	299	219	518						

### 놀고먹는有閑男女

## 農村에만一萬八千餘

### 江原道の浮遊勞力調査結果

郡別	戶數	人口	男	女	計
春川	12,851	66,058	494	243	738
襄陽	6,047	34,995	278	196	474
通川	3,520	18,017	119	147	266
襄陽	13,168	76,937	590	429	1,019
三陟	11,995	38,650	716	714	1,433
正善	755	3,685	27	10	37
英月	15,394	79,361	631	680	1,311
橫城	7,865	22,983	78	202	280
花川	7,973	43,165	146	108	254
鐵原	13,162	65,148	738	1,510	2,248
伊川	5,625	2,674	299	219	518
仁濟	10,675	62,325	850	1,000	1,850
淮陽	4,754	25,546	149	153	282
高城	3,464	27,535	255	230	485
江陵	14,225	83,064	1,155	702	1,857
蔚珍	980	3,787	101	85	186
平昌	9,932	5,4209	589	548	1,137
元州	11,729	72,720	435	430	865
洪川	9,691	35,648	483	579	1,063
金化	10,534	5,773	499	359	858
平康	15,354	79,361	631	680	132

#### 百歲上壽祝願

春川郡敬老會盛大

春川郡敬老會는 11월 16일(토) 저녁 7시에 춘천시내 춘천호텔에서 100세 이상 노인들을 초청하여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춘천시내 100세 이상 노인 10여명이 참석하여, 춘천시내 노인회에서는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춘천시내 100세 이상 노인 10여명이 참석하여, 춘천시내 노인회에서는 축하연을 베풀었다.

1941-11-20-03-01

### 매일신보

#### 신사작법 강습회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경신숭조의 관념을 앙양하기 위하여 1면 1사를 목표로 착착 건설을 보급하고 있는 중인데 신배제사 등 작법에 대하여 검토할 때에는 아직도 수련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점이 많으므로 좌기에 의하여 신사작법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한다. 강습회는 국민총력도연맹 주최로 하여 춘천, 원주, 강릉, 철원 4개군에서 개최할 터인데 좌례수련의 형편에 의하여 원칙으로 각지 연무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수강자는 각읍면의 신사 봉무자 또는 장래 봉무케할 자 1명씩 175명을 출석시킬 터인데 강사는 강원신사공사 조산●부, 강원신사 신관 강기용정 두명으로 결정하였다. 각군의 개최 일정과 참가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12월5일부터 동 7일까지 3일간  
참가군 춘천 인제 양구 홍천 화천 5개군(수강인원 36명)
- ▲원주=12월4일부터 동 6일까지 3일간  
참가군 평창, 영월, 원주, 횡성, 5개군 (수강인원 39명)
- ▲강릉=12월 4일부터 동 16일까지 3일간  
참가군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6개군(수강인원 53명)
- ▲철원=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참가군 철원 회양 평강 김화 이천 5개군(수강인원 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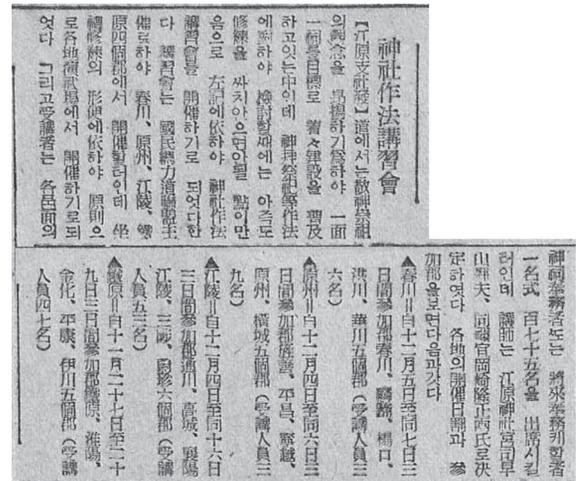
1941-11-20-07-03

### 매일신보

#### 군마다 국민대회 일·중 조약체결 1주년 기념으로

【강원지사발】 오는 11월 30일은 일중 신조약 체결과 일만화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일에 상당하므로 강원도에서는 조약과 선언의 취지를 더욱 철저하게 보급하여 새로운 역사 창조의 이날을 일층 빛나게 하고자 각군을 단위로 기념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기념행사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실시기간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그간에 적당한 날을 골라서 기념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인데 대회에는 각 관공서 직원, 각종 연맹원, 학교 연맹원(초등학교 아동은 제외함) 각 읍면연맹 이사장 읍면소재지 인근의 단부락연맹 이사장과 애국반장 등이 출석할 것이며 도로부터는 도연맹 간부 등이 임석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기념일 당일에는 각호에 일본기를 게양함은 물론 관공청, 단체와 회사 기타 군차, 버스 등에는 일만화 3국기를 게양하여 당일을 경축할 것이며 그 기간 중에는 강연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는 외에 선전탑 점두장식 등에 의하여 취지를 철저 보급하기로 되었다, 또한 춘천군에서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읍 단양대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기념행사는 매일신보 사신순보에 집록 간행하여 널리 주지시키기로 되었다. 각군의 국민대회 개최 일정과 식 차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념국민대회 개최일정
- ▲춘천군 11월 30일 ▲인제군 동 29일 ▲양구군 동 동 28일 ▲회양군 동 29일 ▲통천군 동 29일 ▲고성군 동 30일 ▲양양군 동 29일 ▲강릉군 동 30일 ▲삼척군 동 28일 ▲울진군 동 30일 ▲정선군 동 29



일 ▲평창군 동 30일 ▲영월군 동 29일 ▲원주군 동 30일 ▲횡성군 동 29일 ▲홍천군 동 30일 ▲화천군 동 29일 ▲김화군 동 29일 ▲철원군 동 30일 ▲평강군 동 29일 ▲이천군 동 30일

◇국민대회 식차(춘천군의 예)

1. 일동 입장 2. 개회사 3. 일본기 게양 4. 일본국가 봉창(1회) 5. 궁성요배 6. 일본군(황군의 무운장구 기원 병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감사 묵도 7. 중일전쟁 1년에 사하옵신 칙어 봉독 9. 식사 9. 강원 연맹회장 고사 10. 선언 11.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12. 해유까바 합창(1회) 13. 천황폐하 만세 봉창 14. 일본기 강하 15. 폐회사

1941-11-25-03-03

## 매일신보

### 채권 예약 개시 연말 상여 지급기 앞두고

【강원지사발】 제25회 저축채권과 보국채권을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우편국과 식산은행 등 대리점인 금융조합에서 매출하기로 되었으며 중일전쟁 국고채권 제25회 우편국 매출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에 배출하기로 되었는데 저축채권과 보국채권의 도내 할당총액은 13만4,000원이고 중일전쟁 국고 채권은 총액이 10만 5,000원이라 한다. 각군별 할당액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매출 기간 중은 하반기 연말 상여 지급기이므로 각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광산 각 단체에서는 예약 신입을 받는 등 소화에 유감없기를 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군별	저축채권 및 보국채권(원)	중일전쟁국고채권(원)
춘천	8,930	7,000
인제	2,765	2,175
양구	2,415	1,890
회양	4,830	3,780
통천	6,785	5,320
고성	8,530	5,320
양양	6,160	4,825
강릉	14,290	11,200
삼척	13,035	10,220
울진	5,725	4,410
정선	3,030	2,385
평창	3,750	2,940
영월	6,430	5,040
원주	6,790	5,320
횡성	4,555	3,570
홍천	5,095	3,990
화천	2,410	1,890
김화	8,755	6,860
철원	10,035	7,840
평강	4,650	3,640
이천	4,735	3,705
계	134,000	105,000



1941-11-29-03-03

### 매일신보

## 강원도 양돈의 배가운동 5개년 계획으로

【강원지사발】 전쟁 이래 돼지가죽은 피혁자원으로서 공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고 또한 군용 통조림으로 생돈을 공출하게 되는 등 그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므로 강원도에서는 시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돈의 배가 증식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었다. 즉 현재 도내의 양돈 상황을 보면 사육 마리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농가 100호에 대하여보면 양돈호수는 겨우 29호에 사육 마리수가 37마리에 불과하는 상태이므로 1940년부터 처서 오는 1944년까지 5개년 동안에 증식 마리수 126,000마리 양돈호수 99,000호 육돈생산 77,000마리를 목표로 증산하기로 되었다. 그 래가지고 다시 증식된 마리수를 기초로 하여 제2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증식해 나가기로 되었다는데 제1차 계획이 끝나게 될 1944년까지의 증식 목표 두수를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7,008마리 인제 6,874 ▲양구 6,558 ▲회양 9,952 ▲통천 7,074 ▲고성 2,311 ▲양양 2,018 ▲강릉 3,162 ▲삼척 4,035 ▲울진 2,632 ▲정선 1,592 ▲평창 4,269 ▲영월 4,093 ▲원주 6,170 ▲횡성 5,475 ▲홍천 7,101 ▲횡성 5,475 ▲홍천 7,101 ▲화천 4,958 ▲김화 11,598 ▲철원 7,573 ▲평강 8,974 ▲이천 11,754 ▲계 116,351마리

1941-11-30-03-01

### 매일신보

## 日滿華 체맹 1주년 기념 대회 개최 28일 양구 회양 삼척 각군에서

【강원지사발】 오는 11월 30일은 일중신조약 체결과 일만화공공선언 발표 1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므로 강원도에서도 28일 오전10시부터 양구 회양 삼척 3개군에서 각관공서 지원 각종연맹원 학교연맹원 각읍면연맹 이사장 읍면소재지 인근의 리부락연맹 이사장과 애국반장 등이 출석하여 조약 체결 기념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춘천 통천 고성 강릉 삼척 원주 김화 철원 8개군에 도연맹 간부를 강사로 서 파견하였다 한다.

- ▲29일=인제 통천 양양 정선 횡성 화천 김화 평강 등 9개군
- ▲30일 춘천 고성 강릉 울진 평창 원주 홍천 철원 이천 등 9개군

1941-11-30-03-03

### 매일신보

## 流筏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만들어라 요로당국에 진정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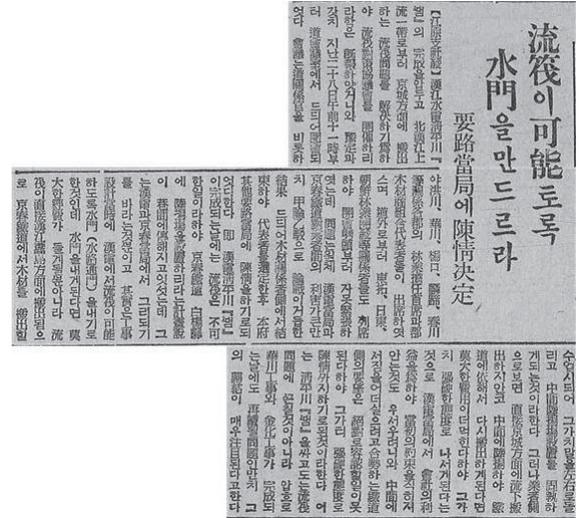
【강원지사발】한강수전 청평천 댐의 완성을 앞두고 북한강 상류 일대로부터 서울 방면에 반출하는 유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벌대책협의회를 개최하리라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예정과 같이 지난 28일 오전11시부터 도회의실에서 드디어 개최되었다. 회의는 도 관계관을 비롯하여 흥천, 화천, 양구, 인제, 춘천 등 관계 각군의 임업 담당수석과 군목재상조합대표자들이 출석하였으며 도외로부터 동척, 일동, 조선임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열석하여 개회 벽두부터 자못 긴장하였는데 문제는 원체 한전당국과 경춘철도 대업자간의 이해가 큰 만치 갑론을박으로 논전이 거듭한 결과 드디어 목재관계자측에서 결속하여 대표자를 선정후 총독부 기타 요로 당국에 진정을 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한전 청평천 댐이 완성되는 날에는 유벌은 불가한 일이라 하여 경춘철도 백양역에 육양장을 설치하리라는 계획설이 항간에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는 한전과 경춘 당국에서 그리되기를 바라는 것뿐이고 기실은 공사 설계 당시에 한전에서 유벌이 가능하도록 수문(수로통문)을 내기로 한 것인데 수문을 내게 된다면 막대한 경비가 들게 될 뿐 아니라 유벌이 직접 한강만도 방면에 반출되므로 경춘철도에서 목재를 반출할 수 없이 되어 그 같이 말을 좌우로 돌리고 중간 육양장 설치를 고집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업자측으로 보면 직접 서울방면에 유하 반출하지 않고 중간에 육양하여 철도에 의해서 다시 반출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이 더 먹힌다 하여 그같이 강경한 태도로 나서게 된다는 것으로 한전 당국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우스우러니와 중간에서 짐을 얻어 실으려고 함세하는 철도측의 요망은 절대로 용인할 일일 못된다하여 그 같이 강경한 태도로 진정까지 하기로 된 것이라 한다. 이는 청평천댐을 싸고도는 유벌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천공사와 김화공사가 완성되는 날에도 재속될 문제인 만치 그의 귀결이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1941-12-04-03-02

### 매일신보

## 불타는 지원병열 불합격 염려 혈서로 채용 탄원

【강원지사발】보라! 의기강원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열을! 지원병에 떨어지게 되면 황국청년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여 혈서 탄원을 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서는 지원병 시험에 떨어지기는 했으나 충후에 남아서 진중보국을 하겠다고 혈서로 결의를 맹서한 청년이 있지 않은가. 군국일본이 아니고서는 볼 수없는 피의 지원열을 들셋 소개하기로 한다. ◇... (기1) 인제군 북면 원동리에 사는 북촌기준 군은 작년에 지원병을 지원하였다가 불행하게도 불합격이 되어 금년에 두 번째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채용을 안해준다면 자기의 초지를 달할 수 없을뿐더러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하여 손가락을 잘라서 「진중보국 북촌기준」이라 혈서한 후 당지 경찰에 채용을 탄원하였으며 ◇... (기2) 역시 한동리에 사는 국본병수군(15)은 금년에 원동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을 조력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인데도 전형시험에 떨어져서 어찌나 하는 겁을 집어먹고 「일사보국 천황폐하 만세 국본병수」라고 혈서를 하여 당지 경찰에 채용을 애원하였다.



1941-12-04-03-07

### 매일신보

#### 가남 경찰부장 영동 6군 초도순시

【강원지사발】 가남 강원도경찰부장은 관내의 초도순시를 하고자 지난 3일 목촌 경무과장을 대동한 후 출발하였는데 화천 양구 인제 3개군과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등 영동 6군을 두루 시찰한 다음 12일에 귀임할 예정이다.

1941-12-06-03-05

### 매일신보

#### 부진하는 면 공판 강원도민의 분기 촉진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면화 증산 국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배 면적을 확장하는 동시에 생산 면화는 극력 출하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금년 생산 수량이 감소된 데다 자가소비가 있는 모양이어서 공판이 매우 부진하다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 즉 올해의 공판 할당 수량은 300만근인데 11월 30일 현재의 출하는 겨우 33만1,695근으로 목표수량에 대하여 11.1%에 해당하며 작년 같은기간 출하고 56만 2,750근에 비해보더라도 23만2,054근이나 감소라 한다. 이는 자가소비가 의외 성행하는 것도 큰 원인이라 하여 관계직원 총동원으로 출하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 1월 말까지 공판이 계속될 터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달성을 돌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각 군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눈물겨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각 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말 현재 면화 공출 실적

군명	할당수량(근)	11월말일현재출하고(근)	11월말일현재보합(%)
춘천	550,000	25,215	4.6
인제	70,000	6,895	9.9

(중략)

1941-12-13-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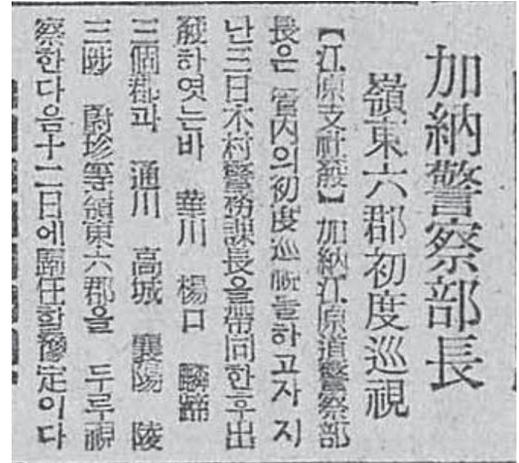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초수봉납 명년은 양구군서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황기 2600년 기념사업으로 조선신궁과 강원신궁에 매년 정례적으로 초수를 봉납하기로 되었는데 내년 1942년도에는 양구군에서 이를 봉경하기로 되었다. 초수헌전(논)은 되도록 생업보국전답 중 청정한 지역을 골라서 약 1무보씩 봉경하기로 되었으며 각군 매년 설치 개소수는 조선신궁분이 5개소, 강원신궁분이 1개소이다. 그리고 초수헌납전답의 1942년 이후 설치개소 연차별 할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군명	설치개소수 조선신궁	설치개소수 강원신궁
1952년도	인제	5	1

이후는 위표에 의하여 순환함



不振하는棉取販 江原道民의奮起促進

○十二月份現在棉取販促進

郡別	現存棉取販	前年同月比	%
春川	1,100	1,100	100
襄陽	1,100	1,100	100
高城	1,100	1,100	100
通川	1,100	1,100	100
蔚珍	1,100	1,100	100
三陟	1,100	1,100	100
陵	1,100	1,100	100
華川	1,100	1,100	100
計	7,700	7,700	100

初穂奉納 明年は楊口郡

○江原支庁管内 皇紀二千六百年記念事業として 初穂奉納に毎年定例的으로 初穂奉納計기로되던所 明年は 楊口郡에서 奉納計기로되던所 初穂奉納(文)이 約一割形式奉納計기로 되며 各郡每年奉納所數는 奉納所數分五箇所 楊口郡은 奉納所數分五箇所이다 그리고 初穂奉納田의 昭和十七年以後設置所數는 次別當會を 보면 다음과 같다

年度別	郡別	奉納所數	設置所數
同十九年度	通川	五	五
同二十年度	高城	五	五
同廿一年度	襄陽	五	五
同廿二年度	三陟	五	五
同廿三年度	蔚珍	五	五
同廿四年度	陵	五	五
同廿五年度	華川	五	五
同廿六年度	春川	五	五
同廿七年度	通川	五	五
同廿八年度	襄陽	五	五
同廿九年度	高城	五	五
同三十年度	通川	五	五
同卅一年度	襄陽	五	五
同卅二年度	高城	五	五
同卅三年度	蔚珍	五	五
同卅四年度	三陟	五	五
同卅五年度	陵	五	五
同卅六年度	華川	五	五
同卅七年度	春川	五	五

以後は右表에 依하여 循環함



제업에 종사하는 업자 이백수십명은 모두 운임의 가장 저렴한 수운을 선하여 수년간 유별방법에 의하여 서울방면에 반출해서 현금 취인판매가격으로써 재산 상육이 되어오지 삼림의 벌목사업 기타 임산물의 반출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전년대 동 독공사 진척에 반하여 유별에 대한 곤란과 손실을 멉하게 되어 각 업자는 벌채작업을 부득이 중지 축소하는 현상으로서 1일이라도 속히 유별로 설치의 언제 완성을 염원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변경하여 유별로를 구축치 않은 경우는 청평에서 유별은 전혀 중단되어 서상의 이유에 의한 생산비 증고로 목재업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함하여 다수 종사 인부의 사활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지 임업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급할 것이라고 신하므로 속히 실상을 상세히 조사한 위에 최선의 방법을 강함과 동시에 전설계대로 유별로를 구축케 하도록 하여주기를 봉원함

1941년 12월 일

▲강원도 춘천군목재업조합 대표자 좌등풍길 ▲강원도 화천군목재업조합 대표자 백천경만 ▲강원도 양구군목재업조합 대표자 홍원현덕 ▲춘천상공회의소 특별의원 춘천합동임업사대표 구무상차 ▲강원도회의원 춘천상공회의소 회두 촌상구팔랑 ▲강원도 흥천군목재업조합대표자 충전고웅 ▲강원도 인제군목재업조합대표자 김용민 ▲강원도회의원 국본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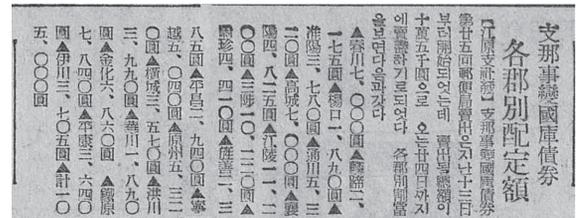
1941-12-14-03-01

매일신보

중일전쟁 국고 채권 각군별 배정액

중일전쟁 국고채권 제25회 우편국 매출은 지난 13일부터 개시되었는데 매출될 총액이 10만5,000원으로 오는 24일까지에 매진하기로 되었다. 각군별 할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7,000원 ▲인제 2,175원 ▲양구 1,890원 ▲회양 3,780원 ▲통천 5,320원 ▲고성 7,000원 ▲양양 4,825원 ▲강릉 11,200원 ▲삼척 10,220원 ▲울진 4,410원 ▲정선 2,385원 ▲평창 2,940원 ▲영월 5,040원 ▲원주 5,320원 ▲횡성 3,570원 ▲화천 1,890원 ▲김화 6,860원 ▲철원 7,840원 ▲평강 3,640원 ▲이천 3,705원 ▲계 105,000원



1942-01-11-03-01

### 매일신보

## 전재산 1만원 헌납 인제군하에 숨은 애국용 3의 미담

【강원지사발】 동아민족 백년의 숙적인 미국 영국을 격멸하기 위하여 선전을 포고한 이래 우리의 정에 일본군(황군)은 하루아침에 적의 중요기지와 군사시설을 모조리 때려부쉬 세계의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미영을 반신불수로 만들고 말았는데 이에 감격한 강원도민들은 앞을 다투어 금품헌납하는 등 총후의 적성을 유감없이 피력하고 있다. 그래서 각군에서는 혹은 비행기를 헌납하고 혹은 흘병금을 바치는 등 가지가지의 헌금 미담이 속출하여 당국자들을 감격케하고 있거니와 이번에는 전재산을 국방비로 헌납한 애국용이 나타나 도민들을 놀래게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 사는 엄정환(69)씨는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나머지 자기의 전재산인 논 1만평(시가 1만원)을 국방헌금 하였는데 씨는 일상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늙은 몸으로 총을 잡고 나서 국가에 몸을 바칠 수는 없으나 총후에 있어서라도 봉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오다가 이번 태평양 전쟁이 열리자 그만 감격하여 전재산을 몰락 국가를 위하여 바치고 만 것이라 한다. 씨의 남은 재산이라고는 쓰고있는 집 한 채와 밭이 남았을 뿐으로 금후는 비록 몸은 늙었으나 일하여 벌어먹고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이 전재산은 전부 헌금한 것은 전국을 통해서도 드문일이라 하여 당국자들은 물론 200만 도민이 감격하여 마지않는다고 한다,



1942-02-08-03-01

### 매일신보

## 과학교육강습회 강원도를 5구로 분할 순회 개강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국민학교 이수과를 중심으로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고자 도내를 5구로 분하여 과학교육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수강자는 전부 235명이고 강사는 1구 4구는 춘천사범 아육교유, 2, 3구는 철원중학교 통구교장이 맡기로 되었는데 군별 일정과 시간장소는 다음과 같다.

◇강습회 구분표

구별 - 제1구

회장과 월일 - 춘천농구공립국민교 2월23,24일

참가군별 - 춘천 인제 양구 홍천 화천

출석인원 - 41

(중략)



1942-02-08-03-05

### 매일신보

## 청년훈련소 교육연구회 춘천 등 5개소에서 개최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결전 체제하 청년훈련소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청년훈련소 교육상 모든 문제의 진작 향상에 차하고자 전조선에 아직 예가 없는 청년훈련소교육연구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구회는 춘천, 철원, 장진, 강릉, 원주 등 5개군 공립청년소에서 인접 각군의 청훈주사와 지도원들이 모이며 개최할 것인데 미리 작성 배부한 연구 발표사항인 1. 청년훈련소 교육 내용에 관한 구체적 연구 2. 청훈교련과 진흥에 관한 연구 3. 청년교본 권1의 취급과 교수세목에 대한 연구 4. 청년교본 권2의 취급과 교수세목에 대한 연구 5. 청훈 생도수의 증가책과 생도의 출석 독려에 관한 구체적 연구 등 5항목에 대해서 각각 연구한 후 각군대표 1명씩이 약 20분동안 발표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연구회가 끝난 다음에는 엽실 육군대좌의 지도 강연이 있을 터인데 개최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실시장소 기일과 출석자

기일	장소	출석군
2월 26일	춘천	춘천 인제 화천 양구
2월 28일	철원	철원 평강 이천 김화
3월 2일	장진	통천 고성 양양 회양
3월 4일	강릉	강릉 삼척 울진 평창 정선
3월 6일	원주	원주 횡성 홍천 영월

1942-02-08-03-05

### 매일신보

## 꼬리 무는 밀주배 흥천세무서서 60건을 적발

【흥천】 흥천세무소에서는 구년 말을 앞두고 관내 3개소(흥천군 남면, 동면, 인제군 남면)를 임전 과장 지휘하 과원이 총동원되어 지난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동안 밀주 단속을 단행하였는데 적발된 건수는 60건이라 한다.

1942-02-11-03-04

### 매일신보

## 영예의 지원병 강원서 417명 추천, 인제경찰서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본년도 지원병 지원자 2만106명 중에서 최후의 전형을 행한 결과 417명을 적격자로 결정 추천하기로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영예의 합격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인제경찰서=금강중영 조야재철 청원수의 고본대식 전산정춘 국본대수 궁본덕재 안원창복 이천성열 고산생규 택산석현 대산조빈

【江原支那部】江原道에서는 決戰體制下 青年訓練所教育의 重要 件에 비추어 青年訓練所教育上 諸問題의 研究 教育訓練의 指導 各郡代表 一名씩이 約 二十分의 發言 時間에 當하여 全縣에 於て 例 行 會議을 開行하기로 하였다. 研究會는 春川 鐵原 長淵 江陵 原州等 五郡에 公立 青年訓練所에서 議院 支部의 補助 主事의 指導에 의하여 開會할 터인데 미리 작성 배부한 研究 發表 事項인

- 一、青年訓練所教育內容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 二、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 三、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 四、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五、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各郡代表 一名씩이 約 二十分의 發言 時間에 當하여 全縣에 於て 例 行 會議을 開行하기로 하였다. 研究會는 春川 鐵原 長淵 江陵 原州等 五郡에 公立 青年訓練所에서 議院 支部의 補助 主事의 指導에 의하여 開會할 터인데 미리 작성 배부한 研究 發表 事項인

一、青年訓練所教育內容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二、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三、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四、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五、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各郡代表 一名씩이 約 二十分의 發言 時間에 當하여 全縣에 於て 例 行 會議을 開行하기로 하였다. 研究會는 春川 鐵原 長淵 江陵 原州等 五郡에 公立 青年訓練所에서 議院 支部의 補助 主事의 指導에 의하여 開會할 터인데 미리 작성 배부한 研究 發表 事項인

一、青年訓練所教育內容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二、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三、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四、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五、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洪川】 洪川稅務署에서는 舊年 未申告된 管內 三箇面 (洪川郡 南南東面 鐵原 鐵原南面) 을 林田課 長指揮下 課員의 總動員에 의하여 一月二十四일부터 三十일까지 七日 동안 密酒取締을 斷行한바 摘發된件數는 六十件이라 한다

## 쇠리 무는 密酒輩

洪川稅務署서 六十件을 摘發

## 榮譽의 志願兵

江原서 四百七名 推薦

【江原支那部】 江原道에서는 決戰體制下 青年訓練所教育의 重要 件에 비추어 青年訓練所教育上 諸問題의 研究 教育訓練의 指導 各郡代表 一名씩이 約 二十分의 發言 時間에 當하여 全縣에 於て 例 行 會議을 開行하기로 하였다. 研究會는 春川 鐵原 長淵 江陵 原州等 五郡에 公立 青年訓練所에서 議院 支部의 補助 主事의 指導에 의하여 開會할 터인데 미리 작성 배부한 研究 發表 事項인

一、青年訓練所教育內容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二、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三、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四、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五、青年訓練所教育 充實에 關한 具體的研究

1942-02-25-03-04

매일신보

북부 강원경찰서장회의 개최

【철원】 지난 8일 오전10시 강원도 북부지방(홍천 춘천 인제 양구 화천 금성 김화 이천 평강 회양 철원) 경찰서장 회의를 가남 경찰부장 통재하에 신축한 당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중요의사를 마치고 오후4시에 폐회하였다.

1942-03-07-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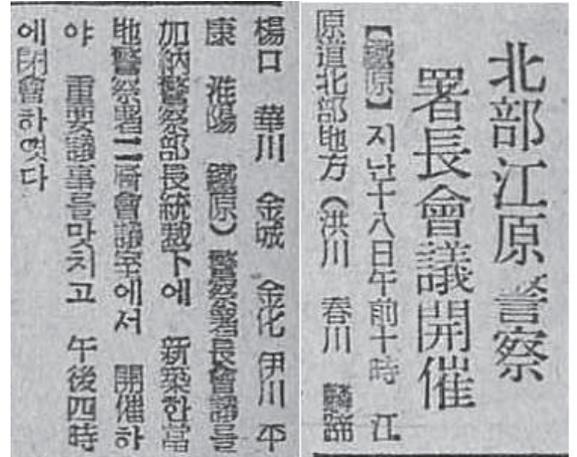
매일신보

160만표 목표 강원도 목탄 증산 계획

【강원지사발】 목탄의 산지로 성가를 높이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매년 개량 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년 1942년도에는 160만표의 생산을 반출하기로 되었는데 각군별 목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군별	생산수량	도내수요량	도외반출량
춘천	140,000	100,000	35,000
인제	50,000	15,000	35,000
양구	80,000	15,000	65,000
회양	75,000	30,000	45,000
통천	60,000	25,000	35,000
고성	55,000	50,000	5,000
양양	50,000	30,000	20,000
강릉	80,000	83,000	-
삼척	70,000	80,000	-
울진	70,000	35,000	32,000
정선	65,000	45,000	-
평창	45,000	30,000	-
영월	35,000	70,000	-
원주	70,000	57,000	13,000
횡성	45,000	20,000	25,000
홍천	110,000	36,000	74,000
화천	60,000	60,000	-
김화	110,000	37,000	73,000
철원	60,000	45,000	15,000
평강	110,000	20,000	90,000
이천	60,000	27,000	33,000
계	1,600,000	900,000	700,000

▲강릉군은 평창군으로부터 3천표 반입 ▲삼척군은 정선군으로부터 1만표 반입 ▲울진군은 영변군에 1만3천표 반출 ▲정선군은 영월군과 삼척군내에 각 1만표씩 반출 ▲평창군은 영월군에 1만2천표 ▲강릉군에 3천표 반출 ▲영월군은 평창에서 1만2천표 정선에서 1만표 울진에서 1만2천표 반입



1942-03-08-03-04

### 매일신보

#### 단기 농민도장 모집 인원을 배정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농촌 최일선에 서서 투신 독려할 증견인물을 양성하기로 하여 단기 농민도장을 설치한 이래 매년 대량의 증견인물을 양성해냈는데 내년도에는 연8회에 걸쳐 매회 60명씩 480명을 양성해내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각기별 입장수로 예정월일과 각 군별 모집 배당인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다.

◇각기별 입소 종료 예정 월일

제1기 1942. 4. 1 ~ 1942. 4. 30

제2기 1942. 5. 4 ~ 1942. 6. 2

제3기 1942. 6. 4 ~ 1942. 7. 4

제4기 1942. 7. 9 ~ 1942. 8. 4

제5기 1942. 8. 7 ~ 1942. 9. 5

제6기 1942. 9. 7 ~ 1942. 10. 6

제7기 1942. 10. 8 ~ 1942. 11. 6

제8기 1942. 11. 7 ~ 1942. 12. 8

◇훈련생 모집 할당인원

(괄호 내는 1회당 인원)

- ▲춘천24명(3) ▲인제24(3) ▲양구24(3) ▲회양24(3) ▲통천24(3)
- ▲고성16(2) ▲양양 16(2) ▲강릉32(4) ▲삼척16(2) ▲울진24(3) ▲정선16(2) ▲평창24(3) ▲영월16(2) ▲원주32(4) ▲횡성24(3) ▲홍천32(4) ▲화천 8(1) ▲김화 32(4) ▲철원24(3) ▲평강24(3) ▲이천24(3) ▲계480(60)

1942-03-27-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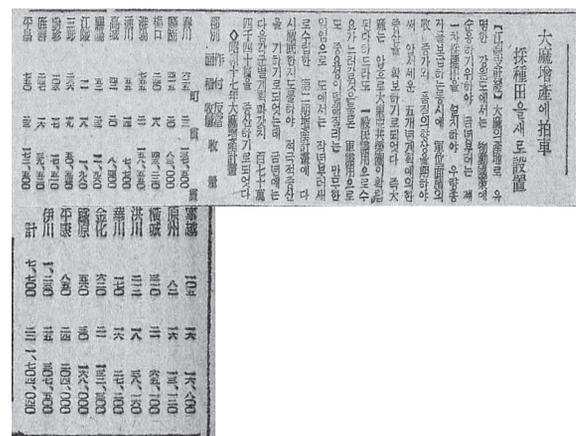
### 매일신보

#### 대마 증산에 박차 채종전을 새로 설치

【강원지사발】 대마의 산지로 유명한 강원도에서는 물동국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제1차 채종전을 설치하여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동시에 단위면적의 수 증가와 품질의 향상을 기하여 앞서 세운 5개년 계획에 의한 증산을 확보하기로 되었다. 즉 대마는 앞으로 대동아공영권이 확립된다 하더라도 일반민수용으로 수요가 늘어갈 것은 물론 군수용으로도 중요성이 더해질리는 만무한 일이므로 도에서는 작년부터 새로 수립한 제2기 증산 계획에 다시 철저한 지도를 하여 적극적 증산을 기하기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다음 각군별 계획과 같이 170만4,040관을 증산하기로 되었다.

◇1942년도 대마 생산량

군별	작부면적(정)	반당수량(관)	수량(관)
춘천	615	22	137,500
인제	415	20	83,000
양구	240	18	45,220
회양	755	21	158,550
통천	55	14	7,700



고성	42	20	8,400
양양	52	23	11,960
군별 작부면적(정)		반당수량(관)	수량(관)
강릉	3	18	1,980
삼척	266	19	5,054
울진	105	17	50,540
정선	247	16	17,510
평창	750	23	72,500
영월	105	16	16,800
원주	82	16	13,120
횡성	310	21	65,100
홍천	21	18	128,160
화천	170	16	27,200
김화	620	21	132,300
철원	560	30	168,000
평강	850	24	204,000
이천	1,230	25	307,500
계	7,700	221	704,040

1942-04-03-03-01

## 매일신보

### 저축 장려 공적자와 모범 저축 조합 표창

【강원지사발】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강원도지부에서는 국민저축운동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도내 각 금융조합의 저축장려 공로자와 우량저축조합을 표창하기로 되어 신중히 선정해왔었는데 드디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4월 중순 각 조합에서 개최하게 되는 정시총대회에서 감사표창 전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 저축장려공로자(팔호내는 저축조합명) \*인제군 발체

▲이유 (인제) ▲금산봉율(인제현리지소) ▲관산창원(인제서화지소)

貯蓄獎勵功績者와 模範貯蓄組合表彰

【江原道支店發】朝鮮金融組合聯合會江原道支店에서는 국민貯蓄운동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道내各金融組合의 貯蓄장려 공로자와 優良貯蓄組合을 표창하기로 되어 신중히 선정해왔었는데 드디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4월 중순 각 조합에서 개최하게 되는 定時總大會에서 감사표창 전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 貯蓄장려功績者 (팔호내는 貯蓄組合名) \* 仁濟郡 발체

▲ 李有 (仁濟) ▲ 金山奉율 (仁濟現理地所) ▲ 官山창원 (仁濟西花地所)

丁支所 ▲ 龍岡本體 (漢州) ▲ 高田基正 (同龍岡支所) ▲ 國體興業總社 ▲ 李雨龍業 (同龍岡支所) ▲ 廣業發 (金城) ▲ 田慶漢 (平康貯蓄所) ▲ 高山團業 (平康貯蓄所) ▲ 李德翼 (大浦) ▲ 西浦永宗 (龍口) ▲ 李江源折 (同長隆支所) ▲ 李城光旭 (淮陽) ▲ 李城高臣 (同龍岡支所) ▲ 李春省 (龍岡) ▲ 金山福祥 (同龍岡支所) ▲ 葛山昌源 (同龍岡支所) ▲ 安山國體 (龍岡) ▲ 李田會八 (平康) ▲ 李天 (平康) ▲ 山本丙越 (安城) ▲ 貯蓄書記 白百德支所 ▲ 吉田發 (龍岡) ▲ 李亞五 (龍岡) ▲ 田 ▲ 金山容祥 (廣) ▲ 李本水珍 (同龍岡) ▲ 金萬壽 (廣南貯蓄支所) ▲ 新井在元 (田內) ▲ 金源瑞萬 (龍岡二) ▲ 李長時發 (龍岡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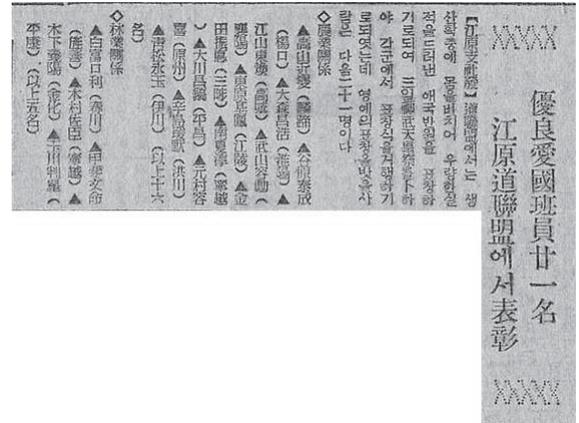
江陵貯蓄會國民貯蓄發會以 下 國體興業總社發會 凡村 ▲ 李學上 廣業發所 ▲ 鶴日架 田甲 ▲ 李永德 龍岡 ▲ 葛山川 發所 ▲ 孫田場 ▲ 李貞樂 大浦 ▲ 李石 龍岡 ▲ 李泰軒 龍岡 人 ▲ 李 寶祥 龍岡 ▲ 李 龍岡 下 龍岡

1942-04-03-03-06

### 매일신보

#### 우량 애국반원 21명 강원도연맹에서 표창

【강원지사발】 도연맹에서는 생산자 중에 몸을 바쳐 우량실적을 드러낸 애국반원을 표창하기로 되어 3일 신무천황제를 복하여 각군에서 표창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영예의 표창을 받는 사람은 다음 21명이다. ◇농업관계 ▲고산근섭(인제) ▲곡원대성(양구) ▲대삼창호(회양) ▲강산동환(고성) ▲무산용동(양양) ▲동원기봉(강릉) ▲금전진덕(삼척) ▲남하순(영월) ▲대천창호(평창) ▲원촌용희(원주) ▲신도원목(홍천) ▲청송수옥(이천) (이상 16명) (중략)



1942-04-05-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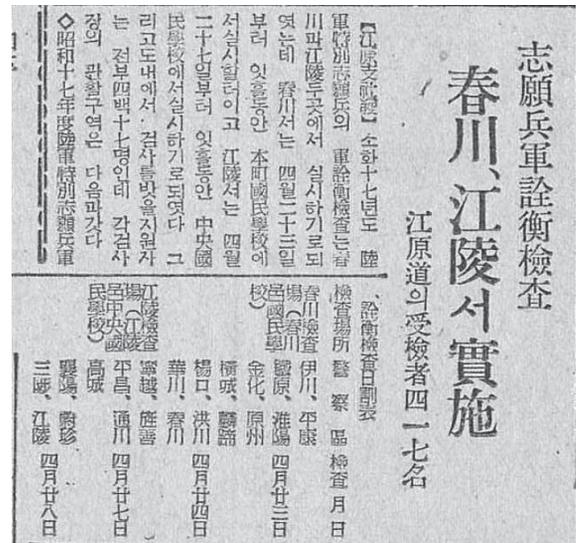
### 매일신보

#### 지원병군 전형검사 춘천, 강릉서 실시 강원도의 수검자 417명

【강원지사발】 1942년도 육군특별지원병의 군전형검사는 춘천과 강릉 두 곳에서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춘천서는 4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본정국민학교에서 실시할 터이고 강릉서는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중앙국민학교에서 실시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도내에서 검사를 받을 지원자는 전부 417명인데 각 검사장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1942년도 육군특별지원병 군전형검사 일할표

검사장소	경찰구	검사월일
춘천검사장 (춘천읍초등학교)	이천, 평강, 철원, 회양 김화, 원주, 횡성, 인제, 양구, 홍천	4월 23일 4월 26일
강릉검사장 (강릉읍중앙초등학교)	영월 정선 평창 통천 고성 양양 울진 삼척 강릉	4월 27일 4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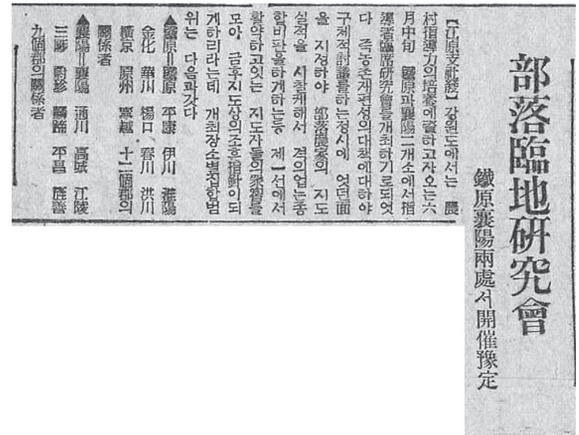
1942-04-09-03-06

### 매일신보

#### 부락임지연구회 철원 양양 양처서 개최 예정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농촌지도력의 만전을 기하고자 오는 6월 중순 철원과 양양 2개소에서 도부락임지연구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즉 농촌 재편성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토의를 하는 정시에 어떤 면을 지정하여 부락농가의 지도실적을 시행케 해서 격의 없는 종합 비판을 하게 하는 등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중지를 모아 금후 지도상이 좋은 방침이 되게 하리라는 데 개최장소와 집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철원=철원 평강 이천 인제 김화 화천 양구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12개군의 관계자
- ▲양양=양양 통천 고성 강릉 삼척 울진 인제 평창 정선 9개군의 관계자



### 피마잠 사육 장려 전국민학교 아동에게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직물자원의 증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주까리누에고치(피마잠)의 사육을 적극 장려하기로 되었다. 피마잠은 2, 3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사육해왔는데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함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장려하기로 된 것인바 올해는 1만 농가 1만9,600g, 각 초등학교에 5,400g 합계 2만5,000g의 피마잠종을 배급하여 약7,500관의 산액을 확보하리라한다. 도내 각국민학교에 대하여 피마잠을 장려하기는 금년이 처음으로 270교에서 사육하기로 되었는데 직유자원 확보와 피마잠자의 증산은 물론 하기휴가 중 학교아동들의 근로작업에 의하여 사육케 하리라는데 1석3조의 효과를 거두어두게 되리라 하여 크게 기대되고 있다.

◇각군별 피마잠종 배급난량

군명	일반농가분(와)	국민학교배급분	합계	군명	일반농가분(와)	국민학교배급분	합계
춘천	1,000	320	1,320	인제	1,000	220	1,220
양구	900	200	1,100	회양	800	280	1,080
통천	510	200	710	고성	540	220	760
양양	1,000	240	1,240	강릉	1,000	260	1,260
삼척	450	360	810	울진	300	240	540
정선	300	180	480	평창	100	240	1,240
영월	800	260	1,060	원주	1,000	240	1,240
횡성	1,000	240	1,240	홍천	1,000	320	1,320
화천	300	140	440	김화	4,000	380	4,380
철원	700	240	940	평강	1,000	220	1,220
이천	1,000	300	1,300				
계	195,000	5,500	250,000				

**苧麻蠶飼育獎勵**  
**全國民學校兒童에게**

【江原支庁報】 강원도에서는 직물자원의 증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주까리누에고치(피마잠)의 사육을 적극 장려하기로 되었다. 피마잠은 2, 3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사육해왔는데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함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장려하기로 된 것인바 올해는 1만 농가 1만9,600g, 각 초등학교에 5,400g 합계 2만5,000g의 피마잠종을 배급하여 약7,500관의 산액을 확보하리라한다. 도내 각국민학교에 대하여 피마잠을 장려하기는 금년이 처음으로 270교에서 사육하기로 되었는데 직유자원 확보와 피마잠자의 증산은 물론 하기휴가 중 학교아동들의 근로작업에 의하여 사육케 하리라는데 1석3조의 효과를 거두어두게 되리라 하여 크게 기대되고 있다.

◇各郡別 苧麻蠶種 配給 難量

郡名	一般農家分	國民學校	合計
春川	1,000	320	1,320
襄陽	1,000	220	1,220
高城	800	280	1,080
通川	510	200	710
淮陽	1,000	240	1,240
楊口	450	360	810
三陟	300	180	480
襄陽	800	260	1,060
原州	1,000	240	1,240
襄陽	300	140	440
原州	700	240	940
襄陽	1,000	300	1,300
合計	195,000	5,500	250,000

1942-05-05-04-02

매일신보

국채 소화 목표액 금년도는 214만3천원

【강원지사발】 시국하 국민의 채권의 소화는 긴요한 문제인 만큼 금 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강원도에 할당할 국채와 채권은 실로 214만3,000원정도에 당할 모양이므로 도에서는 각군에 소화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할당하여 소화의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다.

◇1942년 국채채권 군별 소화목표 (단위 천원)

군명	국고채권	저축보국채권	군명	국고채권	저축보국채권
춘천	119	103	인제	24	20
양구	20	17	회양	31	27
통천	52	-	고성	89	-
양양	45	39	강릉	117	104
삼척	115	98	울진	42	37
정선	29	25	평창	32	28
영월	54	46	원주	47	41
횡성	36	31	홍천	45	39
화천	20	17	김화	68	60
철원	89	77	평강	37	33
이천	30	31			
계	1,147	996			

1942-05-06-04-06

매일신보

산금도로를 개설 강원도서 금년에 600km

【강릉】 강원도에서는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해마다 산금도로와 광산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이래 실시할 예정선을 보면 다음과 같아서 산금도로가 10개소에 302km이고 광산도로가 10개소에 299km이라 한다.

◇산금도로

도로명	군명	km수
1. 인제 양양선	인제 양양	37.0
2. 대각 신고산선	이천	20.5
3. 회양 임경주선	평강 이천	59.0
4. 영월 도암선	정선	37.0
5. 동덕 월정선	강릉 평창	45.5
6. 소도 토산선	삼척	40.0
7. 양동 건등선	원주	13.0
8. 강릉 장재선	강릉	5.0
9. 철고 현리선	홍천 인제	38.5
10. 원산 이천선	이천	6.0
계	302.0	

◇광산도로

도로명	군명	km수
석항 황지선	영월 삼척	33.5
양양 흥천선	양양 인제	28.0

### 國債消化目標額

今年度三百十四萬二千圓

【江原支社發】 時局下國債及債券의消化는 甚要한問題인만큼 今年度에 江原도에 할당할 國債及債券은 실로 三百十四萬三千圓정도에 당할 모양이므로 道에서는 各郡에 消化目標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여 消化의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다.

○昭和十七年國債、債券郡別消化目標(單位千圓)

郡名	國債	債券	合計
春川	119	103	222
陽谷	20	17	37
通津	52	-	52
襄陽	45	39	84
高城	115	98	213
通川	29	25	54
淮陽	54	46	100
楊口	36	31	67
寧越	20	17	37
原州	89	77	166
平康	30	31	61
平海	1147	996	2143
計			3143

### 産金道路를 開設

江原道서今年에 六百浬

【江原支社發】 강원도에서는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해마다 산금도로와 광산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이래 실시할 예정선을 보면 다음과 같아서 산금도로가 10개소에 302km이고 광산도로가 10개소에 299km이라 한다.

◇산금도로

郡名	郡界	距離
1. 人濟 襄陽線	人濟 襄陽	37.0
2. 大角 新告山線	利川	20.5
3.  회양  臨敬州線	平康 利川	59.0
4.  英月  道安線	正善	37.0
5.  東德  月正線	江陵 平昌	45.5
6.  小島  土山線	三陟	40.0
7.   陽東  健等線	元州	13.0
8.  江陵  長才線	江陵	5.0
9.   鐵古  顯利線	洪川  人濟	38.5
10.   元山  利川線	利川	6.0
計		302.0

◇光산도로

郡名	郡界	距離
石項  豐地線	寧越  三陟	33.5
襄陽  洪川線	襄陽  三陟	28.0
計		299.0



1942-07-03-04-06

### 매일신보

## 목표량 2천만관 강원서도 증산에 박차 7월 1일부터 2개월간

【강원지사발】 태평양전쟁 하 군수의 공급은 물론 양곡 증산과 생산력 확충이 급무로 되어있는 만치 강원도에서는 사료의 자급증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뜻에서, 건조 증산운동을 장려해야 된다는 뜻에서 건조증산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었다. 즉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건조증산운동 기간으로 설정하여 강원도 목표수량 6천관을 생산해낼 터인데 같은 기간 중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동원하여 풀베기를 실시하는 외에 각 학교생도 아동과 특수단체 등의 근로보국대를 출동시켜 증산운동에 협력시키기로 되었다. 그런 다음 성적이 우량한 단체나 개인을 표창하여 건조증산을 더욱 권장하기로 되었는데 각 군의 증산목표 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350만관 ▲인제 280 ▲양구 250 ▲회양 300 ▲통천 200 ▲고성 200 ▲양양 200 ▲강릉 300 ▲삼척 200 ▲울진 250 ▲정선 280 ▲평창 350 ▲영월 280 ▲원주 250 ▲횡성 350 ▲홍천 350 ▲화천 150 ▲김화 350 ▲철원 280 ▲평강 380 ▲이천 350 ▲계 6,000만관

1942-07-05-04-06

### 매일신보

## 송지도 보물 홍천서 송지 채취 강습

【홍천】 도 주최 생송지 채취강습회는 지난 29일 오전9시부터 당일 오후4시까지 홍천군하 화계리 송학정 임지 내에서 개최되었는데 군 평산권업과장을 비롯하여 춘천, 양구, 인제, 횡성, 영월, 평창, 원주, 홍천 이상 8개군의 임업 직원 21명 현장 임석 도 산림회 금삼(金森)축탁 도산림과 덕산기수의 강석 하 상기 8개군 종업자 권등오선 외 30여명 등이 본군의 각송 풍림인 송학정 송림지대를 염천 흑열 하에 유증자의로써 열렬히 본회 실시 채취 강습을 마쳤다. 금회의 수강생은 시국 하 생송지는 화학공업용 염료 기타 에 널리 귀중히 응용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군수용 혹은 수입품의 대용품 제조 원료로 불가결한 수용품이 되는 것을 충일층 인식을 새롭혔고 동시 도내 대면적 산림에 무진장으로 매물한 생송지를 채취하게 되어 적기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간에 각군 할당 수량 생산은 물론 도의 신정 생산량 5만t 이상 채취 증산 목표 달성에 있어 합동 강습은 다대한 공헌이 있으리라 한다.(사진은 송지 채취 강습회)

**江原서도 증산에 박차**

**目標量 二千萬貫**

【江原省發】 태평양전쟁 하 군수의 공급은 물론 양곡 증산과 생산력 확충이 급무로 되어있는 만치 강원도에서는 사료의 자급증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뜻에서, 건조 증산운동을 장려해야 된다는 뜻에서 건조증산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었다. 즉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건조증산운동 기간으로 설정하여 강원도 목표수량 6천관을 생산해낼 터인데 같은 기간 중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동원하여 풀베기를 실시하는 외에 각 학교생도 아동과 특수단체 등의 근로보국대를 출동시켜 증산운동에 협력시키기로 되었다. 그런 다음 성적이 우량한 단체나 개인을 표창하여 건조증산을 더욱 권장하기로 되었는데 각 군의 증산목표 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350만관 ▲인제 280 ▲양구 250 ▲회양 300 ▲통천 200 ▲고성 200 ▲양양 200 ▲강릉 300 ▲삼척 200 ▲울진 250 ▲정선 280 ▲평창 350 ▲영월 280 ▲원주 250 ▲횡성 350 ▲홍천 350 ▲화천 150 ▲김화 350 ▲철원 280 ▲평강 380 ▲이천 350 ▲계 6,000만관

**松脂採取講習會**

**物賣地松**

**習講取採脂松**

【洪川】 도 주최 생송지 채취강습회는 지난 29일 오전9시부터 당일 오후4시까지 홍천군하 화계리 송학정 임지 내에서 개최되었는데 군 평산권업과장을 비롯하여 춘천, 양구, 인제, 횡성, 영월, 평창, 원주, 홍천 이상 8개군의 임업 직원 21명 현장 임석 도 산림회 금삼(金森)축탁 도산림과 덕산기수의 강석 하 상기 8개군 종업자 권등오선 외 30여명 등이 본군의 각송 풍림인 송학정 송림지대를 염천 흑열 하에 유증자의로써 열렬히 본회 실시 채취 강습을 마쳤다. 금회의 수강생은 시국 하 생송지는 화학공업용 염료 기타 에 널리 귀중히 응용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군수용 혹은 수입품의 대용품 제조 원료로 불가결한 수용품이 되는 것을 충일층 인식을 새롭혔고 동시 도내 대면적 산림에 무진장으로 매물한 생송지를 채취하게 되어 적기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간에 각군 할당 수량 생산은 물론 도의 신정 생산량 5만t 이상 채취 증산 목표 달성에 있어 합동 강습은 다대한 공헌이 있으리라 한다.(사진은 송지 채취 강습회)

1942-07-09-04-08

**매일신보**

**증미전에 가일편 묘대품평회 입상자 결정**

【강원지사발】『증미는 묘대의 개선으로부터』라는 표어아래 강원도에서는 벼육묘 육성을 목표로 묘대 개량에 주력하는 한편 매년 못자리 품평회를 개최해왔는데 본년도에는 지난 5월 5일부터 25일까지에 심사를 마쳐 그 후 종합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장과 상금은 형편에 의하여 내년 3월에 교부하기로 되었다.

**1. 군농회별 포상표**

등급별	남부	북부	연해군
1등 영월군농회	양구군농회	고성군농회	
2등 홍천군농회	이천군농회	울진군농회	
3등 원주군농회	김화군농회	통천군농회	
3등 인제군농회	평강군농회	삼척군농회	

**2. 이별 포상표**

등급별	남부	북부	연해군					
군	읍면	리	군	읍면	리	군	읍면	리
1등 영월	주천	주천	양구	남	송우	고성	고성	동
2등 인제	인제합강2구	김화	근북	백은	삼척	원덕	노경	
2등 평창	평창	중	양구	동	덕곡	통천	벽양	신대
3등 춘천	춘천	우두	동	남	적	양양	죽왕	인정
3등 원주	관부	관설	이천	안협	장탄	울진	기성	척산
3등 홍천	화촌구성포	양구	양구	죽곡	고성	고성	감월	

1942-07-18-04-01

**매일신보**

**춘잠 공판 총결산 출하 24만관 금액 140만원 예년에 비해 감소**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춘잠공판은 요즘 마감하였는데 총결산에 나타난 출하 실적을 보면 24만4,122관으로 할당수량 34만6,000관에 비하여 10만1,877관(29.4%)의 감소이며 전년 실적 29만2,446관에 비하여 4만8,323관(16.5%)의 감소이다. 이를 다시 과거 3개년 평균 31만3,645관에 비하면 6만9,522관(22.2%)의 감소이어서 예년에 없는 좋지 못한 성적으로 끝을 막았는데 공판금액은 약 140만원에 달하여 농촌의 경계를 운택케하고 있다. 각군별 공판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군별	출하실적(관)	공판실적	작년실적
춘천	22,000	18,077	17,982
인제	26,200	15,871	22,079
양구	21,700	15,083	20,493
회양	10,400	8,574	7,815
통천	4,200	3,886	3,960
고성	6,540	5,409	6,598
양양	12,500	10,410	12,410
강릉	12,000	9,224	7,799
삼척	15,200	10,462	14,947
울진	10,000	7,037	8,440
정선	17,500	15,463	17,325

(중략)





장 독려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독려대 파견 광산에서는 각각 좌담회를 개최하여 광산 증산에 대한 의견 교환과 지시가 있을 터인데 독려단 파견계획과 독려시찰요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려반 파견 계획

- 제1반=지사 대관 기사(철원 김화 평강 이천)
- 제2반=내무부장 고전 속(강릉 삼척 울진)
- 제3반=산업부장 금산 속(정선 영월 평창 원주 횡성)
- 제4반=경찰부장 삼선 주사(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 제5반=상공과장 천야 서기(양양 고성 통천 회양)
- 별동반=조선광산연맹 임원 도연맹 직원(지정광산)
- 별동대=총독부 도 사회과장(지정광산) (중략)

1942-10-11-04-07

매일신보

축우품평회 개최 강원도내를 2구로 분하여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축우개량 증식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도내를 2구로 나누어 제3회 강원도축우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구는 춘천, 양구, 회양, 평창, 원주, 횡성, 홍천, 김화, 철원, 이천, 평강 11개군으로 하고 제2구는 인제,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영월, 화천 10개군으로 하여 이를 다시 4조로 나누어 좌기 일정에 의해서 품평하기로 되어있는데 각 군으로부터 종모우 번식빈우 농경우 등을 출품시켜 심사해가지고 성적 우량한 군농회를 표창하기로 되었다.

◇품평 일정

- ▲춘천 10월 14일 15일 ▲통천 동 18일 ▲고성 동 20일 ▲양양 동 22일 ▲화천 동 19일 ▲양구 7일 ▲인제 9일 ▲홍천 12일 ▲횡성 14일 ▲원주 16일 ▲김화 9, 10일 ▲회양 12, 14일 ▲평창 16, 17일 ▲정선 13, 14일 ▲강릉 17, 18일 ▲삼척 22, 23일 ▲울진 25, 26, 27일

1942-10-14-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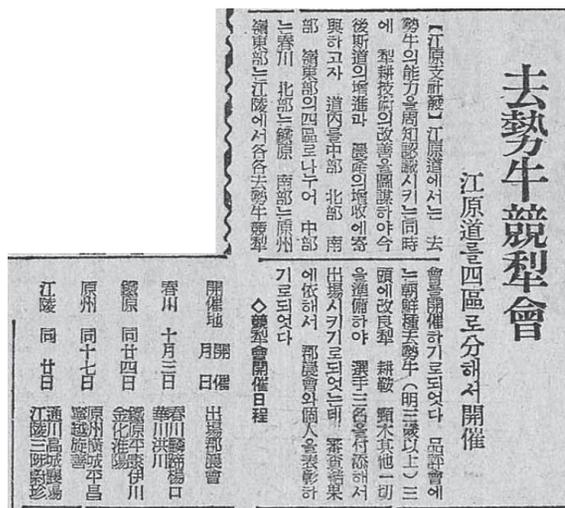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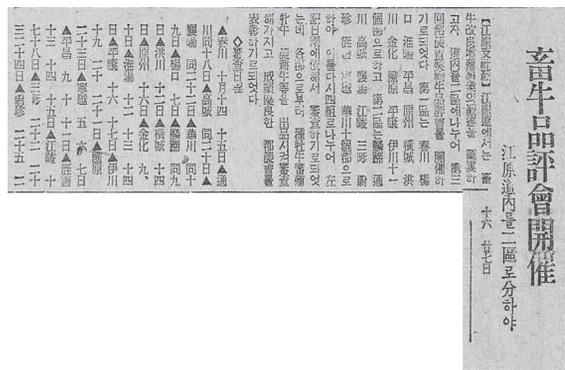
매일신보

거세우 경이회 강원도를 4구로 분해서 개최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거세우의 능력을 주지 인식시키는 동시에 소밭같이 기술 개선을 기여하고자 도내를 중부, 북부, 남부, 영동부 4부로 나누어 중부는 춘천, 북부는 철원, 남부는 원주, 영동부는 강릉에서 각각 거세우 경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품평회에서는 조선조 거세우(내년 3세 이상), 3마리에 개량이, 경안, 경목 기타 일체를 준비하여 선수 3명을 부첨해서 출장시키기로 되었는데 심사 결과에 의해서 농회와 개인을 표창하기로 되었다.

◇경이회 개최 일정

개최지	월 일	출전군
춘천	10월 3일	춘천 인제 양구 화천 홍천
철원	10월 24일	철원 평강 이천 김화 회양
원주	10월 17일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강릉	10월 20일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1942-10-15-04-04

### 매일신보

## 청년대 맹훈련 강원도 각군 사열 일정

비상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봉화를 들고 일어난 강원도내 각군의 청년대는 당국의 열의있는 지도훈련과 청소년의 자각에 의하여 날로 소질이 향상되어 가고있는데 도에서는 이들 청년대의 충훈련 태세를 일층 강화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하여 도내 각군 청년대의 교련사열을 10월 12일부터 12월 4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되었다. 사열은 도지사(도청년단장)를 비롯하여 도청년단간부, 군부 관계자들이 담당하기로 되었는데 사열은 시열, 분열, 국방경기의 3종으로 나누어 실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출석상황, 복장의 정비상황, 시열, 분열, 국방경기 등에 의하여 엄격히 성적을 채점하리라는 것으로 각군 청년대에서는 벌써 맹훈련을 하고있는 중이다. 실시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제 발취

사열일	사열일차	군별	사열훈련소	사열인원소계	합계
육군중좌 삼산송차량	10월21일	인제군	인제	45	
			관대	35	105
			원통	25	

사열장소      사열개시각  
 인제청년훈련소      7시30분

### 青年隊猛訓練

#### 江原道各郡查閱日程

江原道各郡青年隊查閱日程表

郡名	查閱日期	查閱時間	查閱地點
江原道	10月1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3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3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3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 江原道各郡查閱日程

郡名	查閱日期	查閱時間	查閱地點
江原道	10月1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1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2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3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0月3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1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5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6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7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8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29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1月30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1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2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3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江原道	12月4日	10時	江原道청년단장관

1942-10-15-04-03

### 매일신보

## 한해민 구제대책 강원서 4개군에 제탄사업 장려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한해 이재민 구제대책의 하나로 인제 원주 홍천 3개군에 대하여 농가의 부업으로서 한해대책제탄사업을 장려하기로 되었다. 즉 인제군 40호 원주군 120호 홍천군 80호 계 240호에 대하여 겨울동안 제탄사업을 장려해가지고 이재민을 구제해나가기로 되었는데 제탄작업은 일반적 노동과 달리 특수한 기술을 요하게 되므로 40호가 종업하는 제탄 개소에는 지도원 한사람씩을 배치하여 지도의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고보조 4,704원, 도비 1,056원, 지원부담 1,920원 계 7,680원을 가지고 축요비와 간이창고 건설비 등의 일체를 대주기로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명	인제군	원주군	홍천군	인제면	장려호수	축요기수	간이창고건설비 동수	간이창고건설비 금액	지도감독비 인원	지도감독비 금액	합계금액
	40	120	80	2	40	2	300	1	180	1,280	

(중략)

## 旱災民救濟對策

### 江原道四個郡에 製炭事業獎勵

江原道四個郡(江原道)에 旱災民救濟對策으로서 製炭事業을 장려하기로 되었다. 이 사업은 농가 부업으로서 겨울 동안에 실시하며, 지도원 한사람씩을 배치하여 지도를 맡기로 하였다. 사업비는 국고보조 4,704원, 도비 1,056원, 지원부담 1,920원 계 7,680원을 가지고, 축요비와 간이창고 건설비 등의 일체를 대주기로 하였다.

郡名	戶數	製炭所數	獎勵費	合計金額
江原道	240	240	7,680	7,680
江原道	240	240	7,680	7,680
江原道	240	240	7,680	7,680
江原道	240	240	7,680	7,680

1942-10-15-04-05

### 매일신보

#### 독행군인 가족과 원호공로자 표창

【강원지사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일제히 전개된 군인원호강화운동 실시에 비취 강원도에서는 군인의 유가족으로서 일반이 사표가 될만한 자와 군인 원호의 독행자를 표창하기로 되어 신중 전형중이었는데 드디어 좌기 7명을 도지사로부터 표창하기로 되어 당해군에서는 전달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군인원호회 조선본부에서도 2명을 표창하기로 되어 함께 전달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영예의 피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표창자 명부(지사)

▲군인가족 독행자 원주군 원주읍 하동리 궁기선남

▲군인가족 독행자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대공간자 (중략)



1942-10-29-04-05

### 매일신보

#### 영예의 자복가정 강원도서 27명 명치절에 표창

【강원지사발】 본사 주최의 제2회 조선우량다자가족 표창은 오는 11월 3일 명치절을 맞아 각도에서 일제히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좌기 27명을 해당 각군에서 표창하기로 되었다. 이번에 영예의 표창을 받을 사람들은 자녀 10명 이상을 가진 자복부대들인데 회양군 북면 신정리 금촌달홍씨(49)와 춘영부(45)사이엔 12명(남녀 각6명)의 자녀를 가진 것이 최고이며 다음이 역시 회양군 회양면 능리 신정용호씨의 11명(남8여3)을 비롯하여 자녀 11명을 가진 다자가정이 7가족이다. 그리고 나머지 19가족은 전부 10명씩의 자녀를 가진 자복가정인데 그 중에도 남자는 9명이 최고이고 여자는 8명이 최고이다. \*인제 발취

현주소	부씨명	직업	연령	모씨명	연령	남	녀	계
인제군 기린면 현리	목촌일랑	면기수	44	씨	39	8	3	11
인제군 내면 창촌리	금남성운	농업	61	보운	45	4	6	10
인제군 내면 창촌리	파평상호	농업	54	인성	60	6	4	10



매일신보

가마니 짜기를 적극 장려 장려기간 설정코 각면서 전습회 강원도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농가의 부업으로 가마니짜기를 적극 장려하고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으로 설정하여...

Table with 5 columns: 장려군, 면수, 장려호수, 밧짚가마니생산매수, 밧짚소요량, 보조금액(원). Rows for Chuncheon and Incheon.

매일신보

10남매 이상 다자 전선에 473가정 선정

(사회면 일부계재) 본사 주최 우량다자가족 표창은 마침내 3일 명치가절을 맞아 전선 각부, 군, 도청 소재지에서 관민 관계자 임석하여 표창장, 상품 등의 수여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Table with 7 columns: 현주소, 부씨명, 연령, 모씨명, 연령, 남, 녀, 계. Rows for Incheon and Incheon.

Advertisement for 'Incheon Do' (江原道) award program. Title: '江原道 賦織으로 積極獎勵 獎勵期間設定코 各面서 傳習會'. Includes a list of districts and their respective award amounts.

Advertisement for 'Ten or more children' (十男妹以上多子) award program. Title: '十男妹以上多子 全鮮에 四百七十三家庭選定'. Includes a list of families and their details.

1942-11-05-04-04

### 매일신보

#### 저축공로자 표창 각지서 표창 전달식 거행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국민저축 20억 돌파 기념 저축공로자를 표창하기로 되어 교육칙어 하사 기념일인 지난 30일에 각군에서 표창전달식을 거행하였다.

- 1. 총독 표창자(단체)-중천창도광산국민저축조합 김화군 창도면 학방리
- 2. 재무국장 표창자(개인부 21명)

군명 씨 명 군명 씨 명 군명 씨 명  
 ▲춘천 강산 돈복 ▲춘천 좌등 삼작 ▲동 평천 등해  
 ▲인제 백천 반칠 ▲양구 광원 만재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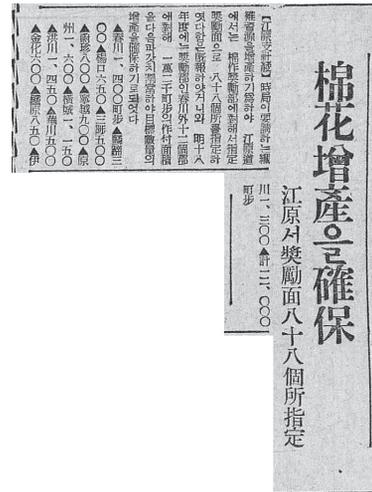


1942-11-06-04-04

### 매일신보

#### 면화 증산을 확보 강원서 장려면 88개소 지정

【강원지사발】 시곡이 요청하는 섬유자원을 증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면작장려부에 대해서 지정 장려면으로 88개소를 지정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내년 1943년도에는 장려군인 춘천 외 12개군에 대해 1만2,000정보의 심은면적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여 목표수량의 증산을 확보하기로 되었다. ▲춘천 1,400정보 ▲인제 300 ▲양구 650 ▲삼척 500 ▲울진 800 ▲영월 900 ▲원주 1,600 ▲횡성 1,150 ▲홍천 1,450 ▲화천 500 ▲김화 600 ▲인제 850 ▲이천 1,300 ▲계 12,000정보



1942-11-08-04-03

### 매일신보

#### 종저 저장을 확보 강원도서 각군 목표 수량을 배당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전시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자와 마령서의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반농가에서 종저의 저장 육묘 기술이 졸렬하여 증산 목표수량에 달치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년도 종저 확보와 저장에 대해서 농후한 지도를 하기로 되었다. 즉 감자는 내년도 심은면적 1,600정보에 대해 반당 15관씩 24만관을 마령서는 심은면적 2만6,700정보에 대해 반당 30관씩 801만관을 저장시키기로 되어 각군에 종저 저장 목표수량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군명	심은예정면적	반당종저량	종저저장목표수량
춘천	5,610	30	16,830
인제	1,477.0	동	443,100
양구	1,101.0	동	330,300
회양	2,034.0	동	612,200
통천	2,525.0	동	757,500
고성	1,079.0	동	323,700
양양	1,411.0	동	423,300
강릉	2,180.0	동	656,700

(중략)



1942-11-11-04-04

매일신보

준법정신을 고조 춘천 외 각지에서 주간행사 강원지사발

준법강조운동에 접어들은 서울지방법원 춘천지청에서는 법을 준수 함이야말로 대어심에 봉복하는 것으로서 신민도의 실천 이것을 일 반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자 주간 첫날인 지난 6일에 경제사범과 유언 비어사범 등의 특별공판을 개정한 것이었는데 지난 9일에도 육군형 법 위반과 경제사범 등에 관한 공판을 개정하여 일반에게 준법사상 을 고취한 적 있었다. 공판은 오전9시부터 대원 판사 심리와 죽내 검 사 입회하에 개정하게 되었는데 법정 내외는 방청하기 위하여 일찍 부터 몰려온 애국반장 등으로 대혼잡을 이루었으며 대원 판사이 심 리가 끝나자 죽내 검사로부터 준열한 논고 끝에 피고 4명에 대한 구 형이 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다. (중략)

- 1. 인제군 복면 신대리 -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피고인 연원구철 구형 6월 언도 6월

1943-04-02-02-01

매일신보

농지가 산출 배율 개정 기초는 임대가, 1일부터 실시 개정된 각지 배율내용

조선의 농지 가격은 임시 농지가격통제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농지 의 매매 가격은 지목별 법정지가에 조선총독이 제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왔었는데 4월 1일을 기하여 지세의 과세 표준을 법정지 가에서 임대차 가격으로 개정함에 따라 농지가격의 산출 기초도 임 대차가격에 따라서 배율의 개정을 보아 4월 1일 총독명으로써 고시 하여 즉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 1. 전선 각군별로 배율을 정하였다.
- 1. 배율은 논에 있어서 최고 50, 최저 10이며 밭에 있어서 최고 70, 최저 9로 되었다.
- 1. 농지가격통제령 실시 후 현저한 경제적 변동이 없었으므로 새로 제정한 배율로 산출한 농지가격과 종전이 배율로 산출한 농지가격 과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 1. 산출방법은 종전의 법정지가에 임대차가를 대체하여 배율을 곱 한 것이 적용되는 농지가격이다.

개정된 각지 배율내용

▲강원도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춘천군 20 25	인제군 17 22	양구군 19 23	회양군 19
통천군 19 23	고성군 19 23	양양군 18 22	강릉군 20 23
삼척군 20 22	울진군 20 23	정선군 18 22	평창군 18 23
영월군 18 23	원주군 20 25	횡성군 19 24	홍천군 19 24
화천군 20 30	김화군 18 30	철원군 18 33	평강군 18 28
이천군 19 28			

### 遵法精神을 高調

#### 春州外各地서 週間行事

京畿支廳에서는 法會, 遵法會의 아달로 大德心에 奉酬하는所以로서 臣民實의 實踐인바를 一般에게 徹底說示키고자 週間 첫날인 지난 六日에 經濟事犯과 流言誹謗犯等의 刑別公判을 延환받았는리, 지난九日에 同 實刑法違反과 經濟事犯等에 關한公判을 開廷하야 一般에게 法思想을 散放받았었다.

○ 午前九時부터 大原判事廳에 竹內檢事立案下에 開廷하기 되었는리, 法廷外에는 傍聽하기 爲하야 일찍부터 몰려온 觀衆 爲하야 一、嚴刑部 西面九萬里 被告人 高本泰來 求刑四月 罰 金五圓 追徵金一一八圓五〇 緩 罰 同上 二、華郡 上 住居侵入 價額裁罰令違反 被告人 李國林 求刑一年 罰 金十圓 三、嚴刑部 北 朝鮮臨時保安會違反 被告人 延原九權 求刑八月 罰 金十圓 四、嚴刑部 南 現下決戰體制違反 被告人 兪熙萬 求刑八月 罰 金十圓

○ 本廳 嚴刑部 現下決戰體制違反 被告人 兪熙萬 求刑八月 罰 金十圓 五、嚴刑部 現下決戰體制違反 被告人 兪熙萬 求刑八月 罰 金十圓

○ 高檢 國民權力高等法院 根絕和 流言誹謗犯等

### 農地價算出倍率改正

#### 基礎二價價、一日自實施

#### 改正된各各地倍率內容

縣	地目	倍率	縣	地目	倍率
▲江原道	春川	20 25	▲忠清道	忠清南	18 22
▲江原道	通川	19 23	▲忠清道	忠清北	18 22
▲江原道	三陟	20 22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英陽	18 23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華川	20 30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伊川	19 28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新寧	17 22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高城	19 23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陽谷	19 23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陽陽	18 22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正善	18 22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橫城	19 24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鐵原	18 33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平康	18 28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會陽	19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江陵	20 23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平昌	18 23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洪川	19 24	▲忠清道	海美	18 22
▲江原道	平康	18 28	▲忠清道	海美	1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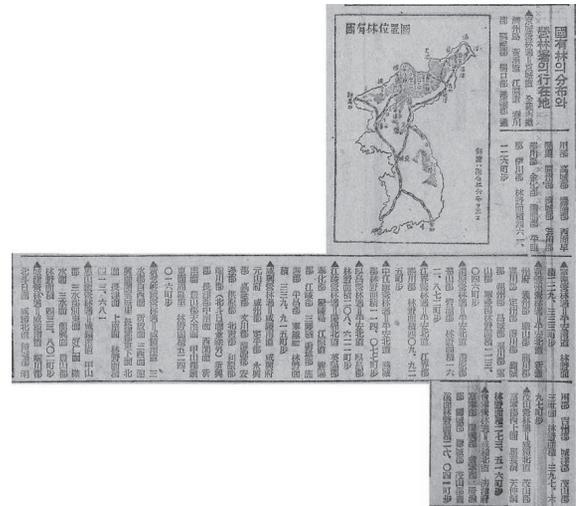
1943-07-12-02-11

### 매일신보

#### 국유림의 분포와 영림서의 行在地

▲서울영림서=서울도 전라남도 제주도 황해도 강원도 춘천군 인제군 양구군 회양군 통천군 고성군 양양군 서면 조개리 원주군 횡성군 홍천군 화천군 김화군 철원군 평강군 이천군 임야면적 461,126 정보 (중략)

▲강릉영림서=경상북도 영양군 봉화군 울릉도 강원도 양양군 강릉군 삼척군 울진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임야면적 339,915정보 (중략)



1943-08-31-02-01

### 매일신보

#### 광영의 징병 검사 앞두고 전조선에 징모구 설치 10월 1일부터 실시 결정

조선에 징병을 실시하는 개정 병역법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되어 내년 제1회로 병역에 들어갈 적령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에 그 호주가 본적 부윤읍면장에 적령계를 내고 이 신청을 기초로 군에서는 내년 4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징집할 인원을 결정하고 현역병은 12월 1일부터 순차로 각지 부대에 입영하게 되는 것인데 징집할 인원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인 징모구가 육군성령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징모구는 병원을 징집하는 지역적 표준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다시 검사구를 두어 징병검사를 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1징모구에 1검사구로 되어있으나 조선에서는 넓은 지역에 교통이 불편한 실정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1징모구를 다시 여러 검사구로 나누어 검사를 받는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고 검사구의 설치는 따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조선 전체를 조선관구로 하고 각도별로 도청소재지에 병사구를 두고 그 아래에 인구의 비례에 따라 몇 부군을 1징모구를 편성하였는데 조선에 재주하는 일본인에 한하여 각 병사구를 징모구로 한다.

#### 징모구 일람

##### ▲춘천병사구(강원)

- 제1징모구=회양 이천 평강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인제 춘천의 각군
  - 제2징모구=홍천 횡성 평창 원주 영월 정선의 각군
  - 제3징모구=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의 각군
- (중략)



1944-05-08-02-08

### 매일신보

## 교자타고 130리 병구 이끌고 검사장 나온 징병미담

찬연한 세기의 광망을 발하며 야마모도, 고가 두 사령관이 가신 곳 그곳은 1억 국민, 순국의 정열이 일제히 밀물처럼 몰려드는 조국에 의 성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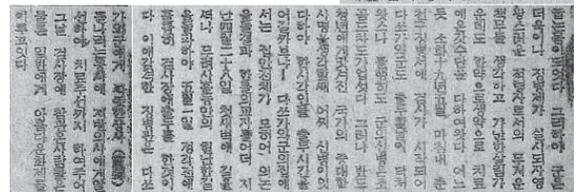
『우리들도 원수 두분의 뒤를 따르자』 힘차게 어깨를 젖고 두 원수가 남기고 간 위대한 교훈으로 가슴 속에 격렬한 전투정신을 불태우며 국민 일제히 우렁찬 행진곡에 또 한번 끝모를 웅장한 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 몇해동안 신병으로 자리에 누웠던 몸을 이끌어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130리 첩첩산중 험준한 길을 교자에 몸을 싣고 기어코 검사장에 출두를 한 조선인 출신 징병적령자의 믿음직스러운 이야기가 6일 조선 군 보도부에 전하여왔다. 금강산의 줄기를 따라 병풍처럼 예리한 층암절벽이 무수히 가로놓인 강원도 인제군 5월의 눈부신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훈풍에 하늘하늘거리는 신록을 뚫고 한사람의 청년을 태운 교자가 너웃너웃 좁다란 산길을 넘어간다. 교자에 등을 실은 청년의 창백한 얼굴이 교가는 두 사람 중년농부 춘천으로 춘천으로 그들 일행은 걸음을 빨리한다. 이교자 속에는 진실로 증만하나 징병 적령자 한사람을 싣고 일로 춘천징병검사장을 향하여 이미 사흘동안 불면불휴의 꾸준한 행진을 계속한 것이었다. 교자에 몸을 실은 청년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155번지 다쓰가와(용천환면)군에 고가는 두농부는 다쓰가와 사촌형들 뒤를 따르는 노인네는 다쓰가와군의 어머니가 다쓰가와군은 우로 늙은 양친을 모시고 상남리 산자수명한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중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우연히 허리에 병(요부우증 가리에스)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는 몸이 되었다. 그리하여 군은 더욱이나 징병제가 실시되자 영광스러운 적령자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생각하고 가난한 살림가운데도 한약으로 생약으로 치료에 온갖 수단을 다하여왔다. 어느덧 1944년 5월 마침내 춘천군징병서에 검사가 시작되어 다쓰가와군도 출두할 날이 닥쳐왔으나 불행히도 군의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청년에게 맡겨진 국가의 중대한 사명을 생각할 때 어찌 신병이 있다하여 한시각인들 출두시간을 어길까보내! 다쓰가와군의 집에서 집안전체가 모여 의논을들 결과 한틀의 교자를 얻어 지난 4월 28일 첫새벽에 길을 떠나 무려 사흘동안의 험난한 길을 돌파하여 5월 1일 정각 전에 훌륭히 검사장에 출두를 한것이다. 이에 감격한 징병관은 다쓰가와군에게 따뜻한 상사를 내리는 동시에 지방의사에게 알선하여 치료주선까지 하여주어 그날 검사장에 참관은 사람들은 물론 일반에게 아름다운 화제를 이루고 있다.

1945-02-16-02-07

### 매일신보

## 인제군민호 해군에 기금 10만원 헌납

비율비의 결전에 호응하여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군민일동의 적성으로 작년 연말과 금년 연시에 결전생활 실천주간을 실시하여 절약된 돈 10만원을 모아가지고 14일 동군 가네야마(금산용광)군수가 서울지방 해군 인사부에 가지고 와서 함상 폭격기 1기 제작기금으로 헌납하였다.





■ 인제지역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자료집

인쇄 2015년 12월 28일

발행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남덕우 인제문화원장

기획인 백창현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자료조사 한동환 외 2인

펴낸곳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TEL 033)461-6678

편집 도서출판 산책

제작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дук길 23

TEL 033)254-8912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인제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도·군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